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67-01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13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3)

2012. 9.

- 목 차 -

1. 세종실록 <2> 기사자료집 : 세종 6년 6월 ~ 세종 32년 2월 1

1. 세종실록 <2> 기사자료집

세종실록 <2> 기사자료집 : 세종 6년 6월 ~ 세종 32년 2월

날짜	내용	원문
<p>世宗 24卷, 6年(1424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6月 29日(壬申) 2번째기사</p> <p>예조에서 계한 원경 왕후에게 존호를 더 올리는 의주</p>	<p>예조에서 원경 왕후(元敬王后)에게 존호(尊號)를 더 올리는 의주(儀注)를 제하기를, “기일(期日)보다 3일 전에 전하는 별전(別殿)에서 재계(齋戒)하고, 책사(冊使)와 헌관(獻官) 이하 여러 집사는 본 아문(衙門)에서 재계한다. 2일 전에 책(冊)을 임시로 봉안(奉安)할 악차(輦次)를 광효전(廣孝殿) 중문 밖에다 지형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설치한다. 하루 전에 예고제(預告祭)를 거행한다. 【삭망제(朔望祭)의 예(例)를 사용한다.】 새벽 3각(刻) 전에 유사는 근정전 월대(勤政殿月臺) 위의 한가운데에다 전하의 전책위(傳冊位)를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으로 배설(排設)하고, 책안(冊案)은 전책위의 서쪽에 남향으로 설치하여, 내시(內侍) 두 사람이 책안의 좌우에 갈라 서게 한다. 향안(香案)은 책안 앞에 설치하고, 협률랑의 자리는 서계 위에 동향으로 설치한다. 책사(冊使)와 헌관의 자리는 전정(殿庭)의 한가운데에 서쪽으로 가까이 북향되게 설치하고, 압책관(押冊官)은 책함(冊函)을 받은 자와 책안을 가진 자를 거느리고 책사의 남쪽에 있는데, 등급에 따라 자리를 달리 하여 여러 줄로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 하여 선다. 찬자(贊者) 두 사람의 자리는 여러 관원의 배위(拜位) 북쪽에 설치하되, 동서(東西)에서 서로 향하게 하며, 왕세자 이하 문무 백관의 자리는 전정(殿庭)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의장(儀仗)은 전정의 안팎에 진설(陳設)하고, 악부(樂部)는 백관의 남쪽에 진설한다. 【진</p>	<p>禮曹啓元敬王后加上尊號儀注： 前期三日，殿下齋于別殿，冊使及獻官以下諸執事齋于本衙門。 前期二日，設權安冊輦於廣孝殿中門外， 隨地之宜。 前期一日，行預告祭。 【用朔望祭例】 晨前三刻，有司設殿下傳冊位於勤政殿月臺上中央近東西向，設冊案於傳冊位之西南向，內侍二人分立冊案左右，設香案於冊案前，設協律郎位於西階上東向，冊使及獻官位於殿庭中央近西北向， 押冊官帥奉冊函者及持冊案者，在冊使之南，每等異位重行，北面東上， 設贊者二人位於衆官拜位之北，東西相向，設王世子以下文武百官位於殿庭東西如常儀， 陳儀仗於殿庭內外，陳樂部於百官之南。 【陳而不作】 時至，有司奉冊函及祝版函置案上。 【冊函在西】 協律郎先入就位，王世子以下</p>

설하여 놓기만 하고 연주하지는 아니한다.】
시각이 되면, 유사는 책함(冊函)과 축판함(祝版函)을 안(案) 위에 둔다.【책함은 서쪽에 있게 한다.】 협률랑(協律郎)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왕세자 이하 문무 백관과 책사(冊使) 이하 행례(行禮)할 관원(官員)들은 각기 평상복(平常服)과 흑대(黑帶) 차림으로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가면, 통례문(通禮門)이 왕세자 이하 문무 백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간다. 다음에 책사 이하 행례할 관원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선다. 전하는 평상복과 흑대로, 전(殿)을 나와 욕위(褥位)에 나아가간다. 찬례(贊禮)가 ‘재배(再拜)하라.’ 찬(贊)하면, 전하가 재배하고, 통찬(通贊)이 ‘재배하라.’ 외치면, 왕세자 이하 여러 관원과 책사·헌관 및 행례할 관원들은 모두 재배한다. 근시(近侍)한 사람이 향합(香合)을 받들고 꿇어앉아 전하의 오른편에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들고 꿇어앉아서 왼편에서 올린다. 찬례가 ‘꿇어앉으라.’ 찬하면, 전하가 꿇어앉고, 통찬이 ‘꿇어앉으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꿇어앉는다. 찬례가 ‘상향(上香)하라.’ 찬하면, 전하가 상향하고, 근시(近侍)가 향안 위에 놓는다. 찬례가 ‘부복, 흥, 평신’ 이라 찬하면, 전하는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부복, 흥, 평신’ 이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재배하라.’ 찬하면, 전하가 재배하고, 통찬이 ‘재배하라.’ 외치면, 왕세자 이하 여러 관원은 모두 재배한다. 봉례랑(奉禮郎)이 책사와 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서 전책위의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 하여 선다. 지신사(知申事)가 책함을 받들어 올리면, 찬례가 ‘꿇어앉으라.’ 찬하면, 전하가 꿇어앉고, 통찬이 ‘꿇어앉으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꿇어앉는다. 전하가 책함을 받아서 책사에게 전해 주면, 책사는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받고, 서향하여 선다. 지신사가 축판을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리면, 전하는 또 받아서 헌관에게 전해 주는데, 헌관은 꿇어앉아서 받고, 서향하여 선다. 찬례가 ‘부복, 흥, 평신’이라 찬하면, 전하가 부

文武百官及冊使以下應行禮官，各以常服、黑帶，俱就殿門外。通禮門引王世子以下文武百官入就位，次引冊使以下應行禮官入就位。立定，殿下常服黑帶，出殿詣褥位，贊禮贊再拜，殿下再拜。通贊喝再拜，王世子以下衆官及冊使、獻官、應行禮官皆再拜。近侍一人奉香合，跪進於殿下之右，一人奉香爐，跪進於左，贊禮贊跪，殿下跪。通贊喝跪，衆官皆跪。贊禮贊上香，殿下上香，近侍奠于案上。贊禮贊俯伏興平身，殿下俯伏興平身。通贊喝俯伏興平身，衆官皆俯伏興平身。贊禮贊再拜，殿下再拜。通贊喝再拜，王世子以下衆官皆再拜。奉禮郎引冊使、獻官升自西階，詣傳冊位之南，北面東上，知申事奉冊函以進。贊禮贊跪，殿下跪。通贊喝跪，衆官皆跪。殿下受冊函傳授冊使，冊使東向跪受，西向立。知申事奉祝版跪進，殿下又受，傳授獻官，獻官跪受西向立。贊禮贊俯伏興平身，殿下俯伏興平身。通贊喝俯伏興平身，衆官皆俯伏興平身。贊禮贊再拜，殿下再拜。通贊喝再拜，衆官皆再拜。冊使、獻官由中

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통찬이 ‘부복, 흥, 평신’ 이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재배하라.’ 찬하면, 전하가 재배하고, 통찬이 ‘재배하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재배한다. 책사와 헌관은 가운데 길을 통해서 나오고 내시는 책안을 받들고 책사의 뒤를 따라 나와서 안(案)을 가진 자에게 전해준다.

압책관(押冊官)과 책안을 받든 자는 책사의 뒤를 따르고, 전하는 섬들을 내려 문으로 가서 지송(祇送)하고, 여러 관원은 모두 국궁(鞠躬)한다. 책사가 문을 나와 책함을 누자(樓子)에 봉안하면, 의장(儀仗)과 악부(樂部)가 앞에서 인도한다. 전하는 내전(內殿)에 돌아가고, 통례문은 왕세자 이하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각사(各司)의 한 사람씩이 뒤를 따라 광효전에 이르면, 책사는 책함을 받들고 중문 밖의 악차에 들어와 임시로 안(案) 위에 봉안하고, 전사(殿司)가 이를 지키며, 【백관은 궁문 밖에 차례로 서서 사배하고 물러간다.】 책사 이하는 물러나 자리에 나아간다. 그날 행례(行禮)하기 전에, 유사는 책사 이하 행례할 여러 관원의 자리를 전(殿)의 내정(內庭)에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관위를 달리 하여 여러 줄로 서향하며, 북쪽이 위가 되게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책사는 책함을 받들고 정문(正門)으로 들어오고, 봉책관(奉冊官)은 책사의 뒤를 따라 중계(中階)로 올라온다. 【안(案)을 가진 자가 먼저 올라와서 안을 태후의 신좌(神座) 앞에 둔다.】 책사는 꿇어앉아 책함을 안 위에 봉안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나서 동계(東階)로 내려와 배위(拜位)로 나아가고, 행례할 관원은 모두 배위(拜位)에 나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외치면, 책사 이하 모두 사배한다. 책사가 동계로 올라가 태후(太后)의 신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독책관(讀冊官)이 책안 앞에 나아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책함을 열고 책을 받들어 조금 물러나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책을 읽고 나서 함 안에 도로 들여넣는다. 책사와 독책관

道出，內侍奉冊案，隨冊使後，傳授冊案者。 押冊官與奉冊案者隨冊使後，殿下降階至門祇送，衆官皆鞠躬。 冊使出門，以冊函安於樓子，儀仗、樂部前導，殿下還內。 通禮門引王世子以下衆官以次出，各司一員隨後。 至廣孝殿，冊使奉冊函，入詣中門外幄次，權安於案上，殿司守之，【百官止於宮外序立，四拜而退。】冊使以下退就次。 其日未行禮前，有司設冊使以下應行禮官位於殿內庭東階東南，異位重行，俱西向北。 時至，冊使奉冊函，入自正門，奉冊官隨冊使後，升自中階，【持案者先升，置案於太后神座前。】冊使以冊函跪安於案上，俛伏興退，降自東階，就拜位，應行禮官皆就拜位。 贊者喝四拜，冊使以下皆四拜訖，冊使升自東階，就太后神座前北向跪，讀冊官詣冊案前俛伏興，開函奉冊小退東向跪，讀冊訖，還納函中。 冊使及讀冊官俛伏興退降復位，贊者喝四拜，冊使以下皆四拜。 贊者喝禮畢，以次引出，有司設饌。【饌品用別祭例】獻官行祭如朔望儀。【祝文兼告獻冊意】”

	<p>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 제자리로 내려오면, 찬자가 ‘사배하라.’ 외친다. 책사 이하 모두 사배하고, 찬자가 ‘예(禮)가 끝났다.’고 외치면, 차례로 인도하여 나온다. 유사가 찬품(饌品)을 진설하며, 【찬품은 별제(別祭)의 예(例)와 같다.】 헌관이 제사를 거행하는 것은 삭제와 망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축문에 헌책(獻冊)을 고한다는 뜻도 겸한다.】.”</p> <p>하였다.</p>	
<p>世宗 24卷, 6年 (1424 甲辰 / 명 영락 (永樂) 22年) 6月 29 日(壬申) 3번째기사 사시와 납일·명절에 친향하는 의주</p>	<p>사시(四時)와 납일(臘日)·명절(名節)에 친향(親享)하는 의주(儀註)는, “친향하기 3일 전에, 전하는 이틀 동안 산재(散齋)하고, 하루 동안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할 때는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아니하고, 풍악을 듣지 아니하며, 유사는 형살(刑殺)에 관계되는 문서를 아뢰지 아니하고, 치재(致齋)는 오직 향사할 일만을 아뢴다. 무릇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 및 근시(近侍)할 관원과 당연히 따라 오를 자도 아울러 이틀 동안 산재하고, 하루 동안 치재한다. 무릇 산재할 때에는 일은 전(前)같이 다스리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과·달래·마늘·부추 따위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弔喪)과 문병을 아니하고, 노래를 듣지 아니하며, 형(刑)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刑殺)에 관계된 문서를 판결하거나 서명(署名)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에 관여(關與)하지 아니한다. 치재(致齋) 중에는 오직 향사(享事)에 관한 일만을 행하며, 이미 재계하고 꺾(闕)하게 된 자는 <다른 사람으로> 변통하여 섭행하게 한다. 배제(陪祭)할 문무 여러 관원과 여러 위(衛)의 소속(所屬)과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자와 공인(工人)도 아울러 하루 밤을 청재(淸齋)한다. 【향관 이하 제사에 참여할 자는 모두 친향(親享)하기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p> <p>진설(陳設)은, 친향(親享)하기 이틀 전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殿) 안팎을 소제한다. 하루 전에 전악령(典樂令)이 악현(樂懸)을 전정(殿庭)의 서쪽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한다.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版位)를 동계(東階)</p>	<p>四時及臘, 有名日親享儀: 前享三日, 殿下散齋二日, 致齋一日。 凡散齋, 不弔喪、問疾、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 致齋唯啓享事。 凡行事執事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並散齋二日, 致齋一日。 凡散齋,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歌,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與穢惡事, 致齋唯行享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陪祭文武群官及諸衛之屬守衛殿門者及工人俱淸齋一宿。 【享官以下凡與祭者, 皆前享二日, 沐浴更衣。】</p> <p>陳設: 前享二日, 殿司率其屬, 掃除殿之內外。 前一日, 典樂令設樂懸於殿庭近西北向。 通禮門設殿下版位於東階東南西向, 設亞獻官、終獻官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 西向北上, 設通贊二人位於東階之西西向, 【若內庭狹窄,</p>

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의 자리는 전하의 관위 뒤에 남쪽 가까이 서향해서 설치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통찬(通贊) 두 사람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만약 내정(內庭)이 좁으면, 외정(外庭)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전악(典樂)의 자리는 악현(樂懸)의 북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배제(陪祭)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外庭)에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으로 하며,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관위를 달리하여 여러 줄로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 둘은 동·서반(東西班)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각기 그 뒤에서 모시게 된다. 전사는 전(殿)의 안팎을 소제한다. 교서관(校書館) 관원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이 받들어 전하여 올려, 전하가 서(署)한 다음, 근신이 받들고 나와서 전사에게 교부한다. 친향 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는 묘실(廟室) 문을 열어 신악(神幄)을 정돈하고 〈먼지를〉 털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점(坫)이 있다.】 향로·향합과 축을 신위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구(饌具)를 진설한다. 준소(尊所)는 지계문 밖 왼편에 설치하고, 복주잔(福酒盞)은 준소에 둔다. 예향(禮享)을 행사하기 3각 전에, 전사는 묘실을 열고 신악을 정돈하며 〈먼지를〉 털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饌具)에 찬수를 담는다. 여러 향관과 배제할 관원은 모두 전문(殿門) 밖으로 나아간다. 2각 전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시각을 알리면, 전하는 여(輿)를 타고 나와 임시로 재전(齋殿)에 나아간다. 1각 전에 전악 령이 악공(樂工)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고, 통례문이 종실 이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간다. 지통례는 아헌관 이하가 관세(盥洗)하기를 기다려 아헌관 【아헌관이 만약 왕세자가 아니면, 봉례랑(奉禮郎)이 인도한다.】을 인도하고, 봉례랑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간다. 대축이

則設於外庭東階西南西向。】設典樂位於樂懸之北北向，設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文東武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設監察位二於東西班後北向，書吏各陪其後，殿司掃除殿之內外。校書官員以祝版奉進，近臣傳奉以進，殿下署訖，近臣奉出附殿司。享日未行事前，殿司開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坫】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設福酒盞於尊所。行禮：享日未行事前三刻，殿司開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前二刻，書雲觀報時，殿下乘輿以出，權就齋殿。前一刻，典樂令率工人入就位，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知通禮待亞獻官以下盥帨訖，引亞獻官，【亞獻官若非王世子，則奉禮郎引。】奉禮郎引終獻官入就位。大祝開櫝，奉出太宗位版設於座次。宮闈令開櫝，奉出王太后位版設於座。判通禮跪啓外辦，殿下盥帨

독(櫝)을 열고 태종의 위판을 모셔 내어서 좌차에 봉안하고, 궁위령은 독을 열고 왕태후의 위판을 모셔내어서 좌차에 봉안한다. 판통례가 꿇어앉아서 외판(外辦)을 아뢴다.

전하가 관세하기를 마치면, 찬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 들어오며, 【시위로서 들어오지 못할 자는 문밖에서 머무른다.】 악(樂)이 시작된다. 전하가 판위에 와서 서향하여 서면, 악이 그친다. 찬례가 꿇어앉아서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계청하면,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면, 악을 시작했다가, 동계로 올라간 뒤에 【섬들을 오르내릴 때에는 상하가 모두 읍(揖)을 한다.】 악은 그친다.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악을 시작한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근시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찬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지계문 밖에서는 읍하고, 지계문 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는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찬례가 향을 세 번 올리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향을 세 번 올리는데, 근시가 향로를 안(案)에 드리게 한다. 【진향(進香)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전로(奠爐)는 서쪽에서 동향하여 하고, 진잔(進盞)·전잔(奠盞)도 이에 준한다.】 근시가 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찬례가 집잔 헌잔(執盞獻盞)하기를 계청한다. 전하가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근시가 꿇어앉아 부잔(副盞)을 올리면 찬례가 집잔 헌잔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근시에게 주어 왕태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찬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고, 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

訖, 贊禮導殿下入自東門, 【侍衛不應入者止於門外。樂作】殿下至版位西向立, 【樂止】贊禮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 殿下鞠躬四拜興平身。通贊贊鞠躬四拜興平身, 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贊禮導殿下【樂作】升自東階訖, 【升降階上下皆有揖。樂止】詣尊者所西向立, 【樂作】執尊者酌酒, 近侍二人以盞受酒。贊禮導殿下, 入詣神位前【戶外有揖, 戶內伏地。】北向立, 啓請跪, 殿下跪, 近侍一人奉香合跪進, 近侍一人奉香爐跪進, 贊禮啓請三上香, 殿下三上香, 近侍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 奠爐在西東向。進盞奠盞準此。】近侍奉盞跪進, 贊禮啓請執盞獻盞, 殿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神位前。又近侍以副盞跪進, 贊禮啓請執盞獻盞, 殿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王太后神位前。贊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 殿下俛伏興小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 讀祝文訖, 【樂作】贊禮啓請俛伏興再拜興平身, 殿下俛伏興再拜興平身, 【樂止】贊禮導殿下出戶, 【樂作】降自東階復位。【樂止】知通禮

어앉아서 축문을 다 읽으면, 악을 시작한다. 찬례가 ‘면, 복, 흥, 재배, 흥, 평신’이라 계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악이 그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오면, 악이 시작되고,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면, 악이 그친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악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꿨어앉으라’ 찬(贊)하여, 아헌관이 꿨어앉는다. 집사자가 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지통례는 ‘집잔 헌잔하라.’ 찬한다. 아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가 부잔(副盞)을 아헌관에게 주면, 지통례가 ‘집잔 헌잔하라.’ 찬하여, 아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태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지통례가 ‘면, 복, 흥, 소퇴(小退), 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아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악은 그친다. 그리고 인도해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봉례랑이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행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음복위(飲福位)를 앞기둥[前楹] 밖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한다.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 잔으로 복주(福酒)를 따라 근시에게 준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면, 악이 시작되고,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근시가 잔을 받들어 북향하여 꿨어앉아 올린다. 찬례가 꿨어앉아서 잔을 받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꿨어앉아서 잔을 받아 마시고, 근시는 빈 잔을 받아서 도로 준소에 둔다. 찬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고, 악은 그친다.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재배, 흥, 평신’이라 찬

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
【樂作】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知通禮引亞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亞獻官跪，執事者以盞授亞獻官，知通禮贊執盞獻盞，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又執事者以副盞授亞獻官，知通禮贊執盞獻盞，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太后神位前。知通禮贊俛伏興小退再拜興平身，亞獻官俛伏興小退再拜興平身，**【樂止】**引降復位。奉禮郎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尊所，以盞酌福酒授近侍。贊禮導殿下**【樂作】**詣飲福位西向立，近侍奉盞北向跪進，贊禮啓請跪受盞，殿下跪受盞飲訖，近侍受虛盞復於尊所。贊禮啓請俛伏興，殿下俛伏興。贊禮導殿下降復位，**【樂止】**啓請鞠躬再拜興平身，殿下鞠躬再拜興平身。通贊贊鞠躬再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再拜興平身。贊禮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通贊贊鞠躬四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贊禮啓禮畢，導殿下還

	<p>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면,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p> <p>찬례가 예(禮)가 끝났다고 아뢰고, 전하를 인도해서 재전으로 돌아가면, 악이 시작되고, 문을 나오면, 악이 그친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봉례랑은 중헌관을 인도하여 나가며, 통례문은 배제(陪祭)한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전악 령은 악공을 거느리고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위관을 들여넣는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지계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나고, 축관은 구덩이에 묻는다. 전하는 여를 타고 환궁한다. 행사할 집사관은, 아헌관【왕세자.】, 중헌관【정일품(正一品).】, 전사관【봉상시 윤(奉常寺尹) 이상.】, 대축【내제(內製).】, 궁위령【내시부(內侍府).】, 응봉관 근시(應奉官近侍)【승정원(承政院).】, 찬례【중2품(從二品).】, 관통례【통례문.】, 통찬【통례문.】이며, 섭행(攝行)할 때의 행사할 집사관은, 헌관【1품.】, 전사관【봉상시.】, 대축【문관 참외(文官參外).】, 궁위령【내시부.】, 알자(謁者)【참외(參外).】, 찬자【참외.】, 찬인【참외.】, 재랑(齋郎)【참외.】, 감찰이다. 삭망제(朔望祭)에는 악현(樂懸)이 없다.”</p> <p>하였다.</p>	<p>齋殿【樂作】出門【樂止】知通禮引亞獻官，奉禮郎引終獻官出，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典樂令率工人出。大祝、宮闈令納位版，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闔戶以降乃退，祝版壅於坎，殿下乘輿還宮。行事執事官：亞獻官【王世子】終獻官【正一品】典祀官【奉常寺尹以上】大祝【內製】宮闈令【內侍府】應奉官近侍【承政院】贊禮【從二品】判通禮【通禮門】通贊【通禮門】。攝行則行事執事官：獻官【一品】典祝官【奉常寺】大祝【文官參外】宮闈令【內侍府】謁者【參外】贊者【參外】贊引【參外】齋郎【參外】監察。朔望祭則無樂懸。</p>
<p>세종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7월 2일(을해) 2번째기사 기일 전에 통례문이 자리 배치를 하고 대</p>	<p>답제의 의주(儀注)에, “기일 전에 통례문이 전하의 판위(版位)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과 중헌관의 자리는 전하 판위 뒤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하는데, 관위(官位)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게 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집례의 자리는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알자·찬자·찬인의 자</p>	<p>禪祭儀註： 前期，通禮門設殿下版位於東階東南西向；設亞獻官、終獻官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西向北上，執事者位於其後，異位重行，俱西向北上，設執禮位於東階西南，西向，謁者、贊者、贊引在南</p>

왕과 왕후의 신주 앞에 담제를 지내다

리는 남쪽으로 조금 물려서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며 북쪽을 위로 한다. 【만약 내정(內庭)이 좁으면 찬자의 자리는 외정(外庭)에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하고, 중심이 위가 되게 하되, 관위(官位)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고, 모두 북향하게 한다. 【종실은 길 서쪽에서 앞줄에 있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동·서반(東西班) 뒤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리(書吏)가 각기 그 뒤에서 모시게 된다.

전사관(典祀官)이 그 속관들을 인솔하여 축관을 영좌의 오른쪽에 【점(坫)이 있다.】 올려놓고, 폐백 광주리 둘은 준소에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축(燭)을 영좌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제기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고, 준(尊)은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되, 【현주(玄酒)는 서쪽에 둔다.】 모두 국자를 올려놓고 보자기를 덮어 놓는데,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게 하는데, 소반[盤]과 대야[匱]를 갖춘다.】 뇌(鬯)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籩]는 세의 서남쪽에 늘어 놓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작(爵)을 씻는 광주리면 또한 찬(瓚)과 작(爵)을 담는다.】 아헌관과 중헌관의 세(洗)는 또한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게 하는데, 만약 왕세자가 아헌하게 되면 따로 세를 중헌관의 세 서쪽에 설치하는데, 소반과 대야를 갖춘다.】 뇌는 세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늘어 놓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을 씻는 광주리면 또한 작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아헌관·중헌관의 세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이 그 속관을 인솔하고 들어와서 찬수를 제기에 담으면, 여러 향관과 배제(陪祭)하는 여러 관원은 모두 전문(殿文) 밖으로 나아간다.

小退，俱西向北上；【若內庭窄狹，則設贊者位於外庭東階西南西向。】設宗室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文東武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宗室於道西在前行】設監察位二於東西班後，北向，書吏各陪其後。典祀官率其屬，奠祝版於靈座之右，【有坫】陳幣籩二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玄酒在西】皆加勺鬯，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有盤匱。】鬯在洗東加勺；籩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籩，則又實以瓚爵】亞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若王世子亞獻，則別設洗於終獻洗之西，有盤匱】鬯在洗東加勺，籩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籩則又實以爵】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時至，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判通禮導殿下乘輿以出，權就齋殿卽座。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立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연(輦)을 타고 나오게 하여, 임시로 재전(齋殿)으로 나아가서 자리[座]에 앉게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인솔하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겹줄로 서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사배하고 나서,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대축·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서면,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무릇 집례가 말하면, 찬자가 모두 전창(傳唱)한다.】 전사관 이하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아헌관과 【만약 왕세자가 아헌하게 되면, 지통례가 인도한다.】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궤(匱)를 열고 대왕의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자리[座]에 모시고 흰 모시수건으로 덮고, 궁위 령(宮闈令)이 궤를 열고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대왕의 신주는 서쪽에 있다.】 집사자가 작세위에 나아가서 찬을 씻고 찬을 닦고, 작을 씻고 작을 닦아 광주리에 넣어 준 소로 받들고 나아가 점(坫) 위에 놓는다.

예조 관서가 재전(齋殿)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나서, 구부렀다 일으켰다가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에서 나와 관위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내시가 꿇어앉아 대야를 집어서 물을 떠서 부으면, 또 한 내시가 소반으로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가 꿇어앉아서 광주리에서 수건을 집어서 올린다. 전하가 손을 닦기를 마치면, 내시가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다 놓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솔하여 동계로 올라 【근시와 내시가 따라 오른다.

定，執禮曰四拜，【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典祀官以下皆四拜訖，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謁者引亞獻官【若王世子亞獻，則知通禮引。】終獻官入就位。大祝開匱，捧出大王神主，設於座，覆以白紵巾。宮闈令開匱，捧出王后神主，設於座，覆以青紵巾。【大王神主在西】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篚，捧詣尊所，置於坫上。禮曹判書進當齋殿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齋殿詣版位西向立，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先拜者不拜】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內侍跪取匱興沃水，又內侍跪取盤承水，殿下盥手。內侍跪取巾於篚以進，殿下帨手訖，內侍受巾奠於篚。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近侍、內侍從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鬱鬯，近侍以瓚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捧香合跪進，近侍一人捧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근시가 찬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함을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근시가 향로를 안(案) 위에 올려놓는다. 근시가 찬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찬을 잡아 땅에 붓고 나서 찬을 근시에게 주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가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진향(進香)·진찬(進瓚)·진폐(進幣)는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전로(奠爐)·수찬(受瓚)·전폐(奠幣)는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하고,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에 준하여 한다. 】 또 근시 한 사람이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른다. 근시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가 작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작 헌작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작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하고, 또 한 사람의 근시가 다음 작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작 헌작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작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하고,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대축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판통례가

爐于案。 近侍以瓚跪進，判通禮啓請執瓚灌池訖，以瓚授近侍，近侍受以授大祝。 近侍以幣筐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靈座前。

【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 進爵、奠爵準此。】 又近侍一人以幣筐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 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導殿下降自東階復位。 小頃，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近侍二人以爵受酒。 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以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靈座前。 又近侍以副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 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導殿下降復位。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帨訖，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二人以爵受酒。 謁者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

	<p>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p> <p>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서 관세하기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꿨어앉으라.’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집작 현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전드리게 하고, 집사자 또 한 사람이 다음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집작 현작하는데 작을 집사에게 주어 왕후 신좌 앞에 전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그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그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예조 판서가 꿨어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p> <p>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으로 돌아가고,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아가고, 통례문이 배제(陪祭)하였던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서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가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과 궁위 령이 신주를 들어 모시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인솔하여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이 그 속관을 인솔하고 예찬(禮饌)을 견어치우고, 축과 폐백은 구덩이에 묻는다. 여러 관원이 반(班)을 동쪽 가까이 옮기고, 반수(班首)는 이름을 올려 봉위(奉慰)한다. 상의원(尙衣院)에서 길복(吉服)과 안</p>	<p>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禮曹判書跪啓禮畢，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還齋殿，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贊引引典祀官以下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以下諸執事皆四拜，贊引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幣瘞於坎。群官移班近東，班首進名奉慰。尙衣院上吉服及鞍馬，王世子以下文武群臣，皆服吉服還宮。禮曹又上世子殿鞍馬，文武群臣入庭陳賀。”</p>
--	---	---

	<p>장 갖춘 말[鞍馬]을 올리고,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길복을 입고 환궁한다. 예조에서 또 세자전(世子殿)에 안장 갖춘 말을 올리고, 문무 백관은 뜰에 들어와서 하례를 올린다.”</p> <p>하였다.</p>	
<p>世宗 25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7月 16日(己丑) 3번째기사</p> <p>진헌할 어물의 수를 채우게 하였음을 지신사 곽존중을 보내어 사신에게 말하다</p>	<p>지신사 곽존중을 보내어 사신에게 고하기를,</p> <p>“이제 진헌(進獻)할 어물(魚物)은 맡은 관청에서 잘못 계산하여 1만 근이 차지 못하므로, 내가 즉시 그 관청에 명령하여 1만 근을 채우게 하고, 또 2백 근을 더하였노라.”</p> <p>하니, 사신 왕현(王賢)이 기뻐하며 말하기를,</p> <p>“나는 황제에게는 종이요, 전하에게는 아들이니, 지성으로 갖추어 진헌하니 기쁘기 비할 데 없습니다.”</p> <p>하였다.</p>	<p>遣知申事郭存中, 告使臣曰: “今進獻魚物, 所掌官司錯計, 未滿一萬斤。予卽命其司, 充一萬斤, 又加二百斤。” 王賢喜云: “我於皇帝奴也, 殿下子也。至誠備獻, 喜無可比。”</p>
<p>세종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8월 20일(임술) 3번째기사</p> <p>흉년에 대비해 일정한 수량의 도토리를 예비하도록 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p> <p>“농사가 흉년이 든 각 고을의 구황(救荒)할 초식(草食)은 정한 수량이 없기 때문에, 많을 때는 일을 전폐하기에 이르고, 적을 때는 흉년을 구제하지 못하게 되오니, 지금부터 대호(大戶)에는 60석, 중호(中戶)에는 40석, 소호(小戶)에는 20석, 잔호(殘戶)에는 10석으로 일정한 수량을 정하여서 도토리[橡實]를 예비하게 하고, 농사가 비교적 잘 된 각 고을은 반드시 수량에 구애되지 말고 적당하게 예비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 “失農各官救荒草食, 因無定數, 多或至於廢事, 小或失於荒政。自今大戶六十石, 中戶四十石, 小戶二十石, 殘戶十石, 定爲恒數, 以橡實爲先考察預備, 其農事稍稔各官, 不必拘數, 隨宜儲備。” 從之。</p>
<p>世宗 25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8月 21日(癸亥) 9번째기사</p> <p>구주의 작주 자사 평상가가 소목 유향·정</p>	<p>구주(九州)의 작주 자사(作州刺史) 평상가(平常嘉)가 사람을 보내어 소목(蘇木) 1천 근, 유향 1천 근, 정향(丁香) 50근, 곽향(藿香) 30근, 백단(白檀) 15근, 서각(犀角) 3개, 금란(金欄) 1필, 상아(象牙) 1개, 구리 2백 근, 납[鉛] 20근을 바쳤으므로, 정포(正布) 3백 40필을 회사(回賜)하였다.</p>	<p>九州作州刺史平常嘉使人獻蘇木一千觔、硫黃一千觔、丁香五十觔、藿香三十觔、白檀十五斤、犀角三本、金欄一段、象牙一本、銅二百觔、鉛二十觔, 回賜正布三百四十四。</p>

<p>향·곽향 등을 바치다</p> <p>세종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8월 21일(계해) 12번째기사</p> <p>진상해 올리는 연어와 대구어의 알것이 간이 맞도록 때에 맞춰 답 그도록 하다</p>	<p>전지하기를,</p> <p>“경상도·강원도·함길도 감사가 진상해 올리는 연어(年魚)와 대구어(大口魚)의 알것[卵醢]은 9, 10월 간에 진상해 올리게 하고자 하니, 모름지기 간이 맞게 하여 정밀히 연구하여 담가서 진상(進上)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傳旨慶尙、江原、咸吉道監司：“進獻年魚、大口魚卵醢，欲於九十月間進獻，須令醢淡適中，精究沈造上進。”</p>
<p>世宗 25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9月 22日(甲午) 1번째기사</p> <p>제사를 올릴 때의 예물 내용과 처리 방법에 대한 예조의 계문</p>	<p>예조에서 계하기를,</p> <p>“삼가 상고하건대, 당나라 장경(長慶) 3년에 태상예원(太常禮院)에서 아뢰기를, ‘교단(郊壇)에서 제사를 올리는데 큰비나 눈을 만나면 제사를 폐하옵고, 그 예물은 아래와 같이 하였나이다. 어서 축관(御署祝版)은 태상시 칙고(太常寺勅庫)에 거두어 저장하고, 옥폐(玉幣)와 태울 나무와 신주(神酒)도 태울 폐백과 단술[醴]·제(齊)와 개암[榛]·밤·포(脯)·젓[醢]과 초[燭] 같은 것은 교사서(郊社署)를 시켜서 각기 유사(有司)에게 통지하여 다음 제사에 소용되게 하고, 생뢰(牲牢)는 제사에 생(牲)이 죽으면 과문는 예에 의하여 감찰사(監察司)와 예관(禮官)에게 위임하여 제사하려던 곳에 과문게 하고, 제수를 만들 곡식과 오이[瓜] 절임, 죽순 절임 등 이미 만든 찬수는 생(牲)에 따라 과문게 하라.’ 하여, 영영 일정한 방식으로 삼았사오니, 국조(國朝)에서 무릇 대소 제향에 기일을 당해서 연고가 생겨 정지하게 되면, 그 예찬(禮饌)은 당나라 제도에 의하여, 축관은 봉상시(奉常寺) 별고(別庫)에 저장하고, 술과 폐백·개암·밤·포·젓과 좃불 같은 제사에 쓰려던 물건은 모두 봉상시에 저장하여 다음 제사 소용에 충당하게 하고, 생뢰(牲牢)와 제수를 만들 곡식과 갡(羹) 김치[菹] 등 무릇 이미 만든 물건은 감찰(監察)이 전사관(典祀官)과 함께 감시하여 제사지내는 곳 정결한 땅에 묻게 하여, 향식으로 삼으소서.”</p>	<p>甲午/禮曹啓：“謹按，唐長慶三年，太常禮院奏：‘郊壇祠祀，遇大雨雪廢祭，其禮物條件如後。御署祝版，於太常寺勅庫收貯，玉幣、燎柴、神酒、燎幣、醴齊并榛栗、脯醢及應行事燭等，令郊社署各牒有司，充次祭支用。牲牢比附祠令，牲死則埋之例，委監察使及禮官，於祀所瘞埋，棗盛、瓜菹、笋菹應已造成饌物，隨牲瘞埋。’旨依永爲定式。國朝凡大小祭享，及期遇故停廢，其禮饌，乞依唐制，祝版於奉常寺別庫藏貯，酒幣、榛栗脯醢及燭應緣祭物，皆藏奉常寺，以充次祭支用。若牲牢、棗盛、羹菹凡已造之物，監察與典祀官監瘞祠所潔地，以爲恆式。”</p> <p>從之。</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세종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9월 22일(갑오) 2번째기사 마제 의주에 대한 예 문의 계문</p>	<p>예조에서 마제(禡祭) 의주(儀注)를 계하기를, “【춘추로 강무(講武)할 때에 하루 전에 행제(行祭)한다.】 제사지내기 하루 전에 헌관(獻官) 이하로 응당 참여해야 할 집사관이 모두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지내고, 제사지내기 하루 전에 유사(有司)가 제사지낼 곳을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 또 문을 구덩이[瘞坎]를 신좌(神座) 서북방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넉넉히 한다. 집례(執禮)가 헌관의 자리를 신좌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上]로 한다. 집례의 자리는 헌관의 서쪽으로 북쪽 가까이 설치하되, 서향하게 한다. 알자·찬자는 남쪽으로 조금 물러나 서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위로 한다. 또 묻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望瘞位]는 문을 구덩이[瘞坎]의 남쪽에 북향되게 설치한다. 집사자가 두 개의 깃대를 남문 밖에 세우고, 그날 행사 전(行事前)에 헌관 이하 무릇 행사할 집사관이 모두 무복(武服)을 입고, 유사(有司)가 웅석(熊席)을 받들고 들어와서 치우(蚩尤) 신위(神位)를 남향하여 설치하고, 갑주(甲冑)와 궁시(弓矢)를 자리 옆에 놓고, 초(稍)917) 를 자리 뒤에 세운다. 전사관(典祀官)이 그 속관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놓는다.【점(玷)이 있다.】</p> <p>폐백 광주리【흰 빛깔을 사용한다.】를 준소(尊所)에 설치한다. 향로와 향함과 함께 초[燭]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는 제기(饌具)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설치하는데, 변(籩)이 여덟인데, 왼편에 놓되, 석 줄로 해서 오른쪽을 상(上)으로 하고, 두(豆)가 여덟인데, 오른쪽에 놓되, 석 줄로 해서 왼쪽을 상(上)으로 한다. 보(簠)와 궤[簋]는 각각 둘씩인데, 변과 두 사이에 보가 왼편에 있고, 궤가 오른편에 있게 놓는다. 조(俎)가 하나인데, 보·궤 앞에 놓고, 작(爵)이 셋인데, 조 앞에 놓는다. 상준(象尊) 둘을 신좌(神座)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해서 설치하고, 세(洗)는 준소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p>	<p>禮曹啓禡祭儀注： 【當春秋講武時，前期一日行祭。】前祭一日，獻官以下應行事執事官俱淸齋一宿。前祭一日，有司修除祭所，又爲瘞坎於神座西北方，深取足容物。執禮設獻官位於神座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俱西向北上，執禮位於獻官之西近北西向，謁者、贊者在南小退，俱西向北上。又設望瘞位於瘞坎之南北向，執事者建二旗於南門外。其日未行事前，獻官以下凡行事執事官，俱服武服，有司奉熊席，入設蚩尤神位南向，置甲冑、弓矢於座側，建稍【矛屬】於座後。典祀官率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玷】陳幣【用白色】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籩八在左爲三行右上，豆八在右爲三行左上。簠簋各二在籩豆間，篚在左、簋在右，俎一在簠簋前，爵三在俎前。設象尊二於神座東南，北向西上，設洗於尊所東南北向，壘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設諸執事盥洗，又於東南北向。祭日丑前五刻，典祀官率其屬，入實饌</p>

한다. 뇌(甃)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勺]를 올려놓는다. 비(篋)는 세의 서남쪽에 벌여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는 또 그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제삿날 축시전(丑時前) 5각(刻)에 전사관이 그 속관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수를 제기(盃)에 담기를 끝내고, 전(前) 3각에 헌관 이하 행사할 집사관이 각기 무복을 입고, 집례가 알자·찬자를 거느리고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여러 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나아간다. 전 1각에 알자가 전사관·대축·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위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서면,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찬자가 전창(傳唱)하여, 전사관 이하 모두 사배하고 나면, 알자가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면,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재량이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 작을 씻고 닦아서 비(篋)에다 넣어 받들고 준소로 나아가 점(坫) 위에 놓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헌관이 사배하고, 알자가 나아가서 헌관의 왼편에서 고하기를, ‘유사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폐백 드리는 예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에 닦고 나면,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꿘어앉으라.’ 찬하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세 번 향을 피우라.’ 찬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전(奠)드린다. 대축이 폐백을 가져다가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폐(執幣) 헌폐(獻幣)하되, 폐백을 집사에게 주어 신위 앞에 진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면(俛), 복(伏), 흥(興)’이라 하고, 인도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초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집사

具畢。前三刻，獻官以下行事執事官，各服武服。執禮率謁者、贊者，先就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前一刻，謁者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傳喝，典祀官以下皆四拜訖，謁者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盥〕訖各就位。齋郎詣爵洗位，洗爵拭爵，置於篋，奉詣尊所，置於坫上。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執禮曰四拜，獻官四拜。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執禮曰行奠幣禮，謁者引獻官，詣盥洗位盥盥訖，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大祝以幣授獻官，獻官執幣獻幣，以幣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俛伏興引復位。小頃，執禮曰行初獻禮，謁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

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으라.’고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작(執爵) 헌작(獻爵)하되,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전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구부렀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얹으라.’ 하고, 대축이 신위 오른편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끓어얹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찬하기를, ‘면, 복, 흥 재배’라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말하기를, ‘아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으라.’ 찬하고,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으라.’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작 헌작하되,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전드리게 한다. 알자가 찬하기를, ‘구부렀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말하기를, ‘중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례와 같이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복(飲福)하고 조육(胙肉)을 받으라.’ 하면, 대축이 준소로 나아가서 작으로 복주를 떠낸다. 집사자가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신위 앞의 조(俎) 위의 고기를 덜어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으라.’고 찬하고, 대축이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받아 마시고 작을 비우면, 대축이 빈 작을 받아서 점 위에 도로 올려놓는다. 집사자가 북향하고 조(俎)를 헌관에 주면, 헌관이 조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조를 받아 가지고 나간다. 알자가 ‘면, 복, 흥’이라 찬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

贊俛伏興再拜引復位。小頃，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引復位。小頃，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禮，引復位。執禮曰飲福受胙，大祝詣尊所，以爵酌福酒，執事者持俎進神位前俎肉。謁者引獻官，詣飲福位西向立贊跪，大祝進獻官之左北向，以爵授獻官，獻官受爵，飲卒爵，大祝受虛爵復於坫。執事者北向，以俎授獻官，獻官受俎，以授執事者，執事者受俎以出。謁者贊俛伏興引復位，執禮曰再拜，在位者皆再拜。執禮曰徹籩豆，大祝進徹籩豆。執禮曰四拜，獻官四拜。執禮曰望瘞，謁者引獻官，詣望瘞位北向立，執禮帥贊者，詣望瘞位西向立，大祝以篚取祝版及幣置於坎。執禮曰可瘞，置土半坎。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謁者引獻官出，執禮帥贊者還本位。謁者引典祀官及諸執事就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以

	<p>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변·두를 걷어치우라.’ 하면, 대축이 나아가 변·두를 걷어치운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묻는 것을 바라보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묻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묻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 서향하고 선다. 대축이 비(籠)에다 축판과 폐백을 담아 구덩이에 넣으면, 집례가 말하기를, ‘묻으라.’ 하여, 흙을 구덩이에 반쯤 넣는다. 알자가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서 고하기를, ‘예식이 끝났다.’ 하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본자리로 돌아오면, 알자가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 서게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여, 전사관 이하가 모두 사배하고 나면,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가 알자·찬자를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가면, 전사관이 그 속관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물러간다. 【헌관 한 사람은 첨총제(僉總制), 집례 한 사람은 사직(司直), 전사관 한 사람은 주부(注簿)이고, 이하 찬자·대축·알자 각 한 사람은 사정(司正)이요, 재량 두 사람과 준소·관세위 각 한 사람은 부사정(副司正)이다. 】.” 하였다.</p>	<p>下皆四拜訖，謁者引出。執禮帥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率其屬，徹禮饌乃退。【獻官一人僉總制執禮一人司直，典祀官一人注簿以下，贊者、大祝、謁者各一人司正，齋郎二人、尊所盥洗位各一人副司正。】</p>
<p>세종 26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10월 6일(정미) 7번째기사 일본국에서 소목 8백 근, 금장식 식룡 1개 등을 바치다</p>	<p>일본국(日本國) 일기주 수(一岐州守) 조신(朝臣) 원중(源重)이 사람을 보내어 소목(蘇木) 8백 근, 금장식 식룡(金粧飾食籠) 1개, 기린혈(麒麟血) 1근, 서각(犀角) 1개, 은마부선자(銀磨付扇子) 10자루, 등자(藤子) 50본을 바치니, 정포(正布) 1백 50필을 회사하였다.</p>	<p>日本國一歧守源朝臣重使人獻蘇木八百斤、金粧飾食籠一箇、麒麟血一斤、犀角一箇、銀磨付扇子十本、藤子五十本，回賜正布一百五十匹。</p>
<p>世宗 26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p>	<p>정부와 육조에서 육선(肉膳)을 상시와 같이 들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p>	<p>政府、六曹請復肉膳，上曰：“予欲過七日乃復，今卿等請之，且大賓入京，</p>

<p>22年) 10月 10日(辛亥) 2번째기사 정부와 육조에서 육서능 상시와 같이 들기를 청해 따르기로하다</p>	<p>“나는 7일이 지난 뒤에 먹으려고 하였는데, 이제 경 등이 청하고 또 그 손님이 오게 되었으니 경들의 말에 따르겠다.” 하였다.</p>	<p>姑從之。”</p>
<p>세종 26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10월 30일(신미) 2번째기사 봄이 되고나서 금주령을 내리라고 이르다</p>	<p>대사헌 이지강(李之剛)이 겨울 동안에 금주하는 것이 어떠냐고 계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심히 추우니 금하지 말고 봄을 기다려서 금하라.” 하고, 곧 장령(掌令) 양활(梁活)을 불러서 명하기를, “12월까지 금주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p>	<p>大司憲李之剛啓曰：“冬月禁酒如何?” 上曰：“祁寒毋禁，待春乃禁。” 卽召掌令梁活，命限十二月毋禁酒。</p>
<p>世宗 26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10月 30日(辛未) 3번째기사 영돈녕 유정현이 중국 사신의 연회에 사신의 시신을 참석시키지 말 것을 아뢰다</p>	<p>영돈녕(領敦寧) 유정현(柳廷顯)이 계하기를, “중국 사신을 연회에 초대할 때 시신까지 초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금후로는 다만 술과 고기를 주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도 옳다고 말하였다.</p>	<p>領敦寧柳廷顯啓曰：“當宴上國使臣時，賜宴於侍臣，未便，今後但賜酒肉可矣。” 上曰：“然。”</p>
<p>世宗 26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11月 23日(甲午) 2번째기사 일본국 석성관사 평만평이 방물을 바쳐 정포 550필을 회사하다</p>	<p>일본국(日本國) 석성 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이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는데, 금란(金欄) 1단(段), 단목(丹木) 5백 근, 서각(犀角) 4개 [頭], 축사(縮砂) 10근, 동(銅) 3백 근, 선자(扇子) 1백 자루, 장뇌(樟腦) 20근, 납(鐵) 50근, 반(盤) 20개, 천궁(川芎) 10근, 봉아출(蓬莪朮) 10근, 청피(靑皮) 10근, 명반(明攀) 5백 근, 감초(甘草) 10근이다. 정포 5백 50필을 회사(回賜)하였다.</p>	<p>日本國石城管事平滿景使人獻土宜：金欄一段、丹木五百斤、犀角四頭、縮砂十斤、銅三百斤、扇子一百本、樟腦 [樟腦] 二十斤、鐵五十斤、盤二十片、川芎一十斤、蓬莪朮一十斤、靑皮一十斤、明攀五百斤、甘草十斤、回賜正布五百五十四匹。</p>

<p>세종 26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12월 8일(기유) 2번째기사 장빙군에게 술 3백 병 을 주다</p>	<p>장빙군(藏氷軍)에게 술 3백 병을 주었다.</p>	<p>賜藏氷軍酒三百瓶。</p>
<p>세종 27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월 12일(계미) 1번째기사 종묘의 사시 대향 삭 망과 명일의 별제 때 의 사람 수와 절차에 대한 예조의 계문</p>	<p>예조에서 봉상시(奉常寺)의 첩정(牒呈)에 의하여 계하기를, “종묘(宗廟)의 사시 대향(四時大享) 및 삭망(朔望)과 명일(名日)의 별제(別祭)에는 다만 종묘서(宗廟署)의 관원 한 사람만으로 하여금 명첩(命牒)을 받아 재계(齋戒)하고 드릴 제물을 간검(看檢) 진설(陳設)하게 하고, 그 나머지의 관원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금후로는 대제 때에는 두 사람, 삭망과 별제 때에는 한 사람이 미리 재계하고, <제삿날을> 이틀 앞두고서 제소(祭所)에 나아가서 드릴 제물을 분장(分掌)하여 감독 제조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대제 때에는 2일간 세 끼를 주고, 삭망과 별제 때에는 1일 동안 두 끼를 주도록 하옵고, 또 대제를 당하여 여러 가지 드릴 제물을 종묘서의 소수의 노자(奴子)들이 밤을 새우며 장만하기 때문에 불결하게 되오니, 이제부터는 전사관(典祀官)이 재계할 때에는 본시(本寺)의 사무는 제쳐 놓고 제삿날 3일 전에 찬품(撰品)을 받들어 만질 사람들을 거느리고 종묘서에 나아가서 치재(致齋)하면서 종묘서의 관원과 합동하여 같이 제수(祭需)를 장만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壬午) [癸未] /禮曹據奉常寺牒呈啓: “宗廟四時大享及朔望有名日別祭, 只令宗廟署官員一人, 受命牒齋戒, 監設奠物, 其餘官不與, 甚爲未便。 今後大祭則二員, 朔望別祭則一員預先齋戒, 前期二日詣祭所, 其奠物分掌監造, 其供給則大祭二日三時, 朔望別祭一日兩時。 且當大祭, 諸般奠物, 以宗廟署數少奴子, 連夜熟設, 以致不潔。 今後典祀官清齋, 除本寺, 前期三日, 帥執饌人, 詣宗廟署致齋, 同署官供爨。” 從之。</p>
<p>世宗 27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1月 14日(乙酉) 5번째기사 영녕전에서 춘향을 섭</p>	<p>영녕전(永寧殿)에서 춘향(春享)을 섭행(攝行)하였다. 그 의주(儀注)에 이르기를, “재계(齋戒)에 관한 의절. 제향을 7일 앞두고 행사 집사관(行事執事官)들은 봉상시(奉常寺)에서 서계(誓戒)를 받는다. 당일에 날이 밝기 전 7각(刻)에 통례문(通禮門)이 자리를 설치</p>	<p>攝行春享于永寧殿。 其儀注: 齋戒: 前享七日, 行事執事官受誓戒於奉常寺。 其日未明七刻, 通禮門設位, 獻官在北南向, 薦俎官在南北向, 監察在西東向, 執禮、典祀官、大祝、祝</p>

행하며 그 의례를 이르는 내용

하는데, 헌관(獻官)의 자리는 북쪽에 설치하되 남향으로 하고, 천조관(薦俎官)의 자리는 남쪽에 설치하되 북향으로 하며, 감찰(監察)의 자리는 서쪽에 두되 동향으로 설치하고, 집례(執禮)·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郎)·협률랑(協律郎)·전사(殿司)·궁위령(宮闈令)·장생령(掌牲令)·아악령(雅樂令)·봉조관(捧俎官)·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동쪽에 두되 서향으로 설치하며, 등(等)마다 위치를 달리 하여 겹줄로 모두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밝기 전 5각에 봉례랑(奉禮郎)이 행사한 집사관들을 각각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 뒤에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면, 통찬(通贊)이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서, 서문(誓文)을 대독(代讀)하기를, ‘금년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영녕전에 제향을 드리니,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말 것이며, 파[葱]와 부추[韭]와 마늘[蒜] 염교[菹]를 먹지 말 것이며, 조상(弔喪)하거나 문병(問疾)하지 말 것이며, 음악을 듣지 말며, 형벌을 행하지 말며, 형살(刑殺)하는 문서를 판결 서명하지 말며, 예악(穢惡)한 일에 간여하지 말고 각각 그 직무를 거행하라. 혹시 이에 어김이 있으면 국가에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읽기를 마치고 나서, 통찬이 ‘재배(再拜)하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무릇 행사 집사관은 산재(散齋)의 4일간을 모두 정침(正寢)에서 자고, 3일 간의 치재(致齋)를 2일은 본사(本司)에서 행사고, 1일은 향소(享所)에서 행한다. 대저 산재 중에는 사무를 다스리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나, 치재 중에는 오직 향사에 관한 일만을 행하며, 이미 재계하고 췌(闕)하게 된 자는 <다른 사람으로> 변통하여 섭행하게 한다. 모든 위(衛)의 속원(屬員)과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자는 【대장(隊長)은 문마다 각각 2인, 모퉁이마다 각각 1인으로 한다.】 각기 본사(本司)에서 재계하고 하룻밤을 자며,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는 재계하고 예조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치재하기 하루 전에 모두 봉상시에 모여서 의식의 절차를 익히고, 행사하기 하루 전에 모두 향소(享所)에 집

史、齋郎、協律郎、殿司、宮闈令、掌牲令、雅樂令、捧俎官、謁者、贊者、贊引在東西向，每等異位重行，俱北上。未明五刻，奉禮郎分引行事執事官就位，引獻官就位。通贊就獻官之左西向立，代讀誓文曰：“今年某月某日，享于永寧殿。凡行事執事官，不縱酒，不食葱韭蒜菹，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各揚其職。其或有違，國有常刑。”讀訖，通贊贊再拜，在位者皆再拜乃退。凡行事執事官，竝散齋四日，宿於正寢，致齋三日，二日於本司，一日於享所。凡散齋，治事如故，致齋惟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諸衛之屬守衛殿門者，【隊長每門各二人，每隅各一人。】各於本司清齋一宿，工人、二舞清齋一宿於禮曹。前致齋一日，竝集奉常寺肄儀，前享一日，竝集享所。【凡預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令漢城府，清所行之路，不得見諸凶穢衰絰。其哭泣之聲，聞於享所者權斷。】陳設：前享二日，忠扈衛設諸享官次於齋坊之內。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

합한다. 【무릇 제향에 참여할 자는 향사를 이틀 앞두고 모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다니는 길을 청소하여 모든 흥하고 추악한 것과 최질(衰絰) 등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곡읍(哭泣)하는 소리가 향소에 들리는 것은 임시 금지하도록 한다. 】

진설(陳設)에 관한 의절.

향사를 앞두고 충호위(忠扈衛)에서는 모든 향관의 자리를 재방(齋坊)안에 설치하면, 전사(殿司)가 그 속원을 거느리고 신전(神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동쪽 문밖에 설치하되, 지형에 따라서 적당한 곳을 택하여 한다. 하루를 앞두고서 아악 령(雅樂令)은 그 속원을 거느리고 등가(登歌)941)의 악기(樂器)를 마루 위의 앞 기둥 사이에 설치하고, 헌가(軒架)942)는 신전 뜰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으로 마련한다. 장생령(掌牲令)은 희생(犧牲)을 끌고 향소로 나아가면,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기(祭器)를 받들어 둘 자리를 마루 위의 동편 계폐(階陛) 북쪽에 설치하고, 【무릇 제기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모두 자리를 깔고 그 위에 수건을 덮어 둔다. 】 〈그 희생과 제기가〉 깨끗하고 아무 이상 없다는 보고를 기다린다. 집례(執禮)는 헌관(獻官)의 자리를 조계(阼階)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고, 천조관(薦俎官)의 자리를 헌관의 뒤에 약간 남쪽으로 설치하되 역시 서향으로 하며, 집사자(執事者)는 그 뒤에 자리하게 하는데, 등마다 위치(位次)를 달리 하고 모두 겹줄로 하되, 서향하며 북쪽을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신전 뜰 남쪽에 동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며, 서리(書吏)가 그 뒤에 배석(陪席)하게 된다. 집례의 자리는 마루 위의 앞기둥 밖에 동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고,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는 조계(阼階)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협률랑(協律郎)의 자리는 마루 위의 앞기둥 밖에 서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동향으로 하고, 아악 령(雅樂令)의 자리는 헌헌(軒懸) 북쪽에 설치하되 북향으로 하고, 헌관의 음복위(飲福位)는 마

外, 設饌幔於東門外, 隨地之宜。 前一日, 雅樂令帥其屬, 設登歌之樂於堂上前楹間, 設軒架於殿庭, 俱北向。 掌牲令牽牲詣享所, 典祀官、殿司各帥其屬, 設祭器位於堂上東側階北, 【凡設祭器, 皆藉以席, 加以巾蓋。】 以俟告潔。 執禮設獻官位於阼階東南西向, 設薦俎官位於獻官之後稍南西向, 執事者位於其後, 每等異位, 具重行, 西向北上。 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 書吏陪其後。 設執禮位於堂上前楹外近東西向, 謁者、贊者、贊引位於阼階西南西向北上, 協律郎位於堂上前楹外近西東向, 雅樂令位於軒懸之北北向, 設獻官飲福位於堂上前楹位近東西向, 設門外位享官及諸執事於東門外道南, 每等異位, 俱重行, 北向西上。 設牲勝於東門外, 當門西向, 以南爲上。 設掌牲令位於牲西南, 大祝位於牲東當牲後, 祝史在其後, 俱西向。 設薦俎官省牲位於牲前近北, 設監察位於薦俎官之西, 俱南向, 【監察位稍却】 開壅坎於殿之北壬地, 方深取足容物南出陞, 設望壅位於壅坎之南, 獻官在南北向, 執禮、大祝、贊者在東, 俱重行西

루 위의 앞기둥 자리에 동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고, 또 문밖에 향관 및 여러 집사의 자리를 동편 문밖의 길남쪽에다 설치하되, 등마다 위치를 달리 하고 모두 겹줄로 북향하여 마련하며, 서쪽을 위로 한다. 생방(牲榜)943)의 자리는 동문 밖에 문을 마주 보고 서향하여 설치하되, 남쪽을 위로 한다. 장생령(掌牲令)의 자리는 희생의 서남쪽에 설치하고, 대축(大祝)의 자리는 희생의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희생의 뒤로 하며, 축사(祝史)도 그 뒤에 있게 하되, 모두 서향하게 한다. 천조관의 희생을 살피는 자리는 희생의 앞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깝게 하고, 감찰의 자리는 천조관의 서쪽으로 하고, 모두 남향하여 마련한다. 【감찰의 자리는 약간 뒤로 물린다.】 〈축관(祝版)과 폐백을〉 문을 구덩이는 신전의 북쪽 임지(壬地)에 네모지게 파되, 깊이는 족히 물건을 용납할 정도로 하고, 남쪽 계폐(階陞)로 나오게 한다. 망예위(望瘞位)는 구덩이의 남쪽에 설치하되, 현관은 남쪽에 자리하여 북향하게 하고, 집례와 대축과 찬자는 동쪽에 자리하여 모두 겹줄로 서서 서향하게 하며, 북쪽을 위로 한다. 제향하는 날에, 행사하기에 앞서 궁위령(宮闈令)이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신실(神室)의 문을 열고 신악(神幄)을 정돈하고 털고 닦은 뒤에 자리를 펴고 쟈상[几]을 설치하기를 평상시의 의절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의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축관을 드리고, 【점(坫)이 있다.】 폐백 상자를 존소(尊所)에 진열하고는, 향로(香爐)와 향합(香盥)을 초와 함께 신위(神位)앞에 배설해 놓는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친구를 담은 친구를 설치하는데, 변(邊) 12개는 왼편에 배설하되, 두 줄로 하고 오른쪽을 위로 한다. 【첫 줄에는 형염(刑鹽)을 머리에 두고, 어해(魚醢)·건조(乾棗)·울황(栗黃)·진자(榛子)·능인(菱仁)을 그 다음에다 배설하며, 둘째 줄에는 능인을 앞에 두고, 녹포(鹿脯)·백병(白餅)·흑병(黑餅)·구이(糗餌)·분자(粉糝)를 그 다음에다 배설한다.】 두(豆) 12개는 오른쪽에 배설하되, 두 줄로 하고 왼쪽을 위로 삼는다. 【첫 줄에는 구저

向北上。 享日未行事前， 宮闈令帥其屬開室， 整拂神幄， 鋪筵設几如常儀。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奠祝版於神位之右， 【有坫】 陳幣篚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 實饌具， 邊十二在左， 爲二行右上， 【第一行形鹽在前， 乾魚、乾棗、栗黃、榛子、菱仁次之。 第二行(菱) [芡] 仁在前， 鹿脯、白餅、黑餅、糗餌、粉糝次之。】 豆十二在右， 爲二行左上。 【第一行韭菹在前， 醯醢、菁菹、鹿醢、芹菹、兔醢次之。 第二行荀菹在前， 魚醢、脾折、豚拍駝食糝食次之。】 俎三， 二在邊前， 一在豆前。 【邊前俎， 一實牛腥， 一實羊腥七體， 兩脾、兩肩、兩脅并脊， 而脾在兩端， 肩脅次之， 脊在中。 豆前俎， 實豕腥七體， 其載如羊。 宋釋奠儀云：“凡言在前者， 皆謂南也。”】 豆右之俎三， 【一實牛熟腸胃肺， 一實羊熟腸胃肺， 一實豕熟膚， 豕在前， 牛羊次之， 凡俎皆有牲匣。】 簠簋各四在邊豆間， 簠居前， 簋次之。 【簠實以稻粱， 簋實以黍稷。】 鐙、銅各六， 在簠簋後， 銅在前， 鐙次之， 【鐙實以大羹， 銅實以和

(韭菹)를 앞에 두고 염해(鹽醢)·정저(菁菹)·녹해(鹿醢)·근저(芹菹)·토해(兔醢)를 그 다음에 배설하며, 둘째 줄에는 순저(筍菹)를 앞에 놓고 어해(魚醢)·비절(脾折)·돈박(豚拍)·타식(駝食)·삼식(糝食)을 그 다음에 차례로 배설한다. 【조(俎)는 셋을 마련하되, 둘은 변(籩) 앞에 놓고, 하나는 두(豆) 앞에 놓는다. 【변 앞에 놓는 조는, 하나는 우성(牛腥)을 담고, 하나는 양성(羊腥)의 칠체(七體)를 담는데, 양쪽 허파와 양쪽 어깨와 양쪽 갈비에다가 등심을 아울러 쓰되, 허파는 양쪽 끝에 놓고, 어깨와 갈비는 그 다음에 놓고, 등심은 한가운데 놓는다. 두 앞에 놓는 조에는 시성(豕腥)의 칠체를 담는데, 그 배치하는 순위는 양성과 같이 한다. 송(宋)의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놓는다는 것은 모두 남쪽을 이르는 것이다’고 하였다. 【두의 오른쪽에도 조 셋을 배설한다. 【하나는 쇠고기로서 익힌 내장 위(胃)와 폐(肺)를 담고, 하나는 양고기로서 익힌 내장 위와 폐를 담고, 하나는 돼지고기로서 익힌 피부를 담는데, 돼지고기를 앞에 놓고, 쇠고기와 양고기는 그 다음에 놓는다. 대저 조에는 모두 희생을 덮는 갑(匣)이 있다. 【보[簠]와 궤[簋]는 각각 넷으로서, 변과 두의 사이에 배설하는데, 궤를 앞에 놓고, 보는 그 다음에 진설한다. 【보에는 도(稻)와 양(粱)으로 채우고, 궤에는 서(黍)와 직(稷)으로 채운다. 【등(鏡)과 형(鉶)이 각각 여섯으로서 보·궤 뒤에 진설하되, 형을 앞에 놓고, 등을 뒤에 놓는다. 【등에는 대갱(大羹)을 채우고, 형에는 화羹(和羹)을 채우고는 모활(芼滑)을 가한다. 【술잔 여섯 개를 보·궤 앞에 놓고, 【각기 점(坫)이 있다. 【또 술그릇[尊壘]을 지계문 밖 왼편에 설치해 놓고, 【종묘의 의적과 같다. 【모두 술국자를 넣거나 보자기를 덮어 두되, 북향으로 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대저 준뢰(尊壘)에는 명수(明水)와 현주(玄酒)로 채우는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삼으며, 신에게 제향하는 물건으로 당시에 없는 것은 그 계절에 생산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한다. 【찬반(瓚盤) 한 개를 준소의 점 위에 설치하고, 화로[爐]와 솥을 앞 기둥 사이에 설비해 놓고, 모혈반(毛血盤)과 간료등(肝膋

羹加芼滑。】爵六在簠簋前。【各有坫】又設尊彝於戶外之左，【如宗廟儀】皆加勺罍，北向西上。【凡尊壘明水玄酒爲上。凡享神之物，當時所無者，以時物代之。】設瓚盤一於尊所坫上，設爐炭於前楹間，毛血盤、肝膋鏡、蕭籩、黍稷籩各一於其後，設飲福酒爵【有坫】胙肉俎各一於尊所，又設俎一於饌幔內，設洗於阼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壘在洗東加勺，簠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簠則又實以瓚爵。有坫。】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東南北向，執尊壘簠罍者位於尊壘簠罍之後。

受香祝：前享一日，晝漏上水一刻，有司設香祝案於勤政殿當中南向，設香案於其前，設殿下拜位於月臺當中北向。通禮門設典儀位於東階之東，通贊二人在南少退，俱西向，設左右侍臣位於東西階之南，相對異位重行，俱北上，設鹵簿於闕門外，侍臣各具朝服。三刻，獻官以下應行事執事官竝集闕門外，殿下具冠袍。校書館員以祝版奉進，近臣傳奉以進，殿下署訖，近臣奉祝版及香置於案上。五刻，奉禮郎分引左右

鏡)과 소변(蕭籩)과 서직변(黍稷籩)을 각각 하나씩 그 뒤에 설치한다. 음복(飲福)하는 술잔【점(坫)이 있다.】과 조육조(胙肉俎) 각각 하나를 준소에 설치하고, 또 조 하나를, 찬수를 받들어 둔 장막 안에 설치해 둔다. 세(洗)는 조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관세(盥洗)는 동쪽에 두고, 잔세(爵洗)는 서쪽에 두게 한다.】뇌(雷)는 세의 동쪽에 설치하되, 국자를 올려놓고, 비(篚)는 세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수건을 넣어 둔다.【만약 작을 씻는 비이면 또 찬(瓚)과 작(爵)을 넣어 둔다. 점(坫)이 있다.】모든 집사의 관세하는 자리는 현관의 세위(洗位)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준(尊)·뇌(鼎)·비(篚)·떡(羶)을 맡을 집사자의 자리는 준·뇌·비·떡 뒤에 설치한다.

향축(香祝)을 받는 의절.

제향을 하루 앞두고, 주루(晝漏)의 상수(上水)가 1각이 되면, 유사(有司)가 향축안(香祝案)을 근정전(勤政殿) 중앙에 남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은 그 앞에 설치하며, 전하(殿下)의 배위(拜位)는 월대(月臺)의 중앙에 북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통례문의 전의(典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쪽에 설치하고, 통찬 두 사람의 자리는 남쪽에 두되, 약간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마련하고, 좌우의 시신(侍臣)의 자리는 동계·서계의 남쪽에 서로 상대하여 마련하되, 위차(位次)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모두 북쪽을 위로 하여 설치한다. 노부(鹵簿)를 궐문 밖에 설치해 두고, 시신들이 각기 조복(朝服)을 갖추고 대기하고, 3각에 현관 이하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궐문 밖에 집합한다. 전하가 관포(冠袍)를 갖추고 나오면, 교서관(校書館)의 관원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近臣)이 이를 전해 받아 받들어 올려, 전하가 서결(署決)을 마친 뒤에, 근신이 축판과 향을 향안(香案)위에 놓는다. 5각이 되면, 봉례랑(奉禮郎)이 좌우의 시신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다음에 현관 이하의 제관들을 인도하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는데, 봉례랑이 현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오르면,【봉례랑은 계하(階下)에서 그치고 만다.】판통례(判通

侍臣入就位，次引獻官以下入就位。奉禮郎引獻官，升自東階，【奉禮郎止於階下】判通禮導殿下，出就拜位北向立，啓請再拜，導殿下詣香案前，啓請跪。近侍一人奉香合，西向跪進，近侍一人奉香爐，東向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奉香祝，東向跪進，判通禮啓請取香祝授獻官，獻官西向跪受興，還置於案上，判通禮啓請俛伏興，導殿下復位，啓請再拜，導殿下退立於月臺上東向。獻官奉香祝降自正階，判通禮啓請鞠躬，獻官沒階，殿下平身。獻官出門，置香祝於鼻擔，薦俎官以下隨獻官，以次出門上馬。軍士奉鼻擔，鹵簿前導，至齋坊門外下馬，入門就殿東門外，重行北上西向立，四拜訖，各就齋所，香祝安於卓上。

省牲器：前享一日未後二刻，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執事者以祭器入設於位，加以巾蓋，如陳設儀。未後三刻，薦俎官以下應省牲器者，俱以常服，就東門外，執禮帥謁者贊者、先入殿庭，掌牲令牽牲就位，贊引引監察升自阼階，行掃除於上，降行樂懸於下訖

禮)가 전하를 인도하고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서, 재배(再拜)하기를 계청하고 나서, 다시 전하를 인도하여 향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기를 계청한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서향하여 꿇어앉아 바치면,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동향하여 꿇어앉아 바친다. 관통례가 세 번 향불 피워 올리기를 계청하면, 근시가 향로를 향안 위에 올리고, 또 근시가 향과 축문을 받들어 동향하여 꿇어앉아 올린다. 관통례가 향축을 받아 헌관에게 주기를 계청하면, 헌관이 서향하여 꿇어앉아 받아 가지고 일어나서 도로 향안 위에 놓는다. 관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서 재배를 계청한다. 다시 전하를 인도하여 물러가서 월대 위에 동향하여 선다. 헌관이 향과 축문을 받들고 정계(正階)로 내려가면, 관통례가 국궁(鞠躬)하기를 계청하고, 헌관이 계단을 다 내려간 뒤에, 전하가 몸을 편다. 헌관이 문밖에 나가서 향과 축문을 여담(昇擔)에 놓으면, 천조관 이하 하는 모두 헌관을 따라 차례로 문밖으로 나와서 말에 오르고, 군사(軍士)가 여담과 노부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재방문(齋坊門)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문으로 들어가 신전[殿] 동문 밖으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쪽을 위로 하여 서향하고 서서 네 번 절한 다음에, 각기 재소(齋所)로 나아가서 향과 축문을 탁자 위에 안치(安置)한다.

희생과 제기를 살피는 의절.

향사하기 전날 미시 후(未時後) 2각(刻)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신전의 안팎을 소제하고 나면, 집사자가 제기를 들여다가 각기 제자리에 벌여 놓고, 보자기로 덮기를 진설의 의절과 같이 한다. 미시 후 3각에 천조관 이하 응당 희생과 제기를 살피볼 사람들이 모두 평복 차림으로 동문 밖으로 나아가면, 집례가 알자와 찬자를 거느리고 먼저 신전 뜰에 들어간다. 장생령(掌牲令)이 희생을 끌고 자리에 나아가면, 찬인(贊引)이 감찰을 인도하여 조계(阼階)로 올라가서 오르내리는 곳을 소제하고, 악현(樂懸)은 그 밑에 선행하고

復位。謁者引薦俎官，贊引引監察，升自阼階，視滌濯。執事者皆舉冪告潔訖，引降就省牲位南向立，掌牲令小前曰請省牲，退復位，薦俎官省牲。掌牲令又前舉手曰肅，復位，大祝巡牲一匝，西向舉手曰充，復位。大祝與掌牲令以次牽牲，詣廚授典祀官。謁者引薦俎官，詣廚省鼎鑊，申視滌濯，監取明水火。【取水於陰鑑，取火於陽燧。陰鑑未能猝辦，以井水代之。火以供爨，水以實尊。】贊引引監察，詣廚省饌具訖，各還齋所。晡後一刻，典祀官帥宰人，以鸞刀割牲，祝史以槃取毛血，又取肝及脾膋，實於鏡，各置饌所，遂烹牲。【連皮煮熟。肝洗於鬱鬯。脾膋，腸間脂膏。肝膋共實一鏡，毛血共實一盤，其餘毛血，以淨器盛貯，祭畢埋之。】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

晨裸：享日丑前五刻，【丑前五刻，卽三更三點。行事用丑前一刻。】宮闈令帥其屬開室，整拂神幄，鋪筵設几如常儀。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實饌具畢。贊引引監察升自阼階，【凡行事執事官升降，皆自阼階。】按視堂之

제자리로 돌아온다. 알자는 천조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가서 <제기의> 세척(洗滌)한 상황을 살펴본다. 집사자들이 모두 떡(糲)을 들고 정결히 되었다고 고(告)하고 나서, 다시 인도하고 내려와 희생을 살펴보는 성생위(省牲位)로 나아가 남향하여 선다. 장생령이 조금 앞으로 나서서 말하기를, ‘희생의 점검을 청합니다.’ 하고는 물러가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천조관이 희생을 살펴며, 장생령이 또 앞으로 나서서 손을 들고 ‘돈(鎚)’이라 <살찐 희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축(大祝)이 희생을 한 바퀴 <돌며> 순시하고 나서 서향하여 손을 들고, ‘충(充)’이라 <충만함을> 말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와 같이 하여> 대축과 장생령이 차례로 희생을 끌고 주방(廚房)으로 나아가서 이를 전사관(典祀官)에게 준다. 그러면, 알자는 천조관을 인도하고 주방으로 나아가, 정확(鼎鑊)이 정결히 세척되어 있는가를 거듭 살피고, 명수(明水)와 명화(明火)를 잘 취하였는가를 본다. 【물은 음감(陰鑑)에서 취하고, 불은 양수(陽遂)에서 취한다. 음감을 줄연히 관득할 수 없으면, 우물물로 이를 대신한다. 불은 <제수를 장만하기 위하여> 불뿔 때에 쓰고, 물은 준(尊)을 채운다.】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주방으로 나아가서 찬구(饌具)를 살피고 나서 각각 채소로 돌아간다. 포시(哺時) 【신시(申時).】 후 1각에, 전사관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鸞刀)로 희생을 벤다. 축사는 쟁반을 가지고 모혈(毛血)을 취하고, 또 간(肝)과 수료(胾脲)를 취하여 등(鏡)에 채워 각각 찬소(饌所)에 두게 되면, 드디어 희생을 삶는다. 【가죽째 그대로 삶는다. 간은 울창(鬱鬯)에 씻는다. 수료는 창자 사이에 끼어 있는 기름[脂]이다. 간과 요는 함께 한 등에 담고, 털과 피도 함께 한 쟁반에 담고서, 그 나머지의 털과 피는 정결한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제례를 마친 다음에 이를 묻는다.】 전사가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신전 안팎을 깨끗이 소제한다.

신관(晨禠)에 관한 의절.

上下，糾察不如儀者還出。前三刻，諸享官各服其服，執禮帥謁者、贊者、贊引，入自東門，先就階間懸北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雅樂令帥工人、二舞入就位，文舞入陳於懸北，武舞立於懸南道西。謁者、贊引各引享官，俱就東門外位。前一刻，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殿司、宮闈令、協律郎、捧俎官，入就懸北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傳喝，【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監察以下皆四拜訖，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贊引引殿司、大祝、宮闈令入開(埗)〔龕〕室，奉出神主，設於座，【詣神幄內，於几後開匱設于座。先王神主大祝奉出，覆以白苧布；先后神主宮闈令奉出，覆以青苧布，以西爲上。】引降復位。贊引引齋郎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訖，置於籩奉詣泰階，祝史迎就於階上，置於尊所坫上。謁者引獻官，贊引引薦俎官入就位，執禮曰四拜，在位者皆四拜。【先拜者不拜】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退復

제향 당일 축시(丑時) 전 5각에 【축시 전 5각은 즉 3경 3점(三更三點)이니, 행사하는 시각은 축시 전 1각이다.】 궁위령이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신실(神室)을 열고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나서 자리를 펴고 궤(几)를 설치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하관과 전사는 각기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들 어와 찬구를 채우고 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와서 【무릇 행 사할 집사관은 모두 조계로 오르내린다.】 당(堂)의 상하를 순시하고 의절과 같게 하지 못한 것은 규찰하여 도로 내보낸다. 행사하기 전 3각에, 모든 향관 이 각기 그 복색(服色)을 갖추고, 집례가 알자와 찬자와 찬인을 거느리고 동 문으로부터 들어와 조계 사이의 현(縣) 북쪽의 배위(拜位)로 먼저 나아가서, 곁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나서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또 아악 령이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문무(文舞)는 현 북쪽에 벌여 놓고, 무무(武舞)는 현 남쪽 길 서편에 세워 둔 다. 그리고 나면, 알자와 찬인이 각각 향관을 이끌고 함께 동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행사하기 전 1각에,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축사·재랑·전사·궁위 령·협물랑·봉조관을 이끌고 들어와 현(懸)의 북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곁줄 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찬자 가 〈이를 다시〉 전갈(傳喝)하여, 【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 갈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나면, 찬인이 감찰을 이끌고 자리 에 나아간다. 또 찬인은 여러 집사들을 이끌고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각각 자리에 나아가면, 찬인이 전사·대축·궁위령을 이끌 고 들어와서, 감실(炤室)을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신좌(神座)에 설치 하고, 【신악 안에 나아가 상[几]뒤에 궤(匱)를 열고 신좌에 설치한다. 선왕(先王)의 신주는 대축이 받들어 내어 백저포(白苧布)로 덮어 놓고, 선후(先后)의 신주는 궁위령이 받들어 내어 청저포(靑苧布)로 덮어 놓는데 서쪽을 위로 한 다.】 다시 이끌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면, 찬인이 다시 재랑을 이끌고 작

位。 協律郎跪俛伏舉麾輿, 【凡取物者, 皆跪俛伏而取以輿, 奠物則跪奠訖, 俛伏而後興。】 工鼓祝, 軒架作《景安之樂》、《烈文之舞》, 作九成, 協律令偃麾戛敵, 樂止。 【凡樂, 皆協律郎跪俛伏舉麾輿, 工鼓祝而後作, 偃麾戛敵而後止。】 執禮曰行晨禋禮, 謁者引獻官, 詣盥洗位北向立, 贊拈笏, 盥手悅手, 【盥手悅手不贊】 贊執笏, 引詣尊所西向立, 【登歌作, 肅安之樂、烈文之舞作。】 執尊者舉罍酌鬱鬯, 執事者以瓚受鬱鬯。 謁者引獻官, 詣神位前北向立, 贊跪拈笏, 執事者一人捧香合, 執事者一人捧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執事者以瓚授獻官, 獻官執瓚灌地訖, 以瓚授執事者。 大祝以幣篚授獻官, 獻官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奠于案, 【凡奉香授瓚授幣, 皆在獻官之右, 奠爐受瓚奠幣, 皆在獻官之左。 授爵奠爵準此。】 謁者贊執笏俛伏興。 【登歌止】 謁者引獻官, 出戶就前楹外, 當中北向立, 謁者贊再拜, 引降復位。 當登歌止時, 祝史取毛血槃、肝膋鑿於前楹外, 入奠於神位前。 【毛血槃在鑿

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찬(瓚)을 씻고 닦는다. 또 작(爵)을 씻고 닦기를 마치면 비(篚)에 담아 받들고 태계(泰階)로 나아가고, 축사가 계상(階上)에서 이를 맞아 존소(尊所)의 짐 위에 놓는다. 그리고 나며, 알자는 헌관을 이끌고, 찬인은 천조관을 이끌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간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네 번 절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가서 고하기를, ‘유사가 삼가 <예를> 갖추었으니 행사(行事)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범물량이 꿇어 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무릇 물건을 취하는 자는 모두 꿇어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취하고 일어나며, 물건을 드릴 때에는 꿇어앉아 드린 뒤에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다.】 악공(樂工)이 축(祝)을 치고, 헌가(軒架)에서 경안(景安)의 악(樂)과 열문(烈文)의 춤이 시작된다. 구성(九成)944) 을 마치면 협률령이 휘를 줍히고, 어(敵)를 쳐서, 악이 그친다. 【무릇 악은 모두 협률량이 꿇어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친 뒤에 그친다.】 집례가 말하기를, ‘신관례(晨裸禮)를 행하라.’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찬하기를, ‘홀(笏)을 꽂으라.’ 찬한다.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면, 【손 씻고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찬하기를, ‘홀을 잡으라’ 하고, 인도하여 존소로 나아가서 서향하고 서며, 등가(登歌)가 연주되며, 숙안(肅安)의 악과 열문의 춤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떡을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집사자가 찬(瓚)으로 이 울창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神位)앞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면, 찬하기를,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올리고, 또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올린다.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면, 집사자가 노(爐)를 향안[案]에 드린다. <분향을 마치면> 집사자가 찬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찬을 잡고 술을 땅에 부은 다음에, 찬을 도로 집사자에게 준다. 대축(大祝)이 폐백 광주리[幣籠]를 헌관에게

之後, 肝脩鑿在籩之左。】祝史取肝出戶, 燔於爐炭, 還尊所饋食。獻官既升裸, 贊引引典祀官出, 帥進饌者詣廚, 以匕升牛于鑊, 實于牲匣, 次升羊豕, 各實于牲匣, 【牛羊豕各一匣】入設於饌幔內。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 捧俎官隨之, 俟獻官裸訖復位。執禮曰進饌, 謁者引薦俎官、捧俎官, 各捧牲匣, 典祀官引饌入自正門。【南門】俎初入門, 軒架作《雍安之樂》。祝史進徹毛血粢, 自阼階授齋郎以出。饌至泰階, 大祝迎引於階上, 薦俎官詣神位前北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大祝助奠】奠訖, 啓牲匣蓋, 【樂止】謁者引薦俎官以下, 降自阼階復位。大祝取蕭黍稷, 搗於脂, 燔於爐炭, 還尊所。執禮曰行初獻禮, 謁者引獻官, 詣尊所西向立, 【登歌作, 壽安之樂、烈文之舞作。】執尊者舉罍酌醴齊, 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獻官, 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執事者以副爵授獻官, 獻官執副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謁者

주면, 헌관이 폐백을 받아 가지고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안(案)에 드린다. 【무릇 향을 바치거나, 찬을 주거나, 폐백을 주는 것은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노를 드리거나, 찬을 받거나,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을 주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謁者)가 찬하기를, ‘홀을 잡으라.’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면, 등가(登歌)가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앞 기둥 밖에 나아가서 중앙에 북향하고 서면, 알자가 찬하기를, ‘재배하라.’ 하고, 다시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등가(登歌)가 그칠 때를 당하여 축사는 모혈반(毛血槃)과 간료등(肝膋鐙)을 앞 기둥 밖에서 가지고 들어가 신위 앞에 드리고, 【모혈반은 간료등 뒤에 놓고, 간료등은 변의 왼편에 놓는다.】 축사가 다시 간(肝)을 취하여 지계문을 나와 이를 노의 숯불에 구워 가지고 준소로 돌아가서 헌관에게 준다. 이미 관(裸)을 이루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아가고, 다시 진찬(進饌)할 사람들을 거느리고 주방으로 나아가서, 비(匕)로 우(牛)를 확(鑊)에서 건져 내어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에는 양(羊)과 시(豕)를 건져서 각각 생갑에 담아 가지고, 【우와 양과 시를 각각 한갑씩 한다.】 찬만(饌幔) 안으로 들어가 벌여 놓으면,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찬소(饌所)로 나아가고, 봉조관도 따라가 헌관이 관(裸)을 마치기를 기다려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진찬하라.’ 하면, 알자가 천조관과 봉조관을 인도하여 각각 생갑을 받들어 올리고, 전사관은 찬수를 인도하여 정문 【남문(南門).】 으로 들어간다. 조(俎)가 처음 문에 들어가면, 헌가에서 용안(雍安)의 악을 연주한다. 축사는 나아가서 모혈반을 거두어 가지고 조계로부터 재랑(齋郎)에게 주어 내보내고, 찬수가 태계에 이르면, 대축이 조계 위에서 맞아 인도하고, 천조관이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꿇어앉아 드리되, 먼저 우(牛)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양(羊)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시(豕)를 드린다. 【대축이 전드리는 것을 돕는다.】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생갑의 덮개를 열면, 악(樂)이

贊執笏俛伏興小退北向跪, 【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 讀祝文訖, 【樂作。 歌純寧之曲。】謁者贊俛伏興。 【曲終樂止】謁者引獻官, 出戶就前楹外, 當中北向立, 謁者贊再拜引降復位, 【文舞退, 武舞進, 軒架作舒安之樂。 舞者立定, 樂止。】獻官復位。 小頃, 執禮曰行亞獻禮, 謁者引獻官, 詣尊所西向立, 【軒架作, 壽安之樂、昭武之舞作, 鄉樂交奏。】執尊者舉罍酌盞齊, 執事者二人以爵受酒。 謁者引獻官, 詣神位前北向立, 贊跪摺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執事者以副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 【樂止】謁者引獻官, 出戶就前楹外, 當中北向立, 謁者贊再拜, 引降復位, 獻官復位。 小頃, 執禮曰行終獻禮, 謁者引獻官, 行禮如亞獻儀, 引降復位。 獻官既復位, 執禮曰飲福受胙, 大祝詣尊所, 以爵酌豐福酒, 祝史持俎進, 減神位前胙肉。 謁者引獻官, 詣飲福位西向立, 贊跪摺笏。 大祝進獻官之左北向, 以爵授獻官, 獻官受爵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 이하를 인도하여 조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대축은 소(蕭)·서(黍)·직(稷)을 취하여 가지고 기름[脂]에 버무려 노의 숯불에 구워 준소로 돌아간다.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등가(登歌)가 시작되어 수안(壽安)의 악을 연주하고, 열문(烈文)의 춤을 춘다. 집준자가 떡(饗)을 들고 예제(禮齊)945) 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고, 찬하기를,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집사자는 또 부작(副爵)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악자가 찬하기를,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앉으라.’ 하고, 악은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끓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악을 〈다시〉 시작한다. 【순녕(純寧)의 곡(曲)을 노래한다.】 알자가 찬하기를, ‘면, 복, 흥’이라 하고, 곡(曲)이 마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 문을 나와서 앞기둥 밖으로 나아가서 중앙에서 북향하고 서면, 알자가 ‘재배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문무(文舞)는 물러나고, 무무(武舞)가 나아가고, 헌가는 서안(舒安)의 악을 시작한다. 춤추는 사람들이 각기 설 자리에 서면, 악이 그치고, 헌관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고 말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고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고 서면, 헌가에서는 수안(壽安)의 악과 소무(昭武)의 춤이 시작되고, 향악(鄉樂)도 같이 연주한다. 집준자가 떡(饗)을 들고 양제(盞齊)946) 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고,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하기를,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飲卒爵，大祝受虛爵，復於坫，以俎授獻官，獻官受俎，以授執事者，執事者受俎，降自阼階出門。謁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執禮曰再拜，在位者皆再拜。執禮曰徹籩豆，大祝入徹籩豆。【徹者，籩豆各一，小移故處。登歌作雍安之樂。】徹訖，【樂止，軒架作景安之樂，鄉樂交奏。】執禮曰四拜，在位者皆四拜。樂一成止。執禮曰望瘞，謁者引獻官，詣望瘞位北向立，執禮帥贊者，詣望瘞位西向立，大祝取黍稷飯，藉用白茅，束之以篚，取祝版及幣，降自西階，置於坎。執禮曰可瘞，實土半坎，殿司監視。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謁者引獻官出。執禮帥贊者還本位，贊引監察及諸執事，俱復懸北拜位。立定，執禮曰四拜，監察及諸執事皆四拜訖，贊引以次引出，雅樂令帥工人、二舞出，殿司、大祝、宮闈令納神主如常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懸北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宮闈令闔戶以降乃退復命。獻官以下行事執事官，各還齋所。住一刻頃，有司陳鹵簿於齋坊南門外 如來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집사자가 또 부작(副爵)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앞 기둥 밖으로 나아가서 중앙에서 북향하여 서면, 알자는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중헌례(終獻禮)를 행하라.’고 말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헌관이 이미 제자리로 돌아오면, 집례가 ‘음복수조(飲福受胙)하라.’ 한다. 대축이 준소로 나아가서 작으로 뇌(鬯)의 복주(福酒)를 따르고, 축사는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신위 앞의 조육(胙肉)을 던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면, 찬하기를, ‘끓어얹아 홀을 깨끗하라.’ 하고, 대축은 헌관의 왼편으로 나아가 북향하고 서서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받아 마신다. 대축은 빈 작을 받아 접위에 도로 갖다 놓고, 조(俎)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조를 받아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는 조를 받아 가지고 조계로 내려가 문밖으로 나간다. 알자가 찬하기를,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재배하고, 또 집례가 ‘변(籩)·두(豆)를 거두라.’ 하면, 대축이 들어가서 변·두를 거두고, 【거둔다는 것은 변·두 각 한 개를 제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이다.】 등가는 용안(雍安)의 악을 연주하며, 거두기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헌가는 경안(景安)의 악을 연주하며, 향악도 함께 연주한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고, 악은 한 곡[一成]을 마치고는 그친다. 집례가 ‘망예(望瘞)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고,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서 서향하고 선다. 대축이 기장밥[黍飯]과 피밥[稷飯]을 취하여 백모(白茅)로 싸서 비(籩)

儀。 獻官以下行事執事官至外門外，以次上馬，行至闕門外，下馬入庭，序立復命，四拜訖退。 獻官一、【一品】薦俎官一、【二品】執禮一、【四品】典祀官一、【奉常寺官】大祝一、祝史一、齋郎一、協律郎一、殿司一、宮闈令一、掌牲令一、雅樂令一、捧俎官三、謁者一、贊者一、贊引一。

	<p>로 묶고, 또 축판(祝版)과 폐백을 취하여 가지고 서계(西階)로 내려가서 구덩이[坎]에 놓는다. 집례가 ‘묻는 것이 가하다.’고 말하면, 흙을 넣어 구덩이의 반쯤 차도록 묻는데, 전사가 이를 감시한다. 알자가 헌관의 원편으로 나아가서 예가 끝났음을 고하고, 알자는 다시 헌관을 인도하고 나간다.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찬인은 감찰 및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현(懸) 북쪽의 배위로 돌아가서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및 여러 집사들은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아악 령은 공인과 〈문무·무무〉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나간다. 전사·대축·궁위령은 신주를 감실에 들여놓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는 알자·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현 북쪽의 배위로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궁위령은 문을 닫고 내려와서 물러가 복명(復命)하면, 헌관 이하 행사한 집사관은 각기 재소(齋所)로 돌아간다. 1각쯤 있다가, 유사가 노부(鹵簿)를 재방(齋坊) 남문 밖에 벌여 놓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헌관 이하 행사한 집사관들은 바깥 문밖에 이르러 차례로 말에 오르고, 궐문 밖에 이르러서는 다시 말에서 내려서 뜰로 들어가 차례로 서서 복명하고, 사배하고 나서 물러간다. 헌관(獻官) 1인 【1품.】, 천조관(薦俎官) 1인 【2품.】, 집례(執禮) 1인 【4품.】, 전사관(典祀官) 1인.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으로 한다.】, 대축(大祝) 1인, 축사(祝史) 1인, 재랑(齋郎) 1인, 협률랑(協律郎) 1인, 전사(殿司) 1인, 궁위령(宮闈令) 1인, 장생령(掌牲令) 1인, 아악 령(雅樂令) 1인, 봉조관(捧俎官) 3인, 알자 1인, 찬자 1인, 찬인 1인이다.”</p> <p>하였다.</p>	
<p>세종 27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2월 15일(을묘)</p>	<p>좌부대언(左副代言) 김자(金赭)가 사신에게 문안하니, 윤봉이 말하기를, “종이를 제조하는 방문(方文)과 사기(沙器)를 바치라는 성지(聖旨)가 있었소.” 하므로, 김자가 묻기를,</p>	<p>左副代言金赭問安于使臣, 尹鳳曰: “造紙方文及沙器進獻, 有聖旨?” 赭問曰: “沙器數幾何?” 許鳳曰: “數則無</p>

<p>2번째기사 광주 목사에게 명나라에 바칠 백자 장본 10개를 잘 구워 올리게 하다</p>	<p>“사기의 수효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 봉이 말하기를, “수효에 대해서는 성지가 없었소. 그러나, 내 생각에는 10개의 탁자(卓子)에 필요한 것으로 한 탁자마다 대·중·소의 주발[椀]이 각각 1개, 대·중·소의 접시[櫛兒]가 각각 5개, 대·중·소의 장본(獐本)【장본은 술 그릇이다. 형상이 도고(鼗鼓)와 같고, 배에 주둥이가 있는 것을 속칭 장본이라 한다.】10개면 될 것이오.” 하고, 또 말하기를, “칙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이와 같이 청하여 〈어떻게 알지 모르나〉, 나는 본래 따로 사장(私藏)하는 것이 없으니, 장차 어디에 쓰겠소.” 하였다. 김자가 이말을 임금에게 아뢰니, 곧 전라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전주(全州)의 지장(紙匠)에게 역마(驛馬)를 주어 올려 보내라.” 하고, 광주 목사(廣州牧使)에게 전지하여, “명나라에 바칠 대·중·소의 백자(白磁) 장본(獐本) 10개를 정세(精細)하게 구워 만들어 올리라.” 하였다.</p>	<p>聖旨，然吾心以謂，十卓所用，每卓大中小椀各一，大中小櫛兒各五及大中小獐本【獐本，酒器，形如鼗鼓，腹有口，俗號獐本。】十事可也。”且曰：“勅書不載，而如此請之者，予本無私藏，將用之何處乎？”金緒將此言以啓，卽傳旨于全羅道監司，全州紙匠，給驛上送，傳旨廣州牧使，進獻大中小白磁獐本十事，精細(磻) [燔] 造以進。</p>
<p>世宗 27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2月 20日(庚申) 11번째기사 윤봉이 구리로 만든 주발 국자 주전자를 원하니 이를 주다</p>	<p>윤봉이 구리[銅]로 만든 우자(孟子)984) 2개, 작[杓]985) 2개, 관자(灌子)986) 1개를 요구하므로,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p>	<p>尹鳳索銅孟子二、杓二、灌子一，命與之。</p>
<p>세종 27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3월 16일(병술)</p>	<p>장군 절제사에게 술과 고기를 내렸다.</p>	<p>賜酒肉于掌軍節制使。</p>

<p>3번째기사 장군 절제사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다</p>		
<p>世宗 28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4月 1日(庚子) 1 번째기사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고, 간략한 술잔치를 베풀다</p>	<p>조회를 받고 나서 정사를 보고, 이어서 간략한 술잔치를 베풀어, 조회에서 일 을 아뢴 재추(宰樞)와 대간(臺諫)들을 대접하고, 영돈녕(領敦寧) 유정현과 정 부와 여러 부원군에게, “모두 들어와서 술자리에 참여하라.” 고 명하였다.</p>	<p>庚子朔/受朝, 視事, 仍小酌, 饋朝啓宰 樞、臺諫, 命領敦寧柳廷顯及政府、諸 府院君, 皆入侍酌。</p>
<p>세종 28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4월 13일(임자) 4번째기사 광명 백반 제조 법의 개발과 그 공납에 관 한 호조의 계</p>	<p>호조에서 계하기를, “첨지사역원사(僉知司譯院事) 김귀룡(金貴龍)이 시험하였는데, 함길도 갑산군 에서 생산되는 광명 백반(光明白礬)을 만드는 법은, 하루에 4, 5인이 뿔나무 를 하여 오고, 5, 6인이 백반석(白礬石)을 주워다가 석회(石灰) 1만여 근을 만들어서 한두 달 동안 묻어 두어 시고 매운 맛이 나게 된 뒤에, 석회 50근 을 가져다가 먼저 더운 물을 부어 녹여 내리고, 또 맑은 물 다섯 동이를 붓고 끓여서 세 동이가 되게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광명 백반은 30근이 될 것이 라 합니다. 이에 의거하여 1년 동안 국가에 소용되는 수량을 참고하여 보면 상의원에 9근 14냥쫘이요, 도염서(都染署)에 2백 7근 15냥쫘이오니, 지금 갑 산에서 백반을 구워내는 것은 인력이 적게 들고 소출은 많사오니, 앞으로는 위에 아뢴 두 관사에서 1년에 소용되는 수량 외에 불시에 쓸 것까지 예비하 여, 모두 3백 근을 본군의 상시 공납(常時貢納)으로 공안(貢案)에 등록하고 매년 상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 “僉知司譯院事金貴龍所試咸 吉道甲山郡產出光明白礬造作之法, 一 日四五人取薪, 五六人拾白礬石, 燒爲 石灰一萬餘斤, 埋經一二朔酸辛後, 將 石灰五十斤, 先以溫水淋下, 又以清水 五盆, 煮至三盆, 則所取光明白礬可三 十斤。 據此參考, 一年國用, 尙衣院 九斤十四兩, 都染署二百七斤十五兩。 今甲山白礬煮取, 力役輕而所出多, 乞 自今上項兩司一年經費外, 加不時備用 共三百斤, 爲本郡常貢, 錄之貢案, 每 年上納。” 從之。</p>
<p>世宗 28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p>	<p>생선과 고기를 양녕 대군에게 보내 주었다.</p>	<p>賜送魚肉于讓寧大君。</p>

<p>1年) 4月 16日(乙卯) 2번째기사 생선과 고기를 양녕 대군에게 보내 주다</p>		
<p>세종 28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4월 29일(무진) 4번째기사 영접과 전송 이외에는 금주령을 그대로 하라 고 사헌부에 전교하다</p>	<p>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영접하고 전송하는데 모여 마시는 외에 술마시는 것을 금하던 것을 아직 그 대로 금하라.” 고 하였다.</p>	<p>傳旨于司憲府: “除迎餞會飲外, 姑停 禁酒。”</p>
<p>세종 28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6월 2일(경자) 5 번째기사 내관 김순을 보내어 사신에게 별식을 선사 하다</p>	<p>내관 김순(金淳)을 보내어 사신에게 별찬을 선사하였다.</p>	<p>遣內官金淳, 饋別膳于使臣。</p>
<p>世宗 28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6月 7日(乙巳) 2 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소주를 보내 주다</p>	<p>양녕 대군에게 소주를 보내 주었다.</p>	<p>賜送燒酒于讓寧大君。</p>
<p>세종 28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p>	<p>궁중의 음식을 양녕 대군에게 주었다.</p>	<p>賜內膳于讓寧大君。</p>

<p>1년) 6월 9일(정미) 3 번째기사 궁중의 음식을 양녕 대군에게 주다</p>		
<p>세종 29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윤7월 19일(병 진) 5번째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 느리고 진향 제문과 진위 표문을 배송하다</p>	<p>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 제문과 진위 표문을 배송하였다. 그 제문에 “삼가 배신 좌군 총제 김겸을 보내어 맑은 술과 태뢰(太牢) 제물로써 감히 대 행 황제 신어 좌전(神御座前)에 고합니다. 엿드려 생각건대 하늘이 성덕을 내 셨으니 가특하심은 형언하기 어려웠습니다. 태자로 계실 때부터 진실로 민심 에 화합하셨고, 대통을 계승하심에 바야흐로 태평하였습니다. 우리 소국에서 명정(明庭)에 진하하였더니, 특히 상을 주시고 말씀이 정녕(丁寧)하였습니다. 신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항상 만수를 축원하였습니다. 황제께서는 하호(何 怙)1025) 를 추념하시고 민막(民瘼)을 염려하시다가 슬픔과 근심으로 병환이 되셨는데, 위독하시어 빈천(賓天)하심이 이렇게 급할 줄을 어찌 뜻했겠습니 까. 조서를 받들어 읽음에 통곡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삼가 슬픈 정상을 받들 어 이에 맑은 술잔을 올리오니, 조그만 충정을 살피시어 굽어 흠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고, 표문에는, “성정(聖情)이 속세(俗世)를 싫어하시어 선어(仙馭)가 하늘에 오르셨도다. 부 음(訃音)이 대궐에서 나오니 슬픔이 만국에 얽히도다. 엿드려 생각하건대 황 제께서는 효성이 지극하심에 호모(號慕)하기에 못 견디리니, 슬픔을 억제하시 고 예제(禮制)를 따르기 바라옵니다.” 하였다.</p>	<p>議政府率百官，拜進香祭文及陳慰表。 其祭文曰： 謹遣陪臣左軍摠制金謙，以清酌太牢之 奠，敢昭告于大行皇帝神御座前。伏 以天縱聖德，大哉難名。自居儲位， 允協輿情。嗣承大統，方迓隆平。惟 予小國，陳賀明庭。特加賞賚，天語 丁寧。臣拜稽首，恒祝遐齡。帝念何 怙，且慮民瘼。哀毀憂勞，乃致邁疾， 豈意大漸？賓天斯迫。欽讀詔辭，不 勝號(僻)〔擗〕。謹敘哀誠，仍陳洞 酌。冀諒微衷，俯垂歆格。 其表曰： 聖情厭世，仙馭賓天。訃發中宸，悲 纏萬國。伏惟皇帝陛下孝誠純至，號 慕難居。冀抑哀思，府循禮制。</p>
<p>世宗 29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閏7月 21日(戊</p>	<p>내관 김순(金淳)을 보내어 사신에게 별찬(別饌)을 대접하였다</p>	<p>戊午/遣內官金淳，饋別膳于使臣。</p>

<p>午) 1번째기사 내관 김순을 보내 사신에게 별찬을 대접하다</p>		
<p>世宗 29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閏7月 28日(乙丑) 1번째기사 황제·황태후에게 존시·존호를 올린 것과 중궁의 책봉을 축하하는 표문에 배례하다</p>	<p>(전략) 방물표에는, “큰 명호(名號)를 책봉하고 성한 예식을 선양하니, 깊은 축하의 정으로 작은 정성을 표하나이다. 삼가 황세저포·백세저포·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황화석·잡채화석 각 10장, 인삼·잣·오미자 각 50근을 드리웁니다. 황태후께 드리는 방물은 홍세저포·백세저포·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 10장, 황화석·잡채화석 각 6장입니다. 하였다. 중궁에게 드리는 방물도 같았다.</p>	<p>(전략) 方物表曰: 冊封鴻名, 誕揚縟禮, 情深燕賀, 聊効卑忱。 謹獻黃細苧布、白細苧布、黑細麻布各二十四, 滿花席、黃花席、雜彩花席各一十張, 人蔘、松子、五味子各五十觔。 皇太后方物, 紅細苧布、白細苧布、黑細麻布各二十四, 滿花席一十張, 黃花席、雜彩花席各六張。 中宮方物同。</p>
<p>世宗 29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9月 10日(丙午) 1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연어를 내려 주다</p>	<p>양녕 대군에게 연어(鱧魚)를 내려 주었다.</p>	<p>丙午/賜鱧魚于讓寧大君。</p>
<p>세종 29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9월 10일(병오) 2번째기사 강무할 때 잡은 노루·사슴은 적당히 포육을</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일찍이 강무(講武)1039) 하는 예절의 한 조목으로 내리신 교지에, ‘짐승을 쫓 적에 왼편에서 쏘아서 오른편 어깨죽지까지 통한 것을 첫째로 삼아서, 그것을 건두(乾豆)로 하여 종묘에 바친다.’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강무할 때에 잡은 노루와 사슴은 적당히 포육(脯肉)을 만들어 건두를 준비하기를 청합니다.”</p>	<p>禮曹啓: “曾降教旨, 講武之禮一款, 凡射獸自左(標) [鵞] 而射之, 達于右膈爲上, 以爲乾豆, 奉宗廟。 請自今以講武所獲獐鹿, 量宜作脯, 以備乾豆。” 從之。</p>

만들어 건두를 준비하게 하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p>世宗 29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9月 29日(乙丑) 1번째기사</p> <p>건지산에서 몰이하여 임금이 사슴 한 마리를 쏘다</p>	<p>건지산(巾之山)에서 몰이하여 임금이 사슴 한 마리를 쏘았다. 낮참에 아고개(牙古介) 동구에서 머물렀는데, 수행한 종친이 술자리에 모셨다. 수행한 대신과 대언 및 감사·경력·찰방 등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고, 감사가 진상한 술은 시위한 군사에게 나누어 주면서 장군 절제사에게는 술과 고기를 별도로 주었다. 병조 지인(兵曹知印) 이극강(李克剛)을 보내어 건두(乾豆)로 만들 사슴 2마리를 봉상시(奉常寺)에 보내고, 도성(都城)에 머물러 있는 영돈녕 유정현·영의정 이직·우의정 유관에게는 노루 각 한 마리씩, 의정부와 육조에는 멧돼지·사슴 각 한 마리씩을 주고, 이어 술을 주도록 명하였다. 저녁에 경안역(慶安驛) 아랫쪽 평지에 유숙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대신이 된 자는 마땅히 백성을 구휼하는 것으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내 이제 장군 절제사 전홍과 조모(趙慕)의 군사 거느리는 것을 보니, 곡식밭을 밟아 손해를 주니 어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겠는가.” 하고, 곧 병조에게 핵문하여 아뢰도록 명하고, 장군 절제사는 여산군(礪山君) 송거신(宋居信)과 첨총제 최보로(崔甫老)로 대체하게 하였다.</p>	<p>乙丑/驅巾之山, 上射鹿一。 晝停于牙古介洞口, 隨駕宗親侍酌, 命饋隨駕宰樞、代言及監司、經歷、察訪等。 監司進酒, 分賜于侍衛軍士, 別賜酒肉于掌軍節制使。 遣兵曹知印李克剛, 送乾豆鹿二于奉常。 賜留都領敦寧柳廷顯、領議政李稷、右議政柳觀獐各一, 議政府、六曹猪鹿各一, 仍命賜酒, 夕次于慶安驛下平。 上曰: “大抵, 宰相者當以恤民爲心。 予今見掌軍節制使田興、趙慕率軍士踐損穀田, 豈宰相愛民之心乎?” 卽命兵曹劾問以啓, 以礪山君宋居信、僉摠制崔甫老代之。</p>
<p>세종 30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0월 1일(병인) 2번째기사</p> <p>건두로 쏘 사슴 한 마리를 봉상시에 보내다</p>	건두(乾豆)로 쏘 사슴 한 마리를 봉상시에 보냈다.	送乾豆鹿一于奉常。
<p>세종 30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p>	찬성 황희(黃喜)·이조 판서 허조(許稠)·공조 판서 조비형(曹備衡) 등이 평안도 백성의 민폐(民弊)에 대한 고통을 전변에 아뢰었으므로, 임금이 호조에 명하	初, 贊成黃喜、吏曹判書許稠、工曹判書曹備衡等啓平安道居民受弊之苦, 上

<p>1년) 10월 9일(갑술) 5번째기사 평안도에서 반화피·건어·녹포·모피·개암·약재 등을 공납하지 않게 하다</p>	<p>여 그 도에서 공납하는 물품의 양을 감하게 하였는데, 이번에 호조에서 마감하고 계하기를, “공조에 바치는 반화피(斑樺皮), 사재감(司宰監)에 바치는 건어(乾魚)·건저(乾豬)·건장(乾獐)·녹포(鹿脯), 제용감(濟用監)에 바치는 모피(毛皮), 의영고(義盈庫)에 바치는 개암[榛子]·마른 버섯[乾菌], 도염서(都染署)에 바치는 지초(芷草), 제생원(濟生院)에 바치는 약재(藥材) 등은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令戶曹量減本道納貢之物。至是戶曹磨勘啓：“工曹納斑樺皮，司宰監納乾魚、乾豬、乾獐鹿脯，濟用監納毛皮，義盈庫納榛子、乾菌，都染署納芷草，濟生院納藥材宜除。”從之。</p>
<p>世宗 30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11月 7日(壬寅) 1번째기사 이순몽·목진공·조뇌 등이 흠사약재 칙서를 받들고 돌아오다</p>	<p>진하사(進賀使) 도총제 이순몽(李順蒙)·호조 참판 목진공(睦進恭)·지돈녕 조뇌(趙賚) 등이 흠사약재 칙서(欽賜藥材勅書)를 받들고 돌아왔다. 임금이 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화루에 나아가 칙서를 맞이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의식대로 예를 행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사자가 이르러 약재를 아뢰어 청하므로, 지금 부치어 보내니 받아주기 바란다. 용뇌(龍腦) 1근, 소합유(蘇合油) 1근, 침향(沉香) 5근, 노회(蘆薈) 5근, 주사(硃砂) 5근, 사향(麝香) 5근, 담반(膽礬) 10냥쫘, 부자(附子) 5근, 천오(川烏) 5근, 쇠양(鎖陽) 1근.” 이라 하였다. 임금이 경회루 아래에서 사신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친·부마·영돈녕·의정부·육조·여러 부원군과 판부사 맹사성·대제학 변계량·대사헌·여섯 대언들이 연회에 입시하였다. 그 종사관과 종인(從人)에게도 공궤(供饋)하기를 명하고, 순몽·진공·뇌에게는 안장 갖춘 내구마(內廐馬)를 각 한 필씩 하사하고 환궁하였다.</p>	<p>壬寅/進賀使都摠制李順蒙、戶曹參判睦進恭、知敦寧趙賚等捧欽賜藥材、勅書而回，上率世子以下群臣，幸慕華樓迎勅，至景福宮行禮如儀。其勅曰：使者至，奏請藥材，今付去，至可領也。龍腦一斤、蘇合油一斤、沈香五斤、蘆薈五斤、硃砂五斤、麝香五斤、膽礬十兩、附子五斤、川烏五斤、鎖陽一斤。 上御慶會樓下設慰宴，宗親、駙馬、領敦寧、議政府、六曹、諸府院君、判府事孟思誠、大提學卞季良、大司憲六代言等侍宴。其從事官、從人，亦命饋之。賜順蒙、進恭、賚鞍具內廐馬各一匹，還宮。</p>
<p>세종 30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p>	<p>양녕 대군에게 주육(酒肉)과 화투(靴套)를 하사하였다.</p>	<p>賜酒肉、靴套于讓寧大君。</p>

<p>1년) 11월 18일(계축) 4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주옥과 화투를 하사하다</p>		
<p>世宗 31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月 4日(己亥) 4 번째기사 일본의 원창청·평상가 가 사람을 시켜 토산 물을 바치다</p>	<p>일본의 원창청(源昌淸)이 사람을 시켜 유황·단목·서각·광견(光絹)·약재 등을 올리니, 답례로 정포 1백 40필을 내려 주고, 평상가(平常嘉)도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올리니, 답례로 정포를 내려 주었다.</p>	<p>日本源昌淸使人，獻硫黃、丹木、犀角、光絹、藥材等物，回賜正布一百四十匹。平常嘉使人獻土宜，回賜正布。</p>
<p>世宗 31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月 19日(甲寅) 3번째기사 밤에 연회를 벌여 음 주하는 자가 발각되면 해당 지역 순찰자를 엄중 문책하게 하다</p>	<p>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연회에서 술이 취하도록 마시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기는 하오나, 밤을 이용하여 술자리를 벌이고 술을 마시는 자가 종종 있사온대, 이것은 순찰하는 자가 체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밤에 술을 마시다가 발각된 자가 있을 때에는 곧 그날 그 지역을 순찰한 관원을 추궁하여 엄중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司憲府啓：“宴會酣飲，非不嚴禁，然乘夜宴飲者，比比有之。此徼巡者不能搜捕故耳。請自今夜飲現露，則其日其面行巡官，推劾重論。”從之。</p>
<p>세종 31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2월 4일(무진) 3 번째기사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과일을 상림원에 납부 하게 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근래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과일을 상림원(上林園)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내자시와 내섬시에 납부하게 하는 것은, 그 폐단이 여전하오니, 과거의 예에 의하여 상림원으로 납부하게 하소서. 또한 과일이 결실하는 것이 그 해와 지방에 따라 잘되고 못되는 수가 있는데, 각 지방에 대하여 고정한 액수를 한결같이 상납하게 하면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상납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홍시[紅柿子]·모과·석류·배·유자·감자(柑子)</p>	<p>戶曹啓：“近來各官菓物，除納上林園，納于內資、內贍寺，其弊如前，請依舊例，納于上林園。且菓物結實，隨其年分地面，或有實不實，而令各官定額，一體上納，非徒有弊，箇箇收合上納，未爲淨潔。今後紅柿子、木瓜、石榴、生梨、柚子、柑子等物，勿使各</p>

	<p>등 물품은 각 지방에서 상납하게 하지 말고,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 담당 지역의 각 지방의 결실이 잘되고 못된 것을 조사하여, 공안(貢案)에 매긴 수대로 적당히 나누어 배정하여 제 시기에 따서 좋은 것으로 골라서 올려보내게 하며, 상림원의 서울 안에 있는 과원과 유후사의 강화(江華)에 있는 과원에서, 과일이 잘되어 풍성한 해로서 용도(用度)에 족하면, 각도의 산물건[產物]은 임시로 적당히 수를 줄이고, 또 《원전(元典)》의 조항에, ‘각 지방 관청에는 원포(園圃)를 두어 철을 따라 과일 나무를 많이 심어서 관가의 수요에 대비할 것이며, 민가의 과일이나 대나무를 사용하고 그 값을 치르지 않고 공공연히 가져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장물죄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 각 지방 관청에서 주의하여 따르지 아니하오니 실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과일 나무에 대하여 감사로 하여금 그 담당 지방의 크고 작은 데 따라 포깃수를 정하여 재배하게 하고 감사를 실시하며, 그 중에 도마다 생산되지 않는 유자와 감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연변인 여러 고을에서 포깃수를 재배하게 하고, 그것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손실 경차관(損實敬差官)으로 하여금 직접 본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영구히 일정한 규례로 삼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官上納，令各道監司，考其各官結實多少，依貢案數，隨宜分定，趁時摘取，擇善上納。若上林園京中菓園及留後司江華菓園，菓物繁盛結實之年，用度已足，則各道(酸)〔產〕物，臨時量減。又《元典》一款：‘各官置其園圃，以時多植菓木，以備官用，民戶菓實竹木，毋得不給其直，公然取用，違者計贓論罪。’今各官守令，不能用心遵行，實爲未便。各色菓木，令監司隨其各官大小，量定條數栽植，會計施行。其中每道不產柚子、柑子，於全羅、慶尙道沿邊各官，栽種條數，實不實，令損實敬差官，親審報曹，永爲恒式。”從之。</p>
<p>세종 31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2월 12일(병자) 1번째기사 석견주·대마도의 사물 관압사 대호군 이예가 사조하니 인견하다</p>	<p>석견주(石見州)·대마도(對馬島)의 사물 관압사(賜物管押使) 대호군(大護軍) 이예(李藝)가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 “종정무(宗貞茂)는 지성으로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부왕께서 이를 가상히 여기시어 항상 보호를 베푸셨는데, 정무가 죽은 뒤에 그 섬의 도둑들은 〈이때까지〉 보호하여 준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틈을 타서 좀도둑질을 감행하고 있음은 그대로 아는 바이다. 이제 그대는 가서 그 뜻을 종언칠(宗彦七)에게 전하라.”</p>	<p>丙子/石見州、對馬島賜物管押使大護軍李藝辭，上引見曰：“宗貞茂至誠歸順，父王嘉之，常加撫育，自貞茂死後，其島賊人，不念撫育之恩，投間鼠竊，汝之所知。今汝往傳此意于宗彦七。”藝對曰：“小臣往來本島屢矣。其在貞茂時，臣諫曰：‘汝等向本國，不</p>

	<p>하니, 예가 대답하기를, “소신이 이 섬에 왕래한 것이 여러번이었습니다. 정무가 살았을 때에, 신이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여 왔습니다.”</p> <p>하니, 임금의 이르기, “몇 번이나 갔다 왔느냐.”</p> <p>하니, 예가 대답하기를, “모두 16번이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이르기, “모르는 사람은 보낼 수 없어서, 이에 그대를 명하여 보내는 것이니, 귀찮다 생각하지 말라.”</p> <p>하고, 드디어 갖과 신을 하사하였다. 예조 참의 유계문(柳季聞)이 석견주(石見州)의 장빈(長濱) 인번수(因幡守)에게 회답하는 서한에 이르기, “풍파를 만난 본국 사람 10명을 후히 보호하여 돌려보내고, 또 예물까지 바쳤기로 삼가 사실을 갖추어 주상께 보고하였더니, 주상께서 매우 가상히 여기시었다. 여기에 토산물로 백세면주(白細綿紬)·백세저포(白細苧布)·흑세마포(黑細麻布) 각 20필, 정포 25필, 만화침석(滿花寢席) 10장, 청사피(靑斜皮) 5장, 자사피(紫斜皮) 3장, 호피(虎皮) 3장, 표피(豹皮) 2장, 인삼 20근, 잣 5백 근, 꿀 15말, 말린 범고기 2마리 분을 좌위문대랑의 사절인 좌위문 삼랑과 등차랑 등에게 부쳐 보내니, 조사하여 받으라.”</p> <p>하고, 예조 좌랑 신기(愼幾)가 대마주(對馬州)의 좌위문대랑에게 회답하는 서한에 이르기, “풍파를 만난 본국 사람들을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 송환하여 주었으니 깊이 감사하며, 이제 토산물인 백세면주 10필, 백세마포·흑세마포 각 5필, 소주 30병과 꽃감 30첩, 잣·밤·대추 30 말씩과 건대구(乾大口) 2백 마리, 건청어 5백</p>	<p>可不至誠以事之。” 上曰：“往來幾度?” 藝對曰：“凡十六度。” 上曰：“不知之人，不可以遣，茲用命汝以送，勿憚煩數。” 遂賜笠靴。 禮曹參議柳季聞答石見州長濱(因幡守) [因幡守] 書曰：</p> <p>本國遭風人一十名，厚恤送還，仍獻禮物，謹具啓達，上甚嘉之。 茲將土宜白細綿紬·白紬苧布·黑細麻布各二十四、正布六十五匹、滿花寢席一十張、靑斜皮五領、紫斜皮三領、虎皮三領、豹皮二領、人蔘二十觔、松子五百觔、清蜜十五斗、乾虎肉全體二就付，左衛門大郎使人左衛門三郎及藤次郎等前去，惟照領。</p> <p>禮曹佐郎愼幾答對馬州左衛門大郎書曰：</p> <p>本國遭風人等，專人解送，深謝深謝。 茲將土宜白細綿紬一十四、白細苧布·黑細麻布各五匹、燒酒三十瓶、乾柿子三十貼、松子·黃栗·大棗各三十斗、乾大口魚二百首、乾靑魚五百首，委差大護軍李藝齋去，惟照。 今送因幡守處書契并土宜，差付藤次郎及回去左衛門三郎等 轉送爲幸。</p>
--	---	---

	<p>마리를 대호군 이예에게 부쳐 보내니 받아주기 바라며, 이제 인번수에게 보내는 서한과 물품을 등 차랑과 돌아가는 좌위문 삼랑에게 부쳐 보내니, 전하여 보내 주면 다행으로 생각하겠다.”</p> <p>하고, 신기가 대마주의 증언칠에게 회답하는 서한에 이르기를, “선대부터 우리 나라에 충성을 바치고 귀순하였으므로, 본조에서는 삼가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대호군 이예를 파견하여 토산물인 조미(糙米) 평두(平斗)로 40석을 부쳐 보내니, 조사하여 받아 주고, 자당(慈堂)과 조모님께 보내는 토산물은 따로 별지에 목록을 적었으니, 하나하나 전하여 올려주면 다행으로 여기겠다. 자당(慈堂)에게 조미 평두 40석, 꽃감 20첩, 건대구 2백 마리, 소주 10병, 건청어 3백 마리, 꿀 3말, 잣·밤·대추 15말씩, 다식(茶食)과 계(桂) 각 2근이다.”</p> <p>하고, 대마주의 월포(越浦) 등 차랑에게 보내는 서한에 이르기를, “풍파를 만난 본국 사람 10명을 후하게 접대하여 보낸 데 대하여 위로하는 바이다. 토산물로 면포 5필을 보내니 받으라.”</p> <p>하였다. 예조 참의 유계문이 대마주 태수 종정성(宗貞盛)에게 보내는 서한에 이르기를, “이제 좌위문대랑이 보낸 사람을 통하여 귀하의 조모와 어머니의 상사를 듣고, 삼가 임금께 갖추어 보고하였더니, 임금께서 마음으로 슬프게 여기시고, 대호군 이예에게 명하여 조미 1백 석, 콩 50석, 종이 2백 권, 백세면주·백세저포 각 10필과 꽃감 50첩, 잣 3석, 대추·밤 각 2석을 주어 보내어 부조를 드리는 것이니 받기 바란다.”</p> <p>하였다.</p>	<p>愼幾答對馬州宗彥七書曰： 自從先世，輸誠來附。本曹敬奉王旨，差大護軍李藝，齎土宜糙米平四十石前去，惟照領。慈堂及祖母處付送土宜，具在別幅，一一轉上爲幸。慈堂糙米平四十石、乾柿子二十貼、乾大口魚二百首、燒酒一十瓶、乾青魚三百首、清蜜三斗、松子黃栗大棗各十五斗、茶食桂各二角。</p> <p>致書于對馬州越浦藤次郎曰：“本國遭風人一十名，厚接以送，爲慰。土宜絁布五匹，至可領也。”禮曹參議柳季聞致書于對馬州太守宗貞盛曰：“今因左衛門大郎使人，得聞祖母及慈親奄逝，謹具啓聞，上心軫悼，命差大護軍李藝，齎糙米一百石、豆五十石、紙二百卷、白細絁紬·白細苧布各一十匹、乾柿子五十貼、松子三石、大棗·黃栗各二石，前去致賻，惟照領。”</p>
<p>세종 31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p>	<p>좌대언 조종생(趙從生)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p>	<p>丁巳/命左代言趙從生，問安于兩使，兩使曰：“我等來父母之國，多有停害，</p>

<p>1년) 3월 23일(정사) 1번째기사 좌대언 조종생에게 명하여 두 사신을 문안하게 하다</p>	<p>“우리는 부모의 나라에 온 사람인데 여러가지 폐를 많이 끼치고 있으니, 이제부터 낮에 술을 가져오는 일은 준비하지 마시오. 우리가 만일 술을 마시고 싶으면 전하께 아뢰겠소.” 하였다. 종생이 와서 보고하니, 명을 내리어 영접 도감사(迎接都監使) 신인손(辛引孫)을 불러서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사신에게 낮에 주는 술은 5일에 한 차례씩으로 하고, 만일 초하루나 보름일 경우에는 5일로 따지지 말고 공급하라.” 하였다.</p>	<p>今後勿辦晝奉盃。我等如欲飲酒，達于殿下。”從生來啓，命召迎接都監使辛引孫曰：“自今使臣晝奉盃，五日一次，若值朔望日，則不計五日饋之。”</p>
<p>世宗 31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3月 25日(己未) 3번째기사 경신 공주의 상으로 인해 소식하다</p>	<p>지신사 곽존중·우대언 정흠지·대제학 변계량 등이 계하기를, “경신 공주가 죽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전하께서는 지금까지 소선(素膳)을 드시오니, 신 등이 펍 두렵게 여기는 바는, 모든 일을 살피시며 수고하시는 몸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까 하옵니다. 하물며 태종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주상께서는 하루라도 소찬을 해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바라옵건대 고기 반찬을 다시 드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보통 때에 성(姓)이 다르고 복(服)이 없는 사람의 초상에도 반드시 3일간은 소찬을 했는데, 더구나 같은 성의 고모가 아닌가. 가깝고 먼 관계는 차이가 없을 수 없는 법이다.” 하니, 계량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마음에는 비록 부모상을 당했을 때라도 여러 날 동안 소찬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더구나 그밖의 상사에서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태종의 혼령께서 밝게 하늘에 계시오며, 태종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사오니, 이를 어길 수 없사옵나이다. 성상의 귀중하신 몸은 하루라도 손상되거나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오니, 바</p>	<p>知申事郭存中、右副代言鄭欽之、大提學卞季良等啓曰：“慶愼公主之卒，已過三日，殿下迄今進素膳，臣等竊恐以萬機之勞，不可如此，而況太宗常以爲，‘主上一日不可素膳’，請復肉膳。” 上曰：“予常時雖異姓無服之喪，必三日素食，況同姓之姑乎？親疎之分，不可不異也。”季良等更啓曰：“殿下之言是矣。然太宗之心以爲，‘雖有大故，不可日久素膳’，況其他乎？太宗之靈，於昭于天，太宗之言，昭昭在耳，其可違乎？聖體不可使一日虧疎，伏望上遵太宗之訓，俯答臣民之望。” 上曰：“雖數日素食，於太宗之訓，不爲悖逆，卿等勿請。”</p>

	<p>라옵건대 위로 태종의 가르치심을 받드시며, 아래로 신하와 백성의 기대에 보답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며칠 동안 소식(素食)을 한다고 해서 태종의 가르치심에 거스리게 되지는 않을 터이니 경 등은 더 청하지 말라.”</p> <p>하였다.</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4월 6일(기사) 1 번째기사 경연에 나아가다</p>	<p>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참찬관 곽존중(郭存中)에게 이르기를,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는 예로부터 있는 것이나, 근년에는 천기가 순조롭지 못함이 더욱 심하여, 지난해 겨울에는 늘 따뜻하였으며, 지금 농사 철에 비가 시기를 어기니,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내가 심히 이를 염려하는 바이다.”</p> <p>하니, 존중(存中)이 대답하기를, “지금 한창 보리가 여물고 또한 씨를 뿌릴 시기인데, 이와 같이 비가 오지 않는다면 기근(飢饉)이 이를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여러 곳의 제향(祭享)과 조정(朝廷)의 사신과 이웃 나라 객인(客人)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달 4월 15일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술 쓰는 것을 금하고, 또 각도에서 진선(進膳)하는 것을 정지시키고자 하니, 존중(存中)이 청하기를, “지금은 중국[朝廷]의 사신이 있고 또한 내선(內膳)이 넉넉하지 못하니, 선(膳)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다.</p>	<p>己巳/御經筵。 上謂參贊官郭存中曰：“水旱之災，自古有之。 然近年天氣不順尤甚，前冬恒燠，今於農月，雨澤愆期，未知所由，予甚懼之。” 存中對曰：“今方麩麥秀實，又正播種之時，若是不雨，則飢饉將至矣。” 上遂命除諸處祭享、朝廷使臣及隣國客人支待外，自今四月十五日，禁中外用酒。 又欲停各道進膳。 存中請曰：“今有朝廷使臣，且內膳不充，不可不進。”</p>
<p>世宗 32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4月 7日(庚午) 3 번째기사</p>	<p>호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외방(外方)에서 뽑아 온 처녀가 서울에 머물고 있으면, 양식·소금·장·어물(魚物)을 그 전의 예에 따라 주게 하라.”</p> <p>하였다.</p>	<p>傳旨戶曹： 自今外方選來處女留京糧料、鹽醬、魚物，依前例給之。</p>

<p>외방에서 뽑혀 서울에 온 처녀에게 양식·소금·장·어물을 전례대로 주게 하다</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4월 13일(병자) 9번째기사 대제학 변계량이 술 드시기를 청하므로 따르다</p>	<p>대제학 변계량(卞季良)이 임금의 한재(旱災)를 근심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므로, 대궐에 나아가 술 드시기를 청하기를, “술은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혈맥(血脈)을 통하게 하니, 실로 좋은 약입니다. 만약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하사 조금도 술을 드시지 않으신다면, 기운이 손상됨이 없지 않을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술을 드시어 기맥(氣脈)을 기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大提學卞季良以上憂旱不進酒，詣闕請進曰：“酒所以關邪氣、通血脈，實是良藥。若夙夜憂懼，暫不進酒，不無損氣，伏望須進酒，以養氣脈。”從之。</p>
<p>世宗 32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4月 15日(戊寅) 5번째기사 임금이 한재를 근심하여 술마시기를 그만두다</p>	<p>임금이 한재(旱災)를 근심하여 술마시기를 그만두었다.</p>	<p>上憂旱徹酒。</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4월 16일(기묘) 1번째기사 이직 등이 임금의 건강을 걱정하여 술을 금하지 말 것을 청하</p>	<p>의정부와 육조에서 대궐에 나아가 단 이슬에 대한 하례(賀禮)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이 상서를 내린 것이 내릴 시기에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상서가 아니고, 재변(災變)으로 생각되니 하례하지 말라.” 하였다. 또 이직(李稷) 등이 계하기를, “주상께서 한재(旱災)를 근심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시니, 전하의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서는 의당합니다마는, 술은 풍랭(風冷)을 치료하고 기맥을</p>	<p>己卯/議政府、六曹詣闕，請賀甘露，上曰：“天之降祥，非其時，故予心以爲非祥，乃災變也，其勿賀。”李稷等又啓曰：“上憂旱不進酒，以殿下恐懼修省之心宜矣。然酒，所以治風冷、通氣脈，以旱之故而不進，則臣等恐聖體生病矣。”上曰：“予本不嗜酒，雖</p>

<p>였으나 허락하지 않다</p>	<p>통하게 하는 것이니, 한재(旱災)가 있는 까닭으로 술을 드시지 않으신다면 신 등은 성체(聖體)에 병이 생길까 두렵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본디 술을 즐기지 않으며, 비록 술을 금할 때가 아니더라도 한두 잔에 지나지 않았다. 또 기체(氣體)가 편안하니 비록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무슨 병이 있겠는가. 만약 약으로 먹는다면 염탕(鹽湯)이 좋을 것이다. 나는 들어 따르지 않겠노라.”</p> <p>하였다. 이직 등이 다시 계하기를,</p> <p>“전하께서 오늘 기체가 편안하시다 하여 술을 드시지 않는다면, 아침 저녁으로 풍습(風濕)의 독기가 몸에 맞아서 병이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약을 복용하실 때에 술 한 두 잔 드시는 것이 무엇이 불가(不可)하겠습니까. 신 등의 청은 전하께서 술을 흠뻑 마시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잊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p> <p>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경 등은 내가 연전(年前)에 근심과 걱정으로 병을 얻었던 까닭으로, 이같은 말을 하는 것이나, 내가 그 때에는 선(膳)을 반이나 줄였던 까닭으로 병을 얻은 것이요, 지금은 술만 마시지 않을 뿐인데, 어찌 병이 생길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술마시는 것을 금하고 나만 홀로 마신다면 되겠는가.”</p> <p>하고, 윤허하지 아니하였다.</p>	<p>非禁酒之時，不過一二鍾。且氣體平康，雖不飲酒，何病之有？若服藥，則鹽湯亦可，予不聽從。”稷等更啓曰：“殿下以今日氣體平康，不進酒，則晨昏風濕之毒，中而成疾，未可知也。服藥之時，進酒一二鍾，何不可之有？臣等之請，非爲殿下縱酒，而忘憂懼也。”上曰：“卿等以予年前憂勞成疾，故發此言也。予於其時，爲半減膳，故得病。今則但不飲酒而已，何疾得生？且禁人飲酒，而予獨飲之可乎？”遂不允。</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5월 18일(신해) 1번째기사 공비의 어머니 안씨에</p>	<p>좌의정 이직(李稷) 이하 정부·육조의 참판 이상의 관원들이 대궐에 나아가 계하기를,</p> <p>“어제 신 등이 소(疏)를 올렸는데, 다만 천안(賤案)에 제명하는 것만 명하셨으니, 신 등의 마음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윤허하시고 시행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辛亥/左議政李稷以下，政府、六曹參判以上，詣闕啓曰：“昨日臣等上疏，但命除賤案，臣等之心，有所未安，伏望依允施行。”上曰：“太宗施行之事，予疑其未可盡變。且削其賤案，則安</p>

<p>게 작첩을 돌려 주게 하다</p>	<p>“태종께서 시행한 일은 내가 변경할 수 없고, 또 그 천안을 삭제하였다면 안씨(安氏)는 이미 왕비의 어머니가 되니, 비록 봉작(封爵)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이 혐의스럽겠는가.”</p> <p>하였다. 또 계하기를,</p> <p>“천안에서만 삭제하면 서인이 될 뿐인데, 국모의 어머니로서 어찌 서인이 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의 말이 못하여 그대로 따랐다. 이직 등이 또 술을 드시기를 청하기를,</p> <p>“전하께서 한재를 근심하여 술을 거두시니, 신 등은 근심하고 과로하사 병이 될까 두려워하여 술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희를 얻지 못했으므로 마음으로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했는데, 어제는 비가 흠족하게 내렸으니, 바라옵건대 조금 술을 드시어 신 등의 마음을 위로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비가 조금 내렸다고 뒤따라서 곧 술을 마신다면 마음에 미안하다. 그러나, 경 등이 굳이 청하니 그대로 따르겠노라.”</p> <p>하였다. 이직 등이 물러나니, 임금이 대신(代言)들에게 이르기를,</p> <p>“나만 홀로 술을 마시면서 신민이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한다면 반드시 술에 취하여 방종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는가.”</p> <p>하니, 곽존중(郭存中)이 계하기를,</p> <p>“성상께서 잠시 술 드시기를 허락했을 뿐이온데 어찌 신민들로 하여금 다 술을 마시도록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p>	<p>氏已爲王妃之母矣。 雖無封爵，何嫌焉？” 又啓曰：“但削賤案，則爲庶人而已， 安有國母之母， 而爲庶人者乎？” 上勉從之。 稷等又請進酒曰：“殿下憂旱徹酒， 臣等恐憂勞成疾， 請進酒， 終不得蒙允， 心常憂懼， 乃於昨日， 雨澤滂沱。 伏望小許酒， 以慰臣等之心。” 上曰：“雨澤才降， 隨卽飲酒， 於心未安。 然卿等固請， 從之。” 稷等退， 上謂代言等曰：“吾獨飲之， 而不許臣民之飲未便。 若許飲酒， 必有醉酒放肆之弊， 如之何則可耶？” 郭存中啓曰：“上暫許進酒而已， 豈可使臣民皆飲也？” 上然之。</p>
<p>세종 32권, 8년(1426)</p>	<p>(전략) 그 의주(儀注)에,</p>	<p>(전략) 儀注:</p>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5월 19일(임자) 5번째기사
 예조에서 송나라 원풍의 《예제》에 의거하여 제사 지내자고 청하다

“제사 전 3일에 행사(行事)해야 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2일 동안 산재(散齋)하고 정침(正寢)에서 자며, 제사지낼 곳에서 1일 동안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할 때는 치사(治事)는 전과 같이 하되, 다만 술을 마음대로 마시지 말고, 파·부추·마늘을 먹지 않으며,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않으며, 형벌을 행하지 않으며,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署名)하지 말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치재는 오직 제사지내는 일만을 행한다.
 【무릇 제사에 참여할 사람은 모두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제사 1일 전에 충호위(忠扈衛)는 여러 사관(祀官)의 자리를 설치하고, 또 찬만(饌幔)을 설치하되 모두 동문(東門) 밖에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한다. 전사관(典祀官)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집례(執禮)는 헌관의 자리를 단 아래 동남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집사(執事)의 자리는 그 뒤로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집례(執禮)의 자리는 단 위에 설치하고, 알자(謁者)와 찬자(贊者)의 자리는 단 아래에 설치하되, 모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게 한다. 헌관의 음복(飲福)하는 자리는 단 위의 남계(南階) 서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싯[柴]을 요단(燎壇)에 쌓아 놓고 【신단(神壇)의 남쪽 병방(丙方)이다.】 망료(望燎)하는 자리는 요단의 북쪽에 설치한다. 헌관은 북쪽에 있게 하되, 남향하게 하고, 집례(執禮)·대축(大祝)·찬자(贊者)는 동쪽에 있게 하되, 서향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대축과 찬자는 조금 물려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평상복(平常服) 차림으로 주방(廚房)에 나아가 세척(洗滌)한 것을 보고, 찬구(饌具)를 살피고, 생(牲)이 살졌는가를 보고 재소(齋所)로 돌아온다. 포시(晡時) 후에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생(牲)을 벤다. 【가족째 삶아 익힌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노인성좌(老人星座)를 단 위의 북방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왕골자리를 간다.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짐(坫)이 있다.】 폐비(幣篚)는 준소(尊

前祀三日，應行事執事官，並散齋二日，宿於正寢，致齋一日於祀所。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致齋，唯行祀事。【凡預祭者，皆前二日，沐浴更衣。】前祀一日，忠扈衛設諸祀官次，又設饌幔，皆於東門外隨地之宜。典祀官帥其屬，掃除壇之內外。執禮，設獻官位於壇下東南，西向，執事位於其後稍南，西向北上，執禮位於壇上，謁者贊者位於壇下，俱近東西向，設獻官飲福位於壇上南陞之西北向，積柴於燎壇，【在神壇南丙地。】設望燎位於燎壇之北。獻官在北南向，執禮、大祝、贊者在東西向北上。【大祝贊者稍却。】謁者引獻官，以常服詣廚，視滌濯、省饌具及視牲充膳，還齋所。晡後，典祀官帥宰人割牲。【連皮煮熟。】祀日未行事前，典祀官帥其屬，設老人星座於壇上，北方南向，席以莞，奠祝版於神位之右，【有坫。】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設祭器、實饌具。籩八在左，爲三行右上，【第一

所)에 진설하고, 향로(香爐)와 향합(香合)과 촉(燭)을 신위 앞에 설치하고,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설치하되, 변(邊) 8개는 왼쪽에 있게 하여 세 줄로 하고, 오른쪽을 윗자리로 한다. 【첫 줄은 소금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가 그 다음이며, 둘째 줄은 건조(乾棗)가 앞에 있고, 과황(果黃)과 진자(榛子)가 그 다음이고, 세째 줄은 능인(菱人)이 앞에 있고, 검인(芡仁)과 녹포(鹿脯)가 그 다음에 있다. 】 두(豆) 8개는 오른쪽에 있게 하여 세 줄로 하고, 왼쪽을 윗 자리가 되게 한다. 【첫 줄은 부추김치가 앞에 있고, 젓이 그 다음이며, 둘째 줄은 무우김치가 앞에 있고, 사슴젓과 미나리김치가 그 다음이며, 세째 줄은 토끼젓이 앞에 있고, 죽순김치와 물고기젓이 그 다음에 있다. 】 보(簠)와 궤(簋)가 각각 2개씩 변(邊)·두(豆) 사이에 있게 하되, 보는 왼쪽에 있게 하고, 궤는 오른쪽에 있게 한다. 【보(簠)는 벼와 메조를 채우는데, 메조는 벼의 앞에 있고, 궤(簋)는 메기장과 차기장을 채우는데, 차기장이 메기장의 앞에 있다. 】 조(俎) 1개는 보·궤의 앞에 있게 하고, 【돼지를 채운다. 송(宋)의 《석전의(釋奠儀)》에 ‘무릇 앞에 있다.’고 말한 것은 모두 남쪽에 있는 것을 말한다. 】 작(爵) 3개는 조(俎) 앞에 있게 한다. 【각각 점(坫)이 있다. 】 상준(象尊) 2개를 놓는데, 【하나는 현주(玄酒)를 채우되, 상준(上尊)에 채우고, 하나는 청주(淸酒)를 채운다. 무릇 신(神)에게 제사하는 물건이 그 당시에 없는 것은 현시(現時)의 물건으로 대신한다. 】 단 위의 동남 모퉁이에 북향하여 서쪽을 윗자리로 하고, 세(洗)는 단 아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며,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 뇌(鬯)는 세(洗) 동쪽에 있게 하되, 구기[勺]를 얹어 두고, 비(篚)는 세(洗)의 서남쪽에 늘어놓는다. 【수건과 작을 담아 놓는다. 】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는 또한 동남쪽에 모두 북향하여 설치한다. 준(尊)과 뇌(鬯)와 비(篚)와 먹(饌)을 잡는 사람의 자리는 준·뇌·비·먹의 뒤에 설치한다. 제삿날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축시 전 5각은 곧 삼경(三更) 삼점(三點)이니, 행사는 축시 1각(刻)을 쓴다. 】 전사관(典祀官)

行, 形鹽在前, 魚鱸次之。 第二行, 乾棗在前, 栗黃、榛子次之。 第三行, 菱仁在前, 芡仁、鹿脯次之。】 豆八在右, 爲三行左上, 【第一行, 韭菹在前, 醯醢次之。 第二行, 菁菹在前, 鹿醢、芹菹次之。 第三行, 兔醢在前, 笋菹、魚醢次之。】 簠簋各二在邊豆間, 簠在左 簋在右。【簠實以稻粱, 粱在稻前。 簋實以黍稷, 稷在黍前。】 俎一在簠簋前, 【實以豕牲。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 爵三在俎前。【各有坫。】 設象尊二, 【一實玄酒爲上尊, 一實淸酒。 凡祀神之物, 當時所無者, 以時物代之。】 在壇上東南隅, 北向西上。 設洗於壇下東南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 鬯在洗東加勺, 篚在洗西南肆, 【實以巾爵。】 設諸執事盥洗, 又於東南, 俱北向, 設執尊篚罍者位於尊鬯篚罍之後。 祀日丑前五刻, 【丑前五刻, 卽三更三點, 行事用丑時一刻。】 典祀官帥其屬入, 實饌具畢退, 就次服其服, 升設神位版於座前, 三刻行事。 執事官各服其服, 執禮帥謁者、贊者, 先就壇南拜位, 重行北向西上四拜訖, 就位前一

이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饌具)에 제수(祭需)를 담고 나면, 물러가서 자리에 나아가 제복(祭服)을 입고 올라와 신위판(神位版)을 좌전(座前)에 설치한다. 3각(刻)에 행사할 집사관은 각기 제복을 입는다. 집례는 알자와 찬자를 거느리고 먼저 단 남쪽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나아간다. 1각 전에 알자가 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단 남쪽의 배위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서면,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전갈(傳喝)하면, 【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전사관이 하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에 닦고 나면, 각기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재랑이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 작을 씻고 닦고 나서 비(篋)에다 담아서 받들고 준소에 나아가 점(坫) 위에 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고,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의 헌관은 왼쪽에 나아가 유사(有司)에게 아뢰어 삼가 갖추어 행사하기를 청한다. 집례가 ‘폐백 드리는 예(禮)를 행하라.’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을 꽂고 손을 씻고 수건에 닦기를 찬한다. 【손을 씻고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홀을 잡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단으로 나아가 남계(南階)로 올라 【여러 집사(執事)들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모두 동계로 한다.】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홀 꽂기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세 번 향을 피우기를 찬하면,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리고, 대축이 폐백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폐(執幣) 헌폐(獻幣)하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향합을 받들고, 폐백을 주는 것은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을 주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홀을

刻, 謁者引典祀官、大祝、齋郎, 入就壇南拜位, 重行北向西上。 立定, 執禮曰: ‘四拜。’ 贊者傳喝,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喝。】 典祀官以下皆四拜訖, 謁者引詣盥洗位, 盥帨訖, 各就位。 齋郎詣爵洗位, 洗爵拭爵訖, 置於篋, 奉詣尊所, 置於坫上。 謁者引獻官, 入就位西向立, 執禮曰: ‘四拜。’ 獻官四拜。 謁者進獻官之左, 白有司謹具請行事。 執禮曰: ‘行奠幣禮。’ 謁者引獻官, 詣盥洗位北向立, 贊搯笏, 盥手、帨手, 【盥手、帨手不贊。】 贊執笏, 引詣壇升自南陛, 【諸執事升降, 皆自東陛。】 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執事者一人奉香合, 執事者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大祝以幣授獻官, 獻官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奠于神位前。 【奉香授幣, 皆在獻官之右, 奠爐奠幣, 皆在獻官之左。 獻爵奠爵, 準此。】 謁者贊執笏, 俛伏興, 引降復位。 小頃, 執禮曰: ‘行初獻禮。’ 謁者引獻官, 升自南陛,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獻官, 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가 떡(糲)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씻기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은 헌관에게 주고, 헌관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찬하고, 대축은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올라가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떡(糲)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홀을 씻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禮)를 행하기를 아헌례의 의식과 같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음복(飲福)하고 제육(祭肉)을 받으라.’고 말하면, 집사자가 준소에 나아가 작으로 복주(福酒)를 따르고, 또 집사자가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 신위 앞에 있는 조육(胙肉)을 덜어 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계로 올라가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씻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헌관의 오른쪽에 나아가 서향하여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받아 마신다. 작을 다 비우면 집사자는 빈 작을 받아 다시 접(坫) 위에 놓는다. 집사자가 서

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贊執笏, 俛伏興小退, 北向跪, 大祝進神位之右, 東向跪讀祝文訖, 謁者贊俛伏興, 引降復位。小頃, 執禮曰: ‘行亞獻禮。’謁者引獻官, 升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糲酌酒, 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 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贊執笏, 俛伏興, 引降復位。小頃, 執禮曰: ‘行終獻禮。’謁者引獻官, 行禮如亞獻儀, 引降復位。執禮曰: ‘飲福受胙。’執事者詣尊所, 以爵酌福酒, 又執事者持俎, 進減神位前胙肉, 謁者引獻官, 升自南陞, 詣飲福位, 北向立, 贊跪搯笏。執事者進獻官之右, 西向以爵授獻官, 獻官受爵飲, 卒爵, 執事者受虛爵, 復於坫。執事者西向, 以俎授獻官, 獻官受俎, 以授執事者, 執事者受俎, 降自南陞出門。謁者贊執笏, 俛伏興, 引降復位。執禮曰: ‘再拜。’在位者皆再拜。執禮曰: ‘徹籩豆。’大祝進徹籩豆。【徹者, 籩豆各一, 小移於故處。】執禮

	<p>향하여 조(俎)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조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는 조를 받아서 남계로 내려와 문으로 나간다. 알자가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 일어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재배(再拜)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변(籩)·두(豆)를 걸어치우라.’고 말하면, 대축이 나아가 변·두를 걸어치운다. 【걸어치운다 함은 변·두 각각 1개를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기는 것이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고 말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집례가 ‘망료(望燎)하라.’고 말하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망료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는 찬자(贊者)를 거느리고 망료하는 자리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대축이 축판과 폐백을 가지고 요단(燎壇)위에 나아가 태울 나무에 놓는다. 집례가 ‘태우라.’고 말하면, 태울 나무의 반을 태운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예가 끝났다고 아뢰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전사관과 집사자를 인도하여 단 남쪽의 배위로 나아가 서게 하고, 집례가 ‘사배하라.’고 하면, 전사관과 여러 집사는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고, 집례가 찬자와 알자를 거느리고 단 남쪽의 배위로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신위판(神位版)을 간수하고, 예찬(禮饌)을 거둬치우고 내려가서 곧 물러간다.”</p> <p>하였다.</p>	<p>曰：‘四拜。’獻官四拜。執禮曰：‘望燎。’謁者引獻官，詣望燎位南向立，執禮帥贊者，詣望燎位西向立，大祝取祝版及幣，詣燎壇上，置於燎柴，執禮曰：‘可燎。’燎半柴，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謁者引獻官出。執禮帥贊者，還本位，謁者引典祀官及諸執事者，就壇南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諸執事皆四拜訖，謁者引出。執禮帥贊者、謁者，就壇南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藏神位版，徹禮饌以降，乃退。</p>
<p>世宗 32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5月 19日(壬子) 10번째기사 산릉 삭망제·사시 대</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여러 산릉(山陵)의 삭망제는 산뢰(山壘) 2개와 작 3개를 쓰고, 사시 대향(四時大享)과 유명일 별제(有名日別祭)에는 산뢰 3개와 작 3개를 쓰되, 양위(兩位)이면 작 6개를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諸山陵朔望祭，用山壘二爵三，四時大享、有名日別祭，用山壘三爵三，兩位則用爵六。”從之。</p>

<p>향·유명일 별제의 산회·작의 규모를 정하다</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6월 13일(을해) 2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다</p>	<p>양녕 대군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었다.</p>	<p>賜酒肉于讓寧大君。</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6월 14일(병자) 4번째기사 제사에 쓸 제수 공급의 방안을 청했으나 윤택하지 않다</p>	<p>의정부에서 계하기를, “지금 제사에 쓸 제수(祭需)는 망패(網牌)라고 일컫는 사냥꾼으로 하여금 철원(鐵原)·평강(平康)에서 사냥하여 바치게 하는데, 오로지 내선(內膳)만을 일정하게 맡은 사람이 없으므로 혹시 절핍(絶乏)할 때가 있어, 신하가 임금을 받드는 뜻에 어긋납니다. 더군다나, 두 고을에서 사냥하는 사람은 1백 명이나 되면서도 매달 문소·광효 두 전(殿)의 삭망(朔望)에 쓸 제수만 공급하고 있사오니, 이름만 사냥하는 사람이지만 실상은 한역(閑役)에 불과합니다. 원컨대 우리나라 제도의 수인(獸人)의 직책에 의거하여 내선(內膳)까지 겸하여 공급하게 하고, 그 사냥하는 사람들을 세 번(番)으로 나누어 관청에서 그물 만드는 비용을 주어 윤번으로 10일 마다 한 번씩 사냥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p>	<p>議政府啓: “今祭供之需, 令鐵原、平康獵人, 稱網牌獵獲供進, 獨內膳無有掌之者, 或致乏絶, 有乖臣子奉上之意。 況兩官獵人, 多至百數, 每月但供文昭、廣孝兩殿朔望之羞而已。 名爲獵人, 實是閑役。 乞依周制獸人之職, 兼供內膳。 其獵人分爲三番, 官給網罟之資, 輪次每十日一獵以進。” 不允。</p>
<p>世宗 32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6月 16日(戊寅) 2번째기사 마른 고등어 2레짝과</p>	<p>마른 고등어[古道魚] 2레짝[櫃]과 동자개[童子瓜]와 섞어 담근 곤쟁이젓[紫蝦醢] 2항아리를 영접 도감에 보냈으니, 백언(白彦)이 〈이것을〉 진헌하고자 한 때문이었다.</p>	<p>送乾古道魚二櫃、童子瓜交沈紫蝦醢二缸于迎接都監白彦, 欲進獻也。</p>

<p>근쟁이것 2항아리를 영접 도감에 보내다</p>		
<p>세종 33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9월 5일(을미) 2 번째기사 황랍을 2년 동안 강제 하게 하고, 건장·건록 등의 납부도 강제하게 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봉상시(奉常寺)에서 1년간에 소용되는 황랍(黃蠟)이 2백 50여 근에 불과한 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천 1백 66근이나 되오니, 청하건대 각도에서 공납(貢納)하는 황랍 5백 94근 8냥푼을 2년 동안 강제(減除)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충청도 도절제사(都節制使)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근래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땅을 개간하므로 인하여, 노루와 사슴이 매우 희 귀하여, 올 병오년 이상의 3년 동안 각 관사(官司)에 공납할 건장(乾獐)·건록 (乾鹿) 아울러 61구(口), 녹포(鹿脯) 70첩(貼), 녹각(鹿角) 9대(對)와 장피(獐 皮)·녹피(鹿皮) 아울러 1백 8장 등을 갖추어 납부하지 못하였사온대, 각 관사 에 저축되어 있는 경비가 유여(有餘)하오니, 이를 강제(減除)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 “奉常寺黃蠟一年所用, 不過 二百五十餘斤, 而見在一千一百六十六 斤。 請各道貢黃蠟五百九十四斤八兩, 限二年減除。” 從之。 又據忠清道都 節制使關啓: “近來人多地闢, 獐鹿稀 罕。 今丙午年以上三年, 各司納乾獐 鹿并六十一口、鹿脯七十貼、鹿角九 對、獐鹿皮并一百八張, 未得備納。 各司所儲經費有餘, 請減除。” 從之。</p>
<p>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0月 7日(丁卯) 2번째기사 건두에 소용될 노루 30마리를 봉상시에 보 내다</p>	<p>건두(乾豆)에 소용될 노루 30마리를 봉상시(奉常寺)에 보내었다.</p>	<p>送乾豆所需獐三十于奉常寺。</p>
<p>세종 34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1월 1일(경인) 5번째기사</p>	<p>일본(日本) 축주(筑州) 석성 관사(石城管事) 종금(宗金)이 사람을 시켜 예조 (禮曹)에 글을 보내어 <앞서 우리 나라에서> 도서(圖書)를 내려준 것에 사 례하고, 인하여 접선(摺扇) 1백 자루, 장뇌(樟腦) 5근, 대도(大刀) 10자루, 서 각(犀角) 1개, 울금(鬱金) 20근, 동(銅) 2백 근, 곽향(藿香) 20근, 유황(硫黃)</p>	<p>日本筑州石城管事宗金, 使人奉書禮 曹, 謝賜圖書, 仍進摺扇一百本、樟腦 五斤、大刀十柄、犀角一頭、鬱金二 十斤、銅二百斤、藿香二十斤、硫黃</p>

<p>일본 축주 석성관사 종금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므로 정 포를 회사하다</p>	<p>1천 근을 바치므로, 정포(正布) 2백 40필을 회사(回賜)하였다. 축전주(筑前州) 태재(太宰) 소이(少貳) 등원 만정(藤原滿貞)이 사람을 시켜 예조(禮曹)에 글을 바치고, 〈인질(人質)로 잡혀 와 있는〉 대마도(對馬島)의 속신(屬臣) 평노전(平奴田) 형제 등을 돌려보내기를 재차 청하고, 인하여 대도(大刀) 5자루, 천산갑(穿山甲) 1장, 장뇌(樟腦) 1근, 초과(草菓) 10근, 비단 2필, 쟁반[盤] 1백 개, 자완(磁椀) 1천 개, 소향유(蘇香油) 3근, 우피(牛皮) 10장, 동(銅) 3백 근, 단목(丹木) 5백 근, 유황(硫黃) 1천 근, 정향피(丁香皮) 3근, 연(鉛) 1백 근을 바쳤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김효손(金孝孫)이 답서하여 말하기를, “평노전(平奴田) 형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 조정에 인질(人質)로 와 있어, 상감의 은혜를 두터이 입었는데도 도리어 간사한 마음을 품어 국법에 중하게 저촉되어 외방에 귀양가 있는 중이며, 우선 정포(正布) 4백 30필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치노라.” 하였다. 대마주(對馬州) 종정성(宗貞盛)·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 등이 예조(禮曹)에 글을 올리고 평도전(平道全)을 돌려보내 주기를 재차 청하니, 예조 참의 김효손(金孝孫)이 답서를 보내 말하기를, “도전(道全)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가〉 국법에 크게 저촉되었으니, 성명(性命)을 보전하게 된 것만도 그 은혜가 지극히 우약(優渥)한 것인 줄 알라.” 하였다.</p>	<p>一千斤，回賜正布二百四十四。筑前州大宰少貳藤原滿貞，使人奉書于禮曹，再請發還對馬，屬臣平奴田昆季等，仍獻大刀五柄、穿山甲一張、樟腦一斤、草菓十斤、紗二段、盤一百片、磁椀一千、蘇香油三斤、牛皮十張、銅三百斤、丹木五百斤、硫黃一千斤、丁香皮三斤、鉛一百斤。禮曹參議金孝孫答書云：“諭及平奴田昆弟，既委質我朝，厚蒙上恩，反懷譎詐，重干邦憲，謫在于外。姑將正布四百三十四，就付回价。”對馬州宗貞盛·左衛門大郎等奉書禮曹，再請發還平道全，禮曹參議金孝孫答書曰：“諭及道全，重干邦憲，然得保性命，恩至渥也。”</p>
<p>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1月 3日(壬辰) 1번째기사 정사를 보다. 현릉의 비문을 고치게 하다</p>	<p>(전략) 상(商)이 또 계하기를, “외빙고(外氷庫)에 얼음 저장하는 것을 원컨대 전의 숫자보다 감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얼음을 저장하고 얼음을 내는 것은 비단 상제(喪祭)를 위할 뿐 아니라, 실상 음양(陰陽)의 부조화(不調和)를 고르게 하는 데도 관계가 있는 것이니 가벼이</p>	<p>(전략) 商又啓曰：“外氷庫藏氷，願減前數。”上曰：“藏氷發氷，非徒爲喪祭也。變調愆伏，所係勿輕。然藏氷之時，民力太多，量減其數，用水之時，撙節毋使濫費。”(후략)</p>

	<p>하지 말라. 그러나 얼음을 저장할 때에 백성들의 힘이 너무 많이 드니, 그 숫자를 감해서 얼음을 쓸 때에는 절약해 쓰도록 하고 낭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후략)</p>	
<p>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1月 26日(乙卯) 2번째기사 대마주 종정성이 어선의 나포를 항의하는 글을 올리니 그 사유를 답하다</p>	<p>(전략) 예조 참의 김효손(金孝孫)이 답서하기를, “말한 바 사로잡힌 선척은 우리 나라 변장(邊將)이 함부로 잡은 것이 아니라, 본조(本朝)에서 족하(足下)의 청으로 인하여 먼저부터 상선(商船)이 왕래하는 내이(乃而)1131) ·부산(富山)1132) 두 포구(浦口) 이외에 울산(蔚山) 염포(鹽浦)에도 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도록 아뢰어서 성상의 허가를 얻어서 그대에게 글을 보냈으며, 또 우리 나라 변진(邊鎭)에도 일러둔 지 이미 오래 되었다. 위의 세 곳 이외에 만일 선척이 범람하면 그곳에 있는 진수(鎭守)가 그때 그대에 체포하는 것이 그 직책이다. 그러한데 금년 3월에 전라도 만경(萬頃) 사람이 고기를 잡는데 적선(賊船) 한 척이 몰래 와서 군인 4명을 죽였으며, 4월에는 충청도 태안(泰安) 사람이 해산물을 캐는데 적선 한 척이 또 군인 3명을 잡아갔으므로 그대에 파해관(把海官)이 쫓아가 잡았으며, 또 8월에는 전라도 서쪽 여서도(餘鼠島)에 적선 두 척이 몰래 와서 머뭇거리므로, 파해관(把海官)이 앞서 왔던 도둑인가 의심해서 뒤쫓아갔다가 많은 적선을 만나서 싸웠으나 마침내 이기지 못하였고, 단지 적선 안의 군장(軍裝)을 뺏고 보니 절반이나 우리 나라 사람의 기물(器物)이었다. 또 충청·전라도는 귀국(貴國) 경계와는 수로(水路)가 몹시 멀어 보통 때에는 어선(漁船)이 올 수도 없는 곳이니, 생각하건대 이것은 간사한 무리들이 족하(足下)의 통호(通好)하는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변흔(邊釁)을 빚어낸 것일 것이니, 우리 나라 장수의 과실이 아닐 것이다. 바라건대 전에 정한 세 곳 이외에는 왕래하는 선척을 굳게 금지하라. 천아(天鵝) 5마리, 청어(靑魚) 6백 마리, 대구어(大口魚) 40마리, 소주(燒酒) 30병을 돌아가는 사람 편에 부치노라.”</p>	<p>(전략) 禮曹參議金孝孫答書曰: 諭及被捉船隻, 非我朝邊將妄行捕獲。本曹因足下之請, 在先商船來往乃而、富山兩浦外, 蔚山、鹽浦, 亦令販賣, 啓奉王旨, 書達左右, 又諭我國邊鎭, 已有日矣。前項三處外, 如有汎濫船隻, 則所在鎭守, 臨機逮捕, 乃其職也。況今年三月, 全羅道萬頃人捕魚, 賊船一隻潛來, 殺死軍人四名。四月, 忠清道泰安人採海產, 賊船一隻, 又捉軍人三名以歸, 其時把海官追捕。又於八月, 全羅道西餘鼠島, 賊船二隻, 隱泊逡巡, 把海官, 疑其似前盜竊, 追蹤及到, 多般逆戰, 終至不勝, 所獲船內軍粧, 半是我國人器物也。且忠清、全羅, 與貴境水路寫遠, 非常時漁船所可及也。意是奸詐之徒, 不體足下通好之意, 構生邊釁, 非我國將帥之過也, 惟照。前定三處外, 來往船隻, 堅行禁止。將天鵝五首、靑魚六百尾、大口魚四十尾、燒酒三十瓶, 就付回人。</p>

<p>세종 35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월 9일(무술) 3 번째기사 예조에서 계를 올린대로 종묘에 제향할 때의 절차를 따르게 하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본조에서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와 함께 삼가 살펴보니, 당(唐)나라의 제도는 태묘(太廟)에 제향(祭享)할 때에, 황제가 한 제실(祭室)에 나아가서,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서면, 대축(大祝)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제실의 지계문 밖 오른편에 나가서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황제는 두 번 절하고 또 두 번 절하는데, 나머지 제실(祭室)에서도 이와 같이 합니다. 송(宋)나라 제도는 태묘(太廟)에 제향할 때에, 황제가 한 제실에 나아가서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서면, 독축관(讀祝官)이 책문(冊文)을 읽고, 이를 마치면, 황제는 두 번 절하는데, 나머지 제실(祭室)에서도 이와 같이 합니다. 《홍무예제(洪武禮制)》에는 부(府)·주(州)·현(縣)에서 사직(社稷)에 제사지내는 의주에,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헌관(獻官)이 조금 물러나서 꿇어앉으면, 독축(讀祝)하는 사람이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절은 하지 않습니다. 《사림광기(事林廣記)》와 《국조공후사선의(國朝公侯祀先儀)》에는, 고조고(高祖考)와 증조고(曾祖考)의 위(位) 앞에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이를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그전 자리로 돌아와서 두 번 절하게 됩니다. 본조(本朝) 영락 13년의 상정 종묘의(詳定宗廟儀)에는 명나라의 예제(禮制)에 의거하여 각 제실(祭室)마다 술을 따라 드리고 난 뒤에,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한가운데 서서 다만 두 번 절하기만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朝廷)의 《친왕혼례묘현의(親王婚禮廟見儀)》를 살펴보건대 왕과 비(妃)가 봉선전(奉先殿)에 이르러, 덕조 현황제(德祖玄皇帝)와 현황후(玄皇后)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그전 자리로 돌아가서 양쪽에 배례(拜禮)를 행하고, 다음에 의조(懿祖)·희조(熙祖)·인조(仁祖)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예(禮)를 이와</p>	<p>禮曹啓: “曹與儀禮詳定所, 謹按唐制享太廟, 皇帝詣一室, 酌獻後, 出戶外北向立。 大祝持版, 進於室戶外之右, 讀祝文訖, 皇帝再拜, 又再拜。 餘室同。 宋制享太廟, 皇帝詣一室, 酌獻後, 出戶外北向立。 讀祝官, 讀冊文訖, 皇帝再拜。 餘室同。 《洪武禮制》, 府州縣祭社稷儀, 酌獻後, 獻官少退跪, 讀祝者讀祝文訖, 俯伏興平身無拜。 《事林廣記》國朝公侯祀先儀, 高曾祖考位前酌獻訖, 俯伏興平身, 復位再拜。 本朝永樂十三年詳定宗廟儀, 依朝廷禮制, 各室酌獻訖, 出戶外當中, 只行再拜。 今按朝廷親王婚禮廟見儀, 王與妃至奉先殿, 詣德祖玄皇帝、玄皇后神位前, 酌獻訖, 俯伏興復位, 行兩拜禮。 次詣懿祖、熙祖、仁祖神位前, 行禮同。 由此觀之, 朝廷享太廟酌獻後, 每室再拜, 與宋制同, 從可知矣。 伏望自今享宗廟, 殿下詣第一室神位前, 裸鬯訖, 俛伏興出戶外, 北向再拜, 酌獻訖, 俛伏興出戶外, 北向跪, 大祝進戶外之右, 東向跪讀祝文訖, 殿下再拜。 第二室以下行禮</p>
--	--	---

	<p>같이 행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조정(朝廷)에서는 태묘(太廟)에 제향(祭享)할 때에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매 제실(祭室)마다 두 번 절하는 것이 송나라 제도와 같은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종묘에 제향할 때에, 전하께서 제1 제실(祭室)의 신위 앞에 나가서 울창(鬱鬯)으로 강신(降神)하고, 이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두 번 절하고,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이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고, 대축(大祝)이 지계문 밖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전하께서 두 번 절하고, 제2 제실 이하에서도 예(禮)를 이와 같이 행할 것입니다. 이 밖의 절차는 《원정의(元定儀)》에 의거할 것입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同。 此外節次，依元定儀。” 從之。</p>
<p>世宗 35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1月 13日(壬寅) 8번째기사 좌위문 대랑이 토산물을 바치니 회사하다</p>	<p>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이 그 아들을 시켜 조현(朝見)하고 인하여 유황(硫黃) 1천 근, 단목(丹木) 5백 근, 서각(犀角) 8개, 오매목(烏梅木) 5백 근, 감초(甘草) 10근, 목향(木香) 2근, 백단향(白檀香) 2근, 진피(陳皮) 3근, 주홍(朱紅) 1근, 침향(沈香) 2근, 사발(沙鉢) 1백 개를 바치므로, 정포(正布) 3백 필을 회사(回賜)하였다.</p>	<p>左衛門大郎使其子朝見，仍獻硫黃一千斤、丹木五百斤、犀角八介、烏梅木五百斤、甘草十斤、木香二斤、白檀香二斤、陳皮三十斤、朱紅十斤、沈香二斤、沙鉢百介。 回賜正布三百匹。</p>
<p>世宗 35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1月 13日(壬寅) 9번째기사 비전주의 송포에 교거한 원신창명이 토산물</p>	<p>비전주(肥前州)의 송포(松浦)에 교거(僑居)한 원신창명(源臣昌明)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인 유황(硫黃) 2천 근, 남목향(南木香) 2근, 적동(赤銅) 50근, 용뇌(龍腦) 3냥쫘, 호초(胡椒) 5근, 절탁(折卓) 1각(脚), 과자분(菓子盆) 10편(片), 대분(大盆) 1편(片)을 바쳤다.</p>	<p>肥前州松浦僑居源臣昌明使人獻土物，硫黃二千斤、南木香二斤、赤銅五十斤、龍腦三兩、胡椒五斤、折卓一脚、菓子盆十片、大盆一片。</p>

을 바치다	<p>왕세자 납빈의(王世子納嬪儀). 마루에서 초계(醮戒)한다. 이를 전에 유사(攸司)는 안팎에 널리 지시하여 각기 직임을 맡아 하도록 한다. 하루 전에 유사(有司)가 전하의 악좌(幄坐)를 근정전 조계(阼階) 위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그 날이 되면 향로(香爐)와 보안(寶案)을 전하의 자리 앞에 설치하기를 보통 때와 같게 하고, 왕세자의 좌석은 서북편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다방(茶房)에는 주준탁(酒罇卓)을 동편 자리[東序]의 아래에 조금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잔(盞) 하나를 탁자 위에 놓아두며, 또 찬탁(饌卓)을 주준탁 서쪽에 설치한다. 전악(典樂)은 풍악을 전정(殿庭)에 베풀고, 판사복(判司僕)은 여연(輿輦)과 말을 늘어놓는데, 모두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한다. 신시(申時) 초삼각(初三刻)1180) 이 되면, 통례문(通禮門)은 왕세자의 배위(拜位)를 전정(殿庭)길 동쪽으로 북쪽에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문관 1품 이하의 자리는 왕세자 배위의 남쪽으로, 종실·무관 1품 이하의 자리는 길 서쪽으로 설치하되, 문관의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북향되게 하고, 상대하여 머리가 되게 한다. 감찰 두 사람의 자리는 동서반 뒤로 설치하고, 판통례(判通禮)와 전의(典儀)의 자리는 전개(殿階) 아래 동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향으로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또 통찬(通贊) 두 사람의 자리는, 하나는 전의(典儀)의 남쪽에 조금 물려서 서향으로 하고, 하나는 서계(西階)의 서남쪽에다 동향하여 설치한다. 충호위(忠扈衛)는 왕세자의 위차를 근정문 밖에 길 동편으로 북쪽에 가깝게 서향으로 설치하고, 통례문은 여러 관원의 문밖 위치를 설치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한다. 북이 초엄(初嚴)을 올리면, 동궁(東宮) 관원들은 모두 궁문 밖에 모여 각기 자기 자리에 나아가 모두 각자의 복장을 입으며, 익위사(翊衛司)는 소속 장위(仗衛)를 거느리고 진설(陳設)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하고, 병조는 제위(諸衛)를 거느리고 의장(儀仗)을 전정(殿庭)에 진열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한다. 종실·문무 여러 관원은 조당(朝堂)에</p>	<p>王世子納嬪儀： 臨軒醮戒前二日，攸司宣攝內外，各供其職。前一日，有司，設殿下幄坐於勤政殿阼階上西向。其日，設香爐及寶案於殿下坐前如常，設王世子席位於西北南向。茶房，設酒罇卓於東序下稍南，置盞一於桌上，又設饌卓於罇西。典樂，設樂於殿庭，判司僕，陳輿輦及馬竝如常儀。晡前三刻，通禮門，設王世子拜位於殿庭道東近北北向，設文官一品以下位於王世子拜位之南，宗室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當文官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設監察位二於東西班後，設判通禮典儀位於殿階下東南，俱西向北上。又設通贊二人位，一於典儀之南少退西向，一於西階西南東向。忠扈衛，設王世子次於勤政門外道東近北西向。通禮門，設群官門外位如常儀。鼓初嚴，東宮官俱，集宮門外，各之次，皆服其服。翊衛司勒所部仗衛，陳設如常儀。兵曹勒諸衛，陳儀仗於殿庭如常儀。宗室文武群官，集朝堂，俱就次，各服朝服。鼓二嚴，宗室文武群官，俱就門</p>
-------	--	---

모여 모두 자리에 나아가 각기 조복을 입는다. 북이 이엄(二嚴)을 울리면,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은 모두 문밖 위차로 나아간다. 좌중호(左中護)가 중엄(中嚴)을 찬하여 청하면, 제위(諸衛) 관원들이 차례로 함(閣)1181)에 나아가 맞이하고, 【우중호(右中護)는 인(印)을 짊어지기를 의식대로 한다.】 동궁 관원[宮官]으로서 따라야 할 사람들은 각기 자리에서 나와 문밖에 서되,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겹줄로 마주 향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좌중호(左中護)가 바깥에 준비가 되었음을 아뢰면, 왕세자가 조복을 입고 나오는데, 좌우의 시위함이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하고, 좌중호가 인도하여 근정문 밖에 이르러 자리에 나아가 앉게 하는데, 시위함은 보통 때 의식과 같다. 관통례가 꿇어앉아 임금께 중엄(中嚴)을 아뢰면, 전하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오는데 원유관과 강사포로 몸차림 하고, 근신(近臣)과 집사(執事)가 예를 행한다.

통찬이
“사배, 흥, 평신”
이라 찬하고,
“각기 맡은 일을 행하라.”

찬하면, 전악(典樂)이 악공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여러 시위하는 관원들은 각기 기구와 복장을 차리고, 상서사(尙瑞司) 관원은 보(寶)를 받들고 모두 함(閣)에 나아가 맞이한다. 북이 삼엄(三嚴)을 울리면, 봉례랑(奉禮郎)이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제자리에 선 다음에, 종소리는 그친다. 관통례가 꿇어앉아 바깥 준비가 되었음을 임금께 아뢰어 전(殿)에 오르기를 청하고, 중금(中禁)이 엄(嚴)을 전(傳)한다. 화로의 연기가 오르면, 전하는 나와서 자리에 오르고, 상서사(尙瑞司) 관원이 보(寶)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놓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전의(典儀)가 말하기를,
“국궁, 사배, 흥, 평신”

外位。左中護，贊請中嚴，諸衛之官，以次詣閣奉迎。【右中護，負印如式。】宮官應從者，各出次立於門外，文東武西，重行相向北上。左中護，白外辦，王世子服朝服以出，左右侍衛如常儀。左中護，引詣勤政門外就次坐，侍衛如常儀。判通禮，跪啓請中嚴，殿下出思政殿，服遠遊冠絳紗袍，近臣及執事行禮。通贊，贊四拜興平身，贊各供事。典樂，帥工人入就位，諸侍衛之官，各服其器服，尙瑞司官奉寶，俱詣閣奉迎。鼓三嚴，奉禮郎，分引宗室文武群官入就位。立定，鍾聲止。判通禮跪啓外辦，請陞殿，中禁傳嚴，爐烟升。殿下出陞座，尙瑞司官奉寶，置於殿下座前如常。典儀曰：“鞠躬四拜興平身。”通贊傳贊，宗室文武群官，皆鞠躬四拜興平身。僉知通禮引王世子【侍從如常式。王世子每行事，左中護執儀贊相。】入就拜位北面立，典儀曰：“鞠躬四拜興平身。”通贊傳贊，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僉知通禮，引王世子詣西階，升就席西南面立，茶房提舉酌酒於序，進詣王世子西南東面立。王世子再拜，升席南

이라 하면, 통찬이 받아 찬(贊)한다.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시중하기는 평소의 의식과 같다. 왕세자의 모든 행사에는 좌중호와 집의가 진행을 찬하고 도와준다.】 들어와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고 선다. 전의가 말하기를,
 “국궁, 사배, 흥, 평신”
 이라 하고, 통찬이 받아 찬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올라 자리의 서편에 남향하고 선다. 다방(茶房)의 제거(提舉)가 자리[序]에서 술을 부어가지고 왕세자의 서남쪽으로 나아가 동향하고 서면, 왕세자가 재배하고 자리에 올라 남향하여 꿇어앉아 홀(笏)을 꽂고 술잔을 받는다. 제거가 또 찬탁(饌卓)을 자리 앞에 올리면, 왕세자가 술을 조금 따르고 일어나 자리 서쪽으로 내려 남향하여 꿇어앉아 술을 조금 마시고 제거에게 빈 잔을 준다. 왕세자가 홀(笏)을 빼어 들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제거가 음식을 거둬치운다.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는다. 전하가 명하기를,
 “가서 너의 짝을 맞아들여 우리 종실을 잇게 하되, 힘써 공경으로써 함께하라.”
 하면, 왕세자가 말하기를,
 “신 아무[某]는 삼가 교지(教旨)를 받들겠나이다.”
 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바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내려 문으로 나간다. 처음에 왕세자가 장차 나가려 할 때, 전의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이라 말하면,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面跪， 摺笏受盞， 提舉又薦饌卓於席前， 王世子祭酒興， 降席西南面跪， 啐酒授提舉虛盞， 王世子出笏， 俯伏興再拜， 提舉徹薦。 僉知通禮， 引王世子進當殿下座前東面跪， 殿下命之曰：“往迎爾相， 承我宗事， 勸率以敬。” 王世子曰：“臣某謹奉教旨。” 俯伏興， 遂鞠躬四拜興平身。 僉知通禮， 引王世子， 降自西階出門。 初王世子將出， 典儀曰：“鞠躬四拜興平身。” 宗室文武群官， 皆鞠躬四拜興平身。 判通禮就殿庭正中， 跪啓禮畢， 俯伏興還侍位。 通贊唱禮畢， 殿下降座入內， 奉禮郎分引宗室文武群官以次出。

	<p>바로 한다. 판통례가 전정(殿庭) 한가운데 나아가 꿇어앉아 예가 끝났음을 아 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모시던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예가 끝났다.” 고 창하면, 전하는 자리에서 내려 내전으로 들어가고, 봉례랑(奉禮郎)은 종실 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p>	
<p>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4월 26일(갑신) 4번째기사 동퇴의</p>	<p>동퇴의(同牢儀)1184) 그날 사규(司閨)가 빈(嬪)의 위치를 동합(東閣) 안의 길 동쪽으로 남향되게 설치하고, 장연(掌筵)은 요와 자리를 펴 놓는다. 저녁이 되면 사규가 동퇴(同牢)할 자리를 실내에 설치하는데, 왕세자의 자리는 동상 (東廂)에 서향되게 하고, 빈은 서상(西廂)에서 동향되게 하되, 자리와의 거리 가 너찬(牢饌)을 놓을 만하게 한다. 전선자(典膳者)가 주준탁(酒罇卓)을 한가 운데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고 근(罇)과 잔(盞) 두 개를 탁자 위에 놓아 둔 다. 왕세자의 연(輦)이 시신 하마소(侍臣下馬所)에 이르러서는 잠시 멈추고, 문무 궁관(宮官)이 모두 말에서 내린다. 연이 광화문의 동편문(東偏門)에 이르 면, 좌중호(左中護)가 연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연에서 내리기를 청하고, 엎 드렸다가 일어나 모시던 자리로 돌아온다. 왕세자는 연에서 내려 들어와 내전 문(內殿門) 밖의 동쪽에서 서향하고 기다리는데, 시위하는 것은 보통 때의 의 식과 같고, 중호(中護) 이하는 모두 물러난다. 빈이 궁문에 이르러서는 의장 (儀仗)은 문밖에 머물러 두고 가까이 모시는 자만 보통 때와 같이 따르고, 들 어와 좌합(左閣) 밖에 이르면, 사칙(司則)이 연 앞에 나아가 빈에게 연에서 내 리기를 청하고, 장연(掌筵)이 앞뒤에서 집촉(執燭)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 게 한다. 빈은 연에서 내려 위차에 나아가 몸치장을 정식으로 차리면, 사규가 빈을 인도하여 내전 문밖의 서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선다. 왕세자가 빈에게 읍하여 들어오게 하면, 사규가 앞서 서계(西階)로 오르고, 빈이 뒤따라 오르 는데, 촛불 잡은 자가 동·서계(東西階) 안에 늘어서고, 왕세자가 빈에게 읍하</p>	<p>同牢儀： 其日， 司閨， 設嬪次於東閣內道東南 向， 掌筵鋪褥席。 將夕， 司閨， 設同 牢之席於室內， 王世子之席東廂西向， 嬪西廂東向， 席間量容牢饌。 典膳者， 設酒罇卓於正中稍南， 置兩盞罇於卓 上。 王世子輦， 至侍臣下馬所， 權停 文武宮官皆下馬。 輦至光化門東偏門， 左中護進當輦前， 跪請降輦， 俯伏興， 還侍位。 王世子降輦， 入俟於內殿門 外之東西面， 侍衛如常儀， 中護以下皆 退。 嬪至宮門， 仗儀停於門外， 近侍 者從如常。 入至左閣外， 司則進當輦 前， 請嬪降輦， 掌筵前後執燭如常儀。 嬪降輦， 就次正飾。 司閨引嬪詣內殿 門外之西東面， 王世子揖嬪以入， 司閨 前升自西階， 嬪後升， 執燭者陳於東西 階內。 王世子揖嬪， 卽席西向立， 嬪 卽席東向立， 司則前跪請再拜， 嬪再</p>

	<p>면서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고, 빈은 자리에 나아가 동향하여 선다. 사칙(司則)이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재배(再拜)하기를 청하면, 빈이 재배하며 왕세자는 답으로 재배한 다음, 빈에게 읍하여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사찬(司饌)이 계간(階間)에 나아가 북향하고 꿇어앉아 뇌찬(牢饌)의 준비되었음을 아뢰고 일어서면, 사찬이 소속을 거느리고 찬탁(饌卓)을 받들고 올라와서 왕세자와 빈의 좌석 앞에 진설한다. 사찬 두 사람이 술상 앞에 나아가 잔을 가지고 술을 부어, 한 사람은 왕세자에게 드리고 한 사람은 빈에게 드리면, 왕세자와 빈이 함께 잔을 받아 조금씩 따르고, 사찬들이 각각 안주를 올리면 함께 마신다. 사칙이 함께 나아가서 빈 잔을 받아 상에 놓으며, 사찬이 또 함께 잔에 술을 부어 두 번째 드리면, 왕세자와 빈이 함께 잔을 받아 마시고, 사칙(司則)이 나아가 빈 잔을 받아 상에 놓으며, 세 번째 술을 드릴 때는 근(罇)을 사용하되, 두 번째 드릴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사찬이 북향으로 꿇어앉아 “뇌찬이 끝났다.”</p> <p>고 아뢰면, 사찬이 찬탁을 거두어 치우고, 사칙은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왕세자에게 들어가시기를 청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모시던 자리로 돌아오면, 왕세자가 동방(東房)으로 들어가 조복을 벗으며, 사칙이 빈에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하면, 왕세자와 빈이 함께 실(室)로 들어간다. 잉(媵)1185)은 왕세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고, 어(御)1186)는 빈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는다.</p>	<p>拜, 王世子答再拜, 揖嬪就坐。 司饌進詣階間, 北面跪請具牢饌興, 司饌率其屬升, 奉饌卓入, 設於王世子及嬪座前。 司饌二人詣酒卓, 以盞酌酒, 一人進授于王世子, 一人進授于嬪, 王世子及嬪, 俱受盞祭酒。 司饌各進饌俱飲, 司則俱進授虛盞, 置於卓。 司饌又俱以盞酌酒再酌, 王世子及嬪, 俱受盞俱飲, 司則進受虛盞, 置於卓。 三酌用罇, 如再酌禮。 司饌北面跪白牢饌畢, 司饌徹饌卓。 司則前跪請邸下入, 俯伏興, 還侍位, 王世子入於東房, 釋朝服。 司則請嬪入幃幄, 王世子及嬪俱入室。 媵餽王世子之饌, 御餽嬪之饌。</p>
<p>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4월 26일(갑신) 5번째기사 빈조현의</p>	<p>빈조현의(嬪朝見儀). 그날에 낮 누수(漏水)가 일각(一刻)이 되면, 유사(有司)가 전하의 좌석을 내전의 동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왕비[中宮]의 좌석은 서벽에 동향하여 설치한다. 상식(尙食)이 예준탁(醴罇卓)을 동벽 아래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고, 잔 하나를 탁자 위에 놓고, 또 찬탁(饌卓)은 준(罇) 북쪽에 설</p>	<p>嬪朝見儀: 其日, 晝漏上水一刻, 有司, 設殿下座於內殿東壁, 西向, 中宮座於西壁, 東向。 尙食, 設醴罇卓於東壁下稍南, 置盞一於卓上, 又設饌卓於罇北。 其</p>

치한다. 그날 빈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는데, 사칙(司則)이 꿇어앉아 빈에게 내엄(內嚴)1187) 을 부탁하고, 동틀 무렵에 여러 위(衛)에서는 각기 소속을 거느리고 의장(儀仗)을 진열하는데, 보통 의식과 같이 하고, 내구위(內廐尉)가 연(輦)을 정침(正寢) 서계(西階) 앞에 남향으로 모셔 놓은 다음에, 사칙이 외관(外辦)을 아뢰면, 빈이 명복(命服)을 입고 수식(首飾)도 갖추고 나와 서계(西階)로 내려 연(輦)에 오르는데, 시위는 보통 때와 같이 하고, 연(輦)이 내릴 곳에 이르면, 사규가 빈에게 연에서 내리기를 찬(贊)한다. 사규가 빈을 인도하여 들어가는데, 장위(仗衛)는 함(閣) 밖에 머무르며, 시종은 보통 때와 같이 한다. 빈이 침문(寢門) 밖에 이르러 서상(西廂)에서 동향하고 서면, 근시(近侍)가 중엄(中嚴)을 아뢰고, 상의(尙儀)가 중궁(中宮)에게 내엄(內嚴)을 계청한다. 빈이 이미 침문(寢門)에 이르면, 근신(近臣)이 꿇어앉아서 외관(外辦)을 아뢰다. 전하는 원유관과 강사포를 차리고 나와서 좌석에 오르는데, 시위는 보통 의식과 같으며, 상의가 또 중궁에게 외관을 아뢰면, 중궁은 적의(翟衣)를 입고 수식(首飾)을 차린다. 사언(司言)이 상궁(尙宮)을 인도하고, 상궁이 중궁을 인도하여 나와서 좌석에 오르는데, 시종은 보통과 같다. 사빈(司賓)이 빈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동계[阼階] 아래에 북향하여 서계 하면, 사찬(司饌)이 한 사람은 조율(棗栗) 쟁반을 받들고, 한 사람은 단수(殿脩)1188) 쟁반을 받들고 따른다. 사칙(司則)이 사배하기를 찬하여 빈이 사배한다. 사찬이 조율 쟁반을 빈에게 드리면, 빈은 받는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서계 하고, 상식(尙食)이 탁자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놓는다. 빈이 꿇어앉아 쟁반을 탁자 위에 올려 놓아 드리면, 전하가 손으로 어루만져 보인다. 상식(尙食)이 나아가 거두어 가지고 동쪽으로 나가고, 사빈(司賓)이 빈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면, 사칙이 사배하기를 찬하여, 빈이 사배한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계 아래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계 하고, 사칙이 사배하기를 찬하여, 빈이 사배하고, 사찬이

日，嬪夙興，司則跪請嬪內嚴。質明，諸衛帥其屬，陳布儀仗如常儀，內廐尉，進輦於正寢西階之前南向，司則白外辦，嬪服命服加首飾以出，降自西階升輦，侍衛如常。至降輦所，司閨贊嬪降輦，司閨引嬪入，仗衛停於閣外，侍從如常。嬪至寢門之外，立於西廂東面，近侍啓請中嚴，尙儀啓請中宮內嚴。嬪既至寢門，近臣跪啓外辦，殿下服遠遊冠絳紗袍，以出陞座，侍衛如常儀。尙儀又啓中宮外辦，中宮翟衣首飾，司言引尙宮，尙宮引中宮出陞座，侍從如常。司賓引嬪入，立於阼階下北面，司饌一人，奉棗栗盤，一人，奉殿脩盤以從。司則贊四拜，嬪四拜。司饌以棗栗盤授嬪，嬪受，司賓引嬪升自西階，進殿下座前東面立，尙食奉卓置於殿下座前，嬪跪奠盤於卓上，殿下撫之，尙食進徹以東，司賓引嬪降復位。司則贊四拜，嬪四拜。司賓，引嬪詣西階下北面立，司則贊四拜，嬪四拜。司贊以殿脩盤授嬪，嬪受，司賓，引嬪升進中宮座前西面立，尙食奉卓，置於中宮座前，嬪跪奠盤於卓上，中宮撫之，尙食進徹以東，司賓

	<p>단수(殿脩) 쟁반을 빈에게 주면, 빈은 받아 놓고,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올라와 중궁(中宮)의 자리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계 하고, 상식(尙食)이 탁자를 받들어 중궁의 자리 앞에 놓는다. 빈이 꿇어앉아 쟁반을 탁자 위에 올려놓아 드리면, 중궁이 손으로 어루만져 보인다. 상식(尙食)이 나아가 거두어 가지고 동쪽으로 나가고,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칙이 사배하기를 찬하여, 빈이 사배한다. 사설(司設)이 빈의 자리를 중궁 자리의 동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올라 자리의 서쪽에 남향하여 서면, 상식(尙食)이 잔에 감주[醴]를 부어 들고 빈의 서남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선다. 빈이 재배하고 자리에 올라 남향하여 꿇어앉아 잔을 받으며, 상식이 찬탁(饌卓)을 자리 앞에 놓아 드리면, 빈이 감주[醴]를 조금 따르고 일어나서 자리의 서쪽으로 내려가 남향하여 꿇어앉아서 감주를 조금 마시고 상식에게 빈 잔을 주고서, 빈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한다. 상식은 드렸던 것을 치우고, 사빈은 빈을 인도하여 서계로 내려와 합(閣)을 나와서 연에 올라 환궁하는데, 시종은 올 때의 의식과 같았다.</p>	<p>引嬪降復位。 司則贊四拜， 嬪四拜。 司設， 設嬪席於中宮座之東北南向， 司賓， 引嬪詣西階， 升就席西南面立， 尙食以盞酌醴， 進詣嬪西南東面立， 嬪再拜升席， 南面跪受盞， 尙食薦饌卓於席前， 嬪祭醴興降席， 西南面跪啐醴， 授尙食虛盞， 嬪俯伏興再拜， 尙食徹薦。 司賓引嬪， 降自西階出閣， 升輦還宮， 侍從如來儀。</p>
<p>世宗 36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5月 2日(己丑) 2번째기사 세 사신에게 청골을 대접하다</p>	<p>내관 이귀(李貴)를 보내어 세 사신에게 청골(靑橘)을 대접하고, 창성(昌盛)에게는 쇠자철갑(鑊子鐵甲) 한 벌과 투구 하나를 주었다.</p>	<p>遣內官李貴， 饋靑橘于三使。 贈昌盛鑊子鐵甲一領、 頭口一。</p>
<p>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5월 25일(임자) 3번째기사 가뭄을 근심하여 오고</p>	<p>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끊고, 오고(五鼓)1192) 와 인정(人定)과 파루(罷漏)에 종을 치고 북은 치지 말라고 명하였다.</p>	<p>上憂旱輟酒， 命午鼓、 人定、 罷漏撞鍾， 勿擊鼓。</p>

<p>와 인정과 파루의 복을 치지 말게 하다</p>		
<p>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6월 10일(정묘) 3번째기사 제주도 찰방 김위민이 오랫동안 폐단된 일들을 계를 올려 아뢰다</p>	<p>(전략) 1. 민간에서 과일 나무를 가꾸는 것은 앞으로 그 이익을 얻어서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 하는 것이며, 또 민가에서 과일을 거두지 못하게 금하는 것은 이미 분명한 법령이 있는데, 지방관이 민가의 감귤(柑橘)로써 진상한다고 칭탁하고 나무를 세어 장부에 기록하고, 열매가 겨우 맺을 만하면 열매 수를 세어 감독해서 봉하여 두고, 혹시 그 집 주인이 따는 일이 있으면 절도죄로 몰아대고 전부 관에서 가져가므로, 백성은 이익을 보지 못하여 서로가 원망하고 한탄하오니, 청하건대 수령들로 하여금 해마다 심게 하고 동네마다 심은 것을 인계 서류에 등록하게 하면 십 년 뒤에는 장차 이루 다 쓸 수가 없을 만큼 될 것이오니, 관은 민가에서 거두는 폐단이 없게 되고, 백성들은 죄를 받는 원망이 없게 될 것이오며, 만일 부득이 민가의 감귤을 가지고 진상할 경우에는. 그 값을 넉넉하게 주어 사람들이 모두 심고 가꾸기를 권장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후략)</p>	<p>(전략) 一。 民家栽培果木， 所以將見其利， 而爲子孫計也。 且禁取民戶菓實， 已有著令。 州官以民戶柑橘， 托稱進上， 計株載籍， 纔結其實， 計箇監封， 或其主摘取， 論以竊用之罪， 盡取於官， 民不見利， 相與怨咨。 請令守令， 每年栽植等內所種， 錄於解由十年之後， 將不勝其用， 而官無斂民之弊， 民無受罪之怨。 若民戶柑橘， 不得已摘取進上， 優給其價， 則人皆勸於栽植， 而怨咨息矣。(후략)</p>
<p>世宗 37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7月 6日(壬辰) 1 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해마다 소금을 지급할 것을 전지하다</p>	<p>전지하기를, “ 양녕 대군의 처소에 해마다 소금 20석(石)을 지급하고 항상 이렇게 하라.” 하였다.</p>	<p>壬辰/傳旨： 讓寧大君處， 歲支鹽二十石， 以爲恒。</p>
<p>세종 37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7월 11일(정유) 7번째기사 윤봉의 청에 따라 소</p>	<p>윤봉에게 소주와 향온(香醞) 각 30병을 주었으니 그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 장차 진헌하려고 한 것이었다.</p>	<p>贈尹鳳燒酒香醞各三十瓶， 因其請也， 將以進獻也。</p>

주와 향을 각 30병을 주다		
世宗 37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7月 29日(乙卯) 10번째기사 양녕 대군이 병이 나니 약과 술 등을 내리다	양녕 대군이 병이 났으므로 약·술·고기를 내리고, 곧 이천현(利川縣)에 전지하기를, “양녕이 만약 다른 병증(病症)이 있으면 그 가동(家僮)으로 하여금 역마로 달려 와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讓寧大君有疾, 賜藥餌酒肉, 仍傳旨利川縣曰: “讓寧若有他証, 令其家僮, 馳驛以聞。”
세종 37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8월 20일(을해) 7번째기사 물고기를 양녕 대군에게 내리다	물고기를 양녕 대군에게 내렸다.	賜魚于讓寧大君。
世宗 38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10月 19日(癸酉) 4번째기사 평상시뿐만 아니라 환영과 전별에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라고 명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환영과 전별(餞別)에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은 굳게 금하고, 평상시에 술을 쓰는 것도 금하라.” 하였다.	傳旨司憲府: 堅禁迎餞會飲, 勿禁常時用酒。
세종 38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1월 13일(정유)	호조에서 계하기를, “사재감(司宰監)의 묵은 어물(魚物)을 성균관과 오부 학당(五部學堂)에 요량해 주고 그 나머지는 화매(和賣)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戶曹啓: “司宰監陳魚物, 量給城均館及五部學堂, 其餘和賣何如?” 上曰: “販賣魚物, 是與民爭利也。 於成均五

<p>3번째기사 사재감의 목은 어물을 화매하지 말고 성균관 등에 공급하게 하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물을 판매하는 것은, 백성들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는 것 같으니 성균관·오 부 학당 및 공처(公處)에 공급하여 주라.” 하였다.</p>	<p>部學堂及公處，供給與之。”</p>
<p>世宗 39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 (善德) 3年) 2月 11日 (癸亥) 4번째기사 성달생이 사신 백언이 명나라의 어용감 소감 에 제수되었음을 보고 하다</p>	<p>공조 판서 성달생(成達生)이 명나라에 있으면서 보고하기를, “사신 백언(白彦)이 찬녀(饌女)를 시켜 술·과일·두부(豆腐)를 만들어 올리니, 황제가 매우 가상(嘉尙)히 여겨 곧 백언을 어용감 소감(御用監小監)으로 제수 (除授)하고 관대(冠帶)를 내려 주었습니다.” 하였다.</p>	<p>工曹判書成達生，在中朝報：“使臣白 彦，使執饌女，造酒果豆腐以進，帝甚 嘉之，卽除彦御用監小監，賜冠帶。”</p>
<p>세종 39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 (善德) 3년) 2월 17일 (기사) 6번째기사 종정성과 좌위문대랑 의 아들 육랑의 화매 에 대한 청을 받아들 이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종정성(宗貞盛)이 사신으로 보낸 종대랑(宗大郎)이 아뢰기를 ‘본도(本島)는 땅이 모두 바위이어서 일찍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오직 칩뿌리와 도토리로 식물(食物)을 삼으니, 생계(生計)가 몹시 곤란하여 물고기와 소금으로 곡식을 사고자 해서 내이포(乃而浦)에 와서 정박(碇泊)했으나, 화매(和賣)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화매하게 하여 연명(連命)하게 하소서.’ 하며,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의 아들 육랑차랑(六郎次郎)이 아뢰기 를, ‘우리들이 대마도와 일기주(一岐州)·상송(上松)·하송(下松) 등지의 적인(賊 人)의 소식을 정탐해서 마음을 다하여 금지 방어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또 여러 곳에서 사신으로 보낸 무역선(貿易船)들이 바람을 만 나 침몰되어 거의 굶주리게 되었으므로 불쌍히 여겨 살려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마땅히 종정성에게 쌀·콩 각 1백 석과 소주(燒酒) 30병을 내리고, 좌위</p>	<p>禮曹啓：“宗貞盛使送宗大郎告云：‘本 島地皆巖石，未嘗業農，惟以葛根橡實 爲食，生理甚艱，欲以魚鹽買穀，來泊 乃而浦，因無和賣者，至今未還。請 令和賣，俾得連命。’左衛門大郎子六 郎·次郎告云：‘我輩探候對馬島及一 岐州上松·下松等處賊人聲息，盡心禁 禦，衆所共知。且諸處使送與販船艘， 遭風滄沒，殆將饑饉，請加憐活。’宜 賜宗貞盛米豆各一百石、燒酒三十瓶， 左衛門大郎米豆并五十石、燒酒二十 瓶。其魚鹽與販，則依政府受判，若</p>

	<p>문대량에게 쌀·콩 함께 50석과 소주 20병을 내릴 것이며, 그 물고기와 소금의 무역은 의정부의 수판(受判)에 의거하여 행할 것이며, 만약 자원하여 화매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변(沿邊) 각 고을의 국고(國庫)에 있는 묵은 쌀과 콩으로써 무역하여, 물고기와 소금을 자원하는 인민(人民)들에게 화매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無自願和賣者，以沿邊各官國庫陳米豆貿易，其所易魚鹽，於自願人民和賣。”</p> <p>從之。</p>
<p>世宗 39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善德) 3年) 3月 21日 (癸卯) 4번째기사</p> <p>성균관과 사부학당의 생도에게 술을 내리다</p>	<p>성균관(成均館)과 사부학당(四部學堂)의 생도(生徒)에게 술을 내렸다.</p>	<p>賜酒于成均館四部學堂生徒。</p>
<p>세종 40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4월 16일 (무진) 2번째기사</p> <p>지신사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다</p>	<p>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問安)하게 하고, 각각 여름 옷한 벌, 화투(靴套)·저포 각 10필, 마포 20필, 만화방석(滿花方席)·만화침석(滿花寢席) 각 4장, 석등잔(石燈盞) 1벌, 인삼·잣 각 30근, 차[茶] 7근을 주었다.</p>	<p>命知申事鄭欽之，問安于兩使臣，各贈夏衣一襲、靴套苧布十四、麻布二十四、滿花方席滿花寢席各四張、石燈盞一事、人蔘·松子各三十斤、茶七斤。</p>
<p>世宗 40卷, 10年 (1428 戊申 / 선덕(善德) 3年) 4月 23日(乙亥) 4번째기사</p> <p>날이 가물어 사헌부에서 금주를 청하다</p>	<p>사헌부에서 날이 가물어 금주(禁酒)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봄에 가물면 심한 피해는 없는 것이지만, 대·소맥(大小麥)에 어찌할까.”</p> <p>하니, 대언 김자가 대답하기를,</p> <p>“보리는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는 것이니, 이같은 작은 가뭄에는 반드시 손상하거나 피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비가 오면 또한 넉넉히 풍년이</p>	<p>司憲府以旱，請禁酒，從之。上曰：“春旱無甚害，然於兩麥何如?” 代言金楮對曰：“麥則耐寒暑，如此小旱，必不損害，若有小雨，亦足稔矣。”</p>

	들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 40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 (善德) 3년) 윤4월 11 일(임진) 7번째기사 가뭄 걱정으로 술을 들지 않자 신하들이 술 드시기를 청했으나 완곡히 거절하다	의정부와 육조가 계하기를, “옛날에 한재(旱災)를 만나면 감膳(減膳)한다고 한 것은 천자(天子)의 칠성(七腥)과 제후의 오성(五腥)을 말한 것이고, 술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또 감(減)할 뿐이고 철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하께서 가뭄을 근심하시어 술을 드시지 않으시니, 원컨대 술을 드시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 중에는 본래부터 술을 먹지 않는 자도 있는데, 내가 비록 술을 먹지 않아도 기운이 스스로 평안하다. 어찌 꼭 마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政府六曹啓: “古者遇旱減膳云者, 天子七腥, 諸侯五腥之謂也, 非謂酒也。且減之耳, 非徹之也。今殿下憂旱不進酒, 願許之。” 上曰: “人有本不飲酒者, 予雖不飲, 氣自平安, 何必飲乎?”
世宗 40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 (善德) 3年) 6月 21日 (壬寅) 6번째기사 평안도 영유현 사람이 한 번에 세 사내아이 를 낳으니 쌀을 하사 하다	평안도 영유현(永柔縣) 사람이 한 번에 세 사내아이를 낳으니, 전례에 따라 쌀을 하사하였다.	平安道永柔縣人, 一產三男, 命依例賜米。
세종 41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 (善德) 3년) 7월 21일 (신미) 3번째기사 이귀를 보내어 별선을	이귀(李貴)를 보내어 별선(別膳)을 사신에게 내렸다.	遣李貴, 贈別膳于使臣。

<p>사신에게 내리다 世宗 41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 (善德) 3年) 8月 30日 (己酉) 3번째기사 윤봉이 매사냥을 하니 내사 이귀를 보내어 위로하게 하다</p>	<p>윤봉(尹鳳)이 동교(東郊)에서 매[鷹]사냥을 하니, 내사(內史) 이귀(李貴)를 보내어 내온(內醢)과 어육(魚肉)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p>	<p>尹鳳放鷹于東郊，遣內史李貴，齎內醢魚肉，往慰之。</p>
<p>세종 41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 (善德) 3년) 9월 19일 (무진) 1번째기사 상림원에서 각 고을에서 바치는 배와 감의 수량을 감하기를 건의하다</p>	<p>상림원(上林園)에서 계하기를, “본원(本園)에서 심은 배나무와 감나무의 열매가 매우 많이 열었사오니, 금년 각 고을에서 바치는 배와 감의 수량을 절반으로 감(減)하소서.” 하였다.</p>	<p>戊辰/上林園啓：“本院所植梨柿之實，甚多。” 命減今歲各官所貢梨柿之半。</p>
<p>世宗 41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 (善德) 3年) 9月 20日 (己巳) 1번째기사 세 사신이 노량에 나가 노니 좌부대언 정연에게 명하여 내온(內醢)과 어육(魚肉) 등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다</p>	<p>세 사신이 노량(露梁)에 나가 노니, 좌부대언(左副代言) 정연(鄭淵)을 명하여 내온(內醢)과 어육(魚肉) 등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했다.</p>	<p>己巳/三使臣出遊露渡，命左副代言鄭淵，齎內醢魚肉等物，往慰之。</p>
<p>세종 42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p>	<p>강원도 감사가 방물(方物)과 주육(酒肉)을 올렸다.</p>	<p>江原道監司進方物及酒肉。</p>

<p>(善德) 3년 10월 7일 (을유) 4번째기사 강원도 감사가 방물과 주옥을 올리다</p>		
<p>世宗 42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 (善德) 3年) 11月 8日 (丙辰) 3번째기사 절일사 한혜가 건년 어·대구어·연어자·대문 어를 받들고 출발하다</p>	<p>절일사(節日使) 한혜(韓惠)가 <황제에게> 바치는 건년어(乾年魚) 2천 미(尾)·대구어(大口魚) 1천 미·연어자(年魚子) 10병(瓶)·대문어(大文魚) 3백 수(首)를 아울러 받들고 출발하니, 한혜에게 모관(毛冠)과 옷·갓·목화 등을 하사하였다.</p>	<p>節日使韓惠并齋進獻乾年魚二千尾、大口魚一千尾、年魚子十瓶、大文魚三百首以行。賜惠毛冠及衣笠靴。</p>
<p>세종 42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 (善德) 3년) 11월 12 일(경신) 3번째기사 진응사 상호군 이열이 해청과 건연어 등을 가지고 떠나다</p>	<p>진응사(進鷹使) 상호군(上護軍) 이열(李烈)이 해청(海靑) 3연, 진응(陳鷹) 2연, 건년어(乾年魚)·관포(貫脯)·연어(年魚) 각 1천 미(尾), 연어자(年魚子) 10병을 싸받들고 떠나니, 이열에게 모관(毛冠)·옷·갓·목화를 하사하고, 응사(鷹師) 2인과 양응(養鷹) 3인에게는 옷·갓·목화를 내려 주었다.</p>	<p>進鷹使上護軍李烈, 齋海靑三連、陳鷹二連、乾年魚貫脯年魚各一千尾、年魚子十瓶以行。賜烈毛冠及衣笠靴, 鷹師二人、養鷹三人衣笠靴。</p>
<p>世宗 43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1月 24日 (辛未) 4번째기사 김만이 요구하는 물품 을 주게 하다</p>	<p>김만(金滿)이 우산·황밀(黃蜜)·숨·수달피·인삼·작설차(雀舌茶)·수유(酥油)·소주·잣술[栢子酒]등을 요구하니, 이를 주라고 명하였다.</p>	<p>金滿求雨傘、黃蜜、酥子、水獺皮、人蔘、雀舌茶、酥油、燒酒、栢子酒, 命與之。</p>
<p>세종 43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지은 바 태종 공정 대왕(恭定大王)과 원경 왕태후(元敬王太后)의 상장 의궤</p>	<p>禮曹啓: “所撰太宗恭定大王、元敬王太后喪葬儀軌, 因倉卒, 頗有未盡節</p>

(宣德) 4년) 2월 10일
(병술) 6번째기사
태종과 원경 왕태후의
상장 의례를, 고제를
상고 보충하여 기록해
두도록 하다

(喪葬儀軌)는 창졸간에 된 것으로 꽤 미진한 절목이 많사옵기로, 이제 고제를 상고하여 의례의 끝에 기록하여 후고(後考)에 빙거를 삼게 하고자 합니다.

1. 고제에, ‘천자는 3일 만에 소렴(小斂)하고 7일 만에 대렴(大斂)하여 빈(殯)하며, 제후는 3일 만에 소렴하고 5일 만에 대렴하여 빈하며, 대부(大夫)와 사(士)는 2일 만에 소렴하고 3일 만에 대렴하고 빈한다.’ 하였으니, 그 엄하고 빈하는 날짜 수는 그 지위에 따라 높은 자는 더디하고 낮은 자는 빨리하여 본래 정한 제도가 있으니, 이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례 안에는 소렴과 대렴이 모두 제 3일로 되어 있사온바, 이는 특히 더운 때이기 때문에, 권도에 따라 행하였을 뿐이요, 상례(喪禮)의 상도는 아닌 것입니다.

1.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주제(周制)에 의하면, ‘대상(大喪)에 봉인(封人)1320) 이 우생(牛牲)을 씻고, 조석전(朝夕奠)에는 포해(脯醢)를 쓰며, 초하루와 보름날, 그리고 조전(朝奠)·대건(大遣) 등 전에는 모두 생뢰(牲牢)를 쓴다.’ 하였고,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면, ‘조석전에는 채소·과일과 포해를 진설하고, 삭망에는 성찬(盛饌)을 갖춘다.’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그 조석전과 삭망전에 쓰는 찬품(饌品)을 본래 높이고 내리고 하는 분별이 있는 것이온데, 우리 태조의 상사에는 조석전에 없었고, 다만 주전(晝奠)만을 배설하였사오며, 찬품은 유밀과(油蜜果)와 실과(實果)를 섞어 배설하여 구과(九果床)과 삼미(三味)의 반물(飯物)로 하였삽고, 공정 대왕(恭靖大王) 상사에 비로소 조석전을 진설하였사오며, 찬품은 태조의 주전(晝奠)의 예와 같이 하였삽고, 원경 왕태후(元敬王太后)의 상사에는 조석전을 처음은 태조 때의 예에 의하여 행하옵다가 뒤에 유밀과 녀 줄의 상(床)을 더하였삽고, 태종의 상사에도 역시 녀 줄의 상을 썼으되 그 찬품의 융성함이 거의 삭망 때와 같았으며, 하룻 동안에 두 차례의 별전(別奠)을 진설하여 고제와 달리 하였사온즉, 조석전의 찬품도 마땅히 태조의 주전(晝奠)의 예에 의하여 유밀과와 실과

目, 今考古制, 錄於儀軌之末, 以憑後考。 一, 古制, 天子三日小斂, 七日大斂而殯; 諸侯三日小斂, 五日大斂而殯; 大夫士二日小斂, 三日大斂而殯, 則其斂殯日數, 尊者緩而卑者速, 自有定制, 不可進退也。 今儀軌內小斂大斂, 皆在第三日。 此特以熱時, 故從權而已, 非喪禮之常經也。 一, 《文獻通考》: “周制, 大喪封人, 飾其牛牲, 而朝夕奠用脯醢。 朔月月半祖奠, 大遣等奠, 皆用牲牢。” 《文公家禮》: “朝夕奠, 設蔬果脯醢, 朔望則具盛饌。” 其朝夕朔望奠饌之品, 自有隆殺, 我太祖之喪, 無朝夕奠, 只設晝奠, 而饌品則油蜜果、實果、交排九果床、三味飯物, 恭靖大王之喪, 始設朝夕奠, 而饌品依太祖晝奠例。 元敬王太后之喪, 朝夕奠, 初依太祖時例, 後加油蜜果四行床, 太宗之喪, 亦用四行床, 饌品之盛, 幾於朔望。 一日之內, 再設別奠, 異於古制。 朝夕奠饌品, 當依太祖晝奠例, 用油蜜果、實果、交排九果床、三味飯物。(후략)

	를 섞어 배설하여 구과(九果)의 상과 삼미(三味)의 반물(飯物)을 써야 할 것입니다. (후략)	
世宗 44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4月 13日 (戊子) 1번째기사 사신이 구하는 어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정흠지(鄭欽之)에게 이르기를, “듣건대 사신이 어물(魚物)을 구하기 위하여 온다고 하는데, 고도어(高道魚)와 대하(大蝦)도 또한 구한다고 하니, 대하는 중국에서 생산되지마는, 그러나 이 미 청구하였으니 또한 마땅히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	戊子/視事。 上謂知申事鄭欽之曰： “聞使臣爲求魚物而來， 高道魚大蝦， 亦在所求。 大蝦則產於中國， 然既徵 求， 亦當預備。”
세종 44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 (宣德) 4年) 5월 14일 (기미) 6번째기사 물고기젓을 주본에 기 록하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지금 찬(饌)을 보살피는 비(婢)와, 노래를 부르는 여자와, 매·개·술·жат[松子] 과 물고기젓·새우젓 등의 물건을 바치는데, 사신이 준비한 물고기젓은 주본 (奏本)에 함께 기록할 수 없다. 만일 반드시 함께 기록하려면 그 색깔과 맛과 수량을 상세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신은 이미 자기가 준비 하여 사사로이 간수할 것이니 어찌하겠는가.” 하니, 맹사성(孟思誠)이 대답하기를, “비록 자기가 준비하여 사사로이 간수하더라도 주본(奏本)에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上謂左右曰：“今獻執饌婢、唱歌女、 鷹、犬、酒、松子、魚·蝦醢物，使臣 所備魚醢，不可并錄於奏本，若必并 錄，則不可不詳其色味與數。 然則使 臣既自備而私藏矣，如之何？” 孟思誠 對曰：“雖自備私藏，不可不錄於奏 本。”
世宗 44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5月 24日 (己巳) 1번째기사 예조에서 문묘의 작헌	예조에서 문묘(文廟)의 작헌의(酌獻儀)에 대해 계하기를, “하루 전에 유사(有司)가 묘정(廟庭)의 안팎을 깨끗이 소제하고, 충호위(忠扈 衛)가 대차(大次)를 묘정(廟庭)의 동문 밖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왕세자의 악 차(幄次)는 대차(大次)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그 날 통례문(通禮門) 은 왕세자 및 문무 군신(文武群臣)의 자리를 묘정(廟庭)에 설치하되, 왕세자는	己巳/禮曹啓文廟酌獻儀： 前一日，有司灑掃廟庭之內外。 忠扈 衛，設大次于廟殿東門外，南向，設王 世子次於大次東南，西向。 其日，通 禮門設王世子及文武群官位於廟庭，王

의에 대해 아뢰다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문무 군신은 동서로 나누어 설치하되, 중심이 머리가 되고, 관위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고, 모두 북향하게 한다. 학생(學生)의 자리는 군신(群臣)의 뒤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전의(典儀)의 자리는 동계(東階)의 서쪽에 설치하고, 통찬(通贊) 두 사람의 자리는 남쪽에 설치하되, 조금 뒤로 물려 모두 서향하게 한다. 묘사(廟司)와 전사관(典祀官)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제기(祭器)를 대성 지성 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의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왼쪽에 변(籩) 하나, 【녹포(鹿脯)를 담는다.】 오른 쪽에 두(豆) 하나를, 【녹해(鹿醢)를 담는다.】 작(爵) 하나는 변·두 앞에 놓고, 희준(犧尊) 하나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국자[勺]를 담아 놓고, 떡(饗)은 전상(殿上)의 동남쪽 모퉁이에 놓고, 향로(香爐)·향합(香合)·촉(燭)은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또 배향위(配享位)1363) 와 종향위(從享位)1364) 의 제기(祭器)를 설치하되, 각기 왼쪽에는 변(籩) 하나, 【포(脯)를 담는다.】 오른쪽에는 두(豆) 하나를 【젓을 담는다.】 놓고, 작(爵) 하나는 변·두 앞에 놓고, 상준(象尊) 네 개를 함께 설치하되, 【술을 채운다.】 한 개는 전상(殿上)의 앞기둥 동쪽에 놓고, 한 개는 앞기둥 서쪽에 놓고, 두 개는 두 낭무(廊廡)에 나누어 놓되, 모두 국자[勺]와 떡(饗)을 올려놓는다. 거가(車駕)가 출궁(出宮)하기 전, 출궁하기 3일 전에 유사(攸司)가 내외(內外)를 도와서 각기 그 직책을 다하게 한다.

그 날이 되면, 어가(御駕)를 따라야 할 문무관(文武官)은 시각에 맞추어 조당(朝堂)으로 집합한다. 여러 위(衛)에서는 장위(仗衛)를 진설(陳設)하고, 관통례(判通禮)가 꿇어앉아서 외관(外辦)을 계(啓)하면, 전하는 연(輦)을 타고, 문무의 관원은 시종(侍從)하기를 모두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어가가 장차 이르면, 관관(館官)과 학관(學官)이 학생을 거느리고 길 왼편에서 영접한다. 어가가 대차(大次)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려 악차(輦次)로 들어가면, 통례문은 문무 군신과 관관(館官)·학관(學官)을 나누어 인도하는데, 모두

世子在東階東南，北向，文武群官分東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設學生位於群官之後，北向西上，設典儀位於東階之西，通贊二人在南差退，俱西向。廟司及典祀官各帥其屬入，設祭器於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左一籩，【實以鹿脯。】右一豆，【實以鹿醢。】爵一在籩豆前，犧尊一【實以淸酒】加勺，在殿上東南隅。設香爐香合燭於神位前，又設配享及從享位祭器，各左一籩，【實脯】右一豆。【實醢】爵一在籩豆前。共設象尊四，【實酒】一在殿上前楹東，一在前楹西，其二分兩廡，俱加勺。車駕出宮：前出宮三日，攸司宣攝內外，各供其職。其日，應從駕文武官，依時刻、集朝堂，諸衛陳設仗衛。判通禮跪啓外辦，殿下乘輦，文武侍從，竝如常儀。駕將至，館官、學官帥學生，奉迎於路左。駕至大次，降輦入輦。通禮門分引文武群官及館官學官俱朝服，學生青衿服，入就位，僉知通禮引王世子，朝服入就位。判通禮進大次前，跪啓請行酌獻禮，殿下服冕服出次，判通禮前導，入自東門，陞自東階，詣文宣王神

조복(朝服) 차림으로 하고, 학생은 청금복(靑衿服) 차림으로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가고, 첨지통례(僉知通禮)는 왕세자를 인도하는데, 조복 차림으로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간다. 판통례가 대차(大次)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것을 계청(啓請)하면, 전하는 면복(冕服)을 입고 대차에서 나온다. 판통례가 앞으로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 들어와서, 동계(東階)로 올라 문선왕(文宣王)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판통례가 ‘국궁, 사배, 흥, 평신’을 계청하면, 전하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통찬(通贊)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찬(贊)하면, 왕세자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근시(近侍) 한 사람은 향합(香盃)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면, 근시가 향로를 신위(神位) 앞에 올리고, 근시가 술을 따라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계청하면, 작(爵)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판통례가 ‘면, 복, 흥, 사배, 흥, 평신’을 계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나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찬(贊)하면, 왕세자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판통례가 앞에서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서 대차(大次)로 돌아가고, 관관(館官)·학관(學官)은 배향위(配享位)와 종향위(從享位)로 나누어 나아가서 작헌(酌獻)을 의식대로 한다.

이를 마치면, 판통례가 ‘예(禮)가 끝났다.’고 계하면,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가고, 통례문이 문무와 군관과 관관(館官)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판통례가 시각을 헤아려 꿇어앉아서 외판(外辦)을 계하면, 전하는 연(輦)을 타고 환궁(還宮)한다. 관관(館官)·학관(學官)이 길원편에서 하직하고, 왕세자와 문무 군관은 배종(陪從)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位前北向立。判通禮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通贊贊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及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近侍一人奉香盃跪進，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跪三上香，近侍奠爐于神位前。近侍酌酒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神位前。判通禮啓請俛伏興四拜興平身，殿下俛伏興四拜興平身。通贊贊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及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判通禮前導，降自東階還大次。館官學官，分詣配享及從享位，酌獻如儀訖，判通禮啓禮畢，僉知通禮引王世子出，通禮門，分引文武群官及館官以下，以次出。判通禮量時刻，跪啓外辦，殿下乘輦還宮，館官學官奉辭於路左，王世子及文武群官陪從，如來儀。從之。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世宗 44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6月 28日 (癸卯) 1번째기사 부안현의 사비가 한꺼 번에 아들 둘과 딸 하 나를 낳으니 쌀을 내 리게 하다</p>	<p>부안현(扶安縣)에 거주하는 사비(私婢)가 한꺼번에 사내아이 둘과 계집아이 하나를 낳았으므로,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쌀을 내리게 하였다.</p>	<p>癸卯/扶安縣住私婢, 一產二男一女, 命依前例賜米。</p>
<p>세종 45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 (宣德) 4년) 7월 19일 (계해) 2번째기사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 을 거느리고 서토를 축하하는 표·전문을 배송하다</p>	<p>(전략)전문에는 말하기를, “춘방(春坊)1393) 에서 덕을 길러 무성함이 번창한 시기를 만났고, 천도(天道)가 상서(祥瑞)를 낳으시어 신령한 복주심을 드러내셨으니,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기뻐하나이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태자께서는> 천성(天性)이 영명(英明)하시고 자세(姿勢)가 높고 의젓하사 높이 태자궁(太子宮)에 계시니, 온 천하 백성들의 마음에 진실로 부합하며, 황제의 곁에 가까이 모시어 항상 <황제와 황후> 양궁(兩宮)의 권애(眷愛)하심을 입으셨나이다. 이에 바른 서응(瑞應)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실로 크게 형통(亨通)할 징조입니다. 앞드려 생각하건대, 신(臣)은 멀리 외방(外方)에 있어 마침 태평 성세를 만났습니다. 비록 물오리 떼처럼 달려가서 반열(班列)에는 참여할 길이 막혔으나, <큰 집이 이루어졌을 때에> 제비가 즐겨하듯 배나 축하(祝賀)하는 정성을 다하나이다.” 하고, 주본(奏本)에는 말하기를, “선덕(宣德) 4년 5월 초2일에 흠차 태감(欽差太監) 창성(昌盛)·윤봉(尹鳳) 등의 관원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손히 선유(宣諭)를 전하기를, ‘궁중에서 사용할 해물(海物) 등의 물건을 바치게 하여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을</p>	<p>(전략)箋曰: 春坊毓德, 茂對昌期。 天道產祥, 克彰靈貺。 見聞所及, 歡忭惟均。 恭惟性稟英明, 姿凝岐嶷。 尊居鶴禁, 允符四海之心; 昵侍龍樓, 常荷兩宮之眷。 致茲貞符之見, 實是泰亨之徵。 伏念臣邈處荒陬, 端逢盛際。 雖阻臯趨之列, 倍殫燕賀之誠。 奏本曰: 宣德四年五月初二日, 欽差太監昌盛、尹鳳等官到國, 欽傳宣諭: “中用的海味等件, 進將來。” 欽此。 備辦到海味等物, 差陪臣左軍同知總制權蹈, 齎領赴京進獻。 一。 眞魚一千八百三十尾, 民魚五百五十尾, 沙魚九十尾, 芒魚三百八十尾, 洪魚二百尾, 蘆魚一</p>

	<p>공손히 받들어 해미(海味) 등의 물품을 갖추어 마련하고 배신(陪臣) 좌군 동지총제 권도(權蹈)를 보내어 싸가지고 북경에 가서 진헌하게 하나이다.</p> <p>1. 진어(眞魚) 1천 8백 30마리, 민어 5백 50마리, 상어[沙魚] 90마리, 망어(芒魚) 3백 80마리, 홍어 2백 마리, 농어[蘆魚] 1백 마리, 연어 5백 마리, 대구 1천 마리, 잉어 2백 마리, 송어[秀魚] 4백 40마리, 문어 2백 마리, 조기[石首魚] 1천 마리, 청어 5백 근, 송어[蘇魚] 5백 근, 도미 5백 근, 복어 7백 근, 고등어 2백 근, 오징어 2백 근, 대하 2백 근, 황어젓 6통(桶), 잉어젓 1통, 토화(土花)젓 9병[壘], 굴[石花]젓 3병, 생합(生蛤)젓 4병, 송어젓 3병, 백하(白蝦)젓 7병, 자하(紫蝦)젓 4병, 조기 새끼젓 4병, 홍합젓 2병, 조해채(早海菜) 5백 근, 해채(海菜) 1천 근, 사해채(絲海菜) 3백 근, 해채이(海菜耳) 3백 근, 곤포(昆布) 4백 근, 해의(海衣) 1백 근, 감태(甘苔) 2백 근, 해화(海花) 2백 근, 황각(黃角) 3백 근, 잣 1천 근, 황주(黃酒) 5병, 소주 5병입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 “선덕(宣德) 4년 5월 초2일 흠차 태감(欽差太監) 창성(昌盛)·윤봉 등의 관원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손히 선유(宣諭)하여 전하기를, ‘화자(火者)와 다반(茶飯)을 지을 줄 아는 부녀자와, 음악을 배울 어린 하녀(下女)를 데리고 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을 공손히 받들어, 이제 선택해 뽑은 화자(火者)와 부녀자 등을 거느리고 배신(陪臣) 좌군 동지총제 권도를 차정(差定)하여 인솔하고 흠차관(欽差官) 등을 따라 북경에 가게 하였습니다. 화자(火者) 6명, 다반을 지을 줄 아는 부녀자 12명, 음악을 배울 어린 하녀 8명입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 “선덕 4년 5월 초2일 흠차 태감 창성(昌盛)·윤봉 등의 관원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손히 선유(宣諭)하여 전하기를, ‘안교자(鞍橋子)를 만드는 데에 쓸 화문목(花文木)과 석등잔(石燈盞)을 바치게 하여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이제 화문목과 석등잔을 준비하고 배신 좌군 동지총제 권도를</p>	<p>百尾, 年魚五百尾, 大口魚一千尾, 鯉魚二百尾, 秀魚四百四十尾, 文魚二百首, 石首魚一千尾, 青魚五百觔, 蘇魚五百觔, 鯽魚五百觔, 鰻魚七百觔, 古道魚二百觔, 烏鯽魚二百觔, 大蝦二百觔, 黃魚鮓六桶, 鯉魚鮓一桶, 土花鮓九壘, 石花(鮓) [鮓] 三壘, 生蛤鮓四壘, 蘇魚鮓三壘, 白蝦鮓七壘, 紫蝦鮓四壘, 石首魚子鮓四壘, 紅蛤鮓二壘, 早海菜五百觔, 海菜一千觔, 絲海菜三百觔, 海菜耳三百觔, 昆布四百觔, 海衣一百觔, 甘苔二百觔, 海花二百觔, 黃角三百觔, 松子一千觔, 黃酒五壘, 燒酒五壘。</p> <p>又奏曰: 宣德四年五月初二日, 欽差太監昌盛·尹鳳等官到國, 欽傳宣諭: “火者及會做茶飯的婦女、學樂的小妮子與將來。” 欽此。 今將選揀到火者婦女等, 差陪臣左軍同知總制權蹈, 管領根同欽差官等赴京。 火者六名, 會做茶飯的婦女一十二名, 學樂的小妮子八名。</p> <p>又奏曰: 宣德四年五月初二日, 欽差太監昌盛、尹鳳等官到國, 欽傳宣諭: “做鞍橋子</p>
--	--	---

	<p>보내어 싸가지고 북경에 가서 진헌하게 하나이다. 화문목으로 안교자 제작용 6부(副), 석등잔 10벌입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p> <p>“선덕 4년 5월 초2일, 흠차 태감 창성(昌盛)·윤봉 등의 관원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손히 선유를 전하기를, ‘네가 조선국에 가서 국왕(國王)에게 알도록 설명하고 개[狗]와 매[鷹]를 구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공손히 이 뜻을 받들어 이제 여러가지 새매와 큰 개를 배신 좌군 동지총제 권도를 보내어 관리하여 북경에 가서 진헌하게 합니다. 아골(鴉鵲) 30연(連), 황웅(黃鷹) 10연, 조웅(皂鷹) 4연, 큰 개 40마리입니다.”</p> <p>하였다.</p>	<p>的花文木并石燈盞進將來。” 欽此。</p> <p>今備花文木并石燈盞，差陪臣左軍同知摠制權蹈，齎領赴京進獻。 花文木鞍橋子六副，石燈盞一十事。</p> <p>又奏曰：</p> <p>宣德四年五月初二日，欽差太監昌盛、尹鳳等官到國，欽傳宣諭：“爾去朝鮮國，對國王說知，尋將狗鷹來。” 欽此。 今將雜鷹并大狗，差陪臣左軍同知摠制權蹈，管送赴京進獻。 鴉鵲三十連，黃鷹一十連，皂鷹四連，大狗四十隻。</p>
<p>世宗 45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9月 29日 (壬申) 3번째기사</p> <p>예조에서 대신이 사신으로 나갈 때에 내리는 전별연 의식에 대해 아뢰다</p>	<p>예조에서 대신(大臣)이 사신(使臣)으로 나갈 때에 전별연(餞別宴)을 내리는 예조에서의 의식(儀式)을 아뢰기를,</p> <p>“그날 <사연(賜宴)하라는> 왕명을 받은 자 【예조 판서·참판과 대언(代言)·판서가 유고하면 타조(他曹)의 판서가 대신하게 한다. 】와 사연(賜宴)을 받게 된 자가 대궐에 나아가 왕명을 받는다. 예조에 가서 좌석에 앉을 때에는 봉명(奉命)한 자는 동쪽에 앉고, 사연을 받는 자는 서쪽에 앉는다. 참판과 대언(代言)은 차례로 조금 뒤로 물러나 앉는다. 만약 사연을 받는 자가 판서보다 관등(官等)이 한 등(等) 낮거나 그 이하이면 판서는 북벽(北壁)에 앉고, 참판 대언은 동벽(東壁)에 앉는다. 집사자(執事者)가 찬탁(饌卓)과 잔을 준비하고 술을 잔에 따르면 사연을 받는 자는 각기 자리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꿇어앉아서 잔을 잡아 마신다. 【봉명(奉命)한 사람도 또한 좌석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꿇어앉아서 먼저 잔을 든다. 】 다 마시고 나면 구부렸다 엎드</p>	<p>禮曹啓大臣出使時賜餞禮曹儀：</p> <p>其日，奉命者【禮曹判書參判及代言。判書有故，則代以他曹。】及應受賜者詣闕受命，赴禮曹就座。 奉命者在東，受賜者在西，參判代言以次差退。 若受賜者與判書差等以下，則判書北壁，參判代言東壁。 執事者，設饌卓及盞斟酒。 受賜者各於座前俛伏跪，執盞飲【奉命者，亦於坐前俛伏跪先舉。】訖，俛伏興就座。 進饌行酒至七周後，執事者收盞徹卓。 翼日早，奉命者詣闕復命，受賜者詣闕謝恩。</p>

렸다가 일어나 자리에 앉는다. 술안주를 들고 술을 마시기를 일곱 순배에 이르고 나면 집사자(執事者)가 잔을 거두고 찬탁(饌卓)을 치운다. 이튿날 일찍이 봉명한 사람은 대궐에 나아가 복명(復命)하고, 사연을 받은 사람을 대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한다.”

하고, 사신(使臣)을 각도(各道)에 보내어 선로(宣勞)하는 절차와 모임의 의식은,

“사신(1418) 이 도착하는 날에 응당 수사(受賜)할 자가 그의 소속과 그 주관(州官)을 거느리고 시복(時服) 차림으로 교외(郊外)에서 영접한다. <사신의 행차에> 뒤따라와서 객관(客館)에 이르면 사신이 선운(宣醞)을 당상(堂上)의 탁자(卓子) 위에 놓고 【물품을 하사하는 것이 있으면 하사품을 놓는 탁자는 동쪽에 두고 선운을 놓는 탁자는 서쪽에 둔다.】 탁자의 동쪽에 서향하여 선다. 응당 수사(受賜)할 자가 서쪽 문으로부터 뜰에 들어와 북향하여 서면, 사신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 남향하여 서서 ‘왕지(王旨)가 있다.’고 일컫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응당 수사할 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네 번 절하고 나서 서계(西階)로 당상(堂上)에 올라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사신이 서향하여 왕지(王旨)를 선유(宣諭)한다. 응당 수사(受賜)할 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하사할 물품이 있으면 사신이 이를 주는데, 받는 자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받아 수종자(隨從者)에게 주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좌석에 가 앉으면, 【사신은 동쪽에 있고 수사자는 서쪽에 있다.】 집사자가 찬탁과 잔을 베풀어 놓는다. 잔에 술을 따르면 수사자가 각기 좌석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꿇어앉아 잔을 잡아 마신다. 【사신도 또한 좌석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꿇어앉아서 먼저 잔을 든다.】 다 마시고 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자리에 앉는다. 안주를 들고 술을 마시기를 일곱 순배에 이르면, 집사자가 잔을 걷고 찬탁을 치운다. 수사자가 뜰에 내려와 서면, 사신이 탁자의 동쪽에 도로 가서 선다. 수사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네 번

遣使各道宣勞並會儀：
 使臣【三品以下，六品以上朝官。】至日，應受賜者率其屬及州官，時服迎於郊外，隨至館。使臣以宣醞置堂上卓上，【有賜物，則賜物卓在東，宣醞卓在西。】立於卓東西向，應受賜者自西門入庭北向立。使臣小前南向立，稱有旨，退復位，應受賜者行稽首四拜，由西階升堂北向跪，使臣西向，宣旨云云，應受賜者俛伏興【有賜物，則使臣以授，受者小前跪，受以授從者，俛伏興。】就座。【使臣在東，受賜者在西。】執事者設饌卓及盞斟酒，受賜者各於座前，俛伏跪執盞飲，【使臣朴於前俛伏跪先舉。】訖，俛伏興就座。進饌行酒至七周後，執事者收盞徹卓，受賜者降立於庭，使臣復於卓東。受賜者行稽首四拜訖，就門外立，使臣出，躬身以送。從之。

	절하고 나서 문밖에 나가 섰다가, 사신이 나가면 몸을 굽혀 전송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世宗 46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10月 2日 (乙亥) 4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어육을 하사하다	양녕 대군 이제(李禔)에게 어육(魚肉)을 하사하였다.	賜魚肉于讓寧大君禔。
세종 46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 (宣德) 4년) 12월 3일 (을해) 5번째기사 박서생이 시행할 만할 일들을 갖추어 아뢰다	(전략) 1.사역원(司譯院) 생도(生徒) 이생(李生)이 말하기를, ‘감자(甘蔗)1432)는 맛이 달고 좋아서 생으로 먹어도 사람의 기갈(飢渴)을 해소하게 되고, 또 삶으면 사탕(沙糖)이 되는데, 유구국(琉球國)에서는 강남(江南)에서 얻어다가 많이 이를 심고 있으며, 또 서여(薯蕷)1433) 라는 것이 있어, 큰 것은 기둥만 하고 작은 것은 서까래만 한데, 역시 남만(南蠻)에서 얻어다가 이를 재배한다.’ 하오니, 앞드려 바라옵건대, 모두 채취해 오게 하여 그 재배를 널리 보급하도록 하소서.(후략)	(전략) 一。司譯院生徒李生言：‘甘蔗味甜美，生食之，令人解飢渴，又煮爲沙糖，琉球國得于江南，多種之。又有薯蕷，大者如柱，小者如椽，亦得于南蠻，種之。’ 伏望竝令採來，以廣其種。(후략)
世宗 46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12月 14日 (丙戌) 4번째기사 한용봉에게 명하여 사 신에게 별선을 주다	내관(內官) 한용봉(韓龍鳳)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別膳)을 주었다.	命內官韓龍鳳，贈別膳于使臣。
세종 46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 (宣德) 4년) 12월 22일 (갑오) 1번째기사	(전략) 예물은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 50필, 만화석·잡채 화석·만화 방석 각각 10장, 인삼 50근, 잣 1백 근, 잡색마 6필이다. 이친(李瞿)이 진헌할 마른 연어 2천 마리, 대구어 1천 마리, 문어 5백 마리도 아울러 받들고 가니, 친에게 초구(貂裘)·모관(毛冠)·이엄(耳掩)·전(氈)·초립(草笠)·유의(襦衣) 1	(전략) 禮物：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五十四、滿花席雜彩花席滿花方席各一十張、人蔘五十觔、松子一百觔、雜色馬六匹。 瞿并齋進獻乾年魚

<p>왕세자에게 명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사은하는 표 전문을 받들고 떠나게 하다</p>	<p>습과 호슬(護膝) 및 신을 하사하고, 맹균에게는 초구·모관과 유의 1벌·갓·신을 하사하였다.</p>	<p>二千尾、大口魚一千尾、文魚五百首以行。賜鬣貂裘毛冠耳掩氈草笠襦衣一襲、護膝及靴、孟昫貂裘·毛冠·襦衣一領、笠靴。</p>
<p>世宗 46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宣德) 4年) 12月 27日(己亥) 5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다</p>	<p>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였다.</p>	<p>賜酒肉于讓寧大君禔。</p>
<p>세종 47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1월 6일 (정미) 2번째기사 예조에서 종친들이 입학하는 의식에 대해 아뢰다</p>	<p>예조에서 종친(宗親)들의 입학(入學)하는 의식을 아뢰기를, “종친은 학생복을 입고 종학(宗學) 문 밖에 이르고, 폐백으로 속백(束帛)을 한 광주리에 한 필, 술은 한 병에 두 말, 육포(肉脯)는 한 상에 세 정(脛)을 차린다. 상자(相者)1443)가 종친을 인도하여 문 동쪽에 서향하여 서게 하고, 폐백 광주리와 술병, 육포 상을 종친의 서남쪽에 진설(陳設)하되, 바로 문 앞에 북향하여 겹줄로 놓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교관(敎官)이 공복(公服)을 갖추어 입고, 집사자(執事者)가 인도하여 학당(學堂)의 동쪽 섬돌 위에 서향하여 서게 하면, 전명(傳命)하는 사람이 문 서쪽에 동향하여 서서 말하기를, ‘행사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면, 종친이 조금 나아와서 말하기를, ‘아무가 지금 선생님에게 수업(受業)하고자 하여 뵈옵기를 청하나이다.’ 한다. 전명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말을 고하면, 교관(敎官)이 말하기를, ‘아무는 덕이 없사오니 종친은 욱되게 하지 마시기를 청하나이다.’ 한다. 전명하는 사람이 나와서 종친에게 고하면, 종친은 굳이 청한다. 교관이 말하기를, ‘아무가 덕이 없으니, 종친께서 자리에 나아가려면 아무가 감히 뵈옵겠습니다.’ 하고, 전명하는 사</p>	<p>禮曹啓： 宗親入學儀：宗親服學生服，至學門外，束帛一籠、一匹，酒一壺二斗，脩一案三脛。相者引宗親，立於門東西面，陳帛籠、酒壺、脩案於宗親西南當門北向，重行西上，敎官具公服，執事者引立於學堂東階上西面。將命者立門西東面曰：“敢請事。”宗親少進曰：“某方受業於先生，敢請見。”將命者入告，敎官曰：“某也不德，請宗親無辱。”將命者出告，宗親固請，敎官曰：“某也不德，請宗親就位，某敢見。”將命者出告，宗親曰：“某不敢以視賓客，請終賜見。”將命者入告，</p>

람이 나와서 고한다. 그러면 종친이 말하기를, ‘아무는 감히 빈객(賓客)을 대할 수 없사오니 마침내 비읍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다. 전명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뜻을 고하면, 교관이 말하기를, ‘아무가 사양하여도 듣지 아니하시니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다. 전명하는 사람이 나가서 이 말을 고하면, 폐백 광주리를 잡은 사람이 광주리를 가지고 동향하여 종친에게 주고, 종친은 광주리를 받아 든다. 교관이 동쪽 섬돌 아래로 내려와서 서향하여 서면, 상자(相者)가 종친을 인도하고, 집사자(執事者)는 술병과 육포 상을 받들고 따른다. 종친이 문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서쪽 섬돌의 남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고, 술과 육포를 받든 사람은 종친의 서남쪽에 서되, 동향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종친이 꿇어앉아서 폐백 광주리를 드리고 재배하면 교관도 답하여 재배한다. 이때에 종친은 돌아서서 피하고 이내 나아가서 꿇어앉아 광주리를 든다. 상자가 종친을 인도하여 교관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폐백을 바치고, 술병과 육포 상을 받든 사람도 따라서 교관 앞에 드린다. 교관이 폐백을 받으면 집사자가 술·육포·폐백을 받아 가지고 동쪽으로 선다. 상자가 종친을 인도하여 섬돌 중간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서게 한다. 술과 육포를 받든 사람이 나가고, 종친이 재배하고 나면 상자가 종친을 인도하여 나간다. 종친이 종학(宗學)에 들어가는 의식. 3, 4품의 교관은 정청(政廳)의 북쪽 벽에 앉고, 5, 6품의 교관은 동쪽 벽에 앉으며, 영접하고 전송하며, 절하고 읊(揖)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예식대로 한다. 교관이 자리에 앉고 나면, 종친은 교관 앞에 나아가서 【2품 이상이 한 줄, 3품 이하가 한 줄, 작(爵)이 없는 사람이 한 줄이 된다.】 돈수재배(頓首再拜)하면, 동시에 답배(答拜)한다. 예(禮)를 마치면 각각 재(齋)에 나아가서 차례대로 수업(受業)한다. 교관과 종친이 모두 평등히 차리되, 관복(冠服)은 작(爵)이 있는 사람은 품복(品服)을 입고, 작이 없는 사람은 학생복(學生服)을 입는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教官曰：“某辭不得命，敢不從？”將命者出告，執籩者以籩東向，授宗親，宗親執籩，教官降候于東階下西面，相者引宗親，執事者奉酒壺脩案以從，宗親入門而左，詣西階之南東面，奉酒脩者，立於宗親西南，東面北上。宗親跪奠籩再拜，教官答再拜，宗親還避，遂進跪取籩，相者引宗親進教官前，東面受幣。奉酒壺脩案者，從奠於教官前，教官受幣。執事者取酒脩幣以東，相者引宗親立於階間近南北面，奉酒脩者出。宗親再拜訖，相者引宗親出。宗親入宗學儀：三四品教官坐正廳北壁，五六品教官東壁，迎送拜揖，依已定禮。教官既坐，宗親就教官前【二品以上爲一行，三品以下爲一行，無爵者爲一行。】頓首再拜，教官一時答拜。禮畢，各就齋，以次受業。教官宗親竝平排，冠服則有爵者品服，無爵者學生服。從之。

<p>世宗 47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3月 6日 (丙午) 3번째기사 예조에서 왕자 알성의 에 대하여 아뢰다</p>	<p>예조에서 왕자(王子)의 알성의(謁聖儀)에 대하여 아뢰기를, “왕자는 학생복(學生服)을 입고, 상자(相者)가 인도하여 문묘의 뜰에 들어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사자(執事者)가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이라 찬(贊)하면, 왕자는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상자(相者)가 인도하여 나간다. 종친(宗親)도 왕자의 입학하는 의식과 같다. 왕자가 학생복을 입고 국학(國學)의 문 밖에 이르면, 속백(束帛) 한 광주리【한필.】, 술 한 병【두 말.】, 포육(脯肉) 한 상【세 조각.】을 준비한다. 상자(相者)가 왕자를 인도하여 문 동쪽에 서서 서향하게 하고, 폐백 광주리와 술병과 포육상을 왕자의 서남 쪽에 진설하되, 바로 문 앞에 북향하여 겹줄로 놓되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박사(博士)1488)가 공복(公服)을 갖추고 있으면, 집사자가 인도하여 학당(學堂)의 동계(東階)에 서향하여 서게 한다. 장명자(將命者)1489)가 나와서 문 동쪽에 서향하여 서서 말하기를, ‘행사(行事)하소서.’ 하면, 왕자가 조금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바야흐로 선생에게 수업(受業)하려 하오니, 감히 뵈옵기를 청합니다.’ 한다. 장명자가 들어가서 고하면,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덕이 없으니 왕자는 욕되이 함이 없기를 청합니다.’ 한다.【만약 종친(宗親)이면, ‘종친은 욕되이 함이 없게 하십시오.’ 한다.】 장명자가 나와서 고하면, 왕자는 굳이 청한다.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덕이 없사오나, 왕자께서 자리에 나오소서. 그러면 아무개는 감히 뵈오리다.’ 한다. 장명자가 나가서 고하면, 왕자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감히 빈객을 뵈올 수 없사오니 부디 뵈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한다. 장명자가 들어가서 고하면, 박사는 ‘아무개는 사양하여도 허락하지 않으시니 감히 좃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다. 장명자가 나와서 고하고, 폐백 광주리를 잡은 자가 광주리를 동향하여 왕자에게 주면, 왕자가 광주리를 받아 든다. 박사가 내려와서 동계 아래에 서향하여 서서 기다린다. 상자(相者)가</p>	<p>禮曹啓: 王子謁聖儀: 王子服學生服, 相者引入廟庭西向立。執事者贊鞠躬四拜興平身, 王子鞠躬四拜興平身, 相者引出。宗親同。王子入學儀: 王子服學生服, 至國學門外, 束帛一籠、【一匹】酒一壺、【二斗】脩一案, 【三甌】相者引王子, 立於門東西面, 陳帛籠、酒壺、脩案於王子西南當門北向, 重行西上。博士【宗學博士】具公服, 執事者引立於學堂東階上西面。將命者出, 立門東西面曰: “敢請事。” 王子小進曰: “某方受業於先生, 敢請見。” 將命者入告, 博士曰: “某也不德, 請王子無辱。” 【若宗親, 則云宗親無辱】將命者出告, 王子固請, 博士曰: “某也不德, 請王子就位, 某敢見。” 將命者出告, 王子曰: “某不敢以視賓客, 請終賜見。” 將命者入告, 博士曰: “某辭不得命, 敢不從?” 將命者出告, 執籠者以籠東向授王子, 王子執籠, 博士降俟于東階下西面。相者引王子, 執事者奉酒壺脩案以從。王子入門而左, 詣西階之南東面, 奉酒脩者立於王子西</p>
--	--	--

	<p>왕자를 인도하면 집사자(執事者)는 술병과 포육상을 받들고 따라간다. 왕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서계(西階)의 남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고, 술과 포육을 받든 자는 왕자의 서남쪽에 동향하여 서되, 북쪽을 위로하여 선다. 왕자가 꿇어앉아서 폐백 광주리를 드리고 두 번 절하면 박사가 답하여 두 번 절하는데, 왕자는 돌아서서 피하였다가, 나아가 꿇어앉아서 폐백 광주리를 취한다. 상자(相者)가 왕자를 인도하여 섬들 사이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서계하고, 술과 포육을 받든 자는 나간다. 왕자가 두 번 절하고 나면, 상자가 왕자를 인도하여 나간다. 종학(宗學)의 의식. 종학(宗學)의 정청(正廳)에 3품(品) 교관(敎官)은 북쪽 벽에, 4품 교관은 동쪽 벽에 5, 6품 교관은 서쪽 벽에 앉는다. 【만약 3품 교관이 없으면 4품 교관이 북쪽벽에, 5, 6품 교관은 동쪽 벽에 앉게 된다.】 교관을 맞이하고 보내며, 절하고 읊(揖)하는 절차는 이미 정해 있는 예에 의한다. 교관이 이미 앉았으면, 왕자 이하는 교관의 앞으로 나아가서 【대군(大君)이 한 줄이 되고, 2품 이상이 한 줄이 되고, 3품 이하가 한 줄이 되고, 작(爵)이 없는 사람이 한줄이 된다.】 돈수 제배(頓首再拜)한다. 교관은 다 같이 한꺼번에 답하여 절한다. 예(禮)를 마치면, 각기 서재(齋)로 나아가서 차례대로 수업(受業)을 하는데, 교관과 왕자 이하가 모두 자리에 앉는다. 관복(冠服)은 관작이 있는 사람이면 품복(品服)을 입고, 관작이 없는 사람이면 학생복을 입는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南，東面北上。王子跪奠籠再拜，博士答再拜，王子還避，遂進跪取籠，相者引王子，進博士前東面授幣。奉酒壺脩案者從，奠於博士前，博士受幣。執事者取酒脩幣以東，相者引王子，立於階間，近南北面，奉酒脩者出。王子再拜訖，相者引王子出。宗學儀：宗學正廳，三品敎官北壁，四品東壁，五六品西壁。【若無三品敎官，則四品敎官北壁，五六品敎官東壁。】敎官迎送拜揖，依已定禮。敎官既坐，王子以下就敎官前【大君爲一行，二品以上爲一行，三品以下爲一行，無爵者爲一行。】頓首再拜，敎官一時答拜。禮畢，各就齋以次受業，敎官王子以下竝坐席。冠服則有爵者品服，無爵者學生服。從之。</p>
<p>世宗 48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5月 4日 (癸卯) 1번째기사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p>	<p>(전략) 예물로는 백세저포·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잡채 화석 각 10장, 인삼 50근, 잣 1백 근, 잡색말 4필이었다. 문귀(文貴)가 문어 2백 40마리, 전복 2백 근, 붉은 새우젓[紫蝦鮓] 10항아리[壘], 곤포(昆布) 5백 근, 조해채(早海菜) 2백 근, 김[海衣] 1백 50근, 해채(海菜) 3백 근을 함께 가지고 갔다. 귀와 익정 등에게 옷·갓[笠]·신을 하사하였다.</p>	<p>(전략) 禮物：白細苧布·黑細麻布各二十四，滿花席雜彩花席各一十張，人蔘五十觔，松子一百觔，雜色馬四匹。文貴并齋文魚二百四十首、鰻魚二百觔、紫蝦鮓一十壘、昆布五百觔、早</p>

<p>리고 사은 표전을 배 송하다</p>		<p>海菜二百觔、海衣一百五十觔、海菜三百觔以行，賜貴、益精等衣笠靴。</p>
<p>世宗 48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5月 16日 (乙卯) 2번째기사 사헌부에 명하여 술을 금하게 하다</p>	<p>사헌부에 명하여 술을 금하게 하되, 그 먹은 것이 취하기에 이르지 아니한 자와 약으로 먹는 자라도 모두 태형(笞刑) 40대 이하로 하고, 그 경중(輕重)을 가려서 죄를 다스리되 아주 가벼운 자는 논하지 말게 하였다.</p>	<p>命司憲府禁酒，其飲不至醉者、服藥者，竝以笞四十以下，分其輕重治罪，最輕者，勿論。</p>
<p>세종 48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5월 18일 (정사) 2번째기사 고기와 미역을 허성의 어머니에게 하사하다</p>	<p>고기[肉]와 미역[海菜]을 지신사 허성(許誠)의 어머니에게 하사하니, 병이 있기 때문이었다.</p>	<p>賜肉及海菜于知申事許誠母，以有疾也。</p>
<p>世宗 49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7月 30日 (戊辰) 1번째기사 종친들이 사신과 연회 할 때 술을 따라 권하 는 예절에 대해 의논 하다</p>	<p>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에게 이르기를, “종친(宗親)들이 사신과 연회할 때, 서로 술을 따라 권하는 예절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니, 판서 권진(權軫)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모든 종친이 효령(孝寧)·진평(晉平)·안평(安平) 세 대군(大君)에게는 읍례(揖禮)를 행하고 무릎 꿇고 바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서로 읍하고 마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찬성(贊成) 허조(許稠)는 아뢰기를, “모두 무릎 꿇고 마시게 하되, 오직 효령만은 서서 받아 마시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p>	<p>戊辰/受常參，視事。上謂左右曰：“宗親宴使臣時，自相行酒之禮何如？” 判書權軫對曰：“諸宗親於孝寧、晉平、安平三大君處，則行揖跪進，其餘相揖而飲可也。”贊成許稠曰：“皆跪而飲，唯孝寧，立而受飲可也。” 上曰：“更與左議政黃喜、右議政孟思誠共議。” 僉曰：“晉平大君瑀以下諸宗親，行酒使臣之後，竝於孝寧大君補，行揖跪進，孝寧立而受之，飲畢，又行揖禮，其餘宗親，則只行相揖。孝寧</p>

	<p>하였다. 임금이 다시 좌의정 황희(黃喜)·우의정 맹사성(孟思誠)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p> <p>“진평 대군(晉平大君) 이유(李瑑) 이하의 모든 종친이 사신에게 술을 따라 올린 뒤에 효령 대군 이보(李補)에게도 읍례를 행하고 무릎 꿇고 바치고, 효령은 서서 이를 받아 마시고 나면, 또 읍례를 행하고, 나머지 종친들은 다만 서로 읍례만을 행하게 하며, 효령이 술을 따라 권할 때에 모든 종친들도 또한 이와 같이 하며, 관반(館伴)은 효령 대군 이하 모든 종친에게 읍례만을 행하고 무릎 꿇지 않게 하고, 모든 종친들이 술을 따라 권하는 예절도 또한 같게 하소서. 좌차(座次)에 있어서는 효령(孝寧)·진평(晉平) 및 안평 대군(安平大君)은 동벽(東壁)으로 하고, 경녕군(敬寧君)·공녕군(恭寧君) 이하 모든 종친은 서벽(西壁)으로 하되, 효령 대군의 자리에 대하여 약간 아래로 내려서 하고, 오직 신의군(愼宜君)·순성군(順城君)은 동벽의 대군들 아래에 자리하되, 약간 뒤로 정하게 하소서.”</p> <p>하였다.</p>	<p>行酒時，諸宗親亦同。館伴則孝寧大君以下諸宗親處，行揖不跪，諸宗親行酒禮亦同。座次則孝寧、晉平及安平大君東壁，敬寧君、恭寧君以下諸宗親西壁，對孝寧大君座差下。唯愼宜君、順成君，座東壁大君之下，差後。”</p>
<p>세종 49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8월 1일 (기사) 3번째기사 김순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p>	<p>내관 김순(金淳)에게 명하여 별선을 가지고 가서 두 사신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p>	<p>命內官金淳，齎別膳分贈兩使臣。</p>
<p>世宗 49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8月 3日 (辛未) 3번째기사 허성에게 명하여 두</p>	<p>지신사 허성(許誠)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니, 창성(昌盛)이 진헌해야 할 물건의 숫자를 써서 보였는데, 해청(海靑) 등매[鷹] 50연, 표범[豹子] 30마리, 선구(驪狗)1590) 60마리, 어하(魚蝦) 등 해미(海味)·젓[鮓] 60항아리, 여석(礪石) 30덩이였다</p>	<p>命知申事許誠，問安于兩使臣，昌盛書示進獻物數，海靑等鷹五十連、豹子三十兒、驪狗六十隻、魚蝦海味鮓六十壘、礪石三十塊。</p>

<p>사신을 문안케 하다</p> <p>世宗 49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8月 6日 (甲戌) 4번째기사 예조에서 각도 산천 단묘 순심 별감이 보고한 조건에 의해서 마련하여 아뢰다</p>	<p>(전략) 1. 각 고을에서 변(邊)·두(豆)·보(篚)·궤(篚)·등(鐙)·형(銅)·준(尊)·뇌(罍)·조(俎)·점(坫)·작(爵)·비(篚) 등 제기(祭器)의 제도를 알지 못하여 제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봉상시(奉常寺)의 각색(各色) 제기를 각도로 나누어 보내어 이를 본떠 주조(鑄造)해 만들도록 하고, 또 제기를 간직해 두는 창고를 만들어 단지기[壇直]로 하여금 간수하게 하자는 윗조항은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되, 제기(祭器)의 주조(鑄造)는 우선 자기(磁器)로 구워서 만들도록 하소서.”(후략)</p>	<p>(전략) 一。 各官壇壝之制，長廣高低不一，又無垣墻，故人畜踏毀污穢，宜考古制，令各道築壇壝，竝造瘞坎，而繚以周垣，南作一門，常加扇閉。一。 神位版，或用松栗及雜木製造，長廣厚薄不同，或用紙榜，又以位版，藏之寺院，未便。宜於壇壝近北造一室，以藏位版，至祭時，安於壇上致祭。又年終內願狀，隨即沈水，宜懸於藏位版室，待翌年還願時沈之。已上二條，依所申施行。一。 各官未知邊豆、篚簋、鐙銅尊罍俎坫爵篚等，祭器之制，妄意造作，未得精潔，宜以奉常寺諸色祭器，分送各道，見樣鑄成。又造藏祭器庫，令壇直看守。右條，依所申施行，其鑄器，姑以(磁) [磁] 器燔造。” (후략)</p>
<p>世宗 49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8月 25日 (癸巳) 2번째기사 석전에서의 희생의 수효와 번육을 보내는 곳 등을 아뢰도록 명</p>	<p>임금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석전(釋奠)에 희생(犧牲)을 소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 반만 쓰기 때문에, 배위(配位)와 좌·우무(左右廡)에 조금씩 나누어서 쓰므로 풍결(豐潔)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번육(膳肉)을 삼전(三殿)에 바치고, 대언사·의정부·예조에도 보내므로, 나머지가 극히 적어서 문신과 생도들이 음복(飲福)할 때에 고루 얻어 먹지 못하니 역시 불가한 일이다. 석전이란 온 천하가 다 같이 지내는 제사이니 그 희생의 수효와 번육을 보내는 곳 등을 옛 문헌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명</p>	<p>上謂代言等曰：“釋奠犧牲，只用牛一及豕一半，故於配位左右廡，小小分奠，似不豐潔。且其膳肉，進于三殿及代言、司議、政府、禮曹，所餘甚少，文臣生徒飲福之時，不得均食，亦不可也。釋奠，通天下之祭也，其犧牲之數、致膳之處，稽古文以啓。”</p>

<p>하다</p>	<p>하라.” 하였다.</p>	
<p>세종 49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9월 16일 (갑인) 5번째기사 예조에서 문선왕 석전제에 쓰이는 희생의 수를 늘릴 것을 건의하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문선왕(文宣王) 석전제(釋奠祭)에 정배(正配) 5위(位)와 종향(從享) 10위, 동·서무(西廡)에 종사(宗祀)한 1백 8위에 희생(犧牲)을 소[牛] 한 마리와 돼지[豕] 한 마리를 가지고 모두 같이 쓰기 때문에 나누어 드리기에 매우 넉넉지 못하옵니다. 비읍건대, 주문공(朱文公)의 석전제의(釋奠祭儀)에 양(羊)·돼지 각각 5마리를 쓴다는 예에 의하여, 소 한마리는 그대로 쓰되 양 5마리의 수효에 대신하게 하고, 돼지는 5마리를 쓰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 “文宣王釋奠祭, 正配五位, 從享十位, 東·西廡從祀一百八位, 犧牲共用牛一豕一, 分獻不周。 乞依朱文公 釋奠祭儀, 羊豕各五之例, 牛一仍舊, 以代羊五之數, 豕用五。” 從之。</p>
<p>세종 50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10월 4일 (신미) 4번째기사 정초가 식거의 음악과 출입악에 대해 아뢰다</p>	<p>총제(摠制) 정초(鄭招)가 상언(上言)하기를, “《주례(周禮)》 대사악(大師樂)에, ‘왕이 큰 식사[大食]를 할 때에 음식을 권하는 절차[侑食]가 세 번 있는데, 모두 종(鍾)과 북[鼓]을 연주하게 한다.’ 하였고, 주(註)에, ‘왕이 하루에 음식을 드는 큰 그릇[鼎]이 열두 가지인데, 음악으로 음식을 권[侑食]하며, 식사를 마치[卒食]면 음악으로 상을 물린[徹]다.’ 하였습니다. 한 무제(漢武帝) 때에 백관이 정월 하례를 올리는데, 이천석(二千石)1604 이상이 전(殿)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며 어전(御前)에서 술잔[觴]을 들고, 사공(司空)은 국그릇[羹]을 받들고, 대사농(大司農)은 수라를 받들고 식거지악(食舉之樂)을 연주하였으며, 후한 명제(後漢明帝) 때에 교묘(郊廟)와 상릉(上陵)의 모든 제사에 대여악(大予樂)을 연주하고 식거(食舉)를 실시하였으며, 그 뒤에 장제(章帝)는 직접 가시(歌詩) 네 장(章)을 지어서 식거(食舉)의 악장(樂章)으로 쓰게 하고, 또 운대십이문(雲臺十二門)의 시를 지어 각기 그 달에 지내는 제사에서 연주하게 하였으며, 장제(章帝) 건초(建初) 5년에 처음으로 십이월 양기악(十二月仰氣樂)을 실시하였는데, 입춘(立春) 날에</p>	<p>摠制鄭招上言: 《周禮》《大師樂》, 王大食三侑, 皆令奏鍾鼓。 註: “王日舉鼎十有二物, 以樂侑食, 卒食, 以樂徹。” 漢武帝百官賀正月, 二千石以上, 上殿稱萬歲, 舉(觴) [觴] 御前。 司空奉羹, 大司農奉飯, 奏《食舉之樂》。 後漢明帝《大予樂》郊廟上陵, 諸食舉之。 其後章帝親著歌詩四章, 列在《食舉》, 又制雲臺十二門詩, 各以其月祀而奏之。 章帝建初五年, 始行十二月仰氣樂。 立春之日, 迎春于東郊, 歌《春陽 [青陽]》; 立夏之日, 迎夏于南郊, 歌《朱明》; 先立秋十八日, 迎黃</p>

동교(東郊)에서 봄의 신을 맞이하며 청양(靑陽)을 노래하고, 입하(立夏) 날에 남교(南郊)에서 여름의 신을 맞이하며 주명(朱明)을 노래하고, 입추(立秋)보다 18일 앞서서 황령(黃靈)을 중조(中兆)에서 맞이하며 주명(朱明)을 노래하고, 입추(立秋) 날에는 가을의 신을 서교(西郊)에서 맞이하여 서호(西皓)를 노래하고, 입동(立冬) 날에는 겨울의 신을 북교(北郊)에서 맞이하며 현명(玄冥)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때에 마방(馬防)이 상언하기를, ‘성인이 음악을 연주한 까닭은 기운이 퍼지고 화기가 돌며 음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것이오니, 신은 생각하건대, 연초(年初)에 태주(太簇)의 율(律)을 발표하며 아(雅)와 송(頌)의 음악을 연주하여 화기를 맞아들이게 하옵소서.’ 하였으며, 순제(順帝) 양가(陽嘉) 2년 10월 경오에 벽옹(辟雍)에서 예를 행하고 응중(應鍾)을 연주하여 비로소 황중(黃鍾)의 악기를 복구시켰고, 각각 해당하는 달의 음률[月律]에 따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진 무제(晉武帝)의 함녕원회의(咸寧元會儀)에, ‘대관령(大官令)이 국그릇을 들고, 사도(司徒)가 밥그릇을 들고, 상서(尙書)가 상[案]을 들어 모두 지절(持節)에게 주면, 지절은 꿇어앉아 임금의 자리 앞에 나아가 바치며, 여러 신하들이 좌석에 앉으면, 태악령(太樂令)이 꿇어앉아서 식거(食舉)의 음악을 연주한다.’ 하였습니다. 양 무제(梁武帝) 때에 수주(壽酒)를 올릴 때에는 개아(介雅)를 연주하며 식거(食舉)에는 수아(需雅)를 연주하였습니다. 진 선제(陳宣帝) 때에는 삼조(三朝)의 음악을 정하는데 모두 양(梁)의 고사(故事)를 채택하여 상화오인(相和五引)을 연주하고, 각각 달에 따라서 황제가 술을 들 때에는 유소(綏韶)를 연주하며, 찬을 들 때에는 유소(侑韶)를 연주하였습니다. 후주 무제(後周武帝) 때에는 큰 연회[大會]에서의 식거(食舉)는 심하(深夏)를 연주하였습니다. 수 문제(隋文帝) 때에 우홍(牛弘) 등이 건의하기를, ‘옛적에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오인(五引)이 있었는데, 양(梁)에서는 삼조(三朝)와 원회(元會)에서 이를 연주하다가, 지금은 오음(五音)으로 고쳤는데, 그 음성이 모두 궁(宮)과 상(商)에 의거하여 그다지 다르지 아

靈于中兆，歌《朱明》；立秋之日，迎秋于西郊，歌《西皓》；立冬之日，迎冬于北郊，歌《玄冥》。馬防上言：“聖人作樂，所以宣氣、致加，順陰陽也。”臣愚以謂可因歲首，發大簇之律，奏雅頌之音，以迎和氣。順帝陽嘉二年十月庚午，行禮辟雍，奏應鍾，始復黃鍾樂器，隨月〔用〕律。晉武帝咸寧元會儀，大官令持羹，司徒持飯，尙書持案，竝授持節，持節跪進御座前，群臣就席，大樂令，跪奏《食舉》。梁武帝時，上壽酒奏《介雅》，食舉奏《需雅》。陳宣帝時，定三朝之樂，採梁故事，奏《相和五引》，各隨王月。帝舉酒奏《綏韶》，進膳奏《侑韶》。後周武帝時，大會食舉，奏《深夏》。隋文帝時，牛弘等議曰：“古者宮商角徵羽五引，梁以三朝元會奏之，今改爲五音，其聲悉依宮商，不使差越，惟迎氣於五郊，降神奏之。《月令》所謂孟春其音角是也。”又曰：“古者人君食，皆用當月之調，以取詩律之聲，使不失五常之性，調暢四體，令得時氣之和，故東漢太子丞鮑業上言：‘天子食飲，必順四時。爲《食

니하며, 다만 오교(五郊)에서 새 기운을 맞아들이는 제사를 지낼 때에 강신(降神)하는 데만 이를 연주하고 있으니, 월령(月令)에 봄의 첫달에는 그 음악이 각(角)이라고 한 것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는 임금이 식사할 적에 모두 그 달의 음악을 연주하여, 시율(詩律)의 소리를 채택하여 오상(五常)의 본성(本性)을 잃지 아니하며, 몸[四體]을 조화 창달하여 시기(時氣)의 화합을 얻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한(東漢)의 태자승(太子丞) 포업(鮑業)은 건의하기를, ‘천자가 음식을 들 때에는 반드시 사시(四時)에 따라서 식거(食舉)의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 그 까닭은 천지의 이치를 따르고神明(神明)을 기르며, 12달[月]의 음운(音韻)에 의하여 천지의 화기를 감동시키는 것이니, 이는 곧 전정월조(殿庭月調)의 뜻입니다. 제사에서 이미 음악을 구별하여 기운을 맞아들이고 있는즉, 궁중에서 조회(朝會)를 행하는 데에도 아울러 그 달의 음악을 사용하여, 정월에는 태주(太簇)의 음운을 연주하며 12월에는 대려(大呂)의 음운을 사용할 것이니, 이것은 임금의 성정(性情)을 감화시켜 음양의 차서와 들어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으며, 당(唐)의 조효손(祖孝孫)의 십이화(十二和)에, ‘아홉째는 소화(昭和)이니 황제와 황태자가 술을 드실 때에 사용하며, 열째는 휴화(休和)이니 황제가 수라를 들거나 황태자가 식사를 들 때에 사용하되, 모두 그 달의 운율(韻律)을 사용한다.’ 하였고, 개원례회의(開元禮會儀)에는 ‘황제가 술이나 수라를 들 때에 휴화지악(休和之樂)을 연주한다.’ 하였으며, 송(宋)의 원풍회의(元豐會儀)에, ‘황제가 첫번째로 술잔을 들면 화안지악(和安之樂)을 연주한다.’ 하였습니다. 신(臣) 정초(鄭招)가 조사하온즉, 식거(食舉)의 음악은 《주례(周禮)》에 벌써 기재되어 있사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12개월에 따르는 음률을 사용한다 함은 《한서(漢書)》에 처음으로 나타났고, 당대(唐代)의 제도에서 완전하게 정해졌으며, 역대 왕조에서 모두 이것에 의거하여 오교(五郊)에서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였사오니, 이것은 《예기(禮記)》의 월령(月令)에 의거한 것입니다. 후한(後漢)에

舉樂》, 所以順天地、養神明, 可依十二月均感天地和氣.’ 此則殿庭月調之義也。 祭祀既已分樂迎氣, 臨軒朝會, 竝用當月之律。 正月懸大蕤之均, 及十二月, 懸大呂之均, 欲感人君性情, 允協陰陽之序也。 唐祖孝孫十二和, 九曰《昭和》, 皇帝、皇太子以舉酒。 十曰《休和》, 皇帝以飯, 皇太子亦以飯, 皆以其月之律均。 《開元禮》會儀, 皇帝舉酒及飯, 《休和之樂》作。 宋元豐會儀, 皇帝舉第一爵, 作《和安之樂》。 臣招謹按《食舉之樂》, 載於《周禮》, 其來遠矣。 以十二月之律均, 則始見於《漢書》, 而定於唐制, 歷代又以此迎氣五郊, 蓋本於《禮記》《月令》焉。 如後漢《大予樂》, 用於郊廟諸陵者, 薦食也; 用於五郊者, 迎氣也; 行禮(璧) [辟] 雍者, 養老也。 唐《開元禮》會儀, 《休安之樂》, 用於舉酒及飯, 祖孝孫之所定也。 宋元會儀, 皇帝舉酒, 其樂《和安》, 卽唐《休安》之改名也。 宋名樂以安, 改唐之和, 示不相襲, 其實一也。 唯陳採梁故事, 以《相和五引》, 定爲三朝之樂, 然而後世無述焉。 牛

서 대여악(大予樂)을 교묘(郊廟)와 여러 능(陵)에서 사용한 것은 음식을 올리는 것이요, 오교(五郊)에서 사용한 것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한 것이요, 벽옹(璧雍)에서 예를 거행하는 것은 노인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당(唐)의 개원례회의(開元禮會儀)에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술과 수라를 들 때에 사용하게 한 것은, 조효손(祖孝孫)이 제정한 것이며, 송(宋)의 원회의(元會儀)에, ‘황제가 술을 들 때에 화안(和安)을 연주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곧 당(唐)의 휴안(休安)의 명칭을 고친 것입니다. 송에서 음악의 명칭을 안(安)으로 하면서 당(唐)에서 쓰던 화(和)만을 고친 것은 구태여 그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뿐이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진(陳)에서는 양(梁)의 고사(故事)에 따라, 상화오인(相和五引)으로 삼조(三朝)의 음악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에 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홍(牛弘)이 말한, ‘오인(五引)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때에 쓰고 식거(食舉)에서 조화하여 사용한다.’ 함은 포업(鮑業)의 말과 같으며, 다만, ‘궁전에서 조회할 때에 아울러 그 달의 음률을 사용한다.’ 함이 위에서 든 글의 내용과 같지 아니한데, 이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수(隋)의 왕조에서는 다만 황종(黃鍾) 한 가지의 음률만을 사용하며, 12율 가운데서 오종(五鍾)은 아종(啞鍾)이라 하고, 각 달에 따라서 율을 사용하여, 돌아가며 서로 궁(宮)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우홍(牛弘)의 무리가 어찌 미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신은 연구가 아직 정밀하지 못하오니 성상께서 재량하시와 상정소(詳定所)에 명을 내리시옵소서.”

하였다. 정초는 또 아뢰기를,
“출입악(出入樂)에 있어 《주례(周禮)》의 악사교악의(樂師教樂儀)에, ‘거닐[行] 때에는 사하(肆夏)를 연주하고 총총걸음[趨]일 때는 채제(采薺)를 연주한다.’ 하고, 주(註)에 당상(堂上)에서 걷는 것을 「거닌다」 하며, 문 밖에서 걷는 것을 「총총 걸음[趨]」이라. ’고 하였습니다. 예(禮)에 이르기를, ‘수레에 오를 때에 난화(鑾和)의 소리가 있으며, 걸어 다닐 때에는 환패(環佩)의 소

弘所論五引，用於迎氣，月調用於食舉者，合於鮑業之論，獨臨軒朝會，竝用當月之律之云，與上文所言不倫，果何謂歟？隋代唯用黃鍾一均，十二律內五鍾，謂之啞鍾，隨月用律，旋相爲宮，豈牛弘等所及也！臣愚考之未精，伏望睿裁。

命下詳定所。 招又云：
出入樂，《周禮》《樂師》：“教樂儀，行以《肆夏》，趨以《采薺》。” 註：“堂上謂之行，門外謂之趨。” 禮曰：“升車有鸞和之聲，行步有環佩之聲。天子左五鍾，右五鍾。出撞黃鍾，右五鍾皆應；入撞蕤賓，左五鍾皆應。” 由是觀之，黃鍾，所以奏《肆夏》也；蕤賓，所以奏《采薺》也。 呂叔玉曰：“《肆夏》，《時邁》也。” 《大司樂》：“王出入則令奏《王夏》，尸出入則令奏《肆夏》。” 陳氏曰：“王於大饗大射出入奏《王夏》，非此則行以《肆夏》而已。” 鍾師：“凡樂事，以鍾鼓奏九夏，《王夏》、《肆夏》、《韶夏[昭夏]》、《納夏》、《章夏》、《齊夏》、《族夏》、《祓夏》、《驚夏》。” 陳氏曰：“《肆

리가 있다. 천자(天子)는 왼쪽에 오중(五鍾)이 있으면 오른 쪽에도 오중(五鍾)이 있다. 밖으로 나갈 때에 황중(黃鍾)을 치면 오른쪽의 오중(五鍾)이 모두 응하며, 들어올 때에 유빈(蕤賓)을 치면 왼쪽의 오중(五鍾)이 모두 응한다.’ 하였습니 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황중(黃鍾)은 사하(肆夏)를 연주하는 것이며, 유빈(蕤賓)은 채제(采薺)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여숙옥(呂叔玉)은, ‘사하(肆夏)는 시매(時邁)다.’ 하였고, 대사악(大司樂)에, ‘왕이 출입할 때에는 왕하(王夏)를 연주하게 하며, 시(尸)가 출입할 때는 사하(肆夏)를 연주한다.’ 하였고, 진씨(陳氏)는, ‘왕이 대향례(大饗禮)와 대사례(大射禮)에서 출입할 때에는 왕하(王夏)를 연주하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출행할 때에 사하(肆夏)만을 연주할 뿐이다.’ 하였고, 종사(鍾師)에, ‘모든 음악의 행사는 종고(鍾鼓)로서, 구하(九夏)·왕하(王夏)·사하(肆夏)·소하(韶夏)·납하(納夏)·장하(章夏)·제하(齊夏)·족하(族夏)·계하(械夏)·오하(鵠夏)를 연주한다.’ 한 데에 대하여, 진씨(陳氏)는, ‘사하(肆夏)는 천자(天子)가 제사지내는 데에 사용할 때에는 시(尸)를 맞이하고 전송하며, 자신에게 사용할 때에는 걸어나거나 수레에 오를 때에 패옥(佩玉)을 사용할 뿐이다.’ 하였는데, 한 고제(漢高帝) 때에 숙손통(叔孫通)이 주악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종묘(宗廟)의 음악을 제정하여서, 황제가 종묘(宗廟)의 문을 들어갈 때에 건안지악(乾安之樂)을 연주하여 걸어가는 음절에 맞추었으니, 이것은 옛적의 채제(采薺)·사하(肆夏)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후한(後漢)의 반고(班固)의 동도부(東都賦)에, ‘정월 초하루에 서울에서 조회를 베푼다. 이날에는 모든 음악이 갖추어지고 모든 음식이 장만된다. 황제는 기뻐 흐뭇해 하시고 여러 신하는 술에 취한다. 화한 기운[烟燼]이 내리고 원기(元氣)가 조화된다. 그리고 나면 종(鍾)을 두들기어 연회가 끝남을 알리고, 모든 관료들은 마침내 물러간다.’ 하였고, 그 주(註)에, ‘천자가 들어오려 할 때에는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들긴다.’ 하였으며, 양 무제(梁武帝)의 십이아(十二雅)에, ‘황제가 출입할 때는 황아(皇雅)를 연주하며, 황태자(皇太子)가 출입할 때에는

夏》, 天子用之於祭, 則送迎尸; 施於身, 則行步; 登車, 佩玉而已。” 漢高帝時, 叔孫通因奏樂人, 制宗廟樂, 皇帝入廟門, 奏《乾安》以爲行步之節, 猶古《采薺》、《肆夏》也。 後漢班固《東都賦》: “春王三朝, 會同漢京。 是日也, 萬樂備、百供暨, 皇權洽、群臣醉, 降烟燼、調元氣, 然後撞鍾告罷, 百僚遂退。” 註: “天子將入, 撞蕤賓之鍾。” 梁武帝十二雅, 皇帝出入奏《皇雅》, 皇太子出入奏《胤雅》, 王公出入奏《寅雅》。 陳宣帝大建元年, 定三朝之樂。 帝出入奏《穆昭》, 賓客入奏《相和五引》。 後周武帝時朝會, 皇帝出入奏《皇夏》, 皇太子出入奏《肆夏》, 王公出入奏《鵠夏》。 唐太宗時, 祖孝孫始爲徙宮之法, 造十二和, 以法天之成數, 號大唐雅樂。 七曰《太和》, 以爲行節, 以黃鍾爲宮。 凡祭祀, 天子入門而卽位, 與其升降至于還次, 行則作, 止則止。 其在朝廷, 天子將自內出, 撞黃鍾之鍾, 右五鍾應乃奏之; 禮畢興而入, 撞蕤賓之鍾, 左五鍾應乃奏。 八曰《館和》, 以出入二舞及皇

윤아(胤雅)를 연주하며, 왕공(王公)이 출입할 때에는 인아(寅雅)를 연주한다.’ 하였고, 진선제(陳宣帝) 대건(大建) 원년(元年)에 삼조(三朝)의 음악을 제정했는데, ‘황제가 출입할 때에는 목소(穆昭)를 연주하고, 빈객(賓客)이 들어올 때에는 상화오인(相和五引)을 연주한다.’ 하였고, 후주(後周)의 무제(武帝) 때에, ‘조회에서 황제가 출입할 때에는 황하(皇夏)를 연주하며, 황태자(皇太子)가 출입할 때에는 사하(肆夏)를 연주하며, 왕공(王公)이 출입할 때에는 오하(鵞夏)를 연주한다.’ 하였고, 당 태종(唐太宗) 때에 조효손(祖孝孫)이 처음으로 사궁법(徙宮法)을 만들고 십이화(十二和)를 제작하여, 천도(天道)의 성수(成數)를 법으로 삼고 명칭을 대당아악(大唐雅樂)이라 하였는데, 그 중에 일곱째가 태화(太和)인데, 이것은 거닐 때의 음절을 맞추는 것으로 황종(黃鍾)을 가지고 궁(宮)을 삼은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지낼 때라든가, 천자가 문에 들어와서 임금의 자리에 나앉는다든가, 또는 오르고 내리며,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이르기까지 거닐 때에 연주하고 머물 때에는 중지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천자가 안에서 나오려 할 때에 황종(黃鍾)의 종을 두들기면 오른쪽에 있는 오종(五鍾)이 이에 응하여 연주하고, 예를 마치고 일어나서 들어갈 때에는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들기면 왼쪽에 있는 오종(五鍾)이 이에 응하여 연주하였습니다. 여덟째가 관화(館和)로서 출입(出入)할 때 추는 이무(二舞)인데, 황태자와 여러 공(公), 국가의 원로(元老) 또는 황후의 시녀[妾御], 황태자 궁의 신하가 출입할 때에 이것을 연주하니, 모두 태주(太簇)의 상(商)을 사용하며, 만일 어가(御駕)가 외출할 때라면 황종(黃鍾)을 두드리고 태화(太和)를 연주하며, 태극문(太極門)을 나서면 채제(采薺)를 연주하여 가덕문(嘉德門)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중지하였고, 돌아 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였습니다. 개원례(開元禮)의 정지조하의(正至朝賀儀)에, ‘황제가 나가려 할 때에는, 태악령(太樂令)이 황종(黃鍾)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오종(五鍾)이 모두 이에 호응하며, 협률랑(協律郎)이 휘(麾)를 들어 태화(太和)의 음악을 연주하며,

太子、群公、國老、若皇后之妾御、皇太子宮臣出入門則奏之，皆以大簇之商。若駕出則撞黃鍾奏《太和》，出太極門而奏《采薺》，至于嘉德門而止，其還也亦然。《開元禮》正至朝賀儀，皇帝將出，大樂令，令撞黃鍾之鍾，右五鍾皆應，協律郎舉麾，奏《太和之樂》。王公出入奏《館和》。及禮畢，皇帝與大樂令，撞蕤賓之鍾，左五鍾皆應，奏《太和之樂》。宋元豐元正、冬至大朝會儀，侍中奏外辦，殿上鳴蹕，大樂令，令撞黃鍾之鍾，右五鍾皆應。皇帝出西閣，協律郎舉麾，奏《乾安之樂》，百官出入，奏《正安》。禮畢，殿下鳴蹕，大樂令，令撞蕤賓之鍾，左五鍾皆應。協律郎舉麾，奏《乾安之樂》，《皇明抄白》，聖節、冬至、正朝禮，上陞座樂止，自餘無用樂節次。前朝《詳定古今禮》，聖上出入有樂，自餘無用樂。臣招謹按，朝賀之樂，唯奏出入行步之節，歷代用律，未聞當月之調。然而禮樂制度，廣大精微，臣愚不會樂音，區區微見，豈能萬一？伏惟睿裁。命下詳定所。

	<p>왕공(王公)이 출입할 때에는 관화(館和)를 연주하고, 예(禮)가 끝날 때에는, 황제가 태악령(太樂令)에게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왼쪽의 오종(五鍾)이 모두 이에 호응하며 태화(太和)의 음악을 연주한다.’ 하였으며, 송(宋)의 원풍(元豐) 연간의 원정 동지 대조회의(元正冬至大朝會儀)에는, ‘시중(侍中)이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상(殿上)에서는 필(蹕)을 울리고, 태악령(太樂令)이 황종(黃鍾)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오종(五鍾)이 모두 이에 응한다. 황제가 서각(西閣)에 나갈 때에는, 협률랑(協律郎)이 휘(麾)를 들어 건안지악(乾安之樂)을 연주하며, 백관(百官)이 출입할 때에는 정안지악(正安之樂)을 연주하고, 예가 끝날 때에는 전(殿) 아래에서 필(蹕)을 울리고, 태악령(太樂令)이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왼쪽에 있는 오종(五鍾)이 모두 이에 응한다. 협률랑(協律郎)이 휘(麾)를 들면 건안지악(乾安之樂)을 연주한다.’ 하였으며, 황명초백(皇明抄白)에는, ‘성절(聖節)·동지(冬至)·정조(正祖)의 예(禮)에, 임금이 자리에 오르면 음악을 중지하며, 그 밖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절차가 없다.’ 하였고, 전조(前朝)1605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는, ‘임금이 출입할 때에만 음악이 있고, 그 밖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예가 없다.’ 하였습니다. 신(臣) 정초(鄭招)가 삼가 조사한 바로는, 조하지악(朝賀之樂)은 다만 출입하며 걸어다니는 음절에 맞추어 연주할 뿐이며, 역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 그 달에 맞추어 연주하는[當月之調]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악(禮樂)의 제도는 광대 정미(廣大精微)한 것이운데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서 어찌 그 만분의 일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결재를 내리시와 상정소(詳定所)에 회부하시옵소서.” 하였다.</p>	
<p>世宗 50卷, 12年</p>	<p>궁중에서 사용하는 법주(法酒)에 노루 뼈를 넣는데, 상호군 김척(金陟)과 대</p>	<p>內法酒用獐骨。 上護軍金陟、大護軍</p>

<p>(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11월 12日(己酉) 3번째기사 법주에 노루 뼈를 넣지 말 것을 명하다</p>	<p>호군 마변자(馬邊者)가 그 때문에 풍양(豐壤)에서 사냥을 하는데 사복시의 제원(諸員)인 엄용(嚴龍)이 멧돼지에게 살해되었다. 명령을 내리어 의금부에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고, “지금부터는 노루 뼈를 넣어서 담은 술은 만들지 말라.” 하고, 엄용에게는 쌀과 콩 아울러 5석, 종이 50권을 내렸다.</p>	<p>馬邊者，以獵于豐壤，司僕諸員嚴龍爲豬所害死，命囚義禁府，尋釋之。仍命自今勿釀獐骨酒，賜嚴龍米豆并五石、紙五十卷。</p>
<p>세종 50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11월 12일(기유) 6번째기사 예조에서 무반의 배제를 허락치 말 것을 건의하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교지(教旨)를 받자온즉, ‘서반(西班)에서 호군(護軍) 이상은 독제(蠶祭)를 지낼 때에 재계(齋戒)를 드리지도 않고 배제(陪祭)도 드리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하니, 옛 제도를 조사하여 들이라.’ 하셨습니다.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자세히 보면, ‘모든 지방의 수어관(守禦官)은 모두 관청 청사 뒤에 대를 쌓고 기독묘(旗蠶廟)를 세우고 군아(軍牙)와 여섯 독신(蠶神)의 신위(神位)를 설치하여 놓고 봄철의 제사는 경칩(驚蟄)날에 지내고, 가을철의 제사는 상강(霜降)날에 지내며, 제물은 양 1마리, 돼지 1마리, 백(帛) 1필인데 흰 빛을 사용하며, 축문 1장, 향·촛불·술·과일이다. 제사가 있기에 앞서 모든 관리는 하루 동안 재계를 드리고, 제사지내는 날이 되면 수어 장관(守禦長官)은 무관복(武官服) 차림으로 삼헌(三獻)의 예를 집행한다. 만일 군대를 출동할 때에는 기독(旗蠶)을 내어 놓고 제사를 지내며, 군대가 돌아왔을 때에는 그대로 묘(廟) 안에 들여 둔다. 의주(儀注)는 사직(社稷)에서와 같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제사지내는 의식에는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이외에 배제관(陪祭官)이란 것이 따로 없사오니, 《홍무예제》에 의하여 헌관과 여러 집사자 이외에 다른 무반(武班)은 배제(陪祭)를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今承教旨：西班護軍以上於蠶祭，無齋戒陪祭，未便。其齋戒及陪祭有無，考古制以聞。 謹按《洪武禮制》，凡各處守禦官，俱於公廨後築臺，立旗蠶廟，設軍牙六蠶神位，春祭用驚蟄日，秋祭用霜降日，祭物用羊、一豕、一帛一白色、祝一、香燭酒果。先期，各官齋戒一日，至日，守禦長官，武服行三獻禮。若出師，則取旗蠶以祭，班師則仍置于廟。儀注與社稷同。本朝諸祀儀式內，獻官諸執事外，無陪祭官，請依《洪武禮制》，獻官諸執事外，武班不許陪祭。”從之。</p>
<p>世宗 50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p>	<p>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빈객(賓客) 윤회(尹淮)가 서연(書筵)에 나아가서 강의를 맡아야 되는데 술에</p>	<p>司憲府啓：“賓客尹淮當進講書筵，縱酒未參，殊無敬謹之意，請治其罪。”</p>

<p>(宣德) 5年) 12月 22日(戊子)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윤희의 치죄를 아뢰었으나 허락치 않다</p>	<p>취하여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도무지 공경하며 삼가하는 뜻이 없습니다. 청하건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인하여 회에게 이르기를, “경이 술을 마시어 도를 지나치는 일이 한 차례가 아니었고, 내가 경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신이 임금의 명령에 대하여는 물이나 불 속을 들어가라 하여도 오히려 피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그 밖의 일이겠는가. 자기의 주량(酒量)을 생각하여 한두 잔쯤 마시든지, 반잔쯤만 마신다면 그렇게 정신이 없고 체면을 잃게까지야 되겠는가. 이제부터는 부디 지나치게 마시지 말라. 따르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다.” 하고, 들어와서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윤희가 술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의 재주를 아껴서 과음하지 말라고 경계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과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술을 조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조금도 고치는 빛이 없었고, 지금 또 취해 가지고 서연(書筵)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세자(世子)를 보도(輔導)하는 도리에 있어 어땡겠는가. 임금의 명령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노력하여 따라야 될 터인데, 더구나, 술을 삼가라는 명령을 따르기가 무엇이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도리를 알 만한 선비도 이러하니 무식한 소인의 무리야 말할 것도 없다.” 하였다.</p>	<p>不允，仍謂淮曰：“卿之飲酒失度者非一次，予之禁卿崇飲，亦非一再矣。臣之於君，雖命入水火中，尚且不避，況其他乎？量己之量，或飲一二盃，或飲半盃，則何至於迷亂失性，以喪威儀乎？自今慎勿過飲，不從則當罪之。” 入謂金宗瑞曰：“尹淮好飲，予愛其才，嘗禁其過飲，未幾如前，更命謹酒，略無悛心，今又因醉不進書筵，其於輔養儲副之義何如？君父之命，雖險艱，亦當曲從，況謹酒之命，從之何難？識理儒者尚然，無知儉少之輩，不足言也。”</p>
<p>세종 50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윤12월 16일(임자) 3번째기사 이조에서 동궁 내관의 관제 칭호 품질에 대</p>	<p>이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동궁(東宮) 내관(內官)의 관제(官制)·칭호·품질(品秩)에 대하여 옛 제도를 참고하여, 내관(內官)은 양계(良娣) 정2품, 양원(良媛) 정3품, 승휘(承徽) 정4품, 소훈(昭訓) 정5품이요, 궁관(宮官)은 사규(司閨) 한 사람, 빈(嬪)을 인도하는 일을 맡고, 장정(掌正)과 장서(掌書)를 총괄한다. 사칙(司則)한 사람, 예의(禮義)와 참견(參見)하는 사무를 맡고, 장봉(掌縫)·장장(掌藏)을 총괄한다.</p>	<p>吏曹啓：“今以東宮內官制稱號品秩，參考古制，內官，良娣正二品、良媛正三品、承徽正四品、昭訓正五品。宮官，司閨一人，掌導引嬪，總掌正、掌書；司則一人，掌禮儀參見，總掌縫，掌藏；司饌一人，掌進食先嘗，總掌</p>

<p>하여 옛 제도를 참고하여 아뢰다</p>	<p>사찬(司饌)한 사람, 식사를 올리며 먼저 맛 보는 것을 맡으며, 장식(掌食)·장 의(掌醫)를 총괄한다. 모두 종6품이다. 장정(掌正)한 사람, 문서의 출납과 자 물쇠와 규찰(糾察)과 벌을 주는 일을 맡는다. 장서(掌書)한 사람, 경적(經籍)과 교학(敎學)을 전하는 일을 맡는다. 장봉(掌縫)한 사람, 재봉과 길쌈을 맡는 다. 장장(掌藏)한 사람, 재산과 피륙을 맡는다. 장식(掌食)한 사람, 음식·술·단 술·등불·촛불·멜나무·숯·그릇을 맡는다. 장의(掌醫)한 사람, 처방한 약을 맡는 다. 이상은 모두 종8품으로 정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食、掌醫，竝從六品。 掌正一人，掌 文書出入、管籥、糾察、推罰。 掌書 一人，掌經籍、宣傳、敎學。 掌縫一 人，掌(栽) [裁] 紉、織績。 掌藏一 人，掌財貨、縑綵。 掌食一人，掌膳 羞、酒醴、燈燭、薪炭、器皿。 掌醫 一人，掌方藥，竝從八品。” 從之。</p>
<p>世宗 50卷, 12년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閏12月 23日(己未) 6번째기사 승정원에 전지하여 형 제의 아내와 서로 대 면하는 예에 대해 묻 다</p>	<p>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세자와 세 대군(大君)이 이제 헌수(獻壽)하려 하는데, 옛적 예법에 형제의 아내를 서로 대면하지 않는 법이다. 지금 세자와 대군과 죽성군(竹城君) 안맹담(安孟聃)과 순빈(純嬪)과 옹주(翁主) 세 사람이 동서에 마주 앉으면 곧 서로 보게 될 것이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가. 내가 태종(太宗) 때에는 서로 보았지만, 이것은 부모의 앞에서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나라의 일반 풍속 이 어떠한가.” 하니, 대언(代言)들이 아뢰기를, “일반 풍속으로는 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서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맹담(安孟聃)은 연회에서 모실 수 없으며, 만일 술잔을 올리려 하면, 곧 차례대로 들어가서 술잔을 드리고, 곧 되돌아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아침 조계(朝啓) 때에 정승과 함께 직접 의논하겠다.”</p>	<p>傳旨承政院： 世子及三大君，今欲獻壽。 古禮，兄 弟之妻，不得相見，今世子、大君、竹 城君安孟聃及純嬪、三翁主東西對座， 則必與之相見，處之如何？ 予在太宗時 相見，以在父母之前也。 我朝世俗如 何？ 代言等曰：“世俗有相見者， 有不相見 者， 安孟聃則不宜侍宴。 如欲進酒， 則隨次入獻， 還出可也。” 上曰：“明 日朝啓， 當與政丞親議之。”</p>
<p>세종 51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1월 19일</p>	<p>임금이 대언(代言)들에게 이르기를, “나도 강원도의 금년 실농(失農)은 알고 있다. 그러나 강무(講武)를 하지 않으면 군졸들의 기운을 기르고 향오(行伍)를 연습할 기회가 없다. 근래 사신이</p>	<p>上謂代言等曰：“予知江原道今歲失農， 然不講武， 則士卒無以養氣力、習行 伍。 近因使臣及年歉， 每廢兩等講武，</p>

<p>(갑신) 4번째기사 강무시 강원도에서 어육, 해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라 명하다</p>	<p>오고 흉년이 들고 해서, 매양 춘추 양등의 강무를 폐해 왔으나 이번만은 폐할 수 없다. 내 그 실농을 우려하여 일수(日數)를 줄이게 하였으니 응당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어육(魚肉)과 해물(海物)을 바치지 말도록 할 것이다.”</p> <p>하니, 대언들이 대답하기를, “대가(大駕)가 경내에 임하옵는데 감사가 어찌 〈안연하게〉 물러 있겠습니까.”</p> <p>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께서도 감사가 와서 알현하는 것을 금하신 바 있다. 그러나 항상 가까운 지경에 와서 문안하곤 하여, 폐단을 없애려는 본의에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금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엔 비록 와서 보더라도 신선한 해산물 등의 식물은 바치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p>	<p>今則不可廢也。予恐失農，使約日數，宜令其道監司，不得來進魚肉海錯。”</p> <p>代言等對曰：“大駕臨境，監司豈得退處？”上曰：“太宗禁監司來見，然常在近地問安，無益於除弊，故不禁。今雖來見，勿進新鮮之味。”</p>
<p>世宗 51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宣德) 6年) 2月 12日 (丁未) 3번째기사 양녕 대군 제에게 고기를 내려주다</p>	<p>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에게 고기를 내려 주었다.</p>	<p>賜肉于讓寧大君禔。</p>
<p>세종 51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2월 25일 (경신) 1번째기사 영전의 어염을 선군에게 주는 것에 관한 논의</p>	<p>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각도 영전(營田)에서 나는 어염(魚鹽)을 다 선군(船軍)들에게 주어 부방(赴防)하는 데 식량을 돕게 하는 것이 어떤가.”</p> <p>하니, 호조 판서 안순(安純)·우의정 맹사성(孟思誠) 등이 대답하기를, “영전(營田)의 어염이란 한갓 선군을 괴롭힐 뿐이요, 그 혜택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군들은 말하기를, ‘차라리 식량을 가지고 부방할 망정 영전의 일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군들이 처음 부방할 때 각자 식량을 넉넉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관에서 지급하는 요식(料食)을 혹</p>	<p>庚申/受常參，視事。上謂左右曰：“各道營田魚鹽所出，盡給船軍，以助赴防之糧若何？”戶曹判書安純、右議政孟思誠等對曰：“營田魚鹽，徒困船軍，利不及焉，故船軍等言：‘寧齎糧赴防，不願爲營田等事。’船軍等赴防之初，各自(贏)[贏]糧而至，故官給之料，或遺留營鎮撫，或以釀酒，誠無益</p>

	<p>은 병영(兵營)·진무(鎭撫)에 유치하거나, 혹은 술을 빚는 등 실상 선군에겐 전혀 무익한 일이오니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군의 노고란 막심한 것으로서 마땅히 애호와 보호를 가해야 할 것이니, 국고의 미곡으로 부족한 양을 보급해야 옳을 것이요, 그러나 부방하여 일이 없으면 모두 일 없이 노는 사람이 될 것이니, 이 일 없이 노는 사람들로 하여금 황폐한 전지를 경작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p> <p>하니, 맹사성이 아뢰기를, “선군이 꼭 밭을 경작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황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이유인가.”</p> <p>하니, 대답하기를, “근처에 사는 백성들만으로도 모두 개간 경작할 수 있습니다.”</p> <p>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다시 이를 생각해 보겠노라.”</p> <p>하였다.</p>	<p>於船軍，不如不爲之爲愈也。” 上曰：“船軍勞苦莫甚，宜加憐恤，以國庫之米，補給不足可矣。然赴防無事，則皆遊手，以遊手而耕荒田，無乃可乎？” 思誠曰：“船軍雖不耕田，必不荒矣。” 上曰：“何也？” 對曰：“近處之民，皆得耕墾矣。” 上曰：“予更思之。”</p>
<p>世宗 51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3月 10日 (甲戌) 3번째기사 의원 김자건이 상기생 50근을 바치다</p>	<p>의원(醫員) 김자건(金自堅)이 황해도 백령(白翎)·대청(大靑) 두 섬에서 나는 상기생(桑寄生) 50근을 채취하여 바쳤다. 본국에 예전에는 상기생이 없던 것을 순심 별감(巡審別監) 고전성(高全性)이 순찰 발견하여 비로소 이를 얻게 된 것이다.</p>	<p>醫員金自堅採黃海道白翎·大靑兩島所產桑寄生五十斤以進。本國舊無桑寄生，自巡審別監高全性始得之。</p>
<p>세종 51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3월 26일 (경인) 2번째기사</p>	<p>대언들이 아뢰기를, “일찍이 신들에게 지갈(止渴)시킬 약을 문의하라 명하셨사운데, 의원(醫員)은 말하기를, ‘마땅히 먼저 식물(食物)로 다스려야 할 것인데 흰 장닭[白雄雞]·누른 암꿩[黃雌雉]·양고기[羊肉] 등은 모두 능히 갈증(渴症)을 지식시킨다.’ 하</p>	<p>代言等啓：“曾命臣等，議問止渴之藥，醫曰：‘宜先食治。’ 白雄雞、黃雌雉、羊肉，皆能止渴，而非難繼之物也。雞兒則仁順、仁壽府、內贍、禮</p>

<p>지갈시킬 약으로 닭·꿩·앵을 강권하다</p>	<p>오며, 뒤를 잇기가 어려운 물건도 아닙니다. 닭은 인순부(仁順府)·인수부(仁壽府)와 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에서 날마다 돌려가며 바치게 하고, 꿩은 응패(鷹牌)로 하여금 날마다 사냥해 바치게 하고, 양은 5, 6일마다 한 마리를 바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자봉(自奉)을 이같이 후히 하겠는가. 닭은 이어댈 수 없고, 꿩은 바치는 자가 있지만, 양은 본국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니 더욱 먹을 수 없는 것이다.”</p> <p>하였다. 대언들이 또 아뢰기를, “양이 많이 번식하고 있사오며, 또 약용이오니 우선 한 마리씩 바치게 하여 치료에 시험하시기를 청하옵니다.”</p> <p>해도, 오히려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강권하니, 드디어 말하기를, “내 이를 시험하겠다. 그러나 다시 내 명령을 기다리라.”</p> <p>하였다.</p>	<p>賓寺輪日進之，雉則令鷹牌逐日獲進，羊則五六日進一口。”上曰：“何爲自奉如此？鷄兒不可繼也。雉則有進之者，羊則本國不產之物，尤不可食也。”代言等又啓：“羊多孳息，且是藥用也。請姑進一口，試其療治。”上猶不許，強之乃曰：“吾當試之，然更待予命。”</p>
<p>世宗 52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5月 17日 (庚辰) 2번째기사 임금이 한재를 근심하여 대궐 안에서 술의 사용을 금하다</p>	<p>임금이 한재를 근심하여 대궐 안에서 술의 사용을 금하였다.</p>	<p>上憂旱，禁闕內用酒。</p>
<p>세종 52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5월 22일</p>	<p>지신사 안송선(安崇善)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임금이 한재를 만나면 반드시 반찬을 감하나, 반찬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짓수만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조금 내렸으니 술을 드시기</p>	<p>知申事安崇善啓：“自古人君遇旱必減膳，然非盡除膳羞，只減其數而已。今雨澤稍足，請進酒。”上曰：“今日</p>

<p>(을유) 5번째기사 안승선이 술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희하지 않다</p>	<p>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은 비가 내렸지만, 내일 만약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올리지 말라.” 하였다. 승선이 또 아뢰기를, “오늘 비는 벌써 흠족하게 왔고, 또 계속 비 올 징조가 보입니다. 더욱 기후가 고르지 못하와 술을 잡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반찬을 전의 수(數)보다 줄여서 나누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희하지 아니하였다.</p>	<p>雖雨，明日不雨，則得無愧乎？其勿進。” 崇善又啓曰：“今日之雨既洽，且雨徵不絕，況氣候不調，酒不可不進！請減前數以進。” 不允。</p>
<p>세종 52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6월 8일 (경자) 3번째기사 종묘와 양전에 천신할 배·밤·대추·은행·능금류의 예법에 관해 논의하다</p>	<p>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종묘와 양전에 천신(薦新)할 배·밤·대추·은행·능금[林檎]과 같은 종류는, 벌레가 먹었을까 염려되므로 쪼개고 깎아서 올리고자 하니, 그것을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옛 제도를 널리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우의정 맹사성과 찬성 허조 등은, “벌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우나, 쪼개고 깎아서 온전치 못한 과실을 올리는 것은 옛글에 없는 바이오며, 또 설만(褻慢)에 가까우니 다시 정하게 고르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였고, 판서 정초(鄭招)는, “《제사예과(祭祀禮科)》에, ‘변(籩)을 채웠으되 율황(栗黃)이 있다.’ 하였은즉, 밤은 그 속만 취하는 것은 법에 있는 듯하오나, 배·대추·능금과 같은 것은 예전에 쪼개고 깎아서 쓰는 글이 없으니, 온전한 실과로 올리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므로, 예조와 문소전과 광효전의 전지기[殿直] 등에게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은행·배·대추·밤·녹리(綠李)·능금 등의 물건은, 천진(薦進)할 때에 쪼개어 살펴보고, 10분의 8, 9분의 벌레가 먹지 않은 것이면 정하게 골라서</p>	<p>傳旨承政院： 宗廟及兩殿薦新，如梨、栗、棗、杏、林檎之類，恐有螬蟲，欲割剝以薦，其令詳定所博考古制以聞。 右議政孟思誠、贊成許稠等以爲：“有蟲者可疑，然薦割剝不全之果，古文所無，且近褻慢，宜更精擇。” 判書鄭招以爲：“祭祀禮科，籩實有栗黃，則栗取其實，似亦有制，至如梨、棗、林檎之類，古無割剝之文，宜以全果薦獻。” 傳旨禮曹及文昭、廣孝殿直等曰： 自今如杏、梨、棗、栗、綠、李、林檎等物薦進時，開剝看審，十分內八九分不蟲損，則精究揀擇以薦，若至三四分蟲損，則勿復揀擇。</p>

	올리고, 만약 3, 4분의 벌레가 먹은 것은 다시 고르지 말라.” 하였다.	
세종 52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6월 23일 (을묘) 3번째기사 맹사성·허조·정초 등이 원윤 이하에게 치부하 는 것에 관해 논의하 여 아뢰다	상정소 제조 우의정 맹사성·찬성 허조·판서 정초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원윤(元尹) 이하에게 치부(致賻)할 때에는, 기친(基親)1683)에는 미·두(米豆) 아울러 30석, 대공친(大功親)에는 미·두 아울러 25석, 소공친(小功親)에는 미·두 아울러 20석, 시마친(總麻親)에는 미·두 아울러 15석, 단문친(袒免親)에는 미·두 아울러 15석으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詳定所提調右議政孟思誠、贊成許稠、判書鄭招等議啓元尹以下致賻：“期親米豆并三十石，大功親米豆并二十五石，小功親米豆并二十石，總麻親米豆并十五石，袒免親米豆并十石。”
世宗 53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7月 20日 (壬午) 4번째기사 사신을 공궤키 위해 부족한 닭 등을 서울 안 각부에서 거두게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사신을 접대[支供]하는 육물(肉物)을 이미 각도에 상납(上納)하게 하였사오나, 그 수가 심히 많아서 줄지에 변통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서울 안 각부(各部)에 환과 고독(鰥寡孤獨) 등 살아가기 어려운 집을 빼놓고, 각집에서 닭이나 오리를 가릴 것 없이 대호(大戶)에는 다섯 마리, 중호(中戶)에는 세 마리, 소호(小戶)에는 한 마리씩을 바치게 하며, 예빈시(禮賓寺)·인수부(仁壽府)·인순부(仁順府)에 명령하여 여러 곳에 공궤(供饋)하는 데는 닭을 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啓：“使臣支持肉物，已令各道上納，然其數甚多，未易猝辦。請令京中各部除鰥寡孤獨外，勿論雞鴨，大戶納五首，中戶三首，小戶一首。又令禮賓寺、仁壽、仁順府於諸處供饋，毋用鷄兒。”從之。
세종 53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7월 23일 (을유) 2번째기사 예조에서 군 이상의 예장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군(君) 이상에게 예장(禮葬)이 있사온즉, 원윤(元尹) 이하부터 기친(基親)에 이르기까지는 쌀과 콩 30석을 부의로 주고, 대공친(大功親)에게는 25석, 소공친에게는 20석, 시마친에게는 15석, 단문친에게는 10석으로 부의하며, 아울러 전을 드리고 조문(弔問)을 행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諸君以上則有禮葬，自元尹以下至期親，則致賻米豆并三十石，大功親二十五石，小功親二十石，總麻十五石，袒免親十石，并行致奠致弔。”從之。
世宗 53卷, 13年	예조에서 아뢰기를,	禮曹啓：“昌盛、尹鳳，請供佛油蜜果

<p>(1431 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8月 23日 (乙卯) 3번째기사 창성·윤봉 등이 요구하는 불공·북두칠성제에 사용되는 물품을 주게 하다</p>	<p>“창성(昌盛)·윤봉은 불공(佛供)에 쓸 유밀과(油蜜果)와 과실·떡·밥 등과, 북두칠성제(北斗七星祭)에 소용되는 유밀과·식과·떡쌀 등을 청하며, 장정안 및 두목 유복(劉福) 등 열 사람만은 칠성제에 소용되는 실과·밥·향유(香油) 등을 청하오니, 아울러 날마다 마련하여 바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實菓餅飯及(此斗七星) [北斗七星] 祭所用油蜜果實菓餅米; 張定安及頭目劉福等十人, 請七星祭所用實菓飯香油, 請竝逐日備進。” 從之。</p>
<p>世宗 53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9月 8日 (己巳) 3번째기사 윤봉이 귤·모과 등을 요구하므로 주다</p>	<p>윤봉이 귤·모과 각 1백 개와, 곱감 30접, 올벼[早稻] 종자 30말을 요구하므로, 모두 주도록 허락하였다.</p>	<p>尹鳳求柑橘·木瓜各一百箇、乾柿子三十貼、早稻種三十斗, 皆許之。</p>
<p>세종 53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9월 24일 (을유) 1번째기사 상정소에 세자가 회례연에 참여하는 의식을 논하게 하다</p>	<p>상정소에 명하여 세자가 회례연(會禮宴)에 참여하는 의식을 의논하게 하니, 황희·맹사성·허조·신상 등이 아뢰기를, “삼가 당나라의 의식을 상고하온즉, 황태자가 먼저 예를 행하면 상공이 여러 관원들을 거느리고 예를 행하며 예물을 드린다고 하였삽고, 《당송회의(唐宋會儀)》에는 상공이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헌수한다고 하고, 황태자가 헌수하는 절차는 없사오며, 또 당나라 옛 제도에는 황태자가 헌수하고 다음에 공이 헌수한다 하였고, 송나라 진종(眞宗)의 제도에는 황태자가 문무 백관의 반열을 거느리고 술잔을 받들어 헌수한다고 하였으며, 전조의 예는 상공은 주전자를 받들고 태자는 술잔을 받들어 헌수하였습니다. 이제 회례에는 조례에 의하여 왕세자가 먼저 들어가서 헌수를 마치고 앉은 뒤에, 의정 이하 전상에 오를 만한 여러 신하들이 근정문으로 들어가서 예를 행하고 헌수하게 하려면, 그 첫째 잔을 둘째 잔을 올리는 사이의 동안이 떠서, 예를 행하는 절차가 매우</p>	<p>乙酉/命詳定所, 議王世子參會禮宴儀。 黃喜、孟思誠、許稠、申商等以爲: “謹按唐朝儀, 皇太子先行禮, 上公率群官行禮, 奏禮物。 唐、宋會儀, 上公率群官上壽, 而無皇太子上壽之節。 又唐舊制, 皇太子獻壽, 次公獻壽。 宋〈眞〉宗制, 皇太子押文武百官班, 奉觴上壽。 前朝禮, 上公奉注子, 太子奉盞上壽。 今會禮, 欲依朝禮, 王世子先入上壽畢坐後, 議政以下應升殿群臣入勤政門行禮上壽, 則其第一爵第二爵之間, 隔絕行禮, 節次甚遲</p>

	<p>더디고 늦으며, 또한 회례하는 뜻에 맞지 아니합니다. 만약 세자가 여러 관원의 반열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홀로 헌수하고서, 의정이 헌수하라는 예가 없으면 당·송 회례 의식에 상공이 헌수한다는 예식과는 합하지 않으며, 더욱 조례의 예물을 바치는 뜻과 서로 반대가 되웁니다. 원컨대, 당의 옛 제도와 송 진종(眞宗)의 제도에 의하여, 왕세자가 자리에 들어가면, 의정 이하가 따라 들어가서 왕세자가 헌수하고, 다음에 의정이 헌수하게 함이 어떠하옵니까. 또 전조 예에 의하여, 의정이 술을 따르고 왕세자가 술잔을 받들어 헌수하며 축하하기를, ‘신 아무 등이 운운(云云)’함이 어떠하오리까.”</p> <p>하니, 정초는, 아뢰기를, “당·송 제도의 회례는 조례와 그 체재와 양식이 동일하온데, 조례에는 왕세자는 이미 달리 따로 모이게 되었사온데, 회례에는 어찌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혼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왕세자가 홀로 첫째 잔을 드리면 답(答)1751)이 없는데, 의정이 군신들을 거느리고 둘째 잔을 드리면 특히 답은 해야 할 것이니, 이러면 어찌 왕세자가 군신들을 거느리고 예를 행한다고 이르오리까. 마땅히 조례에 의하여 왕세자는 달리 따로 회를 하면 시종(始終)이 한결같으며, 하루 동안에 예를 행하는 데에 서로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정초의 의논에 따르기를 명하였다.</p>	<p>緩, 亦非會禮之義也。 若世子押班獨上壽, 而無議政上壽之禮, 則不合於唐、宋會儀上公獻壽之禮, 抑與朝禮獻禮物之意相反矣。 乞參酌唐舊制及宋眞宗制, 王世子入位, 議政以下隨入, 王世子上壽, 次議政上壽何如? 又依前朝禮, 議政酌酒, 王世子奉爵上壽賀稱曰: ‘臣某等云云。’ 何如?” 鄭招以爲: “唐、宋制會禮, 與朝禮同一體樣。 朝禮, 王世子既已殊會, 會禮豈可與群臣混同? 且王世子獨獻第一爵, 無宣答, 議政押群臣, 獻第二爵, 特宣答, 豈謂王世子押群臣行禮乎? 宜依朝禮, 王世子殊會, 庶得始終一樣, 一日之內, 行禮不相牴牾。” 命從招議。</p>
<p>世宗 53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9月 24日 (乙酉) 5번째기사 한용봉에게 명하여 별선을 창성에게 주다</p>	<p>내관 한용봉을 명하여 별선을 창성(昌盛)에게 가져다 주게 하였다. 성이 모든 받은 물품을 주방[廚庖]에 내어 주지 아니하고 비밀히 두목을 시켜 말려서 간직하고, 날마다 어육(魚肉)을 영접 도감에게 요구하여 짓을 담고, 혹은 생우유[生酪]를 요구하여 묻혀서 종이에다 펴 말리니, 모두 가지고 가려고 함이었다.</p>	<p>命內官韓龍鳳, 齎別膳贈昌盛。 盛凡受贈物, 不下廚庖, 密令頭目, 乾而藏之, 日索魚肉于迎接都監造醢, 或索生酪, 點列於紙乾之, 欲皆齋去也。</p>
<p>세종 54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10월 3일</p>	<p>(전략) 다방 제조(茶房提調)가 수존(壽尊)을 전상에 설치하되, 남쪽 가까이 북향하게 하고, 점(坵)을 준의 남쪽에 설치하여 작을 놓아 둔다. 유사가 전에 오른 사람의 술동이[酒尊]를 전계 위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p>	<p>(전략) 茶房提調設壽尊於殿上近南, 北向, 設坵於尊南加爵。 有司設升殿者酒尊於殿階上東西近北, 設殿庭群官</p>

(갑오) 2번째기사
예조에서 회례의주를
아뢰다

끼이 한다. 전정의 군관(群官)의 주준은 각각 그 자리 앞에 설치한다. 종실과 문무 군관이 시각에 따라 모두 문밖의 자리[門外位]에 나아가면, 좌중호(左中護)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輿次)로 나아가고, 시위는 보통 때와 같이 한다. 협률랑(協律郎)이 들어와서 휘(麾)를 드는 자리[舉麾位]에 나아가고, 전의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간다. 봉례랑은 군관의 3품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간다. 판통례가 외판을 아뢰면, 중금이 엄을 전한다. 전하가 여를 타고 나오고, 산선의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장차 나오면 의장이 움직인다. 협률랑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를 들고 일어난다. 악공이 축을 두드리면, 헌가가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香爐)의 연기가 오른다. 상서관(尙瑞官)이 옥새[寶]를 받들어 자리 앞에 두고, 협률랑이 휘를 눕히면, 어(敵)를 굽고 풍악이 그친다. 판통례와 전의가 올라와 전계(殿階) 위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선다. 전의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이 이를 전찬(傳贊)한다. 왕세자가 몸을 굽히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다방 제조가 술을 따라 첫째 작을 왕세자에게 주면, 왕세자가 작을 받아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근시가 이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전하여 놓으면, 왕세자가 조금 물러서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신아무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 드립니다. 새해를 당하와 【동지에는 ‘시기는 동지를 당하와’라고 한다.】 신이 대단히 경사스러워서 삼가 천천세수(千千歲壽)를 올립니다.’ 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전계 위의 북쪽으로 물러선다. 통찬이 ‘꿇어앉으라.’ 찬(贊)하면, 왕세자가 꿇어앉는다. 전하가 작(爵)을 들면 헌가(軒架)는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연주한다. 【월률(月律)을 사용한다.】 다방 제조가 나아가서 빈 작(爵)을 받아 준소로 가면,

酒尊, 各於其座之前。 宗室及文武群官, 依時刻皆就門外位, 左中護引王世子就次, 侍衛如常, 協律郎入就舉麾位, 典儀帥通贊先入就位, 奉禮郎分引群官三品以下入就位。 判通禮啓外辦, 中禁傳嚴, 殿下乘輿以出, 緞扇侍衛如常儀。 殿下將出仗動, 協律郎俛伏舉麾興, 工鼓祝, 軒架作隆安之樂。 殿下升座, 爐烟升。 尙瑞官奉寶置於座前, 協律郎偃麾戛敵, 樂止, 判通禮及典儀, 升就殿階上西向立, 僉知通禮, 引王世子入就位。 立定, 典儀曰: “四拜。” 通贊傳贊, 王世子鞠躬舒安之樂作, 四拜興平身。 樂止, 僉知通禮, 引王世子升自東階, 詣尊所北向立。 茶房提調酌酒第一爵, 授王世子, 受爵詣殿下座前, 北向跪進, 近侍傳奉置於座前, 王世子少退北向跪稱: “臣某稽首言。 三元首祚, 【冬至云: “天正長至。”】 臣不勝大慶, 謹上千千歲壽。” 俯伏興退殿階上北, 通贊贊跪, 王世子跪。 殿下舉爵, 軒架作休安之樂。 【用月律。】 茶房提調進受虛爵, 復於尊所。 樂止, 【凡進爵樂作, 舉訖樂止。】 通贊贊俯伏興四拜興平身, 王世

풍악이 그친다. 【무릇 작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하고, 술 마시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왕세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자리 뒤에 나아가서 선다. 처음에 왕세자가 장차 자리에 나아가려 하면, 봉례랑이 종실과 문무 군관의 2품 이상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전하의 자리 앞에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종실과 문무 군신들을 영접하여 전에 오르기를 계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언이 앞으로 나아가서 교지를 받고 물러나서 섭둘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서, ‘교지가 있다.’고 말한다. 통찬이 ‘꿇어앉으라.’ 찬하면, 군관이 모두 꿇어앉는다. 대언이 교지를 알리기를, ‘종실과 문무 군신을 영접하여 전에 오르라.’ 한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종실과 문무 군관이 모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대언이 시위로 돌아온다. 봉례랑이 종실과 문무 군관으로서 마땅히 전에 오를 사람을 나누어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 전계 위에 나아가서 반열을 가로[橫班]해서 북향하여 서게 한다. 봉례랑이 의정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면, 다방 제조가 술을 따라 들째 작을 의정에 게 준다. 의정이 작을 받아 전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리면, 근시(近侍)가 전해 받들어 자리 앞에 놓는다. 통찬이 ‘꿇어앉으라.’ 찬하면, 상하의 여러 관원이 모두 꿇어앉는다. 의정이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의정 신(臣) 아무는 머리를 조아려 말씀 드립니다. 새해를 당하와 【동지(冬至)에는, ‘시기는 동지를 당하와’라고 한다.】 신 등은 대단히 경사스러워 삼가 천천세수(千千歲壽)를 올립니다.’ 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언이 앞으로 나아가서 교지를 받고 말하기를, ‘삼가 경 등의 술잔[觴]을 든다.’ 하고, 전하가 작을 든다. 헌가가 휴안지악을 연

子俯伏興，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樂止，僉知通禮引就座後立。初，王世子將就位，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二品以上，以次入就位，判通禮進當殿下座前，北向跪，啓請迎宗室及文武群臣升殿，俯伏興退復位。代言前承教，退臨階西向立，稱有旨，通贊贊跪，群官皆跪，代言宣教曰：“迎宗室及文武群官升殿。”通贊贊俯伏興四拜興平身，宗室及文武群官，皆俯伏興，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樂止，代言還侍位。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應升殿者，由西階升就殿階上，橫班北向。立定，奉禮郎，引議政詣尊所北向立，茶(旁)[房]提調，酌酒第二爵授議政，受爵詣殿下座前，北向跪進，近侍傳奉置于座前。通贊贊跪，群官上下皆跪，議政少退北向跪稱：“議政具官臣某稽首言。三元首祚，【冬至云：“天正長至。”】臣等不勝大慶，謹上千千歲壽。”俯伏興退復位跪。代言前承教曰：“敬學卿等之觴。”殿下舉爵，【軒架作休安之樂】茶房提調進受虛爵，復於尊所，【樂止】代言還侍位。通贊贊俯伏興四拜

주한다. 다방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서 빈 작을 받아 준소로 가져가면 풍악이 그친다. 대언이 시위로 돌아온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상하의 군관이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전의가 ‘자리에 앉으라.’ 말하면 통찬이 전하여 찬한다. 봉례랑이 상하의 군관을 인도하여 모두 자리 뒤에 나아가 서게 한다. 사옹 제조(司饗提調)가 안을 올리면, 휴안지악을 연주한다. 근시가 꽃을 올리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왕세자와 상하의 군관이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관통례·전의·통찬·봉례랑도 또한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전악의 노래 부르는 자와 금슬(琴瑟)을 인도하여 올라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사옹 제조가 왕세자의 탁자(卓子)를 받들고, 집사관은 군관의 탁자를 설치하고 꽃을 놓는다. 사옹 제조가 밥을 올리고, 수보록지악(受寶籙之樂)을 연주한다. 【무릇 밥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하고 밥 먹기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왕세자와 군관이 모두 일어서고, 밥 올리기를 마치면 모두 앉는다. 【무릇 술잔을 올리고, 밥을 올리면 모두 일어서고, 올리기를 마치면 모두 앉는다.】 왕세자가 밥을 먹고, 집사관과 군관이 밥을 먹는다. 먹기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매양 사옹 제조가 전하의 밥을 올리고 제거(提舉)가 왕세자의 밥을 올리고, 집사관이 밥을 올린다.】 다방 제조가 세 번째 작을 올리면 등가(登哥)가 연주된다. 제거가 왕세자에게 술을 올리고, 집사관이 군관에게 술을 돌린다. 【매양 다방 제조가 전하에게 작을 올리고, 제거가 왕세자에게 술을 올리고, 집사관이 군관에게 술잔을 올린다.】 문무(文舞)가 들어와 춤을 추는데, 삼성이 되면 그치고 나간다. <전하에게> 밥을 올리면 헌가가 근천정지악(觀天庭之樂)을 연주한다. 네 번째 작을 올리면 등가가 연주된다. 밥을 올리면 헌가가 해서지악(海瑞之樂)을 연주한다. 다섯 번째 작을 올리면 무무가 들어와서 춤을 추는데, 삼성이 되면 그치고 나간다. 밥을 올리면 서차호지악(瑞鷓鴣之樂)을 연주한다. 여섯 번째 술잔을 올리면 하황은지기(荷皇恩之伎)를 시작한다.

興平身，群官上下皆俯伏興，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樂止，典儀曰：“就座。”通贊傳贊，奉禮郎引群官上下，皆就座後立。司饗提調進案，休安之樂作，近侍進花訖，樂止，王世子及群官上下皆座。【判通禮、典儀、通贊、奉禮郎，亦皆赴座。】典樂引歌者及琴瑟升就位，司饗提舉，供王世子卓，執事官設群官卓散花。司饗提調進食，受寶籙之樂作，【凡進食樂作，食畢樂止。】王世子及群官皆起立，進訖皆坐。【凡進爵進食，皆起立，進訖皆坐。】王世子食，執事官群官食。食畢，樂止，【每司饗提調進食，提舉供王世子食，執事官設群官食。】茶(旁)〔房〕提調進第三爵，登歌作，提舉供王世子酒，執事官行群官酒，【每茶房提調進爵，提舉供王世子酒，執事官行群官酒。】文舞入作，三成止出。進食，軒架作《觀天庭之樂》。進第四爵，登歌作。進食，軒架作《海瑞之樂》。第五爵，武舞入作，三成止出。進食，《瑞鷓鴣之樂》。第六爵，荷皇恩之伎。進食，《水龍吟之樂》。第七爵，拋毬樂之伎。進食，

다. 밥을 올리면 수룡음지악(水龍吟之樂)이 시작된다. 일곱 번째 작을 올리면 포구악지기(抛毬樂之伎)를 시작하고, 밥을 올리면 황하청지악(黃河淸之樂)을 연주한다. 여덟 번째 작을 올리면 아백지기(牙白之伎)를 시작하고, 밥을 올리면 만년환지악(萬年歡之樂)을 연주한다. 아홉 번째 작을 올리면 무고지기(舞鼓之伎)를 시작하되 모두 전의 예와 같이 한다. 【전하께서 만약 편차(便次)에 들면, 왕세자는 동계 밑에 내려와 서고, 군관들은 동·서전(東西殿)에 나누어 서고, 가까운 사람은 모두 섬돌 밑에 나와서 자리를 잡고 서며, 전하가 나와서 자리에 오르면, 왕세자가 자리에 나아가고, 상하의 군관이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사용 제조가 대선을 올리면 태평년지악(太平年之樂)을 연주하고 이내 정동방곡(靖東方曲)을 노래한다. 제거가 왕세자에게 선(膳)을 올리고, 집사관이 군관의 선을 진설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사용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서 전하의 앞에 있는 안을 치우고, 제거가 왕세자의 탁자를 치우며, 집사관이 군관의 탁자를 치운다. 전의가 ‘일어나라.’ 말하면, 통찬이 이를 전하여 찬한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내려와 전정의 배위로 돌아가고, 봉례랑이 상하의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가 선다. 전의가 ‘사배하라.’ 말하면, 통찬이 이를 전하여 찬한다. 왕세자가 몸을 굽히고, 헌가가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종실과 문무 군관의 2품 이상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판통례가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예를 마쳤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면, 헌가가 용안지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를 타고 내전으로 돌아간다. 산선의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신이 따라서 합문까지 이르면 풍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군관의 3품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黃河淸之樂》。 第八爵， 牙白之伎。 進食，《萬年歡之樂》。 第九爵， 舞鼓之伎， 竝如前例。 【殿下若入便次， 則王世子降立東階下， 群官分東西殿， 近者皆出座階下立。 其於殿下出升座， 王世子就座， 群官上下皆就座。】 司饗提調進大膳，《太平年之樂》， 仍歌《靖東方之曲》。 提舉供王世子膳， 執事官設群官膳訖， 樂止， 司饗提調進撤殿下前案， 提舉撤王世子卓， 執事官撤群官卓。 典儀曰：“可起。” 通贊傳贊， 僉知通禮， 引王世子降復殿庭拜位， 奉禮郎分引群官上下， 俱復拜位。 立定， 典儀曰：“四拜。” 通贊傳贊， 王世子鞠躬軒架作舒安之樂， 四拜興平身。 樂止奉禮郎， 分引宗室及文武群官二品以上次次出。 判通禮進當殿下座前， 跪啓禮畢， 俯伏興還本位。 協律郎俛伏舉麾興， 軒架作隆安之樂， 殿下降座， 乘輿還內， 繖扇侍衛如來儀。 侍臣從至閣， 樂止， 奉禮郎， 分引群官三品以下出。 從之。

세종 55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1월 7일
(정묘) 5번째기사
예조에서 양로연의를
아뢰다

예조에서 양로연의(養老宴儀)를 아뢰기를,
“음력 8월 달에 예조에서 좋은 날을 선택하여 아뢰고, 먼저 여러 노인들 【80세 이상.】에게 알린다. 그 날이 되면 유사가 전하의 자리[座]를 근정전의 북쪽 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로 두 개를 앞 기둥[前楹]밖에 좌우로 설비한다. 전악(典樂)이 전정(殿庭)에 현현(軒懸)을 벌여 놓고, 전상의 서계의 서쪽에 거휘위(學廳位)를 설치하되, 모두 보통 때의 의식대로 한다. 전의가 여러 노인들 중에서 2품 이상인 자의 자리를 전내의 동·서에 설치하되,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4품 이상의 자리는 전의 계상에 동·서에 설치하고, 5품 이하의 자리는 계하에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서인은 전정의 동·서에 자리를 정하되,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판통례 및 전상의 전의의 자리는[位]는 전상의 동계의 동쪽에 설치하되 서향으로 한다. 계하의 전의의 자리는 악현의 동북쪽에 설치하고, 통찬 1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한다. 통찬 1인의 자리는 악현의 서북쪽에 있게 하되 동향하게 하고, 또 여러 노인들 중에 1품 이하의 배위(拜位)는 전정의 동·서에 설치하되, 매 관등(官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상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서인의 자리는 조금 뒤로 설치한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의 악차를 홍례문 안에 설치하고, 다방 제조가 전상에 남쪽으로 가까이 준을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접을 설치하고 작을 올려놓는다. 유사가 전에 오른 자를 위한 준(尊)을 전의 계상(階上)의 동·서에 북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며, 전에 오르지 않는 자를 위한 준(尊)을 각각 그들의 자리 앞에 설치한다. 병조에서 제위(諸衛)를 정돈하고, 의장을 베풀어 문과 전정에 벌여 서게 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여러 노인들은 각각 자기의 〈신분에 의거한〉 옷차림을 하고 【품관은 사모(紗帽)와 품대(品帶), 서인(庶人)은 시복(時服).】 시각(時刻)에 따라 모두 문밖의 악차에 나

禮曹啓養老宴儀：
仲秋之月，禮曹擇吉辰啓聞，先戒群老。【年八十以上。】其日，有司設殿下座於勤政殿北壁，南向，設香爐二於前楹外。左右典樂展軒懸於殿庭，設學廳位於殿上西階之西，竝如常儀。典儀設群老二品以上座於殿內東西，重行相向北上，四品以上，座於殿階上東西，五品以下座於階下，俱重行相向北上，庶人座於殿庭東西，重行相向北上，設判通禮及殿上典儀位於殿上東階之東，西向，階下典儀位於縣之東北，通贊一人在南差退，俱西向，通贊一人在縣之西北，東向。又設群老一品以下拜位於殿庭東西，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庶人位差後。奉禮郎設群老次於弘禮門內。茶房提調設尊於殿上近南北向，設拈加爵。有司設升殿者尊於殿階上東西近北，設非升殿者尊各於其座之前。兵曹勒諸衛列仗屯門及陳於殿庭如常儀。群老各服其服，【品官紗帽品帶，庶人時服。】依時刻皆就門外次。通禮門啓請中嚴，殿下出思政殿坐，有司陳繖扇侍衛如常儀。近臣及執事官，先行四拜禮如常

아간다. 통례문이 중엄을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사정전에 나와 앉으면, 유사가 산선(緘扇)의 시위(侍衛)를 베풀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과 집사관이 먼저 사배례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전악이 악공들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 거취위에 나아간다. 여러 시위관은 각기 기구와 복색을 갖춘다. 상서관이 옥새(玉璽)를 받들고 함께 함문에 나아가 봉영(奉迎)한다. 전의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례가 외관을 아뢰면, 중금이 전엄(傳嚴)한다. 전하가 장차 나가려 하여 의장이 움직이면, 협률랑(協律郎)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난다. 악공이 축(祝)을 치고, 헌가(軒架)가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에서 연기가 오른다, 상서관(尙瑞官)이 옥새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놓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랑이 휘를 눕히면, 어를 쳐서 풍악을 그친다. 판통례과 전의가 전의 계상에 올라 서향해 선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어떤 이는 옆에서 붙든다.】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선다. 전의가 ‘사배하라.’ 한다. 【임시하여 전하의 명령이 있으면 절(拜)은 한 번 하고 앉았다가 다시 한다.】 통찬이 이를 전하여 찬하면, 여러 노인들은 지팡이를 놓고 몸을 굽히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례가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여러 노인들을 맞아 전에 오르게 하기를 계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나와 제 자리에 돌아간다. 대언이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고 물러나와 섬돌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서 교지를 선포하기를, ‘여러 노인들을 맞아 전에 오르게 하라.’ 하고, 대언이 시위로 돌아온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 중에서 마땅히 전상의 오를 자를 나누어 인도하여 【지팡이를 짚거나, 혹은 옆에서 붙들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서계로 올라 자리에 나아간다. 【계하(階下)와 전정(殿庭)에 자리 할 자도 또한 인도해 자리에 나아간다.】 전악이 가(歌)와 금(琴)·슬(瑟)을 인

儀。典樂帥工人入就位，協律郎入就舉麾位，諸侍衛之官，各服其器服。尙瑞官奉寶，俱詣閣奉迎。典儀率通贊先入就位。判通禮啓外辦，中禁傳嚴，殿下乘輿以出，緘扇侍衛如常儀。殿下將出仗動，協律郎俛伏舉麾興，工鼓祝，軒架作隆安之樂。殿下升座，爐烟升。尙瑞官奉寶置於座前如常儀，協律郎偃麾戛鼓。樂止，判通禮及典儀，升就殿階上西向立，奉禮郎分引群老【或杖或挾扶】以次入就位。立定，典儀曰：“四拜。”【臨時有旨則拜，一坐再至。】通贊傳贊，群老去杖鞠躬，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樂止，判通禮進當殿下座前，北向跪，啓請迎群老升殿，俯伏興退復位。代言前承教，退臨階西向立，宣教曰：“迎群老升殿。”代言還侍位。奉禮郎分引群老應升殿者，【仍杖挾持如初】由西階升就座。【其位於下及庭者，亦引就坐。】典樂引歌及琴瑟升就位，司饗提調進案。樂作，近侍進花訖。樂止，執事官設群老卓。茶房提調酌酒第一爵，樂作，詣殿下座前，北向跪，置于座前。執事官行群老酒，舉訖，茶房

도하여 올라가 자리에 나아간다. 사옹 제조가 상[案]을 올리고 풍악을 연주한다. 근시가 꽃을 올리고 나면, 풍악을 그친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탁자를 배설하고, 다방 제조가 첫 번째 작에 술을 따르고, 풍악을 연주한다.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이를 좌전에 놓는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술을 돌린다. 다 들고나면 다방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 빈 작을 받아 가지고 준소(尊所)로 돌아온다. 풍악을 그친다. 【무릇 작을 올릴 때에는 풍악을 연주하고, 들기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사옹 제조가 식사(食事)를 올리고, 풍악을 연주한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식사를 베풀어 놓고, 먹기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무릇 식사를 올리면 풍악을 연주하고, 식사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다음은 술을 올린다. 【다방 제조가 술을 올릴 때마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술을 돌린다.】 다음 식사를 올린다. 【다방 제조가 식사를 올릴 때마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식사를 베풀는다.】 술잔이 다섯 순배를 들고 난 뒤에 사옹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 상을 치우고,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탁자를 걷는다. 봉례랑이 상하의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 선다. 전의가 ‘사배하라.’ 한다. 【전하의 명령이 있으면 절은 한 번 하고 앉았다가 다시 한다.】 통찬이 이를 전찬(傳贊)하면, 몸을 굽히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을 그친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관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전하의 자리 앞에 꿇어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협률랑(協律郎)이 엎드려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헌가(軒架)가 용안지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 여(輿)를 타고 대내(大內)로 돌아가고, 산선(緘扇)의 시위(侍衛)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신(侍臣)이 수종(隨從)하여 함문(閤門)까지 이르면 풍악을 그친다. 이튿날 여러 노인들이 대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한다.” 하였다.

提調進受虛爵，復於尊所。樂止，【凡進爵樂作，舉訖樂止。】司饗提調進食，樂作，執事官設群老食，食畢，樂止【凡進食樂作，食畢樂止。】次進酒，【每茶房提調進酒，執事官行群老酒。】次進食，【每茶房提調進食，執事官設群老食。】觴行五周訖，司饗提調進徹案，執事官徹群老卓。奉禮郎，分引群老上下，俱復拜位。立定，典儀曰：“四拜。”【有旨則拜，一坐再至。】通贊傳贊，鞠躬，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樂止，奉禮郎，分引群老以次出。判通禮進當殿下座前，跪啓禮畢，俯伏興還本位。協律郎伏舉麾輿，軒架作隆安之樂殿下降座，乘輿還內，緘扇侍衛如來義，侍臣從至閤。樂止，明日，群老詣闕謝恩。

<p>世宗 55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1月 16日 (丙子) 5번째기사 예조에서 주·부·군·현의 양로 의식을 아뢰다</p>	<p>예조에서 주·부·군·현의 양로 의식을 아뢰기를, “중추에 예조에서 아뢰고 각도에 행이한다. 소재지 관에서 좋은 날을 택하고, 기일에 앞서 관내의 80세 이상 되는 여러 노인들에게 선포하여 알린다. 그 날이 되면 수령의 자리를 대청의 동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여러 노인들 중에서 2품 이상의 자리는 서벽에 설치하되, 겹줄로 하여 동향으로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3품 이하의 자리는 남행으로 하였다. 【만약 2품 이상이 없으면 6품 이상을 서벽으로 하고, 참외를 남행으로 한다.】 서인의 자리는 뜰의 동쪽과 서쪽으로 하고, 또 배위는 뜰에 설치하되, 동쪽에 있게 한다. 여러 노인들의 배위는 서쪽에 있게 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동쪽이 위가 되게 하여 모두 북향되게 한다. 서인의 자리는 조금 뒤로 물려서 설치한다. 여러 노인들은 시각이 되면 모두 대문 밖에 모인다. 수령이 나와서 맞이하여 서문으로 들어가면, 여러 노인들이 따라 들어가서 【지팡이를 짚거나 옆에서 부축한다.】 모두 배위에 나아가 사배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수령은 동계로, 여러 노인들은 서계로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집사자가 탁자와 술잔을 배설하고 술을 따른다. 각기 자리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꿇어앉아서 잔을 잡고 마신다. 이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자리에 앉는다. 식사를 올리고 술을 돌려 다섯 순배에 이른 뒤에, 집사가 술잔을 거두고 탁자를 걸어 치운다. 수령이 여러 노인과 더불어 모두 배위에 돌아와서 사배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여러 노인들이 곧 나간다. 수령이 대문 밖에서 전송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州府郡縣養老儀： 仲秋，禮曹啓聞，行移諸道，所在官擇吉辰，前期，布告境內群老年八十以上者。其日，設守令座於廳事東壁，西向；群老二品以上座於西壁重行，東向北上；三品以下座於南行；【若無二品以上，則六品以上西壁，參外南行。】庶人座於庭東西；又設拜位於庭在東，群老拜位在西，異位重行東上，俱北向，庶人位差後。群老依時刻俱集大門外，守令出迎，入自西門，群老隨入，【或杖或挾扶】俱就拜位行四拜訖，守令由東階，群老由西階皆就座。執事者設卓及盞斟酒，各於座前，俛伏跪執盞飲訖，俛伏興就座。設食行酒，至五周後，執事收盞徹卓。守令與群老，俱復拜位行四拜訖，群老乃出，守令送于大門外。從之。</p>
<p>세종 55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1월 19일 (기묘) 1번째기사 원묘 묘실의 탁자에</p>	<p>이보다 앞서 문소전·광효전 두 전의 대제 때에는 예찬을 진설하는데, 가운데에는 큰 탁자(卓子)가 있고, 왼편과 오른편에 협탁(挾卓)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설의 길이가 전내에 가득 찼으나, 지금 원묘는 묘실이 하나가 아닌데, 만약 <큰 탁자 외에> 좌우의 협탁을 갖춘다면 묘실이 작아서 수용할 수가 없고, 만약 간각(間閣)을 증축한다면 묘제가 너무 넓으므로, 정부에 명을 내려</p>	<p>己卯/前此文昭、廣孝兩殿大祭設禮饌，中有大卓，左右有挾卓，故其陳設之長，竟殿內。今原廟廟室非一，若具左右挾卓，則室小難容，若增構間閣，則廟制過闊。下政府議之，皆以爲：</p>

<p>대해 의논하다</p>	<p>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마땅히 평시에 진사하는 예에 의방(依倂)하여 다만 가운데의 큰 탁자와 정면의 협탁만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宜依平時進上例，只用中大卓及面依卓。”從之。</p>
<p>世宗 55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2月 19日 (戊申) 1번째기사 평강 등지에서 강무하다</p>	<p>평강 등지에서 강무하였다. 왕세자와 여러 관원들이 흥인문 밖에서 공손히 진송하였다. 풍천에 머무르니 경기 감사는 활·살·새매·사냥개·우구(雨具)·마장(馬粧)과 술·물고기를 바치고, 함길도 감사는 여러가지 해물(海物)을 올렸다.</p>	<p>戊申/講武于平康等處，王世子及百官，祇送于興仁門外。次于楓川，京畿監司，進弓矢、鷹犬、雨具、馬粧及酒果、魚菜，咸吉道監司進諸色海物。</p>
<p>세종 56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4월 3일 (신묘) 1번째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제향을 친행하고, 경회루에서 음복연을 베푼다</p>	<p>비가 왔다. 임금이 면류관(冕旒冠)과 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제향을 친행(親行)하매, 왕세자(王世子)가 아헌(亞獻)하였다. 대궐에 돌아와 경회루 아래에서 음복연(飲福宴)을 베푼니, 왕세자와 종친들이 시연(侍宴)하였다. 드디어 종친들의 활 쏘는 것을 관람하고, 의정부(議政府)에서 여러 집사(執事)들에게 연회를 내렸다.</p>	<p>辛卯/雨。上冕服率群臣行祭，王世子亞獻。還宮，設飲福宴于慶會樓下，王世子及宗親侍宴。遂觀宗親射侯，賜諸執事宴于議政府。</p>
<p>世宗 56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4月 3日 (辛卯) 2번째기사 과거보는 매 장옥마다 장수(醬水)와 술을 주게 하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과거에 응시하는 생도(生徒)들에게 매 장옥(場屋)마다 장수(醬水) 8단지[盆]와 술 30병씩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赴試生徒，每場屋，請饋醬水八盆、酒三十瓶。”從之。</p>
<p>세종 56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p>	<p>날씨가 가문다고 하여 가벼운 죄의 죄수(罪囚)를 석방하고 술을 금지하였다.</p>	<p>以旱放輕繫，禁酒。</p>

<p>(宣德) 7년) 5월 23일 (경진) 2번째기사 한해 때문에 경범죄인 을 석방하고 금주령 내리다</p>		
<p>세종 57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7월 26일 (임오) 1번째기사 상호군 이에와 호군 김구경을 보내어 일본 에 회빙하다</p>	<p>상호군(上護軍) 이에(李藝)와 호군(護軍) 김구경(金久岡)을 보내어 일본에 회빙(回聘)하였다. 일본 국왕에게 답하는 서신에 말하기를, “우리 두 나라는 대대로 인국(隣國)의 호의(好誼)를 닦아 항상 신의를 돈독히 했는데, 지금 또 전사(專使)로 보빙(報聘)하니 매우 기쁘고 위로되오. 선사한 예물은 삼가 이미 영수(領受)하였으며, 이에 신하 이에(李藝) 등을 보내어 가서 사례(謝禮)하는 뜻을 표하오. 변변치 못한 토산물과 부탁한 바 《대장경(大藏經)》은 모두 별록(別錄)에 적었으니 영납(領納)하기 바라오.” 하였다. 중국 판인(中國板印) 《대장경(大藏經)》 2부, 백면포막(白緜布幕) 1좌, 백포장(白布帳) 2조(條), 잡채화석(雜彩花席)·협지의(袂地衣) 1부(副), 흑세마포(黑細麻布)와 백세저포(白細苧布) 각각 20필, 백세면주(白細綿紬) 30필, 만화방석(滿花方席)·만화석(滿花席) 각각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20장,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10영(領), 남색 사피(斜皮)·홍색 사피(斜皮) 각각 5영, 인삼(人蔘) 1백 근, 잣[松子] 4백 근, 꿀[清蜜] 20두(斗)이다. (후략)</p>	<p>壬午/遣上護軍李藝、護軍金久岡，回聘于日本，答國王書曰： 我兩國世修隣好，常敦信義，今又專使報聘，喜慰喜慰。所惠禮物，敬已領受，茲遣臣李藝等，往申謝意。不腆土宜及所示《藏經》，俱在別錄，切希領納。中國板印《大藏經》二部、白緜布幕一座、白布帳二條、雜彩花席袂地衣一副、黑細麻布·白細苧布各二十四、白細綿紬三十四、滿花方席·滿花席各一十張、雜彩花席二十張、虎豹皮各一十領，藍紅斜皮各五領、人蔘一百斤、松子四百斤、清蜜二十斗。(후략)</p>
<p>世宗 57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7月 27日 (癸未) 2번째기사 예조에서 장동아가 보낸 두목이 소금·장 등을 청구하니 없다고</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사신 장동아가 보낸 두목(頭目)이 다른 일로 인하여 와서 소금·장·물고기·미역을 청구하니, 청컨대 변방 군문(軍門)은 간고(艱苦)하여 저장한 것이 없다고 대답하고, 만약 사신이 전위(專委)하여 사람을 보낸다면 소금·장 한두 섬과 물고기·미역 한두 바리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使臣張童兒所送頭目，因他事以來，求鹽醬魚藿，請答以邊塞軍門艱苦無儲。若使臣專委送人，則給鹽醬一二石、魚藿一二駄。”從之。</p>

<p>대답할 것을 아뢰다</p>		
<p>세종 57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7월 27일 (계미) 4번째기사 향온과 소주를 양녕 대군에게 내리다</p>	<p>향온(香醞)과 소주(燒酒)를 양녕 대군에게 내리었다.</p>	<p>賜香醞及燒酒于讓寧大君。</p>
<p>世宗 57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7月 29日 (乙酉) 3번째기사 예조에서 사직에 섭행 하는 의주를 아뢰다</p>	<p>예조에서 사직(社稷)에 섭행(攝行)하는 의주(儀注)를 아뢰기를,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와 다시 시일을 의논하고, 서운관(書雲觀) 에서 미리 계절(季節)을 걸러서 시일을 갖추어 【봄·가을 두 중월(仲月)의 상 무일(上戊日)과 납일(臘日)이다.】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 나누어 알려져 직책에 따라 공관(供辦)하게 한다. 재계(齋戒)를 제사전 7일 동안 하고,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이 서계(誓戒)를 의정부(議政府) 에서 받는다. 그날 미명(未明) 7 각(刻)에 통례문(通禮門)이 자리를 설치하되, 초헌관(初獻官)의 자리는 북쪽에 있게 하여 남향하게 하고, 아헌관(亞獻官)·종 헌관(終獻官)·천조관(薦俎官)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하고, 서쪽 을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서쪽에 있게 하여 동향하게 하고, 집례(執禮)·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郎)·협률랑(協律郎)·장 생령(掌牲令)·아악 령(雅樂令)·봉조관(捧俎官)·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 의 자리는 동쪽에 있게 하여 서향하게 하되, 매 관등(官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미명(未明) 5 각(刻)에 봉례랑이 행사할 집사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 나 아가고, 초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간다. 통찬이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서 서향하여 서서 서문(誓文)을 대신 읽기를, ‘금년 모월(某月) 모일(某日) 상 무(上戊)에 사직(社稷)에 제사한다. 【납일(臘日)에 종묘(宗廟)의 향관(享官)이</p>	<p>禮曹啓社稷攝事儀注： 曹與儀禮詳定所更議時日，書雲觀預於 隔季，具時日【春秋二仲上戊及臘日】 報禮曹，禮曹啓聞，散告攸司，隨職供 辦。 齋戒：前祭七日，行事執事官，受誓戒 於議政府。其日未明七刻，通禮門設 位，初獻官在北南向，亞獻官終獻官、 薦俎官、在南北向西，上，監察在西東 向，執禮、典祀官、大祝、祝史、齋 郎、協律郎、掌牲令、雅樂令、捧俎 官、謁者、贊者、贊引在東西向，每等 異位，俱重行北上。未明五刻，奉禮 郎分引行事、執事官就位，引初獻官就 位。通贊就初獻官，之左西向立，代 讀誓文曰：“今年某月某日上戊，祭于 社稷。【臘日宗廟享官，同受誓戒，當 云：“祭社稷。”·“享宗廟。”】凡行</p>

같이 서계(誓戒)를 받을 적엔 마땅히 ‘사직(社稷)에 제사하고 종묘(宗廟)에 제향한다.’ 한다.】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고, 파·부추·마늘을 먹지 않고,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문서에 판결 서명(署名)하지 않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각기 그 직책을 처리할 것이니, 혹시 어김이 있으면 국가에서는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한다. 읽기를 마치면, 통찬(通贊)이 ‘재배(再拜)하라.’ 찬(贊)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재배하고 물러간다.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4일 동안 산재(散齋)할 적엔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3일 동안 치재(致齋)할 적엔 2일은 본사(本司)에서,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고, 치재(致齋)에는 다만 제사(祭事)만 행할 뿐이다. 이미 재계하였는데도 빠진 사람과, 섭행(攝行)을 통하여 제위(諸衛)의 수속으로서 유문(壘門)을 수위하는 사람은【대장(隊長)은 문마다 각각 2인이요, 모퉁이 마다 각각 1인이다.】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로서 하룻밤을 자고, 공인과 문무(文舞)·무무(武舞)는 봉상시(奉常寺) 앞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자고, 1일 동안 치재(致齋)하고, 모두 의정부(議政府)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하고, 제사 전 1일에 모두 제소(祭所)로 모인다.【무릇 제사에 참여할 사람은 모두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행로(行路)를 깨끗이 하게 하며, 여러 가지 흥하고 더러운 것과 상복(喪服)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우는 소리가 제소(祭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중단시킨다.】

진설(陳設)은 제사 전 2일에 한다. 충扈위(忠扈衛)에서 여러 제관(祭官)의 악차(幄次)를 재방(齋坊) 안에 설치하는데, 사직승(社稷丞)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서문(西門) 밖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설치한다. 하루 전에 아악 령(雅樂令)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등가(登歌)의 악을 단(壇) 북쪽에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事、執事官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各揚其職，其或有違，國有常刑。” 讀訖，通贊贊再拜，在位者皆再拜乃退。 凡行事、執事官，並散齋四日，宿於正寢，致齋三日，二日於本司，一日於祭所。 凡散齋，治事如故，致齋，唯行祭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 諸衛之屬守衛壘門者【隊長每門各二人， 每隅各一人。】各於本司淸齋一宿。 工人二舞淸齋一宿於奉常寺，前致齋一日，並集議政府肄儀；前祭一日， 並集祭所。 【凡預祭者，皆前祭二日，沐浴更衣，令漢城府淸所行之路，不得見諸凶穢衰絰，其哭泣之聲，聞於祭所者權斷。】 陳設：前祭二日，忠扈衛設諸祭官次於齋坊之內，社稷丞帥其屬，掃除壇之內外，設饌幔於西門外，隨地之宜。 前一日，雅樂令帥其屬，設登歌之樂於壇北，設軒架於北門內，俱南向。 社稷丞帥其屬，設國社國稷神座各於壇上近南，北向；后土氏神座於國社神座之左，后稷氏神座於國稷神座之左，俱東向， 席皆以莞。 掌牲令牽牲詣祭所，

북문 안에 설치하되, 모두 남향하게 한다. 사직승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신좌(神座)를 각기 단 위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게 한다. 후토씨(后土氏)의 신좌(神座)를 국사(國社) 신좌의 왼쪽에 설치하고, 후직씨(后稷氏)의 신좌를 국직(國稷) 신좌의 왼쪽에 설치하되, 모두 동향하게 하고, 돛자리[席]는 모두 왕골자리로 한다. 장생령(掌牲令)은 생(牲)을 이끌고 제소(祭所)로 나아가고, 전사관(典祀官)은 제기위(祭器位)를 존소(尊所)에 설치하고 【무릇 제기(祭器)를 설치할 적에는 모두 돛자리를 깔고 수건과 덮개를 올려 놓는다.】 청결(淸潔)하다고 말하기를 기다린다. 【이미 마치면 임시로 걸어 치운다.】 집례(執禮)가 초헌관의 자리를 북문 안에 설치하되, 단 한가운데에 남향하게 하고, 아헌관·종헌관·천조관의 자리를 서문 안길 북쪽에 설치하되, 매 품등(品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모두 겹줄로 동향하게 하고, 남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북문 안의 서북 모퉁이에 설치하되, 동향하게 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하되, 동향하게 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 모시고 서게 한다. 집례(執禮)의 자리를 둘을 설치하되, 하나는 유문(壇門) 안에, 하나는 유문(壇門) 밖에 있게 하고, 모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유문 밖 집례(執禮) 자리의 뒤에 있게 하되, 조금 북쪽으로 해서 동향하게 하고, 남쪽이 위가 되게 한다. 협률랑의 자리는 사단(社壇) 아래에 있게 하되,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으로 하고, 아악 령(雅樂令)의 자리는 현현(軒懸)의 남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초헌관의 음복위(飲福位)는 직단(稷壇) 위 신좌(神座)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문밖의 자리[門外位]와 제관(祭官) 및 여러 집사(執事)의 자리는 서문 밖의 길 북쪽에 설치하되, 매 품등(品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 남향하게 하고,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생방(牲榜)을 서문 밖에 설치하되, 문 앞에 동향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장생령(掌牲令)의 자리는 생(牲)의 동북쪽에 설치하고, 대축(大祝)의 자리를 생(牲)의 서쪽에 설치하

典祀官設祭器位於尊所, 【凡設祭器, 皆藉以席, 加以巾蓋。】以俟告潔。 【既畢, 權撤。】執禮設初獻官位於北門內, 當壇南向, 設亞獻官、終獻官、薦俎官位於西門內道北, 東向; 執事者位於其後, 每等異位, 俱重行東向南上, 設監察位於北門內西北隅東向, 書吏陪其後, 設執禮位二, 一於壇門內, 一於壇門外, 俱近西東向。謁者、贊者、贊引在壇門外執禮之後稍北, 東向南上, 協律郎位於社壇下近東, 西向, 雅樂令位於軒懸之南, 南向, 設初獻官飲福位於稷壇上神座之東北, 南向, 設門外位祭官及諸執事於西門外道北, 每等異位, 俱重行南向東上, 設牲榜於西門外當門東向, 以北爲上, 設掌牲令位於牲東北, 設諸大祝位於牲西, 各當牲後, 祝史各在其後, 俱東向, 設亞獻官省牲位於牲前近南, 設監察位於亞獻官之東, 俱北向, 【監察位稍却】開壑坎二於壇之北壬地, 方深取足容物, 南出陞, 設望壑位於壑坎之南, 初獻官在南北向, 執禮、大祝、贊者在西, 俱重行東向北上。祭日未行事前, 典祀官帥其屬入, 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 【各

되, 각각 생(牲)의 뒤에 있게 하고, 축사(祝史)는 각기 그 뒤에 있게 하되, 모두 동향하게 한다. 아헌관이 생(牲)을 살필 자리는 생(牲) 앞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감찰(監察)의 자리는 아헌관의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 자리는 조금 뒤로 물려서 설치한다.】 예감(瘞坎)들을 단 북쪽 임방(壬方)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하고, 남쪽으로 섬돌을 낸다. 예감(瘞坎)을 바라보는 자리[望瘞位]는 예감의 남쪽에 설치한다. 초헌관은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하고, 집례·대축·찬자는 서쪽에 있게 하여, 모두 겹줄로 동향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제일(祭日)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神位) 오른쪽에 각기 하나씩 놓고, 【각기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를 존소(尊所)에 각기 하나씩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초[燭]를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祭器)와 제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되, 매 위(位)마다 각기 변(邊) 12개가 왼쪽에 있어 세 줄이 되게 하는데, 오른쪽이 상(上)이 되고, 【첫째 줄에는 형염(刑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건조(乾棗)·율황(栗黃)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춘자(椿子)가 앞에 있고, 능인(菱仁)·감인(芡仁)·녹포(鹿脯)가 그 다음이요, 세째 줄은 백병(白餅)이 앞에 있고, 흑병(黑餅)·구이(糗餌)·분자(粉飡)가 그 다음이다.】 두(豆) 12개가 오른쪽에 있어 세 줄이 되는데, 왼쪽이 상이 되고, 【첫째 줄에는 부추 김치가 앞에 있고, 해해(醢醢)·무우 김치·사슴 고기젓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미나리 김치가 앞에 있고, 토끼 고기젓·죽순 김치·물고기젓이 그 다음이요, 세째 줄에는 비석(脾析)이 앞에 있고, 돈박(豚拍)·이식(醢食)·삼식(糝食)이 그 다음이다.】 조(俎) 3개 중에서 2개는 변(邊) 앞에 있고, 1개는 두(豆) 앞에 있다. 【변(邊) 앞의 조(俎) 한 개는 소의 날고기를 담고, 한 개는 양의 날고기·칠체(七體)·양비(兩脾)·양견(兩肩)·양협(兩脅)과 등골을 담는데, 넓적다리는 양쪽 끝에 있고, 어깨와 겨드랑이는 그 다음에 있고, 등골은 가운데 있다. 두(豆) 앞

有坫】 陳幣篚各一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每位各邊十二在左，爲三行右上，【第一行，形鹽在前，魚乾棗栗黃次之。第二行，捺子在前，菱仁、芡仁、鹿脯次之。第三行，白餅在前，黑餅、糗餌、粉飡次之。】豆十二在右，爲三行左上。【第一行，蕝蒞在前，醢醢菁蒞鹿醢次之。第二行，芹蒞在前，兔醢筍蒞魚醢次之。第三行，脾析在前，豚拍、醢食、糝食次之。】俎三，二在邊前，一在豆前，【邊前俎一實牛腥，一實羊腥七體、兩脾兩肩兩脅并脊，而髀在兩端，肩脅次之，脊在中。豆前俎實豕腥七體，其載如羊。宋釋奠儀云：“凡言在前者，皆謂南也。”】豆右之俎三。【一實牛熟腸胃肺，一實羊熟腸胃肺，一實豕熟膚。豕在前，羊牛次之。凡俎皆有牲匣。】篚篚各二在邊豆間，篚在左篚在右。【篚實以稻粱，粱在稻前。篚實以黍稷，稷在黍前。】銅三在篚篚後，【實以和羹，加芼滑】爵三在篚篚前。【各在坫】又設尊壘國社大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著尊二

의 조(俎)에는 돼지의 날고기와 칠체(七體)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羊)의 상(床)과 같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무릇 앞에 있다.’ 하는 것은 모두 남쪽에 있음을 이름이라 한다. 【두(豆) 오른쪽의 조(俎)는 3개이다. 【한 개는 소의 삶은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한 개는 양의 삶은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한 개는 돼지의 삶은 살코기를 담는데, 돼지고기는 앞에 있고, 양고기와 쇠고기는 그 다음에 있다. 무릇 조(俎)는 모두 성갑(牲匣)이 있다. 【보(簠)·궤(簋)가 각각 2개인데, 변(饔)·두(豆) 사이에 있다. 보(簠)는 왼쪽에, 궤(簋)는 오른쪽에 있다. 【보에는 벼와 기장을 담는데, 기장은 벼 앞에 있고, 궤에는 메기장과 피를 담는데, 피가 메기장 앞에 있다. 【형(鉶) 3개는 보(簠)·궤(簋) 뒤에 있고, 【형(刑)에는 화갱(和羹)을 채우는데 모활(芼滑)을 더한다. 【작(爵) 3개는 보·궤 앞에 있다. 【각기 점(坩)이 있다. 【또 준(尊)과 뇌(罍)를 설치하는데, 국사(國社)에는 대준(大尊) 2개, 【한 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한 개는 단술[醴齊]을 채운다. 【저준(著尊) 2개, 【한 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한 개는 양제(盎齊)를 채운다. 【산뢰(山罍) 2개 【한 개는 현주(玄酒)를 채우고, 한 개는 청주(淸酒)를 채운다. 【를 설치하여 세 줄로 하되, 【첫째 줄은 대준(大尊), 둘째 줄은 저준(著尊), 세째 줄은 산뢰(山罍)이다. 【모두 작(勺)과 먹(鬯)을 얹어 놓아 단(壇) 아래 서북쪽 모퉁이에 둔다. 후토씨(后土氏)에는 상준(象尊) 2개, 【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단술을 채운다. 【저준(著尊) 2개, 【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양제를 채운다. 【산뢰(山罍) 2개 【한 개는 현주(玄酒)를 채우고, 한 개는 청주(淸酒)를 채운다. 【를 국사(國社) 주준(酒尊)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남향하게 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무릇 준(尊)과 뇌는 명수와 현주(玄酒)를 채운 것이 상(上)이 된다. 무릇 신에게 제사하는 물건은 그 당시에 없는 것은 시물(時物)로서 대신한다. 【

국직(國稷)과 후직씨(后稷氏)의 준(尊)·뇌도 모두 국사(國社)·후토씨(后土氏)의

【一實明水， 一實盎齊。】、山罍二
【一實玄酒， 一實淸酒。】 爲三行，
【第一行大尊， 第二行著尊， 第三行山罍。】 皆加勺鬯， 在壇下西北隅。 后土氏象尊二 【一實明水， 一實醴齊。】、著尊二 【一實明水， 一實盎齊。】、山罍二 【一實玄酒， 一實淸酒。】 於國社酒尊之西， 俱南向東上。 【凡尊實明水， 玄酒爲上。 凡祭神之物， 當時所無者， 以時物代之。】 國稷后稷氏尊罍， 并如國社后土氏之儀。 設福酒爵 【有坩】 胙肉俎各一於國社國稷尊所， 又設國社俎一於饌幔內， 設洗於墀門外之西北南向， 【盥洗在西， 爵洗在東。】 罍在洗西加勺， 簠在洗東北， 肆實以巾。 【若爵洗之簠， 則又實以爵， 有坩。】 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西北， 南向， 執尊罍簠者位於尊罍簠之後。 受香祝： 前祭一日， 晝漏上水一刻， 有司設香祝案於勤政殿當中， 南向， 香案於其前， 設殿下拜位於月臺當中， 北向。 通禮門設典儀位於東階之東， 通贊二人在南少退， 俱西向， 設左右侍臣位於東西階之南， 相對異位重行， 俱北上， 設初獻官

의식과 같이 한다. 복주작(福酒爵)과 【점(坫)이 있다.】 조육조(胙肉俎) 각각 1개씩을 국사·국직의 존소(尊所)에 설치하고 또, 국사의 조(俎) 1개를 찬만(饌幔) 안에 설치하고, 세(洗)는 유문(壘門) 밖의 서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서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동쪽에 있다.】 뇌(鬯)는 세(洗)의 서쪽에 있게 하되 작(勺)을 얹어 놓고, 비(篚)는 세(洗)의 동북쪽에 있게 하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비(篚)이면 또 작(爵)을 담아 놓는다. 점(坫)이 있다.】 여러 집사(執事)의 관세(盥洗)는 헌관의 세(洗) 서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준(尊)·뇌(鬯)·비(篚)·떡(羶)을 잡는 사람의 자리는 준·뇌·비·떡의 뒤에 설치한다. 향과 축문은 제사 전날 주루(晝漏) 상수(上水) 1각(刻)에 받는데, 유사가 향과 축문의 안(案)을 근정전(勤政殿) 한가운데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은 그 앞에 설치한다.

전하의 배위(拜位)는 월대(月臺)의 한가운데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통례문(通禮門)이 전의(典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쪽에 설치하고, 통찬(通贊) 2인은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좌우 시신(侍臣)의 자리는 동·서계(東西階)의 남쪽에 설치하되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리를 달리 겹줄로 하여, 모두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초헌관 이하의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의 자리는 전정(殿庭) 길 동쪽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노부(鹵簿)는 대궐 문밖에 설치하고, 시신(侍臣)이 각기 조복을 갖추어 입는다.

3각(刻)에 헌관 이하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이 모두 대궐 문밖에 모인다. 전하가 관(冠)과 포(袍)를 갖추어 입는다. 교서관(校書館)의 관원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近臣)이 전해 받들어 올린다. 전하가 이를 쓰고 나면, 근신이 축판과 향을 받들어 안(案) 위에 둔다. 5각(刻)에 봉례랑이 좌우 시신(侍臣)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다음은 헌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간다. 봉례랑이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

以下應行事執事官位於殿庭道東，異位重行，北向西上，設鹵簿於闕門外。侍臣各具朝服。三刻，獻官以下應行事執事官，竝集闕門外，殿下具冠袍。校書館員以祝版捧進，近臣傳捧以進，殿下署訖，近臣捧祝版及香，置於案上。五刻，奉禮郎分引左右侍臣入就位，次引獻官以下入就位。奉禮郎引初獻官升自東階，【奉禮郎止於階下】判通禮導殿下，出就拜位北向立，啓請再拜，導殿下詣香案前啓請跪。近侍一人捧香合西向跪進，一人捧香爐東向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捧香祝東向跪進，判通禮啓請取香祝授初獻官，初獻官西向跪受興，還置於案上。判通禮啓請俛伏興，導殿下復位，啓請再拜，導殿下退立於月臺西東向。初獻官捧香祝降自西階，判通禮啓請鞠躬，初獻官沒階，殿下平身。初獻官出門，置香祝於鼻擔。亞獻官以下，隨初獻官以次出門上馬，軍士捧鼻擔鹵簿前導，至齊坊門外，下馬入門，各就齊所，香祝安於卓上。

省牲器：前祭一日未後二刻，社稷丞帥其屬，掃除壇之內外，執事者以祭器入

階)로부터 올라오고, 【봉례랑은 섬돌 아래에서 그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나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재배(再拜)하기를 계청(啓請)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기를 계청한다. 근신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면, 근신이 향로를 안(案)에 놓고, 근신이 향과 축문을 받들어서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향과 축문을 집어서 초헌관에게 주기를 계청하면, 초헌관이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받아 가지고 일어나서 도로 안(案) 위에 놓는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앞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고, 〈이를 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서 재배하기를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물러나와 월대(月臺) 서쪽에 동향하여 서게 한다. 초헌관이 향과 축문을 받들고 서계(西階)로 내려오면, 판통례가 〈전하께〉 몸을 굽히기를 계청하고, 초헌관이 다 내려서면 전하께서 몸을 편다. 초헌관이 문을 나가서 향과 축문을 여담(鼻擔)에 두고, 아헌관 이하의 관원이 초헌관을 따라 차례로 문을 나가서 말에 오른다. 군사가 여담(鼻擔)과 노부(鹵簿)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재방문(齋坊門) 밖에 이르면, 말에서 내려 문으로 들어가서 각기 재소(齋所)에 나아간다. 향과 축문은 탁자(卓子) 위에 안치하여 놓고 생기(牲器)를 살핀다.

제사 전 1일 미시(未時) 후 2각(刻)에, 사직승(社稷丞)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의 안팎을 소제하고, 집사자는 제기(祭器)를 가지고 들어가 자리에 진설하고, 수건과 덮개를 덮어 놓기를 진설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미시(未時) 후 3각(刻)에 아헌관 이하의 마땅히 생기(牲器)를 살펴야 할 사람이 모두 평상시의 의복을 입고 서문 밖에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먼저 단 아래로 들어오고, 장생령(掌牲令)은 생(牲)을 이끌고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社壇) 서계(西階)에 나아가서 올라가 소

設於位，加以巾蓋，如陳設儀。未後三刻，亞獻官以下應省牲器者，俱以常服就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入壇下，掌牲令牽牲就位。贊引引監察詣社壇西階升，行掃除於上，升稷壇，亦如之，降行樂懸於下訖復位。謁者引亞獻官，贊引引監察詣社壇，升自西階，視滌濯。執事者皆舉冪告潔，升稷壇，亦如之。訖，引降省牲位北向立。掌牲令少前曰：“請省牲。”退復位。亞獻官省牲，掌牲令又前舉手曰：“臚。”復位。諸大祝各巡牲一匝，東向舉手曰：“充。”俱復位。諸大祝與掌牲令以次牽牲，詣廚授典祀官。謁者引終獻官，詣廚省鼎鑊，申視滌漑，監取明水火。【取水於陰鑑，取火於陽燧。陰鑑未能猝辦，以井水代之。火以供爨，水以實尊。】贊引引監察詣廚省饌具訖，各還齋所。晡後一刻，典祀官率宰人，以鑿刀割牲，祝史以盤取毛血，置於饌所，遂烹牲。【連皮煮熟，其餘毛血以清器盛貯，祭畢埋之。】社稷丞帥其屬，掃除壇之內外。尊幣：祭日丑前五刻，【丑前五刻，卽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

제를 행하고, 직단(稷壇)에 올라가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고 내려온다. 악현(樂懸)은 섬돌 아래에 베풀어 놓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현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社壇)에 나아가서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척탁(滌濯)을 살피는데, 집사자가 모두 먹(爨)을 들어 정결함을 알린다. 직단(稷壇)에 올라가서도 또한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생(牲)을 살피는 자리로 내려와서 북향하여 서계 한다. 장생령(掌牲令)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청컨대 생을 살피소서.’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면, 아현관이 생을 살핀다. 장생령이 또 앞으로 나아가 손을 들면서 ‘둔(膺)’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여러 대축(大祝)이 각기 생을 한 바퀴 돌아보고 동향하여 손을 들면서 ‘충(充)’ 하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다. 여러 대축과 장생령이 차례로 생을 이끌고 주방(廚房)에 청하여 전사관(典祀官)에게 준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주방에 나아가서 정(鼎)·확(鑊)을 살피고 깨끗이 씻었는가를 보고 명수와 불을 취한다. 【물은 음감(陰鑑)에서 취하고, 불은 양수(陽燧)에서 취하는데, 음감에서 창졸히 취할 수 없으면 정수(井水)로써 이를 대신한다. 불은 때는 데 쓰고 물은 준(尊)에 채운다. 】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주방에 나아가서 찬구(饌具)를 살피게 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재소(齋所)로 돌아간다. 포시(晡時)1871) 후 1각(刻)에 전사관이 재인을 거느리고 난도(鑿刀)로서 생을 베는데, 축사(祝史)가 쟁반으로 털과 피를 취하여 찬소(饌所)에 두고 마침내 생을 삶는다. 【가죽째 삶고, 그 나머지 털과 피는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제사가 끝난 뒤에 땅에 묻는다. 】 사직승(社稷丞)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의 안팎을 소제한다. 폐백은 제일(祭日) 축시(丑時) 전 5각에 드리는데, 【축시 전 5각은 곧 3경(更) 3점(點)인데, 행사는 축시 1각에 한다. 】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饌具)에 제수를 담고, 이를 마치면 물러가서 악차(幄次)에 나아가서 자기 제복(祭服)을 입으며, 사직승(社稷丞)도 자기 제복을 입고 올라와서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국직 후직씨(國稷后稷

刻。】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退就次服其服。社稷丞服其服升，設國社后土氏國稷后稷氏神位版於座。贊引引監察詣社壇，升自西階，按視壇之上下，糾察不如儀者，升稷壇，亦如之，還出。前三刻，諸祭官各服其服，執禮帥謁者贊者贊引入自西門，先就懸南拜位，重行南向東上四拜訖，各就位。雅樂令帥工人二舞入就位，文舞入陳於懸南，武舞立於懸北道東。謁者贊引各引祭官，俱就西門外位。前一刻，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社稷丞、協律郎、捧俎官，入就懸南拜位，重行南向東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傳喝，【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監察以下皆四拜訖，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帨〕訖各就位。贊引引齋郎詣洗爵位，洗爵拭爵訖，置於筐，捧詣尊所，置於坵上。謁者引初獻官，贊引引亞獻官、終獻官、薦俎官入就位，執禮曰：“四拜。”衆官在位者皆四拜。【先拜者不拜】謁者進初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退復位。協(津)〔律〕郎俛伏舉麾興，

氏)의 신위판(神位版)을 자리[座]에 설치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社壇)에 나아가서,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단의 위 아래를 살펴보고 의식과 같지 않은 것을 규찰(糾察)하고, 직단(稷壇)에 올라가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고 도로 나온다.

3각(刻) 전에 여러 제관(祭官)들이 각기 자기의 제복(祭服)을 입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서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남향하여 동쪽을 위로 해서 사배(四拜)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과 문무(文舞)·무무(武舞)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는데, 문무(文舞)는 악현(樂懸)의 남쪽에 들어와서 진열하고, 무무(武舞)는 악현(樂懸)의 북쪽 길 동쪽에 선다. 알자와 찬인이 각각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모두 서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1각(刻) 전에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축사(祝史)·재랑(齋郎)·사직승(社稷丞)·협률랑(協律郎)·봉조관(捧俎官)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겹줄로 남향하여 동쪽을 위로 해서 선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찬자가 이를 받아 창하여, 【무릇 집례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이를 받아 창한다.】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세수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재랑을 인도하여 세작위(洗爵位)에 나아가서 작(爵)을 씻고 닦고 나서 비(篚)에 넣어, 준소(尊所)로 받들고 나아가서 점(坩) 위에 둔다. 알자는 초헌관을, 찬인은 아헌관·중헌관·천조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사배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어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구부렀다 엎드렸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무릇 물건을 취하는 사람은 모두 꿇어앉

【凡取物者皆跪，俛伏而取以興。尊物則跪奠，俛伏而復興。】 工鼓祝軒架作《順安之樂》，烈文之舞作。八成，協律郎偃麾戛敵。樂止，【凡樂，協律郎跪俛伏舉麾興，工鼓祝而後作，偃麾戛敵而後止】 執禮曰：“瘞毛血於坎。” 執禮曰：“再拜。” 衆官在位者皆再拜。 執禮曰：“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南向立，贊搯笏盥水悅手。【盥手悅手不贊】 贊執笏引詣社壇，升自北階，詣國社神位前南向立，登歌作肅安之樂，烈文之舞作。贊跪搯笏。 執事者一人捧香合，一人捧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 大祝以幣篚授初獻官，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神位前。【凡捧香授幣，皆在獻官之右，奠爐奠幣，皆在獻官之左。受爵奠爵，準此】 謁者贊執笏俛伏興，引初獻官詣后土氏神位前西向立，贊跪搯笏。 執事者一人捧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 大祝以幣篚授初獻官，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 登歌止，謁者引初獻官降自北

아 구부렸다 엎드렸다 물건을 취하고 일어나며, 물건을 드릴 때에는 꿇어앉아서 드리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다시 일어난다.】 공인이 축을 치고, 헌가(軒架)에서 순안지악(順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되어 팔성(八成)이 되면, 협률량이 휘(麾)를 놓히고, 어(敵)를 굽어 풍악이 그친다. 【무릇 풍악은, 협률량이 꿇어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공인이 축을 친 후에 시작되고, 휘를 놓히고 어(敵)를 굽은 뒤에 그친다.】 집례가, ‘털과 피를 구덩이에 묻으라.’ 한다. 집례가 ‘재배(再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폐백 드리는 예(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남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깨끗이 하라.’ 찬(贊)하여,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게 한다.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 ‘홀을 잡으라.’고 찬하여, 인도하여 사단(社壇)으로 나아가서 북계(北階)로 올라가서, 국사 신위(國社神位)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면, 등가(登歌)에서 숙안지악(肅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된다. ‘꿇어앉아 홀을 깨끗이 하라.’고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贊)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린다. 대축이 폐백광주리[幣]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받들고 폐백을 줄 때에는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 하고,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드릴 때에는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爵)을 받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초헌관을 인도하여 후토씨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깨끗이 하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초헌관에게>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

陞, 詣國稷后稷氏神位前, 樂作, 上香奠幣, 竝如國社后土氏之儀。 訖, 登歌止, 謁者引降復位。 進熟: 初獻官既升奠幣, 贊引引典祀官出, 帥進饌者詣廚, 以匕升牛于鑊, 實于牲匣, 次升羊豕, 各實于牲匣, 【每位牛羊豕, 各一匣。】 入設於饌幔內。 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 捧俎官隨之, 俟初獻官奠幣訖復位。 執禮曰: “進饌。” 謁者引薦俎官, 捧國社之俎, 捧俎官各捧牲匣, 典祀官引饌入。 國社、國稷之饌, 入自正門, 配位之饌, 入自左闕。 俎初入門, 軒架作《雍安之樂》。 國社、國稷之饌, 升自北陞; 配位之饌, 升自西陞, 諸大祝迎引於壇上。 薦俎官詣國社神位前南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 【諸大祝助奠】 奠訖, 啓牲匣蓋。 次詣后土氏神位前西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 【諸大祝助奠】 奠訖, 啓牲匣蓋。 謁者引薦俎官降自西陞, 詣國稷后稷氏神位前捧奠, 竝如國社后土氏之儀。 樂止, 謁者引薦俎官以下, 降自西陞復位, 諸大祝還尊所, 執禮曰: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 詣國社尊所東向立, 登歌

대축이 폐백 광주리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는 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등가(登歌)가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고, 풍악을 연주한다. 향을 피우고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한다. 이를 마치면 등가(登歌)가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삶은 제수를 드린다. 초헌관이 이미 올라가서 폐백을 드렸으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와서 진찬(進饌)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주방(廚房)에 나아가서, 비(匕)로서 소를 확(鑊)에서 들어 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은 양(羊)과 돼지를 들어 올려서 각기 생갑(牲匣)에 담아 【매 위(位)마다 소·양·돼지가 각기 한 갑(匣)이다.】 들어와 찬만(饌幔) 안에 설치한다. 알자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에 나아가면, 봉조관(捧俎官)이 이를 따르고, 초헌관이 폐백을 드림을 기다려, 이를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찬(饌)을 올리라.’ 하면,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국사(國社)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捧俎官)이 각기 생갑(牲匣)을 받들고, 전사관이 찬(饌)을 인도하여 들어오는데,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찬(饌)은 정문으로 들어오고, 배위(配位)의 찬(饌)은 왼쪽 문[闕]으로 들어오게 된다. 조(俎)가 처음 문에 들어올 때 헌가(軒架)에서 용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찬(饌)은 북계(北階)로부터 올라오고, 배위(配位)의 찬(饌)은 서계(西階)로부터 올라오는데, 여러 대축(大祝)이 단 위에서 맞아 인도한다. 천조관이 국사(國社) 신위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드리고, 다음은 양을 드리고, 다음은 돼지를 드린다. 【여러 대축이 드리는 데 도운다.】 드리기를 마치면 생갑(牲匣)의 덮개를 연다. 다음은 후토씨(后土氏)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

作壽安之樂，烈文之舞作。執尊者舉冪酌醴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初獻官升自北陛，詣神位前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少退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西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俛伏興。樂止，引初獻官降自北陛，詣后土氏尊所東向立，樂作，執尊者舉冪酌醴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初獻官升自北陛，詣神位前西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少退西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北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俛伏興。樂止，謁者引初獻官降自北陛，詣國稷后稷氏神位前，樂作，升獻竝如國社后土氏之儀。訖，曲終樂止。謁者引初獻官降自北陛復位。文舞退，武舞進，軒架作《舒安之樂》。舞者立定，樂止。亞終獻：初獻官將復位，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南向立，贊搯笏，盥手悅手，贊執笏，引詣國社尊所

여 꿏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드리고, 다음은 양을 드리고 다음은 돼지를 드린다. 【드리기를 마치고 생갑(牲匣)을 연다.】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기를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 이하의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러 대축은 준소(尊所)로 돌아온다.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국사(國社)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계 한다. 등가(登歌)에서 수안지악(壽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된다. 집준자(執尊者)가 맥(罍)을 들고 단술[醴齊]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부터 올라와 신위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계 하고, ‘꿏어앉아 홀을 쫓으라.’ 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爵)을 잡아 작(爵)을 드리는데, 작(爵)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남향하여 꿏어앉으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꿏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俛), 복(伏), 흥(興)’이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후토씨(后土氏)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계 하면, 풍악을 연주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맥(罍)을 들고 단술[醴齊]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올라가서 신위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계 하고, ‘꿏어앉아 홀을 쫓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爵)을 잡아 작(爵)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서향하여 꿏어앉으라.’ 찬한다.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

東向立，軒架作壽安之樂，昭武之舞作。執尊者舉罍酌盞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升自西階，詣神位前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謁者引亞獻官降自西階，詣國稷后稷氏神位前，升獻竝如國社后土氏之儀訖，樂止，引降復位。亞獻官獻將畢，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禮曰：“飲福受胙。”大祝詣國社國稷尊所，以爵酌疊福酒，合置一爵。又大祝持俎進，減國社、國稷神位前，俎肉合置一俎。謁者引初獻官詣稷壇，升自北階，詣飲福位南向立，贊跪(進)搯笏。大祝進初獻官之右東向，以爵授初獻官，初獻官受爵飲卒爵，大祝進受虛爵，復於坫。大祝東向，以俎授初獻官，初獻官受俎，以授執事者，執事者受俎，降自北階出門。謁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執禮曰：“再拜。”衆官在位者，皆再拜。執禮曰：“徹籩豆。”諸大祝進徹籩豆。【徹者，籩豆各一，少移於古處。】登歌作雍安

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복,홍’이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면, 풍악을 연주한다. 올라가서 헌작(獻爵)하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악곡(樂曲)이 끝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문무(文舞)는 물러가고 무무(武舞)가 나오는데, 헌가(軒架)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한다. 춤추는 사람이 서면 풍악이 그친다.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은, 초헌관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집례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홀을 깨끗하라.’ 찬하여,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홀을 잡으라.’ 찬하여, 인도해서 국사(國社)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한다. 헌가(軒架)에서 수안지악(壽安之樂)을 연주하고, 소무지무(昭舞之舞)가 시작된다. 집준자(執尊者)가 떡(饘)을 들고 양제(盞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올라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 남향하여 서게 하고, ‘홀을 깨끗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西階)로부터 내려와서 후토씨(后土氏)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가 떡(饘)을 들고 양제(盞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올라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홀을 깨끗하라 홀을 깨끗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

之樂，徹訖，樂止。軒架作順安之樂，執禮曰：“四拜。”衆官在位者，皆四拜。樂一成止，執禮曰：“望瘞。”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北向立，執禮帥贊者詣望瘞位東向立。諸大祝取黍稷飯，藉用白茅，束之以筐，取祝版及幣，各由其陞降壇，置於坎，執禮曰：“可瘞。”(寘)[填]土半坎，典祀官監視。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謁者贊引各引初獻官以下，以次出。執禮帥贊者還本位，贊引引監察及諸執事，俱復懸南拜位。立定，執禮曰：“四拜。”監察及諸執事皆四拜訖，贊引以次引出，雅樂令帥工人二舞出，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懸南拜位，四拜而出。社稷丞藏神位版，典祀官帥其屬徹禮饌以降乃退。復命：初獻官以下行事執事官，各還齊所住一刻。坎有司陳鹵簿於齊坊南門外如來儀。初獻官以下行事執事官至外門外，以次上馬，行至闕門外下馬，入門序立復命，四拜訖退。從之。

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 헌작(獻爵)하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그리고 아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헌관이 헌작(獻爵)을 마치려 하면,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한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례가 ‘음복(飲福)하고 제육(祭肉)을 받으라.’ 하면, 대축이 국사(國社)와 국직(國稷)의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작(爵)으로 너(壘)의 복주(福酒)를 따라 한작(爵)에 합해 두고,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국사·국직(國稷) 신위 앞에 있는 조육(俎肉)을 덜어서 조(俎)에 합해 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직단(稷壇)에 나아가, 북계로 올라가서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계 하고, 꿇어앉아 앞으로 나와서 홀을 꽂으라.’ 찬한다. 대축이 초헌관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작(爵)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을 받아서 마신다. 작을 비우면,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 작을 받아 점(坫)에 다시 둔다. 대축이 동향하여 조(俎)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조를 받아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조를 받아 북계로 내려와서 문으로 나간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재배(再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여러 관원이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변(籩)·두(豆)를 걷어 치우라.’ 하면, 여러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 변(籩)·두(豆)를 걷어 치운다. 【걷어 치우는 것은 변과 두 각각 하나씩을 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등가(登歌)에서 용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다 걷어 치우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헌가(軒架)에서 순안지악(順安之樂)을 연주한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여러

	<p>관원은 모두 사배한다. 풍악은 일성(一成)이 되면 그친다. 집례가 ‘망예(望瘞)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하고, 여러 대축이 서반(黍飯)·직반(稷飯)을 취하여 띠[白茅]로서 깔고 비(篚)로 묶고, 축판(祝版)과 폐백을 취하여 각기 그 섬돌로 하여 단에 내려와서 구덩이에 둔다. 집례가 ‘묻으라.’ 하면, 흙을 구덩이에 반을 채우는데, 전사관이 감시(監視)한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예(禮)를 마쳤다.’고 아뢰면, 알자와 찬인이 각기 초헌관 이하의 제관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본디 자리로 돌아가고, 찬인은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선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차례로 인도해 나간다. 아악 령(雅樂令)은 공인(工人)과 문무(文舞)·무무(武舞)를 거느리고 나가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사직승(社稷丞)은 신위판(神位版)을 간수하고,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견어 치우고 내려와서 물러나와, 전하에게 복명(復命)한다. 초헌관 이하의 행사한 집사관이 각기 재소(齋所)에 돌아가서 1각(刻) 동안 머무른다. 유사가 노부(鹵簿)를 재방(齋坊) 남문 밖에 진열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초헌관 이하의 행사한 집사관이 외문 밖에 이르러, 차례대로 말에 올라 대궐문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다. 문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서서 전하에게 복명(復命)하고, 사배하고 나서 물러간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세종 57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8월 14일</p>	<p>임금이 정척(鄭陟)에게 이르기를, “양로연(養老宴)에 사대부(士大夫)로서 연로자(年老者)는 참여하게 되는데, 명부(命婦) 연로자(年老者)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 실로 옳지 못하다. 또 양로</p>	<p>上謂鄭陟曰：“養老宴，士大夫年老者得與焉，命婦年老者，未得與焉，實爲未便。且謂之養老宴，則庶人男女，</p>

<p>(경자) 4번째기사 임금이 정척에게 양로연에 서민 남녀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이르다</p>	<p>연이라 이른다면 서민(庶民)의 남녀들도 마땅히 모두 참여해야 될 것이니, 그것을 제조(提調)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부녀로서 연로한 자는 거동하기가 어려우므로 대궐 안에 출입하기가 불편할 것 같사오니, 마땅히 술과 고기를 그 집에 내리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대궐 안에 말을 타고 온 사람도 있었으니 교자(轎子)를 타고 바로 자리에 들어오게 하고, 여중으로 하여금 곁에서 부축하여 모시게 하고, 중궁(中宮)이 친히 나아가서 연회를 베푸는 것이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겠다. 사대부와 명부와 서민의 남녀에게 연향(宴享)하는 의주(儀注)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p>	<p>當盡得與，其議于提調以啓。”黃喜曰：“婦女年老者，難以舉動，闕內出入，似乎未便，宜賜酒肉於其家。”上曰：“古有騎馬闕內者，乘轎直入於坐，使婢扶持，中宮親臨以宴，無害於義，其議士大夫與命婦庶人男女宴享，儀注以啓。”</p>
<p>世宗 57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宣德) 7年) 8月 16日 (壬寅) 3번째기사 예조에서 양로연에서 수령과 그의 아내가 친히 접대하는 것이 마땅치 않음을 아뢰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각 고을의 양로연(養老宴)에 부녀(婦女)들은, 수령과 그의 아내가 친히 보고 접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오니, 관직이 있는 사람의 아내에게는 쌀 1석과 술 5병을, 관직이 없는 사람의 아내에게는 쌀 1석과 술 3병을 그 집에 주고, 아울러 어육(魚肉)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各官養老宴，婦女則守令及妻，親見饋餉，未便。請有職人之妻，給米一石、酒五瓶；無職人之妻，米一石、酒三瓶于其家，并分魚肉。”從之。</p>
<p>世宗 57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宣德) 7年) 8月 20日 (丙午) 1번째기사 내관 한용봉에게 명해 술과 과실을 창·장 두</p>	<p>내관 한용봉(韓龍鳳)에게 명하여 술과 과실을 가지고 사서 창(昌)·장(張) 두 사신에게 주게 하였다.</p>	<p>丙午/命內官韓龍鳳，齎酒果往贈昌、張兩使臣。</p>

사신에게 주게 하다	<p>(전략) 사찬(司贊)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전찬(典贊) 두 사람의 자리를 사찬(司贊)의 남쪽에 설치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상식(尙食)1886) 은 준(尊)을 전상(殿上)에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되, 점(坫)을 설치하고 작(爵)을 올려놓는다. 전(殿)에 오른 사람의 준(尊)은 전계(殿階) 위의 동·서쪽에 북쪽 가까이 설치하고, 전(殿)에 오르지 않는 사람의 준(尊)은 각기 그 자리[座]의 앞에 설치한다. 여러 위(衛)에서 소속을 거느리고 문에 둔치고, 의장(儀仗)을 배열하고, 정문 밖에 포진(布陣)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노부녀들이 시각에 따라 궁문 밖의 자리[次]에 모이면, 상의(尙儀)1887) 가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고, 사보(司寶)가 인(印)을 받아들기를 법식대로 하여, 모두 내함(內閣)에 나아가서 받들어 맞이한다. 사악(司樂)이 여공인(女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전악(典樂)이 올라가 휘(麾)를 드는 자리[舉麾位]에 나아간다. 사찬(司贊)이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고, 내전인(內典引)이 노부녀를 인도하여 모두 정문 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상의(尙儀)가 외관(外辦)을 아뢰어 왕비가 나오는데, 산선(緜扇)과 시위(侍衛)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왕비가 장차 나오려 하면 전악(典樂)이 휘(麾)를 들고, 정안지악(正安之樂)을 연주한다. 왕비가 자리에 오르면 사보(司寶)가 인(印)을 받들어 자리 앞에 두는데, 안(案)은 보통 때와 같이 있다. 전악(典樂)이 휘(麾)를 눕혀, 풍악이 그친다. 사빈(司賓)이 노부녀를 인도하여 차례대로 자리에 들어와서 서면, 사찬(司贊)이 ‘재배(再拜)하라.’ 하고, 전찬(典贊)이 이를 받아 찬(贊)한다.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한다. 노부녀가 재배하고 일어나면, 풍악이 그친다. 사언(司言)이 앞으로 나아가서 영을 받고 물러나와, 전계(殿階)에 다달아 동향하여 서서 영을 전하기를, ‘노부녀의 맞이하여 전(殿)에 올라왔다가 시위(侍位)로 돌아간다.’ 하면, 사빈(司賓)이 노부녀로서 마땅히 전(殿)에 오를 사람을 인도하여</p>	<p>(전략) 設司贊位於東階東南，西向，典贊二人位於司贊之南差退，俱西向。尙食設尊於殿上近南北向，設坫加爵，設升殿者尊於殿階上東西近北，設不升殿者尊各於其座之前。諸衛勒所部屯門列仗及陳布於正門外如常儀，老婦女等依時刻集到宮門外次。尙儀啓請中嚴，司寶奉印依式，俱詣內閣奉迎。司樂帥女工人入就位，典樂升就舉麾位，司贊先入就位，內典引老婦女俱就正門外位。尙儀啓外辦，王妃出，緜扇侍衛如常儀。王妃將出，典樂舉麾，奏正安之樂，王妃升座，司寶奉印置於座前，有案如常。典樂偃麾，樂止，司賓承引老婦女以次入就位。立定，司贊曰：“再拜。”典贊傳贊，舒安之樂作，老婦女再拜興。樂止，司言前承令，退臨階東向立，宣令曰：“迎老婦女升殿。”還侍位。司賓引老婦女應升殿者，由西階升就座，其不升殿者，亦引就座。尙食進案，樂作，尙儀進花訖，樂止，設老婦女卓散花，尙食酌酒第一爵，樂作，詣王妃座前北向跪，置于座前，又行老婦女酒。舉訖，</p>
------------	--	---

	<p>서계(西階)로 올라가서 자리에 오르게 하고, 전(殿)에 오르지 못할 사람도 또한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상식(尙食)이 안(案)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하고, 상의(尙儀)가 꽃을 올리고 나면 풍악을 그친다. 노부녀의 탁자(卓子)를 설치하여 꽃을 뿌리고, 상식(尙食)이 첫째 작(爵)에 술을 따르면, 풍악을 연주한다. 왕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자리 앞에 〈술잔을〉 두고, 또 노부녀(老婦女)의 술을 따라 술잔을 든다. 이를 마치면, 상식(尙食)이 나아가서 빈 작(爵)을 받아서 준소(尊所)에 도로 갖다 둔다. 풍악이 그친다. 상식(尙食)이 밥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한다. 또 노부녀의 밥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한다. 또 노부녀의 밥을 설치하여 다 먹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다음에 술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밥을 올리며, 술잔을 다섯 번 돌리고 그친다. 상식(尙食)이 나아가서 상을 걸어 치우고, 또 노부녀의 탁자를 걸어 치운다. 사빈(司賓)이 전(殿)의 아래 위에 있는 노부녀를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서면, 사찬(司贊)이 ‘재배(再拜)하라.’ 하고, 전찬(典贊)이 이를 받아 찬한다. 풍악을 연주한다. 노부녀가 재배하고 일어나면, 풍악이 그친다. 사빈(司賓)이 노부녀를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상의(尙儀)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나서 시위(侍位)로 돌아온다. 왕비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풍악을 연주한다. 내전(內殿)으로 돌아가는데 산선(繖扇)과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풍악이 그친다. 노부녀가 사은(謝恩)하고 물러간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尙食進受虛爵，復於尊所。樂止，尙食進食，樂作，又設老婦女食，食畢，樂止，次進酒，次進食。觴行五周訖，尙食進撤案，又撤老婦女卓。司賓分引老婦女上下，俱復拜位。立定，司贊曰：“再拜。”典贊傳贊，樂作，老婦女再拜興，樂止，司賓引老婦女以次出。尙儀前啓禮畢，遂還侍位。王妃降座，樂作，還內，繖扇侍衛如來儀。樂止，老婦女謝恩而退。從之。</p>
<p>世宗 57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9月 19日 (甲戌) 3번째기사 상정소에서 회례악에</p>	<p>상정소(詳定所)에서 회례악(會禮樂)에 대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 장차 나가매 헌가(軒架)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하고, 왕세자가 절하면 헌가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하고, 왕세자가 헌수(獻壽)하면 헌가에서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연주하고, 여러 신하들이 절하면 헌가에서</p>	<p>詳定所啓會禮樂： 殿下將出，軒架《隆安之樂》；王世子拜，軒架《舒安之樂》；王世子獻壽，軒架《休安之樂》；群官拜，軒架《舒安之樂》；議政獻壽，軒架《休安之</p>

<p>대하여 아뢰다</p>	<p>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하고, 의정(議政)이 헌수(獻壽)하면 헌가에서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연주하고, 상[案]을 드리면 헌가에서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헌가에서 수보록지악(受寶籙之樂)을 연주한다. 세 번째 술잔[爵]을 드리면 등가【문명지곡(文明之曲)이라 이름한다.】에서 문무(文舞)를 시작하여 삼성(三成)이 되어 그치고 나가며, 밥을 드리면 헌가에서 근천정지악(觀天庭之樂)을 연주한다. 네 번째 작(爵)을 드리면 등가(登歌)에서 하황은지곡(荷皇恩之曲)을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헌가에서 해서지악(海瑞之樂)과 개수명명지악(改受明命之樂)을 연주한다. 다섯 번째 작(爵)을 드리면 헌가에서【무열지악(武烈之樂)이라 이름한다.】무무(武舞)를 시작하여, 이성(二成)이 되어 그치고 나가며, 밥을 드리면 서차호지악(瑞鷓鴣之樂)을 연주한다. 여섯 번째 작(爵)을 드리면 하황은지기(荷皇恩之伎)와 개몽금척지기(改夢金尺之伎)를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수룡음지악(水龍吟之樂)을 연주한다. 일곱 번째 작(爵)을 드리면 포구악지기(拋毬樂之伎)와 개오양선지기(改五羊仙之伎)를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황하청지악(黃河淸之樂)을 연주한다. 여덟 번째 작(爵)을 드리면 아박지기(牙拍之伎)를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만년환지악(萬年歡之樂)을 연주한다. 아홉 번째 작(爵)을 드리면 무고지기(舞鼓之伎)를 연주하고, 대선(大膳)을 드리면 태평년지악(太平年之樂)을 연주하고, 이내 정동방지곡(靖東方之曲)을 노래한다. 왕세자와 여러 관원이 절하면 헌가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하고, 전하께서 장차 들어가려 하면 헌가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한다.”</p> <p>하니, 이를 예조(禮曹)에 내리게 하였다.</p>	<p>樂》。進案，軒架《休安之樂》；進食，軒架《受寶籙之樂》。第三爵，登歌【名文明之曲】文舞入作，三成止出。進食，軒架《觀天庭之》樂。第四爵，登歌《荷皇恩之曲》。進食，軒架《海瑞之樂》，改《受明命之樂》。第五爵，軒架【名武烈之樂】武舞入作，(二)[三]成止出。進食，《瑞鷓鴣之樂》。第六爵，荷皇恩之伎，改夢琴尺之伎。進食，《水龍吟之樂》。第七爵，拋毬樂之伎，改五羊仙之伎。進食，《黃河淸之樂》。第八爵，牙拍之伎。進食，《萬年歡之樂》。第九爵，舞鼓之伎。進大膳，《太平年之樂》，仍歌《靖東方之曲》。王世子及群官拜，軒架《舒安之樂》；殿下將入，軒架《隆安之樂》。</p> <p>下禮曹。</p>
<p>世宗 58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10月 20</p>	<p>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근신에게 이르기를, “약재(藥材)를 화매(和賣)1940) 하는 일은 이미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바, 우리 나라의 소산(所産)도 이미 족하나, 그러나</p>	<p>乙巳/受常參，視事。上謂左右曰：“藥材和賣之事，已命承文院提調擬議。我國所産已足矣，然唐藥鮮少，</p>

<p>日(乙巳) 1번째기사 임금이 약재를 화매하여 백성의 병을 구제할 것에 관해 이른다</p>	<p>당약(唐藥)은 드물고 귀하여 아직도 약을 짓지 못하는 일이 있다. 이제 황제께서 우리를 후례(厚禮)로서 대우하시매 왕래가 끊이지 않으니, 약재를 화매하여 백성의 병을 구제함이 어떨까. 우리 나라와의 매매 행위를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엄금하였으나, 그러나 약재만은 비록 예부(禮部)에 이첩하여 묻는다 하더라도 귀찮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 모든 사기와 백가서(百家書)의 책도 아울러 사들이고자 하나, 오경(五經)과 사서(四書)를 이미 중외에 반포하였으니 어찌 번거로이 주청을 하랴.”</p> <p>하나, 우의정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약의 귀한 것은 비록 청구한다 하더라도 의리에 있어 무방하나이다.”</p> <p>하였다. 임금이 예조 판서 신상(申商)에게 이르기를, “주사(朱砂)와 용뇌(龍腦)는 비록 귀한 약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가서 구하면 오히려 얻을 수 있으나, 침향(沈香)으로 말하면 비록 중국에서라도 험사리 얻지 못할 것이다. 지난 번 왜인들이 가져 오는 침향이 흔히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서 값 각기를 너무 헐하게 하였으므로 다시는 가지고 오지 않는다. 침향은 왜(倭)나라에서도 나지 않는지라 널리 다른 나라에서 구하여 가져오는 것이니, 비록 그 값의 감절을 준다 하더라도 가하니, 예조에서는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p> <p>하였다.</p>	<p>或有未劑者。今皇帝以厚禮待我，往來絡繹，和賣藥材，救民之病何如？我國買賣，中國已曾痛禁，然藥材雖移咨禮部，不以爲瀆，且諸史百家，亦欲并買五經四書，已頒中外，何煩奏請？”</p> <p>右議政權軫啓：“藥之貴者，雖求請，於義無妨。”</p> <p>上謂禮曹判書申商曰：“朱砂龍腦，雖曰貴藥，求之中國，則猶可得也，沈香則雖中國，未易得之。往者倭人齎沈香來者比比有之，我國折價甚輕，故不更齎來。沈香不產倭邦，乃旁求他國而來，雖倍其價可也，禮曹其議以啓。”</p>
<p>世宗 58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宣德) 7年) 12月 3日 (戊子) 3번째기사 창성과 장정안에게 각각 인삼 30근씩을 주다</p>	<p>창성(昌盛)과 장정안(張定安)에게 각각 인삼(人蔘) 30근씩을 주었다.</p>	<p>贈昌盛、張定安人蔘各三十斤。</p>
<p>세종 58권, 14년</p>	<p>상호군(上護軍) 홍사석(洪師錫)을 강계(江界)·여연(閔延) 지방으로 보내어 접</p>	<p>遣上護軍洪師錫于江界、閔延，審察接</p>

<p>(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12월 9일 (갑오) 4번째기사 상호군 홍사석을 강계·여연에 보내 접전했던 상황을 살펴보게 하다</p>	<p>전했던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 전사한 군관(軍官)에게는 각각 미두(米豆) 5석씩, 군졸(軍卒)에게는 3석씩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戰之狀，賜戰亡軍官各米豆五石，軍卒三石。</p>
<p>세종 59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1월 16일 (경오) 3번째기사 의정부·육조 판서·정초 등을 불러 목책·진무소·신문고 등에 관해 의논하다</p>	<p>의정부·육조 판서·삼군 도진무·예문관 대제학 정초 등을 불러서 일을 의논하였는데, 그 하나는, “함길도 영북(寧北)에 신설하는 목책(木柵)은 아직 뒷날을 기다려서 돌성[石城]을 쌓을까. 경원에 있는 목책이 오래 되어서 무너졌으니 금년 봄부터 시작해 쌓게 함이 어떨까.” 하니, 맹사성 등이 상교가 지당하다고 하였다. 그 하나는, “태종조에 황엄(黃儼)이 황제의 명을 받아 본국에 연회를 베풀어 주었는데, 엄이 태종께만 술을 돌리고 나머지에게는 술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태종께서 칭찬 뒤에야 술을 돌렸으니, 이는 중국 조정에서 술을 내려 주는 법이 위하는 손님에게만 돌리는 것이다. 윤봉(尹鳳)이 또 말하기를, ‘본국 사람에게 술을 내려 줄 적에, 내려 주는 술을 가진 사람은 서서 주고, 받아 마시는 사람은 꿇어앉아 받는 것이 예(禮)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중국 조정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술을 돌리는 예(禮)가 있으므로, 내가 사신의 위연(慰宴) 때와 선위사(宣慰使)의 술을 돌리는 절차에서 술을 주는 사람은 서서 주고, 받아 마시는 사람은 꿇어앉아 마시게 함이 어떨까.”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모두 옳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주는 사람은 서서 주고, 받아 마시는 사람은 엎드려서 술을 받고, 일어나 서서 사신에게 청하고는 물러나서 마실 것이다.”</p>	<p>召議政府、六曹判書、三軍都鎮撫、藝文大提學鄭招等議事：其一：“咸吉道寧北新設木柵，姑待後年築石城。慶源木柵，年久頽落，令今春始築何如？”孟思誠等議：“上教允當。”其一：“在太宗朝，黃儼受命，賜宴本國。儼行酒於太宗而已，餘不行酒，太宗請之，然後乃行酒。是則中朝賜酒之法，只行於爲客而已。今尹鳳又曰：‘賜酒本國之人，持賜酒者立授，飲者跪受，禮也。’以此觀之，則中朝亦有行酒他人之禮。予於使臣慰宴時及宣慰使行酒節次，賜酒者立授，飲者跪受，何如？”僉議皆可。上曰：“賜酒者立授，飲者俛伏受酒，而立請於使臣，退跪而飲。”(후략)</p>

	하였다. (후략)	
<p>세종 59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2월 9일 (계사) 4번째기사 성균 사예 김반이 문 묘의 동·서무와 제례 와 반궁 등에 관해 상 언하다</p>	<p>(전략) 1. 석진제(釋奠祭)의 성생(省牲)2026)·할생(割牲)2027) 하는 곳은 깨끗하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곳이 여리(閭里)와 가까우며, 원장(垣牆)도 없고 옥우(屋宇)도 없어서, 항상 닭·개·말·소 등이 더럽혀서 그 부정(不淨)함이 심하옵니다. 원컨대 집을 지어 주소(廚所)를 만들고 닭을 둘러서 그곳을 정(淨)하게 할 것입니다. (후략)</p>	<p>(전략) 一。 釋奠祭省牲割牲之處，不可不淨，今其處隣於閭里而無垣牆無屋宇，常爲雞犬牛馬之所汚，其爲不淨甚矣。 乞築室爲廚所，繚以垣牆，以淨其處。 (후략)</p>
<p>世宗 59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3月 22日 (乙亥) 2번째기사 집현전 부제학 이선을 보내어 북정의 장졸에 게 교서를 반포하다</p>	<p>(전략) 1. 대소(大小) 군사와 장수들이 술을 마시되, 취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고, 적당하게 술기운이 나도록 할 따름이며, 술을 마시고 기운을 쾌하게 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후략)</p>	<p>(전략)1. 대소(大小) 군사와 장수들이 술을 마시되, 취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고, 적당하게 술기운이 나도록 할 따름이며, 술을 마시고 기운을 쾌하게 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후략)</p>
<p>세종 59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3월 27일 (경진) 1번째기사 진위 지경에서 매 사 냥을 구경하다. 경기 감사 남지와 경력 황 수신이 하직을 고하다</p>	<p>진위(振威) 지경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였다. 경기 감사 남지와 경력 황수신은 하직을 고하고, 충청 감사 조종생(趙從生)·경력 이중(李重)·직산 현감 유형(柳衡)이 경상(境上)에서 받들어 맞이하고, 직산현 수혈원(愁歇院) 앞 평지에 차소를 정하였다. 조종생이 인해 토산물을 올리고 또 술과 안주를 올리니, 대소 신료(大小臣僚)들과 군사(軍士)들까지 나누어 내려 주었다.</p>	<p>庚辰/觀放鷹于振威之境， 京畿監司南智、經歷黃守身辭，忠淸監司趙從生、經歷李重、稷山縣監柳衡，奉迎境上。次于稷山縣愁歇院前平，趙從生仍進方物，又進酒饌，分賜大小臣僚，至于軍士。</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p>	<p>온수현의 빈궁한 사람 76명에게 벼와 콩 각 1석씩, 나이 80이상인 곤궁한 백성 9명에게 벼 2석과 콩 1석씩, 나이 70이상인 곤궁한 백성 18명에게 벼와</p>	<p>庚寅/賜溫水縣貧窮人七十六名人租豆各一石， 年八十以上窮民九名人租二</p>

<p>(宣德) 8年) 4月 7日 (庚寅) 1번째기사 온수현의 빈궁한 사람에게 곡식을 하사하다</p>	<p>콩 각 1석씩을 하사하고, 또 감사에게 명하여 토지가 행궁(行宮) 근처에 있어서 농사를 짓지 못한 자에게는 그 결복(結卜)의 수(數)로 값을 주게 하였다.</p>	<p>石、豆一石，年七十以上窮民十八名給租豆各一石。又命監司，田在行宮近地未耕者，以其結卜之數，賜直有差。</p>
<p>세종 60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4월 14일 (정유) 1번째기사 아산현의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물건을 차등있게 하사하다</p>	<p>아산현에 사는 94세의 늙은 할머니가 마떡[薯] 한 동이를 올리니, 내정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면포 두 필, 술 열 병 및 잡물을 하사하였다. 이 뒤에도 근방에 있는 노인들이 와서 채소를 올리자, 모두 음식을 먹이고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게 하였다.</p>	<p>丁酉/牙山縣九十四歲老嫗進薯蕷餅一盆，命饋于內庭，賜綿布二匹、酒十瓶及雜物。是後旁近老人來進菜蔬，皆命饋賜物有差。</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4月 15日 (戊戌) 2번째기사 사헌부에 금년 6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금주에 관하여 전지하다</p>	<p>사헌부에 전지하기를, “금년 6월 20일부터 금주를 시작하되, 그 중에 취하도록 마시지 아니한 자와, 약을 먹기 때문에 부득이 술을 마시는 자에게는 정상의 경중을 참작하여 벌을 감하고, 정상이 아주 가벼운 것과 사정이 딱한 자는 죄주지 말라.” 하였다.</p>	<p>傳旨司憲府曰： 今六月二十日始禁酒，其中飲不至醉者及因服藥等故不得已用酒者，姑量情狀輕重，末減施行。其情狀最輕及情可矜者，勿罪之。</p>
<p>세종 60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4월 26일 (기유) 3번째기사 예조에서 새 문소전의 상식은 예전 문소전의 예대로 할 것을 아뢰</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에 문소전(文昭殿)에 상식(上食)할 때에는 상에 반찬을 차려서 올렸고, 광효전(廣孝殿)에는 먼저 빈 상을 올리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새 문소전 상식은 예전 문소전의 예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前此文昭殿上食，則設饌具於案而進之，廣孝殿則先進空案而設饌具，新文昭殿上食，依舊文昭殿例。”從之。</p>

<p>다</p> <p>세종 60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5월 2일 (갑인) 1번째기사 예조에서 문소전 이안의주에 관해 아뢰다</p>	<p>(전략) 그 날,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 오른쪽에 놓고, 향로·향합 및 촛대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 제기에 제물을 담고, 준(尊)을 문밖 왼쪽에 설치한다. 이것이 끝난 다음 봉영관(奉迎官) 이하 여러 집사가 각각 제복을 입고 손을 씻고 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전정(殿庭)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삼아 사배하고 나서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 및 신위관에 글씨를 쓸 관원과 전사관, 집사들을 인도하여 배위에 들어와 서는데, 곁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 모두 네 번 절한 후 각각 제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한다. 봉영관이 네 번 절하고 나면,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탁자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대축이 태조의 신위판 궤를 받들고 들어와서, 궤를 열고 신위판을 내어 탁상에 눕혀 놓는다. 신위판을 쓸 관원이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동계로 올라가서 탁자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서, ‘유명 증시 강헌 태조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有明贈諡康獻太祖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이라고 먹으로 쓴 다음 광칠(光漆)로 여러 번 칠한다. 【먹 글씨가 마르기를 기다려서 거듭 칠한다.】 대축이 신위판을 궤 안에 넣고, 다음에 궁위령(宮闈令)이 왕후의 신위판 궤를 받들고 들어와서, 궤를 열고 신위판을 내어 탁자 위에 눕혀 놓는다. 신위판을 쓰는 관원이 먹으로 ‘승인 순성 신의 왕후(承仁順聖神懿王后)’라고 쓰고, 광칠로 거듭 칠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궁위령이 신위판을 궤안에 넣은 다음,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을 받들고 초상화 앞에 남향으로 모신다. 【욕석(褥席)이 있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유사가 제찬을 다 차리면,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으로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p>	<p>(전략) 其日,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奠祝版於神位之右, 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 訖, 奉迎官以下諸執事, 各具祭服盥洗訖, 謁者贊者先就殿庭, 北向西上四拜訖就位. 謁者引監察及題神主位版官典祀官諸執事, 入就拜位, 重行北向西上. 立定, 贊者曰: “四拜.” 監察以下皆四拜訖, 各就位. 謁者引奉迎官入就位西向立, 贊者曰: “四拜.” 奉迎官四拜訖, 謁者引奉迎官詣卓南北向立. 大祝奉太祖神位版匱以入, 開匱奉出神位版, 臥置卓上. 題神位版官詣盥洗位盥洗訖, 升自東階, 詣卓前西向立, 題云: “有明贈諡康獻太祖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 墨書訖, 以光漆重模之, 【待墨書乾重模】大祝奉神位版, 安于匱中. 次宮闈令奉王后神位版匱以入, 開匱奉出神位版, 臥置卓上, 題神位版官題云: “承仁順聖神懿王后.” 墨書訖, 以光漆重模之, 降復位. 宮闈令奉神位版, 安于匱中訖, 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安于(睟) [睟] 容前【有褥席】南向, 謁</p>
---	---	---

는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끓어앉아 홀(笏)을 꽂으라.’고 찬한다. 봉영관이 끓어앉아 홀을 꽂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香合)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한다. 봉영관이 세 번 향을 올리면, 집사자가 향로를 상에 놓는다. 【향합을 받드는 사람은 봉영관의 오른쪽에 있고, 향로를 드리는 사람은 봉영관의 왼쪽에 있다. 술잔을 주는 사람과 술잔을 드리는 사람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봉영관에게 술잔을 주면, 봉영관이 술잔을 잡아서 올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놓는다. 또 집사자가 다음 술잔을 봉영관에게 주면, 봉영관이 술잔을 잡아서 올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앉으라.’고 찬하면, 대축(大祝)이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끓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그것이 끝나면, 알자가 ‘부복, 흥, 재배, 흥, 평신’이라 찬한다. 봉영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사배하라.’ 찬하면, 봉영관이 네 번 절한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나가서 옷을 벗고, 대문 밖 길 동쪽에 나아가 서향하여 봉영한다. 알자가 감찰과 신위관에 글씨 쓴 관원, 전사관(典祀官) 및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拜位)에 돌아오면, 찬자가 ‘사배하라.’ 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나면, 알자가 차례로 인도해 나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신위관을 거두어 들이면, 알자와 찬자가 배위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소속을 거느리고 제물을 거두고 축판(祝版)을 구덩이에 묻는다. 태조의 신위관이 새 문소전에 나아갈 적에 하루 앞서, 상연(尙輦) 【병조 승여사(乘輿司).】에서 상로(象輅)·염적(厭翟)·요여(腰輿)·향정자(香亭子)·의장(儀仗) 등을 구 문소전 대문 밖에 갖다 놓는다. 그날, 동가(動駕)를 고하는 제사를 마치고, 유사는 옥위(褥位) 둘을 전상(殿上) 중문 밖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者引奉迎官，降復位。有司進饌訖，謁者引奉迎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奉迎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奉迎官跪搯笏。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奉迎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奉迎官之右，奠爐在奉迎官之左。授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奉迎官，奉迎官執盞獻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又執事者以副盞授奉迎官，奉迎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再拜興平身，奉迎官俯伏興再拜興平身，謁者引奉迎官，降自東階復位。贊者曰：“四拜。”奉迎官四拜。謁者引奉迎官出釋服，就大門外道東西向奉迎。謁者引監察及題神位板官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謁者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神位板，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率其屬徹禮饌，祝版瘞於坎。太祖神位版詣新文昭殿：前一日，

집사자는 요여 둘을 옥위 위에 놓는데, 【태조의 요여는 서쪽에 두고 왕후의 요여는 동쪽에 둔다.】 산·선이 들어와 전정 좌우에 벌여 선다. 또 옥위 둘을 대문 밖에 설치하고, 상로와 염적을 그 앞에 남향으로 놓으며, 【상로는 오른쪽에 있고, 염적은 왼쪽에 있다.】 의장과 악부(樂部)는 그 남쪽에 선다. 시간이 되면 섭(攝)판통례가 태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아뢰기를, ‘자리에서 내려 요여를 타고 새 문소전에 나아가소서.’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면, 대축이 태조의 신위관 궤를 받들어서 요여에 모시고, 그 다음 궁위령이 왕후의 신위관 궤를 받들어 요여에 모신다. 대축은 태조의 초상화를 견고, 궁위령은 왕후의 초상화를 견어서 각각 함에 넣어 자리에 놓는다. 【종부시(宗簿寺) 관원은 신위관 요여가 대문에 나간 뒤 요여 둘에 초상화를 모시어 선원전(璿源殿)에 간직한다.】 집사자가 신여(神輿)를 메고 나오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붙들어 모시고 상로와 염적 뒤에 있는 옥위 위에 놓는다. 섭판통례가 태조의 신여(神輿) 앞에 꿇어앉아 여(輿)에서 내려 노(輅)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대축이 태조의 신위관 궤를 받들어 노 위에 얹히고, 다음에 궁위령이 왕의 신위관 궤를 받들어 염적 위에 얹힌뒤, 천우 장군(千牛將軍)이 노를 양쪽에서 모시고 간다. 【태조의 노(輅)가 앞에 가고, 왕후의 염적이 그 다음에 가는데, 각각 의장과 악부가 따른다.】 섭판통례가 노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조금 머물러서 봉연관에게 말을 타라고 명령하소서.’ 하고 아뢴 다음, 봉연관이 말에 올라 앞을 인도하고, 섭판통례가 꿇어앉아 노가 떠나기를 계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노가 진발(進發)하면 고취(鼓吹)를 울린다. 경복궁 광화문 밖 봉영소(奉迎所)에 이르러 봉영관이 말에서 내린다. 상로와 염적이 이르면, 군관(群官)들은 몸을 굽혔다가 지나간 뒤 바로 선다. 상로와 염적이 가까이 오게 되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봉영하는 자리에 나아가간다. 상로와 염적이 도착하면, 판통례가 국궁할 것을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몸을 굽

尙輦【兵曹乘輿司】進象輅、厭翟、腰輿、香亭子、儀(伏)〔仗〕於舊文昭殿大門外。其日，告動駕，祭畢，攸司設褥位二於殿上中戶外南向。執事者以腰輿二置於(於)褥位上。【大祖輿在西，王后輿在東。】織扇入陳於殿庭左右，又設褥位二於大門外，置象輅厭翟於其前南向，【象輅在右，厭翟在左。】儀仗樂部立於其南。時至，攝判通禮入詣太祖神位前，跪啓請降座乘輿，詣新文昭殿，啓訖，俯伏輿退。大祝奉太祖神位版匱，安於輿上。次宮闈令奉王后神位版匱，安於輿上。大祝撤太祖睟容，宮闈令撤王后睟容，各至于函，置于座。【宗簿寺官員待神位版腰輦出大門，以要輿二，奉安睟容，藏于璿源殿。】執事者奉昇神輿而出，大祝宮闈令各扶侍，至象輅厭翟後褥位上小駐。攝判通禮詣太祖輿前跪，啓請降輿升輅，啓訖俯伏輿退。大祝奉太祖神位版匱升厭翟，次宮闈令奉王后神位版匱升厭翟，千牛將軍夾輅而趨。【太祖輅先行，王后厭翟次之，各有儀仗樂部。】攝判通禮進當輅前跪，啓請輅小駐，教奉迎官上馬，啓訖，奉迎官

한다. 상로와 엄적이 지나가면, 판통례가 몸을 바로 할 것을 아뢰어 전하가 몸을 바로 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대차(大次)에 돌아와 태종의 상로가 이르기를 기다린다. 태조의 상로가 광화문에 이르면 상로를 돌려서 남향하게 하고, 상연(尙輦)에서 상로와 엄적 뒤에 있는 옥위 위에 올려놓는다. 【유사가 임시하여 옥위 둘을 마련한다.】 섭판통례가 상로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상로에서 내려 요여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앞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궤를 받들고 요여 위에 옮겨 모시기를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신여가 새 문소전 남문에 이르면, 고취를 그친다. 좌우로 나누어 【의장 등은 모두 문소전 남문 밖에 좌우로 벌여 서 있다가,安神祭(安神祭)를 마친 다음 물러간다.】 신여가 정문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길을 지나 전상(殿上)의 중문 밖 옥위 위에 이르면, 【유사가 임시(臨時)하여 옥위 둘을 마련한다.】 섭판통례가 신여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요여에서 내려 좌(座)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앞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궤를 받들어서 좌석에 남향으로 모시되, 서쪽을 뒷자리로 한다.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산·선과 화개를 받들어 신좌(神座) 앞 좌우에 설치하고, 요여는 동계로 내려와 동문으로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동계로 내려와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서서 태종 신위판의 부사(祔祀)를 기다린다.

광효전(廣孝殿)에서 태종의 신위판을 문소전으로 이안(移安)하는 것을 고하는 의식은 태조의 이안 의식과 같고, 동가(動駕)를 고하는 의식도 태조의 의식과 같은데, 다만 신위판에 쓰는 절차만 없다. 태종 신위판이 문소전에 나아가는 의식은 태조 신위판이 새 문소전에 나아가는 의식과 같다. 【다만 초상화를 걷는 절차가 없고, 고취는 대문에 이르러 그치고, 좌우에 나누어 있는 의장 등은 모두 대문 밖에 이르러 좌우에 벌여 섰다가,安神제를 마친 다음 물러간다.】 처음 충효위에서 태종 신위판이 임시로 머물 악차(幄次)를 새 문소전

上馬前導。攝判通禮跪，啓請輅進發，啓訖俯伏興退。輅進發，鼓吹振作，至景福宮光化門外奉迎所，奉迎官下馬。輅及厭翟至，群官(鞫)[鞠]躬，過則平身。輅及厭翟將至，判通禮導殿下，就奉迎位，輅及厭翟至，判通禮啓鞠躬，殿下鞠躬，輅及厭翟過，判通禮啓平身，殿下平身。判通禮導殿下還入大次，以俟太宗象輅至。太祖輅至光化門，回輅南向，尙輦以腰舉進輅及厭翟後褥位上。【攸司臨時設褥位二】攝判通禮進當輅前跪，啓請降輅乘輿，啓訖俯伏興退。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輿上如前儀。神輿至新文昭殿南門，鼓吹止，分左右。【其儀仗等，並於殿南門外左右列立，以俟安神祭畢退。】神輿入自正門，由中道至殿上中外戶褥位上，【攸司臨時設褥位二。】攝判通禮進神輿前跪，啓請降輿升座，啓訖俯伏興退。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座南向，以西爲上。殿司帥其屬奉扇蓋，設於神座前左右，腰輿降自東階，由東門出。大祝宮闈令，降自東階近東西向立，以俟太宗神位版附廣孝殿。告移安文昭殿

남문 밖 길 서쪽에 동향으로 마련하고, 유사가 상석(床席)과 옥위 둘을 악차 안에 설치한다. 신여가 전(殿)의 남문 밖 악차 앞에 이르면, 섭관통례가 태조의 신여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요여에서 내려 악차에 들어갈 것을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케를 받들어 악좌(幄座)에 모시고, 【태종 신위판 케는 북쪽에 두고, 왕후의 신위판 케는 남쪽에 둔다.】 산·선은 악차 앞에 벌인다. 대축과 궁위령이 동계로 올라와 태조실에 나아가서, 대축은 케를 열고 태조의 신위판을 받들어 내어 좌(座)에 안치하고, 【서쪽에 둔다.】 다음 궁위령이 케를 열고 왕후의 신위판을 받들어 내어 좌에 안치하고는 【동쪽에 둔다.】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함께 물러나와 자리로 돌아온다. 섭관통례가 태종의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아뢰기를, ‘좌에서 내려 요여를 타고 부알(祈謁)하소서.’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대축이 태종의 신위판 케를 요여에 모시고, 궁위령이 왕후의 신위판 케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나서, 구부렸다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섭관통례가 앞을 인도하여 전(殿) 남문에 이르면, 산·선은 문밖에 멈추어 벌여 둔다. 【시위(侍衛)하는 관리는 모두 물러간다.】 집사자 【내시별감(內侍別監).】 가 신여를 모시고 정문(正門)으로 들어가서 부알하는 옥위에 이르면, 【유사가 임시하여 옥위(褥位) 둘을 전정(殿庭) 한가운데 북향으로 마련하고, 태종 신위판 케는 서쪽에 두고, 왕후의 신위판 케는 남쪽에 둔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케를 받들어 옥위에 놓고 케를 열면, 대축이 태종의 신위판을 받들어 내고, 다음으로 궁위령이 왕후의 신위판을 받들어 낸다. 섭관통례가 옥위의 서쪽에 나아가서 북쪽으로 향하여 꿇어앉아서 아뢰기를, ‘지금 길한 때에 태종 공정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과 창덕 소열 원경 왕후(彰德昭烈元敬王后)를 부알(祈謁)합니다.’ 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조금 있다가 섭관통례가 옥위의 서쪽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서 좌(座)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儀，與太祖移安儀同，告動駕，與太祖告動駕儀同，唯無題神位版之節。太宗神位版詣文昭殿，與太祖神位版詣新文昭殿儀同。【唯無徹睟(谷) [容] 之節，其鼓吹至大門而止，分左右。儀仗等，並於大門外左右列立，俟安神祭畢退。】初，忠扈衛設太宗神位版、權駐幄次於新文昭殿南門外道，西東向，攸司設床席褥位二於幄內。神輿至殿南門外幄前，攝判通禮詣太宗輿前跪，啓請降輿入幄，啓訖俯伏輿退。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幄座，【太宗神位版匱在北，王后神位版匱在南。】繖扇列於幄前。大祝宮闈令升自東階，詣太祖室，大祝開匱，奉出太祖神位版設於座，【在西】次宮闈令開匱，奉出王后神位版設於座，【在東】俯伏輿俱退復位。攝判通禮進當太宗幄前跪，啓請降座乘輿祈謁，啓訖俯伏輿。大祝奉太宗神位版匱安于輿，宮闈令奉王后神位版匱安于輿訖，俯伏輿退。攝判通禮前引至殿南門，繖扇停列於門外。【侍衛官吏，皆退。】執事者【內侍別監】陪神輿，入自正門至祈謁褥位，【攸司臨時設褥位二於殿庭當中北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대축과 궁위령이 옥위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각각 신위판을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그 کے의 뚜껑도 요여 위에 뒤로 가까이 놓는다.】 가운데 계단으로 올라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인도하여 동쪽 문밖 옥위 위에 이르면, 【유사가 임시로 옥위 둘을 마련한다.】 각각 신위판을 받들어 좌에 모시되, 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요여는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 동쪽 문으로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태조실과 태종실에 나아가서 신위판을 거두어 들고 물러나온다. 처음에 태종의 신여가 광화문에 들어오면, 판통례가 대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여를 타고 소차(小次)로 나가소서.’ 하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여에 오르는데, 산·선과 화개의 시종(侍從)은 보통 때와 같다. 새 문소전 대문 밖에 이르러 소차에 들면, 시위하는 관원의 시위도 보통 때와 같다. 태종 신위판의 부알례(附謁禮)가 끝나고 나면, 판통례가 소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여를 타고 임시로 재전에 나가소서.’ 하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여를 타고, 판통례가 앞을 인도하여 임시로 재전에 나아간다. 산·선과 화개의 시위는 보통과 같다.

안신제(安神祭)의 의식은, 재계(齋戒)를 제사전 3일 동안 하되, 전하는 산재(散齋)를 2일, 치재(致齋)를 1일 한다. 산재에는, 조상(弔喪)하지 아니하고, 문병하지 아니하며,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유사는 형살 문서(刑殺文書)를 아뢰지 아니하며, 치재에는, 오직 제사에 관한 일만 아된다. 제사 일을 맡은 집사관(執事官)과 근시관(近侍官)으로 반드시 따라올 사람은 모두 산재 2일, 치재 1일을 행한다. 산재에는 일은 여전히 하되, 다만 술을 많이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달래 등을 먹지 아니하고, 조상과 문병을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의 판결과 서명(署名)을 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치재에는 오직 제사일만 행한다. 이미 재계를 하고서 꺾(闕)한 사람이 있게 되면 대리를 통하여 행사한다. 배제(陪祭)하는 종실 및 문무 여러 관원과, 모든 시위하는 무리와, 전문을

向, 太宗神位版置在西, 王后神位版置在東。】(闈)大祝宮闈令各奉匱, 安於褥位開匱, 大祝奉出太宗神位版, 次宮闈令奉出王后神位版訖, 攝判通禮進褥位, 西北向跪啓稱: “今以吉辰, 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彰德昭烈元敬王后祔謁。” 啓訖, 府伏興退。小頃, 攝判通禮進褥位之西, 東向跪, 啓請升座, 啓訖俯伏興退。大祝宮闈令進跪於褥位, 各奉神位版安於輿, 【其匱蓋, 亦置輿上近後。】升自中階, 大祝宮闈令奉引至東戶外褥位上, 【攸司臨時設褥位二】各奉神位版, 安於座西向, 以北爲上。腰輿降自東階, 由東門出, 大祝宮闈令詣太祖室、太宗室, 納神位版乃退。初, 太宗神輿入光化門, 判通禮進大次前跪, 啓請乘輿詣小次, 殿下乘輿, 繖扇華蓋侍從如常。至新文昭殿大門外入小次, 侍衛之官侍衛如常。待太宗神位版祔謁禮訖, 判通禮進小次前跪, 啓請乘輿, 權就齋殿。殿下乘輿, 判通禮前導, 權就齋殿, 繖扇華蓋侍衛如常。安神祭儀: 齋戒: 前享三日, 殿下散齋二日, 致齋

수위하는 자 및 공인들은 모두 청재(淸齋)로서 하룻밤을 지낸다. 【향관(享官) 이하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제사하기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제사 준비는 그날 하되, 태종 신위관의 부알례를 마친 다음, 전악(典樂)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악부(樂部)를 두 곳에 설치한다. 하나는 전상(殿上)에 두고, 하나는 전정(殿庭)의 서쪽 가까이 두되, 모두 북향으로 한다. 통례문이 전하의 판위(版位)를 동쪽 계단 동남편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의 자리는 전하의 판위 뒤에 남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통찬 두 사람의 자리는 동쪽 계단 서편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만약 내정(內庭)이 협착하면 외정(外庭)의 통찬 계단 서남편에 서향으로 마련 한다.】 전악의 자리는 악부의 북쪽에 북향으로 마련하고, 배제하는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마련하되, 문관 1품 이하는 길 동쪽으로 하고, 종실 및 무관 1품 이하는 길 서쪽으로 하여,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 하고 겹줄로 북향하게 하되, 상대하여 윗자리로 한다. 【종실 각품의 반두(班頭)는 따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大君)은 특별히 정1품 앞에 자리에 베푼다.】 감찰 두 사람의 자리는 문무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서리가 각각 그 뒤에 배종한다. 구덩이는 후전(後殿) 북쪽 임방(壬方)에 파되, 깊이는 물건이 넉넉히 들어가게 파고 남쪽으로 섬돌을 낸다. 교서관의 관원이 축관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이 전해 받아서 전하께 올리고, 전하의 서압(署押)이 끝나면, 근신이 받들고 나와서 전사(殿司)에게 전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祝版)을 하나씩 각실(各室)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각각 점(楛)이 있다.】 향로·향합을 초와 함께 신위 앞에 설비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담을 제찬을 설비하고, 준(尊)을 각실 문 밖에 왼쪽으로 설치하고, 복주잔(福酒盞) 하나를 태조실의 준소(尊所)에다 둔다. 행례할 시각이 되면,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다 담는다. 모든 향관(享官)과 배제(陪祭)하는 종실 및 문무

一日。凡散齋，不弔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事。凡行事執事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二日，致齋一日。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陪祭宗室文武群官諸侍衛之屬守衛殿門者及工人，俱清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陳設：其日，太宗神位版附謁禮訖，典樂率其屬設樂部二，一於殿上，一於殿庭近西，俱北向。通禮門設殿下版位於東階東南，西向，設亞獻官終獻官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西向北上，設通贊二人位於東階之西，西向，【若內庭狹窄，則設於外庭東階西南，西向。】設典樂位於樂部之北，北向，設陪祭宗室及文武群官位於外庭，文官一品以下於道東，宗室及武官一品以下於道西，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宗室，每品班頭別設位；大君，特設位於正一品之前。】設監察位二於文武班後、北向，書吏各陪其後。開瘞坎於後殿之北壬

여러 관원들은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가고, 전악(典樂)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배제하는 종실 및 문무 여러 관원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아헌관·종헌관이 관세를 마치면, 봉례랑이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태조실에 나아가서 궤를 열고 신위판을 받들어 내어 좌(座)에 모시고, 【태조 신위판은 대축이 받들어 내고, 왕후의 신위판은 궁위령이 받들어 낸다.】 다음으로 태종실에 나아가서 신위판을 받들어 내는 것은 태조실의 의식과 같다. 판통례가 꿇어앉아서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아뢰면, 전하가 관세를 하고, 이를 마치면, 찬례(贊禮)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간다. 【시위하는 사람으로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문밖에서 정지한다.】 풍악을 연주한다. 【전정악(殿庭樂).】 전하가 판위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면, 풍악을 그친다. 찬례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계청(啓請)하면, 전하는 몸을 굽혔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혔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풍악 【전정악.】 을 연주한다. 동계로 다 올라가면, 풍악을 그친다. 태조실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풍악 【전정악.】 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근시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중문으로 들어와서 태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으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꿇어앉는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린다. 찬례가 ‘삼상향(三上香)하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세 번 향을 올리고, 근시가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향합을 올리는 이는 동쪽에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서쪽에서 동향한다. 술잔을 올리는 이와, 술잔을 드리는 이도 이와

地方, 深取足容物, 南出陞。 校書官員以祝版奉進, 近臣傳奉以進, 殿下署訖, 近臣奉出付殿司。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奠祝版各一於各室神位之右, 【各有坫】 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之前, 次設祭器實饌具, 設尊於各室戶外之左, 設福酒盞一於太祖室尊所。 行禮: 時至,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實饌具畢, 諸享官及陪祭宗室文武群官, 皆就殿門外, 典樂帥工人入就位, 奉禮郎分引陪祭宗室及文武群官入就位。 亞獻官終獻官盥帨訖, 奉禮郎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 大祝宮闈令詣太祖室開匱, 奉出神位版設於座, 【太祖神位版, 大祝奉出; 王后神位版, 宮闈令出奉。】 次詣太宗室, 奉出神位版, 如太祖室儀。 判通禮跪啓外辦, 殿下盥帨訖, 贊禮導殿下, 入自東門, 【侍衛不應入者, 止於門外。】 樂作, 【殿庭樂】 殿下至版位西向立, 樂止, 贊禮啓請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殿下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通贊贊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贊禮導殿下, 樂作。 【殿庭樂】 升自東階

같이 한다.】 근시 한 사람이 술잔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면, 찬례가 ‘잔을 받아서 잔을 드리라.’고 계청한다. 전하가 술잔을 받아서 드리되,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서 태조의 신위 앞에 올리고, 또 근시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면, 찬례가 ‘잔을 받아서 드리라.’고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술잔을 잡아서 드리되,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찬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라.’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고, 풍악을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풍악을 연주한다. 찬례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계청(啓請)하여,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문으로 나가서 태종실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풍악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근시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태종실 신위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서면, ‘꿇어앉으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꿇어앉는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찬례가 ‘삼상향하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세 번 향을 올리면, 근시는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향합을 올리는 이는 남쪽에서 북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북쪽에서 남향한다. 술잔을 올리고 드리는 이도 이와 같이 한다.】 근시 한 사람이 술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찬례가 ‘잔을 받아서 헌작하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술잔을 받아서 근시에게 주어 태종 신위 앞에 드리고, 또 근시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꿇어앉아 올리면, 찬례가 ‘술잔을 받아서 헌작하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술잔을 받아서 드리되,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올린다. 찬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향하여 꿇어앉으시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訖, 樂止。詣太祖室尊所西向立, 樂作, 【殿庭樂】執尊者酌酒, 近侍二人以盞受酒。贊禮導殿下, 由中戶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 啓請跪, 殿下跪, 近侍一人奉香合跪進, 近侍一人奉香爐跪進, 贊禮啓請三上香, 殿下三上香, 近侍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 奠爐在西東向。進盞奠盞, 準此。】近侍一人奉盞跪進, 贊禮啓請執盞獻盞, 殿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太祖神位前。又近侍一人以副盞跪進, 贊禮啓請執盞獻盞, 殿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王后神位前。贊禮啓請俯伏興小退北向跪, 殿下俯伏興小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 東向跪讀祝文訖, 樂作, 贊禮啓請俯伏興拜興拜興平身, 殿下俯伏興拜興拜興平身。樂止, 贊禮導殿下出戶, 詣太宗室尊所西向立, 樂作, 執尊者酌酒, 近侍二人以盞受酒。贊禮導殿下, 由東戶入詣太宗神位前, 東向立, 啓請跪, 殿下跪, 近侍一人奉香合跪進, 近侍一人奉香爐跪進, 贊禮啓請三上香, 殿下三上香, 近侍奠爐于案。【進香在南北向, 奠爐在北南向。進盞奠盞準

서 조금 물러나 동향하여 꿇어앉고, 풍악을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남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풍악을 연주한다. 찬례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문에서 나와, 음악【전정악(殿庭樂).】을 연주한다.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풍악을 그친다. 봉례랑이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봉례랑은 계단 밑에서 정지한다.】 태조실의 준소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풍악【전정악.】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아헌관이 중문으로 들어가서 태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고,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받아서 드리되, 집사자에게 주어서 태조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받아서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 신위 앞에 드린다. 아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문으로 나와 태종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풍악을 시작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아헌관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태종의 신위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고,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종의 신위 앞에 드리고,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아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문으로 나와 동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봉례랑이 중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집사자가 음복위를 앞 기둥 밖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고, 대축이 태조실의

此。】近侍一人奉盞跪進，贊禮啓〔請〕執盞獻盞，殿下執盞獻盞，以盞授近侍，奠于太宗神位前。又近侍一人以副盞跪進，贊禮啓請執盞獻盞，殿下執盞獻盞，以盞授近侍，奠于王后神位前。贊禮啓請俯伏興小退東向跪，殿下俯伏興小退東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南向跪讀祝文訖，樂作，贊禮啓請俯伏興拜興拜興平身，殿下俯伏興拜興拜興平身。樂止，贊禮導殿下出戶，樂作，【殿庭樂】降自東階復位。樂止，奉禮郎引亞獻官，升自東階，【奉禮郎止於階下。】詣太祖室尊所，西向立，樂作，【殿庭樂】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亞獻官由中戶，入詣太祖神位前北向跪，執事者一人，以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祖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亞獻官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樂止，出戶詣太宗室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亞獻官由東戶入詣太宗神位前東向跪，執事者一人以盞授亞獻官，亞獻

준소 앞에 나아가 술잔에 복주(福酒)를 쳐서 근시에게 준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풍악【전정악.】을 연주한다. 동계로 올라와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근시가 술잔을 받들어 북향으로 꿇어앉아서 술잔을 올린다. 찬례가 ‘꿇어앉아 술잔을 받으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꿇어앉아 술잔을 받아서 마시고, 근시가 빈 술잔을 받아서 준소에 도로 놓는다. 찬례가 ‘부복, 흥, 평신’이라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풍악을 그친다. 찬례가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혔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몸을 굽혔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예식 마친 것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으로 돌아간다. 풍악【전정악.】을 연주한다. 문을 나가면 풍악을 그친다. 봉례랑이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아가간다. 봉례랑이 배제한 종실 및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전악이 공인들을 거느리고 나간다. 대축과 궁위령은 신위판을 거두어 들인다. 처음 집사자가 요여를 동쪽 계단 동편에 매실(每室)에 각각 둘씩 준비하되, 모두 서향으로 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대축과 궁위령이 신위판을 다 거두어 들이면, 집사자가 각각 요여를 받들고【대왕의 요여는 내시원(內侍院), 왕후의 요여는 내시부(內侍府).】동계로 올라와 태조실과 태종실 문밖에 나아가간다. 대축이 각각 태조와 태종실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어좌에서 내려와 요여를 타고 후전(後殿)으로 나아

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宗神位前，執事者一人以副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亞獻官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樂止，出戶降自東階復位。奉禮郎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太祖室尊所，以盞酌福酒授近侍，贊禮導殿下，樂作，【殿庭樂】升自東階，詣飲福位西向立，近侍奉盞北向跪進，贊禮啓請跪受盞，殿下跪受盞飲訖，近侍受虛盞，復於尊所。贊禮啓請俯伏興平身，殿下俯伏興平身，贊禮導殿下降復位。樂止，贊禮啓請鞠躬拜興拜興平身，殿下鞠躬拜興拜興平身。通贊贊鞠躬拜興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平身。贊禮啓請〔鞠〕鞠躬拜興拜興拜興平身，殿下〔鞠〕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贊禮啓禮畢，導殿下還齋殿。樂作，【殿庭樂】出門，樂止，奉禮郎引亞獻官、終獻官出。奉禮郎分引陪祭宗室及文武群官以次出，典樂帥工人

	<p>가라. '고 아뢰어 청한다. 아뢰고 나서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관 케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면, 집사자는 차례로 짚어지고 후전(後殿) 각실(各室)의 문밖에 나아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관 케를 받들고 좌석에 모시되, 모두 남향으로 하고 서쪽을 뒷자리로 한다. 전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산선과 화개를 받들어 각실 앞에 설치하고,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나온다.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축관을 구덩이에 묻는다. 전하는 여(輿)를 타고 내전으로 돌아오는데, 시위는 올 때와 같다.”</p> <p>하였다.</p>	<p>出，大祝宮闈令納神位版。初，執事者陳腰輿於東階之東，每室各二，皆西向北上。大祝宮闈令納神位版訖，執事者各奉腰輿，【大王輿，內侍院；王后輿，內侍府。】升自東階，詣太祖、太宗室戶升。大祝各詣太祖、太宗室前跪，啓請降座乘輿，詣後殿，啓訖俯伏輿。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輿，執事者〔以〕次奉昇，詣後殿各室戶外，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座，俱南向，以西爲上。殿司帥其屬，奉繖蓋設於各室前，闔戶以降乃退。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版瘞於坎，殿下乘輿還內，侍衛如來儀。</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5月 3日 (乙卯) 8번째기사</p> <p>예조에서 양로연에 관해 아뢰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에 주·부·군·현의 양로연(養老宴)에 부녀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벼슬이 있는 사람의 아내에게는 쌀 한 섬과 술 다섯 병을 주고, 벼슬이 없는 사람의 아내에게는 쌀 두 섬과 술 세 병을 주고, 아울러 어육(魚肉)을 갖추어서 그 집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양로연인데 지방이라고 다르게 할 수는 없사오니, 서울의 예에 의하여 수령에게 남녀별로 짐을 달리 하여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대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前此州府郡縣養老宴，婦女則勿令聚會，有職人妻給米一石、酒五瓶，無職人妻給米二石、酒三瓶，竝備魚肉，給送其家。然均是養老宴，不可京外有異，乞依京中例，令守令，男女異廳設宴饋餉。”從之。</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5月 4日 (丙辰) 3번째기사</p>	<p>예조에서 문소전의 사시 및 납일(臘日)과 속절(俗節)에 섭행(攝行)하는 의주(儀注)를 아뢰기를, “재계(齋戒)는 제사 3일 전부터 하는데,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산재(散齋)를 이틀, 치재(致齋)를 하루 한다. 산재는 사무를 전과 같이 보되,</p>	<p>禮曹啓文昭殿四時及臘俗節攝行儀注：齋戒：前享三日，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p>

예조에서 문소전의 사시 및 납일과 속절에 섭행하는 의주에 관해 아뢰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달래 등을 먹지 아니하며, 조상(弔喪)과 문병을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의 판결과 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치재에는 오직 제사일만 행한다. 이미 재계를 하고서 궐(闕)한 사람이 있게 되면 대리를 통하여 행사한다. 전문(殿門)을 수위하는 자와 공인들은 모두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지낸다. 【향관(享官) 이하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제사하기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진설(陳設)은 제사 이틀 전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殿) 안팎을 청소하고, 하루 전에 전악(典樂)이 악부(樂部) 둘을 전전(前殿)의 전상(殿上)과 전정(殿庭)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으로 한다. 유사(虞史)는 헌관(獻官)의 자리를 동계 동남편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정하되, 겹줄로 서행으로 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서 배종한다.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동계 서쪽에 정하되,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전악의 자리는 전상(殿上)과 전정(殿庭)의 악부 북쪽에 북향으로 마련한다.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 안팎을 청소한다. 제사하는 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가 전전(前殿)의 감실(龕室)을 열고 신악(神幄)과 자리를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신위의 오른쪽에 축판(祝版)을 각각 하나씩 드리고, 【각각 점(坫)이 있다.】 향로·향합과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와 제찬 담은 그릇을 설치하고, 준(尊)은 문밖 왼쪽에 설치하며, 복주(福酒)잔 하나를 태조실 존소(尊所)에 설치한다. 행례(行禮)는 제삿날 행사하기 3각(刻) 전에, 전사가 전전을 열고 신악(神幄)과 자리를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다 담고난 다음,

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與穢惡事, 致齋, 唯行享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守衛殿門者及工人, 俱淸齋一宿。 【享官以下凡與祭者, 皆前享二日, 沐浴更衣。】 陳設: 前享二日, 殿司帥其屬, 掃除殿之內外。 前一日, 典樂設樂部二於前殿, 殿上殿庭, 俱北向。 有司設獻官位於東階東南, 西向, 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 西向北上, 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 西向, 書吏陪其後, 謁者、贊者、贊引位於東階之西, 俱西向北上, 設典樂位於殿上殿庭樂部之北, 北向。 殿司帥其屬, 掃除殿之內外。 享日未行事前, 殿司開前殿龕室, 整拂神幄鋪筵如常儀。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 【各有坫】 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 設福酒盞一於太祖尊所。 行禮: 享日未行事前三刻, 殿司開前殿, 整拂神幄鋪筵如常儀。 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 實饌具畢。 前二刻, 獻官以下各(其) [具] 祭服, 皆就前殿門外。 贊引引監察點視陳設。 前一刻, 獻官以下諸執事盥洗訖。 初,

2각 전에 현관 이하가 각각 제복을 갖추고 모두 전전 문밖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진설한 제물을 검사한다. 1각 전에 현관 이하 여러 집사들이 손을 씻는다. 처음 집사자가 각각 요여를 받들어 【대왕의 요여는 내시원(內侍院), 왕비의 요여는 내시부(內侍府).】 후전 각실의 문밖에 각각 들씩 설치하되, 모두 남향으로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례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집사자가 차례로 받들고 전전 문밖에 나아간다. 대축은 태조의 신위판례를 받들고, 궁위령은 왕후의 신위판례를 받들어 중문으로 들어가서 감실에 모시되, 남향으로 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전사는 그 소속을 거느리고 산·선과 화개를 받들어 신좌(神座) 앞 좌우에 설치하고, 다음은 대축이 태종의 신위판례를 받들고, 궁위령은 왕후의 신위판례를 받들고 동쪽 문으로 들어와 감실에 모시되, 서향으로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그 요여는 동계로 내려와 동계의 동편에 두되, 서향으로 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대축과 궁위령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모두 문밖으로 나아간다. 알자와 찬자와 찬인은 먼저 전정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한 다음 각각 자리에 나아가고, 전악이 악공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여러 집사자를 인도하여 전정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윗자리로 하고 겹줄로 선다. 다 정렬한 다음,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차례로 례를 열고 신위판을 받들어 내어 좌석에 모신다. 알자가 현관을 인도하고 들어와서 서향으로 서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현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현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태

執事者各奉腰輿，【大王輿， 內侍院；王后輿， 內侍府。】陳於後殿各室戶外，每室各二，皆南向西上。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輿，執事者以次奉昇，詣前殿戶外，大祝奉太祖神位版匱，宮闈令奉王后神位版匱，由中戶入，安於龕室，南向西上。殿司帥其屬奉扇蓋，設於神座前左右，次大祝奉太宗神位版匱，宮闈令奉王后神位版匱，由東戶入，安於龕室，西向北上。【其腰輿，降自東階，置於東階之東，西向北上。】大祝宮闈令俯伏輿，皆出就門外。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典樂帥工人入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鞠躬拜輿拜輿拜輿拜輿拜輿平身。”監察以下皆鞠躬拜輿拜輿拜輿拜輿拜輿平身，贊引引監察以下各就位。大祝宮闈令以次開匱，奉出神位版設於座。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贊者曰：“鞠躬拜輿拜輿拜輿拜輿拜輿平身。”獻官鞠躬拜輿拜輿拜輿拜輿拜輿平身。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太祖尊所西向立，樂作【殿上樂】執尊者酌

조의 준소(尊所)에 나아가 선다. 풍악을 연주한다. 【전상악(殿上樂).】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중문으로 들어와 태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선다. 찬자가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찬하면, 헌관이 끓어앉아 홀을 깨끗한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함을 받들고,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여, 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리면, 집사자가 향로를 향안에 올려놓는다. 【향함을 받드는 사람은 동쪽에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사람은 서쪽에서 동향한다. 술잔을 주는 사람과 술잔을 드리는 사람도 이와 같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잡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조의 신위 앞에 놓는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앉으라.’고 찬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앉는다. 풍악을 그친다. 대축이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으로 끓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풍악을 시작한다. 알자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태종의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면, 풍악을 시작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태종 신위 앞에 나아가 동향으로 서서,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고 찬하면, 헌관이 끓어앉아 홀을 깨끗한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함을 받들고,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하라.’고 찬하고, 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리고, 집사자가 향안에 향로를 올려놓는다. 【향함을 받드는 사람은 남쪽에서 북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사람은 북쪽에서 남향한다. 술잔을 주는 사람과 술잔을 드리는 사람도 이와 같다.】 집사자 한

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由中戶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獻官跪搯笏。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獻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授盞奠盞，準此。】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祖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少退北向跪，獻官執笏，俯伏興少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俯伏興拜興拜興平身，獻官俯伏興拜興拜興平身。樂止，謁者引獻官出戶，詣太宗尊所西向，樂作，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由東戶入，詣太宗神位前東向立，贊跪搯笏，獻官跪搯笏，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獻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南北向，奠爐在北南向。授盞奠盞，準此。】執事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宗神位前。又執事者一人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태종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하고,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잡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향으로 꿇어앉으라.’고 찬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향으로 꿇어앉는다. 풍악을 그친다. 대축이 신위 오른쪽에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 남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풍악을 시작한다. 알자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며 동계로 올라와 태조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선다. 풍악을 시작한다. 【전정악.】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중문으로 들어와 태조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쬐으라.’고 찬하면, 헌관이 꿇어앉아 홀을 쬐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조의 신위 앞에 놓는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태종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풍악을 시작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쪽 문으로 들어와 태종의 신위 앞에 동향으로 서서, ‘꿇어앉아 홀을 쬐으라.’ 찬하면, 헌관이 꿇어앉아 홀

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 謁者贊執笏，俯伏興少退東向跪，獻官執笏，俯伏興少退東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南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俯伏興拜興拜興平身，獻官俯伏興拜興拜興平身，樂止，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 小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太祖尊所西向立，樂作，【殿庭樂】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 謁者引獻官由中戶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獻官跪搯笏，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祖神位前。 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少退拜興拜興平身，獻官執笏，俯伏興少退拜興拜興平身。 樂止，謁者引獻官出戶，詣太宗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由東戶入，詣太宗神位前東向立，贊跪搯笏，獻官跪搯笏，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宗神位前。 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

을 쬐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종의 신위 앞에 드리고,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는데, 아헌관의 의식과 같이 하고, 아헌관을 인도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사자가 음복위를 앞 기둥 밖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고, 대축이 태조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술잔에 복주(福酒)를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음복위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서서, ‘끓어얹아 홀을 쬐으라.’고 찬하면, 헌관이 끓어얹아 홀을 쬐는다. 대축이 북향으로 끓어얹아 술잔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이 술잔을 받아서 마시고 나면, 대축이 빈 술잔을 받아서 준소에 도로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면, 헌관이 홀로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이르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자가 또,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이르면,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들을 인도하여 함께 배위로 돌아와서 정렬하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

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少退拜興拜興平身，獻官執笏，俯伏興少退拜興拜興平身，樂止，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禮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太祖尊所，以盞酌福酒，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飲福位西向立，贊跪搯笏，獻官跪搯笏。大祝北向跪，以盞授獻官，獻官受盞飲訖，大祝受虛盞，復於尊所。謁者贊執笏俯伏興平身，獻官執笏，俯伏興平身，謁者引降復位。贊者曰：“鞠躬拜興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平身。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典樂帥工人出，大祝宮闈令納神位版，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執事者各奉腰輿，升自東階，置於前殿戶外，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

	<p>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전악이 악공을 거느리고 나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신위판을 거두어 놓으면, 알자·찬자·찬인이 배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온다. 집사자가 각각 요여를 받들고 동계로 올라와 전전 문밖에 놓으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궤를 받들어 요여에 모신다. 집사자가 차례로 받들고 후전(後殿) 각실의 문밖에 나아가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궤를 받들어 좌석에 안치하는 것을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가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나고,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p> <p>하였다.</p>	<p>置，安於輿。執事者以次奉昇，詣後殿各室戶外，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置，安於座如常儀。殿司闔戶以降乃退，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版瘞於坎。</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5月 8日 (庚申) 3번째기사 예조에서 문소전 기신제의 의주를 아뢰다</p>	<p>예조에서 문소전 기신제의 의주를 아뢰기를, “재계는 제사 3일 전부터 하는데,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산재(散齋)를 이틀, 치재(致齋)를 하루 한다. 산재에는 일을 전과 같이 보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달래 등을 먹지 아니하며, 조상과 문병을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의 판결과 서명을 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치재에는 오직 제사 일만 행한다. 이미 재계를 하고서 귀한 사람이 있게 되면 대리를 통하여 행사(行事)한다. 전문(殿門)을 수위하는 자는 청재(淸齋)하고 하룻밤을 잔다. 【향관(享官) 이하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제사하기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진설(陳設)은 제사 하루 전에 하는데, 전사(殿司)가 소속을 거느리고 전 안팎을 청소한다. 유사가 헌관의 자리를 전전(前殿)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에 정하되, 겹줄로 서향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마련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서 배중한다.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는 동계 서쪽에 정하되,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가 전전의 감실(龕室)을 열고 신악</p>	<p>禮曹啓文昭殿(忌晨) [忌辰] 祭儀注： 齋戒：前享三日，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守禦殿門者，淸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陳設：前享一日，殿司率其屬，掃除殿之內外，有司設獻官位於前殿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向，書吏陪其後，謁者、贊者、贊引位於東階之西，西向北上。享日未行事前，殿司開前殿龕室，整拂神幄，鋪筵如常儀。【只設一位】</p>

(神幄)과 자리를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한 위(位)만 설치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점(坫)이 있다.】 향로·향합과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와 제찬 담을 그릇을 설치하고, 준(尊)은 문밖 왼쪽에 설치한다. 행례(行禮)는, 제삿날 행사하기 3각(刻) 전에 전사가 전전의 감실을 열고 신악(神幄)과 자리를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다 담는다. 2각 전에 헌관 이하가 모두 흰옷으로 전문 밖에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진설을 점검한다. 1각 전에 헌관 이하 여러 집사들이 손을 씻는다. 처음 집사자가 【내시원(內侍院). 왕후의 기신제에는 내시부(內侍府).】 요여를 받들어 후진 문밖에 남향으로 설치하면, 대축이 【왕후의 기신제에는 궁위령이다. 아래에도 이와 같다.】 신위관 궤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집사자가 받들고 전전 문밖에 나아가면, 대축이 신위관 궤를 받들어 감실에 모신다. 【태조실 기신제에는 중문으로 들어가서 감실에서 남향으로 모시고, 태종실 기신제에는 동문으로 들어가서 감실에서 서향으로 모신다.】 대축이 구부렀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나오면, 전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선개(扇蓋)를 받들어 신좌(神座) 앞 좌우에 설치한다. 【그 요여는 동계로 내려와 동계의 동쪽에 서향으로 놓는다.】 알자·찬자·찬인이 먼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한 후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들을 인도하여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서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궤를 열고 신위관을 내어 좌석에 모시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坫】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行禮：享日未行事前三刻，殿司開前殿龕室，整拂神幄鋪筵如常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前二刻，獻官以下素服，皆就前殿門外，贊引引監察點視陳設。前一刻，獻官以下諸執事盥洗訖。初，執事者【內侍院。王后(忌辰) [忌辰] 祭，則內侍府。】奉腰輿陳於後殿戶外，南向。大祝【王后(忌辰) [忌辰] 祭，則宮闈令，下準此。】奉神位版匱安於輿，執事者奉昇，詣前殿戶外，大祝奉神位版匱，安於龕室，【太祖室(忌辰) [忌辰] 祭，則由中戶入，安於龕室南向；太宗室(忌辰) [忌辰] 祭，則由東戶入，安於龕室西向。】大祝俯伏興出。殿司帥其屬，奉扇蓋設於神座前左右，【其腰輿，降自東階，置於東階之東西向。】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

흥, 평신' 하면,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한 사람이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서서, 【태조실 기신제에는 중문으로 들어가서 북향하여 서고, 태종실 기신제에는 동문으로 들어가서 동향하여 신다. 아래에도 이와 같다.】 '꿨어앉으라.' 찬하면, 헌관이 꿨어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는다. 알자가 '삼상향하라.' 찬하면, 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리고, 집사자는 향로를 향안에 드린다. 【태조실 기신제에는 향합 받드는 이는 동쪽에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서쪽에서 동향한다. 태종실 기신제에는 향합 받드는 이는 남쪽에서 북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북쪽에서 남향한다. 술잔을 주는 이와 술잔을 드리는 이도 이와 같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꿨어앉으라.' 찬하면, 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꿨어앉는다. 【태조실 기신제에는 북향으로 꿨어앉고, 태종실 기신제에는 동향으로 꿨어앉는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꿨어앉아 【태조실 기신제에는 동향으로 꿨어앉고, 태종실 기신제에는 남향으로 꿨어앉는다.】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한 사람은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신위 앞에 나아가 서서 '꿨어앉으라.' 찬하면, 헌관이 꿨어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

身。” 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贊引引監察以下各就位。 大祝開匱， 奉出神位版， 設於座。 謁者引獻官入就位， 西向立， 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謁者引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一人以盞受酒。 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立 【太祖室(忌晨) [忌辰] 祭， 則由中戶入北向立； 太宗室(忌晨) [忌辰] 祭， 則由東戶入東向立， 下準此。】 贊跪， 獻官跪， 執事者一人奉香合， 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獻官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太祖室(忌晨) [忌辰] 祭， 則奉香在東西向， 奠爐在西東向； 太宗室(忌晨) [忌辰] 祭， 則奉香在南北向， 奠爐在北南向。 授盞奠盞， 準此。】 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俯伏興小退跪， 獻官俯伏興小退跪， 【太祖室(忌晨) [忌辰] 祭， 則北向跪， 太宗室(忌晨) [忌辰] 祭， 則東向跪。】 大祝進神位之右跪， 【太祖室(忌晨) [忌辰] 祭， 則東向跪； 太宗室(忌晨) [忌辰] 祭， 則

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찬하면, 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로 나아가서 서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감찰 이하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대축은 신위관을 들여놓고, 알자가 찬자와 찬인이 배위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집사자가 요여를 받들고 동계로 올라 전전 문밖에 놓으면, 대축이 신위관 궤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집사자가 받들고 후전의 문밖에 나아간다. 대축이 신위관 궤를 받들어 좌석에 모시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하고, 전사는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간다.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축관을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

南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拜興拜興平身，獻官俯伏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一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立，贊跪，獻官跪，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獻官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大祝納神位版，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執事者奉腰輿升自東階，置於前殿戶外，大祝奉神位版匱，安於輿，執事者奉舁，詣後殿戶外，大祝奉神位版匱，安於座如常儀。殿司闔戶以降乃退，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版瘞於坎。

세종 60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5월 13일
(을축) 3번째기사
예조에서 문소전 삭망제 의주를 아뢰다

예조에서 문소전 삭망제(朔望祭) 의주를 아뢰기를,
“재계는 제사 3일 전부터 하는데,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산재(散齋)를 이틀, 치재(致齋)를 하루 한다. 산재는 사무를 전과 같이 보되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과·부추·마늘·달래 등을 먹지 아니하며, 조상과 문병을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과 서명을 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치재에는 오직 제삿일만 행한다. 이미 재계를 하고서 꺾(闕)한 사람이 있게 되면 대리를 통하여 행사한다. 전문(殿門)을 수위하는 자는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잔다.
【향관 이하 제사에 참여할 모든 사람은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진설은 제사 하루 전에 하는데,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殿) 안팎을 청소한다. 유사가 헌관의 자리를 후전(後殿) 동계의 동남편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정하되, 겹줄로 서향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마련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서 배중한다. 알자·찬자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에 마련하되,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가 후전의 각실(各室)을 열고 신악(神幄)을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위의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드린다.【각각 점(坵)이 있다.】향로와 향합과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와 제찬 담을 그릇을 설치하고, 준(尊)을 각실 문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복주잔 하나를 태조실 준소(尊所)에 설치한다. 행례는 제삿날 행사하기 3각(刻) 전에 전사가 후전의 각실을 열고 신악을 정돈하고 던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담기를 마친다. 2각 전에 헌관 이하가 각각 제복을 갖추고 모두 전문 밖에 나아간다. 1각 전에 헌관 이하 여러 집사들이 관세(盥洗)하고 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네 번

禮曹啓文昭殿朔望儀：
齋戒：前享三日，行事執事官並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守衛殿門者，淸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前享二日，皆沐浴更衣。】陳設：前享一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有司設獻官位於後殿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設謁者贊者位於東階之西，西向北上。享日未行事前，殿司開後殿各室，整拂神幄如常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各有坵】設香爐香合並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各室戶外之左，設福酒盞一於太祖室尊所。行禮：享日未行事前三刻，殿司開後殿各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前二刻，獻官以下各具祭服，皆就殿門外。前一刻，獻官以下諸執事盥洗訖，謁者贊者先就殿庭拜位，北向

절하고는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들을 인도하여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정렬한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태조실에 나아가서, 대축은 궤를 열고 태조의 신위판을 받들어 내어 좌석에 모시고, 궁위령은 궤를 열고 왕후의 신위판을 받들어 내어 좌석에 모신다. 다음 태종실에 나아가서 위의 의식과 같이 신위판을 받들어 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해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여,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태조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태조 신위 앞에 북향으로 서게 하고, ‘끓어얹아 홀을 깨끗하라.’고 찬하여, 헌관이 끓어얹아 홀을 깨끗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삼상향하라.’고 찬하여, 세 번 향을 올리고, 집사자가 향로를 향안에 드린다. 【향함을 받드는 이는 동쪽에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서쪽에서 동향한다. 술잔을 주는 이와 술잔을 드리는 이도 이와 같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조의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얹으라.’고 찬하여,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얹는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끓어안아서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부복, 흥, 배,

西上四拜訖，各就位。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監察以下各就位。大祝宮闈令詣太祖室，大祝開匱，奉出太祖神位版設於座，宮闈令開匱，奉出王后神位版設於座。次詣太宗室，奉出神位版如上儀。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太祖室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獻官跪搯笏，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獻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授盞奠盞，準此。】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祖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小退北向跪，獻官執笏俯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헌관이 구부렸다 일어나서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가 태종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태종의 신위 앞에 나아가 향을 올리고 술잔을 드리는데,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후에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태조실의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해 들어와 태조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꿨어얏아 홀을 쫓으라.'고 찬하여, 헌관이 꿨어얏아 홀을 쫓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주어 태조의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술잔을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찬하여,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서 태종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해 들어와서 태종의 신위 앞에 나아가 술잔을 드리되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서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후에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예를 행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사자가 음복위를 앞 기둥 밖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마련하고, 대축이 태조실의 준소에 나아가서 술잔으로 복주(福酒)를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하고, "꿨어얏아 홀을 쫓으라.'고 찬하여, 대축이 북향

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拜興拜興平身，獻官俯伏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戶，詣太宗室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一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太宗神位前。上香獻盞，竝如上儀訖，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太祖室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贊跪撝笏，獻官跪撝笏。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祖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獻官執笏，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戶，詣太宗室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太宗神位前，獻盞如上儀訖，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太祖室尊所，以盞酌福酒。謁者引獻官升自

	<p>하여 꿰어앉아서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마신다. 대축이 빈 잔을 받아 준소에 도로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하면,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들을 인도하여 함께 배위에 돌아와 정렬하고,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신위판을 들여놓고, 알자와 찬자는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문을 닫고 내려서 물러나와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東階，詣飲福位西向立，贊跪搯笏，大祝北向跪，以盞授獻官，獻官受盞飲訖，大祝受虛盞，復於尊所。謁者贊執笏，俯伏興平身，獻官執笏俯伏興平身，謁者引降復位。贊者曰：“鞠躬拜興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平身。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神位版，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闔戶以降乃退，祝版瘞於坎。</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6月 15日 (丙申) 9번째기사 문소전 외에 각전·각궁의 공상주를 정지하게 하다</p>	<p>문소전 외에 각전(各殿)·각궁(各宮)의 공상주(供上酒)를 정지하게 하였다.</p>	<p>命停文昭殿外各殿各宮供上酒。</p>
<p>세종 62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10월 27</p>	<p>환관(宦官) 김순(金淳)에게 명령하여 귤(橘)과 유자[柚]를 사신에게 나누어 주었다.</p>	<p>命宦官金淳，分贈橘柚于使臣。</p>

<p>일(병자) 2번째기사 김순에게 명하여 글과 유자를 사신에게 나누 어 주다</p>		
<p>世宗 62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10月 28 日(丁丑) 2번째기사 술에 대한 폐해와 훈 계를 담은 내용의 글 을 주자소에서 인쇄하 여 반포하게 하다</p>	<p>교지(教旨)를 내리기를, “대체로 들으니, 술[酒]을 마련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을 숭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신명(神明)을 받들고 빈객(賓客)을 대접하며, 나이 많은 이를 부양(扶養)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제사 때에 술 마시는 것은 술잔을 올리고 술잔을 돌려주고 하는 것으로 절차(節次)를 삼고, 회사(會射) 때에 술 마시는 것은 읍양(揖讓)하는 것으로 예를 삼는다. 향사(鄉射)의 예는 친목(親睦)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양로(養老)의 예는 연령(年齡)과 덕행을 숭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건만 오히려 말하기를, ‘손과 주인이 백 번 절하고 술 세 순배를 돌린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선왕(先王)이 술의 예절을 제정할 때에 술의 폐해에 대비(對備)한 것이 더할 수 없이 극진하였다. 후세에 내려와서 풍속과 습관이 옛스럽지 않고, 다만 크게 많이 차리는 것만을 힘쓰게 된 까닭에, 금주(禁酒)하는 법이 비록 엄중하나 마침내 그 폐해를 구제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한탄스러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술의 해독은 크니, 어찌 특히 곡식을 씹히고 재물을 허비하는 일뿐이겠는가. 술은 안으로 마음과 의지(意志)를 손상시키고 겉으로는 위의(威儀)를 잃게 한다. 혹은 술 때문에 부모의 봉양을 버리고, 혹은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니, 해독이 크면 나라를 잃고 집을 패망(敗亡)하게 만들며, 해독이 적으면 성품(性稟)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상실(喪失)하게 한다. 그것이 강상(綱常)을 더럽혀 문란하게 만들고 풍속을 퇴폐하게 하는 것은 이루 다 열거(列舉)할 수 없다.</p>	<p>教旨： 蓋聞酒醴之設，非以崇飲，所以奉神明、享賓客、養高年者也。是以因祭而飲，以獻酬爲節；因射而飲，以揖讓爲禮。鄉射之禮，所以教親睦也；養老之禮，所以尚齒德也。然猶曰：“賓主百拜而酒三行。”又曰：“終日飲酒而不得醉。”，則先王所以制酒禮，而備酒禍者至矣盡矣。降及後世，俗習不古，惟荒腆是務，故禁酒之法雖嚴，而終不能救其禍，可勝歎哉？夫酒之爲禍甚大，豈特糜穀費財而已哉？內〔弱〕心志，外喪威儀，或廢父母之養，或亂男女之別，大則喪國敗家，小則伐性喪生，其所以瀆亂綱常，敗毀風俗者，難以枚舉，姑指其一二可戒可法者言之。商辛、周厲，以此而亡其國，東晉之俗，以此而亡人之國。鄭大夫伯有窟室夜飲，卒爲子皙所焚。前漢校尉陳遵每大飲賓，輒關門投轄，使于匈奴，醉而遇害。後漢司隸校尉丁冲，</p>

우선 그 중에서 한두 가지 경계해야 할 것과 본받아야 할 것만을 지적하여 말하겠다. 상(商)나라의 주왕(紂王)과 주(周)나라의 여왕(厲王)은 술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며, 동진(東晉)의 풍속은 술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정(鄭)나라의 대부(大夫) 백유(伯有)는 땅굴을 파서 집을 만들고 그 속에서 밤에 술을 마시다가 자석(子皙)에게 불태워져 죽었으며, 전한(前漢)의 교위(校尉) 진준(陳遵)은 매양 손님들과 크게 마시기를 좋아하여, 손이 오면 문득 손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타고 온 수레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더니, 흉노(凶奴)에게 사자(使者)로 갔다가 술에 취하여 살해되었다. 후한(後漢)의 사예 교위(司隸校尉) 정충(丁冲)은 자주 제장(諸將)들에게 찾아 다니면서 술을 먹더니 창자가 썩어서 죽었으며, 진(晉)나라의 상서 우복야(尙書右僕射) 주개(周顥)는 술 한 섬을 거뜬히 마시었는데, 한번은 옛 술친구가 왔으므로 즐겨 함께 술을 마시고 몹시 취했다가, 술이 깨서 손[客]을 가 보게 하였더니, 손은 이미 갈비가 썩어서 죽어 있었다고 한다. 후위(後魏)의 하후사(夏侯史)는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상중(喪中)에 있으면서도 슬퍼하지 아니하며 좋은 막걸리를 입에서 떼지 않으니, 아우와 누이는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였는데, 마침내 술에 취한 채 혼수상태로 죽었다. 이러한 일들은 진실로 경계해야 할 일들이다.

주(周)나라의 무왕(武王)은 주고(酒誥)를 지어 상(商)나라의 백성들을 훈계하였고, 위(衛)나라의 무공(武公)은 빈연(賓筵)의 시를 지어 스스로 경책(警責)하였다. 진(晉)나라 원제(元帝)가 술 때문에 정사를 폐하는 일이 많으니, 왕도(王導)가 깊이 경계하여 말하니, 임금에 술잔을 얹어 버리라고 명령하고 드디어 술을 끊었다. 원(元)나라의 태종(太宗)이 날마다 대신들과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시더니, 야율초재(耶律楚材)가 드디어 주조(酒槽)의 금속 주둥이를 가지고 가서 아뢰기를, ‘이 쇠[鐵]도 술에 침식(侵蝕)됨이 이와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내장[五腸]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매, 황제가 깨닫

數過諸將飲酒，爛腸而死。晉尙書右僕射周顥，能飲酒一石，偶有舊(對) [帶]來，欣然共飲大醉，及醒使視，客已腐脅而死。後魏夏侯史性好酒，居喪不戚，醇醪不離於口，弟妹不免飢寒，於是昏酣而死，此誠可戒者也。周武王作《酒誥》之書，以訓商民；衛武公作《賓筵》之詩，以自警責。晉元帝頗以酒廢事，王導深以爲言，帝命引觴覆之，遂絕。元太宗日與大臣酣飲，耶律楚材乃持酒槽金口進曰：“此鐵爲酒所蝕，尙致如此，況人之五臟，有不損耶？”帝悟，因勅左右，日進酒三鍾而止。晉陶侃每飲酒有定限，或勸少進，侃悽愴良久曰：“年少曾有酒失，亡親見約，故不敢踰。”庾袞父在，常戒袞以酒後每醉，輒自責曰：“予廢先人之訓，何以訓人！”乃於墓前，自杖二十，此誠可法者也。且以我國之事言之。昔新羅之敗於鮑石亭，百濟之滅於落花巖，靡不由此，而高麗之季，上下相師，沈湎自恣，竟底於亡，此亦殷鑑之不遠也，可不戒哉？惟我太祖肇造丕基，太宗繼述，修明政教，垂憲萬世，群飲之禁，著在令甲，以革舊

고 좌우(左右)의 모시는 사람들에게 칙명(勅命)을 내려 날마다 술은 석 잔만 올리게 하여 끊었다. 진(晉)나라의 도간(陶侃)이 매년 술 마실 때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조금만 더 먹으라고 권하니, 도간(陶侃)이 한참 동안 슬픈 얼굴을 하다가 말하기를, ‘소년 때에 술 때문에 실수한 일이 있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약속한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유곤(庾袞)은 그의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항상 곧에게 술을 조심하라고 훈계하였더니, 그 뒤에 곧은 취할 때마다 문득 스스로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선인의 훈계를 저버리고 어찌 남을 훈계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아버지의 무덤 앞에 가서 스스로 매 20대를 쳤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은 진실로 본받을 만한 것이다. 또 우리 나라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옛날 신라가 포석정(鮑石亭)에서 패(敗)하고, 백제가 낙화암(落花巖)에서 멸망한 것이 술 때문이 아닌 것이 없다. 고려의 말기(末期)에는 상하가 서로 이끌고 술에 빠져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다가 마침내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도 또한 가까운 은감(殷鑑)이 되는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께서 일찍 큰 왕업(王業)의 터전을 만드시고, 태종께서 이어 지으시어 정치와 교화(教化)를 닦아 밝히시니, 만세에 지켜야 할 헌장(憲章)을 남기셨다. 군중이 모여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을 법령에 명시(明示)하여, 오래 물들었던 풍속을 개혁하고 오직 새롭게 하는 교화를 이룩하였다. 내가 부덕(不德)한 몸으로 외람되게 왕업(王業)을 계승하게 되매,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편안히 다스리기를 도모하되, 지나간 옛날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조종(祖宗)의 이루어 놓은 법을 준수(遵守)하여, 예로써 보이고 법으로써 규찰(糾察)하였다. 나의 마음쓰는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건만, 그대들 신민(臣民)들은 술때문에 덕(德)을 잃는 일이 가끔 있으니, 이것은 전조(前朝)의 쇠퇴하고 미약하였던 풍조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인

染之俗，以致維新之化。 予以否德，叨承丕緒，夙夜祇懼，以圖治安，鑑往昔之覆轍，遵祖宗之成憲，示之以禮，糾之以法。 予之用心，非不至也，而惟爾臣民，以酒失德者，比比有之。 是前朝衰微之風，猶未殄絕，予甚憫焉。 嗚呼！酒之釀禍，若是之慘，而尙不覺悟，亦何心哉？ 縱不能以國家爲念，獨不顧一身之性命乎？ 朝臣有識者，尙且如此，閭巷小民，何所不至？ 獄訟之興，多出於此。 始之不謹，則末流之弊，誠可畏也。 此予之所以考古證今，反覆告戒者也。 咨爾中外大小臣民，其體予至懷，視前人之得失，爲今日之勸戒，毋好飲以廢事，勿過飲以成疾。 各敬爾儀，式遵無彝之訓； 剛制于酒，庶臻於變之風。 惟爾禮曹，體此至意，曉諭中外。 藝文應教柳義孫之辭也。 遂命鑄字所模印，頒于中外。

	<p>것이므로,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아아, 술이 해독을 끼침이 이처럼 참혹하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또한 무슨 마음들인가. 비록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제 한 몸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는단 말인가. 조정에 벼슬하는 신하인 유식(有識)한 자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거리의 아랫 백성들이 무슨 일인들 안하겠는가. 형사 소송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이것에서 생기는 것이 많았다. 처음을 삼가지 않으면 말류(末流)의 폐해는 진실로 두려워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옛일을 고증(考證)하고 지금 일을 증거로 하여 거듭거듭 타이르고 경계하는 까닭이다. 그대들 중앙과 지방의 대소 신민(大小臣民)들은 나의 간절한 생각을 본받고 과거(過去) 사람들이 실패를 보아서 오늘의 권면(勸勉)과 징계를 삼으라. 술 마시기를 즐기느라고 일을 폐(廢)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술을 과음(過飲)하여 몸에 병이 들게 하지 말라. 각각 너의 의용(儀容)을 조심하며 술을 상음(常飲) 말라는 훈계를 준수하여 굳게 술을 절제(節制)한다면, 거의 풍습(風習)을 변경시키기에 이를 것이다. 너희 예조에서는 이 나의 간절한 뜻을 본받아 중앙과 지방을 깨우쳐 타이르라.”</p> <p>하니, 예문 응교(藝文應敎) 유의손(柳義孫)이 기초한 글인데, 드디어 주자소(鑄字所)에 명령하여 인쇄하여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게 하였다.</p>	
<p>세종 62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12월 6일 (을묘) 4번째기사 상호군 정발을 보내 문어·해청등을 진헌하고, 야인이 노략한 인</p>	<p>상호군 정발(鄭發)을 보내어 문어(文魚) 5백 마리, 대구어(大口魚) 6백 마리, 해청(海靑) 2연(連), 백요자(白鷓子) 1연을 진헌하게 하고, 이어 상주(上奏)하기를, “선덕(宣德) 8년 윤8월 초10일에 흠차(欽差) 지휘 첨사(指揮僉事) 맹날가래(孟捏可來)와 백호 최진(崔眞) 등 관원이 칙유(勅諭)를 받들어 가지고 도착하였사온바, 그 칙지에 ‘홀라온(忽刺溫) 지방의 야인 두목 목답울(木答兀)·모런위 도독(毛憐衛都督) 첨사(僉事) 살만답실리(撒滿答失里)·건주 좌위도독(建州</p>	<p>遣上護軍鄭發，進文魚五百首、大口魚五百尾、海靑二連、白鷓子一連，仍奏曰： 宣德八年閏八月初十日，欽差指揮僉事(孟捏可來) [孟捏哥來]、百戶崔眞等官，齎捧到勅諭，節該：“諭忽刺溫地面野人頭目木答兀、毛憐衛都督僉事</p>

<p>구·우마를 돌려준 것에 감사하였다</p>	<p>左衛都督 멩가첩목아(猛哥帖木兒)·도지휘사(都指揮使) 범찰(凡察)·건주위 도지휘(建州衛都指揮) 첨사 이만주(李滿住) 등을 타일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각각 창탈(搶奪)하여 간 인구와 우마(牛馬) 등을 다 돌려주게 하였다. '고 하시매, 이를 공순히 받들어 알았습니다. 또 금년 11월 초10일에는 흠차(欽差) 백호 왕흠(王欽)·사인(舍人) 왕무(王武) 등이 우리 나라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최근에 칙유(勅諭)를 받들어 야인이 본국에서 노략하여 간 자 중에 아직 돌려주지 않은 인구 14명을 찾아서 맹날가래(孟捏可來) 등 관원에게 주어서 본국에 송환하게 되었는바, 공순히 명령을 준봉(遵奉)한 자는 제외하고, 앞으로 흘러온 지방에 갔더니, 야인이 이름을 무개도화(無開到花)라고 일컫는 자가 있는데, 돌려보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윗항의 일을 맹날가래(孟捏可來) 등과 더불어 말하여 알리고자 하여, 이때에 앞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신이 공순히 생각하니, 황제께서 우리 나라가 뜻밖에 야인에게 침해를 당한 것을 가엾게 여기시고, 특히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차례로 사신을 보내어 가서 야인을 타이르게 하였습니다. 천자의 뜻이 정녕(丁寧)하시어, 신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p> <p>하였다.</p>	<p>撒滿答失里、建州左衛都督猛哥帖木兒、都指揮使凡察、建州衛都指揮僉事李滿住等，令各將所搶去人口牛馬頭匹，盡行給還。”欽此。又於本年十一月初十日，欽差百戶王欽、舍人王武等到國說稱：“近奉勅諭，取要野人擄掠本國未還人口十四名，交付孟捏哥來等官，送回本國。除欽遵，前往忽刺溫地面，有野人等稱無開到花名，不肯發還。前項事，因欲與孟捏哥來等說知，爲此前來。”道罷聽此。臣欽惟皇上，憐憫小邦，橫見野人侵擾，特留宸念，節次遣使，往諭野人，天意丁寧，臣不勝感激。</p>
<p>世宗 62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12月 7日 (丙辰) 4번째기사 예조에 전지를 내려 흉년으로 생활이 어려워므로 술을 사용하지 말것을 명하다</p>	<p>예조에 전지하기를, “각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의 생활이 염려된다. 약(藥)으로 복용하기 위한 것 외에는 술을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p>	<p>傳旨禮曹： 各道凶歉，民生可慮，服(樂) [藥] 外勿用酒。</p>
<p>세종 62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p>	<p>(전략) 1. ‘제향(祭享)의 예절에 있어서 재숙(齋宿)은 중요한 행사입니다. 요사이 악공(樂工)들의 재계하는 법을 보니, 제사하기 2일 전에 봉상시(奉常寺)에</p>	<p>(전략) 一。‘祭享之禮，齋宿爲重。今觀樂工致齋之法，祭前二日，會宿奉</p>

(宣德) 8년) 12월 21
일(경오) 3번째기사
박연이 건의한 악호·
곡명의 정립과 제향·
조회때의 예법 등의
의견을 받아들이다

합숙(合宿)하고, 제사하기 1일 앞서 모두 제소(祭所)에 나아갑니다. 이미 재계(齋戒)라고 한다면 마땅히 출입을 금하고 그 정성이 전일(專一)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아침 저녁의 식사(食事) 때문에 그 재숙(齋宿)하는 곳을 버리고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어, 사사로운 곳으로 내왕하면서 더러움에 감염(感染)하는 일을 범함이 많으니,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의 제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제삿날에 향관(享官)과 집사(執事)들은 다 임시(臨時)하여 관세(盥洗)함으로써 청결하게 하지만, 당상(堂上)·당하(堂下)의 노래하고 춤추는 가공들은 그 수(數)가 매우 많고, 관세소(盥洗所)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 명의 공인들은 밤중에 일어난 채 전연 세수하지 않아서 더럽고 무례하여 불경함이 더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인들의 재계하는 날에는 반드시 음식을 제공하고 출입을 금지시켜서 재숙(齋宿)을 엄중하게 하며, 또 단(壇)이나 묘(廟)의 밖에 공인들의 세수 도구를 마련하여, 여러 공인들로 하여금 죄다 세수하게 하소서. 원묘(原廟)제향 때의 영인(伶人)들도 세수하게 하는 설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 조항에 대하여, 공인들에 대한 음식 제공은 전례에 따라 예빈시(禮賓寺)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고, 세수 시설의 준비는 제소(祭所)마다 나무통 각 1개, 목기(木器) 각 50개씩 만들어 보관하게 하고, 전수자(典守者)로 하여금 물을 길어다가 공급하게 하소서.

1. '제향(祭享)이나 조회(朝會) 때의 주악(奏樂)에 사용하는 기구와 예복(禮服)과 의식용(儀式用)의 물품은 국가의 경비가 적지 않은 것인데, 맡아 지키는 관리가 보관 수호하기를, 즐겨 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아서 파손되고 헐어질 것이 염려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주무관아(主務官衙)로 하여금 불시에 검찰하게 하여 그의 공(功)과 허물을 기록하였다가 포폄(褒貶)에 증빙(證憑)으로 삼게 하소서. '라고 한 조항에 대하여서는, 상언(上言)한 바에 따라 조(曹)의 전향사(典享司)의 낭청(郎廳)으로 하여금 불시이 가서 살피게 하소

常, 前期一日, 俱詣祭所。 既曰齋戒, 宜禁出入, 致其專一, 顧以朝夕口腹之故, 棄其齋所, 任意出入, 來往私處, 犯染多矣, 極爲未便。 此無他, 無供億故耳。 又於祭日, 享官執事, 則皆臨時盥洗, 以致涓潔, 至於堂上堂下歌舞奏伎之工, 其數極多, 而不設盥濯之所, 數百工人夜半而起, 全不盥頰, 穢汚褻慢, 不敬莫甚。 自今工人致齋之日, 須令供給, 禁絕出入, 以嚴齋宿。 又於壇廟之外, 設工人盥頰之具, 令衆工悉皆洗濯。 原廟祭伶人, 亦不可無盥頰之具。' 右條, 工人供給, 依前例, 令禮賓寺掌之。 盥頰之具, 每祭所木槽各一、木器各五十, 造作入藏, 令典守者汲水供之。 一。 '祭享朝會樂, 器服儀物, 國家經費不少, 典守官吏不肯藏護, 則未久損毀, 不可不慮。 願自今令主掌司不時檢察, 記其功過, 以憑褒貶。' 右條, 依上言, 令曹典享司郎廳, 不時往審。" 從之。

	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世宗 63卷, 16年 (1434 甲寅 / 명 선덕 (宣德) 9年) 1月 21日 (己亥) 7번째기사 헌릉의 대·소제에 쓰 이는 세작기를 유철로 주조하기로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헌릉(獻陵)의 대·소제(大小祭)에 쓰는 세작기(洗爵器)2154) 를 유철(鋤鐵)로 주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獻陵大小祭洗爵器, 以鋤鑄 成。” 從之。
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3일(기유) 1번째기사 정사를 보다. 육선을 올리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육선(肉膳)을 드리게 하였다.	己酉/視事。 進肉膳。
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2月 4日(庚戌) 6번째기사 약으로 쓰는 술은 사 용하라고 각도 감사· 도절제사·처치사에게 전지하다	각도 감사와 도절제사(都節制使)와 처치사(處置使)에게 전지(傳旨)하기를, “복약(服藥)할 때에는 술을 사용하라.” 하였다.	傳旨于各道監司、都節制使、處置使, 服藥用酒。
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13일(기미)	양녕 대군에게 술 빛을 쌀 30석과 간장 담글 콩 30석과 탄(炭) 25석을 이천 (利川) 사저(私邸)에 내려 주었다	賜釀酒米三十石、末醬三十石、炭二 十五石于讓寧大君利川第。

<p>6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술 빛을 쌀 30석, 간장 담글 콩 30석, 탄 25석을 주다</p>		
<p>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2月 15日(辛酉) 4번째기사 평안도 감사가 도내 20고을의 기민들의 숫자와 구제상황을 보고하다</p>	<p>평안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 안주(安州)·영유(永柔)·가산(嘉山)·숙천(肅川)·박천(博川)·정주(定州)·양덕(陽德)·순천(順川)·정령(定寧)·개천(价川)·선천(宣川)·성천(成川)·의주(義州)·곽산(郭山)·태천(泰川)·삭주(朔州)·수천(隨川)·함종(咸從)·용천(龍川)·운산(雲山) 등 20고을의 기민(飢民) 남녀 노소의 총수가 3천 1백 88명인데, 정월 초하룻날에 구제할 쌀과 콩이 합하여 51석 5두 2승이요, 간장이 4석 3두 2승입니다.” 하였다.</p>	<p>平安道監司啓: “道內安州、永柔、嘉山、肅川、博川、定州、陽德、順川、定寧、价川、宣川、成川、義州、郭山、泰川、朔州、隨川、咸從、龍川、雲山等二十邑飢民男女老少, 摠三千一百八十八名。正月朔賑濟米豆, 并五十一石五斗二升, 醬四石三斗二升。”</p>
<p>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30일(병자) 4번째기사 지방 각도에 발생한 역질의 치료와 처방에 관해 예조에 전지하다</p>	<p>예조에 전지하기를, “내가 들으니 지방 각도에 역질이 퍼져 있다 하나, 그 고을 수령들이 마음을 써서 살리려고 하지 아니 한다고 하니, 그들에게 향소산(香蘇散)·십신탕(十神湯)·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소시호탕(小柴胡湯) 등을 약재로 제작(劑作)하게 하고, 의학 생도(醫學生徒)들을 시켜서 병이 나는 대로 바로 진찰하여 치료(治療)하도록 하고, 또 각기 그 근처에 있는 무녀(巫女)들을 시켜 무시(無時)로 출입하며 죽을 쭈어 공급하게 하고, 항상 고찰하여 비명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旨于禮曹: “予聞, 外方各道疾疫興行, 各官守令不爲用心救活。其以香蘇散、十神湯、升麻葛根湯小柴胡湯合用藥材劑作, 令醫學生徒隨卽(診)候療治, 仍使各其近處巫女, 無時出入, 烹粥供給, 常加考察, 勿令夭札。”</p>
<p>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3月 4日(庚辰) 5번째기사</p>	<p>호조에서 계하기를, “지난 계묘년에 경외(京外)의 환상곡(還上穀)으로 나누어 준 쌀·콩 및 잡곡의 총수가 1백 19만 8천 5백 89석이고, 구제하여 준 쌀·콩·장(醬)의 총수가 4만 7천 2백 94석이요, 평안도(平安道)에 견감(蠲減)하여 준 환상곡인 쌀·콩·잡곡</p>	<p>戶曹啓: “去癸卯年京外還上分給米豆、雜穀, 摠一百十九萬八千五百八十九石, 賑濟米豆醬, 摠四萬七千二百九十四石。平安道蠲減還上米豆、雜穀,</p>

<p>호조에서 경외의 환곡량과 구제용 곡식량, 평안도에 건감한 환곡량을 보고하다</p>	<p>(雜穀)이 총계 5만 9천 7백 7석입니다.” 하였다.</p>	<p>摠五萬九千七百七石。”</p>
<p>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3월 7일(계미) 2번째기사 약주 10병과 청밀 한 그릇을 양녕 대군에게 내려 주다</p>	<p>약주 10병과 청밀(淸蜜) 한 그릇을 양녕 대군에게 내려 주었다.</p>	<p>賜藥酒十瓶、淸蜜一器于讓寧大君。</p>
<p>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3月 22日(戊戌) 4번째기사 충청 감사가 도내 기민의 숫자와 구제용 곡식의 양을 정산하여 보고하다</p>	<p>충청 감사가 계하기를, “지난 2월 초하룻날 도내의 단양(丹陽)·청풍(淸風) 등 37읍에 굶주린 백성의 수가 1천 5백 4명이요, 구제한 쌀과 콩 및 잡곡이 52석 3두이며, 간장이 7석 11두이고, 단양(丹陽)·청풍(淸風) 등 18읍이 1천 7백 65호에 환상곡으로 나누어준 쌀과 콩 및 잡곡이 3백 87석입니다.” 하였다.</p>	<p>忠淸道監司啓: “去二月朔, 道內丹陽、淸風等三十七邑飢民一千五百四名, 賑濟米豆雜穀五十二石三斗, 醬七石十一斗。 丹陽、淸風等十八邑一千七百六十五戶, 還上分給米豆雜穀三百八十七石。”</p>
<p>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3월 22일(무술) 5번째기사 평안도 감사가 도내 기민의 숫자와 구제용 곡식의 양을 정산하여</p>	<p>평안도 감사가 계하기를, “지난 2월 초하룻날 도내의 숙천(肅川)·박천(博川) 등 30읍에 기민(飢民)이 3천 4백 35명에 구제한 쌀과 콩이 2백 45석 5두이고, 양덕(陽德)·영유(永柔) 등 22읍이 1만 1천 6백 9호에 환상곡으로 나누어준 쌀·콩·잡곡이 1천 2백 62석 4두입니다.” 하였다.</p>	<p>平安道監司啓: “去二月朔, 道內肅川、博川等三十邑飢民三千四百三十五名, 賑濟米豆二百四十五石五斗; 陽德、永柔等二十二邑一萬一千六百九戶, 還上分給米豆雜穀一千二百六十二石四斗。”</p>

<p>보고하다</p> <p>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3月 27日(癸卯) 6번째기사</p> <p>황해도 감사가 국고에 충수될 의창 곡식 일부를 헛곡이 날 때까지 쓰게 해 줄 것을 청하다</p>	<p>황해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 각 관(官)의 의창(義倉) 원수(元數)가 쌀·콩·잡곡을 합하여 10만 6천 4백 77석인데, 그 속에서 환상곡(還上穀)으로 이미 수납된 것이 6만 2천 7백 19석이고, 미수된 것이 4만 6천 7백 57석이니, 청컨대 국고(國庫)에 충수(充數)할 것 중에서 헛곡이 성숙될 때까지 종자용과 식량으로 존절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黃海道監司啓: “道內各官義倉元數米豆雜穀共十萬六千四百七十七石內, 還上已收六萬二千七百十九石, 未收四萬六千七百五十七石。 請以國庫充數, 限新穀成熟, 以種子、口糧撙節分給。” 從之。</p>
<p>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4월 9일(갑인) 3번째기사</p> <p>호조에서 사재감의 소목 지출에 여유가 있다 하여 공소목 수납의 중지를 청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사재감(司宰監)에서 1년 동안 지출하는 소목(燒木)이 63만 7천 9백 47근인데, 감(監)에 지금 있는 것이 62만 3천 4백 2근이고, 또 기인(其人)의 일역(日役)과 전운서(轉運署) 노자(奴子)의 일역이 다 같이 47만 9천 13근이므로 1년에 소용되는 수효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외방 각 관(官)에서 상납하는 금년 공소목(貢燒木) 5만 4천 3백 50근과 각 포(浦)에서 공바치는 72만근과 지난해에 미수(未收)된 2만 1천 40근은 그만두기를 청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 “司宰監燒木一年所支六十三萬七千九百四十七斤, 監見在六十二萬三千四百二斤。 又其人日役及轉運奴子日役, 共四十七萬九千十三斤, 一年所用之數有餘。 請除外方各官上納今甲辰年貢燒木五萬四千三百五十斤、各浦貢七十二萬斤、往年未收二萬一千四十斤。”</p> <p>從之。</p>
<p>世宗 24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5月 1日(乙亥) 3번째기사</p> <p>10일이 대상인 까닭에 궐내의 육선을 금하다</p>	<p>궐내의 육선(肉膳)을 철폐하였으니, 초10일이 대상(大祥)이기 때문이었다.</p>	<p>闕內徹肉膳, 爲初十日大祥也。</p>

<p>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6월 8일(신해) 4번째기사 모자라거나 망비·도용 된 의창 곡식 등의 보 충 방안에 관한 호조 의 계</p>	<p>호조에서 계하기를, “《경제문형(經濟文衡)》을 상고하니, 주문공(朱文公)이 건녕부(建寧府) 개요향(開耀鄉)에 사창(社倉) 하나를 설치하고 해마다 곡식을 거두어 두었다가 방출하곤 하였는데, 1석당 모미(耗米) 3되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대로 교지(教旨)를 받아 의창(義倉)의 쌀·밀가루도 1석당 그 본색(本色)에 따라 3되를 더 바치게 하여 후일의 모손(耗損)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의창의 제도로 서울과 외방 각 고을의 모자라는 쌀·밀가루에, 망비(妄費)·도용(盜用)한 것은 정식(定式)대로 추징(追徵)하고, 그 외에 비가 새거나, 바닥이 습해서 모자라게 된 것은 그 본색에 따라 1석당 모미(耗米) 3되를 계산해서 제감(除減)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 “按《經濟文衡》, 朱文公於建寧府開耀鄉立社倉一所, 逐年斂散, 每一石收耗米三升。 依此制受教, 義倉米淸每一石, 隨其本色, 加納三升, 以備後日之耗損。 願自今義倉之制, 京外各官虧欠米淸, 除妄費盜用及雨漏地濕所損者, 依式追徵外, 隨其本色, 每一石計除耗米三升。” 從之。</p>
<p>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6월 14일(정사) 4번째기사 태종의 신주를 부모하 는 의주에 관한 예조 의 계</p>	<p>(진략)동가(動駕)를 고(告)하기 하루 전에,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板位)를 광효전 동계(東階)의 동남쪽에다가 서향으로 설치하고,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신하의 위차는 외정에 설치하되, 문신은 동쪽에, 무신은 서쪽으로,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관위를 달리 여러 줄로 모두 북향하여 서게 한다. 그날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향로(香爐)와 향합(香盥)과 축(燭)은 모두 신위 앞에 진설(陳設)하며, 찬수를 제구에 담는다. 【찬품은 예고제(預告祭)와 같다.】 존소(尊所)는 지계문[戶]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전하는 면복(冕服)을 갖추고, 왕세자는 조복(朝服)을 입고,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은 제복(祭服)을 입고, 배제(陪祭)할 여러 관원은 조복(朝服)을 입는다. 〈행사할〉 시각이 되면, 통례문은 종실(宗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간다. 대축(大祝)이 〈신주〉 궤(櫃)를 열고 태종의 신주를 받들어 좌차(座次)에 모셔 놓고 흰 모시 수건으로 덮고, 다음에 궁위령(宮闈令)이 궤를</p>	<p>(진략) 告動駕: 前一日, 通禮門設殿下版位於廣孝殿東階東南, 西向, 設王世子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 文東武西, 中心爲頭, 異位重行, 俱北向。 其日, 典祀官帥其屬, 入奠祝版於神位之右, 設香爐、香盥并燭於神位前, 實饌具【饌品與預告祭同】設尊於戶外之左。 殿下具冕服, 王世子具朝服, 其行事執事官服祭服, 陪祭群官服朝服訖。 時至, 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 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 大祝開櫃, 捧出太宗神主, 設於座, 覆以白苧巾。 次宮闈令開櫃, 捧出王太后神主, 設於座, 覆以青苧巾, 以西爲</p>

열고 왕태후(王太后)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차에 모셔 놓고 푸른 모시 수건으로 덮되, 서쪽을 위로 하게 한다. 찬례(贊禮)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위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한다. 전하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고, 근시(近侍) 두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아서 규(圭)를 〈띠에〉 꼴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아서 규를 꼴는다. 【만약 꼴기가 불편하면 근시가 받든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함을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며,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린다. 찬례가 향을 세 번 올리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향을 세 번 올린 다음, 근시는 향로를 향안(香案)에 드린다. 【진향(進香)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전로(奠爐)는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와 같다.】 근시가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면, 찬례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근시가 꿇어앉아서 부작(副爵)을 올리면, 찬례가 집작 헌작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근시에게 주어서 왕태후 신위 앞에 드린다. 찬례가 규(圭)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大祝)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고 나면, 찬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서 동계(東階)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

上訖，贊禮導殿下，詣版位西向立，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以下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贊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近侍二人以爵受酒，贊禮導殿下，詣神位前北向立，跪啓請跪搯圭，殿下跪搯圭。【如搯不便，近侍承奉。】近侍一人奉香合跪進，近侍一人奉香爐跪進，贊禮啓請三上香，殿下三上香，近侍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近侍捧爵跪進，贊禮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神位前。近侍以副爵跪進，贊禮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王太后神位前。贊禮啓請執圭，俛伏興小退北向跪，殿下執圭，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贊禮啓請俛伏興再拜興平身，殿下俛伏興再拜興平身。贊禮導殿下出戶，降自東階復位。贊禮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以下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

례가 꿇어앉아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창(唱)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나와 대문 밖의 악차에 나아가 자리[座]에 앉게 한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와 외문(外門) 밖의 길 왼편에 서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신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외문 밖에 나와 좌우로 나누어 차례대로 서게 한다. 대축과 궁위령(宮闈令)은 신주를 의식대로 들여 넣고,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所屬)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걸어치우고, 축관을 구덩이에 묻는다. 신주를 <모시고> 종묘(宗廟)에 나아가는 동가제(動駕祭)를 마쳤음을 고유(告由)한다. 유사(攸司)가 옥위(褥位) 둘을 전상(殿上)에 설치하되, 신위(神位) 앞에 남향으로 한다. 지유(指諭)·견룡(牽龍) 등은 각기 그 복색(服色)을 한다. 요여(腰輦) 둘을 옥위위[上]에 놓는다. 【태종의 <신주를 모실> 여(輦)는 오른쪽에, 왕후의 <신주를 모실> 여는 왼쪽에 둔다.】 산(繖)과 선(扇)을 들여다가 전(殿)의 섬돌 사이에 좌우로 나누어 진열(陳列)한다. 도지(都知) 등은 그 복색을 하고 탁자(托子)를 받들고 좌우로 나누어 서며, 책보 누자(冊寶樓子) 등은 전정(殿庭)에 둔다. 【양위(兩位)의 누자를 각각 좌우로 나누어 둔다.】 또 옥위(褥位) 둘을 남문(南門) 밖에 설치하고, 상로(象輅) 둘을 그 앞에 남향으로 둔다. 【양위(兩位)의 상로를 좌우로 나누어 둔다.】 의장(儀仗)과 악부(樂部)는 그 남쪽에 의식대로 배립(排立)한다.

시각이 되면, 섭판통례(攝判通禮)가 들어와 태종의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좌차(座次)에서 내려 여(輦)를 타고 가서 부모(祔廟)하기를 계청한다. 계청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다음은 왕태후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태종 신위 앞에서와 같이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

贊禮啓禮畢，導殿下出，至大門外幄次卽座。 知通禮引王世子出，立於外門外道左，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出外門外，分左右序立。 大祝、宮闈令納神主如儀，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版座於坎，神主詣宗廟。

告動駕：祭畢，攸司設褥位二於殿上神位前南向。 指諭、牽龍等各服其服，以腰輦二置於褥位上，【太宗輦在右，王后輦在左。】 繖扇入陳於殿階間分左右。 都知等服其服，捧托子左右分立，置冊寶樓子等於殿庭。 【兩位樓子各分左右。】 又設褥位二於南門外，置象輅二於其前南向。 【兩位象輅分左右。】 儀仗、樂部排立於其南如儀。

時至，攝判通禮入詣太宗神位前跪，啓請降座升輦祔廟，啓訖俛伏興。 次詣王太后神位前亦如之，俛伏興退。 內侍捧太宗冊寶， 又內侍捧王太后冊寶，以次先降階，置於樓子，又內侍捧几置於輦上。 大祝捧太宗神主櫃，安於輦上几後，次宮闈令捧王太后神主櫃，安於輦上几後，【凡主出則先王神主先出，入則先后神主先入。】 扶侍降自西階，冊寶樓子等前行。 指諭、牽龍等捧昇

러난다. 내시(內侍)가 태종의 책보(冊寶)를 받들고, 또 한 내시는 왕태후의 책보를 받들어 차례로 섬들을 내려와 누자(樓子)에 둔다. 또 내시는 안석[几]을 받들어 여(輦) 위에 둔다. 대축은 태종의 신주례를 받들어 여 위에 있는 안석 뒤에 봉안하고, 다음에 궁위령(宮闈令)은 왕태후의 신주례를 받들어 여 위에 있는 안석 뒤에 봉안하여 【무릇 신주를 꺼낼 때에는 선왕의 신주를 먼저 꺼내고, 들어 넣을 때에는 선왕후의 신주를 먼저 들어 넣는다.】 받들어 모시고 서계(西階)로 내려오는데, 책보 누자 등이 앞에 가고, 지유(指諭)·견룡(牽龍) 등이 신여(神輦)를 받들어 메고 나가 상로(象輅) 뒤의 옥위에 이르러 잠깐 머무른다. 섭판통례가 꿇어앉아서 여(輦)에서 내려 노에 타기를 계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노 안에 두고 대축은 태종의 신주례를 받들어 노에 태운다. 【대축은 노 안에 편승(便乘)하여 받들어 모신다.】 다음은 궁위령이 왕태후의 신주례를 받들어 태우는데,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공신 누자(功臣樓子)는 노가 머문 앞 길[街]의 동쪽에서 노가 출발하기를 기다려서 가는데, 노의 뒤를 의식대로 따른다.】

천우 장군은 노를 양쪽에서 빠르게 모시고, 【태종의 노가 먼저 가고, 왕태후의 노가 다음에 가는데, 각각 의장과 악부가 있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연(輦)을 타고 앞에서 간다. 섭판통례가 노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노를 잠깐 머물러 여러 관원들의 말 타기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리소서.’라고 계청한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모두 말을 타고 앞에서 인도한다. 섭판통례는 노가 진발(進發)하기를 계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물러난다. 노가 진발하면 고취(鼓吹)를 시작한다. 종묘 대문 밖에 이르러서는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말에서 내려 좌우로 차례대로 선다. 전하가 연(輦)에서 내려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악차의 자리[座]에 앉으면, 고취는 중지하고 좌우로 나누어 선다. 【고취는 제향(祭享) 마치기를 기다려서 물러나

神輦而出，至象輅後褥位小駐。攝判通禮跪，啓請降輦升輅，啓訖俛伏興。內侍捧几置輅中，大祝捧太宗神主櫃升輅，【其大祝便於輅中侍奉】次宮闈令捧王太后神主櫃升輅，如上儀訖，【功臣樓子駐輅前街東，俟輅將發乃行，隨輅後如儀。】千牛將軍夾輅而趨。【太宗輅先行，王太后輅次之，各有儀仗、樂部。】判通禮導殿下升輦前行，攝判通禮進當輅前跪啓請輅小駐，教文武群官上馬。啓訖，王世子以下文武群官皆上馬前導。攝判通禮啓請輅進發，啓訖俛伏興退。輅進發，鼓吹振作。至宗廟大門外，王世子以下文武群官皆下馬，左右序立。殿下降輦，入大門內幄次卽座，鼓吹止，分左右。【其鼓吹俟享訖退，儀仗等并於廟南門外左右列立，俟享禮畢退。】輅至，王世子以下文武群官皆鞠躬，過則平身。輅至大門，廻輅南向。尙輦以腰舉進輅後褥位上，【臨時設褥位二】攝判通禮進當輅前跪，啓請降輅升輦，啓訖俛伏興。內侍捧几，置於輦上，大祝、宮闈令各捧神主櫃，安於輦上如前儀。神輦將入大門，判通禮導殿下就祇迎

고, 의장(儀仗) 등은 아울러 묘 남문 밖에서 좌우로 벌여 섰다가 제향례 마치고 기다려서 물러난다.】 노가 이르면,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국궁하고, 노가 지나가면 평신(平身)한다. 노가 대문에 이르면 노를 돌려서 남향하게 하고, 상연(尙輦)이 요여(腰輦)를 노(輅)의 뒤 옥위(褥位) 위에 놓는다. 【임시로 옥위 둘을 설치한다.】 섭판통례가 노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서 노에서 내려 여(輦)를 타기를 계청하고, 계청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여 위에 두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주궐(神主櫃)을 받들어 여 위에 봉안하되, 앞의 의식과 같게 한다. 신여(神輦)가 대문에 들어가게 하면,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영위(祇迎位)에 나아간다. 신여가 이르면, 전하는 국궁했다가, 여가 지나간 뒤에 평신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간다. 신여가 묘 남문의 악좌(輦座) 앞에 이르면, 섭판통례는 꿇어앉아 여에서 내려 악좌에 들기를 계청하고, 계청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악좌에 두고, 대축과 궁위령은 각각 신주궐을 받들어 악좌에 봉안한다. 【왕후의 신주는 왼쪽에 둔다.】 산·선·누자 등은 악좌 앞에 머물러 정렬(整列)한다. 【공신 누자는 신문(神門) 밖에 머무른다. 신주를 승부(升祔)한 뒤에 집사자(執事者)가 위판(位版)을 받들고 서문(西門)으로 들어와서 그 위치에 봉안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여(輦)를 타고 재궁(齋宮)으로 들어가는데, 산·선·화개(華蓋)·시위는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위치로 들어간다. 종묘에 준(尊)·이(彝)·술[酒]·단술[醴]·점(坩)·작(爵)을 진설하고, 희생(犧牲)을 살펴 정결하다고 아뢰며, 축관을 서(署)하고, 【축문에는 부향(祔享)한다는 뜻을 아울러 기술한다.】 악기를 진설하는 것 등은 평상 의식과 같이 한다. 처음 신로(神輅)가 장차 묘에 이르게 되면, 유사는 부알(祔謁)할 옥위 둘을 묘정(墓庭) 횡계(橫階)의 남쪽 한가운데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태종 신위의 옥위는 서쪽에 있게 한다.】 집례(執禮)는 전하의 판위(版位)를

位, 神輦至, 殿下鞠躬, 過則平身, 判通禮導殿下還入次。 神輦至廟南門輦前, 攝判通禮跪啓請降輦入輦, 啓訖俛伏興。 內侍捧几置於輦座, 大祝、宮闈令各捧神主櫃, 安於輦座, 【王后神主在左】其徹扇、樓子等停列於輦前。 【功臣樓子止於神門外, 神主升祔後, 執事者捧位版從西門入, 安於其位。】 判通禮導殿下, 升輦入齋宮, 徹扇、華蓋、侍衛如常儀。 知通禮引王世子入次, 其宗廟陳設尊彝酒醴坩爵, 省牲告潔, 進署祝版【其祝文兼述祔享意。】 陳設樂器, 并如常儀。 初神輅將至廟, 攸司設祔謁褥位二於廟庭橫階南當中北向, 【太宗褥位在西】 執禮設殿下版位, 贊者設諸享官位及陪祭群官位, 并如常儀。 晨祿時至, 宗廟令、典祀官各帥其屬, 入實饌具畢。 贊引引監察, 升自阼階, 按視堂之上下, 糾察不如儀者, 還出。 執禮帥謁者、贊者、贊引入自東門, 先就階間拜位, 重行北向西上四拜訖, 各就位。 雅樂令帥工人、二舞入就位, 文舞入陳於懸北, 武舞立於懸南道西。 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 知通

설치하고, 찬자(贊者)는 여러 향관(享官)의 자리와 배제(陪祭)할 여러 관원의 자리를 설치하되, 모두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새벽 강신(降神)할 시각이 되면, 종묘령(宗廟令)과 전사관(典祀官)은 각기 그 소속(所屬)을 거느리고 들어가 찬수를 찬구(饌具)에 담고 나면, 찬인(贊引)은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조계(阼階)로 올라와 당(堂)의 위아래를 살펴서 의식대로 못하지나 앉았는가를 규찰(糾察)한 다음 돌아간다. 집례(執禮)는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동문(東門)으로 들어와, 먼저 섬돌 사이 [階間]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여러 줄로 서서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사배(四拜)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가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악공(樂工)과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는데, 문무(文舞)는 들어와 현(懸) 북쪽에 늘어서고, 무무(武舞)는 현(懸)의 남쪽 길 서쪽에 선다. 통례문은 배제(陪祭)하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지통례는 아헌관(亞獻官)을 인도하고, 【아헌관이 만약 왕세자가 아니면 알자가 인도한다.】 알자·찬인은 각각 여러 향관을 인도하여 모두 동문(東門)밖의 자리로 나아가간다.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축사(祝史)·재랑(齋郎)·종묘령(宗廟令)·궁위령·협률랑(協律郎)·봉조관(奉俎官)과 준(尊)·뇌(罍)·비(篚)·떡(饌)을 맡은 자와 칠사공신(七祀功臣)의 축사·재랑과 준·뇌·비·떡을 맡은 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현의 북쪽 배위(拜位)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서면, 집례(執禮)가 ‘사배하라.’ 하면, 찬자는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전창(傳唱)한다. 【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창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은 여러 집사(執事)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각 제자리로 나아가간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알자·찬인은 각각 종헌관(終獻官)·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천조관(薦俎官)·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과 칠사 공신(七祀功臣)

禮引亞獻官, 【亞獻官若非王世子, 則謁者引。】謁者、贊引各引諸享官, 俱就東門外位, 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宗廟令、宮闈令、協律郎、奉俎官、執尊罍篚罍者, 七祀功臣祝史、齋郎、執尊罍篚罍者, 入就懸北拜位, 重行北向西上。立定, 執禮曰四拜, 贊者傳唱鞠躬四拜興平身,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唱。】監察以下皆鞠躬四拜興平身訖, 贊引引監察就位, 贊引引諸執事, 詣盥洗位盥帨訖, 各就位。知通禮引亞獻官, 謁者、贊引各引終獻官、進幣瓚爵官、薦俎官、奠幣瓚爵官、七祀功臣獻官入就位。贊引引大祝、宗廟令、宮闈令升自阼階, 詣第一室, 入開(埴) [龕] 室, 大祝、宮闈令捧出神主設於座, 【詣神幄內於几後, 開置設於座。先王神主, 大祝捧出, 覆以白苧巾。先后神主, 宮闈令捧出, 覆以青苧巾, 以西爲上。】以次捧出第二室以下神主如第一室儀。贊引引齋郎, 詣爵洗位, 洗瓚拭瓚, 洗爵拭爵, 置於篚, 奉詣泰階, 諸祝史各迎取於階上, 置於尊所坫上訖, 其殿上諸執事各逐便下階, 相向序

의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은 대축·종묘령·궁위령을 인도하여 조계(階階)로 올라와 제1실에 들어가서 감실(塙室)을 열면, 대축과 궁위령이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座)에 모신다. 【신악(神幄) 안의 안석[几]뒤에 나아가 켜(櫃)를 열고 좌(座)에 모신다. 선왕의 신주는 대축이 받들어 내어 흰 모시 수건으로 덮고, 선후(先后)의 신주는 궁위령이 받들어 내어 푸른 모시 수건으로 덮는데, 서쪽을 위로 한다.】 제2실 이하의 신주도 차례로 받들어 내는데, 제1실의 의식과 같이 한다. 찬인이 재량을 인도하여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 찬(贊)과 작(爵)을 씻고 닦아서 광주리[篚]에 담아, 받들어 태계(泰階)로 나아가면, 여러 축사가 각각 섬돌 위에서 맞이하여 준소(尊所)의 점(坫) 위에 둔다. 이를 마치면, 전(殿) 위의 여러 집사는 각각 형편에 따라 섬돌을 내려가서 서로 마주보고 차례대로 섰다가, 신여(神輦)가 전(殿)에 오르기를 기다려 각각 섬돌 위의 제자리로 돌아간다.

관통례가 꿇어앉아서 외판(外辦)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나오는데, 산·선·화개·시위는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東門) 밖에 이르면, 근시가 꿇어앉아 규(圭)를 올린다. 예의사가 꿇어앉아서 규를 잡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으면, 화개와 의장은 문밖에서 머무른다. 상서사(尙瑞司) 관원이 보(寶)를 받들어 소차(小次) 옆에 진설하고,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정문(正門)으로 들어온다. 【정문은 동문(東門)을 말한다. 시위로서 들어오지 못할 자는 문밖에서 머무른다.】 협률랑(協律郎)이 꿇어앉아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하고 휘기(麾旗)를 들고 일어나면, 【무릇 물건을 취(取)하려는 자는 모두 꿇어앉아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하고 취하여 일어난다. 물품을 드리는 때는 꿇어앉아서 드린 다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악공(樂工)이 축(祝)을 치면, 헌가(軒架)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한다. 전하는 판위(版位)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설 때마다 예의사는 전하의 왼편으로 물러선다.】 협률랑이 휘기를 눕히고 어(敵)를 치면, 풍악은 그

立, 俟神輦升殿, 各復階上位。 判通禮跪啓外辦, 導殿下出, 繖扇、華蓋、侍衛如常儀。 禮儀使導殿下至東門外, 近侍跪進圭, 禮儀使跪啓請執圭, 殿下執圭。 華蓋、仗衛停於門外。 尙瑞官奉寶陳於小次之側, 禮儀使導殿下入自正門。 【東門。 侍衛不應入者止於門外。】 協律郎跪, 俛伏舉麾輿, 【凡取物者皆跪, 俛伏而取以輿。 奠物則跪奠訖, 俛伏而後輿。】 工鼓祝, 軒架作《承安之樂》, 殿下詣版位西向立。 【每立定, 禮儀使退立於左。】 協律郎偃麾戛敵, 樂止。 【凡樂協律郎跪, 俛伏舉麾, 典工鼓祝而後作, 偃麾戛敵而後止。】 初, 殿下將入門, 攝判通禮進當太宗神主幄前跪, 啓請降座升輦附謁, 啓訖俛伏興。 內侍捧几置於輦上, 大祝捧太宗神主櫃, 安于几後。 次宮闈令捧王太后神主櫃, 安于几後訖, 執禮 【堂下執禮】 引神輦至廟南門, 繖扇停列於門外。 【侍衛員吏皆退】 齋郎等陪神輦入自正門, 至附謁褥位, 大祝、宮闈令各捧櫃, 安於褥位開櫃。 大祝捧出太宗神主, 安於踏上。 次宮闈令捧出王太后神主, 安於踏上訖,

친다. 【무릇 풍악은 협률랑이 꿇어앉아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하고 휘기를 들고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친 뒤에 악을 시작하고, 휘기를 높히며 어를 치면 악을 정지한다. 】

처음에 전하가 문을 들어오려 하면, 섭관통례가 태종의 신주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좌(座)에서 내려 여를 타고 가서 부알(拊謁)하기를 계청하고, 계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여 위에 두고, 대축은 태종의 신주궤를 받들어 안석 뒤에 봉안한다. 다음에 궁위령이 왕태후의 신주궤를 받들어 안석 뒤에 봉안하고 나면, 집례【당하관의 집례이다.】가 신여를 인도하여 묘 남문에 이르면, 산·선은 문밖에 정열(整列)한다.

【시위하는 원리(員吏)는 모두 물러간다.】 재랑(齋郎)들이 신여를 모시고 정문으로 들어와 부알(拊謁)할 옥위(褥位)에 이르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주궤를 받들어 옥위에 봉안하고 궤를 열면, 대축은 태종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부(跣)위에 봉안하고, 다음에 궁위령은 왕태후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부 위에 봉안한다. 【태종의 신주는 서쪽에 놓는다.】

섭관통례가 옥위 서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지금 길신(吉辰)이므로 태종 공정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과 창덕소열 원경 왕태후(彰德昭烈元敬王太后)를 부알하기를 계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물러난다. 조금 있다가 섭관통례가 옥위의 서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여를 타고 가서 부향(拊享)하기를 계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물러나 본래의 반차(班次)로 내려온다. 대축과 궁위령은 옥위에 나아가 꿇어앉아 각각 신주를 받들어서 여에 봉안한다. 【신주궤 뚜껑도 여 위의 뒷편 가까운 곳에 둔다.】 신여가 올라오면 【태계(泰階)로 올라온다.】 대축과 궁위령이 제6실로 인도하여 들어가서 악좌 앞에 이른다. 내시가 안석을 받들어 악좌에 놓고, 대축과 궁위령은 각기 신주를 받들어 악좌에 봉안하고 수건으로 덮는데, 서쪽을 위로 한다. 【집사자(執事者)는 책

【太宗神主在西】攝判通禮進於褥位西北面跪啓稱：“以今吉辰，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彰德昭烈元敬王太后拊謁。”啓訖，俛伏興退。

小頃，攝判通禮進褥位之西東面跪，啓請升輦拊享，啓訖俛伏興退，降就本班。大祝、宮闈令進跪於褥位，各捧神主安於輦。【其匱蓋亦置輦上近後。】神輦既升，【升自泰階】大祝、宮闈令奉引入第六室，至幄座前，內侍捧几置於座。大祝、宮闈令各捧神主安於座，覆以巾，以西爲上。【執事者奉冊寶入，置於案上。】其腰輦降自阼階，由東門出。禮儀使前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執禮曰四拜，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先拜者不拜】執禮曰禮儀使啓請行事，禮儀使前跪，啓有司謹具請行事，退復位。軒架作《景安之樂》，烈文之舞作，九成止。近侍詣盥洗位盥帨訖，還侍立。謁者引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詣盥洗位盥帨訖，升自阼階，詣翼祖室尊所北向立，執禮曰：“禮儀使導殿下，行裸鬯禮。”禮儀使導殿下【軒架作承安之樂】詣

보를 받들고 들어와서 안(案) 위에 둔다.】 요여(腰輦)는 조계(阼階)로 내려와 동문(東門)으로 나간다. 예의사가 앞에 꿇어앉아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집례가 ‘예의사는 행사(行事)하기를 계청하라.’ 하면, 예의사가 앞에 꿇어앉아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한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에 돌아간다. 헌가(軒架)는 경안지악(景安之樂)과 열문지무(烈文之舞)를 시작하여 아홉 번을 거듭하고 그친다. 근시(近侍)가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를 마친 다음 돌아와 시립(侍立)한다. 알자는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를 마친 다음 조계로 올라가 익조실(翼祖室)의 준소(尊所)로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창례(裸鬯禮)를 행하라.’ 하면,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한다.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꿇어앉아 규(圭)꽂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꽂는다. 내시(內侍)가 꿇어앉아 대야[匱]를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또 내시 한 사람은 꿇어앉아 반(盤)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는 꿇어앉아 비(篚)에서 수건을 가져다 올린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는 꿇어앉아 비(篚)에 담는다. 예의사는 규(圭)를 잡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홀을 잡는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가고 나면,【예의사·근시·내시가 따라 오른다.】 악은 그친다. 익조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등가(登歌)는 숙안지악(肅安之樂)과 열문지무(烈文之舞)를 시작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맥(鬯)을 들면, 진폐 찬작관이 울창(鬱鬯)을 따르고, 근시는 찬(瓚)으로 울창을 받는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전하에게〉 꿇어앉아 규를 꽂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아 규

盥洗位北向立，跪啓請搯圭，殿下搯圭。內侍跪，取匱與沃水，又內侍跪取盤承水，殿下盥手。內侍跪，取巾於篚以進，殿下脫手訖，內侍受巾奠於篚。禮儀使啓請執圭，殿下執圭。禮儀使導殿下升自阼階【禮儀使、近侍、內侍從升】訖，【樂止】詣翼祖室尊所西向立，登歌作《肅安之樂》，烈文之舞作。執尊者舉鬯，進幣瓚爵官酌鬱鬯，近侍以瓚受鬱鬯，禮儀使導殿下，詣神位前北向立，跪啓請跪搯圭，殿下跪搯圭。近侍一人捧香合跪進，近侍一人奉香爐跪進，禮儀使啓請三上香，殿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瓚跪進，禮儀使啓請執瓚，殿下執瓚灌地訖，以瓚授奠幣瓚爵官，奠幣瓚爵官受以授大祝。近侍以幣篚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幣跪進，禮儀使啓請執幣獻幣，殿下執幣獻幣，以幣授奠幣瓚爵官，奠于案。【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殿下執圭俛伏興。禮儀使導殿下出戶，詣度祖室，次詣桓祖

를 쫓는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세 번 향을 올리고, 근시는 향로를 향안(香案)에 드린다. 근시가 찬(瓚)을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받아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찬 잡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찬을 잡아 땅에 부은 다음 찬을 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에게 주면, 전폐 찬작관은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폐비(幣篋)를 진폐 찬작관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폐백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집폐 헌폐하는데, 폐백을 전폐 찬작관에게 주어 안(案)에 드리게 한다. 【무릇 진향(進香)·진찬(進瓚)·진폐(進幣)는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전로(奠爐)·수찬(受瓚)·전폐(奠幣)는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하는데,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에 준한다.】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도조실(度祖室)에 나아가고, 다음은 환조실(桓祖室)에, 다음은 태조실에, 다음은 공정왕실(恭靖王室)에, 다음은 태종실에 나아가서 향을 올리고 관창(裸鬯)하며, 폐백을 드리는 것도 아울러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것이 끝나면,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등가(登歌)는 그친다.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은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앞기둥[前楹] 밖의 한가운데에 북향으로 서게 하면, 예의사가 꿇어앉아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軒架)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고, 〈전하가〉 조계(阼階)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오면, 악은 그친다. 등가가 그칠 때에 여러 축사

室，次詣太祖室，次詣恭靖王室，次詣太宗室，上香、裸鬯、奠幣，竝如上儀訖，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殿下執圭俛伏興，【登歌止】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皆降復位。禮儀使導殿下出戶，就前楹外當中北向立。禮儀使跪，啓請鞠躬再拜興平身，殿下鞠躬再拜興平身。禮儀使導殿下【軒架作承安之樂】降自阼階復位。【樂止】當登歌止時，諸祝史各取毛血盤、肝膋鑿於前楹外，俱入奠於神位前。【毛血盤在鑿之後，肝膋鑿在籩之左。】諸祝史俱取肝膋，燔於爐炭，還尊所饋食。殿下既升裸，贊引引典祀官，帥進饌者詣廚，以匕升牛于鑊，實于一鼎，次升羊實于一鼎，次升豕實于一鼎，【每室牛羊豕各一鼎。】皆設扃幕。祝史對舉，入設於饌幔內。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奉俎官隨之，俟殿下裸訖復位。【樂止】執禮曰進饌，祝史抽扃委于鼎右，除幕加匕畢于鼎。典祀官以匕升牛實于牲匣，次升羊豕，各實于牲匣。【每室牛羊豕各一匣。】次引薦俎官奉翼祖室俎，奉俎官各奉牲匣，典祀官引饌入自正門。【南門】俎初入門，

(祝史)가 앞기둥 밖에서 각각 모혈반(毛血盤)·간료등(肝膾鐙)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서 신위 앞에 놓는데, 【모혈반은 등(鐙)의 뒤쪽에 놓고, 간료등은 변(籩)의 왼쪽에 놓는다.】 여러 축사가 함께 간요를 가져와서 화로의 숯불에 구워 준소(尊所)로 돌아가 제식(饋食)한다. 전하가 이미 관창(裸鬯)을 올렸으며, 찬인이 전사관(典祀官)을 인도하고, 진찬자(進饌者)를 거느리고 부엌[廚]에 나아가, 비(匕)로 우(牛)를 확(鑊)에서 들어올려 정(鼎)에 담고, 다음은 양(羊)을 들어올려 정에 담고, 다음은 시(豕)를 들어올려 정에 담는데, 【실(室)마다 우·양·시가 각각 한 정씩이다.】 모두 경떡(肩髀)을 설치한다. 축사(祝史)가 맞들고 들어가서 찬만(饌幔) 안에 진설한다. 알자(謁者)는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 찬소(饌所)에 나아가는데, 봉조관(奉俎官)이 따른다. 전하가 관창을 마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악이 그친다. 집례가 ‘진찬(進饌)’ 하면, 축사는 경(肩)을 뽑아 정(鼎) 오른쪽에 두고, 떡(髀)을 벗긴 다음 비(匕)와 필(畢)을 정(鼎)에 얹어 둔다. 전사관(典祀官)이 비(匕)로 우를 들어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에 양과 시를 들어올려 각각 생갑에 담는다. 【실(室)마다 우·양·시가 각각 한 갑씩이다.】 다음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익조실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奉俎官)은 각각 생갑을 받드는데, 전사관이 찬(饌)을 인도하여 정문(正門) 【남문.】으로 들어온다. 조(俎)가 문에 처음 들어올 무렵에, 헌가(軒架)는 웅안지악(雍安之樂)을 시작한다. 여러 축사는 함께 나가서 모혈반(毛血盤)을 걸어서 조계(阼階)를 통해 재량(齋郎)에게 주어 보낸다. 찬(饌)이 태계(泰階)에 이르면, 여러 대축(大祝)이 섬들 위에서 맞이한다. 천조관(薦俎官)이 익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우를 드리고, 다음은 양, 다음은 시를 드린다. 【여러 대축이 드리는 것을 돕는다.】 드리기를 마치고, 생갑(牲匣)의 뚜껑을 연다. 도조실에 나아가고, 다음은 환조실, 다음은 태조실, 다음은 공정왕실, 다음은 태종실에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는데,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나면, 악은 그친다.

【軒架作《雍安之樂》】 諸祝史俱進徹毛血槃，自阼階授齋郎以出。饌至泰階，諸大祝迎於階上。薦俎官詣翼祖神位前北向跪奠，先薦牛，次薦羊，次薦豕。【諸大祝助奠】 奠訖，啓牲匣蓋，詣度祖室，次詣桓祖室，次詣太祖室，次詣恭靖王室，次詣太宗室奉奠，竝如上儀訖，【樂止】 謁者引薦俎官以下降自阼階復位。諸大祝各取蕭黍稷揉於脂，燔於爐炭，還尊所。謁者引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升詣翼祖室尊所北向立，執禮曰：“禮儀使導殿下行初獻禮。” 禮儀使導殿下【軒架作承安之樂】 升自阼階訖，【樂止】 詣翼祖室尊所西向立。【登歌作壽安之樂，(列文之舞) [烈文之舞] 作】 執尊者舉髀，進幣瓚爵官酌醴齊，近侍二人以爵受酒，禮儀使導殿下，詣神位前北向立，跪啓請跪搯圭，殿下跪搯圭，近侍以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奉爵跪進，禮儀使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奠幣瓚爵官，奠于神位前。近侍以副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奉爵跪進，禮儀使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奠幣瓚爵官，奠于王

알자는 천조관 이하를 인도하여 조계로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러 대축은 각기 소(蕭)·서직(黍稷)을 가지고 고기 기름을 묻혀 화로의 숯불에 구워서 준소로 들어간다. 알자는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을 인도하여 익조실(翼祖室)의 준소로 올라가 북향하여 서면, 집례가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면,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는데, 〈전하가〉 조계로 오르기를 마치면 악이 그친다. 익조실의 준소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등가(登歌)는 수안지악(壽安之樂)과 열문지무(烈文之舞)를 시작한다. 집준자가 떡(饗)을 들면, 진폐 찬작관이 예제(禮齊)를 따르고, 근시 두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예의사는〉 꿇어앉아 규(圭)를 쫓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아서 규를 쫓는다. 근시가 작을 진폐 찬작관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전폐 찬작관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도록 한다. 근시가 부작(副爵)을 진폐 찬작관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집작 헌작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전폐 찬작관에게 주어 왕후 신위 앞에 드리도록 한다.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악은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고 나면, 악은 시작된다. 예의사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오고, 악은 그친다. 차례로 작헌(酌獻)하는데,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익조실에는 소녕지곡(昭寧之曲)을, 도조실에는 정명지곡(貞明之曲)을, 환조실에는 위명지곡(威明之曲)을, 태조실에는 소명지곡(昭明之曲)을, 공정왕실에는 순명지곡(純明之曲)을 태종실

后神位前。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小退北向跪，殿下執圭，俛伏興小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禮儀使啓請俛伏興，殿下俛伏興。禮儀使導殿下出戶，【樂止】以次酌獻竝如上儀。【翼祖室歌昭寧之曲，度祖室歌貞明之曲，桓祖室歌威明之曲，太祖室歌昭明之曲，恭靖王室歌純明之曲，太宗室歌仁明之曲。】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殿下執圭俛伏興。【曲終樂止】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皆降復位。禮儀使導殿下出戶，就前楹外當中北向立。禮儀使跪啓請鞠躬再拜興平身，殿下鞠躬再拜興平身。禮儀使導殿下【軒架作承安之樂】降自阼階復位。禮儀使跪啓請入小次，殿下將至小次，禮儀使跪啓請釋圭，近侍受圭，殿下入小次簾降。【樂止】文舞退武舞進，軒架作《舒安之樂》，舞者立定，樂止。亞終獻：【七祀功臣酌獻附】初，殿下將復位，執禮曰：“行亞獻禮。”知通禮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脫手訖，【盥手脫手不贊】贊執笏。引亞獻官升自阼階，詣翼祖室

에는 인명지곡(仁明之曲)을 노래한다.】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곡(曲)이 끝나고, 악도 그친다.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도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앞기둥[前楹] 밖의 한가운데에 북향하여 서면, 예의사는 꿇어앉아서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고, 조계로 내려와 위차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꿇어앉아 소차(小次)에 들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소차에 이르면 예의사는 꿇어앉아 규 놓기를 계청하여, 근시가 규를 받는다. 전하가 소차에 들면, 주렴을 내리고, 악은 그친다. 문무(文舞)는 물러나고, 무무(武舞)가 나오면, 헌가는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시작하는데, 무자(舞者)가 지정된 자리에 서면, 악도 그친다.

아헌·중헌은【칠사 공신의 작헌(酌獻)도 덧붙인다.】 처음에 전하가 소차로 돌아가게 되면, 집례(執禮)가 ‘아헌례를 행하라.’ 하면,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홀(笏)을 꽂으라.’ 찬(贊)한다.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면,【손을 씻고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홀을 잡으라.’ 찬한다. 아헌관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 익조실의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헌가는 수안지악(壽安之樂)과 소무지무(昭武之舞)를 시작하며, 향악(鄉樂)도 섞어 아린다. 집준자가 떡(羃)을 들고 양제(盞齊)를 따르면, 집사자(執事者) 두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찬하여, 아헌관은 꿇어앉아서 홀을 꽂는다.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집사자가 부작(副爵)을 아헌관에 주면, 아헌관이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지통례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尊所西向立,【軒架作壽安之樂, 昭武之舞作, 鄉樂交奏.】執尊者舉羃酌盞齊, 執事者二人以爵受酒。知通禮引亞獻官, 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亞獻官跪搯笏。執事者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知通禮贊執笏俛伏興, 亞獻官執笏俛伏興。引出以次酌獻, 竝如上儀訖, 知通禮贊執笏俛伏興, 亞獻官執笏俛伏興。【樂止】引出就前楹外當中北向立, 知通禮贊鞠躬再拜興平身, 亞獻官鞠躬再拜興平身, 引降復位。亞獻官獻將畢, 執禮曰: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 行禮如亞獻儀, 引降復位。初, 終獻官既升, 贊引引七祀獻官, 詣盥洗位, 搯笏盥手脫手訖, 執笏詣尊所, 執尊者舉羃酌酒。執事者以爵受酒, 獻官詣神位前西向跪搯笏, 執事者授爵, 獻官執爵獻爵奠爵, 以次奠訖, 執笏俛伏興, 就司命神位前西向跪。祝就獻官之左北向跪, 讀祝文訖, 獻官少退當中西向再拜, 贊引引復位。初, 七祀獻官將詣盥洗位,

고 찬하여, 아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나와 앞기둥 밖의 한가운데에서 북향하여 서면, 지통례가 ‘국궁, 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아헌관은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헌관이 헌작을 마치게 되면,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한다.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아헌(亞獻)하던 의식대로 행례(行禮)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종헌관이 올라오면, 찬인이 칠사 헌관(七祀獻官)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홀을 꽂고,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홀을 잡고 준소로 나아간다. 집준자가 먹(罍)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헌관은 신위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아 홀을 꽂으면, 집사자가 작을 준다. 헌관이 집작(執爵) 헌작(獻爵) 전작(奠爵) 하는데, 차례로 작을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다. 사명(司命) 신위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으면, 축(祝)이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이것이 끝나면, 헌관은 조금 물러나 한가운데에서 서향하여 재배하고, 찬인은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칠사 헌관이 관세위에 나아가게 되면, 찬인이 배향 공신(配享功臣)의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홀을 꽂고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홀을 잡고 준소로 나아간다. 집준자가 먹(罍)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헌관이 신위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서서 홀을 꽂으면, 집사자는 작을 주어, 헌관이 집작 헌작 전작한다. 차례로 작을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홀을 잡으면, 축사가 교서(敎書)를 받들고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서서 읽는다. 〈읽는 것이 끝나면〉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음복(飲福)은, 초헌·종헌관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알자가 진폐 찬작관과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가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

贊引引配享功臣獻官，詣盥洗位，措笏盥手，執笏詣尊所，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獻官詣神位前東向立措笏，執事者授爵，獻官執爵獻爵奠爵，以次奠訖執笏。祝史奉敎書，進神位之右立讀訖，贊引引獻官復位飲福。初，終獻官既復位，謁者引進幣瓚爵官、薦俎官升自阼階，詣飲福位北向立。大祝詣翼祖室尊所，以爵酌上尊福酒，又大祝持俎，進減神位前俎肉，執禮曰：“禮儀使導殿下詣飲福位。”禮儀使跪啓請詣飲福位，簾捲出次，【軒架作《承安之樂》】近侍跪進圭，禮儀使跪啓請執圭，殿下執圭，禮儀使導殿下詣飲福位西向立。【樂止，登歌作《壽安之樂》】大祝以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奉爵北向跪進，禮儀使跪啓請跪摺圭，殿下跪摺圭，受爵飲訖，進幣瓚爵官受虛爵，以授大祝，大祝受復於坫。大祝以俎授薦俎官，薦俎官奉俎北向跪進，禮儀使啓請受俎，殿下受俎，以授近侍，近侍奉俎降自阼階出門，授司饗。進幣瓚爵官、薦俎官皆降復位。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殿下執圭俛伏興。【樂止】

다. 대축이 익조실의 준소에 나아가 작으로 상준(上尊)의 복주(福酒)을 따른다.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신위 앞에 나아가 조의 <담긴> 고기를 들어낸다. 집례가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라.’ 하면, 예의사는 꿇어앉아서 음복위에 나아가기를 계청한다. 주렴을 걷고 소차에서 나오면, 헌가는 승안지악을 시작한다. 근시가 꿇어앉아서 규(圭)를 올리면, 예의사는 꿇어앉아서 규를 잡도록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으면,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고, 악은 그치고, 등가는 수안지악을 시작한다. 대축이 작을 진폐 찬작관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고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꿇어앉아서, 꿇어앉아 규를 쫓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아 규를 쫓고, 작을 받아 마시고 나면, 진폐 찬작관이 빈 잔을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대축은 이를 받아서 다시 점(玷) 위에 놓고, 대축은 조(俎)를 천조관에게 주면, 천조관이 조를 받들고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조(俎)받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조를 받아 근시에게 주는데, 근시는 조를 받들고 조계로 내려와 문을 나와 사옹(司饗)에게 주고, 진폐 찬작관과 천조관은 모두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악은 그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악이 그친다. 꿇어앉아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집례가 ‘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집례가 ‘변(籩)·두(豆)를 칠거하라.’ 하면, 여러 대축이 묘실에 들어가 변·두를 칠거하며, 【칠거한다는 것은 변·두 각 하나를 그 자리에서 조금씩 옮긴다.】 등가는 용안지악(雍安之樂)을 시작한다. 칠사 공신의 축사·재량도 각각 변·두를 칠거하는데, 칠거를 마치면, 악은 그치고, 헌가는 경안지악(景安之樂)을 아

禮儀使導殿下【軒架作《承安之樂》】降復位,【樂止】跪啓請鞠躬再拜興平身, 殿下鞠躬再拜興平身。執禮曰再拜, 在位者皆鞠躬再拜興平身。執禮曰徹籩豆, 諸大祝入室徹籩豆, 【徹者, 籩豆各一小移於故處。登歌作《雍安之樂》。】七祀功臣祝史、齋郎各徹籩豆。徹訖, 樂止, 軒架作《景安之樂》, 鄉樂交奏。禮儀使啓請鞠躬四拜興平身, 殿下鞠躬四拜興平身。執禮曰四拜, 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樂一成止】禮儀使啓禮畢, 導殿下還齋宮【軒架作《承安之樂》】出門。【樂止】禮儀使跪啓請釋圭, 殿下釋圭, 近侍跪受圭, 侍衛如常儀。【入齋宮釋冕服】執禮曰望瘞, 知通禮引亞獻官, 詣望瘞位北向立, 執禮帥贊者, 詣望瘞位西向立, 諸大祝取黍稷飯, 藉用白茅束之, 以筐取祝版及幣, 降自西階置於坎。執禮曰可瘞, 置土半坎, 宗廟令監視。知通禮引亞獻官, 謁者贊引各引諸享官出, 執禮率贊者還本位, 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贊引引監察及諸執事俱復懸北拜位。立定, 執禮曰四拜,

되며, 향악(鄉樂)도 섞어서 아뢰다. 예의사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악도 한 차례 연주하다가 그친다. 예의사는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재궁(齋宮)으로 돌아가고,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고, 문을 나오면, 악은 그친다. 예의사가 꿇어앉아 규를 놓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놓으면, 근시가 꿇어앉아 규를 받고, 시위(侍衛)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재궁에 들어가 면복(冕服)을 벗는다.】 집례가 ‘망예(望瘞)’라 하면,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여러 대축이 서직반(黍稷飯)을 백모(白茅)로 깔아서 묶고, 비(篋)로 축판과 폐백을 담아 서계(西階)로 내려와서 구덩이에 놓는다. 집례가 ‘가예(可瘞)’라 하면, 흙으로 구덩이를 반쯤 메우는데, 종묘령이 감시한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알자와 찬인은 여러 향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통례문은 배제한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은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현(懸) 북쪽의 배위(拜位)에 돌아가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아악 령(雅樂令)은 악공(樂工)과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나간다. 대축·종묘령·궁위령은 〈감실(塲室)에〉 신주를 들여놓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칠사(七祀)의 헌관은 서문(西門) 밖의 칠사의 예감(瘞坎)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축판을 예감에 넣고 묻는다. 공신의 축사(祝史)는 교서(敎書)를 받들어 서문 밖에 나가서 불사르고 물러난다. 전사관·종묘령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궁위령은 지계문을

監察及諸執事皆鞠躬四拜興平身訖，贊引以次引出。雅樂令帥工人、二舞出，大祝、宗廟令、宮闈令納神主如常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七祀獻官詣西門外七祀瘞坎之南北向立，執事者置祝版於瘞坎。瘞訖，功臣祝史奉敎書，出西門外焚之退，典祀官，宗廟令各帥其屬徹禮饌，宮闈令闔戶以降乃退。車駕還宮：攸司陳大駕鹵簿於還途如常儀，典樂令陳樂部於齋宮南門外。王世子以下文武群官，各具朝服，殿下服冠袍。王世子以下文武群官序立於大門外，文武侍臣詣齋宮迎，判司僕進象輅於大門外南向，千牛將軍立於輅前。判通禮跪啓外辦，判司僕升執綬，殿下乘輿出次，繖扇、華蓋侍衛如常儀。千牛將軍前執轡，殿下至門外降輿升輅，判司僕立受綬，知通禮跪啓請車駕進發，退復位。車駕動，千牛將軍夾輅而趨，至侍臣上馬所，知通禮跪啓：“請車駕小駐，敎侍臣上馬。”判通禮前承旨退稱曰敎可，通贊唱文武侍臣上馬，尚瑞官奉寶前導。知通禮跪，啓請敎車右升，判通禮前承旨退稱曰敎

닫고 내려와 물러간다.
 거가 환궁(車駕還宮)은, 유사가 대가(大駕)의 노부(鹵簿)를 돌아갈 길에 진열하는데,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악 령(典樂令)은 제궁(齊宮) 남문 밖에다가 악부(樂部)를 배둔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각기 조복(朝服)을 갖추고, 전하는 관을 쓰고 도포[袍]를 입는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대문 밖에 차례대로 서고, 문무 시신(侍臣)은 제궁에 나아가서 맞이한다. 판사복(判司僕)은 상로(象輅)를 대문 밖에 남향하여 진배(進拜)하고, 천우장군(千牛將軍)은 노(輅) 앞에 선다. 판통례는 꿇어앉아서 외관(外辦)을 아뢰고, 판사복은 올라와 유(綏)를 잡는다. 전하가 여(輿)를 타고 악차에서 나오면, 산(繖)·선(扇)·화개(華蓋)·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천우 장군이 앞에서 고삐를 잡는다. 전하가 문밖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노를 타면, 판사복은 서서 유(綏)를 받는다. 지통례가 꿇어앉아서 거가가 진발하기를 계청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거가가 움직이면, 천우 장군은 노 양쪽에서 빠르게 모신다. 시신(侍臣)이 말을 타는 장소에 이르면, 지통례가 꿇어앉아, ‘거가를 잠깐 머물러 시신들이 말 타기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리소서.’라고 계청하면,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들어 가지고 물러나와 말하기를 ‘가(可)하다고 하신다.’ 하고, 통찬(通贊)이 ‘문무 시신은 말을 타라.’고 창한다. 상서관(尙瑞官)은 보(寶)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한다. 지통례가 꿇어앉아서, ‘수레 오른쪽에 타기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리소서.’ 하고 계청하면,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들어 가지고 물러나와 말하기를, ‘가하다고 하신다.’ 하고, 지통례는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천우 장군이 타고 나면, 지통례는 꿇어앉아서 거가가 진발(進發)하기를 계청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거가가 움직이면, 고취(鼓吹)를 울리면서 환궁하는데, 문무 여러 신하가 인도하여 따르는 것은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거가가 경복궁 문밖의 시신이 말에서 내리는 장소에 이르면, 거가는 잠깐 멈

可, 知通禮退復位。 千牛將軍升訖, 知通禮跪, 啓請車駕進發, 退復位。 車駕動, 鼓吹振作而還, 文武群臣導從如常儀。 駕至景福宮門外侍臣下馬所, 車駕小駐, 文武侍臣皆下馬分立鞠躬。 千牛將軍降立於輅右, 車駕動, 千牛將軍夾輅而趨, 駕至勤政門, 【樂止】回輅南向。 判通禮進輅前跪, 啓請降輅, 俛伏輿還侍立, 殿下降輅, 乘輿以入, 繖扇、華蓋、侍衛如常儀, 侍臣從至殿庭。 攸司鋪幄座於勤政殿當中南向, 設香爐二於前楹外, 設案於殿階上。 通禮門設協律郎位於殿階上近西東向, 設左右侍臣及王世子以下文武群官位如常儀。 繖扇、仗衛陳於殿階上下, 樂部陳於群官之南如常儀訖。 禮曹員引諸道進箋員由東門入, 樂官奏樂前導至正門外, 【樂止】升自東階, 以箋文置於案上訖退。 王世子以下文武群官及諸道進箋員, 皆就門外位, 典樂令帥工人就位, 協律郎就位, 通禮門分引王世子以下文武群官入就位。 通贊唱班齊, 判通禮進跪啓請陞殿。 中禁傳嚴, 爐烟升, 尙瑞官奉寶前行, 殿下乘輿以出。 上護軍啓看, 協律郎跪俛伏舉塵

추고, 문무 시신은 모두 말에서 내려 나누어 서서 국궁(鞠躬)하고, 천우 장군은 〈수레에서〉 내려 노 오른편에 선다. 거가가 움직이면, 천우 장군은 노 양쪽에서 빠르게 모신다. 거가가 근정문(勤政門)에 이르면, 악은 그치며, 노를 돌려서 남쪽을 향하게 한다. 판통례가 노 앞에 꿇어앉아서, 노에서 내리기를 계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돌아와 시립(侍立)한다. 전하는 노에서 내려 여를 타고 들어가는데, 산·선·화개·시위는 보통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시신은 전정(殿庭)까지 따른다. 유사는 근정전 한가운데에 남향으로 악좌(幄座)를 포설(鋪設)하고, 향로(香爐) 둘을 앞기둥 밖에 베풀며, 안(案)은 전(殿)의 섬돌 위에 베풀다. 통례문은 협률랑(協律郎)의 자리를 전(殿)의 섬돌 위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고, 좌우 시신(侍臣)과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설치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산·선·장위(仗衛)는 전의 섬돌 위 아래에 진열(陳列)하고, 악부(樂部)는 여러 관원의 남쪽에 진열(陳列)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조 관원(禮曹官員)이 여러 도(道)의 전문(箋文)을 올리는 관원을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오면, 악관(樂官)이 악을 아뢰면서 앞에서 인도하고, 정문(正門) 밖에 이르면, 악은 그친다. 동계로 올라가서 전문(箋文)을 안(案) 위에 놓고 나서 물러간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과 여러 도의 진전관(進箋官)은 모두 문밖의 자리로 나아가고, 전악 령(典樂令)은 악공을 거느리고 자리에 나아가며, 협률랑도 자리로 나아간다. 통례문이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면, 통찬은 ‘반열(班列)을 정제(整齊)하라.’ 창(唱)한다.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전(殿)에 오르기를 계청하고, 중금(中禁)이 엄(嚴)을 전(傳)하고, 향로에서 향연(香烟)이 오르면, 상서관(尙瑞官)이 보(寶)를 받들어 앞서 가고, 전하는 여(輦)를 타고 나오는데, 상호군(上護軍)이 간심(看審)하기를 아뢴다. 협률랑이 꿇어앉아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악은 시작된다. 전의(典儀)가 통찬(通贊)을

興。【樂作】典儀招通贊贊鞠躬，群官皆鞠躬。 殿下升座，上護軍啓看，協律郎偃麾。【樂止】通贊贊平身，群官皆平身。 典儀招通贊贊致詞，致詞官【致詞官通禮門】代班首，就月臺中心近北。 通贊贊跪，群官皆跪。 致詞曰：“具銜臣某等，大祀既成，禮當慶賀。” 俛伏興退復位。 通贊贊俛伏興四拜興平身，【樂作】群官皆俛伏興四拜興平身。【樂止】通贊贊跪，群官皆跪，山呼，【千歲】山呼，【千歲】再山呼。【千千歲】通贊贊俛伏興四拜興平身，【樂作】群官皆俛伏興四拜興平身。【樂止】典儀唱進箋，執事官舉諸道箋案，由東門入，判通禮引至簾前置案訖，判通禮贊宣箋，宣箋官宣最高官箋文訖，執事官撤箋案，置於寶案之南。 判通禮跪啓禮畢，通贊贊禮畢，殿下降座，【樂作】通贊贊鞠躬，群官皆鞠躬。 殿下乘輿以入，【樂止】贊平身，群官皆平身。 通禮門分引王世子以下文武群官以次出。 還宮時，義禁府、軍器監進儺禮雜戲於宗廟洞口，成均館生徒等進歌謠於鍾樓西街，教坊進歌謠於惠政橋邊，仍呈才，又於景福宮

불러서 ‘국궁하라.’ 찬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국궁한다. 전하가 좌(座)에 오르면, 상호군이 간심하기를 아뢴다. 협률량이 휘를 눕히면, 악은 그친다. 통찬이 ‘평신(平身)하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평신한다. 전의가 통찬을 불러서 ‘치사(致詞)하라.’ 찬하면, 치사관(致詞官)이 【치사관은 통례문이다.】 반수(班首)를 대신하여 월대(月臺)의 중심에서 북쪽으로 가까이 나아간다. 통찬이 ‘꿨어앉으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꿨어앉는다. 치사(致詞)가 말하기를, ‘구함(具銜) 신 아무 등은 대사(大祀)를 이미 마쳤으니, 경하(慶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고, 구부렀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물러 나간다. 통찬이 ‘면, 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악이 시작되고, 여러 관원은 모두 구부렀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악은 그친다. 통찬이 ‘꿨어앉으라.’ 찬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꿨어앉아, ‘산호(山呼) 【천세(千歲).】 , 산호 【천세(千歲).】 , 재산호(再山呼) 【천천세.】 ’ 한다. 통찬이 ‘면, 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악이 시작되고 여러 관원은 모두 구부렀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악은 그친다. 전의(典儀)가 ‘전문(箋文)을 올리라.’고 창(唱)하면, 집사관이 여러 도의 전문안(箋文案)을 들고 동문(東門)으로 들어오는데, 판통례가 주렴 앞까지 인도해와서 안(案)에다 놓는다. 판통례가 ‘전문을 펴라.’고 찬하면, 선전관(宣箋官)은 <직계(職階)가> 가장 높은 관원의 전문을 선독(宣讀)한다. 이를 마치면, 집사관이 전문안을 거두어 보안(寶案) 남쪽에 놓는다. 판통례는 꿨어앉아서, ‘예(禮)가 끝났다.’고 계하면, 통찬이 ‘예가 끝났다.’고 찬한다. 전하가 좌에서 내려오면, 악이 시작되고, 통찬이 ‘국궁’이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히고, 전하가 여를 타고 들어오면, 악은 그친다. ‘평신’이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바로 한다. 통례문이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환궁(還宮)할 때에 의금부와 군기감(軍器監)에서는 나례(儺禮)와 잡희(雜戲)를

門外左右結山臺。 殿下既還宮受賀禮如儀畢，仍頒教書及有旨，賜享官諸執事宴。

	<p>종묘의 동구(洞口)에서 벌이고, 성균관 생도(成均館生徒)들은 종루(鍾樓) 서가(西街)에서 가요(歌謠)를 아뢰며, 교방(敎坊)에서는 혜정교(惠政橋) 가에서 가요를 아뢰고, 이어 정재(呈才)하며, 또 경복궁 문밖 좌우에는 산디[山臺]를 맺는다. 전하가 환궁한 뒤에 하례를 의식대로 받고 나서, 이어 교서(敎書)와 유지(有旨)를 내리고, 향관(享官)과 여러 집사에게 잔치를 하사한다.” 하였다.</p>	
<p>世宗 24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6月 16日(己未) 5번째기사 일본국 구주 원의준이 토산물을 바치다</p>	<p>구주 원의준(原義俊)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쳤는데, 선자(扇子) 1백 자루, 소목(蘇木) 2천 근, 금란(金欄) 1단, 동(銅) 5백 근, 서각(犀角) 2본, 주절부(朱折敷) 20편(片), 견(絹) 10필, 사금(砂金) 1봉지, 단사(丹砂) 4근, 빈랑자(檳榔子) 10근이었다. 돌아가는 편에 정포(正布) 5백 30필을 하사하였다.</p>	<p>九州原義俊使人獻土宜。 扇子一百把、蘇木二千斤、金欄一段、銅五百斤、犀角二本、朱折敷二十片、絹一十匹、砂金一裹、丹砂四斤、檳榔子一十斤、回賜正布五百三十四匹。</p>
<p>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6월 18일(신유) 2번째기사 예조가 계한 태종과 원경 왕후의 위판을 광효전에 봉안하는 의주</p>	<p>예조에서 태종 대왕과 원경 왕후의 위판(位版)을 광효전에 봉안하는 의주(儀注)를 아뢰었는데, “하루 전에 충후위(忠扈衛)는 임시로 봉안할 악차[幄]를 광효전 서쪽에 동향으로 땅의 형편에 따라 설치하고, 유사(有司)는 상석(床席)과 욕위(褥位) 둘을 악차 안에 설치한다. 봉상시(奉常寺)에서 먼저 위판(位版) 둘을 독(櫝)과 아울러 만들어 두었다가, 이 때에 요여(腰輿)로 받들어 광효전으로 나아간다. 【연주(練主)의 예(例)와 같다.】 대축과 궁위령(宮闈令)이 각각 위판과 독을 욕위에 봉안(奉安)한다. 【태종의 위판을 북쪽에 둔다.】 부모(祔廟)하는 날에 상로(象輅)가 진발(進發)하는 것을 기다려, 집사(執事)는 광효전 신악(神幄) 동남쪽에 서향으로 탁자(卓子)를 설치하고, 【붓·벼루·먹·광칠(光漆)을 갖춘다.】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관세위(盥洗位)를 설치한다.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들은 각기 제복(祭服)을 갖춘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탁자의 남쪽에 북향하여 선다. 대축은 태종의 위판과 독을 받들고 들어와서 독을 열고 위판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혀 둔다. 제위판관(題位版官)이 손을 씻고</p>	<p>禮曹啓太宗大王、元敬王后位版奉安廣孝殿儀註： 前一日，忠扈衛設權安幄於廣孝殿之西東向，隨地之宜，有司設牀席褥位二於幄內。 奉常寺先造位版二并櫝，至是以腰輿奉詣廣孝殿，【如練主例】大祝、宮闈令各奉位版櫝， 安於褥位。 【太宗位版在北】祔廟日， 象輅進發， 執事設卓於廣孝殿神幄東南西向， 【具筆硯墨、光漆】設盥洗於東階東南北向。 獻官、諸執事各具祭服， 謁者引獻官， 升自東階， 詣卓南北向立。 大祝奉太宗位版櫝以入， 開櫝奉出位版， 臥置卓上。 題位版官盥手， 升自</p>

동계로 올라와 탁자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서, ‘유명 증시 공정 태종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有明贈諡恭定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이라 먹으로 쓴 다음, 광칠(光漆)로 여러 번 칠한다. 【먹 글씨가 마르기를 기다려 거둬 칠한다.】 대축이 위판을 받들어 독 안에 넣고, 다음에 궁위령이 왕후의 위판독(位版櫝)을 받들고 들어와서 독을 열고 위판을 꺼내어서 탁자 위에 놓혀 둔다. 제위판관이 먹으로 ‘창덕 소열 원경 왕태후(彰德昭烈元敬王太后)’라 쓴 다음 광칠로 거둬 칠하고 물러난다. 궁위령은 위판을 받들어 독 안에 넣는다. 대축과 궁위령은 각각 위판독을 받들고 들어와서 신악 안에 남향으로 봉안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나간다. 【유사가 배판(排辦)하기를 기다려 들어가 안신제(安神祭)를 행한다.】 유사는 헌관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집사자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되, 여러 줄로 서향 되게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殿庭)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 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서 모시게 한다. 알자·찬자의 자리는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되, 북쪽을 뒷자리가 되게 한다. 전사관(典祀官)·전사(殿司)는 각자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板)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향로·향합은 축(燭)과 아울러 신위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제기(祭器)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고, 존소(尊所)는 지계문 바깥 왼편에 설치한다. 헌관 이하 여러 집사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하여 사배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는 감찰·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독(櫝)을 열고 태종의 위판을 받들어 내어서 악좌에 모시고, 다음에 궁위령이 독을 열고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악좌에 모신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東階，詣卓前西向立，題云有明贈諡恭定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墨書訖，以光漆重模之，【待墨書乾重模】大祝奉位版，納于櫝中。次宮闈令奉王后位版櫝以入，開櫝奉出位版，臥置卓上。題位版官題云彰德昭烈元敬王太后，墨書訖，以光漆重模之乃退，宮闈令各奉位版櫝，納于櫝中訖。大祝、宮闈令各奉位版櫝，入安于神櫝內，南向西上。謁者引獻官，降自東階出。【竣有司排辦畢，入行安神祭。】有司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謁者、贊者位於東階西南，西向北上。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奠祝板於神位之右，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訖。獻官以下諸執事盥洗訖，謁者、贊者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各就位。大祝開櫝，奉出太宗位版，設於座，次宮闈令開櫝，奉出王后神主，設

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한다. 헌관이 사배하고 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찬하기를, ‘끓어얹아 홀을 깨끗하라.’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면, 집사자는 향로를 향안에 놓는다. 【봉향(奉香)은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전로(奠爐)는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수잔(受盞)·전잔(奠盞)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가 부잔(副盞)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끓어얹으라.’ 찬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끓어얹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면, 복, 흥, 재배’라 찬하고, 인도하여 지계문[戶]을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끓어얹아 홀을 깨끗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가 부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종헌례를 행하는데, 아헌하는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앞기둥[前楹] 바깥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음복위(飲福位)를 배설한다.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서 잔으로 복주(福酒)를 따르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

於座。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撝笏，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獻官之右，奠爐在獻官之左。受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又執事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引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撝笏，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又執事者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再拜，引降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終獻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

	<p>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꽃으라.’고 찬한다. 대축은 북향하여 끓어앉아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 다 마신다. 대축이 빈 잔을 받아 다시 준소에 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재배하라.’ 하면, 헌관은 재배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하고,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로 다시 돌아가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위판을 <독에> 들여놓고, 알자·찬자는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걸어치우고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나며, 축관은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尊所，以盞酌福酒，謁者引獻官，詣飲福位西向立，贊跪搯笏。大祝北向跪，以盞授獻官，獻官執盞飲訖，大祝受虛盞復於尊所，謁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贊者曰再拜，獻官再拜。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出。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謁者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位版，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率其屬，徹禮饌，闔戶以降乃退，祝版瘞於坎。</p>
<p>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6월 21일(갑자) 1번째기사 유계문을 보내 김성을 위로하고, 함길도 감사는 김성에게 곡식 등을 주라고 전지하다</p>	<p>전 사간(司諫) 유계문(柳季聞)을 보내어 선운(宣醞)으로서 소주(燒酒) 20병을 가지고 가서 김성(金聲)을 위로하게 하고, 이어 김성에게 저포(苧布)와 마포(麻布) 15필, 여름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傳旨)하여 지휘 김성에게 술·과일·생선·고기와 찹쌀 2석, 멥쌀 1백 50석을 지급(支給)하도록 하고, 유계문에게 여름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p>	<p>甲子/遣前司諫柳季聞，齋宣醞燒酒二十瓶，往慰金聲，仍賜金聲苧麻布十五匹、夏衣一襲。傳旨咸吉道監司，給指揮金聲酒果、魚肉、粳米二石、糙米一百五十石，賜柳季聞夏衣一襲。</p>
<p>世宗 24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6月 29日(壬申) 2번째기사 예조에서 계한 원경 왕후에게 존호를 더</p>	<p>예조에서 원경 왕후(元敬王后)에게 존호(尊號)를 더 올리는 의주(儀注)를 계하기를, “기일(期日)보다 3일 전에 전하는 별전(別殿)에서 재계(齋戒)하고, 책사(冊使)와 헌관(獻官) 이하 여러 집사는 본 아문(衙門)에서 재계한다. 2일 전에 책(冊)을 임시로 봉안(奉安)할 악차(輦次)를 광효전(廣孝殿) 중문 밖에다 지형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설치한다. 하루 전에 예고제(預告祭)를 거행한다. 【삭망</p>	<p>禮曹啓元敬王后加上尊號儀注： 前期三日，殿下齋于別殿，冊使及獻官以下諸執事齋于本衙門。前期二日，設權安冊輦於廣孝殿中門外，隨地之宜。前期一日，行預告祭。【用朔望祭例】晨前三刻，有司設殿下傳冊位於</p>

올리는 의주

제(朔望祭)의 예(例)를 사용한다.】 새벽 3각(刻) 전에 유사는 근정전 월대(勤政殿月臺) 위의 한가운데에다 전하의 전책위(傳冊位)를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으로 배설(排設)하고, 책안(冊案)은 전책위의 서쪽에 남향으로 설치하여, 내시(內侍) 두 사람이 책안의 좌우에 갈라 서게 한다. 향안(香案)은 책안 앞에 설치하고, 협률랑의 자리는 서계 위에 동향으로 설치한다. 책사(冊使)와 헌관의 자리는 전정(殿庭)의 한가운데에 서쪽으로 가까이 북향되게 설치하고, 압책관(押冊官)은 책함(冊函)을 받든 자와 책안을 가진 자를 거느리고 책사의 남쪽에 있는데, 등급에 따라 자리를 달리 하여 여러 줄로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 하여 선다. 찬자(贊者) 두 사람의 자리는 여러 관원의 배위(拜位) 북쪽에 설치하되, 동서(東西)에서 서로 향하게 하며, 왕세자 이하 문무 백관의 자리는 전정(殿庭)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의장(儀仗)은 전정의 안팎에 진설(陳設)하고, 악부(樂部)는 백관의 남쪽에 진설한다.【진설하여 놓기만 하고 연주하지는 아니한다.】

시각이 되면, 유사는 책함과 축관함(祝版函)을 안(案) 위에 둔다.【책함은 서쪽에 있게 한다.】 협률랑(協律郎)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왕세자 이하 문무 백관과 책사(冊使) 이하 행례(行禮)할 관원(官員)들은 각기 평상복(平常服)과 흑대(黑帶) 차림으로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가면, 통례문(通禮門)이 왕세자 이하 문무 백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다. 다음에 책사 이하 행례할 관원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선다. 전하는 평상복과 흑대로, 전(殿)을 나와 욕위(褥位)에 나아가다. 찬례(贊禮)가 ‘재배(再拜)하라.’ 찬(贊)하면, 전하가 재배하고, 통찬(通贊)이 ‘재배하라.’ 외치면, 왕세자 이하 여러 관원과 책사·헌관 및 행례할 관원들은 모두 재배한다. 근시(近侍) 한 사람이 향합(香合)을 받들고 꿇어앉아 전하의 오른편에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들고 꿇어앉아서 왼편에서 올린다. 찬례가 ‘꿇어앉으라.’ 찬하면, 전하가 꿇어앉고, 통찬이 ‘꿇어앉으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꿇

勤政殿月臺上中央近東西向，設冊案於傳冊位之西南向，內侍二人分立冊案左右，設香案於冊案前，設協律郎位於西階上東向，冊使及獻官位於殿庭中央近西北向，押冊官帥奉冊函者及持冊案者，在冊使之南，每等異位重行，北面東上，設贊者二人位於衆官拜位之北，東西相向，設王世子以下文武百官位於殿庭東西如常儀，陳儀仗於殿庭內外，陳樂部於百官之南。【陳而不作】時至，有司奉冊函及祝版函置案上。【冊函在西】協律郎先入就位，王世子以下文武百官及冊使以下應行禮官，各以常服、黑帶，俱就殿門外。通禮門引王世子以下文武百官入就位，次引冊使以下應行禮官入就位。立定，殿下常服黑帶，出殿詣褥位，贊禮贊再拜，殿下再拜。通贊喝再拜，王世子以下衆官及冊使、獻官、應行禮官皆再拜。近侍一人奉香合，跪進於殿下之右，一人奉香爐，跪進於左，贊禮贊跪，殿下跪。通贊喝跪，衆官皆跪。贊禮贊上香，殿下上香，近侍奠于案上。贊禮贊俯伏興平身，殿下俯伏興平身。通贊喝俯伏興平身，衆官皆俯伏興平身。

어앉는다. 찬례가 ‘상향(上香)하라.’ 찬하면, 전하가 상향하고, 근시(近侍)가 향안 위에 놓는다. 찬례가 ‘부복, 흥, 평신’ 이라 찬하면, 전하는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부복, 흥, 평신’ 이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재배하라.’ 찬하면, 전하가 재배하고, 통찬이 ‘재배하라.’ 외치면, 왕세자 이하 여러 관원은 모두 재배한다. 봉례랑(奉禮郎)이 책사와 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서 전책위의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 하여 선다. 지신사(知申事)가 책함을 받들어 올리면, 찬례가 ‘꿇어앉으라.’ 찬하면, 전하가 꿇어앉고, 통찬이 ‘꿇어앉으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꿇어앉는다. 전하가 책함을 받아서 책사에게 전해 주면, 책사는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받고, 서향하여 선다. 지신사가 축관을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리면, 전하는 또 받아서 헌관에게 전해 주는데, 헌관은 꿇어앉아서 받고, 서향하여 선다. 찬례가 ‘부복, 흥, 평신’이라 찬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통찬이 ‘부복, 흥, 평신’ 이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재배하라.’ 찬하면, 전하가 재배하고, 통찬이 ‘재배하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재배한다. 책사와 헌관은 가운데 길을 통해서 나오고 내시는 책안을 받들고 책사의 뒤를 따라 나와서 안(案)을 가진 자에게 전해준다.

압책관(押冊官)과 책안을 받든 자는 책사의 뒤를 따르고, 전하는 섬들을 내려 문으로 가서 지송(祇送)하고, 여러 관원은 모두 국궁(鞠躬)한다. 책사가 문을 나와 책함을 누자(樓子)에 봉안하면, 의장(儀仗)과 악부(樂部)가 앞에서 인도한다. 전하는 내전(內殿)에 돌아가고, 통례문은 왕세자 이하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각사(各司)의 한 사람씩이 뒤를 따라 광효전에 이르면, 책사는 책함을 받들고 중문 밖의 악차에 들어와 임시로 안(案) 위에 봉안하고, 전사(殿司)가 이를 지키며, 【백관은 궁문 밖에 차례로 서서 사배하고 물러간다.】 책사 이하는 물러나 자리에 나아간다. 그날 행례(行禮)하기 전에,

贊禮贊再拜，殿下再拜。通贊喝再拜，王世子以下衆官皆再拜。奉禮郎引冊使、獻官升自西階，詣傳冊位之南，北面東上，知申事奉冊函以進。贊禮贊跪，殿下跪。通贊喝跪，衆官皆跪。殿下受冊函傳授冊使，冊使東向跪受，西向立。知申事奉祝版跪進，殿下又受，傳授獻官，獻官跪受西向立。贊禮贊俯伏興平身，殿下俯伏興平身。通贊喝俯伏興平身，衆官皆俯伏興平身。贊禮贊再拜，殿下再拜。通贊喝再拜，衆官皆再拜。冊使、獻官由中道出，內侍奉冊案，隨冊使後，傳授持案者。押冊官與奉冊案者隨冊使後，殿下降階至門祇送，衆官皆鞠躬。冊使出門，以冊函安於樓子，儀仗、樂部前導，殿下還內。通禮門引王世子以下衆官以次出，各司一員隨後。至廣孝殿，冊使奉冊函，入詣中門外幄次，權安於案上，殿司守之，【百官止於宮外序立，四拜而退。】冊使以下退就次。其日未行禮前，有司設冊使以下應行禮官位於殿內庭東階東南，異位重行，俱西向北。時至，冊使奉冊函，入自正門，奉冊官隨冊使後，升自中

	<p>유사는 책사 이하 행례할 여러 관원의 자리를 전(殿)의 내정(內庭)에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관위를 달리 하여 여러 줄로 서향하며, 북쪽이 위가 되게 설치한다.</p> <p>시각이 되면, 책사는 책함을 받들고 정문(正門)으로 들어오고, 봉책관(奉冊官)은 책사의 뒤를 따라 중계(中階)로 올라온다. 【안(案)을 가진 자가 먼저 올라와서 안을 태후의 신좌(神座) 앞에 둔다.】 책사는 꿇어앉아 책함을 안 위에 봉안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나서 동계(東階)로 내려와 배위(拜位)로 나아가고, 행례할 관원은 모두 배위(拜位)에 나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외치면, 책사 이하 모두 사배한다. 책사가 동계로 올라가 태후(太后)의 신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독책관(讀冊官)이 책안 앞에 나아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책함을 열고 책을 받들어 조금 물러나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책을 읽고 나서 함 안에 도로 들여넣는다. 책사와 독책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 제자리로 내려오면, 찬자가 ‘사배하라.’ 외친다. 책사 이하 모두 사배하고, 찬자가 ‘예(禮)가 끝났다.’고 외치면, 차례로 인도하여 나온다. 유사가 찬품(饌品)을 진설하며, 【찬품은 별제(別祭)의 예(例)와 같다.】 헌관이 제사를 거행하는 것은 삭제와 망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축문에 헌책(獻冊)을 고한다는 뜻도 겸한다.】.”</p> <p>하였다.</p>	<p>階, 【持案者先升, 置案於太后神座前。】冊使以冊函跪安於案上, 俛伏興退, 降自東階, 就拜位, 應行禮官皆就拜位。贊者喝四拜, 冊使以下皆四拜訖, 冊使升自東階, 就太后神座前北向跪, 讀冊官詣冊案前俛伏興, 開函奉冊小退東向跪, 讀冊訖, 還納函中。冊使及讀冊官俛伏興退降復位, 贊者喝四拜, 冊使以下皆四拜。贊者喝禮畢, 以次引出, 有司設饌。【饌品用別祭例】獻官行祭如朔望儀。【祝文兼告獻冊意】”</p>
<p>世宗 24卷, 6年 (1424 甲辰 / 명 영락 (永樂) 22年) 6月 29日 (壬申) 3번째기사 사시와 납일·명절에 친향하는 의주</p>	<p>사시(四時)와 납일(臘日)·명절(名節)에 친향(親享)하는 의주(儀註)는, “친향하기 3일 전에, 전하는 이틀 동안 산재(散齋)하고, 하루 동안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할 때는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아니하고, 풍악을 듣지 아니하며, 유사는 형살(刑殺)에 관계되는 문서를 아뢰지 아니하고, 치재(致齋)는 오직 향사할 일만을 아뢴다. 무릇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 및 근시(近侍)할 관원과 당연히 따라 오를 자도 아울러 이틀 동안 산재하고, 하루 동안 치재한다. 무릇 산재할 때에는 일은 전(前)같이 다스리나, 오직 술을 함부로 마</p>	<p>四時及臘, 有名日親享儀: 前享三日, 殿下散齋二日, 致齋一日。凡散齋, 不弔喪、問疾、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 致齋唯啓享事。凡行事執事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竝散齋二日, 致齋一日。凡散齋,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p>

시지 아니하고, 과·달래·마늘·부추 따위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弔喪)과 문병을 아니하고, 노래를 듣지 아니하며, 형(刑)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刑殺)에 관계된 문서를 판결하거나 서명(署名)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에 관여(關與)하지 아니한다. 치재(致齋) 중에는 오직 향사(享事)에 관한 일만을 행하며, 이미 재계하고 꺾(闕)하게 된 자는 <다른 사람으로> 변통하여 섭행하게 한다. 배제(陪祭)할 문무 여러 관원과 여러 위(衛)의 소속(所屬)과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자와 공인(工人)도 아울러 하루 밤을 청재(淸齋)한다. 【향관 이하 제사에 참여할 자는 모두 친향(親享)하기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진설(陳設)은, 친향(親享)하기 이틀 전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殿) 안팎을 소제한다. 하루 전에 전악 령(典樂令)이 악현(樂懸)을 전정(殿庭)의 서쪽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한다.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版位)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의 자리는 전하의 판위 뒤에 남쪽 가까이 서향해서 설치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통찬(通贊) 두 사람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만약 내정(內庭)이 좁으면, 외정(外庭)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 전악(典樂)의 자리는 악현(樂懸)의 북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배제(陪祭)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外庭)에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으로 하며,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판위를 달리하여 여러 줄로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 둘은 동·서반(東西班)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각기 그 뒤에서 모시게 된다. 전사는 전(殿)의 안팎을 소제한다. 교서관(校書館) 관원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이 받들어 전하여 올려, 전하가 서(署)한 다음, 근신이 받들고 나와서 전사에게 교부한다. 친향 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는 묘실(廟室) 문을 열어 신악(神幄)을 정돈하고 <먼지를> 털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

疾, 不聽歌,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與穢惡事, 致齋唯行享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陪祭文武群官及諸衛之屬守衛殿門者及工人俱淸齋一宿。 【享官以下凡與祭者, 皆前享二日, 沐浴更衣。 】

陳設: 前享二日, 殿司率其屬, 掃除殿之內外。 前一日, 典樂令設樂懸於殿庭近西北向。 通禮門設殿下版位於東階東南西向, 設亞獻官、終獻官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 西向北上, 設通贊二人位於東階之西西向, 【若內庭狹窄, 則設於外庭東階西南西向。】 設典樂位於樂懸之北北向, 設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 文東武西, 中心爲頭, 異位重行, 俱北向, 設監察位二於東西班後北向, 書吏各陪其後, 殿司掃除殿之內外。 校書官員以祝版奉進, 近臣傳奉以進, 殿下署訖, 近臣奉出附殿司。 享日未行事前, 殿司開室, 整拂神幄。 典祀官、殿司各率其屬, 入奠祝版於神位之右。 【有坫】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 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 設福酒盞於尊所。

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점(坫)이 있다.】 향로·향합과 축을 신위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구(饌具)를 진설한다. 준소(尊所)는 지계문 밖 왼편에 설치하고, 복주잔(福酒盞)은 준소에 둔다.

예향(禮享)을 행사하기 3각 전에, 전사는 묘실을 열고 신악을 정돈하며 〈먼지를〉 털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饌具)에 찬수를 담는다. 여러 향관과 배제할 관원은 모두 전문(殿門) 밖으로 나아간다. 2각 전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시각을 알리면, 전하는 여(輿)를 타고 나와 임시로 재전(齋殿)에 나아간다. 1각 전에 전악 령이 악공(樂工)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고, 통례문이 종실 이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는다. 지통례는 아헌관 이하가 관세(盥洗)하기를 기다려 아헌관 【아헌관이 만약 왕세자가 아니면, 봉례랑(奉禮郎)이 인도한다.】을 인도하고, 봉례랑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는다. 대축이 독(櫛)을 열고 태종의 위판을 모셔 내어서 좌차에 봉안하고, 궁위령은 독을 열고 왕태후의 위판을 모셔내어서 좌차에 봉안한다. 판통례가 꿇어앉아서 외판(外辦)을 아된다.

전하가 관세하기를 마치면, 찬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 들어오며, 【시위로서 들어오지 못할 자는 문밖에서 머무른다.】 악(樂)이 시작된다. 전하가 관위에 와서 서향하여 서면, 악이 그친다. 찬례가 꿇어앉아서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계칭하면,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면, 악을 시작했다가, 동계로 올라간 뒤에 【섬돌을 오르내릴 때에는 상하가 모두 읍(揖)을 한다.】 악은 그친다.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악을 시작한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근시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찬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지계문 밖에서는 읍하고, 지계문 안에서는

行禮： 享日未行事前三刻， 殿司開室， 整拂神幄。 典祀官、 殿司各率其屬， 入實饌具畢， 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 前二刻， 書雲觀報時， 殿下乘輿以出， 權就齋殿。 前一刻， 典樂令率工人入就位， 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 知通禮待亞獻官以下盥帨訖， 引亞獻官， 【亞獻官若非王世子， 則奉禮郎引。】 奉禮郎引終獻官入就位。 大祝開櫛， 奉出太宗位版設於座次。 宮闈令開櫛， 奉出王太后位版設於座。 判通禮跪啓外辦， 殿下盥帨訖， 贊禮導殿下入自東門， 【侍衛不應入者止於門外。 樂作】 殿下至版位西向立， 【樂止】 贊禮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 殿下鞠躬四拜興平身。 通贊贊鞠躬四拜興平身， 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 贊禮導殿下 【樂作】 升自東階訖， 【升降階上下皆有揖。 樂止】 詣尊者西向立， 【樂作】 執尊者酌酒， 近侍二人以盞受酒。 贊禮導殿下， 入詣神位前 【戶外有揖， 戶內伏地。】 北向立， 啓請跪， 殿下跪， 近侍一人奉香合跪進， 近侍一人奉香爐跪進， 贊禮啓請三上香， 殿下三上香， 近侍奠爐于案。

땅에 엎드린다.】북향하여 서면, 꿇어앉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는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찬례가 향을 세 번 올리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향을 세 번 올리는데, 근시가 향로를 안(案)에 드리게 한다.【진향(進香)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전로(奠爐)는 서쪽에서 동향하여 하고, 진잔(進盞)·전잔(奠盞)도 이에 준한다.】근시가 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찬례가 집잔 헌잔(執盞獻盞)하기를 계청한다. 전하가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근시가 꿇어앉아 부잔(副盞)을 올리면 찬례가 집잔 헌잔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근시에게 주어 왕태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찬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고, 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다 읽으면, 악을 시작한다. 찬례가 ‘면, 복, 흥, 재배, 흥, 평신’이라 계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악이 그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오면, 악이 시작되고,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면, 악이 그친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악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으라’ 찬(贊)하여, 아헌관이 꿇어앉는다. 집사자가 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지통례는 ‘집잔 헌잔하라.’ 찬한다. 아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가 부잔(副盞)을 아헌관에게 주면, 지통례가 ‘집잔 헌잔하라.’ 찬하여, 아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태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지통례가 ‘면, 복, 흥, 소퇴(小退), 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아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

【進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進盞奠盞準此。】近侍奉盞跪進，贊禮啓請執盞獻盞，殿下執盞獻盞，以盞授近侍，奠于神位前。又近侍以副盞跪進，贊禮啓請執盞獻盞，殿下執盞獻盞，以盞授近侍，奠于王太后神位前。贊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殿下俛伏興小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贊禮啓請俛伏興再拜興平身，殿下俛伏興再拜興平身，【樂止】贊禮導殿下出戶，【樂作】降自東階復位。【樂止】知通禮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知通禮引亞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亞獻官跪，執事者以盞授亞獻官，知通禮贊執盞獻盞，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又執事者以副盞授亞獻官，知通禮贊執盞獻盞，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太后神位前。知通禮贊俛伏興小退再拜興平身，亞獻官俛伏興小退再拜興平身，【樂止】引降復位。奉禮郎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

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악은 그친다. 그리고 인도해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봉례랑이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행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음복위(飲福位)를 앞기둥[前楹] 밖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한다.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 잔으로 복주(福酒)를 따라 근시에게 준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면, 악이 시작되고,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근시가 잔을 받들어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린다. 찬례가 꿇어앉아서 잔을 받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서 잔을 받아 마시고, 근시는 빈 잔을 받아서 도로 준소에 둔다. 찬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고, 악은 그친다.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면,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예(禮)가 끝났다고 아뢰고, 전하를 인도해서 재전으로 돌아가면, 악이 시작되고, 문을 나오면, 악이 그친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봉례랑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며, 통례문은 배제(陪祭)한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전악 령은 악공을 거느리고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위판을 들여넣는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지계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나고, 축관은 구덩이에 묻는다. 전하는 여를 타고 환궁한다. 행사할 집사관은, 아헌관【왕세자.】, 종헌관【정일품(正一品).】, 전사관【봉상시 윤(奉常寺尹) 이상.】, 대축【내제(內製).】, 궁위령【내시부(內侍府).】, 응봉관 근시(應奉官近侍)【승정원

近東西向。大祝詣尊所，以盞酌福酒授近侍。贊禮導殿下【樂作】詣飲福位西向立，近侍奉盞北向跪進，贊禮啓請跪受盞，殿下跪受盞飲訖，近侍受虛盞復於尊所。贊禮啓請俛伏興，殿下俛伏興。贊禮導殿下降復位，【樂止】啓請鞠躬再拜興平身，殿下鞠躬再拜興平身。通贊贊鞠躬再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再拜興平身。贊禮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通贊贊鞠躬四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贊禮啓禮畢，導殿下還齋殿【樂作】出門【樂止】知通禮引亞獻官，奉禮郎引終獻官出，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典樂令率工人出。大祝、宮闈令納位版，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闔戶以降乃退，祝版瘞於坎，殿下乘輿還宮。行事執事官：亞獻官【王世子】終獻官【正一品】典祀官【奉常寺尹以上】大祝【內製】宮闈令【內侍府】應奉官近侍【承政院】贊禮【從二品】判通禮【通禮門】通贊【通禮門】。攝行則行事執事官：獻官【一品】典祝官【奉常寺】大祝【文官參

	<p>(承政院). 】 , 찬례【종2품(從二品). 】 , 관통례【통례문. 】 , 통찬【통례문. 】 이며, 섭행(攝行)할 때의 행사할 집사관은, 헌관【1품. 】 , 전사관【봉상시. 】 , 대축【문관 참외(文官參外). 】 , 궁위령【내시부. 】 , 알자(謁者)【참외(參外). 】 , 찬자【참외. 】 , 찬인【참외. 】 , 재랑(齋郎)【참외. 】 , 감찰이다. 삭망제(朔望祭)에는 악현(樂懸)이 없다.” 하였다.</p>	<p>外】 宮闈令【內侍府】 謁者【參外】 贊者【參外】 贊引【參外】 齋郎【參外】 監察。 朔望祭則無樂懸。</p>
<p>세종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7월 2일(을해) 2번째기사 기일 전에 통례문이 자리 배치를 하고 대왕과 왕후의 신주 앞에 담제를 지내다</p>	<p>담제의 의주(儀注)에, “기일 전에 통례문이 전하의 판위(版位)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과 종헌관의 자리는 전하 판위 뒤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하는데, 관위(官位)를 달리 하여 곁줄로 서게 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집례의 자리는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는 남쪽으로 조금 물려서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며 북쪽을 위로 한다.【만약 내정(內庭)이 좁으면 찬자의 자리는 외정(外庭)에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하고, 중심이 위가 되게 하되, 관위(官位)를 달리 하여 곁줄로 하고, 모두 북향하게 한다.【종실은 길 서쪽에서 앞줄에 있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동·서반(東西班) 뒤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리(書吏)가 각기 그 뒤에서 모시게 된다. 전사관(典祀官)이 그 속관들을 인솔하여 축관을 영좌의 오른쪽에【점(坫)이 있다.】 올려놓고, 폐백 광주리 둘은 준소에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축(燭)을 영좌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제기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고, 준(尊)은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되,【현주(玄酒)는 서쪽에 둔다.】 모두 국자를 올려놓고 보자기를 덮어 놓는데,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작세</p>	<p>禪祭儀註： 前期，通禮門設殿下版位於東階東南西向；設亞獻官、終獻官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西向北上，執事者位於其後，異位重行，俱西向北上，設執禮位於東階西南，西向，謁者、贊者、贊引在南小退，俱西向北上；【若內庭窄狹，則設贊者位於外庭東階西南西向。】設宗室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文東武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宗室於道西在前行】設監察位二於東西班後，北向，書吏各陪其後。典祀官率其屬，奠祝版於靈座之右，【有坫】陳幣篚二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玄酒在西】皆加勺罍，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有盤匱。】壘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p>

(爵洗)는 서쪽에 있게 하는데, 소반[盤]과 대야[匱]를 갖춘다. 【뇌(鼎)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籩]는 세의 서남쪽에 늘어 놓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작(爵)을 씻는 광주리면 또한 찬(瓚)과 작(爵)을 담는다.】 아헌관과 중헌관의 세(洗)는 또한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게 하는데, 만약 왕세자가 아헌하게 되면 따로 세를 중헌관의 세 서쪽에 설치하는데, 소반과 대야를 갖춘다.】 뇌는 세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늘어 놓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을 씻는 광주리면 또한 작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아헌관·중헌관의 세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이 그 속관을 인솔하고 들어와서 찬수를 제기에 담으면, 여러 향관과 배제(陪祭)하는 여러 관원은 모두 전문(殿文) 밖으로 나아간다. 관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연(輦)을 타고 나오게 하여, 임시로 재전(齋殿)으로 나아가서 자리[座]에 앉게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인솔하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겹줄로 서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사배하고 나서,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대축·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서면,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무릇 집례가 말하면, 찬자가 모두 전창(傳唱)한다.】 전사관 이하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아헌관과 【만약 왕세자가 아헌하게 되면, 지통례가 인도한다.】 중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궤(匱)를 열고 대왕의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자리[座]에 모시고 흰 모시수건으로 덮고, 궁위 령(宮闈令)이 궤를 열고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대왕의 신주는 서쪽에 있다.】 집사자가 작세

籩, 則又實以瓚爵】亞終獻洗又於東南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若王世子亞獻, 則別設洗於終獻洗之西, 有盤匱】鼎在洗東加勺, 籩在洗西南, 肆實以巾, 【若爵洗之籩則又實以爵】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時至, 典祀官帥其屬, 入實饌具畢, 諸享官及陪祭群官, 皆就殿門外, 判通禮導殿下乘輿以出, 權就齋殿卽座。執禮帥謁者、贊者、贊引, 先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 四拜訖, 各就位。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立定, 執禮曰四拜,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喝。】典祀官以下皆四拜訖, 贊引引諸執事, 詣盥洗位盥洗訖, 各就位。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 謁者引亞獻官【若王世子亞獻, 則知通禮引。】終獻官入就位。大祝開匱, 捧出大王神主, 設於座, 覆以白紵巾。宮闈令開匱, 捧出王后神主, 設於座, 覆以青紵巾。【大王神主在西】執事者詣爵洗位, 洗瓚拭瓚, 洗爵拭爵, 置於籩, 捧詣尊所, 置於坫上。禮曹判書進當齋殿前跪, 啓請行禮, 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齋殿詣版位西向

위에 나아가서 찬을 씻고 찬을 닦고, 작을 씻고 작을 닦아 광주리에 넣어 준 소로 받들고 나아가 점(坫) 위에 놓는다.

예조 관서가 재전(齋殿)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에서 나와 관위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내시가 꿇어앉아 대야를 집어서 물을 떠서 부으면, 또 한 내시가 소반으로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가 꿇어앉아서 광주리에서 수건을 집어서 올린다. 전하가 손을 닦기를 마치면, 내시가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다 놓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솔하여 동계로 올라 【근시와 내시가 따라 오른다.】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올창(鬱鬯)을 따르면, 근시가 찬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함을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근시가 향로를 안(案) 위에 올려놓는다. 근시가 찬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찬을 잡아 땅에 붓고 나서 찬을 근시에게 주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가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진향(進香)·진찬(進贊)·진폐(進幣)는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전로(奠爐)·수찬(受贊)·전폐(奠幣)는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하고,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에 준하여 한다.】 또 근시 한 사람이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아뢰

立, 判通禮啓請四拜哭, 殿下四拜哭盡哀。 執禮曰四拜哭, 在位者皆四拜哭盡哀。 【先拜者不拜】 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 內侍跪取匱與沃水, 又內侍跪取盤承水, 殿下盥手。 內侍跪取巾於篋以進, 殿下脫手訖, 內侍受巾奠於篋。 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 【近侍、內侍從升】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鬱鬯, 近侍以瓚受酒。 判通禮導殿下, 詣靈座前北向立, 啓請跪, 近侍一人捧香合跪進, 近侍一人捧香爐跪進, 判通禮啓請三上香, 近侍奠爐于案。 近侍以瓚跪進, 判通禮啓請執瓚灌池訖, 以瓚授近侍, 近侍受以授大祝。 近侍以幣篋跪進, 判通禮啓請執幣獻幣, 以幣授近侍, 奠于靈座前。 【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 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 進爵、奠爵準此。】 又近侍一人以幣篋跪進, 判通禮啓請執幣獻幣, 以幣授近侍, 奠于王后神座前。 判通禮啓請俛伏與再拜, 導殿下降自東階復位。 小頃, 判通禮導殿下, 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酒, 近侍二人以爵受酒。 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

어 청하여,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른다. 근시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가 작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작 헌작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작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하고, 또 한 사람의 근시가 다음 작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작 헌작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작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하고,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대축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서 관세하기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으라.’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전드리게 하고, 집사자 또 한 사람이 다음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에게 주어 왕후 신좌 앞에 전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그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그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啓請跪，近侍以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靈座前。又近侍以副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導殿下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帨訖，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禮曹判書跪啓禮畢，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還齋殿，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贊引引典祀官以下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以下諸執事

	<p>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예조 판서가 꿇어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p> <p>관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으로 돌아가고, 알자가 아헌관과 중헌관을 인도하여 나아가고, 통례문이 배제(陪祭)하였던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서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가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과 궁위 령이 신주를 들여 모시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인솔하여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이 그 속관을 인솔하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축과 폐백은 구덩이에 묻는다. 여러 관원이 반(班)을 동쪽 가까이 옮기고, 반수(班首)는 이름을 올려 봉위(奉慰)한다. 상의원(尙衣院)에서 길복(吉服)과 안장 갖춘 말[鞍馬]을 올리고,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길복을 입고 환궁한다. 예조에서 또 세자전(世子殿)에 안장 갖춘 말을 올리고, 문무 백관은 뜰에 들어와서 하례를 올린다.”</p> <p>하였다.</p>	<p>皆四拜，贊引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幣瘞於坎。群官移班近東，班首進名奉慰。尙衣院上吉服及鞍馬，王世子以下文武群臣，皆服吉服還宮。禮曹又上世子殿鞍馬，文武群臣入庭陳賀。”</p>
<p>世宗 25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7月 16日(己丑) 3번째기사</p> <p>진헌할 어물의 수를 채우게 하였음을 지신사 곽존중을 보내어 사신에게 말하다</p>	<p>지신사 곽존중을 보내어 사신에게 고하기를, “이제 진헌(進獻)할 어물(魚物)은 맡은 관청에서 잘못 계산하여 1만 근이 차지 못하므로, 내가 즉시 그 관청에 명령하여 1만 근을 채우게 하고, 또 2백 근을 더하였노라.”</p> <p>하니, 사신 왕현(王賢)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는 황제에게는 종ियो, 전하에게는 아들이니, 지성으로 갖추어 진헌하니 기쁘기 비할 데 없습니다.”</p> <p>하였다.</p>	<p>遣知申事郭存中，告使臣曰：“今進獻魚物，所掌官司錯計，未滿一萬斤。予卽命其司，充一萬斤，又加二百斤。”王賢喜云：“我於皇帝奴也，殿下子也。至誠備獻，喜無可比。”</p>
<p>세종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p>	<p>호조에서 계하기를, “농사가 흉년이 든 각 고을의 구황(救荒)할 초식(草食)은 정한 수량이 없기</p>	<p>戶曹啓：“失農各官救荒草食，因無定數，多或至於廢事，小或失於荒政。</p>

<p>22년) 8월 20일(임술) 3번째기사 흉년에 대비해 일정한 수량의 도토리를 예비 하도록 하다</p>	<p>때문에, 많을 때는 일을 전폐하기에 이르고, 적을 때는 흉년을 구제하지 못하게 되오니, 지금부터 대호(大戶)에는 60석, 중호(中戶)에는 40석, 소호(小戶)에는 20석, 잔호(殘戶)에는 10석으로 일정한 수량을 정하여서 도토리[橡實]를 예비하게 하고, 농사가 비교적 잘 된 각 고을은 반드시 수량에 구애되지 말고 적당하게 예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自今大戶六十石，中戶四十石，小戶二十石，殘戶十石，定爲恒數，以橡實爲先考察預備，其農事稍稔各官，不必拘數，隨宜儲備。”從之。</p>
<p>世宗 25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8月 21日(癸亥) 9번째기사 구주의 작주 자사 평상가가 소목 유향·정향·곽향 등을 바치다</p>	<p>구주(九州)의 작주 자사(作州刺史) 평상가(平常嘉)가 사람을 보내어 소목(蘇木) 1천 근, 유향 1천 근, 정향(丁香) 50근, 곽향(藿香) 30근, 백단(白檀) 15근, 서각(犀角) 3개, 금란(金欄) 1필, 상아(象牙) 1개, 구리 2백 근, 납[鉛] 20근을 바쳤으므로, 정포(正布) 3백 40필을 회사(回賜)하였다.</p>	<p>九州作州刺史平常嘉使人獻蘇木一千觔、硫黃一千觔、丁香五十觔、藿香三十觔、白檀十五斤、犀角三本、金欄一段、象牙一本、銅二百觔、鉛二十觔，回賜正布三百四十四匹。</p>
<p>세종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8월 21일(계해) 12번째기사 진상해 올리는 연어와 대구어의 알젓이 간이 맞도록 때에 맞춰 담그도록 하다</p>	<p>전지하기를, “경상도·강원도·함길도 감사가 진상해 올리는 연어(年魚)와 대구어(大口魚)의 알젓[卵醢]은 9, 10월 간에 진상해 올리게 하고자 하니, 모름지기 간이 맞게 하여 정밀히 연구하여 담가서 진상(進上)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旨慶尙、江原、咸吉道監司：“進獻年魚、大口魚卵醢，欲於九十月間進獻，須令醃淡適中，精究沈造上進。”</p>
<p>世宗 25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9月 22日(甲午) 1번째기사 제사를 올릴 때의 예</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상고하건대, 당나라 장경(長慶) 3년에 태상예원(太常禮院)에서 아뢰기를, ‘교단(郊壇)에서 제사를 올리는데 큰비나 눈을 만나면 제사를 폐하옵고, 그 예물은 아래와 같이 하였나이다. 어서 축판(御署祝版)은 태상시 칙고(太常寺勅庫)에 거두어 저장하고, 옥폐(玉幣)와 태울 나무와 신주(神酒)도 태울 폐</p>	<p>甲午/禮曹啓：“謹按，唐長慶三年，太常禮院奏：‘郊壇祠祀，遇大雨雪廢祭，其禮物條件如後。御署祝版，於太常寺勅庫收貯，玉幣、燎柴、神酒、燎幣、醴齊并榛栗、脯醢及應行事燭等，</p>

<p>물 내용과 처리 방법에 대한 예조의 계문</p>	<p>백과 단술[醴]·제(齊)와 개암[榛]·밤·포(脯)·젓[醢]과 초[燭] 같은 것은 교사서(郊社署)를 시켜서 각기 유사(有司)에게 통지하여 다음 제사에 소용되게 하고, 생뢰(牲牢)는 제사에 생(牲)이 죽으면 파문는 예에 의하여 감찰사(監察司)와 예관(禮官)에게 위임하여 제사하려던 곳에 파문게 하고, 제수를 만들 곡식과 오이[瓜] 절임, 죽순 절임 등 이미 만든 찬수는 생(牲)에 따라 파문게 하라.’ 하여, 영영 일정한 방식으로 삼았사오니, 국조(國朝)에서 무릇 대소 제향에 기일을 당해서 연고가 생겨 정지하게 되면, 그 예찬(禮饌)은 당나라 제도에 의하여, 축관은 봉상시(奉常寺) 별고(別庫)에 저장하고, 술과 폐백·개암·밤·포·젓과 촛불 같은 제사에 쓰려던 물건은 모두 봉상시에 저장하여 다음 제사 소용에 충당하게 하고, 생뢰(牲牢)와 제수를 만들 곡식과 갱(羹) 김치[菹] 등 무릇 이미 만든 물건은 감찰(監察)이 전사관(典祀官)과 함께 감시하여 제사지내는 곳 정결한 땅에 묻게 하여, 향식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令郊社署各牒有司，充次祭支用。 牲牢比附祠令，牲死則埋之例，委監察使及禮官，於祀所瘞埋，黍盛、瓜菹、笋菹應已造成饌物，隨牲瘞埋。’ 旨依永爲定式。 國朝凡大小祭享，及期遇故停廢，其禮饌，乞依唐制，祝版於奉常寺別庫藏貯，酒幣、榛栗脯醢及燭應緣祭物，皆藏奉常寺，以充次祭支用。 若牲牢、黍盛、羹菹凡已造之物，監察與典祀官監瘞祠所潔地，以爲恒式。” 從之。</p>
<p>세종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9월 22일(갑오) 2번째기사 마제 의주에 대한 예문의 계문</p>	<p>예조에서 마제(禡祭) 의주(儀注)를 계하기를, “【춘추로 강무(講武)할 때에 하루 전에 행제(行祭)한다.】 제사지내기 하루 전에 헌관(獻官) 이하로 응당 참여해야 할 집사관이 모두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지내고, 제사지내기 하루 전에 유사(有司)가 제사지낼 곳을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 또 묻을 구덩이[瘞坎]를 신좌(神座) 서북방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넉넉히 한다. 집례(執禮)가 헌관의 자리를 신좌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上]로 한다. 집례의 자리는 헌관의 서쪽으로 북쪽 가까이 설치하되, 서향하게 한다. 알자·찬자는 남쪽으로 조금 물러나 서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위로 한다. 또 묻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望瘞位]는 묻을 구덩이[瘞坎]의 남쪽에 북향되게 설치한다. 집사자가 두 개의 깃대를 남문 밖에 세우고, 그날 행사 전(行事前)에 헌관 이하 무릇 행사할 집사관이 모두 무</p>	<p>禮曹啓禡祭儀注： 【當春秋講武時，前期一日行祭。】前祭一日，獻官以下應行事執事官俱淸齋一宿。 前祭一日，有司修除祭所，又爲瘞坎於神座西北方， 深取足容物。 執禮設獻官位於神座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俱西向北上，執禮位於獻官之西近北西向，謁者、贊者在南小退，俱西向北上。 又設望瘞位於瘞坎之南北向， 執事者建二旗於南門外。 其日未行事前， 獻官以下凡行事執事官，俱服武服，有司奉熊席，入設蚩尤</p>

복(武服)을 입고, 유사(有司)가 웅석(熊席)을 받들고 들어와서 치우(蚩尤) 신위(神位)를 남향하여 설치하고, 갑주(甲冑)와 궁시(弓矢)를 자리 옆에 놓고, 초(稍)917) 를 자리 뒤에 세운다. 전사관(典祀官)이 그 속관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놓는다.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 【흰 빛깔을 사용한다.】 를 준소(尊所)에 설치한다. 향로와 향함과 함께 초[燭]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는 제기(饌具)를 설치하는데, 변(籩)이 여덟인데, 왼편에 놓되, 석 줄로 해서 오른쪽을 상(上)으로 하고, 두(豆)가 여덟인데, 오른쪽에 놓되, 석 줄로 해서 왼쪽을 상으로 한다. 보(簠)와 궤[簋]는 각각 둘씩인데, 변과 두 사이에 보가 왼편에 있고, 궤가 오른쪽에 있게 놓는다. 조(俎)가 하나인데, 보·궤 앞에 놓고, 작(爵)이 셋인데, 조 앞에 놓는다. 상준(象尊) 둘을 신좌(神座)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해서 설치하고, 세(洗)는 준소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뇌(壘)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勺]를 올려놓는다. 비(篚)는 세의 서남쪽에 벌여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는 또 그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제삿날 축시전(丑時前) 5각(刻)에 전사관이 그 속관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수를 제기에 담기를 끝내고, 전(前) 3각에 헌관 이하 행사할 집사관이 각기 무복을 입고, 집례가 알자·찬자를 거느리고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여러 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나아간다. 전 1각에 알자가 전사관·대축·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위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서면,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찬자가 전창(傳唱)하여, 전사관 이하 모두 사배하고 나면, 알자가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면,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재량이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 작을 씻고 닦아서 비(篚)에다 넣어 받들고 준소로 나아가 점(坫) 위에 놓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神位南向，置甲冑、弓矢於座側，建稍【矛屬】於座後。典祀官率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坫】陳幣【用白色】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籩八在左爲三行右上，豆八在右爲三行左上。簠簋各二在籩豆間，簠在左、簋在右，俎一在簠簋前，爵三在俎前。設象尊二於神座東南，北向西上，設洗於尊所東南北向，壘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設諸執事盥洗，又於東南北向。祭日丑前五刻，典祀官率其屬，入實饌具畢。前三刻，獻官以下行事執事官，各服武服。執禮率謁者、贊者，先就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前一刻，謁者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傳喝，典祀官以下皆四拜訖，謁者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盥〕訖各就位。齋郎詣爵洗位，洗爵拭爵，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執禮曰四拜，獻官四拜。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執禮曰行奠幣禮，謁者引獻官，詣盥洗位盥盥訖，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헌관이 사배하고, 알자가 나아가서 헌관의 왼편에서 고하기를, ‘유사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폐백 드리는 예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에 닦고 나면,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꿘어앉으라.’ 찬하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함을 받들고,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세 번 향을 피우라.’ 찬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전(奠)드린다. 대축이 폐백을 가져다가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폐(執幣) 헌폐(獻幣)하되, 폐백을 집사에게 주어 신위 앞에 전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면(俛), 복(伏), 흥(興)’이라 하고, 인도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초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꿘어앉으라.’고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작(執爵) 헌작(獻爵)하되,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전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꿘어앉으라.’ 하고, 대축이 신위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꿘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찬하기를, ‘면, 복, 흥 재배’라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말하기를, ‘아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꿘어앉으라.’ 찬하고,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꿘어앉으라.’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작 헌작하되,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大祝以幣授獻官，獻官執幣獻幣，以幣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俛伏興引復位。小頃，執禮曰行初獻禮，謁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引復位。小頃，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引復位。小頃，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禮，引復位。執禮曰飲福受胙，大祝詣尊所，以爵酌福酒，執事者持俎進神位前俎肉。謁者引獻官，詣飲福位西向立贊跪，大祝進獻官之左北向，以爵授獻官，獻官受爵，飲卒爵，大祝受虛爵復

앞에 전드리게 한다. 알자가 찬하기를,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말하기를, ‘중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례와 같이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복(飲福)하고 조육(胙肉)을 받으라.’ 하면, 대축이 준소로 나아가서 작으로 복주를 떠낸다. 집사자가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신위 앞의 조(俎) 위의 고기를 덜어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으라.’고 찬하고, 대축이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받아 마시고 작을 비우면, 대축이 빈 작을 받아서 접 위에 도로 올려놓는다. 집사자가 북향하고 조(俎)를 헌관에 주면, 헌관이 조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조를 받아 가지고 나간다. 알자가 ‘면, 복, 흥’이라 찬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변·두를 걷어치우라.’ 하면, 대축이 나아가 변·두를 걷어치운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묻는 것을 바라보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묻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묻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 서향하고 선다. 대축이 비(篚)에다 축관과 폐백을 담아 구덩이에 넣으면, 집례가 말하기를, ‘묻으라.’ 하여, 흙을 구덩이에 반쯤 넣는다. 알자가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서 고하기를, ‘예식이 끝났다.’ 하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본자리로 돌아오면, 알자가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 서게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여, 전사관 이하가 모두 사배하고 나면,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가 알자·찬자를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가면, 전사관이 그 속관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물러간다. 【헌관 한 사람은 첨

於坫。執事者北向，以俎授獻官，獻官受俎，以授執事者，執事者受俎以出。謁者贊俛伏興引復位，執禮曰再拜，在位者皆再拜。執禮曰徹籩豆，大祝進徹籩豆。執禮曰四拜，獻官四拜。執禮曰望瘞，謁者引獻官，詣望瘞位北向立，執禮帥贊者，詣望瘞位西向立，大祝以篚取祝版及幣置於坎。執禮曰可瘞，置土半坎。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謁者引獻官出，執禮帥贊者還本位。謁者引典祀官及諸執事就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以下皆四拜訖，謁者引出。執禮帥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率其屬，徹禮饌乃退。【獻官一人僉摠制執禮一人司直，典祀官一人注簿以下，贊者、大祝、謁者各一人司正，齋郎二人、尊所盥洗位各一人副司正。】

	총제(僉摠制), 집례 한 사람은 사직(司直), 전사관 한 사람은 주부(注簿)이고, 이하 찬자·대축·알자 각 한 사람은 사정(司正)이요, 재량 두 사람과 준소·관세 위 각 한 사람은 부사정(副司正)이다.】.” 하였다.	
세종 26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10월 6일(정미) 7번째기사 일본국에서 소목 8백 근, 금장식 식롱 1개 등을 바치다	일본국(日本國) 일기주 수(一岐州守) 조신(朝臣) 원중(源重)이 사람을 보내어 소목(蘇木) 8백 근, 금장식 식롱(金粧飾食籠) 1개, 기린혈(麒麟血) 1근, 서각(犀角) 1개, 은마부선자(銀磨付扇子) 10자루, 등자(藤子) 50본을 바치니, 정포(正布) 1백 50필을 회사하였다.	日本國一岐守源朝臣重使人獻蘇木八百斤、金粧飾食籠一箇、麒麟血一斤、犀角一箇、銀磨付扇子十本、藤子五十本、回賜正布一百五十匹。
世宗 26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10月 10日(辛亥) 2번째기사 정부와 육조에서 육서 능 상시와 같이 들기를 청해 따르기로하다	정부와 육조에서 육선(肉膳)을 상시와 같이 들기를 청하였다. 임금의 이르기, “나는 7일이 지난 뒤에 먹으려고 하였는데, 이제 경 등이 청하고 또 그 손님이 오게 되었으니 경들의 말에 따르겠다.” 하였다.	政府、六曹請復肉膳，上曰：“予欲過七日乃復，今卿等請之，且大賓入京，姑從之。”
세종 26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10월 30일(신미) 2번째기사 봄이 되고나서 금주령을 내리라고 이르다	대사헌 이지강(李之剛)이 겨울 동안에 금주하는 것이 어떠냐고 계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심히 추우니 금하지 말고 봄을 기다려서 금하라.” 하고, 곧 장령(掌令) 양활(梁活)을 불러서 명하기를, “12월까지 금주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大司憲李之剛啓曰：“冬月禁酒如何?” 上曰：“祁寒毋禁，待春乃禁。” 卽召掌令梁活，命限十二月毋禁酒。
世宗 26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영돈녕(領敦寧) 유정현(柳廷顯)이 계하기를, “중국 사신을 연회에 초대할 때 시신까지 초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금후로	領敦寧柳廷顯啓曰：“當宴上國使臣時，賜宴於侍臣，未便，今後但賜酒肉可

<p>22年) 10月 30日(辛未) 3번째기사 영돈녕 유정현이 중국 사신의 연회에 사신의 시신을 참석시키지 말 것을 아뢰다</p>	<p>는 다만 술과 고기를 주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도 옳다고 말하였다.</p>	<p>矣。” 上曰：“然。”</p>
<p>世宗 26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11月 23日(甲午) 2번째기사 일본국 석성관사 평만평이 방물을 바쳐 정포 550필을 회사하다</p>	<p>일본국(日本國) 석성 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이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는데, 금란(金欄) 1단(段), 단목(丹木) 5백 근, 서각(犀角) 4개 [頭], 축사(縮砂) 10근, 동(銅) 3백 근, 선자(扇子) 1백 자루, 장뇌(樟腦) 20근, 납(鐵) 50근, 반(盤) 20개, 천궁(川芎) 10근, 봉아출(蓬莪朮) 10근, 청피(靑皮) 10근, 명반(明攀) 5백 근, 감초(甘草) 10근이다. 정포 5백 50필을 회사(回賜)하였다.</p>	<p>日本國石城管事平滿景使人獻土宜：金欄一段、丹木五百斤、犀角四頭、縮砂十斤、銅三百斤、扇子一百本、樟腦 [樟腦] 二十斤、鐵五十斤、盤二十片、川芎一十斤、蓬莪朮一十斤、靑皮一十斤、明攀五百斤、甘草十斤、回賜正布五百五十四。</p>
<p>세종 26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12월 8일(기유) 2번째기사 장빙군에게 술 3백 병을 주다</p>	<p>장빙군(藏氷軍)에게 술 3백 병을 주었다.</p>	<p>賜藏氷軍酒三百瓶。</p>
<p>세종 27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월 12일(계미) 1번째기사 종묘의 사시 대향 삭망과 명일의 별제 때의 사람 수와 절차에</p>	<p>예조에서 봉상시(奉常寺)의 첩정(牒呈)에 의하여 계하기를, “종묘(宗廟)의 사시 대향(四時大享) 및 삭망(朔望)과 명일(名日)의 별제(別祭)에는 다만 종묘서(宗廟署)의 관원 한 사람만으로 하여금 명첩(命牒)을 받아 재계(齋戒)하고 드릴 제물을 간검(看檢) 진설(陳設)하게 하고, 그 나머지의 관원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금후로는 대제 때에는 두 사람, 삭망과 별제 때에는 한 사람이 미리 재계하고, <제삿날을> 이를 앞두고서 제소(祭所)에 나아가서 드릴 제물을 분장(分掌)하여 감독 제조</p>	<p>○(壬午) [癸未] /禮曹據奉常寺牒呈啓：“宗廟四時大享及朔望有名日別祭，只令宗廟署官員一人，受命牒齋戒，監設奠物，其餘官不與，甚爲未便。今後大祭則二員，朔望別祭則一員預先齋戒，前期二日詣祭所，其奠物分掌監造，其供給則大祭二日三時，朔望別祭</p>

<p>대한 예조의 계문</p>	<p>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대제 때에는 2일간 세 끼를 주고, 삭망과 별제 때에는 1일 동안 두 끼를 주도록 하옵고, 또 대제를 당하여 여러 가지 드릴 제물을 종묘서의 소수의 노자(奴子)들이 밤을 새우며 장만하기 때문에 불결하게 되오니, 이제부터는 전사관(典祀官)이 재계할 때에는 본시(本寺)의 사무는 제쳐 놓고 제삿날 3일 전에 찬품(撰品)을 받들어 만질 사람들을 거느리고 종묘서에 나아가서 치재(致齋)하면서 종묘서의 관원과 합동하여 같이 제수(祭需)를 장만하도록 하옵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一日兩時。且當大祭，諸般奠物，以宗廟署數少奴子，連夜熟設，以致不潔。今後典祀官清齋，除本寺，前期三日，帥執饌人，詣宗廟署致齋，同署官供饗。”從之。</p>
<p>世宗 27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1月 14日(乙酉) 5번째기사 영녕전에서 춘향을 섭행하며 그 의례를 이르는 내용</p>	<p>영녕전(永寧殿)에서 춘향(春享)을 섭행(攝行)하였다. 그 의주(儀注)에 이르기를, “재계(齋戒)에 관한 의절. 제향을 7일 앞두고 행사 집사관(行事執事官)들은 봉상시(奉常寺)에서 서계(誓戒)를 받는다. 당일에 날이 밝기 전 7각(刻)에 통례문(通禮門)이 자리를 설치하는데, 헌관(獻官)의 자리는 북쪽에 설치하되 남향으로 하고, 천조관(薦俎官)의 자리는 남쪽에 설치하되 북향으로 하며, 감찰(監察)의 자리는 서쪽에 두되 동향으로 설치하고, 집례(執禮)·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郎)·협률랑(協律郎)·전사(殿司)·궁위령(宮闈令)·장생령(掌牲令)·아악령(雅樂令)·봉조관(捧俎官)·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동쪽에 두되 서향으로 설치하며, 등(等)마다 위치를 달리 하여 겹줄로 모두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밝기 전 5각에 봉례랑(奉禮郎)이 행사한 집사관들을 각각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 뒤에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면, 통찬(通贊)이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서, 서문(誓文)을 대독(代讀)하기를, ‘금년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영녕전에 제향을 드리니,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말 것이며, 파[葱]와 부추[韭]와 마늘[蒜] 염교[菹]를 먹지 말 것이며, 조상(弔喪)하거나 문병[問疾]하지 말 것이며, 음악을 듣지 말며, 형벌</p>	<p>攝行春享于永寧殿。其儀注： 齋戒：前享七日，行事執事官受誓戒於奉常寺。其日未明七刻，通禮門設位，獻官在北南向，薦俎官在南北向，監察在西東向，執禮、典祀官、大祝、祝史、齋郎、協律郎、殿司、宮闈令、掌牲令、雅樂令、捧俎官、謁者、贊者、贊引在東西向，每等異位重行，俱北上。未明五刻，奉禮郎分行事執事官就位，引獻官就位。通贊就獻官之左西向立，代讀誓文曰：“今年某月某日，享于永寧殿。凡行事執事官，不縱酒，不食葱韭蒜菹，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各揚其職。其或有違，國有常刑。”讀訖，通贊贊再拜，在位者皆再拜乃退。凡行事執事官，竝散</p>

을 행하지 말며, 형살(刑殺)하는 문서를 판결 서명하지 말며, 예악(穢惡)한 일에 간여하지 말고 각각 그 직무를 거행하라. 혹시 이에 어김이 있으면 국가에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입기를 마치고 나서, 통찬이 ‘재배(再拜)하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무릇 행사 집사관은 산재(散齋)의 4일간을 모두 정침(正寢)에서 자고, 3일 간의 치재(致齋)를 2일은 본사(本司)에서 행사고, 1일은 향소(享所)에서 행한다. 대저 산재 중에는 사무를 다스리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나, 치재 중에는 오직 향사에 관한 일만을 행하며, 이미 재계하고 켜(闕)하게 된 자는 <다른 사람으로> 변통하여 섭행하게 한다. 모든 위(衛)의 속원(屬員)과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자는 【대장(隊長)은 문마다 각각 2인, 모퉁이마다 각각 1인으로 한다.】 각기 본사(本司)에서 재계하고 하룻밤을 자며,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는 재계하고 예조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치재하기 하루 전에 모두 봉상시에 모여서 의식의 절차를 익히고, 행사하기 하루 전에 모두 향소(享所)에 집합한다. 【무릇 제향에 참여할 자는 향사를 이틀 앞두고 모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다니는 길을 청소하여 모든 흉하고 추악한 것과 최질(衰絰) 등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곡읍(哭泣)하는 소리가 향소에 들리는 것은 임시 금지하도록 한다.】

진설(陳設)에 관한 의절.

향사를 앞두고 충호위(忠扈衛)에서는 모든 향관의 자리를 재방(齋坊)안에 설치하면, 전사(殿司)가 그 속원을 거느리고 신전(神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동쪽 문밖에 설치하되, 지형에 따라서 적당한 곳을 택하여 한다. 하루를 앞두고서 아악 령(雅樂令)은 그 속원을 거느리고 등가(登歌)941)의 악기(樂器)를 마루 위의 앞 기둥 사이에 설치하고, 헌가(軒架)942)는 신전 뜰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으로 마련한다. 장생령(掌牲令)은 희생(犧牲)을 끌고 향소로 나아가면,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기(祭器)를 받

齋四日，宿於正寢，致齋三日，二日於本司，一日於享所。凡散齋，治事如故，致齋惟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諸衛之屬守衛殿門者，【隊長每門各二人，每隅各一人。】各於本司清齋一宿，工人、二舞清齋一宿於禮曹。前致齋一日，竝集奉常寺肄儀，前享一日，竝集享所。【凡預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令漢城府，清所行之路，不得見諸凶穢衰絰。其哭泣之聲，聞於享所者權斷。】

陳設：前享二日，忠扈衛設諸享官次於齋坊之內。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設饌幔於東門外，隨地之宜。前一日，雅樂令帥其屬，設登歌之樂於堂上前楹間，設軒架於殿庭，俱北向。掌牲令牽牲詣享所，典祀官、殿司各帥其屬，設祭器位於堂上東側階北，【凡設祭器，皆藉以席，加以巾蓋。】以俟告潔。執禮設獻官位於阼階東南西向，設薦俎官位於獻官之後稍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每等異位，具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設執禮位於堂上前楹外近東西向，謁者、贊者、贊引位於阼階

들어 둘 자리를 마루 위의 동편 계폐(階陞) 북쪽에 설치하고, 【무릇 제기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모두 자리를 깔고 그 위에 수건을 덮어 둔다.】 〈그 희생과 제기가〉 깨끗하고 아무 이상 없다는 보고를 기다린다. 집례(執禮)는 헌관(獻官)의 자리를 조계(阼階)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고, 천조관(薦俎官)의 자리를 헌관의 뒤에 약간 남쪽으로 설치하되 역시 서향으로 하며, 집사자(執事者)는 그 뒤에 자리하게 하는데, 등마다 위치(位次)를 달리 하고 모두 겹줄로 하되, 서향하며 북쪽을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신전 뜰 남쪽에 동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며, 서리(書吏)가 그 뒤에 배석(陪席)하게 된다. 집례의 자리는 마루 위의 앞기둥 밖에 동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고,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는 조계(阼階)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협률랑(協律郎)의 자리는 마루 위의 앞기둥 밖에 서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동향으로 하고, 아악 령(雅樂令)의 자리는 헌헌(軒懸) 북쪽에 설치하되 북향으로 하고, 헌관의 음복위(飲福位)는 마루 위의 앞기둥 자리에 동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고, 또 문밖에 향관 및 여러 집사의 자리를 동편 문밖의 길남쪽에다 설치하되, 등마다 위치를 달리 하고 모두 겹줄로 북향하여 마련하며, 서쪽을 위로 한다. 생방(牲榜)943)의 자리는 동문 밖에 문을 마주 보고 서향하여 설치하되, 남쪽을 위로 한다. 장생령(掌牲令)의 자리는 희생의 서남쪽에 설치하고, 대축(大祝)의 자리는 희생의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희생의 뒤로 하며, 축사(祝史)도 그 뒤에 있게 하되, 모두 서향하게 한다. 천조관의 희생을 살피는 자리는 희생의 앞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깝게 하고, 감찰의 자리는 천조관의 서쪽으로 하고, 모두 남향하여 마련한다. 【감찰의 자리는 약간 뒤로 물린다.】 〈축판(祝版)과 폐백을〉 문을 구덩이는 신전의 북쪽 임지(壬地)에 네모지게 파되, 깊이는 족히 물건을 용납할 정도로 하고, 남쪽 계폐(階陞)로 나오게 한다. 망예위(望瘞位)는 구덩이의 남쪽에 설치하되, 헌관은 남쪽에 자리하여 북향하게

西南西向北上, 協律郎位於堂上前楹外近西東向, 雅樂令位於軒懸之北北向, 設獻官飲福位於堂上前楹位近東西向, 設門外位享官及諸執事於東門外道南, 每等異位, 俱重行, 北向西上。設牲榜於東門外, 當門西向, 以南爲上。設掌牲令位於牲西南, 大祝位於牲東當牲後, 祝史在其後, 俱西向。設薦俎官省牲位於牲前近北, 設監察位於薦俎官之西, 俱南向, 【監察位稍却】開瘞坎於殿之北壬地, 方深取足容物南出陞, 設望瘞位於瘞坎之南, 獻官在南北向, 執禮、大祝、贊者在東, 俱重行西向北上。享日未行事前, 宮闈令帥其屬開室, 整拂神幄, 鋪筵設几如常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奠祝版於神位之右, 【有坫】陳幣簠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 實饌具, 籩十二在左, 爲二行右上, 【第一行形鹽在前, 乾魚、乾棗、栗黃、榛子、菱仁次之。第二行(菱) [芡] 仁在前, 鹿脯、白餅、黑餅、糗餌、粉餈次之。】豆十二在右, 爲二行左上。【第一行韭菹在前, 醯醢、菁菹、鹿醢、芹菹、兔醢次之。第二行

하고, 집례와 대축과 찬자는 동쪽에 자리하여 모두 겹줄로 서서 서향하게 하며, 북쪽을 위로 한다. 제향하는 날에, 행사하기에 앞서 궁위령(宮闈令)이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신실(神室)의 문을 열고 신악(神幄)을 정돈하고 털고 닦은 뒤에 자리를 펴고 쟈상[几]을 설치하기를 평상시의 의절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의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축관을 드리고, 【집(坫)이 있다.】 폐백 상자를 존소(尊所)에 진열하고는, 향로(香爐)와 향합(香盥)을 초와 함께 신위(神位)앞에 배설해 놓는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친구를 담은 찬구를 설치하는데, 변(籩) 12개는 왼편에 배설하되, 두 줄로 하고 오른쪽을 위로 한다. 【첫 줄에는 형염(刑鹽)을 머리에 두고, 어해(魚醢)·건조(乾棗)·율황(栗黃)·진자(榛子)·능인(菱仁)을 그 다음에다 배설하며, 둘째 줄에는 능인을 앞에 두고, 녹포(鹿脯)·백병(白餅)·흑병(黑餅)·구이(糗餌)·분자(粉糝)를 그 다음에다 배설한다.】 두(豆) 12개는 오른쪽에 배설하되, 두 줄로 하고 왼쪽을 위로 삼는다. 【첫 줄에는 구저(韭菹)를 앞에 두고 염해(鹽醢)·정저(菁菹)·녹해(鹿醢)·근저(芹菹)·토해(兔醢)를 그 다음에 배설하며, 둘째 줄에는 순저(筍菹)를 앞에 놓고 어해(魚醢)·비절(脾折)·돈박(豚拍)·타식(駝食)·삼식(糝食)을 그 다음에 차례로 배설한다.】 조(俎)는 셋을 마련하되, 둘은 변(籩) 앞에 놓고, 하나는 두(豆) 앞에 놓는다. 【변 앞에 놓는 조는, 하나는 우성(牛腥)을 담고, 하나는 양성(羊腥)의 칠체(七體)를 담는데, 양쪽 허파와 양쪽 어깨와 양쪽 갈비에다가 등심을 아울러 쓰되, 허파는 양쪽 끝에 놓고, 어깨와 갈비는 그 다음에 놓고, 등심은 한가운데 놓는다. 두 앞에 놓는 조에는 시성(豕腥)의 칠체를 담는데, 그 배치하는 순위는 양성과 같이 한다. 송(宋)의 《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놓는 것은 모두 남쪽을 이르는 것이다’고 하였다.】 두의 오른쪽에도 조 셋을 배설한다. 【하나는 쇠고기으로써 익힌 내장 위(胃)와 폐(肺)를 담고, 하나는 양고기으로써 익힌 내장 위와 폐를 담고, 하나는 돼지고기으로써 익힌 피부를 담는

荀菹在前，魚醢、脾折、豚拍駝食糝食次之。】俎三，二在籩前，一在豆前。【籩前俎，一實牛腥，一實羊腥七體，兩脾、兩肩、兩脅并脊，而脾在兩端，肩脅次之，脊在中。豆前俎，實豕腥七體，其載如羊。宋釋奠儀云：“凡言在前者，皆謂南也。”】豆右之俎三，【一實牛熟腸胃肺，一實羊熟腸胃肺，一實豕熟膚，豕在前，牛羊次之，凡俎皆有牲匣。】簠簋各四在籩豆間，簠居前，簋次之。【簠實以稻粱，簋實以黍稷。】鐙、銅各六，在簠簋後，銅在前，鐙次之，【鐙實以大羹，銅實以和羹加芼滑。】爵六在簠簋前。【各有坫】又設尊彝於戶外之左，【如宗廟儀】皆加勺鬯，北向西上。【凡尊彝明水玄酒爲上。凡享神之物，當時所無者，以時物代之。】設瓚盤一於尊所坫上，設爐炭於前楹間，毛血盤、肝膋鐙、蕭籩、黍稷籩各一於其後，設飲福酒爵【有坫】胾肉俎各一於尊所，又設俎一於饌幔內，設洗於阼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盥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瓚爵。有坫。】設諸執

데, 돼지고기를 앞에 놓고, 쇠고기와 양고기는 그 다음에 놓는다. 대저 조에는 모두 희생을 덮는 갑(匣)이 있다.】보[簠]와 궤[簋]는 각각 넷으로서, 변과 두의 사이에 배설하는데, 궤를 앞에 놓고, 보는 그 다음에 진설한다.【보에는 도(稻)와 양(粱)으로 채우고, 궤에는 서(黍)와 직(稷)으로 채운다.】등(鐙)과 형(銅)이 각각 여섯으로서 보·궤 뒤에 진설하되, 형을 앞에 놓고, 등을 뒤에 놓는다.【등에는 대갱(大羹)을 채우고, 형에는 화갱(和羹)을 채우고는 모활(茅滑)을 가한다.】술잔 여섯 개를 보·궤 앞에 놓고,【각기 점(坫)이 있다.】또 술그릇[尊罍]을 지계문 밖 왼편에 설치해 놓고,【종묘의 의적과 같다.】모두 술국자를 넣거나 보자기를 덮어 두되, 북향으로 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대저 준뢰(尊罍)에는 명수(明水)와 현주(玄酒)로 채우는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삼으며, 신에게 제향하는 물건으로 당시에 없는 것은 그 계절에 생산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한다.】찬반(瓚盤) 한 개를 준소의 점 위에 설치하고, 화로[爐]와 솥을 앞 기둥 사이에 설비해 놓고, 모혈반(毛血盤)과 간료등(肝髒鐙)과 소변(蕭籩)과 서직변(黍稷籩)을 각각 하나씩 그 뒤에 설치한다. 음복(飲福)하는 술잔【점(坫)이 있다.】과 조육조(胙肉俎) 각각 하나를 준소에 설비하고, 또 조 하나를, 찬수를 받들어 둔 장막 안에 설치해 둔다. 세(洗)는 조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관세(盥洗)는 동쪽에 두고, 잔세(爵洗)는 서쪽에 두게 한다.】뇌(雷)는 세의 동쪽에 설치하되, 국자를 올려놓고, 비(篚)는 세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수건을 넣어 둔다.【만약 작을 씻는 비이면 또 찬(瓚)과 작(爵)을 넣어 둔다. 점(坫)이 있다.】모든 집사의 관세하는 자리는 현관의 세위(洗位)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준(尊)·뇌(罍)·비(篚)·떡(羶)을 맡을 집사자의 자리는 준·뇌·비·떡 뒤에 설치한다.

향축(香祝)을 받는 의절.
제향을 하루 앞두고, 주루(晝漏)의 상수(上水)가 1각이 되면, 유사(有司)가 향축안(香祝案)을 근정전(勤政殿) 중앙에 남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은

事盥洗於獻官洗東南北向，執尊罍篚羶者位於尊罍篚羶之後。
受香祝：前享一日，晝漏上水一刻，有司設香祝案於勤政殿當中南向，設香案於其前，設殿下拜位於月臺當中北向。通禮門設典儀位於東階之東，通贊二人在南少退，俱西向，設左右侍臣位於東西階之南，相對異位重行，俱北上，設鹵簿於闕門外，侍臣各具朝服。三刻，獻官以下應行事執事官竝集闕門外，殿下具冠袍。校書館員以祝版奉進，近臣傳奉以進，殿下署訖，近臣奉祝版及香置於案上。五刻，奉禮郎分引左右侍臣入就位，次引獻官以下入就位。奉禮郎引獻官，升自東階，【奉禮郎止於階下】判通禮導殿下，出就拜位北向立，啓請再拜，導殿下詣香案前，啓請跪。近侍一人奉香合，西向跪進，近侍一人奉香爐，東向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於案。近侍奉香祝，獻官西向跪受興，還置於案上，判通禮啓請俛伏興，導殿下復位，啓請再拜，導殿下退立於月臺上東向。獻官奉香祝降自正階，判通禮啓請鞠躬，獻官沒

그 앞에 설치하며, 전하(殿下)의 배위(拜位)는 월대(月臺)의 중앙에 북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통례문의 전의(典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쪽에 설치하고, 통찬 두 사람의 자리는 남쪽에 두되, 약간 뒤로 물러서 모두 서향하게 마련하고, 좌우의 시신(侍臣)의 자리는 동계·서계의 남쪽에 서로 상대하여 마련하되, 위차(位次)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모두 북쪽을 위로 하여 설치한다. 노부(鹵簿)를 궐문 밖에 설비해 두고, 시신들이 각기 조복(朝服)을 갖추고 대기하고, 3각에 헌관 이하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궐문 밖에 집합한다. 전하가 관포(冠袍)를 갖추고 나오면, 교서관(校書館)의 관원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近臣)이 이를 전해 받아 받들어 올려, 전하가 서결(署決)을 마친 뒤에, 근신이 축판과 향을 향안(香案)위에 놓는다. 5각이 되면, 봉례랑(奉禮郎)이 좌우의 시신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다음에 헌관 이하의 제관들을 인도하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는데, 봉례랑이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오르면, 【봉례랑은 계하(階下)에서 그치고 만다.】 판통례(判通禮)가 전하를 인도하고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서, 재배(再拜)하기를 계청하고 나서, 다시 전하를 인도하여 향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기를 계청한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서향하여 꿇어앉아 바치면,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동향하여 꿇어앉아 바친다. 판통례가 세 번 향불 피워 올리기를 계청하면, 근시가 향로를 향안 위에 올리고, 또 근시가 향과 축문을 받들어 동향하여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향축을 받아 헌관에게 주기를 계청하면, 헌관이 서향하여 꿇어앉아 받아 가지고 일어나서 도로 향안 위에 놓는다. 판통례가 구부렀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서 재배를 계청한다. 다시 전하를 인도하여 물러가서 월대 위에 동향하여 선다. 헌관이 향과 축문을 받들고 정계(正階)로 내려가면, 판통례가 국궁(鞠躬)하기를 계청하고, 헌관이 계단을 다 내려간 뒤에, 전하가 몸을 편다. 헌관이 문밖에 나가서 향과 축문을 여담(昇擔)에 놓으면, 천조관 이

階, 殿下平身。 獻官出門, 置香祝於昇擔, 薦俎官以下隨獻官, 以次出門上馬。 軍士奉昇擔, 鹵簿前導, 至齋坊門外下馬, 入門就殿東門外, 重行北上西向立, 四拜訖, 各就齋所, 香祝安於卓上。
 省牲器: 前享一日未後二刻, 殿司帥其屬, 掃除殿之內外, 執事者以祭器入設於位, 加以巾蓋, 如陳設儀。 未後三刻, 薦俎官以下應省牲器者, 俱以常服, 就東門外, 執禮帥謁者贊者、先入殿庭, 掌牲令牽牲就位, 贊引引監察升自阼階, 行掃除於上, 降行樂懸於下訖復位。 謁者引薦俎官, 贊引引監察, 升自阼階, 視滌濯。 執事者皆舉冪告潔訖, 引降就省牲位南向立, 掌牲令小前曰請省牲, 退復位, 薦俎官省牲。 掌牲令又前舉手曰膺, 復位, 大祝巡牲一匝, 西向舉手曰充, 復位。 大祝與掌牲令以次牽牲, 詣廚授典祀官。 謁者引薦俎官, 詣廚省鼎鑊, 申視滌濯, 監取明水火。 【取水於陰鑑, 取火於陽燧。 陰鑑未能猝辦, 以井水代之。 火以供爨, 水以實尊。】 贊引引監察, 詣廚省饌具訖, 各還齋所。 晡後一刻,

하는 모두 헌관을 따라 차례로 문밖으로 나와서 말에 오르고, 군사(軍士)가 여담과 노부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재방문(齋坊門)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문으로 들어가 신전[殿] 동문 밖으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쪽을 위로 하여 서향하고 서서 네 번 절한 다음에, 각기 재소(齋所)로 나아가서 향과 축문을 탁자 위에 안치(安置)한다.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는 의절.

향사하기 전날 미시 후(未時後) 2각(刻)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신전의 안팎을 소제하고 나면, 집사자가 제기를 들여다가 각기 제자리에 벌여 놓고, 보자기로 덮기를 진설의 의절과 같이 한다. 미시 후 3각에 천조관 이하 응당 희생과 제기를 살펴볼 사람들이 모두 평복 차림으로 동문 밖으로 나아가면, 집례가 알자와 찬자를 거느리고 먼저 신전 뜰에 들어간다. 장생령(掌牲令)이 희생을 끌고 자리에 나아가면, 찬인(贊引)이 감찰을 인도하여 조계(阼階)로 올라가서 오르내리는 곳을 소제하고, 악현(樂懸)은 그 밑에 선행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알자는 천조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가서 <제기의> 세척(洗滌)한 상황을 살펴본다. 집사자들이 모두 먹(羶)을 들고 정결히 되었다고 고(告)하고 나서, 다시 인도하고 내려와 희생을 살펴보는 성생위(省牲位)로 나아가 남향하여 선다. 장생령이 조금 앞으로 나서서 말하기를, ‘희생의 점검을 청합니다.’ 하고는 물러가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천조관이 희생을 살펴며, 장생령이 또 앞으로 나서서 손을 들고 ‘돈(鎛)’이라 <살찐 희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축(大祝)이 희생을 한 바퀴 <돌며> 순시하고 나서 서향하여 손을 들고, ‘충(充)’이라 <충만함을> 말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와 같이 하여> 대축과 장생령이 차례로 희생을 끌고 주방(廚房)으로 나아가서 이를 전사관(典祀官)에게 준다. 그러면, 알자는 천조관을 인도하고 주방으로 나아가, 정확(鼎鑊)이 정결히 세척되어 있는가를 거듭 살펴보고, 명수(明水)와 명화(明火)를 잘 취하였는가를 본

典祀官帥宰人，以鸞刀割牲，祝史以槃取毛血，又取肝及脾膋，實於鏡，各置饌所，遂烹牲。【連皮煮熟。肝洗於鬱鬯。脾膋，腸間脂膏。肝膋共實一鏡，毛血共實一盤，其餘毛血，以淨器盛貯，祭畢埋之。】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

晨裸：享日丑前五刻，【丑前五刻，卽三更三點。行事用丑前一刻。】宮闈令帥其屬開室，整拂神幄，鋪筵設几如常儀。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實饌具畢。贊引引監察升自阼階，【凡行事執事官升降，皆自阼階。】按視堂之上下，糾察不如儀者還出。前三刻，諸享官各服其服，執禮帥謁者、贊者、贊引，入自東門，先就階間懸北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雅樂令帥工人、二舞入就位，文舞入陳於懸北，武舞立於懸南道西。謁者、贊引各引享官，俱就東門外位。前一刻，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殿司、宮闈令、協律郎、捧俎官，入就懸北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傳喝，【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監察以下皆四

다. 【물은 음감(陰鑑)에서 취하고, 불은 양수(陽遂)에서 취한다. 음감을 졸연히 판득할 수 없으면, 우물물로 이를 대신한다. 불은 <제수를 장만하기 위하여> 불떨 때에 쓰고, 물은 준(尊)을 채운다.】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주방으로 나아가서 찬구(饌具)를 살피고 나서 각각 재소로 돌아간다. 포시(晡時) 【신시(申時).】 후 1각에, 전사관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鸞刀)로 희생을 벤다. 축사는 쟁반을 가지고 모혈(毛血)을 취하고, 또 간(肝)과 수료(脾膓)를 취하여 등(鐙)에 채워 각각 찬소(饌所)에 두게 되면, 드디어 희생을 삶는다. 【가족째 그대로 삶는다. 간은 울창(鬱鬯)에 씻는다. 수료는 창자 사이에 끼어 있는 기름[脂]이다. 간과 요는 함께 한 등에 담고, 털과 피도 함께 한 쟁반에 담고서, 그 나머지의 털과 피는 정결한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제례를 마친 다음에 이를 묻는다.】 전사가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신전 안팎을 깨끗이 소제한다.

신관(晨禠)에 관한 의절.

제향 당일 축시(丑時) 전 5각에 【축시 전 5각은 즉 3경 3점(三更三點)이니, 행사하는 시각은 축시 전 1각이다.】 궁위령이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신실(神室)을 열고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나서 자리를 펴고 궤(几)를 설치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하관과 전사는 각기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찬구를 채우고 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와서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조계로 오르내린다.】 당(堂)의 상하를 순시하고 의절과 같게 하지 못한 것은 규찰하여 도로 내보낸다. 행사하기 전 3각에, 모든 향관이 각기 그 복색(服色)을 갖추고, 집례가 알자와 찬자와 찬인을 거느리고 동문으로부터 들어와 조계 사이의 현(縣) 북쪽의 배위(拜位)로 먼저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나서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또 아악 령이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문무(文舞)는 현 북쪽에 벌여 놓고, 무무(武舞)는 현 남쪽 길 서편에 세워 둔

拜訖, 贊引引監察就位。 贊引引諸執事, 詣盥洗位盥帨訖, 各就位。 贊引引殿司、大祝、宮闈令入開(埴) [龕] 室, 奉出神主, 設於座, 【詣神幄內, 於几後開置設于座。 先王神主大祝奉出, 覆以白苧布; 先后神主宮闈令奉出, 覆以青苧布, 以西爲上。】 引降復位。 贊引引齋郎詣爵洗位, 洗瓚拭瓚, 洗爵拭爵訖, 置於篚奉詣泰階, 祝史迎就於階上, 置於尊所坩上。 謁者引獻官, 贊引引薦俎官入就位, 執禮曰四拜, 在位者皆四拜。 【先拜者不拜】 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 請行事, 退復位。 協律郎跪俛伏舉麾輿, 【凡取物者, 皆跪俛伏而取以輿, 奠物則跪奠訖, 俛伏而後興。】 工鼓祝, 軒架作《景安之樂》、《烈文之舞》, 作九成, 協律令偃麾戛敵, 樂止。 【凡樂, 皆協律郎跪俛伏舉麾輿, 工鼓祝而後作, 偃麾戛敵而後止。】 執禮曰行晨禠禮, 謁者引獻官, 詣盥洗位北向立, 贊搯笏, 盥手帨手, 【盥手帨手不贊】 贊執笏, 引詣尊所西向立, 【登歌作, 肅安之樂、烈文之舞作。】 執尊者舉罍酌鬱鬯, 執事者以瓚受鬱鬯。 謁者引

다. 그리고 나면, 알자와 찬인이 각각 향관을 이끌고 함께 동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행사하기 전 1각에,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축사·재량·전사·궁위령·협률랑·봉조관을 이끌고 들어와 현(懸)의 북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곁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찬자가 〈이를 다시〉 전갈(傳喝)하여, 【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나면, 찬인이 감찰을 이끌고 자리에 나아간다. 또 찬인은 여러 집사들을 이끌고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각각 자리에 나아가면, 찬인이 전사·대축·궁위령을 이끌고 들어와서, 감실(塙室)을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신좌(神座)에 설치하고, 【신악 안에 나아가 상[几]뒤에 궤(匱)를 열고 신좌에 설치한다. 선왕(先王)의 신주는 대축이 받들어 내어 백저포(白苧布)로 덮어 놓고, 선후(先后)의 신주는 궁위령이 받들어 내어 청저포(靑苧布)로 덮어 놓는데 서쪽을 위로 한다.】 다시 이끌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면, 찬인이 다시 재량을 이끌고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찬(瓚)을 씻고 닦는다. 또 작(爵)을 씻고 닦기를 마치면 비(篚)에 담아 받들고 태계(泰階)로 나아가고, 축사가 계상(階上)에서 이를 맞아 존소(尊所)의 점 위에 놓는다. 그리고 나며, 알자는 헌관을 이끌고, 찬인은 천조관을 이끌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네 번 절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가서 고하기를, ‘유사가 삼가 〈예를〉 갖추었으니 행사(行事)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범률랑이 꿇어 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무릇 물건을 취하는 자는 모두 꿇어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취하고 일어나며, 물건을 드릴 때에는 꿇어앉아 드린 뒤에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악공(樂工)이 축(祝)을 치고, 헌가(軒架)에서 경안(景安)의 악(樂)과 열문(烈文)의 춤이 시작된다. 구성(九成)944) 을 마치면 협률령이 휘를 좁히고, 어(敵)를 쳐서, 악이

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撝笏，執事者一人捧香合，執事者一人捧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以瓚授獻官，獻官執瓚灌地訖，以瓚授執事者。大祝以幣篚授獻官，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案，【凡奉香授瓚授幣，皆在獻官之右，奠爐受瓚奠幣，皆在獻官之左。授爵奠爵準此。】謁者贊執笏俛伏興。【登歌止】謁者引獻官，出戶就前楹外，當中北向立，謁者贊再拜，引降復位。當登歌止時，祝史取毛血槃、肝膋鑿於前楹外，入奠於神位前。【毛血槃在鑿之後，肝膋鑿在籩之左。】祝史取肝出戶，燔於爐炭，還尊所饋食。獻官既升祿，贊引引典祀官出，帥進饌者詣廚，以匕升牛于鑊，實于牲匣，次升羊豕，各實于牲匣，【牛羊豕各一匣】入設於饌幔內。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捧俎官隨之，俟獻官裸訖復位。執禮曰進饌，謁者引薦俎官、捧俎官，各捧牲匣，典祀官引饌入自正門。【南門】俎初入門，軒架作《雍安之樂》。祝史進徹毛血槃，自阼階授齋郎以出。饌至泰階，大祝迎引於階上，薦俎官詣

그친다. 【무릇 악은 모두 협률량이 꿰어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친 뒤에 그친다.】 집례가 말하기를, ‘신관례(晨裸禮)를 행하라.’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찬하기를, ‘홀(笏)을 꽂으라.’ 찬한다.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면, 【손 씻고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찬하기를, ‘홀을 잡으라’ 하고,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고 서면, 등가(登歌)가 연주되며, 숙안(肅安)의 악과 열문의 춤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먹을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집사자가 찬(瓚)으로 이 울창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神位)앞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면, 찬하기를, ‘꿰어앉아 홀을 꽂으라.’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올리고, 또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올린다.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면, 집사자가 노(爐)를 향안[案]에 드린다. <분향을 마치면> 집사자가 찬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찬을 잡고 술을 땅에 부은 다음에, 찬을 도로 집사자에게 준다. 대축(大祝)이 폐백 광주리[幣篋]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폐백을 받아 가지고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안(案)에 드린다. 【무릇 향을 바치거나, 찬을 주거나, 폐백을 주는 것은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노를 드리거나, 찬을 받거나,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을 주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謁者)가 찬하기를, ‘홀을 잡으라.’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면, 등가(登歌)가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앞 기둥 밖에 나아가서 중앙에 북향하고 서면, 알자가 찬하기를, ‘재배하라.’ 하고, 다시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등가(登歌)가 그칠 때를 당하여 축사는 모혈반(毛血槃)과 간료등(肝膋鐙)을 앞 기둥 밖에서 가지고 들어가 신위 앞에 드리고, 【모혈반은 간료등 뒤에 놓고, 간료등은 변의 왼편에 놓는다.】 축사가 다시 간(肝)을 취하여 지계문을 나와 이를 노의 숯불에 구워 가지고 준소로 돌아가서 헌관에게 준다. 이미 관(裸)을 이루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

神位前北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 【大祝助奠】奠訖, 啓牲匣蓋, 【樂止】謁者引薦俎官以下, 降自阼階復位. 大祝取蕭黍稷, 揉於脂, 燔於爐炭, 還尊所. 執禮曰行初獻禮, 謁者引獻官, 詣尊所西向立, 【登歌作, 壽安之樂、烈文之舞作.】執尊者舉罍酌醴齊, 執事者二人以爵受酒. 謁者引獻官, 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執事者以副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北向跪, 【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 讀祝文訖, 【樂作. 歌純寧之曲.】謁者贊俛伏興. 【曲終樂止】謁者引獻官, 出戶就前楹外, 當中北向立, 謁者贊再拜引降復位, 【文舞退, 武舞進, 軒架作舒安之樂. 舞者立定, 樂止.】獻官復位. 小頃, 執禮曰行亞獻禮, 謁者引獻官, 詣尊所西向立, 【軒架作, 壽安之樂、昭武之舞作, 鄉樂交奏.】執尊者舉罍酌盃齊, 執事者二人以爵受酒. 謁者引獻官, 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가고, 다시 진찬(進饌)할 사람들을 거느리고 주방으로 나아가서, 비(匕)로 우(牛)를 확(鑊)에서 건져 내어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에는 양(羊)과 시(豕)를 건져서 각각 생갑에 담아 가지고, 【우와 양과 시를 각각 한갑씩 한다.】 찬만(饌幔) 안으로 들어가 벌여 놓으면,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찬소(饌所)로 나아가고, 봉조관도 따라가 현관이 관(裸)을 마치기를 기다려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진찬하라.’ 하면, 알자가 천조관과 봉조관을 인도하여 각각 생갑을 받들어 올리고, 전사관은 찬수를 인도하여 정문【남문(南門).】으로 들어간다. 조(俎)가 처음 문에 들어가면, 헌가에서 웅안(雍安)의 악을 연주한다. 축사는 나아가서 모혈반을 거두어 가지고 조계로부터 재랑(齋郎)에게 주어 내보내고, 찬수가 태계에 이르면, 대축이 조계 위에서 맞아 인도하고, 천조관이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꿇어앉아 드리되, 먼저 우(牛)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양(羊)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시(豕)를 드린다. 【대축이 전 드리는 것을 돕는다.】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생갑의 덮개를 열면, 악(樂)이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 이하를 인도하여 조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대축은 소(蕭)·서(黍)·직(稷)을 취하여 가지고 기름[脂]에 버무려 노의 숯불에 구워 준소로 돌아간다.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는 현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등가(登歌)가 시작되어 수안(壽安)의 악을 연주하고, 열문(烈文)의 춤을 춘다. 집준자가 떡(饗)을 들고 예제(禮齊)945)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현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고, 찬하기를, ‘꿇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한다. 집사자가 작을 현관에게 주면, 현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집사자는 또 부작(副爵)을 현관에게 주면, 현관은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악자가 찬하기를, ‘홀을 잡고 구부렸다 옆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라.’ 하고, 악은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執事者以副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樂止】謁者引獻官，出戶就前楹外，當中北向立，謁者贊再拜，引降復位，獻官復位。小頃，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獻官既復位，執禮曰飲福受胙，大祝詣尊所，以爵酌鬯福酒，祝史持俎進，減神位前胙肉。謁者引獻官，詣飲福位西向立，贊跪搯笏。大祝進獻官之左北向，以爵授獻官，獻官受爵飲卒爵，大祝受虛爵，復於坫，以俎授獻官，獻官受俎，以授執事者，執事者受俎，降自阼階出門。謁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執禮曰再拜，在位者皆再拜。執禮曰徹籩豆，大祝入徹籩豆。【徹者，籩豆各一，小移故處。登歌作雍安之樂。】徹訖，【樂止，軒架作景安之樂，鄉樂交奏。】執禮曰四拜，在位者皆四拜。樂一成止。執禮曰望瘞，謁者引獻官，詣望瘞位北向立，執禮帥贊者，詣望瘞位西向立，大祝取黍稷飯，藉用白茅，束之以篚，取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악을 <다시> 시작한다. 【순녕(純寧)의 곡(曲)을 노래한다.】 알자가 찬하기를, ‘면, 복, 흥’이라 하고, 곡(曲)이 마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 문을 나와서 앞기둥 밖으로 나아가서 중앙에서 북향하고 서면, 알자가 ‘재배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문무(文舞)는 물러나고, 무무(武舞)가 나아가고, 헌가는 서안(舒安)의 악을 시작한다. 춤추는 사람들이 각기 설 자리에 서면, 악이 그치고, 헌관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고 말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고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고 서면, 헌가에서는 수안(壽安)의 악과 소무(昭武)의 춤이 시작되고, 향악(鄉樂)도 같이 연주한다. 집준자가 떡(饗)을 들고 양제(盎齊)946)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고,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하기를, ‘꿇어앉아 홀을 쫓으라.’ 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집사자가 또 부작(副爵)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앞 기둥 밖으로 나아가서 중앙에서 북향하여 서면, 알자는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고 말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헌관이 이미 제자리로 돌아오면, 집례가 ‘음복수조(飲福受胙)하라.’ 한다. 대축이 준소로 나아가서 작으로 뇌(鬯)의 복주(福酒)를 따르고, 축사는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신위 앞의 조육(胙肉)을 던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면, 찬하기를, ‘꿇어앉아 홀을 쫓으라.’ 하고, 대축은 헌관의 왼편으로 나아가 북향하고

祝版及幣，降自西階，置於坎。執禮曰可瘞，奠土半坎，殿司監視。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謁者引獻官出。執禮帥贊者還本位，贊引引監察及諸執事，俱復懸北拜位。立定，執禮曰四拜，監察及諸執事皆四拜訖，贊引以次引出，雅樂令帥工人、二舞出，殿司、大祝、宮闈令納神主如常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懸北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宮闈令闔戶以降乃退復命。獻官以下行事執事官，各還齋所。住一刻頃，有司陳鹵簿於齋坊南門外，如來儀。獻官以下行事執事官至外門外，以次上馬，行至闕門外，下馬入庭，序立復命，四拜訖退。獻官一、【一品】薦俎官一、【二品】執禮一、【四品】典祀官一、【奉常寺官】大祝一、祝史一、齋郎一、協律郎一、殿司一、宮闈令一、掌牲令一、雅樂令一、捧俎官三、謁者一、贊者一、贊引一。

서서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받아 마신다. 대축은 빈 작을 받아 접위에 도로 갖다 놓고, 조(俎)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조를 받아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는 조를 받아 가지고 조계로 내려가 문밖으로 나간다. 알자가 찬하기를,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재배하고, 또 집례가 ‘변(籩)·두(豆)를 거두라.’ 하면, 대축이 들어가서 변·두를 거두고, 【거둔다는 것은 변·두 각 한 개를 제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이다.】 등가는 용안(雍安)의 악을 연주하며, 거두기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헌가는 경안(景安)의 악을 연주하며, 향악도 함께 연주한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고, 악은 한 곡[一成]을 마치고는 그친다. 집례가 ‘망예(望瘞)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고,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서 서향하고 선다. 대축이 기장밥[黍飯]과 피밥[稷飯]을 취하여 백모(白茅)로 싸서 비(籩)로 묶고, 또 축판(祝版)과 폐백을 취하여 가지고 서계(西階)로 내려가서 구덩이[坎]에 놓는다. 집례가 ‘묻는 것이 가하다.’고 말하면, 흙을 넣어 구덩이의 반쯤 차도록 묻는데, 전사가 이를 감시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예가 끝났음을 고하고, 알자는 다시 헌관을 인도하고 나간다.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찬인은 감찰 및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현(懸) 북쪽의 배위로 돌아가서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및 여러 집사들은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아악 령은 공인과 〈문무·무무〉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나간다. 전사·대축·궁위령은 신주를 감실에 들여놓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는 알자·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현 북쪽의 배위로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걸어치우고, 궁위령은 문을 닫고 내려와서 물러가 복명(復命)하면, 헌관 이하 행사한 집사관은 각기 재소(齋所)로 돌아간

	<p>다. 1각썸 있다가, 유사가 노부(鹵簿)를 재방(齋坊) 남문 밖에 벌여 놓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헌관 이하 행사한 집사관들은 바깥 문밖에 이르러 차례로 말에 오르고, 궐문 밖에 이르러서는 다시 말에서 내려서 뜰로 들어가 차례로 서서 복명하고, 사배하고 나서 물러간다. 헌관(獻官) 1인 【1품.】, 천조관(薦組官) 1인 【2품.】, 집례(執禮) 1인 【4품.】, 전사관(典祀官) 1인.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으로 한다.】, 대축(大祝) 1인, 축사(祝史) 1인, 재랑(齋郎) 1인, 협률랑(協律郎) 1인, 전사(殿司) 1인, 궁위령(宮闈令) 1인, 장생령(掌牲令) 1인, 아악령(雅樂令) 1인, 봉조관(捧組官) 3인, 알자 1인, 찬자 1인, 찬인 1인이다.”</p> <p>하였다.</p>	
<p>세종 27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2월 15일(을묘) 2번째기사 광주 목사에게 명나라에 바칠 백자 장본 10개를 잘 구워 올리게 하다</p>	<p>좌부대언(左副代言) 김자(金緒)가 사신에게 문안하니, 윤봉이 말하기를, “종이를 제조하는 방문(方文)과 사기(沙器)를 바치라는 성지(聖旨)가 있었소.” 하므로, 김자가 묻기를, “사기의 수효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 봉이 말하기를, “수효에 대해서는 성지가 없었소. 그러나, 내 생각에는 10개의 탁자(卓子)에 필요한 것으로 한 탁자마다 대·중·소의 주발[椀]이 각각 1개, 대·중·소의 접시[槃兒]가 각각 5개, 대·중·소의 장본(獐本) 【장본은 술 그릇이다. 형상이 도고(鼈鼓)와 같고, 배에 주둥이가 있는 것을 속칭 장본이라 한다.】 10개면 될 것ियो.” 하고, 또 말하기를, “칙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이와 같이 청하여 〈어떻게 알지 모르나〉, 나는 본래 따로 사장(私藏)하는 것이 없으니, 장차 어디에 쓰겠소.” 하였다. 김자가 이말을 임금에게 아뢰니, 곧 전라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전주(全州)의 지장(紙匠)에게 역마(驛馬)를 주어 올려 보내라.”</p>	<p>左副代言金緒問安于使臣， 尹鳳曰：“造紙方文及沙器進獻，有聖旨？” 緒問曰：“沙器數幾何？” 許鳳曰：“數則無聖旨，然吾心以謂，十卓所用，每卓大中小椀各一，大中小槃兒各五及大中小獐本【獐本，酒器，形如鼈鼓，腹有口，俗號獐本。】十事可也。” 且曰：“勅書不載，而如此請之者，予本無私藏，將用之何處乎？” 金緒將此言以啓， 卽傳旨于全羅道監司，全州紙匠，給驛上送，傳旨廣州牧使，進獻大中小白磁獐本十事，精細(磻) [燔] 造以進。</p>

	<p>하고, 광주 목사(廣州牧使)에게 전지하여, “명나라에 바칠 대·중·소의 백자(白磁) 장본(獐本) 10개를 정세(精細)하게 구워 만들어 올리라.” 하였다.</p>	
<p>世宗 27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2月 20日(庚申) 11번째기사 윤봉이 구리로 만든 주발 국자 주전자를 원하니 이를 주다</p>	<p>윤봉이 구리[銅]로 만든 우자(孟子)984) 2개, 작[杓]985) 2개, 관자(灌子)986) 1개를 요구하므로,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p>	<p>尹鳳索銅孟子二、杓二、灌子一，命與之。</p>
<p>세종 27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3월 16일(병술) 3번째기사 장군 절제사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다</p>	<p>장군 절제사에게 술과 고기를 내렸다.</p>	<p>賜酒肉于掌軍節制使。</p>
<p>世宗 28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4月 1日(庚子) 1번째기사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고, 간략한 술잔치를 베풀다</p>	<p>조회를 받고 나서 정사를 보고, 이어서 간략한 술잔치를 베풀어, 조회에서 일을 아뢴 채추(宰樞)와 대간(臺諫)들을 대접하고, 영돈녕(領敦寧) 유정현과 정부와 여러 부원군에게, “모두 들어와서 술자리에 참여하라.” 고 명하였다.</p>	<p>庚子朔/受朝，視事，仍小酌，饋朝啓宰樞、臺諫，命領敦寧柳廷顯及政府、諸府院君，皆入侍酌。</p>
<p>세종 28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p>	<p>호조에서 계하기를, “첨지사역원사(僉知司譯院事) 김귀룡(金貴龍)이 시험하였는데, 함길도 갑산군</p>	<p>戶曹啓: “僉知司譯院事金貴龍所試咸吉道甲山郡產出光明白礬造作之法，一</p>

<p>1년) 4월 13일(임자) 4번째기사 광명 백반 제조 법의 개발과 그 공납에 관 한 호조의 계</p>	<p>에서 생산되는 광명 백반(光明白礬)을 만드는 법은, 하루에 4, 5인이 썰나무를 하여 오고, 5, 6인이 백반석(白礬石)을 주워다가 석회(石灰) 1만여 근을 만들어서 한두 달 동안 묻어 두어 시고 매운 맛이 나게 된 뒤에, 석회 50근을 가져다가 먼저 더운 물을 부어 녹여 내리고, 또 맑은 물 다섯 동이를 붓고 끓여서 세 동이가 되게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광명 백반은 30근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에 의거하여 1년 동안 국가에 소용되는 수량을 참고하여 보면 상의원에 9근 14냥종이요, 도염서(都染署)에 2백 7근 15냥종이오니, 지금 갑산에서 백반을 구워내는 것은 인력이 적게 들고 소출은 많사오니, 앞으로는 위에 아뢴 두 관사에서 1년에 소용되는 수량 외에 불시에 쓸 것까지 예비하여, 모두 3백 근을 본군의 상시 공납(常時貢納)으로 공안(貢案)에 등록하고 매년 상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日四五人取薪，五六人拾白礬石，燒爲石灰一萬餘斤，埋經一二朔酸辛後，將石灰五十斤，先以溫水淋下，又以清水五盆，煮至三盆，則所取光明白礬可三十斤。據此參考，一年國用，尙衣院九斤十四兩，都染署二百七斤十五兩。今甲山白礬煮取，力役輕而所出多，乞自今上項兩司一年經費外，加不時備用共三百斤，爲本郡常貢，錄之貢案，每年上納。”從之。</p>
<p>世宗 28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4月 16日(乙卯) 2번째기사 생선과 고기를 양녕 대군에게 보내 주다</p>	<p>생선과 고기를 양녕 대군에게 보내 주었다.</p>	<p>賜送魚肉于讓寧大君。</p>
<p>세종 28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4월 29일(무진) 4번째기사 영접과 전송 이외에는 금주령을 그대로 하라 고 사헌부에 전교하다</p>	<p>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영접하고 전송하는데 모여 마시는 외에 술마시는 것을 금하던 것을 아직 그대로 금하라.” 고 하였다.</p>	<p>傳旨于司憲府：“除迎餞會飲外，姑停禁酒。”</p>
<p>세종 28권, 7년(1425)</p>	<p>내관 김순(金淳)을 보내어 사신에게 별찬을 선사하였다.</p>	<p>遣內官金淳，饋別膳于使臣。</p>

<p>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6월 2일(경자) 5 번째기사 내관 김순을 보내어 사신에게 별식을 선사하다</p>		
<p>世宗 28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6月 7日(乙巳) 2 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소주를 보내 주다</p>	<p>양녕 대군에게 소주를 보내 주었다.</p>	<p>賜送燒酒于讓寧大君。</p>
<p>세종 28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6월 9일(정미) 3 번째기사 궁중의 음식을 양녕 대군에게 주다</p>	<p>궁중의 음식을 양녕 대군에게 주었다.</p>	<p>賜內膳于讓寧大君。</p>
<p>세종 29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윤7월 19일(병진) 5번째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 제문과 진위 표문을 배송하다</p>	<p>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 제문과 진위 표문을 배송하였다. 그 제문에 “삼가 배신 좌군 총제 김겸을 보내어 맑은 술과 태뢰(太牢) 제물로써 감히 대행 황제 신어 좌전(神御座前)에 고합니다. 엇드려 생각건대 하늘이 성덕을 내셨으니 가극하심은 형언하기 어려웠습니다. 태자로 계실 때부터 진실로 민심에 화합하셨고, 대통을 계승하심에 바야흐로 태평하였습니다. 우리 소국에서 명정(明庭)에 진하하였더니, 특히 상을 주시고 말씀이 정녕(丁寧)하였습니다. 신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항상 만수를 축원하였습니다. 황제께서는 하호(何怙)1025) 를 추념하시고 민막(民瘼)을 염려하시다가 슬픔과 근심으로 병환이</p>	<p>議政府率百官，拜進香祭文及陳慰表。其祭文曰： 謹遣陪臣左軍摠制金謙，以清酌太牢之奠，敢昭告于大行皇帝神御座前。伏以天縱聖德，大哉難名。自居儲位，允協輿情。嗣承大統，方迓隆平。惟予小國，陳賀明庭。特加賞賚，天語丁寧。臣拜稽首，恒祝遐齡。帝念何</p>

	<p>되셨는데, 위독하시어 빈천(賓天)하심이 이렇게 급할 줄을 어찌 뜻했겠습니까. 조서를 받들어 읽음에 통곡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삼가 슬픈 정상을 받들어 이에 맑은 술잔을 올리오니, 조그만 충정을 살피시어 굽어 흠향하시기를 바랍니다.”</p> <p>하였고, 표문에는, “성정(聖情)이 속세(俗世)를 싫어하시어 선어(仙馭)가 하늘에 오르셨도다. 부음(訃音)이 대궐에서 나오니 슬픔이 만국에 얽히도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황제께서는 효성이 지극하심에 호모(號慕)하기에 못 견디리니, 슬픔을 억제하시고 예제(禮制)를 따르기 바라옵니다.”</p> <p>하였다.</p>	<p>怙，且慮民瘼。哀毀憂勞，乃致邁疾，豈意大漸？賓天斯迫。欽讀詔辭，不勝號(僻)〔擗〕。謹紱哀誠，仍陳澗酌。冀諒微衷，俯垂歆格。</p> <p>其表曰： 聖情厭世，仙馭賓天。訃發中宸，悲纏萬國。伏惟皇帝陛下孝誠純至，號慕難居。冀抑哀思，府循禮制。</p>
<p>世宗 29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閏7月 21日(戊午) 1번째기사 내관 김순을 보내 사신에게 별찬을 대접하다</p>	<p>내관 김순(金淳)을 보내어 사신에게 별찬(別饌)을 대접하였다</p>	<p>戊午/遣內官金淳，饋別膳于使臣。</p>
<p>世宗 29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閏7月 28日(乙丑) 1번째기사 황제·황태후에게 존시·존호를 올린 것과 중궁의 책봉을 축하하는 표문에 배례하다</p>	<p>(전략) 방물표에는, “큰 명호(名號)를 책봉하고 성한 예식을 선양하니, 깊은 축하의 정으로 작은 정성을 표하나이다. 삼가 황세저포·백세저포·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황화석·잡채화석 각 10장, 인삼·잣·오미자 각 50근을 드리웁니다. 황태후께 드리는 방물은 홍세저포·백세저포·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 10장, 황화석·잡채화석 각 6장입니다.</p> <p>하였다. 중궁에게 드리는 방물도 같았다.</p>	<p>(전략) 方物表曰： 冊封鴻名，誕揚縟禮，情深燕賀，聊効卑忱。謹獻黃細苧布、白細苧布、黑細麻布各二十四，滿花席、黃花席、雜彩花席各一十張，人蔘、松子、五味子各五十觔。</p> <p>皇太后方物，紅細苧布、白細苧布、黑細麻布各二十四，滿花席一十張，黃花</p>

		席、雜彩花席各六張。 中宮方物同。
世宗 29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9月 10日(丙午) 1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연어를 내려 주다	양녕 대군에게 연어(鱧魚)를 내려 주었다.	丙午/賜鱧魚于讓寧大君。
세종 29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9월 10일(병오) 2번째기사 강무할 때 잡은 노루· 사슴은 적당히 포육을 만들어 건두를 준비하 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일찍이 강무(講武)1039 하는 예절의 한 조목으로 내리신 교지에, ‘짐승을 쏠 적에 왼편에서 쏘아서 오른편 어깨죽지까지 통한 것을 첫째로 삼아서, 그 것을 건두(乾豆)로 하여 종묘에 바친다.’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강무할 때에 잡은 노루와 사슴은 적당히 포육(脯肉)을 만들어 건두를 준비하기를 청합니 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曾降教旨, 講武之禮一款, 凡射獸自左(標) [標] 而射之, 達于右 膈爲上, 以爲乾豆, 奉宗廟。 請自今 以講武所獲獐鹿, 量宜作脯, 以備乾 豆。” 從之。
世宗 29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9月 29日(乙丑) 1번째기사 건지산에서 몰이하여 임금이 사슴 한 마리 를 쏘다	건지산(巾之山)에서 몰이하여 임금이 사슴 한 마리를 쏘았다. 낮참에 아고개 (牙古介) 동구에서 머물렀는데, 수행한 종친이 술자리에 모셨다. 수행한 대신 과 대언 및 감사·경력·찰방 등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고, 감사가 진상한 술은 시위한 군사에게 나누어 주면서 장군 절제사에게는 술과 고기를 별도로 주었다. 병조 지인(兵曹知印) 이극강(李克剛)을 보내어 건두(乾豆)로 만들 사 슴 2마리를 봉상시(奉常寺)에 보내고, 도성(都城)에 머물러 있는 영돈녕 유정 현·영의정 이직·우의정 유관에게는 노루 각 한 마리씩, 의정부와 육조에는 멧 돼지·사슴 각 한 마리씩을 주고, 이어 술을 주도도록 명하였다. 저녁에 경안역 (慶安驛) 아랫쪽 평지에 유숙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대신이 된 자는 마땅히 백성을 구휼하는 것으로 마음을 가져야 하는	乙丑/驅巾之山, 上射鹿一。 晝停于牙 古介洞口, 隨駕宗親侍酌, 命饋隨駕宰 樞、代言及監司、經歷、察訪等。 監 司進酒, 分賜于侍衛軍士, 別賜酒肉于 掌軍節制使。 遣兵曹知印李克剛, 送 乾豆鹿二于奉常。 賜留都領敦寧柳廷 顯、領議政李稷、右議政柳觀獐各一, 議政府、六曹猪鹿各一, 仍命賜酒, 夕 次于慶安驛下平。 上曰: “大抵, 宰相 者當以恤民爲心。 予今見掌軍節制使

	<p>것인데, 내 이제 장군 절제사 전홍과 조모(趙慕)의 군사 거느리는 것을 보니, 곡식밭을 밟아 손해를 주니 어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겠는가.” 하고, 곧 병조에게 핵문하여 아뢰도록 명하고, 장군 절제사는 여산군(礪山君) 송거신(宋居信)과 침총제 최보로(崔甫老)로 대체하게 하였다.</p>	<p>田興、趙慕率軍土踐損穀田，豈宰相愛民之心乎？”即命兵曹劾問以啓，以礪山君宋居信、兪摠制崔甫老代之。</p>
<p>세종 30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0월 1일(병인) 2번째기사 건두로 쓸 사슴 한 마리를 봉상시에 보낸다</p>	<p>건두(乾豆)로 쓸 사슴 한 마리를 봉상시에 보냈다.</p>	<p>送乾豆鹿一于奉常。</p>
<p>세종 30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0월 9일(갑술) 5번째기사 평안도에서 반화피·건어·녹포·모피·개암·약재 등을 공납하지 않게 하다</p>	<p>찬성 황희(黃喜)·이조 판서 허조(許稠)·공조 판서 조비형(曹備衡) 등이 평안도 백성의 민폐(民弊)에 대한 고통을 전변에 아뢰었으므로, 임금이 호조에 명하여 그 도에서 공납하는 물품의 양을 감하게 하였는데, 이번에 호조에서 마감하고 계하기를, “공조에 바치는 반화피(斑樺皮), 사재감(司宰監)에 바치는 건어(乾魚)·건저(乾猪)·건장(乾獐)·녹포(鹿脯), 제용감(濟用監)에 바치는 모피(毛皮), 의영고(義盈庫)에 바치는 개암[榛子]·마른 버섯[乾菌], 도염서(都染署)에 바치는 지초(芷草), 제생원(濟生院)에 바치는 약재(藥材) 등은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初，贊成黃喜、吏曹判書許稠、工曹判書曹備衡等啓平安道居民受弊之苦，上令戶曹量減本道納貢之物。至是戶曹磨勘啓：“工曹納斑樺皮，司宰監納乾魚、乾猪、乾獐鹿脯，濟用監納毛皮，義盈庫納榛子、乾菌，都染署納芷草，濟生院納藥材宜除。”從之。</p>
<p>世宗 30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11月 7日(壬寅) 1번째기사 이순몽·목진공·조뇌 등</p>	<p>진하사(進賀使) 도총제 이순몽(李順蒙)·호조 참판 목진공(睦進恭)·지돈녕 조뇌(趙賚) 등이 흡사약재 칙서(欽賜藥材勅書)를 받들고 돌아왔다. 임금이 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화루에 나아가 칙서를 맞이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의식대로 예를 행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사자가 이르러 약재를 아뢰어 청하므로, 지금 부치어 보내니 받아주기 바란</p>	<p>壬寅/進賀使都摠制李順蒙、戶曹參判睦進恭、知敦寧趙賚等捧欽賜藥材、勅書而回，上率世子以下群臣，幸慕華樓迎勅，至景福宮行禮如儀。其勅曰：使者至，奏請藥材，今付去，至可領</p>

<p>이 흡사약재 칙서를 받들고 돌아오다</p>	<p>다. 용뇌(龍腦) 1근, 소합유(蘇合油) 1근, 침향(沈香) 5근, 노회(蘆薈) 5근, 주사(硃砂) 5근, 사향(麝香) 5근, 담반(膽礬) 10냥푼, 부자(附子) 5근, 천오(川烏) 5근, 쇠양(鎖陽) 1근.”</p> <p>이라 하였다. 임금이 경회루 아래에서 사신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친·부마·영돈녕·의정부·육조·여러 부원군과 판부사 맹사성·대제학 변계량·대사헌·여섯 대언들이 연회에 입시하였다. 그 종사관과 종인(從人)에게도 공궤(供饋)하기를 명하고, 순몽·진공·뇌에게는 안장 갖춘 내구마(內廐馬)를 각 한 필씩 하사하고 환궁하였다.</p>	<p>也。龍腦一斤、蘇合油一斤、沈香五斤、蘆薈五斤、硃砂五斤、麝香五斤、膽礬十兩、附子五斤、川烏五斤、鎖陽一斤。</p> <p>上御慶會樓下設慰宴，宗親、駙馬、領敦寧、議政府、六曹、諸府院君、判府事孟思誠、大提學卞季良、大司憲六代言等侍宴。其從事官、從人，亦命饋之。賜順蒙、進恭、賚鞍具內廐馬各一匹，還宮。</p>
<p>세종 30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1월 18일(계축) 4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주육과 화투를 하사하다</p>	<p>양녕 대군에게 주육(酒肉)과 화투(靴套)를 하사하였다.</p>	<p>賜酒肉、靴套于讓寧大君。</p>
<p>世宗 31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月 4日(己亥) 4번째기사 일본의 원창청·평상가가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의 원창청(源昌淸)이 사람을 시켜 유황·단목·서각·광견(光絹)·약재 등을 올리니, 답례로 정포 1백 40필을 내려 주고, 평상가(平常嘉)도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올리니, 답례로 정포를 내려 주었다.</p>	<p>日本源昌淸使人，獻硫黃、丹木、犀角、光絹、藥材等物，回賜正布一百四十匹。平常嘉使人獻土宜，回賜正布。</p>
<p>世宗 31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p>	<p>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연회에서 술이 취하도록 마시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기는 하오나, 밤을</p>	<p>司憲府啓：“宴會酣飲，非不嚴禁，然乘夜宴飲者，比比有之。此徼巡者不</p>

<p>1年) 1月 19日(甲寅) 3번째기사 밤에 연회를 벌여 음주하는 자가 발각되면 해당 지역 순찰자를 엄중 문책하게 하다</p>	<p>이용하여 술자리를 벌이고 술을 마시는 자가 종종 있사온대, 이것은 순찰하는 자가 체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밤에 술을 마시다가 발각된 자가 있을 때에는 곧 그날 그 지역을 순찰한 관원을 추궁하여 엄중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能搜捕故耳。請自今夜飲現露，則其日其面行巡官，推劾重論。”從之。</p>
<p>세종 31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2월 4일(무진) 3번째기사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과일을 상림원에 납부하게 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근래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과일을 상림원(上林園)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내자시와 내섬시에 납부하게 하는 것은, 그 폐단이 여전하오니, 과거의 예에 의하여 상림원으로 납부하게 하소서. 또한 과일이 결실하는 것이 그 해와 지방에 따라 잘되고 못되는 수가 있는데, 각 지방에 대하여 고정된 액수를 한결같이 상납하게 하면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상납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홍시[紅柿子]·모과·석류·배·유자·감자(柑子) 등 물품은 각 지방에서 상납하게 하지 말고,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 담당 지역의 각 지방의 결실이 잘되고 못된 것을 조사하여, 공안(貢案)에 매긴 수대로 적당히 나누어 배정하여 제 시기에 따서 좋은 것으로 골라서 올려보내게 하며, 상림원의 서울 안에 있는 과원과 유후사의 강화(江華)에 있는 과원에서, 과일이 잘되어 풍성한 해로서 용도(用度)에 족하면, 각도의 산물건[產物]은 임시로 적당히 수를 줄이고, 또 《원전(元典)》의 조항에, ‘각 지방 관청에는 원포(園圃)를 두어 철을 따라 과일 나무를 많이 심어서 관가의 수요에 대비할 것이며, 민가의 과일이나 대나무를 사용하고 그 값을 치르지 않고 공공연히 가져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장물죄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 각 지방 관청에서 주의하여 따르지 아니하오니 실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과일 나무에 대하여 감사로 하여금 그 담당 지방의 크고 작은 데 따라 포깃수를 정하여 재배하게 하고 감사를 실시하며, 그</p>	<p>戶曹啓：“近來各官菓物，除納上林園，納于內資、內贍寺，其弊如前，請依舊例，納于上林園。且菓物結實，隨其年分地面，或有實不實，而令各官定額，一體上納，非徒有弊，箇箇收合上納，未爲淨潔。今後紅柿子、木瓜、石榴、生梨、柚子、柑子等物，勿使各官上納，令各道監司，考其各官結實多少，依貢案數，隨宜分定，趁時摘取，擇善上納。若上林園京中菓園及留後司江華菓園，菓物繁盛結實之年，用度已足，則各道(酸)〔產〕物，臨時量減。又《元典》一款：‘各官置其園圃，以時多植菓木，以備官用，民戶菓實竹木，毋得不給其直，公然取用，違者計贓論罪。’今各官守令，不能用心遵行，實爲未便。各色菓木，令監司隨其各官大小，量定條數栽植，會計施行。其中每道不產柚子、柑子，於全</p>

	<p>중에 도마다 생산되지 않는 유자와 감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연변인 여러 고을에서 포깃수를 재배하게 하고, 그것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손실 경차관(損實敬差官)으로 하여금 직접 본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영구히 일정한 규례로 삼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羅、慶尙道沿邊各官，栽種條數，實不實，令損實敬差官，親審報曹，永爲恒式。”從之。</p>
<p>세종 31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2월 12일(병자) 1번째기사</p> <p>석견주·대마도의 사물 관압사 대호군 이예가 사조하니 인견하다</p>	<p>석견주(石見州)·대마도(對馬島)의 사물 관압사(賜物管押使) 대호군(大護軍) 이예(李藝)가 사조하니, 임금(上)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p> <p>“종정무(宗貞茂)는 지성으로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부왕께서 이를 가상히 여기시어 항상 보호를 베푸셨는데, 정무가 죽은 뒤에 그 섬의 도둑들은 <이때까지> 보호하여 준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틈을 타서 좀도둑질을 감행하고 있음은 그대도 아는 바이다. 이제 그대는 가서 그 뜻을 종언칠(宗彦七)에게 전하라.”</p> <p>하니, 예가 대답하기를,</p> <p>“소신이 이 섬에 왕래한 것이 여러번이었습니다. 정무가 살았을 때에, 신이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여 왔습니다.”</p> <p>하니, 임금(上)이 이르기를,</p> <p>“몇 번이나 갔다 왔느냐.”</p> <p>하니, 예가 대답하기를,</p> <p>“모두 16번이었습니다.”</p> <p>하였다. 임금(上)이 이르기를,</p> <p>“모르는 사람은 보낼 수 없어서, 이에 그대를 명하여 보내는 것이니, 귀찮다 생각하지 말라.”</p> <p>하고, 드디어 갖과 신을 하사하였다. 예조 참의 유계문(柳季聞)이 석견주(石見</p>	<p>丙子/石見州、對馬島賜物管押使大護軍李藝辭，上引見曰：“宗貞茂至誠歸順，父王嘉之，常加撫育，自貞茂死後，其島賊人，不念撫育之恩，投間鼠竊，汝之所知。今汝往傳此意于宗彦七。”藝對曰：“小臣往來本島屢矣。其在貞茂時，臣諭曰：‘汝等向本國，不可不至誠以事之。’”上曰：“往來幾度?”藝對曰：“凡十六度。”上曰：“不知之人，不可以遣，玆用命汝以送，勿憚煩數。”遂賜笠靴。禮曹參議柳季聞答石見州長濱(因番守)〔因幡守〕書曰：</p> <p>本國遭風人一十名，厚恤送還，仍獻禮物，謹具啓達，上甚嘉之。玆將土宜白細絺紬·白紬苧布·黑細麻布各二十四、正布六十五匹、滿花寢席一十張、靑斜皮五領、紫斜皮三領、虎皮三領、豹皮二領、人蔘二十觔、松子</p>

	<p>州)의 장빈(長濱) 인번수(因幡守)에게 회답하는 서한에 이르기를, “풍파를 만난 본국 사람 10명을 후히 보호하여 돌려보내고, 또 예물까지 바쳤기로 삼가 사실을 갖추어 주상께 보고하였더니, 주상께서 매우 가사히 여기시었다. 여기에 토산물로 백세면주(白細綿紬)·백세저포(白細苧布)·흑세마포(黑細麻布) 각 20필, 정포 25필, 만화침석(滿花寢席) 10장, 청사피(靑斜皮) 5장, 자사피(紫斜皮) 3장, 호피(虎皮) 3장, 표피(豹皮) 2장, 인삼 20근, 잣 5백 근, 꿀 15말, 말린 범고기 2마리 분을 좌위문대랑의 사절인 좌위문 삼랑과 등차랑 등에게 부쳐 보내니, 조사하여 받으라.”</p> <p>하고, 예조 좌랑 신기(愼幾)가 대마주(對馬州)의 좌위문대랑에게 회답하는 서한에 이르기를, “풍파를 만난 본국 사람들을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 송환하여 주었으니 깊이 감사하며, 이제 토산물인 백세면주 10필, 백세마포·흑세마포 각 5필, 소주 30병과 꽃감 30첩, 잣·밤·대추 30 말씩과 건대구(乾大口) 2백 마리, 건청어 5백마리를 대호군 이에에게 부쳐 보내니 받아주기 바라며, 이제 인번수에게 보내는 서한과 물품을 등차랑과 돌아가는 좌위문 삼랑에게 부쳐 보내니, 전하여 보내 주면 다행으로 생각하겠다.”</p> <p>하고, 신기가 대마주의 증언칠에게 회답하는 서한에 이르기를, “선대부터 우리 나라에 충성을 바치고 귀순하였으므로, 본조에서는 삼가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대호군 이에를 파견하여 토산물인 조미(糙米) 평두(平斗)로 40석을 부쳐 보내니, 조사하여 받아 주고, 자당(慈堂)과 조모님께 보내는 토산물은 따로 별지에 목록을 적었으니, 하나하나 전하여 올려주면 다행으로 여기겠다. 자당(慈堂)에게 조미 평두 40석, 꽃감 20첩, 건대구 2백 마리, 소주 10병, 건청어 3백 마리, 꿀 3말, 잣·밤·대추 15말씩, 다식(茶食)과 계(桂) 각 2근이다.”</p> <p>하고, 대마주의 월포(越浦) 등차랑에게 보내는 서한에 이르기를,</p>	<p>五百觔、清蜜十五斗、乾虎肉全體二就付、左衛門大郎使人左衛門三郎及藤次郎等前去、惟照領。</p> <p>禮曹佐郎愼幾答對馬州左衛門大郎書曰：</p> <p>本國遭風人等、專人解送、深謝深謝。茲將土宜白細綿紬一十四匹、白細苧布·黑細麻布各五匹、燒酒三十瓶、乾柿子三十貼、松子·黃栗·大棗各三十斗、乾大口魚二百首、乾青魚五百首、委差大護軍李藝齋去、惟照。今送因幡守處書契并土宜、差付藤次郎及回去左衛門三郎等轉送爲幸。</p> <p>愼幾答對馬州宗彥七書曰：</p> <p>自從先世、輸誠來附。本曹敬奉王旨、差大護軍李藝、齋土宜糙米平四十石前去、惟照領。慈堂及祖母處付送土宜、具在別幅、一一轉上爲幸。慈堂糙米平四十石、乾柿子二十貼、乾大口魚二百首、燒酒一十瓶、乾青魚三百首、清蜜三斗、松子黃栗大棗各十五斗、茶食桂各二角。</p> <p>致書于對馬州越浦藤次郎曰：“本國遭風人一十名、厚接以送、爲慰。土宜綿布五匹、至可領也。”禮曹參議柳季</p>
--	--	---

	<p>“풍과를 만난 본국 사람 10명을 후하게 접대하여 보낸 데 대하여 위로하는 바이다. 토산물로 면포 5필을 보내니 받으라.”</p> <p>하였다. 예조 참의 유계문이 대마주 태수 종정성(宗貞盛)에게 보내는 서한에 이르기를,</p> <p>“이제 좌위문대랑이 보낸 사람을 통하여 귀하의 조모와 어머니의 상사를 듣고, 삼가 임금께 갖추어 보고하였더니, 임금께서 마음으로 슬프게 여기시고, 대호군 이에에게 명하여 조미 1백 석, 콩 50석, 종이 2백 권, 백세면주·백세저포 각 10필과 곱감 50첩, 잣 3석, 대추·밤 각 2석을 주어 보내어 부조를 드리는 것이니 받기 바란다.”</p> <p>하였다.</p>	<p>聞致書于對馬州太守宗貞盛曰：“今因左衛門大郎使人，得聞祖母及慈親奄逝，謹具啓聞，上心軫悼，命差大護軍李藝，齋糙米一百石、豆五十石、紙二百卷、白細絺紬·白細苧布各一十匹、乾柿子五十貼、松子三石、大棗·黃栗各二石，前去致賻，惟照領。”</p>
<p>세종 31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3월 23일(정사) 1번째기사</p> <p>좌대언 조종생에게 명하여 두 사신을 문안하게 하다</p>	<p>좌대언 조종생(趙從生)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p> <p>“우리는 부모의 나라에 온 사람인데 여러가지 폐를 많이 끼치고 있으니, 이제부터 낮에 술을 가져오는 일은 준비하지 마시오. 우리가 만일 술을 마시고 싶으면 전하게 아뢰겠소.”</p> <p>하였다. 종생이 와서 보고하니, 명을 내리어 영접 도감사(迎接都監使) 신인손(辛引孫)을 불러서 이르기를,</p> <p>“지금부터는 사신에게 낮에 주는 술은 5일에 한 차례씩으로 하고, 만일 초하루나 보름일 경우에는 5일로 따지지 말고 공급하라.”</p> <p>하였다.</p>	<p>丁巳/命左代言趙從生，問安于兩使，兩使曰：“我等來父母之國，多有停害，今後勿辦晝奉盃。我等如欲飲酒，達于殿下。”從生來啓，命召迎接都監使辛引孫曰：“自今使臣晝奉盃，五日一次，若值朔望日，則不計五日饋之。”</p>
<p>世宗 31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3月 25日(己未) 3번째기사</p>	<p>지신사 곽존중·우대언 정흠지·대제학 변계량 등이 계하기를,</p> <p>“경신 공주가 죽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전하께서는 지금까지 소선(素膳)을 드시오니, 신 등이 껍 두렵게 여기는 바는, 모든 일을 살피시며 수고하시는 몸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까 하옵니다. 하물며 태종께서 항상 말씀하</p>	<p>知申事郭存中、右副代言鄭欽之、大提學卞季良等啓曰：“慶愼公主之卒，已過三日，殿下迨今進素膳，臣等竊恐以萬機之勞，不可如此，而況太宗常以</p>

<p>경신 공주의 상으로 인해 소식하다</p>	<p>시기를, ‘주상께서는 하루라도 소찬을 해서는 안된다.’ 하셨사오니, 바라옵건대 고기 반찬을 다시 드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보통 때에 성(姓)이 다르고 복(服)이 없는 사람의 초상에도 반드시 3일간은 소찬을 했는데, 더구나 같은 성의 고모가 아닌가. 가깝고 먼 관계는 차이가 없을 수 없는 법이다.”</p> <p>하니, 계량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마음에는 비록 부모상을 당했을 때라도 여러 날 동안 소찬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더구나 그밖의 상사에서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태종의 혼령께서 밝게 하늘에 계시오며, 태종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사오니, 이를 어길 수 없사옵나이다. 성상의 귀중하신 몸은 하루라도 손상되거나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위로 태종의 가르치심을 받드시며, 아래로 신하와 백성의 기대에 보답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며칠 동안 소식(素食)을 한다고 해서 태종의 가르치심에 거스리게 되지는 않을 터이니 경 등은 더 청하지 말라.”</p> <p>하였다.</p>	<p>爲, ‘主上一日不可素膳’, 請復肉膳。”</p> <p>上曰: “予常時雖異姓無服之喪, 必三日素食, 況同姓之姑乎? 親疎之分, 不可不異也。” 季良等更啓曰: “殿下之言是矣。然太宗之心以爲, ‘雖有大故, 不可日久素膳,’ 況其他乎? 太宗之靈, 於昭于天, 太宗之言, 昭昭在耳, 其可違乎? 聖體不可使一日虧疎, 伏望上遵太宗之訓, 俯答臣民之望。” 上曰: “雖數日素食, 於太宗之訓, 不爲悖逆, 卿等勿請。”</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4월 6일(기사) 1 번째기사 경연에 나아가다</p>	<p>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참찬관 곽존중(郭存中)에게 이르기를,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는 예로부터 있는 것이나, 근년에는 천기가 순조롭지 못함이 더욱 심하여, 지난해 겨울에는 늘 따뜻하였으며, 지금 농사 철에 비가 시기를 어기니,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내가 심히 이를 염려하는 바이다.”</p> <p>하니, 존중(存中)이 대답하기를, “지금 한창 보리가 여물고 또한 씨를 뿌릴 시기인데, 이와 같이 비가 오지 않</p>	<p>己巳/御經筵。上謂參贊官郭存中曰: “水旱之災, 自古有之。然近年天氣不順尤甚, 前冬恒燠, 今於農月, 雨澤愆期, 未知所由, 予甚懼之。” 存中對曰: “今方麩麥秀實, 又正播種之時, 若是不雨, 則飢饉將至矣。” 上遂命除</p>

	<p>는다면 기근(飢饉)이 이를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여러 곳의 제향(祭享)과 조정(朝廷)의 사신과 이웃 나라 객인(客人)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달 4월 15일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술 쓰는 것을 금하고, 또 각도에서 진膳(進膳)하는 것을 정지시키고자 하니, 존중(存中)이 청하기를, “지금은 중국[朝廷]의 사신이 있고 또한 내膳(內膳)이 넉넉하지 못하니, 선(膳)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p>	<p>諸處祭享、朝廷使臣及隣國客人支持外，自今四月十五日，禁中外用酒。又欲停各道進膳。存中請曰：“今有朝廷使臣，且內膳不充，不可不進。”</p>
<p>世宗 32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4月 7日(庚午) 3번째기사 외방에서 뽑혀 서울에 온 처녀에게 양식·소금·장·어물을 전례대로 주게 하다</p>	<p>호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외방(外方)에서 뽑아 온 처녀가 서울에 머물고 있으면, 양식·소금·장·어물(魚物)을 그 전의 예에 따라 주게 하라.” 하였다.</p>	<p>傳旨戶曹： 自今外方選來處女留京糧料、鹽醬、魚物，依前例給之。</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4월 13일(병자) 9번째기사 대제학 변계량(卞季良)이 술 드시기를 청하므로 따르다</p>	<p>대제학 변계량(卞季良)이 임금이 한재(旱災)를 근심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므로, 대궐에 나아가 술 드시기를 청하기를, “술은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혈맥(血脈)을 통하게 하니, 실로 좋은 약입니다. 만약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하사 조금도 술을 드시지 않으신다면, 기운이 손상됨이 없지 않을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술을 드시어 기맥(氣脈)을 기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大提學卞季良以上憂旱不進酒，詣闕請進曰：“酒所以闢邪氣、通血脈，實是良藥。若夙夜憂懼，暫不進酒，不無損氣，伏望須進酒，以養氣脈。”從之。</p>
<p>世宗 32卷, 8年(1426</p>	<p>임금이 한재(旱災)를 근심하여 술마시기를 그만두었다.</p>	<p>上憂旱徹酒。</p>

<p>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4月 15日(戊寅) 5번째기사 임금이 한재를 근심하여 술마시기를 그만두다</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4월 16일(기묘) 1번째기사 이직 등이 임금의 건강을 걱정하여 술을 금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p>	<p>의정부와 육조에서 대궐에 나아가 단 이슬에 대한 하례(賀禮)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이 상서를 내린 것이 내릴 시기에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상서가 아니고, 재변(災變)으로 생각되니 하례하지 말라.” 하였다. 또 이직(李稷) 등이 계하기를, “주상께서 한재(旱災)를 근심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시니, 전하의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서는 의당합니다마는, 술은 풍랭(風冷)을 치료하고 기맥을 통하게 하는 것이니, 한재(旱災)가 있는 까닭으로 술을 드시지 않으신다면 신 등은 성체(聖體)에 병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본디 술을 즐기지 않으며, 비록 술을 금할 때가 아니더라도 한두 잔에 지나지 않았다. 또 기체(氣體)가 편안하니 비록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무슨 병이 있겠는가. 만약 약으로 먹는다면 염탕(鹽湯)이 좋을 것이다. 나는 들어 따르지 않겠노라.” 하였다. 이직 등이 다시 계하기를, “전하께서 오늘 기체가 편안하시다 하여 술을 드시지 않는다면, 아침 저녁으로 풍습(風濕)의 독기가 몸에 맞아서 병이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약을 복용하실 때에 술 한 두 잔 드시는 것이 무엇이 불가(不可)하겠습니까. 신 등의 청은 전하께서 술을 흠뻑 마시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잊으시라는 것은 아닙니</p>	<p>己卯/議政府、六曹詣闕， 請賀甘露， 上曰：“天之降祥， 非其時， 故予心以爲非祥， 乃災變也， 其勿賀。” 李稷等又啓曰：“上憂旱不進酒， 以殿下恐懼修省之心宜矣。 然酒， 所以治風冷、通氣脈， 以旱之故而不進， 則臣等恐聖體生病矣。” 上曰：“予本不嗜酒， 雖非禁酒之時， 不過一二鍾。 且氣體平康， 雖不飲酒， 何病之有？ 若服藥， 則鹽湯亦可， 予不聽從。” 稷等更啓曰：“殿下以今日氣體平康， 不進酒， 則晨昏風濕之毒， 中而成疾， 未可知也。 服藥之時， 進酒一二鍾， 何不可之有？ 臣等之請， 非爲殿下縱酒， 而忘憂懼也。” 上曰：“卿等以予年前憂勞成疾， 故發此言也。 予於其時， 爲半減膳， 故得病。 今則但不飲酒而已， 何疾得生？ 且禁人飲酒， 而予獨飲之可乎？” 遂不允。</p>

	<p>다.”</p> <p>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경 등은 내가 연전(年前)에 근심과 걱정으로 병을 얻었던 까닭으로, 이같은 말을 하는 것이나, 내가 그 때에는 선(膳)을 반이나 줄였던 까닭으로 병을 얻은 것이요, 지금은 술만 마시지 않을 뿐인데, 어찌 병이 생길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술마시는 것을 금하고 나만 홀로 마신다면 되겠는가.”</p> <p>하고, 윤휴하지 아니하였다.</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5월 18일(신해) 1번째기사</p> <p>공비의 어머니 안씨에게 작첩을 돌려 주게 하다</p>	<p>좌의정 이직(李穰) 이하 정부·육조의 참판 이상의 관원들이 대궐에 나아가 계하기를,</p> <p>“어제 신 등이 소(疏)를 올렸는데, 다만 천안(賤案)에 제명하는 것만 명하셨으니, 신 등의 마음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윤휴하시고 시행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태종께서 시행한 일은 내가 변경할 수 없고, 또 그 천안을 삭제하였다면 안씨(安氏)는 이미 왕비의 어머니가 되니, 비록 봉작(封爵)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이 혐의스럽겠는가.”</p> <p>하였다. 또 계하기를,</p> <p>“천안에서만 삭제하면 서인이 될 뿐인데, 국모의 어머니로서 어찌 서인이 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마지 못하여 그대로 따랐다. 이직 등이 또 술을 드시기를 청하기를,</p> <p>“전하께서 한재를 근심하여 술을 거두시니, 신 등은 근심하고 과로하사 병이 될까 두려워하여 술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휴를 얻지 못했으므로 마음으로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했는데, 어제는 비가 흠족하게 내렸으니, 바라옵건대 조금 술을 드시어 신 등의 마음을 위로하소서.”</p>	<p>辛亥/左議政李穰以下， 政府、六曹參判以上， 詣闕啓曰：“昨日臣等上疏， 但命除賤案， 臣等之心， 有所未安， 伏望依允施行。” 上曰：“太宗施行之事， 予疑其未可盡變。 且削其賤案， 則安氏已爲王妃之母矣。 雖無封爵， 何嫌焉？” 又啓曰：“但削賤案， 則爲庶人而已， 安有國母之母， 而爲庶人者乎？” 上勉從之。 穰等又請進酒曰：“殿下憂旱徹酒， 臣等恐憂勞成疾， 請進酒， 終不得蒙允， 心常憂懼， 乃於昨日， 雨澤滂沱。 伏望小許酒， 以慰臣等之心。” 上曰：“雨澤才降， 隨卽飲酒， 於心未安。 然卿等固請， 從之。” 穰等退， 上謂代言等曰：“吾獨飲之， 而不許臣民之飲未便。 若許飲酒， 必有醉酒放肆之弊， 如之何則可耶？” 郭存中啓曰：</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가 조금 내렸다고 뒤따라서 곧 술을 마신다면 마음에 미안하다. 그러나, 경 등이 굳이 청하니 그대로 따르겠노라.” 하였다. 이직 등이 물러나니, 임금이 대언(代言)들에게 이르기를, “나만 홀로 술을 마시면서 신민이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한다면 반드시 술에 취하여 방종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곽존중(郭存中)이 계하기를, “성상께서 잠시 술 드시기를 허락했을 뿐이온데 어찌 신민들로 하여금 다 술을 마시도록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p>	<p>“上暫許進酒而已， 豈可使臣民皆飲也?” 上然之。</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5월 19일(임자) 5번째기사 예조에서 송나라 원풍의 《예제》에 의거하여 제사 지내자고 청하다</p>	<p>(전략) 그 의주(儀注)에, “제사 전 3일에 행사(行事)해야 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2일 동안 산재(散齋)하고 정침(正寢)에서 자며, 제사지낼 곳에서 1일 동안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할 때는 치사(治事)는 전과 같이 하되, 다만 술을 마음대로 마시지 말고, 파·부추·마늘을 먹지 않으며,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않으며, 형벌을 행하지 않으며,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署名)하지 말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치재는 오직 제사지내는 일만을 행한다. 【무릇 제사에 참여할 사람은 모두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제사 1일 전에 충후위(忠扈衛)는 여러 사관(祀官)의 자리를 설치하고, 또 찬만(饌幔)을 설치하되 모두 동문(東門) 밖에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한다. 전사관(典祀官)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집례(執禮)는 헌관의 자리를 단 아래 동남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집사(執事)의 자리는 그 뒤로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p>	<p>(전략) 儀注: 前祀三日， 應行事執事官， 並散齋二日， 宿於正寢， 致齋一日於祀所。 凡散齋、治事如故， 唯不縱酒、不食葱·菹·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 致齋， 唯行祀事。 【凡預祭者， 皆前二日， 沐浴更衣。】 前祀一日， 忠扈衛設諸祀官次， 又設饌幔， 皆於東門外隨地之宜。 典祀官帥其屬， 掃除壇之內外。 執禮， 設獻官位於壇下東南， 西向， 執事位於其後稍南， 西向北上， 執禮位於壇上， 謁者贊者位於</p>

다. 집례(執禮)의 자리는 단 위에 설치하고, 알자(謁者)와 찬자(贊者)의 자리는 단 아래에 설치하되, 모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게 한다. 헌관의 음복(飲福)하는 자리는 단 위의 남계(南階) 서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싯[柴]을 요단(燎壇)에 쌓아 놓고 【신단(神壇)의 남쪽 병방(丙方)이다.】 망료(望燎)하는 자리는 요단의 북쪽에 설치한다. 헌관은 북쪽에 있게 하되, 남향하게 하고, 집례(執禮)·대축(大祝)·찬자(贊者)는 동쪽에 있게 하되, 서향하여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대축과 찬자는 조금 물려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평상복(平常服) 차림으로 주방(廚房)에 나아가 세척(洗滌)한 것을 보고, 찬구(饌具)를 살피고, 생(牲)이 살졌는가를 보고 재소(齋所)로 돌아온다. 포시(哺時) 후에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생(牲)을 벤다. 【가죽째 삶아 익힌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노인성좌(老人星座)를 단 위의 북방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왕골자리를 깬다.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점(坫)이 있다.】 폐비(幣篚)는 존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香爐)와 향합(香盃)과 축(燭)을 신위 앞에 설치하고,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설치하되, 변(邊) 8개는 왼쪽에 있게 하여 세 줄로 하고, 오른쪽을 뒷자리로 한다. 【첫 줄은 소금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가 그 다음이며, 둘째 줄은 건조(乾棗)가 앞에 있고, 과황(果黃)과 진자(榛子)가 그 다음이고, 세째 줄은 능인(菱人)이 앞에 있고, 검인(芡仁)과 녹포(鹿脯)가 그 다음에 있다.】 두(豆) 8개는 오른쪽에 있게 하여 세 줄로 하고, 왼쪽을 앞 자리가 되게 한다. 【첫 줄은 부추김치가 앞에 있고, 젓이 그 다음이며, 둘째 줄은 무우김치가 앞에 있고, 사슴젓과 미나리김치가 그 다음이며, 세째 줄은 토끼젓이 앞에 있고, 죽순김치와 물고기젓이 그 다음에 있다.】 보(簠)와 궤(簋)가 각각 2개씩 변(邊)·두(豆) 사이에 있게 하되, 보는 왼쪽에 있게 하고, 궤는 오른쪽에 있게 한다. 【보(簠)는 벼와 메조를 채우는데, 메조는 벼의 앞에 있고, 궤(簋)는 메기장과 차기장을 채우는데, 차기장이 메기장의

壇下, 俱近東西向, 設獻官飲福位於壇上南階之西北向, 積柴於燎壇, 【在神壇南丙地。】 設望燎位於燎壇之北。 獻官在北南向, 執禮、大祝、贊者在東西向北上。 【大祝贊者稍却。】 謁者引獻官, 以常服詣廚, 視滌濯、省饌具及視牲充膳, 還齋所。 哺後, 典祀官帥宰人割牲。 【連皮煮熟。】 祀日未行事前, 典祀官帥其屬, 設老人星座於壇上, 北方南向, 席以莞, 奠祝版於神位之右, 【有坫。】 陳幣篚於尊所, 設香爐、香盃并燭於神位前, 設祭器、實饌具。 邊八在左, 爲三行右上, 【第一行, 形鹽在前, 魚鱸次之。 第二行, 乾棗在前, 栗黃、榛子次之。 第三行, 菱仁在前, 芡仁、鹿脯次之。】 豆八在右, 爲三行左上, 【第一行, 韭菹在前, 醯醢次之。 第二行, 菁菹在前, 鹿醢、芹菹次之。 第三行, 兔醢在前, 笋菹、魚醢次之。】 簠簋各二在邊豆間, 簠在左 簋在右。 【簠實以稻梁, 梁在稻前。 簋實以黍稷, 稷在黍前。】 俎一在簠簋前, 【實以豕牲。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 爵三在俎前。 【各有坫。】 設象尊二, 【一

앞에 있다.】조(俎) 1개는 보·례의 앞에 있게 하고,【돼지를 채운다. 송(宋)의 《석전의(釋奠儀)》에 ‘무릇 앞에 있다.’고 말한 것은 모두 남쪽에 있는 것을 말한다.】작(爵) 3개는 조(俎) 앞에 있게 한다.【각각 점(坫)이 있다.】상준(象尊) 2개를 놓는데,【하나는 현주(玄酒)를 채우되, 상준(上尊)에 채우고, 하나는 청주(淸酒)를 채운다. 무릇 신(神)에게 제사하는 물건이 그 당시에 없는 것은 현시(現時)의 물건으로 대신한다.】단 위의 동남 모퉁이에 북향하여 서쪽을 윗자리로 하고, 세(洗)는 단 아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며,【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뇌(罍)는 세(洗) 동쪽에 있게 하되, 구기[勺]를 얹어 두고, 비(篚)는 세(洗)의 서남쪽에 늘어놓는다.【수건과 작을 담아 놓는다.】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는 또한 동남쪽에 모두 북향하여 설치한다. 준(尊)과 뇌(罍)와 비(篚)와 떡(饗)을 잡는 사람의 자리는 준·뇌·비·떡의 뒤에 설치한다. 제삿날 축시(丑時) 전 5각(刻)에【축시 전 5각은 곧 삼경(三更) 삼점(三點)이니, 행사는 축시 1각(刻)을 쓴다.】전사관(典祀官)이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饗具)에 제수(祭需)를 담고 나면, 물러가서 자리에 나아가 제복(祭服)을 입고 올라와 신위판(神位版)을 좌전(座前)에 설치한다. 3각(刻)에 행사할 집사관은 각기 제복을 입는다. 집례는 알자와 찬자를 거느리고 먼저 단 남쪽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나아간다. 1각 전에 알자가 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단 남쪽의 배위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서면,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전갈(傳喝)하면,【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전사관 이하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에 닦고 나면, 각기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재랑이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 작을 씻고 닦고 나서 비(篚)에다 담아서 받들고 준소에 나아가 점(坫) 위에 둔다. 알자가 현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고, 집례

實玄酒爲上尊，一實淸酒。凡祀神之物，當時所無者，以時物代之。】在壇上東南隅，北向西上。設洗於壇下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爵。】設諸執事盥洗，又於東南，俱北向，設執尊篚罍者位於尊罍篚之後。祀日丑前五刻，【丑前五刻，卽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典祀官帥其屬入，實饗具畢退，就次服其服，升設神位版於座前，三刻行事。執事官各服其服，執禮帥謁者、贊者，先就壇南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前一刻，謁者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壇南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傳喝，【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典祀官以下皆四拜訖，謁者引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齋郎詣爵洗位，洗爵拭爵訖，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執禮曰：‘四拜。’獻官四拜。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執禮曰：‘行奠幣禮。’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帨手，【盥手、帨手不

가 ‘사배하라.’고 말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의 헌관은 왼쪽에 나아가 유사(有司)에게 아뢰어 삼가 갖추어 행사하기를 청한다. 집례가 ‘폐백 드리는 예(禮)를 행하라.’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을 꽂고 손을 씻고 수건에 닦기를 찬한다.【손을 씻고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홀을 잡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단으로 나아가 남계(南階)로 올라【여러 집사(執事)들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모두 동계로 한다.】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홀 꽂기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세 번 향을 피우기를 찬하면,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리고, 대축이 폐백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폐(執幣) 헌폐(獻幣)하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향합을 받들고, 폐백을 주는 것은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을 주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알자가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가 맥(罍)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기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은 헌관에게 주고, 헌관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찬하고, 대축은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올라가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맥(罍)을 들고

贊。】贊執笏，引詣壇升自南陞，【諸執事升降，皆自東陞。】詣神位前北向立，贊跪摺笏。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大祝以幣授獻官，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神位前。【奉香授幣，皆在獻官之右，奠爐奠幣，皆在獻官之左。獻爵奠爵，準此。】謁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小頃，執禮曰：‘行初獻禮。’謁者引獻官，升自南陞，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摺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執笏，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引降復位。小頃，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獻官，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摺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小頃，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獻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홀을 꽂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禮)를 행하기를 아헌례의 의식과 같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음복(飲福)하고 제육(祭肉)을 받으라.’고 말하면, 집사자가 준소에 나아가 작으로 복주(福酒)를 따르고, 또 집사자가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 신위 앞에 있는 조육(胙肉)을 덜어 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계로 올라가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헌관의 오른쪽에 나아가 서향하여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받아 마신다. 작을 다 비우면 집사자는 빈 작을 받아 다시 점(坫) 위에 놓는다. 집사자가 서향하여 조(俎)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조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는 조를 받아서 남계로 내려와 문으로 나간다. 알자가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 일어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재배(再拜)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변(籩)·두(豆)를 걷어치우라.’고 말하면, 대축이 나아가 변·두를 걷어치운다. 【걷어치운다 함은 변·두 각각 1개를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기는 것이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고 말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집례가 ‘망료(望燎)하라.’고 말하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망료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는 찬자(贊者)를 거느리고 망료하는 자리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대축이 축관과 폐백을 가지고 요단(燎壇)위에 나아가 태울 나무에 놓는다. 집례가 ‘태우라.’고 말하면, 태울 나무의 반을 태운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예가 끝났다고 아뢰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집례는 찬자

官, 行禮如亞獻儀, 引降復位。執禮曰: ‘飲福受胙。’執事者詣尊所, 以爵酌福酒, 又執事者持俎, 進減神位前胙肉, 謁者引獻官, 升自南陛, 詣飲福位, 北向立, 贊跪搢笏。執事者進獻官之右, 西向以爵授獻官, 獻官受爵飲, 卒爵, 執事者受虛爵, 復於坫。執事者西向, 以俎授獻官, 獻官受俎, 以授執事者, 執事者受俎, 降自南陛出門。謁者贊執笏, 俛伏興, 引降復位。執禮曰: ‘再拜。’在位者皆再拜。執禮曰: ‘徹籩豆。’大祝進徹籩豆。【徹者, 籩豆各一, 小移於故處。】執禮曰: ‘四拜。’獻官四拜。執禮曰: ‘望燎。’謁者引獻官, 詣望燎位南向立, 執禮帥贊者, 詣望燎位西向立, 大祝取祝版及幣, 詣燎壇上, 置於燎柴, 執禮曰: ‘可燎。’燎半柴, 謁者進獻官之左, 白禮畢, 謁者引獻官出。執禮帥贊者, 還本位, 謁者引典祀官及諸執事者, 就壇南拜位。立定, 執禮曰: ‘四拜。’典祀官諸執事皆四拜訖, 謁者引出。執禮帥贊者、謁者, 就壇南拜位, 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 藏神位版, 徹禮饌以降, 乃退。

	<p>를 거느리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전사관과 집사자를 인도하여 단 남쪽의 배위로 나아가 서게 하고, 집례가 ‘사배하라.’고 하면, 전사관과 여러 집사는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고, 집례가 찬자와 알자를 거느리고 단 남쪽의 배위로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신위판(神位版)을 간수하고, 예찬(禮饌)을 거둬치우고 내려가서 곧 물러간다.”</p> <p>하였다.</p>	
<p>世宗 32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5월 19日(壬子) 10번째기사</p> <p>산릉 삭망제·사시 대향·유명일 별제의 산뢰·작의 규모를 정하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여러 산릉(山陵)의 삭망제는 산뢰(山壘) 2개와 작 3개를 쓰고, 사시 대향(四時大享)과 유명일 별제(有名日別祭)에는 산뢰 3개와 작 3개를 쓰되, 양위(兩位)이면 작 6개를 쓰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 “諸山陵朔望祭, 用山壘二爵三, 四時大享、有名日別祭, 用山壘三爵三, 兩位則用爵六。” 從之。</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6월 13일(을해) 2번째기사</p> <p>양녕 대군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다</p>	<p>양녕 대군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었다.</p>	<p>賜酒肉于讓寧大君。</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6월 14일(병자) 4번째기사</p>	<p>의정부에서 계하기를, “지금 제사에 쓸 제수(祭需)는 망패(網牌)라고 일컫는 사냥꾼으로 하여금 철원(鐵原)·평강(平康)에서 사냥하여 바치게 하는데, 오로지 내선(內膳)만을 일정하게 맡은 사람이 없으므로 혹시 절핍(絶乏)할 때가 있어, 신하가 임금을</p>	<p>議政府啓: “今祭供之需, 令鐵原、平康獵人, 稱網牌獵獲供進, 獨內膳無有掌之者, 或致乏絶, 有乖臣子奉上之意。 況兩官獵人, 多至百數, 每月但</p>

<p>제사에 쓸 제수 공급의 방안을 청했으나 윤택하지 않다</p>	<p>받드는 뜻에 어긋납니다. 더군다나, 두 고을에서 사냥하는 사람은 1백 명이나 되면서도 매달 문소·광효 두 전(殿)의 삭망(朔望)에 쓸 제수만 공급하고 있사오니, 이름만 사냥하는 사람이실상은 한역(閑役)에 불과합니다. 원컨대 우리나라 제도의 수인(獸人)의 직책에 의거하여 내선(內膳)까지 겸하여 공급하게 하고, 그 사냥하는 사람들을 세 번(番)으로 나누어 관청에서 그물 만드는 비용을 주어 윤택으로 10일 마다 한 번씩 사냥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p>	<p>供文昭、廣孝兩殿朔望之羞而已。名爲獵人，實是閑役。乞依周制獸人之職，兼供內膳。其獵人分爲三番，官給網罟之資，輪次每十日一獵以進。”不允。</p>
<p>世宗 32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6月 16日(戊寅) 2번째기사 마른 고등어 2레씩과 곤쟁이젓 2항아리를 영접 도감에 보내다</p>	<p>마른 고등어[古道魚] 2레씩[櫃]과 동자개[童子瓜]와 섞어 담근 곤쟁이젓[紫蝦醢] 2항아리를 영접 도감에 보냈으니, 백언(白彦)이 〈이것을〉 진헌하고자 한 때문이었다.</p>	<p>送乾古道魚二櫃、童子瓜交沈紫蝦醢二缸于迎接都監白彦，欲進獻也。</p>
<p>세종 33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9월 5일(을미) 2 번째기사 황랍을 2년 동안 강제하게 하고, 건장·건록 등의 납부도 강제하게 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봉상시(奉常寺)에서 1년간에 소용되는 황랍(黃蠟)이 2백 50여 근에 불과한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천 1백 66근이나 되오니, 청하건대 각도에서 공납(貢納)하는 황랍 5백 94근 8냥쥬를 2년 동안 강제(減除)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충청도 도절제사(都節制使)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근래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땅을 개간하므로 인하여, 노루와 사슴이 매우 희귀하여, 올 병오년 이상의 3년 동안 각 관사(官司)에 공납할 건장(乾獐)·건록(乾鹿) 아울러 61구(口), 녹포(鹿脯) 70첩(貼), 녹각(鹿角) 9대(對)와 장피(獐皮)·녹피(鹿皮) 아울러 1백 8장 등을 갖추어 납부하지 못하였사온대, 각 관사에 저축되어 있는 경비가 유여(有餘)하오니, 이를 강제(減除)하소서.”</p>	<p>戶曹啓：“奉常寺黃蠟一年所用，不過二百五十餘斤，而見在一千一百六十六斤。請各道貢黃蠟五百九十四斤八兩，限二年減除。”從之。又據忠清道都節制使關啓：“近來人多地闕，獐鹿稀罕。今丙午年以上三年，各司納乾獐鹿并六十一口、鹿脯七十貼、鹿角九對、獐鹿皮并一百八張，未得備納。各司所儲經費有餘，請減除。”從之。</p>

	하니, 그대로 따랐다.	
<p>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0月 7日(丁卯) 2번째기사 건두에 소용될 노루 30마리를 봉상시에 보내다</p>	<p>건두(乾豆)에 소용될 노루 30마리를 봉상시(奉常寺)에 보내었다.</p>	<p>送乾豆所需獐三十于奉常寺。</p>
<p>세종 34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1월 1일(경인) 5번째기사 일본 축주 석성관사 종금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므로 정포를 회사하다</p>	<p>일본(日本) 축주(筑州) 석성 관사(石城管事) 종금(宗金)이 사람을 시켜 예조(禮曹)에 글을 보내어 <앞서 우리 나라에서> 도서(圖書)를 내려준 것에 사례하고, 인하여 접선(摺扇) 1백 자루, 장뇌(樟腦) 5근, 대도(大刀) 10자루, 서각(犀角) 1개, 울금(鬱金) 20근, 동(銅) 2백 근, 곱향(藿香) 20근, 유황(硫黃) 1천 근을 바치므로, 정포(正布) 2백 40필을 회사(回賜)하였다. 축전주(筑前州) 태재(太宰) 소이(少貳) 등원 만정(藤原滿貞)이 사람을 시켜 예조(禮曹)에 글을 바치고, <인질(人質)로 잡혀 와 있는> 대마도(對馬島)의 속신(屬臣) 평노전(平奴田) 형제 등을 돌려보내기를 재차 청하고, 인하여 대도(大刀) 5자루, 천산갑(穿山甲) 1장, 장뇌(樟腦) 1근, 초과(草菓) 10근, 비단 2필, 쟁반[盤] 1백 개, 자완(磁椀) 1천 개, 소향유(蘇香油) 3근, 우피(牛皮) 10장, 동(銅) 3백 근, 단목(丹木) 5백 근, 유황(硫黃) 1천 근, 정향피(丁香皮) 3근, 연(鉛) 1백 근을 바쳤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김효손(金孝孫)이 답서하여 말하기를, “평노전(平奴田) 형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 조정에 인질(人質)로 와 있어, 상감의 은혜를 두터이 입었는데도 도리어 간사한 마음을 품어 국법에 중하게 저촉되어 외방에 귀양가 있는 중이며, 우선 정포(正布) 4백 30필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치노라.”</p>	<p>日本筑州石城管事宗金， 使人奉書禮曹， 謝賜圖書， 仍進摺扇一百本、 樟腦五斤、 大刀十柄、 犀角一頭、 鬱金二十斤、 銅二百斤、 藿香二十斤、 硫黃一千斤、 回賜正布二百四十匹。 筑前州太宰少貳藤原滿貞， 使人奉書于禮曹， 再請發還對馬， 屬臣平奴田昆季等， 仍獻大刀五柄、 穿山甲一張、 樟腦一斤、 草菓十斤、 紗二段、 盤一百片、 磁椀一千、 蘇香油三斤、 牛皮十張、 銅三百斤、 丹木五百斤、 硫黃一千斤、 丁香皮三斤、 鉛一百斤。 禮曹參議金孝孫答書云：“ 諭及平奴田昆弟， 既委質我朝， 厚蒙上恩， 反懷譎詐， 重干邦憲， 謫在于外。 姑將正布四百三十匹， 就付回价。” 對馬州宗貞盛· 左</p>

	<p>하였다. 대마주(對馬州) 종정성(宗貞盛)·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 등이 예조(禮曹)에 글을 올리고 평도전(平道全)을 돌려보내 주기를 재차 청하니, 예조 참의 김효손(金孝孫)이 답서를 보내 말하기를,</p> <p>“도전(道全)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가> 국법에 크게 저촉되었으니, 성명(性命)을 보전하게 된 것만도 그 은혜가 지극히 우약(優渥)한 것인 줄 알라.”</p> <p>하였다.</p>	<p>衛門大郎等奉書禮曹， 再請發還平道全， 禮曹參議金孝孫答書曰：“諭及道全， 重干邦憲， 然得保性命， 恩至渥也。”</p>
<p>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1月 3日(壬辰) 1번째기사 정사를 보다. 헌릉의 비문을 고치게 하다</p>	<p>(전략) 상(商)이 또 계하기를,</p> <p>“외빙고(外氷庫)에 얼음 저장하는 것을 원컨대 전의 숫자보다 감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얼음을 저장하고 얼음을 내는 것은 비단 상제(喪祭)를 위할 뿐 아니라, 실상 음양(陰陽)의 부조화(不調和)를 고르게 하는 데도 관계가 있는 것이니 가벼이 하지 말라. 그러나 얼음을 저장할 때에 백성들의 힘이 너무 많이 드니, 그 숫자를 감해서 얼음을 쓸 때에는 절약해 쓰도록 하고 낭비하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후략)</p>	<p>(전략) 商又啓曰：“外氷庫藏氷， 願減前數。” 上曰：“藏氷發氷， 非徒爲喪祭也。 變調愆伏， 所係勿輕。 然藏氷之時， 民力太多， 量減其數， 用氷之時， 撙節毋使濫費。”(후략)</p>
<p>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1月 26日(乙卯) 2번째기사 대마주 종정성이 어선의 나포를 항의하는 글을 올리니 그 사유를 답하다</p>	<p>(전략) 예조 참의 김효손(金孝孫)이 답서하기를,</p> <p>“말한 바 사로잡힌 선척은 우리 나라 변장(邊將)이 함부로 잡은 것이 아니라, 본조(本朝)에서 족하(足下)의 청으로 인하여 먼저부터 상선(商船)이 왕래하는 내이(乃而)1131)·부산(富山)1132) 두 포구(浦口) 이외에 울산(蔚山) 염포(鹽浦)에도 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도록 아뢰어서 성상의 허가를 얻어서 그대에게 글을 보냈으며, 또 우리 나라 변진(邊鎭)에도 일러둔 지 이미 오래 되었도다. 위의 세 곳 이외에 만일 선척이 범람하면 그곳에 있는 진수(鎭守)가 그때 그때에 체포하는 것이 그 직책이다. 그러한데 금년 3월에 전라도 만경(萬頃) 사람이 고기를 잡는데 적선(賊船) 한 척이 몰래 와서 군인 4명을 죽였으며, 4월에는 충청도 태안(泰安) 사람이 해산물을 캐는데 적선 한 척이 또 군인 3</p>	<p>(전략) 禮曹參議金孝孫答書曰：諭及被捉船隻， 非我朝邊將妄行捕獲。 本曹因足下之請， 在先商船來往乃而、富山兩浦外， 蔚山、鹽浦， 亦令販賣， 啓奉王旨， 書達左右， 又諭我國邊鎭， 已有日矣。 前項三處外， 如有汎濫船隻， 則所在鎭守， 臨機逮捕， 乃其職也。 況今年三月， 全羅道萬頃人捕魚， 賊船一隻潛來， 殺死軍人四名。 四月， 忠清道泰安人採海產， 賊船一隻， 又捉</p>

	<p>명을 잡아갔으므로 그때에 파해관(把海官)이 쫓아가 잡았으며, 또 8월에는 전라도 서쪽 여서도(餘鼠島)에 적선 두 척이 몰래 와서 머뭇거리므로, 파해관(把海官)이 앞서 왔던 도둑인가 의심해서 뒤쫓아갔다가 많은 적선을 만나서 싸웠으나 마침내 이기지 못하였고, 단지 적선 안의 군장(軍裝)을 뺏고 보니 절반이나 우리 나라 사람의 기물(器物)이었다. 또 충청·전라도는 귀국(貴國) 경계와는 수로(水路)가 몹시 멀어 보통 때에는 어선(漁船)이 올 수도 없는 곳이니, 생각하건대 이것은 간사한 무리들이 족하(足下)의 통호(通好)하는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변흔(邊釁)을 빚어낸 것일 것이니, 우리 나라 장수의 과실이 아닐 것이다. 바라건대 전에 정한 세 곳 이외에는 왕래하는 선척을 굳게 금지하라. 천아(天鵝) 5마리, 청어(靑魚) 6백 마리, 대구어(大口魚) 40마리, 소주(燒酒) 30병을 돌아가는 사람 편에 부치노라.”</p>	<p>軍人三名以歸，其時把海官追捕。又於八月，全羅道西餘鼠島，賊船二隻，隱泊逡巡，把海官，疑其似前盜竊，追蹤及到，多般逆戰，終至不勝，所獲船內軍粧，半是我國人器物也。且忠淸、全羅，與貴境水路爲遠，非常時漁船所可及也。意是奸詐之徒，不體足下通好之意，構生邊釁，非我國將帥之過也，惟照。前定三處外，來往船隻，堅行禁止。將天鵝五首、靑魚六百尾、大口魚四十尾、燒酒三十瓶，就付回人。</p>
<p>세종 35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월 9일(무술) 3 번째기사 예조에서 계를 올린대로 종묘에 제향할 때의 절차를 따르게 하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본조에서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와 함께 삼가 살펴보니, 당(唐)나라의 제도는 태묘(太廟)에 제향(祭享)할 때에, 황제가 한 제실(祭室)에 나아가서,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서면, 대축(大祝)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제실의 지계문 밖 오른편에 나가서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황제는 두 번 절하고 또 두 번 절하는데, 나머지 제실(祭室)에서도 이와 같이 합니다. 송(宋)나라 제도는 태묘(太廟)에 제향할 때에, 황제가 한 제실에 나아가서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서면, 독축관(讀祝官)이 책문(冊文)을 읽고, 이를 마치면, 황제는 두 번 절하는데, 나머지 제실(祭室)에서도 이와 같이 합니다. 《홍무예제(洪武禮制)》에는 부(府)·주(州)·현(縣)에서 사직(社稷)에 제사지내는 의주에,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헌관(獻官)이 조금 물러나서 꿇어앉으면, 독축(讀祝)</p>	<p>禮曹啓：“曹與儀禮詳定所，謹按唐制享太廟，皇帝詣一室，酌獻後，出戶外北向立。大祝持版，進於室戶外之右，讀祝文訖，皇帝再拜，又再拜。餘室同。宋制享太廟，皇帝詣一室，酌獻後，出戶外北向立。讀祝官，讀冊文訖，皇帝再拜。餘室同。《洪武禮制》，府州縣祭社稷儀，酌獻後，獻官少退跪，讀祝者讀祝文訖，俯伏興平身無拜。《事林廣記》國朝公侯祀先儀，高曾祖考位前酌獻訖，俯伏興平身，復位再拜。本朝永樂十三年詳定宗廟儀，</p>

하는 사람이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절은 하지 않습니다. 《사림광기(事林廣記)》와 《국조공후사선의(國朝公侯祀先儀)》에는, 고조고(高祖考)와 증조고(曾祖考)의 위(位) 앞에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이를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그전 자리로 돌아와서 두 번 절하게 됩니다. 본조(本朝) 영락 13년의 상정 종묘의(詳定宗廟儀)에는 명나라의 예제(禮制)에 의거하여 각 제실(祭室)마다 술을 따라 드리고 난 뒤에,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한가운데 서서 다만 두 번 절하기만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朝廷)의 《친왕혼례묘현의(親王婚禮廟見儀)》를 살펴보면 왕과 비(妃)가 봉선전(奉先殿)에 이르러, 덕조 현황제(德祖玄皇帝)와 현황후(玄皇后)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그전 자리로 돌아가서 양쪽에 배례(拜禮)를 행하고, 다음에 의조(懿祖)·희조(熙祖)·인조(仁祖)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예(禮)를 이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조정(朝廷)에서는 태묘(太廟)에 제향(祭享)할 때에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매 제실(祭室)마다 두 번 절하는 것이 송나라 제도와 같은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종묘에 제향할 때에, 전하께서 제1 제실(祭室)의 신위 앞에 나가서 울창(鬱鬯)으로 강신(降神)하고, 이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두 번 절하고,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이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고, 대축(大祝)이 지계문 밖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전하께서 두 번 절하고, 제2 제실 이하에서도 예(禮)를 이와 같이 행할 것입니다. 이 밖의 절차는 《원정의(元定儀)》에 의거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依朝廷禮制，各室酌獻訖，出戶外當中，只行再拜。今按朝廷親王婚禮廟見儀，王與妃至奉先殿，詣德祖玄皇帝、玄皇后神位前，酌獻訖，俯伏興復位，行兩拜禮。次詣懿祖、熙祖、仁祖神位前，行禮同。由此觀之，朝廷享太廟酌獻後，每室再拜，與宋制同，從可知矣。伏望自今享宗廟，殿下詣第一室神位前，裸鬯訖，俛伏興出戶外，北向再拜，酌獻訖，俛伏興出戶外，北向跪，大祝進戶外之右，東向跪讀祝文訖，殿下再拜。第二室以下行禮同。此外節次，依元定儀。”從之。

<p>世宗 35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1月 13日(壬寅) 8번째기사 좌위문 대랑이 토산물을 바치니 회사하다</p>	<p>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이 그 아들을 시켜 조현(朝見)하고 인하여 유황(硫黃) 1천 근, 단목(丹木) 5백 근, 서각(犀角) 8개, 오매목(烏梅木) 5백 근, 감초(甘草) 10근, 목향(木香) 2근, 백단향(白檀香) 2근, 진피(陳皮) 3근, 주홍(朱紅) 1근, 침향(沈香) 2근, 사발(沙鉢) 1백 개를 바치므로, 정포(正布) 3백 필을 회사(回賜)하였다.</p>	<p>左衛門大郎使其子朝見，仍獻硫黃一千斤、丹木五百斤、犀角八介、烏梅木五百斤、甘草十斤、木香二斤、白檀香二斤、陳皮三十斤、朱紅十斤、沈香二斤、沙鉢百介。回賜正布三百匹。</p>
<p>世宗 35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1月 13日(壬寅) 9번째기사 비전주의 송포에 교거한 원신창명이 토산물을 바치다</p>	<p>비전주(肥前州)의 송포(松浦)에 교거(僑居)한 원신창명(源臣昌明)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인 유황(硫黃) 2천 근, 남목향(南木香) 2근, 적동(赤銅) 50근, 용뇌(龍腦) 3냥쫑, 호초(胡椒) 5근, 절탁(折卓) 1각(脚), 과자분(菓子盆) 10편(片), 대분(大盆) 1편(片)을 바쳤다.</p>	<p>肥前州松浦僑居源臣昌明使人獻土物，硫黃二千斤、南木香二斤、赤銅五十斤、龍腦三兩、胡椒五斤、折卓一脚、菓子盆十片、大盆一片。</p>
<p>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4월 26일(갑신) 2번째기사 왕세자 납빈의</p>	<p>왕세자 납빈의(王世子納嬪儀). 마루에서 초계(醮戒)한다. 이틀 전에 유사(攸司)는 안팎에 널리 지시하여 각기 직임을 맡아 하도록 한다. 하루 전에 유사(有司)가 전하의 악좌(幄坐)를 근정전 조계(阼階) 위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그 날이 되면 향로(香爐)와 보안(寶案)을 전하의 자리 앞에 설치하기를 보통 때와 같게 하고, 왕세자의 좌석은 서북편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다방(茶房)에는 주준탁(酒罇卓)을 동편 자리[東序]의 아래에 조금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잔(盞) 하나를 탁자 위에 놓아두며, 또 찬탁(饌卓)을 주준탁 서쪽에 설치한다. 전악(典樂)은 풍악을 전정(殿庭)에 베풀고, 판사복(判司僕)은 여연(輿輦)과 말을 늘어놓는데, 모두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한다. 신시(申時) 초삼각(初三刻)1180) 이 되면, 통례문(通禮門)은 왕세자의 배위(拜位)를 전정(殿庭)길 동쪽으로 북쪽에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문관 1품 이하의 자리는 왕세자 배위의 남쪽으로, 종실·무관 1품 이하의 자리는 길 서쪽으로 설치하되, 문관</p>	<p>王世子納嬪儀：臨軒醮戒前二日，攸司宣攝內外，各供其職。前一日，有司，設殿下幄坐於勤政殿阼階上西向。其日，設香爐及寶案於殿下坐前如常，設王世子席位於西北南向。茶房，設酒罇卓於東序下稍南，置盞一於桌上，又設饌卓於罇西。典樂，設樂於殿庭，判司僕，陳輿輦及馬竝如常儀。晡前三刻，通禮門，設王世子拜位於殿庭道東近北北向，設文官一品以下位於王世子拜位之南，宗室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當文</p>

의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북향되게 하고, 상대하여 머리가 되게 한다. 감찰 두 사람의 자리는 동서반 뒤로 설치하고, 판통례(判通禮)와 전의(典儀)의 자리는 전계(殿階) 아래 동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향으로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또 통찬(通贊) 두 사람의 자리는, 하나는 전의(典儀)의 남쪽에 조금 물려서 서향으로 하고, 하나는 서계(西階)의 서남쪽에다 동향하여 설치한다. 충호위(忠扈衛)는 왕세자의 위차를 근정문 밖에 길 동편으로 북쪽에 가깝게 서향으로 설치하고, 통례문은 여러 관원의 문밖 위차를 설치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한다. 북이 초엄(初嚴)을 올리면, 동궁(東宮) 관원들은 모두 궁문 밖에 모여 각기 자기 자리에 나아가 모두 각자의 복장을 입으며, 익위사(翊衛司)는 소속 장위(仗衛)를 거느리고 진설(陳設)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하고, 병조는 제위(諸衛)를 거느리고 의장(儀仗)을 전정(殿庭)에 진열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한다. 종실·문무 여러 관원은 조당(朝堂)에 모여 모두 자리에 나아가 각기 조복을 입는다. 북이 이엄(二嚴)을 올리면,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은 모두 문밖 위차로 나아간다. 좌중호(左中護)가 중엄(中嚴)을 찬하여 청하면, 제위(諸衛) 관원들이 차례로 함(閣)1181)에 나아가 맞이하고, 【우중호(右中護)는 인(印)을 짚어지기를 의식대로 한다.】 동궁 관원[宮官]으로서 따라야 할 사람들은 각기 자리에서 나와 문밖에 서되,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겹줄로 마주 향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좌중호(左中護)가 바깥에 준비가 되었음을 아뢰면, 왕세자가 조복을 입고 나오는데, 좌우의 시위함이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하고, 좌중호가 인도하여 근정문 밖에 이르러 자리에 나아가 앉게 하는데, 시위함은 보통 때 의식과 같다. 판통례가 꿇어앉아 임금께 중엄(中嚴)을 아뢰면, 전하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오는데 원유관과 강사포로 몸차림 하고, 근신(近臣)과 집사(執事)가 예를 행한다. 통찬이
“사배, 흥, 평신”

官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設監察位二於東西班後，設判通禮典儀位於殿階下東南，俱西向北上。又設通贊二人位，一於典儀之南少退西向，一於西階西南東向。忠扈衛，設王世子次於勤政門外道東近北西向。通禮門，設群官門外位如常儀。鼓初嚴，東宮官俱，集宮門外，各之次，皆服其服。翊衛司勒所部仗衛，陳設如常儀。兵曹勒諸衛，陳儀仗於殿庭如常儀。宗室文武群官，集朝堂，俱就次，各服朝服。鼓二嚴，宗室文武群官，俱就門外位。左中護，贊請中嚴，諸衛之官，以次詣閣奉迎。【右中護，負印如式。】宮官應從者，各出次立於門外，文東武西，重行相向北上。左中護，白外辦，王世子服朝服以出，左右侍衛如常儀。左中護，引詣勤政門外就次坐，侍衛如常儀。判通禮，跪啓請中嚴，殿下出思政殿，服遠遊冠絳紗袍，近臣及執事行禮。通贊，贊四拜興平身，贊各供事。典樂，帥工人入就位，諸侍衛之官，各服其器服，尙瑞司官奉寶，俱詣閣奉迎。鼓三嚴，奉禮郎，分引宗室文武群官入就位。立定，鍾聲

	<p>이라 찬하고, “각기 맡은 일을 행하라.”</p> <p>찬하면, 전악(典樂)이 악공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여러 시위하는 관원들은 각기 기구와 복장을 차리고, 상서사(尙瑞司) 관원은 보(寶)를 받들고 모두 함(閤)에 나아가 맞이한다. 북이 삼엄(三嚴)을 울리면, 봉례랑(奉禮郎)이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제자리에 선 다음에, 종소리는 그친다. 관통례가 꿇어앉아 바깥 준비가 되었음을 임금께 아뢰어 전(殿)에 오르기를 청하고, 중금(中禁)이 엄(嚴)을 전(傳)한다. 화로의 연기가 오르면, 전하는 나와서 자리에 오르고, 상서사(尙瑞司) 관원이 보(寶)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놓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전의(典儀)가 말하기를, “국궁, 사배, 흥, 평신”</p> <p>이라 하면, 통찬이 받아 찬(贊)한다.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시종하기는 평소의 의식과 같다. 왕세자의 모든 행사에는 좌중호와 집의가 진행을 찬하고 도와준다.】 들어와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고 선다. 전의(典儀)가 말하기를, “국궁, 사배, 흥, 평신”</p> <p>이라 하고, 통찬이 받아 찬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올라 자리의 서편에 남향하고 선다. 다방(茶房)의 제거(提舉)가 자리[序]에서 술을 부어 가지고 왕세자의 서남쪽으로 나아가 동향하고 서면, 왕세자가 재배하고 자리에 올라 남향하여 꿇어앉아 홀(笏)을 쫓고 술잔을 받는다. 제거가 또 찬탁(饌卓)을 자리 앞에 올리면, 왕세자가 술을 조금 따르고 일어나 자리 서쪽으로 내려 남향하여 꿇어앉아 술을 조금 마시고 제거에게 빈 잔을 준다. 왕세자가</p>	<p>止。判通禮跪啓外辦，請陞殿，中禁傳嚴，爐烟升。殿下出陞座，尙瑞司官奉寶，置於殿下座前如常。典儀曰：“鞠躬四拜興平身。”通贊傳贊，宗室文武群官，皆鞠躬四拜興平身。僉知通禮引王世子【侍從如常式。王世子每行事，左中護執儀贊相。】入就拜位北面立，典儀曰：“鞠躬四拜興平身。”通贊傳贊，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僉知通禮，引王世子詣西階，升就席西南面立，茶房提舉酌酒於序，進詣王世子西南東面立。王世子再拜，升席南面跪，摺笏受盞，提舉又薦饌卓於席前，王世子祭酒興，降席西南面跪，啐酒授提舉虛盞，王世子出笏，俯伏興再拜，提舉徹薦。僉知通禮，引王世子進當殿下座前東面跪，殿下命之曰：“往迎爾相，承我宗事，勛率以敬。”王世子曰：“臣某謹奉教旨。”俯伏興，遂鞠躬四拜興平身。僉知通禮，引王世子，降自西階出門。初王世子將出，典儀曰：“鞠躬四拜興平身。”宗室文武群官，皆鞠躬四拜興平身。判通禮就殿庭正中，跪啓禮畢，俯伏興還侍位。通贊唱禮畢，殿下降座入內，奉</p>
--	--	---

	<p>홀(笏)을 빼어 들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제거가 음식을 거둬치운다.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는다. 전하가 명하기를, “가서 너의 짝을 맞아들여 우리 종실을 잇게 하되, 힘써 공경으로써 함께하라.” 하면, 왕세자가 말하기를, “신 아무[某]는 삼가 교지(教旨)를 받들겠나이다.” 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바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내려 문으로 나간다. 처음에 왕세자가 장차 나가려 할 때, 전의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이라 말하면,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판통례가 전정(殿庭) 한가운데 나아가 꿇어앉아 예가 끝났음을 아뢰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모시던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예가 끝났다.” 고 창하면, 전하는 자리에서 내려 내전으로 들어가고, 봉례랑(奉禮郎)은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p>	<p>禮郎分引宗室文武群官以次出。</p>
<p>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4월 26일(갑신) 4번째기사 동퇴의</p>	<p>동퇴의(同牢儀)1184) 그날 사규(司閨)가 빈(嬪)의 위치를 동합(東閣) 안의 길 동쪽으로 남향되게 설치하고, 장연(掌筵)은 요와 자리를 펴 놓는다. 저녁이 되면 사규가 동퇴(同牢)할 자리를 실내에 설치하는데, 왕세자의 자리는 동상(東廂)에 서향되게 하고, 빈은 서상(西廂)에서 동향되게 하되, 자리와의 거리가 뇌찬(牢饌)을 놓을 만하게 한다. 전선자(典膳者)가 주준탁(酒罇卓)을 한가운데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고 근(鬚)과 잔(盞) 두 개를 탁자 위에 놓아 둔다. 왕세자의 연(輦)이 시신 하마소(侍臣下馬所)에 이르러서는 잠시 멈추고,</p>	<p>同牢儀: 其日, 司閨, 設嬪次於東閣內道東南向, 掌筵鋪褥席。 將夕, 司閨, 設同牢之席於室內, 王世子之席東廂西向, 嬪西廂東向, 席間量容牢饌。 典膳者, 設酒罇卓於正中稍南, 置兩盞鬚於卓上。 王世子輦, 至侍臣下馬所, 權停</p>

문무 궁관(宮官)이 모두 말에서 내린다. 연이 광화문의 동편문(東偏門)에 이르면, 좌중호(左中護)가 연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연에서 내리기를 청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모시던 자리로 돌아온다. 왕세자는 연에서 내려 들어와 내전문(內殿門) 밖의 동쪽에서 서향하고 기다리는데, 시위하는 것은 보통 때의 의식과 같고, 중호(中護) 이하는 모두 물러난다. 빈이 궁문에 이르러서는 의장(儀仗)은 문밖에 머물러 두고 가까이 모시는 자만 보통 때와 같이 따르고, 들어와 좌합(左閣) 밖에 이르면, 사칙(司則)이 연 앞에 나아가 빈에게 연에서 내리기를 청하고, 장연(掌筵)이 앞뒤에서 집촉(執燭)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한다. 빈은 연에서 내려 위차에 나아가 몸치장을 정식으로 차리면, 사규가 빈을 인도하여 내전 문밖의 서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선다. 왕세자가 빈에게 읍하여 들어오게 하면, 사규가 앞서 서계(西階)로 오르고, 빈이 뒤따라 오르는데, 촛불 잡은 자가 동·서계(東西階) 안에 늘어서고, 왕세자가 빈에게 읍하면서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고, 빈은 자리에 나아가 동향하여 선다. 사칙(司則)이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재배(再拜)하기를 청하면, 빈이 재배하며 왕세자는 답으로 재배한 다음, 빈에게 읍하여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사찬(司饌)이 계간(階間)에 나아가 북향하고 꿇어앉아 뇌찬(牢饌)의 준비되었음을 아뢰고 일어서면, 사찬이 소속을 거느리고 찬탁(饌卓)을 받들고 올라와서 왕세자와 빈의 좌석 앞에 진설한다. 사찬 두 사람이 술상 앞에 나아가 잔을 가지고 술을 부어, 한 사람은 왕세자에게 드리고 한 사람은 빈에게 드리면, 왕세자와 빈이 함께 잔을 받아 조금씩 따르고, 사찬들이 각각 안주를 올리면 함께 마신다. 사칙이 함께 나아가서 빈 잔을 받아 상에 놓으며, 사찬이 또 함께 잔에 술을 부어 두 번째 드리면, 왕세자와 빈이 함께 잔을 받아 마시고, 사칙(司則)이 나아가 빈 잔을 받아 상에 놓으며, 세 번째 술을 드릴 때는 근(醕)을 사용하되, 두 번째 드릴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사찬이 북향으로 꿇어앉아 “뇌찬이 끝났다.”

文武宮官皆下馬。輦至光化門東偏門，左中護進當輦前，跪請降輦，俯伏興，還侍位。王世子降輦，入俟於內殿門外之東西面，侍衛如常儀，中護以下皆退。嬪至宮門，仗儀停於門外，近侍者從如常。入至左閣外，司則進當輦前，請嬪降輦，掌筵前後執燭如常儀。嬪降輦，就次正飾。司闈引嬪詣內殿門外之西東面，王世子揖嬪以入，司闈前升自西階，嬪後升，執燭者陳於東西階內。王世子揖嬪，卽席西向立，嬪卽席東向立，司則前跪請再拜，嬪再拜，王世子答再拜，揖嬪就坐。司饌進詣階間，北面跪請具牢饌興，司饌率其屬升，奉饌卓入，設於王世子及嬪座前。司饌二人詣酒卓，以盞酌酒，一人進授于王世子，一人進授于嬪，王世子及嬪，俱受盞祭酒。司饌各進饌俱飲，司則俱進授虛盞，置於卓。司饌又俱以盞酌酒再醕，王世子及嬪，俱受盞俱飲，司則進受虛盞，置於卓。三醕用醕，如再醕禮。司饌北面跪白牢饌畢，司饌徹饌卓。司則前跪請邸下入，俯伏興，還侍位，王世子入於東房，釋朝服。司則請嬪入幃幄，王世子及

	<p>고 아뢰면, 사찬이 찬탁을 거두어 치우고, 사칙은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왕세자에게 들어가시기를 청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모시던 자리로 돌아오면, 왕세자가 동방(東房)으로 들어가 조복을 벗으며, 사칙이 빈에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하면, 왕세자와 빈이 함께 실(室)로 들어간다. 잉(媵)1185) 은 왕세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고, 어(御)1186) 는 빈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는다.</p>	<p>嬪俱入室。 媵餽王世子之饌， 御餽嬪之饌。</p>
<p>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4월 26일(갑신) 5번째기사 빈조현의</p>	<p>빈조현의(嬪朝見儀). 그날에 낮 누수(漏水)가 일각(一刻)이 되면, 유사(有司)가 전하의 좌석을 내전의 동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왕비[中宮]의 좌석은 서벽에 동향하여 설치한다. 상식(尙食)이 예준탁(醴罇卓)을 동벽 아래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고, 잔 하나를 탁자 위에 놓고, 또 찬탁(饌卓)은 준(罇) 북쪽에 설치한다. 그날 빈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는데, 사칙(司則)이 꿇어앉아 빈에게 내엄(內嚴)1187) 을 부탁하고, 동틀 무렵에 여러 위(衛)에서는 각기 소속을 거느리고 의장(儀仗)을 진열하는데, 보통 의식과 같이 하고, 내구위(內廐尉)가 연(輦)을 정침(正寢) 서계(西階) 앞에 남향으로 모셔 놓은 다음에, 사칙이 외관(外辦)을 아뢰면, 빈이 명복(命服)을 입고 수식(首飾)도 갖추고 나와 서계(西階)로 내려 연(輦)에 오르는데, 시위는 보통 때와 같이 하고, 연(輦)이 내릴 곳에 이르면, 사규가 빈에게 연에서 내리기를 찬(贊)한다. 사규가 빈을 인도하여 들어가는데, 장위(仗衛)는 함(閤) 밖에 머무르며, 시종은 보통 때와 같이 한다. 빈이 침문(寢門) 밖에 이르러 서상(西廂)에서 동향하고 서면, 근시(近侍)가 중엄(中嚴)을 아뢰고, 상의(尙儀)가 중궁(中宮)에게 내엄(內嚴)을 계청한다. 빈이 이미 침문(寢門)에 이르면, 근신(近臣)이 꿇어앉아서 외관(外辦)을 아뢴다. 전하는 원유관과 강사포를 차리고 나와서 좌석에 오르는데, 시위는 보통 의식과 같으며, 상의가 또 중궁에게 외관을 아뢰면, 중궁은 적의(翟</p>	<p>嬪朝見儀： 其日，晝漏上水一刻，有司，設殿下座於內殿東壁，西向，中宮座於西壁，東向。 尙食，設醴罇卓於東壁下稍南，置盞一於卓上，又設饌卓於罇北。 其日，嬪夙興，司則跪請嬪內嚴。 質明，諸衛帥其屬，陳布儀仗如常儀，內廐尉，進輦於正寢西階之前南向，司則白外辦，嬪服命服加首飾以出，降自西階升輦，侍衛如常。 至降輦所，司閤贊嬪降輦，司閤引嬪入，仗衛停於閤外，侍從如常。 嬪至寢門之外，立於西廂東面，近侍啓請中嚴，尙儀啓請中宮內嚴。 嬪既至寢門，近臣跪啓外辦，殿下服遠遊冠絳紗袍，以出陞座，侍衛如常儀。 尙儀又啓中宮外辦，中宮翟衣首飾，司言引尙宮，尙宮引中宮出陞座，侍從如常。 司賓引嬪入，立於阼</p>

衣)를 입고 수식(首飾)을 차린다. 사언(司言)이 상궁(尙宮)을 인도하고, 상궁이 중궁을 인도하여 나와서 좌석에 오르는데, 시종은 보통과 같다. 사빈(司賓)이 빈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동계[阼階] 아래에 북향하여 서게 하면, 사찬(司饌)이 한 사람은 조율(棗栗) 쟁반을 받들고, 한 사람은 단수(殿脩)1188) 쟁반을 받들고 따른다. 사칙(司則)이 사배하기를 찬하여 빈이 사배한다. 사찬이 조율 쟁반을 빈에게 드리면, 빈은 받는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서게 하고, 상식(尙食)이 탁자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놓는다. 빈이 꿇어앉아 쟁반을 탁자 위에 올려 놓아 드리면, 전하가 손으로 어루만져 보인다. 상식(尙食)이 나아가 거두어 가지고 동쪽으로 나가고, 사빈(司賓)이 빈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면, 사칙이 사배하기를 찬하여, 빈이 사배한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계 아래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사칙이 사배하기를 찬하여, 빈이 사배하고, 사찬이 단수(殿脩) 쟁반을 빈에게 주면, 빈은 받아 놓고,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올라와 중궁(中宮)의 자리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상식(尙食)이 탁자를 받들어 중궁의 자리 앞에 놓는다. 빈이 꿇어앉아 쟁반을 탁자 위에 올려놓아 드리면, 중궁이 손으로 어루만져 보인다. 상식(尙食)이 나아가 거두어 가지고 동쪽으로 나가고,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칙이 사배하기를 찬하여, 빈이 사배한다. 사설(司設)이 빈의 자리를 중궁 자리의 동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올라 자리의 서쪽에 남향하여 서면, 상식(尙食)이 잔에 감주[醴]를 부어 들고 빈의 서남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선다. 빈이 재배하고 자리에 올라 남향하여 꿇어앉아 잔을 받으며, 상식이 찬탁(饌卓)을 자리 앞에 놓아 드리면, 빈이 감주[醴]를 조금 따르고 일어나서 자리의 서쪽으로 내려가 남향하여 꿇어앉아서 감주를 조금 마시고 상식에게 빈 잔을 주고서, 빈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한다. 상식은 드렸던 것을 치우고, 사빈은 빈을 인도하여 서계로 내려와 함(閣)을 나와

階下北面，司饌一人，奉棗栗盤，一人，奉殿脩盤以從。司則贊四拜，嬪四拜。司饌以棗栗盤授嬪，嬪受，司賓引嬪升自西階，進殿下座前東面立，尙食奉卓置於殿下座前，嬪跪奠盤於桌上，殿下撫之，尙食進徹以東，司賓引嬪降復位。司則贊四拜，嬪四拜。司賓，引嬪詣西階下北面立，司則贊四拜，嬪四拜。司贊以殿脩盤授嬪，嬪受，司賓，引嬪升進中宮座前西面立，尙食奉卓，置於中宮座前，嬪跪奠盤於桌上，中宮撫之，尙食進徹以東，司賓引嬪降復位。司則贊四拜，嬪四拜。司設，設嬪席於中宮座之東西南向，司賓，引嬪詣西階，升就席西南面立，尙食以盞酌醴，進詣嬪西南東面立，嬪再拜升席，南面跪受盞，尙食薦饌卓於席前，嬪祭醴興降席，西南面跪啐醴，授尙食虛盞，嬪俯伏興再拜，尙食徹薦。司賓引嬪，降自西階出閣，升輦還宮，侍從如來儀。

	서 연에 올라 환궁하는데, 시종은 올 때의 의식과 같았다.	
世宗 36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5月 2日(己丑) 2 번째기사 세 사신에게 청귤을 대접하다	내관 이귀(李貴)를 보내어 세 사신에게 청귤(靑橘)을 대접하고, 창성(昌盛)에게는 쇠자철갑(鑣子鐵甲) 한 벌과 투구 하나를 주었다.	遣內官李貴，饋靑橘于三使。 贈昌盛鑣子鐵甲一領、頭口一。
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5월 25일(임자) 3번째기사 가뭄을 근심하여 오고와 인정과 파루의 북을 치지 말게 하다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끊고, 오고(五鼓)1192) 와 인정(人定)과 파루(罷漏)에 종을 치고 북은 치지 말라고 명하였다.	上憂旱輟酒， 命午鼓、人定、罷漏撞鍾，勿擊鼓。
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6월 10일(정묘) 3번째기사 제주도 찰방 김위민이 오랫동안 폐단된 일들을 계를 올려 아뢰다	(전략) 1. 민간에서 과일 나무를 가꾸는 것은 앞으로 그 이익을 얻어서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 하는 것이며, 또 민가에서 과일을 거두지 못하게 금하는 것은 이미 분명한 법령이 있는데, 지방관이 민가의 감귤(柑橘)로써 진상한다고 칭탁하고 나무를 세어 장부에 기록하고, 열매가 겨우 맺을 만하면 열매 수를 세어 감독해서 봉하여 두고, 혹시 그 집 주인이 따는 일이 있으면 절도죄로 몰아대고 전부 관에서 가져가므로, 백성은 이익을 보지 못하여 서로가 원망하고 한탄하오니, 청하건대 수령들로 하여금 해마다 심게 하고 동네마다 심은 것을 인계 서류에 등록하게 하면 십 년 뒤에는 장차 이루 다 쓸 수가 없을 만큼 될 것이오니, 관은 민가에서 거두는 폐단이 없게 되고, 백성들은 죄를 받는 원망이 없게 될 것이오며, 만일 부득이 민가의 감귤을 가지고 진상할 경우에는, 그 값을 넉넉하게 주어 사람들이 모두 심고 가꾸기를 권장하고 원망	(전략) 一。 民家栽培果木，所以將見其利，而爲子孫計也。 且禁取民戶菓實，已有著令。 州官以民戶柑橘，托稱進上，計株載籍，纔結其實，計箇監封，或其主摘取，論以竊用之罪，盡取於官，民不見利，相與怨咨。 請令守令，每年栽植等內所種，錄於解由十年之後，將不勝其用，而官無斂民之弊，民無受罪之怨。 若民戶柑橘，不得已摘取進上，優給其價，則人皆勸於栽植，而怨咨息矣。(후략)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후략)	
世宗 37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7月 6日(壬辰) 1 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해마다 소금을 지급할 것을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 양녕 대군의 처소에 해마다 소금 20석(石)을 지급하고 항상 이렇게 하라.” 하였다.	壬辰/傳旨: 讓寧大君處, 歲支鹽二十石, 以爲恒。
세종 37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7월 11일(정유) 7번째기사 윤봉의 청에 따라 소 주와 향을 각 30병을 주다	윤봉에게 소주와 향온(香醞) 각 30병을 주었으니 그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 장차 진헌하려고 한 것이었다.	贈尹鳳燒酒香醞各三十瓶, 因其請也, 將以進獻也。
世宗 37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7月 29日(乙卯) 10번째기사 양녕 대군이 병이 나 니 약과 술 등을 내리 다	양녕 대군이 병이 났으므로 약·술·고기를 내리고, 곧 이천현(利川縣)에 전지하 기를, “양녕이 만약 다른 병증(病症)이 있으면 그 가동(家僮)으로 하여금 역마로 달 려 와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讓寧大君有疾, 賜藥餌酒肉, 仍傳旨利 川縣曰: “讓寧若有他証, 令其家僮, 馳驛以聞。”
세종 37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8월 20일(을해) 7번째기사	물고기를 양녕 대군에게 내렸다.	賜魚于讓寧大君。

<p>물고기를 양녕 대군에게 내리다</p>		
<p>世宗 38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10月 19日(癸酉) 4번째기사 평상시뿐만 아니라 환영과 전별에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라고 명하다</p>	<p>사헌부에 전지하기를, “환영과 전별(餞別)에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은 굳게 금하고, 평상시에 술을 쓰는 것도 금하라.” 하였다.</p>	<p>傳旨司憲府： 堅禁迎餞會飲，勿禁常時用酒。</p>
<p>세종 38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1월 13일(정유) 3번째기사 사재감의 목은 어물을 화매하지 말고 성균관 등에 공급하게 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사재감(司宰監)의 목은 어물(魚物)을 성균관과 오부 학당(五部學堂)에 요량해 주고 그 나머지는 화매(和賣)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물을 판매하는 것은, 백성들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는 것 같으니 성균관·오부 학당 및 공처(公處)에 공급하여 주라.” 하였다.</p>	<p>戶曹啓：“司宰監陳魚物，量給城均館及五部學堂，其餘和賣何如？” 上曰：“販賣魚物，是與民爭利也。於成均五部學堂及公處，供給與之。”</p>
<p>世宗 39卷, 10年(1428 戊申 / 명 선덕(善德) 3年) 2月 11日(癸亥) 4번째기사 성달생이 사신 백언이 명나라의 어용감 소감에 제수되었음을 보고</p>	<p>공조 판서 성달생(成達生)이 명나라에 있으면서 보고하기를, “사신 백언(白彦)이 찬녀(饌女)를 시켜 술·과일·두부(豆腐)를 만들어 올리니, 황제가 매우 가상(嘉尙)히 여겨 곧 백언을 어용감 소감(御用監小監)으로 제수(除授)하고 관대(冠帶)를 내려 주었습니다.” 하였다.</p>	<p>工曹判書成達生，在中朝報：“使臣白彦，使執饌女，造酒果豆腐以進，帝甚嘉之，卽除彦御用監小監，賜冠帶。”</p>

하다	<p>예조에서 계하기를, “종정성(宗貞盛)이 사신으로 보낸 종대랑(宗大郎)이 아뢰기를 ‘본도(本島)는 땅이 모두 바위이어서 일찍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오직 칩뿌리와 도토리로 식물(食物)을 삼으니, 생계(生計)가 몹시 곤란하여 물고기와 소금으로 곡식을 사고자 해서 내이포(乃而浦)에 와서 정박(碇泊)했으나, 화매(和賣)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화매하게 하여 연명(連命)하게 하소서.’ 하며,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의 아들 육랑차랑(六郎次郎)이 아뢰기를, ‘우리들이 대마도와 일기주(一岐州)·상송(上松)·하송(下松) 등지의 적인(賊人)의 소식을 정탐해서 마음을 다하여 금지 방어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또 여러 곳에서 사신으로 보낸 무역선(貿易船)들이 바람을 만나 침몰되어 거의 굶주리게 되었으므로 불쌍히 여겨 살려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마땅히 종정성에게 쌀·콩 각 1백 석과 소주(燒酒) 30병을 내리고, 좌위문대랑에게 쌀·콩 합계 50석과 소주 20병을 내릴 것이며, 그 물고기와 소금의 무역은 의정부의 수판(受判)에 의거하여 행할 것이며, 만약 자원하여 화매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변(沿邊) 각 고을의 국고(國庫)에 있는 묵은 쌀과 콩으로써 무역하여, 물고기와 소금을 자원하는 인민(人民)들에게 화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宗貞盛使送宗大郎告云：‘本島地皆巖石，未嘗業農，惟以葛根橡實爲食，生理甚艱，欲以魚鹽買穀，來泊乃而浦，因無和賣者，至今未還。請令和賣，俾得連命。’左衛門大郎子六郎·次郎告云：‘我輩探候對馬島及一岐州上松·下松等處賊人聲息，盡心禁禦，衆所共知。且諸處使送與販船艘，遭風滄沒，殆將饑饉，請加憐活。’宜賜宗貞盛米豆各一百石、燒酒三十瓶，左衛門大郎米豆并五十石、燒酒二十瓶。其魚鹽與販，則依政府受判，若無自願和賣者，以沿邊各官國庫陳米豆貿易，其所易魚鹽，於自願人民和賣。” 從之。</p>
<p>世宗 39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善德) 3年) 3月 21日 (癸卯) 4번째기사 성균관과 사부학당의 생도에게 술을 내리다</p>	<p>성균관(成均館)과 사부학당(四部學堂)의 생도(生徒)에게 술을 내렸다.</p>	<p>賜酒于成均館四部學堂生徒。</p>

<p>세종 40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 (善德) 3년) 4월 16일 (무진) 2번째기사 지신사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 다</p>	<p>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問安)하게 하고, 각각 여름 옷 한 벌, 화투(靴套)·저포 각 10필, 마포 20필, 만화방석(滿花方席)·만화침석(滿 花寢席) 각 4장, 석등잔(石燈盞) 1벌, 인삼·잣 각 30근, 차[茶] 7근을 주었다.</p>	<p>命知申事鄭欽之，問安于兩使臣，各贈 夏衣一襲、靴套苧布十四、麻布二十 四、滿花方席滿花寢席各四張、石燈 盞一事、人蔘·松子各三十斤、茶七 斤。</p>
<p>世宗 40卷, 10年 (1428 戊申 / 선덕(善 德) 3年) 4月 23日(乙 亥) 4번째기사 날이 가물어 사헌부에서 금주를 청하다</p>	<p>사헌부에서 날이 가물어 금주(禁酒)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의 말 하기를, “봄에 가물면 심한 피해는 없는 것이지만, 대·소맥(大小麥)에 어떠할까.” 하니, 대언 김자가 대답하기를, “보리는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는 것이니, 이같은 작은 가뭄에는 반드시 손상 하거나 피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비가 오면 또한 넉넉히 풍년이 들 것입니다.” 하였다.</p>	<p>司憲府以旱，請禁酒，從之。 上曰： “春旱無甚害，然於兩麥何如？” 代言金 緒對曰：“麥則耐寒暑，如此小旱，必 不損害，若有小雨，亦足稔矣。”</p>
<p>세종 40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 (善德) 3년) 윤4월 11 일(임진) 7번째기사 가뭄 걱정으로 술을 들지 않자 신하들이 술 드시기를 청했으나 완곡히 거절하다</p>	<p>의정부와 육조가 계하기를, “옛날에 한재(旱災)를 만나면 감선(減膳)한다고 한 것은 천자(天子)의 칠성(七 腥)과 제후의 오성(五腥)을 말한 것이고, 술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또 감(減) 할 뿐이고 철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하께서 가뭄을 근심하시어 술을 드시지 않으시니, 원컨대 술을 드시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 중에는 본래부터 술을 먹지 않는 자도 있는데, 내가 비록 술을 먹지 않 아도 기운이 스스로 평안하다. 어찌 꼭 마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p>	<p>政府六曹啓：“古者遇旱減膳云者，天 子七腥，諸侯五腥之謂也，非謂酒也。 且減之耳，非徹之也。 今殿下憂旱不 進酒，願許之。” 上曰：“人有本不飲 酒者，予雖不飲，氣自平安，何必飲 乎？”</p>

<p>世宗 40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 (善德) 3年) 6月 21日 (壬寅) 6번째기사 평안도 영유현 사람이 한 번에 세 사내아이 를 낳으니 쌀을 하사 하다</p>	<p>평안도 영유현(永柔縣) 사람이 한 번에 세 사내아이를 낳으니, 전례에 따라 쌀을 하사하였다.</p>	<p>平安道永柔縣人，一產三男，命依例賜米。</p>
<p>세종 41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 (善德) 3년) 7월 21일 (신미) 3번째기사 이귀를 보내어 별선을 사신에게 내리다</p>	<p>이귀(李貴)를 보내어 별선(別膳)을 사신에게 내렸다.</p>	<p>遣李貴，贈別膳于使臣。</p>
<p>世宗 41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 (善德) 3年) 8月 30日 (己酉) 3번째기사 윤봉이 매사냥을 하니 내사 이귀를 보내어 위로하게 하다</p>	<p>윤봉(尹鳳)이 동교(東郊)에서 매[鷹]사냥을 하니, 내사(內史) 이귀(李貴)를 보내어 내온(內醢)과 어육(魚肉)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p>	<p>尹鳳放鷹于東郊，遣內史李貴，齎內醢魚肉，往慰之。</p>
<p>세종 41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 (善德) 3년) 9월 19일 (무진) 1번째기사 상림원에서 각 고을에</p>	<p>상림원(上林園)에서 계하기를, “본원(本園)에서 심은 배나무와 감나무의 열매가 매우 많이 열었사오니, 금년 각 고을에서 바치는 배와 감의 수량을 절반으로 감(減)하소서.” 하였다.</p>	<p>戊辰/上林園啓：“本院所植梨柿之實，甚多。” 命減今歲各官所貢梨柿之半。</p>

<p>서 바치는 배와 감의 수량을 감하기를 건의하다</p>		
<p>世宗 41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善德) 3年) 9月 20日 (己巳) 1번째기사 세 사신이 노량에 나가 노니 좌부대언 정연에게 명하여 위로하게 하다</p>	<p>세 사신이 노량(露梁)에 나가 노니, 좌부대언(左副代言) 정연(鄭淵)을 명하여 내온(內醢)과 어육(魚肉) 등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했다.</p>	<p>己巳/三使臣出遊露渡, 命左副代言鄭淵, 齎內醢魚肉等物, 往慰之。</p>
<p>세종 42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0월 7일 (을유) 4번째기사 강원도 감사가 방물과 주육을 올리다</p>	<p>강원도 감사가 방물(方物)과 주육(酒肉)을 올렸다.</p>	<p>江原道監司進方物及酒肉。</p>
<p>世宗 42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善德) 3年) 11月 8日 (丙辰) 3번째기사 절일사 한혜가 건년어·대구어·연어자·대문어를 받들고 출발하다</p>	<p>절일사(節日使) 한혜(韓惠)가 <황제에게> 바치는 건년어(乾年魚) 2천 미(尾)·대구어(大口魚) 1천 미·연어자(年魚子) 10병(瓶)·대문어(大文魚) 3백 수(首)를 아울러 받들고 출발하니, 한혜에게 모관(毛冠)과 옷·갓·목화 등을 하사하였다.</p>	<p>節日使韓惠并齎進獻乾年魚二千尾、大口魚一千尾、年魚子十瓶、大文魚三百首以行。賜惠毛冠及衣笠靴。</p>
<p>세종 42권, 10년</p>	<p>진응사(進鷹使) 상호군(上護軍) 이열(李烈)이 해청(海靑) 3연, 진응(陳鷹) 2연,</p>	<p>進鷹使上護軍李烈, 齎海靑三連、陳鷹</p>

<p>(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1월 12일(경신) 3번째기사 진응사 상호군 이열이 해청과 건연어 등을 가지고 떠나다</p>	<p>건년어(乾年魚)·관포(貫脯)·연어(年魚) 각 1천 미(尾), 연어자(年魚子) 10병을 싸받들고 떠나니, 이열에게 모관(毛冠)·옷·갓·목화를 하사하고, 응사(鷹師) 2인과 양응(養鷹) 3인에게는 옷·갓·목화를 내려 주었다.</p>	<p>二連、乾年魚貫脯年魚各一千尾、年魚子十瓶以行。 賜烈毛冠及衣笠靴，鷹師二人、養鷹三人衣笠靴。</p>
<p>世宗 43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宣德) 4年) 1月 24日 (辛未) 4번째기사 김만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p>	<p>김만(金滿)이 우산·황밀(黃蜜)·숨·수달피·인삼·작설차(雀舌茶)·수유(酥油)·소주·갓술[栢子酒]등을 요구하니, 이를 주라고 명하였다.</p>	<p>金滿求雨傘、黃蜜、繇子、水獺皮、人蔘、雀舌茶、酥油、燒酒、栢子酒，命與之。</p>
<p>세종 43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宣德) 4년) 2월 10일 (병술) 6번째기사 태종과 원경 왕태후의 상장 의례를, 고제를 상고 보충하여 기록해 두도록 하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지은 바 태종 공정 대왕(恭定大王)과 원경 왕태후(元敬王太后)의 상장 의례(喪葬儀軌)는 창졸간에 된 것으로 꽤 미진한 절목이 많사옵기로, 이제 고제를 상고하여 의례의 끝에 기록하여 후고(後考)에 빙거를 삼게 하고자 합니다. 1. 고제에, ‘천자는 3일 만에 소렴(小斂)하고 7일 만에 대렴(大斂)하여 빈(殯)하며, 제후는 3일 만에 소렴하고 5일 만에 대렴하여 빈하며, 대부(大夫)와 사(士)는 2일 만에 소렴하고 3일 만에 대렴하고 빈한다.’ 하였으니, 그 엄하고 빈하는 날짜 수는 그 지위에 따라 높은 자는 더디하고 낮은 자는 빨리하여 본래 정한 제도가 있으니, 이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례 안에는 소렴과 대렴이 모두 제 3일로 되어 있사온바, 이는 특히 더운 때이기 때문에, 권도에 따라 행하였을 뿐이요, 상례(喪禮)의 상도는 아닌 것입니다. 1.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주제(周制)에 의하면, ‘대상(大喪)에 봉인(封人)1320) 이 우생(牛牲)을 씻고, 조석전(朝夕奠)에는 포혜(脯醢)를 쓰며, 초하</p>	<p>禮曹啓: “所撰太宗恭定大王、元敬王太后喪葬儀軌，因倉卒，頗有未盡節目，今考古制，錄於儀軌之末，以憑後考。 一，古制，天子三日小斂，七日大斂而殯；諸侯三日小斂，五日大斂而殯；大夫士二日小斂，三日大斂而殯，則其斂殯日數，尊者緩而卑者速，自有定制，不可進退也。 今儀軌內小斂大斂，皆在第三日。 此特以熱時，故從權而已，非喪禮之常經也。 一，《文獻通考》：“周制，大喪封人，飾其牛牲，而朝夕奠用脯醢。 朔月月半祖奠，大遣等奠，皆用牲牢。” 《文公家禮》：“朝夕奠，設蔬果脯醢，朔望則</p>

	<p>루와 보름날, 그리고 조전(朝奠)·대건(大遣) 등 전에는 모두 생뢰(牲牢)를 쓴다.’ 하였고,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면, ‘조석전에는 채소·과일과 포해를 진설하고, 삭망에는 성찬(盛饌)을 갖춘다.’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그 조석전과 삭망전에 쓰는 찬품(饌品)을 본래 높이고 내리고 하는分別이 있는 것이온데, 우리 태조의 상사에는 조석전에 없었고, 다만 주전(晝奠)만을 배설하였사오며, 찬품은 유밀과(油蜜果)와 실과(實果)를 섞어 배설하여 구과의 상[九果床]과 삼미(三味)의 반물(飯物)로 하였삽고, 공정 대왕(恭靖大王) 상사에 비로소 조석전을 진설하였사오며, 찬품은 태조의 주전(晝奠)의 예와 같이 하였삽고, 원경 왕태후(元敬王太后)의 상사에는 조석전을 처음은 태조 때의 예에 의하여 행하옵다가 뒤에 유밀과 녀 줄의 상(床)을 더하였삽고, 태종의 상사에도 역시 녀 줄의 상을 썼으되 그 찬품의 융성함이 거의 삭망 때와 같았으며, 하룻 동안에 두 차례의 별전(別奠)을 진설하여 고제와 달리 하였사온즉, 조석전의 찬품도 마땅히 태조의 주전(晝奠)의 예에 의하여 유밀과와 실과를 섞어 배설하여 구과(九果)의 상과 삼미(三味)의 반물(飯物)을 써야 할 것입니다. (후략)</p>	<p>具盛饌。”其朝夕朔望奠饌之品，自有隆殺，我太祖之喪，無朝夕奠，只設晝奠，而饌品則油蜜果、實果、交排九果床、三味飯物，恭靖大王之喪，始設朝夕奠，而饌品依太祖晝奠例。元敬王太后之喪，朝夕奠，初依太祖時例，後加油蜜果四行床，太宗之喪，亦用四行床，饌品之盛，幾於朔望。一日之內，再設別奠，異於古制。朝夕奠饌品，當依太祖晝奠例，用油蜜果、實果、交排九果床、三味飯物。(후략)</p>
<p>世宗 44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4月 13日 (戊子) 1번째기사 사신이 구하는 어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다</p>	<p>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정흠지(鄭欽之)에게 이르기를, “듣건대 사신이 어물(魚物)을 구하기 위하여 온다고 하는데, 고도어(高道魚)와 대하(大蝦)도 또한 구한다고 하니, 대하는 중국에서 생산되지마는, 그러나 이미 청구하였으니 또한 마땅히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p>	<p>戊子/視事。上謂知申事鄭欽之曰：“聞使臣爲求魚物而來，高道魚大蝦，亦在所求。大蝦則產於中國，然既徵求，亦當預備。”</p>
<p>세종 44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 (宣德) 4년) 5월 14일</p>	<p>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지금 찬(饌)을 보살피는 비(婢)와, 노래를 부르는 여자와, 매·개·술·갓[松子]과 물고기젓·새우젓 등의 물건을 바치는데, 사신이 준비한 물고기젓은 주문</p>	<p>上謂左右曰：“今獻執饌婢、唱歌女、鷹、犬、酒、松子、魚·蝦醢物，使臣所備魚醢，不可并錄於奏本，若必并</p>

<p>(기미) 6번째기사 물고기젓을 주본에 기록하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다</p>	<p>(奏本)에 함께 기록할 수 없다. 만일 반드시 함께 기록하려면 그 색깔과 맛과 수량을 상세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신은 이미 자기가 준비하여 사사로이 간수할 것이니 어찌하겠는가.” 하니, 맹사성(孟思誠)이 대답하기를, “비록 자기가 준비하여 사사로이 간수하더라도 주본(奏本)에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p>	<p>錄，則不可不詳其色味與數。然則使臣既自備而私藏矣，如之何？”孟思誠對曰：“雖自備私藏，不可不錄於奏本。”</p>
<p>世宗 44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5月 24日 (己巳) 1번째기사 예조에서 문묘의 작헌의에 대해 아뢰다</p>	<p>예조에서 문묘(文廟)의 작헌의(酌獻儀)에 대해 계하기를, “하루 전에 유사(有司)가 묘정(廟庭)의 안팎을 깨끗이 소제하고, 충후위(忠扈衛)가 대차(大次)를 묘정(廟庭)의 동문 밖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왕세자의 악차(幄次)는 대차(大次)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그 날 통례문(通禮門)은 왕세자 및 문무 군신(文武群臣)의 자리를 묘정(廟庭)에 설치하되, 왕세자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문무 군신은 동서로 나누어 설치하되, 중심이 머리가 되고, 관위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고, 모두 북향하게 한다. 학생(學生)의 자리는 군신(群臣)의 뒤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전의(典儀)의 자리는 동계(東階)의 서쪽에 설치하고, 통찬(通贊) 두 사람의 자리는 남쪽에 설치하되, 조금 뒤로 물러 모두 서향하게 한다. 묘사(廟司)와 전사관(典祀官)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제기(祭器)를 대성 지성 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의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왼쪽에 변(籩) 하나, 【녹포(鹿脯)를 담는다.】 오른쪽에 두(豆) 하나를, 【녹해(鹿醢)를 담는다.】 작(爵) 하나는 변·두 앞에 놓고, 희준(犧尊) 하나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국자[勺]를 담아 놓고, 떡(饗)은 전상(殿上)의 동남쪽 모퉁이에 놓고, 향로(香爐)·향합(香合)·촉(燭)은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또 배향위(配享位)1363) 와 종향위(從享位)1364) 의 제기(祭器)를 설치하되, 각기 왼쪽에는</p>	<p>己巳/禮曹啓文廟酌獻儀： 前一日，有司灑掃廟庭之內外。忠扈衛，設大次於廟殿東門外，南向，設王世子次於大次東南，西向。其日，通禮門設王世子及文武群官位於廟庭，王世子在東階東南，北向，文武群官分東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設學生位於群官之後，北向西上，設典儀位於東階之西，通贊二人在南差退，俱西向。廟司及典祀官各帥其屬入，設祭器於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左一籩，【實以鹿脯。】右一豆，【實以鹿醢。】爵一在籩豆前，犧尊一【實以淸酒】加勺，在殿上東南隅。設香爐香合燭於神位前，又設配享及從享位祭器，各左一籩，【實脯】右一豆。【實醢】爵一在籩豆前。共設象尊四，【實</p>

변(邊) 하나, 【포(脯)를 담는다.】 오른쪽에는 두(豆) 하나를 【젓을 담는다.】 놓고, 작(爵) 하나는 변·두 앞에 놓고, 상준(象尊) 네 개를 함께 설치하되, 【술을 채운다.】 한 개는 전상(殿上)의 앞기둥 동쪽에 놓고, 한 개는 앞기둥 서쪽에 놓고, 두 개는 두 낭무(廊廡)에 나누어 놓되, 모두 국자[勺]와 먹(罍)을 올려놓는다. 거가(車駕)가 출궁(出宮)하기 전, 출궁하기 3일 전에 유사(攸司)가 내외(內外)를 도와서 각기 그 직책을 다하게 한다.

그 날이 되면, 어가(御駕)를 따라야 할 문무관(文武官)은 시각에 맞추어 조당(朝堂)으로 집합한다. 여러 위(衛)에서는 장위(仗衛)를 진설(陳設)하고, 판통례(判通禮)가 꿇어앉아서 외관(外辦)을 계(啓)하면, 전하는 연(輦)을 타고, 문무의 관원은 시종(侍從)하기를 모두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어가가 장차 이르면, 관관(館官)과 학관(學官)이 학생을 거느리고 길 왼편에서 영접한다. 어가가 대차(大次)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려 악차(幄次)로 들어가면, 통례문은 문무 군신과 관관(館官)·학관(學官)을 나누어 인도하는데, 모두 조복(朝服) 차림으로 하고, 학생은 청금복(靑衿服) 차림으로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가고, 첨지통례(僉知通禮)는 왕세자를 인도하는데, 조복 차림으로 들어서 자리로 나아간다. 판통례가 대차(大次)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것을 계청(啓請)하면, 전하는 면복(冕服)을 입고 대차에서 나온다. 판통례가 앞으로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 들어와서, 동계(東階)로 올라 문선왕(文宣王)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판통례가 ‘국궁, 사배, 흥, 평신’을 계청하면, 전하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통찬(通贊)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찬(贊)하면, 왕세자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근시(近侍) 한 사람은 향합(香盥)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면, 근시가 향로를 신위(神位) 앞에 올리고, 근시가 술을 따라 꿇어앉아 올

酒】一在殿上前楹東，一在前楹西，其二分兩廡，俱加勺罍。車駕出宮：前出宮三日，攸司宣攝內外，各供其職。其日，應從駕文武官，依時刻、集朝堂，諸衛陳設仗衛。判通禮跪啓外辦，殿下乘輦，文武侍從，竝如常儀。駕將至，館官、學官帥學生，奉迎於路左。駕至大次，降輦入幄。通禮門分引文武群官及館官學官俱朝服，學生靑衿服，入就位，僉知通禮引王世子，朝服入就位。判通禮進大次前，跪啓請行酌獻禮，殿下服冕服出次，判通禮前導，入自東門，陞自東階，詣文宣王神位前北向立。判通禮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通贊贊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及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近侍一人奉香合跪進，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跪三上香，近侍奠爐于神位前。近侍酌酒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神位前。判通禮啓請俛伏興四拜興平身，殿下俛伏興四拜興平身。通贊贊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及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判通禮前導，降自東階還大次。館官學官，分詣配

	<p>린다. 판통례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계청하면, 작(爵)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판통례가 ‘면, 복, 흥, 사배, 흥, 평신’을 계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찬(贊)하면, 왕세자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판통례가 앞에서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서 대차(大次)로 돌아가고, 관관(館官)·학관(學官)은 배향위(配享位)와 종향위(從享位)로 나누어 나아가서 작헌(酌獻)을 의식대로 한다. 이를 마치면, 판통례가 ‘예(禮)가 끝났다.’고 계하면,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가고, 통례문이 문무와 군관과 관관(館官)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판통례가 시각을 헤아려 꿇어앉아서 외관(外辦)을 계하면, 전하는 연(輦)을 타고 환궁(還宮)한다. 관관(館官)·학관(學官)이 길원편에서 하직하고, 왕세자와 문무 군관은 배종(陪從)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享及從享位，酌獻如儀訖，判通禮啓禮畢，僉知通禮引王世子出，通禮門，分引文武群官及館官以下，以次出。判通禮量時刻，跪啓外辦，殿下乘輦還宮，館官學官奉辭於路左，王世子及文武群官陪從，如來儀。從之。</p>
<p>世宗 44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宣德) 4年) 6月 28日 (癸卯) 1번째기사 부안현의 사비가 한꺼번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으니 쌀을 내리게 하다</p>	<p>부안현(扶安縣)에 거주하는 사비(私婢)가 한꺼번에 사내아이 둘과 계집아이 하나를 낳았으므로,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쌀을 내리게 하였다.</p>	<p>癸卯/扶安縣住私婢，一產二男一女，命依前例賜米。</p>
<p>세종 45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宣德) 4년) 7월 19일</p>	<p>(전략)전문에는 말하기를, “춘방(春坊)1393) 에서 덕을 길러 무성함이 번창한 시기를 만났고, 천도(天道)가 상서(祥瑞)를 낳으시어 신령한 복주심을 드러내셨으니, 보는 사람 듣는</p>	<p>(전략)箋曰: 春坊毓德，茂對昌期。天道產祥，克彰靈貺。見聞所及，歡忭惟均。恭惟</p>

<p>(계해) 2번째기사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서토를 축하하는 표·전문을 배송하다</p>	<p>사람이 다 기뻐하나이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태자께서는〉 천성(天性)이 영명(英明)하시고 자세(姿勢)가 높고 의젓하사 높이 태자궁(太子宮)에 계시니, 온 천하 백성들의 마음에 진실로 부합하며, 황제의 곁에 가까이 모시어 항상 〈황제와 황후〉 양궁(兩宮)의 권애(眷愛)하심을 입으셨나이다. 이에 바른 서응(瑞應)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실로 크게 형통(亨通)할 징조입니다. 앞드려 생각하건대, 신(臣)은 멀리 외방(外方)에 있어 마침 태평 성세를 만났습니다. 비록 물오리 떼처럼 달려가서 반열(班列)에는 참여할 길이 막혔으나, 〈큰 집이 이루어졌을 때에〉 제비가 즐겨하듯 배나 축하(祝賀)하는 정성을 다하나이다.”</p> <p>하고, 주본(奏本)에는 말하기를, “선덕(宣德) 4년 5월 초2일에 흠차 태감(欽差太監) 창성(昌盛)·윤봉(尹鳳) 등의 관원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손히 선유(宣諭)를 전하기를, ‘궁중에서 사용할 해물(海物) 등의 물건을 바치게 하여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을 공손히 받들어 해미(海味) 등의 물품을 갖추어 마련하고 배신(陪臣) 좌군 동지총제 권도(權蹈)를 보내어 싸가지고 북경에 가서 진헌하게 하나이다.</p> <p>1. 진어(眞魚) 1천 8백 30마리, 민어 5백 50마리, 상어[沙魚] 90마리, 망어(芒魚) 3백 80마리, 홍어 2백 마리, 농어[蘆魚] 1백 마리, 연어 5백 마리, 대구 1천 마리, 잉어 2백 마리, 송어[秀魚] 4백 40마리, 문어 2백 마리, 조기[石首魚] 1천 마리, 청어 5백 근, 송어[蘇魚] 5백 근, 도미 5백 근, 복어 7백 근, 고등어 2백 근, 오징어 2백 근, 대하 2백 근, 황어젓 6통(桶), 잉어젓 1통, 토화(土花)젓 9병[壘], 굴[石花]젓 3병, 생합(生蛤)젓 4병, 송어젓 3병, 백하(白蝦)젓 7병, 자하(紫蝦)젓 4병, 조기 새끼젓 4병, 홍합젓 2병, 조해채(早海菜) 5백 근, 해채(海菜) 1천 근, 사해채(絲海菜) 3백 근, 해채이(海菜耳) 3백 근, 곤포(昆布) 4백 근, 해의(海衣) 1백 근, 감태(甘苔) 2백 근, 해화(海花) 2백 근, 황각(黃角) 3백 근, 잣 1천 근, 황주(黃酒) 5병, 소주 5병입니다.”</p>	<p>性稟英明，姿凝岐嶷。 尊居鶴禁，允符四海之心； 昵侍龍樓，常荷兩宮之眷。 致茲貞符之見，實是泰亨之徵。 伏念臣邈處荒陬，端逢盛際。 雖阻臯趨之列，倍殫燕賀之誠。</p> <p>奏本曰： 宣德四年五月初二日，欽差太監昌盛、尹鳳等官到國，欽傳宣諭：“中用的海味等件，進將來。”欽此。 備辦到海味等物，差陪臣左軍同知摠制權蹈，齎領赴京進獻。 一。 眞魚一千八百三十尾，民魚五百五十尾，沙魚九十尾，芒魚三百八十尾，洪魚二百尾，蘆魚一百尾，年魚五百尾，大口魚一千尾，鯉魚二百尾，秀魚四百四十尾，文魚二百首，石首魚一千尾，青魚五百觔，蘇魚五百觔，鯽魚五百觔，鰻魚七百觔，古道魚二百觔，烏鰂魚二百觔，大蝦二百觔，黃魚鮓六桶，鯉魚鮓一桶，土花鮓九壘，石花(酢) [鮓] 三壘，生蛤鮓四壘，蘇魚鮓三壘，白蝦鮓七壘，紫蝦鮓四壘，石首魚子鮓四壘，紅蛤鮓二壘，早海菜五百觔，海菜一千觔，絲海菜三百觔，海菜耳三百觔，昆布四百觔，海衣一百觔，甘苔二百觔，海花二百觔，</p>
---	---	--

	<p>하고, 또 아뢰기를, “선덕(宣德) 4년 5월 초2일 흠차 태감(欽差太監) 창성(昌盛)·윤봉 등의 관원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손히 선유(宣諭)하여 전하기를, ‘화자(火者)와 다반(茶飯)을 지을 줄 아는 부녀자와, 음악을 배울 어린 하녀(下女)를 데리고 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을 공손히 받들어, 이제 선택해 뽑은 화자(火者)와 부녀자 등을 거느리고 배신(陪臣) 좌군 동지총제 권도를 차정(差定)하여 인솔하고 흠차관(欽差官) 등을 따라 북경에 가게 하였습니다. 화자(火者) 6명, 다반을 지을 줄 아는 부녀자 12명, 음악을 배울 어린 하녀 8명입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 “선덕 4년 5월 초2일 흠차 태감 창성(昌盛)·윤봉 등의 관원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손히 선유(宣諭)하여 전하기를, ‘안교자(鞍橋子)를 만드는 데에 쓸 화문목(花文木)과 석등잔(石燈盞)을 바치게 하여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이제 화문목과 석등잔을 준비하고 배신 좌군 동지총제 권도를 보내어 싸가지고 북경에 가서 진헌하게 하나이다. 화문목으로 안교자 제작용 6부(副), 석등잔 10벌입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 “선덕 4년 5월 초2일, 흠차 태감 창성(昌盛)·윤봉 등의 관원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손히 선유를 전하기를, ‘네가 조선국에 가서 국왕(國王)에게 알도록 설명하고 개[狗]와 매[鷹]를 구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공손히 이 뜻을 받들어 이제 여러가지 새매와 큰 개를 배신 좌군 동지총제 권도를 보내어 관리하여 북경에 가서 진헌하게 합니다. 아골(鴉鵲) 30연(連), 황웅(黃鷹) 10연, 조웅(皂鷹) 4연, 큰 개 40마리입니다.”</p> <p>하였다.</p>	<p>黃角三百觔， 松子一千觔， 黃酒五壘， 燒酒五壘。</p> <p>又奏曰： 宣德四年五月初二日， 欽差太監昌盛·尹鳳等官到國， 欽傳宣諭：“火者及會做茶飯的婦女、學樂的小妮子與將來。” 欽此。 今將選揀到火者婦女等， 差陪臣左軍同知總制權蹈， 管領根同欽差官等赴京。 火者六名， 會做茶飯的婦女一十二名， 學樂的小妮子八名。</p> <p>又奏曰： 宣德四年五月初二日， 欽差太監昌盛、尹鳳等官到國， 欽傳宣諭：“做鞍橋子的花文木并石燈盞進將來。” 欽此。 今備花文木并石燈盞， 差陪臣左軍同知總制權蹈， 齎領赴京進獻。 花文木鞍橋子六副， 石燈盞一十事。</p> <p>又奏曰： 宣德四年五月初二日， 欽差太監昌盛、尹鳳等官到國， 欽傳宣諭：“爾去朝鮮國， 對國王說知， 尋將狗鷹來。” 欽此。 今將雜鷹并大狗， 差陪臣左軍同知總制權蹈， 管送赴京進獻。 鴉鵲三十連， 黃鷹一十連， 皂鷹四連， 大狗四十隻。</p>
--	--	---

<p>世宗 45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9月 29日 (壬申) 3번째기사</p> <p>예조에서 대신이 사신으로 나갈 때에 내리는 전별연 의식에 대해 아뢰다</p>	<p>예조에서 대신(大臣)이 사신(使臣)으로 나갈 때에 전별연(餞別宴)을 내리는 예조에서의 의식(儀式)을 아뢰기를, “그날 <사연(賜宴)하라는> 왕명을 받은 자【예조 판서·참판과 대언(代言)·판서가 유고하면 타조(他曹)의 판서가 대신하게 한다.】와 사연(賜宴)을 받게 된 자가 대궐에 나아가 왕명을 받는다. 예조에 가서 좌석에 앉을 때에는 봉명(奉命)한 자는 동쪽에 앉고, 사연을 받는 자는 서쪽에 앉는다. 참판과 대언(代言)은 차례로 조금 뒤로 물러나 앉는다. 만약 사연을 받는 자가 판서보다 관등(官等)이 한 등(等) 낮거나 그 이하이면 판서는 북벽(北壁)에 앉고, 참판 대언은 동벽(東壁)에 앉는다. 집사자(執事者)가 찬탁(饌卓)과 잔을 준비하고 술을 잔에 따르면 사연을 받는 자는 각기 자리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꿇어앉아서 잔을 잡아 마신다.【봉명(奉命)한 사람도 또한 좌석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꿇어앉아서 먼저 잔을 든다.】다 마시고 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자리에 앉는다. 술안주를 들고 술을 마시기를 일곱 순배에 이르르고 나면 집사자(執事者)가 잔을 거두고 찬탁(饌卓)을 치운다. 이튿날 일찍이 봉명한 사람은 대궐에 나아가 복명(復命)하고, 사연을 받은 사람을 대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한다.”</p> <p>하고, 사신(使臣)을 각도(各道)에 보내어 선로(宣勞)하는 절차와 모임의 의식은, “사신(1418) 이 도착하는 날에 응당 수사(受賜)할 자가 그의 소속과 그 주관(州官)을 거느리고 시복(時服) 차림으로 교외(郊外)에서 영접한다. <사신의 행차에> 뒤따라와서 객관(客館)에 이르면 사신이 선운(宣醞)을 당상(堂上)의 탁자(卓子) 위에 놓고【물품을 하사하는 것이 있으면 하사품을 놓는 탁자는 동쪽에 두고 선운을 놓는 탁자는 서쪽에 둔다.】탁자의 동쪽에 서향하여 선다. 응당 수사(受賜)할 자가 서쪽 문으로부터 뜰에 들어와 북향하여 서면, 사</p>	<p>禮曹啓大臣出使時賜餞禮曹儀： 其日，奉命者【禮曹判書參判及代言。判書有故，則代以他曹。】及應受賜者詣闕受命，赴禮曹就座。奉命者在東，受賜者在西，參判代言以次差退。若受賜者與判書差等以下，則判書北壁，參判代言東壁。執事者，設饌卓及盞斟酒。受賜者各於座前俛伏跪，執盞飲【奉命者，亦於坐前俛伏跪先舉。】訖，俛伏興就座。進饌行酒至七周後，執事者收盞徹卓。翼日早，奉命者詣闕復命，受賜者詣闕謝恩。 遣使各道宣勞並會儀： 使臣【三品以下，六品以上朝官。】至日，應受賜者率其屬及州官，時服迎於郊外，隨至館。使臣以宣醞置堂上卓上，【有賜物，則賜物卓在東，宣醞卓在西。】立於卓東西向，應受賜者自西門入庭北向立。使臣小前南向立，稱有旨，退復位，應受賜者行稽首四拜，由西階升堂北向跪，使臣西向，宣旨云云，應受賜者俛伏興【有賜物，則使臣以授，受者小前跪，受以授從者，俛伏興。】就座。【使臣在東，受賜者</p>
---	--	--

	<p>신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 남향하여 서서 ‘왕지(王旨)가 있다.’고 일컫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응당 수사할 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네 번 절하고 나서 서계(西階)로 당상(堂上)에 올라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사신이 서향하여 왕지(王旨)를 선유(宣諭)한다. 응당 수사(受賜)할 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하사할 물품이 있으면 사신이 이를 주는데, 받는 자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받아 수종자(隨從者)에게 주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다.】 좌석에 가 앉으면, 【사신은 동쪽에 있고 수사자는 서쪽에 있다.】 집사자가 찬탁과 잔을 베풀어 놓는다. 잔에 술을 따르면 수사자가 각기 좌석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앉아 잔을 잡아 마신다. 【사신도 또한 좌석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앉아서 먼저 잔을 든다.】 다 마시고 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자리에 앉는다. 안주를 들고 술을 마시기를 일곱 순배에 이르면, 집사자가 잔을 걷고 찬탁을 치운다. 수사자가 뜰에 내려와 서면, 사신이 탁자의 동쪽에 도로 가서 선다. 수사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네 번 절하고 나서 문밖에 나가 섰다가, 사신이 나가면 몸을 굽혀 전송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在西。】執事者設饌卓及盞斟酒，受賜者各於座前，俛伏跪執盞飲，【使臣朴於前俛伏跪先舉。】訖，俛伏興就座。進饌行酒至七周後，執事者收盞徹卓，受賜者降立於庭，使臣復於卓東。受賜者行稽首四拜訖，就門外立，使臣出，躬身以送。從之。</p>
<p>世宗 46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10月 2日 (乙亥) 4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어육을 하사하다</p>	<p>양녕 대군 이제(李禕)에게 어육(魚肉)을 하사하였다.</p>	<p>賜魚肉于讓寧大君禕。</p>
<p>세종 46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 (宣德) 4년) 12월 3일 (을해) 5번째기사</p>	<p>(전략) 1.사역원(司譯院) 생도(生徒) 이생(李生)이 말하기를, ‘감자(甘蔗)1432)는 맛이 달고 좋아서 생으로 먹어도 사람의 기갈(飢渴)을 해소하게 되고, 또 삶으면 사탕(沙糖)이 되는데, 유구국(琉球國)에서는 강남(江南)에서 얻어다가 많이 이를 심고 있으며, 또 서여(薯蕷)1433) 라는 것이 있어, 큰 것은 기둥만</p>	<p>(전략) 一。司譯院生徒李生言：‘甘蔗味恬美，生食之，令人解飢渴，又煮爲沙糖，琉球國得于江南，多種之。又有薯蕷，大者如柱，小者如椽，亦得于</p>

박서생이 시행할 만할 일들을 갖추어 아뢰다	하고 작은 것은 서까래만 한데, 역시 남만(南蠻)에서 얻어다가 이를 재배한다.’ 하오니, 앞드려 바라옵건대, 모두 채취해 오게 하여 그 재배를 널리 보급하도록 하소서.(후략)	南蠻, 種之.’ 伏望竝令採來, 以廣其種。(후략)
世宗 46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12月 14日(丙戌) 4번째기사 한용봉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내관(內官) 한용봉(韓龍鳳)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別膳)을 주었다.	命內官韓龍鳳, 贈別膳于使臣。
세종 46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 (宣德) 4년) 12월 22일(갑오) 1번째기사 왕세자에게 명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사은하는 표 전문을 받들고 떠나게 하다	(진략) 예물은 백세저포(白細苧佈) 20필, 흑세마포 50필, 만화석·잡채 화석·만화 방석 각각 10장, 인삼 50근, 잣 1백 근, 잡색마 6필이다. 이친(李訥)이 진헌할 마른 연어 2천 마리, 대구어 1천 마리, 문어 5백 마리도 아울러 받들고 가니, 친에게 초구(貂裘)·모관(毛冠)·이엄(耳掩)·전(氈)·초립(草笠)·유의(襦衣) 1습과 호슬(護膝) 및 신을 하사하고, 맹균에게는 초구·모관과 유의 1벌·갓·신을 하사하였다.	(진략) 禮物: 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五十四、滿花席雜彩花席滿花方席各一十張、人蔘五十觔、松子一百觔、雜色馬六匹。 訥并齋進獻乾年魚二千尾、大口魚一千尾、文魚五百首以行。 賜鬻貂裘毛冠耳掩氈草笠襦衣一襲、護膝及靴, 孟昉貂裘·毛冠·襦衣一領、笠靴。
世宗 46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12月 27日(己亥) 5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다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였다.	賜酒肉于讓寧大君禔。
세종 47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예조에서 종친(宗親)들의 입학(入學)하는 의식을 아뢰기를, “종친은 학생복을 입고 종학(宗學) 문 밖에 이르고, 폐백으로 속백(束帛)을 한	禮曹啓: 宗親入學儀: 宗親服學生服, 至學門

(宣德) 5년) 1월 6일
(정미) 2번째기사
예조에서 종친들이 입학하는 의식에 대해 아뢰다

광주리에 한 필, 술은 한 병에 두 말, 육포(肉脯)는 한 상에 세 정(脛)을 차린다. 상자(相者)1443)가 종친을 인도하여 문 동쪽에 서향하여 서게 하고, 폐백 광주리와 술병, 육포 상을 종친의 서남쪽에 진설(陳設)하되, 바로 문 앞에 북향하여 겹줄로 놓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교관(敎官)이 공복(公服)을 갖추어 입고, 집사자(執事者)가 인도하여 학당(學堂)의 동쪽 섬돌 위에 서향하여 서게 하면, 전명(傳命)하는 사람이 문 서쪽에 동향하여 서서 말하기를, ‘행사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면, 종친이 조금 나아와서 말하기를, ‘아무가 지금 선생님께 수업(受業)하고자 하여 뵈옵기를 청하나이다.’ 한다. 전명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말을 고하면, 교관(敎官)이 말하기를, ‘아무는 덕이 없사오니 종친은 욱되게 하지 마시기를 청하나이다.’ 한다. 전명하는 사람이 나와서 종친에게 고하면, 종친은 굳이 청한다. 교관이 말하기를, ‘아무가 덕이 없으니, 종친께서 자리에 나아가려면 아무가 감히 뵈옵겠습니다.’ 하고, 전명하는 사람이 나와서 고한다. 그러면 종친이 말하기를, ‘아무는 감히 빈객(賓客)을 대할 수 없사오니 마침내 뵈옵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다. 전명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뜻을 고하면, 교관이 말하기를, ‘아무가 사양하여도 듣지 아니하시니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다. 전명하는 사람이 나가서 이 말을 고하면, 폐백 광주리를 잡은 사람이 광주리를 가지고 동향하여 종친에게 주고, 종친은 광주리를 받아 든다. 교관이 동쪽 섬돌 아래로 내려와서 서향하여 서면, 상자(相者)가 종친을 인도하고, 집사자(執事者)는 술병과 육포 상을 받들고 따른다. 종친이 문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서쪽 섬돌의 남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고, 술과 육포를 받든 사람은 종친의 서남쪽에 서되, 동향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종친이 꿇어앉아서 폐백 광주리를 드리고 재배하면 교관도 답하여 재배한다. 이때에 종친은 돌아서서 피하고 이내 나아가서 꿇어앉아 광주리를 든다. 상자가 종친을 인도하여 교관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폐백을 바치고, 술병과 육포 상을 받든 사람도 따라서 교관 앞에 드린다. 교관이 폐

外, 束帛一籠、一匹, 酒一壺二斗, 脩一案三脛。 相者引宗親, 立於門東西面, 陳帛籠、酒壺、脩案於宗親西南當門北向, 重行西上, 敎官具公服, 執事者引立於學堂東階上西面。 將命者立門西東面曰: “敢請事。” 宗親少進曰: “某方受業於先生, 敢請見。” 將命者入告, 敎官曰: “某也不德, 請宗親無辱。” 將命者出告, 宗親固請, 敎官曰: “某也不德, 請宗親就位, 某敢見。” 將命者出告, 宗親曰: “某不敢以視賓客, 請終賜見。” 將命者入告, 敎官曰: “某辭不得命, 敢不從?” 將命者出告, 執籠者以籠東向, 授宗親, 宗親執籠, 敎官降候于東階下西面, 相者引宗親, 執事者奉酒壺脩案以從, 宗親入門而左, 詣西階之南東面, 奉酒脩者, 立於宗親西南, 東面北上。 宗親跪奠籠再拜, 敎官答再拜, 宗親還避, 遂進跪取籠, 相者引宗親進敎官前, 東面受幣。 奉酒壺脩案者, 從奠於敎官前, 敎官受幣。 執事者取酒脩幣以東, 相者引宗親立於階間近南北面, 奉酒脩者出。 宗親再拜訖, 相者引宗親出。 宗親入宗學儀: 三四品敎官坐正廳北

	<p>백을 받으면 집사자가 술·육포·폐백을 받아 가지고 동쪽으로 선다. 상자가 종친을 인도하여 섬돌 중간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서게 한다. 술과 육포를 받은 사람이 나가고, 종친이 재배하고 나면 상자가 종친을 인도하여 나간다. 종친이 종학(宗學)에 들어가는 의식. 3, 4품의 교관은 정청(政廳)의 북쪽 벽에 앉고, 5, 6품의 교관은 동쪽 벽에 앉으며, 영접하고 전송하며, 절하고 읊(揖)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예식대로 한다. 교관이 자리에 앉고 나면, 종친은 교관 앞에 나아가서 【2품 이상이 한 줄, 3품 이하가 한 줄, 작(爵)이 없는 사람이 한 줄이 된다.】 돈수재배(頓首再拜)하면, 동시에 답배(答拜)한다. 예(禮)를 마치면 각각 재(齋)에 나아가서 차례대로 수업(受業)한다. 교관과 종친이 모두 평등히 차리되, 관복(冠服)은 작(爵)이 있는 사람은 품복(品服)을 입고, 작이 없는 사람은 학생복(學生服)을 입는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壁，五六品教官東壁，迎送拜揖，依已定禮。教官既坐，宗親就教官前 【二品以上爲一行，三品以下爲一行，無爵者爲一行。】 頓首再拜，教官一時答拜。禮畢，各就齋，以次受業。教官宗親竝平排，冠服則有爵者品服，無爵者學生服。</p> <p>從之。</p>
<p>世宗 47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3月 6日 (丙午) 3번째기사 예조에서 왕자 알성의에 대하여 아뢰다</p>	<p>예조에서 왕자(王子)의 알성의(謁聖儀)에 대하여 아뢰기를, “왕자는 학생복(學生服)을 입고, 상자(相者)가 인도하여 문묘의 뜰에 들어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사자(執事者)가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이라 찬(贊)하면, 왕자는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상자(相者)가 인도하여 나간다. 종친(宗親)도 왕자의 입학하는 의식과 같다. 왕자가 학생복을 입고 국학(國學)의 문 밖에 이르면, 속백(束帛) 한 광주리 【한필.】, 술 한 병 【두 말.】, 포육(脯肉) 한 상 【세 조각.】 을 준비한다. 상자(相者)가 왕자를 인도하여 문 동쪽에 서서 서향하게 하고, 폐백 광주리와 술병과 포육상을 왕자의 서남 쪽에 진설하되, 바로 문 앞에 북향하여 겹줄로 놓되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박사(博士)1488) 가 공복(公服)을 갖추고 있으면, 집사자가 인도하여 학당(學堂)의 동계(東階)에 서향하여 서게 한다. 장명자(將命者)1489) 가 나와서 문 동쪽에 서향하여 서서 말하기를, ‘행</p>	<p>禮曹啓： 王子謁聖儀：王子服學生服，相者引入廟庭西向立。執事者贊鞠躬四拜興平身，王子鞠躬四拜興平身，相者引出。宗親同。王子入學儀：王子服學生服，至國學門外，束帛一籠、【一匹】酒一壺、【二斗】脩一案，【三脰】相者引王子，立於門東西面，陳帛籠、酒壺、脩案於王子西南當門北向，重行西上。博士【宗學博士】具公服，執事者引立於學堂東階上西面。將命者出，立門東西面曰：“敢請事。”王子小進曰：</p>

사(行事)하소서.’ 하면, 왕자가 조금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바야흐로 선생에게 수업(受業)하려 하오니, 감히 뵈옵기를 청합니다.’ 한다. 장명자가 들어가서 고하면,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덕이 없으니 왕자는 옥되지 함이 없기를 청합니다.’ 한다. 【만약 종친(宗親)이면, ‘종친은 옥되지 함이 없게 하십시오.’ 한다.】 장명자가 나와서 고하면, 왕자는 굳이 청한다.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덕이 없사오나, 왕자께서 자리에 나오소서. 그러면 아무개는 감히 뵈오리다.’ 한다. 장명자가 나가서 고하면, 왕자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감히 빈객을 뵈올 수 없사오니 부디 뵈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한다. 장명자가 들어가서 고하면, 박사는 ‘아무개는 사양하여도 허락하지 않으시니 감히 좃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다. 장명자가 나와서 고하고, 폐백 광주리를 잡은 자가 광주리를 동향하여 왕자에게 주면, 왕자가 광주리를 받아 든다. 박사가 내려와서 동계 아래에 서향하여 서서 기다린다. 상자(相者)가 왕자를 인도하면 집사자(執事者)는 술병과 포육상을 받들고 따라간다. 왕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서계(西階)의 남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고, 술과 포육을 받든 자는 왕자의 서남쪽에 동향하여 서되, 북쪽을 위로하여 선다. 왕자가 꿇어앉아서 폐백 광주리를 드리고 두 번 절하면 박사가 답하여 두 번 절하는데, 왕자는 돌아서서 피하였다가, 나아가 꿇어앉아서 폐백 광주리를 취한다. 상자(相者)가 왕자를 인도하여 섬돌 사이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서게 하고, 술과 포육을 받든 자는 나간다. 왕자가 두 번 절하고 나면, 상자가 왕자를 인도하여 나간다. 종학(宗學)의 의식. 종학(宗學)의 정청(正廳)에 3품(品) 교관(敎官)은 북쪽 벽에, 4품 교관은 동쪽 벽에 5, 6품 교관은 서쪽 벽에 앉는다. 【만약 3품 교관이 없으면 4품 교관이 북쪽벽에, 5, 6품 교관은 동쪽 벽에 앉게 된다.】 교관을 맞이하고 보내며, 절하고 읍(揖)하는 절차는 이미 정해 있는 예에 의한다. 교관이 이미 앉았으면, 왕자 이하는 교관의 앞으로 나아가서 【대군(大君)이 한 줄이 되고, 2품 이상이 한 줄이 되고, 3품 이하가

“某方受業於先生，敢請見。”將命者入告，博士曰：“某也不德，請王子無辱。”【若宗親，則云宗親無辱】將命者出告，王子固請，博士曰：“某也不德，請王子就位，某敢見。”將命者出告，王子曰：“某不敢以視賓客，請終賜見。”將命者入告，博士曰：“某辭不得命，敢不從？”將命者出告，執籩者以籩東向授王子，王子執籩，博士降俟于東階下西面。相者引王子，執事者奉酒壺脩案以從。王子入門而左，詣西階之南東面，奉酒脩者立於王子西南，東面北上。王子跪奠籩再拜，博士答再拜，王子還避，遂進跪取籩，相者引王子，進博士前東面授幣。奉酒壺脩案者從，奠於博士前，博士受幣。執事者取酒脩幣以東，相者引王子，立於階間，近南北面，奉酒脩者出。王子再拜訖，相者引王子出。宗學儀：宗學正廳，三品敎官北壁，四品東壁，五六品西壁。【若無三品敎官，則四品敎官北壁，五六品敎官東壁。】敎官迎送拜揖，依已定禮。敎官既坐，王子以下就敎官前【大君爲一行，二品以上爲一行，三品以下爲一行，無爵者爲一

	<p>한 줄이 되고, 작(爵)이 없는 사람이 한줄이 된다.】 돈수 재배(頓首再拜)한다. 교관은 다 같이 한꺼번에 답하여 절한다. 예(禮)를 마치면, 각기 서재[齋]로 나아가서 차례대로 수업(受業)을 하는데, 교관과 왕자 이하가 모두 자리에 앉는다. 관복(冠服)은 관작이 있는 사람이면 품복(品服)을 입고, 관작이 없는 사람이면 학생복을 입는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行。】頓首再拜，教官一時答拜。禮畢，各就齋以次受業，教官王子以下竝坐席。冠服則有爵者品服，無爵者學生服。從之。</p>
<p>世宗 48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5月 4日 (癸卯) 1번째기사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사은 표전을 배송하다</p>	<p>(전략) 예물로는 백세저포·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잡채 화석 각 10장, 인삼 50근, 잣 1백 근, 잡색말 4필이었다. 문귀(文貴)가 문어 2백 40마리, 전복 2백 근, 붉은 새우젓[紫蝦鮓] 10항아리[壘], 곤포(昆布) 5백 근, 조해채(早海菜) 2백 근, 김[海衣] 1백 50근, 해채(海菜) 3백 근을 함께 가지고 갔다. 귀와 익정 등에게 옷·갓[笠]·신을 하사하였다.</p>	<p>(전략) 禮物：白細苧布・黑細麻布各二十匹，滿花席雜彩花席各一十張，人蔘五十觔，松子一百觔，雜色馬四匹。文貴并齋文魚二百四十首、鰻魚二百觔、紫蝦鮓一十壘、昆布五百觔、早海菜二百觔、海衣一百五十觔、海菜三百觔以行，賜貴、益精等衣笠靴。</p>
<p>世宗 48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5月 16日 (乙卯) 2번째기사 사헌부에 명하여 술을 금하게 하다</p>	<p>사헌부에 명하여 술을 금하게 하되, 그 먹은 것이 취하기에 이르지 아니한 자와 약으로 먹는 자라도 모두 태형(笞刑) 40대 이하로 하고, 그 경중(輕重)을 가려서 죄를 다스리되 아주 가벼운 자는 논하지 말게 하였다.</p>	<p>命司憲府禁酒，其飲不至醉者、服藥者，竝以笞四十以下，分其輕重治罪，最輕者，勿論。</p>
<p>세종 48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5월 18일 (정사) 2번째기사 고기와 미역을 허성의</p>	<p>고기[肉]와 미역[海菜]을 지신사 허성(許誠)의 어머니에게 하사하니, 병이 있기 때문이었다.</p>	<p>賜肉及海菜于知申事許誠母，以有疾也。</p>

<p>어머니에게 하사하다</p> <p>世宗 49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7月 30日 (戊辰) 1번째기사 종친들이 사신과 연회할 때 술을 따라 권하는 예절에 대해 의논하다</p>	<p>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에게 이르기를, “종친(宗親)들이 사신과 연회할 때, 서로 술을 따라 권하는 예절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니, 판서 권진(權軫)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모든 종친이 효령(孝寧)·진평(晉平)·안평(安平) 세 대군(大君)에게는 읍례(揖禮)를 행하고 무릎 꿇고 바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서로 읍하고 마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찬성(贊成) 허조(許稠)는 아뢰기를, “모두 무릎 꿇고 마시게 하되, 오직 효령만은 서서 받아 마시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좌의정 황희(黃喜)·우의정 맹사성(孟思誠)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진평 대군(晉平大君) 이유(李瑄) 이하의 모든 종친이 사신에게 술을 따라 올린 뒤에 효령 대군 이보(李補)에게도 읍례를 행하고 무릎 꿇고 바치고, 효령은 서서 이를 받아 마시고 나면, 또 읍례를 행하고, 나머지 종친들은 다만 서로 읍례만을 행하게 하며, 효령이 술을 따라 권할 때에 모든 종친들도 또한 이와 같이 하며, 관반(館伴)은 효령 대군 이하 모든 종친에게 읍례만을 행하고 무릎 꿇지 않게 하고, 모든 종친들이 술을 따라 권하는 예절도 또한 같게 하소서. 좌차(座次)에 있어서는 효령(孝寧)·진평(晉平) 및 안평 대군(安平大君)은 동벽(東壁)으로 하고, 경녕군(敬寧君)·공녕군(恭寧君) 이하 모든 종친은 서벽(西壁)으로 하되, 효령 대군의 자리에 대하여 약간 아래로 내려서 하고, 오직 신의군(愼宜君)·순성군(順城君)은 동벽의 대군들 아래에 자리하되, 약간 뒤로 정하게 하소서.”</p>	<p>戊辰/受常參， 視事。 上謂左右曰：“宗親宴使臣時， 自相行酒之禮何如？” 判書權軫對曰：“諸宗親於孝寧、晉平、安平三大君處， 則行揖跪進， 其餘相揖而飲可也。” 贊成許稠曰：“皆跪而飲， 唯孝寧， 立而受飲可也。” 上曰：“更與左議政黃喜、右議政孟思誠共議。” 僉曰：“晉平大君瑄以下諸宗親， 行酒使臣之後， 竝於孝寧大君補， 行揖跪進， 孝寧立而受之， 飲畢， 又行揖禮， 其餘宗親， 則只行相揖。 孝寧行酒時， 諸宗親亦同。 館伴則孝寧大君以下諸宗親處， 行揖不跪， 諸宗親行酒禮亦同。 座次則孝寧、晉平及安平大君東壁， 敬寧君、恭寧君以下諸宗親西壁， 對孝寧大君座差下。 唯愼宜君、順成君， 座東壁大君之下， 差後。”</p>
---	---	---

	하였다.	
<p>世宗 49卷, 12年 (1430 庚戌 / 明 선덕 (宣德) 5年) 8월 1일 (기사) 3번째기사 김순에게 명하여 사신 에게 별선을 주다</p>	<p>내관 김순(金淳)에게 명하여 별선을 가지고 가서 두 사신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p>	<p>命內官金淳，齎別膳分贈兩使臣。</p>
<p>世宗 49卷, 12年 (1430 庚戌 / 明 선덕 (宣德) 5年) 8月 3日 (辛未) 3번째기사 허성에게 명하여 두 사신을 문안케 하다</p>	<p>지신사 허성(許誠)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니, 창성(昌盛)이 진헌해야 할 물건의 숫자를 써서 보였는데, 해청(海靑) 등매[鷹] 50연, 표범[豹子] 30마리, 선구(驪狗)1590) 60마리, 어하(魚蝦) 등 해미(海味)·젓[鮓] 60항아리, 여석(礪石) 30덩이였다</p>	<p>命知申事許誠，問安于兩使臣，昌盛書示進獻物數，海靑等鷹五十連、豹子三十兒、驪狗六十隻、魚蝦海味鮓六十壘、礪石三十塊。</p>
<p>世宗 49卷, 12年 (1430 庚戌 / 明 선덕 (宣德) 5年) 8月 6日 (甲戌) 4번째기사 예조에서 각도 산천 단묘 순심 별감이 보 고한 조건에 의해서 마련하여 아뢰다</p>	<p>(전략) 1. 각 고을에서 변(籩)·두(豆)·보(篚)·궤(篚)·등(鐙)·형(銅)·준(尊)·뇌(罍)·조(俎)·점(坫)·작(爵)·비(篚) 등 제기(祭器)의 제도를 알지 못하여 제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봉상시(奉常寺)의 각색(各色) 제기를 각도로 나누어 보내어 이를 본떠 주조(鑄造)해 만들도록 하고, 또 제기를 간직해 두는 창고를 만들어 단지기[壇直]로 하여금 간수하게 하자는 윗조항은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되, 제기(祭器)의 주조(鑄造)는 우선 자기(磁器)로 구워서 만들도록 하소서.”(후략)</p>	<p>(전략) 一。各官壇壝之制，長廣高低不一，又無垣牆，故人畜踏毀污穢，宜考古制，令各道築壇壝，竝造瘞坎，而繚以周垣，南作一門，常加扃閉。一。神位版，或用松栗及雜木製造，長廣厚薄不同，或用紙榜，又以位版，藏之寺院，未便。宜於壇壝近北造一室，以藏位版，至祭時，安於壇上致祭。又年終內願狀，隨即沈水，宜懸於藏位版室，待翌年還願時沈之。已上二條，依所申施行。一。各官未知籩豆、篚篚、鐙銅尊罍俎坫爵篚等，祭</p>

		器之制，妄意造作，未得精潔，宜以奉常寺諸色祭器，分送各道，見樣鑄成。又造藏祭器庫，令壇直看守。右條，依所申施行，其鑄器，姑以(鎡) [磁] 器燔造。” (후략)
<p>世宗 49卷, 12년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8月 25日 (癸巳) 2번째기사</p> <p>석전에서 의 희생의 수효와 번육을 보내는 곳 등을 아뢰도록 명하다</p>	<p>임금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석전(釋奠)에 희생(犧牲)을 소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 반만 쓰기 때문에, 배위(配位)와 좌·우무(左右廡)에 조금씩 나누어서 쓰므로 풍결(豐潔)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번육(膳肉)을 삼전(三殿)에 바치고, 대언사·의정부·예조에도 보내므로, 나머지가 극히 적어서 문신과 생도들이 음복(飲福)할 때에 고루 얻어 먹지 못하니 역시 불가한 일이다. 석전이란 온 천하가 다 같이 지내는 제사이다. 그 희생의 수효와 번육을 보내는 곳 등을 옛 문헌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p>上謂代言等曰：“釋奠犧牲，只用牛一及豕一半，故於配位左右廡，小小分奠，似不豐潔。且其膳肉，進于三殿及代言、司議、政府、禮曹，所餘甚少，文臣生徒飲福之時，不得均食，亦不可也。釋奠，通天下之祭也，其犧牲之數、致膳之處，稽古文以啓。”</p>
<p>세종 49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9월 16일 (갑인) 5번째기사</p> <p>예조에서 문선왕 석전제에 쓰이는 희생의 수를 늘릴 것을 건의하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문선왕(文宣王) 석전제(釋奠祭)에 정배(正配) 5위(位)와 종향(從享) 10위, 동·서무(西廡)에 종사(宗祀)한 1백 8위에 희생(犧牲)을 소[牛] 한 마리와 돼지 [豕] 한 마리를 가지고 모두 같이 쓰기 때문에 나누어 드리기에 매우 넉넉지 못하옵니다. 비읍건대, 주문공(朱文公)의 석전제의(釋奠祭儀)에 양(羊)·돼지 각각 5마리를 쓴다는 예에 의하여, 소 한마리는 그대로 쓰되 양 5마리의 수효에 대신하게 하고, 돼지는 5마리를 쓰게 하옵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文宣王釋奠祭，正配五位，從享十位，東·西廡從祀一百八位，犧牲共用牛一豕一，分獻不周。乞依朱文公 釋奠祭儀，羊豕各五之例，牛一仍舊，以代羊五之數，豕用五。” 從之。</p>
<p>세종 50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p>	<p>총제(摠制) 정초(鄭招)가 상언(上言)하기를, “《주례(周禮)》 대사악(大師樂)에, ‘왕이 큰 식사[大食]를 할 때에 음식을 권</p>	<p>摠制鄭招上言： 《周禮》《大師樂》，王大食三侑，皆</p>

(宣德) 5년) 10월 4일
(신미) 4번째기사
정초가 식거의 음악과
출입악에 대해 아뢰다

하는 절차[侑食]가 세 번 있는데, 모두 종[鍾]과 북[鼓]을 연주하게 한다.’ 하였고, 주(註)에, ‘왕이 하루에 음식을 드는 큰 그릇[鼎]이 열두 가지인데, 음악으로 음식을 권[侑食]하며, 식사를 마치[卒食]면 음악으로 상을 물린[徹]다.’ 하였습니다. 한 무제(漢武帝) 때에 백관이 정월 하례를 올리는데, 이천석(二千石)1604 이상이 전(殿)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며 어전(御前)에서 술잔[觴]을 들고, 사공(司空)은 국그릇[羹]을 받들고, 대사농(大司農)은 수라를 받들고 식거지악(食舉之樂)을 연주하였으며, 후한 명제(後漢明帝) 때에 교묘(郊廟)와 상릉(上陵)의 모든 제사에 대여악(大予樂)을 연주하고 식거(食舉)를 실시하였으며, 그 뒤에 장제(章帝)는 직접 가시(歌詩) 네 장(章)을 지어서 식거(食舉)의 악장(樂章)으로 쓰게 하고, 또 운대십이문(雲臺十二門)의 시를 지어 각기 그 달에 지내는 제사에서 연주하게 하였으며, 장제(章帝) 건초(建初) 5년에 처음으로 십이월 앙기악(十二月仰氣樂)을 실시하였는데, 입춘(立春) 날에 동교(東郊)에서 봄의 신을 맞이하며 청양(靑陽)을 노래하고, 입하(立夏) 날에 남교(南郊)에서 여름의 신을 맞이하며 주명(朱明)을 노래하고, 입추(立秋)보다 18일 앞서서 황령(黃靈)을 중조(中兆)에서 맞이하며 주명(朱明)을 노래하고, 입추(立秋) 날에는 가을의 신을 서교(西郊)에서 맞이하여 서호(西皓)를 노래하고, 입동(立冬) 날에는 겨울의 신을 북교(北郊)에서 맞이하며 현명(玄冥)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때에 마방(馬防)이 상언하기를, ‘성인이 음악을 연주한 까닭은 기운이 퍼지고 화기가 돌며 음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것이오니, 신은 생각하건대, 연초(年初)에 태주(太簇)의 율(律)을 발표하며 아(雅)와 송(頌)의 음악을 연주하여 화기를 맞아들이게 하옵소서.’ 하였으며, 순제(順帝) 양가(陽嘉) 2년 10월 경오에 벽옹(辟雍)에서 예를 행하고 응중(應鍾)을 연주하여 비로소 황중(黃鍾)의 악기를 복구시켰고, 각각 해당하는 달의 음률[月律]에 따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진 무제(晉武帝)의 함녕원회의(咸寧元會儀)에, ‘대관령(大官令)이 국그릇을 들고, 사도(司徒)가 밥그릇을 들고, 상서(尙書)가 상

令奏鍾鼓。 註：“王日舉鼎十有二物，以樂侑食，卒食，以樂徹。” 漢武帝百官賀正月，二千石以上，上殿稱萬歲，舉[觴]御前。 司空奉羹，大司農奉飯，奏《食舉之樂》。 後漢明帝《大予樂》郊廟上陵，諸食舉之。 其後章帝親著歌詩四章，列在《食舉》，又制雲臺十二門詩，各以其月祀而奏之。 章帝建初五年，始行十二月仰氣樂。 立春之日，迎春于東郊，歌《春陽[靑陽]》； 立夏之日，迎夏于南郊，歌《朱明》； 先立秋十八日，迎黃靈于中兆，歌《朱明》； 立秋之日，迎秋于西郊，歌《西皓》； 立冬之日，迎冬于北郊，歌《玄冥》。 馬防上言：“聖人作樂，所以宣氣、致加，順陰陽也。” 臣愚以謂可因歲首，發大簇之律，奏雅頌之音，以迎和氣。 順帝陽嘉二年十月庚午，行禮辟雍，奏應鍾，始復黃鍾樂器，隨月[用]律。 晉武帝咸寧元會儀，大官令持羹，司徒持飯，尙書持案，竝授持節，持節跪進御座前，群臣就席，大樂令，跪奏《食舉》。 梁武帝時，上壽酒奏《介雅》，食舉奏《需雅》。 陳宣帝時，定三朝

[案]을 들어 모두 지절(持節)에게 주면, 지절은 꿏어앉아 임금의 자리 앞에 나아가 바치며, 여러 신하들이 좌석에 앉으면, 태악령(太樂令)이 꿏어앉아서 식거(食舉)의 음악을 연주한다.’ 하였습니다. 양 무제(梁武帝) 때에 수주(壽酒)를 올릴 때에는 개아(介雅)를 연주하며 식거(食舉)에는 수아(需雅)를 연주하였습니다. 진 선제(陳宣帝) 때에는 삼조(三朝)의 음악을 정하는데 모두 양(梁)의 고사(故事)를 채택하여 상화오인(相和五引)을 연주하고, 각각 달에 따라서 황제가 술을 들 때에는 유소(綏韶)를 연주하며, 찬을 들 때에는 유소(侑韶)를 연주하였습니다. 후주 무제(後周武帝) 때에는 큰 연회[大會]에서의 식거(食舉)는 심하(深夏)를 연주하였습니다. 수 문제(隋文帝) 때에 우홍(牛弘) 등이 건의하기를, ‘옛적에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오인(五引)이 있었는데, 양(梁)에서는 삼조(三朝)와 원회(元會)에서 이를 연주하다가, 지금은 오음(五音)으로 고쳤는데, 그 음성이 모두 궁(宮)과 상(商)에 의거하여 그다지 다르지 아니하며, 다만 오교(五郊)에서 새 기운을 맞아들이는 제사를 지낼 때에 강신(降神)하는 데만 이를 연주하고 있으니, 월령(月令)에 봄의 첫달에는 그 음악이 각(角)이라고 한 것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는 임금이 식사할 적에 모두 그 달의 음악을 연주하여, 시율(詩律)의 소리를 채택하여 오상(五常)의 본성(本性)을 잃지 아니하며, 몸[四體]을 조화 창달하여 시기(時氣)의 화함을 얻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한(東漢)의 태자승(太子丞) 포업(鮑業)은 건의하기를, ‘천자가 음식을 들 때에는 반드시 사시(四時)에 따라서 식거(食舉)의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 그 까닭은 천지의 이치를 따르고 신명(神明)을 기르며, 12달[月]의 음운(音韻)에 의하여 천지의 화기를 감동시키는 것이니, 이는 곧 전정월조(殿庭月調)의 뜻입니다. 제사에서 이미 음악을 구별하여 기운을 맞아들이고 있으니, 궁중에서 조회(朝會)를 행하는 데에도 아울러 그 달의 음악을 사용하여, 정월에는 태주(太簇)의 음운을 연주하며 12월에는 대려(大呂)의 음운을 사용할 것이니, 이것은 임금의 성정(性情)을 감화시켜

之樂，採梁故事，奏《相和五引》，各隨王月。帝舉酒奏《綏韶》，進膳奏《侑韶》。後周武帝時，大會食舉，奏《深夏》。隋文帝時，牛弘等議曰：“古者宮商角徵羽五引，梁以三朝元會奏之，今改爲五音，其聲悉依宮商，不使差越，惟迎氣於五郊，降神奏之。《月令》所謂孟春其音角是也。”又曰：“古者人君食，皆用當月之調，以取詩律之聲，使不失五常之性，調暢四體，令得時氣之和，故東漢太子丞鮑業上言：‘天子食飲，必順四時。爲《食舉樂》，所以順天地、養神明，可依十二月均感天地和氣。’此則殿庭月調之義也。祭祀既已分樂迎氣，臨軒朝會，並用當月之律。正月懸大蕤之均，及十二月，懸大呂之均，欲感人君性情，允協陰陽之序也。唐祖孝孫十二和，九曰《昭和》，皇帝、皇太子以舉酒。十曰《休和》，皇帝以飯，皇太子亦以飯，皆以其月之律均。《開元禮》會儀，皇帝舉酒及飯，《休和之樂》作。宋元豐會儀，皇帝舉第一爵，作《和安之樂》。臣招謹按《食舉之樂》，載於《周禮》，其來遠矣。以十二月之

음양의 차서와 들어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으며, 당(唐)의 조효손(祖孝孫)의 십이화(十二和)에, ‘아홉째는 소화(昭和)이니 황제와 황태자가 술을 드실 때에 사용하며, 열째는 휴화(休和)이니 황제가 수라를 들거나 황태자가 식사를 들 때에 사용하되, 모두 그 달의 운율(韻律)을 사용한다.’ 하였고, 개원례회의(開元禮會儀)에는 ‘황제가 술이나 수라를 들 때에 휴화지악(休和之樂)을 연주한다.’ 하였으며, 송(宋)의 원풍회의(元豐會儀)에, ‘황제가 첫번째로 술잔을 들면 화안지악(和安之樂)을 연주한다.’ 하였습니다. 신(臣) 정초(鄭招)가 조사하온즉, 식거(食舉)의 음악은 《주례(周禮)》에 벌써 기재되어 있사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12개월에 따르는 음률을 사용한다 함은 《한서(漢書)》에 처음으로 나타났고, 당대(唐代)의 제도에서 완전하게 정해졌으며, 역대 왕조에서 모두 이것에 의거하여 오교(五郊)에서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였사오니, 이것은 《예기(禮記)》의 월령(月令)에 의거한 것입니다. 후한(後漢)에서 대여악(大予樂)을 교묘(郊廟)와 여러 능(陵)에서 사용한 것은 음식을 올리는 것이요, 오교(五郊)에서 사용한 것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한 것이요, 벽옹(璧雍)에서 예를 거행하는 것은 노인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당(唐)의 개원례회의(開元禮會儀)에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술과 수라를 들 때에 사용하게 한 것은, 조효손(祖孝孫)이 제정한 것이며, 송(宋)의 원회의(元會儀)에, ‘황제가 술을 들 때에 화안(和安)을 연주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곧 당(唐)의 휴안(休安)의 명칭을 고친 것입니다. 송에서 음악의 명칭을 안(安)으로 하면서 당(唐)에서 쓰던 화(和)만을 고친 것은 구태여 그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뿐이요, 사실은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진(陳)에서는 양(梁)의 고사(故事)에 따라, 상화오인(相和五引)으로 삼조(三朝)의 음악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에 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홍(牛弘)이 말한, ‘오인(五引)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때에 쓰고 식거(食舉)에서 조화하여 사용한다.’ 함은 포업(鮑業)의 말과 같으며, 다만, ‘궁전에서 조회할 때에 아울러 그 달의 음률을 사용한다.’

律均, 則始見於《漢書》, 而定於唐制, 歷代又以此迎氣五郊, 蓋本於《禮記》《月令》焉。如後漢《大予樂》, 用於郊廟諸陵者, 薦食也; 用於五郊者, 迎氣也; 行禮(璧) [辟] 雍者, 養老也。唐《開元禮》會儀, 《休安之樂》, 用於舉酒及飯, 祖孝孫之所定也。宋元會儀, 皇帝舉酒, 其樂《和安》, 即唐《休安》之改名也。宋名樂以安, 改唐之和, 示不相襲, 其實一也。唯陳採梁故事, 以《相和五引》, 定爲三朝之樂, 然而後世無述焉。牛弘所論五引, 用於迎氣, 月調用於食舉者, 合於鮑業之論, 獨臨軒朝會, 竝用當月之律之云, 與上文所言不倫, 果何謂歟? 隋代唯用黃鍾一均, 十二律內五鍾, 謂之啞鍾, 隨月用律, 旋相爲宮, 豈牛弘等所及也! 臣愚考之未精, 伏望

睿裁。
命下詳定所。招又云:
出入樂, 《周禮》《樂師》: “教樂儀, 行以《肆夏》, 趨以《采薺》。” 註: “堂上謂之行, 門外謂之趨。” 禮曰: “升車有鸞和之聲, 行步有環佩之聲。天子左五鍾, 右五鍾。出撞黃鍾, 右

함이 위에서 든 글의 내용과 같지 아니한데, 이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수(隋)의 왕조에서는 다만 황종(黃鍾) 한 가지의 음률만을 사용하며, 12율 가운데서 오종(五鍾)은 아종(啞鍾)이라 하고, 각 달에 따라서 율을 사용하여, 돌아가며 서로 궁(宮)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우홍(牛弘)의 무리가 어찌 미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신은 연구가 아직 정밀하지 못하오니 성상께서 재량하시와 상정소(詳定所)에 명을 내리시옵소서.”

하였다. 정초는 또 아뢰기를,
“출입악(出入樂)에 있어 《주례(周禮)》의 악사교악의(樂師教樂儀)에, ‘거닐 [行] 때에는 사하(肆夏)를 연주하고 총총걸음[趨]일 때는 채제(采薺)를 연주한다.’ 하고, 주(註)에 당상(堂上)에서 걷는 것을 「거닌다」 하며, 문 밖에서 걷는 것을 「총총 걸음[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禮)에 이르기를, ‘수레에 오를 때에 난화(鑾和)의 소리가 있으며, 걸어 다닐 때에는 환패(環佩)의 소리가 있다. 천자(天子)는 왼쪽에 오종(五鍾)이 있으면 오른쪽에도 오종(五鍾)이 있다. 밖으로 나갈 때에 황종(黃鍾)을 치면 오른쪽의 오종(五鍾)이 모두 응하며, 들어올 때에 유빈(蕤賓)을 치면 왼쪽의 오종(五鍾)이 모두 응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황종(黃鍾)은 사하(肆夏)를 연주하는 것이며, 유빈(蕤賓)은 채제(采薺)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여숙옥(呂叔玉)은, ‘사하(肆夏)는 시대(時邁)다.’ 하였고, 대사악(大司樂)에, ‘왕이 출입할 때에는 왕하(王夏)를 연주하게 하며, 시(尸)가 출입할 때는 사하(肆夏)를 연주한다.’ 하였고, 진씨(陳氏)는, ‘왕이 대향례(大饗禮)와 대사례(大射禮)에서 출입할 때에는 왕하(王夏)를 연주하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출행할 때에 사하(肆夏)만을 연주할 뿐이다.’ 하였고, 종사(鍾師)에, ‘모든 음악의 행사는 종고(鍾鼓)로서, 구하(九夏)·왕하(王夏)·사하(肆夏)·소하(韶夏)·납하(納夏)·장하(章夏)·제하(齊夏)·족하(族夏)·계하(械夏)·오하(鵞夏)를 연주한다.’ 한 데에 대하여, 진씨(陳氏)는, ‘사하(肆夏)는 천자(天子)가 제사지내는 데에 사용할 때에는 시(尸)를 맞이하고 전

五鍾皆應；入撞蕤賓，左五鍾皆應。”
由是觀之，黃鍾，所以奏《肆夏》也；
蕤賓，所以奏《采薺》也。呂叔玉曰：
“《肆夏》，《時邁》也。”《大司
樂》：“王出入則令奏《王夏》，尸出
入則令奏《肆夏》。”陳氏曰：“王於
大饗大射出入奏《王夏》，非此則行以
《肆夏》而已。”鍾師：“凡樂事，以
鍾鼓奏九夏，《王夏》、《肆夏》、
《韶夏〔昭夏〕》、《納夏》、《章
夏》、《齊夏》、《族夏》、《械
夏》、《鵞夏》。”陳氏曰：“《肆
夏》，天子用之於祭，則送迎尸；施於
身，則行步；登車，佩玉而已。”漢高
帝時，叔孫通因奏樂人，制宗廟樂，皇
帝入廟門，奏《乾安》以爲行步之節，
猶古《采薺》、《肆夏》也。後漢班
固《東都賦》：“春王三朝，會同漢
京。是日也，萬樂備、百供暨，皇權
洽、群臣醉，降烟燼、調元氣，然後撞
鍾告罷，百僚遂退。”註：“天子將入，
撞蕤賓之鍾。”梁武帝十二雅，皇帝出
入奏《皇雅》，皇太子出入奏《胤
雅》，王公出入奏《寅雅》。陳宣帝
大建元年，定三朝之樂。帝出入奏

송하며, 자신에게 사용할 때에는 걸어다니거나 수레에 오를 때에 패옥(佩玉)을 사용할 뿐이다.’ 하였는데, 한 고제(漢高帝) 때에 숙손통(叔孫通)이 주악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종묘(宗廟)의 음악을 제정하여서, 황제가 종묘(宗廟)의 문을 들어갈 때에 건안지악(乾安之樂)을 연주하여 걸어가는 음절에 맞추었으니, 이것은 옛적의 채제(采薺)·사하(肆夏)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후한(後漢)의 반고(班固)의 동도부(東都賦)에, ‘정월 초하루에 서울에서 조회를 베푼다. 이날에는 모든 음악이 갖추어지고 모든 음식이 장만된다. 황제는 기뻐 흐뭇해하시고 여러 신하는 술에 취한다. 화한 기운[烟燼]이 내리고 원기(元氣)가 조화된다. 그리고 나면 종(鍾)을 두들기어 연회가 끝남을 알리고, 모든 관료들은 마침내 물러간다.’ 하였고, 그 주(註)에, ‘천자가 들어오려 할 때에는 유빈(蓼賓)의 종(鍾)을 두들긴다.’ 하였으며, 양 무제(梁武帝)의 십이아(十二雅)에, ‘황제가 출입할 때는 황아(皇雅)를 연주하며, 황태자(皇太子)가 출입할 때에는 운아(胤雅)를 연주하며, 왕공(王公)이 출입할 때에는 인아(寅雅)를 연주한다.’ 하였고, 진선제(陳宣帝) 대건(大建) 원년(元年)에 삼조(三朝)의 음악을 제정했는데, ‘황제가 출입할 때에는 목소(穆昭)를 연주하고, 빈객(賓客)이 들어올 때에는 상화오인(相和五引)을 연주한다.’ 하였고, 후주(後周)의 무제(武帝) 때에, ‘조회에서 황제가 출입할 때에는 황하(皇夏)를 연주하며, 황태자(皇太子)가 출입할 때에는 사하(肆夏)를 연주하며, 왕공(王公)이 출입할 때에는 오하(鶯夏)를 연주한다.’ 하였고, 당 태종(唐太宗) 때에 조효손(祖孝孫)이 처음으로 사궁법(徙宮法)을 만들고 십이화(十二和)를 제작하여, 천도(天道)의 성수(成數)를 법으로 삼고 명칭을 대당아악(大唐雅樂)이라 하였는데, 그 중에 일곱째가 대화(太和)인데, 이것은 거닐 때의 음절을 맞추는 것으로 황중(黃鍾)을 가지고 궁(宮)을 삼은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지낼 때라든가, 천자가 문에 들어와서 임금의 자리에 나앉는다든가, 또는 오르고 내리며,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이르기까지 거닐 때에 연주하고 머물 때에는 중지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천자

《穆昭》，賓客入奏《相和五引》。後周武帝時朝會，皇帝出入奏《皇夏》，皇太子出入奏《肆夏》，王公出入奏《鶯夏》。唐太宗時，祖孝孫始爲徙宮之法，造十二和，以法天之成數，號大唐雅樂。七曰《太和》，以爲行節，以黃鍾爲宮。凡祭祀，天子入門而卽位，與其升降至于還次，行則作，止則止。其在朝廷，天子將自內出，撞黃鍾之鍾，右五鍾應乃奏之；禮畢興而入，撞蓼賓之鍾，左五鍾應乃奏。八曰《館和》，以出入二舞及皇太子、群公、國老、若皇后之妾御、皇太子宮臣出入門則奏之，皆以大蕪之商。若駕出則撞黃鍾奏《太和》，出太極門而奏《采薺》，至于嘉德門而止，其還也亦然。《開元禮》正至朝賀儀，皇帝將出，大樂令，令撞黃鍾之鍾，右五鍾皆應，協律郎舉麾，奏《太和之樂》。王公出入奏《館和》。及禮畢，皇帝與大樂令，撞蓼賓之鍾，左五鍾皆應，奏《太和之樂》。宋元豐元正、冬至大朝會儀，侍中奏外辦，殿上鳴蹕，大樂令，令撞黃鍾之鍾，右五鍾皆應。皇帝出西閣，協律郎舉麾，

가 안에서 나오려 할 때에 황중(黃鍾)의 종(鍾)을 두들기면 오른쪽에 있는 오중(五鍾)이 이에 응하여 연주하고, 예를 마치고 일어나서 들어갈 때에는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들기면 왼쪽에 있는 오중(五鍾)이 이에 응하여 연주하였습니다. 여덟째가 관화(館和)로서 출입(出入)할 때 추는 이무(二舞)인데, 황태자와 여러 공(公), 국가의 원로(元老) 또는 황후의 시녀[妾御], 황태자 궁의 신하가 출입할 때에 이것을 연주하니, 모두 태주(太簇)의 상(商)을 사용하며, 만일 어가(御駕)가 외출할 때라면 황중(黃鍾)을 두드리고 태화(太和)를 연주하며, 태극문(太極門)을 나서면 채제(采薺)를 연주하여 가덕문(嘉德門)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중지하였고, 돌아 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였습니다. 개원례(開元禮)의 정지조하의(正至朝賀儀)에, ‘황제가 나가려 할 때에는, 태악령(太樂令)이 황중(黃鍾)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오중(五鍾)이 모두 이에 호응하며, 협률랑(協律郎)이 휘(麾)를 들어 태화(太和)의 음악을 연주하며, 왕공(王公)이 출입할 때에는 관화(館和)를 연주하고, 예(禮)가 끝날 때에는, 황제가 태악령(太樂令)에게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왼쪽의 오중(五鍾)이 모두 이에 호응하며 태화(太和)의 음악을 연주한다.’ 하였으며, 송(宋)의 원풍(元豐) 연간의 원정 동지 대조회의(元正冬至大朝會儀)에는, ‘시중(侍中)이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상(殿上)에서는 필(蹕)을 울리고, 태악령(太樂令)이 황중(黃鍾)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오중(五鍾)이 모두 이에 응한다. 황제가 서각(西閣)에 나갈 때에는, 협률랑(協律郎)이 휘(麾)를 들어 건안지악(乾安之樂)을 연주하며, 백관(百官)이 출입할 때에는 정안지악(正安之樂)을 연주하고, 예가 끝날 때에는 전(殿) 아래에서 필(蹕)을 울리고, 태악령(太樂令)이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왼쪽에 있는 오중(五鍾)이 모두 이에 응한다. 협률랑(協律郎)이 휘(麾)를 들면 건안지악(乾安之樂)을 연주한다.’ 하였으며, 황명초백(皇明抄白)에는, ‘성절(聖節)·동지(冬至)·정조(正祖)의 예(禮)에, 임금이 자리에 오르면 음악을 중지하며, 그 밖에는 음

奏《乾安之樂》，百官出入，奏《正安》。禮畢，殿下鳴蹕，大樂令，令撞蕤賓之鍾，左五鍾皆應。協律郎舉麾，奏《乾安之樂》，《皇明抄白》，聖節、冬至、正朝禮，上陞座樂止，自餘無用樂節次。前朝《詳定古今禮》，聖上出入有樂，自餘無用樂。臣招謹按，朝賀之樂，唯奏出入行步之節，歷代用律，未聞當月之調。然而禮樂制度，廣大精微，臣愚不會樂音，區區微見，豈能萬一？伏惟睿裁。命下詳定所。

	<p>악을 사용하는 절차가 없다.’ 하였고, 전조(前朝)1605)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는, ‘임금이 출입할 때에만 음악이 있고, 그 밖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예가 없다.’ 하였습니다. 신(臣) 정초(鄭招)가 삼가 조사한 바로는, 조하지악(朝賀之樂)은 다만 출입하며 걸어다니는 음절에 맞추어 연주할 뿐이며, 역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 그 달에 맞추어 연주하는[當月之調]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악(禮樂)의 제도는 광대 정미(廣大精微)한 것이운데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서 어찌 그 만분의 일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결재를 내리시와 상정소(詳定所)에 회부하시옵소서.”</p> <p>하였다.</p>	
<p>世宗 50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11月 12日(己酉) 3번째기사 법주에 노루 뼈를 넣지 말 것을 명하다</p>	<p>궁중에서 사용하는 법주(法酒)에 노루 뼈를 넣는데, 상호군 김척(金陟)과 대호군 마변자(馬邊者)가 그 때문에 풍양(豐壤)에서 사냥을 하는데 사복시의 제원(諸員)인 엄용(嚴龍)이 멧돼지에게 살해되었다. 명령을 내리어 의금부에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고, “지금부터는 노루 뼈를 넣어서 담은 술은 만들지 말라.” 하고, 엄용에게는 쌀과 콩 아울러 5석, 종이 50권을 내렸다.</p>	<p>內法酒用獐骨。 上護軍金陟、大護軍馬邊者，以獵于豐壤，司僕諸員嚴龍爲豬所害死，命囚義禁府，尋釋之。 仍命自今勿釀獐骨酒， 賜嚴龍米豆并五石、紙五十卷。</p>
<p>세종 50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11월 12일(기유) 6번째기사 예조에서 무반의 배제를 허락치 말 것을 건의하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교지(教旨)를 받자온즉, ‘서반(西班)에서 호군(護軍) 이상은 독제(蠶祭)를 지낼 때에 재계(齋戒)를 드리지도 않고 배제(陪祭)도 드리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하니, 옛 제도를 조사하여 들이라.’ 하셨사온데,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자세히 보면, ‘모든 지방의 수어관(守禦官)은 모두 관청 청사 뒤에 대를 쌓고 기독묘(旗蠶廟)를 세우고 군아(軍牙)와 여섯 독신(蠶神)의 신위(神位)를 설치하여 놓고 봄철의 제사는 경칩(驚蟄)날에 지내고, 가을철의 제사는 상강(霜降)날에 지내며, 제물은 양 1마리, 돼지 1마리, 백(帛) 1필인데 흰 빛을</p>	<p>禮曹啓: “今承教旨: 西班護軍以上於蠶祭，無齋戒陪祭，未便。 其齋戒及陪祭有無， 考古制以聞。 謹按《洪武禮制》，凡各處守禦官，俱於公廡後築臺，立旗蠶廟，設軍牙六蠶神位，春祭用驚蟄日，秋祭用霜降日，祭物用羊、一豕、一帛一白色、祝</p>

	<p>사용하며, 축문 1장, 향·촛불·술·과일이다. 제사가 있기에 앞서 모든 관리는 하루 동안 재계를 드리고, 제사지내는 날이 되면 수어 장관(守禦長官)은 무관복(武官服) 차림으로 삼헌(三獻)의 예를 집행한다. 만일 군대를 출동할 때에는 기독(旗纛)을 내어 놓고 제사를 지내며, 군대가 돌아왔을 때에는 그대로 묘(廟) 안에 들여 둔다. 의주(儀注)는 사직(社稷)에서와 같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제사지내는 의식에는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이외에 배제관(陪祭官)이란 것이 따로 없사오니, 《홍무예제》에 의하여 헌관과 여러 집사자 이외에 다른 무반(武班)은 배제(陪祭)를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一、香燭酒果。先期，各官齋戒一日，至日，守禦長官，武服行三獻禮。若出師，則取旗纛以祭，班師則仍置于廟。儀注與社稷同。本朝諸祀儀式內，獻官諸執事外，無陪祭官，請依《洪武禮制》，獻官諸執事外，武班不許陪祭。”從之。</p>
<p>世宗 50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12月 22日(戊子)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윤회의 치죄를 아뢰었으나 허락치 않다</p>	<p>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빈객(賓客) 윤회(尹淮)가 서연(書筵)에 나아가서 강의를 맡아야 되는데 술에 취하여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도무지 공경하며 삼가하는 뜻이 없습니다. 청하건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인하여 회에게 이르기를, “경이 술을 마시어 도를 지나치는 일이 한 차례가 아니었고, 내가 경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신이 임금의 명령에 대하여는 물이나 불 속을 들어가라 하여도 오히려 피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그 밖의 일이겠는가. 자기의 주량(酒量)을 생각하여 한두 잔쯤 마시든지, 반잔쯤만 마신다면 그렇게 정신이 없고 체면을 잃게까지야 되겠는가. 이제부터는 부디 지나치게 마시지 말라. 따르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다.” 하고, 들어와서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윤회가 술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의 재주를 아껴서 과음하지 말라고 경계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과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술을 조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조금도 고치는 빛이 없었고, 지금 또 취해 가지고</p>	<p>司憲府啓：“賓客尹淮當進講書筵，縱酒未參，殊無敬謹之意，請治其罪。”不允，仍謂淮曰：“卿之飲酒失度者非一次，予之禁卿崇飲，亦非一再矣。臣之於君，雖命入水火中，尚且不避，況其他乎？量己之量，或飲一二盃，或飲半盃，則何至於迷亂失性，以喪威儀乎？自今慎勿過飲，不從則當罪之。”入謂金宗瑞曰：“尹淮好飲，予愛其才，嘗禁其過飲，未幾如前，更命謹酒，略無悛心，今又因醉不進書筵，其於輔養儲副之義何如？君父之命，雖險艱，亦當曲從，況謹酒之命，從之何難？識理儒者尚然，無知儉少之輩，不足言也。”</p>

	<p>서연(書筵)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세자(世子)를 보도(輔導)하는 도리에 있어 어떨것인가. 임금의 명령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노력하여 따라야 될 터인데, 더구나, 술을 삼가라는 명령을 따르기가 무엇이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도리를 알 만한 선비도 이러하니 무식한 소인의 무리야 말할 것도 없다.” 하였다.</p>	
<p>세종 50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윤12월 16일(임자) 3번째기사 이조에서 동궁 내관의 관제 칭호 품질에 대하여 옛 제도를 참고하여 아뢰다</p>	<p>이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동궁(東宮) 내관(內官)의 관제(官制)·칭호·품질(品秩)에 대하여 옛 제도를 참고하여, 내관(內官)은 양제(良娣) 정2품, 양원(良媛) 정3품, 승휘(承徽) 정4품, 소훈(昭訓) 정5품이요, 궁관(宮官)은 사규(司閨) 한 사람, 빈(嬪)을 인도하는 일을 맡고, 장정(掌正)과 장서(掌書)를 총괄한다. 사칙(司則)한 사람, 예의(禮義)와 참견(參見)하는 사무를 맡고, 장봉(掌縫)·장장(掌藏)을 총괄한다. 사찬(司饌)한 사람, 식사를 올리며 먼저 맛 보는 것을 맡으며, 장식(掌食)·장 의(掌醫)를 총괄한다. 모두 중6품이다. 장정(掌正)한 사람, 문서의 출납과 자물쇠와 규찰(糾察)과 벌을 주는 일을 맡는다. 장서(掌書)한 사람, 경적(經籍)과 교학(敎學)을 전하는 일을 맡는다. 장봉(掌縫)한 사람, 재봉과 길쌈을 맡는다. 장장(掌藏)한 사람, 재산과 피륙을 맡는다. 장식(掌食)한 사람, 음식·술·단술·등불·촛불·땀나무·숯·그릇을 맡는다. 장의(掌醫)한 사람, 처방한 약을 맡는다. 이상은 모두 중8품으로 정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吏曹啓: “今以東宮內官制稱號品秩, 參考古制, 內官, 良娣正二品、良媛正三品、承徽正四品、昭訓正五品。 宮官, 司閨一人, 掌導引嬪, 總掌正、掌書; 司則一人, 掌禮儀參見, 總掌縫, 掌藏; 司饌一人, 掌進食先嘗, 總掌食、掌醫, 並從六品。 掌正一人, 掌文書出入、管籥、糾察、推罰。 掌書一人, 掌經籍、宣傳、敎學。 掌縫一人, 掌(裁) [裁] 紉、織績。 掌藏一人, 掌財貨、縑綵。 掌食一人, 掌膳羞、酒醴、燈燭、薪炭、器皿。 掌醫一人, 掌方藥, 並從八品。” 從之。</p>
<p>世宗 50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閏12月 23日(己未) 6번째기사 승정원에 전지하여 형</p>	<p>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세자와 세 대군(大君)이 이제 헌수(獻壽)하려 하는데, 옛적 예법에 형제의 아내는 서로 대면하지 않는 법이다. 지금 세자와 대군과 죽성군(竹城君) 안맹담(安孟聃)과 순빈(純嬪)과 옹주(翁主) 세 사람이 동서에 마주 앉으면 곧 서로 보게 될 것이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가. 내가 태종(太宗) 때에는 서</p>	<p>傳旨承政院: 世子及三大君, 今欲獻壽。 古禮, 兄弟之妻, 不得相見, 今世子、大君、竹城君安孟聃及純嬪、三翁主東西對座, 則必與之相見, 處之如何? 予在太宗時</p>

<p>제의 아내와 서로 대면하는 예에 대해 묻다</p>	<p>로 보았지만, 이것은 부모의 앞에서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나라의 일반 풍속이 어떠한가.” 하니, 대언(代言)들이 아뢰기를, “일반 풍속으로는 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서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맹담(安孟聃)은 연회에서 모실 수 없으며, 만일 술잔을 올리려 하면, 곧 차례대로 들어가서 술잔을 드리고, 곧 되돌아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아침 조계(朝啓) 때에 정승과 함께 직접 의논하겠다.”</p>	<p>相見，以在父母之前也。 我朝世俗如何？ 代言等曰：“世俗有相見者， 有不相見者， 安孟聃則不宜侍宴。 如欲進酒， 則隨次入獻， 還出可也。” 上曰：“明日朝啓， 當與政丞親議之。”</p>
<p>세종 51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월 19일 (갑신) 4번째기사 강무시 강원도에서 어육, 해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라 명하다</p>	<p>임금이 대언(代言)들에게 이르기를, “나도 강원도의 금년 실농(失農)은 알고 있다. 그러나 강무(講武)를 하지 않으면 군졸들의 기운을 기르고 향오(行伍)를 연습할 기회가 없다. 근래 사신이 오고 흉년이 들고 해서, 매양 춘추 양등의 강무를 폐해 왔으나 이번만은 폐할 수 없다. 내 그 실농을 우려하여 일수(日數)를 줄이게 하였으니 응당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어육(魚肉)과 해물(海物)을 바치지 말도록 할 것이다.” 하니, 대언들이 대답하기를, “대가(大駕)가 경내에 임하옵는데 감사가 어찌 〈안연하게〉 물러 있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께서도 감사가 와서 알현하는 것을 금하신 바 있다. 그러나 항상 가까운 지경에 와서 문안하곤 하여, 폐단을 없애려는 본의에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금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엔 비록 와서 보더라도 신선한 해산물 등의 식물은 바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上謂代言等曰：“予知江原道今歲失農， 然不講武， 則士卒無以養氣力、習行伍。 近因使臣及年歉， 每廢兩等講武， 今則不可廢也。 予恐失農， 使約日數， 宜令其道監司， 不得來進魚肉海錯。” 代言等對曰：“大駕臨境， 監司豈得退處？” 上曰：“太宗禁監司來見， 然常在近地問安， 無益於除弊， 故不禁。 今雖來見， 勿進新鮮之味。”</p>
<p>世宗 51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p>	<p>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禕)에게 고기를 내려 주었다.</p>	<p>賜肉于讓寧大君禕。</p>

<p>(宣德) 6年) 2月 12日 (丁未) 3번째기사 양녕 대군 제에게 고 기를 내려주다</p>		
<p>세종 51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2월 25일 (경신) 1번째기사 영전의 어염을 선군에 게 주는 것에 관한 논 의</p>	<p>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각도 영전(營田)에서 나는 어염(魚鹽)을 다 선군(船軍)들에게 주어 부방(赴防)하는 데 식량을 돕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호조 판서 안순(安純)·우의정 맹사성(孟思誠) 등이 대답하기를, “영전(營田)의 어염이란 한갓 선군을 괴롭힐 뿐이요, 그 혜택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군들은 말하기를, ‘차라리 식량을 가지고 부방할 망정 영전의 일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군들이 처음 부방할 때 각자 식량을 넉넉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관에서 지급하는 요식(料食)을 혹은 병영(兵營)·진무(鎭撫)에 유치하거나, 혹은 술을 빚는 등 실상 선군에게겐 전혀 무익한 일이오니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군의 노고란 막심한 것으로서 마땅히 애호와 보호를 가해야 할 것이니, 국고의 미곡으로 부족한 양을 보급해야 옳을 것이요, 그러나 부방하여 일이 없으면 모두 일 없이 노는 사람이 될 것이니, 이 일 없이 노는 사람들로 하여금 황폐한 전지를 경작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니, 맹사성이 아뢰기를, “선군이 꼭 받을 경작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황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이유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근처에 사는 백성들만으로도 모두 개간 경작할 수 있습니다.”</p>	<p>庚申/受常參, 視事。 上謂左右曰: “各道營田魚鹽所出, 盡給船軍, 以助赴防之糧若何?” 戶曹判書安純、右議政孟思誠等對曰: “營田魚鹽, 徒困船軍, 利不及焉, 故船軍等言: ‘寧齎糧赴防, 不願爲營田等事。’ 船軍等赴防之初, 各自(贏) [贏] 糧而至, 故官給之料, 或遺留營鎭撫, 或以釀酒, 誠無益於船軍, 不如不爲之爲愈也。” 上曰: “船軍勞苦莫甚, 宜加憐恤, 以國庫之米, 補給不足可矣。 然赴防無事, 則皆遊手, 以遊手而耕荒田, 無乃可乎?” 思誠曰: “船軍雖不耕田, 必不荒矣。” 上曰: “何也?” 對曰: “近處之民, 皆得耕墾矣。” 上曰: “予更思之。”</p>

	<p>하매, 임금의 말하기를, “내 다시 이를 생각해 보겠노라.” 하였다.</p>	
<p>世宗 51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3月 10日 (甲戌) 3번째기사 의원 김자견이 상기생 50근을 바치다</p>	<p>의원(醫員) 김자견(金自堅)이 황해도 백령(白翎)·대청(大靑) 두 섬에서 나는 상기생(桑寄生) 50근을 채취하여 바쳤다. 본국에 예전에는 상기생이 없던 것을 순심 별감(巡審別監) 고전성(高全性)이 순찰 발견하여 비로소 이를 얻게 된 것이다.</p>	<p>醫員金自堅採黃海道白翎·大靑兩島所產桑寄生五十斤以進。本國舊無桑寄生，自巡審別監高全性始得之。</p>
<p>세종 51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3월 26일 (경인) 2번째기사 지갈시킬 약으로 닭· 꿩·앵을 강권하다</p>	<p>대언들이 아뢰기를, “일찍이 신들에게 지갈(止渴)시킬 약을 문의하라 명하셨사온데, 의원(醫員)은 말하기를, ‘마땅히 먼저 식물(食物)로 다스려야 할 것인데 흰 장닭[白雄雞]·누른 암꿩[黃雌雉]·양고기[羊肉] 등은 모두 능히 갈증(渴症)을 지식시킨다.’ 하오며, 뒤를 잇기가 어려운 물건도 아닙니다. 닭은 인순부(仁順府)·인수부(仁壽府)와 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에서 날마다 돌려가며 바치게 하고, 꿩은 응패(鷹牌)로 하여금 날마다 사냥해 바치게 하고, 양은 5, 6일마다 한 마리를 바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어찌 자봉(自奉)을 이같이 후히 하겠는가. 닭은 이어댈 수 없고, 꿩은 바치는 자가 있지만, 양은 본국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니 더욱 먹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대언들이 또 아뢰기를, “양이 많이 번식하고 있사오며, 또 약용이오니 우선 한 마리씩 바치게 하여 치료에 시험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해도, 오히려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강권하니, 드디어 말하기를, “내 이를 시험하겠다. 그러나 다시 내 명령을 기다리라.”</p>	<p>代言等啓：“曾命臣等，議問止渴之藥，醫曰：‘宜先食治。’白雄雞、黃雌雉、羊肉，皆能止渴，而非難繼之物也。雞兒則仁順、仁壽府、內贍、禮賓寺輪日進之，雉則令鷹牌逐日獲進，羊則五六日進一口。”上曰：“何爲自奉如此？鷄兒不可繼也。雉則有進之者，羊則本國不產之物，尤不可食也。”代言等又啓：“羊多孳息，且是藥用也。請姑進一口，試其療治。”上猶不許，強之乃曰：“吾當試之，然更待予命。”</p>

	하였다.	
<p>世宗 52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5月 17日 (庚辰) 2번째기사 임금이 한재를 근심하 여 대궐 안에서 술의 사용을 금하다</p>	<p>임금이 한재를 근심하여 대궐 안에서 술의 사용을 금하였다.</p>	<p>上憂旱，禁闕內用酒。</p>
<p>세종 52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5월 22일 (을유) 5번째기사 안승선이 술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다</p>	<p>지신사 안승선(安崇善)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임금이 한재를 만나면 반드시 반찬을 감하나, 반찬을 다 없애는 것 이 아니라 가짓수만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조금 내렸으니 술을 드시기 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은 비가 내렸지만, 내일 만약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올리지 말라.” 하였다. 승선이 또 아뢰기를, “오늘 비는 벌써 흡족하게 왔고, 또 계속 비 올 징조가 보입니다. 더욱 기후 가 고르지 못하와 술을 잡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반찬을 전의 수(數)보다 줄여서 나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p>	<p>知申事安崇善啓：“自古人君遇旱必減膳，然非盡除膳羞，只減其數而已。今雨澤稍足，請進酒。”上曰：“今日雖雨，明日不雨，則得無愧乎？其勿進。”崇善又啓曰：“今日之雨既洽，且雨微不絕，況氣候不調，酒不可不進！請減前數以進。”不允。</p>
<p>세종 52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6월 8일 (경자) 3번째기사 종묘와 양전에 천신할</p>	<p>승정원에 진지하기를, “종묘와 양전에 천신(薦新)할 배·밤·대추·은행·능금[林檎]과 같은 종류는, 벌 레가 먹었을까 염려되므로 쪼개고 깎아서 올리고자 하니, 그것을 상정소(詳定 所)로 하여금 옛 제도를 널리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우의정 맹사성과 찬성 허조 등은,</p>	<p>傳旨承政院： 宗廟及兩殿薦新，如梨、栗、棗、杏、林檎之類，恐有螻蟲，欲割剝以薦，其令詳定所博考古制以聞。 右議政孟思誠、贊成許稠等以爲：“有</p>

<p>배·밤·대추·은행·능금류의 예법에 관해 논의하다</p>	<p>“벌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우나, 쪼개고 꺾아서 온전치 못한 과실을 올리는 것은 옛글에 없는 바이오며, 또 설만(褻慢)에 가까우니 다시 정하게 고르는 것이 마땅하옵니다.”</p> <p>하였고, 판서 정초(鄭招)는, “《제사예과(祭祀禮科)》에, ‘변(籩)을 채웠으되 율황(栗黃)이 있다.’ 하였은즉, 밤은 그 속만 취하는 것은 법에 있는 듯하오나, 배·대추·능금과 같은 것은 예전에 쪼개고 꺾아서 쓰는 글이 없으니, 온전한 실과로 올리는 것이 마땅하옵니다.”</p> <p>하므로, 예조와 문소전과 광효전의 전지기[殿直] 등에게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은행·배·대추·밤·녹리(綠李)·능금 등의 물건은, 친진(薦進)할 때에 쪼개어 살펴보고, 10분의 8, 9분의 벌레가 먹지 않은 것이면 정하게 골라서 올리고, 만약 3, 4분의 벌레가 먹은 것은 다시 고르지 말라.”</p> <p>하였다.</p>	<p>蟲者可疑，然薦割剝不全之果，古文所無，且近褻慢，宜更精擇。” 判書鄭招以爲：“祭祀禮科，籩實有栗黃，則栗取其實，似亦有制，至如梨、棗、林檎之類，古無割剝之文，宜以全果薦獻。” 傳旨禮曹及文昭、廣孝殿直等曰： 自今如杏、梨、棗、栗、綠、李、林檎等物薦進時，開剝看審，十分內八九分不蟲損，則精究揀擇以薦，若至三四分蟲損，則勿復揀擇。</p>
<p>세종 52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6월 23일 (을묘) 3번째기사 맹사성·허조·정초 등이 원윤 이하에게 치부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여 아뢰다</p>	<p>상정소 제조 우의정 맹사성·찬성 허조·판서 정초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원윤(元尹) 이하에게 치부(致賻)할 때에는, 기친(碁親)1683)에는 미·두(米豆) 아울러 30석, 대공친(大功親)에는 미·두 아울러 25석, 소공친(小功親)에는 미·두 아울러 20석, 시마친(總麻親)에는 미·두 아울러 15석, 단문친(袒免親)에는 미·두 아울러 15석으로 하였습니다.”</p> <p>하였다.</p>	<p>詳定所提調右議政孟思誠、贊成許稠、判書鄭招等議啓元尹以下致賻：“期親米豆并三十石，大功親米豆并二十五石，小功親米豆并二十石，總麻親米豆并十五石，袒免親米豆并十石。”</p>
<p>世宗 53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宣德) 6年) 7月 20日 (壬午) 4번째기사 사신을 공궤키 위해</p>	<p>호조에서 아뢰기를, “사신을 접대[支供]하는 육물(肉物)을 이미 각도에 상납(上納)하게 하였사오나, 그 수가 심히 많아서 즐지에 변통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서울 안 각부(各部)에 환과 고독(鰥寡孤獨) 등 살아가기 어려운 집을 빼놓고, 각집에서 닭이나 오리를 가릴 것 없이 대호(大戶)에는 다섯 마리, 중호(中戶)에는 세 마</p>	<p>戶曹啓：“使臣支持肉物，已令各道上納，然其數甚多，未易猝辦。請令京中各部除鰥寡孤獨外，勿論雞鴨，大戶納五首，中戶三首，小戶一首。又令禮賓寺、仁壽、仁順府於諸處供饋，毋</p>

부족한 닭 등을 서울 안 각부에서 거두게 하다	리, 소호(小戶)에는 한 마리씩을 바치게 하며, 예빈시(禮賓寺)·인수부(仁壽府)·인순부(仁順府)에 명령하여 여러 곳에 공궤(供饋)하는 데는 닭을 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用鷄兒。”從之。
세종 53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7월 23일 (을유) 2번째기사 예조에서 군 이상의 예장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군(君) 이상에게 예장(禮葬)이 있사온즉, 원윤(元尹) 이하부터 기친(基親)에 이르기까지는 쌀과 콩 30석을 부의로 주고, 대공친(大功親)에게는 25석, 소공친에게는 20석, 시마친에게는 15석, 단문친에게는 10석으로 부의하며, 아울러 전을 드리고 조문(弔問)을 행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諸君以上則有禮葬, 自元尹以下至期親, 則致賻米豆并三十石, 大功親二十五石, 小功親二十石, 總麻十五石, 袒免親十石, 并行致奠致弔。” 從之。
世宗 53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宣德) 6年) 8月 23日 (乙卯) 3번째기사 창성·윤봉 등이 요구하는 불공·북두칠성제에 사용되는 물품을 주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창성(昌盛)·윤봉은 불공(佛供)에 쓸 유밀과(油蜜果)와 과실·떡·밥 등과, 북두칠성제(北斗七星祭)에 사용되는 유밀과·식과·떡쌀 등을 청하며, 장정안 및 두목 유복(劉福) 등 열 사람만은 칠성제에 사용되는 실과·밥·향유(香油) 등을 청하오니, 아울러 날마다 마련하여 바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昌盛、尹鳳, 請供佛油蜜果實菓餅飯及(此斗七星) [北斗七星] 祭所用油蜜果實菓餅米; 張定安及頭目劉福等十人, 請七星祭所用實菓飯香油, 請竝逐日備進。” 從之。
世宗 53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宣德) 6年) 9月 8日 (己巳) 3번째기사 윤봉이 귤·모과 등을 요구하므로 주다	윤봉이 귤·모과 각 1백 개와, 꽃감 30접, 올벼[早稻] 종자 30말을 요구하므로, 모두 주도록 허락하였다.	尹鳳求柑橘·木瓜各一百箇、乾柿子三十貼、早稻種三十斗, 皆許之。
세종 53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상정소에 명하여 세자가 회례연(會禮宴)에 참여하는 의식을 의논하게 하니, 황희·맹사성·허조·신상 등이 아뢰기를,	乙酉/命詳定所, 議王世子參會禮宴儀。 黃喜、孟思誠、許稠、申商等以

(宣德) 6년 9월 24일
(을유) 1번째기사
상정소에 세자가 회례
연에 참여하는 의식을
논하게 하다

“삼가 당나라의 의식을 상고하온즉, 황태자가 먼저 예를 행하면 상공이 여러 관원들을 거느리고 예를 행하며 예물을 드린다고 하였삽고, 《당송회의(唐宋會儀)》에는 상공이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헌수한다고 하고, 황태자가 헌수하는 절차는 없사오며, 또 당나라 옛 제도에는 황태자가 헌수하고 다음에 공이 헌수한다 하였고, 송나라 진종(眞宗)의 제도에는 황태자가 문무 백관의 반열을 거느리고 술잔을 받들어 헌수한다고 하였으며, 전조의 예는 상공은 주전자를 받들고 태자는 술잔을 받들어 헌수하였습니다. 이제 회례에는 조례에 의하여 왕세자가 먼저 들어가서 헌수를 마치고 앉은 뒤에, 의정 이하 전상에 오를 만한 여러 신하들이 근정문으로 들어가서 예를 행하고 헌수하게 하려면, 그 첫째 잔을 둘째 잔을 올리는 사이의 동안이 떠서, 예를 행하는 절차가 매우 더디고 늦으며, 또한 회례하는 뜻에 맞지 아니합니다. 만약 세자가 여러 관원의 반열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홀로 헌수하고서, 의정이 헌수하라는 예가 없으면 당·송 회례 의식에 상공이 헌수한다는 예식과는 합하지 않으며, 더욱 조례의 예물을 바치는 뜻과 서로 반대가 되웁니다. 원컨대, 당의 옛 제도와 송 진종(眞宗)의 제도에 의하여, 왕세자가 자리에 들어가면, 의정 이하가 따라 들어가서 왕세자가 헌수하고, 다음에 의정이 헌수하게 함이 어떠하옵니까. 또 전조 예에 의하여, 의정이 술을 따르고 왕세자가 술잔을 받들어 헌수하며 축하하기를, ‘신 아무 등이 운운(云云)’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정초는, 아뢰기를,
“당·송 제도의 회례는 조례와 그 체재와 양식이 동일하온데, 조례에는 왕세자는 이미 달리 따로 모이게 되었사온데, 회례에는 어찌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혼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왕세자가 홀로 첫째 잔을 드리면 답(答)1751이 없는데, 의정이 군신들을 거느리고 둘째 잔을 드리면 특히 답은 해야 할 것이니, 이러면 어찌 왕세자가 군신들을 거느리고 예를 행한다고 이르오리까. 마땅히 조례에 의하여 왕세자는 달리 따로 회를 하면 시종(始終)이 한결같으며,

爲: “謹按唐朝儀, 皇太子先行禮, 上公率群官行禮, 奏禮物。 唐、宋會儀, 上公率群官上壽, 而無皇太子上壽之節。 又唐舊制, 皇太子獻壽, 次公獻壽。 宋〈眞〉宗制, 皇太子押文武百官班, 奉觴上壽。 前朝禮, 上公奉注子, 太子奉盞上壽。 今會禮, 欲依朝禮, 王世子先入上壽畢坐後, 議政以下應升殿群臣入勤政門行禮上壽, 則其第一爵第二爵之間, 隔絕行禮, 節次甚遲緩, 亦非會禮之義也。 若世子押班獨上壽, 而無議政上壽之禮, 則不合於唐、宋會儀上公獻壽之禮, 抑與朝禮獻禮物之意相反矣。 乞參酌唐舊制及宋眞宗制, 王世子入位, 議政以下隨入, 王世子上壽, 次議政上壽何如? 又依前朝禮, 議政酌酒, 王世子奉爵上壽賀稱曰: ‘臣某等云云。’ 何如?” 鄭招以爲: “唐、宋制會禮, 與朝禮同一體樣。 朝禮, 王世子既已殊會, 會禮豈可與群臣混同? 且王世子獨獻第一爵, 無宣答, 議政押群臣, 獻第二爵, 特宣答, 豈謂王世子押群臣行禮乎? 宜依朝禮, 王世子殊會, 庶得始終一樣, 一日之內, 行禮不相牴牾。” 命從招議。

	하루 동안에 예를 행하는 데에 서로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정초의 의논에 따르기를 명하였다.	
世宗 53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9月 24日 (乙酉) 5번째기사 한용봉에게 명하여 별 선을 창성에게 주다	내관 한용봉을 명하여 별선을 창성(昌盛)에게 가져다 주게 하였다. 성이 모든 받은 물품을 주방(廚庖)에 내어 주지 아니하고 비밀히 두목을 시켜 말려서 간직하고, 날마다 어육(魚肉)을 영접 도감에게 요구하여 것을 담고, 혹은 생우유[生酪]를 요구하여 묻혀서 종이에다 펴 말리니, 모두 가지고 가려고 함이었다.	命內官韓龍鳳，齎別膳贈昌盛。盛凡受贈物，不下廚庖，密令頭目，乾而藏之，日索魚肉于迎接都監造醢，或索生酪，點列於紙乾之，欲皆齎去也。
세종 54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10월 3일 (갑오) 2번째기사 예조에서 회례의주를 아뢰다	(전략) 다방 제조(茶房提調)가 수존(壽尊)을 전상에 설치하되, 남쪽 가까이 북향하게 하고, 점(坵)을 준의 남쪽에 설치하여 작을 놓아 둔다. 유사가 전에 오른 사람의 술동이[酒尊]를 전계 위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한다. 전정의 군관(群官)의 주준은 각각 그 자리 앞에 설치한다. 종실과 문무 군관이 시각에 따라 모두 문밖의 자리[門外位]에 나아가면, 좌중호(左中護)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輦次)로 나아가고, 시위는 보통 때와 같이 한다. 협률랑(協律郎)이 들어와서 휘(麾)를 드는 자리[舉麾位]에 나아가고, 전의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은 군관의 3품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례가 외관을 아뢰면, 중금이 엄을 전한다. 전하가 여를 타고 나오고, 산선의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장차 나오면 의장이 움직인다. 협률랑이 구부렸다 앞드렸다 휘를 들고 일어난다. 악공이 축을 두드리면, 헌가가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香爐)의 연기가 오른다. 상서관(尙瑞官)이 옥새[寶]를 받들어 자리 앞에 두고, 협률랑이 휘를 눕히면, 어(敵)를 굽고 풍악이 그친다. 판통례와 전의가 올라와 전계(殿階) 위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용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선다. 전의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이 이를 전찬(傳贊)한다. 왕세자가 몸을 굽히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	(전략) 茶房提調設壽尊於殿上近南，北向，設坵於尊南加爵。有司設升殿者酒尊於殿階上東西近北，設殿庭群官酒尊，各於其座之前。宗室及文武群官，依時刻皆就門外位，左中護引王世子就次，侍衛如常，協律郎入就舉麾位，典儀帥通贊先入就位，奉禮郎分引群官三品以下入就位。判通禮啓外辦，中禁傳嚴，殿下乘輿以出，繖扇侍衛如常儀。殿下將出仗動，協律郎俛伏舉麾輿，工鼓祝，軒架作隆安之樂。殿下升座，爐烟升。尙瑞官奉寶置於座前，協律郎偃麾戛敵，樂止，判通禮及典儀，升就殿階上西向立，僉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立定，典儀曰：“四拜。”通贊傳贊，王世子鞠躬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樂止，僉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詣尊所北向立。

이 그친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다방 제조가 술을 따라 첫째 작을 왕세자에게 주면, 왕세자가 작을 받아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근시가 이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전하여 놓으면, 왕세자가 조금 물러서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신아무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 드립니다. 새해를 당하와 【동지에는 ‘시기는 동지를 당하와’라고 한다.】 신이 대단히 경사스러워서 삼가 천천세수(千千歲壽)를 올립니다.’ 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전계 위의 북쪽으로 물러선다. 통찬이 ‘꿇어앉으라.’ 찬(贊)하면, 왕세자가 꿇어앉는다. 전하가 작(爵)을 들면 헌가(軒架)는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연주한다. 【월률(月律)을 사용한다.】 다방 제조가 나아가서 빈 작(爵)을 받아 준소로 가면, 풍악이 그친다. 【무릇 작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하고, 술 마시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왕세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자리 뒤에 나아가서 선다. 처음에 왕세자가 장차 자리에 나아가려 하면, 봉례랑이 종실과 문무 군관의 2품 이상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전하의 자리 앞에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종실과 문무 군신들을 영접하여 전에 오르기를 계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언이 앞으로 나아가서 교지를 받고 물러나서 섬돌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서, ‘교지가 있다.’고 말한다. 통찬이 ‘꿇어앉으라.’ 찬하면, 군관이 모두 꿇어앉는다. 대언이 교지를 알리기를, ‘종실과 문무 군신을 영접하여 전에 오르라.’ 한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종실과 문무 군관이 모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대언이 시위로 돌아온다. 봉례랑이 종실과 문무 군관으로서 마땅히 전에 오를 사람을 나누어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 전계 위에 나

茶房提調酌酒第一爵，授王世子，受爵詣殿下座前，北向跪進，近侍傳奉置于座前，王世子少退北向跪稱：“臣某稽首言。三元首祚，【冬至云：“天正長至。”】臣不勝大慶，謹上千千歲壽。”俯伏興退殿階上北，通贊贊跪，王世子跪。殿下舉爵，軒架作休安之樂。【用月律。】茶房提調進受虛爵，復於尊所。樂止，【凡進爵樂作，舉訖樂止。】通贊贊俯伏興四拜興平身，王世子俯伏興，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樂止，僉知通禮引就座後立。初，王世子將就位，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二品以上，以次入就位，判通禮進當殿下座前，北向跪，啓請迎宗室及文武群臣升殿，俯伏興退復位。代言前承教，退臨階西向立，稱有旨，通贊贊跪，群官皆跪，代言宣教曰：“迎宗室及文武群官升殿。”通贊贊俯伏興四拜興平身，宗室及文武群官，皆俯伏興，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樂止，代言還侍位。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應升殿者，由西階升就殿階上，橫班北向。立定，奉禮郎，引議政詣尊所北向立，茶(旁)[房]提調，酌酒

아가서 반열을 가로[橫班]해서 북향하여 서게 한다. 봉례랑이 의정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면, 다방 제조가 술을 따라 둘째 작은 의정에 게 준다. 의정이 작은 받아 전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리면, 근시(近侍)가 전해 받들어 자리 앞에 놓는다. 통찬이 ‘꿇어앉으라.’ 찬하면, 상하의 여러 관원이 모두 꿇어앉는다. 의정이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의정 신(臣) 아무는 머리를 조아려 말씀 드립니다. 새해를 당하와 【동지(冬至)에는, ‘시기는 동지를 당하와’라고 한다.】 신 등은 대단히 경사스러워 삼가 천천세수(千千歲壽)를 올립니다.’ 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언이 앞으로 나아가서 교지를 받고 말하기를, ‘삼가 경 등의 술잔[觴]을 든다.’ 하고, 전하가 작은 든다. 헌가가 휴안지악을 연주한다. 다방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서 빈 작은 받아 준소로 가져가면 풍악이 그친다. 대언이 시위로 돌아온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상하의 군관이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전의가 ‘자리에 앉으라.’ 말하면 통찬이 전하여 찬한다. 봉례랑이 상하의 군관을 인도하여 모두 자리 뒤에 나아가 서게 한다. 사옹 제조(司甕提調)가 안을 올리면, 휴안지악을 연주한다. 근시가 꽃을 올리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왕세자와 상하의 군관이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관통례·전의·통찬·봉례랑도 또한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전악의 노래 부르는 자와 금슬(琴瑟)을 인도하여 올라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사옹 제조가 왕세자의 탁자(卓子)를 받들고, 집사관은 군관의 탁자를 설치하고 꽃을 놓는다. 사옹 제조가 밥을 올리고, 수보록지악(受寶籙之樂)을 연주한다. 【무릇 밥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하고 밥 먹기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왕세자와 군관이 모두 일어서고, 밥 올리기를 마치면 모두 앉는다. 【무릇 술잔을 올리고, 밥을 올리면 모두 일어서고, 올리기를 마치면 모두 앉는다.】 왕세자가 밥을 먹고, 집사관과 군관이 법을 먹는다. 먹기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

第二爵授議政，受爵詣殿下座前，北向跪進，近侍傳奉置于座前。通贊贊跪，群官上下皆跪，議政少退北向跪稱：“議政具官臣某稽首言。三元首祚，【冬至云：“天正長至。”】臣等不勝大慶，謹上千千歲壽。”俯伏興退復位跪。代言前承教曰：“敬舉卿等之觴。”殿下舉爵，【軒架作休安之樂】茶房提調進受虛爵，復於尊所，【樂止】代言還侍位。通贊贊俯伏興四拜興平身，群官上下皆俯伏興，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樂止，典儀曰：“就座。”通贊傳贊，奉禮郎引群官上下，皆就座後立。司饗提調進案，休安之樂作，近侍進花訖，樂止，王世子及群官上下皆座。【判通禮、典儀、通贊、奉禮郎，亦皆赴座。】典樂引歌者及琴瑟升就位，司饗提舉，供王世子卓，執事官設群官卓散花。司饗提調進食，受寶籙之樂作，【凡進食樂作，食畢樂止。】王世子及群官皆起立，進訖皆坐。【凡進爵進食，皆起立，進訖皆坐。】王世子食，執事官群官食。食畢，樂止，【每司饗提調進食，提舉供王世子食，執事官設群官食。】茶

다. 【매양 사옹 제조가 전하의 밥을 올리고 제거(提舉)가 왕세자의 밥을 올리고, 집사관이 밥을 올린다.】 다방 제조가 세 번째 작을 올리면 등가(登哥)가 연주된다. 제거가 왕세자에게 술을 올리고, 집사관이 군관에게 술을 돌린다. 【매양 다방 제조가 전하에게 작을 올리고, 제거가 왕세자에게 술을 올리고, 집사관이 군관에게 술잔을 올린다.】 문무(文舞)가 들어와 춤을 추는데, 삼성이 되면 그치고 나간다. <전하에게> 밥을 올리면 헨가가 근천정지악(覲天庭之樂)을 연주한다. 네 번째 작을 올리면 등가가 연주된다. 밥을 올리면 헨가가 해서지악(海瑞之樂)을 연주한다. 다섯 번째 작을 올리면 무무가 들어와서 춤을 추는데, 삼성이 되면 그치고 나간다. 밥을 올리면 서차호지악(瑞鷓鴣之樂)을 연주한다. 여섯 번째 술잔을 올리면 하황은지기(荷皇恩之伎)를 시작한다. 밥을 올리면 수룡음지악(水龍吟之樂)이 시작된다. 일곱 번째 작을 올리면 포구악지기(拋毬樂之伎)를 시작하고, 밥을 올리면 황하청지악(黃河淸之樂)을 연주한다. 여덟 번째 작을 올리면 아백지기(牙白之伎)를 시작하고, 밥을 올리면 만년환지악(萬年歡之樂)을 연주한다. 아홉 번째 작을 올리면 무고지기(舞鼓之伎)를 시작하되 모두 전의 예와 같이 한다. 【전하께서 만약 편차(便次)에 들면, 왕세자는 동계 밑에 내려와 서고, 군관들은 동·서전(東西殿)에 나누어 서고, 가까운 사람은 모두 섬돌 밑에 나와서 자리를 잡고 서며, 전하가 나와서 자리에 오르면, 왕세자가 자리에 나아가고, 상하의 군관이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사옹 제조가 대선을 올리면 태평년지악(太平年之樂)을 연주하고 이내 정동방곡(靖東方曲)을 노래한다. 제거가 왕세자에게 선(膳)을 올리고, 집사관이 군관의 선을 진설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사옹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서 전하의 앞에 있는 안을 치우고, 제거가 왕세자의 탁자를 치우며, 집사관이 군관의 탁자를 치운다. 전의가 ‘일어나라.’ 말하면, 통찬이 이를 전하여 찬한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내려와 전정의 배위로 돌아가고, 봉례랑이 상하의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가 선다. 전

(旁) [房] 提調進第三爵，登歌作，提舉供王世子酒，執事官行群官酒，【每茶房提調進爵，提舉供王世子酒，執事官行群官酒。】文舞入作，三成止出。進食，軒架作《覲天庭之樂》。進第四爵，登歌作。進食，軒架作《海瑞之樂》。第五爵，武舞入作，三成止出。進食，《瑞鷓鴣之樂》。第六爵，荷皇恩之伎。進食，《水龍吟之樂》。第七爵，拋毬樂之伎。進食，《黃河淸之樂》。第八爵，牙白之伎。進食，《萬年歡之樂》。第九爵，舞鼓之伎，竝如前例。【殿下若入便次，則王世子降立東階下，群官分東西殿，近者皆出座階下立。其於殿下出升座，王世子就座，群官上下皆就座。】司饗提調進大膳，《太平年之樂》，仍歌《靖東方之曲》。提舉供王世子膳，執事官設群官膳訖，樂止，司饗提調進撤殿下前案，提舉撤王世子卓，執事官撤群官卓。典儀曰：“可起。”通贊傳贊，僉知通禮，引王世子降復殿庭拜位，奉禮郎分引群官上下，俱復拜位。立定，典儀曰：“四拜。”通贊傳贊，王世子鞠躬軒架作舒安之

	<p>의가 ‘사배하라.’ 말하면, 통찬이 이를 전하여 찬한다. 왕세자가 몸을 굽히고, 헌가가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종실과 문무 군관의 2품 이상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판통례가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예를 마쳤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구부렀다 엎드렸다 휘를 들고 일어나면, 헌가가 융안지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를 타고 내전으로 돌아간다. 산선의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신이 따라서 합문까지 이르면 풍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군관의 3품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樂，四拜興平身。樂止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二品以上次次出。判通禮進當殿下座前，跪啓禮畢，俯伏興還本位。協律郎俛伏舉麾興，軒架作隆安之樂，殿下降座，乘輿還內，繖扇侍衛如來儀。侍臣從至閣，樂止，奉禮郎，分引群官三品以下出。從之。</p>
<p>세종 55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1월 7일 (정묘) 5번째기사 예조에서 양로연의를 아뢰다</p>	<p>예조에서 양로연의(養老宴儀)를 아뢰기를, “음력 8월 달에 예조에서 좋은 날을 선택하여 아뢰고, 먼저 여러 노인들 【80세 이상.】에게 알린다. 그 날이 되면 유사가 전하의 자리[座]를 근정전의 북쪽 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로 두 개를 앞 기둥[前楹]밖에 좌우로 설치한다. 전악(典樂)이 전정(殿庭)에 헌헌(軒懸)을 벌여 놓고, 전상의 서계의 서쪽에 거휘위(舉麾位)를 설치하되, 모두 보통 때의 의식대로 한다. 전의가 여러 노인들 중에서 2품 이상인 자의 자리를 전내의 동·서에 설치하되,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4품 이상의 자리는 전의 계상에 동·서에 설치하고, 5품 이하의 자리는 계하에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서인은 전정의 동·서에 자리를 정하되,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판통례 및 전상의 전의의 자리는[位]는 전상의 동계의 동쪽에 설치하되 서향으로 한다. 계하의 전의의 자리는 악현의 동북쪽에 설치하고, 통찬 1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한다. 통찬 1인의 자리는 악현의 서북쪽에 있게 하되 동향하게 하고, 또 여러 노인들 중에 1품 이하의</p>	<p>禮曹啓養老宴儀： 仲秋之月，禮曹擇吉辰啓聞，先戒群老。【年八十以上。】其日，有司設殿下座於勤政殿北壁，南向，設香爐二於前楹外。左右典樂展軒懸於殿庭，設舉麾位於殿上西階之西，竝如常儀。典儀設群老二品以上座於殿內東西，重行相向北上，四品以上，座於殿階上東西，五品以下座於階下，俱重行相向北上，庶人座於殿庭東西，重行相向北上，設判通禮及殿上典儀位於殿上東階之東，西向，階下典儀位於縣之東北，通贊一人在南差退，俱西向，通贊一人在縣之西北，東向。又設群老一品以下拜位於殿庭東西，每等異位，重行北</p>

배위(拜位)는 전정의 동·서에 설치하되, 매 관등(官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상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서인의 자리는 조금 뒤로 설치한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의 악차를 홍례문 안에 설치하고, 다방 제조가 전상에 남쪽으로 가까이 준을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짐을 설치하고 작을 올려놓는다. 유사가 전에 오른 자를 위한 준(尊)을 전의 계상(階上)의 동·서에 북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며, 전에 오르지 않는 자를 위한 준(尊)을 각각 그들의 자리 앞에 설치한다. 병조에서 제위(諸衛)를 정돈하고, 의장을 베풀어 문과 전정에 벌여 서게 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여러 노인들은 각각 자기의 <신분에 의거한> 옷차림을 하고 【품관은 사모(紗帽)와 품대(品帶), 서인(庶人)은 시복(時服).】 시각(時刻)에 따라 모두 문밖의 악차에 나아간다. 통례문이 중엄을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사정전에 나와 앉으면, 유사가 산선(緞扇)의 시위(侍衛)를 베풀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과 집사관이 먼저 사배례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전악이 악공들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 거휘위에 나아간다. 여러 시위관은 각기 기구와 복색을 갖춘다. 상서관이 옥새(玉璽)를 받들고 함께 합문에 나아가 봉영(奉迎)한다. 전의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관통례가 외관을 아뢰면, 중금이 전엄(傳嚴)한다. 전하가 장차 나가려 하여 의장이 움직이면, 협률랑(協律郎)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麾)를 들고 일어난다. 악공이 축(柷)을 치고, 헌가(軒架)가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에서 연기가 오른다, 상서관(尙瑞官)이 옥새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놓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랑이 휘를 놓히면, 어를 쳐서 풍악을 그친다. 관통례와 전의가 전의 계상에 올라서 향해 선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어떤 이는 옆에서 붙든다.】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선다. 전의가 ‘사배하라.’ 한다. 【임시하여 전하의 명령이 있으면 절(拜)은 한 번 하고

向, 相對爲首, 庶人位差後。奉禮郎設群老次於弘禮門內。茶房提調設尊於殿上近南北向, 設坵加爵。有司設升殿者尊於殿階上東西近北, 設非升殿者尊各於其座之前。兵曹勒諸衛列仗屯門及陳於殿庭如常儀。群老各服其服, 【品官紗帽品帶, 庶人時服。】依時刻皆就門外次。通禮門啓請中嚴, 殿下出思政殿坐, 有司陳緞扇侍衛如常儀。近臣及執事官, 先行四拜禮如常儀。典樂帥工人入就位, 協律郎入就舉麾位, 諸侍衛之官, 各服其器服。尙瑞官奉寶, 俱詣閣奉迎。典儀率通贊先入就位。判通禮啓外辦, 中禁傳嚴, 殿下乘輿以出, 緞扇侍衛如常儀。殿下將出仗動, 協律郎俛伏舉麾輿, 工鼓柷, 軒架作隆安之樂。殿下升座, 爐烟升。尙瑞官奉寶置於座前如常儀, 協律郎偃麾戛鼓。樂止, 判通禮及典儀, 升就殿階上西向立, 奉禮郎分引群老【或杖或挾扶】以次入就位。立定, 典儀曰: “四拜。”【臨時有旨則拜, 一坐再至。】通贊傳贊, 群老去杖鞠躬, 舒安之樂作, 四拜興平身。樂止, 判通禮進當殿下座前, 北向跪, 啓請迎群

앉았다가 다시 한다.】통찬이 이를 전하여 찬하면, 여러 노인들은 지팡이를 놓고 몸을 굽히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례가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여러 노인들을 맞아 전에 오르게 하기를 계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나와 제 자리에 돌아간다. 대언이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고 물러나와 섬돌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서 교지를 선포하기를, ‘여러 노인들을 맞아 전에 오르게 하라.’ 하고, 대언이 시위로 돌아온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 중에서 마땅히 전상의 오를 자리를 나누어 인도하여 【지팡이를 짚거나, 혹은 옆에서 붙들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서계로 올라 자리에 나아간다. 【계하(階下)와 전정(殿庭)에 자리 할 자도 또한 인도해 자리에 나아간다.】 전악이 가(歌)와 금(琴)·슬(瑟)을 인도하여 올라가 자리에 나아간다. 사옹 제조가 상[案]을 올리고 풍악을 연주한다. 근시가 꽃을 올리고 나면, 풍악을 그친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탁자를 배설하고, 다방 제조가 첫 번째 작에 술을 따르고, 풍악을 연주한다.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이를 좌전에 놓는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술을 돌린다. 다 들고나면 다방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 빈 작을 받아 가지고 준소(尊所)로 돌아온다. 풍악을 그친다. 【무릇 작을 올릴 때에는 풍악을 연주하고, 들기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사옹 제조가 식사(食事)를 올리고, 풍악을 연주한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식사를 베풀어 놓고, 먹기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무릇 식사를 올리면 풍악을 연주하고, 식사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다음은 술을 올린다. 【다방 제조가 술을 올릴 때마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술을 돌린다.】 다음 식사를 올린다. 【다방 제조가 식사를 올릴 때마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식사를 베푼다.】 술잔이 다섯 순배를 들고 난 뒤에 사옹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 상을 치우고,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탁자를 걷는다. 봉례랑이 상하의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 선다. 전의가 ‘사배하라.’ 한다. 【전하의 명령이 있으

老升殿，俯伏興退復位。 代言前承教，退臨階西向立， 宣教曰：“迎群老升殿。” 代言還侍位。 奉禮郎分引群老應升殿者，【仍杖挾持如初】由西階升就座。【其位於下及庭者，亦引就坐。】典樂引歌及琴瑟升就位，司饗提調進案。樂作，近侍進花訖。樂止，執事官設群老卓。茶房提調酌酒第一爵，樂作，詣殿下座前，北向跪，置于座前。執事官行群老酒，舉訖，茶房提調進受虛爵，復於尊所。樂止，【凡進爵樂作，舉訖樂止。】司饗提調進食，樂作，執事官設群老食，食畢，樂止【凡進食樂作，食畢樂止。】次進酒，【每茶房提調進酒，執事官行群老酒。】次進食，【每茶房提調進食，執事官設群老食。】觴行五周訖，司饗提調進徹案，執事官徹群老卓。奉禮郎，分引群老上下，俱復拜位。立定，典儀曰：“四拜。”【有旨則拜，一坐再至。】通贊傳贊，鞠躬，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樂止，奉禮郎，分引群老以次出。判通禮進當殿下座前，跪啓禮畢，俯伏興還本位。協律郎伏舉麾興，軒架作隆安之樂殿下降座，乘興

	<p>면 절은 한 번 하고 앉았다가 다시 한다.】 통찬이 이를 전찬(傳贊)하면, 몸을 굽히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을 그친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관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전하의 자리 앞에 꿇어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협률랑(協律郎)이 엎드려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헌가(軒架)가 용안지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 여(輿)를 타고 대내(大內)로 돌아가고, 산선(繖扇)의 시위(侍衛)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신(侍臣)이 수종(隨從)하여 합문(閣門)까지 이르면 풍악을 그친다. 이튿날 여러 노인들이 대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한다.” 하였다.</p>	<p>還內，繖扇侍衛如來義，侍臣從至閣。樂止，明日，群老詣闕謝恩。</p>
<p>世宗 55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1月 16日 (丙子) 5번째기사 예조에서 주·부·군·현의 양로 의식을 아뢰다</p>	<p>예조에서 주·부·군·현의 양로 의식을 아뢰기를, “중추에 예조에서 아뢰고 각도에 행이한다. 소재지 관에서 좋은 날을 택하고, 기일에 앞서 관내의 80세 이상 되는 여러 노인들에게 선포하여 알린다. 그 날이 되면 수령의 자리를 대청의 동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여러 노인들 중에서 2품 이상의 자리는 서벽에 설치하되, 겹줄로 하여 동향으로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3품 이하의 자리는 남행으로 하였다. 【만약 2품 이상이 없으면 6품 이상을 서벽으로 하고, 참외를 남행으로 한다.】 서인의 자리는 뜰의 동쪽과 서쪽으로 하고, 또 배위는 뜰에 설치하되, 동쪽에 있게 한다. 여러 노인들의 배위는 서쪽에 있게 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동쪽이 위가 되게 하여 모두 북향되게 한다. 서인의 자리는 조금 뒤로 물러서 설치한다. 여러 노인들은 시각이 되면 모두 대문 밖에 모인다. 수령이 나와서 맞이하여 서문으로 들어가면, 여러 노인들이 따라 들어가서 【지팡이를 짚거나 옆에서 부축한다.】 모두 배위에 나아가 사배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수령은 동계로, 여러 노인들은 서계로 모두 자리에 나아가간다. 집사자가 탁자와 술잔을 배설하고 술을 따른다. 각기 자리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앉아서</p>	<p>禮曹啓州府郡縣養老儀： 仲秋，禮曹啓聞，行移諸道，所在官擇吉辰，前期，布告境內群老年八十以上者。其日，設守令座於廳事東壁，西向；群老二品以上座於西壁重行，東向北上；三品以下座於南行；【若無二品以上，則六品以上西壁，參外南行。】庶人座於庭東西；又設拜位於庭在東，群老拜位在西，異位重行東上，俱北向，庶人位差後。群老依時刻俱集大門外，守令出迎，入自西門，群老隨入，【或杖或挾扶】俱就拜位行四拜訖，守令由東階，群老由西階皆就座。執事者設卓及盞斟酒，各於座前，俛伏跪執盞飲訖，俛伏興就座。設食行酒，至</p>

	<p>잔을 잡고 마신다. 이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자리에 앉는다. 식사를 올리고 술을 돌려 다섯 순배에 이른 뒤에, 집사가 술잔을 거두고 탁자를 걷어 치운다. 수령이 여러 노인과 더불어 모두 배위에 돌아와서 사배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여러 노인들이 곧 나간다. 수령이 대문 밖에서 전송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五周後，執事收盞徹卓。守令與群老，俱復拜位行四拜訖，群老乃出，守令送于大門外。從之。</p>
<p>세종 55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1월 19일 (기묘) 1번째기사 원묘 묘실의 탁자에 대해 의논하다</p>	<p>이보다 앞서 문소전·광효전 두 전의 대제 때에는 예찬을 진설하는데, 가운데에는 큰 탁자(卓子)가 있고, 왼편과 오른편에 협탁(挾卓)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설의 길이가 전내에 가득 찼었으나, 지금 원묘는 묘실이 하나가 아닌데, 만약 〈큰 탁자 외에〉 좌우의 협탁을 갖춘다면 묘실이 작아서 수용할 수가 없고, 만약 간각(間閣)을 증축한다면 묘제가 너무 넓으므로, 정부에 명을 내려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마땅히 평시에 진사하는 예에 의방(依倣)하여 다만 가운데의 큰 탁자와 정면의 협탁만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己卯/前此文昭、廣孝兩殿大祭設禮饌，中有大卓，左右有挾卓，故其陳設之長，竟殿內。今原廟廟室非一，若具左右挾卓，則室小難容，若增構間閣，則廟制過闊。下政府議之，皆以爲：“宜依平時進上例，只用中大卓及面挾卓。”從之。</p>
<p>世宗 55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2月 19日 (戊申) 1번째기사 평강 등지에서 강무하다</p>	<p>평강 등지에서 강무하였다. 왕세자와 여러 관원들이 흥인문 밖에서 공손히 전송하였다. 풍천에 머무르니 경기 감사는 활·살·새매·사냥개·우구(雨具)·마장(馬粧)과 술·물고기를 바치고, 함길도 감사는 여러가지 해물(海物)을 올렸다.</p>	<p>戊申/講武于平康等處，王世子及百官，祇送于興仁門外。次于楓川，京畿監司，進弓矢、鷹犬、雨具、馬粧及酒果、魚菜，咸吉道監司進諸色海物。</p>
<p>세종 56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4월 3일 (신묘) 1번째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제향을 친행하고, 경회루에</p>	<p>비가 왔다. 임금이 면류관(冕旒冠)과 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제향을 친행(親行)하며, 왕세자(王世子)가 아헌(亞獻)하였다. 대궐에 돌아와 경회루 아래에서 음복연(飲福宴)을 베풀니, 왕세자와 종친들이 시연(侍宴)하였다. 드디어 종친들의 활 쏘는 것을 관람하고, 의정부(議政府)에서 여러 집사(執事)들에게 연회를 내렸다.</p>	<p>辛卯/雨。上冕服率群臣行祭，王世子亞獻。還宮，設飲福宴于慶會樓下，王世子及宗親侍宴。遂觀宗親射侯，賜諸執事宴于議政府。</p>

<p>서 음복연을 베풀다</p> <p>世宗 56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4月 3日 (辛卯) 2번째기사 과거보는 때 장옥마다 장수(醬水)와 술을 주 게 하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과거에 응시하는 생도(生徒)들에게 매 장옥(場屋)마다 장수(醬水) 8단지[盆] 와 술 30병씩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 “赴試生徒, 每場屋, 請饋醬 水八盆、酒三十瓶。”從之。</p>
<p>세종 56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5월 23일 (경진) 2번째기사 한해 때문에 경범죄인 을 석방하고 금주령 내리다</p>	<p>날씨가 가문다고 하여 가벼운 죄의 죄수(罪囚)를 석방하고 술을 금지하였다.</p>	<p>以旱放輕繫, 禁酒。</p>
<p>세종 57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7월 26일 (임오) 1번째기사 상호군 이예와 호군 김구경을 보내어 일본 에 회빙하다</p>	<p>상호군(上護軍) 이예(李藝)와 호군(護軍) 김구경(金久冏)을 보내어 일본에 회 빙(回聘)하였다. 일본 국왕에게 답하는 서신에 말하기를, “우리 두 나라는 대대로 인국(隣國)의 호의(好誼)를 닦아 항상 신의를 돈독히 했는데, 지금 또 전사(專使)로 보빙(報聘)하니 매우 기쁘고 위로되오. 전사한 예물은 삼가 이미 영수(領受)하였으며, 이에 신하 이예(李藝) 등을 보내어 가 서 사례(謝禮)하는 뜻을 표하오. 변변치 못한 토산물과 부탁한 바 《대장경 (大藏經)》은 모두 별록(別錄)에 적었으니 영납(領納)하기 바라오.” 하였다. 중국 판인(中國板印) 《대장경(大藏經)》 2부, 백면포막(白緜布幕) 1 좌, 백포장(白布帳) 2조(條), 잡채화석(雜彩花席)·협지의(袂地衣) 1부(副), 흑세 마포(黑細麻布)와 백세저포(白細苧布) 각각 20필, 백세면주(白細綿紬) 30필,</p>	<p>壬午/遣上護軍李藝、護軍金久冏, 回 聘于日本, 答國王書曰: 我兩國世修隣好, 常敦信義, 今又專使 報聘, 喜慰喜慰。所惠禮物, 敬已領 受, 茲遣臣李藝等, 往申謝意。不腆 土宜及所示《藏經》, 俱在別錄, 切希 領納。中國板印《大藏經》二部、白 緜布幕一座、白布帳二條、雜彩花席 袂地衣一副、黑細麻布·白細苧布各 二十四匹、白細綿紬三十四匹、滿花方席</p>

	<p>만화방석(滿花方席)·만화석(滿花席) 각각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20장,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10영(領), 남색 사피(斜皮)·홍색 사피(斜皮) 각각 5영, 인삼(人蔘) 1백 근, 잣[松子]4백 근, 꿀[清蜜] 20두(斗)이다. (후략)</p>	<p>·滿花席各一十張、雜彩花席二十張、虎豹皮各一十領、藍紅斜皮各五領、人蔘一百斤、松子四百斤、清蜜二十斗。(후략)</p>
<p>世宗 57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宣德) 7年) 7月 27日 (癸未) 2번째기사 예조에서 장동아가 보낸 두목이 소금·장 등을 청구하니 없다고 대답할 것을 아뢰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사신 장동아가 보낸 두목(頭目)이 다른 일로 인하여 와서 소금·장·물고기·미역을 청구하니, 청컨대 변방 군문(軍門)은 간고(艱苦)하여 저장한 것이 없다고 대답하고, 만약 사신이 전위(專委)하여 사람을 보낸다면 소금·장 한두 섬과 물고기·미역 한두 바리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 “使臣張童兒所送頭目, 因他事以來, 求鹽醬魚薑, 請答以邊塞軍門艱苦無儲。 若使臣專委送人, 則給鹽醬一二石、魚薑一二駄。” 從之。</p>
<p>세종 57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7월 27일 (계미) 4번째기사 향온과 소주를 양녕 대군에게 내리다</p>	<p>향온(香醞)과 소주(燒酒)를 양녕 대군에게 내리었다.</p>	<p>賜香醞及燒酒于讓寧大君。</p>
<p>世宗 57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宣德) 7年) 7月 29日 (乙酉) 3번째기사 예조에서 사직에 섭행하는 의주를 아뢰다</p>	<p>예조에서 사직(社稷)에 섭행(攝行)하는 의주(儀注)를 아뢰기를,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와 다시 시일을 의논하고, 서운관(書雲觀)에서 미리 계절(季節)을 걸러서 시일을 갖추어 【봄·가을 두 중월(仲月)의 상무일(上戊日)과 납일(臘日)이다. 】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 나누어 알려져 직책에 따라 공완(供辦)하게 한다. 재계(齋戒)를 제사전 7일 동안 하고,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이 서계(誓戒)를 의정부(議政府)에서 받는다. 그날 미명(未明) 7 각(刻)에 통례문(通禮門)이 자리를 설치하되,</p>	<p>禮曹啓社稷攝事儀注: 曹與儀禮詳定所更議時日, 書雲觀預於隔季, 具時日【春秋二仲上戊及臘日】報禮曹, 禮曹啓聞, 散告攸司, 隨職供辦。 齋戒: 前祭七日, 行事執事官, 受誓戒於議政府。 其日未明七刻, 通禮門設</p>

초헌관(初獻官)의 자리는 북쪽에 있게 하여 남향하게 하고,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천조관(薦俎官)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서쪽에 있게 하여 동향하게 하고, 집례(執禮)·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郎)·협률랑(協律郎)·장생령(掌牲令)·아악령(雅樂令)·봉조관(捧俎官)·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동쪽에 있게 하여 서향하게 하되, 매 관등(官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미명(未明) 5 각(刻)에 봉례랑이 행사할 집사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초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간다. 통찬이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서 서문(誓文)을 대신 읽기를, ‘금년 모월(某月) 모일(某日) 상무(上戊)에 사직(社稷)에 제사한다. 【납일(臘日)에 종묘(宗廟)의 향관(享官)이 같이 서계(誓戒)를 받을 적엔 마땅히 ‘사직(社稷)에 제사하고 종묘(宗廟)에 제향한다.’ 한다.】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고, 파·부추·마늘을 먹지 않고,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문서에 판결 서명(署名)하지 않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각기 그 직책을 처리할 것이니, 혹시 어김이 있으면 국가에서는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한다. 읽기를 마치면, 통찬(通贊)이 ‘재배(再拜)하라.’ 찬(贊)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재배하고 물러간다.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4일 동안 산재(散齋)할 적엔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3일 동안 치재(致齋)할 적엔 2일은 본사(本司)에서,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고, 치재(致齋)에는 다만 제사(祭事)만 행할 뿐이다. 이미 재계하였는데도 빠진 사람과, 섭행(攝行)을 통하여 제위(諸衛)의 수속으로서 유문(壘門)을 수위하는 사람은 【대장(隊長)은 문마다 각각 2인이요, 모퉁이마다 각각 1인이다.】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로서 하룻밤을 자고, 공인과 문무(文舞)·무무(武舞)는 봉상시(奉

位, 初獻官在北南向, 亞獻官終獻官、薦俎官、在南北向西, 上, 監察在西東向, 執禮、典祀官、大祝、祝史、齋郎、協律郎、掌牲令、雅樂令、捧俎官、謁者、贊者、贊引在東西向, 每等異位, 俱重行北上。未明五刻, 奉禮郎分引行事、執事官就位, 引初獻官就位。通贊就初獻官, 之左西向立, 代讀誓文曰: “今年某月某日上戊, 祭于社稷。【臘日宗廟享官, 同受誓戒, 當云: “祭社稷。”·“享宗廟。”】凡行事、執事官不縱酒, 不食葱蒜菹,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各揚其職, 其或有違, 國有常刑。”讀訖, 通贊贊再拜, 在位者皆再拜乃退。凡行事、執事官, 竝散齋四日, 宿於正寢, 致齋三日, 二日於本司, 一日於祭所。凡散齋, 治事如故, 致齋, 唯行祭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諸衛之屬守衛壘門者【隊長每門各二人, 每隅各一人。】各於本司淸齋一宿。工人二舞淸齋一宿於奉常寺, 前致齋一日, 竝集議政府肄儀; 前祭一日, 竝集祭所。【凡預祭者, 皆前祭二日, 沐浴更衣,

常寺) 앞에서 청제(淸齋)로 하룻밤을 자고, 1일 동안 치제(致齋)하고, 모두 의정부(議政府)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하고, 제사 전 1일에 모두 제소(祭所)로 모인다. 【무릇 제사에 참여할 사람은 모두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행로(行路)를 깨끗이 하게 하며, 여러 가지 흥하고 더러운 것과 상복(喪服)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우는 소리가 제소(祭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중단시킨다. 】

진설(陳設)은 제사 전 2일에 한다. 충扈衛(忠扈衛)에서 여러 제관(祭官)의 악차(幄次)를 재방(齋坊) 안에 설치하는데, 사직승(社稷丞)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서문(西門) 밖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설치한다. 하루 전에 아악 령(雅樂令)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등가(登歌)의 악을 단(壇) 북쪽에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북문 안에 설치하되, 모두 남향하게 한다. 사직승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신좌(神座)를 각기 단 위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게 한다. 후토씨(后土氏)의 신좌(神座)를 국사(國社) 신좌의 왼쪽에 설치하고, 후직씨(后稷氏)의 신좌를 국직(國稷) 신좌의 왼쪽에 설치하되, 모두 동향하게 하고, 돛자리[席]는 모두 왕골자리로 한다. 장생령(掌牲令)은 생(牲)을 이끌고 제소(祭所)로 나아가고, 전사관(典祀官)은 제기위(祭器位)를 준소(尊所)에 설치하고 【무릇 제기(祭器)를 설치할 적에는 모두 돛자리를 깔고 수건과 덮개를 올려 놓는다. 】 청결(淸潔)하다고 말하기를 기다린다. 【이미 마치면 임시로 걷어 치운다. 】 집례(執禮)가 초헌관의 자리를 북문 안에 설치하되, 단 한가운데에 남향하게 하고, 아헌관·중헌관·천조관의 자리를 서문 안길 북쪽에 설치하되, 매 품등(品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모두 겹줄로 동향하게 하고, 남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북문 안의 서북 모퉁이에 설치하되, 동향하게 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하되, 동향하게 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 모시고 서게 한다. 집례(執禮)의 자리를 둘을 설치하되,

令漢城府淸所行之路，不得見諸凶穢衰絰，其哭泣之聲，聞於祭所者權斷。】

陳設：前祭二日，忠扈衛設諸祭官次於齋坊之內，社稷丞帥其屬，掃除壇之內外，設饌幔於西門外，隨地之宜。前一日，雅樂令帥其屬，設登歌之樂於壇北，設軒架於北門內，俱南向。社稷丞帥其屬，設國社國稷神座各於壇上近南，北向；后土氏神座於國社神座之左，后稷氏神座於國稷神座之左，俱東向，席皆以莞。掌牲令牽牲詣祭所，典祀官設祭器位於尊所，【凡設祭器，皆藉以席，加以巾蓋。】以俟告潔。

【既畢，權撤。】執禮設初獻官位於北門內，當壇南向，設亞獻官、終獻官、薦俎官位於西門內道北，東向；執事者位於其後，每等異位，俱重行東向南上，設監察位於北門內西北隅東向，書吏陪其後，設執禮位二，一於壇門內，一於壇門外，俱近西東向。謁者、贊者、贊引在壇門外執禮之後稍北，東向南上，協律郎位於社壇下近東，西向，雅樂令位於軒懸之南，南向，設初獻官飲福位於稷壇上神座之東北，南向，設門外位祭官及諸執事於西門外道北，每

하나는 유문(壘門) 안에, 하나는 유문(壘門) 밖에 있게 하고, 모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유문 밖 집례(執禮) 자리의 뒤에 있게 하되, 조금 북쪽으로 해서 동향하게 하고, 남쪽이 위가 되게 한다. 협률랑의 자리는 사단(社壇) 아래에 있게 하되,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으로 하고, 아악 령(雅樂令)의 자리는 현현(軒懸)의 남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초헌관의 음복위(飲福位)는 직단(稷壇) 위 신좌(神座)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문밖의 자리[門外位]와 제관(祭官) 및 여러 집사(執事)의 자리는 서문 밖의 길 북쪽에 설치하되, 매 품등(品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 남향하게 하고,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생방(牲榜)을 서문 밖에 설치하되, 문 앞에 동향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장생령(掌牲令)의 자리는 생(牲)의 동북쪽에 설치하고, 대축(大祝)의 자리를 생(牲)의 서쪽에 설치하되, 각각 생(牲)의 뒤에 있게 하고, 축사(祝史)는 각기 그 뒤에 있게 하되, 모두 동향하게 한다. 아헌관이 생(牲)을 살필 자리는 생(牲) 앞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감찰(監察)의 자리는 아헌관의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 자리는 조금 뒤로 물러서 설치한다.】 예감(瘞坎) 둘을 단 북쪽 임방(壬方)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하고, 남쪽으로 섬돌을 낸다. 예감(瘞坎)을 바라보는 자리[望瘞位]는 예감의 남쪽에 설치한다. 초헌관은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하고, 집례·대축·찬자는 서쪽에 있게 하여, 모두 겹줄로 동향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제일(祭日)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神位) 오른쪽에 각기 하나씩 놓고, 【각기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를 준소(尊所)에 각기 하나씩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초[燭]를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祭器)와 제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되, 매 위(位)마다 각기 변(籩) 12개가 왼쪽에 있어 세 줄이 되게 하는데, 오른쪽이 상(上)이 되고, 【첫째 줄에는 형염(刑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

等異位, 俱重行南向東上, 設牲榜於西門外當門東向, 以北爲上, 設掌牲令位於牲東北, 設諸大祝位於牲西, 各當牲後, 祝史各在其後, 俱東向, 設亞獻官省牲位於牲前近南, 設監察位於亞獻官之東, 俱北向, 【監察位稍却】 開瘞坎二於壇之北壬地, 方深取足容物, 南出陞, 設望瘞位於瘞坎之南, 初獻官在南北向, 執禮、大祝、贊者在西, 俱重行東向北上。 祭日未行事前, 典祀官帥其屬入, 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 【各有坫】 陳幣籩各一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每位各籩十二在左, 爲三行右上, 【第一行, 形鹽在前, 魚乾棗栗黃次之。 第二行, 捺子在前, 菱仁、芡仁、鹿脯次之。 第三行, 白餅在前, 黑餅、糗餌、粉飧次之。】 豆十二在右, 爲三行左上。 【第一行, 蕝蒞在前, 醢醢菁菹鹿醢次之。 第二行, 芹蒞在前, 兔醢筍蒞魚醢次之。 第三行, 脾析在前, 豚拍、醢食、糝食次之。】 俎三, 二在籩前, 一在豆前, 【籩前俎一實牛腥, 一實羊腥七體、兩脾兩肩兩脅并脊, 而髀在兩端, 肩脅次之, 脊在

鱸)·건조(乾棗)·울황(栗黃)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춘자(椿子)가 앞에 있고, 능인(菱仁)·감인(芡仁)·녹포(鹿脯)가 그 다음이요, 셋째 줄은 백병(白餅)이 앞에 있고, 흑병(黑餅)·구이(糗餌)·분자(粉糝)가 그 다음이다. 【두(豆) 12개가 오른쪽에 있어 세 줄이 되는데, 왼쪽이 상이 되고, 【첫째 줄에는 부추 김치가 앞에 있고, 해해(醢醢)·무우 김치·사슴 고기젓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미나리 김치가 앞에 있고, 토끼 고기젓·죽순 김치·물고기젓이 그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비석(脾析)이 앞에 있고, 돈박(豚拍)·이식(醢食)·삼식(糝食)이 그 다음이다.】 조(俎) 3개 중에서 2개는 변(籩) 앞에 있고, 1개는 두(豆) 앞에 있다. 【변(籩) 앞의 조(俎) 한 개는 소의 날고기를 담고, 한 개는 양의 날고기·칠체(七體)·양비(兩脾)·양견(兩肩)·양협(兩脅)과 등골을 담는데, 넓적다리는 양쪽 끝에 있고, 어깨와 겨드랑이는 그 다음에 있고, 등골은 가운데 있다. 두(豆) 앞의 조(俎)에는 돼지의 날고기와 칠체(七體)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羊)의 상(床)과 같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무릇 앞에 있다.’ 하는 것은 모두 남쪽에 있음을 이름이라 한다.】 두(豆) 오른쪽의 조(俎)는 3개이다. 【한 개는 소의 삶은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한 개는 양의 삶은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한 개는 돼지의 삶은 살코기를 담는데, 돼지고기는 앞에 있고, 양고기와 쇠고기는 그 다음에 있다. 무릇 조(俎)는 모두 성갑(牲匣)이 있다.】 보(簠)·궤(簋)가 각각 2개인데, 변(籩)·두(豆) 사이에 있다. 보(簠)는 왼쪽에, 궤(簋)는 오른쪽에 있다. 【보에는 벼와 기장을 담는데, 기장은 벼 앞에 있고, 궤에는 메기장과 피를 담는데, 피가 메기장 앞에 있다.】 형(鉶) 3개는 보(簠)·궤(簋) 뒤에 있고, 【형(刑)에는 화갱(和羹)을 채우는데 모활(芼滑)을 더한다.】 작(爵) 3개는 보·궤 앞에 있다. 【각기 점(坩)이 있다.】 또 준(尊)과 뇌(罍)를 설치하는데, 국사(國社)에는 대준(大尊) 2개, 【한 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한 개는 단술[醴齊]을 채운다.】 저준(著尊) 2개, 【한 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한 개는 양제(盎齊)를 채운다.】 산뢰(山罍) 2개 【한 개는 현주

中。豆前俎實豕腥七體，其載如羊。宋釋奠儀云：“凡言在前者，皆謂南也。” 豆右之俎三。【一實牛熟腸胃肺，一實羊熟腸胃肺，一實豕熟膚。豕在前，羊牛次之。凡俎皆有牲匣。】 簠簋各二在籩豆間，籩在左簠在右。【籩實以稻粱，粱在稻前。簋實以黍稷，稷在黍前。】 鉶三在簠簋後，【實以和羹，加芼滑】 爵三在籩簋前。【各在坩】 又設尊罍國社大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著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山罍二【一實玄酒，一實清酒。】 爲三行，【第一行大尊，第二行著尊，第三行山罍。】 皆加勺冪，在壇下西北隅。后土氏象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著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山罍二【一實玄酒，一實清酒。】 於國社酒尊之西，俱南向東上。【凡尊實明水，玄酒爲上。凡祭神之物，當時所無者，以時物代之。】 國稷后稷氏尊罍，并如國社后土氏之儀。設福酒爵【有坩】 胙肉俎各一於國社國稷尊所，又設國社俎一於饌幔內，設洗於壇門外之西北南向，【盥洗

(玄酒)를 채우고, 한개는 청주(淸酒)를 채운다.】를 설치하여 세 줄로 하되, 【첫째 줄은 대준(大尊), 둘째 줄은 저준(著尊), 세째 줄은 산뢰(山罍)이다.】 모두 작(勺)과 떡(鬯)을 얹어 놓아 단(壇) 아래 서북쪽 모퉁이에 둔다. 후토씨(后土氏)에는 상준(象尊) 2개, 【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단술을 채운다.】 저준(著尊) 2개, 【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양제를 채운다.】 산뢰(山罍) 2개 【한 개는 현주(玄酒)를 채우고, 한 개는 청주(淸酒)를 채운다.】를 국사(國社) 주준(酒尊)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남향하게 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무릇 준(尊)과 뇌는 명수와 현주(玄酒)를 채운 것이 상(上)이 된다. 무릇 신에게 제사하는 물건은 그 당시에 없는 것은 시물(時物)로서 대신한다.】

국직(國稷)과 후직씨(后稷氏)의 준(尊)·뇌도 모두 국사(國社)·후토씨(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복주작(福酒爵)과 【점(坫)이 있다.】 조육조(胙肉俎) 각각 1개씩을 국사·국직의 준소(尊所)에 설치하고 또, 국사의 조(俎) 1개를 찬만(饌幔) 안에 설치하고, 세(洗)는 유문(墀門) 밖의 서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서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동쪽에 있다.】 뇌(罍)는 세(洗)의 서쪽에 있게 하되 작(勺)을 얹어 놓고, 비(篚)는 세(洗)의 동북쪽에 있게 하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비(篚)이면 또 작(爵)을 담아 놓는다. 점(坫)이 있다.】 여러 집사(執事)의 관세(盥洗)는 헌관의 세(洗) 서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준(尊)·뇌(罍)·비(篚)·떡(鬯)을 잡는 사람의 자리는 준·뇌·비·떡의 뒤에 설치한다. 향과 축문은 제사 전날 주루(晝漏) 상수(上水) 1각(刻)에 받는데, 유사가 향과 축문의 안(案)을 근정전(勤政殿) 한가운데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은 그 앞에 설치한다.

전하의 배위(拜位)는 월대(月臺)의 한가운데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통례문(通禮門)이 전의(典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쪽에 설치하고, 통찬(通贊) 2인은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좌우 시신(侍

在西, 爵洗在東。】 罍在洗西加勺, 篚在洗東北, 肆實以巾。【若爵洗之篚, 則又實以爵, 有坫。】 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西北, 南向, 執尊罍篚鬯者位於尊罍篚鬯之後。受香祝: 前祭一日, 晝漏上水一刻, 有司設香祝案於勤政殿當中, 南向, 香案於其前, 設殿下拜位於月臺當中, 北向。通禮門設典儀位於東階之東, 通贊二人在南少退, 俱西向, 設左右侍臣位於東西階之南, 相對異位重行, 俱北上, 設初獻官以下應行事執事官位於殿庭道東, 異位重行, 北向西上, 設鹵簿於闕門外。侍臣各具朝服。三刻, 獻官以下應行事執事官, 並集闕門外, 殿下具冠袍。校書館員以祝版捧進, 近臣傳捧以進, 殿下署訖, 近臣捧祝版及香, 置於案上。五刻, 奉禮郎分引左右侍臣入就位, 次引獻官以下入就位。奉禮郎引初獻官升自東階, 【奉禮郎止於階下】判通禮導殿下, 出就拜位北向立, 啓請再拜, 導殿下詣香案前啓請跪。近侍一人捧香合西向跪進, 一人捧香爐東向跪進, 判通禮啓請三上香, 近侍奠爐于案。近侍捧香祝東向跪進, 判通禮啓

臣)의 자리는 동·서계(東西階)의 남쪽에 설치하되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리를 달리 겹줄로 하여, 모두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초헌관 이하의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의 자리는 전정(殿庭) 길 동쪽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노부(鹵簿)는 대궐 문밖에 설치하고, 시신(侍臣)이 각기 조복을 갖추어 입는다.

3각(刻)에 헌관 이하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이 모두 대궐 문밖에 모인다. 전하가 관(冠)과 포(袍)를 갖추어 입는다. 교서관(校書館)의 관원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近臣)이 전해 받들어 올린다. 전하가 이를 쓰고 나면, 근신이 축판과 향을 받들어 안(案) 위에 둔다. 5각(刻)에 봉례랑이 좌우 시신(侍臣)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다음은 헌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오고, 【봉례랑은 섬돌 아래에서 그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나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재배(再拜)하기를 계청(啓請)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기를 계청한다. 근신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면, 근신이 향로를 안(案)에 놓고, 근신이 향과 축문을 받들어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향과 축문을 집어서 초헌관에게 주기를 계청하면, 초헌관이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받아 가지고 일어나서 도로 안(案) 위에 놓는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앞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고, <이를 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서 재배하기를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물러나와 월대(月臺) 서쪽에 동향하여 서게 한다. 초헌관이 향과 축문을 받들고 서계(西階)로 내려오면, 판통례가 <전하께> 몸을 굽히기를 계청하고, 초헌관이 다 내려서면 전하께서 몸을 편다. 초헌관이 문을 나가서 향과 축문을 여담(昇擔)에 두고, 아헌관 이하의 관

請取香祝授初獻官， 初獻官西向跪受興， 還置於案上。 判通禮啓請俛伏興， 導殿下復位， 啓請再拜， 導殿下退立於月臺西東向。 初獻官捧香祝降自西階， 判通禮啓請鞠躬， 初獻官沒階， 殿下平身。 初獻官出門， 置香祝於昇擔。 亞獻官以下， 隨初獻官以次出門上馬， 軍士捧昇擔鹵簿前導， 至齊坊門外， 下馬入門， 各就齊所， 香祝安於卓上。

省牲器： 前祭一日未後二刻， 社稷丞帥其屬， 掃除壇之內外， 執事者以祭器入設於位， 加以巾蓋， 如陳設儀。 未後三刻， 亞獻官以下應省牲器者， 俱以常服就西門外， 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入壇下， 掌牲令牽牲就位。 贊引引監察詣社壇西階升， 行掃除於上， 升稷壇， 亦如之， 降行樂懸於下訖復位。 謁者引亞獻官， 贊引引監察詣社壇， 升自西階， 視滌濯。 執事者皆舉冪告潔， 升稷壇， 亦如之。 訖， 引降省牲位北向立。 掌牲令少前曰：“請省牲。” 退復位。 亞獻官省牲， 掌牲令又前舉手曰：“臚。” 復位。 諸大祝各巡牲一匝， 東向舉手曰：“充。” 俱復位。 諸大祝與掌牲令以次牽牲， 詣廚授典祀

원이 초헌관을 따라 차례로 문을 나가서 말에 오른다. 군사가 여담(肩擔)과 노부(鹵簿)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재방문(齋坊門) 밖에 이르면, 말에서 내려 문으로 들어가서 각기 제소(齋所)에 나아간다. 향과 축문은 탁자(卓子) 위에 안치하여 놓고 생기(牲器)를 살핀다.

제사 전 1일 미시(未時) 후 2각(刻)에, 사직승(社稷丞)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의 안팎을 소제하고, 집사자는 제기(祭器)를 가지고 들어가 자리에 진설하고, 수건과 덮개를 덮어 놓기를 진설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미시(未時) 후 3각(刻)에 아헌관 이하의 마땅히 생기(牲器)를 살펴야 할 사람이 모두 평상시의 의복을 입고 서문 밖에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먼저 단 아래로 들어오고, 장생령(掌牲令)은 생(牲)을 이끌고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社壇) 서계(西階)에 나아가서 올라가 소제를 행하고, 직단(稷壇)에 올라가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고 내려온다. 악현(樂懸)은 섬돌 아래에 베풀어 놓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社壇)에 나아가서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척탁(滌濯)을 살피는데, 집사자가 모두 먹(羃)을 들어 정결함을 알린다. 직단(稷壇)에 올라가서도 또한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생(牲)을 살피는 자리로 내려와서 북향하여 서계 한다. 장생령(掌牲令)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청컨대 생을 살피소서.’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면, 아헌관이 생을 살핀다. 장생령이 또 앞으로 나아가 손을 들면서 ‘둔(膺)’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여러 대축(大祝)이 각기 생을 한 바퀴 돌아보고 동향하여 손을 들면서 ‘충(充)’ 하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다. 여러 대축과 장생령이 차례로 생을 이끌고 주방(廚房)에 칭하여 전사관(典祀官)에게 준다. 알자가 중헌관을 인도하여 주방에 나아가서 정(鼎)·확(鑊)을 살피고 깨끗이 씻었는가를 보고 명수와 불을 취한다. 【물은 음감(陰鑑)에서 취하고, 불은 양수(陽燧)에서 취하는데, 음감에서 창출히 취할 수 없으면 정수(井水)로써 이를 대신한다.

官。謁者引終獻官，詣廚省鼎鑊，申視滌溉，監取明水火。【取水於陰鑑，取火於陽燧。陰鑑未能猝辦，以井水代之。火以供爨，水以實尊。】贊引引監察詣廚省饌具訖，各還齋所。晡後一刻，典祀官率宰人，以鑿刀割牲，祝史以盤取毛血，置於饌所，遂烹牲。【連皮煮熟，其餘毛血以清器盛貯，祭畢埋之。】社稷丞帥其屬，掃除壇之內外。尊幣：祭日丑前五刻，【丑前五刻，卽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退就次服其服。社稷丞服其服升，設國社后土氏國稷后稷氏神位版於座。贊引引監察詣社壇，升自西階，按視壇之上下，糾察不如儀者，升稷壇，亦如之，還出。前三刻，諸祭官各服其服，執禮帥謁者贊者贊引入自西門，先就懸南拜位，重行南向東上四拜訖，各就位。雅樂令帥工人二舞入就位，文舞入陳於懸南，武舞立於懸北道東。謁者贊引各引祭官，俱就西門外位。前一刻，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社稷丞、協律郎、捧俎官，入就懸南拜位，重行南向東上。立定，執

불은 때는 데 쓰고 물은 준(尊)에 채운다.】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주방에 나아가서 찬구(饌具)를 살펴계 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재소(齋所)로 돌아간다. 포시(晡時)1871) 후 1각(刻)에 전사관이 재인을 거느리고 난도(鑿刀)로서 생을 베는데, 축사(祝史)가 쟁반으로 털과 피를 취하여 찬소(饌所)에 두고 마침내 생을 삶는다.【가족제 삶고, 그 나머지 털과 피는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제사가 끝난 뒤에 땅에 묻는다.】사직승(社稷丞)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의 안팎을 소제한다. 폐백은 제일(祭日) 축시(丑時) 전 5각에 드리는데,【축시 전 5각은 곧 3경(更) 3점(點)인데, 행사는 축시 1각에 한다.】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饌具)에 제수를 담고, 이를 마치면 물러가서 악차(幄次)에 나아가서 자기 제복(祭服)을 입으며, 사직승(社稷丞)도 자기 제복을 입고 올라와서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의 신위판(神位版)을 자리[座]에 설치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社壇)에 나아가서,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단의 위 아래를 살펴보고 의식과 같지 않은 것을 규찰(糾察)하고, 직단(稷壇)에 올라가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고 도로 나온다.

3각(刻) 전에 여러 제관(祭官)들이 각기 자기의 제복(祭服)을 입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서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곁줄로 남향하여 동쪽을 위로 해서 사배(四拜)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과 문무(文舞)·무무(武舞)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는데, 문무(文舞)는 악현(樂懸)의 남쪽에 들어와서 진열하고, 무무(武舞)는 악현(樂懸)의 북쪽 길 동쪽에 선다. 알자와 찬인이 각각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모두 서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1각(刻) 전에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축사(祝史)·재랑(齋郎)·사직승(社稷丞)·협률랑(協律郎)·봉조관(捧俎官)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곁줄로 남향하여 동쪽을 위로 해서 선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

禮曰：“四拜。”贊者傳喝，【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監察以下皆四拜訖，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帨〕訖各就位。贊引引齋郎詣洗爵位，洗爵拭爵訖，置於筐，捧詣尊所，置於坫上。謁者引初獻官，贊引引亞獻官、終獻官、薦俎官入就位，執禮曰：“四拜。”衆官在位者皆四拜。【先拜者不拜】謁者進初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退復位。協(津)〔律〕郎俛伏舉麾興，【凡取物者皆跪，俛伏而取以興。尊物則跪奠，俛伏而復興。】工鼓祝軒架作《順安之樂》，烈文之舞作。八成，協律郎偃麾戛敵。樂止，【凡樂，協律郎跪俛伏舉麾興，工鼓祝而後作，偃麾戛敵而後止】執禮曰：“瘞毛血於坎。”執禮曰：“再拜。”衆官在位者皆再拜。執禮曰：“行奠幣禮。”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南向立，贊摺笏盥水帨手。【盥手帨手不贊】贊執笏引詣社壇，升自北陛，詣國社神位前南向立，登歌作肅安之樂，烈文之舞作。贊跪摺笏。執事者一人捧香合，一人捧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

면, 찬자가 이를 받아 창하여, 【무릇 집례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이를 받아 창한다.】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세수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재량을 인도하여 세작위(洗爵位)에 나아가서 작(爵)을 씻고 닦고 나서 비(篋)에 넣어, 존소(尊所)로 받들고 나아가서 점(坫) 위에 둔다. 알자는 초헌관을, 찬인은 아헌관·중헌관·천조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사배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어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량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무릇 물건을 취하는 사람은 모두 꿇어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물건을 취하고 일어나며, 물건을 드릴 적에는 꿇어앉아서 드리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난다.】 공인이 축을 치고, 헌가(軒架)에서 순안지악(順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되어 팔성(八成)이 되면, 협률량이 휘(麾)를 눕히고, 어(敵)를 굽어 풍악이 그친다. 【무릇 풍악은, 협률량이 꿇어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공인이 축을 친 후에 시작되고, 휘를 눕히고 어(敵)를 굽은 뒤에 그친다.】 집례가, ‘털과 피를 구덩이에 묻으라.’ 한다. 집례가 ‘재배(再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폐백 드리는 예(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남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꽂으라.’ 찬(贊)하여,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게 한다.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 ‘홀을 잡으라.’고 찬하여, 인도하여 사단(社壇)으로 나아가서 북계(北階)로 올라가서, 국사 신위(國社神位)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면, 등가(登歌)에서 숙안지악(肅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된다.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神位前。大祝以幣篋授初獻官，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神位前。【凡捧香授幣，皆在獻官之右，奠爐奠幣，皆在獻官之左。受爵奠爵，準此】謁者贊執笏俛伏興，引初獻官詣后土氏神位前西向立，贊跪摺笏。執事者一人捧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大祝以幣篋授初獻官，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登歌止，謁者引初獻官降自北陛，詣國稷后稷氏神位前，樂作，上香奠幣，竝如國社后土氏之儀。訖，登歌止，謁者引降復位。進熟：初獻官既升奠幣，贊引引典祀官出，帥進饌者詣廚，以匕升牛于鑊，實于牲匣，次升羊豕，各實于牲匣，【每位牛羊豕，各一匣。】入設於饌幔內。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捧俎官隨之，俟初獻官奠幣訖復位。執禮曰：“進饌。”謁者引薦俎官，捧國社之俎，捧俎官各捧牲匣，典祀官引饌入。國社、國稷之饌，入自正門，配位之饌，入自左闈。俎初入門，軒架作《雍安之樂》。國社、國稷之饌，升自北陛；配位之饌，

'고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贊)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린다. 대축이 폐백 광주리[幣]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받들고 폐백을 줄 적에는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 하고,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드릴 적에는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爵)을 받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초헌관을 인도하여 후토씨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꿨어앉아 홀을 꼴으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초헌관에게>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 대축이 폐백 광주리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등가(登歌)가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고, 풍악을 연주한다. 향을 피우고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한다. 이를 마치면 등가(登歌)가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삶은 제수를 드린다. 초헌관이 이미 올라가서 폐백을 드렸으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와서 진찬(進饌)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주방(廚房)에 나아가서, 비(匕)로서 소를 확(鑊)에서 들어 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은 양(羊)과 돼지를 들어 올려서 각기 생갑(牲匣)에 담아 【매 위(位)마다 소·양·돼지가 각기 한 갑(匣)이다.】 들어와 찬만(饌幔) 안에 설치한다. 알자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에 나아가면, 봉조관(捧俎官)이 이를 따르고, 초헌관이 폐백

升自西陞，諸大祝迎引於壇上。薦俎官詣國社神位前南向跪奠，先薦牛，次薦羊，次薦豕。【諸大祝助奠】奠訖，啓牲匣蓋。次詣后土氏神位前西向跪奠，先薦牛，次薦羊，次薦豕。【諸大祝助奠】奠訖，啓牲匣蓋。謁者引薦俎官降自西陞，詣國稷后稷氏神位前俸奠，竝如國社后土氏之儀。樂止，謁者引薦俎官以下，降自西陞復位，諸大祝還尊所，執禮曰：“行初獻禮。”謁者引初獻官，詣國社尊所東向立，登歌作壽安之樂，烈文之舞作。執尊者舉冪酌醴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初獻官升自北陞，詣神位前南向立，贊跪摺笏。執事者以爵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少退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西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俛伏興。樂止，引初獻官降自北陞，詣后土氏尊所東向立，樂作，執尊者舉冪酌醴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初獻官升自北陞，詣神位前西向立，贊跪摺笏。執事者以爵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

을 드림을 기다려, 이를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찬(饌)을 올리라.’ 하면,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국사(國社)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捧俎官)이 각기 생갑(牲匣)을 받들고, 전사관이 찬(饌)을 인도하여 들어오는데,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찬(饌)은 정문으로 들어오고, 배위(配位)의 찬(饌)은 왼쪽 문[闕]으로 들어오게 된다. 조(俎)가 처음 문에 들어올 때 헌가(軒架)에서 용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찬(饌)은 북계(北階)로부터 올라오고, 배위(配位)의 찬(饌)은 서계(西階)로부터 올라오는데, 여러 대축(大祝)이 단 위에서 맞아 인도한다. 천조관이 국사(國社) 신위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드리고, 다음은 양을 드리고, 다음은 돼지를 드린다. 【여러 대축이 드리는 데 도운다.】 드리기를 마치면 생갑(牲匣)의 덮개를 연다. 다음은 후토씨(后土氏)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드리고, 다음은 양을 드리고 다음은 돼지를 드린다. 【드리기를 마치고 생갑(牲匣)을 연다.】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기를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 이하의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러 대축은 준소(尊所)로 돌아온다.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국사(國社)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계 한다. 등가(登歌)에서 수안지악(壽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된다. 집준자(執尊者)가 먹(罍)을 들고 단술[醴齊]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부터 올라와 신위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계 하고, ‘꿇어앉아 홀을 쫓으라.’ 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爵)을 잡아 작(爵)을 드리는데, 작(爵)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執笏俛伏與少退西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北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俛伏興。樂止，謁者引初獻官降自北陛，詣國稷后稷氏神位前，樂作，升獻竝如國社后土氏之儀。訖，曲終樂止。謁者引初獻官降自北陛復位。文舞退，武舞進，軒架作《舒安之樂》。舞者立定，樂止。亞終獻：初獻官將復位，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南向立，贊搯笏，盥手悅手，贊執笏，引詣國社尊所東向立，軒架作壽安之樂，昭武之舞作。執尊者舉罍酌盥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升自西陛，詣神位前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謁者引亞獻官降自西陛，詣國稷后稷氏神位前，升獻竝如國社后土氏之儀訖，樂止，引降復位。亞獻官獻將畢，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禮曰：“飲福受胙。”大祝詣國社國稷尊所，以爵酌豐福酒，合置一爵。又大祝持俎進，減國社、國稷神位前，俎肉

서 남향하여 꿇어앉으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俛), 복(伏), 흥(興)’이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후토씨(后土氏)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하면, 풍악을 연주한다. 집존자(執尊者)가 떡(饗)을 들고 단술[醴齊]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올라가서 신위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쫓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爵)을 잡아 작(爵)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서향하여 꿇어앉으라.’ 찬한다.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복,흥’이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면, 풍악을 연주한다. 올라가서 헌작(獻爵)하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악곡(樂曲)이 끝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문무(文舞)는 물러가고 무무(武舞)가 나오는데, 헌가(軒架)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한다. 춤추는 사람이 서면 풍악이 그친다.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은, 초헌관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집례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홀을 쫓으라.’ 찬하여,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홀을 잡으라.’ 찬하여, 인도해서 국사(國社)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한다. 헌가(軒架)에서 수안지악(壽安之樂)을 연주하고, 소무지무(昭舞之舞)가 시작된다. 집존자(執尊者)가 떡(饗)을 들고 양

合置一俎。謁者引初獻官詣稷壇，升自北陸，詣飲福位南向立，贊跪(進)搢笏。大祝進初獻官之右東向，以爵授初獻官，初獻官受爵飲卒爵，大祝進受虛爵，復於坫。大祝東向，以俎授初獻官，初獻官受俎，以授執事者，執事者受俎，降自北陸出門。謁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執禮曰：“再拜。”衆官在位者，皆再拜。執禮曰：“徹籩豆。”諸大祝進徹籩豆。【徹者，籩豆各一，少移於古處。】登歌作雍安之樂，徹訖，樂止。軒架作順安之樂，執禮曰：“四拜。”衆官在位者，皆四拜。樂一成止，執禮曰：“望瘞。”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北向立，執禮帥贊者詣望瘞位東向立。諸大祝取黍稷飯，藉用白茅，束之以筐，取祝版及幣，各由其陸降壇，置於坎，執禮曰：“可瘞。”(寘)[填]土半坎，典祀官監視。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謁者贊引各引初獻官以下，以次出。執禮帥贊者還本位，贊引引監察及諸執事，俱復懸南拜位。立定，執禮曰：“四拜。”監察及諸執事皆四拜訖，贊引以次引出，雅樂令帥工人二舞出，執

제(盞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올라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 남향하여 서계 하고, ‘꿨어앉아 홀을 꽃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西階)로부터 내려와서 후토씨(后土氏)의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계 한다. 집준자가 떡(饘)을 들고 양제(盞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올라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계 하고, ‘꿨어앉아 홀을 꽃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 헌작(獻爵)하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그리고 아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헌관이 헌작(獻爵)을 마치려 하면,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한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례가 ‘음복(飲福)하고 제육(祭肉)을 받으라.’ 하면, 대축이 국사(國社)와 국직(國稷)의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작(爵)으로 뇌(醴)의 복주(福酒)를 따라 한작(爵)에 합해 두고,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국사·국직(國稷) 신위 앞에 있는 조육(俎肉)을 덜어서 조(俎)에 합해 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직단(稷壇)에 나아가, 북계로 올라가서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계 하고, 꿨어앉아 앞으로 나와서 홀을 꽃으라.’ 찬한다. 대축이 초헌관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작(爵)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을

禮帥謁者、贊者、贊引，就懸南拜位，四拜而出。社稷丞藏神位版，典祀官帥其屬徹禮饌以降乃退。復命：初獻官以下行事執事官，各還齊所住一刻。坎有司陳鹵簿於齊坊南門外如來儀。初獻官以下行事執事官至外門外，以次上馬，行至闕門外下馬，入門序立復命，四拜訖退。從之。

받아서 마신다. 작을 비우면,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 작을 받아 점(坫)에 다시 둔다. 대축이 동향하여 조(俎)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조를 받아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조를 받아 북계로 내려와서 문으로 나간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흠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재배(再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여러 관원이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변(籩)·두(豆)를 걷어 치우라.’ 하면, 여러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 변(籩)·두(豆)를 걷어 치운다. 【걷어 치우는 것은 변과 두 각각 하나씩을 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등가(登歌)에서 용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다 걷어 치우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헌가(軒架)에서 순안지악(順安之樂)을 연주한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여러 관원은 모두 사배한다. 풍악은 일성(一成)이 되면 그친다. 집례가 ‘망예(望瘞)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하고, 여러 대축이 서반(黍飯)·직반(稷飯)을 취하여 띠[白茅]로서 깔고 비(篚)로 묶고, 축판(祝版)과 폐백을 취하여 각기 그 섬들로 하여 단에 내려와서 구덩이에 둔다. 집례가 ‘묻으라.’ 하면, 흠을 구덩이에 반을 채우는데, 전사관이 감시(監視)한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예(禮)를 마쳤다.’고 아뢰면, 알자와 찬인이 각기 초헌관 이하의 제관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본디 자리로 돌아가고, 찬인은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선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차례로 인도해 나간다. 아악 령(雅樂令)은 공인(工人)과 문무(文舞)·무무(武舞)를 거느리고 나가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사직승(社稷丞)은 신위판(神位版)을 간수

	<p>하고,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 치우고 내려와서 물러나와, 전하에게 복명(復命)한다. 초헌관 이하의 행사한 집사관이 각기 재소(齋所)에 돌아가서 1각(刻) 동안 머무른다. 유사가 노부(鹵簿)를 재방(齋坊) 남문 밖에 진열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초헌관 이하의 행사한 집사관이 외문 밖에 이르러, 차례대로 말에 올라 대궐문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다. 문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서서 전하에게 복명(復命)하고, 사배하고 나서 물러간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세종 57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8월 14일 (경자) 4번째기사 임금이 정척에게 양로연에 서민 남녀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이르다</p>	<p>임금이 정척(鄭陟)에게 이르기를, “양로연(養老宴)에 사대부(士大夫)로서 연로자(年老者)는 참여하게 되는데, 명부(命婦) 연로자(年老者)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 실로 옳지 못하다. 또 양로연이라 이른다면 서민(庶民)의 남녀들도 마땅히 모두 참여해야 될 것이니, 그것을 제조(提調)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부녀로서 연로한 자는 거동하기가 어려우므로 대궐 안에 출입하기가 불편할 것 같사오니, 마땅히 술과 고기를 그 집에 내리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대궐 안에 말을 타고 온 사람도 있었으니 교자(轎子)를 타고 바로 자리에 들어오게 하고, 여중으로 하여금 곁에서 부축하여 모시게 하고, 중궁(中宮)이 친히 나아가서 연회를 베푸는 것이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겠다. 사대부와 명부와 서민의 남녀에게 연향(宴享)하는 의주(儀注)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p>	<p>上謂鄭陟曰：“養老宴，士大夫年老者得與焉，命婦年老者，未得與焉，實爲未便。且謂之養老宴，則庶人男女，當盡得與，其議于提調以啓。”黃喜曰：“婦女年老者，難以舉動，闕內出入，似乎未便，宜賜酒肉於其家。”上曰：“古有騎馬闕內者，乘轎直入於坐，使婢扶侍，中宮親臨以宴，無害於義，其議士大夫與命婦庶人男女宴享，儀注以啓。”</p>
<p>世宗 57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宣德) 7年) 8月 16日</p>	<p>예조에서 아뢰기를, “각 고을의 양로연(養老宴)에 부녀(婦女)들은, 수령과 그의 아내가 친히 보고 접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오니, 관직이 있는 사람의 아내에게는 쌀 1석</p>	<p>禮曹啓：“各官養老宴，婦女則守令及妻，親見饋餉，未便。請有職人之妻，給米一石、酒五瓶；無職人之妻，米一</p>

<p>(壬寅) 3번째기사 예조에서 양로연에서 수령과 그의 아내가 친히 접대하는 것이 마땅치 않음을 아뢰다</p>	<p>과 술 5병을, 관직이 없는 사람의 아내에게는 쌀 1석과 술 3병을 그 집에 주고, 아울러 어육(魚肉)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石、酒三瓶于其家，并分魚肉。”從之。</p>
<p>世宗 57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8月 20日 (丙午) 1번째기사 내관 한용봉에게 명해 술과 과실을 창·장 두 사신에게 주게 하다</p>	<p>내관 한용봉(韓龍鳳)에게 명하여 술과 과실을 가지고 사서 창(昌)·장(張) 두 사신에게 주게 하였다.</p>	<p>丙午/命內官韓龍鳳，齎酒果往贈昌、張兩使臣。</p>
<p>세종 57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8월 21일 (정미) 2번째기사 예조에서 왕비의 양로연 의주를 아뢰다</p>	<p>(전략) 사찬(司贊)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전찬(典贊) 두 사람의 자리를 사찬(司贊)의 남쪽에 설치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상식(尙食)1886 은 준(尊)을 전상(殿上)에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되, 점(坫)을 설치하고 작(爵)을 올려놓는다. 전(殿)에 오 른 사람의 준(尊)은 전계(殿階) 위의 동·서쪽에 북쪽 가까이 설치하고, 전(殿)에 오르지 않는 사람의 준(尊)은 각기 그 자리[座]의 앞에 설치한다. 여러 위(衛)에서 소속을 거느리고 문에 둔치고, 의장(儀仗)을 배열하고, 정문 밖에 포진(布陣)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노부녀들이 시각에 따라 궁문 밖의 자리[次]에 모이면, 상의(尙儀)1887 가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고, 사보(司寶)가 인(印)을 받아들기를 법식대로 하여, 모두 내함(內閣)에 나아가서 받들어 맞이한다. 사악(司樂)이 여공인(女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전악(典樂)이 올라가 휘(麾)를 드는 자리[舉麾位]에 나아간다. 사찬(司贊)이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고, 내전인(內典引)이 노부녀를 인도 하여 모두 정문 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상의(尙儀)가 외관(外辦)을 아뢰어 왕</p>	<p>(전략) 設司贊位於東階東南，西向，典贊二人位於司贊之南差退，俱西向。尙食設尊於殿上近南北向，設坫加爵，設升殿者尊於殿階上東西近北，設不升殿者尊各於其座之前。諸衛勒所部屯門列仗及陳布於正門外如常儀，老婦女等依時刻集到宮門外次。尙儀啓請中嚴，司寶奉印依式，俱詣內閣奉迎。司樂帥女工人入就位，典樂升就舉麾位，司贊先入就位，內典引老婦女俱就正門外位。尙儀啓外辦，王妃出，繖扇侍衛如常儀。王妃將出，典樂舉麾，奏正安之樂，王妃升座，司寶奉印置於座前，有案如常。典樂偃麾，樂止，</p>

비가 나오는데, 산선(緞扇)과 시위(侍衛)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왕비가 장차 나오려 하면 전악(典樂)이 휘(麾)를 들고, 정안지악(正安之樂)을 연주한다. 왕비가 자리에 오르면 사보(司寶)가 인(印)을 받들어 자리 앞에 두는데, 안(案)은 보통 때와 같이 있다. 전악(典樂)이 휘(麾)를 놓혀, 풍악이 그친다. 사빈(司賓)이 노부녀를 인도하여 차례대로 자리에 들어와서 서면, 사찬(司贊)이 ‘재배(再拜)하라.’ 하고, 전찬(典贊)이 이를 받아 찬(贊)한다.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한다. 노부녀가 재배하고 일어나면, 풍악이 그친다. 사언(司言)이 앞으로 나아가서 영을 받고 물러나와, 전계(殿階)에 다달아 동향하여 서서 영을 전하기를, ‘노부녀의 맞이하여 전(殿)에 올라왔다가 시위(侍位)로 돌아간다.’ 하면, 사빈(司賓)이 노부녀로서 마땅히 전(殿)에 오를 사람을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자리에 오르게 하고, 전(殿)에 오르지 못할 사람도 또한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상식(尙食)이 안(案)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하고, 상의(尙儀)가 꽃을 올리고 나면 풍악을 그친다. 노부녀의 탁자(卓子)를 설치하여 꽃을 뿌리고, 상식(尙食)이 첫째 작(爵)에 술을 따르면, 풍악을 연주한다. 왕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자리 앞에 <술잔을> 두고, 또 노부녀(老婦女)의 술을 따라 술잔을 든다. 이를 마치면, 상식(尙食)이 나아가서 빈 작(爵)을 받아서 준소(尊所)에 도로 갖다 둔다. 풍악이 그친다. 상식(尙食)이 밥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한다. 또 노부녀의 밥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한다. 또 노부녀의 밥을 설치하여 다 먹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다음에 술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밥을 올리며, 술잔을 다섯 번 돌리고 그친다. 상식(尙食)이 나아가서 상을 걷어 치우고, 또 노부녀의 탁자를 걷어 치운다. 사빈(司賓)이 전(殿)의 아래 위에 있는 노부녀를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서면, 사찬(司贊)이 ‘재배(再拜)하라.’ 하고, 전찬(典贊)이 이를 받아 찬한다. 풍악을 연주한다. 노부녀가 재배하고 일어나면, 풍악이 그친다. 사빈(司賓)이 노부녀를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상의(尙儀)가 앞으로

司賓承引老婦女以次入就位。 立定，司贊曰：“再拜。” 典贊傳贊，舒安之樂作，老婦女再拜興。 樂止，司言前承令，退臨階東向立，宣令曰：“迎老婦女升殿。” 還侍位。 司賓引老婦女應升殿者，由西階升就座，其不升殿者，亦引就座。 尙食進案，樂作，尙儀進花訖，樂止，設老婦女卓散花，尙食酌酒第一爵，樂作，詣王妃座前北向跪，置于座前，又行老婦女酒。 舉訖，尙食進受虛爵，復於尊所。 樂止，尙食進食，樂作，又設老婦女食，食畢，樂止，次進酒，次進食。 觴行五周訖，尙食進撤案，又撤老婦女卓。 司賓分引老婦女上下，俱復拜位。 立定，司贊曰：“再拜。” 典贊傳贊，樂作，老婦女再拜興，樂止，司賓引老婦女以次出。 尙儀前啓禮畢，遂還侍位。 王妃降座，樂作，還內，緞扇侍衛如來儀。 樂止，老婦女謝恩而退。 從之。

	<p>나아가서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나서 시위(侍位)로 돌아온다. 왕비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풍악을 연주한다. 내전(內殿)으로 돌아가는데 산선(緘扇)과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풍악이 그친다. 노부녀가 사은(謝恩)하고 물러간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世宗 57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宣德) 7年) 9月 19日 (甲戌) 3번째기사 상정소에서 회례악에 대하여 아뢰다</p>	<p>상정소(詳定所)에서 회례악(會禮樂)에 대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 장차 나가매 헌가(軒架)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하고, 왕세자가 절하면 헌가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하고, 왕세자가 헌수(獻壽)하면 헌가에서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연주하고, 여러 신하들이 절하면 헌가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하고, 의정(議政)이 헌수(獻壽)하면 헌가에서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연주하고, 상[案]을 드리면 헌가에서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헌가에서 수보록지악(受寶籙之樂)을 연주한다. 세 번째 술잔[爵]을 드리면 등가【문명지곡(文明之曲)이라 이른다.】에서 문무(文舞)를 시작하여 삼성(三成)이 되어 그치고 나가며, 밥을 드리면 헌가에서 근천정지악(觀天庭之樂)을 연주한다. 네 번째 작(爵)을 드리면 등가(登歌)에서 하황은지곡(荷皇恩之曲)을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헌가에서 해서지악(海瑞之樂)과 개수명명지악(改受明命之樂)을 연주한다. 다섯 번째 작(爵)을 드리면 헌가에서 【무열지악(武烈之樂)이라 이른다.】 무무(武舞)를 시작하여, 이성(二成)이 되어 그치고 나가며, 밥을 드리면 서차호지악(瑞鷓鴣之樂)을 연주한다. 여섯 번째 작(爵)을 드리면 하황은지기(荷皇恩之伎)와 개몽금척지기(改夢金尺之伎)를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수룡음지악(水龍吟之樂)을 연주한다. 일곱 번째 작(爵)을 드리면 포구악지기(拋毬樂之伎)와 개오양선지기(改五羊仙之伎)를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황하청지악(黃河淸之樂)을 연주한다. 여덟 번째 작(爵)을 드리면 아박지기(牙拍之伎)를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만년환지악(萬年歡之樂)을 연주한다.</p>	<p>詳定所啓會禮樂： 殿下將出，軒架《隆安之樂》；王世子拜，軒架《舒安之樂》；王世子獻壽，軒架《休安之樂》；群官拜，軒架《舒安之樂》；議政獻壽，軒架《休安之樂》。進案，軒架《休安之樂》；進食，軒架《受寶籙之樂》。第三爵，登歌【名文明之曲】文舞入作，三成止出。進食，軒架《觀天庭之》樂。第四爵，登歌《荷皇恩之曲》。進食，軒架《海瑞之樂》，改《受明命之樂》。第五爵，軒架【名武烈之樂】武舞入作，(二)[三]成止出。進食，《瑞鷓鴣之樂》。第六爵，荷皇恩之伎，改夢琴尺之伎。進食，《水龍吟之樂》。第七爵，拋毬樂之伎，改五羊仙之伎。進食，《黃河淸之樂》。第八爵，牙拍之伎。進食，《萬年歡之樂》。第九爵，舞鼓之伎。進大膳，《太平年之樂》，仍歌《靖東方之樂》。</p>

	<p>樂)을 연주한다. 아홉 번째 작(爵)을 드리면 무고지기(舞鼓之伎)를 연주하고, 대선(大膳)을 드리면 태평년지악(太平年之樂)을 연주하고, 이내 정동방지곡(靖東方之曲)을 노래한다. 왕세자와 여러 관원이 절하면 헌가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하고, 전하께서 장차 들어가려 하면 헌가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한다.”</p> <p>하니, 이를 예조(禮曹)에 내리게 하였다.</p>	<p>曲》。王世子及群官拜，軒架《舒安之樂》；殿下將入，軒架《隆安之樂》。</p> <p>下禮曹。</p>
<p>世宗 58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10月 20日(乙巳) 1번째기사 임금이 약재를 화매하여 백성의 병을 구제할 것에 관해 이르다</p>	<p>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근신에게 이르기를, “약재(藥材)를 화매(和賣)1940) 하는 일은 이미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바, 우리 나라의 소산(所產)도 이미 족하나, 그러나 당약(唐藥)은 드물고 귀하여 아직도 약을 짓지 못하는 일이 있다. 이제 황제께서 우리를 후례(厚禮)로서 대우하시매 왕래가 끊이지 않으니, 약재를 화매하여 백성의 병을 구제함이 어떨까. 우리 나라와의 매매 행위를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엄금하였으나, 그러나 약재만은 비록 예부(禮部)에 이첩하여 묻는다 하더라도 귀찮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 모든 사기와 백가서(百家書)의 책도 아울러 사들이고자 하나, 오경(五經)과 사서(四書)를 이미 중외에 반포하였으니 어찌 번거로이 주청을 하랴.”</p> <p>하나, 우의정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약의 귀한 것은 비록 청구한다 하더라도 의리에 있어 무방하나이다.”</p> <p>하였다. 임금이 예조 판서 신상(申商)에게 이르기를, “주사(朱砂)와 용뇌(龍腦)는 비록 귀한 약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가서 구하면 오히려 얻을 수 있으나, 침향(沈香)으로 말하면 비록 중국에서라도 쉽사리 얻지 못할 것이다. 지난 번 왜인들이 가져 오는 침향이 흔히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서 값 깎기를 너무 험하게 하였으므로 다시는 가지고 오지 않는다. 침향은 왜(倭)나라에서도 나지 않는지라 널리 다른 나라에서 구하여 가져오는 것</p>	<p>乙巳/受常參，視事。上謂左右曰：“藥材和賣之事，已命承文院提調擬議。我國所產已足矣，然唐藥鮮少，或有未劑者。今皇帝以厚禮待我，往來絡繹，和賣藥材，救民之病何如？我國買賣，中國已曾痛禁，然藥材雖移咨禮部，不以爲瀆，且諸史百家，亦欲并買五經四書，已頒中外，何煩奏請？”</p> <p>右議政權軫啓：“藥之貴者，雖求請，於義無妨。”上謂禮曹判書申商曰：“朱砂龍腦，雖曰貴藥，求之中國，則猶可得也，沈香則雖中國，未易得之。往者倭人齎沈香來者比比有之，我國折價甚輕，故不更齎來。沈香不產倭邦，乃旁求他國而來，雖倍其價可也，禮曹其議以啓。”</p>

	이니, 비록 그 값의 감절을 준다 하더라도 가하니, 예조에서는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世宗 58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12月 3日 (戊子) 3번째기사 창성과 장정안에게 각 각 인삼 30근씩을 주 다	창성(昌盛)과 장정안(張定安)에게 각각 인삼(人蔘) 30근씩을 주었다.	贈昌盛、張定安人蔘各三十斤。
세종 58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12월 9일 (갑오) 4번째기사 상호군 홍사석을 강 계·여연에 보내 접진 했던 상황을 살펴보게 하다	상호군(上護軍) 홍사석(洪師錫)을 강계(江界)·여연(閔延) 지방으로 보내어 접진했던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 전사한 군관(軍官)에게는 각각 미두(米豆) 5석씩, 군졸(軍卒)에게는 3석씩을 내려 주게 하였다.	遣上護軍洪師錫于江界、閔延，審察接戰之狀，賜戰亡軍官各米豆五石，軍卒三石。
세종 59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1월 16일 (경오) 3번째기사 의정부·육조 판서·정초 등을 불러 목척·진부 소·신문고 등에 관해 의논하다	의정부·육조 판서·삼군 도진무·예문관 대제학 정초 등을 불러서 일을 의논하였는데, 그 하나는, “함길도 영북(寧北)에 신설하는 목척(木柵)은 아직 뒷날을 기다려서 돌성[石城]을 쌓을까. 경원에 있는 목척이 오래 되어서 무너졌으니 금년 봄부터 시작해 쌓게 함이 어떨까.” 하니, 맹사성 등이 상교가 지당하다고 하였다. 그 하나는, “태종조에 황엄(黃儼)이 황제의 명을 받아 본국에 연회를 베풀어 주었는데, 엄이 태종께만 술을 돌리고 나머지에게는 술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태종께서	召議政府、六曹判書、三軍都鎮撫、藝文大提學鄭招等議事：其一：“咸吉道寧北新設木柵，姑待後年築石城。慶源木柵，年久頽落，令今春始築何如？”孟思誠等議：“上教允當。”其一：“在太宗朝，黃儼受命，賜宴本國。儼行酒於太宗而已，餘不行酒，太宗請之，然後乃行酒。是則中朝賜

	<p>청한 뒤에야 술을 돌렸으니, 이는 중국 조정에서 술을 내려 주는 법이 위하는 손님에게만 돌리는 것이다. 윤봉(尹鳳)이 또 말하기를, ‘본국 사람에게 술을 내려 줄 적에, 내려 주는 술을 가진 사람은 서서 주고, 받아 마시는 사람은 꿇어앉아 받는 것이 예(禮)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중국 조정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술을 돌리는 예(禮)가 있으므로, 내가 사신의 위연(慰宴) 때와 선위사(宣慰使)의 술을 돌리는 절차에서 술을 주는 사람은 서서 주고, 받아 마시는 사람은 꿇어앉아 마시게 함이 어떨까.”</p> <p>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모두 옳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주는 사람은 서서 주고, 받아 마시는 사람은 엎드려서 술을 받고, 일어나 서서 사신에게 청하고는 물러나서 마실 것이다.”</p> <p>하였다. (후략)</p>	<p>酒之法，只行於爲客而已。 今尹鳳又曰：‘賜酒本國之人，持賜酒者立授，飲者跪受，禮也。’ 以此觀之，則中朝亦有行酒他人之禮。 予於使臣慰宴時及宣慰使行酒節次，賜酒者立授，飲者跪受，何如?’ 僉議皆可。 上曰：“賜酒者立授，飲者俛伏受酒，而立請於使臣，退跪而飲。” (후략)</p>
<p>세종 59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2월 9일 (계사) 4번째기사 성균 사예 김반이 문묘의 동·서무와 제례와 반궁 등에 관해 상언하다</p>	<p>(전략) 1. 석전제(釋奠祭)의 성생(省牲)2026)·할생(割牲)2027) 하는 곳은 깨끗하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곳이 여리(閭里)와 가까우며, 원장(垣牆)도 없고 옥우(屋宇)도 없어서, 항상 닭·개·말·소 등이 더럽혀서 그 부정(不淨)함이 심합니다. 원컨대 집을 지어 주소(廚所)를 만들고 닭을 돌려서 그곳을 정(淨)하게 할 것입니다. (후략)</p>	<p>(전략) 一。 釋奠祭省牲割牲之處，不可不淨，今其處隣於閭里而無垣牆無屋宇，常爲雞犬牛馬之所汚，其爲不淨甚矣。 乞築室爲廚所，繚以垣牆，以淨其處。 (후략)</p>
<p>世宗 59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宣德) 8年) 3月 22日 (乙亥) 2번째기사 집현전 부제학 이선을 보내어 북정의 장졸에게 교서를 반포하다</p>	<p>(전략) 1. 대소(大小) 군사와 장수들이 술을 마시되, 취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고, 적당하게 술기운이 나도록 할 따름이며, 술을 마시고 기운을 쾌하게 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라.”</p> <p>하였다. (후략)</p>	<p>(전략)1. 대소(大小) 군사와 장수들이 술을 마시되, 취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고, 적당하게 술기운이 나도록 할 따름이며, 술을 마시고 기운을 쾌하게 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라.”</p> <p>하였다. (후략)</p>

<p>세종 59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3월 27일 (경진) 1번째기사 진위 지경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다. 경기 감사 남지와 경력 황수신이 하직을 고하다</p>	<p>진위(振威) 지경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였다. 경기 감사 남지와 경력 황수신은 하직을 고하고, 충청 감사 조종생(趙從生)·경력 이중(李重)·직산 현감 유형(柳衡)이 경상(境上)에서 받들어 맞이하고, 직산현 수혈원(愁歇院) 앞 평지에 차소를 정하였다. 조종생이 인해 토산물을 올리고 또 술과 안주를 올리니, 대소 신료(大小臣僚)들과 군사(軍士)들까지 나누어 내려 주었다.</p>	<p>庚辰/觀放鷹于振威之境，京畿監司南智、經歷黃守身辭，忠清監司趙從生、經歷李重、稷山縣監柳衡，奉迎境上。次于稷山縣愁歇院前平，趙從生仍進方物，又進酒饌，分賜大小臣僚，至于軍士。</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4月 7日 (庚寅) 1번째기사 온수현의 빈궁한 사람에게 곡식을 하사하다</p>	<p>온수현의 빈궁한 사람 76명에게 벼와 콩 각 1석씩, 나이 80이상인 곤궁한 백성 9명에게 벼 2석과 콩 1석씩, 나이 70이상인 곤궁한 백성 18명에게 벼와 콩 각 1석씩을 하사하고, 또 감사에게 명하여 토지가 행궁(行宮) 근처에 있어서 농사를 짓지 못한 자에게는 그 결복(結卜)의 수(數)로 값을 주게 하였다.</p>	<p>庚寅/賜溫水縣貧窮人七十六名人租豆各一石，年八十以上窮民九名人租二石、豆一石，年七十以上窮民十八名給租豆各一石。又命監司，田在行宮近地未耕者，以其結卜之數，賜直有差。</p>
<p>세종 60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4월 14일 (정유) 1번째기사 아산현의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물건을 차등있게 하사하다</p>	<p>아산현에 사는 94세의 늙은 할머니가 마떡[薯] 한 동이를 올리니, 내정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면포 두 필, 술 열 병 및 잡물을 하사하였다. 이 뒤에도 근방에 있는 노인들이 와서 채소를 올리자, 모두 음식을 먹이고 물건을 차등있게 하사하게 하였다.</p>	<p>丁酉/牙山縣九十四歲老嫗進薯蕷餅一盆，命饋于內庭，賜綿布二匹、酒十瓶及雜物。是後旁近老人來進菜蔬，皆命饋賜物有差。</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4月 15日 (戊戌) 2번째기사</p>	<p>사헌부에 전지하기를, “금년 6월 20일부터 금주를 시작하되, 그 중에 취하도록 마시지 아니한 자와, 약을 먹기 때문에 부득이 술을 마시는 자에게는 정상의 경중을 참작하여 벌을 감하고, 정상이 아주 가벼운 것과 사정이 딱한 자는 죄주지 말라.”</p>	<p>傳旨司憲府曰： 今六月二十日始禁酒，其中飲不至醉者及因服藥等故不得已用酒者，姑量情狀輕重，末減施行。其情狀最輕及情可</p>

<p>사헌부에 금년 6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금주에 관하여 전지하다</p>	<p>하였다.</p>	<p>矜者，勿罪之。</p>
<p>세종 60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4월 26일 (기유) 3번째기사 예조에서 새 문소전의 상식은 예전 문소전의 예대로 할 것을 아뢰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에 문소전(文昭殿)에 상식(上食)할 때에는 상에 반찬을 차려서 올렸고, 광효전(廣孝殿)에는 먼저 빈 상을 올리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새 문소전 상식은 예전 문소전의 예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前此文昭殿上食，則設饌具於案而進之，廣孝殿則先進空案而設饌具，新文昭殿上食，依舊文昭殿例。” 從之。</p>
<p>세종 60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2일 (갑인) 1번째기사 예조에서 문소전 이안 의주에 관해 아뢰다</p>	<p>(전략) 그 날,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 오른쪽에 놓고, 향로·향합 및 촛대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 제기에 제물을 담고, 준(尊)을 문밖 왼쪽에 설치한다. 이것이 끝난 다음 봉영관(奉迎官) 이하 여러 집사가 각각 제복을 입고 손을 씻고 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전정(殿庭)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뒷자리로 삼아 사배하고 나서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 및 신위관에 글씨를 쓸 관원과 전사관, 집사들을 인도하여 배위에 들어와 서는데,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뒷자리로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 모두 네 번 절한 후 각각 제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한다. 봉영관이 네 번 절하고 나면,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탁자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대축이 태조의 신위관 궤를 받들고 들어와서, 궤를 열고 신위관을 내어 탁상에 눕혀 놓는다. 신위관을 쓸 관원이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동계로 올라가서 탁자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서, ‘유명 증시 강헌 태조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有明贈諡康獻太祖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이라고 먹으로 쓴 다음 광칠(光漆)로 여러</p>	<p>(전략) 其日，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訖，奉迎官以下諸執事，各具祭服盥洗訖，謁者贊者先就殿庭，北向西上四拜訖就位。謁者引監察及題神主位版官典祀官諸執事，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各就位。謁者引奉迎官入就位西向立，贊者曰：“四拜。”奉迎官四拜訖，謁者引奉迎官詣卓南北向立。大祝奉太祖神位版匱以入，開匱奉出神位版，臥置卓上。題神位版官詣盥洗位盥洗訖，升自東階，詣卓前西向立，題云：“有明贈諡</p>

번 칠한다. 【떡 글씨가 마르기를 기다려서 거듭 칠한다.】 대축이 신위판을
 궤 안에 넣고, 다음에 궁위령(宮闈令)이 왕후의 신위판 궤를 받들고 들어와
 서, 궤를 열고 신위판을 내어 탁자 위에 눕혀 놓는다. 신위판을 쓰는 관원이
 떡으로 ‘승인 순성 신의 왕후(承仁順聖神懿王后)’라고 쓰고, 광칠로 거듭 칠하
 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궁위령이 신위판을 궤안에 넣은 다음,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을 받들고 초상화 앞에 남향으로 모신다. 【욕석(褥席)이
 있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유사가 제찬을
 다 차리면,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
 으로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
 는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끓어얹아 홀(笏)을 꺾으라.’고 찬한다. 봉영관이 끓어얹아 홀을 꺾는다. 집사
 자 한 사람은 향합(香合)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
 (三上香)하라.’ 찬한다. 봉영관이 세 번 향을 올리면, 집사자가 향로를 상에
 놓는다. 【향합을 받드는 사람은 봉영관의 오른쪽에 있고, 향로를 드리는 사람
 은 봉영관의 왼쪽에 있다. 술잔을 주는 사람과 술잔을 드리는 사람도 이에 준
 한다.】 집사자가 봉영관에게 술잔을 주면, 봉영관이 술잔을 잡아서 올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놓는다. 또 집사자가 다음 술잔을
 봉영관에게 주면, 봉영관이 술잔을 잡아서 올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서 왕후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얹으라.’고 찬하면, 대축(大祝)이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끓어얹아 축문을 읽는다. 그것이 끝나면, 알자가 ‘부복,
 흥, 재배, 흥, 평신’이라 찬한다. 봉영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
 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사배하라.’ 찬하면, 봉영관이 네 번 절한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나가서 옷을 벗고, 대문 밖 길 동쪽에 나아가 서향하여 봉

康獻太祖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
 墨書訖，以光漆重模之，【待墨書乾重
 模】大祝奉神位版，安于匱中。次宮
 闈令奉王后神位版匱以入，開匱奉出神
 位版，臥置卓上，題神位版官題云：
 “承仁順聖神懿王后。”墨書訖，以光
 漆重模之，降復位。宮闈令奉神位版，
 安于匱中訖，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安
 于(晬) [晬] 容前【有褥席】南向，謁
 者引奉迎官，降復位。有司進饌訖，
 謁者引奉迎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
 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
 酒。謁者引奉迎官入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奉迎官跪搯笏。執事者一
 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
 香，奉迎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
 【奉香在奉迎官之右，奠爐在奉迎官之
 左。授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
 授奉迎官，奉迎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
 奠于神位前。又執事者以副盞授奉迎
 官，奉迎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
 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
 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再拜興平
 身，奉迎官俯伏興再拜興平身，謁者引

영한다. 알자가 감찰과 신위관에 글씨 쓴 관원, 전사관(典祀官) 및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拜位)에 돌아오면, 찬자가 ‘사배하라.’ 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나면, 알자가 차례로 인도해 나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신위관을 거두어 들이면, 알자와 찬자가 배위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소속을 거느리고 제물을 거두고 축판(祝版)을 구덩이에 묻는다. 태조의 신위관이 새 문소전에 나아갈 적에 하루 앞서, 상연(尙輦)【병조 승여사(乘輿司).】에서 상로(象輅)·염적(厭翟)·요여(腰輿)·향정자(香亭子)·의장(儀仗) 등을 구 문소전 대문 밖에 갖다 놓는다. 그날, 동가(動駕)를 고하는 제사를 마치고, 유사는 옥위(褥位) 둘을 전상(殿上) 중문 밖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집사자는 요여 둘을 옥위 위에 놓는데, 【태조의 요여는 서쪽에 두고 왕후의 요여는 동쪽에 둔다.】 산·선이 들어와 전정 좌우에 벌여 선다. 또 옥위 둘을 대문 밖에 설치하고, 상로와 염적을 그 앞에 남향으로 놓으며, 【상로는 오른쪽에 있고, 염적은 왼쪽에 있다.】 의장과 악부(樂部)는 그 남쪽에 선다. 시간이 되면 섭(攝)판통례가 태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아뢰기를, ‘자리에서 내려 요여를 타고 새 문소전에 나아가소서.’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면, 대축이 태조의 신위관 궤를 받들어서 요여에 모시고, 그 다음 궁위령이 왕후의 신위관 궤를 받들어 요여에 모신다. 대축은 태조의 초상화를 걷고, 궁위령은 왕후의 초상화를 걷어서 각각 함에 넣어 자리에 놓는다. 【종부시(宗簿寺) 관원은 신위관 요여가 대문에 나간 뒤 요여 둘에 초상화를 모시어 선원전(璿源殿)에 간직한다.】 집사자가 신여(神輿)를 메고 나오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붙들어 모시고 상로와 염적 뒤에 있는 옥위 위에 놓는다. 섭판통례가 태조의 신여(神輿) 앞에 꿇어앉아 여(輿)에서 내려 노(輅)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대축이 태조의 신위관 궤를 받들어 노 위에 옮기고, 다음에 궁위령이 왕의 신위관 궤를 받들어 염적 위에 옮긴뒤, 천우 장군(千牛將軍)이 노를 양쪽에서 모시고 간

奉迎官，降自東階復位。贊者曰：“四拜。”奉迎官四拜。謁者引奉迎官出釋服，就大門外道東西向奉迎。謁者引監察及題神位板官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謁者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神位板，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率其屬徹禮饌，祝版瘞於坎。太祖神位版詣新文昭殿：前一日，尙輦【兵曹乘輿司】進象輅、厭翟、腰輿、香亭子、儀仗〔仗〕於舊文昭殿大門外。其日，告動駕，祭畢，攸司設褥位二於殿上中戶外南向。執事者以腰輿二置於〔於〕褥位上。【大祖輿在西，王后輿在東。】緞扇入陳於殿庭左右，又設褥位二於大門外，置象輅厭翟於其前南向，【象輅在右，厭翟在左。】儀仗樂部立於其南。時至，攝判通禮入詣太祖神位前，跪啓請降座乘輿，詣新文昭殿，啓訖，俯伏輿退。大祝奉太祖神位版置，安於輿上。次宮闈令奉王后神位版置，安於輿上。大祝撤太祖睟容，宮闈令撤王后睟容，各至于函，置于座。【宗簿寺官員待神位版腰輿出大門，以要輿二，奉安睟

다. 【태조의 노(輅)가 앞에 가고, 왕후의 엄적이 그 다음에 가는데, 각각 의장과 악부가 따른다.】 섭관통례가 노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조금 머물러서 봉연관에게 말을 타라고 명령하소서.’ 하고 아뢴 다음, 봉연관이 말에 올라 앞을 인도하고, 섭관통례가 꿇어앉아 노가 떠나기를 계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노가 진발(進發)하면 고취(鼓吹)를 올린다. 경복궁 광화문 밖 봉영소(奉迎所)에 이르러 봉영관이 말에서 내린다. 상로와 엄적이 이르면, 군관(群官)들은 몸을 굽혔다가 지나간 뒤 바로 선다. 상로와 엄적이 가까이 오게 되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봉영하는 자리에 나아가간다. 상로와 엄적이 도착하면, 판통례가 국궁할 것을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몸을 굽힌다. 상로와 엄적이 지나가면, 판통례가 몸을 바로 할 것을 아뢰어 전하가 몸을 바로 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대차(大次)에 돌아와 태종의 상로가 이르기를 기다린다. 태조의 상로가 광화문에 이르면 상로를 돌려서 남향하게 하고, 상연(尙輦)에서 상로와 엄적 뒤에 있는 옥위 위에 올려놓는다. 【유사가 임시하여 옥위 둘을 마련한다.】 섭관통례가 상로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상로에서 내려 요여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궤를 받들고 요여 위에 옮겨 모시기를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신여가 새 문소전 남문에 이르면, 고취를 그친다. 좌우로 나누어 【의장 등은 모두 문소전 남문 밖에 좌우로 벌여 서 있다가, 안신제(安神祭)를 마친 다음 물러간다.】 신여가 정문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길을 지나 전상(殿上)의 중문 밖 옥위 위에 이르면, 【유사가 임시(臨時)하여 옥위 둘을 마련한다.】 섭관통례가 신여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요여에서 내려 좌(座)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궤를 받들어서 좌석에 남향으로 모시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산·선과 화개를 받들어 신좌(神座) 앞 좌우에 설치하고, 요여는 동계로 내려와 동문으로 나가

容, 藏于璿源殿。】執事者奉昇神輿而出, 大祝宮闈令各扶侍, 至象輅厭翟後褥位上小駐。攝判通禮詣太祖輿前跪, 啓請降輿升輅, 啓訖俯伏興退。大祝奉太祖神位版匱升輅, 次宮闈令奉王后神位版匱升厭翟, 千牛將軍夾輅而趨。

【太祖輅先行, 王后厭翟次之, 各有儀仗樂部。】攝判通禮進當輅前跪, 啓請輅小駐, 教奉迎官上馬, 啓訖, 奉迎官上馬前導。攝判通禮跪, 啓請輅進發, 啓訖俯伏興退。輅進發, 鼓吹振作, 至景福宮光化門外奉迎所, 奉迎官下馬。輅及厭翟至, 群官(鞫)〔鞠〕躬, 過則平身。輅及厭翟將至, 判通禮導殿下, 就奉迎位, 輅及厭翟至, 判通禮啓鞠躬, 殿下鞠躬, 輅及厭翟過, 判通禮啓平身, 殿下平身。判通禮導殿下還入大次, 以俟太宗象輅至。太祖輅至光化門, 回輅南向, 尙輦以腰舉進輅及厭翟後褥位上。【攸司臨時設褥位二】攝判通禮進當輅前跪, 啓請降輅乘輿, 啓訖俯伏興退。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 安於輿上如前儀。神輿至新文昭殿南門, 鼓吹止, 分左右。【其儀仗等, 竝於殿南門外左右列立, 以俟

고, 대축과 궁위령은 동계로 내려와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서서 태종 신위판의 부사(祀祀)를 기다린다.

광효전(廣孝殿)에서 태종의 신위판을 문소전으로 이안(移安)하는 것을 고하는 의식은 태조의 이안 의식과 같고, 동가(動駕)를 고하는 의식도 태조의 의식과 같은데, 다만 신위판에 쓰는 절차만 없다. 태종 신위판이 문소전에 나아가는 의식은 태조 신위판이 새 문소전에 나아가는 의식과 같다. 【다만 초상화를 걷는 절차가 없고, 고취는 대문에 이르러 그치고, 좌우에 나누어 있는 의장 등은 모두 대문 밖에 이르러 좌우에 벌여 섰다가, 안신제를 마친 다음 물러간다.】 처음 충호위에서 태종 신위판이 입시로 머물 악차(幄次)를 새 문소전 남문 밖 길 서쪽에 동향으로 마련하고, 유사가 상석(床席)과 옥위 둘을 악차 안에 설치한다. 신여가 전(殿)의 남문 밖 악차 앞에 이르면, 섭판통례가 태조의 신여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요여에서 내려 악차에 들어갈 것을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궤를 받들어 악좌(幄座)에 모시고, 【태종 신위판 궤는 북쪽에 두고, 왕후의 신위판 궤는 남쪽에 둔다.】 산·선은 악차 앞에 벌인다. 대축과 궁위령이 동계로 올라와 태조실에 나아가서, 대축은 궤를 열고 태조의 신위판을 받들어 내어 좌(座)에 안치하고, 【서쪽에 둔다.】 다음 궁위령이 궤를 열고 왕후의 신위판을 받들어 내어 좌에 안치하고는 【동쪽에 둔다.】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함께 물러나와 자리로 돌아온다. 섭판통례가 태종의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아뢰기를, ‘좌에서 내려 요여를 타고 부알(祀謁)하소서.’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대축이 태종의 신위판 궤를 요여에 모시고, 궁위령이 왕후의 신위판 궤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나서, 구부렸다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섭판통례가 앞을 인도하여 전(殿) 남문에 이르면, 산·선은 문밖에 멈추어 벌여 둔다. 【시위(侍衛)하는 관리는 모두 물러간다.】 집사자 【내시별감(內侍別監).】 가 신여를 모시고 정문(正門)으로 들어가서 부알하는 옥위

安神祭畢退。】神輿入自正門，由中道至殿上中外戶褥位上，【攸司臨時設褥位二。】攝判通禮進神輿前跪，啓請降輿升座，啓訖俯伏興退。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置，安於座南向，以西爲上。殿司帥其屬奉扇蓋，設於神座前左右，腰輿降自東階，由東門出。大祝宮闈令，降自東階近東西向立，以俟太宗神位版附廣孝殿。告移安文昭殿儀，與太祖移安儀同，告動駕，與太祖告動駕儀同，唯無題神位版之節。太宗神位版詣文昭殿，與太祖神位版詣新文昭殿儀同。【唯無徹睟(谷)〔容〕之節，其鼓吹至大門而止，分左右。儀仗等，竝於大門外左右列立，俟安神祭畢退。】初，忠扈衛設太宗神位版、權駐幄次於新文昭殿南門外道，西東向，攸司設床席褥位二於幄內。神輿至殿南門外幄前，攝判通禮詣太宗輿前跪，啓請降輿入幄，啓訖俯伏興退。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置，安於幄座，【太宗神位版置在北，王后神位版置在南。】繖扇列於幄前。大祝宮闈令升自東階，詣太祖室，大祝開置，奉出太祖神位版設於座，【在西】次宮闈令開置，奉出

에 이르면, 【유사가 임시하여 옥위(褥位) 들을 전정(殿庭) 한가운데 북향으로 마련하고, 태종 신위판 케는 서쪽에 두고, 왕후의 신위판 케는 남쪽에 둔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케를 받들어 옥위에 놓고 케를 열면, 대축이 태종의 신위판을 받들어 내고, 다음으로 궁위령이 왕후의 신위판을 받들어 낸다. 섭판통례가 옥위의 서쪽에 나아가서 북쪽으로 향하여 꿇어앉아서 아뢰기를, ‘지금 길한 때에 태종 공정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과 창덕 소열 원경 왕후(彰德昭烈元敬王后)를 부알(祔謁)합니다.’ 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조금 있다가 섭판통례가 옥위의 서쪽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서 좌(座)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대축과 궁위령이 옥위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각각 신위판을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그 케의 뚜껑도 요여 위에 뒤로 가까이 놓는다.】 가운데 계단으로 올라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인도하여 동쪽 문밖 옥위 위에 이르면, 【유사가 임시로 옥위 들을 마련한다.】 각각 신위판을 받들어 좌에 모시되, 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요여는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 동쪽 문으로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태조실과 태종실에 나아가서 신위판을 거두어 들고 물러나온다. 처음에 태종의 신여가 광화문에 들어오면, 판통례가 대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여를 타고 소차(小次)로 나가소서.’ 하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여에 오르는데, 산·선과 화개의 시종(侍從)은 보통 때와 같다. 새 문소전 대문 밖에 이르러 소차에 들면, 시위하는 관원의 시위도 보통 때와 같다. 태종 신위판의 부알례(祔謁禮)가 끝나고 나면, 판통례가 소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여를 타고 임시로 재전에 나아가소서.’ 하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여를 타고, 판통례가 앞을 인도하여 임시로 재전에 나아간다. 산·선과 화개의 시위는 보통과 같다. 안신제(安神祭)의 의식은, 재계(齋戒)를 제사전 3일 동안 하되, 전하는 산재(散齋)를 2일, 치재(致齋)를 1일 한다. 산재에는, 조상(弔喪)하지 아니하고, 문

王后神位版設於座, 【在東】俯伏興俱退復位。攝判通禮進當太宗幄前跪, 啓請降座乘輿祔謁, 啓訖俯伏興。大祝奉太宗神位版置安于輿, 宮闈令奉王后神位版置安于輿訖, 俯伏興退。攝判通禮前引至殿南門, 繖扇停列於門外。【侍衛官吏, 皆退。】執事者【內侍別監】陪神輿, 入自正門至祔謁褥位, 【攸司臨時設褥位二於殿庭當中北向, 太宗神位版置在西, 王后神位版置在東。】(闈)大祝宮闈令各奉置, 安於褥位開置, 大祝奉出太宗神位版, 次宮闈令奉出王后神位版訖, 攝判通禮進褥位, 西北向跪啓稱: “今以吉辰, 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彰德昭烈元敬王后祔謁。”啓訖, 俯伏興退。小頃, 攝判通禮進褥位之西, 東向跪, 啓請升座, 啓訖俯伏興退。大祝宮闈令進跪於褥位, 各奉神位版安於輿, 【其置蓋, 亦置輿上近後。】升自中階, 大祝宮闈令奉引至東戶外褥位上, 【攸司臨時設褥位二】各奉神位版, 安於座西向, 以北爲上。腰輿降自東階, 由東門出, 大祝宮闈令詣太祖室、太宗室, 納神位版乃退。初, 太宗神輿入

병하지 아니하며,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유사는 형살 문서(刑殺文書)를 아뢰지 아니하며, 치재에는, 오직 제사에 관한 일만 아된다. 제사 일을 맡은 집사관(執事官)과 근시관(近侍官)으로 반드시 따라올 사람은 모두 산재 2일, 치재 1일을 행한다. 산재에는 일은 여전히 하되, 다만 술을 많이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달래 등을 먹지 아니하고, 조상과 문병을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의 판결과 서명(署名)을 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치재에는 오직 제사일만 행한다. 이미 재계를 하고서 꺾(闕)한 사람이 있게 되면 대리를 통하여 행사한다. 배제(陪祭)하는 종실 및 문무 여러 관원과, 모든 시위하는 무리와, 전문을 수위하는 자 및 공인들은 모두 청재(淸齋)로서 하룻밤을 지낸다. 【향관(享官) 이하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제사하기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제사 준비는 그날 하되, 태종 신위관의 부알레를 마친 다음, 전악(典樂)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악부(樂部)를 두 곳에 설치한다. 하나는 전상(殿上)에 두고, 하나는 전정(殿庭)의 서쪽 가까이 두되, 모두 북향으로 한다. 통례문이 전하의 판위(版位)를 동쪽 계단 동남편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의 자리는 전하의 판위 뒤에 남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통찬 두 사람의 자리는 동쪽 계단 서편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만약 내정(內庭)이 협착하면 외정(外庭)의 통찬 계단 서남편에 서향으로 마련 한다.】 전악의 자리는 악부의 북쪽에 북향으로 마련하고, 배제하는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마련하되, 문관 1품 이하는 길 동쪽으로 하고, 종실 및 무관 1품 이하는 길 서쪽으로 하여,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 하고 겹줄로 북향하게 하되, 상대하여 윗자리로 한다. 【종실 각품의 반두(班頭)는 따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大君)은 특별히 정1품 앞에 자리에 배운다.】 감찰 두 사람의 자리는 문무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서리가 각각 그 뒤에 배중한다. 구덩이는 후전(後殿) 북쪽 임방(壬方)에 파되,

光化門，判通禮進大次前跪，啓請乘輿詣小次，殿下乘輿，繖扇華蓋侍從如常。至新文昭殿大門外入小次，侍衛之官侍衛如常。待太宗神位版附謁禮訖，判通禮進小次前跪，啓請乘輿，權就齋殿。殿下乘輿，判通禮前導，權就齋殿，繖扇華蓋侍衛如常。

安神祭儀：

齋戒：前享三日，殿下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不弔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事。凡行事執事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二日，致齋一日。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陪祭宗室文武群官諸侍衛之屬守衛殿門者及工人，俱淸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陳設：其日，太宗神位版附謁禮訖，典樂率其屬設樂部二，一於殿上，一於殿庭近西，俱北向。通禮門設殿下版位於東階東南，西向，設亞獻官終獻官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西向北上，設通贊二人位於東

깊이는 물건이 넉넉히 들어가게 파고 남쪽으로 섬돌을 낸다. 교서관의 관원이 축관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이 전해 받아서 전하께 올리고, 전하의 서압(署押)이 끝나면, 근신이 받들고 나와서 전사(殿司)에게 전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祝版)을 하나씩 각실(各室)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각각 점(坵)이 있다.】 향로·향함을 초와 함께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담을 제찬을 설치하고, 준(尊)을 각실 문 밖에 왼쪽으로 설치하고, 복주잔(福酒盞) 하나를 태조실의 준소(尊所)에다 둔다. 행례할 시각이 되면,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다 담는다. 모든 향관(享官)과 배제(陪祭)하는 종실 및 문무 여러 관원들은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가고, 전악(典樂)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배제하는 종실 및 문무 여러 관원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아헌관·종헌관이 관세를 마치면, 봉례랑이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태조실에 나아가서 궤를 열고 신위판을 받들어 내어 좌(座)에 모시고, 【태조 신위판은 대축이 받들어 내고, 왕후의 신위판은 궁위령이 받들어 낸다.】 다음으로 태종실에 나아가서 신위판을 받들어 내는 것은 태조실의 의식과 같다. 판통례가 꿇어앉아서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아뢰면, 전하가 관세를 하고, 이를 마치면, 찬례(贊禮)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간다. 【시위하는 사람으로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문밖에서 정지한다.】 풍악을 연주한다. 【전정악(殿庭樂).】 전하가 판위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면, 풍악을 그친다. 찬례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계청(啓請)하면, 전하는 몸을 굽혔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통찬이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혔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階之西，西向，【若內庭狹窄，則設於外庭東階西南，西向。】設典樂位於樂部之北，北向，設陪祭宗室及文武群官位於外庭，文官一品以下於道東，宗室及武官一品以下於道西，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宗室，每品班頭別設位；大君，特設位於正一品之前。】設監察位二於文武班後、北向，書吏各陪其後。開壑坎於後殿之北壬地方，深取足容物，南出陞。校書官員以祝版奉進，近臣傳奉以進，殿下署訖，近臣奉出付殿司。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各一於各室神位之右，【各有坵】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之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各室戶外之左，設福酒盞一於太祖室尊所。行禮：時至，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宗室文武群官，皆就殿門外，典樂帥工人入就位，奉禮郎分引陪祭宗室及文武群官入就位。亞獻官終獻官盥帨訖，奉禮郎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大祝宮闈令詣太祖室開匱，奉出神位版設於座，【太祖神位版，大祝奉出；王后神位版，宮闈令出奉。】次詣太宗室，奉出神位

전하를 인도하여, 풍악【전정악.】을 연주한다. 동계로 다 올라가면, 풍악을 그친다. 태조실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풍악【전정악.】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근시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중문으로 들어와서 태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꿨어앉으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꿨어앉는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꿨어앉아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꿨어앉아서 올린다. 찬례가 ‘삼상향(三上香)하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세 번 향을 올리고, 근시가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향합을 올리는 이는 동쪽에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서쪽에서 동향한다. 술잔을 올리는 이와, 술잔을 드리는 이도 이와 같이 한다.】 근시 한 사람이 술잔을 받들어 꿨어앉아서 올리면, 찬례가 ‘잔을 받아서 잔을 드리라.’고 계청한다. 전하가 술잔을 받아서 드리되,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서 태조의 신위 앞에 올리고, 또 근시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받들어 꿨어앉아서 올리면, 찬례가 ‘잔을 받아서 드리라.’고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술잔을 잡아서 드리되,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찬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꿨어앉으라.’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꿨어앉고, 풍악을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꿨어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풍악을 연주한다. 찬례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계청(啓請)하여,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문으로 나가서 태종실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풍악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근시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태종실 신위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서면, ‘꿨어앉으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꿨어앉는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어 꿨어앉아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꿨어앉아서 올린다. 찬례가 ‘삼상향하라.’

版, 如太祖室儀。判通禮跪啓外辦, 殿下盥帨訖, 贊禮導殿下, 入自東門, 【侍衛不應入者, 止於門外。】樂作, 【殿庭樂】殿下至版位西向立, 樂止, 贊禮啓請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殿下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通贊贊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贊禮導殿下, 樂作。【殿庭樂】升自東階訖, 樂止。詣太祖室尊所西向立, 樂作, 【殿庭樂】執尊者酌酒, 近侍二人以盞受酒。贊禮導殿下, 由中戶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 啓請跪, 殿下跪, 近侍一人奉香合跪進, 近侍一人奉香爐跪進, 贊禮啓請三上香, 殿下三上香, 近侍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 奠爐在西東向。進盞奠盞, 準此。】近侍一人奉盞跪進, 贊禮啓請執盞獻盞, 殿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太祖神位前。又近侍一人以副盞跪進, 贊禮啓請執盞獻盞, 殿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王后神位前。贊禮啓請俯伏興小退北向跪, 殿下俯伏興小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 東向跪讀祝文訖, 樂作, 贊禮啓請俯伏興拜

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세 번 향을 올리면, 근시는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향함을 올리는 이는 남쪽에서 북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북쪽에서 남향한다. 술잔을 올리고 드리는 이도 이와 같이 한다.】 근시 한 사람이 술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찬례가 ‘잔을 받아서 헌작하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술잔을 받아서 근시에게 주어 태종 신위 앞에 드리고, 또 근시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꿇어앉아 올리면, 찬례가 ‘술잔을 받아서 헌작하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술잔을 받아서 드리되,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올린다. 찬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향하여 꿇어앉으시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향하여 꿇어앉고, 풍악을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남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풍악을 연주한다. 찬례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문에서 나와, 음악【전정악(殿庭樂).】을 연주한다.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풍악을 그친다. 봉례랑이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봉례랑은 계단 밑에서 정지한다.】 태조실의 준소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풍악【전정악.】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아헌관이 중문으로 들어가서 태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고,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받아서 드리되, 집사자에게 주어서 태조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받아서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 신위 앞에 드린다. 아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문으로 나와 태종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풍악을 시작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

興拜興平身， 殿下俯伏興拜興拜興平身。 樂止， 贊禮導殿下出戶， 詣太宗室尊所西向立， 樂作， 執尊者酌酒， 近侍二人以盞受酒。 贊禮導殿下， 由東戶入詣太宗神位前， 東向立， 啓請跪， 殿下跪， 近侍一人奉香合跪進， 近侍一人奉香爐跪進， 贊禮啓請三上香， 殿下三上香， 近侍奠爐于案。 【進香在南北向， 奠爐在北南向。 進盞奠盞準此。】 近侍一人奉盞跪進， 贊禮啓 [請] 執盞獻盞， 殿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太宗神位前。 又近侍一人以副盞跪進， 贊禮啓請執盞獻盞， 殿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王后神位前。 贊禮啓請俯伏興拜興拜興平身， 殿下俯伏興拜興拜興平身。 樂止， 贊禮導殿下出戶， 樂作， 【殿庭樂】 降自東階復位。 樂止， 奉禮郎引亞獻官， 升自東階， 【奉禮郎止於階下。】 詣太祖室尊所， 西向立， 樂作， 【殿庭樂】 執尊者酌酒， 執事者二人以盞受酒。 亞獻官由中戶， 入詣太祖神位前北向跪， 執事

다. 아헌관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태종의 신위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 앉고,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 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종의 신위 앞에 드리고,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아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문으로 나와 동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봉례랑이 중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집사자가 음복위를 앞 기둥 밖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고, 대축이 태조실의 준소 앞에 나아가 술잔에 복주(福酒)를 쳐서 근시에게 준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풍악【전정악.】을 연주한다. 동계로 올라와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근시가 술잔을 받들어 북향으로 꿇어앉아서 술잔을 올린다. 찬례가 ‘꿇어앉아 술잔을 받으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꿇어앉아 술잔을 받아서 마시고, 근시가 빈 술잔을 받아서 준소에 도로 놓는다. 찬례가 ‘부복, 흥, 평신’이라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풍악을 그친다. 찬례가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혔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몸을 굽혔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예식 마친 것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으

者一人，以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祖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亞獻官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樂止，出戶詣太宗室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亞獻官由東戶入詣太宗神位前東向跪，執事者一人以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宗神位前，執事者一人以副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亞獻官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樂止，出戶降自東階復位。奉禮郎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太祖室尊所，以盞酌福酒授近侍，贊禮導殿下，樂作，【殿庭樂】升自東階，詣飲福位西向立，近侍奉盞北向跪進，贊禮啓請跪受盞，殿下跪受盞飲訖，近侍受虛盞，復於尊所。贊禮啓請俯伏興平身，殿下俯伏興平身，贊禮導殿下降復位。樂止，贊禮啓請鞠躬拜興拜興平身，殿下鞠躬拜興拜興平身。通贊贊鞠躬拜興拜興平身，

	<p>로 돌아간다. 풍악【전정악.】을 연주한다. 문을 나가면 풍악을 그친다. 봉례랑이 아헌관과 증헌관을 인도하여 나아간다. 봉례랑이 배제한 종실 및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전악이 공인들을 거느리고 나간다. 대축과 궁위령은 신위판을 거두어 들인다. 처음 집사자가 요여를 동쪽 계단 동편에 매실(每室)에 각각 둘씩 준비하되, 모두 서향으로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대축과 궁위령이 신위판을 다 거두어 들이면, 집사자가 각각 요여를 받들고 【대왕의 요여는 내시원(內侍院), 왕후의 요여는 내시부(內侍府).】 동계로 올라와 태조실과 태종실 문밖에 나아간다. 대축이 각각 태조와 태종실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어좌에서 내려와 요여를 타고 후전(後殿)으로 나아가라.’고 아뢰어 청한다. 아뢰고 나서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궤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면, 집사자는 차례로 짊어지고 후전(後殿) 각실(各室)의 문밖에 나아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궤를 받들고 좌석에 모시되, 모두 남향으로 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전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산선과 화개를 받들어 각실 앞에 설치하고,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나온다.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전하는 여(輿)를 타고 내전으로 돌아오는데, 시위는 을 때와 같다.” 하였다.</p>	<p>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平身。贊禮啓請(鞠)〔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殿下(鞠)〔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通贊贊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贊禮啓禮畢，導殿下還齋殿。樂作，【殿庭樂】出門，樂止，奉禮郎引亞獻官、終獻官出。奉禮郎分引陪祭宗室及文武群官以次出，典樂帥工人出，大祝宮闈令納神位版。初，執事者陳腰輿於東階之東，每室各二，皆西向北上。大祝宮闈令納神位版訖，執事者各奉腰輿，【大王輿，內侍院；王后輿，內侍府。】升自東階，詣太祖、太宗室戶升。大祝各詣太祖、太宗室前跪，啓請降座乘輿，詣後殿，啓訖俯伏興。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輿，執事者〔以〕次奉昇，詣後殿各室戶外，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座，俱南向，以西爲上。殿司帥其屬，奉繖蓋設於各室前，闈戶以降乃退。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版瘞於坎，殿下乘輿還內，侍衛如來儀。</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에 주·부·군·현의 양로연(養老宴)에 부녀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벼슬이 있</p>	<p>禮曹啓: “前此州府郡縣養老宴，婦女則勿令聚會，有職人妻給米一石、酒五</p>

<p>(宣德) 8年) 5月 3日 (乙卯) 8번째기사 예조에서 양로연에 관 해 아뢰다</p>	<p>는 사람의 아내에게는 쌀 한 섬과 술 다섯 병을 주고, 벼슬이 없는 사람의 아내에게는 쌀 두 섬과 술 세 병을 주고, 아울러 어육(魚肉)을 갖추어서 그 집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양로연인데 지방이라고 다르게 할 수는 없사오니, 서울의 예에 의하여 수령에게 남녀별로 집을 달리 하여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대접하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瓶，無職人妻給米二石、酒三瓶，竝備魚肉，給送其家。然均是養老宴，不可京外有異，乞依京中例，令守令，男女異廳設宴饋餉。”從之。</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5月 4日 (丙辰) 3번째기사 예조에서 문소전의 사 시 및 납일과 속절에 섭행하는 의주에 관 해 아뢰다</p>	<p>예조에서 문소전의 사시 및 납일(臘日)과 속절(俗節)에 섭행(攝行)하는 의주(儀注)를 아뢰기를, “제계(齋戒)는 제사 3일 전부터 하는데,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산재(散齋)를 이틀, 치재(致齋)를 하루 한다. 산재는 사무를 전과 같이 보되, 술을 많이 마시지 아니하고, 과·부추·마늘·달래 등을 먹지 아니하며, 조상(弔喪)과 문병을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문서(刑殺文書)의 판결과 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치재에는 오직 제사일만 행한다. 이미 제계를 하고서 궐(闕)한 사람이 있게 되면 대리를 통하여 행사한다. 전문(殿門)을 수위하는 자와 공인들은 모두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지낸다. 【향관(享官) 이하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제사하기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진설(陳設)은 제사 이틀 전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殿) 안팎을 청소하고, 하루 전에 전악(典樂)이 악부(樂部) 둘을 전전(前殿)의 전상(殿上)과 전정(殿庭)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으로 한다. 유사(虞官)의 자리를 동계 동남편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정하되, 겹줄로 서행으로 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서 배종한다.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동계 서쪽에 정하되,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전악의 자리는 전상(殿上)과 전정(殿庭)의 악부 북쪽에 북향으로 마</p>	<p>禮曹啓文昭殿四時及臘俗節攝行儀注： 齋戒：前享三日，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守衛殿門者及工人，俱淸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陳設：前享二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前一日，典樂設樂部二於前殿，殿上殿庭，俱北向。有司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謁者、贊者、贊引位於東階之西，俱西向北上，設典樂位於殿上殿庭樂部之北，北向。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享日未行事前，殿司開前殿龕室，整拂神幄鋪筵如常</p>

런한다.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 안팎을 청소한다. 제사하는 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가 전전(前殿)의 감실(龕室)을 열고 신악(神幄)과 자리를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신위의 오른쪽에 축판(祝版)을 각각 하나씩 드리고, 【각각 점(坫)이 있다.】 향로·향합과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와 제찬 담은 그릇을 설치하고, 준(尊)은 문밖 왼쪽에 설치하며, 복주(福酒)잔 하나를 태조실 준소(尊所)에 설치한다. 행례(行禮)는 제삿날 행사하기 3각(刻) 전에, 전사가 전전을 열고 신악(神幄)과 자리를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다 담고난 다음, 2각 전에 헌관 이하가 각각 제복을 갖추고 모두 전전 문밖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진설한 제물을 검사한다. 1각 전에 헌관 이하 여러 집사들이 손을 씻는다. 처음 집사자가 각각 요여를 받들어 【대왕의 요여는 내시원(內侍院), 왕비의 요여는 내시부(內侍府).】 후전 각실의 문밖에 각각 둘씩 설치하되, 모두 남향으로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궤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집사자가 차례로 받들고 전전 문밖에 나아간다. 대축은 태조의 신위판 궤를 받들고, 궁위령은 왕후의 신위판 궤를 받들어 중문으로 들어가서 감실에 모시되, 남향으로 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전사는 그 소속을 거느리고 산·선과 화개를 받들어 신좌(神座) 앞 좌우에 설치하고, 다음은 대축이 태종의 신위판 궤를 받들고, 궁위령은 왕후의 신위판 궤를 받들고 동쪽 문으로 들어와 감실에 모시되, 서향으로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그 요여는 동계로 내려와 동계의 동편에 두되, 서향으로 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대축과 궁위령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모두 문밖으로 나아간다. 알자와 찬자와 찬인은 먼저 전정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한 다음 각각 자리에 나아가고, 전악이

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各有坫】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設福酒盞一於太祖尊所。行禮：享日未行事前三刻，殿司開前殿，整拂神幄鋪筵如常儀。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實饌具畢。前二刻，獻官以下各(其) [具] 祭服，皆就前殿門外。贊引引監察點視陳設。前一刻，獻官以下諸執事盥洗訖。初，執事者各奉腰輿，【大王輿，內侍院；王后輿，內侍府。】陳於後殿各室戶外，每室各二，皆南向西上。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輿，執事者以次奉昇，詣前殿戶外，大祝奉太祖神位版匱，宮闈令奉王后神位版匱，由中戶入，安於龕室，南向西上。殿司帥其屬奉扇蓋，設於神座前左右，次大祝奉太宗神位版匱，宮闈令奉王后神位版匱，由東戶入，安於龕室，西向北上。【其腰輿，降自東階，置於東階之東，西向北上。】大祝宮闈令俯伏輿，皆出就門外。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典樂帥工人入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

악공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여러 집사자를 인도하여 전정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뒷자리로 하고 겹줄로 선다. 다 정렬한 다음,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차례로 궤를 열고 신위관을 받들어 내어 좌석에 모신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고 들어와서 서향으로 서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태조의 존소(尊所)에 나아가 선다. 풍악을 연주한다. 【전상악(殿上樂).】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중문으로 들어와 태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선다. 찬자가 ‘꿨어앉아 홀을 꺾으라.’ 찬하면, 헌관이 꿨어앉아 홀을 꺾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여, 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리면, 집사자가 향로를 향안에 올려놓는다. 【향합을 받드는 사람은 동쪽에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사람은 서쪽에서 동향한다. 술잔을 주는 사람과 술잔을 드리는 사람도 이와 같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잡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조의 신위 앞에 놓는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꿨어앉으라.’고 찬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꿨어앉는다. 풍악을 그친다. 대축이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으로 꿨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풍악을 시작한다. 알자가 ‘부복, 흥, 배,

諸執事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平身， 贊引監察以下各就位。 大祝宮闈令以次開匱，奉出神位版設於座。 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太祖尊所西向立，樂作【殿上樂】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 謁者引獻官由中戶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贊跪拈笏，獻官跪拈笏。 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獻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 授盞奠盞，準此。】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祖神位前。 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 謁者贊執笏，俯伏興少退北向跪，獻官執笏，俯伏興少退北向跪。 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俯伏興拜興拜興平身， 獻官俯伏興拜興拜興平身。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태종의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면, 풍악을 시작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태종 신위 앞에 나아가 동향으로 서서, '끓어얹아 홀을 깨끗하라.'고 찬하면, 헌관이 끓어얹아 홀을 깨끗한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하라.'고 찬하고, 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리고, 집사자가 향안에 향로를 올려놓는다.

【향합을 받드는 사람은 남쪽에서 북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사람은 북쪽에서 남향한다. 술잔을 주는 사람과 술잔을 드리는 사람도 이와 같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태종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하고,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잡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향으로 끓어얹으라.'고 찬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향으로 끓어얹는다. 풍악을 그친다. 대축이 신위 오른쪽에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 남향으로 끓어얹아 축문을 읽고 나면, 풍악을 시작한다. 알자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며 동계로 올라와 태조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선다. 풍악을 시작한다.【전정악.】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중문으로 들어와 태조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끓어얹아 홀을 깨끗하라.'고 찬하면, 헌관이 끓어얹아 홀을 깨끗한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

樂止，謁者引獻官出戶，詣太宗尊所西向，樂作，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由東戶入，詣太宗神位前東向立，贊跪搯笏，獻官跪搯笏，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獻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南北向，奠爐在北南向。授盞奠盞，準此。】執事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宗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少退東向跪，獻官執笏，俯伏興少退東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南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俯伏興拜興拜興平身，獻官俯伏興拜興拜興平身，樂止，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太祖尊所西向立，樂作，【殿庭樂】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由中戶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獻官跪搯笏，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祖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

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조의 신위 앞에 놓는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태종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풍악을 시작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쪽 문으로 들어와 태종의 신위 앞에 동향으로 서서, ‘끓어얹아 홀을 콧으라.’ 찬하면, 헌관이 끓어얹아 홀을 콧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종의 신위 앞에 드리되,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중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는데, 아헌관의 의식과 같이 하고, 아헌관을 인도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사자가 음복위를 앞 기둥 밖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고, 대축이 태조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술잔에 복주(福酒)를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음복위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서서, ‘끓어얹아 홀을 콧으라.’고 찬하면, 헌관이 끓어얹아 홀을 콧는다. 대축이 북향으로 끓어얹아 술잔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이 술잔을 받아서 마시고 나면, 대축이 빈 술잔을 받아서 준소에 도로 놓는다. 알자가 ‘홀을

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少退拜興拜興平身，獻官執笏，俯伏興少退拜興拜興平身。樂止，謁者引獻官出戶，詣太宗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由東戶入，詣太宗神位前東向立，贊跪搯笏，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宗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少退拜興拜興平身，獻官執笏，俯伏興少退拜興拜興平身，樂止，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禮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太祖尊所，以盞酌福酒，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飲福位西向立，贊跪搯笏，獻官執笏，俯伏興平身，謁者引降復位。贊者曰：“鞠躬拜興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平身。贊者曰：“鞠

	<p>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라. '고 찬하면, 헌관이 홀로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이르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자가 또,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이르면,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들을 인도하여 함께 배위로 돌아와서 정렬하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전악이 악공을 거느리고 나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신위판을 거두어 넣으면, 알자·찬자·찬인이 배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온다. 집사자가 각각 요여를 받들고 동계로 올라와 전전 문밖에 놓으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궤를 받들어 요여에 모신다. 집사자가 차례로 받들고 후전(後殿) 각실의 문밖에 나아가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궤를 받들어 좌석에 안치하는 것을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가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나고,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p> <p>하였다.</p>	<p>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典樂帥工人出，大祝宮闈令納神位版，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執事者各奉腰輿，升自東階，置於前殿戶外，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輿。執事者以次奉昇，詣後殿各室戶外，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座如常儀。殿司闔戶以降乃退，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版瘞於坎。</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5月 8日 (庚申) 3번째기사 예조에서 문소전 기신제의 의주를 아뢰다</p>	<p>예조에서 문소전 기신제의 위주를 아뢰기를, “재계는 제사 3일 전부터 하는데,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산재(散齋)를 이틀, 치재(致齋)를 하루 한다. 산재에는 일을 전과 같이 보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달래 등을 먹지 아니하며, 조상과 문병을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의 판결과 서명을 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치재에</p>	<p>禮曹啓文昭殿(忌辰) [忌辰] 祭儀注： 齋戒：前享三日，行事執事官，並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p>

는 오직 제사 일만 행한다. 이미 제계를 하고서 귀한 사람이 있게 되면 대리를 통하여 행사(行事)한다. 전문(殿門)을 수위하는 자는 청재(淸齋)하고 하룻밤을 잔다. 【향관(享官) 이하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제사하기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진설(陳設)은 제사 하루 전에 하는데, 전사(殿司)가 소속을 거느리고 전 안팎을 청소한다. 유사가 헌관의 자리를 전전(前殿)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에 정하되, 겹줄로 서향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마련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서 배중한다.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는 동계 서쪽에 정하되,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가 전전의 감실(龕室)을 열고 신악(神幄)과 자리를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한 위(位)만 설치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점(坫)이 있다.】 향로·향합과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와 제찬 담을 그릇을 설치하고, 준(尊)은 문밖 왼쪽에 설치한다. 행례(行禮)는, 제삿날 행사하기 3각(刻) 전에 전사가 전전의 감실을 열고 신악(神幄)과 자리를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다 담는다. 2각 전에 헌관 이하가 모두 흰옷으로 전문 밖에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진설을 점검한다. 1각 전에 헌관 이하 여러 집사들이 손을 씻는다. 처음 집사자가 【내시원(內侍院). 왕후의 기신제에는 내시부(內侍府).】 요여를 받들어 후전 문밖에 남향으로 설치하면, 대축이 【왕후의 기신제에는 궁위령이다. 아래에도 이와 같다.】 신위관 궤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집사자가 받들고 전전 문밖에 나아가면, 대축이 신위관 궤를 받들어 감실에 모신다. 【태조실 기신제에는 중문으로 들어가서 감실에서 남향으로 모시고, 태종실 기신제에는 동문으로 들어가서 감실에서 서향으로 모신다.】 대축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나오면, 전사가

而闕者，通攝行事。 守禦殿門者，淸齋一宿。 【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 陳設：前享一日，殿司率其屬，掃除殿之內外，有司設獻官位於前殿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向，書吏陪其後，謁者、贊者、贊引位於東階之西，西向北上。 享日未行事前，殿司開前殿龕室，整拂神幄，鋪筵如常儀。 【只設一位】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坫】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 行禮：享日未行事前三刻，殿司開前殿龕室，整拂神幄鋪筵如常儀。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 前二刻，獻官以下素服，皆就前殿門外，贊引引監察點視陳設。 前一刻，獻官以下諸執事盥洗訖。 初，執事者 【內侍院。 王后(忌晨) [忌辰] 祭，則內侍府。】 奉腰輿陳於後殿戶外，南向。 大祝 【王后(忌晨) [忌辰] 祭，則宮闈令，下準此。】 奉神位版匱安於輿，執事者奉昇，詣前殿戶外，大祝奉神位版匱，安於龕室，【太祖室(忌晨)

그 소속을 거느리고 선개(扇蓋)를 받들어 신좌(神座) 앞 좌우에 설치한다. 【그 요여는 동계로 내려와 동계의 동쪽에 서향으로 놓는다.】 알자·찬자·찬인이 먼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한 후 각각 자리에 나아가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들을 인도하여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서, 곁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서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가간다. 대축이 궤를 열고 신위판을 내어 좌석에 모시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한 사람이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서서, 【태조실 기신제에는 중문으로 들어가서 북향하여 서고, 태종실 기신제에는 동문으로 들어가서 동향하여 선다. 아래에도 이와 같다.】 ‘꿨어앉으라.’ 찬하면, 헌관이 꿨어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는다. 알자가 ‘삼상향하라.’ 찬하면, 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리고, 집사자는 향로를 향안에 드린다. 【태조실 기신제에는 향합 받드는 이는 동쪽에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서쪽에서 동향한다. 태종실 기신제에는 향합 받드는 이는 남쪽에서 북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북쪽에서 남향한다. 술잔을 주는 이와 술잔을 드리는 이도 이와 같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꿨어앉으라.’ 찬하면, 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꿨어앉는다. 【태조실 기신제

〔忌辰〕祭，則由中戶入，安於龕室南向；太宗室〔忌辰〕〔忌辰〕祭，則由東戶入，安於龕室西向。】大祝俯伏興出。殿司帥其屬，奉扇蓋設於神座前左右，【其腰輿，降自東階，置於東階之東西向。】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贊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贊引監察以下各就位。大祝開匱，奉出神位版，設於座。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一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立【太祖室〔忌辰〕〔忌辰〕祭，則由中戶入北向立；太宗室〔忌辰〕〔忌辰〕祭，則由東戶入東向立，下準此。】贊跪，獻官跪，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獻官三上香，執事者奠爐於案。【太祖室〔忌辰〕〔忌辰〕祭，則奉香在東西向，

에는 북향으로 꿇어앉고, 태종실 기신제에는 동향으로 꿇어앉는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꿇어앉아【태조실 기신제에는 동향으로 꿇어앉고, 태종실 기신제에는 남향으로 꿇어앉는다.】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한 사람은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신위 앞에 나아가 서서 ‘꿇어앉으라.’ 찬하면, 헌관이 꿇어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찬하면, 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로 나아가서 서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감찰 이하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로 나아가서 서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감찰 이하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

奠爐在西東向；太宗室(忌晨)〔忌辰〕祭，則奉香在南北向，奠爐在北南向。授盞奠盞，準此。】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小退跪，獻官俯伏興小退跪，【太祖室(忌晨)〔忌辰〕祭，則北向跪，太宗室(忌晨)〔忌辰〕祭，則東向跪。】大祝進神位之右跪，【太祖室(忌晨)〔忌辰〕祭，則東向跪；太宗室(忌晨)〔忌辰〕祭，則南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拜興拜興平身，獻官俯伏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一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立，贊跪，獻官跪，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獻官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贊引引監察及

	<p>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대축은 신위관을 들여놓고, 알자가 찬자와 찬인이 배위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집사자가 요여를 받들고 동계로 올라 전전 문밖에 놓으면, 대축이 신위관 께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집사자가 받들고 후전의 문밖에 나아가간다. 대축이 신위관 께를 받들어 좌석에 모시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하고, 전사는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간다.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大祝納神位版，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執事者奉腰輿升自東階，置於前殿戶外，大祝奉神位版匱，安於輿，執事者奉昇，詣後殿戶外，大祝奉神位版匱，安於座如常儀。殿司闔戶以降乃退，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版瘞於坎。</p>
<p>세종 60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5월 13일 (을축) 3번째기사 예조에서 문소전 삭망제 의주를 아뢰다</p>	<p>예조에서 문소전 삭망제(朔望祭) 의주를 아뢰기를, “재계는 제사 3일 전부터 하는데,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산재(散齋)를 이틀, 치재(致齋)를 하루 한다. 산재는 사무를 전과 같이 보되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달래 등을 먹지 아니하며, 조상과 문명을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과 서명을 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치재에는 오직 제삿일만 행한다. 이미 재계를 하고서 꺾(闕)한 사람이 있게 되면 대리를 통하여 행사한다. 전문(殿門)을 수위하는 자는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잔다. 【향관 이하 제사에 참여할 모든 사람은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진설은 제사 하루 전에 하는데,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殿) 안팎을 청소한다. 유사가 헌관의 자리를 후전(後殿) 동계의 동남편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정하되, 겹줄로 서향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마련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서 배종한다. 알자·찬자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에 마련하되,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제삿날 행사하</p>	<p>禮曹啓文昭殿朔望儀： 齋戒：前享三日，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薤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守衛殿門者，淸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前享二日，皆沐浴更衣。】陳設：前享一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有司設獻官位於後殿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設謁者贊者位於東階之西，西向北。享日未行事前，殿司開後殿各室，</p>

기 전에 전사가 후전의 각실(各室)을 열고 신악(神幄)을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위의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드린다. 【각각 점(坫)이 있다.】 향로와 향합과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와 제찬 담을 그릇을 설치하고, 준(尊)을 각실 문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복주잔 하나를 태조실 준소(尊所)에 설치한다. 행례는 제삿날 행사하기 3각(刻) 전에 전사가 후전의 각실을 열고 신악을 정돈하고 튄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담기를 마친다. 2각 전에 헌관 이하가 각각 제복을 갖추고 모두 전문 밖에 나아간다. 1각 전에 헌관 이하 여러 집사들이 관세(盥洗)하고 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뒷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하고는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들을 인도하여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뒷자리로 하여 정렬한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태조실에 나아가서, 대축은 궤를 열고 태조의 신위판을 받들어 내어 좌석에 모시고, 궁위령은 궤를 열고 왕후의 신위판을 받들어 내어 좌석에 모신다. 다음 태종실에 나아가서 위의 의식과 같이 신위판을 받들어 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해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여,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태조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태조 신위 앞에 북향으로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쫓으라.’고 찬하여, 헌관이 끓어앉아 홀을 쫓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

整拂神幄如常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各有坫】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各室戶外之左，設福酒盞一於太祖室尊所。行禮：享日未行事前三刻，殿司開後殿各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前二刻，獻官以下各具祭服，皆就殿門外。前一刻，獻官以下諸執事盥洗訖，謁者贊者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監察以下各就位。大祝宮闈令詣太祖室，大祝開匱，奉出太祖神位版設於座，宮闈令開匱，奉出王后神位版設於座。次詣太宗室，奉出神位版如上儀。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太祖室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贊跪摺

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삼상향하라.’고 찬하여, 세 번 향을 올리고, 집사자가 향로를 향안에 드린다. 【향함을 받드는 이는 동쪽에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서쪽에서 동향한다. 술잔을 주는 이와 술잔을 드리는 이도 이와 같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조의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라.’고 찬하여,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꿇어안아서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헌관이 구부렸다 일어나서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가 태종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태종의 신위 앞에 나아가 향을 올리고 술잔을 드리는데,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후에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태조실의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해 들어와 태조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쫓으라.’고 찬하여, 헌관이 꿇어앉아 홀을 쫓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주어 태조의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술잔을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찬하여,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

笏, 獻官跪搯笏, 執事者一人奉香合, 執事者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獻官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東西向, 奠爐在西東向。授盞奠盞, 準此。】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太祖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 獻官執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小退北向跪, 獻官執笏俯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 東向跪讀祝文訖, 謁者贊俯伏興拜興拜興平身, 獻官俯伏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戶, 詣太宗室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一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 入詣太宗神位前。上香獻盞, 竝如上儀訖, 謁者引獻官出戶, 降自東階復位。小頃, 謁者引獻官, 升自東階, 詣太祖室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獻官跪搯笏。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太祖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

어나 조금 물러나서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서 태종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해 들어와서 태종의 신위 앞에 나아가 술잔을 드리되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서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후에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예를 행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사자가 음복위를 앞 기둥 밖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마련하고, 대축이 태조실의 준소에 나아가서 술잔으로 복주(福酒)를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하고, “끓어얹아 홀을 쫓으라.”고 찬하여, 대축이 북향하여 끓어얹아서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마신다. 대축이 빈 잔을 받아 준소에 도로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하면,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들을 인도하여 함께 배위에 돌아와 정렬하고,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신위판을 들여놓고, 알자와 찬자는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문을 닫고 내려서 물러나와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謁者贊執笏，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獻官執笏，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戶，詣太宗室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太宗神位前，獻盞如上儀訖，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太祖室尊所，以盞酌福酒。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飲福位西向立，贊跪搢笏，大祝北向跪，以盞授獻官，獻官受盞飲訖，大祝受虛盞，復於尊所。謁者贊執笏，俯伏興平身，獻官執笏俯伏興平身，謁者引降復位。贊者曰：“鞠躬拜興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平身。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神位版，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闔

	하였다.	戶以降乃退，祝版瘞於坎。
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6月 15日 (丙申) 9번째기사 문소전 외에 각전·각 궁의 공상주를 정지하 게 하다	문소전 외에 각전(各殿)·각궁(各宮)의 공상주(供上酒)를 정지하게 하였다.	命停文昭殿外各殿各宮供上酒。
세종 62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10월 27 일(병자) 2번째기사 김순에게 명하여 귤과 유자를 사신에게 나누 어 주다	환관(宦官) 김순(金淳)에게 명령하여 귤(橘)과 유자[柚]를 사신에게 나누어 주었다.	命宦官金淳，分贈橘柚于使臣。
世宗 62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10月 28 日(丁丑) 2번째기사 술에 대한 폐해와 훈 계를 담은 내용의 글 을 주자소에서 인쇄하 여 반포하게 하다	교지(教旨)를 내리기를, “대체로 들으니, 술[酒]을 마련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을 숭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신명(神明)을 받들고 빈객(賓客)을 대접하며, 나이 많은 이를 부양(扶養)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제사 때에 술 마시는 것은 술잔을 올리고 술잔을 돌려주고 하는 것으로 절차(節次)를 삼고, 회사(會射) 때에 술 마시는 것은 읍양(揖讓)하는 것으로 예를 삼는다. 향사(鄉射)의 예는 친목(親睦)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양로(養老)의 예는 연령(年齡)과 덕행을 숭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건만 오히려 말하기를, ‘손과 주인이 백 번 절하고 술 세 순배를 돌린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선왕(先王)이 술의 예절을 제정할 때에 술의 폐해에 대비(對備)한 것이 더할 수 없이 극진하였다. 후세에 내려와서 풍속과 습관이 옛스럽지 않고,	教旨： 蓋聞酒醴之設，非以崇飲，所以奉神明、享賓客、養高年者也。是以因祭而飲，以獻酬爲節；因射而飲，以揖讓爲禮。鄉射之禮，所以教親睦也；養老之禮，所以尚齒德也。然猶曰：“賓主百拜而酒三行。”又曰：“終日飲酒而不得醉。”，則先王所以制酒禮，而備酒禍者至矣盡矣。降及後世，俗習不古，惟荒腆是務，故禁酒之法雖嚴，而終不能救其禍，可勝歎哉？夫酒之爲

다만 크게 많이 차리는 것만을 힘쓰게 된 까닭에, 금주(禁酒)하는 법이 비록 엄중하나 마침내 그 폐해를 구제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한탄스러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술의 해독은 크니, 어찌 특히 곡식을 썩히고 재물을 허비하는 일뿐이겠는가. 술은 안으로 마음과 의지(意志)를 손상시키고 겉으로는 위의(威儀)를 잃게 한다. 혹은 술 때문에 부모의 봉양을 버리고, 혹은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니, 해독이 크면 나라를 잃고 집을 패망(敗亡)하게 만들며, 해독이 적으면 성품(性稟)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상실(喪失)하게 한다. 그것이 강상(綱常)을 더럽혀 문란하게 만들고 풍속을 퇴폐하게 하는 것은 이루 다 열거(列舉)할 수 없다.

우선 그 중에서 한두 가지 경계해야 할 것과 본받아야 할 것만을 지적하여 말하겠다. 상(商)나라의 주왕(紂王)과 주(周)나라의 여왕(厲王)은 술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며, 동진(東晉)의 풍속은 술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정(鄭)나라의 대부(大夫) 백유(伯有)는 땅굴을 파서 집을 만들고 그 속에서 밤에 술을 마시다가 자식(子皙)에게 불태워져 죽었으며, 전한(前漢)의 교위(校尉) 진준(陳遵)은 매양 손님들과 크게 마시기를 좋아하여, 손이 오면 문득 손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타고 온 수레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더니, 흉노(凶奴)에게 사자(使者)로 갔다가 술에 취하여 살해되었다. 후한(後漢)의 사예 교위(司隸校尉) 정충(丁冲)은 자주 제장(諸將)들에게 찾아 다니면서 술을 먹더니 창자가 썩어서 죽었으며, 진(晉)나라의 상서 우복야(尙書右僕射) 주개(周顛)는 술 한 섬을 거뜬히 마시었는데, 한번은 옛 술친구가 왔으므로 즐거우니 함께 술을 마시고 몹시 취했다가, 술이 깨서 손[客]을 가 보게 하였더니, 손은 이미 갈비가 썩어서 죽어 있었다고 한다. 후위(後魏)의 하후사(夏侯史)는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상중(喪中)에 있으면서도 슬피하지 아니하며 좋은 막걸리를 입에서 떼지 않으니, 아우와 누이는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였는데,

禍甚大，豈特糜穀費財而已哉？內〔弱〕心志，外喪威儀，或廢父母之養，或亂男女之別，大則喪國敗家，小則伐性喪生，其所以瀆亂綱常，敗毀風俗者，難以枚舉，姑指其一二可戒可法者言之。商辛、周厲，以此而亡其國，東晉之俗，以此而亡人之國。鄭大夫伯有窟室夜飲，卒爲子皙所焚。前漢校尉陳遵每大飲賓，輒關門投轄，使于匈奴，醉而遇害。後漢司隸校尉丁冲，數過諸將飲酒，爛腸而死。晉尙書右僕射周顛，能飲酒一石，偶有舊〔帶〕來，欣然共飲大醉，及醒使視，客已腐脅而死。後魏夏侯史性好酒，居喪不戚，醇醪不離於口，弟妹不免飢寒，於是昏酣而死，此誠可戒者也。周武王作《酒誥》之書，以訓商民；衛武公作《賓筵》之詩，以自警責。晉元帝頗以酒廢事，王導深以爲言，帝命引觴覆之，遂絕。元太宗日與大臣酣飲，耶律楚材乃持酒槽金口進曰：“此鐵爲酒所蝕，尙致如此，況人之五臟，有不損耶？”帝悟，因勅左右，日進酒三鍾而止。晉陶侃每飲酒有定限，或勸少進，侃悽愴良久曰：“年少曾有酒

마침내 술에 취한 채 혼수상태로 죽었다. 이러한 일들은 진실로 경계해야 할 일들이다.

주(周)나라의 무왕(武王)은 주고(酒誥)를 지어 상(商)나라의 백성들을 훈계하였고, 위(衛)나라의 무공(武公)은 빈연(賓筵)의 시를 지어 스스로 경책(警責)하였다. 진(晉)나라 원제(元帝)가 술 때문에 정사를 폐하는 일이 많으니, 왕도(王導)가 깊이 경계하여 말하니, 임금(晉)이 술잔을 엮어 버리라고 명령하고 드디어 술을 끊었다. 원(元)나라의 태종(太宗)이 날마다 대신들과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시더니, 야율초재(耶律楚材)가 드디어 주조(酒槽)의 금속 주둥이를 가지고 가서 아뢰기를, ‘이 쇠[鐵]도 술에 침식(侵蝕)됨이 이와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내장[五腸]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매, 황제가 깨닫고 좌우(左右)의 모시는 사람들에게 칙명(勅命)을 내려 날마다 술은 석 잔만 올리게 하여 끊었다. 진(晉)나라의 도간(陶侃)이 매번 술 마실 때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조금만 더 먹으라고 권하니, 도간(陶侃)이 한참 동안 슬픈 얼굴을 하다가 말하기를, ‘소년 때에 술 때문에 실수한 일이 있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약속한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유곤(庾袞)은 그의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항상 곧에게 술을 조심하라고 훈계하였더니, 그 뒤에 곧은 취할 때마다 문득 스스로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선인의 훈계를 저버리고 어찌 남을 훈계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아버지의 무덤 앞에 가서 스스로 매 20대를 쳤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은 진실로 본받을 만한 것이다. 또 우리 나라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옛날 신라가 포석정(鮑石亭)에서 패(敗)하고, 백제가 낙화암(落花巖)에서 멸망한 것이 술 때문이 아닌 것이 없다. 고려의 말기(末期)에는 상하가 서로 이끌고 술에 빠져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다가 마침내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도 또한 가까운 은감(殷鑑)이 되는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失，亡親見約，故不敢踰。” 庾袞父在，常戒袞以酒後每醉，輒自責曰：“予廢先人之訓，何以訓人！” 乃於墓前，自杖二十，此誠可法者也。且以我國之事言之。昔新羅之敗於鮑石亭，百濟之滅於落花巖，靡不由此，而高麗之季，上下相師，沈湎自恣，竟底於亡，此亦殷鑑之不遠也，可不戒哉？惟我太祖肇造丕基，太宗繼述，修明政教，垂憲萬世，群飲之禁，著在令甲，以革舊染之俗，以致維新之化。予以否德，叨承丕緒，夙夜祗懼，以圖治安，鑑往昔之覆轍，遵祖宗之成憲，示之以禮，糾之以法。予之用心，非不至也，而惟爾臣民，以酒失德者，比比有之。是前朝衰微之風，猶未殄絕，予甚憫焉。嗚呼！酒之釀禍，若是之慘，而尚不覺悟，亦何心哉？縱不能以國家爲念，獨不顧一身之性命乎？朝臣有識者，尚且如此，閭巷小民，何所不至？獄訟之興，多出於此。始之不謹，則末流之弊，誠可畏也。此予之所以考古證今，反覆告戒者也。咨爾中外大小臣民，其體予至懷，視前人之得失，爲今日之勸戒，毋好飲以廢事，勿過飲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께서 일찍 큰 왕업(王業)의 터전을 만드시고, 태종께서 이어 지으시어 정치와 교화(教化)를 닦아 밝히시니, 만세에 지켜야 할 헌장(憲章)을 남기셨다. 군중이 모여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을 법령에 명시(明示)하여, 오래 물들었던 풍속을 개혁하고 오직 새롭게 하는 교화를 이룩하였다. 내가 부덕(不德)한 몸으로 외람되게 왕업(王業)을 계승하게 되매,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편안히 다스리기를 도모하되, 지나간 옛날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조종(祖宗)의 이루어 놓은 법을 준수(遵守)하여, 예로써 보이고 법으로써 규찰(糾察)하였다. 나의 마음쓰는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건만, 그대들 신민(臣民)들은 술때문에 덕(德)을 잃는 일이 가끔 있으니, 이것은 전조(前朝)의 쇠퇴하고 미약하였던 풍조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므로,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아아, 술이 해독을 끼침이 이처럼 참혹하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또한 무슨 마음들인가. 비록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제 한 몸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는단 말인가. 조정에 벼슬하는 신하인 유식(有識)한 자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거리의 아랫 백성들이 무슨 일인들 안하겠는가. 형사 소송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이것에서 생기는 것이 많았다. 처음을 삼가지 않으면 말류(末流)의 폐해는 진실로 두려워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옛일을 고증(考證)하고 지금 일을 증거로 하여 거듭거듭 타이르고 경계하는 까닭이다. 그대들 중앙과 지방의 대소 신민(大小臣民)들은 나의 간절한 생각을 본받고 과거(過去) 사람들이 실패를 보아서 오늘의 권면(勸勉)과 징계를 삼으라. 술 마시기를 즐기느라고 일을 폐(廢)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술을 과음(過飲)하여 몸에 병이 들게 하지 말라. 각각 너의 의용(儀容)을 조심하며 술을 상음(常飲) 말라는 훈계를 준수하여 굳게 술을 절제(節制)한다면, 거의 풍습(風習)을 변경시키기에 이를 것이다. 너희 예조에서는 이 나의 간절한 뜻을 본받아 중앙과 지방을 깨우쳐 타이르라.”

以成疾。 各敬爾儀， 式遵無彝之訓；
 剛制于酒， 庶臻於變之風。 惟爾禮曹，
 體此至意， 曉諭中外。
 藝文應教柳義孫之辭也。 遂命鑄字所
 模印， 頒于中外。

	<p>하니, 예문 응교(藝文應敎) 유의손(柳義孫)이 기초한 글인데, 드디어 주자소(鑄字所)에 명령하여 인쇄하여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게 하였다.</p>	
<p>세종 62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12월 6일 (을묘) 4번째기사 상호군 정발을 보내 문어·해청등을 진헌하고, 야인이 노략한 인구·우마를 돌려준 것에 감사하였다</p>	<p>상호군 정발(鄭發)을 보내어 문어(文魚) 5백 마리, 대구어(大口魚) 6백 마리, 해청(海靑) 2연(連), 백요자(白鷓子) 1연을 진헌하게 하고, 이어 상주(上奏)하기를, “선덕(宣德) 8년 윤8월 초10일에 흠차(欽差) 지휘 첨사(指揮僉事) 맹날가래(孟捏可來)와 백호 최진(崔眞) 등 관원이 칙유(勅諭)를 받들어 가지고 도착하였사온바, 그 칙지에 ‘홀라온(忽刺溫) 지방의 야인 두목 목답울(木答兀)·모련위 도독(毛憐衛都督) 첨사(僉事) 살만답실리(撒滿答失里)·건주 좌위도독(建州左衛都督)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도지휘사(都指揮使) 범찰(凡察)·건주위 도지휘(建州衛都指揮) 첨사 이만주(李滿住) 등을 타일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각각 창탈(搶奪)하여 간 인구와 우마(牛馬) 등을 다 돌려주게 하였다.’고 하시매, 이를 공순히 받들어 알았습니다. 또 금년 11월 초10일에는 흠차(欽差) 백호 왕흠(王欽)·사인(舍人) 왕무(王武) 등이 우리 나라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최근에 칙유(勅諭)를 받들어 야인이 본국에서 노략하여 간 자 중에 아직 돌려주지 않은 인구 14명을 찾아서 맹날가래(孟捏可來) 등 관원에게 주어서 본국에 송환하게 되었는바, 공순히 명령을 준봉(遵奉)한 자는 제외하고, 앞으로 홀라온 지방에 갔더니, 야인이 이름을 무개도화(無開到花)라고 일컫는 자가 있는데, 돌려보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윗항의 일을 맹날가래(孟捏可來) 등과 더불어 말하여 알리고자 하여, 이때에 앞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신이 공순히 생각하니, 황제께서 우리 나라가 뜻밖에 야인에게 침해를 당한 것을 가엾게 여기시고, 특히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차례로 사신을 보내어 가서 야인을 타이르게 하였습니다. 천자의 뜻이 정녕(丁寧)하시어, 신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p>	<p>遣上護軍鄭發，進文魚五百首、大口魚五百尾、海靑二連、白鷓子一連，仍奏曰： 宣德八年閏八月初十日，欽差指揮僉事(孟捏可來)〔孟捏哥來〕、百戶崔眞等官，齎捧到勅諭，節該：“諭忽刺溫地面野人頭目木答兀、毛憐衛都督僉事撒滿答失里、建州左衛都督猛哥帖木兒、都指揮使凡察、建州衛都指揮僉事李滿住等，令各將所搶去人口牛馬頭匹，盡行給還。”欽此。又於本年十一月初十日，欽差百戶王欽、舍人王武等到國說稱：“近奉勅諭，取要野人擄掠本國未還人口十四名，交付孟捏哥來等官，送回本國。除欽遵，前往忽刺溫地面，有野人等稱無開到花名，不肯發還。前項事，因欲與孟捏哥來等說知，爲此前來。”道罷聽此。臣欽惟皇上，憐憫小邦，橫見野人侵擾，特留宸念，節次遣使，往諭野人，天意丁寧，臣不勝感激。</p>

<p>世宗 62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12月 7日 (丙辰) 4번째기사 예조에 전지를 내려 흉년으로 생활이 어려 우므로 술을 사용하지 말것을 명하다</p>	<p>하였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각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의 생활이 염려된다. 약(藥)으로 복용하기 위한 것 외에는 술을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p>	<p>傳旨禮曹： 各道凶歉，民生可慮，服(樂) [藥] 外 勿用酒。</p>
<p>세종 62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12월 21 일(경오) 3번째기사 박연이 건의한 악호· 곡명의 정립과 제향· 조회때의 예법 등의 의견을 받아들이다</p>	<p>(전략) 1. ‘제향(祭享)의 예절에 있어서 재숙(齋宿)은 중요한 행사입니다. 요사 이 악공(樂工)들의 재계하는 법을 보니, 제사하기 2일 전에 봉상시(奉常寺)에 합숙(合宿)하고, 제사하기 1일 앞서 모두 제소(祭所)에 나아갑니다. 이미 재계 (齋戒)라고 한다면 마땅히 출입을 금하고 그 정성이 전일(專一)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아침 저녁의 식사(食事) 때문에 그 재숙(齋宿)하는 곳을 버 리고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어, 사사로운 곳으로 내왕하면서 더러움에 감염(感 染)하는 일을 범함이 많으니,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의 제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제삿날에 향관(享官)과 집사(執事)들은 다 임시(臨時)하여 관세(盥洗)함으로써 청결하게 하지만, 당상 (堂上)·당하(堂下)의 노래하고 춤추는 가공들은 그 수(數)가 매우 많고, 관세 소(盥洗所)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 명의 공인들은 밤중에 일어난 채 전연 세수하지 않아서 더럽고 무례하여 불경함이 더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는 공인들의 재계하는 날에는 반드시 음식을 제공하고 출입을 금지시켜서 재 숙(齋宿)을 엄중하게 하며, 또 단(壇)이나 묘(廟)의 밖에 공인들의 세수 도구 를 마련하여, 여러 공인들로 하여금 죄다 세수하게 하소서. 원묘(原廟)제향 때의 영인(伶人)들도 세수하게 하는 설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라고 한 조항 에 대하여, 공인들에 대한 음식 제공은 전례에 따라 예빈시(禮賓寺)로 하여금</p>	<p>(전략) 一。‘祭享之禮，齋宿爲重。 今觀樂工致齋之法，祭前二日，會宿奉 常，前期一日，俱詣祭所。既曰齋戒， 宜禁出入，致其專一，顧以朝夕口腹之 故，棄其齋所，任意出入，來往私處， 犯染多矣，極爲未便。此無他，無供 億故耳。又於祭日，享官執事，則皆 臨時盥洗，以致涓潔，至於堂上堂下歌 舞奏伎之工，其數極多，而不設盥濯之 所，數百工人夜半而起，全不盥頰，穢 汚褻慢，不敬莫甚。自今工人致齋之 日，須令供給，禁絕出入，以嚴齋宿。 又於壇廟之外，設工人盥頰之具，令衆 工悉皆洗濯。原廟祭伶人，亦不可無 盥頰之具。’右條，工人供給，依前例， 令禮賓寺掌之。盥頰之具，每祭所木 槽各一、木器各五十，造作入藏，令典</p>

	<p>관장하게 하고, 세수 시설의 준비는 제소(祭所)마다 나무통 각 1개, 목기(木器) 각 50개씩 만들어 보관하게 하고, 전수자(典守者)로 하여금 물을 길어다가 공급하게 하소서.</p> <p>1. ‘제향(祭享)이나 조회(朝會) 때의 주악(奏樂)에 사용하는 기구와 예복(禮服)과 의식용(儀式用)의 물품은 국가의 경비가 적지 않은 것인데, 맡아 지키는 관리가 보관 수호하기를, 즐겨 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아서 파손되고 헐어질 것이 염려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주무관아(主務官衙)로 하여금 불시에 검찰하게 하여 그의 공(功)과 허물을 기록하였다가 포폄(褒貶)에 증빙(證憑)으로 삼게 하소서.’라고 한 조항에 대하여서는, 상언(上言)한 바에 따라 조(曹)의 전향사(典享司)의 낭청(郎廳)으로 하여금 불시에 가서 살피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守者汲水供之。 一。 ‘祭享朝會樂，器服儀物，國家經費不少，典守官吏不肯藏護，則未久損毀，不可不慮。 願自今令主掌司不時檢察，記其功過，以憑褒貶。’ 右條，依上言，令曹典享司郎廳，不時往審。” 從之。</p>
<p>世宗 63卷, 16年 (1434 甲寅 / 명 선덕 (宣德) 9年) 1月 21日 (己亥) 7번째기사 헌릉의 대·소제에 쓰이는 세작기를 유철로 주조하기로 하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헌릉(獻陵)의 대·소제(大小祭)에 쓰는 세작기(洗爵器)2154 를 유철(鋤鐵)로 주조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 “獻陵大小祭洗爵器，以鋤鑄成。” 從之。</p>
<p>7. 세종 63권, 16년 (1434 갑인 / 명 선덕 (宣德) 9년) 1월 26일 (갑진) 3번째기사 인삼 1천 근을 진헌하는 문제와 정치신·함영지·차득림 및 이보</p>	<p>안승선(安崇善)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일을 의논하기를, 1. “금번 명나라에 바치는 인삼 1천 근이 내 마음에 적게 생각되어, 진헌사(進獻使)가 가지고 가는 사목에, ‘만일 황제의 명을 받고 묻는 자가 있거든, 우선 현재 준비된 수량만을 바치는 것이라고 대답하라.’ 하였으니, 이는 장차 더 바치려고 한다는 말이다. 이제 다시 생각하니, 일천이란 수량이 적은 것이 아닌 것이다. 그 사목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p> <p>하니, 모두 말하기를,</p>	<p>命安崇善，往議政府議事。 一。 “今進獻人蔘一千斤，予心以爲數少，肆於進獻使齋去事目：‘如有承命問者，則答以姑進時備之數， 蓋將欲加進之辭也。’ 今更思之，千數不爲少矣，改修事目如何?” 僉曰: “年例進獻之數，不過五百斤，今加一倍，何必加進?” 上</p>

<p>지의 처벌 문제 등을 논의하다</p>	<p>“예년에 바치던 수량이 5백 근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곱절을 더하였으니, 더 바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p> <p>하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사목을 수정하여 진현사에게 보내기를, “만일 명을 받고 인삼의 수량이 이것뿐이냐고 묻는 자가 있거든, ‘현재 준비된 수량만을 받들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자세한 말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후략)</p>	<p>從之， 命改修事目， 送于進獻使曰：“如有承命者問： ‘人蔘之數， 止於此乎?’ 答曰： ‘以時備之數陪來。’ 毋得分折答之。” (후략)</p>
<p>8. 世宗 63卷, 16年 (1434 甲寅 / 명 선덕 (宣德) 9年) 1月 30日 (戊申) 5번째기사 전의감 제조 황자후가 약제를 진상하는 방법과 조제하는 법 등을 상언하여 올리다</p>	<p>앞서 전의감 제조(典醫監提調) 황자후(黃子厚)가 상언하기를, “매년 진상하는 약을 시기가 임박해서 물어도 모두 모른다고 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무지한 녹관(祿官)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본감에는 포핍(褒貶)이 없고 1년마다 서로 갈마드는 직임이어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 종시 아무런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을 쓰는 법도 조금도 연구하지 않고 두 번만 녹을 받으면 여러가지로 칭탁 기피하며, 다만 자기 한 몸의 이익만을 취하여 공에 유익함이 없으며, 약의 조제도 정(精)하지 못할 뿐더러,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이루는 자도 역시 적사오니, 신은 원하옵건대, 진상할 약품의 조제에 관한 모든 일을 각별히 법을 세워서, 의원을 수습(修習)한 자로 하여금 길이 이를 준수하게 하소서. 1. 진상에 관한 일은 서로 미루지 못하게 하고, 6품 이상으로 그 일을 잘 아는 관원에게 전적으로 맡기소서. 1. 숙지황 증작법(熟地黃蒸作法)은, 생지황(生地黃)을 서리가 오기 전에 풀로 덮어 두었다가, 한두 차례 서리가 온 뒤에 나무못[木釘]으로 캐서, 노두(蘆頭)를 떼어 버리고 잔 뿌리와 연한 잎사귀는 각각 따로 나누어 두고, 큰 뿌리만을 가려서 깨끗이 씻을 때에, 물속에 잠기는 것이 지황(地黃)으로 상품이 되고, 반은 뜨고 반은 잠기는 것이 인황(人黃)으로 그 다음 가며, 수면에 뜨는 것이 천황(天黃)으로 또 그 다음이 가는 것인데, 지황을 택하여 햇볕에 말릴 때에, 가는 뿌리와 푸른 잎사귀를 짓찧어 짜서 즙을 낸 다음에, 이에 지황을 담가 빛</p>	<p>前此， 典醫監提調黃子厚上言： 每年進上之藥， 臨時問之， 則皆曰不知， 此無他， 無知祿官等， 自以爲本監無褒貶， 一年相遞之職， 勤不勤， 終無利害也。 用藥之法， 略不講究， 二番受祿， 則多般辭避， 只利於己， 無益於公， 非徒劑藥不精， 而成才者亦少。 臣願進上劑藥諸事， 各別立法， 令習醫者永爲遵守。 一。 進上事則毋得相推， 令六品以上， 事知官員專掌。 一。 熟地黃蒸作法。 生地黃， 霜降前以草蓋置， 經霜一二度後， 以木釘採取， 去蘆頭， 其細根與青嫩葉， 各別分置。 擇大根洗淨時， 沈水者爲地黃， 爲上； 半浮半沈者爲人黃， 次之； 浮水面者爲天黃， 又次之。 擇地黃日乾時， 細根與青嫩葉， 搗絞取汁浸地黃， 待色黑正乾， 石鼎柳甑蒸之。 初以暫時酒浸通潤， 入布袋安甌中， 其袋上水(閏)</p>

이 검기를 기다려서 말린 연후에 돌솥[石鼎]에 버들시루[柳甌]로 이를 찹니다. 처음에 잠간 술에 담가 윤기 통하게 하고, 푸대에 넣어서 시루에 앉히고는, 그 푸대 위에 물에 불린 쌀 10여 알을 놓고, 베로[布] 덮고 찻는데, 한번 찻서 아직 미숙(未熟)한 것을 일증(一蒸)이라 이르고, 이를 내어 가지고 별에 말리는데, 아직 건조(乾燥)하지 않은 것을 일건(一乾)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아홉 번 찻고 아홉 번 말리게 마련인데, 두 번째부터는 술에 담그지 않고 다만 술을 뿌리기만 하며, 만약에 시루굽이 뽀족하고 짧아서 술물이 끌어 올라서 지황을 다리게 되면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법 그대로 해야 합니다. 또 흑두(黑豆)를 끓여 빛깔을 위장하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수법으로 되어 있사오나, 법대로 찻서 만들어야 비로소 가품(佳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외방 의원에서 지황을 찻서 만든 것은 비록 빛이 검고 윤기가 흐른다 해도, 법에 의해 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 종약(種藥), 색지황(色地黃)은 백화염(白花鹽)으로 조작하는 것인데, 7월에 잎사귀를 과다하게 따서 매년 부실하오니, 외방에서 공납(貢納)하는 생지황은 으레 8월 상순에 예조에 보고하고, 9월에 얼음이 얼기 전에 상납하게 하며, 9월 보름 후에 오는 것은 이를 물리치게 하소서. 1. 외방 각 고을에서 공약(貢藥)을 상납할 때에, 약리를 모르는 수령들이 여여(閩茹)·여로(閩蘆)·초오두(草烏頭)와 같은 독기가 있는 식물과 냄새가 나쁜 호골(虎骨), 충어(蟲魚) 등의 쓸개를 한 상자에 마구 섞어 넣고 있어 매우 타당치 않사오니, 이와 같이 상반되는 독약과 냄새와 기운이 나쁜 충어의 쓸개는 다른 그릇에 감봉(監封)하게 하고, 친히 단자(單子)를 써서 이를 의원 생도(醫院生徒)에게 주어서 상납하게 하소서. 1. 청심원(淸心元)에 들어가는 포황(蒲黃)은 이삭과 함께 온전히 상납하게 하소서. 1. 강원도 영월(寧越)에서 나는 당귀(當歸)는 서리를 한두 차례 맞은 뒤에, 그 채취를 친히 감독하여 흙을 씻지 말고 그대로 상납하게 하소서. 1. 우봉(牛峯)에서 생산하는 백출(白朮) 중에 소합원(蘇合元)에 넣어 쓸 12근은, 크

[潤] 米十餘粒置之。又以布帛蓋蒸, 其未熟則謂之一蒸; 出暴乾, 其未乾則謂之一乾, 如此九蒸九乾。二度始不即浸酒, 只用灑酒。若甌底尖短、鼎水上煎地黃, 則無用的然。其法又曰: “黑豆借色, 僞通天下, 自蒸作也乃佳。” 然則外方醫院, 蒸作地黃, 雖色黑滋潤, 依法與否, 未可知也。一。種藥色地黃, 因白花鹽造作, 七月摘葉過多, 每年不實。外方貢納生地黃, 例於八月上旬報禮曹, 九月米凍前上納。九月望後來者退之。一。外方各官貢藥上納時, 不知藥理守令等, 不分畏惡相反, 如閩茹、閩蘆、草烏頭氣惡毒物及有臭虎骨、蟲魚諸膽, 一箱內交雜入盛未便。如此相反毒藥及氣惡蟲魚諸膽, 異器監封, 教諭親著單子, 授醫院生徒上納。一。淸心元所入蒲黃, 以全穗上納。一。江原道寧越當歸, 經霜一二度後, 教諭親監採取, 帶土上納。一。牛峯白朮內, 蘇合元入用一二斤, 擇大圓根, 不去皮洗淨, 只去麤毛上納。一。蒼朮米泔浸用爲多, 不浸用者亦多。外方醫院生徒, 一以色白爲要, 浸水無度, 又以米粉借

	<p>고 둥근 뿌리를 택하여 거피(去皮)하여, 깨끗이 씻지 말고 다만 추한 털만 제거하고 상납하게 하소서. 1. 창출(蒼朮)은 쌀뜨물에 담가서 쓰는 것도 많고, 담그지 않고 쓰는 것도 또한 많은데 외방 의원의 생도들이 한결같이 빛을 희게 하려고 수없이 물에 담그고, 또 밀가루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신은 원하옵기를, 각 고을에서 상납하는 원수량 속에서 반은 거피해 씻고, 반은 다만 추한 털만을 제거하여 상납하게 하소서. 1. 긴히 쓸 약은 매년 부족하고 긴치 않은 약은 해마다 남아서 머물러 두게 되는데, 민간에서 채취하는 폐단과 쓰이고 안 쓰이는 것이 모두 같사오니, 긴치 않은 약은 수량을 감하고, 긴히 쓸 약은 수량을 더하여, 이를 상정(詳定)하게 하고, 제주(濟州)에서 나는 대모(玳瑁)도 쓰임새가 많지 않사오니, 전에 문안에 등록된 10분의 1로 상정하는 것이 옳습니다.”</p> <p>하니, 곧 예조로 하여금 이를 마련하여 아뢰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상언한 대로 시행하되, 오직 영월 소산의 당귀는 흙만 털고 깨끗이 씻지 말고 상납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色。 臣願各官所納元數內，一半去皮，一半不去皮洗淨， 只去麤毛上納。</p> <p>一。 緊用之藥， 每年不敷， 其不緊之藥， 年年留置， 民間採取之弊， 用不用皆同。 不緊之藥減數， 緊用之藥加數詳定。 濟州所產玳瑁， 用處不多， 前案付十分之一詳定可也。</p> <p>乃令禮曹磨鍊以啓。 禮曹啓：“依上言施行， 唯寧越當歸， 除帶土， 勿洗淨上納。” 從之。</p>
<p>9. 世宗 63卷, 16年 (1434 甲寅 / 명 선덕 (宣德) 9年) 2月 22日 (庚午) 4번째기사 아악서 공인에게 연향하는 날에 점심을 주고 1년에 한번 쌀을 주기로 하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아악서(雅樂署)의 악공들이 음악을 연습하기에 겨를이 없어, 생계의 곤란함이 다른 데 비하면 배나 되오니, 전악서(典樂署) 공인의 예에 의하여 연향(宴享)하는 날에는 점심을 주고, 1년에 한 차례씩 쌀을 하사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雅樂署樂工等， 閱樂無暇， 艱苦倍他。 依典樂署工人例， 宴享日給點心， 一年一度賜米。” 從之。</p>
<p>10. 세종 64권, 16년 (1434 갑인 / 명 선덕</p>	<p>상정소(祥定所)에서 아뢰기를, “어약(御藥)을 합화(合和)2186) 함은 바로 봉상(奉上)하는 일로서 관계가 비</p>	<p>詳定所啓：“合和御藥， 乃奉上之事， (闕) [關] 係雖重， 然非祭祀之正律，</p>

<p>(宣德) 9년) 4월 4일 (신해) 4번째기사 어약 제조·제사 등에서 정결하게 봉상하지 못한 것은 율문에 따라 죄주기로 하다</p>	<p>록 중하오나, 그러나 제사(祭祀)의 정률(定律)2187) 이 아니온데 중한 조항에 비부(比附)하는 것은 아마 불가할 듯하옵니다. 또 대사의 생뢰(牲牢)·옥백(玉帛)2188) ·서직(黍稷) 등속은 바로 제사의 일이온지라 율문에 정조(正條)가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불결(不潔)한 죄는 한결같이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比附入重，恐不可也。且大祀牲牢玉帛黍稷之屬，乃祭祀之事，律有正條，今後不潔之罪，一依律文施行。”從之。</p>
<p>11. 世宗 64卷, 16年 (1434 甲寅 / 명 선덕 (宣德) 9年) 5월 9日 (乙酉) 4번째기사 여러 제사에 쓰는 탐해는 돼지고기로 쓸 것을 예조에서 아뢰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제사에 찬(饌)으로 담는 탐해(醢醢)2262) 는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하여 돼지고기를 쓰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諸祀饌實醢醢，依《洪武禮制》用豬肉。”從之。</p>
<p>12. 세종 64권, 16년 (1434 갑인 / 명 선덕 (宣德) 9년) 6월 5일 (경술) 2번째기사 외방의 유행·전염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방문으로 써서 주지시키도록 하다</p>	<p>예조에 전지하기를, “외방(外方)의 질병(疾疫)2323) 을 구료(救療)하는 법은 갖추 《육전(六典)》에 실려 있으나, 그러나 수령이 구료에 마음을 쓰지 않을 뿐 아니라, 구료하는 방법을 아직 다 알지 못하여, 이 때문에 요사[札瘥]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널리 의방(醫方)을 초(抄)하여 내려 보내서 경중(京中)과 외방의 집집마다 주지(周知)시키도록 하여, 정성을 다하여 구료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니, 나의 공훈(矜恤)하는 뜻에 맞도록 하라.” 하였는데, 그 방문(方文)에 이르기를, “성혜방(聖惠方)은, 시기(時氣)2324) 와 열독(熱毒)을 서로 감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방문으로는 두시(豆豉) 1되[升], 복룡간(伏龍肝)2325) , 【3냥을 세연(細研). 】 동자 소변(童子小便) 【3중잔(中盞). 】 을 서로 섞어서 달이고, 1중잔(中盞) 반을 취하여 찌꺼기를 버리고 세 번에 나누어서 먹되, 아침마다</p>	<p>傳旨禮曹：“外方疾疫救療之法，備載《六典》，然而守令，非惟不用心救療，救療之方，未能盡知。因此多有札瘥之人，誠爲可恤。廣抄醫方以下之，使中外家家無不周知，盡心救療，不至死亡，以副予矜恤之意。”其方曰聖惠方，時氣熱毒，令不相染方。豆豉一升、伏龍肝、【三兩細研】童子小便，【三中盞】相和煎取一中盞半，去滓分三服，每平朝一服，令人不著瘴疫。又時氣瘴疫浴湯方，桃枝葉十兩、白芷三兩、柏葉五兩，搗篩爲散，</p>

	<p>한 번씩 복용(服用)토록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장역(瘴疫)2326) 에 걸리지 않게 한다. 또 시기장역 욱탕방(時氣瘴疫浴湯方)은, 복숭아나무 지엽[桃枝葉] 10냥, 백지(白芷)2327) 3냥, 백엽(柏葉)2328) 5냥을 골고루 찢고 체[篩]로 쳐 내어 산(散)2329) 을 만들고는, 매양 3냥을 가져다가 탕(湯)을 끓여 목욕을 하면 극히 좋다. 또 시기장역방(時氣瘴疫方)은, 복숭아나무 속에 있는 벌레똥[蟲糞]을 가루로 곱게 갈아 한 돈푼[一錢重]을 물에 타서 먹는다. 또 방문으로는 초시(炒豉)2330) 1되[升], 화출(和朮) 1근을 술에 담가 두고 항상 마신다. 천금방치온병불상염방(千金方治溫病不相染方)은, 새 베로 만든 자루[新布袋]에 붉은 팥[赤小豆] 1되[升]를 담아 우물 안에 넣었다가 3일만에 꺼내어, 온 식구가 27알[枚]씩 복용한다. 또 방문으로는 솔잎[松葉] 가루를 술에 타서 방촌시(方寸匕)2331) 로 하루 세 번씩 복용한다. 또 방문으로는 새 베로 만든 자루에 콩 1되를 담아 우물 속에 넣어 한 잠을 재우고 꺼내어서 7알[枚]씩 복용한다. 또 방문으로는 한때 돌아가는 여역(癘疫)에는 항상 매달 보름날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잘게 썰어 넣고 물을 끓여 목욕한다. 경험양방(經驗良方)으로 상한역려(傷寒疫癘)에 한 자리[同床]에 거처하여도 서로 감염되지 않는 방문은, 매일 이른 아침에 세수하고 참기름[眞香油]을 코 안에 바르고, 누울 때에도 바른다. 창졸간(倉卒間)이라 약이 없으면, 곧 종이 심지를 말아서 콧구멍에 넣어 재채기를 하는 것이 좋다.”</p> <p>고 하였다.</p>	<p>每取三兩，煎湯浴之，極良。又時氣瘴疫方，桃木中蟲糞末細研，水服一錢。又方，炒豉一升，和朮一斤，酒浸，恒將服之。千金方，治溫病不相染方。新布袋盛赤小豆一升，內井中三日出，舉家服二七枚。又方，松葉末酒服，方寸匕日三服。又方，新布袋盛大豆一升，內井中一宿出，服七枚。又方，時行疫癘，常以月望日，細剉東引桃(杖)[枝]，煮湯浴之。經驗良方，傷寒疫癘，同床不相傳染方，每日早朝洗手，眞香油塗鼻內，臨臥時亦塗之。若倉卒中無藥，宜卽以紙撚，探入鼻中，嚏之爲佳。</p>
<p>13. 世宗 64卷, 16年 (1434 甲寅 / 명 선덕 (宣德) 9年) 6月 26日 (辛未) 6번째기사 신·구곡이 귀할 때 백</p>	<p>호조에 전지하기를, “경중과 유후사(留後司)에서 신구곡(新舊穀)이 귀할 때에는 백성의 자원(自願)에 따라 미두를 주고 주전(鑄錢) 5천근을 사들이도록 하라.” 하고, 이에 2천 근은 유후사에게 사들이고, 3천 근은 군자감으로 하여금 사들이게 하되, 매 1근마다 절미(折米)2353) 로는 3말[斗] 5되[升]를, 콩[豆]으</p>	<p>傳旨戶曹： 於京中及留後司新舊穀貴之時，聽民自願給米豆，買鑄錢五千斤。 於是二千斤，令留後司買之；三千斤，令軍資監買之，每一斤折米三斗五升，</p>

<p>성의 자원에 따라 미두를 주고 주전 5천근을 사들이도록 하다</p>	<p>로는 갑절을 주게 하니, 민간에 쌀과 콩이 귀하었으므로 다투어 〈주전을〉 바쳤다.</p>	<p>豆則倍給。 民間米豆貴，爭納之。</p>
<p>14. 세종 65권, 16년 (1434 갑인 / 명 선덕 (宣德) 9년) 7월 2일 (정축) 2번째기사 영녕전과 종묘의 추향 대제와 7월 삭망제에는 1실에 1장의 얼음을 올리게 하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영녕전(永寧殿)과 종묘의 추향 대제(秋享大祭)에는 더운 때가 되어서 희생(犧牲)을 쓰는데 얼음이 없으면 냄새가 날까 두렵사오니, 금후로는 영녕전과 종묘에 1실(室)마다 각각 얼음 1장[丁]씩을 올리게 하고, 7월 삭망제(朔望祭)에도 이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되,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永寧殿、宗廟秋享大祭犧牲，當熱時無冰，恐其有臭。 今後永寧殿、宗廟每一室，各進冰一丁，七月朔望祭，亦依此例施行，永爲恒式。” 從之。</p>
<p>15. 世宗 65卷, 16年 (1434 甲寅 / 명 선덕 (宣德) 9年) 7月 26日 (辛丑) 3번째기사 사헌부에 전지하여 전별하는데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도록 하다</p>	<p>도승지 안송선이 아뢰기를, “이제 장맛비의 재(災)를 당하여, 천변(天變)을 두려워 하여야 할 것이오며, 또 계주교서(戒酒敎書)를 일찍이 내리셨는데, 대소 인민(大小人民)들이 마음대로 방자히 술을 먹고 두려움이 없으며, 하늘의 경계함을 삼가지 아니하오니, 맞이하고 전별하는 데 모여서 마시는 것을 엄하게 금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좇아 곧 사헌부에 전지하였다.</p>	<p>都承旨安崇善啓曰：“今當霖雨爲災，天變可懼。 且曾降戒酒敎書，大小之人，縱酒無畏，不謹天戒，迎饞會飲，痛行禁理。” 從之，卽傳旨司憲府。</p>
<p>16. 세종 65권, 16년 (1434 갑인 / 명 선덕 (宣德) 9년) 7월 27일 (임인) 4번째기사 예조와 상정소에서 사직에 기도하고 고유하는 의주를 편찬하여</p>	<p>(전략) 각각 하나씩 신위의 오른편에 드리고, 【점(坵)이 있다.】 폐백 상자[幣篋]를 각 하나씩을 준소(尊所)에 놓으며, 향로·향합을 초와 함께 신위 앞에 진설하고, 다음은 제기와 제찬을 담은 그릇을 진설하되, 매위(每位)에 각각 왼쪽에 변(籩)이 돌리고, 【밤이 앞에 있고, 녹포(鹿脯)가 다음에 있다.】 오른쪽에 두(豆)가 돌리며, 【청저(菁菹)는 앞에 있고, 녹해(鹿醢)는 다음에 있다.】 보(簠)·궤(簋)가 각각 둘씩인데, 변·두 사이에 놓되, 보는 왼쪽에, 궤는 오른쪽에 있도록 한다. 【보에는 도(稻)·양(梁)을 담아, 양이 앞에 있게 하고, 궤에</p>	<p>(전략)各一於神位之右, 【各有坵】 陳幣篋各一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每位各左二籩, 【栗黃在前, 鹿脯次之.】 右二豆. 【菁菹在前, 鹿醢次之.】 簠簋各二, 在籩豆間, 簠在左簋在右. 【簠實以稻梁, 梁行在稻前. 簋實以黍稷,</p>

바치다

는 서(黍)·직(稷)을 담아, 직을 앞에 있게 하였다.】 조(俎)가 하나인데, 보·괘의 앞에 놓고, 【시성(豕腥)을 담는다.】 작(爵)이 하나인데, 조 앞에 둔다. 【점이 있다.】 또 준(尊)·늬(甒)를 설치하되, 국사에는 대준(大尊)이 둘이고, 【하나를 명수(明水)를 담고, 하나는 단술[醴齊]을 담는다.】 산뢰가 둘인데, 【하나를 현주(玄酒)를 담고, 하나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모두 국자[勺]와 보자기를 더하여 단 아래 서북 모퉁이에 둔다. 후토씨에는 상준(象尊)2383)이 둘이고, 【하나를 명수를 담고, 하나는 예제를 담는다.】 산뢰가 둘인데, 【하나를 현주(玄酒)를 담고, 하나는 청주를 담는다.】 국사(國社)의 술그릇[酒尊] 서쪽에 두되, 모두 남향하게 하고 동쪽을 위가 되게 한다. 【무릇 준과 늬에 담은 명수와 현주가 위가 된다.】 국직(國稷)과 후직씨의 준과 늬는 모두 국사와 후토씨의 의식과 같다. 씻는 곳[洗]을 유문(壚門) 밖 서북쪽에다 남향하게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서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동쪽에 있게 한다.】 늬(甒)는 세(洗)의 서쪽에 두고, 국자[勺]를 더한다. 광주리는 세(洗)의 동북쪽에 두고 수건을 담는다. 【술잔을 씻는 광주리에는 또 작점(爵沾)을 담는다.】 여러 집사(執事)의 세수하는 곳[盥洗]은 헌관의 세(洗) 서북쪽에 남향으로 마련한다. 전사관이 물러가서 자리[次]에 나아가 해당하는 옷을 입고, 사직승(社稷丞)도 역시 해당하는 옷을 입고 올라가서 국사 후토씨·국직 후직씨 등의 신위판을 좌석에 안치한다. 3각(刻) 전에, 헌관 및 여러 집사들이 각각 직위에 상당한 옷을 입는다. 알자(謁者)와 찬자(贊者)는 서쪽 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북쪽 문 안의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남향하고 동쪽을 위로 하여 사배(四拜)하기를 마치고는,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 이하를 인도하여 함께 서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 1각 전에, 알자가 감찰·전사관·대축·축사(祝史)·재랑(齋郎)·사직승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먼저 북쪽 문 안의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겹줄로 남향하여 동쪽을 위로 해서 늘어선다. 찬자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하기를 마친다. 알자가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

稷在黍前。】 俎一在簠簋前，【實以豕腥。】 爵一在俎前。【有玷】 又設尊甒，國社大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山甒二，【一實玄酒，一實淸酒。】 皆加勺罍，在壇下西北隅。后土氏象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山甒二【一實玄酒，一實淸酒。】 於國社酒尊之西，俱南向東上。【凡尊甒，實明水，玄酒爲上。】 國稷后稷氏尊甒，竝如國社后土氏之儀。設洗於壚門外之西北南向，【盥洗在西，爵洗在東。】 甒在洗西加勺，簠在洗東北肆，實以巾。【若爵洗之簠，則又實以爵，有玷。】 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西北，南向。 典祀官退就次服其服，社稷丞服其服升，設國社后土氏、國稷后稷氏神位版於座前。 三刻，獻官及諸執事各服其服，謁者贊者入自西門，先就北門內拜位，南向東上，四拜訖就位。 謁者引獻官以下，俱就西門外位。 前一刻，謁者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社稷丞，入就北門內拜位，重行南向東上。 立定，贊者曰：“四拜。” 監察以下皆四拜訖，謁者引監察就位，引諸執事詣盥洗位，

아가게 하고,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세수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재량이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작을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광주리에 넣어 가지고 존소(尊所)로 나아가서 점(坫) 위에 놓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면, 찬자가 ‘사배하라.’ 하여,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유사(有司)가 준비를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고 아뢰고,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재배(再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재배한다. 찬자가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남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깨끗하라.’ 찬(贊)하여, 손을 씻고 수건으로 손을 닦게 한다. 【손을 씻고 손을 닦는 일은 찬하지 아니한다.】 ‘홀을 잡으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사단(社壇)에 나아가서 북계(北階)로 올라 국사 신위(國社神位)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면, ‘꿰어앉아 홀을 깨끗하라.’고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을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贊)하여,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린다. 대축이 폐백상자[幣篚]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폐백을 잡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향합을 받드는 자와 폐백 상자를 주는 자는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 있고, 향로를 드리는 자와 폐백을 드리는 자는 모두 헌관의 왼쪽에 있다. 작을 주는 자와 드리는 자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후토씨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꿰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찬하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을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여,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린다. 대축이 폐백 상자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폐백을 잡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향합을 받드는 자와 폐백 상자를 주는 자는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 있고, 향로를 드리는 자와 폐백을 드리는 자는 모두 헌관의 왼쪽에 있다. 작을 주는

盥帨訖各就位。齋郎詣爵洗位，洗爵拭爵訖，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謁者引獻官入就位，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退復位。贊者曰：“再拜。”在位者皆再拜。贊者曰：“行奠幣禮。”謁者引獻官，詣盥洗位南向立，贊搯笏，盥手帨手。【盥手帨手不贊】贊執笏，引詣社壇，升自北階，詣國社神位前南向立，贊跪搯笏。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大祝以幣篚授獻官，獻官執幣，以幣授大祝，奠于神位前。【凡奉香授篚，皆在獻官之右，奠爐奠幣，皆在獻官之左。授爵奠爵，準此。】謁者贊執笏，俛伏與小退再拜，引詣后土氏神位前西向立，贊跪搯笏。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大祝以幣篚授獻官，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與少退再拜，引獻官降自北階，詣國稷后稷氏神位前，上香奠幣，竝如國社后土氏之儀。訖，謁者引降復位。

자와 드리는 자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후토씨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 하라.’ 찬하여,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려 놓는다. 대축이 폐백 상자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폐백을 잡아서 드리되,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두 번 절하라.’ 찬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향을 올리고 폐백을 드리기를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작(酌)을 드리는 예를 행하라.’ 고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국사의 준소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선다. 준(尊)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부터 올라가 신위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잡아서 작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작을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남향하여 끓어앉으라.’ 찬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끓어앉아서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再拜)하라.’ 찬하고는, 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부터 올라가서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내려서 후토씨의 준소에 나아가 동향하여 서면,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고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작(爵)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서 작(爵)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작을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

小頃, 贊者曰: “行酌獻禮。” 謁者引獻官詣國社尊所東向立, 執尊者舉冪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獻官升自北階, 詣神位前南向立, 贊跪搯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少退南向跪, 大祝進神位之右, 西向跪讀祝文訖, 謁者贊俛伏興再拜。 引獻官降自北階, 詣后土氏尊所東向立, 執尊者舉冪酌酒, 執事者以爵授酒。 謁者引獻官升自北階, 詣神位前西向立, 贊跪搯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少退西向跪, 大祝進神位之右, 北向跪讀祝文訖, 謁者贊俛伏興再拜, 引獻官降自北階, 詣國稷后稷氏神位前升獻, 竝如國社后土氏之儀。 訖, 引獻官降自北階復位, 諸大祝進徹籩豆如式。 贊者曰: “四拜。” 獻官四拜。 謁者引獻官詣望瘞位北向立, 贊者詣望瘞位東向立, 大祝以篚取祝版及幣, 各由其階降壇, 置於坎。 贊者曰: “可瘞。” 置土半坎, 謁者進獻官之左, 白禮畢, 遂引獻官出。 贊者還本位, 謁者引監察及

	<p>금 물러나 서향하여 꿇어앉으라.’ 찬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再拜)하라.’ 찬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 내려와서 국직과 후직씨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오르며 드리는 절차가 모두 국사 후토씨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고 나서 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여러 대축이 나아가서 변(鑊)·두(豆)를 거두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찬자는 망예위에 나아가 동향하여 선다. 대축이 광주리에 축판과 폐백을 취하여 각기 그 섬들로 해서 단으로 내려와서 구덩이에 놓는다. 찬자가 ‘묻으라.’ 하면, 흙을 구덩이에 반쯤 넣어 채운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예식을 마쳤다.’고 아뢰고 나서, 헌관을 인도하여 나오고, 찬자는 본디 자리로 돌아온다. 알자가 감찰 및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함께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및 여러 집사들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와 찬자가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사직승은 신위판을 간직하고,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내려와서 물러나온다.”</p> <p>하였다.</p>	<p>諸執事，俱復拜位。立定，贊者曰：“四拜。”監察及諸執事皆四拜訖，謁者以次引出。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社稷丞藏神位版，典祀官率其屬，徹禮饌以降乃退。</p>
<p>17. 世宗 65卷, 16年 (1434 甲寅 / 명 선덕 (宣德) 9年) 9月 19日 (癸巳) 2번째기사 흉년으로 쌀·콩·소금을 수송하여 진제해 줄 것을 제주 목사가 아</p>	<p>제주 목사가 아뢰기를, “본주에 흉년이 들었사오니 쌀 3백 석과, 콩 5백 석, 소금 50석을 수송하여 진제(賑濟)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p>	<p>濟州牧使啓：“本州凶歉，米三百石、豆五百石、鹽五十石，漕轉賑濟。”從之。</p>

되다		
18. 세종 65권, 16년 (1434 갑인 / 명 선덕 (宣德) 9년) 9월 24일 (무술) 1번째기사 왕세자·종실·문무군신 을 거느리고 동교에 가서 군사를 사열하고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왕세자 및 종실과 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동교(東郊)에 거둥하여 군사를 의식과 같이 크게 사열하고, 세자 및 종실과 재신(宰臣)들과 악차(幄次)에서 잔치하고, 군신과 군사들에게도 술과 안주를 나누어 주었다.	戊戌/上率王世子宗室文武群臣，幸東郊，大閱軍士如儀。宴世子及宗室宰臣于幄次，分賜酒餼于群臣及軍士。
19. 世宗 66卷, 16年 (1434 甲寅 / 명 선덕 (宣德) 9年) 10月 25 日(戊辰) 4번째기사 환관 한용봉을 사신에 게 보내어 유자를 나 눠 주다	환관 한용봉(韓龍鳳)을 보내어 세 사신에게 유자(柚子)를 나누어 주었다.	遣宦官韓龍鳳，分贈柚子于三使臣。
20. 세종 66권, 16년 (1434 갑인 / 명 선덕 (宣德) 9년) 11월 15 일(기축) 1번째기사 성절사 예조 참판 김 익정이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다	성절사(聖節使) 예조 참판 김익정(金益精)이 표문(表文)을 받들고 북경으로 가니, 임금이 군신을 거느리고 표문을 배송(拜送)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아울러 해미(海味)와 해청(海靑)을 바쳤다.	己丑/聖節使禮曹參判金益精，奉表如京師，上率群臣拜表如儀，竝進海味及海靑。
21. 世宗 67卷, 17年 (1435 乙卯 / 명 선덕 (宣德) 10年) 1月 23	예조에서 왕녀 하가의(王女下嫁儀)를 아뢰니, 그 의절에 이르기를, “납채(納采)에 주인이 갖추어 쓰고, 【직함(職銜)과 성명을 갖추어 쓴다. 때는 맹춘(孟春)·중춘(仲春)·계춘(季春) 등등으로 쓰되, 때에 따라 고쳐 쓰나니, 여	乙未/禮曹啓王女下嫁儀曰： 納采：主人具書【具銜姓名，時維孟春，仲春季春則隨時而改，夏秋冬亦

日(乙未) 1번째기사
예조에서 왕녀 하가의
를 아뢰다

름·가을·겨울도 역시 같다. ‘태후(台候) 다복(多福)하십니까. 조은(朝恩)을 입어 아무의 아들 아무에게 아내를 주시니’라고 하는데, 혹은 무슨 친숙 아무의 아들 아무에게라고도 쓴다. ‘삼가 납채(納采)의 예(禮)를 행하오니 조감(照鑑)하시기 바라옵고 불선(不宣)하나이다. 연 월 일’의 순서로 쓴다. 【일찍 일어나서 가묘(家廟)2410) 에 고하고, 【하루 앞서 물 뿌려 깨끗이 청소하고 재계(齋戒)하여 자고는, 다음날 술과 과일을 진설해 놓고, 주인 이하 모두 성복(盛服)한다. 직함이 있는 자와 전직 직함이 있는 자는 사모(紗帽)·품대(品帶)를 착용하고, 직위가 없는 자는 입자(笠子)와 도아(條兒)를 쓴다. 아래도 이에 준해 한다. 주인이 조계(阼階) 아래에 북향하고 서면, 집사자(執事者)는 주인의 뒤에 있되, 곁줄로 서쪽을 위로 삼아 선다. 주인이 관세(盥洗)하고 올라가서 독(櫝)을 열고 여러 신주(神主)를 받들어 독 앞에 놓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한다. 주인이 다시 올라가 향탁(香卓) 앞으로 나아가서 향을 피워 올리고 두 번 절하고,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서 술을 드리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향탁 앞으로 물러가서 꿇어앉는다. 축(祝)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주인의 왼편으로 가서 꿇어앉아 읽고 나면, 주인이 두번 절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하고는, 주인이 신주를 도로 독에 받들어 놓고 물러난다. 그 축판에 이르기를, ‘아무해 아무 달 무슨 삭(朔) 아무 날, 「효증손(孝曾孫)」 이라고 쓰는데, 2대에게 고하는 것이면 「효손(孝孫)」이라 하고, 고비(考妣)일 것 같으면, 「효자」라고 일컬은다. 모관(某官) 아무는 감히 모친(某親) 모관 부군(某官府君), 모친(某親) 모봉 모씨(某封某氏)께 고하나이다. 아무의 아들 아무, 혹은 아무 친숙 아무의 아들 아무가 나이 이미 장성하였는데도 배필이 없더니, 조은(朝恩)을 입어 아내로 내리시와 오늘 납채를 하게 되어 감창(感愴)하온 심회를 누를 길이 없어, 삼가 주과(酒果)로 예를 펴 경건히 고하나이다.’ 한다. 종자(宗子)인 자신이 혼인을 하게 되면 스스로 그 축을 고하고, 한 판(版)에 같이 쓰되, 그

同。 台候多福。 朝恩既室于某之子某若某， 親某之子某， 謹行納采之禮， 伏惟照鑑， 不宣。 年月日。】 夙興告于家廟【前一日， 灑掃齋宿， 厥明， 設酒果。 主人以下盛服； 有職者及前衛， 紗帽品帶； 無職者， 笠子條兒。 下放此。 主人於阼階下北向立， 執事者在主人之後， 重行西上。 主人盥洗升啓櫝， 奉諸神主， 置於櫝前， 降復位， 主人以下皆再拜。 主人升詣香卓前， 焚香再拜， 詣神位前獻酒， 如常儀。 退于香卓之前跪， 祝持版進主人之左跪讀畢， 主人再拜降復位， 主人以下皆再拜。 主人納主而退。 其祝版云：“維年歲月朔日， 孝曾孫告， 二代則稱孝孫， 若考妣則稱孝子某官某， 敢昭告于某親某官府君、 某親某封某氏。 伏以某之子某， 若某親某之子某， 年已長盛， 未有伉儷， 朝恩既室， 今日納采， 不勝感愴。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宗子自昏則自告， 其祝共爲一版， 自稱以其最尊者爲主。】 乃使子弟爲使者， 盛服詣公主家， 【翁主則云翁主家。 下放此。】 主人【以宗親中尊長者爲之。】 亦盛服出(逆) [迎] 【凡

최존자(最尊者)로서 주인이 되어 고한다고 일컬는다.】 드디어 자제(子弟)로 사자(使者)를 삼아 성복(盛服) 차림으로 공주(公主)의 집으로 가면,【옹주(翁主)는 옹주의 집이라 한다. 아래에도 이에 의거하여 한다.】 주인이【중친(中)에서 존장되는 사람이 한다.】 역시 성복하고 나와 사자를 맞이하여【무릇 빈주(賓主) 사이의 행하는 예는 모두 찬자(贊者)가 도와 인도한다.】 청사(廳事)로 오르면,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조정의 은명(恩命)으로 모관(某官)의 아들 모관에게 아내를 내리시니, 선인의 예(禮)가 있사옵기로 아무로 하여금 납채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면, 종자(從者)가 글을 올려, 사자가 그 글을 주인에 준다. 주인이 대답해 말하기를, ‘아무[某]가 어찌 공경히 좃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어 글을 받고 북향하여 두 번 절한다. 사자가 이를 피하여 답배(答拜)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 명하기를 청하면, 주인이 답서[復書]를 주고,【직함과 성명을 갖추어 쓰고 이르기, ‘글을 받들고 납채의 예를 살펴 알았습니다. 아무 공주가 나이 점차 장성하옵더니, 이제 존명(尊命)을 받자오니, 어찌 공경히 좃지 않겠습니까. 조감(照鑑)하심을 삼가 바랍니다. 불선(不宣)하나다. 연 월 일’이라고 쓴다.】 주인이 드디어 사자와 더불어 맞절[交拜]하기를 평소 빈객과의 예와 같이 하고, 드디어 주찬(酒饌)으로【찬품(饌品)은 세가지 과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자에게 예를 베푼다. 그 종자(從子)에게도 역시 별실에서 예를 베푼다. 사자가 복명(復命)한다.

납폐(納幣)는,【폐백에는 비단 혹은 베를 쓰는데, 현훈(玄纁) 두 끝을 각각 쓴다.】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사자를 공주의 집으로 보내어, 주인이 나와 사자를 영접하여 청사(廳事)에 오르면,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조정의 은명으로 모관(某官)의 아들 모관에게 아내를 내려 주시와, 선인의 예(禮)가 있삽기로 아무로 하여금 폐백을 들이기를 청하옵니다.’ 하고, 종자(從子)가 폐백을 바쳐, 사자가 그 폐백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이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관이 선대의 법을 따라 아무에게 중례를 주시니, 아무가 어찌 명을 받지 않겠

賓主行禮, 皆贊者相導之。】使者, 升廳事。 使者致辭曰: “朝恩賜室于某官之子某官, 有先人之禮, 使某也請納采。” 從者以書進使者, 以書授主人, 主人對曰: “某敢不敬從!” 乃受書, 北向再拜, 使者避不答拜, 復進請命, 主人授以復書, 【具銜姓名, 奉書得審納采之禮。 某公主年漸長盛, 今承尊命, 敢不敬從! 伏惟照鑑, 不宣。 年月日。】主人遂與使者交拜, 如常日賓客之禮。 乃以酒饌【饌品不過三果】禮使者, 其從者, 亦禮之別室。 使者復命。 納幣: 【幣用紬或布, 玄纁各二端。】主人夙興, 遣使如公主家, 主人出迎使者, 升廳事。 使者致辭曰: “朝恩賜室于某官之子, 某官有先人之禮, 使某也請納幣。” 從者以幣進使者, 以幣授主人, 主人對曰: “某官順先典, 貺某重禮, 某敢不承命!” 乃受幣再拜, 使者避之。 其禮賓及使者復命, 竝同納采之儀。 親迎: 前期一日, 公主家使人, 張陳其壻之室。 【衿褥用綿紬木綿】其日, 公主家設次于外。 先時, 壻詣闕, 公服肅拜還家。 初昏, 壻盛服, 【公服。 其衣服用綿紬木綿。】主

습니까.’ 하고, 드디어 폐백을 받고 두 번 절하면, 사자는 이를 피한다. 그 손님에게 예로 대접하는 것과 사자가 복명하는 예의의 절차는 모두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다. 친영(親迎)에 있어서는, 하루 앞서 공주 집에서 사람을 시켜 사위의 방을 마련해 놓고, 【의복과 침구는 면주(綿紬)와 목면(木綿)을 사용한다.】 그날 공주의 집에서 〈사위가 머무를〉 차소(次所)를 설치하며, 그 시간에 앞서서 사위는 공복(公服)으로 대궐에 나아가 숙배(肅拜)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날이 처음 어두울 무렵에 사위가 성복(盛服)을 하고, 【공복(公服)을 말한다. 그 의복은 면주와 목면을 사용해 한다.】 주인이 가묘(家廟)에 고하기를 납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축판(祝版)은 전과 같은데, 다만 ‘아무의 아들 아무, 혹은 모친(某親) 아무의 아들 아무가, 오늘 아무 공주를 친영(親迎)하게 되어 감창(感愴)한 회포를 누를 길이 없어 삼가……’라 이르고, 그 아래는 모두 같이 쓴다.】 이를 마치고 나면, 탁자에 술병과 잔을 설치해 당(堂) 위에 놓고, 그 아버지의 자리를 당의 동쪽에 서향하여 마련하고, 사위의 자리는 그 서북쪽에 남향하여 마련한다. 사위가 서계(西階)로 올라와서 자리 서쪽에 남향하고 서고, 집사자가 잔을 취하여 술을 따라 가지고 사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면, 사위가 네 번 절하고 자리에 올라 남향하여 꿇어앉아 잔을 받아, 술을 지워 덜어[祭酒] 가지고 일어나서 자리 끝으로 나가 꿇어앉아 술을 맛본 다음, 이를 집사자에게 주고, 다시 네 번 절하고, 아버지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으면, 아버지가 명하기를, ‘가서 너의 보좌를 맞이하여 우리 종사(宗祀)를 계승하되, 【종자(宗子)의 아들이 아니면, 종사를 가사(家祀)로 고쳐 쓴다.】 힘써 공경하여 좇아나가라. 이렇게 하면 상도(常道)를 유지하리라.’ 하면, 신랑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나이다. 오직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나, 어찌 명하심을 잊으오리까.’ 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나간다. 【종자(宗子)가 이미 어른이 없고 스스로 혼인하면, 이 예절을 쓰지 않는다.】

人告于家廟，如納采儀。【祝版前同，但云：“某之子某，若某親某之子某，將以今日親迎于某公主，不勝感愴，謹以。”後同。】訖，以卓設酒壺盞於堂上。父坐於堂之東方西向，設壻席於其西北南向。壻升自西階，立於席西南向。執事者取盞斟酒，詣壻席前，壻四拜升席南向跪，受盞祭酒興，就席末跪啐酒，授執事者，又四拜。進詣父坐前東向跪，父命之曰：“往迎爾相，承我宗祀，【非宗子之子，則改宗祀爲家祀。】勉率以敬，若則有常。”壻曰：“諾。惟恐不堪，不敢忘命。”俛伏興【宗子已孤而自昏，則不用此禮。】出，主人使其屬送之。壻乘馬，以炬前導，【炬十柄】備儀物，【交床鞍籠之類】至公主家大門外下馬，入俟于次。公主盛飾，【衣服用綿紬木綿】姆相之以出。主人坐於堂之東方西向，主婦坐西方東向，設公主席於主婦東北南向，公主立於席西南向。執事者醮以酒如壻禮。【且再拜爲異】主人出迎壻於門外，揖讓以入，壻執鴈【生雁左首，以色紬交絡之。】以從，至于廳事。主人升自阼階西向立，壻升自西

주인이 그에게 딸린 사람들을 시켜 보냈는데, 사위가 말을 타면 횃불로 앞을 인도하고, 【횃불을 열 자루를 쓴다.】 의물(儀物)을 갖추고서 【교상(交床)·안룽(鞍籠)의 유(類).】 공주 집 대문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차소(次所)로 들어가서 기다리면, 공주가 성대하게 장식하고는 【의복은 면주와 목면으로 한다.】 보모(保母)의 부축을 받고 나온다. 주인은 당(堂) 동쪽에 서향하여 앉고, 주부(主婦)는 서쪽에 동향하여 앉으며, 공주의 자리를 주부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공주가 그 자리 서쪽에 남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술로 초례[醮]를 행하기를 사위의 예식과 같이 한다. 【다만 두 번 절하는 것이 다르다.】 주인이 나가 문밖에서 사위를 맞아 읍양(揖讓)하고 들어오면, 사위는 기러기[雁]를 안고 【산 기러기의 왼쪽 머리를 색주(色紬)로 맞뉘는다.】 뒤따라 청사(廳事)에 이르러, 주인은 조계(阼階)로 올라가서 서향하여 서고, 사위는 서계로 올라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기러기를 땅에 놓으면, 주인의 시자(侍者)가 이를 받는다. 사위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두 번 절하면, 주인은 절을 답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사위는 서계로 내려가고, 주인은 내려가지 않는다. 보모가 공주를 인도하여 주부(主婦)의 왼쪽으로 나오면, 주인이 나아가 명하여 말하기를, ‘공경하고 경계하여 구고(舅姑)의 명을 어기지 말라.’ 하고, 주부는 서계 위까지 전송하여 관(冠)을 똑바로 잡아 주고 배자[帔]를 거두어 주면서 명하기를, ‘힘쓰고 또 공경하여 조석으로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한다. 보모가 공주를 받들고 나가면, 사위가 드디어 증문으로 나가고, 공주는 그를 따라 나가는데, 사위가 교자(轎子)의 발[簾]을 들고 기다리면, 보모가 겸사하여 말하기를, ‘가르치지 못하여 더불어 예(禮)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는, 곧 교자에 오르고, 횃불로 앞을 인도한다. 【횃불은 열 자루를 사용한다.】 사위는 말을 타고 먼저 가고, 공주가 그 뒤를 따르는데, 주인이 그의 요속을 시켜 이를 전송한다.

동퇴(同牢)2411) 는, 그날 사위 집에서 방안에 두 사람의 자리를 동서로 마주

階北向跪，置雁於地，主人侍者受之，婿俛伏興再拜，主人不答拜。婿降自西階，主人不降。姆導公主，出於主婦之左，主人進，命之曰：“敬之戒之，無違舅姑之命。”主婦送之西階上，爲之整冠斂帔，命之曰：“勉之敬之，夙夜無違。”姆奉公主出，婿遂出中門，公主從之。婿舉轎簾以俟，姆辭曰：“未教，不足與爲禮。”乃乘轎，以炬前導。【炬十柄】婿乘馬先行，公主次之。主人使其屬送之。同牢：其日，婿家於室內，設席兩位，東西相向。酒壺卓在東位之後，置兩盞盞【盞音謹，以小匏一判而兩之。】於其上。又南北設二盃盆勺於室東隅，又設酒壺盞於室外或別室，以飲從者。婿至其家，俟公主至，導以入。公主從者，布婿席於東方，婿從者，布公主席於西方。婿盥于南，公主從者沃之進帨。公主盥于北，婿從者沃之進帨。婿揖公主就席，公主再拜，婿答拜，婿揖公主就坐。婿在東，公主在西。從者設饌，【饌品不過七果】斟酒，婿及公主祭酒，舉飲舉肴。又斟酒，婿及公主舉飲，不祭無肴。又取盞斟酒，婿及

보게 설치하고, 술병의 탁자는 동쪽 자리 뒤에 있게 하고, 두 개의 잔(盞)·근(罇)을 【근(罇)의 음(音)은 근(謹)과 같으니, 조그마한 박[匏] 한 개를 쪼개서 두 개를 만든 것이다.】 그 위에 두고, 또 남북으로 두 개의 대야[盥盆]와 국자[勺]를 방 동쪽 모퉁이에 설치하며, 또 술병과 잔을 실외(室外)나 혹은 별실(別室)에 설치하여, 종자들을 먹게 한다. 사위가 그 집에 이르러 공주를 인도해 오는 것을 기다려서 들어가면, 공주의 종자(從者)는 사위의 자리를 동쪽에 펴고, 사위의 종자는 공주의 자리를 서쪽에 편다. 사위는 남쪽에서 손을 씻는데, 공주의 종자가 물을 손에 부어 주고는 수건을 바친다. 사위가 공주에게 읍(揖)하고 자리로 나아가면, 공주는 두 번 절하며, 사위가 이에 답하여 절한다. 사위가 읍하고, 공주가 자리에 앉는데, 사위는 동쪽에 있게 되며, 공주는 서쪽에 있게 된다. 종자가 찬품(饌品)을 【찬품은 일곱 가지를 넘지 않는다.】 배설하고 술을 따르면, 사위와 공주가 술을 지워 덜고 잔을 들어 마시고 안주를 든다. 또 술을 따르면, 사위와 공주가 그대로 들어서 마시고 지우지 않으며, 안주는 들지 않는다. 또 근(罇)을 취하여 술을 따르면, 사위와 공주는 잔을 들어 마시고 지우지 않으며, 안주도 없다. <이리하여> 사위는 나가 다른 방으로 가고, 보모와 공주는 방안에 머물러 있고, 찬품을 걸어 방밖에 내놓고 자리를 배설한 뒤에, 사위의 종자는 공주가 남긴 것을 먹고, 공주의 종자는 사위의 퇴물을 먹는다. 【퇴물을 받고 나서 공주의 종자들에게 목면(木綿) 각 한 끝으로 폐백을 갠다.】 사위가 다시 들어가 옷을 벗으면, 공주의 종자가 이를 받으며, 공주가 벗는 옷은 사위의 종자가 이를 받고, 촛불이 나온다.

공주의 현구고(見舅姑)2412) 는, 이튿날 공주가 일찍 일어나 성장하고 뵈오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당(堂) 동서에 서로 마주앉고는 각기 탁자를 앞에 놓아 둔다. 공주가 나아가 조계(阼階) 아래에 서서 북향하여 시아버지에게 절하고, 【네 번 절한다.】 올라가서 대추와 밤을 담은 소반

公主舉飲，不祭無肴。壻出就他室，姆與公主留室中，徹饌置室外設席，壻從者餽公主之餘，公主從者餽壻之餘。

【受餽訖，酬幣于公主從者，用木綿各一端。】壻復入脫服，公主從者受之；公主脫服，壻從者受之。燭出。公主見舅姑：明日，公主夙興盛飾俟見，舅姑坐於堂東西相向，各置卓於前。公主進立於阼階下北向拜，【四拜】舅升，奠棗栗盤于卓上，舅撫之，侍者以入，公主降又拜。詣西階下北向拜，【四拜】姑升，奠脩盤，姑舉以授侍者，公主降又拜，舅姑禮之，如醮公主之儀。【但四拜爲異】若舅姑俱亡，則公主見于主昏尊長，如見舅姑之禮，無贊。【但再拜爲異。】公主見家廟：三日，主人詣香卓之前跪告曰：“某之子某，若某親某之子，某之婦某公主，敢見。”告畢，立於香卓東南西向，主婦以公主，進立於兩階之間，再拜乃還。

【若非宗子之子，而家廟在別處，則見廟在三月之後。】壻朝見：明日詣闕，公服肅拜，賜饋。次拜詣中宮肅拜，次詣東宮行禮訖，釋公服，以次見宗親諸尊長如儀，竝禮之如常。【其諸親家

	<p>을 탁자 위에 드리면, 시아버지가 이를 어루만진다. 이에 시자(侍者)가 들어온다. 공주가 다시 내려가서 또 절하고는, 서쪽 섬돌 아래로 나아가 북향하여 시어머니에게 절하고, 【네 번 절한다.】 올라가서 단수(殿脩)2413) 를 담은 소반을 탁자 위에 드리면, 시어머니가 이를 들어서 시자에게 주고, 공주가 다시 내려와 또 절하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에 예하기를 공주가 초례(醮禮)할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다만 네 번 절하는 것이 다르다.】 만약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다 죽고 없으면, 공주가 그 혼인을 주장하는 존장(尊長)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뵈는 예와 같이 하되, 다만 폐백이 없다. 【다만 두 번 절하는 것이 다르다.】 공주의 현가묘(見家廟)2414) 는, 사흘 만에 주인이 향탁(香卓)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고하기를, ‘아무의 아들 아무, 혹은 모친(某親) 아무의 아들 아무의 아내 아무 공주가 감히 알현하나이다.’ 하고 나서, 향탁 동남쪽에 서향하고 서면, 주부(主婦)가 공주로 하여금 양계(兩階) 사이로 나아가 서서 두 번 절하게 하고, 드디어 돌아간다. 【만약 종자의 아들이 아니고 사당이 판 곳에 있으면, 사당 알현은 석 달 뒤에 행한다.】 사위의 조현(朝見)은, 이튿날 대궐로 나아가서 공복(公服)으로 숙배하면, 궐향의 음식을 하사한다. 다음 중궁으로 나아가서 숙배하고, 그 다음 동궁으로 나아가서 행례를 마치고는, 공복을 벗고 차례로 종친의 존장을 뵈기를 의식과 같이 하면, 모두 이에 예하기를 상례(常例)와 같이 한다. 【모든 종친 집에서 사위를 예로 대하는 데 있어, 찬품은 다섯 가지 과일에 지나지 않으며, 그 종자들에게는 폐백을 주지 않는다.】.”</p> <p>하였다.</p>	<p>禮壻饌品， 不過五果， 毋得酬幣于從者。】</p>
<p>22. 世宗 67卷, 17年 (1435 乙卯 / 명 선덕(宣德) 10年) 1月 26日(戊戌) 3번째기사</p>	<p>호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에 잇따라 기근(飢饉)이 들어서 인민들이 모두 초식(草食)을 하고 있사운데, 만일 소금과 장(醬)이 없을 것 같으면 부종(浮腫)이 날 우려가 있사오니, 적당히 양곡을 대여하여 구제하게 하옵소서.”</p>	<p>戶曹啓: “平安道連年饑饉， 人皆草食， 若無鹽醬， 慮致浮腫， 許令隨宜賑貸。” 從之。</p>

<p>평안도에 양곡을 대여해 주어 기근을 구제하도록 하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23. 세종 67권, 17년 (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2월 29일(신미) 3번째기사 예조에서 왕자 혼례의 를 아뢰다</p>	<p>예조에서 왕자 혼례의(王子婚禮儀)를 아뢰기를, “납채(納采)는, 주인이 【종친 중에서 존장되는 자가 한다.】 갖추어 쓰고, 【직함(職銜)과 성명을 갖추어 쓴다. ‘때는 맹춘(孟春)이온데’라고 쓰는데, 중춘(仲春)·계춘(季春)은 때를 따라 고쳐 쓰며, 여름·겨울도 역시 같다. 2품 이상은 태후(台候)라 일컫고, 3품은 중후(重候)라 일컬으며, 4품에서 6품까지는 아후(雅候)라 통칭(通稱)하고, 7품 이하는 재후(裁候)라 칭하여 쓰고는, ‘다복(多福)하십니까. 모대군(某大君)이, 제군(諸君)은 모군(某君)이라 한다. 아래도 이와 같이 한다. 나이 이미 장성하여도 배필이 없삽더니, 삼가 납채의 예를 행하오니 조감(照鑑)하심을 바라오며, 불선(不宣)하나이다. 년 월 일.’이라 쓴다.】 일찍 일어나서 사자(使者)를 보내는데, 【종척 중에서 3품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성복하고 【관직이 있는 자는 사모(紗帽)와 품대를 착용하고, 전직자[前銜]도 역시 사모와 품대의 착용을 허용한다. 아래도 이와 같이 한다.】 부인의 집으로 가면, 그 주인도 역시 성복하고 나와 맞이한다. 【무릇 손님과 주인이 서로 예를 할 때는 모두 찬자(贊者)가 이를 도와 인도한다.】 사자가 청사(廳事)에 오르면,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모관(某官)께서 모대군(某大君)에게 아내를 주시어, 모관이 【주혼자(主婚者).】 선대의 법을 받아 아무로 하여금 납채하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고 종자(從者)가 글을 올려, 사자가 그 글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답사하여 말하기를, ‘아무의 아들이, 혹 누이·조카·손자 등, 어리석고 또 가르치지 못하였는데도 【시집가는 자가 주인 의 고모나 누님이 되면, 어리석고 가르치지 못하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모관께서 이를 명하시니, 아무[某]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고, 이에 글을 받고는 북향하여 두 번 절하면, 사자는 피하고 답배(答拜)하지 아니한</p>	<p>禮曹啓王子婚禮儀曰： 納采：主人【以宗親中尊長者爲之。】具書，【具銜姓名。時維孟春，仲春季春，則隨時而改。夏秋冬亦同。二品以上稱台候，三品稱重候，四品至六品通稱雅候，七品以下稱裁候。多福，某大君，諸君則某君，下倣此。年已長成，未有伉儷，謹行納采之禮，伏惟照鑑，不宣。年月日。】夙興遣使者，【以宗戚中三品以下者爲之。】盛服【有職者紗帽品帶，前銜亦許紗帽品帶，下倣此。】如夫人家，主人亦盛服，出迎【凡賓主相禮，皆贊者相導之。】使者，升廳事。使者致辭曰：“某官貺室某大君，某官【主婚者】率由先典，使某也請納采。”從者以書進，使者以書授主人，主人對曰：“某之子若妹姪孫蠢愚，又不能教，【若許嫁者，於主人爲姑姊，則不云蠢愚又不能教。】某官命之，某不敢辭。”乃受書，北向再拜，使者避不答拜，使者請退俟命出就次。主人遂告于家廟，【前</p>

다. 사자가 물려가서 명을 기다리겠다고 청하고 차소(次所)로 나가면, 주인이 드디어 가묘(家廟)에 고하고 【하루 앞서 가묘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재계(齋戒)해 자고는, 이튿날 술과 과일을 진설해 둔다. 시각이 되면 주인 이하가 모두 성복하고, 주인은 조계(阼階) 아래에 북향하여 서고, 집사자(執事者)는 주인 뒤에 있되, 겹줄로 서쪽을 위로 삼아 선다. 주인이 손을 수건에 닦은 다음, 올라가서 독(櫝)을 열고 여러 신주(神主)를 모셔 내어 독 앞에 두고는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와서,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한다. 주인이 다시 올라가 향탁(香卓) 앞으로 나아가서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하고,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서 술잔을 드리기를 평상의 의절과 같이 하고 나서, 향탁 앞으로 물러나와 꿇어앉는다. 축(祝)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주인의 왼쪽으로 가서 꿇어앉아 읽고 나면, 주인이 두 번 절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와서는, 주인 이하 모두가 두 번 절하고 나서, 주인이 신주를 독에 모셔 넣고 물러난다. 그 축판에 이르기를, ‘유세차(維歲次) 간지(干支) 모월 모일 삭(朔)에 효증손(孝曾孫), 2대에 고하게 되면 효손(孝孫)이라 일컫고, 고비(考妣)에게 고하면 효자(孝子)라 일컫는다. 아무는 감히 모친(某親) 모관부군(某官府君)과 모친(某親) 모봉모씨(某封某氏)께 고하옵니다. 아무의 몇째 딸, 또는 모친(某親)의 몇째 딸이 나이 점차 장성하옵기로 이미 모대군(某大君)에게 출가를 허락하여 오늘 납채하고 감창(感愴)함을 누를 길이 없삽기로, 삼가 주과(酒果)로서 경건히 고하나이다.’ 한다. 그 축(祝)도 함께 한 판(版)으로 하고, 그의 최존자(最尊者)로써 주장한다고 스스로 일컫는다.】 나가 사자를 맞아 청사로 올라와서 답서[復書]를 주고, 【직함과 성명을 갖추어 쓰고는 ‘글을 받들어 납채의 예임을 살펴 알았나이다. 아무의 딸이, 또는 모친(某親) 아무의 딸이 어리석고 또 가르치지 못하였사오나, 만약 출가하는 자가 주인에게 고모나 누님이 되면, 나이 이미 장성하였다고 쓴다. 이제 존명(尊命)을 받았으니 감히 사양하오리까. 삼가 조감(照鑑)하심을 바라옵고 불선(不宣)하나이다. 년 월 일’이라 쓴다.】 교배

一日，灑掃齋宿，厥明設酒果。時至，主人以下盛服。主人於阼階下北向立，執事者在主人之後，重行西上。主人盥帨升啓櫝，奉諸神主，置於櫝前，降復位，主人以下皆再拜。主人升詣香卓前，焚香再拜，詣神(前)位前，獻酒如常儀，退于香卓之前跪，祝持版進主人之左跪讀畢，主人再拜降復位，主人以下皆再拜。主人納主而退。其祝版云：“維歲月日朔，孝曾孫告，二代則稱孝孫，告考妣則稱孝子某官某敢昭告于某親某官府君、某親某封某氏。伏以某之第幾女，若某親某之第幾女，年漸長成，已許嫁某大君，今日納采，不勝感愴。謹以酒果，用伸虔告。”其祝共爲一版，自稱以其最尊者爲主。】出迎，使者升廳事，授以復書，【具銜姓名。奉書，得審納采之禮。某之女若某親某之女蠢愚，又不能教。若許嫁者於主人爲姊妹，則云年漸長成，今承尊命，不敢辭，伏惟照監，不宣。年月日。】交拜如常日賓客之禮，乃以酒饌【饌品不過三果】禮使者，其從者，亦禮之別室，使者復命。納幣：【幣用紬或布，玄四端、纁二端，諸君

(交拜)하기를 빈객(賓客)의 예절과 같이 하고, 드디어 술과 음식으로 【찬품(饌品)은 3색의 과일을 넘게 하지 않는다.】 사자에게 접대하고, 그 종자에게도 역시 별실(別室)에서 접대하고 나면, 사자는 복명(復命)한다.

납폐(納幣)는, 【폐백은 면주(綿紬) 또는 베로서 검은 것 네 끝과 분홍 두 끝으로 하며, 제군(諸君)은 검은 것과 분홍 각기 두 끝을 쓴다.】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사자를 보내어 부인의 집으로 가면, 주인이 나와서 사자를 맞이하여 청사(廳事)로 올라간다.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모관(某官)께서 모대군(某大君)에게 아내를 주시어, 모관이 선대의 법을 좇아 아무를 시켜 납폐(納幣)하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면, 종자(從者)가 폐백을 바치고, 사자가 그 폐백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답사하여 말하기를, ‘모관께서 선대의 법을 좇아 아무에게 증례를 주시니, 아무가 어찌 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드디어 폐백을 받고 두 번 절하면, 사자는 이를 피한다. 그 빈객의 접대와 사자의 복명은 모두 납채의 의절과 같다. 친영(親迎)은, 하루 앞서 부인 집에서 사람을 시켜 대군(大君)의 방을 마련하여 둔다. 【마련하여 두는 것은, 이불과 요[褥]는 면주(綿紬)와 목면(木棉)을 써서 하고, 그 밖에 병풍·자리·휘장[帳幔] 등의 물건은 대군 집에서 갖추어 가지고 가서 한다.】 그날 부인 집에서는 밖에 차소(次所)를 설치해 두며, 땅거미가 질 무렵에 대군이 성복(成服)하고 【공복(公服)을 말한다. 의복은 면주와 목면을 사용하여 만든다.】 나가면, 주인이 그에 따른 사람들을 시켜 보낸다. 대군이 말을 타면 횃불로 앞을 인도하며, 【횃불은 14자루이다. 제군(諸君)은 10자루이다.】 의물(儀物)을 갖추고 【교상(交床)·안장·초롱[籠] 따위이다.】 부인 집 대문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차소로 들어가 기다린다. 주인이 가묘에 고하기를 납채(納采)의 의절과 같이 하고, 【축판(祝版)은 앞에서와 같다. 다만 이르기를, ‘아무의 몇째 딸, 혹은 모친(某親)의 몇째 딸이 오늘 모대군(某大君)에게로 우귀(于歸)하옵기에 감창(感愴)함을 누를 길 없어, 삼가……이하는 같다.’ 한다.】 그리고 나서, 탁자에

玄纁各二端。】主人夙興，遣使如夫人家，主人出迎使者，升廳事，使者致辭曰：“某官貺室某大君，某官率由先典，使某也請納幣。”從者以幣進，使者以幣授主人，主人對曰：“某官順先典，貺某重禮，某敢不承命!”乃受幣再拜，使者避之。其禮賓及使者復命，竝同納采之儀。親迎：前期一日，夫人家使人張陳大君之室。【所張陳者，衾褥用綿紬木綿。其屏席帳幔等物，大君家備陳。】其日，夫人家設次于外。初昏，大君盛服【公服。其衣服，用綿紬木綿。】出，主人使其屬送之。大君乘馬，以炬前導，【炬十四柄，諸君十柄。】備儀物【交床鞍籠之類】至夫人家大門外下馬，入俟于次，主人告于家廟，如納采儀【祝版前同，但云：“某之第幾女，若某親之第幾女將以今日歸于某大君，不勝感愴，謹以。”後同。】訖，以卓設酒壺盞於堂上。夫人盛飾，【衣服用綿紬木綿】姆相之以出。父坐於堂之東方西向，母坐西方東向。設夫人席於母之東北向南，夫人立於席西南向。執事者取盞斟酒，詣夫人席前，夫人四拜，升席南

술병과 잔을 당 위에 설치하면, 부인이 성식(盛飾)하고 【의복은 면주와 목면을 사용하여 한다.】 보모[姆]의 부축을 받으며 나온다. 아버지는 당 동쪽에 서향하여 앉고, 어머니는 서쪽에서 동향하여 앉으며, 부인의 자리는 어머니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는, 부인이 그 자리 서쪽에 남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잔을 취하여 술을 따라 가지고 부인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면, 부인이 네 번 절하고 자리로 올라가서 남향하여 꿇어앉아 잔을 받아 술을 지우[祭酒]고, 일어나 자리 끝으로 가서 술을 맛본 다음 도로 집사자에 주고, 또 네 번 절한다. 주인이 나가 대군을 문밖에서 맞아 읍양(揖讓)하고 들어오면, 대군은 기러기를 【산 기러기[生雁] 왼쪽 머리를 색명주[色紬]로 마주 잡아 맨다.】 안고 뒤를 따라 청사(廳事)로 올라간다. 주인은 조계(阼階)로 올라가서 서향하여 서고, 대군은 서계로 올라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기러기를 땅에 놓으면, 주인의 시자(侍者)가 이를 받는다. 대군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하면, 주인은 이에 답하지 않으며, 대군이 서계로 내려가면, 주인은 내려가지 않고, 보모가 부인을 인도하여 어머니의 왼쪽으로 나오면, 아버지가 가서 명하여 말하기를, ‘〈모든 일에〉 공경하고 경계하여 언제나 명을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하고, 어머니는 서계 위까지 배웅하여 관(冠)을 정제해 주고, 또 배자[帔]를 걸어 주고는 명하여 말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공경하여 언제나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하며, 백숙모(伯叔母)·고모·올케·언니들은 중문(中門) 안까지 배웅하여 치마와 저고리를 바로 만져 주며, 부모의 명을 거듭 일러 말하기를, ‘네 부모의 말씀을 좇아 언제나 허물 없게 하라.’ 한다.

이리하여, 보모가 부인을 부축하고 나오면, 대군은 드디어 중문으로 나가고, 부인은 뒤를 따른다. 대군이 교자(轎子)의 발[簾]을 들고 기다리면, 보모가 겸사(謙辭)하여 말하기를, ‘가르침이 없어 족히 더불어 예(禮)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다. 그리고 나서, 교자에 타고 햇불로 앞을 인도한다. 【햇불을 14자루이다. 제군의 부인은 10자루이다.】 대군은 말을 타고 먼저 가고, 부인은

向跪，受盞祭酒興，就席末跪啐酒，授執事者，又四拜。主人出迎大君于門外，揖讓以入，大君執鴈【生雁左首，以色紬交絡之。】以從，升于廳事。主人升自阼階，西向立，大君升自西階，北向跪，置雁於地，主人侍者受之，大君俛伏興再拜，主人不答。大君降自西階，主人不降。姆導夫人，出於母左，父進命之曰：“敬之戒之，夙夜無違命。”母送至西階上，爲之整冠斂帔，命之曰：“勉之敬之，夙夜無違。”諸母姑嫂姊送至于中門之內，爲之整裙衫，申以父母之命曰：“謹聽爾父母之言，夙夜無愆。”姆奉夫人出，大君遂出中門，夫人從之。大君舉轎簾以俟，姆辭曰：“未教，不足與爲禮。”乃乘轎，以炬前導。【炬十四柄，諸君夫人十柄。】大君乘馬先行，夫人次之，主人使其屬從之。同牢：其日，大君家於室內設席兩位，東西相向，酒壺卓在東位之後，置兩盞罇【音謹，以小匏一，判而兩之。】於其上。又南北，設二盥盆勺於室東隅，又設酒壺盞於室外，或別室以飲從者。大君至其家，俟夫人至，導以入。夫人從者，布大

그 뒤를 따르는데, 주인이 그에 딸린 사람들을 따라가게 한다. 동퇴(同牢)는, 그날 대군의 집에서는 방안에 두 위(位)의 자리를 동서로 서로 마주보게 마련하고, 술병의 탁자를 동쪽 자리 뒤에 두고 두 개의 잔(盞)을 【근(鬯)은 음은 근(謹)인데, 한 개의 자그마한 박을 갈라서 두 개로 만든 것이다.】 그 위에 놓아 두며, 또 남북쪽에 두 개의 세수대야와 국자를 방의 동쪽 구석에 설치하고, 또 술병과 잔을 실외(室外) 또는 별실에 설치하였다가 종자들에게 먹이게 한다. 대군이 그 집에 이르며, 부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인도하고 들어가서, 부인의 종자는 대군의 자리를 동쪽에 펴고, 대군의 종자는 부인의 자리를 서쪽에 펴며, 대군은 남쪽에서 손을 씻게 되는데, 부인의 종자가 물을 떠주고 수건을 바치며, 부인은 북쪽에서 손을 씻는데, 대군의 종자가 물을 떠주고 수건을 바친다. 대군이 부인에게 읍하고 자리로 나아가면, 부인이 두 번 절하여, 대군이 이에 답배(答拜)하고, 대군이 다시 부인에게 읍하고 자리에 앉는데, 대군은 동쪽에 있게 되고, 부인은 서쪽에 있게 된다. 종자들이 찬(饌)을 배설하고, 【찬품은 7종의 과일을 넘지 않게 한다.】 술을 따르면, 대군과 부인이 술을 지우고[祭酒]는 잔을 들어 마시고, 또 안주를 든다. 또 술을 따르면, 대군과 부인은 그대로 들고 마시고 지우지 않으며, 안주도 없이 한다. 다시 근(鬯)을 취하여 술을 따르면, 들고 마시되, 지우지도 않고 안주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대군은 다른 방으로 나가고, 보모와 부인은 그대로 방을 머물게 되며, 찬을 걷어 방밖에 놓고 자리를 펴면, 대군의 종자는 부인이 남긴 것을 먹고, 부인의 종자는 대군이 남긴 것을 먹게 된다. 【남긴 음식을 받은 다음에 부인의 종자에게 폐백을 주는데, 목면(木綿) 각 한 끝씩을 준다.】 대군이 다시 들어와 옷을 벗으면, 부인의 종자가 이를 받고, 부인이 벗은 옷은 대군의 종자가 이를 받고, 촛불이 나오게 된다. 부인의 조현(朝見)은, 이튿날 부인이 일찍 일어나서 성식(盛飾)하고 나와 교자(轎子)에 타면, 시종(侍從)하기를 상례와 같이 한다. 강교소(降轎所)2421) 에

君位於東方，大君從者設夫人位於四方。大君盥于南，夫人從者沃之進帨。夫人盥于北，大君從者沃之進帨。大君揖，夫人就席，夫人再拜，大君答拜，大君揖，夫人就坐，大君在東，夫人在西。從者設饌【饌品不過七果】斟酒，大君及夫人祭酒，舉飲舉肴。又斟酒，大君及夫人舉飲，不祭無肴。又取鬯斟酒，舉飲，不祭無肴。大君出就他室，姆與夫人留室中。徹饌置室外設席，大君從者餞夫人之餘，夫人從者餞大君之餘。【受餞訖，酬幣于夫人從者，用木綿各一端。】大君復入脫服，夫人從者受之。夫人脫服，大君從者受之。燭出。夫人入朝見：明日，夫人夙興，盛飾以出乘轎，侍從如常。至降轎所降轎，司賓引夫人，立於閣外。近臣入啓，殿下陞座，侍衛如常。司賓引夫人立於庭北向，夫人四拜，司饌以棗栗盤授夫人。司賓引夫人，升自西階，進殿下座前北向立，尚食奉卓置於座前，夫人跪奠盤於卓上，殿下撫之，尚食進徹以東。司賓引夫人降復位，又四拜。司賓引夫人出，遂詣中宮閣外。尚儀入

이르러 교자에서 내리면, 사빈(司賓)이 부인을 인도하여 합문(閤門) 밖에 선다. 근신(近臣)이 들어가 아뢰면, 전하께서 어좌에 오르시고,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여 뜰에서 북향하고 서면, 부인이 사배(四拜)한다. 사찬(司饌)이 대추와 밤을 담은 소반을 부인에게 주면,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고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전하의 어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고 선다. 상식(尙食)이 탁자(卓子)를 받들고 가서 어좌 앞에 놓으면, 부인이 꿇어앉아 소반을 탁자 위에 드리우고, 전하께서는 이를 어루만진다. 상식이 나아가 걸어서 동쪽으로 치우면, 사빈이 다시 부인을 인도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와서 또 사배하고 나서,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고 나간다. 드디어 중궁(中宮)의 합문 밖으로 나아가면, 상의(尙儀)가 들어가 아뢰다. 상식(尙食)이 예준(醴罇)을 받혀 놓을 탁자를 동쪽벽 아래에 약간 남쪽으로 설치하고는, 잔(盞) 하나를 그 탁자 위에 놓아 두고, 또 찬(饌)을 배설할 탁자를 【찬품(饌品)은 세 가지의 과일이다.】 예준 북쪽에 설치한다. 왕비께서 자리에 오르시고, 시위하기를 평상과 같이 한다. 사빈(司賓)이 부인을 인도하여 들어가 뜰에 서서 북향하고 사배한다. 사찬(司饌)이 단수(殿脩)2422) 를 담은 소반을 부인에게 주면,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고 서계(西階)로 올라가 왕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선다. 상식이 탁자를 받들어 자리 앞에 놓고, 부인이 꿇어앉아 단수의 소반을 탁자 위에 드리면, 왕비께서 이를 어루만진다. 상식이 나아가 걸어서 동쪽으로 치우면,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고 내려가 제자리로 가서 또 사배한다. 사설(司設)이 부인의 자리를 왕비 좌석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면,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 자리 서쪽으로 가서 남향하여 서고, 상식이 잔으로 예주[醴]를 떠 가지고 부인의 서남쪽으로 가서 동향하여 서면, 부인이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올라가 남향하여 꿇어앉아 잔을 받고, 상식이 찬품(饌品)의 탁자를 자리 앞에 드리면, 부인이 예주를 지우고 일어나서 자리 서쪽으로 내려가 남향하여 꿇어앉아 맛본 다음, 이를 상식에게 주고, 부인이

啓，尙食設醴罇卓於東壁下稍南，置盞一於卓上，又設饌卓【饌品三果】於罇北。王妃陞座，侍衛如常。司賓引夫人，入立於庭，北向四拜，司饌以暇脩盤，授夫人，司賓引夫人，升自西階，進王妃座前北向立，尙食奉卓置於座前，夫人跪奠盤於卓上，王妃撫之，尙食進徹以東。司賓引夫人，降復位，又四拜。司[設] [賓] 設夫人席於王妃座之東北南向，司賓引夫人升自西階，就席西南向立，尙食以盞酌醴，進詣夫人西南東向立，夫人四拜，升席南向跪受盞，尙食薦饌卓於席前，夫人祭醴興，降席西南向跪，啐醴授尙食，夫人俯伏興四拜，尙食徹薦。司賓引夫人，降自西階，出閤乘輦，還家如來儀。大君見夫人之父母：四日，大君往見夫人之父母，夫人之父，迎送揖讓如客禮，拜則跪而扶之。夫人之母，闔門左扉，立于門內，大君拜【再拜】于門外，次見夫人諸尊長如上儀，竝禮之如常。【(○)饌品不過五果，毋得酬幣于從者。】

	<p>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사배하고 나면, 상식이 찬품 탁자를 걸어 치우고,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여 서계로 내려가 함문 밖으로 나가서 교자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올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p> <p>대군이 부인의 부모를 뵈는 의절은, 4일 만에 대군이 부인의 부모를 가서 뵈는데, 부인의 아버지가 영송(迎送) 읍양(揖讓)하기를 객을 대하는 예(禮)와 같이 하고, 절하면 꿇어앉아 붙들며, 부인의 어머니는 대문 왼쪽 문짝을 닫고 문안에 서며, 대군은 문밖에서 절한다. 【두 번 절한다.】 그리고 나서, 부인의 여러 존장(尊長)을 뵈기를 위의 의절같이 하면, 모두 예(禮)하기를 상례(常禮)와 같이 한다. 【찬품은 5종의 과일을 넘지 않게 하며, 종자에게 예폐(禮幣)를 주지 않는다.】.”</p> <p>하였다.</p>	
<p>24. 世宗 67卷, 17年 (1435 乙卯 / 명 선덕 (宣德) 10年) 2月 29日(辛未) 4번째기사 1품에서 서인까지의 혼례의</p>	<p>1품으로부터 서인(庶人)까지의 혼례의(婚禮儀)에 이르기를, “납채(納采)는, 주인이 갖추어 쓰고, 【직함(職銜)과 성명을 갖추어 쓰고, ‘때는 오직 맹춘(孟春)이운데’ 하는데, 중춘(中春)·계춘(季春) 등은 때에 따라 고쳐 쓰고, 여름·가을·겨울도 역시 같다. 2품 이상은 태후(台候)라 일컬고, 3품은 중후(重候)라 일컬으며, 4품에서 6품까지는 아후(雅候)라 통칭(通稱)하고, 7품 이하는 재후(裁候)라 일컬는다. ‘다복(多福)하십니까. 아무의 아들 아무, 혹은 모친(某親) 아무의 아들 아무가 나이 이미 장성하와도 아직 배필[伉儷]이 없삽기로, 삼가 납채의 예를 행하오니 조감(照鑑)하심을 바라옵고 불선(不宣)하나다. 년 월 일.’이라 쓴다.】 일찍 일어나 가묘(家廟)에 고하고, 【하루 앞서 깨끗이 청소하고 재계(齋戒)하여 자고, 이튿날 술과 과일을 진설하고는, 주인 이하 성복(盛服)하되, 관직이 있는 자와 전의 직함이 있는 자는 사모(紗帽)와 품대(品帶)를, 관직이 없는 자는 갓[筓]과 도아(條兒)를 쓴다. 아래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 주인이 조계(阼階) 아래에 북향하여 서고, 집사자(執事者)는 주인 뒤에 있게 되는데, 곁줄로 서쪽을 위로 삼아 선다. 주인이 손을</p>	<p>一品至庶人婚禮儀曰： 納采：主人具書，【具銜姓名，時維孟春，仲春季春，隨時而改，夏秋冬亦同。二品以上稱台候，三品稱重候，四品至六品通稱雅候，七品以下稱裁候。多福，。某之子某若某親某，之子某，年已長成，未有伉儷，謹行納采之禮，伏惟照監。不宣。年月日。】 夙興告于家廟，【前一日，灑掃齋宿，厥明，設酒果。主人以下盛服，有職者及前銜，紗帽品帶，無職者，筓子條兒。下放此。主人於阼階下北向立，執事者在主人之後，重行西上。主人盥帨升啓櫝，奉諸神主，置於櫝前降復</p>

씻고 수건에 닦은 뒤에, 올라가 독(櫛)을 열고 여러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독 앞에 모셔 놓고, 다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한다. 주인이 올라가 향탁(香卓) 앞으로 나아가서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하고는 신위 앞으로 나아가 술을 드리기를 평상의 의절같이 하고, 향탁 앞으로 물러와 꿇어앉으면, 축(祝)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주인의 왼쪽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읽는다. 읽기를 마치면, 주인이 두 번 절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와서는,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한다. 주인이 신주를 독에 넣어 모신 뒤에 물러난다. 그 축판에 이르기를, ‘유세차(維歲次) 모년 모일 모삭(某年某日某朔) 모일에 효증손(孝曾孫), 2대에게 고하면 효손(孝孫)이라 일컫고, 고비(考妣)에게 고하면 효자라 일컫는다. 모관(某官) 아무는 감히 모친(某親) 모관 부군(某官府君) 모친(某親) 모봉 모씨(某封某氏)께 고하나이다. 아무의 아들 아무가, 혹은 모친의 아들 아무가 나이 이미 장성하였으나, 배필[伉儷]이 없삽더니,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姓名) 아무의 딸을 아내로 맞기로 이미 의정(議定)을 보아, 오늘 납채(納采)하고 감창(感愴)하음을 금하지 못하와 삼가 주과(酒果)로써 경건히 고하나이다.’ 한다. 만약 종자가 스스로 혼인하게 되면, 자신이 그 축을 고하는데, 한 판으로 하며, 최존자(最尊者)로서 주인이 되었다고 자칭한다.】 이에 자제(子弟)를 시켜 사자(使者)로 삼아 성복(盛服)하고 여자의 집으로 가면, 그 주인도 역시 성복(盛服)하고 나와서 맞이한다.【무릇 빈주(賓主) 사이의 행하는 예절을 모두 찬자(贊者)가 도와 인도한다.】 사자가 청사(廳事)에 오르면,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오자(吾子)2423) 께서 은혜롭게도 아무에게 아내[家室]를 허락해 주시어, 아무의 모친(某親) 모관(某官)이 선인의 예절이 있다 하여, 아무를 시켜 납채(納采)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고, 종자(從子)가 글을 바쳐, 사자가 그 글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답하여 말하기를, ‘아무의 아들이 혹은 누이·조카·손자가 모두 어리석고, 또 가르치지도 못하였는데,【만약 출가를 허락된 자가 주인에게 고모나 누님이 되면, 어

位, 主人以下皆再拜。主人升詣香卓前, 焚香再拜, 詣神位前獻酒如常儀。退于香卓之前跪, 祝持版進主人之左跪讀畢, 主人再拜降復位, 主人以下皆再拜。主人納主而退。其祝版云: “維年歲月朔日, 孝曾孫告二代則稱孝孫, 告考妣則稱孝子某官某, 敢昭告于某親某官府君、某親某封某氏。伏以某之子某, 若某親之子某, 年已長成, 未有伉儷, 已議娶某官某郡姓名之女, 今日納采, 不勝感愴, 謹以酒果, 用申虔告謹告。” 若宗子自婚則自告, 其祝共爲一版。自稱以其最尊者爲主。】乃使子弟爲使者, 盛服如女家, 主人亦盛服出迎【凡賓主行禮, 皆贊者相導之。】使者, 升廳事。使者致辭曰: “吾子有惠貺室某也。某之某親某官, 有先人之禮, 使某請納采。” 從者以書進, 使者以書授主人, 主人對曰: “某之子若妹姪孫蠢愚, 又不能教。【若許家者, 於主人爲姑姊, 則不云蠢愚又不能教。】吾子命之, 某不敢辭。” 乃受書, 北向再拜, 使者避不答拜。使者請退俟命, 出就次, 主人遂告于家廟, 如壻家之儀, 【祝版前同, 但云 “某之

리석고 또 가르치지 못하였다고 이르지 않는다.】오자께서 명하시니, 아무는 감시 사양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고 나서, 글을 받고 북향하여 재배(再拜)하면, 사자는 피하고 답배(答拜)하지 아니한다. 사자가 ‘물리가 명을 기다리겠다.’ 말하고, 나가서 차소(次所)로 가면, 주인이 드디어 가묘(家廟)에 고하기를 사위 집에서의 의식과 같이 하고【축관은 앞에서와 같다. 다만 ‘아무의 몇째 딸, 혹은 모친(某親) 아무의 몇째 딸이 나이 점차 장성하와, 이미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 아무의 아들에게 출가를 허락하여, 오늘 납채의 예를 행하고 감창하옵기로 삼가……이하는 모두 같다.’ 한다.】나와서 맞이한다. 사자가 청사로 올라가서 복소(復書)를 주고【직함과 성명을 갖추어 쓰고, ‘글을 받들고 납채의 예임을 살펴 알았습니다. 아무의 딸이, 혹은 모친 아무의 딸이 어리석고 또 가르치지 못하였으나, 출가하는 자가 주인에게 고모나 누님이 되면, 나이 점차 장성하옵던 차, 이제 존명(尊命)을 받자와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나이다. 조감(照鑑)하심 바라오며 불선(不宣)하나이다. 년 월 일. ’이라 씀.】서로 교배(交拜)하기를 평상시 빈객 사이의 예와 같이 하고 나서, 술과 찬품(饌品)으로【찬품은 세 가지 과일을 넘지 않게 한다.】사자에게 예를 베푼다. 그 종자도 역시 별실에서 예를 베푼다. 사자가 복명한다. 납폐(納幣)는,【예폐(禮幣)는 면주 혹은 베를 쓰는데, 2품 이상은 검은 것과 분홍을 각기 두 끝으로 하고, 3품 이하 서민까지는 검은 것과 분홍 각기 한 끝씩을 쓴다.】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사자를 보내어【만약 길이 멀거나 혹 유고하면, 납채와 납폐를 한날 한 사자를 시켜 보낸다.】여자의 집으로 가면, 주인이 나와서 맞이한다. 사자가 청사로 올라가면,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오자(吾子)께서 은혜롭게도 아무에게 아내[家室]를 허락해 주시어, 아무의 모친(某親) 모관(某官)이 선인의 예가 있다 하여, 아무를 시켜 납폐하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고, 종자가 예폐(禮幣)를 바쳐, 사자가 그 예폐를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답사(答辭)하여 말하기를, ‘오자(吾子)께서

第幾女，若某親某之第幾女，年漸長成，已許嫁某言某郡姓名之子，今日納采，不勝感愴，謹以。”後同。】出迎使者，升廳事，授以復書，【具銜姓名。奉書，得審納采之禮，某之女，若某親某之女，蠢愚，又不能教。若許嫁者，於主人，爲姑姊，則云年漸長成。今承尊命，不敢辭，伏惟照鑑。不宣。年月日。】交拜如常日賓客之禮。乃以酒饌【饌品不過三果】禮使者，其從者亦禮之別室。使者復命。納幣：【幣用紬或布。二品以上，玄纁各二端，三品以下至庶人，玄纁各一端。】主人夙興，遣使【若路遠或有故，則納采納幣，同日同使。】如女家，主人出迎使者，升廳事。使者致辭曰：“吾子有惠貺室某也。某之親某官，有先人之禮，使某請納幣。”從者以幣進，使者以幣授主人，主人對曰：“吾子順先典，貺某重禮，某敢不承命！”乃受幣再拜，使者避之。其禮賓及使者復命，竝同納采之儀。親迎：【若妻家遠，要行禮，令妻家就近處，設壻之館。壻往至女家，迎歸所館行禮。】前期一日，女家使人，張陳其壻

선대의 법을 좇아 아무에게 중례(重禮)를 주시니, 아무가 어찌 명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에 예폐를 받고 재배하면, 사자는 이를 피한다. 그 빈객에게 예를 베푸는 것과 사자의 복명은 모두 납채의 의절과 같다. 친영(親迎)은, 【만약 처가(妻家)가 먼데 행례를 하려고 하면, 처가로 하여금 그 근처에 사위의 사관[館]을 마련하게 하고, 사위가 딸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아 사관으로 돌아와서 행례한다.】 하루 앞서 여자의 집에서 사람을 시켜 사위 맞을 방에 설비를 다해 놓는다. 【설비한다는 것은 이불과 요 등인데, 면주(綿紬)와 목면(木綿)으로 하며, 기타 병풍·자리·휘장 등의 물건은 사위 집에서 설비해 간다.】 그날 사위 집에서는 방안에 두 위(位)의 자리를 동서로 서로 마주보게 마련하고, 술병 탁자를 동쪽 자리 뒤에 설치하고는 두 개의 잔·근(盞罇)을 【근(罇)의 음은 근(謹)이니, 조그마한 박 한 개를 쪼개어 둘로 만든 것이다.】 그 위에 놓아 두며, 또 남북에 두 개의 손 씻을 그릇과 국자를 방 동쪽 구석에 설치하며, 또 술병과 술잔을 실외(室外)나 별실(別室)에 설치하여 종자들을 먹이도록 하며, 여자의 집에서 차소(次所)를 밖에 마련한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 되면, 사위가 성복(盛服)하고, 【직위가 있는 자는 시산(時散)에 구애 없이 공복을 착용하고, 문무 양반(兩班)의 자손이나 급제한 생원은 사모(紗帽)와 각대(角帶)를, 서민은 갓과 도아(條兒)를 쓰되, 사모·각대를 준비하지 못한 자는 갓·도아도 또한 가하다. 의복은 모두 면주와 목면을 사용한다.】 주인이 가묘(家廟)에 고하기를 납채의 의절과 같이 한다. 【축판(祝版)은 앞에서와 같다. 다만 ‘아무의 아들 아무, 혹은 모친(某親) 아무의 아들 아무가 장차 오늘 모관 모군 모씨를 친영하게 되어, 감창하움을 금할 길 없어 삼가……되는 모두 같다.’라 쓴다.】 그리고 나서, 탁자에 술병과 술잔을 마루 위에 설치해 두고, 아버지는 마루 동쪽에 서향하여 앉게 하고, 사위의 자리는 그 서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사위가 서계로 올라와서 자리 서쪽에 남향하고 서고, 집 사자가 잔을 취하여 술을 따라 가지고 사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면, 사위가

之室。【所張陳者，衾褥，用綿紬木綿，其屏席帳幔等物，壻家備陳。】其日，壻家於室內，設席兩位，東西相向，酒壺卓在東位之後，置兩盞罇【音謹，以小匏一，判而兩之。】於其上。又南北設二盥盆勺於室東隅，又設酒壺盞於室外或別室，以飲從者。女家設次于外。初昏，壻盛服，【有職者，不拘時散公服。文武兩班子孫與及第生員，紗帽角帶，庶人，笠子條兒。其不能備紗帽角帶者，笠子條兒亦可。衣服皆用綿紬木綿。】主人告于家廟如納采儀。【祝版前同，但云。“某之子某，若某親某之子某，將以今日親迎于某官某郡某氏，不勝感愴，謹以。”後同。】訖，以卓設酒壺盞於堂上，父坐於堂之東方，西向，設壻席於其西北，南向。壻升自西階，立於席西南向。執事者取盞斟酒，詣壻席前，壻四拜升席南向跪，受盞祭酒興，就席末跪啐酒，授執事者。又四拜，進詣父坐前東向跪，父命之曰：“往迎爾相，承我宗事，【非宗子之子，則改宗事爲家事。】勉率以敬，若則有常。”壻曰：“諾。惟恐不堪，不敢忘命。”俛伏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올라와 남향하여 꿇어앉아 잔을 받아서, 술을 약간 지우고는 일어나서 자리 끝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술을 맛본 다음, 이를 집사자에게 주고 나서 또 사배하고서, 아버지가 앉은 자리 앞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으면, 아버지가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네 보필을 맞아 우리 종사(宗事)를 계승하여 【종자(宗子)의 아들이 아니면, 종사를 고쳐 가사(家事)라고 한다.】 힘써 공경해 나가라. 그렇게 하면, 상도(常道)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하면, 사위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하오리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나, 어찌 명하심을 잊으오리까.’ 하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만약 종자(宗子)로서 이미 아버지가 없고, 자신이 주장해 혼인하면, 이 예는 쓰지 않는다.】

주인이 나가서 그에게 딸린 사람들을 시켜 보낸다. 사위가 말에 타면, 횃불로 앞을 인도하며, 【2품 이상은 횃불이 10자루이고, 3품 이하는 횃불이 6자루이다.】 의물(儀物)을 갖추고서 【교상(交床)·말안장·초롱 따위이며, 본례 의물이 없는 자는 쓰지 않는다.】 여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 밖에서 말에서 내려 차소(次所)로 들어가서 기다리면, 주인이 가묘에 고하기를 납채의 의절과 같이 하고, 【축관은 앞에서와 같다. 다만 ‘아무의 몇째 딸. 혹은 모친(某親) 아무의 몇째 딸이 장차 오늘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 아무에게 우귀(于歸)하게 되어 감창함을 금할 길이 없어, 삼가……이하는 앞에서와 같다.’라고 쓴다.】 딸이 성장하고 【의복은 모두 면주와 목면으로 만든다.】 보모[姆]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고, 아버지는 마루 동쪽에 서향하여 앉고, 어머니는 서쪽에 동향하여 앉으며, 딸의 자리는 어머니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딸이 자리 서쪽에 남향하고 서면, 집사자가 술로 초례(醮禮)를 행하기를 사위 집에서의 예(禮)와 같이 한다. 주인이 나와 사위를 문밖에서 맞아 읍양(揖讓)하고 들어가는데, 사위는 기러기를 안고 【산 기러기[生雁]의 왼쪽 머리를 색명주[色絀]로 맨다. 이것이 없으면 조각한 것으로 대용한다.】 그를 따른다. 청사(廳事)

興。【若宗子已孤而自昏，則不用此禮。】主人出，使其屬送之。壻乘馬，以炬前導，【二品以上炬十柄，三品以下炬六柄。】備儀物【交床鞍籠之類，本無儀物者不用。】至女家大門外下馬，入俟于次，主人告于家廟，如納采儀。【祝版前同。但云：“某之第幾女，若某親某之第幾女，將以今日，歸于某官某郡姓名，不勝感愴，謹以。”後同。】女盛服，【衣服皆用綿紬木綿】姆相之以出。父坐於堂之東方，西向，母坐西方，東向，設女席於母之東北南向。女立於席西南向，執事者醮以酒，如壻禮。主人出迎壻于門外，揖讓以入。壻執雁，【生雁左首，以色絀交絡之，無則刻木爲之。】以從，至于廳事，主人升自阼階西向立，壻升自西階，北向跪，置雁於地，主人侍者受之，俛伏興再拜，主人不答拜。壻降自西階，主人不降。姆導女出於母左，父進命之曰：“敬之戒之，夙夜無違舅姑之命。”母送之西階上，爲之整冠斂帔，命之曰：“勉之敬之，夙夜無違爾閨門之禮。”諸母姑嫂姊送至于中門之內，爲之整裙衫，申以父母之命曰：

에 이르러, 주인이 조계(阼階)로 올라가서 서향하여 서고, 사위는 서계로 올라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기러기를 땅에 놓는다. 주인의 시자(侍者)가 이를 받는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再拜)하면, 주인은 답배(答拜)하지 않는다. 사위가 서계로 내려가고, 주인은 내려가지 않으며, 보모가 딸을 인도하여 그 어머니의 왼쪽으로 나오면, 아버지가 나아가서 명하여 말하기를, ‘공경하고 조심하여, 언제나 구고(舅姑)의 명령을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한다. 어머니는 서계 위까지 배웅하여 관(冠)을 바로잡아 주고, 배자[帔]를 여며 주며 명하여 말하기를, ‘부지런히 공경하여, 언제나 네 규문(閨門)의 예(禮)를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하고 여러 백숙모(伯叔母)·고모·올케·언니들은 중문 안까지 배웅하며 치마와 적삼을 매만져 주면서 부모의 명을 거둬 되풀이하여 말하기를, ‘힘써 네 부모의 말씀을 좇아, 언제나 허물이 없도록 하라.’ 한다. 보모가 딸을 인도하고 나가면, 사위는 드디어 중문으로 나가며, 딸은 그 뒤를 뒤따른다. 사위가 교자(轎子)에 드리운 발을 들고 기다리면, 보모가 검사하여 말하기를, ‘가르치지 않아서 더불어 예(禮)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교자에 타면, 햇불로 앞을 인도한다. 【햇불의 수효는 각기 그 남편의 것에 준해 한다.】

이리하여, 사위는 말을 타고 먼저 가고, 딸은 그 다음에 가게 되며, 주인이 그에 따른 사람들을 시켜 배웅하게 한다. 사위가 그 집에 이르러, 신부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인도하고 들어간다. 신부의 종자는 사위의 자리를 동쪽에 펴고, 사위의 종자는 신부의 자리를 서쪽에 편다. 사위가 남쪽에서 손을 씻으면, 신부의 종자가 물을 따라 주고 수건을 바치며, 신부가 북쪽에서 손을 씻으면, 사위의 종자가 물을 따라 주고 수건을 바친다. 사위가 읊(揖)하면, 신부가 자리로 나아가서 재배하여, 사위가 이에 답배하고, 사위가 또 읊하면, 신부가 자리에 앉는다. 종자가 찬(饌)을 배설하고 【찬품은 7종의 과일을 넘지 않게 하며, 서인(庶人)은 형편에 따라 하되, 혹은 5종의 과일로 한다.】 술을

“謹聽爾父母之言，夙夜無愆。” 姆奉女出，壻遂出中門，女從之。 壻舉輜簾以俟， 姆辭曰：“未教， 不足與爲禮。” 乃乘輜，以炬前導。【炬數各準其夫】壻乘馬先行，女次之，主人使其屬送之。 壻至其家， 俟婦至， 導以入。 婦從者布壻席於東方， 壻從者布婦席於西方。 壻盥于南， 婦從者沃之進帨。 婦盥于北， 壻從者沃之進帨。 壻揖婦就席， [婦]再拜， 壻答拜， 壻揖(夫) [婦]就坐。 從者設饌【饌品不過七果。 庶人隨宜， 或五果。】斟酒， 壻婦祭酒， 舉飲舉肴。 又斟酒， 揖婦舉飲， 不祭無肴。 又取盃斟酒， 壻婦舉飲， 不祭無肴。 壻出就他室， 姆與婦留室中。 徹饌置室外設席， 壻從者餽婦之餘， 婦從者餽壻之餘。【受餽訖， 酬幣于婦從者， 用木綿各一端。】壻復入脫服， 婦從者受之； 婦脫服， 壻從者受之。 燭出。 婦見舅姑：明日， 婦夙興盛飾俟見， 舅姑坐於堂上， 東西相向， 各置卓於前。 婦進立於阼階， 下北向拜，【四拜】舅升， 奠棗栗盤于卓上， 舅撫之， 侍者以入。 婦降又拜， 詣西階下北向拜，【四拜】

따르면, 사위와 신부가 술을 지운 다음, 잔을 들어서 마시고 안주를 들고, 또 술을 따르면, 사위와 신부가 잔을 들어서 마시고 지우지 않으며, 안주도 들지 않는다. 또 근(罇)을 취하여 술을 따르면, 사위와 신부가 그대로 마시고 지우지 않으며, 안주도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사위는 다른 방을 나가고, 보모와 신부는 방안에 머물러 있다. 찬을 걷어 실외에 두면, 사위의 종자는 신부의 퇴물을 먹고, 신부의 종자는 사위의 퇴물을 먹는다. 【퇴물을 받고 나서 신부 종자에게 폐백을 갚는데, 목면 각 한 끝씩을 준다.】 사위가 다시 들어가서 옷을 벗으면, 신부의 종자가 이를 받고, 신부가 옷을 벗으면, 사위의 종자가 이를 받고는, 촛불이 나오게 된다.

신부의 현구고(見舅姑)는, 이튿날 신부가 일찍 일어나서 성장하고 뵙기를 기다리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마루 위에 동서로 서로 마주보고 앉고, 각기 그 앞에 탁자를 놓아 둔다. 신부가 조계(階) 아래로 나아가 서서 북향하여 시아버지께 절하고, 【사배한다.】 올라가 대추와 밤이 담긴 소반을 탁자 위에 드리면, 시아버지가 이를 어루만진 다음, 시자(侍者)가 들여간다. 신부가 내려와 또 절하고 나서, 다시 서계(西階) 아래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시어머니께 절하고는, 【사배한다.】 올라가서 단수(脰脩)가 담긴 소반을 드린다. 【대추와 밤이 없으면 철과일[時果]을 쓰고, 단수가 없으면 건어(乾魚)를 쓴다.】 시어미가 이를 들어서 시자에게 주면, 신부가 내려가 또 절하는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예로 대하기를 딸에게 차례하는 의절같이 한다. 만약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다 없으면, 신부가 혼인을 주재한 존장을 뵙기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뵙는 예와 같이 하되, 다만 폐백이 없다. 【다만 재배하는 것이 다르다.】 신부의 현가묘(見家廟)는, 3일째 되는 날 주인이 향탁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고하기를, ‘아무의 아들 아무가, 혹은 모친 아무의 아들 아무의 신부 모씨가 감히 뵙니다.’ 한다. 이렇게 고하고 나서, 향탁(香卓) 동남쪽에 서향하고 서면, 주부(主婦)가 신부를 데리고 양계(兩階) 사이로 나아가 서서 두 번 절하

姑升，奠脰脩盤，【棗栗無則用時果，脰脩無則用乾魚。】姑學以授侍者，婦降又拜，舅姑禮之，如醮女之儀。若舅姑俱亡，則婦見于主昏尊長，如見舅姑之禮，無贊。【但再拜爲異。】婦見家廟：三日，主人詣香卓之前跪告曰：“某之子某，若某親某之子某之婦某氏，敢見。”告畢，立於香卓東南西向，主婦以婦進立於兩階之間，婦再拜乃退。

【若非宗子之子而家廟在別處，則婦見在三月之後。】婿見婦之父母：明日，婿往見婦之父母，婦父迎送揖讓如客禮，拜則跪而扶之。婦母闔門左扉，立于門內，婿拜【再拜】于門外。次見婦黨諸尊長如上儀，竝禮之如常。

【饌品不過五果，毋得酬幣于從者。】

	<p>고 곧 물러난다. 【만약 종자(宗子)의 아들이 아니고, 가묘가 딴 곳에 있으면, 신부의 알현은 3개월 후에 있게 된다. 】</p> <p>사위가 신부의 부모를 뵙는 의절은, 이튿날 사위가 신부의 부모를 가서 뵈면, 신부의 아버지가 영송(迎送) 음양(揖讓)하기를 객을 대할 때의 예와 같이 하고, 절하면 무릎 꿇고 그를 붙들며, 신부의 어머니는 문 왼쪽 사립을 닫고 문 안에 서고, 사위는 문밖에서 절한다. 【재배한다. 】 다음에 신부의 종당(宗黨)의 여러존장을 뵙기를 위의 의절같이 하고, 모두 그에게 예하는 것도 상례(常禮)와 같이 한다. 【찬품은 5종의 과일을 넘지 않게 하며, 종자들에게 예폐를 갖지 않는다. 】.”</p> <p>하였다.</p>	
<p>25. 世宗 67卷, 17年 (1435 乙卯 / 명 선덕 (宣德) 10年) 3月 4日 (丙子) 1번째기사</p> <p>지평 최경명이 조신을 파견해 기근 구제 상황을 감독할 것과 금주령을 엄히 시행할 것을 아뢰다</p>	<p>사헌부 지평 최경명(崔敬明)이 아뢰기를,</p> <p>“지난해의 흉작이 황해도는 더욱 심하고, 다른 도에는 역시 기근이 많사오니, 원하옵건대, 조신(朝臣)을 파견하여 그 구제 상황을 살펴 감독하게 하고, 또 전일의 금주령(禁酒令)을 뒤에 곧 철회하여, 대소의 사람들이 여전히 술을 마셔 불필요한 소비가 대단히 많사온데, 서울은 오히려 괜찮다 하더라도 외방은 더욱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의 말이하기를,</p> <p>“태종 때에 조정 신하들이 술의 금지를 청하면,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주(禁酒)란 무익한 짓이다. 부호(富豪)들은 금망(禁網)에서 벗어나고, 빈약한 자들만이 죄에 걸려 든다.’고 하시더니, 내가 직접 당해 보니 과연 태종의 말씀과 같다. 또 너희들의 논의도 역시 각기 이견(異見)이 있기도 하니, 내마땅히 다시 이를 생각해 보겠다.”</p> <p>하였다.</p>	<p>丙子/司憲持平崔敬明啓曰: “去歲凶歉, 黃海尤甚, 諸道亦多飢饉, 願遣朝臣, 檢其賑恤之狀。 且前日禁酒之令, 尋後還收, 大小崇飲, 糜費甚多, 京中尙可, 外方尤不可不禁。” 上曰: “太宗之時, 廷臣每請禁酒, 太宗曰: ‘禁酒無益。 豪富得奪禁網, 貧弱獨罹罪辜。’ 及至寡躬, 果如太宗之教。 且爾等之議, 亦各有異, 予當更思之。”</p>
출처	내용	원문
1. 세종 68권, 17년 (1435 을묘 / 명 선덕	<p>임금이 말하기를,</p> <p>“처녀 종비(處女從婢)와 창가비(唱歌婢)와 집찬비(執饌婢) 등은 비록 사천(私</p>	<p>上曰: “處女從婢及唱歌婢、執饌婢等, 雖係私賤, 以公處婢子, 充給本主, 其</p>

<p>(宣德) 10년) 4월 26일(정묘) 4번째기사 처녀 중비·창가비들을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하다</p>	<p>賤)이기는 하나, 공처(公處)의 비자(婢子)로서 본주(本主)에게 돌려주는 것이니, 그 공사 천구(公私賤口)를 모두 일을 시키지 말고 각각 안업(安業)하게 하라.” 하고, 인하여 쌀·콩·술·과실·어육을 차등 있게 주어 친족을 먹이게 하고, 헌부(憲府)로 하여금 술의 사용을 금하지 말게 하였다.</p>	<p>公私賤口，竝勿役使，使各安業。”仍賜米·豆·酒·果·魚·肉有差，令饋親族。令憲府毋禁用酒。</p>
<p>2. 世宗 68卷, 17年(1435 乙卯 / 명 선덕(宣德) 10年) 5月 1日(壬申) 3번째기사 제향과 진상, 사신 접대 이외의 술 사용을 금하다</p>	<p>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지난해에 흉년이 들어서 민생이 염려되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않고 술과 음식으로 함부로 소비하니, 대소 제향(祭享)과 진상(進上), 조정 사신(使臣) 및 이웃 나라 사객(使客)을 접대하는 외에는 일체 경외(京外)에서 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복약(服藥)을 하거나 취하도록 마시지 않은 것은 중주(縱酒)로써 논할 수 없으니, 정상의 경중을 참작하여 가장 경한 자와 정상이 가중한 자는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p>	<p>司憲府啓：“去歲不稔，民生可慮，無識之徒，不顧大體，糜費酒饌。除大小祭享及進上朝廷使臣隣國使客支持外，一禁京外用酒。”從之。仍敎：“服藥及飲不至醉，不可論以縱酒，量情狀輕重，其最輕及情可矜者，勿論。”</p>
<p>3. 세종 68권,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6월 8일(무신) 4번째기사 예조와 의정부의 각품이 진언한 것을 의논하여 아뢰다</p>	<p>(전략)1. 정조(正朝)와 성절(聖節)·천추절(千秋節)에 싸서 봉하여 바치는 인삼(人蔘)의 수량이 1백 40근이고, 무시(無時)로 사은(謝恩)하는 것과 본국에서 쓰는 것이 또한 1백여 근에 불과한데, 공안(貢案)에 있는 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가 합계 9백 60근이오니, 1년 동안의 소용에 넉넉하고 모두 진헌(進獻)에 적합하지마는, 그 나머지 함길도와 강원도 두 도는 바치는 인삼이 합계 5백 40근이 되오니, 몸이 작고 빛깔이 나쁘고, 건조(乾燥)하는 것이 법대로 못하여 자디잘아서 쓸 수 없으므로, 매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각 관(官)이 서울에서 사는데, 한 근에 면포 세 필을 주어도 살 수 없사오니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함길·강원 두 도에서 바치는 삼을 모두 면제하고, 만일 혹시 부족하거든 임시하여 참작해서 더 정하자는 위의 조목은, 함길도와</p>	<p>(전략) 一。正朝聖節千秋封裹人蔘之數，一百四十斤；無時謝恩及本國所用，亦不過百餘斤。貢案之數，平安、黃海道共計九百六十斤，亦足一年之用，皆合於進獻，其他咸吉、江原兩道貢蔘，共計五百四十斤。然體少色惡，乾正非法，碎碎不用，每年不納，各官買於京中，每一斤給絁布三匹，尙且難得，弊固不小。願自今咸吉、江原兩道貢蔘，竝皆蠲免，如或不足，臨</p>

	강원도에서 바치는 삼만을 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오니, 평안도는 2백 근, 황해·강원·함길도는 각각 1백 근을 감하게 하소서.(후략)	時酌量加定。右條，咸吉、江原貢蔘，獨減未便。平安道二百斤，黃海、江原、咸吉道各一百斤減除。(후략)
4. 세종 68권, 17년 (1435 을묘 / 명 선덕 (宣德) 10년) 6월 14 일(갑인) 4번째기사 동부승지 권채가 사신 에게 문안하다	동부승지(同副承旨) 권채(權採)가 사신(使臣)에게 문안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대단히 후하게 대접하시어 맛있는 것을 싫도록 먹었으니, 이제부터 문안하는 일과 낮에 올리는 술을[晝奉盃]을 5일에 한 번씩 하시오.” 하매, 권채가 돌아와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同副承旨權採，問安于使臣，使臣曰：“殿下待之甚厚，厭飫美味。自今問安及晝奉盃，五日一次。”權採回啓，從之。
5. 세종 69권, 17년 (1435 을묘 / 명 선덕 (宣德) 10년) 9월 21 일(기축) 5번째기사 제주 안무사 최해산이 한 꼭지에 6개가 달린 석류를 올리다	제주 안무사(濟州安撫使) 최해산(崔海山)이 한 꼭지에 6개가 달린 석류를 올렸다. 그 올리는 글에, “가화(嘉禾)의 상서만이 어찌 홀로 칭찬을 독차지하겠습니까. 신은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하기를, 성상께서 사람의 생명을 구활(救活)하여 자애와 은혜가 널리 흠족하니, 하늘과 땅이 감응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상림원(上林園)에 내리도록 하였다.	濟州按撫使崔海山，進石榴六顆同蒂者，其辭曰：“嘉禾之瑞，奚獨專美！臣心竊謂聖上賑活人命，仁恩博洽，天地感應之致。”上命下上林園。
6. 세종 70권, 17년 (1435 을묘 / 명 선덕 (宣德) 10년) 12월 19 일(병진) 3번째기사 예조에서 문묘에 전알 하는 의식을 아뢰다	예조에서 문묘(文廟)에 전알(奠謁)하는 의식을 아뢰기를, “재계(齋戒)는 전알하기 3일 전에 하는데, 마땅히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은 2일 동안 산재(散齋)하며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1일 동안 사소(祠所)에서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散齋)는 치사(治事)를 전과 같이 하되, 다만 술을 마음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아니하며,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며,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치재(致齋)는 오직 전알의 일만을 행한다, 진설(陳設)은 전알하기 하루 전에 하는데, 묘사(廟司)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묘(廟)의 안팎을 소제하고, 헌관(獻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며,	禮曹啓文廟奠謁儀：齋戒：前奠謁三日，應行事執事官散齋二日，宿於正寢，致齋一日於祠所。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致齋，唯行奠謁事。陳設：前奠謁一日，廟司帥其屬，掃除廟之內外，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分獻官位於獻官之後，執事者位於其後，每等異位俱重

분헌관(分憲官) 자리를 헌관의 뒤에 설치하고, 집사자(執事者)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하되, 매 등(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 하고, 서향하게 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집사(執事)의 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모시게 한다.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동계(東階)의 서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문밖의 자리[門外位]는, 헌관과 분헌관은 동문(東門) 밖의 길 남쪽에 설치하고, 집사자는 그 뒤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 하고, 북향하게 하여 서쪽을 위가 되게 한다. 예감(瘞坎)을 묘전(廟殿)의 북쪽 임방(壬方)에 모나게 파되,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정도로 하고, 남쪽으로 섬돌을 낸다. 행례(行禮)는 전알일(奠謁日) 행사하기 전에 묘사(廟司)와 전사관(典祀官)이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板) 하나를 대성 지성 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놓고, 【점(坫)이 있다.】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를 대성 지성 문선왕·연국 복성공(兗國復聖公)·성국 종성공(郕國宗聖公)·기국 술성공(沂國述聖公)·추국 아성공(鄒國亞聖公)의 신위(神位)앞에 진설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饌需)를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되, 매 1위(位)마다 각기 왼쪽에 변(邊) 【녹포(鹿脯).】 1개, 오른쪽에 두(豆) 【어해(魚醢).】 1개씩을 진설하고, 보(簠)와 궤(簋) 각 1개씩을 변과 두 사이에 놓되, 보는 왼쪽에 놓고, 【벼를 담는다.】 궤는 오른쪽에 놓는다. 【기장을 담는다.】 술잔[爵]은 각각 1개씩 보·궤 앞에 놓으며, 【점(坫)이 있다.】 희준(犧尊) 2개를 진설하되, 【한 개는 명수(明水)를 담고, 한 개는 예제(醴齊)를 담는다.】 모두 국자[勺]를 올려놓고 보자기[罍]를 덮어서, 호외(戶外)의 왼쪽에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진설한다. 【무릇 준은 명수를 담은 것이 위가 되고, 배위(配位)는 주준(酒尊)이니 곧 정위(正位)에서 존소(尊所)의 동쪽이다.】 또 전내(殿內)의 동서(東西) 종사위(從祀位)의 제기(祭器)를 진설하는데, 매 1위(位)마다 각각 왼쪽에 변(邊) 【녹포(鹿脯).】 1개,

行, 西向北上, 設監察位於執事之南, 西向, 書吏陪其後, 設謁者、贊者、贊引位於東階之西, 西向北上, 設門外位獻官分獻官於東門外道南, 執事者於其後, 異位俱重行, 北向西上, 開瘞坎於朝殿之北壬地, 方深取足容物, 南出陞。 行禮: 奠謁日未行事前, 廟司及典祀官, 各帥其屬入, 奠祝板一於大成至聖文宣王神位之右, 【有坫】設香爐、香合、并燭於大成至聖文宣王、兗國復聖公、郕國宗聖公、沂國述聖公、鄒國亞聖公神位之前; 次設祭器實饌具, 每一位各左一籩、【鹿脯。】右一豆。【魚醢。】簠簋各一在籩豆間, 簠左【實稻。】簋右。【實黍。】爵各一在簠簋前。【有坫。】設犧尊二, 【一實明水, 一實醴齊。】皆加勺罍, 在戶外之左, 北向西上。【凡尊實明水爲上。 配位酒尊, 卽於正位尊所之東。】又設殿內東西從祀位祭器, 每一位各左一籩【鹿脯。】右一豆。【魚醢。】簠簋各一在籩豆間, 簠左簋右。爵各一, 在簠簋前。【有坫。】各設象尊二, 【一實玄酒, 一實法酒。】設洗於東階東南北向, 【盥洗在東, 爵洗在

오른쪽에 두 【어해(魚醢).】 1개씩을 진설하고, 보·궤 각각 1개씩을 변과 두 사이에 놓되, 보는 왼쪽에 놓고, 궤는 오른쪽에 놓는다. 술잔[爵]은 각각 1개씩 보·궤 앞에 놓으며, 【짐이 있다.】 각각 상준(象尊) 2개씩을 진설한다. 【한 개는 현주(玄酒)를 담고, 한 개는 법주(法酒)를 담는다.】 씻는 그릇[洗]은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진설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놓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놓는다.】 술향아리[鬯]는 세(洗)의 동쪽에 두되,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篚]는 세의 서남쪽에 두되, 수건을 담아 둔다. 【광주리에 담아둔다.】 여러 집사(執事)의 관세(盥洗)는 현관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하여 진설한다. 행례(行禮)는, 전알일 축시 전 오각(五刻)에 【축시(丑時) 전 오각은 곧 삼경(三更) 삼점(三點)이니, 행사(行事)는 축시 전 이각(二刻)을 사용한다.】 묘사와 전사관(典祀官)이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각기 찬수를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삼각(三刻) 전(前)에 현관과 여러 집사들이 각기 의복을 입는다. 【현관과 학관(學官)은 제복(祭服)을 입고, 학생은 청금복(靑衿服)을 입는다.】 알자·찬자·찬인이 동문으로부터 들어와서 먼저 섬돌 사이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사배(四拜)하고 나서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와 찬인이 각기 현관 이하의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모두 동문(東門)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일각(一刻) 전에 알자가 감찰·전사관·대축(大祝)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섬돌 사이의 배위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선다. 찬자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가고, 찬인이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위(盥位)에 나아가서 관세하기를 마치면,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집사자(執事者)가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술잔을 씻고 술잔을 닦기를 마치면, 광주리에 넣어 받들고 준소(尊所)로 나아가서 점(坫) 위에 둔다. 알자는 현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분현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현관 이하의 제관이

西.】 鬯在洗東加勺, 篚在洗西南肆, 實以市, 【篚實.】 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東南, 北向. 行禮奠謁日丑前五刻, 【丑前五刻, 卽三更三點. 行事, 用丑前二刻.】 廟司及典祀官, 各帥其屬, 各實饌具畢. 前三刻, 獻官及諸執事各服其服. 【獻官學官祭服, 學生靑衿服.】 謁者贊者贊引入自東門, 先就階間拜位, 北向西上四拜訖就位, 謁者贊引各引獻官以下, 俱就東門外位. 前一刻, 謁者引監察典祀官大祝及諸執事, 入就階間拜位, 重行北向西上. 立定, 贊者曰: “四拜.” 監察以下皆四拜訖, 謁者引監察就位, 贊引引諸執事詣盥(洗) [洗] 位, 盥(洗)訖, 各就位. 執事者詣爵洗位, 洗爵拭爵訖, 置於篚, 奉詣尊所, 置於(坫) [坫] 上. 謁者引獻官, 贊引引分獻官入就位. 贊者曰: “四拜.” 獻官以下皆四拜. 謁者引獻官, 詣盥洗位北向立, 贊搯笏盥手(洗) 手. 贊執笏, 引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執事者一人捧香合, 執事者一人捧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捧香在東西向, 奠爐在西東向.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조복(朝服)의 대대(大帶)에〉 꽂고 손을 씻은 후 수건에 닦게 하고 나서, 홀을 잡게 하고는, 대성 지성 문선왕의 신위 앞으로 인도해 와서 북향하여 서게 한다. 그리고, 꿇어앉아서 홀을 〈조복의 대대에〉 꽂게 한다. 집사자 1인은 향함을 받들고, 집사자 1인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謁者)가 헌관에게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면,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神位) 앞에 드린다. 【향을 받들 때는 동쪽에 서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릴 때는 서쪽에 서서 동향한다. 술잔을 주고 술잔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再拜)하게 하고, 다음에는 복성공(復聖公)·종성공(宗聖公)·술성공(述聖公)·아성공(亞聖公)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향을 피우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다만 향을 받을 때는 남쪽에 서서 북향하고, 향로를 드릴 때는 북쪽에 서서 남향하고, 술잔을 주고 술잔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하여 한다. 만약 종성공과 아성공이 서쪽에 있으면, 향을 받들 때는 북쪽에 서서 남향하고, 향로를 드릴 때는 남쪽에 서서 북향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贊者)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선왕의 존소(尊所)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는데,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고, 집사자는 술잔으로 술을 받든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조복의 대대에〉 꽂게 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면, 대축(大祝)이 신위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再拜)하게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밖으로 나가서 배위(配位)의 존소에 나아가 서향하

授爵奠爵，準此。】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再拜，次詣復聖公、宗聖公、述聖公、亞聖公神位前，東向上香，竝如上儀，【唯捧香在南北向，奠爐在南北向。授爵奠爵，準此。若宗聖、亞聖公在西，則捧香在南北向，奠爐在南北向。】引降復位。贊者曰：“行酌獻禮。”謁者引獻官，詣文宣王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瀆)〔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謁者引獻官出戶，詣配位尊所西向立，執尊者(去)〔舉〕罍酌酒，執事者四人，以爵受酒。謁者引詣復聖公、宗聖公、述聖公、亞聖公神位前，行禮竝如上儀，【但無讀祝。】引降復位。初獻官將升殿，贊引各引分獻官，以次詣洗，盥手帨手，分獻殿內諸神位。贊引贊搯笏，執爵獻爵奠爵，執笏俛伏興小退再拜。【每位各再拜。】分獻訖，俱復位。大祝入徹籩豆如式。贊者曰：“四拜。”獻

	<p>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벗기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4인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복성공·종성공·술성공·아성공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행례(行禮)하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다만 축문을 읽는 것이 없다.】 인도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초헌관이 장차 전(殿)으로 오르려 하면, 찬인이 각기 분헌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손을 씻은 후 수건에 닦게 하고, 전내(殿內)의 여러 신위에 나누어 술잔을 드리는데, 찬인이 〈분헌관에게〉 홀을 〈조복의 대대(大帶)에〉 꽂고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게 한다. 술잔을 드리고 나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게 한다. 【매 위(位)마다 각기 재배한다.】 나누어 드리기를 마치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다. 대축(大祝)이 들어가서 변·두를 걸어 치우기를 의식대로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 이하의 제관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분헌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섬돌 사이의 배위(拜位)로 나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차례로 인도해 나간다. 알자·찬자·찬인이 섬돌 사이의 배위로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묘사(廟司)와 전사관(典祀官)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걸어치우고, 문을 닫고 내려와서 물러간다. 축판(祝板)은 구덩이에 묻는다.”</p> <p>하였다. 헌관(獻官) 1명, 【관관(館官) 3품 이상.】 분헌관(分獻官) 2명, 【관관(館官) 4품 이하.】 전사관은 봉상시 참외(奉常寺參外), 대축(大祝) 1명, 【학관(學官).】 알자 1명, 찬자 1명, 찬인이 2명, 여러 집사이다. 【이상은 학생이다.】</p>	<p>官以下皆四拜訖，謁者引獻官，贊引引分獻官，以次出。謁者引監察及諸執事，就階間拜位，贊者曰：“四(位)〔拜〕。”監察及諸執事，皆四拜訖，謁者以次引出。謁者、贊者、贊引，就階間拜位，四拜而出。廟司及典祀官，各帥其屬，徹禮饌，闔戶以降乃退。祝板瘞於坎。獻官一、【館官三品以上。】分獻官二、【館官四品以下。】典祀官，奉常寺參外，大祝一、【學官。】謁者一、贊者一、贊引二、諸執事。【已上學生。】</p>
<p>7. 세종 71권, 18년 (1436 병진 / 명 정통 (正統) 1년) 1월 19일</p>	<p>(전략) 방물표(方物表)에는, “황제의 돌보심이 매우 깊어서 서적을 특별히 반사하셨으니, 토산물이 비록 박약하오나, 소박한 정성을 본받아 삼가 예물을 갖추어, 황세저포 20필, 백세</p>	<p>(전략)方物表曰: 天眷悉深，特頒書籍。土宜雖薄，聊效芹暄。謹備禮物，黃細苧布二十</p>

<p>(을유) 1번째기사 남궁계를 보내어 《음 주자치통감》의 사례 를 하게 하다</p>	<p>저포·흑세마포 각 30필, 황화석(黃花席)·만화방석(滿花方席)·잡채화석(雜綵花席) 각 20장, 인삼·송자(松子) 각 2백 근, 오미자(五味子) 1백 근입니다. 위의 물건은 제조가 정하지 못하고 명목도 심히 적지마는, 중심에서 나온 신의(信義)임을 살피시어 위에 바치는 의식을 용납하여 주소서.”(후략)</p>	<p>匹、白細苧布·黑細麻布各三十四、黃花席·滿花席·滿花方席·雜綵花席各二十張、人蔘松子各二百觔、五味子一百斤。右件等物，製造非精，名般甚尠，庶諒由中之信，俯容享上之儀。(후략)</p>
<p>8. 세종 71권, 18년 (1436 병진 / 명 정통 (正統) 1년) 2월 13일 (기유) 4번째기사 사직제의 음복례에 관 한 예조의 상언</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제사의 의식 가운데에, 종묘(宗廟)·사직(社稷)과 각처에서 여러 제향의 음복(飲福)을 모두 가장 높은 한 위의 준소(尊所)의 술을 가져와서 음복하게 하였는데, 임자년에 이르러 사직에 각각 단을 설치하여 개찬(改撰)한 의주(儀註)에 합작(合爵)하는 예를 사용하였으니, 여러 제향의 음복과 같지 않으매 진실로 불편합니다. 지금부터는 사직제의 음복례(飲福禮)도 또한 여러 제사의 의식에 의거하여 각각 가장 높은 위(位) 준소의 술로써 음복하게 하고, 합작의 예를 쓰지 아니하되, 초헌관(初獻官)이 먼저 사단(社壇)에 나아가고, 대축(大祝)이 국사(國社) 준소의 술을 가져와서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마시고, 이를 마치면 단에서 내려 다음에 직단(稷壇)에 나아가고, 대축이 국직(國稷) 준소의 술을 가져와서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마시고, 이를 마치면 단에서 내려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諸祀儀式內，宗廟社稷各處諸享飲福，皆取最尊一位尊所之酒飲福。至壬子年，社稷各置壇而改撰儀註，乃用合爵之禮，與諸祭享飲福不同，誠爲未便。自今社稷祭飲福禮，亦依諸祀儀，各用最尊位尊所之酒飲福，不用合爵之禮。初獻官先(取)〔就〕社壇，大祝取國社尊所之酒，授獻官，獻官飲訖下壇，次詣稷壇。大祝取國稷尊所之酒，授獻官，獻官飲訖下壇。”從之。</p>
<p>9. 세종 72권, 18년 (1436 병진 / 명 정통 (正統) 1년) 4월 21일 (정사) 3번째기사 가뭄을 걱정하여 반찬 을 감하다</p>	<p>임금이 가뭄을 걱정하여 반찬을 감하였다.</p>	<p>上憂旱減膳。</p>
<p>10. 세종 72권, 18년</p>	<p>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p>	<p>議政府據禮曹呈啓：“擇水日，令外方</p>

<p>(1436 병진 / 명 정통 (正統) 1년) 4월 25일 (신유) 7번째기사 이사(里社)와 사호(祀戶)에 비를 빌게 하다</p>	<p>“수일(水日)을 택하여 외방 백성들로 하여금 이사(里社)2587) 에 나아가서 비를 빌게 하고, 또 경중(京中) 사람들로 하여금 사호(祀戶)에 비를 빌게 하며, 소호(小戶)로서 혼자 준비할 수 없으면 두어 집이 어울려서 설행(設行)하게 하되, 떡과 과일을 준비할 수 없는 자와 벼와 조를 물론하고 정결하게 밥을 지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民就祈里社， 又令京中人祀戶祈雨。小戶不能獨辦，則數家竝設，其不能備餅果者，勿論稻粟，精潔作飯祈禱。” 從之。</p>
<p>11. 세종 72권, 18년 (1436 병진 / 명 정통 (正統) 1년) 4월 27일 (계해) 2번째기사 비가 내렸으나 흡족치 않아 술을 마시지 않는다</p>	<p>의정부 참찬 신개(申概)와 예조 참의 황치신(黃致身) 등이 향운(香醞)을 올리면서 아뢰기를, “방금 비가 내리오니 술을 드시어 옥체를 조리(調理)하소서.”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이제 비록 비가 내려도 흡족하지 못하니, 어찌 술을 마시겠는가.” 하였다. 신개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오늘 내리는 비는 형세가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 가뭄으로 인하여 감선(減膳)하신 지가 여태까지 여러 날이 되시오니, 신 등은 전하의 기력이 좋지 못하실까 걱정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작년 가을부터 이제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대단히 가물었으니, 민생이 염려로운데, 어찌 이번 비를 흡족하게 여기고 마음놓고 술을 마시겠는가.” 하고, 마침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p>	<p>議政府參贊申概、禮曹參議黃致身等，進香醞，啓曰：“時方下雨，宜進酒以調聖躬。”上曰：“今雖下雨，未至浹洽，豈宜進酒？”申概等更啓：“今日下雨，勢將大霑。殿下因旱減膳，于今累日，臣等恐聖候不調。”上曰：“自去秋至今不雨，旱暵至甚，民生可慮。豈以此雨爲足，而安意飲酒？”遂不允。</p>
<p>12. 세종 72권, 18년 (1436 병진 / 명 정통 (正統) 1년) 6월 8일 (계묘) 3번째기사 술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다</p>	<p>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지금은 비가 흡족하오니 술을 드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또한 의정부와 육조에서 법주[香醞]를 올리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매일 한 잔(盞)씩만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p>	<p>承政院啓：“今雨澤既洽，請進酒。”又議政府六曹進香醞，上許之，仍教曰：“自此以後，每日只一進盞。”</p>
<p>13. 세종 72권, 18년</p>	<p>의정부에서 아뢰기를,</p>	<p>議政府啓王世子納嬪儀：</p>

(1436 병진 / 명 정통 (正統) 1년) 6월 15일 (경술) 3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왕세자의 납빈의·납채 등에 관해 아뢰다

“왕세자의 납빈의(納嬪儀). 종묘(宗廟)에 고(告)하는 것은 유사(有司)가 특생(特牲)으로써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축문은 임시해서 짓는다.】 납채(納采). 마루[軒]에 납시어 장차 납채(納采)를 행할 것을 명령하고, 교지(教旨)로 사자(使者)를 명(命)한다. 이조(吏曹)에서 명령을 받들어 계신(戒愼)한다. 하루 전에 유사(有司)가 전하의 자리[座]를 근정전 북벽(北壁)에 남향으로 마련하고, 향로 둘을 앞기둥[前楹] 밖에 좌우로 설치하고, 전악(典樂)이 헌현(軒懸)을 전정을 베풀되,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게 하고, 협률랑(協律郎)의 거휘위(舉麾位)를 전상(殿上)에 설치하되, 서계(西階)의 서쪽에 동향하게 한다. 그날에 사복(司僕)이 여연(與輦)과 말[馬]을 뜰에 베풀어 놓고, 전의(典儀)가 문관(文官) 1품 이하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하여 서향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종실(宗室)과 무관(武官) 1품 이하의 자리는 전정의 길 서쪽에 서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문관과 마주보게 모두 겹줄로 하여 동향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종실은 품등마다 반두(班頭)를 따로 하고, 대군(大君)의 자리는 특별히 정1품 앞에 설치한다.】 감찰(監察) 두 사람의 자리는 문·무반(文武班) 뒤에 설치하고, 전상(殿上)의 전의(典儀) 자리는 전상(殿上)에 설치하되, 동계(東階)의 동쪽에 서향하게 하고, 판통례(判通禮)와 계하(階下)의 전의(典儀) 자리는 악현(樂懸)의 동북쪽에 설치하며, 통찬(通贊) 1인은 남쪽으로 약간 뒤로 물러 있게 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통찬 1인은 악현(樂懸)의 서북쪽에 동향하게 한다. 사자(使者)가 명령을 받는 자리[受命位]는 전정(殿庭)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하고, 동쪽이 위가 되게 하며, 집사자(執事者)는 남쪽에 있게 하되, 북향하여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봉례랑(奉禮郎)은 문밖의 자리[門外位]를 홍례문(弘禮門) 안에 설치하되, 문관은 길 동쪽에 있게 하고, 종실과

告宗廟： 有司以特牲告如常儀。【祝文，臨時撰。】納采： 臨軒，命使將行納采，敎命使者，吏曹承以戒之。 前一日，有司設殿下座於勤政殿北壁，南向，設香爐二於前楹外左右，典樂展軒懸於殿庭近南，北向，設協律郎舉麾位於殿上西階之西，東向。 其日，司僕陳輿輦及馬于庭。 典儀設文官一品以下位於殿庭道東近東，皆重行西向北上，宗室及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近西當文官，皆重行東向北上。【宗室，每品班頭別設位。 大君，特設位於正一品之前。】監察二位於文武班後。 設殿上典儀位於殿上東階之東，西向。 判通禮階下典儀位於懸之東北，通贊一人在南差退，俱西向。 通贊一人於懸之西北，東向。 設使者受命位於殿庭道東，俱北向東上，執事者在南北向東上。 奉禮郎設門外位於弘禮門內，文官於道東，宗室及武官於道西，每等異位重行，相向北上。 鼓初嚴，兵曹勒諸衛列仗屯門及陳於殿庭如常儀。 有司設敎書案於殿下座前近東，【在寶案之南。】又陳綵輿於弘禮門外。 宗室及文武群臣使者以下，俱集朝房，各服

무관은 길 서쪽에 있게 하되,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북이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兵曹)에서 여러 위(衛)로 하여금 의장(儀仗)을 베풀어 문(門)에 놓아 두게 하고, 전정(殿庭)에 벌여 놓게 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유사(有司)가 교서관(敎書案)을 전하의 자리 앞에 설치하되, 동쪽으로 가까이 하고, 【보안(寶案)의 남쪽에 있다.】 또 채여(綵輿)를 홍례문 밖에 베풀어 놓는다. 종실(宗室) 및 문무 군신(文武群臣)과 사자(使者) 이하가 모두 조방(朝房)에 모여서 각기 조복(朝服)을 입는다.

북이 이엄(二嚴)을 알리면, 종실 및 문무 군관·사자 이하가 모두 문밖 자리 [門外位]에 나아가고, 유사(有司)가 교서(敎書)를 【임시(臨時)하여 짓는다.】 안(案) 위에 【함(函)이 있다.】 둔다. 판통례가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와 면복(冕服)을 입고, 유사가 산선(緞扇)의 시위(侍衛)를 베풀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近臣)과 집사관(執事官) 【근신은 승지(承旨)와 비신 상호군(備身上護軍)·부책 대호군(扶策大護軍)·사관(史官)과 같은 유(類)이고, 집사관은 판통례·전의·통찬·감찰과 같은 유(類)이다.】 이 먼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데리고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協律郎)이 들어와 거휘위(擧麾位)에 나아가며, 여러 시위하는 관원들은 각각 기구(器具)와 복색(服色)을 갖춘다. 상서관(尙瑞官)이 보(寶)를 받들면 모두 함문(閤門)에 나아가 봉영(奉迎)한다.

북이 삼엄(三嚴)을 알리면, 전의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실 및 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또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근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서향하여 서게 한다.

판통례가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고, 중금(中禁)이 전엄(傳嚴)하면, 전

朝服。鼓二嚴，宗室及文武群官使者以下，皆就門外位。有司奉敎書【臨時撰。】置於案上。【有函。】判通禮啓請中嚴，殿下出思政殿服冕服，有司陳緞扇侍衛如常儀。近臣及執事官【近臣如承旨及備身上護軍、扶策大護軍、史官之類，執事官如判通禮、典儀通贊、監察之類。】先行四拜禮如常儀。典樂率工人入就位。協律郎入就舉麾位。諸侍衛之官，各服其器服。尙瑞官奉寶，俱詣閤奉迎。鼓三嚴，典儀率通贊，先入就位。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以次入就位。又引使者以下，立於勤政門外道東西向。判通禮啓外辦，中禁傳嚴，殿下乘輿以出，緞扇侍衛如常儀。殿下陞座，爐烟升。尙瑞官奉寶置於座前【有案。】如常儀，典儀曰：“四拜”通贊傳贊，群官皆鞠躬四拜興平身。奉禮郎引使者以下入就位，典儀曰：“四拜。”通贊傳贊，使者以下皆鞠躬四拜興平身。傳敎官【都承旨。】前承敎，由東戶出，執事者二人【內侍別監公服。】對學敎書案從之。傳敎官降詣，使者東北西向立，稱有旨，通贊贊跪，

하가 여(輿)를 타고 나오는데, 산선(繖扇)의 시위(侍衛)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고,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 오른다. 상서관이 보(寶)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두기를 【안(案)이 있다.】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의가 ‘사배 하라.’ 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찬(贊)하여, 군관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봉례랑이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면, 전의가 ‘사배하라.’ 하고, 통찬이 이를 받아 찬(贊)하여, 사자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전교관(傳敎官) 【도승지(都承旨).】 앞으로 나아가 교지(敎旨)를 받고 동쪽 문으로 나오면, 집사자 2인이 【내시 별감(內侍別監)이 공복(公服)을 입는다.】 교서안(敎書案)을 마주 들고 이를 따른다. 전교관이 내려와서 사자의 동북쪽으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서 ‘교지가 있다.’고 일컬으면, 통찬이 ‘꿨어앉으라.’고 찬(贊)하여, 사자와 부사가 모두 꿨어앉는다. 전교관이 교지를 선포하기를, ‘무슨 벼슬 아무개의 딸을 맞이하여 왕세자빈을 삼으니, 경 등을 명하여 납채례(納采禮)를 행한다.’ 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통찬이 ‘홀(笏)을 꺾으라.’고 찬(贊)하여, 사자와 부사가 모두 홀을 꺾는다. 집사자가 교서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전교관의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나서 모두 서향하여 서면, 전교관이 교서를 【내시 집사자(內侍執事者)가 교서안을 행례 집사자(行禮執事者)에게 주고 물러난다.】 가지고 서향하여 사자에게 주면, 사자는 이를 받아서 부사에게 주고, 부사는 이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는 앞으로 나아가서 이를 꿨어앉아서 받아 안(案) 위에 놓고, 마주 들고 물러나와 사자의 뒤에 선다.

통찬이 ‘출홀(出笏), 부복(俯伏), 흥(興),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 이라 찬(贊)하여, 사자와 부사가 모두 홀을 꺼내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전교관이 시위(侍位)로 돌아가고, 봉례랑이 사자와 부

使副皆跪，傳敎官宣敎曰：“聘某官某女爲王世子(嬪) [嬪]，命卿等行納采禮。” 宣訖，通贊贊摺笏，使副皆摺笏，執事者以敎書案，進立於傳敎官之南少退，俱西向。傳敎官取敎書【內侍執事者以案授行禮執事者退。】西向授使者，使者受以授副使，副使受以授執事者，執事者進跪受置於案對舉，退立於使者之後。通贊贊出笏，俯伏興四拜興平身，使副皆出笏，俯伏興四拜興平身，傳敎官還侍位。奉禮郎引使副出，舉敎書案者前行，由勤政門東偏門出，使副隨行。初，使者將出，典儀曰：“四拜。”通贊傳贊，群官皆鞠躬四拜興平身。判通禮進當殿下座前跪啓禮畢，俯伏興還本位。殿下降座，乘輿還內，繖扇侍衛如來儀，侍臣從至閣，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以次出。使者至弘禮門外，以敎書函置于綵輿，出光化門，使副皆服公服，乘馬而行，從者乘馬而從。嬪氏家受納采，前一日，主人設使者次於大門之外道左，南向。其日大昕，使副公服，至於嬪氏大門外，掌次者迎入次，【凡行事者，皆公服。】使副出次，謁者引

사를 인도하여 나가는데, 교서안을 든 사람이 앞서 가서 근정문 동편문으로 나가며, 사자와 부사가 따라간다. 처음 사자가 나가려 할 때에, 전의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찬하여, 군관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례가 앞으로 나가서 전하의 자리 앞에 꿇어앉아 ‘예(禮)를 마쳤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輿)를 타고 궐내로 돌아가는데, 산선의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신(侍臣)들은 함문(閤門)까지 따라오고, 봉례랑은 종실 및 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사자가 홍례문 밖에 이르러서 교서함(敎書函)을 채여(綵輿)에 두고 광화문으로 나오며, 사자와 부사는 모두 공복(公服)을 입고 말을 타고 가며, 종자(從者)들은 말을 타고 따른다.

빈씨(嬪氏) 집에서 납채(納采)를 받는 의식.

하루 전에 주인이 사자의 악차(輦次)를 대문 밖의 길 왼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그날 대혼(大昕)2623) 에 사자(使者)와 부사(副使)가 공복(公服)을 입고 빈씨의 대문 밖에 이르면, 장차자(掌次者)2624) 가 이를 맞아서 악차로 들어간다. 【모든 행사자는 공복을 입는다.】 사자와 부사가 악차에서 나오면, 알자(謁者)가 인도하여 대문 밖에 동서향(東西向)하여 세우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집사자 2인이 교서안(敎書案)을 마주 들고 사자의 남쪽에 서며, 기러기를 가진 자가 【산 기러기를 쓰되, 왼쪽 머리를 채색 비단으로 엮갈리게 잡아맨다.】 또 그 남쪽에 있되 모두 서향한다. 빈자(嬪者)가 주인을 인도하여 공복 차림으로 나와 대문 밖의 서쪽에서 맞이하되 동향하고, 알자는 사자를 인도하여 문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고, 주인은 문에 들어와서 왼쪽에 있다. 교서안을 가진 자가 앞서 가고, 기러기를 가진 자가 따라 들어간다. 사자와 부사가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청사(廳事)의 한가운데 서되, 모두 남향하고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교서안을 가진 자와 기러기를 가진 자는 부사의 서남쪽에

立於大門外之東，西向北上。執事者二人對舉敎書案，立於使者之南，執雁者【用生雁，左首以生色繒交絡之。】又在其南，俱西向。嬪者引主人，公服出迎於大門外之西東向，謁者引使者入門而右，主人入門而左。持案者前行，執雁者從入，使副升自東階，立於廳事當中，俱南向東上。持案及執雁者，在副使西南，俱東向。主人升自西階，進使者前北向跪，持案者以案進副使前，副使取敎書，持案者退復位。副使奉敎書進授使者，退復位。使者曰：“奉敎作儷儲宮，允歸令德。率由舊章，使其納采。”主人曰：“臣某之子不敎，若如人，既蒙敎訪，臣某不敢辭。”俯伏輿降詣階間，北向四拜，升進北向跪受敎書，退以授左右，仍北向跪。副使取雁以授使者，退復位。使者授雁，主人受雁，退以授左右使副，降自東階出就次。主人告于家廟。【前一日，灑掃齊宿，厥明設酒果，主人以下盛服。時至，主人於阼階下北向立，執事者在主人之後，重行西上。主人盥洗升啓櫝，奉諸神主，置於櫝前降復位。主人以下，皆再拜。主人升

있되, 모두 동향한다. 주인은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사자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고, 교서관을 가진 자가 안(案)을 가지고 부사 앞으로 나아가면, 부사는 교서를 취(取)하고, 안(案)을 가진 자는 물러나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부사가 교서를 받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사자에게 주고 물러나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자가 말하기를, ‘교서를 받들어 세자[儲宮]와 짝을 지으니 아름다운 덕(德)으로 돌아가라. 옛 법에 따라 아무개로 하여금 납채(納采)하게 한다.’ 하면, 주인이 말하기를, ‘신(臣) 아무개의 자식은 남과 같이 가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미 교서를 받게 되었사오니, 신 아무개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옵니다.’ 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내려와 계간(階間)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사배하고, <다시> 올라가서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고 꿇어앉아서 교서를 받아 가지고 물러나와 좌우(左右)에게 주고 나서, 그대로 북향하고 꿇어앉으면, 부사가 기러기를 취(取)하여 사자에게 주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사자가 주인에게 기러기를 주면, 주인은 기러기를 받아 가지고 물러나와 좌우에게 준다. 사자와 부사자 동계(東階)로 내려와서 밖으로 나와 악차로 나아간다. 주인이 가묘(家廟)에 고(告)하고 【하루 전에 집안을 소제하고 재계(齋戒)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미명(未明)에 주과(酒果)를 진설하고, 주인 이하가 성복(盛服)한다. 시간이 되면 주인이 조계(阼階) 아래에 북향하여 서고, 집사자는 주인의 뒤에 있되 겹줄로 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주인이 관세(盥洗)하고 올라가서 신주(神主)의 독(櫝)을 열고 여러 신주를 모셔 내어 독 앞에 두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주인 이하가 모두 두 번 절한다. 주인이 올라가서 향탁(香卓) 앞으로 나아가 분향(焚香)하고 두 번 절하고 나서, 신위 앞으로 나아가 헌주(獻酒)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리고 나서 향탁 앞으로 물러 나와 꿇어앉으면, 축(祝)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주인의 왼쪽에 꿇어앉아서 읽는다. 이를 마치면, 주인이 두 번 절하고 내려와서

詣香卓前，焚香再拜，詣神位前獻酒如常儀，退于香卓之前跪。祝持版進主人之左跪讀畢，主人再拜降復位，主人以下皆再拜，主人納主而退。其祝版云：“維年歲月朔日，孝曾孫某官某，敢昭告于某親某官府君、某封某氏。伏以某之第幾女，年漸長盛，今日特蒙教訪納采，不勝憾愴，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其祝版共爲一版，自稱以最尊者爲主。】出迎使副升廳事，使副俱南向立，主人北向立。僮者二人對舉答箋【臨時撰。】案，進於主人後小西，僮者取箋，以授主人，主人受，進跪授使者，俯伏與降詣階間，北向四拜訖還升。使副在東，主人在西相對，主人再拜，使副答拜俱就坐。主人乃以酒饌【饌品三果床。】禮之，其從者，亦禮之別室畢，奉帛【用綿或布，各不過二端。】以勞使副，使副出，主人送于大門外。使副乘馬，至光化門下馬，入勤政殿庭，序立進箋，復命四拜訖退。納徵，臨軒命使。前一日，有司設殿下座於勤政殿北壁，南向。設香爐二於前楹外左右。典樂展軒懸及舉麾位如常儀。其日，司僕陳輿輦

제자리로 돌아간다. 주인 이하가 모두 두 번 절하고는, 주인이 신주를 도로 독에 받들어 넣고 물러나온다. 그 축판에 이르기를, ‘아무 해 아무 달 무슨 삭(朔) 아무 날 효증손(孝曾孫) 아무 벼슬 아무개는 감히 모친(母親) 모관 부군(某官府君), 모봉 모씨(某封某氏)께 고(告)하나이다. 었디어 아뢰옵건대, 아무의 몇째 딸이 나이 점점 성장해서, 오늘 특별히 교서를 내려 납채(納采)하오니 감창(憾愴)하움을 이길 수 없어, 삼가 주과(酒果)로써 예(禮)를 펴 경건히 고하나이다.’ 한다. 그 축판은 한 판(版)에 같이 쓰되, 최존자(最尊者)로서 주인이 되어 고한다고 일컫는다. 【나와서 사자와 부사를 맞이하여 청사(廳事)에 오른다. 사자와 부사는 모두 남향하여 서고, 주인은 북향하여 서며, 빈자(貧者) 2인이 답전(答箋) 【임시(臨時)하여 짓는다.】 안(案)을 마주 들고 주인 뒤의 조금 서쪽으로 나아간다.

빈자가 전문(箋文)을 취(取)하여 주인에게 주면, 주인은 이를 받아 가지고 나아가 꿇어앉아서 사자에게 주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계간(階間)으로 내려와서 북향하여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도로 올라간다. 사자와 부사는 동쪽에 있고, 주인은 서쪽에 있어, 서로 마주본다. 주인이 두 번 절하면, 사자와 부사가 답배(答拜)하고, 함께 자리에 앉는다. 주인이 곧 주찬(酒饌)으로 【찬품은 세가지 과일 상이다.】 대접하고, 그 종자(從者)도 역시 대접한다. 별실(別室)에서 폐백으로 【비단이나 베를 사용하되 두 끝에 지나지 않는다.】 사자와 부사를 위로한다. 이를 마치면 사자와 부사가 나가는데 주인이 대문 밖까지 전송한다,

사자와 부사가 말을 타고 광화문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고, 근정전의 뜰로 들어가서 차례로 서서 전문을 올리고 복명(復命)하며, 사배하고 나서 물러간다, 납징(納徵).

마루[軒]에 납시어 사자(使者)를 명(命)한다. 하루 앞서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근정전의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로 둘을 앞기둥[前楹] 밖에 좌

及馬, 典儀奉禮郎設宗室及文武群官、內外位執事官, 竝如納采儀。設使者受命位於殿庭道東, 俱北向東上, 執事者在南北向東上。鼓初嚴, 兵曹勒諸衛陳儀仗如常儀。有司設玄纁束帛, 【玄六纁四。】置於案上, 【有函。】陳乘馬於殿庭道東軒懸之北, 北首東上。判通禮啓請中嚴, 殿下出思政殿, 服遠遊冠、絳紗袍, 有司陳繖扇侍衛如常儀。近臣及執事官先行四拜禮如常儀。典樂率工人入就位, 協律郎入就舉麾位。諸侍衛之官, 各服其器服。尚瑞官奉寶俱詣閣奉迎。鼓三嚴, 典儀率通贊先入就位, 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 以次入就位, 又引使者以下, 立於勤政門外道東西向。判通禮啓外辦, 中禁傳嚴,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殿下陞座, 爐烟升。尚瑞官奉寶置於座前【有案。】如常儀, 典儀曰: “四拜。”通贊傳贊, 宗室及文武群官, 皆鞠躬四拜興平身, 奉禮郎引使者以下入就位, 典儀曰: “四拜。”通贊傳贊, 使者以下, 皆鞠躬四拜興平身。傳教官前承教, 由東戶出, 執事者二人【內侍別監。】對舉束帛

우로 설치하며, 전악(典樂)이 현현(軒懸)과 거휘위(舉麾位)를 베풀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설치한다. 그 날에 사복(司僕)이 여연(輿輦)과 말[馬]을 베풀어 놓고, 전의(典儀)와 봉례랑(奉禮郎)이 종실 및 문무 군관의 내·외위(內外位)를 설치하며, 집사관은 모두 납채의(納采儀)와 같다. 사자(使者)의 명령을 받는 자리[受命位]는 전정(殿庭)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여 동쪽이 위가 되게 하고, 집사자는 남쪽에 있게 하되, 북향하여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북이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兵曹)에서 여러 위(衛)로 하여금 의장(儀仗)을 베풀게 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한다. 유사가 현훈(玄纁)의 속백(束帛)을 【검은 비단[玄]이 6필, 붉은 비단[纁]이 4필.】 안(案) 위에 놓아 두고, 【함(函)이 있다.】 탈 말[馬]을 전정의 길 동쪽, 현현(軒懸)의 북쪽에 베풀어 놓되, 북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고,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관통례가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오는데, 원유관(遠遊冠)에 강사포(絳紗袍) 차림을 하고, 유사가 산선(緞扇)의 시위(侍衛)를 베풀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과 집사관이 먼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면,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 거휘위(舉麾位)로 나아가며, 여러 시위하는 관원들이 각각 그 기구와 복색을 갖춘다. 상서관(尙瑞官)이 보(寶)를 받들면, 모두 함문(閤門)에 나아가 봉영(奉迎)한다.

북이 삼엄(三嚴)을 알리면, 전의(典儀)가 통찬을 인솔하고 먼저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은 종실 및 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며, 또 사자(使者) 이하를 인도하여 근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서향하여 서게 한다.

관통례가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면, 중금(中禁)이 전엄(傳嚴)한다. 전하가 여(輿)를 타고 나오는데, 산선(緞扇)의 시위(侍衛)는 보통 때의 의식과

從之。傳教官降詣，使者東北西向立稱有旨，通贊贊跪，使副皆跪，傳教官宣教曰：“聘某官某女爲王世子嬪，命卿等行納徵禮。”宣訖，通贊贊搢笏，執事者以束帛案進立於傳教官之南，少退俱西向，傳教官取束帛，【內侍執事者，以案授行禮執事者退。】西向授使者，使者受以授副使，副使受以授執事者，執事者進跪受，置於案對舉，退立於使者之後。通贊贊出笏，俯伏興四拜興平身，使副皆出笏，俯伏興四拜興平身，傳教官還侍位。奉禮郎引使副出，舉束帛案者前行，牽乘馬者從之，由勤政門東偏門出，使副隨行。初，使者將出，典儀曰：“四拜。”通贊傳贊，群官皆鞠躬四拜興平身。判通禮進當殿下座前跪啓禮畢，俯伏興還本位。殿下降座，乘輿還內，緞扇侍衛如來儀，侍臣從至閤。奉禮郎分引文武群官以次出。使者至弘禮門外，以束帛函置于綵輿，以次陳列，出光化門。使副改服公服，乘馬而行，從者乘馬以從。嬪氏家受納徵，前一日，主人設使者次如常。其日大昕，使副至於嬪氏大門外，掌次者迎入次。執

같이 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에서 연기가 오른다. 상서관이 보(寶)를 받들어 자리 앞에 놓아 두기를 【안(案)이 있다.】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의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찬(贊)하여, 종실 및 문무군관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봉례랑이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면, 전의가 ‘사배하라.’ 한다. 통찬이 이를 받아 찬하여, 사자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전교관(傳敎官)이 앞으로 나아가서 교서(敎書)를 받들고 동쪽 문[東戶]으로 나오는데, 집사자 2인 【내시 별감(內侍別監).】 이 속백(束帛)을 마주 들고 이를 따른다. 전교관이 내려와서 사자의 동북쪽으로 나아가 서향하고 서서, ‘교지(敎旨)가 있다.’고 일컬으면, 통찬이 ‘꿇어앉으라.’고 찬하여, 사자와 부사가 모두 꿇어앉는다. 전교관이 교서를 선포하기를, ‘아무 벼슬 아무 딸을 맞이하여 왕세자의 빈을 삼으니, 경 등에게 명하여 납징례(納徵禮)를 행한다.’ 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통찬이 ‘홀(笏)을 꺾으라.’고 찬한다. 집사자가 속백안(束帛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전교관의 남쪽에 약간 뒤로 물러 서 있되, 모두 서향한다. 전교관이 속백을 취하여 【내시 집사자가 안(案)을 행례 집사자에게 주고 물러난다.】 서향하고 사자에게 주면, 사자는 이를 받아서 부사에게 주고, 부사는 이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는데, 집사자는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이를 받아 안(案) 위에 놓고, 마주 들고 물러나와 사자의 뒤에 선다. 통찬이 ‘출홀(出笏), 부복(俯伏), 흥(興),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 이라 찬하여, 사자와 부사가 모두 홀을 꺼내고 부복하였다 일어나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전교관은 시위(侍位)로 돌아가고, 봉례랑은 사자와 부사를 인도하여 나가는데, 속백안(束帛案)을 든 자가 앞서 가고, 승마(乘馬)를 끄는 자가 이를 따른다. 근정문 동편문(東偏門)으로 나가고, 사자와 부사가 따라간다. 처음에 사자가 나가려고 하면, 전의가 ‘사배하라.’ 한다.

事者布幕於中門之外，玄纁束帛陳於幕南，北首東上。使副出次，謁者引立於大門外之東，西向北上。(嬪)

[嬪]者引主人公服出迎於大門外之西東向，謁者引使者入門而右，主人入門而左，至於中門外，執事者二人對舉束帛案前行，牽乘馬者從入。三分庭，一在南，北首東上。使副乘自東階，立於廳事當中，俱南向東上。主人升自西階，進使者前北向跪，持案者以案進副使前，副使取束帛，持案者退復位。副使奉束帛進授使者，退復位，使者曰：“敎使某，以束帛乘馬納徵。”主人曰：“奉敎賜臣以重禮，臣某祇奉典敎。”俯伏興降詣階間，北向四拜，升進北向跪授束帛退，以授左右，受馬者自左受之以東，牽馬者既授馬，自前西出。主人禮使者及使者復命，竝同納采儀，唯無答箋。

冊嬪，臨軒命使。前一日，有司設殿下座於勤政殿北壁，南向。設香爐二於前楹外左右，典樂展軒懸及舉麾位如常儀。其日，司僕陳輿輦及馬。典儀奉禮郎設宗室及文武群官內外位、執事官位，竝如納徵儀。設使者受命位

통찬이 이를 받아 찬하여, 군관(群官)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례가 전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예(禮)가 끝났다.’고 아뢰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여(輿)를 타고 궐내로 돌아가는데, 산선의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다. 시신(侍臣)이 함문까지 따른다. 봉례랑은 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사자는 홍례문 밖에 이르러서 속백함(束帛函)을 채여(綵輿)에 두고 차례로 열을 지어서 광화문을 나간다. 사자와 부사가 공복(公服)으로 갈아입고 말을 타고 가고, 종사(從者)도 말을 타고 따른다.

빈씨(嬪氏) 집에서 납징(納徵)을 받는 의식.

하루 전에 주인이 사자의 악차(輦次)를 설치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그날 대혼(大昕)2625)에 사자와 부사가 빈씨의 대문 밖에 이르면, 장차자(掌次者)가 맞이하여 악차로 들어가고, 집사자가 막(幕)을 중문(中門)밖에 설치하고, 현훈 속백(玄纁束帛)을 막(幕)의 남쪽에 늘어놓되, 북쪽을 머리[首]로 하고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사자와 부사가 악차에서 나오면 알자가 인도하여 대문 밖의 동쪽에 서게 하되, 서향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빈자(嬪者)가 주인을 인도하여 공복(公服)으로 대문 밖의 서쪽으로 나와서 맞이하되, 동향한다. 알자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을 들어오되 오른쪽에 있고, 주인은 문을 들어오되 왼쪽에 있다. 중문 밖에 이르면, 집사자 2인이 속백안(束帛案)을 마주 들고 앞서 가고, 승마(乘馬)를 끄는 자도 따라 들어가되, 뜰의 3분의 1쯤 들어가서 남쪽에 있는데, 북쪽을 머리[首]로 하고 동쪽을 위[上]로 한다. 사자와 부사가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청사(廳事)의 한가운데에 서되, 모두 남향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주인은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사자의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고 꿇어앉으면, 안(案)을 가진 자가 안(案)을 부사 앞에 드린다. 부사는 속백을 취하고, 안(案)을 가진 자는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자가 말하기를, ‘사자 아무에게 교지를 내려, 속백을 말에 싣고 납징합니다.’ 하면, 주인

於殿庭道東，俱北向東上。執事者在南北向東上。鼓初嚴，兵曹勒諸衛陳儀仗如常儀。有司設冊印案各一於殿下座前近東。【在寶案之南，冊在北，印在南。】設命服案於殿庭道東軒懸之北，稍北東上。又陳綵輿於弘禮門外，陳嬪儀仗及輦於綵輿之南。宗室及文武群官使者以下，俱集朝房，各服朝服。鼓二嚴，宗室及文武群官使者以下，皆就門外位。有司奉冊函印綬及命服函，各置於案上。判通禮啓請中嚴，殿下出思政殿，服遠遊冠絳紗袍，有司陳繖扇侍衛如常儀。近臣及執事官先行四拜禮如常儀。典樂帥工人入就位，協律郎入就舉麾位。諸侍衛之官，各服其器服，尙瑞官奉寶俱詣閣奉迎。鼓三嚴，典儀率通贊先入就位，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以次入就位，又引使者以下立於勤政門外道東西向。判通禮啓外辦，中禁傳嚴，殿下乘輿以出，繖扇侍衛如常儀。殿下陞座，爐烟升，尙瑞官奉寶置於座前【有案。】如常。典儀曰：“四拜。”通贊傳贊，宗室及文武群官，皆鞠躬四拜(拜)興平身。奉禮郎引使者以下入

이 말하기를, ‘교지를 받들어 신(臣)에게 중례(重禮)를 내리시니, 신 아무는 공경히 교지를 받들겠습니다.’ 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계간(階間)으로 내려와 북향하여 사배하고, <다시> 올라가서 북향하고 꿇어앉아 속백을 받아가지고 물러나와 좌우에게 주는데, 말[馬]을 받는 자는 왼쪽에서 동쪽으로 받으며, 말 끄는 자는 말을 주고 나서 앞으로부터 서쪽으로 나간다. 주인이 사자를 예(禮)로 접대하는 것과 사자가 복명(復命)하는 것은 모두 납채의(納采儀)와 같되, 오직 답전(答箋)이 없다.
책빈 임헌(冊嬪臨軒).
사자(使者)를 명하고, 하루 전에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근정전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로 둘을 앞기둥 밖에 좌우로 설치하며, 전악(典樂)이 헌헌(軒懸)을 베풀고, 거휘위(擧麾位)를 마련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날에 사복(司僕)이 여연(輿輦)과 말[馬]을 베풀어 놓고, 전의와 봉례랑이 종실 및 문무 군관의 내·외위(內外位)를 설치하고, 집사관의 자리는 모두 납징의(納徵儀)와 같다. 사자의 명령을 받는 자리[受命位]는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여 동쪽이 위가 되게 하고, 집사자는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고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북이 초엄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衛)로 하여금 의장을 베풀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유사가 책안(冊案)·인안(印案) 하나씩을 전하의 자리 앞에 동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며, 【보안(寶案)은 남쪽에 놓되, 책안은 북쪽에 놓고, 인안은 남쪽에 놓는다.】 명복안(命服案)은 전정의 길 동쪽, 헌헌(軒懸)의 북쪽에 설치하되, 약간 북쪽으로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또 채여(綵輿)를 홍례문 밖에 벌여 놓고, 빈(嬪)의 의장(儀仗)과 연(輦)을 채여의 남쪽에 베풀어 놓으며, 종실 및 문무 군관과 사자 이하가 모두 조방(朝房)에 모여 각각 조복(朝服)을 입는다.
북이 이엄(二嚴)을 알리면, 종실 및 문무 군관과 사자 이하가 모두 문밖 자리[門外位]에 나아가고, 유사가 책함(冊函)·인수(印綬) 및 명복함(命服函)을 받

就位, 典儀曰: “四拜。” 通贊傳贊, 使者以下, 皆鞠躬四拜興平身。 傳敎官前承敎, 由東戶出, 執事者【內侍別監。】舉冊印案從之。【每案, 二人對舉。】傳敎官降詣, 使者東北西向立稱有旨, 通贊贊跪, 使副皆跪, 傳敎官宣敎曰: “冊某氏爲王世子嬪, 命卿等展禮。” 宣訖, 通贊贊搢笏, 使副皆搢笏。 執事者以冊案進立於傳敎官之南, 少退俱西向。 傳敎官取冊函【內侍執事者, 以案授行禮執事者退。】西向授使者, 使者受以授副使, 副使受以授執事者, 執事者進跪受, 置於案對舉, 退立於使者之後。 執事者, 以印案進立於傳敎官之南小退, 俱西向, 傳敎官取印綬, 【內侍執事者, 以案授行禮執事者退。】西向授使者, 使者受以授副使, 副使受以授執事者, 皆如受冊之儀。 通贊贊出笏俯伏興平身, 使副皆出笏俯伏興平身, 傳敎官還侍位。 奉禮引使副出, 舉冊印案者前行, 舉命服函者從之, 由勤政門東偏門出, 使副隨行。 初, 使者將出, 典儀曰: “四拜。” 通贊傳贊, 宗室及文武群臣, 皆鞠躬四拜興平身。 判通禮進當殿下

들어 각각 안(案) 위에 둔다.

관통례가 중엄(中嚴)을 계청하면, 전하가 사정전에 나오는데, 원유관에 강사포 차림을 하고, 유사가 산선의 시위를 베풀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 및 집사관이 먼저 사배례를 행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악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 거휘위(擧麾位)에 나아가며, 여러 시위하는 관원들이 각각 그 기구와 복색을 갖추었다. 상서관(尙瑞官)이 보(寶)를 받들면 모두 함문(閣門)에 나아가서 봉영(奉迎)한다.

북이 삼엄(三嚴)을 알리면, 전의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실 및 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며, 또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근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서향하여 서게 한다.

관통례가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면, 중금(中禁)이 전엄(傳嚴)한다. 전하가 여(輿)를 타고 나오는데, 산선의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에 연기가 오른다. 상서관이 보(寶)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놓기를 【안(案)이 있다.】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의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찬(贊)하여, 종실 및 문무 군관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봉례랑이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면, 전의가 ‘사배하라.’ 한다. 통찬이 이를 받아 찬(贊)하여, 사자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전교관(傳敎官)이 앞으로 나아가서 교서를 받아 동쪽 문[東戶]으로 나가면, 집사자가 【내시 별감.】 책안·인안을 들고 이를 따른다. 【안마다 2인이 마주 둔다.】 전교관이 내려와서 사자의 동북쪽으로 나아가 서향하고 서서, ‘교지가 있다.’고 일컬으면, 통찬이 ‘꿇어앉으라.’고 찬하여, 사자와 부사자 모두 꿇어앉는다.

座前跪，啓禮畢俯伏興還本位。 殿下降座，乘輿還內，繖扇侍衛如來儀，侍臣從至閣。 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以次出。 使者至弘禮門外，取冊函印綬及命服函，各置于綵輿，嬪儀仗及輦前行，冊、印、命服綵輿，以次陳列，出光化門。 使副乘馬而行，從者乘馬以從。 嬪受冊，前一日，主人設使者次如常儀。 設官人次於使者東南，俱西向，障以行幃。 其日，奉禮郎設使者位於大門外之東，西向北上，內侍位於使者之南。 舉冊案及印綬命服者，在南差退，俱西向。 設主人位於大門外之西，東向。 設使者以下及主人位於中門外，皆如之。 設典內位於中門外主人之南，東向。 設宮人位於使者之後，俱重行西向，以北爲上，障以行幃。 設贊者二人位於東階東南，西向。 典內先置一案於閣外近限，使副朝服乘馬，至嬪氏大門外下馬，掌次者迎入次，宮人等各之次。 掌嚴奉命服及首飾，內廐尉進輦於大門之外道東西向，以北爲上，諸衛率其屬布嬪儀仗如常。 使副出次，謁者引使者以下及宮人，典內各就位。 僕者引主人朝服出

전교관이 교지를 선포하기를, ‘모씨(某氏)를 책봉하여 왕세자의 빈으로 삼으니, 경 등에게 명하여 예식을 펴게 한다.’고 한다. 이를 마치면, 통찬이 ‘홀(笏)을 꽂으라.’고 찬하여, 사자와 부사자가 모두 홀을 꽂는다. 집사자가 책안(冊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전교관의 남쪽에 약간 뒤로 물러서되, 모두 서향한다. 전교관이 책함(冊函)을 취하여 【내시 집사자가 책안을 행례 집사자에게 주고 물러난다.】 서향하고 사자에게 주면, 사자는 이를 받아서 부사에게 주고, 부사는 이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준다. 그러면, 집사자는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서 이를 받아 안(案) 위에 놓고, 마주 들고 물러나와 사자의 뒤에 선다. 집사자가 인안(印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전교관의 남쪽에 약간 뒤로 물러서되, 모두 서향하여 서면, 전교관이 인수(印綬)를 취하여 【내시 집사자가 안(案)을 행례 집사자에게 주고 물러난다.】 서향하여 사자에게 준다. 사자가 이를 받아서 부사에게 주고, 부사가 이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되, 모두 책(冊)을 받는 의식과 같이 한다. 통찬이 ‘출홀(出笏), 부복(俯伏), 흥(興),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이라 찬하여, 사자와 부사가 모두 홀을 꺼내어 부복하였다 일어 나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전교관이 시위(侍位)로 돌아오고, 봉례랑이 사자와 부사를 인도하여 나가는데, 책안과 인안을 든 자가 앞서 가고, 명복함을 든 자도 이를 따른다. 근정문 동편문(東偏門)으로 나가고, 사자와 부사가 따라간다. 처음에 사자가 나가려고 하면, 전의가 ‘사배하라.’ 한다. 통찬이 이를 받아 찬하여, 종실 및 문무 군관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례가 전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전하가 자리에 내려와 여(輿)를 타고 궐내로 돌아가는데, 산선의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신(侍臣)이 함문까지 따라간다. 봉례랑은 종실 및 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사자가 홍례문 밖에 이르러서 책함과 인수 및 명복함을 취하여 각각 채여(綵輿)에 둔다. 빈(嬪)의

迎於大門外之西東向，謁者引使者入門而右，持案以下從之。主人入門而左，至中門外各就位。奉冊印案者進副使前，副使受冊印，奉案者退復位。副使以冊印進授使者，退復位。內侍進使者前，東向受冊印，西向授典內，退復位。典內持冊印入，立於閣外之東西向跪，置冊印於案俯伏興。奉衣服及侍衛者從入，皆立於典內之南，俱西向北上。傅姆贊嬪引出，立於庭中北向。掌書進跪取冊印興，進立於嬪前南向。掌嚴奉首飾及命服，與諸應侍衛者〔以〕次入，侍衛如常，典內還復位。司則前贊嬪四拜還侍位，嬪四拜。司則進掌書前北向跪，受冊印興，進嬪前南向授嬪，嬪跪受，以授司闈俯伏興。司則進前贊嬪四拜還侍位，嬪又四拜訖。掌筵設嬪座於堂中南向，司則前請嬪陸座還侍位，司闈引嬪陸座，宮官以下俱降，立於庭重行北向，以東爲上。贊者曰：“再拜。”宮官以下皆再拜訖，諸應侍衛者各陸，立於侍衛。司則前白禮畢，嬪降座，司闈引嬪入室。主人禮使者及使者復命，竝同納徵儀。告宗廟，有司以特牲告如

의장(儀仗)과 연(輦)이 앞서 가고, 책(冊)·인(印)·명복(命服)의 채여가 차례로 열을 지어서 광화문을 나간다. 사자와 부사가 말을 타고 가고, 종자들도 말을 타고 따른다.

빈(嬪)이 책(冊)을 받는 의식.

하루 전에 주인이 사자의 악차를 설치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관인(官人)의 악차를 사자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휘장으로 가리운다. 그날 봉례랑이 사자의 자리를 대문 밖의 동쪽에 설치하되, 서향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내시(內侍)의 자리를 사자의 남쪽에 설치하며, 책안(冊案) 및 인수(印綬)와 명복(命服)을 드는 자는 남쪽에 있게 하되, 약간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주인의 자리는 대문 밖의 서쪽에 동향하여 설치하며, 사자 이하 및 주인의 자리를 중문 밖에 설치하는 것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전내위(典內位)는 중문 밖에 설치하되, 주인의 남쪽에 동향으로 하고, 궁인(宮人)의 자리는 사자의 뒤에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하여 서향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휘장으로 가리운다. 찬자 2인의 자리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전내(典內)가 먼저 안(案) 하나를 합문 밖에 둔다. 시간이 가까이 되어, 사자와 부사가 조복(朝服) 차림으로 말을 타고 빈씨의 대문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면, 장차자(掌次者)가 맞이하여 악차로 들어가고, 궁인들도 각각 자리로 간다. 장엄(掌嚴)이 명복(命服)과 수식(首飾)을 받들고, 내구위(內廐位)가 연(輦)을 대문 밖의 길 동쪽에 놓되, 서향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여러 위(衛)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빈(嬪)의 의장(儀仗)을 벌여 놓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사자와 부사가 악차(輦次)에서 나오면, 알자가 사자 이하 및 궁인과 전내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로 나아가고, 빈자(嬪者)가 조복 차림을 한 주인을 인도하여 대문 밖의 서쪽으로 나와 맞이하되, 동향하여 맞이한다. 알자(謁者)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고, 안(案)을 가진 자 이하도 따른다. 주인은 문에 들어와서 왼쪽

常禮。【祝文，臨時撰。】臨軒醮戒，前二日，有司宣攝內外，各供其職。前一日，忠扈衛設王世子次於勤政門外道東，近北西向，又於東宮門外，設宮官次如式。奉禮郎設宮官位於門外如常，有司設殿下幄座於階上西向，設香爐二於座前如常，設王世子席位於西北南向，典樂展軒懸及舉麾位竝如常儀。其日，茶房設酒樽卓於東序下稍南，置盞一於卓上，又設饌卓【饌品三果。】於樽西。司僕陳輿輦及馬如常儀。晡前三刻，典儀設王世子拜位於殿庭道東近北，北向。設文官一品以下位於王世子拜位之後近南。宗室及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宗室，每品班頭別設位。大君，特設位於正一品之前。】監察二位於文武班後，北向。設判通禮典儀位於懸之東北；通贊一人在南差退，俱西向。通贊一人於懸之西北，東向。奉禮郎設宗室及文武群官門外位於弘禮門內如常儀。宮官依時刻俱集於次，各具朝服，仗衛陳設如常。鼓初嚴，兵曹勒諸衛陳儀仗如常儀。宗室及文武群官，俱集朝房，各

에 있다. 중문 밖에 이르면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책안과 인안을 받든 자가 부사 앞으로 나아가면, 부사가 책과 인을 받고, 안을 받든 자는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시는 사자 앞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책과 인을 받아 가지고, 서향하여 전내에게 주고 나서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전내는 책과 인을 가지고 들어와 함문 밖의 동쪽에 서향하여 선다. 그리고, 꿇어앉아서 책과 인을 안(案)에 두고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의복을 받든 자와 시위자도 따라 들어와서 모두 전내의 남쪽에 서되, 모두 서향하며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부모(傳姆)가 ‘빈(嬪)을 인도하여 나가라.’고 찬(贊)하여, 뜰 가운데에 북향하여 서면, 장서(掌書)가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책(冊)과 인(印)을 취하여 가지고 일어나서, 빈의 앞으로 나아가서 남향하여 선다. 장엄(掌嚴)이 수식(首飾)과 명복(命服)을 받들고 여러 시위(侍衛)할 사람들과 더불어 차례로 들어가서 시위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전내(典內)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사칙(司則)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은 사배하라.’고 찬(贊)하고 시위(侍位)로 돌아가면, 빈이 사배한다. 사칙이 장서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꿇어앉아 책과 인을 받아 가지고 일어나서, 빈의 앞으로 나아가서 남향하고 빈에게 주면, 빈이 꿇어앉아서 이를 받아 가지고 사규(司閨)에게 주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사칙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은 사배하라.’고 찬하고 시위(侍位)로 돌아가면, 빈이 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장연(掌筵)이 빈의 자리[座]를 당(堂) 한가운데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사칙이 빈의 앞으로 나아가서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고 시위로 돌아오면, 사규가 빈을 인도하여 자리에 오른다. 궁관 이하는 모두 내려와서 뜰에 서는데, 겹줄로 북향하고 동쪽을 위로 하여 선다. 찬자가 ‘채배하라.’ 하면, 궁관 이하가 모두 채배한다. 이를 마치면, 여러 시위(侍位)할 사람들은 각각 시위할 자리로 올라가서 선다. 사칙이 앞으로 나아가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면, 빈이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사규가 빈을 인도하여 방으로 들어간다. 주인이 사자에게 예(禮)하고, 사자가 복명(復命)하는 것

服朝服。左中護贊請中嚴，宮官各就位。右中護負印如式，侍衛之官，俱詣閣奉迎。鼓二嚴，宗室及文武群官，俱就門外位。左中護白外辦，王世子服朝服以出，左右侍衛如常儀，左中護引就勤政門外次坐。判通禮啓請中嚴，殿下出思政殿，服遠遊冠、絳紗袍，有司陳繖扇侍衛如常儀。近臣及執事官先行四拜禮如常儀。典樂師工人入就位，協律郎入就舉麾位。諸侍衛之官，各服其器服，尙瑞官奉寶俱詣閣奉迎。鼓三嚴，典儀率通贊先入就位。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以次入就位。僉知通禮白王世子出次西向立，【諸衛率左中護及近待者，量人從入。】判通禮啓外辦，中禁傳嚴，殿下乘輿以出，繖扇侍衛如常儀。殿下升座，爐烟升。尙瑞官奉寶置於座前【有案。】如常，典儀曰：“四拜。”通贊傳贊，宗室及文武群官皆鞠躬四拜興平身。僉知通禮引王世子入就拜位，北向立，【諸衛率左中護以下從入者，跪於王世子東南，西向北上。】典儀曰：“四拜。”通贊傳贊，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僉知通禮引王世子詣西階，升就

은 모두 납징의(納徵儀)와 같다.

종묘(宗廟)에 고하는 것은 유사가 특생(特牲)으로써 고하되, 상례(常禮)와 같이 한다. 【축문(祝文)은 임시(臨時)하여 짓는다.】 마루[軒]에 납시어 초계(醯戒)하는 것은, 2일 전에 유사(有司)가 내외 관원에게 섭행(攝行)하기를 알려서, 각각 그 직책에 이바지하게 한다. 하루 전에 충호위(忠扈衛)가 왕세자의 악차(輿次)를 근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서향하게 하고, 또 동궁(東宮) 문밖에 설치하며, 궁관(宮官)의 자리[次]를 의식대로 설치한다. 봉례랑이 궁관의 자리를 문밖에 보통 때와 같이 설치하고, 유사가 전하의 악좌(輿座)를 조계(阼階) 위에 서향하여 설치하며, 향로 둘을 <전하의> 자리 앞에 설치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하고, 왕세자의 자리[席位]를 서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전악(典樂)이 헌현(軒懸)과 거휘위(舉麾位)를 베풀기를 모두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날에 다방(茶房)이 주준(酒樽)의 탁자를 동서(東序) 아래에 약간 남쪽으로 설치하고, 잔(盞) 하나를 탁자 위에 놓아 둔다. 또 찬탁(饌卓)을 【찬품(饌品)은 세 가지 과일이다.】 주준(酒樽)의 서쪽에 설치한다. 사복(司僕)이 여연(輿輦)과 말[馬]을 늘어놓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포시(哺時) 2626) 3각(刻) 전에 전의(典儀)가 왕세자의 배위(拜位)를 전정(殿庭)의 길 동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문관 1품 이하의 자리를 왕세자 배위의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며, 종실과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해서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상대(相對)하여 머리[首]가 되게 한다. 【종실은 품등마다 반두(班頭)를 따로 하여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은 특별히 정1품의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감찰 2인의 자리는 문·무반(文武班) 뒤에 북향하여 있고, 판통례와 전의의 자리는 헌현(軒懸)의 동북쪽에 설치하고, 통찬 1인은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 있되, 모두 서향하며, 통찬 1인은 헌현(軒懸)의 서북쪽에 서향하여 있다. 봉례랑은 종실 및 문무 군관의 문밖 자리[門外位]를 홍례문 안에 보통

席西南向立, 茶房提舉酌酒於序, 進詣王世子西南東向立。王世子再拜, 升席南向跪, 摺笏受盞。提舉又薦饌卓於席前, 王世子祭酒興, 降席西南向跪啐酒, 提舉受虛盞, 復於卓上, 王世子出笏俯伏興再拜興平身, 提舉徹薦。兪知通禮引王世子進當殿下座前東向跪, 殿下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事, 勗率以敬。” 王世子曰: “臣某謹奉教旨。” 俯伏興四拜興平身。兪知通禮引王世子, 降自西階出門。初, 王世子將出, 典儀曰: “四拜。” 通贊傳贊, 宗室文武群官皆鞠躬四拜興平身。判通禮進當殿下座前跪啓禮畢, 俯伏興還本位。殿下降坐, 乘輿還內, 繖扇侍衛如來儀, 侍臣從至閣, 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 以次出。親迎, 前一日, 忠扈衛設王世子次於嬪氏大門之外道西, 南向。設侍衛宮官次於王世子次西南, 東向北上。有司設王世子奠雁位於廳事當中, 北向。其日哺前三刻, 司僕進輦於光化門外近東, 翊衛司勒所部仗衛陳設如常。王世子既受命, 出勤政門外, 右中護負印前導, 左右侍衛如常儀。左中護引王

때의 의식과 같이 설치한다. 궁관(宮官)은 시각에 의하여 모두 자리[次]에 모여서 각각 조복(朝服)을 갖추고, 장위(仗衛)의 진설(陳設)은 보통 때와 같다. 북이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兵曹)에서 여러 위(衛)로 하여금 의장(儀仗)을 베풀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종실 및 문무 군관이 모두 조방(朝房)에 모여서 각각 조복을 입는다. 좌중호(左中護)가 ‘중엄(中嚴)을 청한다.’고 찬(贊)하면, 궁관들이 각각 자리에 나아가고, 우중호(右中護)가 인(印)을 짚어 지기를 의식대로 한다. 시위(侍衛)의 관원이 모두 합문에 나아가서 봉영(奉迎)한다. 북이 이엄(二嚴)을 알리면, 종실 및 문무 군관이 모두 문밖 자리로 나아가고, 좌중호가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뢴다. 왕세자가 조복 차림으로 나오는데, 좌우의 시위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좌중호가 인도하여 근정문 밖의 악차로 나아가서 앉게 한다. 판통례가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사정전에 나오는데, 원유관(遠遊冠)에 강사포(絳紗袍) 차림을 하고, 유사(유사)가 산선(繖扇)의 시위를 베풀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과 집사관이 먼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물랑이 들어와서 거휘위로 나아가며, 여러 시위관(侍衛官)이 각각 기구와 복색을 갖추다. 상서관이 보(寶)를 받들면, 모두 합문에 나아가서 받들어 맞이한다. 북이 삼엄(三嚴)을 알리면, 전의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실 및 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첨지 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에게 ‘악차에 나와 서향하여 서라.’고 아뢴다. 【여러 위술(衛率)과 좌중호 및 근시자가 적당히 따라 들어간다.】 판통례가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면, 중금(中禁)이 전엄(傳嚴)한다. 전하가 여(輿)를 타고 나오는데, 산선의 시위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자리[座]에 오르고, 향로에 연기가 오르면, 상서관이 보(寶)를 받들어 자리 앞에 두기를 【안(案)이 있다.】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전의가 ‘사

世子出光化門外，王世子升輦，陪乘宮官上馬訖，王世子輦動執燭。【十八柄。】輦前侍從如常。王世子輦至嬪氏大門外次前，左中護進當輦前跪請降輦，俯伏興還侍位，王世子降輦之次。輦將至，主人告于家廟，如納采儀。【祝版前同，但云：“某之第幾女某嬪，若某親之第幾女某嬪，將行今日，歸于東宮，不勝感愴，謹以。”後同。】訖，以卓設酒壺盞於堂上。嬪服命服加首飾，司則前引以出。父公服坐於堂之東方，西向。母衣禮衣，坐西方東向。設嬪席於母之東，北向。嬪立於席西，南向。執事者取盞斟酒，詣嬪席前，嬪再拜升席南向跪，受盞祭酒興，就席末跪啐酒，授執事者，又再拜。左中護詣王世子次，跪請出次，王世子出次。左中護引立於大門外之西東向，侍衛如常。僕者引主人出迎於大門外之東西向，掌畜者以雁授左中護，左中護進東西向奉授王世子。既執雁，入門而左，主人入門而右，揖讓先入，侍衛者量人侍從。及中門，主人升立於阼階上西向，王世子升自西階，就位北向跪奠雁，主人侍者受之，

배하라.’ 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찬(贊)하여, 종실 및 문무 군관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해서 들어와서 배위(拜位)로 나아가 북향하고 선다. 【여러 위술과 좌중호 이하로서 따라 들어간 자는 왕세자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꿇어앉되, 북쪽을 위로한다.】 전의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찬하여, 왕세자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나아가서, 올라가 자리[席]에 나아가 서남향하고 서계 하면, 다방 제거(茶房提舉)가 서(序)에서 술을 따라 가지고 왕세자 앞으로 나아가서 서남쪽에 동향하고 서면, 왕세자가 재배하고 자리로 올라가서 남향하고 꿇어앉아, 홀(笏)을 쫓고 잔(盞)을 받는다. 제거가 또 찬탁(饌卓)을 들어서 자리 앞에 놓으면, 왕세자가 술을 지우고 일어나서 자리에서 내려와 서남향으로 꿇어앉아서 술을 마신다. 제거가 빈 잔을 받아서 탁자 위에 다시 놓는다. 왕세자가 홀을 꺼내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제거가 탁자를 걷어 치운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전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동향하고 꿇어앉는다. 전하가 명하기를, ‘가서 너의 배필을 맞이하여, 우리 종사(宗事)를 받들어서 공경으로 힘써 거느리라.’ 하면, 왕세자가 말하기를, ‘신(臣) 아무는 삼가 교지(教旨)를 받들겠습니다.’ 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내려와서 문을 나간다. 처음 왕세자가 나가려고 하면, 전의가 ‘사배하라.’ 한다. 통찬이 이를 받아 찬하여, 종실과 문무 군관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례가 전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예가 끝났다.’ 고 아뢰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여(輿)를 타고 췌내로 돌아가는데, 산선의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신(侍臣)은 함문까지 따라가고, 봉례랑은 종실 및 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王世子俯伏興再拜，主人不答拜。王世子降出，主人不降送。內廐尉進輦於中門外，傅姆導嬪，司則前引於母左，傅姆在左，保姆在右。【執燭及侍從如式。】父小進西向戒之：“必有正焉，若衣若笄。”命之曰：“敬之戒之，夙夜無違命。”母戒於西階上，施衿結帨，命之曰：“勉之敬之，夙夜無違。”庶母及門內施鞶，申之以父母之命，命之曰：“敬恭聽，宗爾父母之言，夙夜無愆，視諸衿鞶。”嬪既出中門至輦後，王世子舉簾以俟，姆辭曰：“未教，不足與爲禮。”嬪升輦，姆加景，【景之制，蓋如明衣，加之以爲行道禦塵，令衣鮮明也。】王世子出大門升輦還宮，侍衛如來儀，嬪仗次於後。主人使其屬送嬪，以儻從。同牢，其日，司閨設嬪次於東閣內道東，南向，掌筵鋪褥席。將夕，司閨設同牢之席於室內，王世子之席東廂西向，嬪西廂東向，席間量容牢饌。典膳者設饌卓【饌品三注。】於西牖下，設酒樽卓於正中，稍南。置兩盞盞於桌上。又南北設二盥洗於室東隅，又設酒壺盞於室外或別室，以飲從者。王世子輦至，

친영(親迎).

하루 전에 충호위가 왕세자의 악차를 빈씨의 대문 밖의 길 서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시위 궁관(侍衛宮官)의 자리[次]를 왕세자의 악차 서남쪽에 동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하며, 유사가 왕세자의 전안위(奠雁位)2627)를 청사(廳事) 한가운데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그날 포시(哺時) 3각(刻) 전에 사복(司僕)이 연(輦)을 광화문 밖에 동쪽으로 가까이 베풀어 놓고, 익위사(翊衛司)에서 부소(部所)로 하여금 장위(仗衛)의 진설(陳設)을 보통 때와 같이 하게 한다. 왕세자가 이미 명령을 받고 근정문 밖으로 나오면, 우중호(右中護)가 인(印)을 짊어지고 앞에서 인도하는데, 좌우의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좌중호(左中護)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광화문 밖을 나오면, 왕세자는 연을 타고, 배승 궁관(陪乘宮官)2628)은 말을 탄다. 이를 마치면, 왕세자의 연이 움직이는데, 촛불을 【18자루.】 잡고 연 앞에서 시종(侍從)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왕세자의 연이 빈씨의 대문 밖 악차 앞에 이르면, 좌중호가 연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연에서 내리기를 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시위(侍位)로 돌아온다. 왕세자가 연에서 내리면, 다음 연이 장차 이르게 된다. 주인이 가묘에 고하는 것은 납채의와 같이 한다. 【축관은 전과 같은데, 다만 ‘아무의 몇째 딸 아무 빈, 혹은 모친(某親)의 몇째 딸 아무 빈이, 장차 오늘 동궁(東宮)으로 돌아가게 되어 감창(感槍)함을 이길 수 없어 삼가…….’라 이르고, 아래는 모두 같다.】 이를 마치면, 탁자에 술병과 술잔을 당상(堂上)에 설치하여 놓고, 빈(嬪)이 명복(命服)을 입고 수식(首飾)을 가(加)한다. 사칙(司則)이 앞에서 인도하여 나오고, 부친은 공복(公服) 차림으로 마루[堂] 동방(東方)에 서향하여 앉고, 모친은 예복(禮服)을 입고 서방(西方)에 동향하여 앉으며, 빈의 자리는 모친의 동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빈이 자리의 서쪽에 남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잔(盞)을 취하여 술을 따라 가지고 빈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면, 빈이 두 번 절하고 나서 자리로 올라가서 남향하고 꿇어앉아,

侍臣下馬所權停，宮官皆下馬。輦至光化門東偏門，左中護進當輦前跪請降輦，俯伏興還侍位。王世子降輦，入俟於內殿門外之東西向，侍衛如常儀。中護以下皆退。嬪至宮門，仗衛停於門外，近侍者侍從如常。入至左閣外，司則進當輦前跪請嬪降輦，掌筵前後執燭如常儀。嬪降輦就次整飾，司闈引嬪詣內殿門外之西東向，王世子揖嬪以入。司闈前升自西階，嬪後升，執燭者陳於東西階內。王世子及嬪俱入室，王世子盥於南洗，嬪盥於北洗。掌筵設席於東西相對，王世子揖嬪卽席西向立，嬪卽席東向立，司則前跪請再拜，嬪再拜，王世子答再拜，揖嬪就座。司饌進詣階間北向跪，請具牢饌興。司饌帥其屬升，奉饌卓入設於王世子及嬪座前，司饌二人詣酒樽卓，以盞酌酒，一人進授于王世子，一人進授于嬪，王世子及嬪，俱受盞祭酒，司饌各進饌、俱飲，司則俱進受虛盞，復於卓上。司饌又俱以盞酌酒再醑，王世子及嬪俱受盞俱飲，司則進受虛盞，復於卓上。三醑用卺如再醑禮。司饌北向跪，白牢饌畢，司饌徹饌卓。司則

잔을 받아서 술을 지우고 일어나서, 자리 끝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술을 마시고 〈잔을〉 집사자에게 주고, 또 두 번 절한다. 좌중호가 왕세자의 악차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악차에서 나오기를 청하면, 왕세자가 악차에서 나온다. 좌중호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대문 밖의 서쪽에 동향하여 서게 하는데, 시위는 보통 때와 같이 한다. 빈자(嬪者)가 주인을 인도하여 나와 대문 밖의 동쪽에서 서향하여 맞이한다. 장축자(掌畜者)가 기러기를 좌중호에게 주면, 좌중호가 동쪽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왕세자에게〉 준다. 왕세자가 이미 기러기를 잡고 문에 들어와서 왼쪽에 있고, 주인은 문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다. 〈주인이〉 읍양(揖讓)하고 먼저 들어가는데, 시위자(侍衛者)는 사람을 헤아려서 시종(侍從)한다. 중문(中門)에 이르러서 주인이 조계(阼階) 위로 올라가서 서향하여 서고, 왕세자는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고 꿇어앉아 기러기를 드리면, 주인의 시자(侍者)가 이를 받고, 왕세자는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재배하며, 주인은 답배(答拜)하지 아니한다. 왕세자는 내려와서 나가고 주인은 내려오지 아니하고 내구위(內廐尉)를 보내서 연(輦)을 중문 밖에 갖다 놓게 한다. 부모(傅姆)가 빈을 인도하고, 사칙은 모친의 왼쪽에서 앞에서 인도하는데, 부모는 왼쪽에 있고, 보모(保姆)는 오른쪽에 있다. 【촛불을 잡는 것과 시종하는 것을 의식대로 한다.】 부친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서향하고 경계하기를, ‘반드시 바르게 할 것이 있나니 의복과 비녀[笄]이다.’ 하고, 명하기를, ‘공경하고 경계하여 밤낮으로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하고, 모친에게 명하여 서계(西階) 위에서 경계하기를, ‘옷깃을 바꾸고 매무시를 잘 하라.’ 하고, 명하기를, ‘힘쓰고 공경하여 밤낮으로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한다. 서모(庶母)가 문안에 이르러 옷매무시를 하여 주면서 부모의 명령을 당부하며 명하기를, ‘공경히 네 부모의 말씀을 들어서 밤낮으로 허물이 없도록 하라.’ 하고, 옷매무시를 살핀다. 빈이 이미 중문을 나가서 연(輦) 뒤에 이르면, 왕세자가 연의 발[簾]을 들고 기다린다. 모(姆)가 겸사(謙辭)하여

前跪請邸下入，俯伏興還侍位，王世子入於東方，釋朝服。司則請嬪入幃幄，王世子及嬪俱入室。媵餽王世子之饌，御餽嬪之饌。嬪朝見，其日晝漏上水一刻，有司設殿下座於內殿東壁，西向。王妃座於西壁，東向。尚食設體樽卓於東壁下稍南，置盞一於卓上，又設饌卓【饌品三果。】於樽北。其日，嬪夙興，司則跪請嬪內殿。質明，諸衛率其屬陳布儀仗如常儀，內廐尉進輦於正寢西階之前，南向。司則白外辦，嬪服命服加首飾以出，降自西階升輦，侍衛如常。至降輦所，司則進當輦前，跪請嬪降輦，司閤引嬪，仗儀停於閤外，侍從如常。嬪至寢門外，立於西廂東向，近臣啓請中殿，尚儀啓請中宮內殿。嬪既至寢門，近臣跪啓外辦，殿下服遠遊冠、絳紗袍以出陞座，侍衛如常儀。尚儀又啓中宮外辦，王妃翟衣首飾。司言引尚宮，尚宮引王妃出陞座，侍從如常。司賓引嬪入，立於阼階下北向，司則贊四拜，嬪四拜。司饌以棗栗盤授嬪，嬪受，司賓引嬪陞自西階，進殿下座前東向立。尚食奉卓置於殿下座前，嬪跪奠盤於卓上，殿

말하기를, ‘가르침이 없어 더불어 예(禮)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다. 빈이 연에 오르면, 모(姆)가 경(景)을 더한다. 【경(景)의 제도는 대개 명의(明衣)와 같은 것인데, 이를 더하여 길을 가는 데에 먼지를 막아, 옷을 선명(鮮明)하게 한다.】 왕세자가 대문을 나와 연을 타고 환궁하는데, 시위는 올 때의 의식처럼 한다. 빈의 의장이 뒤에 따른다. 주인은 소속을 보내어 빈을 따라가게 하여, 빈과 동뢰(同牢)에 따르게 한다.

동뢰(同牢).

그날 사규가 빈의 악차를 동합(東閣) 안의 길 동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장연(掌筵)이 욱석(褥席)을 베풀어 놓는다. 저녁이 될 무렵에, 사규가 동뢰의 자리를 방안에 설치하는데, 왕세자의 자리는 동상(東廂)에 서향하게 하고, 빈의 자리는 서상(西廂)에 동향하게 하며, 자리 사이에 너찬(牢饌)을 놓을 만하게 해야려 둔다. 전선자(典膳者)가 찬탁(饌卓)을 【찬품(饌品)은 세 가지이다.】 서쪽 바라치[牖] 아래에 설치하고, 주준탁(酒樽卓)을 한가운데에 약간 남쪽으로 설치하며, 두 개의 잔·근(盞罇)을 탁자 위에 놓아 둔다. 또 남쪽과 북쪽에 두 개의 관세(盥洗)를 설치하되, 실내의 동쪽 모퉁이에 설치하고, 또 술병과 잔을 실외(室外)에 설치하거나, 혹은 별실(別室)에 설치하여, 종자(從者)들이 먹게 한다. 왕세자의 연(輦)이 이르면, 시신(侍臣)은 하마소(下馬所)에서 임시 정지하고, 궁관(宮官)이 모두 말에서 내린다. 연이 광화문의 동편문(東偏門)에 이르면, 좌중호가 연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연에서 내리기를 청하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나 시위(侍位)로 돌아온다. 왕세자가 연에서 내려 들어와서 내전(內殿) 문밖의 동쪽에서 서향하고 기다리고,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중호(中護) 이하는 모두 물러 간다. 빈이 궁문(宮門)에 이르면, 장위(仗衛)는 문밖에 정지하고, 근시자(近侍者)의 시종은 보통 때와 같이 한다. 들어와서 왼쪽 함문 밖에 이르면, 사칙(司則)이 연의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빈이 연에서 내리기를 청하고, 장연(掌筵)이 앞뒤에서 촛불을 잡기를 보

下撫之，尚食進徹以東，司賓引嬪降復位。司則贊四拜，嬪四拜，司賓引嬪詣西階下北向立，司則贊四拜，嬪四拜。司贊以服脩盤授嬪，嬪受，司賓引嬪升進王妃座前，西向立，尚食奉卓置於王妃座前，嬪跪奠盤於卓上，王妃撫之，尚食盡撤以東，司賓引嬪降復位，司則贊四拜，嬪四拜。司設設嬪席於王妃座之東北，南向，司賓引嬪升就席西，南向立，尚食以盞酌醴，進詣嬪西南東向立，嬪再拜升席，南向跪受盞。尚食薦饌卓於席前，嬪祭醴興，降席西南向跪啐醴，尚食受虛盞，復於卓上。嬪俯伏興再拜，尚食徹薦。司賓引嬪降自西階，出閣升輦還宮，侍從如來儀。

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빈이 연에서 내려서 자리로 나아가 옷매무시를 정제[整飾]히 하고, 사규가 빈을 인도하여 내전(內殿) 문밖의 서쪽으로 가서 동향하면, 왕세자가 빈에게 읍(揖)하고 들어간다. 사규가 앞서 서계(西階)로 오르고, 빈이 뒤에 오르는데, 촛불을 잡은 자는 동계(東階)와 서계(西階) 안에 늘어서 있다. 왕세자와 빈이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왕세자는 남쪽에서 관세(盥洗)하고, 빈은 북쪽에서 관세한다. 장연이 자리를 동쪽과 서쪽에 상대(相對)하여 설치하면, 왕세자는 빈에게 읍(揖)하고 자리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빈은 자리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선다. 사칙이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재배하기를 청하면, 빈이 재배하고, 왕세자는 답하여 재배하고 나서, 빈에게 읍하고 자리[座]에 앉는다. 사찬(司饌)이 계간(階間)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뇌찬(牢饌)을 갖추기를 청하고 나서 일어나면, 사찬이 소속을 거느리고 올라와서 찬탁을 받들고 들어와 왕세자와 빈의 앞에 설치한다. 사찬 2인이 주준탁 앞으로 나아가서 잔에 술을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은 왕세자에게 올리고, 한 사람은 빈에게 올린다. 왕세자와 빈이 함께 잔을 받아서 술을 지우며, 사찬이 각각 찬을 올리면, 함께 마신다. 사칙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서 빈 잔을 받아 가지고 다시 탁자 위에 둔다. 사찬이 또 함께 잔에 술을 따라서 다시 드리면, 왕세자와 빈이 함께 잔을 받아서 마시고, 사칙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 잔을 받아서 탁자 위에 도로 둔다. 세 번째 잔은 근(醕)을 사용하되, 두째 번과 같이 한다. 사찬이 북향하여 꿇어앉아 뇌찬(牢饌)을 마쳤다고 아뢰면, 사찬이 찬탁을 걷어 치운다. 사칙이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저하(邸下)로 들어가기를 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시위(侍位)로 돌아온다. 왕세자는 들어가서 동방(東方)에서 조복(朝服)을 벗고, 사칙은 빈이 위악(幃幄)으로 들어가기를 청하여, 왕세자와 빈이 함께 실내(室內)로 들어가면, 잉시(媵侍)2629) 들은 왕세자의 퇴물을 먹고, 어인(御人)2630) 들은 빈의 퇴물을 먹는다.

빈의 조현(朝見).

그날 주루(晝漏)의 물이 1각(刻)에 오르면, 유사가 전하의 자리[座]를 내전(內殿)의 동벽(東壁)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왕비의 자리를 서벽에 동향하여 설치하며, 상식(尙食)이 예준(醴樽)의 탁자를 동벽 아래에 약간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여, 잔 하나를 탁자 위에 두고, 또 찬탁(饌卓)을 【찬품은 세 가지 과일이다.】 예준의 북쪽에 설치한다. 그날 빈이 일찍 일어나면, 사칙이 꿇어앉아 빈에게 내엄(內嚴)을 청한다. 날이 밝을 무렵[質明]에 여러 위(衛)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의장을 베풀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내구위(內廐尉)가 연(輦)을 정침(正寢)의 서계(西階) 앞에 남향으로 놓으면, 사칙이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뢴다. 빈이 명복(命服)을 입고 수식(首飾)을 가하고 나와서 서계로 내려와 연에 오르는데, 시위는 보통 때와 같이 한다. 강연소(降輦所)2631) 에 이르면, 사칙이 연의 앞으로 나가서 꿇어앉아, 빈이 연에서 내리기를 청한다. 사규가 빈을 인도하는데, 의장은 함문 밖에서 정지한다. 시중은 보통 때와 같이 한다. 빈이 침문(寢門) 밖에 이르러서 서상(西相)에 동향하여 서면, 근신이 중엄(中嚴)을 계청하고, 상의(尙儀)가 중궁(中宮)의 내엄(內嚴)을 계청한다. 빈이 이미 침문에 이르면, 근신이 꿇어앉아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뢴다. 전하가 원유관에 강사포 차림으로 나와서 자리에 오르고,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상의(尙儀)가 또 중궁(中宮)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면, 왕비가 적의(翟衣)에 수식(首飾)을 한다. 사언(司言)이 상궁(尙宮)을 인도하고,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나와서 자리에 오른다. 시중은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사빈(司賓)이 빈(嬪)을 인도하고 들어와서 조계(階階) 아래에 북향하여 서면, 사칙이 ‘사배하라.’ 찬하여, 빈이 사배한다. 사찬(司饌)이 대추와 밤이 담긴 반(盤)을 빈에게 주면, 빈이 이를 받는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와 전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면, 상식(尙食)이 탁자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두고, 빈이 꿇어앉아서 반(盤)을 탁자 위에

	<p>드리면, 전하가 이를 어루만진다. 상식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를 걷어서 동쪽으로 치운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가면, 사칙이 ‘사배하라.’ 찬하여, 빈이 사배한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계 아래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면, 사칙이 ‘사배하라.’고 찬하여, 빈이 사배한다. 사찬(司贊)이 단수(殿脩)2632) 를 담은 반(盤)을 빈에게 주면, 빈이 이를 받는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올라가 왕비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상식이 탁자를 받들어 왕비의 자리 앞에 두고, 빈이 꿇어앉아서 반(盤)을 탁자 위에 드리면, 왕비가 이를 어루만진다. 상식이 모두 걷어서 동쪽으로 치우면,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사칙이 ‘사배하라.’ 찬하여, 빈이 사배하고 나면, 사설(司說)이 빈의 자리를 왕비 자리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올라가 자리의 서쪽으로 나아가서 남향하여 선다. 상식이 잔(盞)에 예주(醴酒)를 따라 빈의 서남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면, 빈이 재배하고 나서 자리로 올라가 남향하여 꿇어앉아 잔을 받는다. 상식이 찬탁(饌卓)을 자리 앞에 올리면, 빈이 예주(醴酒)를 지우고 일어나서, 자리에서 내려와 서남향하고 꿇어앉아 예주를 마신다. 상식이 빈 잔을 받아서 도로 탁자 위에 놓고, 빈은 부복하였다 일어나 재배한다. 상식이 찬품을 걸어 치운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계로 내려와서 합문을 나와, 연을 타고 환궁(還宮)한다. 시종(侍從)은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p>	
<p>14. 世宗 73卷, 18年 (1436 丙辰 / 명 정통 (正統) 1年) 閏6月 7日(辛未) 2번째기사 한재로 인해 술과 주선을 감하게 하다</p>	<p>임금이 약(藥)으로 먹으려고 술을 올리라 명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지금 천기가 순조롭지 못한 때에, 여러 달을 경과하도록 술을 올리지 못하게 하시와 병이 나실까 두렵사오니, 이제부터 아침마다 술을 드시어 성후(聖候)의 조화를 기하옵시기 원하옵니다. 또 예로부터 제왕이 가뭄을 우려하여 감선(減膳)하였다 하옵는데, 그 감선한다는 것은 시선(時膳)을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오라 그 품수(品數)를 감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미 각도로 하여금 모든 선(膳)을 진상하지 말도록 하셨사오니 주선(晝膳)2643) 과 같은 것은 때에 진</p>	<p>上以服藥命進酒，承政院啓曰：“今天氣不順之時，累經旬朔，不令進酒，恐致違和。願自今每朝進酒，以調聖候。且自古帝王憂旱減膳，所謂減膳，非謂不進時膳，減其品數也。方今既令各道勿進諸膳，至如晝膳，乃時食，宜令復進。”上曰：“若有氣體不調，</p>

	<p>어(進御)하옵시는 음식[時食]이오니 의당 다시 올리도록 하셔야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기운이 좋지 않다면 마땅히 술을 올리게 하여 조화시켜 자보(自保)할 것이지, 어찌 경들의 청을 기다리겠는가. 다만 지금 질병이 없는데 이 극한(極旱)을 당하여 어찌 감히 술을 올리게 하겠는가. 또 내가 하룻 동안에 선(膳)을 올려 받는 것이 네 차례나 되니 이것만 해도 족한 것이다. 내 어찌 요량하지 않고 주선(晝膳)을 감하라 명하였겠는가.” 하였다.</p>	<p>則當進酒調保，何待卿等之請？但時無病恙，當此旱極，何敢進酒？且予嘗於一日之內，進膳者四，是亦足矣，予豈不量而命減晝膳哉？”</p>
출처	내용	원문
<p>1. 세종 76권, 19년 (1437 정사 / 명 정통(正統) 2년) 1월 10일 (경자) 3번째기사 충청도 감사에게 진휼에 힘쓸 것을 명하다</p>	<p>충청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도내에 주린 백성으로서 부황[浮腫]이 나서 사망하는 자가 많다는 말을 연속하여 듣고, 내가 몹시 두려워하여 경차관(敬差官)을 보내니, 경은 경차관과 더불어 마음을 다해서 조치하여 굶어 죽는 것을 면하게 하고, 앞서 수운(輸運)하여 간 쌀 30만 석이 만일 진휼(賑恤)하기에 부족하거든, 경차관과 함께 의논하여 다시 아뢰면, 장차 가까운 북쪽 각 고을에 경중(京中)의 쌀을 수운하여 주려고 한다.” 하였다.</p>	<p>傳旨忠清道監司： 連聞道內飢民浮腫，多致死亡者，予甚懼焉，發遣敬差官。卿與敬差官盡心布置，俾免餓死。前所轉米三十萬石，若不足賑恤，則與敬差官同議更啓，將欲於近北各官，輸京中米以給之。</p>
<p>2. 세종 76권, 19년 (1437 정사 / 명 정통(正統) 2년) 1월 14일 (갑진) 3번째기사 군자감의 쌀·콩 등을 충청도에 보내다</p>	<p>군자감의 묵은 쌀·콩 합하여 1만 석과 유후사(留後司)의 묵은 쌀 1만 석을 충청도의 북쪽에 가까운 각 고을로 조운(漕運)하였다.</p>	<p>漕運軍資監陳米豆共一萬石及留後司陳米一萬石于忠清道近北各官。</p>
<p>3. 세종 77권, 19년 (1437 정사 / 명 정통(正統) 2년) 4월 20일</p>	<p>찬성 신개(申概)·중추원 사 정흠지(鄭欽之)·호조 판서 심도원(沈道源) 등을 불러 논의하기를, “소금을 굽는 일은 내가 그 요령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여야 백성에게 편</p>	<p>召贊成申概、中樞院事鄭欽之、戶曹判書沈道源議曰：“煮鹽之事，予未得其要，何如而可以便於民益於公乎？此</p>

<p>(기묘) 6번째기사 어염 문제에 관하여 신개 등에게 논의하게 하다</p>	<p>리하고 국가에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법을 논의해 정하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되, 헌부에서는 중지하기를 청하였으나, 그러나 만약에 그 요령을 얻어 마음으로 결정하였다면 비록 말하는 이가 있을지라도 내 동요(動搖)하지 않겠지만, 논의하기를 이미 오래하였는데도 그 요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이 법을 행하기 어렵다고 여기노라. 이제 경들이 또 이르기를, ‘관에서 소금을 구우면 모름지기 사사로이 굽는 소금을 금해야 관의 소금을 백성에게 널리 펼 수 있고 국가에도 수입이 많을 것인데, 사사로이 굽는 자가 많다면 하필 관의 소금을 구하리오.’ 하고, 또 이르기를, ‘소금을 굽는 일은 마땅히 소금 굽는 집[鹽漢戶]으로써 그 일을 주장하게 하되, 선군(船軍)과 공천(公賤)은 그 일을 돕게 함이 어떠냐.’고 하니, 나도 생각하기를, 사사로이 굽는 소금을 금하고 관에서 그 이익을 오로지하면 재물을 취하는 데 가까우니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비록 하는 수 없이 금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멈추었다가 소금 굽기를 일으킨 뒤에 금함이 가할 듯하고, 또 선군을 사역하여 소금 굽는다는 것도 마침내 폐단이 없을런지 내가 심히 이를 어려워하노니, 경들은 그것을 익숙하게 논의하여, 백성에게 편리하고 국가에 이익됨이 있으며, 소금을 도매하여 재물을 취한다는 비난이 없게 하라.”</p> <p>하니, 신개 등이 논의하기를, “소금을 도매하는 법은 예전에 고상한 언론을 좋아하는 자가 반드시 먼저 비난하였으나, 공염(公鹽)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마는 만일 공염을 굽는다면 사염을 마땅히 금할 것이며, 또 염한의 이름을 바꾸어서 염군이라 일컫고, 양인으로서 공이 있는 자에게 그 벼슬을 상주고, 또 염조(鹽竈)를 주어 그 사(私)를 편리하게 하면 거의 스스로 권하여질 것입니다.”</p> <p>하였다.</p>	<p>法未畢議定，而憲府請止之，然若得其要而已定於心，則雖有言之者，吾不動搖矣。但議之已久，而未知其要，故予亦以爲此法難行。今卿等又謂：‘官爲煮鹽，則須禁私鹽，庶可以廣布官鹽於民，而公家所收多矣。私煮者多，則民何必求鹽於公乎？’又謂：‘煮鹽當以鹽漢戶主其事，而船軍、公賤助其役。’此又何如？予以謂禁私鹽而官專其利，乃近於理財，非美事也。雖不得已禁之，姑停之，以待興於煮鹽，然後禁之，庶可矣。又役船軍煮鹽，其終無弊乎？予甚難之，卿等其熟議，使有便民利國之益，而無推鹽理財之譏。”</p> <p>概等議云：“推鹽之法，古之好高論者必先焉。然不爲公鹽則已，如煮公鹽則當禁私鹽。又改鹽漢之號，稱鹽軍，以良之有功者賞其職。且給鹽竈，以便其私，庶可自勸矣。”</p>
<p>4. 세종 77권, 19년 (1437 정사 / 명 정통</p>	<p>(전략) 그옥이 생각하건대, 상부(常賦)2737) 외에 자산으로 이용할 만한 것은 어염과 같은 것이 없으니, 어염은 농사일의 다음이라고 하나 농사일은 1년을</p>	<p>(전략) 竊思常賦之外，可以資用者，無如魚鹽，魚鹽亞於農務。農務有終</p>

(正統) 2년) 5월 1일
(경인) 3번째기사
경차관을 보내어 어염
에 관해 조사하게 하
다

마치도록 수고로움이 있고, 거둬 부역에 괴로워하나 어염은 많은 시일과 재력을 허비하지 아니하여, 공력은 적고 이익은 많은데, 적은 세가 있는 외에는 다른 부역이 없기 때문에, 놀고 게으른 못된 무리들이 다투어 그 이익을 취합니다. 지금 바닷가에 있는 여러 도에 모두 어염의 이익이 있으나, 오직 원래 정한 염한(監漢)과 노는 무리들뿐이기 때문에, 바다가 둘러 있는 소금 만들기에 적당한 땅을 비우고 폐해 버린 것이 심히 많아서, 땅에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어량(漁梁)·수량(水梁)에는 함길도와 강원도의 대구어(大口魚)·연어(鱣魚)·방어(魴魚), 경상도의 대구어·청어(靑魚), 전라도의 조기[石首魚]·청어, 충청도의 청어·잡어(雜魚), 경기의 잡어·밴댕이[蘇魚], 황해도의 잡어·청어, 평안도의 조기·잡어 등은, 이것이 그 지방에서 생산하는 가장 많은 것이고, 또 다른 해산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또한 많으니, 지금 보면 백성들이 농사를 버리고 바다에 이익을 취하는 자가 날마다 많으니, 만약 금하고 억제하지 않으면 장차 말리(末利)2738) 를 좇는 자가 많고 근본을 힘쓰는 자가 적을 것이니, 원컨대, 청렴하고 삼가고 일에 근심한 수령을 골라서 경차관으로 삼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서 소금 만들기에 적당하고 고기 잡기에 적당한 곳을 살피고 실험하게 하여, 예전에 만든 염소(鹽所)가 몇 곳, 새로 얻은 염소가 몇 곳, 예전에 만든 어수량이 몇 곳, 새로 얻은 어량·수량이 몇 곳인지 그 경계와 지역을 구획(區劃)하고, 또 한 염소에 몇 사람을 쓰는 것과 쓰는 기구(器具)가 무엇무엇이며, 한 어량과 한 수량에 각각 쓰는 사람이 몇 명이고, 소용되는 기구가 무슨 물건인지를 갖추어 아뢰게 하며, 인하여 원래 정한 염한·협정(挾丁) 및 각사의 공노비(貢奴婢)와 근방 각 고을의 노자, 바닷가에 사는 백성으로 각색 군호에 숨고 빠진 남은 장정과, 범죄한 도역(徒役) 등의 각항 사람을 추쇄하여 적당하게 어량과 염소에 붙이되, 번을 나누어 사역시키고, 그 소출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과액(課額)2739) 을 정하며, 진상할 어물(魚物) 및 사재감(司宰監)에 바치는 물건 외에는 수를 갖추어 계문하

歲之勞，而重困於賦役，魚鹽則不曠日月，不費財力，功省而利多，唯薄稅之外，無他賦役，故遊懶末作之徒，爭逐其利。今濱海諸道，俱有魚鹽之利，唯元定鹽漢與遊手之徒耳。故環海宜鹽之地，閑曠廢捐者甚多，而地有遺利矣。漁水梁則咸吉、江原之大口魚·鱣魚·魴魚、慶尙之大口魚·靑魚、全羅之石首魚·靑魚、忠淸之靑魚·雜魚、京畿之雜魚·蘇魚、黃海之雜魚·靑魚、平安之石首魚·雜魚，此其產之最多者也，而又他海產，取利亦多。今觀人民舍農業而逐水利者日衆，若不禁抑，則將恐逐末者多，而務本者小矣。願擇廉謹幹事者爲敬差官，分遣諸道，審驗宜鹽宜漁之地，舊作鹽所幾處、新得鹽所幾處、舊作漁水梁幾處、新得漁水梁幾處，而區畫界域。又度其一鹽所用人幾名、所用之器某某物、一漁梁一水梁各用人幾名、所用之器某某物，開具啓聞，仍令推刷元定鹽漢挾丁與各司貢奴婢、旁近各官奴子、沿海居民、各色軍戶隱漏餘丁、犯罪徒役等項之人，量屬魚鹽，分番役使，隨其所出多寡，定其課額，進

여 국용(國用)에 자뢰(資賴)하게 하되, 만약 인력이 부족하면 어량·수량에는 관가의 힘으로 반드시 다할 것이 아니고, 관가에서 함해 쓰는 어량을 제외하고는, 원래 영업하던 사람에게 제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여 그 세만 거두고, 경차관은 그 어염에서 나오는 물건을 공정한 수량을 골라 맡겨서 백성에게 나누어 팔게 하되, 그 값은 미곡·포화(布貨)를 불구하고 시가(時價)에 비해 넉넉하게 주며, 뱃길이 통하는 곳은 운반하여 전매(轉賣)하되 거둔 미곡은 의창에 돌리고 포화는 국용으로 들이면, 흉년의 준비와 군국 비용을 거의 넉넉하게 할 것이고, 말리를 따르는 자도 그칠 것입니다.

또 국가의 제도를 생각하면, 간척(干尺)이라 일컫는 자는 모두 보충군에 붙여 벼슬길에 통하게 하였으되, 유독 엄한만 빠뜨린 것은 사체(事體)에 어긋남이 있으니, 원컨대, 모두 보충군으로 개칭하고 그 속역(屬役)한 연월을 상고하여, 그 연월이 많은 자를, 한 도마다 혹 4, 5명, 혹 2, 3명씩 그 사람의 다소에 따라서, 다른 간척 보충군의 예에 의하여 벼슬을 주고, 일은 예전대로 시키며, 그 중에 땅이 없는 자는 관에서 한전(閑田)을 주어 부역을 전혀 없애고 그 생활을 후하게 하며, 더욱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는 그 어염으로써 요(料)반(半)을 주든가, 혹은 봄과 가을 두 철에 관염의 액수를 맞춘 뒤에 사사로이 굽는 것을 허락하여 직업을 잃지 말게 할 것입니다. 또 사염은 이익을 얻음이 심히 많은데, 부역이 전혀 없고 그 세도 너무 가벼우니, 이 뒤로는 1분마다 춘추로 각각 10석씩 거두고, 또 ‘인(引)’이 없이 판매하는 것은 법령에 어김이 있으므로, 무릇 소금을 파는 자는 반드시 주관하는 사에서 인을 주기를 기다린 뒤에야 장사를 행하게 하되, 인세는 1석마다 동전(銅錢) 20문을 바치게 하소서. 만일 인이 없이 판매하는 자와 숨기고 누락하여 세금을 바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주관하는 사에서나 가지고 지나가는 곳의 관리하는 관사에서 사염률(私鹽律)에 의해 논죄하여, 그 소금의 이익에서 나온 물건을 몰수할 것입니다. 자못 백성들의 말을 듣건대, 바다에 가까이 사는 백성도 오히려 소금

上魚物及司宰監所納外，具數啓聞，以資國用。若人力不足，則(魚)〔漁〕水梁，不必皆用官家之力，除官家合用漁梁外，聽元業人自力其役，只收其稅，敬差官將其魚鹽所出物件，擇委公正守令，分賣於民，其價勿拘米穀布貨，視時價優給之。水路通處則搬運轉賣所，收米穀歸于義倉，布貨入于國用，則凶荒之備、軍國之用，庶可有裕，而逐末者，亦可止矣。又念國家之制，稱干、尺者，竝屬補充軍，以通仕路，獨遺鹽漢，有違事體。乞并改稱補充軍，考其屬役年月，以其多者，每一道或四五或二三，隨其人多少，依他干尺補充軍例受職，役仍其舊。其中無田者，官給閑田，全除賦役，以厚其生，尤至貧乏者，以其魚鹽，人給半料，或於春秋兩等官鹽準額之後，聽其私煮，使不失業。又有私鹽，取利甚厚，全無賦役，其稅過輕，今後每一盆，春秋各收十石。且無引販賣，有違律令，凡賣鹽者，仰主司給引，然後乃行。其引稅，每一石納銅錢二十文，如有無引賣者及隱漏不納稅者，令主司與經過管勾官司，依私鹽律論罪，沒其

먹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물며 멀리 사는 백성들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조금 바라기를 굶주리고 목마른 것보다 더 심하게 여기어 한 번 조금 배가 가까운 지경에 들어왔다는 것을 들으면, 쌀과 베를 가지고 다투어 달려가서 구매하기를 혹 남에게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오니, 이 법을 진실로 행하면 일국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으되, 오직 그 이익됨을 계속하지 않을까 염려할 것입니다.

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어염(魚鹽)’은 재물을 다스리는 일에 관계되므로 행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오나, 이 논의는 진실로 고상하고 아름다우나, 시국을 구제하는 길과 위급할 때를 생각하는 적당한 일을 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안팎 창고가 이미 비고 말랐으니, 나라를 위해 피하는 자가 다만 고상한 이론만 하고, 편한 듯이 앉아서 한 가지 일도 하는 바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도는 예측하여 알기 어렵고 일의 변함이 무궁하오니, 만약 뜻밖의 군사의 일이나 흉년이 있을 때에 미리 준비할 계책과 메꾸어 갈 방법을 강구하고, 급히 행하여 오히려 미치지 못할 것을 염려함이 마땅하겠습니까. 법이 진선진미(盡善盡美)하기는 옛부터 어려웠으니, 대체에 해가 없고 이치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좋은 법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무릇 이용해 쓰는 바가 모두 옳은 의리에서 나와야 이를 가히 행할 수 있사오나, 설사 이 법이 염한에게는 불리할지라도 염한이 농민에게 비하면 천만 분의 한둘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만 사람이 좋아하고 한두 사람이 싫어한다면, 장차 한두 사람의 싫어함을 좇아서 할 것입니까. 근본을 힘쓰는 자가 좋아하고, 말리를 따르는 자가 싫어한다면, 장차 말리를 따르는 자의 싫어함을 좇아서 할 것입니까. 하물며 싫어하는 한두 사람과 말리를 따르는 자에게도 해롭지 않는 것이 라면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나라에 저축이 있으면 거두는 세금이 적고, 조금의 이익이 널리 행하여지면 혜택(惠澤)이 고를 것이니, 거둬들이고 혜택이 고르면 백성이 어찌 즐거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또 장차 조적(糶糶)을 넉넉

鹽利所出之物。 頗聞民庶之言， 近海居民， 尚艱於食鹽， 況遠居之民乎？ 民之望鹽， 甚於飢渴， 一聞鹽船至於近境， 則爭持米布， 奔走求買， 如恐不及， 此法苟行， 則一國之民， 無不悅懌， 唯恐其利之不繼也。 議者曰：“魚鹽涉於理財， 不可行也。” 此論誠高矣美矣。 然於濟時之道、 緩急之宜， 恐未悉也。 今方中外虛竭已甚， 爲國計者但尙論高義， 而安然一無所爲耶？ 抑天道難知， 事變無窮， 倘有不虞， 或軍旅或凶荒， 則備預之策、 彌縫之方， 當講求亟行， 而猶恐不及耶？ 法之盡善盡美者， 自古爲難， 不害於大， 不背於理， 則是爲良法矣。 惟我國家凡所資用， 皆出於農， 是爲可行矣。 設使此法不便於鹽漢， 鹽漢之於農民， 不啻千萬之一二也。 千萬之人悅， 而一二人惡之， 則將從一二人之惡而爲之乎？ 務本者悅， 而趨末者惡之， 則將從趨末者之惡而爲之乎？ 況又未害於一二人與趨末者乎？ 國有蓄積， 則賦斂寬， 鹽利流行， 則惠澤均矣。 斂寬澤均， 民安得不悅乎？ 且將欲使糶糶有裕， 而中外之儲， 不至於虛竭， 則計無便於此者也。

	<p>하게 하고, 안팎 창고가 비지 않게 하고자 하려면 이보다 좋은 계책이 없을 것입니다.”</p> <p>고 하니, 의정부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윗항의 조건이 행하기 어려움이 많으나, 그러나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경차관을 여러 도에 보내어, 소금 굽기에 적당하고 고기 잡기에 적당한 곳이 예전 곳이 몇 곳이고 새로이 정한 곳이 몇 곳이며, 소용되는 물건과 드는 사람의 수와, 일하기의 어렵고 쉬움과, 1년에 한 곳의 어염의 소출이 많고 적은 것 등을, 갖추 자세히 찾아 묻고 마련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논의하여 시행토록 하소서.”</p> <p>하므로, 그대로 따랐다.</p>	<p>議政府據此啓：“上項條件，難行事多，然待秋成遣敬差官於諸道，宜鹽宜漁舊基幾所、新地幾所、所用物件、所入人數、力役難易、一年一所魚鹽所出多寡等，備細訪問磨鍊，開具啓聞後，更議施行。”從之。</p>
<p>5. 세종 78권, 19년 (1437 정사 / 명 정통 (正統) 2년) 8월 15일 (임신) 2번째기사 종묘와 산릉의 친향과 선행시의 찬·작과 짐을 고제를 따르게 하다</p>	<p>애초에 봉상시에 소장(所藏)되었던 은 모사 그릇[銀瓚]은 단지 종묘에서 임금이 친히 제향하는 데에만 쓰던 것인데, 도둑에게 잃어버리자 즉시 박연(朴堧)에게 명하여 다시 주조(鑄造)하게 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친히 제향할 때의 찬(瓚)은 은을 쓰고, 작(爵)은 구리로 썼는데, 선행할 때의 작은 구리로 쓰고 찬은 나무로 썼으나, 모두가 의거한 것이 없다.”</p> <p>하고, 즉시 집현전으로 하여금 옛날의 찬·작의 제도를 상고하게 하니, 〈집현전에서〉 상고하여 아뢰기를, “우순(虞舜)은 종묘 제향을 옥잔[玉罍]으로 하고, 하후씨(夏后氏)는 식(鬯)을 썼다 하니, 식은 곧 작이며, 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주례》에 태재(太宰)가 선왕을 제향할 때에 옥작(玉爵)이라 불렀고, 천자는 종묘 제향에 규찬(圭瓚)을 썼다고 했으며, 송나라 시대에 와서는 황제가 친히 태묘에 제향하는데 옥가(玉罍)로 잔질하고 아헌(亞獻)과 종헌은 은가로 썼으며, 음복(飲福)에는 금가를 썼고, 태묘 제향에는 금과 은을 칠한 찬을 쓰고 유사가 행사할 때에는 구리로 만든 찬을 썼으니, 무릇 역대의 찬과 작이 모두 옥과 은을 썼습니다.”</p>	<p>初，奉常寺所藏銀瓚，只用於宗廟親享，爲盜所竊，卽命朴堧改鑄，仍教曰：“我國於親享時，瓚則用銀，爵則用銅；攝行時，爵用銅而瓚用木，皆無所據。”乃令集賢殿考古瓚爵之制，參考以啓，曰：“虞舜祀宗廟以玉罍。夏后氏鬯，鬯卽爵也，以玉飾之。《周禮》大宰享先王贊玉爵，天子祿用圭瓚，至于宋朝，皇帝親祀太廟，酌以玉罍，亞、終獻用銀罍，飲福用金罍，祿用塗金銀瓚。有司行事，以銅瓚。凡歷代瓚爵，皆用玉與銀爲之。”遂傳旨禮曹： 遵古制，親享瓚爵皆用銀，攝行瓚爵皆用銅。親享之時，亞、終獻亦皆用銀</p>

	<p>하니, 드디어 예조에 전지하기를, “고제(古制)를 따라서 친향할 때의 찬과 작은 모두 은을 쓰고, 대행할 때의 찬과 작은 모두 구리를 쓰며, 찬향할 때의 아헌과 종헌도 역시 은작을 쓰기를 향식(恒式)으로 하라.” 하고, 박연으로 하여금 동시에 은작과 동찬을 부어 만들게 하고, 하교하기를, “이제 작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니 목점(木坵)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점도 역시 구리로 부어 만들라.” 하였다. 이에 종묘와 산릉(山陵)의 친향과 섭행할 때의 찬·작과 점을 한결같이 옛 제도대로 따르게 되었다.</p>	<p>爵，以爲恒規。” 令朴堧并鑄銀爵銅瓚。 教曰：“今爵既以銀鑄，不宜用木坵，坵亦以銅鑄之。” 於是宗廟山陵親享及攝行時瓚爵與坵，一遵古制。</p>
<p>6. 세종 80권, 20년 (1438 무오 / 명 정통 (正統) 3년) 3월 17일 (신축) 2번째기사 중궁 태를 이장하는 예를 이조에서 아뢰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중궁 태(中宮胎)를 이장(移葬)할 때에, 개기(開基)·봉실(封室)·위안제(慰安祭)에 진물예도(眞物禮度)와 신위 향배(神位向背)에 대해 본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자세히 정하게 하셨으므로,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니, ‘옛날 공공씨(共工氏)에게 구룡(句龍)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죽어서 후토신(后土神)이 되었고, 후토는 사(社)로 되었다.’ 하고, 《주소(注疏)》에는, ‘구룡이 이미 후토신이 되어 사(社)에 배향된 연고로 후토가 사로 되었다.’ 하였는데, 이로써 보면 후토는 본래 한 신입니다. 무오년에 태를 갈무리할 때의 의주[藏胎儀]를 보니, 후토신 다섯 위를 진설(陳設)하였는데, 이것은 의거(依據)한 바가 없고, 또 진물(奠物)하는 것도 속된 의식을 겸용하여 변(籩)·두(豆)와 보(簠)·궤(簋)를 섞었으니 더욱 속되고 천하므로, 이제 옛 제도에 의거하여 참작한 다음 의주를 상정하여 아뢰입니다. 제사 3일 전에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2일 동안 산재(散齋)하되,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1일 동안 치재할 적엔 제소(祭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일보는 것은 평상시와 같으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고 과·마늘·부추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풍악을 듣지 않음</p>	<p>禮曹啓：“中宮胎移葬時，開基、封室、安慰祭奠物禮度·神位向背，令本曹參詳。謹按《文獻通考》：‘共工氏有子曰句龍，爲后土，后土爲社。’疏曰：“句龍既爲后土，又亦配社，故言后土爲社也。”由是觀之，后土本是一神。戊午年藏胎儀，設后土五位，無所依據。且奠物兼用俗儀，間於籩豆簠簋，尤爲鄙野。今依古制，參酌詳定儀註以啓。前祭三日，應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宿於正寢，致齋一日於祭所。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致齋，唯行祭事。【凡預祭者，皆前祭二日，沐浴更衣。】陳設：祭前</p>

며,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문서에 판결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치재는 오직 제사일에만 행한다. 【무릇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제사하기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는다.】 진설(陳設)은 제사 1일 전에 한다. 유사가 제소를 청소하고 여러 제관(祭官)의 악차(幄次)를 설치한다. 또 찬만(饌幔)을 모두 동쪽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설치한다. 신좌는 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돛자리[席]는 왕골자리로 한다. 헌관의 음복위(飲福位)는 남서편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헌관의 자리는 동남편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정하되, 모두 서향으로 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찬창자(贊唱者)와 찬례자(贊禮者)는 헌관 서남쪽에 정하되, 모두 서향으로 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예감(瘞坎)은 북쪽[壬方]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하고, 예감을 바라보는 자리[望瘞位]는 예감의 남쪽에 설치한다. 헌관은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하고, 대축과 찬창자는 동쪽에 있게 하여 서향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면 평상시의 의복을 입는다. 주방(廚房)에 나아가 척탁(滌濯)을 살피고 찬구를 살피며, 생(牲)의 충함과 둔함을 살피고 재소로 돌아온다. 포시(晡時)2852) 에 장찬자(掌饌者)가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鑿刀)로서 생을 벤다. 【가죽째 삶는다.】 제일(祭日) 행사하기 전에 유사가 축판(祝版)을 신위 오른쪽 【점(坫)이 있다.】 에 놓고, 폐백 광주리를 준소(尊所)에 진설하며,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와 찬물을 진설하되 위마다 각각 변 4개가 왼쪽에 있어 두 줄이 되게 하는데 오른쪽이 상이 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마른 대추[乾棗]가 그 다음이며, 둘째 줄에는 밤이 앞에 있고, 녹포(鹿脯)가 그 다음이다.】 두(豆) 4개가 오른쪽에 있어 두 줄이 되는데 왼쪽이 위[上]가 되며, 【첫째 줄에는 무우 김치가 앞에 있고, 사슴 고기젓이 다음이며, 둘째 줄에는 미나리 김치가 앞에 있고, 물고기젓이 그 다음인데,

一日, 有司掃除祭所, 設諸祭官次。又設饌幔, 皆於東方, 隨地之宜; 設神座於北方南向, 席以莞; 設獻官飲福位於南西北向; 設獻官位於東南, 西向; 執事者位於其後稍南, 俱西向北上; 設贊唱者、贊禮者位於獻官西南, 俱西向北上; 開瘞坎於壬地, 方深取足容物; 設望瘞位於瘞坎之南。獻官在南北向, 祝及贊唱者在東, 西向北上。贊禮者引獻官以常服詣廚, 視滌濯省饌具, 及視牲充臚, 還齋所。晡後, 掌饌者率宰人割牲。【連皮煮熟】祭日未行事前, 有司奠祝板於神位之右; 【有坫】陳幣筐於奠所 [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每位各邊四在左, 爲二行右上; 【第一行, 形鹽在前, 乾棗次之。第二行, 栗黃在前, 鹿脯次之。】豆四在右, 爲二行左上。【第一行, 菁菹在前, 鹿醢次之。第二行, 芹菹在前, 魚醢次之。若土無者, 以其類充之。】簠簋各二在籩豆間, 籩在左、簋在右。【簠實以稻梁, 梁在稻前。簋實以黍稷, 稷在黍前。】俎一在籩簋前, 【實以豕腥。凡言在前者, 皆謂南也。】爵三在俎前。

만약 그 지방에 없는 것은 유사품으로 충수한다.】보·례가 각각 2개인데 변·두 사이에 있다, 보는 왼쪽에, 례는 오른쪽에 있다.【보는 벼와 기장을 담는데, 기장은 벼 앞에 있고, 례에는 메기장과 피를 담는데, 피가 메기장 앞에 있다.】조(俎) 1개는 보·례 앞에 있다.【돼지의 날고기를 담는다. 무릇 앞이라는 것은 모두 남쪽에 있음을 이른다.】작(爵) 3개는 조(俎) 앞에 있다.【각각 점(坫)이 있다.】주준(酒尊) 2개【한 개는 현주(玄酒)를 채워 위[上]가 되게 하고, 한 개는 청주를 채운다.】는 서북쪽 모퉁이에 둔다. 세(洗)는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뇌(罍)는 세의 동쪽에 있게 하되 작(勺)을 얹어 놓고, 비(篚)는 세의 서남쪽에 둔다.【수건과 작을 담아 놓는다.】집사의 관세는 〈헌관의〉 세 동남쪽에 모두 북향하여 설치한다. 준(尊)·뇌(罍)·비(篚)·떡(羶)을 잡는 사람의 자리는 준·뇌·비·떡의 뒤에 설치한다.

행례(行禮)는 제삿날 축시 전 5각에【축시 전 5각(刻)은 곧 3경(更) 점(點)인데, 행사는 축시 1각에 한다. 봉실제(封室祭)는 때에 따라서 행사한다.】유사가 들어와서 찬구(饌具)에 제수 담기를 마치면, 물러가서 자기 제복을 입고 올라와서 후토씨(后土氏)의 신위판을 자리[座]에 설치한다. 3각 전에 행사할 집사관들이 각기 자기의 제복을 입고, 찬창자(贊唱者)와 찬례자(饌禮者)가 먼저 배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사배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1각(刻)전에 찬례자가 대축[祝]과 집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위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선다. 찬창자가 ‘사배하라.’ 하면, 대축이하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관세위에 나아가 세수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집사자가 작세위에 나아가서 작을 씻고 닦고 나서 비에 넣어 준소로 받들고 나아가서 점 위에 둔다.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서향해서 선다. 찬창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찬례자는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유사가 삼가 갖추어 행

【各有坫】設酒尊二，【一實玄酒爲上，一實清酒。】在西北隅。設洗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爵】設執事盥洗又於東南，俱北向；執尊罍篚羶者位於尊罍篚羶之後。行禮：祭日丑前五刻，【丑前五刻，卽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封室祭，隨其時行祭。】有司入，實饌具畢，退就次服其服升，設后土神位版於座前。三刻，行事執事官各服其服，贊唱者、贊禮者先就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前一刻，贊禮者引祝及執事者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唱曰：“四拜。”祝以下皆四拜訖，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執事者詣爵洗位，洗爵、拭爵訖，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贊禮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贊唱者曰：“四拜。”獻官四拜。贊禮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贊唱者曰：“行奠幣禮。”贊禮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水)[手]帨(水)[手]訖，【盥手帨手，不唱。】贊執笏，引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一人捧香合，

사하기를 청합니다.’ 한다. 찬창자가 ‘폐백드리는 예[奠幣禮]를 행하라.’ 하면,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을 깨끗이라.’ 찬하여,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게 한다.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는 것은 창하지 아니한다.】 ‘홀을 잡으라.’고 찬하여, 인도하여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면, ‘끓어얹아 홀을 깨끗이라.’고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香合)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찬례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린다. 대축[祝]이 폐백 광주리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향을 받들고 폐백을 줄 적에는 모두 헌관의 오른 쪽에서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드릴 적에는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爵)을 받고 전(奠)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찬례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창자가 ‘초헌례를 행하라.’ 하면,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사(執尊者)가 떡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아 홀을 깨끗이라.’ 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찬례자가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끓어얹으라.’ 찬하고, 대축이 신위 오른 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끓어얹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찬례자가 ‘면(俛)·복(伏)·흥(興)·재배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창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 하면,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떡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아 홀을 깨끗이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

一人捧香爐，贊禮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祝以幣授獻官，獻官執幣獻幣，以幣授祝，奠于神位前，【奉香授幣，皆在獻官之右；奠爐、奠幣，皆在獻官之左。授爵、奠爵，準此。】贊禮者贊執笏俛伏興引復位。小頃，贊唱者曰：“行初獻禮。”贊禮者引獻官(引) [陞]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贊禮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執笏，俛，伏，興，小退，北向跪，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贊禮者贊俛伏興再拜，引復位。小頃，贊唱者曰：“行亞獻禮。”贊禮者引獻官陞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贊禮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禮者贊執笏，俛，伏，興，再拜，引復位。小頃，贊唱者曰：“行終獻禮。”贊禮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復位。贊唱者曰：“飲福受胙。”執事者詣尊所，以爵酌福酒，又執事者持俎

	<p>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찬례자가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재배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창자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하면,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창자가 ‘음복(飲福)하고 제육[胙]을 받으라.’ 하면, 집사자는 준소에 나아가서 작으로 복주(福酒)를 따르고, 또 집사자가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신위 앞에 있는 조육(胙肉)을 덜어서 〈조에 합해서〉 둔다. 찬례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쬐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헌관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받아서 마신다. 집사자가 빈 작을 받아 점(坫)에 다시 둔다. 집사자가 서향하여 조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조를 받아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조를 받아서 나간다. 찬례자는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창자가 ‘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재배한다. 찬창자가 ‘변·두를 걷어치우라.’ 하면, 대축이 나아가 변·두를 걷어치운다. 【걷어치우는 것은 변과 두 각각 하나씩을 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찬창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이 사배하고, 찬창자가 ‘망예(望瘞)하라.’ 하면, 찬례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창자는 망예위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대축이 비를 가지고 축판과 폐백을 취하여 구덩이에 둔다. 홀을 구덩이에 반을 채운다. 찬례자는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예를 마쳤다.’고 아되면, 드디어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창자가 본디 자리로 돌아가고, 대축과 집사자는 배위에 나아가서 선다. 찬창자가 ‘사배하라.’ 하면, 대축 이하 모두 사배하고 나가고, 찬창자와 찬례자도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p>	<p>進滅神位前胙肉。贊禮者引獻官詣飲福位北向，贊跪搯笏。執事者進獻官之右，西向以爵授獻官，獻官受爵飲卒爵，執事者受虛爵，復於坫。執事者西向，以俎授獻官，獻官受俎，以授執事者，執事者受俎出。贊禮者贊執笏，俛，伏，興，引復位。贊唱者曰：“再拜。”在位者皆再拜。贊唱者曰：“撤籩豆。”祝進撤籩豆。【撤者，籩豆各一移於古處。】贊唱者曰：“四拜。”獻官四拜。贊唱者曰：“望瘞。”贊禮者引獻官詣望瘞位北向立，贊唱者就望瘞位西望立，祝以篚取祝版及幣，置於坎，寘土半坎。贊禮者進獻官之左白：“禮畢。”遂引獻官出。贊唱者還本位，祝及執事者就拜位。立定，贊唱者曰：“四拜。”祝以下皆四拜而出，贊唱者、贊禮者就拜位，四拜，出。</p>
<p>7. 세종 80권, 20년</p>	<p>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p>	<p>議政府據兵曹呈啓：“義州越江之獵，</p>

<p>(1438 무오 / 명 정통 (正統) 3년) 3월 26일 (경술) 3번째기사 사신에게 공궤할 노루와 사슴 고기를 준비하게 하다</p>	<p>“의주에서 강을 넘어 사냥하는 것은 도절제사 외에는 일체 금단할 것이나, 중국 조정에서 나오는 사신과 본국에서 중국 조정으로 들어가는 사신에게 공궤할 것이 넉넉하지 못하니, 금후로는 도절제사가 사냥할 때에는 의주의 당번(當番) 군마(軍馬)와 경내의 군마를 들여보내서 노루와 사슴을 잡아 마른 고기를 준비하되, 사신이 나올 무렵에 강을 넘더라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곳에서 노루와 사슴을 잡아 생고기를 준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都節制使外，一皆禁斷，然朝廷使臣及本國入朝使臣供用不足，今後都節制使入獵時，義州當番軍馬及境內軍馬入送，捕獲獐鹿，以備乾肉。使臣出來臨時則於越江朝往夕還處，捕獲獐鹿，以備生肉。” 從之。</p>
<p>출처</p>	<p>내용</p>	<p>원문</p>
<p>1. 世宗 81卷, 20年 (1438 戊午 / 명 정통 (正統) 3年) 4月 11日 (甲子) 2번째기사 이예로 첨지중추원사를 삼아 대마도에 파견하다</p>	<p>이예(李藝)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삼아 대마주(對馬州)에 파견하였다. 예조에서 종정성(宗貞盛)에게 글을 보내기를, “영락(永樂) 20년에 본조 판서 신상(申商)이 공경히 왕지(王旨)를 받들기를, ‘대마도가 우리 나라 남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은덕을 저버리고 누차 변지를 번거롭게 하므로, 이미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가서 그 죄를 물어 정벌케 하여 포로를 잡아 돌아왔다. 그러나 그 부자 형제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는 정상을 내 차마 하지 못하는 바이니, 너희 예조는 나의 이 지극한 심회(心懷)를 몸받아 포획해 온 인민을 모두 조사하여 돌려보내게 하라.’ 하옵신 바 있어, 삼가 이 유치했던 사람 중에 사망한 자와 그대로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남김 없이 송환하였던 것이다. 그 뒤에 족하(足下)가 글을 보내어 연속 찾아 보내 줄 것을 청해 오기에, 재삼 각도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하여 보았으나 따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없기에, 이미 이러한 뜻으로 회답한 것은 아마 이미 전달되었을 것으로 안다. 그 뒤에 여러 사람이 받아 가지고 온 서계(書契) 속에 송환을 요청한 사람이란 모두 까닭 없이 남아 있는 사람이 아니며, 혹은 나온 연월이 몹시 오래 되었거나, 혹은 이름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혹은 주거(住居)를 알 수 없거나, 혹은 병을 앓다가 죽은 자 등인데, 간혹 즉시 송환을 요청해 오기도 하고, 사유가 있어 돌아가지 않는 사람까지도 아울러 써서 보내곤 하니, 다만 양방이 서로가 번폐(煩弊)로울</p>	<p>以李藝僉知中樞院事，遣于對馬州。禮曹致書宗貞盛曰： 永樂二十年，本曹判書申商敬奉王旨：“對馬一島，爲國南紀，負德辜恩，屢貽邊擾，已令邊將往征其罪，俘獲而還。然其父子兄弟隔海懸望，予所不忍，爾禮曹體予至懷，所俘人民，盡行挨刷發回。”敬此。留置人口，唯身故及情願仍留者外，無遺送回去。後足下修書，連續告索，再三移文各道推刷，別無安置人口。已將此意回答，想已達矣。其後各人受來書契內請還人口，皆非無故見在之人，有或出來年月甚久，或名字不明，或不知住處，或患病身死，或徑請還因，故未還人口，竝令開寫。非徒兩各煩弊，且請還人口，雖至數百，以一介使一幅紙通諭，可以推還。每一名口請還，各遣貴使，</p>

	<p>뿐만 아니라, 또 송환을 요청한 인원이 수백 명에 이르면, 한 사람의 사자와 한 폭의 종이로써 통고해 오더라도 조사하여 송환할 수 있는 것인데, 1명의 송환을 요청할 적마다 각기 귀사(貴使)를 보내 온 것이 7, 80명의 많은 수효에 달하고 있다. 금후로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말을 듣고서 전과 같이 글을 보내어 번거롭게 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p> <p>하고, 종정성에게 저마포(苧麻布)·면주(綿紬) 각 10필, 채화석(綵花席)·만화석(滿花席) 각 10장, 인삼(人蔘) 50근, 호·표피(虎豹皮) 각 2장[領], 송자(松子) 2섬, 건시자(乾柿子) 1백 접[貼], 황률(黃粟) 10두, 밀과(蜜果)·다식(茶食) 각 5각(角), 청밀(淸蜜) 5병, 소주(燒酒) 50병 및 어물(魚物) 등을 하사하였다.</p>	<p>多至七八十，今後毋得偏聽人言，似前脩書煩請。</p> <p>賜貞盛苧麻布絺紬各十匹、綵化滿花席各十張、人蔘五十斤、虎豹皮各二領、松子二石、乾柿子一百貼、黃粟十斗、蜜果茶食各五角、淸蜜五瓶、燒酒五十瓶及魚物。</p>
<p>2. 세종 83권, 20년 (1438 무오 / 명 정통 (正統) 3년) 10월 28 일(기묘) 1번째기사 평안도 감사에게 오미자 진상의 부족을 나무라다</p>	<p>평안도 감사가 아뢰기를, “이제 진상해 올릴 오미자(五味子)의 본래 수효는 2백 근이온데, 다만 75근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갖추지 못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미자는 평안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얻기도 쉽고 또 때없이 진상해 올리는 물건이므로 미리 준비해 둘 것이거늘, 이미 그렇게 하지도 못하였고 또 기일 전에 아뢰지도 아니하였다가, 사은사가 그 도에 도착한 뒤에 급히 달려와서 아뢰게 하니 어찌 그 죄가 없겠는가. 사헌부는 조사해 보고하게 하라.”</p> <p>하였다.</p>	<p>己卯/平安道監司啓曰：“今進獻五味子元數二百斤，但有七十五斤，餘皆未備。”上曰：“五味子，平安道所產，得之既易，且無時進獻之物，所當預爲之備。既不能然，而又不先期以告，謝恩使至其道，然後馳書以啓，豈無其罪？”令司憲府推覈以聞。</p>
<p>3. 世宗 83卷, 20年 (1438 戊午 / 명 정통 (正統) 3年) 11月 23日(癸卯) 2번째기사 지경연 이상에서 간관까지 시강하게 할 것 등에 관한 사간원의</p>	<p>(전략)1. 소인(小人)들의 원망하는 것은 춥고 더운 때에 더 절실하옵니다. 국가에서 얼음을 저장할 때 으레 기내(畿內)의 백성들을 사역시키는데, 금년에 이르러서는 또 충청도·강원도 두 도의 연호(煙戶)를 부역시키오니, 원근(遠近)의 백성들이 양식을 싸 가지고 길에 올라서 그 얼음이 굳게 어는 때를 기다리느라고 여러 날 유숙하므로, 굶주림과 추위에 너무나 몸이 시달려 그 괴로움이 막심하옵니다. 대저 얼음을 저장하는 것은 음(陰)·양(陽)을 잘 조화(調化)시켜 화기(和氣)를 부르자는 것이온데, 그보다 앞서 백성들을 사역시켜 몸</p>	<p>(전략) 一, 小民怨咨, 切於寒暑。國家藏冰, 例役畿內, 至今年又役忠淸、江原兩道烟戶, 遠近之民, 齎糧在途, 待其堅冰, 曠日留宿, 飢寒迫身, 其苦莫甚。夫藏冰, 本欲調燮愆伏, 以召和氣, 而先使民起怨於沍寒之日, 可乎? 願自今量減頒冰之數, 仍減水庫間</p>

<p>상소문</p>	<p>시 추운 날씨에 원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옳겠사옵니까.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적당히 반빙(頒氷)2924) 하는 숫자를 감하게 하옵고, 인하여 빙고(氷庫)의 간수를 줄여서 연호(煙戶)를 사역시키지 마옵소서.”(후략)</p>	<p>架, 毋役烟戶。(후략)</p>
<p>4. 세종 83권, 20년 (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12월 19일(기사) 3번째기사 첨지중추원사 박연이 풍운뢰우단을 바로 잡는 방안을 아뢰다</p>	<p>첨지중추원사 박연(朴堧)이 상언(上言)하였는데, 그 대개 이르기를, “단유(壇壝)가 제도(制度)에 어긋나오니 그전대로 할 수는 없사옵니다. 여러 신사(神祀)가 다 그러한데,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이 더욱 심하옵니다. 이 신(神)은 자연의 조화와 가장 관계가 깊어서 걸핏하면 재앙(災殃)과 상서(祥瑞)를 가져오므로, 옛 사람은 그 제사를 중하게 여기어 각각 단유를 세우고 받들었사옵니다. 예법은 그 성대함을 지극히 하였고, 풍악도 역시 합당하게 하였사옵니다. 천자는 궁현(宮懸)의 연주를 사용하였고 제후는 헌가(軒架)의 악을 거행하였는데, 역대로 모두 그렇게 하여서 봉숭(奉崇)하는 것이 지극하였사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역대 제후왕(諸侯王)의 통행하던 제도(制度)를 상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거하여 정하였사운데, 신(臣)이 그 제도를 살펴보니 5등 제후(五等諸侯)2944) 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옵고, 이것은 홍무(洪武) 초년에 반포(頒布)하여 주·부·군·현(州府郡縣)의 경내에서 가히 행할 수 있는 제사에 실행하게 한 것이오며, 정당한 예법이 아니옵니다.</p> <p>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제사 예절을 모두 왕후의 제도를 쓰옵는데, 홀로 천신(天神)의 제사에만은 어찌하여 올바른 예법을 버리고 구차하고 간략한 예법을 따르오며, 제후의 법도를 버리고 주현의 법도에 비의(比擬)하옵니까. 우선 마땅치 않는 것으로서 심한 것을 말씀드리면, 풍(風)·운(雲)·뇌(雷)·우(雨)를 같은 단에다 제사지내오니 이미 잘못되었사운데, 또 산천(山川)·성황(城隍)의 신(神)을 천신과 더불어 모두 남향하게 하여 한 줄로 신위를 마련하고 섞어서 제사지내오니, 어찌 것처럼 설만(褻慢)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풍사(風師)·운사(雲師)·뇌사(雷師)·우사(雨師)의 사(師) 자를 빼고서 단지 풍·운·뇌·우 네 자</p>	<p>僉知中樞院事朴堧上言。其略曰：“壇壝失制，不宜仍舊，諸祀皆然，風雲雷雨，尤甚焉。是神也最關造化，動有災祥。古人重其祀，各立壇壝奉之，神亦專享其祀，未當雜以他位也。禮極其盛，而樂亦稱焉。天子用宮懸之奏，諸侯舉軒架之樂，歷代皆然，崇奉極矣。我朝不考歷代侯王通行之制，只據《洪武禮制》爲定。臣觀其制，非爲五等諸侯設也。是乃洪武初年頒行州府郡縣境內可行之祀耳，非正禮也。我國於諸祀禮，皆用王侯之制，而獨於天神之祭，何乃捨正禮而從苟簡，棄侯度而擬州縣乎？姑以不宜之尤者言之，風雲雷雨，同壇而祭，已失矣，又以山川城隍之神與天神，皆南面一行設位，混而祭之，何其褻也？又削風師雲師雷師雨師之師字，只題風雲雷雨四字於一木牌而爲神主，止陳一位之饌祭之，則四位天神，共享一器之食也。我國諸祀之壇，未有諸位，合爲一主，同享一器者也。獨於天神削其號，又</p>

를 한 목패(木牌)에 써서 신주(神主)를 삼고서, 단지 한 위(位)의 찬수(饌需)를 진설하여 제사지내온즉, 4위(位)의 천신(天神)이 같이 한 그릇의 음식을 흠향하는 것이옵니다.

우리 나라 여러 제사의 단에는, 여러 위(位)를 합해서 한 신주로 하고 한 가지로 한 그릇의 제수를 흠향하는 데가 없사온데, 홀로 천신에게만 그 명호(名號)를 깎고 또 그 전물(奠物)을 감쇄(減殺)하오니, 이것은 모만(侮慢)하고 불경(不敬)함이 심하옵니다. 또 악(樂)에는 제후국 헌가(軒架)의 성대함을 사용하면서, 제사에는 주·현(州縣)의 구차하고 간략한 의식을 쓰는 것은 또 무슨 뜻이옵니까. 만약 즐겨 깎아 내리기 위해서 주·현의 의식을 쓰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악에서는 제후국의 제도를 쓰는 것은 크게 상반되는 것이옵니다. 악(樂)에 헌가를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받드는 데 주·현의 의식에 스스로 비의(比擬)함은 부당하옵니다. 예와 악이 상반되어 전도(顛倒)되고 모순(矛盾)됨이 또한 이러하오니, 우리 성조(聖朝)에 이런 잘못된 일이 있었으리라고 여겼겠습니까. 봄에 빌고 가을에 보사(報祀)하옵는 제향(祭享)이 또한 과연 음양이 고르고 순하는 징험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이 천신에 제사하는 제례가 있어서 원단(圓壇)의 의식을 세우고 여러 해 동안 제사를 거행하다가, 제후국의 법도에 어긋난다는 까닭으로 그만두고 시행하지 아니한 지 이미 여러 해이옵니다. 오직 이 풍운뢰우의 단(壇)만은 성상께서 천신(天神)을 공경하여 제사하는 곳시오매, 더욱 급급하게 개정하고 시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 것이옵니다. 왕년에 신이 이런 폐단을 갖춰 말씀드려 고치기를 청하였사오나, 정부의 의논이 합치되지 아니하여서 윤택하심을 얻지 못하은 지 이미 10여년이 지났사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분함이 쌓여서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다가, 이제 다행히 영선(營繕)하는 것이 조금 뜨옴하옵고 또 연사도 조금 풍년이 들었사오니, 제단을 개정하는 것도 역시 알맞은 때인가 하옵니다. 하물며 신의 몸이 제단 일을 말

殺其奠，是乃侮慢不敬之甚歟！且樂用侯國軒架之盛，而祭用州縣苟簡之儀，又何義也？若甘於卑下，以州縣之儀爲是也，則樂用侯國之制，大相反矣。樂用軒架爲得正也，則其立壇承祀，不當以州縣之儀自擬也。禮樂相反，顛倒矛盾又若是，曾謂我聖朝有如此之謬舉乎？其春祈秋報之享，又果有陰陽調順之一驗乎？又我朝曾有祀天之禮，立圓壇之儀，累歲行事，乃以違侯度之故止而不行，已有年矣。唯此風雲雷雨之壇，乃聖上敬祀天神之所也，尤宜汲汲改正，不俟終日者也。往年，臣以此弊，具辭請改，以廟議不協，未蒙允可，已經十餘年，而腐心抱憤，不能自己。今幸營繕間歇，歲又稍登，祭壇改正，時亦宜矣。況臣身居祭壇之任，志在俎豆之間，不能終默，再瀆天聰。其風師雨師置壇之所則古人據王都，以星宿方隅爲定，今若其方險阨，不可置壇，則圓壇之洞，樹木叢茂，人居隔絕，洞府寬深，宜壇處非一。於祭天之洞，仍立天神之壇，不亦可乎？如此則三壇藏器之所，共立一庫，壇直奴子，合力供祭，亦甚便當。正其壇所，各專所

고 있사와 뜻이 조두(俎豆) 사이에 있사오므로, 끝내 침묵하여 있지 못하옵고 두 번째 천聰(天聰)을 모독하옵니다.

그 풍사(風師)·우사(雨師)의 단을 세우는 곳은 옛사람이 왕도(王都)에서 성수(星宿)의 방위로 정하였사오나, 이제 만약 그 방위가 험하고 막히어서 단(壇)을 세울 수 없다고 하오면, 원단(圓壇)을 세웠던 고을이 수목이 우거지고 사람 사는 곳과 떨어졌사오며, 고을 안이 넓고 길사와 단(壇)을 세우기에 마땅한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옵니다. 하늘에 제사하던 곳에 그대로 천신의 단(壇)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같이 한다면 3단(壇)이 제기(祭器) 두는 곳으로서 한 창고를 같이 세우게 되며, 단지기[壇直]와 노자(奴子)들이 협력하여서 제사를 받드는 것도 역시 편하고 합당할까 하옵니다. 그 단소(壇所)를 바르게 하고 각각 전(奠) 드리기를 전담하게 한다면, 하필 도성(都城) 한 모퉁이를 점령하고 단(壇)을 설치한 뒤에야 신(神)이 그 제사를 흠향하겠습니까. 그 예전에 제사지내던 곳은 그대로 수축하여 산천(山川)의 단(壇)으로 하는 것이 역시 가할 것이옵니다. 원하옵건대, 성상께옵서 신충(宸衷)으로 결단하옵시고 여러 사람의 의논에 자문(諮問)하지 마시어서, 한 시대의 제도를 모두 일신하게 하시와, 만세 후대에 남겨 주신다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올까 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예조로 하여금 정부와 같이 의논하게 하니, 이견기(李堅基)는 의논하기를,

“풍운뢰우를 역대의 사전(祀典)에 의거하오면 각기 방위를 두고 제사하였다고 하오니, 상언(上言)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옵시고, 단유(壇壝)도 역시 옛 명문에 의지하여 축조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안승선(安崇善)·신인손(辛引孫) 등은 의논하기를,

“《홍무예제》의 같은 단(壇)에서 치제하는 것을 본국에서 준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경솔하게 고치기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삼가

尊, 則何必據都城方隅置壇, 然後神享其祀乎? 其昔日祭所, 仍修爲山川之壇, 亦可矣。 願聖主斷自宸衷, 勿咨群議, 畢新一代之制, 以垂萬世, 不勝幸甚。

上令禮曹與政府同議。 李堅基議: “風雲雷雨, 依歷代祀典, 各置方位致祭, 依上言施行。 壇壝, 亦依古文造築何如?” 安崇善、辛引孫等議: “《洪武禮制》, 同壇致祭, 本朝遵行已久, 似難輕改。 然謹稽《文獻通考》, 周、唐之制, 風雨之師, 城東城西, 各壇致祭。 宋大中祥符二年, 令禮官考議, 置風伯壇于社東, 雨師壇于社西。 《至正條格》、前朝《詳定古今禮》, 風師壇在城東北, 雨師壇在城西南, 風雨之神, 置諸方位, 歷代皆然, 依上言施行。” 申概議: “風雲雷雨師各壇祭, 自周至元, 未嘗有改, 今山川壇, 引而祭之, 恐非禮神誠敬之義。 《洪武禮制》, 止言府州縣之義, 似不必拘泥, 依上言施行何如?” 閔義生議: “歷代祀典, 無山川壇, 但於洪武三年, 帝遣道士徐師昊, 祀高麗山川。 師昊至國, 設壇城南, 引大華嶽神及諸山之神、大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오니, 주(周)나라·당(唐)나라의 제도에는 풍사·우사는 성동(城東)과 성서(城西)의 각 단에서 치제하였삽고, 송(宋)나라 대 중상부(大中祥符) 2년에 예관으로 하여금 상고하고 의논하게 하여서, 풍백(風伯)의 단은 사직단 동쪽에 설치하고 우사(雨師)의 단은 사직단 서쪽에 세웠사옵니다. 《지정조격(至正條格)》과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에는, 풍사의 단은 성 동북에 있고 우사의 단은 성 서남에 있으며, 풍사·우사의 신은 여러 방위에 두었습니다. 역대로 다 그러하였사오니 상언한 것에 의거하여 시행 하옵소서.”

하고, 신개(申概)는 의논하기를,
 “풍사·운사·뇌사·우사의 각 단에 제사하옵는 것은 주나라에서 원나라에 이르도록 한 번도 고친 일이 없사온데, 이제 산천단(山川壇)에 끌어다가 제사하는 것은 신을 예배(禮拜)하는 정성과 공경의 뜻이 없을까 하옵니다. 《홍무예제》는 단지 부·주·현(府州縣)의 의식을 말한 것이오니 구애될 것이 없을까 하옵니다. 상언에 의거하여 시행하 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민의생(閔義生)은 의논하기를,
 “역대 사전(祀典)에는 산천단은 없사옵고, 단지 홍무 3년에 황제가 도사(道士) 서사호(徐師昊)를 보내어 고려(高麗)의 산천(山川)에 제사지내게 하였는데, 사호가 나라에 이르러 단을 성 남에다 세우고, 대화(大華)의 악신(岳神)과 여러 산의 신(神)과 대남(大南)의 해신(海神)과 여러 물의 신(神)을 끌어다가 제사하였다고 하옵니다. 그러하온즉, 태조(太祖) 황제가 처음에 고려의 산천을 부·주·현의 의식으로 치제한 것은 아니었고, 또 풍운뢰우와 성황(城隍)에 합치지 아니하였는데, 어느 때에 비로소 산천단(山川壇)에 합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생각하옵건대, 《홍무예제》의 주현 의례에 풍·운·뇌·우와 산천·성황을 합하여 제사한다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본조에서 산천단에 풍·운·뇌·우를 끌어다가 합제(合祭)하는가 하옵니다. 그러하오니, 《홍무예제》는

南海神及諸水之神以祭。然則太祖皇帝初不以高麗山川爲府州縣儀而致祭，又無及於風雲雷雨與城隍，不知何時始合於山川壇。意以《洪武禮制》州縣儀，以風雲雷雨山川城隍，合而祭之。因此本朝山川壇，以風雲雷雨，引而合祭，然《洪武禮制》州府之儀，非侯國之事也。且以天神竝列於山川城隍，非獨古無其文，亦失尊卑之序。又於天神四位，只設一件饌物、一箇酒爵，恐非誠敬之至，乞依上言施行。壇壝則依古文，各於方位造築何如？”鄭麟趾議：“風雲雷雨，依《洪武禮制》，仍舊於山川壇合祭。若依古制，山川之神，皆無享祀之文，又無別置山川城隍壇春秋合祭之文。且國祭，嶽海瀆山川列郡城隍，皆令春秋致祭，不宜復祭於風雲之壇，宜當改正，姑依朝廷之制施行。但壇壝位版法制，更考嚴正修節何如？”沈道源、崔士康、成抑、皇甫仁等議：“古制，風師雨師之祀處與日雖異，皆是天子事，未有明言通行侯國之文。且於《洪武禮制》，風雲雷雨山川城隍之神，凡各布政司府州縣，皆令合祭，豈無所據？布政司制

주·부의 의례를 제정한 것이지 제후국의 일을 제정한 것은 아니옵니다. 또 천신을 산천·성황의 반열에 나란히 두는 것은, 예전에도 그러한 명문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존비(尊卑)의 차서를 잃은 것이옵니다. 또 천신 4위에 게 다만 한 그릇의 음식과 술잔을 베푼다는 것은 정성과 공경하는 지극함이 아닐까 하옵니다. 비읍건대, 상언(上言)한 것에 의거하여 시행하옵시되, 단소(壇所)인즉 옛 문헌에 의거하여 각각 그 방위에다가 축조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정인지(鄭麟趾)는 의논하기를,

“풍운뢰우는 예전대로 《홍무예제》에 의거하여 산천단에다 합제하게 하소서. 만약 고제(古制)에 의거한다면 산천의 신도 모두 제향한다는 명문이 없사옵고, 또 별달리 산천단과 성황단을 두어서 봄·가을에 합제한다는 명문도 없사옵고, 또 나라에서는 악(岳)·해(海)·독(瀆)과 산천에 제사하고 여러 군(郡)의 성황은 모두 봄·가을에 치제하게 하오므로, 의당 다시 풍운(風雲)의 단에서 제사하지 않아야 할 것이오니, 마땅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오니 아직은 중국의 제도에 의거하여 시행하옵고, 다만 단유와 위판(位版)의 법제만을 다시 상고하여 엄정하게 수식(修飾)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심도원(沈道源)·최사강(崔士康)·성억(成抑)·황보인(皇甫仁) 등이 의논하기를,

“옛 제도에는 풍사·우사의 제사지내는 곳과 날짜가 비록 다르나, 모두 천자의 일이옵고 분명히 제후국에 통행한다는 명문이 없사오며, 또 《홍무예제》에 풍·운·뇌·우와 산천·성황의 신은 무릇 각 포정사(布政司)의 부·주·현에 모두 합제하게 하였사오니, 어찌 의거한 바가 없어서였겠습니까. 포정사의 제도가 어찌 제후국보다 아래이겠습니까. 어찌 시왕(時王)의 제도를 경솔하게 의논하여 다시 고치겠습니까. 마땅히 예전대로 하옵시되, 다만 풍사·우사·뇌사와 신위를 각각 마련하옵고, 전(奠)드리고 찬(饌)올리고 잔올리는 것도 역시 각각 마련하

度，豈下於侯國乎？豈可輕議時王之制而更改乎？宜仍舊，但當各設風師雨師雷師之位，奠饌與爵，亦當各設。”河演、李孟昀等議曰：“臣議與仁等同，但《洪武禮制》所載雲師除去未便，依舊并設雲師何如？”許稠、黃喜等議：“山川壇祭禮，元是時王之制，似難輕議。但《洪武禮制》儀注，風雲雷雨帛四，山川帛二，不言爵數。竊疑雖不言爵數，言帛數，用以包爵數。今祭風雲雷雨，只用一爵，山川只用一爵，有所未備，爵數宜依帛數，每神各用一爵。此外節次，竝依《洪武禮制》施行何如？”啓從黃喜等之議。

	<p>게 하옵소서.”</p> <p>하고, 하연(河演)·이맹균(李孟均) 등은 의논하기를, “신들의 의논은 황보인 등과 같사오나, 다만 《홍무예제》에 기록된 운사(雲師)를 제거하는 것은 미편하오니, 예전대로 운사를 아울러 설치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습니다.”</p> <p>하고, 허조·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산천단의 제사하는 예절은 원래가 시왕(時王)의 제도이오니,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려울까 하옵습니다. 다만 《홍무예제》의 의주(儀注)에 풍운뢰우에는 폐백이 넷이고 산천에는 폐백이 둘이라 하였고, 작(爵)의 수는 말하지 아니하였사온데, 비록 작의 수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폐백의 수를 말하여 그것으로써 작(爵)의 수를 말하여, 이로써 작의 수를 포괄한 것이 아닐까 그웁이 의심합니다. 이제 풍운뢰우를 제사하는 데 단지 하나의 잔을 사용하고, 산천에도 단지 하나의 잔을 사용하는 것은 미편한 점이 있사오니, 작의 수는 마땅히 폐백수에 의하여 매 신(神)마다 각각 한 개의 잔을 사용하게 하고, 그 밖의 절차(節次)는 모두 《홍무예제》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습니다.”</p> <p>하였다. <그 의논을> 계문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p>	
<p>5. 세종 84권, 21년 (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1월 10일 (기축) 1번째기사 친히 춘향제를 종묘에서 행한 후 음복연을 베푼다</p>	<p>임금이 친히 춘향제(春享祭)를 종묘(宗廟)에서 행하고, 환궁하여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음복연(飲福宴)을 베푼니, 종친 2품 이상이 시연(侍宴)하였다. 중궁도 내전(內殿)에서 음복연(飲福宴)을 베푼었고, 여러 향관(享官)에게도 의정부에서 잔치를 내려 주었다.</p>	<p>己丑/上親行春享于宗廟，還宮御思政殿，設飲福宴，宗親二品以上侍宴。中宮亦飲福宴于內殿，諸享官賜宴于議政府。</p>
<p>6. 세종 84권, 21년 (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1월 16일</p>	<p>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풍·운·뇌·우의 제사에 작(爵) 수를 전에 이미 폐백수[帛數]에 의하여 신(神)마다 1작(爵)씩을 썼사오나, 이제 전의 의주(儀注)를 가지고 다시 헌작하는</p>	<p>議政府據禮曹呈啓：“風雲雷雨祭爵數，前既依帛數，每神用一爵。今將前儀註，更定獻爵節次，具錄于後。書雲</p>

(을미) 5번째기사
의정부에서 풍운뇌우
의 제사에 대한 일체
의 규례를 아뢰다

절차를 정하였기에 뒤에다 갖춰 기록하겠습니다. 서운관(書雲觀)에서 한 달 전에 중춘(仲春) 상순(上旬)으로 택일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중추(仲秋)에도 이에 준한다.】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 나누어 알려져 직책에 따라 공판(供辦)하게 한다. 재계(齋戒)를 제사 전 5일 동안 하고,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이 모두 3일 동안 산재(散齋)하는데,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2일 동안 치재(致齋)할 적엔 1일은 본사(本司)에서,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한다. 산재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 전과 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고 파·부추·마늘·당과 등을 먹지 않고,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樂)을 듣지 않고,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문서에 판결 서명(署名)하지 않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치재에는 다만 제사만 행할 뿐이다. 이미 재계하였는데도 빠진 사람과 섭행(攝行)을 통하여 제위(諸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壘門)을 수위하는 사람은 【대장(隊長)은 문마다 각각 2인이요, 모퉁이 마다 각각 1인이다.】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로서 하룻밤을 자고, 악공(樂工)과 무인(舞人)은 봉상시(奉常寺) 앞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자며, 제사 전 1일에 모두 제소(祭所)로 모인다. 【무릇 제사에 참여할 사람을 모두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진설(陳設)은 제사 전 2일에 한다.

충호위(忠扈衛)에서 여러 제관(祭官)의 악차(幄次)를 유문(壘門) 동쪽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설치하고,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유(壘) 안의 동문(東門) 밖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설치한다. 하루 전에 아악령(雅樂令)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등가(登歌)의 악(樂)을 단상(壇上)의 남쪽 가까이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단(壇)아래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풍·운·뇌·우·산천·성황의 신좌(神座)를 단 위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남향하게 하고, 돛자리[席]는 모두 왕골 자리로 한

觀前一月，以仲春上旬，擇日報禮曹，
【仲秋準此】 禮曹啓聞，散告攸司，
隨職供辦。

齊戒：祀前五日，應行執事官並散齋三日，宿於正寢，致齋二日，一日於本司，一日於祀所。凡散齋，治事如古，唯不縱酒，不食葱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致齋，唯行祀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諸衛之屬守衛壘門者，

【隊長每門各二人，每隅各一人。】各於本司，淸齋一宿。工人二舞淸齋一宿於奉常寺，前祀一日，並集祀所。【凡預祭者，皆前祀二日，沐浴更衣。】

陳設：前祀二日，忠扈衛設諸祀官次於東壘門外，隨地之宜。典祀官率其屬掃除壇之內外，設饌幔於內壘東門外，隨地之宜。前一日，雅樂令帥其屬設《登歌之樂》於壇上，近南；設軒架於壇下，俱北向。典祀官帥其屬設風雲雷雨山川城隍神座於壇上北方南向，席皆以莞。【風雲雷雨居中，山川居左，城隍居右。】掌牲令牽牲詣祀所。執禮設初獻官位於壇下東南，西向；設

다. 【풍·운·뇌·우는 가운데에 있고, 산천은 왼쪽에 있고, 성황은 오른쪽에 있다.】 장생령(掌牲令)은 생(牲)을 이끌고 제소(祭所)로 나아간다. 집례(執禮)가 초헌관의 자리를 단(壇) 아래 동남에다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아헌관·종헌관의 자리는 초헌관의 뒤 조금 남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하되 매 품등(品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곁줄로 서향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집사의 남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서 모시게 한다. 집례의 자리를 둘을 설치하되, 하나는 단 위에 하나는 단 아래에 있게 하고, 모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게 한다.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는 단 아래 집례(執禮)의 자리 뒤에 있게 하되, 조금 남쪽으로 해서 서향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협률랑(協律郎)의 자리는 단 위에 있게 하되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으로 하고, 아악 령(雅樂令)의 자리는 현현(軒懸)의 북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초헌관의 음복위(飲福位)는 단 뒤 남계(南階)의 서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문밖의 자리[門外位]와 전사관(典祀官)과 여러 집사의 자리는 동문(東門) 밖의 길 남쪽에 설치하되,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모두 곁줄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나무를 요소(燎所)에 쌓는다. 【요소는 신단의 남쪽 병지(丙地)에 있다.】 망료(望燎)하는 자리는 요소의 북쪽에 설치한다.

초헌관은 북쪽에 있게 하여 남향하게 하고, 집례·대축·찬자는 동쪽에 있게 하여 서향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대축·찬자의 자리는 조금 뒤로 물려서 한다.】 예감(瘞坎)을 단 북쪽 임방(壬方)에 파되,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한다. 망예위(望瘞位)는 예감의 남쪽에 설치한다. 헌관은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하고, 집례·대축·찬자는 동쪽에 있게 하여 서향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대축·찬자의 자리는 조금 뒤로 물려서 한다.】 미시(未時) 후 2각(刻)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의 안팎을 소제한다. 집

亞獻官終獻官位於初獻官之後稍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每等異位，俱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執事之南，西向，書吏陪其後；設執禮位二，一於壇上，一於壇下，俱近東西向；謁者贊者贊引在壇下執禮之後稍南，西向北上；協律郎位於壇上近西，東向；雅樂令位於軒懸之北，北向；設初獻官飲福位於壇上南陛之西，北向；設門外位典祀官及諸執事於東門外道南，每等異位，俱重行，北向西上；積柴於燎所；【燎所在神壇之南丙地】設望瘞位於燎所之北，初獻官在北南向，執禮大祝贊者在東，西向北上；【大祝贊者稍却】開瘞坎於壇北壬地，方深取足容物；設望瘞位於瘞坎之南，獻官在南北向，執禮大祝贊者在東，西向北上。【大祝贊者稍却】未後二刻，典祀官帥其屬，掃除壇之內外。執禮先入壇下，獻官以下竝集肄儀。謁者引亞獻官，贊引監察，俱以常服詣廚，視滌濯，省饌具，及視牲充膳，俱還齋所。晡後，典祀官帥宰人以鸞刀割牲，連皮煮熟。祀日未行事前，典祀官帥其屬入，奠祝板各一於神位之右，【各有坫】陳幣

례가 먼저 단 아래로 들어오고 헌관 이하가 모두 모여서 의례를 연습한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는데, 모두 통상복으로 부엌에 나아가 척탁(滌濯)을 살피고 찬구(饌具)를 살피며, 생(牲)의 충실하고 살찐 것을 본 뒤에 모두 재소(齋所)로 돌아온다. 포시(哺時) 후에 전사관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鸞刀)로서 생(牲)을 베는데 가죽째 삶는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神位) 오른쪽에 각기 하나씩 놓고, 【각각 점(坫)이 있다.】

폐백(幣帛) 광주리를 존소(尊所)에 진설한다. 【풍·운·뇌·우의 폐백이 넷이고, 산천의 폐백이 둘, 성황의 폐백이 하나이다.】 향로·향합과 초[燭]를 모두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祭器)와 제수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되, 매위(位)마다 변(籩) 10개가 왼쪽에 있어 세 줄이 되게 하는데, 오른쪽이 상(上)이 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건조(乾棗)·울황(栗黃)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진자(榛子)가 앞에 있고, 능인(菱仁)·검인(芡仁)·녹포(鹿脯)가 그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녹포(鹿脯)가 앞에 있고, 백병(白餅)·흑병(黑餅)이 그 다음이다.】 두(豆) 10개가 오른쪽에 있어 세 줄이 되는데, 왼쪽이 상(上)이 되며, 【첫째 줄에는 구저(韭菹)가 앞에 있고, 담해(醢醢)·무우 김치·사슴 고기젓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미나리 김치가 앞에 있고, 토해(兔醢)·순저(筍菹)가 그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어해(魚醢)가 앞에 있고, 비석(脾析)·돈박(豚拍)이 그 다음이다.】 조(俎) 2개 중에 1개는 변 앞에 있고, 1개는 두 앞에 있다. 【변 앞의 조(俎)에는 양의 날고기와 칠체(七體)를 담는데 양비(兩脾)·양견(兩肩)·양협(兩脅)과 등골을 담는데, 넓적다리는 양쪽 끝에 있고, 어깨와 겨드랑이는 그 다음에 있고, 등골은 가운데 있다. 두(豆) 앞의 조(俎)에는 돼지의 날고기와 칠체(七體)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羊)과 같다. 무릇 조에는 모두 생갑(牲匣)이 있다. 송나라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앞에 있다는 것은 모두 남쪽에 있음을 이른다.’ 하였다.

籩於尊所, 【風雲雷雨幣四, 山川幣二, 城隍幣一。】 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每位各籩十在左, 爲三行右上; 【第一行形鹽在前, 魚乾棗栗黃次之。 第二行, 榛子在左, 菱仁芡仁次之。 第三行, 鹿脯在前, 白餅黑餅次之。】 豆十在右爲三行左上。 【第一行, 韭菹在前, 醢醢菁菹鹿醢次之。 第二行, 芹菹在前, 兔醢筍菹次之。 第二行, 魚醢在前, 脾折豚拍次之。】 俎二, 一在籩前, 一在豆前。 【籩前俎實羊腥七體、兩髀兩肩, 兩脅并脊而髀在兩端。 肩脅次之。 脊在中, 豆前俎實豕腥七體, 其載如羊, 凡俎皆有牲匣。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 籩籩各二在籩豆間, 籩在左, 籩在右。 【籩實以稻粱, 粱在稻前。 籩實以黍稷, 稷在黍前。】 甗鉶各三, 在籩籩後, 鉶居前, 甗次之。 【實以大羹, 實以和羹。 加芼滑】 爵在籩籩前。 【風雲雷雨位爵十二, 山川位爵六, 城隍位爵三, 各有坫。】 設犧尊二、【一實明水, 一實醴齊。】 象尊二、【一實明水, 一實盎齊。】 山罍二、

】보(簠)·궤(簋)가 각각 2개인데 변(簠)·두(豆) 사이에 있다. 보(簠)는 왼쪽에, 궤(簋)는 오른쪽에 있다. 【보에는 벼와 기장을 담는데, 기장은 벼 앞에 있고, 궤에는 서(黍)·직(稷)을 담는데 적어 서 앞에 있다. 】 등(甗)·형(銅)이 각각 3개인데, 보(簠)·궤(簋) 뒤에 있다. 형이 앞에, 등이 다음이다. 【등에는 대羹(大羹)을 담고, 형에는 화羹(和羹)을 담는데, 모활(芼滑)을 더한다. 】 작(爵)은 보·궤 앞에 있다. 【풍·운·뇌·우 앞에는 작이 12개이고, 산천 앞에는 작이 6개이며, 성황 앞에는 작이 3개인데, 각각 점(坫)이 있다. 】 희준(犧尊) 2개, 【한 개는 명수(明水)를 담고, 한 개는 단술[醴齊]를 담는다. 】 상준(象尊) 2개, 【한 개는 명수를 담고, 한 개는 양제(盞齊)를 담는다. 】 산뢰(山罍) 2개 【한 개는 현주(玄酒)를 담고, 한 개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 를 설치하여 세 줄로 하되, 【첫째 줄은 희준(犧尊), 둘째 줄은 상준(象尊), 셋째 줄은 산뢰(山罍)이다. 】 모두 작(勺)과 먹(鬯)을 얹어 놓아 단(壇) 위 동남 모퉁이 북쪽에서 서향하게 한다. 【무릇 뇌(罍)와 준(尊)에는 명수와 현주를 담은 것이 상(上)이 된다. 무릇 신에게 제사하는 물건은 그 당시에 없는 것은 시물(時物)로써 대용한다. 】

복주작(福酒爵)과 【점이 있다. 】 조육조(胙肉俎) 각각 1개씩을 준소(尊所)에 설치하고, 세(洗)는 남쪽 섬돌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 뇌(罍)는 세(洗)는 동쪽에 있게 하되 작(勺)을 얹어 놓고, 비(篚)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게 하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비(篚)이면 작을 담아 놓는다. 점이 있다. 】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는 헌관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준(尊)·뇌(罍)·비(篚)·먹(鬯)을 잡는 사람의 자리는 준·뇌·비·먹의 뒤에 설치한다. 행례(行禮)는 제삿날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축시(丑時) 전 5각(刻)은 곧 삼경(三更) 삼점(三點)이니, 행사(行事)는 축시 전 1각(刻)을 사용한다. 】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 찬수를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

【一實玄酒，一實淸酒。】 爲三行。
【第一行犧尊，第二行象尊，第三行山罍。】 皆加勺鬯，在壇上東南隅北向西。【凡罍尊實明水，玄酒爲上。凡祀神之物當時所無者，以時物代之。】 設福酒爵。【有坫】 胙肉俎各一於尊所。設洗於南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 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入實以爵，有坫。】 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東南北向，執尊罍篚鬯者位於尊罍篚鬯之後。
行禮：祀日丑前五刻，【丑前五刻，卽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 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退就次服其服升，設風雲雷雨山川城隍神位板於座。贊引引監察，升自東階，按視壇之上下，糾察不如儀者還出。前三刻，諸祀官各服其服。執禮帥謁者贊者贊引，入自東門，先就壇南懸北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雅樂令帥工人二舞入就位，《文舞》入陳於懸北，《武舞》立於懸南道西。謁者贊引各引祀官，俱就東門外位。前一刻，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協律郎

면 물러가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의복을 입고, 올라와 풍·운·뇌·우와 산천·성황의 신위관을 설치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단의 위아래를 살펴보고, 의식과 같지 않은 것을 규찰(糾察)하고 도로 나온다. 3각(刻) 전에 여러 제관(祭官)이 각기 자기의 제복(祭服)을 입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동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단의 남쪽 현(懸)의 북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사배(四拜)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工人)과 문무(文舞)·무무(武舞)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는데, 문무(文舞)는 악현(樂懸)의 북쪽에 들어와서 진열하고 무무(武舞)는 악현의 남쪽 길 서쪽에 선다. 알자·찬인이 각각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모두 동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1각(刻) 전에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축사(祝史)·재랑(齋郎)·협률랑(協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악현(樂懸)의 북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선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찬자가 이를 전갈한다. 【무릇 집례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다 재창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四拜)하고 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손을 씻고 나서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재랑을 인도하여 세작위(洗爵位)에 나아가서 작(爵)을 닦고 나서 비(篚)에 넣어 준소(尊所)를 받들고 나아가서 점(玷) 위에 둔다. 알자는 초헌관을, 찬인은 아헌관·중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사배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초헌관(初獻官)의 왼쪽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유사(有司)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하면, 협률랑이 구부렸다 앞드렸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고, 【무릇 물건을 취하는 사람은 다 꿇어앉아 구부렸다 앞드렸다가 물건을 취하고 일어나며, 물건을 드릴 적에는 꿇어앉아서 드리고 구부렸다 앞드

入就懸北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傳喝，【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監察以下皆四拜訖，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贊引引齋郎詣洗爵位，洗爵拭爵訖，置於篚，奉詣尊所，置於玷上。謁者引初獻官，贊引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執禮曰：“四拜。”衆官在位者皆四拜。【先拜者，不拜。】謁者進初獻官之左白：“有司(近) [謹] 具請行事。”協律郎跪俛伏舉麾興。【凡取物者，皆跪俛伏，而取以興。奠物則跪奠訖，俛伏而後興。】工鼓祝，軒架作《元安之樂》、《烈文之舞》。作三成，協律郎偃麾，戛鼓，樂止。【凡樂皆(脅) [協] 律郎跪俛伏舉麾興，工鼓祝而後作，偃麾戛鼓而後止。】執禮曰：“再拜。”衆官在位者皆再拜。執禮曰：“行奠幣禮。”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帨手，【盥手帨手不贊】贊執笏，引詣壇，升自南陛，登歌作《肅安之樂》，《烈文之舞》作。詣風雲雷雨神位前北向立，謁者贊跪搯笏，執禮者

렸다가 일어난다.】공인(工人)이 축(祝)을 두드리면 헌가(軒架)에서 원안지악(元安之樂)과 열문지무(烈文之舞)를 연주하고 삼성(三成)이 되면 협률량이 휘(麾)를 눕히고 어(敵)를 굽어 풍악이 그친다.【무릇 풍악은 다 협률량이 굽어 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면 공인이 축을 두드린 뒤에 시작되고, 휘를 눕히고 어(敵)를 굽은 뒤에 그친다.】집례가 ‘재배(再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폐백드리는 예(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깨끗하라.’ 찬(贊)하여,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게 한다.【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홀을 잡으라.’고 찬하여, 인도하여 단에 나아가서 남계(南階)로 올라가면 등가(登歌)에서 숙안지악(肅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된다. 풍·운·뇌·우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알자가 ‘홀을 깨끗하라.’ 찬한다. 집례자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면,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 대축이 폐백 광주리를 받들고 차례로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차례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무릇 향을 받들고 폐백을 줄 적에는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드릴 적에는 다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을 받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산천·성황의 신위 앞에 나아가고, 향을 피우고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마치는 풍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초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남계(南階)로부터 올라가서 풍·운·뇌·우의 존소(尊所)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선다. 등가(登歌)에서 숙안지악과 열문지무가 시작된다. 집준자(執尊者)가 먹(鬯)을

一人捧香合，一人捧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大祝捧幣篚以次授初獻官，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以次奠于神位前。【凡捧香授幣，皆在獻官之右。奠爐奠幣，皆在獻官之左。授爵奠爵，準此。】謁者贊執笏俛伏興，引詣山川城隍神位前，上香奠幣，竝如上儀訖，【樂止】引降復位。小頃，執禮曰：“行初獻禮。”謁者引初獻官升自南陛，詣風雲雷雨尊所西向立，【登歌作《肅安之樂》，《烈文之舞》作。】執尊者舉罍酌醴齊，執事者四人以爵受酒。謁者引初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摺笏，執事者捧爵以次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以次奠于神位前，贊執笏俛伏興少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止】謁者贊俛伏興再拜，【樂止】引詣山川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舉罍酌醴齊，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初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摺笏，執事者捧爵以次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以次奠于神位前，贊執笏俛伏興少

들고 단술[醴齊]을 따르면, 집사자 4인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받들어 차례로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爵)을 잡아 작(爵)을 드리는데, 작(爵)을 집사자에게 주어 차례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아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끓어앉으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끓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俛), 복(伏), 흥(興), 재배(再拜)’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산천의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풍악을 연주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떡(饗)을 들고 단술[醴齊]을 따르면, 집사자 2인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받들어 차례로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爵)을 집사자에게 주어 차례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끓어앉으라.’ 찬하면,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끓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풍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 복, 흥, 재배’라 찬하면,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인도하여 성황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풍악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떡(饗)을 들고 단술[醴齊]을 따르면, 집사자 1인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받들어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爵)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끓어앉으라.’ 찬하면,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끓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俛伏興再拜，【樂止】引詣城隍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舉罍酌醴齊，執事者一人以爵受酒。謁者引初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捧爵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執笏俛伏興少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俛伏興再拜，【樂止】引降復位。文舞退，武舞進，軒架作《舒安之樂》。舞者立定，樂止。初，初獻官將復位，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悅手訖，贊執笏引詣壇，升自東陛，詣風雲雷雨尊所西向立，【軒架作《壽安之樂》，《昭武之舞》作。】執尊者舉罍酌盥齊，執事者四人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捧爵以次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以次奠于神位前。贊執笏俛伏興再拜，引詣山川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盥齊，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詣神

‘면, 복, 흥, 재배’라 찬하면, 풍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문무(文舞)는 물러가고 무무(武舞)가 나아오는데, 헌가(軒架)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한다. 춤추는 사람이 서면 풍악이 그친다.

초헌관이 장차 제자리로 돌아올 때에, 집례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을 깨끗하라.’ 찬하여,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홀을 잡으라.’ 찬하고, 인도하여 단에 나아가는데,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풍·운·뇌·우의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헌가(軒架)에서 수안지악(壽安之樂)을 연주하고 소무지무(昭武之舞)가 시작된다. 집준자가 맥(罍)을 들고 양제(盞齊)를 따르면, 집사자 4인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받들어 차례로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차례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재배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산천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가 맥을 들고 양제를 따르면, 집사자 2인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받들어 차례로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차례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라.’ 찬하면, 풍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아헌관이 장차 제자리로 돌아올 때에,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음복(飲福)하고 제육(祭肉)을 받으라.’ 하면, 대축이 풍·운·뇌·우의 준소에 나아가서 작(爵)으로 뇌(鬯)의 복주(福酒)를 따르고,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풍·운·뇌·우

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捧爵以次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以次奠于神位前，贊執笏俛伏興再拜，引詣城隍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盞齊，執事者一人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捧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執笏俛伏興再拜，【樂止】引降復位。初，亞獻官獻將畢，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禮曰：“飲福受胙。”大祝詣風雲雷雨尊所，以爵酌壘福酒，又大祝持俎進減風雲雷雨神位前胙肉。謁者引初獻官升自南階，詣飲福位北向立，贊跪搯笏。大祝進初獻官之右，西向以爵授初獻官，初獻官受爵飲卒爵，大祝受虛爵復於坫。大祝西向以俎授初獻官，初獻官受俎，以(受)[授]執事者，執事者受俎，降自南階出門。謁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執禮曰：“再拜。”衆官在位者皆再拜。執禮曰：“徹籩豆。”大祝進徹籩豆，【徹者，籩豆各一少移於故處。】登歌作《雍安之樂》，徹訖樂

신위 앞에 있는 조육(胙肉)을 덜어낸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남계(南階)로부터 올라가서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쫓으라.’ 찬한다. 대축이 초헌관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작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을 받아서 마신다. 작을 비우면 대축이 빈 작을 받아서 점(坫)에 다시 둔다. 대축이 서향하여 조(俎)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조를 받아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조를 받아 남계로 내려와서 문으로 간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재배(再拜)하라.’ 하면, 여러 제관이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변(籩)·두(豆)를 걷어치우라.’ 하면, 대축이 나아가 변·두를 걷어치운다. 【걷어치운다는 것은 변과 두 각각 하나씩을 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이다.】 등가(登歌)에서 웅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다 걷어치우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헌가(軒架)에서 원안지악(元安之樂)을 연주한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여러 관원은 모두 사배한다.

풍악이 일성(一成)이 되면 그친다. 집례가 ‘망료(望燎)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며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망료위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대축이 비(篚)에다 풍·운·뇌·우의 축관과 폐백과 서반(黍飯)·직반(稷飯)을 담고, 서계(西階)로 내려와서 요소(燎所)에 이르러 요시(燎柴)에 둔다. 집례가 ‘태우라.’ 하고, 나무가 반쯤 타을 때에 집례가 ‘망예(望瘞)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대축이 광주리로 산천·성황의 축판(祝版)과, 폐백과 서반(黍飯)·직반(稷飯)을 담아 가지고 서계(西階)로 내려가 구덩이에 둔다. 집례가 ‘묻으라.’ 하면 흙을 구덩이에 반쯤 채운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예를 마쳤다.’고 아뢰면, 알자와 찬인이 각기 초헌관

止，軒架作《元安之樂》。執禮曰：“四拜。”衆官在位者皆四拜。樂一成止。執禮曰：“望燎。”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南向立，執禮帥贊者詣望燎位西向立。大祝以篚取風雲雷雨祝版及幣黍稷飯，降自西階，至燎所置於燎柴，執禮曰：“可燎。”燎半柴，執禮曰：“望瘞。”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北向立，執禮帥贊者詣望瘞位西向立，大祝以篚取山川城隍祝版及幣黍稷飯，降自西階，置於坎。執禮曰：“可瘞。”寘土半坎，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謁者贊引各引初獻官以下以次出，執禮帥贊者還本位。贊引引監察以下，俱復懸北拜位。立定，執禮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贊引引出工人二舞以次出。執禮帥謁者贊引就懸北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藏神位板，徹禮饌以降乃退。

	<p>이하를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본디 자리로 돌아가고, 찬인은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악현(樂懸)의 북쪽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인도하여 나가고, 공인(工人)과 문무(文舞)·무무(武舞)가 차례로 나간다. 집례가 알자·찬인을 거느리고 악현(樂懸) 북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신위관을 간수하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내려와서 물러난다.</p>	
<p>7. 세종 84권, 21년 (1439 기미 / 명 정통 (正統) 4년) 1월 16일 (을미) 6번째기사 의정부에서 기우하는 의주와 보사제도에 대한 일체의 규례를 아뢰다</p>	<p>기우하는 의주[祈雨儀]. 【보사제[報祀]도 같다. 오직 음복(飲福)하고 수조(受胙)하는 것은 정제(正祭)와 같다.】 하루 전에 여러 기관(祈官)들이 청재(淸齋)로서 기우하는 곳[祈所]에서 하룻밤을 잔다. 【만약 일이 급박하지 아니면 산재를 하루 하고 치재를 하루 한다.】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풍·운·뇌·우와 산천·성황의 세 신좌(神座)를 단 위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남향하게 하고, 자리[席]는 모두 왕골자리로 한다. 【풍·운·뇌·우는 가운데에 있고, 산천은 왼쪽에 있고, 성황은 오른쪽에 있다.】 헌관(獻官)의 자리를 단 아래 동남에다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그 뒤에 조금 남쪽에다 서향하게 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의 자리는 집사의 남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서 모시게 한다. 알자·찬자의 자리는 동계(東階)의 서쪽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요소(燎所). 【요소는 신단의 남쪽 병지(丙地)에 있다.】 에 나무를 쌓는다. 망료위(望燎位)는 요소(燎所)의 북쪽에 설치한다. 헌관은 북쪽에 있게 하여 남향하게 하고, 대축과 찬자는 동쪽에 있게 하여 서향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망예위(望瘞位)는 예감(瘞坎)의 남쪽에 설치한다. 헌관을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하고, 대축·찬자는 동쪽에 있게 하여 서향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기일(祈日)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축시 전 5각은 곧 3경(更) 3점(點)인데, 행사는 축시 전 1각(刻)에 한다.】</p>	<p>祈雨儀： 【報祀同，唯飲福受胙，與正祭同。】 前一日，諸祈官淸齋一宿於祈所。 【若事非迫切，散齋一日，致齋一日。】 典祀官帥其屬掃除壇之內外，設風雲雷雨山川城隍三神座於壇上北方南向，席皆以莞； 【風雲雷雨居中，山川居左，城隍居右。】 設獻官位於壇下東南，西向； 執事者位於其後稍南，西向北上； 設監察位於執事之南西向，書吏陪其後； 謁者贊者位於東陞之西，西向北上； 積柴於燎所； 【燎所，在神壇丙地。】 設望燎位於燎所之北，獻官在北南向，大祝及贊者在東，西向北上； 開瘞坎於壇北壬地，方深取足容物； 設望瘞位於瘞坎之南，獻官在南北向，大祝贊者在東，西向北上。 祈日丑前五刻， 【丑前五刻，卽三更三點，</p>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놓고,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를 준소(尊所)에 진설한다. 【풍·운·뇌·우의 폐백이 넷이고, 산천의 폐백이 둘, 성황의 폐백이 하나이다.】 향로·향합과 초[燭]를 모두 신위 앞에 설치한다. 제기(祭器)와 제수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되, 매 위(位)마다 각기 왼쪽에 변(籩) 1개 【녹포를 담는다.】 오른쪽에 두(豆) 1개가 있다. 【녹해(鹿醢)를 담는다.】 보(簠)·궤(簋)가 각각 1개인데 변(籩)·두(豆) 사이에 있다. 보(簠)는 왼쪽에, 궤(簋)는 오른쪽에 있다. 【보에는 벼(稻)를 담고, 궤에는 서(黍)를 담는다.】 조(俎)는 보·궤 앞에 있고, 【시성(豕腥)을 담는다.】 작(爵)은 조(俎) 앞에 있다. 【풍·운·뇌·우의 신위에 작이 4개이고, 산천 신위에 작이 2이며, 성황 신위에 작이 1개인데, 각각 점이 있다.】 희준(犧尊) 2개, 【한 개는 명수를 담고, 한 개는 예제를 담는다.】 산뢰(山罍)가 2개인데, 【한 개는 현주를 담고, 한 개는 청주를 담는다.】 모두 작(勺)과 떡(鬯)을 얹어 놓아 단(壇) 위 동남 모퉁이에 북향하게 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무릇 준·뇌에는 명수와 현주를 담은 것이 상(上)이 된다.】 세(洗)는 남쪽 섬돌 동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뇌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되 작(勺)을 얹어 놓고, 비(篚)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게 하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비이면 또 작(爵)을 담아 놓는다. 점(坫)이 있다.】 설치하기를 마치면, 전사관이 물러 나와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의복을 입고 올라와, 풍·운·뇌·우와 산천·성황의 신위판을 자리에 설치한다.

3각(刻) 전에 헌관과 여러 집사가 각각 그 의복을 입고, 알자가 동문(東門)으로부터 들어와 먼저 단(壇) 남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되, 서쪽을 위로 해서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동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1각 전에 알자가 감찰·전사관·대축·축사·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단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行 事 用 丑 時 一 刻。】 典 祀 官 帥 其 屬 入，奠 祝 版 各 一 於 神 位 之 右，【有 坫】 陳 幣 籩 於 尊 所，【風 雲 雷 雨 幣 四，山 川 幣 二，城 隍 幣 一】 設 香 爐 香 合 苙 燭 於 神 位 前，次 設 祭 器 實 饌 具，每 位 各 左 一 籩，【實 以 鹿 脯】 右 一 豆。【實 以 鹿 醢】 簠 簋 各 一 在 籩 豆 間，簠 左，簋 在 右。【簠 實 以 稻，簋 實 以 黍。】 俎 在 簠 簋 前，【實 以 豕 腥】 爵 在 俎 前。【風 雲 雷 雨 位 爵 四，山 川 位 爵 二，城 隍 位 爵 一，各 有 坫。】 設 犧 尊 二，【一 實 明 水，一 實 醴 齊。】 山 罍 二，【一 實 玄 酒，一 實 清 酒。】 皆 加 勺 鬯，在 壇 上 東 南 隅，北 向 西 上。【凡 尊 實 明 水，玄 酒 爲 上。】 設 洗 於 南 階 東 北 向，【盥 洗 在 東，爵 洗 在 西。】 籩 在 洗 東 加 勺，罍 在 洗 西 南 肆，實 以 巾。【若 洗 爵 之 籩 則 又 實 以 爵。 有 坫。】 設 訖，典 祀 官 退 就 次，服 其 服 升，設 風 雲 雷 雨 山 川 城 隍 神 位 版 於 座 前。 三 刻，獻 官 及 諸 執 事，各 服 其 服。 謁 者 入 自 東 門，先 就 壇 南 拜 位，北 向 西 上 四 拜 訖 就 位。 謁 者 引 獻 官 以 下，俱 就 東 門 外 位。 前 一 刻，謁 者 引 監 察 典 祀 官 大 祝 祝 史 齋 郎，入 就 壇 南 拜 位，重 行 北 向 西

위로 해서 선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재량이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작(爵)을 닦고 나서 비(篋)에 넣어 존소(尊所)를 받들고 나아가서 점(坫) 위에 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아뢰기를, ‘유사(有司)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재배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재배한다. 찬자가 ‘폐백 드리는 예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깨끗하라.’ 찬(贊)하여,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게 한다.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는 것을 찬하지 않는다.】 ‘홀을 잡으라.’ 고 찬하여, 인도하여 단에 올라가는데 남계(南階)로 올라간다. 풍·운·뇌·우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꿍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만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면,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 대축이 폐백을 받들고 차례로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차례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받들고 폐백을 줄 적에는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드릴 적에는 다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을 받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산천·성황 신위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계(南階)로부터 올라가서 풍·운·뇌·우의 존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선다.

上。立定，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謁者引監察及諸執事各就位。齋郎詣爵洗位，洗爵拭爵訖，置於篋捧詣尊所，置於坫上。謁者引獻官入就位，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退復位。贊者曰：“再拜。”在位者皆再拜。贊者曰：“行奠幣禮。”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帨手，【盥手帨手不贊】贊執笏引詣壇，升自南陛，詣風雲雷雨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一人捧香合，一人捧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大祝捧幣，以次授獻官，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以次奠于神位前。【凡捧香授幣，皆在獻官之右；奠爐奠幣，皆在獻官之左。授爵奠爵，準此。】謁者贊執笏俛伏興，引詣山川城隍神位前，上香奠幣，竝如上儀訖，引降復位。小頃，贊者曰：“行酌獻禮。”謁者引獻官升自南陛，詣風雲雷雨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四人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捧爵以次授獻官，獻官執爵

집준자가 떡(饗)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4인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쫓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받들어 차례로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爵)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차례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앉으라.’ 찬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끓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면(俛), 복(伏), 흥(興), 재배(再拜)’라 찬하고, 인도하여 산천의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준자가 떡(饗)을 들고 술을 따른다. 집사자 2인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쫓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받들어 차례로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차례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끓어앉으라.’ 찬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끓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면, 복, 흥, 재배’라 찬하고, 인도하여 성황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가 떡(饗)을 들고 술을 따른다. 집사자 1인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쫓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받들어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끓어앉으라.’ 찬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끓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면, 복, 흥, 재배’라 찬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축이 나아가 변·두를 걸어치우기를 의식대로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찬자가 ‘망료(望燎)하라.’ 하면, 알

獻爵，以爵授執事者，以次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引詣山川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二人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摺笏，執事者捧爵以次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以次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引詣城隍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一人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摺笏，執事者捧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訖，引降復位。大祝進徹籩豆如式。贊者曰：“四拜。”獻官四拜。贊者曰：“望燎。”謁者引獻官詣望燎位西向立，大祝以籩取風雲雷雨祝版及幣，降自西陛，至燎所置於燎柴，贊者曰：“可燎。”燎半柴，贊者曰：“望瘞。”謁者引獻官詣望瘞位北向立，贊者詣望瘞位西向立，大祝以籩取山川

	<p>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료위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대축이 비(籩)에다 풍·운·뇌·우의 축판과 폐백을 담고 서계(西階)로 내려와서 요소(燎所)에 이르러 태울 나무 위에 둔다. 찬자가 ‘태우라.’ 하여 반쯤 타면, 찬자가 ‘망예(望瘞)하라.’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계 하고, 찬자가 망예위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선다. 대축이 광주리로 산천·성황의 축판과 폐백을 담아 가지고 서계(西階)로 내려가 구덩이에 둔다. 찬자가 ‘묻으라.’ 하면, 흙을 구덩이에 반쯤 채운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예를 마쳤다.’고 아뢰면, 드디어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자도 본디 자리로 돌아가고, 알자는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단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찬자가 단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가면,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신위판을 간수하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내려와서 곧 물러간다.” 하였다.</p>	<p>城隍祝版及幣，降自西陞，置於坎。贊者曰：“可瘞。”奠土半坎，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遂引獻官出，贊者還本位。謁者引監察及諸執事就壇南拜位，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謁者以次引出。謁者贊者就壇南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藏神位版，徹禮饌以降乃退。</p>
<p>8. 世宗 84卷, 21年 (1439 己未 / 명 정통 (正統) 4年) 2月 6日 (乙卯) 3번째기사 예조에서 전구서에서 1년 동안 제수로 소용되는 소를 수원부 홍원곶과 양성현 괴태길곶의 소에서 골라 보내게 할 것을 아뢰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전구서(典廐署)에서 1년 동안 소용되는 제수(祭需)로 종묘제 때의 검은 송아지 5두(頭), 영녕전제(永寧殿祭) 때의 검은 송아지 5두, 사직제 때의 검은 큰소 3두, 문선왕 석전제(文宣王釋奠祭) 때의 큰 황소 2두, 문소전 별제(文昭殿別祭) 때의 누런 송아지 2두를 매양 봄·가을에 점우 별감(點牛別監)이 선택해 올렸사온데, 이제 점우 별감을 혁파하였사오니, 수원부(水原府) 홍원곶(弘原串)과 양성현(陽城縣) 괴태길곶(槐台吉串)에 방목하는 소에서 수에 따라 골라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典廐署一年所需：“宗廟祭黑犢牛五頭、永寧殿祭黑犢牛二頭、社稷祭黑大牛三頭、文宣王釋奠祭黃大牛二頭、文昭殿別祭黃犢牛二頭，每於春秋，點牛別監選擇以送。今革點牛別監，請以水原府弘原串、陽城縣槐台吉串所放里牛，依數揀送。從之。</p>
<p>9. 세종 86권, 21년 (1439 기미 / 명 정통</p>	<p>처음에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진어(進御)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의정부(議政府)와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p>	<p>初，上憂旱不進酒，至是，議政府禮曹啓：“今雨澤稍降，請進酒。”上曰：</p>

<p>(正統) 4년) 7월 17일 (계해) 5번째기사 술을 진어하다</p>	<p>“이제 비가 조금 내렸사오니 술을 진어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은 벼곡이 병진년에 비교하면 조금 풍년이나, 그러나 가뭄은 금년이 더욱 심하니 평상시와 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들이 청하니 내가 마땅히 술을 들겠다.” 하였다.</p>	<p>“今年禾穀，比之丙辰則稍稔，然其旱乾，今年尤甚，不可視同平昔也。然卿等請之，予當進酒矣。”</p>
<p>출처</p>	<p>내용</p>	<p>원문</p>
<p>1. 세종 88권, 22년 (1440 경신 / 명 정통 (正統) 5년) 1월 8일 (신해) 2번째기사 종묘에 친향하는 의주를 고치고, 종묘에 친사하는 의주를 편찬하게 하다</p>	<p>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본조에서 종묘에 친향(親享)하는 의주(儀注) 가운데, 참신(參神)·사신(辭神)에는 모두 사배(四拜)하고, 신관(晨禠)·전폐(奠幣) 및 헌작(獻爵)·음복(飲福)에는 모두 재배(再拜)하였는데, 태종조(太宗祖)에는 《사림광기(事林廣記)》의 공·후(公侯)와 품관(品官)이 신에게 제사지내는 의주에 의하여, 신관(晨禠)과 헌작에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지계문을 나와서, 전영(前楹) 밖에 나가서 모두 재배를 올렸습니다. 그 후에 헌의(獻議)하는 자가 말하기를, ‘선조(先祖)를 제사지내는 의례(儀禮)는 제후 나라의 제도가 아니옵니다.’ 하였으므로, 당(唐)·송(宋)의 옛 제도에 의하여 매 실(室)마다 신관(晨禠)·헌작·음복에는 모두 재배하고, 그 사배하는 것과 재배하는 것을 서로 사이에 섞어서 행례하였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간행(刊行)한 《황제시향대묘의(皇帝時享大廟儀)》를 상고하니, 전폐(奠幣)·헌작(獻爵)·독축(讀祝) 뒤에는 〈황제〉가 재배하는 것이 없고, 다만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만을 행하면, 백관도 같이 하옵니다. 복주(福酒)·조육(胙肉)을 내려 줄 때에, 황제가 꿇어앉아 복주를 마시고 조육을 받은 후에 부복·흥·평신하면 백관은 같이 하옵니다.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종묘 매 실에 신관(晨禠)과 헌작에 전하께서 꿇어앉으면 모든 관원이 모두 꿇어앉고, 신관(晨禠)과 헌작·독축(讀祝) 뒤에 전하께서 부복·흥·평신하면 모든 관원도 모두 부복·흥·평신하며, 아헌(亞獻)·종헌(終獻)에도 역시 이 예에 의거</p>	<p>議政府據禮曹呈啓：“本朝親享宗廟儀注內，參神辭神，皆四拜；晨禠奠幣及獻爵飲福，皆再拜。太宗朝依《事林廣記》公侯及品官祀禠儀，晨禠及獻爵後，俛伏興出戶，就前楹外都呈再拜。其後獻議者以祀先儀非侯國之制，據唐、宋古制，每室晨禠及獻爵飲福，皆再拜，其四拜與再拜，相間行禮。今按中朝刊行《皇帝時享太廟儀》，奠幣獻爵讀祝後無再拜，只行俯伏興平身，百官同。賜福胙時，皇帝跪飲福酒，受胙後，皇帝俯伏興平身四拜，百官同。乞依中朝之制，宗廟每室晨禠及獻爵，殿下跪，衆官皆跪。晨禠及獻爵讀祝後，殿下俯伏興平身，衆官皆俯伏興平身。亞終獻亦依此例，但無百官同詣飲福位。殿下跪，衆官皆跪，飲福受胙後，殿下俯伏興平身，衆官皆</p>

	<p>하나 다만 백관이 같이 하는 것이 없으며,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전하께서 꿇어앉으면 모든 관원이 모두 꿇어앉고, 음복(飲福)·수조(受胙)한 후에 전하께서 부복·홍·평신하면 모든 관원이 모두 부복·홍·평신하며, 내려와 자리로 돌아와 전하께서 사배하면 모든 관원이 모두 사배할 것입니다. 그 외의 제사 의주도 역시 위의 항목에 의거하여 수정해 고치게 하옵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르고, 곧 판승문원사 정척(鄭陟)·판내섬시사 변효문(卞孝文)에게 명하여 종묘에 친사(親祀)하는 의주를 편찬하게 하였다.</p>	<p>俯伏與平身降復位，殿下四拜，衆官皆四拜。其餘祭儀，亦依上項例修改。”從之。即命判承文院事鄭陟、判內贍寺事卞孝文，改修宗廟親祀儀注。</p>
<p>2. 세종 88권, 22년 (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3월 13일 (을묘) 2번째기사 건원릉 별제를 행하고 왕세자가 아헌하다</p>	<p>임금이 친히 건원릉(健元陵)의 별제(別祭)를 행하였는데, 왕세자가 아헌(亞獻)하였다. 임금이 장차 환궁(還宮)하려 하매, 개경사(開慶寺)의 중 1백여 명이 길옆에 합장하고 섰으므로, 쌀 40석을 하사하였다.</p>	<p>上親行健元陵別祭，王世子亞獻。上將還開慶寺，僧百餘人拱立道左，賜米四十碩。</p>
<p>3. 세종 89권, 22년 (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4월 15일 (병술) 3번째기사 각 품계에 따른 질병 치료 사항을 정하다</p>	<p>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서울 안의 시임(時任)·산관(散官) 2품(品) 이상이 만일 질병이 있으면, 의원(醫員)을 시켜 진찰하고, 제생(濟生)·전의(典醫)·혜민국(惠民局)에서 살 수 없는 약은 적당하게 주고, 3품(品) 이하는 예조(禮曹)에 고하면 또한 소속 의원으로 하여금 진찰하여 치료하라는 것은 이미 일찍이 전교가 있었는데, 근래에 크나 작으나 병에 걸린 사람은 모두 본원(本院)에 고하여, 직품의 높고 낮은 것과 약재의 귀하고 천한 것을 논할 것 없이 천한 약은 본원에서 전의감(典醫監)에 통첩을 내리어 주고 귀한 약은 계달하여 주니, 전지(傳旨)의 본뜻에 어긋납니다. 또 시임·산관 재추(宰樞)와 종친의 그 수요가 이미 많아서 궁내에서 하사하기를 바랄 수 없고, 만일 병이 낫는 것을 한도로 하여 약을 준다면 그 폐가 한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한 전지(傳旨) 이외에 2품 이상과 종친의 병에 대한 약은 윗 항목의 교지(教旨)에 의하여 제생·전의·혜민국에서 살 수 없고, 사생(死生)에 관계되는데 사사로이 비축하지 못하는 약은</p>	<p>承政院啓：“京中時散二品以上，若有疾病，使醫(診)候，濟生典醫惠民局典賣所無之藥則隨宜賜之。三品以下，告於禮曹，亦令所屬醫員診候救療，已曾傳教。近來大小得疾之人，皆告於本院，不論職品高下、藥(材)貴賤，賤藥則本院下牒典醫監給之，貴藥則啓達以給，有違傳旨本意。且時散宰樞及宗親，其數既多，不可希望內賜，若差病爲限賜給，則其弊無窮。自今特旨外，二品以上及宗親病藥，依前項教旨，濟生典醫惠民局典賣所無死生關係未得私備之藥，臨時啓</p>

	<p>임시에 계달하여 수량을 따져서 주고, 3품 이하의 병에 대한 약도 또한 전지에 의하여 거듭 밝히어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達，量數給之；三品以下病藥，亦依傳旨，申明舉行。” 從之。</p>
<p>4. 世宗 89卷, 22年 (1440 庚申 / 명 정통 (正統) 5年) 4月 24日 (丙申) 1번째기사 가뭄으로 술을 정지하 다</p>	<p>가뭄으로 술을 정지하였다.</p>	<p>丙申/以旱輟酒。</p>
<p>5. 세종 89권, 22년 (1440 경신 / 명 정통 (正統) 5년) 5월 8일 (기유) 2번째기사 가뭄으로 정지하였던 음주를 신하들이 권하 다</p>	<p>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 하연(河演)과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의생(閔義生) 등이 아뢰기를, “근자에 전하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니, 신 등은 참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으시어 신민의 근심을 끼칠까 두려워합니다. 또 어제의 비가 비록 흡족하지는 못하나, 화곡은 다시 소생할 수 있으니 조금 성려(聖慮)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원컨대, 술을 내오는 것을 허락하시어 성공(聖躬)을 조호(調護)하여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고, 인하여 술을 드리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을사년에 내가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내오지 못하게 하여 시기가 지나도록 먹지 않아서, 인하여 병을 얻었으므로 신하들이 나를 위하여 두려워한다. 나도 역시 이 뒤로부터 매양 하늘의 재앙을 당하면 비록 음식을 감하게 하나 주린 것을 참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고, 기운이 만일 순조롭지 못하면 혹 술을 마시기도 한다. 또 근일에 복약하는 것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니 이것으로 또한 족한 것이다. 어찌 다시 술을 내올 것인가. 경 등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연 등이 다시 아뢰기를, “술이라는 것은 오곡(五穀)의 정기이니 적당하게 마시고 그치면 참으로 좋은 약입니다. 정부 대신이 신 등으로 하여금 기필코 술을 드리도록 하였사오니,</p>	<p>議政府右贊成河演、禮曹判書閔義生等啓：“邇來，殿下憂旱不御酒，臣等誠恐因此違和，以貽臣民之憂也。且昨日之雨，雖未優渥，禾穀則可以復蘇，稍可弛聖慮。願許進酒，調保聖躬，以慰臣民之望。”仍進酒，上曰：“歲在乙巳，予乃憂旱，不令進酒，至於過時不食，因而得疾，臣僚爲予懼之。予亦自此每遇天災，雖令徹膳，不至於忍飢，氣若不調，亦或進酒。且近日因服藥而進酒，是亦足矣，豈宜更進？卿等毋言。”演等更啓曰：“酒者，五穀之精，適可而止，則眞良藥也。政府大臣令臣等期以必進，伏願俯從臣等之誠。”上又不許。演固請四五，義生至於流涕。承旨等亦啓：“臣等亦欲請之，天威嚴重，未敢耳。</p>

	<p>엎드려 바라건대, 신 등의 청을 굽어 좇으소서.” 하였으나, 임금의 또 허락하지 않았다. 연(演)이 굳이 청하기를 네댓 번을 하고 의생(義生)은 눈물까지 흘리고, 승지(承旨)들이 또한 아뢰기를, “신 등이 또한 청하고자 하였으나 천위(天威)가 엄중하여 감히 못하였습니다. 지금 대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요량하여 마시겠다.” 하였다.</p>	<p>今大臣之言，不可不從。” 上曰：“予當酌量飲之。”</p>
<p>6. 世宗 89卷, 22年 (1440 庚申 / 명 정통 (正統) 5年) 6月 13日 (癸未) 2번째기사 예조에서 독제 의주를 지어 바치다</p>	<p>예조(禮曹)에서 독제 의주(蠶祭儀注)를 지어 바치었는데, 【문관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시일(時日)이 되어 장차 제사 지내려면, 서운관(書雲觀)에서 봄에는 경칩(驚蟄) 날로 【가을에는 상강(霜降) 날.】 예조(禮曹)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게 산고(散告)하여 직책에 따라 공관(供辦)하게 한다. 재계(齋戒)는 제사지내기 전 3일 동안 하는데, 행사(行事)에 응해야 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이를 동안은 산재(散齋)하여 정침(正寢)에서 자고, 하룻 동안은 제소(祭所)에서 치재(致齋)한다. 대개 산재(散齋)는 일보기를 전과 같이 하나, 오직 술을 마시지 않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않으며,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풍악을 듣지 않고, 형벌을 행하지 않고, 형살(刑殺)의 문서에 수결을 두지 않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치재(致齋)는 오직 제사 하루 전에만 행하는데, 공인(工人)이 모두 제소(祭所)에 모여서 【무릇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제사 하루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진설한다. 제사 하루 전에 묘사(廟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묘(廟)의 안팎을 소제한다. 충호위(忠扈衛)는 여러 제관(祭官)의 자리를 설치하고, 또 잔만(饌幔)을 설치하되 모두 동문(東門) 밖에 땅의 형편에 따라 알맞게 한다. 하루 전에 장생령</p>	<p>禮曹撰進蠶祭儀注： 【文官不預祭】 時日：將祭，書雲觀以春(耕) [驚] 蟄日 【秋霜降日】 報禮曹，禮曹啓聞，散告攸司，隨職供辦。 齋戒：前祭三日，應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宿於正寢，致齋一日於祭所。凡散齋，治事如古，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致齋，唯行祭事。 前祭一日，工人竝集祭所。【凡預祭者，前祭一日，沐浴更衣。】 陳設：前祭一日，廟司率其屬，掃除廟之內外。 忠扈衛設諸祭官次，又設饌幔，皆於東門外，隨地之宜。前一日，掌牲令牽牲詣祭所，工人帥其屬，設樂於廟庭。 執禮設獻官位於東</p>

(掌牲令)이 생(牲)을 끌고 제소(祭所)에 나간다. 공인(工人)은 그 소속을 데리고 악(樂)을 묘정(廟庭)에 베푼다. 집례(執禮)는 헌관(獻官)의 자리를 동계(東階) 동남쪽에 서향하게 마련하고, 배제관(陪祭官)과 여러 집사(執事)의 자리를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마련하고, 모두 서향하게 하여 북쪽을 위로 하고, 감찰(監察)의 자리를 집사(執事)의 남쪽에 서향하게 마련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서 모시고, 집례(執禮)의 자리는 당(堂) 위 전영(前楹) 밖에 마련하고,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당 아래에 모두 동쪽 가까이 서향하게 마련하고, 헌관(獻官)이 음복(飲福)하는 자리를 당 위 전영 밖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게 마련한다. 묻는 웅덩이[瘞坎]를 사당 북쪽 임방(壬方)에 해당하는 땅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넉넉히 용납할 만큼 하고, 남쪽으로 계폐(階陛)에 나와서 망예(望瘞)의 자리를 묻는 웅덩이[瘞坎]의 남쪽에 마련한다. 헌관(獻官)은 남쪽에 있어 북향하고, 집례(執禮)·대축(大祝)·찬자(贊者)는 동쪽에 있어 서향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대축·찬자는 조금 물린다.】 알자(謁者)는 헌관을 인도하고 찬인(贊引)은 감찰을 인도하여, 모두 상복(常服) 차림으로 주방(廚房)에 나가서 척탁(滌濯)한 것을 보고 찬구(饌具)를 살피고, 생(牲)의 살 찌고 아니한 것을 보고 함께 재소(齋所)로 돌아온다. 신시(申時) 뒤에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생(牲)을 벤다. 【가죽째 삶아 익힌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축판(祝版)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놓아두고,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幣]를 준소(尊所)에 마련하고, 향로(香爐)·향합(香盒)과 축(燭)을 신위(神位) 앞에 마련하고, 다음에 제기(祭器)를 마련하여 찬구(饌具)를 채우는데, 변(籩) 여덟 개는 왼쪽에 있어 세 줄로 하여 오른쪽을 위로 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가 다음이고, 둘째 줄에는 건조(乾棗)가 앞에 있고, 율황(栗黃), 진자(榛子)가 다음이고, 셋째 줄에는 능인(菱仁)이 앞에 있고, 감인(芡仁), 녹포(鹿脯)가 그 다음이다.】 두(豆) 여덟 개는 오른쪽에 있어 세

階東南，西向；陪祭官及諸執事位於其後稍南，俱西向北上；設監察位於執事之南西向，書吏陪其後；設執禮位於堂上前楹外；謁者贊者贊引位於堂下，俱近東西向；設獻官飲福位於堂上前楹外，近東，西向；開瘞坎於廟之北壬地，方深取足容物，南出陛；設望瘞位於瘞坎之南，獻官在南北向，執禮大祝贊者，在東西向北上。 【大祝贊者稍却】謁者引獻官，贊引引監察，俱以常服詣廚，視滌濯省饌具，及視牲充臚，俱還齋所。晡後，典祀官帥宰人割牲。 【連皮煮熟】祭日未行事前，典祀官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坫】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籩八在左，爲三行右上；【第一行形鹽在前，魚次之。第二行乾棗在前，栗黃榛子次之。第三行菱仁在前，芡仁鹿醢次之。】豆八在右，爲三行左上。【第一行韭菹在前，醯醢次之。第二行菁菹在前，鹿醢芹菹次之。第三行兔醢在前，筍菹魚醢次之。】俎二，一在籩前，一在豆前。【籩前俎實羊腥七體，豆前俎實豕腥七體，皆有

줄로 하여 왼쪽을 위로 한다. 【첫째 줄에는 부추 김치가 앞에 있고, 담해(醢醢)가 다음이고, 둘째 줄에는 무 김치가 앞에 있고, 녹해(鹿醢)와 미나리 김치가 다음이고, 셋째 줄에는 토해(兔醢)가 앞에 있고, 죽순 김치와 어해(魚醢)가 다음이다. 】 조(俎)는 두개인데, 하나는 변(籩)의 앞에 있고 하나는 두(豆)의 앞에 있다. 【변(籩) 앞의 조(俎)에 채우는 것은 양성칠체(羊腥七體)이고, 두(豆) 앞의 조(俎)에 채우는 것은 시성칠체(豕腥七體)인데, 모두 생갑(牲匣)이 있다. 송(宋) 나라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있다 말하는 것은 모두 남쪽에 말함이다.’ 하였다. 】 보(簠)·궤(簋)가 각각 두 개인데 변(籩)과 두(豆) 사이에 있다. 보(簠)는 왼쪽에 있고 궤(簋)는 오른쪽에 있다. 【보는 벼와 수수를 채우는데, 수수는 벼의 앞에 있고, 궤는 기장과 피를 채우는데, 피가 기장의 앞에 있다. 】 작(爵)이 셋인데 보(簠)·궤(簋) 앞에 있다. 【각각 점(坫)이 있다. 】 상준(象尊)은 돌을 설치하는데, 【하나는 현주(玄酒)로 채워서 상준(上尊)으로 만들고, 하나는 청주(淸酒)로 채운다. 무릇 신(神)에 제사하는 물건은 당시에 없는 그때의 물건으로 대신한다. 】 당상(堂上)의 동남쪽 모퉁이에 북향하여 있게 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세(洗)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게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 뇌(罍)는 세(洗)의 동쪽에 있고, 작(勺)을 얹는 비(篚)는 세(洗)의 서남쪽 자리에 있다. 【건(巾)과 작(爵)으로 채운다. 】 여러 집사의 관세위(盥洗位)를 동남쪽에 설치하되 함께 북향하게 하고, 준(尊)·뇌(罍)·떡(饌)을 잡는 자의 자리를 준·뇌·비(篚)·떡(饌)의 뒤에 설치한다.

행례하는 제일(祭日) 축시(丑時) 전 오각(五刻) 【축시(丑時) 전 5각은 곧 삼경(三更) 삼점(三點)인데, 행사는 축시 1각을 한다.】 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찬구(饌具)를 채우기를 끝마치면 물러가 위차에 나간다. 찬인(贊引)이 감찰(監察)을 이끌고 동계(東階)로 올라와서, 【무릇 행사관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모두 동계로 한다. 】 당(堂)의 위아래를 살펴보고 의

牲匣。宋釋奠儀云：“凡言在前者，皆謂南也。” 簠簋各二在籩豆間，簠在左簋在右。 【簠實以稻粱，粱在稻前；簋實以黍稷，稷在黍前。】 爵三在簠簋前。 【各有坫】 設象尊二 【一實玄酒爲上尊，一實淸酒。 凡祭神之物當時所無者，以時物代之。】 在堂上東南隅，北向西上。 設洗於東階東南北向， 【盥洗在東，爵洗在西。】 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 【實以巾爵】 設諸執事盥洗位於東南，俱北向；設執尊罍饌者位於尊罍篚饌之後。 行禮：祭日丑前五刻， 【丑前五刻，卽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 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退就次，贊引引監察升自東階， 【凡行事官升降，皆自東階。】 按視堂之上下，糾察不如儀者還出。 前三刻，行事執事官及陪祭官，皆服武服。 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階間拜位， 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 工人入就位，贊引引陪祭官入就位。 前一刻，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入就階間拜位， 重行北向西上。 立定，執禮曰：“四拜。” 贊者傳喝， 【凡執禮有辭，贊者皆得喝。】

식(儀式)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을 규찰(糾察)하고 도로 나간다. 3각 전에 행사(行事) 집사관(執事官)과 배제관(陪祭官)이 모두 무복(武服)을 입는다.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먼저 섬돌 사이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서서 사배(四拜)하기를 끝마치고서 위차에 나간다. 공인(工人)이 들어와 위차에 나간다. 찬인이 배제관을 이끌고 들어와 위차에 나간다. 1각 전에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축사(祝史)·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 섬돌 사이의 배위에 나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선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말하면, 찬자가 전갈(傳喝)한다. 【무릇 집례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위차에 나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자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가서 관세(盥帨)를 끝마치고 각각 위차에 나간다. 재랑(齋郎)이 작세위(爵洗位)에 나가서 작(爵)을 씻어 작을 흠치기를 마치면, 비(篋)에 넣어서 준소(尊所)에 받들고 나가 점(坫) 위에 놓는다.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들어와 위차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면, 헌관과 배제관(陪祭官)이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가,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고 아뢰면, 집례가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라.’ 하고 말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가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면, 【손을 씻고 손을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풍악을 시작한다. 【간척무(干戚舞)를 춘다.】 찬(贊)하여 꿇어앉으면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함(香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며, 알자가 찬하여 세 번 향을 올리고서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놓는다. 대축(大祝)이 폐백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폐백을 잡아서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놓는다. 【봉향(奉香)과 수폐(授幣)는 모두 헌관(獻官)의 오른쪽에 있고, 전로(奠爐)와 전폐(奠幣)는 모두 헌관의 왼쪽에 있다.

監察以下皆四拜， 贊引引監察就位。 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 各就位。 齋郎詣爵洗位， 洗爵拭爵訖， 置於篋捧詣尊所， 置於坫上。 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 執禮曰：“四拜。” 獻官及陪祭官皆四拜。 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 執禮曰：“行奠幣禮。” 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 盥手帨手， 【盥手帨手， 不贊。】 引詣神位前北向立， 樂作【干戚舞】 贊跪， 執事者一人捧香合， 執事者一人捧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大祝以幣授獻官， 獻官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奠于神位前。 【捧香授幣， 皆在獻官之右， 奠爐奠幣， 皆在獻官之左。 授爵奠爵， 準此。】 謁者贊俯伏興平身， 樂止， 引降復位。 少頃， 執禮曰：“行初獻禮。” 謁者引獻官升詣尊所西向立， 樂作， 執尊者舉罍酌酒， 執事以爵受酒。 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俯伏興小退北向跪， 樂止， 大祝進神位之右， 東向跪讀祝文訖， 樂作， 謁者贊俯伏興

수작(授爵)과 전작(奠爵)도 여기에 준한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에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하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올라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게 선다. 풍악을 시작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떡(饗)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執事)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가서 북향하여 서서 찬하여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이 작을 잡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풍악을 그친다. 대축이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기를 끝나치면 풍악을 시작한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을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위차에 돌아온다. 간척무(干戚舞)가 물러가고 궁시무(弓矢舞)가 나아온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 하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올라가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풍악을 시작한다.【궁시무를 춘다.】 집준자(執尊者)가 떡(饗)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가 북향하여 서서 찬하여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을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위차에 돌아오면, 궁시무(弓矢舞)가 물러가고 창검무(槍劍舞)가 나온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하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올라가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풍악을 시작한다.【창검무를 춘다.】 행례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위차에 돌아온다. 집례가 ‘음복(飲福)하고 수조(受胙)하라.’ 하고 말하면, 집사자가 존소(尊所)에 나아가 작으로 복주(福酒)를 따르고, 또 집사자가 조(俎)를 가지고 나와서 신위 앞의 조육

平身，樂止，引降復位。干戚舞退，弓矢舞進。少頃，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獻官升詣尊所西向立，樂作【弓矢舞】執尊者舉饗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平身，樂止，引降復位。弓矢舞退，槍劍舞進。少頃，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獻官升詣尊所西向立，樂作【槍劍舞】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禮曰：“飲福受胙。”執事者詣尊所，以爵酌福酒，又執事者持俎進減神位前俎肉。謁者引獻官升詣飲福位西向立，謁者贊跪，執事者進獻官之左，北向以爵授獻官，獻官飲卒爵，執事者受虛爵復於坫。執事者北向以俎授獻官，獻官受俎，以授執事者，執事者受俎，降自東階出門。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執禮曰：“再拜。”在位者皆再拜。執禮曰：“徹籩豆。”大祝入徹籩豆。【徹者，籩豆各一少移於故處。】樂作【靖東方曲】徹訖，樂止執禮曰：“四拜。”獻官及陪祭官皆四拜。執禮曰：“望

(俎肉)을 덜어 놓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올라가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알자가 찬하여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가 북향하여 작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이 작을 다 마시면, 집사자가 빈 작을 받아서 점(坫)에 놓는다. 집사자가 북향하여 조(俎)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조(俎)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가 조를 받아서 동계(東階)로 내려와서 문을 나간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위차에 돌아온다. 집례가 ‘재배(再拜)하라.’ 말하면, 위차에 있는 자가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변(籩)·두(豆)를 거두라.’ 말하면, 대축이 들어와 변·두를 거둔다. 【거두는 자가 변·두 각각 한 개를 예전 있던 곳에서 조금씩 옮긴다.】 풍악을 시작한다. 【정동방곡(靖東方曲)이다.】 거두기를 끝나치면 풍악을 그친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면, 헌관과 배제관이 모두 사배한다. 집례가 ‘망예(望瘞)하라.’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대축이 비(篚)로 축판(祝版)과 폐백을 취하여 서계(西階)로 내려와서 구덩이에 놓는다. 집례가 ‘묻어도 좋다.’ 말하면, 구덩이 반쯤 흙을 메운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가, ‘예가 끝났습니다.’고 아뢰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본 위차에 돌아오고,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섬돌 사이의 배위(拜位)에 나가 서서 고정한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끝나치면 찬인이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배제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공인(工人)이 나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섬돌 사이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둔다. 행사 집사관은 헌관 【2품(品).】·전사관 【독소(蠹所)의 6품(品) 이상이다.】·집례 【무관 6품.】·대축 【무관 참외(參外).】·축사 두 사람 【참외.】·재량 두 사람 【참외.】·장생령(掌牲令) 【전구서(典廐署).】·알자 【참외.】·찬자 【참외.】·찬례(贊禮) 【참외.】·

瘞。” 謁者引獻官詣望瘞位北向立，執禮帥贊者詣望瘞位西向立。大祝以篚取祝版及幣，降自西階，置於坎。執禮曰：“可瘞。”(寘) [填] 土半坎，謁者詣獻官之左白禮畢，謁者引獻官出。執禮帥贊者還本位，贊引引監察及諸執事就階間拜位。立定，執禮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贊引引出。贊引引陪祭官以次出，工人出，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階間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徹禮饌。行事執事官：獻官、【二品】典祀官、【蠹所六品以上】執禮、【武官六品】大祝、【武官參外】祝史二、【參外】齋郎二、【參外】掌牲令、【典廐署】謁者、【參外】贊者、【參外】贊禮、【參外】監察。

	<p>감찰이다.” 하였다.</p>	
<p>7. 세종 89권, 22년 (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6월 29일 (기해) 4번째기사 예조에서 여제 의주를 지어 바치다</p>	<p>예조(禮曹)에서 여제 의주(厲祭儀注)를 지어 바치었는데, 【성황단(城隍壇)에서 발고(發告)하고, 북교단(北郊壇)에서 제사를 행한다.】 “시일이 되어 장차 제사지내려 하면 서운관(書雲觀)에서 봄에는 청명일(淸明日)로, 가을에는 7월 15일로, 겨울에는 10월 1일로 【모두 3일을 전기하여 성황(城隍)에 발고(發告)한다.】 예조(禮曹)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유사(攸司)에게 산고(散告)하여 직책에 따라 공판(供辦)하게 한다. 제계(齊戒)는 제사지내기 전에 사흘 동안 하는데, 행사에 응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2일 동안을 산재(散齋)하여 정침(正寢)에서 자고, 1일을 제소(祭所)에서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散齋)는 일 다스리는 것을 전과 같이 하고 오직 술을 마시지 않으며 파·부추·마늘을 먹지 않으며,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않으며, 풍악을 듣지 않으며, 형벌(刑罰)을 행하지 않으며, 형살(刑殺)하는 문서에 서명(署名)하지 않으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며, 치재(致齋)은 오직 제사를 행하는 일뿐인 것이다. 【무릇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는다.】 성황(城隍)에는 발고(發告)하기 하루 전에 충扈위(忠扈衛)가 여러 제관의 위치(位次)를 마련하고, 또 찬만(饌幔)을 설치하되 모두 동문(東門) 밖에 땅의 형편에 따른다.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성황좌(城隍座)를 단(壇) 위 북쪽에 남향하게 마련하고 완석(莞席)을 깔다. 헌관(獻官)의 자리를 단 아래 동남쪽에 서향하게 마련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서향하여 마련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감찰의 자리를 집사의 남쪽에 서향하여 마련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모시게 한다.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동계(東階) 서쪽에 서향하게 마련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예감(瘞坎)을 단의 북쪽 임방(壬方)의 땅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만큼으로 한다.</p>	<p>禮曹撰進厲祭儀注： 【發告城隍壇，行祭北郊壇。】 時日：將祭，書雲觀以春淸明日、秋七月十五日、冬十月一日 【竝前期三日，發告城隍。】 報禮曹。 禮曹啓聞，散告攸司，隨職供辦。 齋戒：前祭三日，應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宿於正寢，致齋一日於祭所。 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致齋，唯行祭事。 【凡預祭者，皆前二日，沐浴更衣。】 城隍發告：前一日，忠扈衛設諸祭官次，又設饌幔，皆於東門外，隨地之宜。 典祀官帥其屬，掃除壇之內外。 設城隍座於壇上北方南面，席以莞；設獻官位於壇下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西向北上；設監察位於執事之南，西向；書吏陪其後；謁者贊者贊引位於東階之西，西向北上；開瘞坎於壇之北壬地，方深取足(客) [容] 物。 祭日丑前五刻，【丑前五刻，卽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 典祀官帥其屬入，</p>

제사날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축시 전 5각은 곧 3경(更) 3점(點)이다. 행사는 축시 1각을 쓴다.】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축판(祝版)을 신위(神位) 오른쪽에 놓고, 【점(坫)이 있다.】 향로·향합과 축(燭)을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를 설치하고 찬구(饌具)를 채운다. 왼쪽에 변(邊)이 한 개이고 【황률(黃栗)로 채운다.】 오른쪽에 두(豆)가 한 개이다. 【녹해(鹿醢)로 채운다.】 작(爵)은 한 개인데 변(邊)과 두(豆) 사이에 있다. 【점이 있다.】 상준(象尊) 두 개를 설치하되, 【하나는 현주(玄酒)로 채워 상준(上尊)으로 하고, 하나는 청주(淸酒)로 채운다.】 단(壇) 위 동남쪽 모퉁이에 북향하여 있게 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세(洗)는 남쪽 계폐(階陛)의 동남쪽에 북향하게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뇌(壘)는 세(洗) 동쪽에 있고 작(勺)을 얹는 비(篚)는 세(洗)의 서남쪽 자리에 있는데, 건(巾)과 작(爵)을 담고, 점(坫)이 있다. 진설이 끝나면 전사관이 물러나서 위차에 나가 자기 옷을 갈아입고 올라가 신위판을 신좌(神坐)에 설치한다. 3각 전에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가 각각 그 제복을 입는다.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은 동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단 남쪽 배위(拜位)에 나가,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서서 사배하기를 마치고서 위차에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 이하를 인도하여 함께 동문 바깥 위차에 나아간다. 1각 전에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각각 위차에 나아간다. 재랑(齋郎)이 작세위(爵洗位)에 나가서 작(爵)을 씻어 수건으로 훑쳐서 비(篚)에 넣어 받들어 가지고 준소(尊所)에 나가 점(坫) 위에 놓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위차에 나가 서향하여 선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고 말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가 행사하기를 찬(贊)하여 청하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가 북향하여 서면, 찬하여 홀(笏)을 꺾고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고,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 찬하여 홀을 잡고 인도하여 단에 나가 남쪽 계폐(階陛)로 올라가 신위 앞에 나가 북향하여 선다. 찬

奠祝版於神位之右, 【有坫】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左一邊, 【實以黃栗】 右一豆。【實以鹿醢】 爵一在邊豆間, 【有坫】 象尊二 【一實玄酒爲上尊一實淸酒。】 在壇上東南隅, 北向西上。設洗於南陛東南, 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 壘在洗東加勺, 篚在洗西南肆, 實以巾爵。【有坫】 設訖, 典祀官退就次, 服其服升, 設神位版於座前。三刻, 獻官及諸執事各服其服。謁者贊者贊引入自東門, 先就壇南拜位, 北向西上四拜訖就位; 謁者引獻官以下俱就東門外位。前一刻, 贊引引監察及諸執事各就位, 齋郎詣爵洗位, 洗爵拭爵訖, 置於篚捧詣尊所, 置於坫上。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 贊者曰: “四拜。” 獻官四拜。謁者進獻官之左, 贊請行事。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 贊搯笏。盥手悅手, 【盥手悅手不贊】 贊執笏, 引詣壇升自南陛, 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執事者一人捧香合, 執事者一人捧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凡捧香在獻官之右, 奠爐獻官之左。授

하여 꿇어앉고 흠을 씻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香盞)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든다. 알자가 찬하여 세 번 향을 올리는데,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놓는다. 【대개 봉향(捧香)은 헌관의 오른쪽에 있고, 진로(奠爐)는 헌관의 왼쪽에 있다. 수작(授爵) 전작(奠爵)도 여기에 준한다.】 알자가 찬하여 흠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인도하여 내려와 위치에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라.’ 하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쪽 계폐로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가 서향하여 선다. 집존자(執尊者)가 떡(羶)을 들고 술을 따르고,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가 북향하여 서면, 찬하여 꿇어앉아 흠을 씻는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놓게 한다. 알자가 찬하여 흠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가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기를 마치면,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인도하여 내려와 위치에 돌아온다. 찬자가 ‘변두를 거두라.’고 말하면, 대축이 나가서 변두를 거두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고 말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가 ‘예가 끝났습니다.’고 아뢰고,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단 남쪽 배위(拜位)에 나가 서서 고정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고 말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찬자·찬인이 단 남쪽 배위에 나가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신위관을 간직하고 예찬(禮饌)을 거두어 가지고 내려가서 물러간다. 축관은 구덩이에 묻는다. 북교(北郊)의 진설(陳設)은 제사 하루 전에 충호위(忠扈衛)가 여러 제관의 위치를 마련하고, 또 찬만(饌幔)을 베풀되 모두 동문 밖에 땅의 형편에 따라 한다.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헌관의 자리를 단 아래 동남에

爵奠爵，準此。】 謁者贊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少頃，贊者曰：“行酌獻禮。” 謁者引獻官升自南陛，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羶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摺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少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贊者曰：“徹籩豆。” 大祝進徹籩豆如式。贊者曰：“四拜。” 獻官四拜。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引獻官出。贊引引監察及諸執事，就壇南拜位。立定，贊者曰：“四拜。” 監察以下皆四拜，謁者以次引出。謁者贊者贊引就壇南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藏神位版，徹禮饌以降乃退。祝版瘞於坎北郊。陳設：前祭一日，忠扈衛設諸祭官次，又設饌幔，皆於東門外，隨地之宜。典祀官帥其屬掃除壇之內外，設獻官位於壇下東南，西向；【無祀鬼神獻官位，稍却。】 執事者位於其後，俱西向北上；設監察位於執事之南南向，書吏陪其後；謁者贊者贊引位於獻官西

서향하게 마련하고, 【무사귀신(無祀鬼神) 헌관의 위치는 조금 물린다.】 집사자의 위치는 그 뒤에 마련하되, 모두 서향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집사의 남쪽에 서향하게 마련하고, 서리는 그 뒤에 모신다.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는 헌관의 서남쪽에 서향하게 마련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모두 평상복으로 주방(廚房)에 나가 척탁(滌濯)한 것을 보고 찬구를 살피고, 생(牲)의 살찌고 실찌지 아니한 것을 보고 함께 재소(齋所)에 돌아온다. 신시(申時) 뒤에 전사관이 재인(宰人)3148) 을 거느리고 생(牲)을 본다. 【가족째 삶아 익힌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성황신(城隍神)의 자리를 단 위 북방에 남향하게 마련하고 완석(莞席)으로 깐다. 향로·향합과 축(燭)을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를 설치하여 찬구를 세운다. 변(籩) 네 개는 왼쪽에 있어 두 줄로 하여 오른쪽을 위로 하고, 【첫째 줄은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건조(乾棗)가 다음이며, 둘째 줄은 울황(栗黃)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가 다음에 있다.】 두(豆) 네 개는 오른쪽에 있어 두 줄로 하여 왼쪽을 위로 한다. 【첫째 줄은 부추 김치가 앞에 있고 담해(醢醢)가 다음이며, 둘째 줄은 무 김치가 앞에 있고 녹해(鹿醢)가 다음이다.】 조(俎)는 두 개인데 하나는 변의 앞에 있고, 하나는 두의 앞에 있다. 【변 앞의 조는 양성(羊腥)으로 채우고, 두 앞의 조는 시성(豕腥)으로 채운다.】 보(籩)·궤(簋)는 각각 두 개인데 변과 두 사이에 있다. 보는 좌편에 있고 궤는 우편에 있다. 【보는 벼와 수수로 채우는데 수수가 벼 앞에 있고, 궤는 기장과 피로 채우는데 피가 기장의 앞에 있다.】 형(鉶)은 하나인데 보·궤의 뒤에 있고, 【화羹(和羹)으로 채우고 모활(芼滑)을 가한다.】 작(爵)은 셋인데, 보·궤의 앞에 있다. 【각각 점(坩)이 있다.】 상준(象尊) 두 개를 설치하되, 【한 개는 현주(玄酒)를 담아 상준(上尊)으로 하고, 하나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단(壇) 위 동남쪽 모퉁이에 있어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또 무사귀신패(無祀鬼神牌)를 단 아래 좌우에

南, 西向北上。 謁者引獻官, 贊引引監察, 俱以常服詣廚, 視滌濯省饌具及視牲充臚, 俱還齋所。 哺後, 典祀官帥宰人割牲。 【連皮煮熟】 祭日未行事前, 典祀官帥其屬, 設城隍神座於壇上北方南向, 席以莞;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籩四在左, 爲二行右上; 【第一行形鹽在前, 乾棗次之。 第二行栗黃在前, 魚次之。】 豆四在右, 爲二行左上。 【第一行韭菹在前, 醢醢次之。 第二行菁菹在前, 鹿醢次之。】 俎二一在籩前, 一在豆前。 【籩前俎實以羊腥, 豆前俎實以豕腥。】 籩簋各二在籩豆之間, 籩在左, 簋在右。 【籩實以稻粱, 粱在稻前。 簋實以黍稷, 稷在黍前。】 鉶一在籩簋後, 【實以和羹, 加芼滑。】 爵三在籩簋前。 【各有坩】 設象尊二 【一實玄酒爲上尊, 一實淸酒。】 在壇上東南隅, 北向西北上。 又設無祀鬼神牌於壇下左右, 席皆以莞; 【遭兵刃而橫傷者、死於水火盜賊者、被人取財而逼死者、被人強奪妻妾而死者、遭刑禍而負屈死者、天災流行而疾死者在左西向, 爲猛獸毒

설치(設置)하되, 모두 완석(莞席)을 깔다. 【칼에 맞아 횡사한 자, 수화(水火)도적에 죽은 자, 남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핍박되어 죽은 자, 남에게 처첩을 강탈당하고 죽은 자, 형화(刑禍)를 만나서 억울하게 죽은 자, 천재(天災)가 유행하여 역길에 죽은 자는 좌편에 있어 서향하고, 맹수와 독충에게 해를 당한 자, 굶주리고 일어 죽은 자, 전투로 인하여 죽은 자, 위급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 담[墻]이 무너져서 압사(壓死)한 자, 죽은 뒤에 자손이 없는 자는 우편에 있어 동향한다.】 제기(祭器)를 설치하는데 매 위(位)마다 증반(蒸飯) 한 그릇을 놓고, 【벼로 채운다.】 조(俎) 두 개는 반(飯)과 갡(羹) 앞에 있고, 【양과 돼지를 썰어서 목반(木盤)에 담는다.】 갡(羹)은 한 그릇이고, 【화갱으로 채운다.】 잔(盞)은 셋인데, 조(俎) 앞에 있다. 술병을 앞에 베풀고 제문(祭文) 【제문은 곧 교서(敎書)이다.】 안(案)을 단 아래 중앙에 설치한다. 세(洗)는 단 아래 동남에 북향하게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뇌(鬯)는 세(洗)의 동쪽에 있고, 작(勺)을 얹은 비(篚)는 세의 서남쪽 자리에 있는데, 건(巾)과 작(爵)으로 채운다. 또 무사귀신(無祀鬼神) 헌관의 세위(洗位)를 신위 남쪽에 북향하게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관세위(盥洗位)를 동남쪽에 베풀되, 모두 북향한다. 준(尊)·뇌(鬯)·비(篚)·떡(饌)을 잡은 자의 자리는 준·뇌·비·떡의 뒤에 설치한다.

행례는 제삿날 축시(丑時) 전 5각에 【축시 전 5각은 곧 3경 3점이다. 행사는 축시 전 1각을 쓴다.】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찬구를 채우기를 끝내면, 물러가 자리에 나가 자기의 옷을 입고 올라와 성황신 위판과 무사귀신 위판을 신좌(神座)에 설치한다. 3각 전에 행사 집사관이 각각 그 제복을 입는다. 알자·찬자·찬인이 먼저 단 남쪽의 배위에 나가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서서 사배하기를 끝마치고서 자리에 나간다. 1각 전에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간다. 집사자가 작세위(爵洗位)에 나가 작을 씻어 수건으로 훔친 뒤에, 광우리에 넣어서 받들어 가지고 성황 준소(尊

蟲所害者、爲飢餓凍死者、因戰鬪而隕身者、因危急而自縊(苦) [者]、因墻屋傾頽而壓死者、死後無子孫者在右東向。】 設祭器：每位蒸飯一盆，【實以稻】 俎二在飯羹前。【羊豕解置盛於木盤】 羹一器 【實以和羹】 盞三在俎前，設酒瓶於前。設祭文 【祭文，卽敎書。】 案於壇下居中，設洗於壇下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 鬯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爵。又設無祀鬼神獻官洗於神位之南，北向；設諸執事盥洗位於東南，俱北向；執尊鬯篚饌者位於尊鬯篚饌之後。 行禮：祭日丑前五(列) [刻]，【丑前五刻，卽三更三點。 行事用丑前一刻。】 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退就次服其服升，設城隍神位版及無祀鬼神版於座。前三刻，行事執事官各服其服，謁者贊者贊引先就壇南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前一刻，贊引引監察及諸執事各就位，執事者詣爵洗位，洗爵拭爵訖，置於篚捧詣城隍尊所，置於坩上。又執事者洗盞，分置於無祀鬼神位前。謁者引獻官，贊引引無祀鬼神獻官入就

所)에 나가 점(坫) 위에 놓는다. 또 집사자가 잔을 씻어 무사귀신 위 앞에 나누어 놓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무사귀신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가 서향하여 선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고 말하면, 헌관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가,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를 청합니다.’고 아뢰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가 북향하여 선다. 찬(贊)하여 홀(笏)을 깨끗고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찬하여 홀을 잡고 인도하여 단에 나가 남쪽 계폐(階陞)로 올라 성황신 위 앞에 나가 북향하여 선다. 찬하여 꿇어앉아 홀을 깨끗고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찬하여 세 번 향을 올리는데,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찬하여 홀로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위치에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초헌례를 행하라.’ 하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쪽 계폐로 올라가 성황 준소에 나가 서향하여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먹(罍)을 들고 술을 따르는데,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가 북향하여 선다. 찬하여 꿇어앉아 홀을 깨끗고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놓는다. 찬하여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에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아헌례를 행하라.’ 하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올라가 성황 준소에 나가 서향하여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먹(罍)을 들고 술을 따르는데,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가서 북향하여 선다. 찬하여 꿇어앉아 홀을 깨끗고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인도하여 내려와 위치에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종헌례를 행하라.’ 하고 말

位西向立。贊者曰：“四拜。”獻官以下皆四拜。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挽手，【盥手挽手，不贊。】贊執笏，引詣壇升自南陛，詣城隍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一人捧香合，執事者一人捧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少頃，贊者曰：“行初獻禮。”謁者引獻官升自南陛，詣城隍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少頃，贊者曰：“行亞獻禮。”謁者引獻官升詣城隍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少頃，贊者曰：“行終獻禮。”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初，終獻官既升，贊引引無祀鬼神獻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례와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위차에 돌아온다. 초헌관·중헌관이 이미 올라올 때, 찬이 무사귀신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가 홀을 꽂고 손을 씻고 수건질을 하고나서 홀을 잡고 준소에 나간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헌관이 무사귀신 위 앞에 나가 선다.【좌편이면 동향하고, 우편이면 서향한다.】찬인이 찬하여 홀을 잡는다. 집사자가 잔을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연하여 석 잔을 드린다.】차례로 잔을 드리기를 다하면 찬인이 찬하여 홀을 잡고 인도하여 단(壇) 가운데 나가 북향하여 선다. 대축(大祝)이 제문을 취하여 무사귀신 헌관의 왼쪽에 나가 동향하여 서서 읽기를 끝마치면, 찬인이 인도하여 위차에 돌아간다. 찬자가 ‘변두를 거두라.’고 말하면, 대축이 나와서 변·두를 걷는다.【걷는다는[徹] 것은 변·두를 각각 하나씩을 조금씩 예전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다.】찬자가 ‘사배하라.’하고 말하면, 헌관으로서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사배한다. 대축이 제문을 태우기를 끝마치면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예가 끝났다고 아뢴다. 알자·찬인이 각각 헌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단의 남쪽 배위(拜位)에 나가 서서 고정한다. 찬자가 ‘사배하라.’하고 말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하기를 끝마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찬자·찬인이 단 남쪽 배위에 나가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성황신 위판과 무사귀신 위패를 간직하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물러간다. 행사 집사관은 헌관【한성부(漢城府) 당상(堂上).】·무사귀신 헌관【한성부 소윤(小尹).】·전사관【한성부 판관(判官) 이하.】·대축【명신의 참외.】·축사 두 사람【참외.】·재량 두 사람【참외.】·알자【참외.】·찬자【참외.】·찬인【참외.】·감찰 이다.” 하였다.

官，詣盥洗位，搯笏盥手，執笏，執笏詣尊所，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獻官詣無祀鬼神位前立，【左則東向，右則西向。】贊引贊執笏，執事者授盞，獻官執盞奠盞，【連奠三盞】以次奠訖，贊引贊執(勿)〔笏〕，引詣壇中北向立。大祝取祭文進無(祝)〔祀〕鬼神獻官之左，東向立讀訖，贊引引復位。贊者曰：“徹籩豆。”大祝進徹籩豆。【徹者，籩豆各一，小移於故處。】贊者曰：“四拜。”獻官在位者皆四拜。大祝焚祭文訖，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謁者贊引各引獻官以次出。贊引引監察及諸執事就壇南拜位。立定，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贊引以次引出。謁者贊者贊引就壇南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藏城隍神位版及無祀鬼神牌，徹禮饌乃退。行事執事官：獻官、【漢城府堂上。】無祀鬼神獻官、【漢城府小尹。】典祀官、【漢城府判官以下。】大祝、【文臣參外】祝史二、【參外】齋郎二、【參外】謁者、【參外】贊者【參外】贊引【參外】監察。

<p>8. 세종 91권, 22년 (1440 경신 / 명 정통 (正統) 5년) 11월 22일(신유) 2번째기사 승정원에서 혜민국·전 의감 외의 청심원 제작 금지를 건의하다</p>	<p>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대체로 약(藥)을 써서 병을 다스리는 법은 증상에 따라 투약(投藥)하여야 그 효과를 얻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병의 근원은 살피지 아니하고, 만일에 급한 병을 앓게 되면 모두가 청심원(淸心圓)을 쓰니, 용약(用藥)하는 법에 어긋남이 있고, 또 청심원은 오로지 풍증을 주로 하는데 구급(救急)에 쓰니 오래 복용함은 불가합니다. 근래에 의정부·육조·승정원·의금부 등 각사(各司)에서 해마다 제작(劑作)하여 집집마다 그것을 간직하니, 병 앓는 집이 인연을 따라 구해 씁니다. 이 때문에 혜민국(惠民局)·전의감(典醫監)에서 이것을 사는 사람이 매우 적어져서, 일년에 만든 것도 다 팔리지 않아 오래 묵어 못쓰옵는데, 만일 용뇌(龍腦)를 얻지 못하게 되면 소뇌(小腦)를 사용하여 약을 만드니, 특히 약성(藥性)을 잃게 되어 해(害)는 있을지언정 이익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황금(黃金)은 본국에 드문 것으로, 쓸데없는 데에다 허비함은 매우 온당치 못하옵니다. 또 소합원(蘇合圓)·보명단(保命丹)도 귀한 약이오나, 경중과 외방의 각처(各處)에서 경이(輕易)하게 제조(劑造)할 뿐만 아니라, 시정(市井)의 무리들까지도 정미롭지 못하게 제조하여 이익을 보오니 또한 온당치 못하옵니다. 더군다나 소합원의 방문 안에는 흑 용뇌(龍腦)를 쓰든가 흑은 사향(麝香)을 쓰게 하였는데, 지금 각처에서 용뇌를 얻지 못하면 소뇌를 사용하여 약을 만드오매, 본방(本方)에 어긋나 도리어 유해(有害)하오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경중과 외방의 공사(公私) 각처에서 청심원의 제작(劑作)을 일절 금단하게 하소서. 혜민국·전의감의 제작을 더하여 그 값을 헤아려 요량하여 가감하면, 대소의 병 앓는 집에서 모두 다 사서 쓸 것이며, 소합원·보명단으로 말하면, 자리공의 뿌리[菟]와 용뇌가 아니면 소뇌는 쓰지 말고 모름지기 사향(麝香)을 쓰게 하시되, 경중의 전의감·혜민국·의정부·육조 등과 외방의 감사(監司) 이외는 일절 사제(私劑)함을 금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承政院啓: “凡用藥治病之法, 隨證投藥, 乃得其効。 世人不察病根, 若患急病, 則皆用淸心圓, 有違用藥之法。 且淸心圓, 專主風証, 而用於救急, 不可長服。 近來議政府六曹承政院義禁府等各司年年劑作, 家家蓄之, 病家因緣求用。 因此乃於惠民局典醫監, 買之者甚少, 一年所劑, 未畢和賣, 陳久不用。 若未得龍腦, 則用小腦劑之, 殊失藥性, 有害無益, 而況黃金, 本國所罕, 費於無用, 甚爲未便。 且蘇合圓保命丹, 亦是貴藥。 京外各處, 非徒輕易劑造, 至於市井之輩, 不精劑造見利, 亦爲未便。 又況蘇合圓方內, 或用龍腦, 或用麝香, 今各處未得龍腦, 則用小腦劑之, 有違本方, 反爲有害。 請自今京外公私各處淸心圓劑作, 一皆禁斷, 加惠民典醫監劑數。 其價酌量差減, 大小病家, 竝皆買用蘇合圓保命丹, 則若未(覓) [覓] 龍腦, 勿用小腦, 須用麝香。 京中典醫監惠民局議政府六曹、外方監司外, 一禁私劑。” 從之。</p>
--	---	--

<p>9. 세종 92권, 23년 (1441 신유 / 명 정통 (正統) 6년) 4월 28일 (갑오) 1번째기사 도승지 조서장이 육선 할 것을 청하다</p>	<p>임금이 환조(桓祖)의 기제(忌祭)이므로 소선(素膳)을 드시니, 도승지 조서장(趙瑞康) 등이 아뢰기를, “온천에서 목욕하신 뒤오라 기체(氣體)가 평상시와 같지 아니하오니, 청하건대 육선(肉膳)을 드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질병도 없는데 어찌 고기를 먹겠느냐.” 하였으나, 조서장 등이 재청하므로 곧 허락하였다.</p>	<p>甲午/上以桓祖忌御素膳。 都承旨趙瑞康等啓：“浴後氣體必不如常，請進肉膳。” 上曰：“予無疾病，何必食肉？” 瑞康等再請，乃許之。</p>
<p>출처</p>	<p>내용</p>	<p>원문</p>
<p>1. 世宗 93卷, 23年 (1441 辛酉 / 명 정통 (正統) 6年) 7月 29日 (癸亥) 1번째기사 왕세자빈의 복(服)이 끝났어도 고기를 들지 않다</p>	<p>임금이 소대(素帶)를 제(除)하였다. 좌승지(左承旨) 민신(閔伸) 등이 아뢰기를, “세자빈(世子嬪)의 복(服)이 이미 끝났사옵고, 또 더운 때를 당하여 오랫동안 소찬[素膳]을 진어(進御)하셨사오니, 육찬[肉膳]을 진어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복(服)이 없는 사람이라도 간혹 인정(人情)으로 인연하여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하거든, 하물며 빈(嬪)의 복(服)입는 기간이 20일이라고 예문(禮文)에 명재(明載)되어있다. 그런데 우선 권도(權道)를 따라 5일 만에 해제한 것이다. 또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 감히 고기를 먹겠는가.” 하므로, 재차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p>	<p>癸亥/上除素帶。 左承旨閔伸等啓：“世子嬪服已盡，且當熱時，久御素膳，請進肉膳。” 上曰：“雖無服之人，或有緣人情而不忍食肉，況嬪服二十日，明載禮文？姑從權典，五日而除。且予無疾，豈敢食肉？” 再請，不允。</p>
<p>2. 세종 93권, 23년 (1441 신유 / 명 정통 (正統) 6년) 7월 30일 (갑자) 2번째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간청하고 영의정 황희 등이 간청하여 고기를 들다</p>	<p>의정부와 육조(六曹)에서 아뢰기를, “어제 육선(肉膳)을 권(勸)하옵다가 윤택하심을 받지 못하였사운데, 신 등은 생각하옵기를, 이제 한창 혹독한 더위에 오랫동안 소선(素膳)을 진어(進御)하셨다고 여겨지옵니다. 청하옵건대 육선을 진어하시어 신 등의 바람에 합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비록 소대(素帶)를 제(除)하였다 하더라도, 일수(日數)는 불가불 마쳐야 하겠다. 빈(嬪)이 동궁(東宮)의 배필이 된 뒤로부터 한 가지 일의 잘못도 보지 못하여, 정(情)과 사랑이 더욱 두터웠는데, 내가 어찌 급하게 차마 고기를 먹</p>	<p>議政府六曹啓：“昨勸肉膳，未蒙俞允。 臣等以爲今方酷熱，久御素膳，請進肉膳，以副臣等之望。” 上曰：“今雖除素帶，日數不可不終。 嬪自配東宮，未見一事差誤，情愛尤篤，予何遽忍食肉？” 喜等曰：“今聞上教，心甚感動。 然連值國忌，又當熱時，久御素膳，慮恐上體因此違和。” 上曰：“卿等懇請，予當過十日乃食。” 領議</p>

	<p>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황희(黃喜) 등이 아뢰기를, “이제 상교(上敎)를 듣자오니 마음에 매우 감동됩니다. 그러하오나 잇달아 국기(國忌)를 당하였고, 또 더운 때를 당하였사온데, 오랫동안 소선(素膳)을 진어(進御)하시오면 상체(上體)3300)가 이로 인하여 병환이 나실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경 등이 간절하게 청하니, 내가 마땅히 10일이 지난 뒤에 먹겠다.” 하였다. 영의정 황희 등이 또 아뢰기를, “옛날에는 천자(天子)나 제후(諸侯)는 본래 복제(服制)가 없었사온데, 후세에서 복제가 제정된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나 10일로 기한을 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바이옵니다. 이제 7일이 지났사오니 비록 육선을 진어하신다 하여도 어찌 성덕(聖德)에 해되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이에 허락하였다.</p>	<p>政黃喜等又啓曰：“古者天子諸侯，本無服制，而後世制爲服制。然十日定限，無所據依。今已經七日，雖御肉膳，何損聖德？”上乃許之。</p>
<p>3. 세종 93권, 23년 (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9월 14일 (정미) 2번째기사 예조에서 현덕빈(顯德嬪)의 사시(賜諡) 및 상장(喪葬)에 관한 의주를 아뢰다</p>	<p>예조에서 현덕빈(顯德嬪)의 사시(賜諡) 및 상장(喪葬)에 대한 여러가지 의주(儀注)를 아뢰기를, “시호(諡號)를 내리는 의식. 하루 전에 충扈위(忠扈衛)가 임시로 책(冊)과 인(印)을 모셔 둘 악차(幄次)를 빈궁(殯宮) 문밖에 남향(南向)하여 설치하고, 사자(使者)의 장막[次]은 책(冊)·인(印)의 악차의 남쪽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책안(冊案)·인안(印案)은 빈궁 월대(月臺) 위에 설치하되, 동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한다. 사자의 자리[位]를 책안·인안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상주(喪主)가 대신하여 책·인을 받는 자리를 책안 앞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상주가 설 자리[立位]를 동계(東階) 아래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상주의 배위(拜位)를 뜰 가운데[庭中]에 북향하여 설치한다.</p>	<p>禮曹啓顯德嬪賜諡及喪葬諸儀注： 賜諡儀：前一日，忠扈衛設權安冊印幄次於殯宮門外，南向；設使者次於冊印幄之南，隨地之宜；設冊印案于殯宮月臺上東北，南向；設使者位于冊印案之東，西向；設喪主代受冊印位於冊案前，北向；設喪主立位於東階下，西向；設喪主拜位于庭中北向。其日，有司陳冊印樓于勤政門外，設鹵簿于弘禮門。【小駕儀仗】有司奉冊函印盞入內。【冊印案，置於思政殿門外。】</p>

그날에 유사(有司)가 책·인의 누자(樓子)를 근정문(勤政門) 밖에 베풀어 놓고, 노부(鹵簿)를 【소가(小駕)의 의장(儀仗).】 홍례문(弘禮門) 밖에 설치한다. 유사가 책함(冊函)과 인록(印蠡)3328) 을 받들고 안으로 들어오고, 【책안·인안은 사정전(思政殿) 문밖에 놓아둔다.】 사자(使者)와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이 모두 상복(常服) 차림으로 예궐(詣闕)하여, 근정전 뜰에 들어와 길 동쪽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승지(承旨)가 사정문(思政門)에 나아가 시책(諡冊)·시인(諡印)을 받들어 집사자에게 【내시 별감(內侍別監).】 주면, 집사자가 꿇어앉아 받아서 책안과 인안에 놓고, 【안(案)마다 두 사람이 마주 든다.】 근정전 동쪽 가[東邊]로 해서 사자의 동북쪽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서, ‘교지(教旨)가 있다.’ 한다. 통찬(通贊)이 ‘꿇어앉으라.’고 찬(贊)하여, 사자가 꿇어앉으면, 승지가 교지를 전하여 말하기를, ‘왕세자빈 권씨의 시책(諡冊)과 시인(諡印)을 내리는데, 경(卿)에게 명하여 예를 실시[展禮]하게 한다.’ 한다. 선포가 끝나면, 집사자가 책안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지의 남쪽에 서되, 조금 물러나서 함께 서향한다. 승지가 책함(冊函)을 취(取)하여 서향하고 사자에게 주면, 사자가 이를 받아 봉책관(奉冊官)에게 준다. 집사자가 인안(印案)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지의 남쪽에 서면, 승지가 인록(印蠡)을 취(取)하여 서향하고 사자에게 주면, 사자가 이를 받아 봉인관(奉印官)에게 준다. 【내시 집사자(內侍執事者)가 각기 책안과 인안을 행사 집사자에게 주고, 책안과 인안을 든 자는 물러간다.】 책안과 인안을 든 자가 봉책관과 봉인관의 뒤에 선다. 사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봉책관과 봉인관이 앞서 가[前行]서 【책안과 인안을 든 자가 이를 따른다.】 근정문 동편문(東偏門)으로 해서 나가고, 사자가 이를 수행(隨行)한다.

근정문 밖에 이르러 누자(樓子)에다 책함과 인록을 싣고 행(行)하여 홍례문 밖에 이르면, 노부(鹵簿)가 앞서 인도[前導]하여 빈궁(殯宮) 문밖 악차(輅次)에 이르러 임시로 안상(案上)에 봉안한다. 장차자(掌次者)가 사자를 인도하여

使者及行事執事官，竝常服詣闕，入就勤政殿庭道東北向立。承旨詣思政門，奉諡冊諡印授執事者，【內侍別監】執事者跪受，置于冊印案，【每案二人對舉】由勤政殿東邊，詣使者東北西向立，稱有旨。通贊贊跪，使者跪，承旨宣旨曰：“賜王世子嬪權氏諡冊諡印，命卿展禮。”宣訖，執事者以冊案進，立於承旨之南小退，俱西向。承旨取冊函，西向授使者，使者受，以授奉冊官。執事者以印案進立於承旨之南，承旨取印蠡西向授使者，使者〔受〕，以授奉印官。【內侍執事者，各以冊印案授行事舉冊印案者，退。】舉冊印案者立於奉冊印官之後，使者俯伏興平身，奉冊印官前行，【舉冊印案者隨之】由勤政門東偏門出，使者隨行至勤政門外，以樓子載冊函印蠡而行，至弘禮門外。鹵簿前導，至殯宮門外輅次，權安於案上。掌次者引使者就次，司儀引喪主就東階下立，使者出次，立於門西東向。奉冊官奉冊函，奉印官奉印蠡立於使者之北，俱東向；舉冊印案者立於奉冊印官之後。司儀入告，喪主去杖免經，司儀引喪主出迎

장막[次]에 나아가고, 사의(司儀)가 상주(喪主)를 인도하여 동계(東階) 아래에 나아가 서면, 사자가 장막에서 나와 문(門)의 서쪽에 동향하여 서고, 봉책관이 책함을 받들고, 봉인관이 인록을 받들고 사자의 북쪽에 서되, 모두 동향한다. 책안·인안을 든 자는 봉책관과 봉인관의 뒤에 선다. 사의가 들어가서 고(告)하면, 상주(喪主)가 상장(喪杖)을 버리고 질(絰)을 벗는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문밖으로 나와 맞이한다. 【서쪽에서 동향한다.】 사의가 사자를 인도하여 들어가는데, 봉책관과 봉인관이 먼저 가고, 안(案)을 가진 자가 이를 따라 올라가서 월대 위의 동쪽에 놓되, 북쪽으로 가까이 남향하여 놓는다. 사자는 그 동쪽에 서향하여 서고, 봉책관과 봉인관 및 안(案)을 든 자는 사자의 뒤에 서되, 조금 남쪽으로 서향하여 선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면, 사의가 ‘궁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이라 찬(贊)하여, 상주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평신한다. 사자가 ‘교지가 있다.’고 말하면, 사의가 ‘꿇어앉으라.’고 찬하여, 상주가 꿇어앉는다. 사자가 교지를 선포하기를, ‘시책(諡冊)과 시인(諡印)을 하사한다.’ 한다. 선포가 끝나면, 사의가 ‘부복(俯伏), 흥(興),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이라 찬하여, 상주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들어가, 대신하여 책·인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꿇어앉으면, 사자가 책함(冊函)을 취(取)하여 상주에게 준다. 상주가 책함을 받으면, 책안(冊案)을 드는 자[舉冊案者]가 책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영좌(靈座) 앞에 놓는다. 상주가 책함을 꿇어앉아 영좌 앞에 놓고, 상주가 돌아와 대신하여 책·인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꿇어앉으면, 사자가 인록을 취하여 상주에게 준다. 상주가 인록을 받으면, 인안을 드는 자[舉印案者]가 인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영좌 앞에 놓는다. 상주가 인록을 꿇어앉아 영좌 앞에 놓고 내려와서 동계(東階) 아래에 서면, 사의가 사자를 인도하여 나

於門外。 【在西東向】 司儀引使者入，奉冊印官先行，持案者從之，升置於月臺上東近北，南向。 使者立於其東，西向；奉冊印官及舉案者立於使者之後稍南，西向。 司儀引喪主就拜位北向，司儀贊鞠躬四拜興平身，喪主鞠躬四拜興平身。 使者稱有旨，司儀贊跪，喪主跪，使者宣旨曰：“賜諡冊印。” 宣訖，司儀贊俯伏興四拜興平身，喪主俯伏興四拜興平身。 司儀引喪主升自西階，入就代受冊印位跪，使者取冊函授喪主，喪主受冊函，舉冊案者進，舉冊案跪奠于靈座前，喪主以冊函跪奠于靈座前。 喪主還就代受冊印位跪，使者取印盞授喪主，喪主受印盞，舉印案者進，舉印案跪奠于靈座前，喪主以印盞跪奠于靈座前，降立於東階下。 司儀引使者出，喪主送于門外。 使者還，司儀引喪主，絰杖而入。 使一 【正二品】 奉冊官一 【參外】 奉印官一 【參外】 舉冊案者一 【參外】 舉印案者一 【參外】 通贊一 【通禮門】 司儀一 【參外】

	<p>가는데, 상주가 문밖까지 전송한다. 사자가 돌아가면,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질(經)을 띄고 상장(喪杖)을 짊고 들어온다. 사(使) 1인【정2품.】, 봉책관(奉冊官) 1인【참외(參外).】, 봉인관(奉印官) 1인【참외(參外).】, 거책안자(舉冊案者) 1인【참외(參外).】, 거인안자(舉印案者) 1인【참외(參外).】, 통찬(通贊) 1인【통례문(通禮門).】, 사의(司儀) 1인【참외(參外).】이다.” 하였다.</p>	
<p>4. 世宗 93卷, 23年 (1441 辛酉 / 명 정통 (正統) 6年) 9月 14日 (丁未) 4번째기사 빈소를 여는 전의(奠儀)</p>	<p>빈소(殯所)를 여는 전의(奠儀)는, “그날에 유사(有司)가 상주(喪主)의 자리[位]를 뜰의 동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빈소 여는 것을 고하는 관원[告啓殯官]의 자리[位]를 상주의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한다. 집사자(執事者) 1인이 구(柩)를 닦을 수건을 가지고 그 뒤에서 모시되, 모두 북향한다. 집사자가 축판(祝版)을 영좌(靈座)의 왼편에 놓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를 영좌 앞에 진설한다. 준(尊)을 지게문 밖[戶外]의 왼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세(洗) 들을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며,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잔세(盞洗)는 서쪽에 있다. 주잔(酒盞)은 셋이고, 다잔(茶盞)은 하나이다.】 여러 집사(執事)의 세(洗)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때가 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을 씻어서 닦아 가지고 동계(東階)로 올라가 준소(尊所)에 두고, 찬(饌)을 받들고 올라가서 영좌(靈座) 앞에 놓는다. 사의(司儀)가 고계빈관(告啓殯官)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집사자도 이를 따른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사의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창(唱)한다. 상주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면, 내외(內外)가 모두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동계(東階)로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한다. 집사자 1인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1인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면, 상주가 세 번 상향(上</p>	<p>啓殯奠儀： 其日，有司設喪主位於庭東近北，北向；設告啓殯官位於喪主之後近南。執事者一人執拭柩之巾，陪其後，俱北向。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北向；設洗二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盞洗在西。有酒盞三、茶盞一。】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時至，執事者盥手，洗盞拭盞，升自東階，置于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司儀引告啓殯官入就位，執事者從之。司儀引喪主入就位北向立，司儀唱再拜哭，喪主再拜哭盡哀，內外俱再拜哭盡哀。司儀引喪主詣盥洗位盥洗訖，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跪進，喪主三上香，執事者奠于靈座前。執事者進茶酒，喪主酌茶三奠酒。司</p>

	<p>香)한다. 집사자가 영좌 앞에 올려 놓고, 집사자가 차와 술을 올리면, 상주가 차를 드리고 세 번 술을 드린다. 사의가 찬(贊)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게 하면, 축(祝)이 앞으로 나아와 영좌의 왼편에 서 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상주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p> <p>사의가 ‘재배하고 곡하라.’ 창(唱)하여, 상주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내외(內外)가 모두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임시로 막차(幕次)로 돌아가게 하고, 집사자가 찬(饌)을 거두면, 고빈관이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수건을 가진 자도 따라 올라간다.】 빈소(殯所)의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고하기를, ‘삼가 길(吉)한 시간에 빈소를 여나이다.’ 한다. 고하기를 마치면, 장사자(掌事者)가 올라가서 빈소에 덮은 것을 거두어 치운다. 이를 마치면 고빈관이 수건으로 영구(靈柩)를 닦고 관의(棺衣)를 덮으면, 집사자가 빙 둘러서 장막을 설치하고, 상식(常食) 【조식 상식(朝夕上食).】 을 올리는 것을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사의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창(唱)한다. 상주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내외(內外)가 모두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나온다. 계빈관(啓殯官) 【공조 참판(工曹參判).】, 집사자 2인 【참외(參外).】, 축(祝) 1인 【문관 참외(文官參外).】 사의(司儀) 1인 【참외(參外).】, 집건자(執巾者) 1인 【참외.】, 장사자(掌事者) 1인 【선공감(繕工監) 관원.】 이다.” 하였다.</p>	<p>儀贊俯伏興小退跪，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喪主俯伏興平身，降復位。司儀唱再拜哭，喪主再拜哭盡哀，內外俱再拜哭盡哀。司儀引喪主權歸幕次，執事者徹饌〔撤饌〕。告啓殯官升自東階，【執巾者從升】就殯南北向跪告曰：“謹以吉辰啓殯。”告訖，掌事者升，徹殯塗訖，告啓殯官以巾拂拭靈柩，覆以棺衣。執事周回設帷，及施常食之奠如常儀 【朝(多)〔夕〕上食】訖，司儀引喪主入就位北向立，司儀唱再拜哭，喪主再拜哭盡哀，內外俱再拜哭盡哀以出。啓殯官 【工曹參判】 執事者二 【參外】 祝一 【文官參外】 司儀一 【參外】 執巾者一 【參外】 掌事者一 【繕工監官員】</p>
<p>5. 世宗 93卷, 23年 (1441 辛酉 / 명 정통 (正統) 6年) 9月 14日 (丁未) 5번째기사</p>	<p>조전의(祖奠儀)3329) 는, “그날에 유사(有司)가 상주의 자리를 뜰 동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가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 놓는다. 향로·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고, 준(尊)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세(洗) 들을</p>	<p>祖奠儀: 其日，有司設喪主位於庭東近北，北向。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p>

<p>조전의(祖奠儀)</p>	<p>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잔세(盞洗)는 서쪽에 있다. 술잔이 셋이며, 찻잔이 하나이다.】 여러 집사의 세(洗)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때가 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을 씻어서 닦아 가지고 동계(東階)로 올라와 존소(尊所)에 놓고, 찬(饌)을 받들어 영좌 앞에 놓는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사의가 ‘재배하고 곡하라.’ 창(唱)한다. 상주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내외(內外)가 모두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동계(東階)로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게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면, 상주가 세 번 상향(上香)하고, 집사자가 영좌 앞에 올려 놓는다. 집사자의 차와 술을 올리면, 상주가 차를 올리고 세 번 술을 올린다. 사의가 찬(贊)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리나 꿇어앉게 하고, 축(祝)이 앞으로 나아가 영좌의 왼편에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상주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평신하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사의가 ‘재배하라.’ 창(唱)하면, 상주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내외(內外)가 모두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나온다. 집사자 2인【참외.】, 1인【문관 참외.】, 사의 1인【참외.】이다.”</p>	<p>左, 北向; 設洗二於東階東南, 北向; 【盥洗在東, 盞洗在西。有酒盞三、茶盞一。】諸執事洗, 又於東南, 北向。時至, 執事者盥手, 洗盞拭盞, 升自東階, 置于尊所, 奉饌升奠于靈座前。司儀引喪主入就位北向立, 司儀唱再拜哭, 喪主再拜哭盡哀, 內外俱再拜哭盡哀。司儀引喪主詣盥洗位盥洗訖, 升自東階, 詣靈座前北向跪, 執事者一人捧香合, 執事者一人捧香爐跪進, 喪主三上香, 執事者奠于靈座前。執事者進茶酒, 喪主酌茶三奠酒, 司儀贊俯伏興小退跪。祝進靈座之左, 西向跪讀祝文訖, 喪主俯伏興平身, 降復位。司儀唱再拜, 喪主再拜哭盡哀, 內外俱再拜哭盡哀以出。執事者二【參外】祝一【文官參外】司儀一【參外】</p>
<p>6. 世宗 93卷, 23年 (1441 辛酉 / 명 정통 (正統) 6年) 9月 14日 (丁未) 6번째기사 견전의(遣奠儀)</p>	<p>견전의(遣奠儀)3330) 는, “그날에 유사(有司)가 상주의 자리를 뜰 동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한다. 유사(有司)【국장 도감(國葬都監).】가 순(輻)3331) 을 중문(中門) 밖 가운데에 내어다가 남향하여 놓고, 유거(柳車)는 외문(外門) 밖 한가운데에 내어다가 남향하여 놓는다. 의장(儀仗)·명기(明器)는 순서대로 유거 앞에 벌여 놓고, 집사자가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놓는다. 향로·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고, 존(尊)을 지게문 밖의 왼편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세(洗) 둘을 동계</p>	<p>遣奠儀: 其日, 有司設喪主位於庭東近北, 北向。有司【國葬都監】進輻於中門外當中, 南向; 進柳車於外門外當中, 南向; 儀仗明器序列於柳車前。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設尊於戶外之左, 北向; 設</p>

(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잔세(盞洗)는 서쪽에 있다. 술잔이 셋이고 찻잔이 하나이다.】 여러 집사의 세(洗)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때가 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을 씻어서 닦아 가지고 동계(東階)로 올라와 존소(尊所)에 놓고, 찬(饌)을 받들고 올라와서 영좌 앞에 드린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사의가 ‘재배하고 곡하라.’ 창(唱)한다. 상주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내외(內外)가 모두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동계(東階)로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면, 상주가 세 번 상향(上香)하고, 집사자가 영좌 앞에 올려 놓는다. 집사자가 차와 술을 올리면, 상주가 차를 올리고 세 번 술을 올린다. 사의가 찬(贊)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게 하고, 축(祝)이 영좌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상주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평신(平身)하고 제자리로 물러간다. 집사자가 애책(哀冊)과 욱위(褥位)를 진(奠)의 동쪽에 설치하고, 직장(職掌)이 먼저 책안(冊案)을 받들어 욱위(褥位)에 서향하여 놓으면, 봉책관(捧冊官)이 책(冊)을 받들고 올라와 책안(冊案)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안상(案上)에 놓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난다. 사의가 ‘꿇어앉으라.’ 찬하여, 상주가 꿇어앉는다. 봉책관이 책안(冊案)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책(冊)을 들면, 독책관(讀冊官)이 꿇어앉아 책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가고, 봉책관이 책(冊)을 인순부(仁順府) 관원에게 준다. 사의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라.’ 찬(贊)하여, 상주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내외(內外)가 모두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집사자가 찬(饌)을 거두고 나면,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임시로 막차(幕次)로 돌아가게 한다. 여

洗二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盞洗在西。有酒盞三，茶盞一。】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時至，執事者盥手，洗盞拭盞，升自東階，置于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司儀引喪主入就位北向立，司儀唱再拜哭，喪主再拜哭盡哀，內外俱再拜哭盡哀。司儀引喪主詣盥洗位盥帨訖，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跪進，喪主三上香，執事者奠于靈座前。執事者進茶酒，喪主酌茶三奠酒，司儀贊俯伏興小退跪。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喪主俯伏興平身，小退於位。執事者設哀冊褥位於奠東，職掌先捧冊案，置於褥位，西向。捧冊官捧冊升詣冊案前，跪奠於案上，俯伏興小退。司儀贊跪，喪主跪，捧冊官詣冊案前跪舉冊，讀冊官跪讀冊訖，俯伏興退，捧冊官以冊授仁順府官員。司儀贊俯伏興再拜哭，喪主俯伏興再拜哭盡哀，內外俱再拜哭盡哀。執事者徹饌〔撤饌〕訖，司儀引喪主權歸幕次。昇柩官進輻於階下，祝【內官】以舉捧魂帛函，安於車上，虞主匱置其後。執事

	<p>구관(昇柩官)【영구를 드는 관원.】이 순(輓)을 계하(階下)에 내어 놓고, 축(祝)【내관(內官).】이 여(輦)로써 혼백함(魂帛函)을 받들어 거상(車上)에 봉안하고, 우주궤(虞主匱)를 그 뒤에 놓는다. 집사자【내관(內官).】가 시책(諡冊)·시인(諡印)·애책(哀冊)과 평시책(平時冊)을 받들어 여(輦)에 안치한다. 섭첨지통례(攝僉知通禮)가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순(輓)에 오르기를 고(告)하여 청(請)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물러나서 꿇어앉는다. 봉구관(捧柩官)이 여구관과 내관(內官)을 거느리고 영구(靈柩)를 받들고 계하(階下)로 내려와서 순(輓)에 올리면, 섭첨지통례가 일어나서 영구를 전도(前導)하고, 봉삽자(捧窆者)【내관(內官).】가 삼(窆)과 행장(行障)으로 영구를 가린다. 만사(挽士)【상여군.】가 순(輓)을 받들고 외문(外門) 밖에 이르면, 섭첨지통례가 순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유차(柳車)에 오르기를 고(告)하여 청(請)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나 꿇어앉는다. 봉구관이 여구관과 내관(內官)을 거느리고 영구를 받들어 유거에 올린다. 섭첨지통례가 영가(靈駕)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영가가 떠나기를 고하여 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의위(儀衛)가 차례로 앞으로 끌면, 상주(喪主) 이하가 차례로 곡하며 따르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봉구관(捧柩官) 1인【호조 참판.】, 여구관 1인【무관 5품.】, 섭첨지통례 1인【첨지통례(僉知通禮).】, 애책(哀冊)과 옥위(褥位)를 설치하는 집사(執事) 1인【장흥고(長興庫) 참외(參外).】직장(職掌) 2인【내시 별감(內侍別監).】, 봉책관(奉冊官) 1인【서연관(書筵官) 6품.】, 독책관(讀冊官) 1인【서연관 4품.】, 전작 집사자(奠酌執事者) 2인【참외.】, 축(祝) 1인【문관 참외(文官參外).】, 사의(司儀) 1인【참외.】이다.” 하였다.</p>	<p>者 【內官】 奉諡冊諡印哀冊及平時冊，置於輦。攝僉知通禮進靈座前跪，告請升輓，俯伏興退跪。捧柩官帥昇柩官及內官，奉柩降階升輓。攝僉知通禮與，前導靈柩。捧窆者 【內官】 以窆及行障障柩。挽士捧輓至外門外，攝僉知通禮進輓前跪，告請升柳車，俯伏興退跪。捧柩官帥昇柩官及內官，捧柩升柳車，攝僉知通禮進靈駕前跪，告請靈駕進發，俯伏興退。儀衛以次前引，喪主以下以次哭從如儀。奉柩官一 【戶曹參判】 昇柩官一 【武官五品】 攝僉知通禮一 【僉知通禮】 設哀冊褥位執事一 【長興庫參外】 職掌二 【內侍別監】 奉冊官一 【書筵六品】 讀冊官一 【書筵四品】 奠酌執事者二 【參外】 祝一 【文官參外】 司儀一 【參外】</p>
<p>7. 世宗 93卷, 23年 (1441 辛酉 / 명 정통 (正統) 6年) 9月 14日</p>	<p>노제(路祭)의 의식은, “하루 전에 충扈위(忠扈衛)가 영장(靈帳)을 성밖[城外]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가 영좌(靈座)를 장막 안에 북쪽으로 가까이 남향하여 설치한다. 그날</p>	<p>路祭儀: 前期一日, 忠扈衛設靈帳於城外, 南向。執事者設靈座於帳內近北, 南</p>

(丁未) 8번째기사
노제(路祭)의 의식

에 집사자가 축판(祝版)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 놓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를 영좌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예찬(禮饌)을 진설하고, 준(尊)을 장막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세(洗) 둘을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잔세(盞洗)는 서쪽에 있다. 술잔[酒盞]이 셋이요, 찻잔[茶盞]이 하나이다.】 장막 밖에 동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세(洗)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의장(儀仗)이 장차 이르면,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가 땅의 형편에 따라 반열(班列)을 지어 서되, 자리[位]를 달리 하여 겹줄[重行]로 해서 모두 북향한다.

영거(靈車)가 이르기를 기다려, 섭침지통례가 영거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고(告)하기를, ‘영거를 잠깐 머무르시기를 청합니다.’ 한다. 고(告)하기를 마치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간다. 통찬(通贊)이 ‘재배하라.’고 찬(贊)하여, 중관(衆官)이 모두 재배한다. 집사자가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고 나서, 잔(盞)을 씻어서 닦아 가지고 준소(尊所)에 둔다. 봉례랑(奉禮郎)이 반수(班首)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하게 하고,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한다. 봉례랑이 ‘꿇어앉으라.’ 찬하여, 반수(班首)가 꿇어앉으면, 중관(衆官)이 모두 꿇어앉는다. 집사자 1인이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1인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반수가 세 번 상향(上香)하고, 향로를 안(案)위에 올려 놓는다. 집사자가 차[茶]와 술[酒]을 올리면, 반수(班首)가 차를 올리고, 세 번 술을 올린다. 봉례랑이 찬(贊)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면, 축(祝)이 영좌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제문(祭文)을 읽는다. 읽기를 마치면, 통찬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평신(平身)하고,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찬하여, 중관이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평신한다. 통찬이 ‘재배하라.’고 찬하여, 중관이 모두 재배하고 물러난다. 섭침지통례가 영거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고(告)하기를, ‘영거(靈車)가 떠나기를 청합니다.’ 하고 부복하였다 일어

向。其日，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禮饌；設尊於帳東南，北向。設洗二 【盥洗在東，盞洗在西。有酒盞三、茶盞一。】 於帳外近東，北向；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儀仗將至，議政府六曹隨地立班，異位重行，俱北向。俟靈車至，攝僉知通禮詣靈車前跪，告請靈車小駐，告訖俯伏興退。通贊贊再拜，衆官皆再拜。執事者詣盥洗位盥悅訖，洗盞拭盞，置于尊所。奉禮郎引班首詣盥洗位盥悅訖，詣靈座前北向立。奉禮郎贊跪，班首跪，衆官皆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跪進，班首三上香，奠爐於案上。執事者進茶酒，班首酌茶三奠酒，奉禮郎贊俯伏興小退北向跪。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祭文訖，通贊贊俯伏興平身，退復位，衆官皆俯伏興平身。通贊贊再拜，衆官皆再拜退。攝僉知通禮詣靈車前跪，告請靈車進發，俯伏興退。執事者徹饌〔撤饌〕。執事者二 【參外】 祝一 【文官參外】 通贊一奉禮郎一 【通禮問】

	<p>나서 물러가고, 집사자가 찬(饌)을 거두어 치운다. 집사자 2인【참외.】, 1인【문관 참외.】, 통찬 1인, 봉례랑 1인【통례문(通禮門).】이다.” 하였다.</p>	
<p>8. 世宗 93卷, 23年 (1441 辛酉 / 명 정통 (正統) 6年) 9月 14日 (丁未) 9번째기사 교량제(橋梁祭)의 의식</p>	<p>교량제(橋梁祭)의 의식은, “전기(前期)하여 집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소(祭所)을 소제(掃除)하고, 찬만(饌幔)을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설치한다. 그날 축시(丑時) 전 5각(刻)【축시 전 5각은 곧 3경(更) 3점(點)이다. 제사지내는 것은 축시(丑時) 1각(刻)에 한다.】에 집사자가 신위(神位)를 교량(橋梁)의 왼편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왕골자리[莞席]를 깔아 놓는다. 헌관(獻官)의 자리[位]는 신위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다가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上]로 하고, 알자(謁者)·찬자(贊者)의 자리는 헌관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축관(祝版)을 신위의 오른편에 올려 놓고, 향로·향합과 초를 신위 앞에 진설한다. 제기(祭器)를 진설하고 찬구(饌具)를 담는데, 변(籩)은 넷으로 왼편에 있게 하고, 두 줄이 되게 한다.【첫째 줄에는 마른 대추[乾棗]가 앞에 있고, 율황(栗黃)이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진자(榛子)가 앞에 있고, 백자(栢子)가 다음에 있다.】보(籩)와 궤(簋)가 각각 둘인데, 변(籩)·두(豆)사이에 있게 하되, 보가 왼편에, 궤가 오른편에 있게 한다.【보(籩)에는 기장[黍]과 양(粱)을 담는데, 양이 기장 앞에 있게 하고, 궤(簋)에는 기장과 직(稷)을 담는데, 직이 기장 앞에 있게 한다. 무릇 앞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남쪽을 말하는 것이다.】작(爵)이 하나인데, 보와 궤 앞에 있게 한다. 준(尊)을 신위 앞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또 그 동남쪽에 세(洗)를 설치한다.【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게 한다.】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도 또한 그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3각 전에 헌관이 하가 각기 공복(公服)을 갖추고, 1각(刻) 전에 알자·찬자가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사배(四拜)하고 나서 자리[位]로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p>	<p>橋梁祭儀： 前期，執事帥其屬，掃除祭所，陳饌幔，隨地之宜。 其日丑前五刻，【丑前五刻， 卽三更三點。 行事用丑時一刻。】 執事設神位於橋梁之左，南向，席以莞； 設獻官位於神位東南，西向； 執事者位於其後，西向北上； 謁者贊者位於獻官西南，北上； 奠祝版於神位之右；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設祭器實饌具， 籩四在左爲二行，【第一行，乾棗在前，栗黃次之。 第二行，榛子在前，栢子次之。】 籩簋各二在籩豆間，籩在左簋在右，【籩實以黍粱，粱在黍前。 簋實以黍稷， 稷 [在] 黍前。 凡言在前者，皆謂南也。】 爵一在籩簋前。 設尊於神位前東南，北向。 又於其東南設洗，【盥洗在東，爵洗在西。】 諸執事盥洗，又於其南，北向。 前三刻，獻官以下，各具公服。 前一刻，謁者贊者先就拜位北向四拜訖，就位，謁者引獻官以下俱就位。 立定，贊者曰：“四拜。” 獻官以</p>

	<p>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자리로 나아가서 서게 하고, 찬자(贊者)가 ‘사배하라.’고 말하여, 헌관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축사(祝史)와 재량(齋郎)이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재량이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 작(爵)을 씻어서 닦아 가지고, 받들어 준소(尊所)로 나아가서 점(坫) 위에 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홀(笏)을 꽃과 손을 씻고 수건에 닦게 한다. 【손을 씻고 수건에 닦는 것은 찬(贊)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서 ‘홀을 잡으라.’고 찬(贊)하여,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罍]를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贊)하여 꿇어앉아 홀을 꽃고 세 번 상향(上香)하게 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헌작(獻爵)하는데, 집사자에게 작을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찬(贊)하여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고, 축(祝)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라.’고 찬(贊)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대축(大祝)이 앞으로 나아가서 변(籩)·두(豆)를 거두면, 찬자가 ‘사배하라.’고 말하여, 헌관이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가 축 이하를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고 말하여, 축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찬자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집사자가 찬(饌)을 거두면, 축이 구덩이에 묻는다. 헌관 【5품.】·축사 【문관 참외.】·알자 1인, 찬자 1인, 재량 1인 【모두 참외이다.】 이다.” 하였다.</p>	<p>下皆四拜。祝史齋郎詣盥洗位盥悅訖，各就位。齋郎詣爵洗位，洗爵拭爵，捧詣尊所，置於坫上。謁者引獻官就盥洗位，搯笏盥手悅手，【盥手悅手，不贊。】贊執笏，引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三上香，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執笏俯伏與小退北向跪，祝就神位之右，東向讀祝文訖，謁者贊俯伏與平身，引復位。大祝進，徹籩豆。贊者曰：“四拜。”獻官四拜訖，謁者引獻官出。謁者引祝以下就拜位，立定，贊者曰：“四拜。”祝以下皆四拜，謁者引出。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執事者徹饌〔撤饌〕，祝瘞於坎。獻官【五品】祝史【文官參外】謁者一、贊者一、齋郎一【竝參外】</p>
<p>9. 세종 93권, 23년 (1441 신유 / 명 정통</p>	<p>천전의(遷奠儀)는, “하루 전에 충호위가 영장(靈帳)과 길유(吉帷)를 묘(墓)의 서쪽에 남향하여 설</p>	<p>遷奠儀: 前一日, 忠扈衛設靈帳及吉帷於墓之</p>

(正統) 6년 9월 14일
(정미) 10번째기사
천전의(遷奠儀)

치한다. 【길유(吉帷)는 영장(靈帳)의 서쪽에 있다.】 그날에 집사자가 탐(榻)을 영장 안에 북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영좌(靈座)를 탐 앞에 설치하며, 시책(諡冊)·시인(諡印)·애책안(哀冊案)을 영좌 앞에 설치하되, 조금 동쪽으로 설치한다. 유사(攸司)가 상주(喪主)의 자리[位]를 영장의 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내관(內官)은 그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있게 한다. 집사자가 축판(祝版)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 놓고, 향로·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고, 준(樽)을 영장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며, 세(洗)를 영장의 바깥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세(洗)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방상(方相)이 이르러서 광중(壙中)에 들어가 창[戈]으로 광(壙)의 네 귀퉁이를 친다. 명기(明器)는 소(筥)가 다섯, 웅(甕)이 셋, 무(甗)가 하나, 와중(瓦鍾)이 넷, 와경(瓦磬)이 넷, 와훈(瓦熏)이 하나, 소(簫)가 하나, 생(笙)이 하나, 지(箎)가 하나, 축(柷)이 하나, 어(敔)가 하나, 금(琴)이 하나, 슬(瑟)이 하나, 우(竽)·우(羽)·약(籥)·간(干)·순(楯)이 각각 하나, 와조(瓦竈)가 하나, 와부(瓦釜)가 하나, 와증(瓦甑)이 하나, 와정(瓦鼎)이 넷, 포작(匏勺)이 하나, 와주준(瓦酒尊)이 하나, 와배(瓦盃)가 다섯, 변(籩)이 열, 두(豆)가 열, 보(篋)가 하나, 궤(篋)가 하나, 준(樽)이 하나, 식발(食鉢)이 하나, 갱발(羹鉢)이 하나, 시접(匙楪)이 하나, 찬접(饌楪)이 하나, 소채(蔬菜)·포해접(脯醢楪)이 일곱, 적접(炙楪)이 하나, 주병(酒瓶)이 하나, 식탁(食卓)이 하나, 시(匙)·저(筯)가 각각 하나, 식탁(食卓)이 하나, 관반(盥盤)이 하나, 관이(盥匱)가 하나, 향합(香合)이 하나, 향완(香椀)이 하나, 타우(唾盂)가 하나, 혼병(溷瓶)이 하나, 수기(洩器)가 둘, 목안마(木鞍馬)가 둘, 목산마(木散馬)가 둘, 목노비(木奴婢)가 설흔, 목향악인(木鄉樂人)·목당악인(木唐樂人)이 열, 증백(贈帛)으로서 현(玄)이 여섯, 혼(纁)이 넷, 분홍릉 겹장삼(粉紅綾袂長衫)이 하나, 자적단자 겹격음(紫的段子袂隔音)이 하나, 홍단자의(紅段子衣)가 하나, 남라 겹상(藍羅袂裳)이 하나, 백릉 겹말군(白

西, 南向。【吉帷, 在靈帷之西。】其日, 執事者設榻於靈帳內近北; 設靈座於榻前, 設諡冊印哀冊案於靈座前稍東。攸司設喪主位於靈帳之南北向; 內官在後近南, 北向。執事者奠祝(飯)[版]於靈座之左;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設樽於靈帳東南, 北向; 設洗於靈帳之外東南, 北向; 諸執事洗, 又於東南, 北向。方相至, 入壙以戈擊壙四隅。明器: 筥五、甕三、甗一、瓦鍾四、瓦磬四、瓦熏一、簫一、笙一、箎一、柷一、敔一、琴一、瑟一、竽羽籥干楯各一、瓦竈一、瓦釜一、瓦甑一、瓦鼎四、匏勺一、瓦酒尊一、瓦盃五、邊十、豆十、篋一、篋一、樽一、食鉢一、羹鉢一、匙楪一、饌楪一、蔬菜脯醢楪七、炙楪一、酒瓶一、食托一、匙筯各一、食卓一、盥盤一、盥匱一、香合一、香椀一、唾盂一、溷瓶一、洩器二、木鞍馬二、木散馬二、木奴婢各三十、木鄉唐樂人十、贈帛玄六、纁四、粉紅綾袂長衫一、紫的段子袂隔音一、紅段子衣一、藍羅袂裳一、白綾袂襪裙一、白絹汗衫一、紅段子

綾袂襪裙)이 하나, 백초 한삼(白綃汗衫)이 하나, 홍단자 대(紅段子帶)가 하나, 백저 활한삼(白苧闊汗衫)이 하나, 백저포 태의(白苧布苔衣)가 하나, 수건(手巾)이 하나, 초록 겹금(草綠袂衾)이 하나, 침(枕)이 하나, 홍단자 옥(紅段子褥)이 하나, 만화침석(滿花寢席)이 하나, 백포말(白布襪)이 하나, 백저포 이의(白苧布裏衣)가 하나, 홍단자 오지수(紅段子五指手)가 하나, 분홍단자 동화(粉紅段子同靴)가 하나, 분홍단자 온혜(粉紅段子溫鞋)가 하나, 소함(梳函)이 하나, 자황칠 목잠(紫黃漆木簪)·자황칠 목채(紫黃漆木釵)가 각각 하나, 토등상자(土藤箱子)가 둘, 주홍칠 간자(朱紅漆竿子)가 둘, 제음동(齊音同)이 하나, 거울[鏡]이 하나이니, 모두 광중(壙中)의 동남쪽에 북쪽을 위로 하여 진설한다. 혼백거(魂帛車)가 도착하면, 축(祝)【내관(內官).】이 혼백함을 받들고, 영장(靈帳)에 나아가서 영좌에 봉안하고, 우주례는 그 뒤에다 놓는다. 집사자【내관.】가 시책·시인·애책과 평시책을 받들어 안상(案上)에 봉(封)하여 둔다. 유거가 도착하면, 섭침지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유거 앞에 꿇어앉아, 거(車)에서 내려 순(輶)에 오를 것을 고(告)하여 청하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나 물러나서 꿇어앉는다. 봉구관(奉柩官)이 여구관(昇柩官)과 내관(內官)을 거느리고 영구(靈柩)를 받들어 순(輶)에 올리면, 섭침지통례가 일어나서 영구를 인도하는데, 봉삽자(奉窆者)가 삽(窆)과 행장(行障)으로 영구를 가린다. 만사(挽士)가 순(輶)을 받들어 영좌 앞에 이르면, 여구관과 내관이 영구를 받들어 탑(榻) 위에 남쪽을 위로 하여 봉안한다. 집사자가 명정(銘旌)을 취(取)하여 대[杠]를 떼어 버리고 그위에 놓는다. 때가 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盞)을 씻어서 닦아 가지고 존소(尊所)에 두며, 찬(饌)을 받들어 영좌 앞에 놓는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재배하고 곡하라.’ 창(唱)하여, 상주 이하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상주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

帶一、白苧闊汗衫一、白苧布苔衣一、手巾一、草綠袂衾一、枕一、紅段子褥一、坐滿花寢席一、白布襪一、白苧布裏衣一、紅段子五指手一、粉紅段子同靴一、粉紅段子溫鞋一、梳函一、紫黃漆木簪釵各一、土藤箱子二、朱紅漆竿子二、齊音同一、鏡一等。至，陳於壙東南北上。魂帛車至，祝【內官】奉魂帛函，就靈帳安於靈座，虞主置其後。執事者【內官】奉諡冊印哀冊及平時冊封，置於案上。柳車至，攝僉知通禮進當柳車前跪，告請降車升輶，俯伏興退跪。奉柩官帥昇柩官及內官，奉柩升輶，攝僉知通禮興導柩，奉窆者以窆及行〔障〕障柩。挽士奉輶至靈帳前，昇柩官及內官奉柩安於榻上，南首。執事者取銘旌去杠，置其上。時至，執事者盥手，洗盞拭盞，置於尊所，奉饌奠于靈座前。司儀引喪主就位北向立，唱再拜哭，喪主以下再拜哭盡哀。司儀引喪主詣盥洗位盥悅訖，引喪主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跪進，喪主三上香，執事者奠爐于靈座前。執事者進茶酒，

여 꿇어앉게 한다. 집사자 1인이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1인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상주가 세 번 상향(上香)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영좌 앞에 올려 놓는다. 집사자가 차[茶]와 술을 올리면, 상주가 차를 올리고 술을 세 번 드리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꿇어앉는다. 축이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재배하고 곡하라.’ 창(唱)하여, 상주 이하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차례로 나간다.

전기(前期)하여 상주(喪主)의 하직하는 자리[辭位]를 연도(羨道)의 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또 애책을 올리는 관원의 자리[進哀冊官位]를 연도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애책 받드는 관원의 자리[奉哀冊官位]를 또 그 남쪽에 설치하되, 조금 물려서 서향하게 한다. 서운 관원(書雲觀員)이 시간을 알리면, 유사(有司)가 영구를 봉안하는 옥위[安柩褥位]를 묘문(墓門) 밖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섭침지통례가 영장(靈帳)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순(輶)에 올려 광중(壙中)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고(告)하여 청한다. 고하기를 마치면, 부복하였다 일어나 물러나서 꿇어앉는다. 축【내관.】이 요여(腰輿)로 혼백(魂帛)을 받들어 길유(吉帷)로 나아가서 영좌 앞에 봉안하고, 우주례를 그 뒤에다 놓는다. 봉구관(奉柩官)이 수건[巾]을 가지고 나아가서 영구를 닦고, 아울러 구의(柩衣)를 턴다. 봉구관이 여구관과 내관을 거느리고 영구를 받들어 순(輶)에 올리면, 섭침지통례가 일어나 영구를 인도하는데, 봉삽자가 삽(窆)과 행장(行障)으로 영구를 가린다. 만사(挽士)가 순(輶)을 받들어 광중(壙中)으로 나아가면, 상주 이하가 곡하며 따른다.【궁인(宮人)은 따르지 아니한다.】진 애책관(進哀冊官)과 봉책관(奉冊官)이 연도(羨道)의 동남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영구를 받들어 광외(壙外)의 옥(褥) 위에 봉안하고, 봉구관이 그 상하(上下)를 살피고, 영구를 받들어 연도로 들어가서 광내(壙內)의 탐욕(榻褥) 위에 봉안하되, 북쪽이 머리가 되게 한다. 봉구관이 다시 구의(柩衣)를 정돈

喪主酌茶三奠酒，俯伏興小退跪。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司儀引喪主復位，唱再拜哭，喪主以下再拜哭盡哀，以次出。前期，設喪主辭位於羨道之南，西向；又設進哀冊官位於羨道東南，西向；奉哀冊官位又於其南小退，西向。書雲觀員報時，有司設安柩褥位於墓門外，南向。攝僉知通禮進當靈帳前跪，告請升輶詣壙，告訖，俯伏興退跪。祝【內官】以腰輿奉魂帛就吉帷，安於靈座前，虞主匱置其後。奉柩官以巾進拭柩，并拂柩衣。奉柩官帥昇柩官及內官，奉柩升輶，攝僉知通禮興導柩，奉窆者以窆及行障障柩。挽士奉輶詣壙，喪主以下哭從。【宮人不從】進哀冊官及奉冊官就羨道東南西向立，奉柩安於壙外褥上。奉柩官察其上下，奉柩入自羨道，安於壙內榻褥上，北首。奉柩官再整柩衣銘旌，令平正。進冊官以哀冊入，跪奠於柩西於壙外。喪主執贈帛玄六、纁四，授內官置于柩東。黼窆黻窆畫窆，樹於柩旁。喪主以下就辭位再拜哭，又再拜哭盡哀辭訖退。攸司祠后土如儀，執事者藏明器下誌石。造墓

	<p>하고, 명정(銘旌)은 평정(平正)하게 한다. 진책관(進冊官)이 애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구의 서쪽에 놓고, 광(壙) 밖에서 상주가 드리는 폐백[贈帛] 현(玄) 여석과 혼(纁) 냇을 받아서 내관(內官)에게 주어 영구 동쪽에 놓게 하고, 보삽(黼髮)·불삽(黻髮)·화삽(畫髮)은 영구 옆에 세운다. 상주 이하가 사위(辭位)에 나아가서 재배하고 곡하고, 또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하직하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유사(攸司)가 후토(后土)3332)에게 제사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집사자가 명기(明器)를 넣어 두고 지석(誌石)을 묻는다. 조묘 도감(造墓都監)이 광문(壙門)을 잠그는데, 조묘 도감이 수석(首席)에 있고, 제조(提調)와 장령(掌令)이 함께 잠그는 것을 감시한다. 공조 참판(工曹參判)이 흙 아 흙 삽을 덮으면, 유사(攸司)가 작공(作工)을 거느리고 흙을 덮는다. 일이 끝나면, 유거(柳車)와 순(輻) 등속은 경방(庚方)【서편.】에서 태우는데, 기타(其他) 사람들이 통용(通用)할 수 있는 것은 태우지 아니한다. 진애책관(進哀冊官) 1인【서연관(書筵官) 3품.】, 봉애책관(奉哀冊官) 1인【참외(參外).】, 전작 집사자(奠爵執事者) 2인【참외.】, 축(祝) 1인【문관 참외(文官參外).】, 사의(司儀) 1인【참외.】이다” 하였다.</p>	<p>都監鎖閉壙門，造墓都監居首提調與掌令，竝監鎖閉。工曹參判覆土九鍤，攸司率作工覆土。終事，柳車及輻之屬，於庚地焚之，其他人通用者則不焚。進哀冊官一【書筵三品】奉哀冊官一【參外】奠爵執事者二【參外】祝一【文官參外】司儀一【參外】</p>
<p>10. 世宗 93卷, 23年 (1441 辛酉 / 명 정통 (正統) 6年) 9月 14日 (丁未) 11번째기사 안묘전(安墓奠)의 의식</p>	<p>안묘전(安墓奠)의 의식은, “흙을 덮는 것이 끝나기를 기다려 알자가 헌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자리를 헌관의 뒤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모두 서향하여 북쪽을 위[上]가 되게 한다. 집사자가 축관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 놓고, 향로·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한다.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편에 설치하고, 세(洗) 둘을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며,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게 한다. 술잔이 셋이며, 찻잔이 하나이다.】 여러 집사의 세(洗)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때가 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을 씻어서 닦아 가지고,</p>	<p>安墓奠儀： 俟覆土既訖，謁者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設諸執事位於獻官之後，異位重行，俱西向北上。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設洗二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盞洗在西。有酒盞三、茶盞一。】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時至，執事者盥手，洗</p>

	<p>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놓고, 찬(饌)을 받들고 올라가 영좌 앞에 놓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서게 하고 알자가 ‘재배하고 곡하라.’ 창(唱)하여, 헌관이 재배하고 곡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동계(東階)로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贊)하여 꿇어앉아 세 번 상향(上香)하게 한다. 집사자가 차와 술을 헌관에게 주어서, 헌관이 차를 올리고 세 번 술을 올리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 축이 영좌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알자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창(唱)하여, 헌관이 재배하고 곡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면, 여러 집사가 찬(饌)을 거두고, 축이 구덩이에 묻는다. 헌관 1인【조묘 도감 제조(造墓都監提調).】, 집사자 2인【참외.】, 축 1인【참외.】, 알자 1인【참외.】이다.” 하였다.</p>	<p>盞拭盞，升自東階，置于尊所，奉饌升，置于靈座前。謁者引獻官就位。立定，謁者唱再拜哭，獻官再拜哭。謁者引獻官詣盥洗位盥帨訖，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贊跪三上香。執事者以茶酒授獻官，獻官酌茶三奠酒，俯伏興小退跪。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引獻官降復位。謁者唱再拜哭，獻官再拜哭，謁者引出。諸執事者徹饌〔撤饌〕，祝版瘞於坎。獻官一【造墓都監提調。】執事者二【參外】祝一【文官參外】謁者一【參外】</p>
<p>11. 세종 93권, 23년 (1441 신유 / 명 정통 (正統) 6년) 9월 14일 (정미) 13번째기사 우제의(虞祭儀)</p>	<p>우제의(虞祭儀)는, “그날에 장사자(掌事者)가 상주(喪主)의 자리[位]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謁者)·찬자(贊者)의 자리를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장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祝版)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 놓고, 폐비(幣篋)를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와 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며,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세(洗) 둘을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며,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잔세(盞洗)는 서쪽에 있게 한다. 반이(盤匱)와 수건이 있다.】 여러 집사의 세(洗)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때가 되면, 장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서 찬구(饌具)를 담기를 마친다. 알자와 찬자가 먼저 뜰 가운데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재배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가간다. 축(祝)과 재랑(齋郎)이 들어와서 뜰 가운데의 배위로 나아가서 서면, 찬자</p>	<p>虞祭儀： 其日，掌事者設喪主位於東階東南，西向；設謁者贊者位於東階西南，西向。掌事者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之左；陳幣篋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設洗二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盞洗在西，有盤匱及帨巾。】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時至，掌事者帥其屬入，實饌具畢。謁者贊者先就庭中拜位北向西上再拜，各就位，祝及齋郎入就庭中拜位。立定，贊者曰：“再拜。”祝及齋</p>

가 ‘재배하라.’고 말하여, 축과, 재랑이 재배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하고 나서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내관이 궤(匱)를 열고 우주(虞主)를 받들어 내어서 자리[座]에 봉안한다. 집사자가 잔세위(盞洗位)에 나아가서 잔을 씻어 닦아 가지고, 반(盤)에 놓아 받들고 준소(尊所)로 나아간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찬자가 ‘재배하라.’ 말하여, 상주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서 관세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동계(東階)로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면,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축(祝)이 이를 겸한다.】 상주가 세 번 상향(上香)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안(案) 위에 올려 놓는다. 집사자가 폐비(幣篚)를 꿇어앉아 올리면, 알자가 찬(贊)하여 집폐 헌폐(執幣獻幣)하게 하되, 폐(幣)를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찬(贊)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 평신(平身)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사자가 술을 따른다. 알자가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고, 집사가 꿇어앉아 잔을 올리면, 상주가 집잔 헌작(執盞獻盞)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찬(贊)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축이 영좌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平身)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사자가 술을 따른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고, 집사자가 꿇어앉아 잔을 올리면, 상주가 집잔 헌작(執盞獻盞)하는데,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올려 드린다. 알자

郎再拜，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內官開匱，奉出虞主安於座。執事者詣盞洗位，洗盞拭盞，置於盤，奉詣尊所。謁者引喪主入就位西向立，贊者曰：“再拜。”喪主再拜哭盡哀。謁者引喪主詣盥洗位北向立盥帨訖，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跪進，【祝兼之】喪主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以幣篚跪進，謁者贊執幣獻幣，以幣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小頃，謁者引喪主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謁者引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以盞跪進，喪主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興少退北向跪。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小頃，謁者引喪主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謁者引喪主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以盞跪進，喪主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謁者引喪主行終獻禮如亞獻儀，引降復位。贊者唱再拜哭，喪主再拜哭盡哀，謁者引出。

	<p>가 찬하여 부복하고 곡하고 일어나서 평신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종헌례(終獻禮)를 행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찬자가 ‘재배하고 곡하라.’ 창(唱)하여, 상주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축과 재량이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서면, 찬자가 ‘재배하라.’ 창(唱)하여, 축과 재량이 재배하고 나간다. 내관이 우주(虞主)를 들여넣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알자가 배위에 나아가서 재배하고 나간다. 장사자(掌事者)가 찬(饌)을 거두고, 축이 혼백(魂帛)을 받들어 병처(屏處)의 깨끗한 땅에 묻는다. 【만약 밤을 지내[經宿]면 숙소(宿所)에 묻지 아니한다.】 축이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다. 유일(柔日)3334 을 만나 재우(再虞)를 지내고, 강일(剛日)3335 을 만나 사우(四虞)를 지내고, 강일을 만나 오우(五虞)를 지내는데, 제사지내는 의식은 모두 초우(初虞)와 같다. 오직 하루 전기(前期)하여 제기(祭器)를 진설하고 찬(饌)을 갖추고, 그날 새벽[質明]에 행사(行事)한다. 장사자(掌事者) 1인 【제물(祭物)을 준비해 마련하는 각사(各司).】, 알자 1인, 찬자 1인 【모두 참외.】, 축 1인 【문관 참외.】, 재량 2인 【참외.】이다.” 하였다.</p>	<p>祝及齋郎俱復拜位。立定，贊者唱再拜，祝及齋郎再拜出。內官納虞主如儀。謁者就拜位再拜而出，掌事者徹饌，祝奉魂帛，埋於屏處潔地，【若經宿，則不於宿所埋之。】祝幣瘞於坎。遇柔日再虞，遇剛日四虞，遇剛日五虞，祭儀竝如初虞，唯前期一日，陳器具饌，其日質明，行事。掌事者一 【祭物備辦各司】謁者一、贊者一 【竝參外】祝一 【文官參外】齋郎二 【參外】</p>
<p>12. 世宗 93卷, 23年 (1441 辛酉 / 명 정통 (正統) 6年) 9月 14日 (丁未) 14번째기사 졸곡제(卒哭祭)의 의식</p>	<p>졸곡제(卒哭祭)의 의식. 【오우(五虞) 뒤에 강일(剛日)을 만나 졸곡제(卒哭祭)를 지낸다. 단궁(檀弓)에 말하기를, “졸곡(卒哭)은 성사(成事)라고 말한다.” 하였는데, 이날에 길제(吉祭)로 상제(喪祭)를 바꾸기 때문에, 이 제사는 길례(吉禮)로 단정하였다.】 “전기(前期)하여 장사자(掌事者)가 상주의 자리[位]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찬자의 자리를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장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祝版)을 영좌의 오른쪽에 올려 놓고, 폐비(幣篚)를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p>	<p>卒哭祭儀： 【五虞後遇剛日卒哭。檀弓曰：“卒哭曰成事。是日也，以吉祭易喪祭。”故此祭漸有吉禮。】前期，掌事者設喪主位於東階東南，西向；設謁者贊者位於東階西南，西向。掌事者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右；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竝燭於靈座之前；設尊</p>

다.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편에 설치하고, 세(洗) 둘을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잔세(盞洗)는 서쪽에 있게 한다. 반이(盤匱)와 수건이 있다.】 여러 집사의 세(洗)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새벽[質明]에 장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饌具)를 담기를 마친다. 알자와 찬자가 먼저 뜰 가운데의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재배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가고, 축과 재량이 들어와서 뜰 가운데의 배위로 나아가서 서면, 찬자가 ‘재배하라.’고 말하여, 축과 재량이 재배하고,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내관이 궤(匱)를 열고, 우주(虞主)를 받들어 내어 자리[座]에 봉안한다. 집사자가 잔세위(盞洗位)에 나아가서 잔을 씻어 닦아 가지고, 반(盤)에 놓아 받들고 준소로 나아간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자가 ‘재배하라.’고 말하여, 상주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관세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동계로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함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축(祝)이 이를 겸한다.】 상주가 세 번 상향(上香)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안(案)에 올려 놓는다. 집사자가 폐비(幣篚)를 꿇어앉아 올리면, 알자가 찬(贊)하여 집폐 헌폐(執幣獻幣)하게 하는데, 폐백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고 곡하고 일어나서 평신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사자가 술을 따른다. 알자가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면, 집사자가 꿇어앉아서 잔을 올린다. 상주가 집잔 헌잔(執盞獻盞)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올려 놓는다. 알자가 찬(贊)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고 꿇어앉게 하면, 축이 영좌의 오른편으로 나아가서

於戶外之左；設洗二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盞洗在西，有盤匱及帨巾。】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質明，掌事者帥其屬入，實饌具畢。謁者贊者先就庭中拜位，北向西上再拜各就位，祝及齋郎入就庭中拜位。立定，贊者曰：“再拜。”祝及齋郎再拜，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內官開匱，奉出虞主安於座。執事者詣盞洗位，洗盞拭盞，置於盤，奉詣尊所。謁者引喪主入就位北向立，贊者曰：“再拜。”喪主再拜哭盡哀。謁者引喪主詣盥洗位北向立盥帨訖，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跪進，【祝兼之】喪主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以幣篚跪進，謁者贊執幣獻幣，以幣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哭興平身，引降復位。小頃，謁者引喪主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謁者引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以盞跪進，喪主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哭興少退北向跪。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哭興平身，引降復位。小頃，謁者

	<p>꿨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고 곡하고 일어나서 평신하면,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사자가 술을 따른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꿨어앉게 하면, 집사자가 잔을 꿨어앉아 올린다. 상주가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올려 놓는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고 곡하고 일어나서 평신하면,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종헌례(終獻禮)를 행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찬자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창(唱)하여, 상주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축과 재량이 모두 배위로 돌아가 서면, 찬자가 ‘재배하라.’고 창하여 축과 재량이 재배하고 나간다. 내관이 우주(虞主)를 들여넣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알자·찬자가 배위로 나아가서 재배하고 나간다. 장사자가 찬(饌)을 거두고, 축이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다. 알자 1인, 찬자 1인【모두 참외.】, 축 1인【문관 참외.】, 재량 1인【참외.】, 장사자 1인【제물(祭物)을 갖추어 마련하는 각사(各司).】이다.” 하였다.</p>	<p>引喪主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 謁者引喪主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以盞跪進，喪主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哭興平身，引降復位。 謁者引喪主行終獻禮如亞獻儀，引降復位。 贊者唱再拜哭，喪主再拜哭盡哀，謁者引出。 祝及齋郎，俱復拜位。 立定，贊者唱再拜，祝及齋郎再拜出。 內官納虞主如儀，謁者贊者就拜位再拜而出。 掌事者徹饌，祝幣瘞於坎。 謁者一、贊者一【竝參外】 祝一【文官參外】 齋郎一【參外】 掌事者一【祭物備辦各司】</p>
<p>13. 세종 94권, 23년 (1441 신유 / 명 정통 (正統) 6년) 10월 26일(기축) 2번째기사 예조에서 현덕빈 혼궁의 사중제(四仲祭) 의 주(儀注)를 아뢰다</p>	<p>예조에서 현덕빈 혼궁(顯德嬪魂宮)의 사중제(四仲祭)3368 의 주(儀注)를 아뢰기를, “재계(齋戒)를 제사 전에 3일 동안 하는데,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이 2일 동안 산재(散齋)하여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1일 동안 향소(享所)에서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과·부추·마늘·당파 등을 먹지 아니하며,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아니하고 풍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署名)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에 참례하지 아니하</p>	<p>禮曹啓顯德嬪魂宮四仲祭儀注： 齊戒前三日，應行事執事官散齋二日，宿於正寢，致齋一日於享所。 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致齋，唯行享事。 陳設：前一日，掌事者設喪主位於東階</p>

며, 치재(致齋)에는 오직 제사만 행할 뿐이다. 진설(陳設)은, 제사 전 1일에 일을 장사자(掌事者)가 상주(喪主)의 자리를 동계(東階) 동남쪽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알자(謁者)와 찬자(贊者)의 자리를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하여 마련한다. 장사자(掌事者)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들고, 준(尊)3369)을 지계문 바깥 왼쪽에 설치하고, 폐비(幣篋)3370)를 준소(尊所)에 진설하며, 향로·향합·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한다. 세(洗)들을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여러 집사(執事)의 세(洗)도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한다. 제삿날 축시(丑時) 5각(刻) 전에 장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찬구(饌具)에 담기를 마치고, 3각 전에 여러 집사가 각각 그 의복을 입고, 상주는 상복(喪服)을 입는다. 집사들은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담제(禫祭) 후에는 헌관(獻官) 이하가 모두 길복(吉服)을 입는다. 알자와 찬자가 뜰 가운데의 배위(拜位)에 먼저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쪽을 뒷자리로 하여 두 번 절하고는 각각 제자리에 나아가고, 축(祝)과 재랑(齋郎)이 들어와서 뜰 가운데의 배위에 나아가 서기를 정한다. 찬자가 ‘재배(再拜)하라.’고 하면, 축과 재랑이 재배한다.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기를 마치면 각각 자리에 나아가간다. 내관(內官)이 궤(匱)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모시고 집사자(執事者)는 잔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잔(盞)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 반(盤)에 놓아서 준소(尊所)로 받들고 간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해 들어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찬자가 ‘재배하라.’고 하면, 상주가 두 번 절하고, 찬자가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라.’고 하면,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해 서서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기를 마치고는 동계(東階)로부터 올라와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는데, 축이 이를 겸한다. 상주가 세 번 향을 올리고, 집사는 향로를 향안(香案)에 드린다. 축이 폐비(幣篋)를 상주에게 주면 상주는 폐백을 잡

東南，西向；設謁者贊者位於東階西南，西向。掌事者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之右；設尊於戶外之左；陳幣篋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洗二於東階東南，北向；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祭日丑前五刻，掌事者帥其屬入，實饌具畢。前三刻，諸執事各服其服，喪主服喪服，諸執事服淺淡服。禫後獻官以下，皆服吉服。謁者贊者先就庭中拜位，北向西上再拜，各就位，祝及齋郎入就庭中拜位。立定，贊者曰：“再拜。”祝及齋郎再拜，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內官開匱，奉出神主安於座。執事者詣盥洗位，洗盞拭盞，置於盤，奉詣尊所。謁者引喪主入就位西向立，贊者曰：“再拜。”喪主再拜。贊者曰：“行奠幣禮。”謁者引喪主詣盥洗位北向立盥帨訖，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跪進，祝兼之，喪主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祝以幣篋授喪主，喪主執幣獻幣，以幣授祝，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與平身，喪主俯伏與平身，引降復位。小頃，謁者引喪主升自東階，詣

아서 드리되, 폐백을 축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부복·홍·평신’을 찬(贊)하면, 상주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인도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해 서게 하면, 집사자가 술을 따른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술잔을 꿇어앉아 올린다. 상주가 술잔을 잡아서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으라.’ 찬한다. 축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부복·홍·평신’을 찬하고, 상주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술을 따른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면, 집사자가 잔을 꿇어앉아 올린다. 상주가 받아서 잔을 드리되,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부복·홍·평신’을 찬하면, 상주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종헌례(終獻禮)를 행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재배하라.’고 창하면, 상주가 두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인도하여 밖으로 나간다. 축과 재량은 함께 배위(拜位)에 돌아가서 서기를 정하고, 찬자가 ‘재배하라.’고 창하면, 축과 재량이 두 번 절하고 나간다. 내관(內官)이 신주를 의식과 같이 들이고, 알자와 찬자는 배위에 나아가서 재배하고 나온다. 장사자는 예찬을 걷어치우고, 축문과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다. 헌관(獻官)은 담 전(前)에는 상주가 하고, 담 후(後)에는 정3품이 하며, 알자 한 사람과 찬자 한 사람, 재량 두 사람은 모두 참외(參外)가 하고, 축 한 사람은 문관 참외(文官參外)가 한다.”

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謁者引喪主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以盞跪進，喪主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興少退北向跪。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平身，喪主俯伏興平身，引降復位。小頃，謁者引喪主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謁者引喪主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以盞跪進，喪主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興平身，喪主俯伏興平身，引降復位。謁者引喪主行終獻禮如亞獻儀，引降復位。贊者唱再拜，喪主再拜，謁者引出。祝及齋郎，俱復拜位。立定，贊者唱再拜，祝及齋郎再拜出。內官納神主如儀，謁者贊者就拜位再拜而出。掌事者徹饌，祝幣埋於坎。獻官，禫前喪主，禫後正三品。謁者一、贊者一、齋郎二，竝參外；祝一，文官參外。

	고 하였다.	
14. 世宗 95卷, 24年 (1442 壬戌 / 명 정통 (正統) 7年) 1月 9日 (辛未) 5번째기사 황해도에 흉년이 들어 구황할 초식과 장을 베풀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구황(救荒)할 초식(草食)과 장(醬) 1천 5백 석을 이미 예비하였습니다. 청하옵건대, 본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여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하고 곡진한 진휼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據戶曹呈啓: “黃海道失稔救荒草食及醬一千五百石, 已曾預備。請依本道觀察使所報, 令置賑濟場, 曲加賑恤。”從之。
15. 세종 96권, 24년 (1442 임술 / 명 정통 (正統) 7년) 4월 5일 (을미) 3번째기사 양녕 대군의 딸이 죽어 육선을 폐하니 황보인 등이 두세 번 청하자 허락하다	임금이 양녕 대군의 딸이 죽은 까닭으로 육선(肉膳)을 폐하니, 황보인과 김종서가 여러 승지들과 더불어 아뢰기를, “목욕하신 후에는 소선(素膳)이 적당하지 않으니, 육선(肉膳)을 드시기를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택하지 아니하며, 황보인 등이 청하기를 두번 세번에 이르니, 그제야 이를 허락하였다.	上以讓寧大君女死, 輟肉膳。皇甫仁、金宗瑞, 與諸承旨啓曰: “沐浴後不宜素膳, 請進肉膳。”上不允。仁等請至再三, 乃許之。
16. 世宗 96卷, 24年 (1442 壬戌 / 명 정통 (正統) 7年) 5月 22日 (辛巳) 2번째기사 예조에서 현덕빈(顯德嬪) 혼궁(魂宮)의 연제 의식에 대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현덕빈(顯德嬪) 혼궁(魂宮)의 연제 의식(練祭儀式)에 대하여 아뢰기를, “마땅히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은 정침(正寢)에서 2일을 산재(散齋)하고, 향소(享所)에서 1일을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치사(治事)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고, 치재(致齋)만은 다만 향사(享事)를 행한다. 기일 전에 장사자(掌事者)가 주상(主喪)의 자리를 혼궁(魂宮)의 동계(東階) 동남쪽에 서향(西向)으로 설치하고, 알자(謁者)와 찬자(贊者)의 자리는 동계(東階)의 서남쪽에 서향(西向)으로 설치한다. 장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축판(祝板)을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드리고, 폐백 광주리는 준소(尊所)에 진열하며, 향로와 향합과 축(燭)은 영좌 앞에 놓는다. 준소(尊所)는 문밖 왼편에 설치하고, 세	禮曹啓顯德嬪魂宮練祭儀: “應行事執事官, 散齋二日於正寢, 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 治事如故; 致齋, 唯行享事。前期, 掌事者設主喪位於魂宮東階東南, 西向; 設謁者贊者位於東階西南, 西向; 掌事者帥其屬入, 奠祝板於靈座之右; 陳幣篚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設尊於戶外之左; 設洗二東階東南, 北向; 【盥洗在東, 盞洗在西, 有盤匱及帨巾。】諸執事洗,

(洗) 두 개는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잔세(盞洗)는 서쪽에 있는데, 반이(盤匱)와 세건(帨巾)이 있다.】 여러 집사(執事)의 관세(盥洗)는 또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주상(主喪)이 연복(練服)을 입는다. 【연포(練布)로써 관(冠)을 하고, 수련(首練)과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복(衰服)을 버린다.】 장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제수(祭需)를 다 차린 다음에, 알자·찬자가 먼저 전정(殿庭) 가운데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두 번 절하고 각기 제자리에 나아간다. 대축(大祝)과 재랑(齋郎)이 들어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서면, 찬자가 ‘재배(再拜)하라.’고 한다. 대축과 재랑은 두 번 절하고,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는,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내관(內官)이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영좌에 봉안(奉安)한다. 집사자가 관세(盥洗)하는 자리에 나아가 잔을 씻고 잔을 닦아서 반(盤)에 두고, 받들어 준소(尊所)에 나아간다. 알자가 주상(主喪)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찬자가 ‘재배(再拜)하고 곡(哭)하라.’ 하면, 주상이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슬픔을 다한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관세(盥洗)하는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는,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주상이 세 번 향을 피우고, 집사자가 향로를 쟈상[案]에 드린다. 집사자가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서 올리면, 알자가 ‘폐백을 잡으라.’ 하여 폐백을 드리게 하고는,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부복(俯伏), 곡(哭), 흥(興), 평신(平身)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술을 따르고, 알자가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면, 집사자가 잔을 들고 꿇어앉아서 올린다. 주상이 잔을 잡아 잔을

又於東南，北向。時至，主喪服練服。【以練布爲冠，去首練負版辟領衰。】掌事者帥其屬入，實饌具畢，謁者贊者先就庭中拜位北向再拜訖，各就位。祝及齋郎入就庭中拜位。立定，贊者曰：“再拜。”祝及齋郎再拜，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內官開匱，奉出神主，安於座。執事者詣盥洗位，洗盞拭盞，置於盤，奉詣尊所。謁者引主喪入就位西向立。贊者曰：“再拜哭。”主喪再拜哭盡哀。謁者引主喪詣盥洗位北向立盥洗訖，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以幣籠跪進，謁者贊執幣獻幣，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哭興平身，引降復位。小頃，謁者引主喪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謁者引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以盞跪進，主喪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哭興少退北向跪。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哭興平身，引降復位。小頃，謁者引主喪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謁者引

	<p>드리고는,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부복(俯伏), 흥(興), 소퇴(少退), 북향궐(北向跪)하라.’ 하면, 대축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부복(俯伏), 곡(哭), 평신(平身)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에 돌아간다. 조금 후에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술을 따르고,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면, 알자가 ‘부복(俯伏), 곡(哭), 흥(興), 평신(平身)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에 돌아간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종헌(終獻)을 행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에 돌아간다. 찬자가 ‘재배(再拜) 곡진애(哭盡哀)하라.’ 창(唱)하고,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과 재량이 모두 배위(拜位)에 앉으려 있으면, 찬자가 ‘재배(再拜)하라.’ 창(唱)하고, 대축과 재량은 두 번 절하고 나간다. 내관(內官)이 신주(神主)를 들여놓기를 의식대로 한다. 알자와 찬자가 배위(拜位)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나간다. 장사자가 제찬(祭饌)을 걷어치우고, 축문과 폐백은 구덩이에 묻는다.” 고 하였다.</p>	<p>主喪詣靈座前， 謁者贊俯伏哭興平身， 引降復位。 謁者引主喪行終獻如亞獻儀， 引降復位。 贊者唱再拜哭盡哀， 謁者引出。 祝及齋郎俱伏拜位。 立定， 贊者唱再拜， 祝及齋郎再拜出。 內官納神主如儀。 謁者贊者就拜位再拜而出， 掌事者徹饌， 祝幣瘞於坎。”</p>
<p>17. 세종 97권, 24년 (1442 임술 / 명 정통 (正統) 7년) 7월 1일 (기미) 4번째기사 종정성에게 쌀과 대두 소주 등의 물품을 하사하다</p>	<p>종정성(宗貞盛)에게 쌀과 대두(大豆) 2백 석과 소주 50병, 면주(縣紬) 10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5필, 호피(虎皮) 5장, 마른 청어(靑魚) 1백 두름, 마른 잉어 1백 마리, 나과(鑼鍋) 1개, 청동 화로(靑銅火爐) 1개, 놋쇠 동이[鍮盆] 2개,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을 하사하였다.</p>	<p>賜宗貞盛米豆二百碩、燒酒五十瓶、縣紬十匹、白苧布五匹、黑麻布五匹、虎皮五領、乾靑魚一百束、乾鯉魚一百尾、鑼鍋一、靑銅火爐一、鍮盆二、滿花方席十張。</p>
<p>18. 世宗 97卷, 24年 (1442 壬戌 / 명 정통 (正統) 7年) 7月 12日</p>	<p>예조에서 현덕빈(顯德嬪) 혼궁(魂宮)의 상제(祥祭) 의주(儀注)에 대하여 아뢰기를, “마땅히 행사(行事)하여야 할 집사관(執事官)은 정침(正寢)에서 이를 동안 산</p>	<p>禮曹啓顯德嬪魂宮祥祭儀注：“應行事執事官，散齋二日於正寢，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治事如故；致齋，唯</p>

(庚午) 7번째기사
예조에서 현덕빈 혼궁
의 상제 의주에 대하
여 아뢰다

재(散齋)하고, 향소(享所)에서 하룻 동안 치재(致齋)한다. 대체로 산재(散齋) 때에는 평소와 같이 사무도 처리하고, 치재(致齋)에는 오직 제향의 일만을 행한다. 기일에 앞서 장사자(掌事者)가 혼궁(魂宮)의 동계(東階) 동남쪽에 서향하여 주상(主喪)의 자리[位]를 설치하고, 알자(謁者)와 찬자(贊者)의 자리를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장사자(掌事者)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祝版)을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놓고, 폐백 광주리[幣]를 존소(尊所)에 진열하며,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를 영좌(靈座) 앞에 설치한다. 존(尊)은 지계문 밖[戶外]의 왼쪽에 설치하고, 세(洗) 둘을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며,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잔세(盞洗)는 서쪽에 있다. 반이(盤匱)와 세건(帨巾)이 있다.】 여러 집사(執事)의 세(洗)는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때가 되면 주상(主喪)이 담복(禫服)을 입는다. 【담복은 참포의(黦布衣)에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의 차림이다. 참(黦)이라 함은 옅은 청흑색(靑黑色)을 말한다.】 장사자(掌事者)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찬구(饌具)에 제물(祭物)을 담기를 마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뜰 가운데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재배(再拜)한 다음,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축(祝)과 재량(齋郎)이 들어와 뜰 가운데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서면, 찬자가 ‘재배하라.’ 창(唱)하여, 축과 재량이 재배(再拜)하고,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내관(內官)이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영좌(靈座)에 봉안(奉安)하고, 집사자(執事者)가 잔세위(盞洗位)에 나아가서 잔을 씻고 잔을 닦아서, 소반[盤]에 놓아 가지고 받들어 존소(尊所)에 나아간다. 알자가 주상(主喪)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면, 찬자가 ‘재배하고 곡하라.’ 창(唱)하여, 주상이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관세를 마치면,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집사자 한

行享事。前期，掌事者設主喪位於魂宮東階東南，西向；設謁者贊者位於東階西南，西向。掌事者率其屬入，奠祝版於靈座之右；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設洗二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盞洗在西，有盤匱及帨巾。】諸執事洗於東南，北向。時至，主喪服禫服。【服，黦布衣烏紗帽黑角帶。黦者，淺青黑色也。】掌事者帥其屬入，實饌具畢，謁者贊者先就庭中拜位北向西上再拜訖，各就位。祝及齋郎入就庭中拜位。立定，贊者唱再拜，祝及齋郎再拜，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內官開匱，奉出神主安於座。執事者詣盞洗位，洗盞拭盞，置於盤，奉詣尊所。謁者引主喪入就位西向立，贊者唱再拜哭，主喪再拜哭盡哀。謁者引主喪詣盥洗位北向立盥洗訖，謁者引主喪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跪進，謁者贊三上香，主喪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以幣篚跪進，謁者贊執幣獻幣，主喪執幣獻幣，以幣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哭興

사람은 향합(香合)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고 찬(贊)하여, 주상이 세 번 상향(上香)한다. 집사자가 향로를 안(案) 위에 올려놓는다. 집사자가 폐백 광주리[幣]를 꿇어앉아 올리면, 알자가 ‘집폐헌폐(執幣獻幣)하라.’고 찬하며, 주상이 폐백을 집어 폐백을 올리는데, 폐백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靈座) 앞에 드린다. 알자가 ‘부복하여 곡하고 일어나 평신(平身)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뒤에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사자가 술을 따른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면, 집사자가 잔을 꿇어앉아 올린다. 알자가 ‘집잔헌잔(執盞獻盞)하라.’고 찬하여, 주상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린다. 알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라.’고 찬한다. 축(祝)이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부복하고 곡하고 일어나서 평신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뒤에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술을 따른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잔을 꿇어앉아 올린다. 알자가 ‘집잔헌잔(執盞獻盞)하라.’고 찬하여, 주상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린다. 알자가 ‘부복하고 곡하고 일어나 평신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종헌례(終獻禮)를 행하기를 아헌례(亞獻禮)의 의식(儀式)과 같이 행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찬자(贊者)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창(唱)하여, 주상이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나가고, 축과 재량(齋郎)이 모두 배위(拜位)에 돌아가 서면, 찬자가 ‘재배하라.’고 창(唱)하여, 축과 재량이 재배하고 나간다. 내관(內

平身，引降復位。小頃，謁者引主喪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謁者引主喪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以盞跪進，謁者贊執盞獻盞，主喪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興小退北向跪，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哭興平身，引降復位。小頃，謁者引主喪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謁者引主喪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以盞跪進，謁者贊執盞獻盞，主喪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哭興平身，引降復位。謁者引主喪行終獻禮如亞獻儀，引降復位。贊者唱再拜哭，主喪再拜哭盡哀，謁者引主喪出。祝及齋郎俱復拜位。立定，贊者唱再拜，祝及齋郎再拜出。內官納神主如儀，謁者贊者就拜位再拜以出，掌事者徹饌，祝幣瘞於坎。”

	<p>官)이 신주(神主)를 <궤에> 넣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알자와 찬자가 배위에 나아가 재배하고 나간다. 장사자(掌事者)가 제물을 거두고, 축문과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19. 세종 97권, 24년 (1442 임술 / 명 정통 (正統) 7년) 9월 1일 (무오) 1번째기사 예조에서 현덕빈의 담제 의주에 대하여 아뢰다</p>	<p>예조에서 현덕빈(顯德嬪)의 담제 의주(祭儀注)를 찬정(撰定)하여 아뢰기를, “마땅히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은 2일 동안 정침(正寢)에서 산재(散齋)하고, 1일 동안 향소(享所)에서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散齋) 때에는 치사(治事)를 전과 같이 하되, 치재(致齋) 때에는 오직 향사(享事)의 일만을 행한다. 기일에 앞서 장사자(掌事者)가 주상(主喪)의 위치를 혼궁(魂宮)의 동계(東階)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謁者)·찬자(贊者)의 자리를 동계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한다. 장사자가 그 소속(所屬)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祝板)을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폐백 광주리[幣]를 준소(尊所)에 진설한다.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를 모두 영좌(靈座)의 앞에 진설한다. 준소(尊所)는 지계문[戶] 밖의 왼쪽에 설치하며, 세(洗) 두 곳을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동에 있고 잔세(盞洗)는 서쪽에 있다. 반(盤)과 대야와 수건이 있다.】 제집사의 세위(洗位)는 또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p> <p>시각이 되면, 장사자(掌事者)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수를 제기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뜰 가운데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되, 서쪽을 위로 해서 재배(再拜)하고 나서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축관(祝官)과 재량(齋郎)이 들어와 뜰 가운데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선다. 찬자가 ‘재배하라.’ 하면 축관과 재량이 재배하고,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면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내관(內官)이 혼독(魂櫝)을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고 나와 영좌(靈座)에 봉안(奉安)한다. 집사(執事)가 잔세위(盞洗位)에 나아가서 술잔을 닦고 나서 반(盤)에 받들고 준소(尊所)에 나</p>	<p>戊午朔/禮曹撰顯德嬪禫祭儀注以啓：“應行事執事官，散齋二日於正寢，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治事如故；致齋，惟行享事。前期，掌事者設主喪位於魂宮東階東南，西向；設謁者贊者位於東階西南，西向。掌事者帥其屬入，奠祝板於靈座之右；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設洗二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盞洗在西，有盤匱及幌巾。】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時至，掌事者帥其屬入，實饌具畢，謁者贊者先就庭中拜位，北向西上再拜訖，各就位。祝及齋郎入就庭中拜位。立定，贊者曰：“再拜。”祝及齋郎再拜，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內官開櫝，奉出神主安於座。執事者詣盞洗位，洗盞拭盞，置於盤，奉詣尊所。謁者引主喪入就位西向立，贊者曰：“再拜哭。”主喪再拜哭盡哀。謁者引主喪詣盥洗位北向立盥洗訖，升自東</p>

아간다. 알자(謁者)는 주상(主喪)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찬자가 ‘재배하고 곡(哭)하라.’ 하면, 주상이 재배하고 곡(哭)하여 슬픔을 다한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관세하기를 마치면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집사자 1인은 향합(香合)을 받들고, 1인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주상(主喪)이 세 번 향을 올린다. 집사자가 향로를 안(案) 위에 올려 놓고, 집사자가 폐백 광주리를 올린다. 알자가 ‘집폐(執幣)·헌폐(獻幣)하라.’ 찬하면, 폐백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靈座)의 앞에 올린다. 알자가 ‘부복(俯伏)·곡(哭)·흥(興)·평신(平身)’이라 찬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 자리에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주상(主喪)을 인도하여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사자가 술을 잔에 따른다. 알자가 인도하여 영좌(靈座)의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고, 집사자는 꿇어앉아 술잔을 올린다. 주상이 잔을 잡아 잔을 올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靈座)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렀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라.’ 찬한다. 축관(祝官)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부복·곡·흥·평신’이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에 나아가간다. 조금 뒤에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사자가 잔에 술을 따른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면, 집사자가 꿇어앉아 술잔을 올린다. 주상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부복·곡·흥·평신’이라 찬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뒤에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종헌례(終獻禮)를 행하기를 아헌(亞獻)의 예의와 같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재배하고 곡(哭)하라.’ 창(唱)하면, 주상이

階，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跪進，主喪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以幣篚進，謁者贊執幣獻幣，以幣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哭興平身引降復位。小頃，謁者引主喪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謁者引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以盞跪進，主喪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興，小退北向跪。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哭興平身，引降復位。小頃，謁者引主喪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謁者引主喪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以盞跪進，主喪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哭興平身，引降復位。小頃，謁者引主喪行終獻禮如亞獻儀，引降復位。贊者唱再拜哭，主喪再拜哭盡哀，謁者引出。祝及齋郎俱復拜位。立定，贊者唱再拜，祝及齋郎再拜出，內官納神主如儀。謁者贊者就拜位再拜而出，掌事者撤饌，祝幣瘞於坎，主喪服吉服。”

	<p>재배(再拜)하고 곡(哭)하여 슬픔을 다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인도하여 나아가고, 축관과 재량은 함께 배위(拜位)에 돌아와 선다. 찬자가 ‘재배하라.’ 창하면 축관과 재량이 재배하고 나간다. 내관(內官)은 신주를 봉납(奉納)하기를 의식(儀式)과 같이 하고, 알자·찬자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재배하고 나가면, 장사자(掌事者)가 예찬을 걸어치우고 축문과 폐백을 구덩이에 묻고 주상이 길복(吉服)을 입는다.” 하였다.</p>	
<p>20. 世宗 98卷, 24年 (1442 壬戌 / 명 정통 (正統) 7年) 11月 24日 (庚辰) 5번째기사 예조에서 종묘의 사시제와 납향에 왕세자가 대행하는 의주를 아뢰다</p>	<p>예조에서 종묘(宗廟)의 사시제(四時祭)와 납향(臘享)에 왕세자가 대행(代行)하는 의주(儀注)를 아뢰기를, “시일(侍日)은 서운관(書雲觀)에서 미리 계절(季節)을 걸러 맹춘(孟春)의 상순(上旬)에 길일(吉日)을 가려서 예조에 보고하면, 【맹하(孟夏)·맹추(孟秋)·맹동(孟冬)도 모두 이에 준하고 납향(臘享)은 미리 계절을 걸러 계동(季冬)의 납일(臘日)로써 예조에 보고한다.】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게 나누어 알려서 직책에 따라 공관(供辦)하게 한다. 재계(齋戒)는 제향(祭享) 8일 전에 첨사원(詹事院)에서 재계하기를 청하면, 왕세자가 별실(別室)에서 4일 동안 산재(散齋)하고, 3일 동안 치재(致齋)하는데, 2일 동안은 정실(正室)에서 하고, 1일 동안은 재실(齋室)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간여하지 아니하고, 치재(致齋)에는 다만 제향(祭享)의 일만 다스리게 한다. 제향(祭享) 7일 전에 아헌관(亞獻官) 이하의 행사(行事)하는 집사관(執事官)이 서계(誓戒)를 의정부에서 받는다. 그날 날이 채 밝기 전 7각(刻)에 통례문(通禮門) 자리를 베푸는데, 아헌관(亞獻官)은 북쪽에 있어 남쪽을 향하고 종헌관(終獻官)·진폐 찬작관(進幣贊爵官)·천조관(薦俎官)·전폐 찬작관(奠幣贊爵官)은 남쪽에 있어 모두 북쪽을 향하되 서쪽을 위로 하고,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한다. 다음 칠사 헌관(七祀獻官)과 공신 헌관(功臣獻官)은 또한 그 남쪽에서 모</p>	<p>禮曹啓宗廟四時及臘享王世子代行儀注：“時日，書雲觀預於隔季，以孟春上旬，擇吉報禮曹，【孟夏孟秋孟冬，竝準此。臘享則預於隔季，以季冬臘日報禮曹。】禮曹啓聞，散告攸司，隨職供辦。 齋戒：前享八日，詹事院請齋戒。王世子散齋四日於別室；致齋三日，二日於正室，一日於齋室。凡散齋，不弔喪問疾，不聽樂，不與刑殺文書；致齋，唯治享事。前享七日，亞獻官以下行事執事官受誓戒於議政府。其日未明七刻，通禮門設位，亞獻官在北南向；終獻官進幣贊爵官薦俎官奠幣贊爵官在南，俱北向西上，異位重行，次七祀獻官功臣獻官，又於其南，俱北向西上；監察在西東向；執禮引進使典祀官大祝祝史齋郎協律郎宗廟令宮闈令掌</p>

두 북쪽을 향하되 서쪽을 위로 하고, 감찰(監察)은 서쪽에 있어 동쪽을 향하고, 집례(執禮)·인진사(引進使)·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량(齋郎)·협률랑(協律郎)·종묘령(宗廟令)·궁위령(宮闈令)·장생령(掌牲令)·아악령(雅樂令)·봉조관(奉俎官)·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壘者)·집비자(執篚者)·집먹자(執冪者)·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은 동쪽에 있어 서쪽을 향하고,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날이 채 밝기 전 5각(刻)에 봉례랑(奉禮郎)이 행사(行事)하는 집사관(執事官)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아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간다. 통찬(通贊)은 아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서 서문(誓文)을 대독(代讀)하기를, ‘금년 아무 달 아무 날에 왕세자가 종묘(宗廟)에 대신 제향(祭享)하는데, 무릇 행사하는 집사관(執事官)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않고,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형벌을 행하지 않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관결 서명(署名)하지 않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각기 그 직무에 충실히 할 것이니, 그 혹시 어긋남이 있으면 나라에 일정한 형벌이 있다.’ 한다. 읽기를 마치고 나면 통찬이 ‘재배(再拜)하라.’ 찬하여,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간다. 무릇 행사하는 집사관과 종관(從官)으로 마땅히 따라 오를 사람은 모두 4일 동안을 산재(散齋)하되,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3일 동안을 치재(致齋)하되, 2일은 본사(本司)에서 하고 1일은 향소(享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 전과 같이 하고, 치재(致齋)에는 다만 제향(祭享)의 일만을 행한다. 이미 재(齋)를 했는데도 빠진 사람은 서로 행사(行事)를 대신하게 하고 종관(從官)과 제위(諸衛)의 소속으로서 종문(宗門)을 수어(守禦)하는 사람은 【대장(隊長)이 문마다 각각 2인이고, 모퉁이마다 각각 1인이다.】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하면서 2일을 유숙하고, 공인(工人)과 문무(文舞)·무무(武舞)는 청재(淸齋)하면서 봉상시(奉常寺)에서 1일을 유숙한다. 아헌관 이하의 관원이 치

牲令雅樂令奉俎官執尊壘篚冪者謁者贊者贊引在東西向，每等異位，俱重行北上。未明五刻，奉禮郎引行事執事官就位，引亞獻官就位。通贊就亞獻官之左西向立，代讀誓文曰：“今年某月某日，王世子代享于宗廟。凡行事執事官，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各(楊) [揚] 其職。其或有違，國有常刑。”讀訖，通贊贊再拜，在位者皆再拜乃退。凡行事執事官及從官應從陞者，竝散齋四日，宿於正寢；致齋三日，二日於本司，一日於享所。凡散齋，治事如故；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從官及諸(違) [衛] 之屬守禦宗門者，【隊長每門各二人，每隅各一人。】各於本司，淸齋二宿；工人二舞淸齋一宿於奉常寺；亞獻官以下，前致齋一日，竝集議政府(隸) [肄] 儀，前享一日，竝集享所。【凡預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令漢城府淸所行之路，不得見諸凶穢衰(經) [經]。其哭泣之聲聞於享所，臨時絕。】陳設：前享二日，忠扈衛設王世子次於

재(致齋) 1일 전에 모두 의정부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하고, 제향(祭享) 1일 전에 모두 향소(享所)에 모인다. 【무릇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제향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으며,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가는 길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흥하고 더러운 상복(喪服)은 보지 못하게 하며, 그 우는 소리가 향소(享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끊게 한다.】 진설(陳設)을 제향(祭享) 2일 전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왕세자의 자리를 재궁(齋宮)의 동남쪽에 서향(西向)하여 설치하고, 종관(從官)의 자리는 그 앞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하며, 여러 향관(享官)의 자리는 재방(齋坊)의 안에 설치한다. 2일 전에 종묘령(宗廟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종묘(宗廟)의 안팎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동문(東門) 밖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1일 전에 아악 령(雅樂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등가(登歌)의 악(樂)을 당상(堂上)의 앞기둥[前楹] 사이에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묘정(廟庭)에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한다. 1일 전에 장생령(掌牲令)은 생(牲)을 이끌고 향소(享所)에 나아가고, 종묘령(宗廟令)과 전사관(典祀官)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기(祭器) 놓을 자리를 당상(堂上)의 동쪽 옆의 섬돌 북쪽에 설치하고 청결함을 고하기[告潔]를 기다린다. 집례(執禮)가 왕세자의 판위(版位)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음복(飲福)하는 자리를 앞기둥 밖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종헌관·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천조관(薦俎官)·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칠사 헌관(七祀獻官)·공신 헌관(功臣獻官)의 자리를 왕세자 판위(版位)의 뒤, 길 남쪽에 서향하여, 집사자(執事者)의 자리를 그 뒤에 설치하되,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고 서향하며,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묘정(廟庭)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배석(陪席)하게 한다. 집례(執禮)의 자리 둘을 설치하는데, 하나는 당상(堂上)의 앞 기둥 밖에 설치하고 하나는 당하(堂下)에 설치하되,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게 한다. 알자·찬자·

齋宮東南，西向；設從官次於其前，隨地之宜；設諸享官次於齋坊之內。前二日，宗廟令帥其屬，掃除廟之內外；設饌幔於東門外，隨地之宜。前一日，雅樂令率其屬，設登歌之樂於堂上前楹間；設軒架於廟庭，俱北向。前一日，掌牲令牽牲詣享所。宗廟令典祀官，各帥其屬，設祭器位於堂上東側階北，以俟告潔。執禮設王世子版位於阼階東南，西向；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設亞獻官終獻官進幣瓚爵官薦俎官奠幣瓚爵官七祀獻官功臣獻官位於王世子版位之後道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每等異位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廟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設執禮位二，一於堂上前楹外，一於堂下，俱東西向；謁者贊者贊引在堂下執禮之後稍南，西向北上；協律郎位於堂上前楹外近西，東向；雅樂令位於軒懸之北，北向；設門外位享官及諸執事位於東門外道南，每等異位重行，俱北向西上；設牲勝於東門外，當門西向，以南爲上；設掌牲令位於牲西南；設諸大祝位於牲東，各當牲後，祝史各在其後，俱西向；設亞獻官省牲位於牲

찬인은 당하(堂下)의 집례(執禮) 뒤에 있게 하되, 조금 남쪽으로 다가서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협률랑의 자리는 당상(堂上)의 앞기둥 밖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하고, 아악 령(雅樂令)의 자리는 현현(軒縣)의 북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문밖의 자리[門外位]를 설치하는데, 향관(享官)과 여러 집사(執事)의 자리는 동문(東門) 밖의 길 남쪽에 있게 하되,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모두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생방(牲榜)을 동문 밖에 설치하는데, 문앞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남쪽을 위로 한다. 장생령(掌牲令)의 자리는 생(牲)의 서남쪽에 설치하고 여러 대축(大祝)의 자리는 생(牲)의 동쪽에 설치하되, 각기 생(牲)의 뒤쪽에 있게 하고, 축사(祝史)도 각기 그 뒤에 있게 하되, 모두 서쪽을 향하게 한다. 아헌관이 생을 살피는 자리[省牲位]는 생(牲) 앞에 북쪽 가까이 설치하고, 감찰의 자리는 아헌관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남쪽을 향하게 한다. 예감(瘞坎)은 묘(廟)의 북쪽 임방(壬方)에 파되, 땅의 모[方]와 깊이[深]는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하고, 남쪽으로 오르는 층계를 내며, 망예(望瘞)하는 자리는 예감(瘞坎)의 남쪽에 설치한다. 왕세자는 남쪽에 있어 북향하고, 집례·대축·찬자는 동쪽에 있어 모두 겹줄로 서서 서향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칠사(七祀)의 예감(瘞坎)은 서문(西門) 밖에 파게 한다.

제향(祭享)하는 날 행사하기 전에, 궁위령(宮闈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실(祭室)을 열고,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자리를 펴고 안석[几]을 설치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종묘령(宗廟令)과 전사관(典祀官)이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 각 하나씩을 각 실(室)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드리고, 【각기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幣]를 각 실(室)의 존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축(燭)을 신위(神位)의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饌需) 담을 그릇을 설치하되, 매 실(室)마다 각기 변(籩) 12개는 왼쪽에 놓되 두 줄로 하여 오른쪽을 위로 하며, 두(豆) 12개는 오른쪽에

前近北; 設監察位於亞獻官之西, 俱南向; 開瘞坎於廟之北壬地, 方深取足容物, 南出陛; 設望瘞位坎之南; 王世子在南北向; 執禮大祝贊者在東, 俱重行西向北上; 開七祀瘞坎於西門之外。享日未行事前, 宮闈令帥其屬, 開室整拂神幄, 鋪筵設几如常儀。宗廟令典祀官各帥其屬入, 奠祝版各一於各室神位之右, 【各有坫】陳幣籩於各室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之前, 次設祭器實饌具。每室各籩十二在左, 爲二行右上; 豆十二在右, 爲二行(在) [左]上。俎三, 二在(邊) [籩]前, 一在豆前。豆右之俎三。簠簋各四在籩豆間, 簠居前, 簋次之。甗銅各六在簠簋後, 銅居前, 甗次之。爵六在簠簋前。又設尊彝於戶外之左, 每室春夏, 雞彝一、鳥彝一、犧尊二、象尊二、山罍二爲四行; 秋冬及臘, 罍彝一、黃彝一、著尊一、壺尊二、山罍二爲四行, 皆加勺幕, 北向西上。每室設瓚槃各一於尊所(坫) [坫]上, 設爐炭於前楹間, 毛血槃(閒) [肝] 膾甗蕭籩黍稷籩各一於其後。設飲福爵胙肉俎各一於翼祖室尊所, 又設翼祖室俎一於饌

놓되 두 줄로 하여 왼쪽을 위로 하며, 조(俎) 3개로서 2개는 변(籩)의 앞에
 놓고 1개는 두(豆)의 앞에 놓으며, 두 오른쪽의 조(俎)가 3개, 보(簠)와 궤(簋)
 가 각각 4개로서, 변과 두 사이에 놓되 궤가 앞에 있게 하고, 보가 그 다음에
 있게 하며, 등(甗)과 형(銅)이 각기 6개인데, 보(簠)·궤(簋) 뒤에 놓되 형이 앞
 에 있게 하고, 등은 그 다음에 있게 한다. 작(爵)이 6개인데, 보(簠)·궤(簋) 앞
 에 놓는다. 또 준(尊)과 이(彝)를 호외(戶外)의 왼쪽에 설치하되, 매 실(室)마
 다 봄·여름에는 계이(鷄彝) 1개, 조이(鳥彝) 1개, 희준(犧尊) 2개, 상준(象尊)
 2개, 산뢰(山罍) 2개로서 너 줄이 되게 하고, 가을·겨울과 납일(臘日)에는 가
 이(斝彝) 1개, 황이(黃彝) 1개, 착준(著尊) 1개, 호준(壺尊) 2개, 산뢰(山罍) 2
 개로서 너 줄이 되게 하되, 모두 국자[勺]와 보자기[冪]를 덮어 두며, 북향하
 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매 실(室)마다 찬(瓚)과 반(槃) 각 1개씩을 준소
 (尊所)의 점(坵) 위에 설치하고, 화로 숯불[爐炭]을 앞기둥 사이의 모혈반(毛
 血槃) 사이에 설치하고, 기름을 담은 등(甗)과 쭉을 담은 변(籩)과 서직(黍稷)
 을 담은 변을 각 1개씩 그 뒤에 설치한다. 음복작(飲福爵)과 조육조(胙肉俎)
 각 1개씩을 익조실(翼祖室) 준소(尊所)에 설치하고, 또 익조실(翼祖室) 조(俎)
 1개를 찬만(饌幔) 안에 설치한다. 칠사(七祀)의 신위판(神位版)을 묘정(廟庭)
 의 서쪽에다 조금 남쪽으로 동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자리[席]는
 모두 왕골자리로 한다. 축판(祝版)은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설치하고, 제기
 (祭器)는 매 신위마다 각기 왼쪽에 변(籩) 2개, 오른쪽에 두(豆) 2개를 설치하
 고, 보(盥)·궤(簋) 각기 1개씩을 변과 두 사이에 놓되, 보는 왼쪽에 있게 하고,
 궤는 오른쪽에 있게 한다. 조(俎) 1개는 보·궤 앞에 놓고, 작(爵) 1개는 조
 (俎) 앞에 놓으며, 호준(壺尊) 2개는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설치하여 국자와
 보자기를 덮어둔다. 배향 공신(配享功臣)의 위판(位版)은 묘정(廟庭)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진설(陳設)은 칠사(七祀)의 의식과 같이
 한다. 세(洗)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너(罍)는 세(洗)의

幔內; 設七祀神位版於廟庭之西稍南,
 東向北上, 席皆以莞; 設祝版於神位之
 右; 設祭器每位各左二籩、右二豆, 籩
 簋各一在籩豆間, 籩在左簋在右, 俎一
 在簠簋前, 爵一在俎前。 壺尊二設神
 位之左, 加勺冪。 設配享功臣位版於
 廟庭之東, 西向北上。 陳設如七祀
 儀。 設洗於阼階東南北向, 罍在洗東
 加勺, 籩在洗西南肆, 實以巾。 亞終
 獻洗又於東南北向, 罍在洗東加勺, 籩
 在洗西南肆, 實以巾。 又設七祀功臣
 獻官洗各於神位之南, 俱北向, 罍在洗
 東加勺, 籩在洗西南肆, 實以巾爵。
 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 北向,
 執尊罍籩冪者位於尊罍籩冪之後。
 受香祝: 前享一日, 晝漏上水一刻, 有
 司設香祝案於勤政殿當中, 南向; 設香
 案於其前; 設殿下拜位於月臺當中, 北
 向。 通禮門設典儀位於東階之東, 通
 贊二人在南少退, 俱西向; 設左右侍臣
 位於東西階之南, 相對異位重行, 俱北
 向; 設王世子位於殿庭道東; 設亞獻官
 以下應行事執事官位於其南, 異位重
 行, 北向西上; 設鹵簿於闕門外; 設王
 世子幕次於勤政門外, 侍臣各具朝服。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勺]를 얹어 놓고, 광주리[篋]는 세(洗)의 남쪽에 벌여 놓되 수건을 담아 둔다. 아헌관·종헌관의 세(洗)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너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勺]를 얹어 놓고, 광주리는 세(洗)의 서남쪽에 벌여 놓되, 수건을 담아 둔다. 또 칠사(七祀)·공신(功臣)의 헌관(獻官)의 세(洗)도 각기 신위(神位)의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하고, 너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勺]를 얹어 놓고, 광주리[篋]는 세(洗)의 서남쪽에 벌여 놓되 수건과 작(爵)을 담아 둔다. 여러 집사(執事)의 관세(盥洗)는 아헌관·종헌관의 세(洗)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집준자(執尊者)·집퇴자(執疊者)·집비자(執篋者)·집먹자(執器者)의 자리는 준(尊)·너·광주리·보자기의 뒤에 설치하고 향(香)과 축문(祝文)을 받는다. 제향(祭享) 1일 전에 낮 시각(時刻)이 1각(刻)이 되면, 유사(有司) 향축안(香祝案)을 근정전(勤政殿) 한가운데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을 그 앞에 설치한다.

전하(殿下)의 배위(拜位)는 월대(月臺)의 한가운데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통례문(通禮門)이 전의(典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쪽에 설치하고, 통찬(通贊) 2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좌우 시신(左右侍臣)의 자리는 동계(東階)와 서계(西階)의 남쪽에 설치하되 서로 마주 보게 하고,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모두 북향하게 한다. 왕세자의 자리는 전정(殿庭)의 길 동쪽에 설치하고, 아헌관 이하의 마땅히 행사(行事)해야 할 집사관(執事官)의 자리는 그 남쪽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노부(鹵簿)를 쥘문 밖에 설치하고, 왕세자의 막차(幕次)를 근정문(勤政門) 밖에 설치한다. 시신(侍臣)이 각기 조복(朝服)을 갖추어 입는다. 3각(刻)에 헌관(獻官) 이하의 마땅히 행사(行事)해야 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쥘문 밖에 모이고,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幕次)에 나아간다. 전하가 관포(冠袍)를 갖추어 입는다. 교서관원(校書官員)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고, 근신(近臣)이 전해 받들어 올리

三刻，獻官以下應行事執事官，竝集闕門外。僉知通禮引王世子就幕次，殿下具冠袍。校書官員以祝版捧進，近臣傳捧以進，殿下署訖，近臣捧祝版及香，置於案上。五刻，奉禮郎分引左右侍臣入就位，次引亞獻官以下入就位，僉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僉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判通禮導殿下出就拜位北向立，啓請再拜，導殿下香案前啓請跪，近侍一人捧香合西向跪進，近侍一人捧香爐東向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捧香祝東向跪進，判通禮啓請取香祝授王世子，王世子西向跪受興，還置於案上。判通禮啓請俯伏興平身，導殿下復位，啓請再拜，導殿下退立於月臺西東向。王世子捧香祝降自正階，判通禮啓請鞠躬，王世子降階，殿下平身。判通禮導殿下降立於階下，侍臣皆鞠躬。王世子以香祝授從官，安於鼻擔。判通禮導殿下還內，侍臣皆平身。亞獻官以下以次出門。王世子乘馬，亞獻官以下乘馬，軍士捧鼻擔鹵簿前導至齋坊門外，下馬入門。僉知通禮引王世子就廟東門外位，奉禮郎引亞獻官以下行

면, 전하가 축을 쓴다. 이를 마치면, 근신(近臣)이 축판(祝版)과 향(香)을 받들어 안상(案上)에 둔다. 5각(刻)에 봉례랑(奉禮郎)이 좌우 시신(左右侍臣)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다음에 아헌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며,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간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간다. 판통례(判通禮)가 전하를 인도하여 나가서 배위(拜位)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재배(再拜)하기를 계청(啓請)하고, 전하를 향안(香案) 앞으로 인도하여 꿇어앉기를 계청한다. 근시(近侍) 한 사람은 향합(香盃)을 받들어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리고, 근시(近侍)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들어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세 번 향을 피우기를 계청하고, 근시가 향로를 안(案)에 드리고, 근시가 향축(香祝)을 받들어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향축(香祝)을 취하여 왕세자에게 주기를 계청하면, 왕세자가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받아 가지고 일어나서 도로 안상(案上)에 둔다. 판통례가 부복(俯伏)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와서 재배(再拜)하기를 계청한다. 그리고 전하를 인도하여 물러와서 월대(月臺)의 서쪽에 서게 하되 동향하게 하고, 왕세자는 향축(香祝)을 받들어 정계(正階)로부터 내려온다. 판통례가 국궁(鞠躬)하기를 계청하고, 왕세자가 섬돌에 내려오면, 전하는 평신(平身)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섬돌 아래에 서면, 시신(侍臣)들이 모두 몸을 굽힌다. 왕세자가 향축(香祝)을 종관(從官)에게 주어 여담(鼻擔)에 두게 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전(內殿)으로 돌아가면, 시신(侍臣)들은 모두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 이하의 관원이 차례대로 문(門)을 나간다. 왕세자가 말[馬]에 오르면, 아헌관 이하의 관원이 말에 오른다. 군사(軍士)가 여담(鼻擔)과 노부(鹵簿)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재방(齋坊)의 문밖에 이르면, 모두 말에서 내려 문으로 들어간다. 첨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종묘(宗廟) 동문(東門) 밖의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은 아헌

事執事官就位，俱重行北上西向立四拜訖。僉知通禮引王世子就齋室，亞獻官以下各就齋所，香祝安於卓上。省牲器：前享一日未後二刻，宗廟令帥其屬，掃除廟之內外。執事者以祭器入設於位，加以巾蓋如陳設儀。未後三刻，亞獻官以下應省牲器，俱以常服就東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入廟庭。掌牲令牽牲就位，贊引引監察升自阼階，行掃除於上，降行樂懸於下訖復位。謁者引亞獻官，贊引引監察升自阼階，視滌濯，執事者皆舉罍告潔訖，引降就位省牲位南向立，掌牲令小前曰：“請省牲。”退復位，亞獻官省牲。掌牲令前舉手曰：“臚。”復位，諸大祝各巡牲一匝西向立，舉手曰：“充。”俱復位。諸大祝與掌牲令以次牽牲詣廚，授典祀官。謁者引終獻官詣廚省鼎鑊，申視滌漑，監取明水火。贊引引監察詣廚省饌具訖，各還齋所。晡後一刻，典祀官帥宰人，以鑿刀割牲，祝史繫取毛血，又取肝及脾膾實於甑，各置饌所，遂烹牲。宗廟令率其屬，掃除廟之內外。晨祿：享日丑前五刻，宮闈令帥其屬開

관 이하의 행사(行事)하는 집사관(執事官)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되, 모두 겹줄로 북쪽을 위로 하고 서향하여 서서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에 나아가고, 아헌관 이하의 관원은 각기 재소(齋所)에 나아가서 향축(香祝)을 탁자(卓子) 위에 안치(安置)하고 생기(牲器)를 살핀다.

제향(祭享) 1일 전 미시(未時) 후 2각(刻)에 종묘령(宗廟令)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종묘의 안팎을 소제하고, 집사자(執事者)는 제기(祭器)를 들여와서 자리에 진설하고 수건을 덮어 놓는데, 진설(陳設)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미시(未時) 후 3각(刻)에 아헌관 이하의 관원으로 마땅히 생기(牲器)를 살펴야 될 사람은 모두 상복(常服)차림으로 동문(東門) 밖에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묘정(廟庭)에 들어가고, 장생령(掌牲令)은 생(牲)을 이끌고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위에 소제(掃除)를 행하고, 내려와서 아래에 악현(樂懸)을 행한다. 이를 마치면 제자리에 돌아간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깨끗이 씻었는가를 보면, 집사자가 모두 보자기를 들고 깨끗함을 고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해 내려와 자리에 나아가서 생(牲)의 자리를 살펴면서 남향하여 선다. 장생령(掌牲令)이 조금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생(牲)을 살펴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아헌관이 생(牲)을 살핀다. 장생령이 앞에 나와서 손을 들며 말하기를, ‘둔(膺)’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러 대축(大祝)이 각기 생(牲)을 한바퀴 돌아보면서 서향하여 서서 손을 들며 말하기를, ‘충(充)’ 하고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러 대축(大祝)이 장생령(掌牲令)과 더불어 차례대로 생(牲)을 이끌고 주방(廚房)에 나아가서 전사관(典祀官)에게 준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주방(廚房)에 나아가서 가마[鼎鑊]를 살피고, 깨끗이 씻었는가를 거듭 살펴보고, 명수(明水)와 불[火]을 취하는 것을 감독한다.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주방에 나아가서 제

室, 整拂神幄, 鋪筵設几如常儀。宗廟令典祀官各帥其屬入, 實饌具畢, 贊引引監察升自阼階, 按視堂之上下, 糾察不如儀者, 還出。前三刻, 諸享官及從官各服其服。執禮帥謁者贊者贊引入自東門, 先就階間懸北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 各就位。雅樂令帥工人二舞入就位, 文舞入陳於懸北, 武舞立於懸南道西。謁者贊引先引亞獻官以下享官, 俱就東門外位。前一刻, 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宗廟令宮闈令協律郎捧俎官執尊壘篚罍者七祀功臣祝史齋郎執尊壘篚罍者, 入就懸北拜位, 重行北向西上。立定, 執禮曰: “四拜。” 贊者傳喝, 監察以下皆四拜訖, 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 各就位。謁者引亞獻官, 贊引引終獻官進幣瓚爵官薦俎官奠幣瓚爵官七祀功臣獻官入就位。贊引引宗廟令大祝宮闈令升自阼階, 詣翼祖室, 入開塋室, 大祝宮闈令奉出神主, 設於座, 以次捧出度祖以下神主如翼祖室儀, 引降復位。贊引引齋郎詣爵洗位, 洗瓚拭瓚, 洗爵拭爵訖, 置於篚, 捧詣泰階, 諸祝史各迎取

찬(祭饌) 담을 그릇을 살피고, 이를 마치면 각기 제소(齋所)로 돌아간다. 신시(申時) 후 1각(刻)에 전사관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鑿刀)로써 생(牲)을 베고, 축사(祝史)가 반(槃)에 털[毛]과 피[血]를 취하고, 또 간(肝)과 덜미[臍]와 기름[膾]을 취하여 등(甑)에 채워서 각기 찬소(饌所)에 두고, 마침내 생(牲)을 삶는다. 종묘령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종묘의 안팎을 소제한다. 새벽 강신(降神)은, 제향(祭享)하는 날 축시(丑時) 5각(刻) 전에 궁위령(宮闈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실(齋室)을 열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자리를 펴고 안석[几]을 설치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종묘령과 전사관이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祭饌)을 담기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와서 당(堂)의 위아래를 살펴보고서 의식대로 되지 않은 것을 규찰(糾察)하고 도로 나간다. 3각(刻) 전에 여러 향관(享官)과 종관(從官)들이 각기 그 제복(祭服)을 입는다.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 들어와서 먼저 섬돌 사이의 악현(樂懸) 북쪽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工人)과 문무(文舞)·무무(武舞)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는데, 문무(文舞)는 들어와서 악현(樂懸)의 북쪽에 진열하고, 무무(武舞)는 악현(樂懸)의 남쪽 길 서쪽에 선다. 알자와 찬인이 먼저 아현관 이하의 향관(享官)을 인도하여 모두 동문 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1각(刻) 전에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大祝)·축사(祝史)·재량(齋郎)·종묘령·궁위령(宮闈令)·협률랑(協律郎)·봉조관(捧俎官)·집준뢰비먹자(執尊壘籠羈者)와 칠사(七祀)·공신(功臣)의 축사(祝史)·재량(齋郎)·집준뢰비먹자(執尊壘籠羈者)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악현(樂懸)의 북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서게 한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말하면, 찬자가 이를 전갈(傳喝)하여 감찰 이하의 관원이 모두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執事)를 인

於階上，置於尊所坌上。諸享官將入就位，引進使跪白外辦，王世子具服以出，侍衛如常儀。引進使引王世子入自東挾門至版位西向立，引進使贊請四拜，退復位，王世子四拜。執禮曰：“衆官四拜。”在位者皆四拜。執禮曰：“引進使贊請行事。”引進使前白：“有司謹具請行事。”退復位。協律郎跪俯伏舉麾興，工鼓祝，軒架作《景安之樂》、烈文之舞作。四成，協律郎偃麾，戛敵樂止。從官詣盥洗位盥悅訖，還侍立。謁者引進幣贊爵官詣盥洗位盥悅訖，升自阼階，詣翼祖室尊所北向立。執禮曰：“引進使引王世子行晨裸禮。”引進使引王世子詣盥洗位北向立，贊請摺笏。翊衛跪取匱興沃水，又翊衛跪取槃承水，王世子盥手，翊衛跪取巾於篚以進，王世子悅手訖，翊衛受巾奠於篚。引進使贊請執笏，引王世子升自阼階，詣翼祖室尊所西向立，登歌作肅安之樂，烈文之舞作，執尊者舉羈，進幣贊爵官酌鬱鬯，從官以贊受鬱鬯。引進使引王世子詣神位前北向立，贊請跪摺笏。從官一人捧香合跪進，從官一人捧香爐跪進，

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를 마치고는 각기 자리에 나아가 간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종헌관·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친조관(薦俎官)·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칠사(七祀)와 공신(功臣)의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간다. 찬인이 종묘령·대축·궁위령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익조실(翼祖室)에 나아가 들어가서 감실(塏室)을 열고, 대축과 궁위령이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자리[座]에 두고, 차례대로 도조(度祖) 이하의 신주를 받들어 내기를 익조실(翼祖室)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인이 재랑(齋郎)을 인도하여 술잔 씻는 자리[爵洗位]에 나아가서 찬(瓚)을 씻고 찬(瓚)을 닦으며, 작(爵)을 씻고 작(爵)을 닦는다. 이를 마치면, 광주리에 넣어 가지고 받들어 큰 섬돌[泰階]에 나아가면, 여러 축사(祝史)들이 각기 섬돌 위에서 맞이해 취하여 존소(尊所)의 점(坫) 위에 둔다. 여러 향관(享官)들이 장차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인진사(引進使)가 꿇어앉아서 외판(外辦)을 아뢴다. 왕세자가 제복(祭服)을 갖추어 입고 나오는데, 시위(侍衛)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협문(東挾門)으로 들어와서 판위(版位)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고, 인진사가 사배(四拜)하기를 청하고 물러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왕세자가 네 번 절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여러 관원은 사배(四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네 번 절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인진사는 행사(行事)하기를 청하라.’ 하면, 인진사가 앞으로 가서 유사(有司)에게 아뢰어 삼가 행사하기를 자세히 청하게 하고 물러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俯伏)하여 휘(麾)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축(祝)을 치면, 헌가(軒架)에서 경안지악(景安之樂)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되는데, 사성(四成)을 하게 된다. 협률랑이 휘(麾)를 눕히고, 어(敵)를 굽으면, 풍악이 그친다. 종관(從官)이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를 마치고 돌아와 시립(侍立)하고, 알자가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을 인도

引進使贊請三上香， 從官奠爐于案。從官以瓚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瓚跪進，引進使贊請執瓚裸地訖，以爵授奠幣瓚爵官，奠幣瓚爵官受，以授大祝。從官以幣篚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幣跪進，引進使贊請執幣獻幣，以幣授奠幣瓚爵官，奠于案。引進使贊請執笏俯伏興平身，引王世子出戶，詣度祖室，次詣桓祖室，次詣太祖室，次詣恭靖大王室，次詣太宗室，上香裸鬯奠幣，竝如上儀訖，登歌止，進幣瓚爵官皆降復位。引進使引王世子出戶，降自阼階復位。當登歌止時，諸祝史各取毛血滌肝膋甄於前楹間，俱入奠於神位前。諸祝史俱取肝出戶，燔於爐炭，還尊所饋食。王世子既升裸，贊引引典祀官出，帥進饌者詣廚，以匕升牛于鑊，實于一鼎，次升羊實于一鼎，次升豕實于一鼎，皆設[局]。祝史對舉，入設於饌幔內。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捧俎官隨之，俟王世子裸訖復位。執禮曰：“進饌。”祝史抽局委于鼎右，除幕加匕畢于鼎。典祀官以匕升牛，實于牲匣，次升豕羊，各實于牲匣。次引薦

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관세(盥洗)를 마치고는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익조실(翼祖室)의 준소(尊所)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인진사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새벽 강신례[晨裸禮]를 행하라.’고 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조복(朝服)의 대대(大帶)에〉 꽂기를 청한다. 익위(翼衛)가 꿇어앉아 대야[匱]를 취(取)하여 일어나 물을 붓고, 또 익위(翼衛)가 꿇어앉아 반(槃)을 취(取)하여 물을 받들면, 왕세자가 손을 씻는데, 익위가 꿇어앉아 광주리[篚]에서 수건을 취(取)하여 올린다. 왕세자가 손을 닦기를 마치면, 익위가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 놓는다. 인진사가 홀(笏)을 잡기를 청하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익조실(翼祖室)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향하여 서면, 등가(登歌)에서 숙안지악(肅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된다.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이 울창(鬱鬯)을 따르면, 종관(從官)이 찬(瓚)으로써 울창(鬱鬯)을 받는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笏)을 꽂기를 청한다. 종관(從官)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종관(從官)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인진사가 세 번을 피우기를 청하고, 종관(從官)이 안(案)에 향로를 놓는다. 종관(從官)이 찬(瓚)을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찬(瓚)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인진사가 찬(瓚)을 잡고 땅에 강신(降神)하기를 찬청(贊請)한다. 이를 마치면, 작(爵)을 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에게 주는데, 진폐 찬작관이 받아서 대축(大祝)에게 준다. 종관(從官)이 폐백 광주리[幣]를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폐백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인진사가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기를 청하고, 폐백을 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에게 주어서 안(案)에 놓게 한다. 인진사가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청하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서 도조실(度祖室)에 나아가고, 다음

俎官, 捧翼祖室俎, 捧(俎) [俎] 官各捧牲匣, 典祀官引饌入自正門。 俎初入門, 軒架作《雍安之樂》。 諸祝史俱進, 徹毛血槃, 自阼階授齋郎以出。 饌至泰階, 諸大祝迎引於階上, 薦俎官詣翼祖神位前北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 奠訖, 啓牲匣蓋, 詣度祖室, 次詣桓祖室, 次詣太祖室, 次詣恭靖大王室, 次詣太宗室, 捧奠竝如上儀訖。 樂止, 謁者引薦俎官以下, 降自阼階復位。 諸大祝取蕭黍稷, 搗於脂, 燔於爐炭, 還尊所。 謁者引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 升詣翼祖室尊所北向立, 執禮曰: “引進使引王世子, 行初獻禮。” 引進使引王世子, 升自阼階, 詣翼祖室尊所西向立, 登歌作壽安之樂, 烈文之舞作。 執尊者舉罍, 進幣瓚爵官酌醴齊, 從官二人以爵受酒。 引進使引王世子詣神位前北向立, 贊請跪摺笏, 從官以爵授進幣瓚爵官, 進幣瓚爵官奉爵跪進, 引進使贊請執爵獻爵, 以爵授奠幣瓚爵官, 奠于神位前。 從官以副爵授進幣瓚爵官, 進幣瓚爵官捧爵跪進, 引進使贊請執爵獻爵, 以爵授奠幣瓚爵官, 奠于王后神位前, 引進

에 환조실(桓祖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태조실(太祖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공정 대왕실(恭靖大王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태종실(太宗室)에 나아가서 상향(上香)하고 관창(裸鬯)하고, 전폐(奠幣)하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등가(登歌)가 그치고, 전폐 찬작관이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서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등가(登歌)가 그칠 때를 당하여, 여러 축사(祝史)들은 각기 모혈(毛血)을 담은 반(槃)과 간요(肝膋)를 담은 등(甑)을 앞기둥 사이에서 가져와서 모두 들여와 신위(神位) 앞에 드린다. 여러 축사(祝史)들이 모두 간(肝)을 취(取)하여 지계문을 나와서 화로불[爐炭]에 구워서 준소(尊所)의 음식 접대하는 곳에 돌아간다. 왕세자가 올라와서 강신(降神)을 마치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고 나와서, 진찬(進饌)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주방(廚房)에 나아가 비(匕)로써 소를 가마[鑊]에 올려서 한 술[鼎]에 채우고, 다음에 양(羊)을 올려서 한 술에 채우고, 그 다음에는 돼지를 올려서 한 술에 채우고 모두 국떡(局羶)을 설치하며, 축사(祝史)가 마주 들고 들어와 찬만(饌幔) 안에 설치한다. 알자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에 나아가면, 봉조관(捧俎官)이 이를 따르는데, 왕세자가 강신(降神)을 마치기를 기다려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진찬(進饌)하라.’ 하면, 축사(祝史)가 국(局)을 뽑아 술[鼎] 오른쪽에 버리고, 보자기[羶]를 걷어치우고, 비(匕)와 필(畢)을 술에 얹어 둔다. 전사관이 비(匕)로써 소를 올려서 생갑(牲匣)에 채우고, 다음은 돼지와 양(羊)을 올려서 각기 생갑(牲匣)에 채운다. 다음에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익조실(翼祖室)의 조(俎)를 받들게 하면, 봉조관(捧俎官)이 각기 생갑(牲匣)을 받든다. 전사관이 제찬(祭饌)을 인도하여 정문(正門)으로 들어가는데, 조(俎)가 처음 문(門)에 들어가면, 헌가(軒架)에서 웅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여러 축사(祝史)가 함께 나아가서, 모혈반(毛血槃)을 걷어치워 동계(東階)로 하여 재랑(齋郎)에게 주고는 나가고, 제찬(祭饌)이 태계(泰階)에 이르

使贊請執笏俯伏與小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引進使贊請俯伏與平身，引王世子出戶，樂止，詣次室酌獻竝如上儀。曲終樂止，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皆降復位。引進使引王世子出戶，降自阼階復位。文舞退，武舞進。軒架作舒安之樂。舞者立定，樂止。

亞終獻：初，王世子將復位，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水悅手訖，贊執笏，引詣翼祖室尊所西向立，軒架作壽安之樂，昭武之舞作，執尊者舉罍酌盞齋，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與平身，引出，以次爵獻竝如上儀訖，樂止，引降復位。亞獻官獻將畢，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初，終獻官既升，贊引引七祀獻官詣盥洗位搯笏，盥手悅手訖，執笏詣尊所，執尊

면 여러 대축(大祝)들이 섬돌 위로 맞이하여 인도한다. 천조관(薦俎官)이 익조(翼祖)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 이를 마치면, 생갑(牲匣)의 덮개[蓋]를 열고 도조실(度祖室)에 나아가고, 다음에 환조실(桓祖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태조실(太祖室)에 나아가고, 다음에는 공정 대왕실(恭靖大王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태종실(太宗室)에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러 대축이 쑥[蕭]·메기장[黍]·차기장[稷]을 취하여 기름에 물들여 화로숯불[爐炭]에 태우고 준소(尊所)에 돌아온다. 알자(謁者)가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과 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을 인도하여 익조실(翼祖室) 준소(尊所)에 올라가서 북향하여 서게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인진사(引進使)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익조실(翼祖室)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등가(登歌)에서 수안지악(壽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된다.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이 예제(醴齊)를 따르면, 종관(從官) 두 사람이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笏)을 꽃기를 청한다. 종관(從官)이 작(爵)을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爵)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작을 잡아 작을 드리기를 청하여, 작을 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에 주어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종관(從官)이 다음 작[副爵]을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작을 잡아 작을 드리기를 청하여, 작을 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에게 주어 왕후(王后)의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

者舉罍酌酒，執事者以酌受酒。獻官詣神位前西向跪搯(勿) [笏]，執事者授爵獻官，執爵獻爵奠爵，以次奠訖，執笏俯伏興平身，就司命神位前西向跪。祝就獻官之左，北向跪讀祝文訖，獻官俯伏興平身，贊引引復位。初，七祀獻官將詣洗位，贊引引配享功臣獻官詣盥洗位搯笏，盥手悅手訖，執笏詣尊所，執尊舉罍酌酒，執事者以酌受酒。獻官詣神位前東向立搯笏，執事者授爵，獻官執爵奠爵，以次奠訖執笏，贊引引復位。飲福：初，終獻官既復位，謁者引進幣瓚爵官薦俎官，升自阼階，詣飲福位北向跪。大祝詣翼祖室尊所，以爵酌壘福酒，又大祝持俎進滅神位前胙肉，執禮曰：“引進使引王世子詣飲福位。”引進使引王世子詣飲福位西向立，大祝以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爵北向跪進。引進使贊請跪搯笏受爵飲訖，進幣瓚爵官受虛爵，以授大祝，大祝受復於(玷) [站]。大祝以俎授薦俎官，薦俎官捧俎北向跪進，引進使贊請受俎，王世子受俎，以授從官，從官捧俎，降自阼階出門，進幣瓚爵官薦俎官降復

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청하고,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부복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청하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가면 풍악이 그친다.

다음 실(室)에 나아가서 술잔에 술을 따라 드리는 것을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곡조(曲調)가 끝나고 풍악이 그치면,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이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인진사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서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문무(文舞)가 물러가고 무무(武舞)가 나아가면 헌가(軒架)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하고, 춤추는 사람이 서기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아헌(亞獻)과 종헌(終獻)도 처음에 왕세자가 장차 제자리로 돌아가려 하면, 집례가 말하기를,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 한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깨끗하라.’고 찬(贊)하여, 손을 물에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홀(笏)을 잡으라.’고 찬(贊)하여, 인도하여 익조실(翼祖室)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헌가(軒架)에서 수안지악(壽安之樂)을 연주하고, 소무지무(昭武之舞)가 시작된다.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양제(盎齊)를 따르면, 집사자(執事者) 두 사람이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謁者)가 아헌관(亞獻官)을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笏)을 깨끗하라.’고 찬(贊)한다. 집사자(執事者)가 작(爵)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爵)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집사자가 다음 작(副爵)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贊)하고 인도하여 나가고, 차례대로 작(爵)을 드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인도해 내려와

位。引進使贊請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贊請四拜，王世子四拜。執禮曰：“衆官四拜。”在位者皆四拜。樂一成止，執禮曰：“望瘞。”引進使引王世子詣望瘞位北向立，執禮帥贊者詣望瘞位西向立，諸大祝取黍稷飯，藉用白茅，束之以篋，取祝版及幣，降自西階，置於坎。執禮曰：“可瘞。”置土半坎，宗廟令監視。引進使前白禮畢，引進使引王世子出門還齋室，謁者贊引各引亞獻官以下以次出。執禮帥贊者還本位，贊引引監察及諸執事，俱復懸北拜位。立定，執禮曰：“四拜。”監察及諸執事皆四拜訖，贊引以次引出。雅樂令帥工人二舞出。宗廟令大祝宮闈令納神主如常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懸北拜位四拜而出。七祀獻官詣西門外七祀瘞坎之南北向立，執事者置祝版於瘞坎訖退。典祀官宗廟令各帥其屬徹禮饌，宮闈令闔戶以降，乃退復位。王世子還齋室小留。亞獻官以下行事執事官還齋所，住一刻頃。有司陳鹵簿於齋坊南門外如來儀，僉知通禮跪白外辦，王世子出次，亞獻官以下行事執事官各至外門

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헌관이 헌작(獻爵)을 장차 마치려 하면, 집례가 말하기를,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한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초헌관과 종헌관이 이미 오르면, 찬인(贊引)이 칠사 헌관(七祀獻官)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홀(笏)을 깨끗이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하고, 이를 마치면 홀(笏)을 잡고 존소(尊所)에 나아가게 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헌관(獻官)이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홀(笏)을 깨끗이 씻고, 집사자가 작(爵)을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올리고 작을 드리되, 차례대로 작을 드린다. 이를 마치면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사명(司命)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으면, 축(祝)이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헌관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초헌관과 칠사 헌관(七祀獻官)이 장차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려 하면, 찬인이 배향 공신 헌관(配享功臣獻官)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홀(笏)을 깨끗이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홀(笏)을 잡고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준(尊)을 잡고 보자기를 들어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헌관이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서 홀(笏)을 깨끗이 씻으면, 집사자가 작(爵)을 준다.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되, 차례대로 작을 드린다. 이를 마치면 홀(笏)을 잡고, 찬인이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음복(飲福). 초헌관과 종헌관이 이미 제자리로 돌아가면, 알자가 진폐 찬작관(進幣贊爵官)과 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大祝)이 익조실(翼祖室)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작(爵)으로써 뇌(壘)의 복주(福酒)를 따르고,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신위(神位) 앞의 조육(胙肉)을 던져낸다.

外。王世子乘馬，亞獻官以下乘馬，至闕門外下馬。僉知通禮引王世子入就殿庭版位，奉禮郎引亞獻官以下入就，異位重行四拜訖退。”

집례가 말하기를, ‘인진사(引進使)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라.’ 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대축이 작(爵)을 진폐 찬작관(進幣贊爵官)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리고,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홀(笏)을 꿋고 작을 받아 마시기를 찬청(贊請)한다. 이를 마치면 진폐 찬작관이 빈 작을 받아 대축을 주면, 대축이 받아서 점(坫)에 다시 둔다. 대축이 조(俎)를 천조관(薦俎官)에게 주면, 천조관이 조(俎)를 받들어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리고,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조(俎)를 받기를 찬청(贊請)하면, 왕세자가 조(俎)를 받아서 종관(從官)에게 주고, 종관이 조(俎)를 받들어 동계로 내려와서 문(門)을 나간다. 진폐 찬작관(進幣贊爵官)과 천조관(薦俎官)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청(贊請)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사배(四拜)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네 번 절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여러 관원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은 모두 네 번 절하고, 풍악이 한 번 끝나[一成]고 그친다. 집례가 말하기를, ‘망예(望瘞)하라.’ 하면, 인진사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執禮)는 찬자(贊者)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여러 대축(大祝)이 메기장·차기장의 밥[黍稷飯]을 가져와서 백모(白茅)로 깔고 광주리로 묶고, 축판(祝版)과 폐백을 취(取)하여 서계(西階)로 내려와서 구덩이에 둔다. 집례가 말하기를, ‘땅에 묻어야 되겠다.’ 하고는 흙을 구덩이에 반을 채우면, 종묘령(宗廟令)이 감시(監視)한다. 인진사가 앞으로 나와서 ‘예(禮)를 마쳤다.’고 아뢰고,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문(門)을 나와서 재실(齋室)로 돌아가고, 알자와 찬인은 각기 아현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온다.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찬인은 감찰과 여러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모두 다시 악현(樂懸)의 북쪽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서게 한다. 집

	<p>례가 ‘사배하라.’고 말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이 모두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아악 령(雅樂令)은 공인(工人)과 문무(文舞)·무무(武舞)를 거느리고 나가며, 종묘령(宗廟令)·대축(大祝)·궁위령(宮闈令)은 신주(神主)를 그전대로 두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악현(樂懸)의 북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칠사 헌관(七祀獻官)은 서문(西門) 밖의 칠사(七祀) 예감(瘞坎)의 남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고, 집사자가 축판(祝版)을 예감(瘞坎)에 두고, 이를 마치면 물러간다. 전사관(典祀官)과 종묘령(宗廟令)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궁위령(宮闈令)은 지계문을 닫고 내려가 물러나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왕세자가 채실(齋室)에 돌아와서 조금 머무르고, 아헌관 이하의 행사(行事)한 집사관(執事官)이 채소(齋所)에 돌아와서 1각(刻)의 시간을 머무른다. 유사(有司)가 노부(鹵簿)를 채방(齋坊)의 남문(南門) 밖에 진열하되,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첨지통례(僉知通禮)가 꿇어앉아서 외판(外辦)을 아뢰면, 왕세자가 좌차에서 나가고, 아헌관 이하의 행사(行事)한 집사관(執事官)이 각기 외문(外門) 밖에 이르러, 왕세자가 말을 타고, 아헌관 이하의 관원이 말을 탄다. 대궐 문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가 전정(殿庭)의 판위(版位)에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郎)은 아헌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가 나아가되, 자리를 달리 하고 겹줄로 하여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물러간다.”</p> <p>하였다.</p>	
출처	내용	원문
1. 세종 99권, 25년 (1443 계해 / 명 정통 (正統) 8년) 2월 13일 (기해) 2번째기사 잔치가 끝난 후 남은	<p>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크고 작은 잔치에 종실(宗室)과 문무(文武) 여러 신하들이 푸른 보[幅]를 가지고 각기 자리에 나아가 먹기를 마친 뒤에, 북향하여 앉아서 찬(饌)을 집어 푸른 보로 싸서 손수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이미 전에 일렀거니와, 당상관 이상은 각기 자기 자리에 나아가면 장선관(掌膳官)이 푸른 보를 가져다 앉은 앞</p>	<p>傳旨禮曹： 大小宴饗宗室及文武群臣自持青幅，各就其次，饗畢北面而坐，取饌裹以青幅，自持而出，已曾受教。其堂上官以上則各就其次，掌膳官持青幅置於坐</p>

음식을 장선관 당상관이상의 수행원에게 주도록 명하다	에 놓았다가, 잔치가 끝난 후에 각자 북향해 앉아서 남은 찬을 싸서 그대로 두고 나가면, 장선관이 가져다 수행원에게 주도록 하라.” 하였다.	前，宴罷後，各自北面坐取饌餘包裹，仍置而出，掌膳官取而授從者。
2. 世宗 99卷, 25年 (1443 癸亥 / 명 정통 (正統) 8年) 2月 19日 (乙巳) 2번째기사 예조에서 대내전에게 치전하는 의식을 아뢰다	예조에서 대내전(大內殿)에게 치전(致奠)하는 의식을 아뢰기를, “시각이 되면 주인(主人)이 동계(東階) 아래의 자리에 나아가 서향(西向)하여 서고, 사자(使者)는 문밖 서쪽에 이르러 동면(東面)한다. 【사자는 앞에 있고 부사(副使)와 서장관(書狀官)은 자리를 달리 하여 두 줄로 선다.】 주인이 대문 밖에서 맞이하여 빈(賓)을 보고, 먼저 들어가 문안의 오른쪽에 북향하여 서면, 사자는 문으로 들어와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신위(神位)의 왼쪽에 남향하여 선다. 【부사 이하는 동쪽에 서향하여 선다.】 주인이 서계(西階)로 올라가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북향하여 서면, 사자(使者)가 향안(香案)에 나아가 상향(上香)하고, 다음에 신위 앞에 나아가 술을 드린다. 【연이어 세 번 잔을 드린다. 상향(上香)하고 술을 드릴 때는 모두 서서 한다.】 이를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축(祝) 【서장관이 한다.】 이 제문(祭文)을 가지고 신위의 왼쪽에서 서향하여 읽기를 마치고, 제문을 받들어 요소(燎所)에 나아가 태우기를 마치면, 주인이 내려와 동계(東階) 아래에 서고, 사자(使者)가 나가는데, 주인이 대문 밖에서 배송(拜送)한다.” 하였다.	禮曹啓大內殿致奠儀：“時至，主人就東階下位西向立，使者至於門外之西東面，【使在前，副使書狀異位重行。】主人迎於大門外，見賓先入，立於門內之右北向。使者入門，升自東階，立於神位之左南向。【副使以下，在東西向。】主人升自西階，立於神位之右北向。立定，使者詣香案上香，次詣神位前奠酒。【連奠三酌，上香奠酒皆立。】奠訖復位。祝【書狀爲之】取祭文，立於神位之左西向讀訖，捧祭文就燎所焚訖，主人降立東階下。使者出，主人拜送於大門外。”
3. 세종 100권, 25년 (1443 계해 / 명 정통 (正統) 8년) 5월 1일 (을묘) 2번째기사 가뭄으로 금주하다	가뭄기 때문에 금주(禁酒)하였다.	以旱禁酒。
4. 世宗 100卷, 25年 (1443 癸亥 / 명 정통	전지하기를, “문소전(文昭殿) 현덕빈(顯德嬪)의 혼궁(魂宮)과 묘소(墓所)에 제사(祭祀)하는	傳旨：文昭殿、顯德嬪魂宮墓所祭外，各殿各

<p>(正統) 8年) 5月 6日 (庚申) 3번째기사 제사 이외에 술을 올리는 것을 금하다</p>	<p>이외에는 각전(各殿)·각궁(各宮)에 모두 술을 올리지 말라.” 하였다.</p>	<p>宮, 皆勿進酒。</p>
<p>5. 세종 101권, 25년 (1443 계해 / 명 정통 (正統) 8년) 7월 18일 (신미) 1번째기사 궐내에서 술을 쓰는 것을 정지하고 모든 감할 수 있는 것을 의논하여 아될 것을 승정원에 명하다</p>	<p>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오래 가물어 비가 오지 아니하는 것은 병진년과 다름이 없다. 천재(天災)가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곡식 저축하는 방법을 불가불 생각하여야 하겠는데, 이제 《치평요람(治平要覽)》을 편찬하는 문신(文臣)의 공억(供億)을 정지하자고 청한다. 그러나, 여러 해를 두고 편찬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정과(停罷)하여 일이 끝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아니하다. 두시(杜詩)를 수찬(修撰)하는 등의 일은 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公)에서 든가 사(私)에서든가 나라에서 먹는 것은 일반이다. 오직 술[酒]이 곡식을 허비하는 것이 적지 아니하니, 이제부터는 궁중에서도 술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내가 만약 병(病)으로 인하여 복약(服藥)할 때에는 이를 쓰게 하되, 이 밖에는 비록 겨울이라도 술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궐내(闕內)에서 술을 쓰는 것은 다 정지하고 끊을 것이니, 기타의 모든 감(減)할 수 있는 것은 의논하여 아되게 하라.” 하였다.</p>	<p>辛未/上謂承政院曰：“久旱不雨，無異於丙辰，天災至此，爲之奈何？畜穀之術，不可不慮。今請停《治平要監》撰集文臣供億，然累年所撰，一朝停罷，事竟不成，誠爲不可，至如《杜詩》修撰等事，可罷也。然在公在私，食於國則一也。唯酒之糜穀不貲，自今宮中勿許用酒。予若因病服藥之時則用之，此外雖冬月，不許進酒。闕內用酒，亦皆停斷，其他一應可減省者，其議啓之。”</p>
<p>6. 世宗 101卷, 25年 (1443 癸亥 / 명 정통 (正統) 8年) 8月 2日 (甲申) 4번째기사 국방·임금의 식사담당에 대한 형조 판서 안승선의 상소</p>	<p>(전략) 1. 삼가 주례(周禮)를 상고하오니 내옹(內甕)은 왕과 왕후와 세자의 음식[膳羞]을 조리하는 일을 맡았고, 외옹(外甕)은 모든 빈객(賓客)의 향응(饗應)을 맡는다 하였으며, 대당(大唐)의 상식국(尙食局)은 전중감(殿中監)이 상식(尙食)3640) 을 맡아 항상 천자(天子)의 상선(常膳)을 드렸는데, 직장(直長)이 차장(次長)이 되고, 그 왕공(王公) 이하와 외방(外方)의 빈객(賓客)에게 주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하였고, 지금 조정(朝廷)3641) 의 상선감(尙膳監)은 어선(御膳)을 맡고, 홍려시(鴻臚寺)는 출입(出入)하는 빈객(賓客)을 맡아오는</p>	<p>(전략) 一, 謹稽《周禮》，內饗掌王及后世子膳羞割烹煎和之事，外饗掌凡賓客之飧饗。大唐尙食局殿中監總尙食常供天子之常膳，直長爲之二。其賜王公以下及外方賓客，亦如之。今朝廷尙膳監掌御膳，鴻臚寺掌出入賓客。鴻臚寺，卽本朝禮賓寺也。本朝司饗</p>

	<p>데, 흥려시는 곧 본국(本國)의 예빈시(禮賓寺)이옵니다. 본조(本朝)의 사용방(司甕房) 임무는 오로지 내선(內膳)을 관장하고 다른 임무를 겸할 수 없사온데, 궐내(闕內)에 출입하는 여러가지 빈객(賓客)을 모두 사용방으로 하여금 차리게 하오니, 이미 고제(古制)와 시왕(時王)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고, 또 본국에서 관청을 설치하여 나누어 관장한 뜻도 아니옵니다. 또 각도에서 진상(進上)하는 물건 액수가 본래에도 자라지 못한 것을 근래에 많이 감액(減額)하였으므로, 어선(御膳)이 넉넉지 못하온데, 손님 수요는 턱없이 많사오니 수요가 반드시 미처 가지 못할 것이옵니다.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는 본래부터 어고(御庫)라고 칭하여서, 그 사(司)의 노비(奴婢)들은 전부터 일없이 안일하게 지냈사오니, 이제부터는 궐내(闕內)에서 전례(前例)에 의하여 선반(宣飯)3642) 을 받는 외에는, 그 외의 대소 빈객에게 대접하는 것은 양사(兩司)에 명령하여 날을 돌려가며 마련하게 하오면, 어선(御膳)을 전임으로 하고 번거로운 일이 없어져서 편리함이 있을까 하옵니다.”</p> <p>하니, 윤희하지 아니하였다.</p>	<p>房之任，專管內膳，不可兼于他務，而闕內出入雜凡賓客，竝令司甕房供辦，既違古制與時王之制，又非本朝設官分職之義。且各道進上物件，數本不敷，近多減額，御膳不裕，客數猥煩，所需必不爲周。內資內贍寺，素稱御庫，其司奴婢，曾除庶務，無事安逸。自今闕內例受宣飯外，其餘大小賓客供辦，著令兩司輪日備辦，庶幾御膳以專，煩冗以除，似有便益。不允。</p>
<p>7. 世宗 101卷, 25年 (1443 癸亥 / 명 정통 (正統) 8年) 8月 13日 (乙未) 5번째기사 예조에서 왕세자가 문소전의 추석제를 대행하는 의주를 올리다</p>	<p>예조에서 왕세자가 문소전(文昭殿)의 추석제(秋夕祭)를 대행(代行)하는 의주(儀注)를 아뢰기를, “재계(齋戒)는 제향(祭享) 3일 전에 하되, 왕세자는 산재(散齋) 2일이요, 치재(致齋) 1일인데, 무릇 산재는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않으며, 형벌하여 죽이는 문서에 관계하지 아니하며, 치재는 오직 제사 일만을 다스린다. 무릇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과 시종관(侍從官)으로서 마땅히 제사에 참여할 자는 모두 산재 2일, 치재 1일을 하는데, 산재와 치재는 평상과 같으나, 오직 술을 많이 마시지 말고 파·부추·마늘 등을 먹지 아니하며, 조상하고 문병하지 아니하며,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며 형벌하고 죽이는 문서에 판결 서명을 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제사의 일만을 행할 뿐이다. 이미 재계하고서 빠진 자는 대</p>	<p>禮曹啓王世子代行文昭殿秋夕祭儀：“齋戒前享三日，王世子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不弔(表聞) [喪問] 疾，不聽樂，不與刑殺文書；致齋，唯治享事。凡行事執事官及侍從官應俱升者，竝散齋二日，致齋一日。散齋(致)致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諸衛之屬守衛殿門者及工人，俱清齋一</p>

리로 행사(行事)한다.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자와 공인(工人)3645)도 모두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지낸다. 향관(享官)【이하 무릇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제향하기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진설(陳設)은 제향 전 2일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제향 전 1일에 전악(典樂)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악부(樂部) 둘을 설치하는데, 전전(前殿) 전상(殿上)과 전정(殿庭)에 설치하고 모두 북향(北向)하게 한다. 유사(有司)가 왕세자의 판위(版位)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西向)하여 설치하고 아헌(亞獻)·종헌관(終獻官)의 자리[位]를 왕세자의 판위 뒤 남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上]로 한다. 집사자(執事者)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전정(殿庭)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 배립(陪立)한다.】찬자(贊者)·알자(謁者)·찬인(贊引)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전악(典樂)의 자리를 전상(殿上)과 전정(殿庭)의 악부(樂部) 북쪽에 북향(北向)하여 설치하고,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한다. 제향하는 날 행사(行事)하기 전에, 전사가 전전(前殿)의 감실(龕室)을 열고 신악(神幄)을 정돈하고 먼지를 털다. 자리[筵]를 펴는 것은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 각 하나씩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각기 점(坵)이 있다.】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를 신위 앞에 진설하고, 다음에 제기(祭器)를 진설하고 찬구(饌具)를 담는다.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음복잔(飲福盞) 하나를 태조(太祖)의 준소(尊所)에 설치한다. 행례(行禮)는 제향하는 날 행사(行事)하기 전(前) 3각(刻)에, 전사(殿司)가 전전(前殿)의 감실(龕室)을 열고 신악(神幄)을 정돈하고 먼지를 털고, 자리[筵]를 펴는 것을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을

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

陳設：前享二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前一日，典樂帥其屬，設樂部二於前殿殿上殿庭，具北向。有司設王世子版位於東階東南，西向；亞終獻官位於王世子位版之後近南，西向北上；執事者位於其後稍南，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北上；【書吏陪其後】設贊者謁者贊引位於東階之西，俱西向北上；設典樂位於殿上及殿庭樂部之北，北向。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享日未行事前，殿司開前殿龕室，整拂神幄，鋪筵如常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各有坵】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設飲福盞一於太祖尊所。

行禮：享日未行事前三刻，殿司開前殿龕室，整拂神幄鋪筵如常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前二刻，亞獻官以下，俱以時服就前殿門外，贊引引監察點視陳設。前一刻，亞獻官以下諸執事盥洗訖。初，執事者各奉腰輿，【大王輿，內侍院；王后輿，內侍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饌具)를 담는다. 행사하기 전 2각(刻)에 아헌관 이하가 모두 시복(時服)으로 전전(前殿) 문밖에 나아가고, 찬인(贊引)이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진설한 것을 점검해 보게 한다. 행사하기 전 1각(刻)에 아헌관 이하 여러 집사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친다. 처음에 집사자가 요여(腰輿)를 받들고 【대왕의 요여는 내시원에서, 왕후의 요여는 내시부에서.】 후전(後殿) 각 실(室)의 지계문 밖에 진설하는데, 매(每) 실(室)마다 각각 둘로서 다 남향하고 서쪽을 위[上]로 한다. 대축(大祝)과 궁위령(宮闈令)이 각기 신위판궤(神位版匱)를 받들어 요여에 봉안하면, 집사자가 이것을 받들어 떼고 전전(前殿)의 지계문 밖에 나아간다. 대축이 태조(太祖) 신위판궤를 받들고, 궁위령이 왕후의 신위판궤를 받들고, 가운데 지계문[中戶]으로 들어와 감실에 봉안하는데, 남향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전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선(扇)·개(蓋)를 신좌(神座) 앞의 좌우에 진설한다. 다음에 대축이 태종(太宗) 신위판궤를 받들고, 궁위령이 왕후의 신위판궤를 받들고 동쪽 지계문[東戶]으로 들어와서 감실에서 봉안하는데,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그 요여(腰輿)는 동계(東階)로 내려다가, 동계의 동쪽에 서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여 둔다.】 대축과 궁위령이 부복(俯伏)하였다 일어나서 문밖으로 나아간다. 찬자·알자·찬인이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사배(四拜)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殿庭)의 배위(拜位)로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서면, 찬자가 ‘국궁(鞠躬), 배(拜), 흥(興), 배(拜), 흥(興), 배(拜), 흥(興), 배(拜), 흥(興), 평신(平身)’이라 하여,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궤(匱)를 열고 신위판(神位版)을 받들어 내어 자리[座]에 모셔 놓고, 인진사(引進使)가 꿇어앉아 바깥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뢴다. 왕세자가 시

府。】陳於後殿各室戶外每室各二，皆南向西上。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輿，執事者以此奉昇，詣前殿戶外。大祝奉太祖神位版匱，宮闈令奉王后神位版匱，由中戶入，安於龕室，南向西上。殿司帥其屬，奉扇蓋設於神座前左右。次大祝奉太宗神位版匱，宮闈令奉王后神位版匱，由東戶安於龕室，西向北上。【其腰輿，降自東階，置於東階之東，西向北上。】大祝宮闈令俯伏輿，出就門外。贊者謁者贊引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典樂率工人入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贊引引監察以下各就位。大祝宮闈令以此開匱，奉出神位版設於座。引進使跪白外辦，王世子俱時服盥洗訖，引進使引王世子入就位西向立，【侍從官不應入者止於門】謁者引亞終獻官入就位西向立，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樂作，殿庭樂【王世子及亞終獻官，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樂止，

복(時服)을 갖추고 관세(盥洗)한다. 이를 마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서 서향(西向)하여 서게 한다. 【시종관(侍從官)의 들어가 지 못할 자는 문(門)에서 그친다.】 알자가 아현·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찬자가 말하기를,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하면, 악(樂)을 연주한다. 전정악(殿庭樂) 왕세자와 아현·종헌관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악(樂)을 그친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 태조(太祖)의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악을 연주한다. 전상악(殿上樂)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시종(侍從)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중호(中戶)로 들어가 태조의 신위 앞에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으라.’ 찬(贊)하여 청해서, 왕세자가 끓어 얹는다. 시종 한 사람이 향합(香盥)을 받들어 끓어얹아 올리고, 한 사람이 향로(香爐)를 받들어 끓어얹아 올리면, 인진사가 ‘세 번 상향(上香)하라.’고 찬(贊)하여 청한다. 왕세자가 세 번 향을 올리면, 시종이 안(案)에 향로를 올려놓는다. 【진향(進香)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향로(香爐)를 올리는 것은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잔(盞)을 올리고 잔(盞)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시종 한 사람이 잔을 받들고 끓어얹아 올리면, 인진사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라.’고 찬(贊)하여 청한다. 왕세자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시종에게 주어서 태조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또 시종 한 사람이 다음 잔[副盞]을 끓어얹아 올리면, 인진사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라.’고 찬하여 청한다. 왕세자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시종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또 시종 한 사람이 다음 잔[副盞]을 끓어얹아 올리면, 인진사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라.’고 찬하여 청한다. 왕세자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시종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인진사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향하여 끓어얹으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引進使引王世子升自東階，詣太祖尊所西向立，樂作，殿上樂】執尊者酌酒，侍從二人以盞受酒。引進使引王世子由中戶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贊請跪，王世子跪。侍從一人奉香合跪進，一人奉香爐跪進，引進使贊請三上香，王世子三上香，侍從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進盞奠盞，準此。】侍從一人奉盞跪進，引進使贊請執盞獻盞，王世子執盞獻盞，以盞授侍從，奠于太宗神位前。又侍從一人以副盞跪進，引進使贊請執盞獻盞，王世子執盞獻盞，以盞授侍從，奠于王后神位前。引進使贊請俯伏興少退東向跪，王世子俯伏興少退東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南向跪讀祝文訖。樂作，引進使贊請俯伏興平身，王世子俯伏興平身，樂止，引進使引王世子出戶，詣太宗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酌酒，侍從二人以盞受酒。引進使引王世子由東戶入詣太宗神位前東向立，贊請跪，王世子跪。侍從一人奉香合跪進，一人奉爐跪進，引進使贊請三上香，王世子三上香，侍從奠爐于案。【進香在南北向，奠爐在北南向。進

조금 물러나 동향하여 꿇어앉는다. 악을 그친다.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서 신위의 오른편에 남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악을 연주한다. 인진사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악을 그친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태종의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악을 연주한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고, 시종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호(東戶)로 들어가 태종의 신의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으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꿇어앉으면, 시종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한 사람이 향호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인진사가 ‘세 번 상향(上香)하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세 번 상향(上香)하면, 시종이 향로를 안(案)에 올려놓는다. 【진향(進香)은 남쪽에서 북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것은 북쪽에서 남향하여 한다. 잔 올리고 잔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시종 한 사람이 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잔을 잡아 드리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잔을 잡아 드리는데, 잔을 시종에게 주어 태종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하고, 또 시종 한 사람이 다음 잔 [副盞]을 꿇어앉아 올리면, 인진사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시종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인진사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향하여 꿇어앉으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향하여 꿇어앉는다. 악을 그친다.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 신위의 오른쪽에 남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악을 연주한다. 인진사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악을 그친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계문으로 나와 동계(東階)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태조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악을 연

盞奠盞，準此。】侍從一人奉盞跪進，贊請執盞獻盞，王世子執盞獻盞，以盞授侍從，奠于太宗神位前。又侍從一人以副盞跪進，引進使贊請執盞獻盞。王世子執盞獻盞，以盞授侍從，奠于王后神位前。引進使贊請俯伏興少退東向跪，王世子俯伏興少退東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南向跪讀祝文訖。樂作，引進(進)使贊請俯伏興平身，王世子俯伏興平身，樂止，引進使引王世子出戶，降自東階復位。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太祖尊所西向立，樂作，【殿庭樂】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亞獻官，由中戶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贊跪，獻官跪，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謁者贊執盞獻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祖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謁者贊執盞獻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俯伏興平身，獻官俯伏興平身。樂止，謁者引獻官出戶，詣太宗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由東戶入詣太宗神位前東向立贊跪，獻官跪，執事者

주한다. 【전정악(殿庭樂).】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중호(中戶)로 들어가서 태조의 신위 앞에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꿨어앉으라.’고 찬하여, 헌관이 꿨어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잔을 헌관에게 주면, 알자가 ‘잔을 잡아 드리라.’고 찬하여, 헌관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태조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잔을 헌관에게 주면, 알자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라.’고 찬하여, 헌관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헌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지계문으로 나와 태종의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해 서게 하면, 악을 연주한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호(東戶)로 들어가서 태종의 신위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서게 하고, ‘꿨어앉으라.’고 찬하여, 헌관이 꿨어앉는다. 집사가 한 사람이 잔을 헌관에게 주면, 알자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라.’고 찬하여, 헌관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태종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잔을 헌관에게 주면, 알자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라.’고 찬하여, 헌관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찬하여, 헌관이 부복 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서 동계(東階)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가자가 음복위(飲福位)를 앞기둥[前楹] 밖에다가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한다. 대축이 태조의 준소에 나아가서 잔으로 복주(福酒)를 따라 시종에게 주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 음복위로

一人以盞授獻官，謁者贊執盞獻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宗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謁者贊執盞獻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俯伏興平身，獻官俯伏興平身，樂止，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太祖尊所，以盞酌福酒，授侍從，引進使引王世子升自東階，詣飲福位西向立，侍從奉盞北向跪，引進使贊請跪，王世子跪，引進使贊請受盞，王世子受盞飲訖，侍從受虛盞，復於尊所。引進使贊請俯伏興平身，王世子俯伏興平身，引進使引王世子降復位，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樂作，王世子及亞獻官以下，皆鞠躬四拜興平身。樂止，贊者曰：“鞠躬四拜興平身。”樂作，王世子及亞獻官以下，皆鞠躬四拜興平身。樂止，引進使跪白禮畢，引王世子還齋室，謁者引亞終獻官出。贊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贊者曰：“鞠躬四拜平身。”監察以下，皆鞠躬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시종이 잔을 받들어 북향해 꿇어앉으면, 인진사가 ‘꿇어앉으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꿇어앉는다. 인진사가 ‘잔을 받으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잔을 받아 마신다. 시종이 빈 잔을 받아서 준소로 돌려보낸다. 인진사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왕세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하면, 악을 연주한다. 왕세자와 아헌관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악을 그친다. 인진사가 꿇어앉아 ‘예(禮)가 끝났다.’ 아뢰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로 돌아가고, 알자가 아헌·중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가 서게 한다. 찬자가 ‘국궁, 사배, 평신’이라 하여,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전악이 공인을 거느리고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이 신위판을 들여놓고, 찬자·알자·찬인이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집사가 각기 요여를 받들고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전전(前殿)의 지계문 밖에 놓으면, 대축·궁위령이 각기 신위판례를 받들어 요여에 봉안하고, 집사가 차례로 받들어 메고 후전(後殿)의 각실(各室) 지계문 밖으로 나아간다. 대축·궁위령이 각기 신위판례를 받들어 자리[座]에 봉안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사(殿司)가 지계문을 닫고 내려와서 물러가고,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아헌관【중1품.】, 중헌관【정2품.】, 전사관【봉상시(奉常寺).】, 대축 2인【4, 5품 집현전.】, 집사 4인【5, 6품.】, 궁위령【내시부(內侍府).】, 인진사【첨지통례(僉知通禮).】, 찬자 2인【봉례랑(奉禮郎).】, 시종관 4인【서연(書筵)·첨사원(詹事院).】, 찬인 1인【참외(參外).】, 전악 2인【전악서(典樂署).】, 봉여 봉축(奉輿奉燭)【전(前)의 의식에 의한다.】.”

四拜平身。贊引以次引出，典樂帥工人出。大祝宮闈令納神位版，贊者謁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執事者各奉腰輿，升自東階，置於前殿戶外。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置，安於輿，執事者以次奉昇詣後殿各室戶外，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置安於座，如常儀，殿司闈戶以降乃退。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版(瘞)[瘞]於坎。亞獻官【從一品】終獻官【正二品】典祀官【奉常寺】大祝二人【四五品集賢殿】執事四人【五六品】宮闈令【內侍府】引進使【僉知通禮】贊者二人【奉禮郎】侍從官四人【書筵詹事院】贊引一人【參外】典樂二人【典樂署】奉輿奉燭【(衣)[依]前儀】”

<p>8. 세종 101권, 25년 (1443 계해 / 명 정통 (正統) 8년) 9월 11일 (임술) 5번째기사 예조에서 아뢴 태조의 쉬영을 봉안하는 의식</p>	<p>하였다.</p> <p>예조에서 태조(太祖)의 쉬용(睟容)을 봉안하는 의식을 아뢰기를, “그날에 의장(儀仗)을 근정전(勤政殿)의 동서(東西)에 베풀고, 가사금(假司禁)이 좌우(左右)로 분립(分立)한다. 연(輦)을 노대(路臺)에 베풀되, 북쪽으로 가까이 남향하게 하고, 양산(陽繖)이 앞에 서 있다. 향루자(香樓子)를 그 남쪽에 베풀고, 동·서반(東西班)이 시립(侍立)하는 자리[位]를 광화문(光化門) 밖의 길 왼쪽에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내시(內侍)가 성용함(聖容函)을 받들고 중호(中戶)로 나와서 중계(中階)로 내려오면, 봉안사(奉安使)가 전(傳)해 받들어 연(輦) 위에다 봉안한다. 가사금(假司禁)이 앞에서 인도하는데, 향루자가 다음이고, 의장이 다음이요, 양산이 다음이다. 연(輦)이 진발(進發)하여 정문(正門)으로 나오면, 봉안사와 종사관(從事官)이 수행(隨行)한다. 연(輦)이 이르면 군관(群官)이 모두 몸을 굽히고, 연이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 시위(侍衛)는 보통 때와 같이 하여 문밖에서 지송(祇送)한다. 지나가는 각도의 관찰사와 각 고을의 수령은 조복(朝服)을 갖추고 경상(境上)에서 맞이하는데, 연(輦)을 바라보고 몸을 굽힌다. 연(輦)이 도착하여 조금 멈추면, 관찰사 이하가 길 복판에서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연(輦)을 향해서 사배(四拜)한다. 이를 마치고 나서 전도(前導)하여 관(館)의 정한 처소 문밖에 이르게 되면 몸을 굽혀 지영(祇迎)한다. 집사자(執事者) 두 사람이 성용함을 받들고 중문(中門)으로 들어와 대청(大廳) 탁자 위에 봉안하고, 의장(儀仗)이 들어와 베풀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관찰사 이하가 들어와 뜰 가운데[庭中]로 나아가서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서면, 집사자가 상향(上香)하고, 관찰사 이하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한다.</p> <p>그 이튿날 새벽[質明]에 관찰사 이하가 시복(時服)으로 뜰에 들어와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면, 집사자가 상향(上香)하고, 관찰사 이하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한다. 조금 있다가 관찰사 이하가 문밖에 차례로 서고, 집사자가 성</p>	<p>禮曹啓太祖睟容奉安儀：“其日，設儀仗於勤政殿庭東西，假司禁左右分立；設輦於路臺近北南向，陽繖前立；設香樓子於其南；設東西班侍立位於光化門外道左。時至，內侍奉聖容函由中出戶，降自中階，奉安使傳奉，安於輦上。假司禁前導，香樓子次之，儀仗次之，陽繖次之。輦進發，出自正門，奉安使及從事官隨行。輦至，群官皆躬身，輦過平身，侍衛如常，祇送于門外。所過各道觀察使各官守令具朝服，迎於境上，望輦躬身，輦至小駐。觀察使以下當道心異位重行，向輦四拜訖，前導至所館門外，躬身祇迎。執事者二人奉聖容函由中門入，安於大廳卓上，儀仗入陳如常。觀察使以下入就庭中，異位重行。立定，執事者上香，觀察使以下行四拜禮。翌日質明，觀察使以下以時服入庭，異位重行。立定，執事者上香，觀察使以下行四拜禮。小頃，觀察使以下序立於門外，執事者奉聖容函，安於輦上。輦進發，觀察使以下躬身，輦過平身，侍衛祇送于門外。影殿所在各道觀察使奉迎如</p>
---	---	---

	<p>용함(聖容函)을 받들어 연(輦) 위에 봉안한다. 연(輦)이 진발(進發)하면, 관찰사 이하가 몸을 굽히고, 연(輦)이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 시위(侍衛)하여 문밖에서 지송(祇送)한다. 영전(影殿) 소재지의 각도 관찰사가 봉영(奉迎)하는 것도 앞의 의식과 같으나, 이튿날은 배례(拜禮)가 없고 그대로 시위(侍衛)한다. 영전(影殿) 소재관(所在官)의 수령(守令)이 출영(出迎)하는 것도 앞의 의식과 같다. 연(輦)이 전문(殿門) 밖에 이르면, 집사(執事) 두 사람이 성용함을 받들고 중문(中門)으로 들어와서 정전(正殿)에 이르러 탁자 위에 봉안하고, 함(函)을 열어 성용(聖容)을 받들어 내어서 걸어 모시고 나면, 봉안사(奉安使)와 관찰사 이하가 들어와 전정(殿庭)으로 나아가서, 동서(東西)로 나누어 자리를 달리 하고 곁줄로 서면, 집사자가 상향(上香)하고 사배례(四拜禮)를 행한다. 이날에 봉안사가 안신제(安神祭)를 지낸다.” 하였다.</p>	<p>前儀。翌日，無拜禮，仍侍衛。影殿所在官守令出迎如前儀，輦至殿門外，執事二人奉聖容函，入自中門，至正殿安于卓上，開函奉出聖容，掛安訖。奉安使及觀察使以下入就殿庭，分東西異位重行。立定，執事者上香，行四拜禮。是日，奉安使行安神祭。”</p>
<p>9. 世宗 101卷, 25年 (1443 癸亥 / 명 정통 (正統) 8年) 9月 11日 (壬戌) 6번째기사 예조에서 아뢰 왕세자가 능에 참배하는 의식</p>	<p>예조에서 왕세자가 능(陵)에 참배하는 의식을 아뢰기를, “기일 전 3일에 왕세자가 재계(齋戒)하여 별실(別室)에 거처한다. 무릇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과 시종관(侍從官)은 모두 정침(正寢)에서 하루를 청재(淸齋)한다. 기일 전 2일에 대신(大臣)을 보내어서 종묘(宗廟)에 고(告)한다. 기일 전 1일에 충扈위(忠扈衛)에서 막차(幕次)를 능소(陵所) 가까운 땅에 설치하고, 시종관(侍從官)의 자리[次]를 막차 앞에 설치한다. 능사(陵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능실(陵室)을 소제하고, 집사자가 왕세자의 판위(版位)를 능실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亞獻)·종헌관(終獻官)의 자리를 왕세자의 판위 뒤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찬자(贊者)·알자(謁者)·찬인(贊引)의 자리를 종헌관의 남쪽에 서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위[上]로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헌관(獻官)의 서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그 날 행사(行事)하기 전에 능사가 능실을 소제하고, 전사관(典祀官)과 능사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올려놓</p>	<p>禮曹啓王世子拜陵儀：“前三日，王世子齋止別室，凡行事執事官及侍從官，俱淸齋一日於正寢。前二日，遣大臣，告於宗廟。前一日，忠扈衛設幕次於陵所近地，侍從官次於幕次之前。陵司帥其屬，掃除陵室。執事者設王世子版位於陵室東南，西向；設亞終獻官位於王世子位版後，西向；設贊者謁者贊引位於終獻官之南近西西向，俱北上；監察位於獻官西南，北向。其日未行事前，陵司掃除陵室，典祀官陵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設香爐(告) [香] 合并燭於神位之前；次設</p>

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를 신위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는 제기(祭器)를 진설하고 찬구(饌具)를 담고,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그날 밝기 전 1각(刻)에 왕세자가 궁(宮)에서 나오는데, 의장(儀仗)과 앞뒤에서 따르는 것은 보통 때 의식과 같다. 왕세자가 막차(幕次)에 이르러, 왕세자와 아헌(亞獻)·종헌관(終獻官) 이하가 모두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서운관(書雲觀)에서 시작을 알려서 때가 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 실(室)에 들어가서 진설한 것을 점검하여 보고, 의식과 같지 아니한 것을 규찰(糾察)하고 도로 나온다. 찬자·알자·찬인이 먼저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하여 사배(四拜)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가간다.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서게 하고, 찬자(贊者)가 찬(贊)하기를, ‘국궁(鞠躬), 배(拜), 흥(興), 배(拜), 흥(興), 배(拜), 흥(興), 배(拜), 흥(興), 평신(平身)’이라 하여, 감찰 이하가 사배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가간다. 알자가 아헌·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인진사(引進使)가 꿇어앉아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판위(版位)에 이르러서 향하여 서게 하면, 【의장(儀仗)은 막차(幕次)에 정지하게 한다.】 찬자가 찬하기를,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하여, 왕세자와 아헌·종헌관이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술을 따르고, 시종(侍從) 한 사람 【내외분[兩位]이면 두 사람이다.】 이 작(爵)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가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면, 인진사가 ‘꿇어앉으라.’고 찬(贊)하여 청한다. 시종 한 사람이 향합(香合)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고, 한 사람이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인진사가 ‘세 번 상향(上香)하라.’고 찬(贊)하여 청하여, 시종이 향로를 안(案) 위에 올려놓는다. 시종이 작(爵)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인

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其日未明一刻，王世子出宮，儀仗導從如常儀。王世子到幕次，王世子及亞終獻官以下，皆服淺淡服。書雲觀報時。時至，贊引引監察，升自東階入室，點視陳設，糾察不如儀者，還出。贊者謁者贊引先就拜位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贊引引監察及諸執事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贊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監察以下四拜訖各就位。謁者引亞終獻官入就位，引進使跪白外辦，引王世子儀仗，停於幕次，至版位西向立。贊者贊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王世子及亞終獻官四拜訖，引進使引王世子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侍從一人【兩位則二人】以爵受酒。引進使引王世子入詣神位前北向立，引進使贊請跪，侍從一人奉香合跪進，一人奉香爐跪進，引進使贊請三上香，侍從奠爐于案。侍從奉爵跪進，引進使贊請執爵獻爵，以爵授侍從，奠于神位前。【進香進爵，皆在東西向；奠爐奠爵，皆在西東向。兩位則又獻。】引進使贊請俯伏興小退北向跪，王世子俯伏興小退

진사가 ‘작을 잡아 작을 올리라.’고 찬하여 청해서, 작을 시종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린다. 【향(香)을 올리고 작(爵)을 올리는 것은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향로를 올리고 작을 올리는 것은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내외분이면 또 올린다.】 인진사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라.’고 찬하여 청해서, 왕세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대축(大祝)이 신위의 오른편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인진사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청해서, 왕세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준(尊)을 잡은 자가 술을 따르고, 잡사자 한 사람이 작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면, 알자가 ‘꿇어앉으라.’고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알자가 ‘작을 잡아 작을 드리라.’고 찬하여,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아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하는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찬하기를,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하여, 왕세자와 아헌·종헌관이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幕次)로 돌아가 옷을 벗는다. 알자가 아헌·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감찰 이하가 사배하고 나간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나가고, 찬자·알자·찬인이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典祀官)과 능사(陵司)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

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引進使贊請俯伏興平身，王世子俯伏興平身，引進使引王世子降自東階復位。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一人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謁者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謁者贊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平身，亞獻官俯伏興平身，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贊者贊鞠躬拜興拜興拜興平身，王世子及亞終獻官四拜訖，引進使引王世子還幕次釋服。謁者引亞終獻官出。贊引引監察及諸執事，俱復拜位，贊者贊鞠躬拜興拜興拜興平身。監察以下四拜訖，贊引引監察以下出。贊者謁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陵司各帥其屬，撤禮饌，祝版瘞於坎。亞獻官，從一品；終獻官，正二品；典祀官奉常寺大祝，四五品；執事三，五六品，兩位則四人；引進使僉知通禮；贊者二、通贊謁者一、奉禮侍從官四、書筵詹事院贊引一，參外。”

	<p>(禮饌)을 거두고 축판(祝版)을 구덩이에 묻는다. 아헌관 중1품, 종헌관 정2품 전사관은 봉상시(奉常寺), 대축은 4, 5품, 집사 3인 5, 6품, 내외분[兩位]이면 4인, 인진사는 첨지통례(僉知通禮), 찬자 2인, 통찬·알자 1인, 봉례(奉禮)·시종관(侍從官) 4인인데, 서연(書筵)·첨사원(詹事院)이고, 찬인이 1인인데 참외(參外)이다.”</p> <p>하였다.</p>	
출처	내용	원문
<p>1. 세종 105권,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 (正統) 9년) 윤7월 21 일(무술) 1번째기사 병조 판서 한확 등이 전라도·경상도의 진상을 허락할 것을 간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p>	<p>병조 판서 한확(韓確)·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우참찬 이숙치(李叔時) 등이 여러 승지들과 함께 또 아뢰기를,</p> <p>“금년에 벼곡이 잘되지 않은 것은 온 도(道)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다 연변의 고을들이 부실(不實)할 뿐이고 그 나머지의 산군(山郡)들에는 벼곡이 꽤 잘되었습니다. 또 전라도와 경상도도 이 도의 예와는 다르오니, 청하건대, 두 도의 초하루와 보름의 진상을 허락하옵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금년의 기근(飢饉)은 마음속으로 명나라 건문(建文) 때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더니, 근일에 경과(經過)한 곳에는 거의 다 꽤 잘되어서 내 매우 기쁘다. 그러나, 어찌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여 곧 진상(進上)을 허락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확(確) 등이 다시 아뢰기를,</p> <p>“지금 어선(御膳)의 박(薄)함이 이와 같으니 신 등은 마음에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또 옛사람이 말하기를, ‘50세가 되어 고기가 없으면 배부르지 않다.’ 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춘추가 거의 50세가 되셨을 뿐더러, 더구나, 옥체가 평안하지 못하시운데, 어찌 반찬을 이렇게 박하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일찍이 태종께 올리는 어선(御膳)을 보살핌에도 지금 어선이 이처럼 박하니 동궁(東宮)의 어선을 보살피는 마음에 어떠하겠습니까. 청하건대, 신 등의 바램에 좇으시옵소서.”</p>	<p>戊戌/兵曹判書韓確、禮曹判書金宗瑞、右參贊李叔時等，與諸承旨又啓：“今年禾穀不稔，固非舉道皆然，但沿海邊郡不實，其餘山郡，禾穀稍盛。且全羅、慶尙，又非此道之例，請許兩道朔望進上。” 上曰：“今年飢饉，意謂將如建文之時，近日經過之處，率皆稍稔，予甚喜焉。然豈以是爲喜而乃許進上乎？” 確等更啓：“今御膳之薄，至於如此，臣等心實憾焉。且古人云：‘五十，非肉不飽。’ 殿下春秋幾於五十，況上體違豫，豈宜進膳如此其薄乎？殿下嘗視膳於太宗，今御膳如此其薄，其於東宮視膳之意何如？請從臣等之望。” 上曰：“卿等雖反覆言之，予終不聽。”</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경 등이 비록 거듭거듭 말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듣지 않을 것이다.” 고 하였다.</p>	
<p>2. 세종 106권,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 (正統) 9년) 12월 8일 (계축) 1번째기사 승정원과 의정부 육조 에서 중궁에게 조위하 다</p>	<p>승정원과 정부·육조에서 중궁(中宮)께 조위(弔慰)하고, 정부와 육조에서 이어 아뢰기를, “신들이 듣자온즉, 어제는 한번도 수라를 들지 아니하셨다 하옵는데 오늘도 날이 벌써 늦었사온데도 아직껏 아침수라를 들지 아니하시니, 신들은 놀라고 송구하옵니다. 옛사람 말에 ‘죽음으로써 삶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비록 부모상을 당하여도 나이 50이 넘으면 상례(喪禮)를 이루지 못 한다 합니다. 하물며, 오늘의 일은 지존(至尊)에게는 하루의 복(服)도 없는 것 이고, 또 성상(聖上)의 몸에 오랜 병환이 있으시니, 너무 예절에 지나치게 애 통하실 수 없사옵니다. 청하옵건대, 수라를 드시어서 신들의 소망을 위안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경들의 말을 따르겠노라.” 하였다.</p>	<p>癸丑/承政院及政府六曹陳慰中宮。 政府六曹仍啓：“臣等聞昨日一不進膳， 今日日晏，亦不御膳，臣等驚駭。古 人云：‘毋以死傷生。’故雖父母之喪， 年過五十不成喪，矧今日之事，於至尊 無一日之服！且聖體本有宿疾，不可哀 痛過禮，請進膳，以慰臣等之望。”上 曰：“當從卿等之言。”</p>
<p>3. 세종 106권,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 (正統) 9년) 12월 9일 (갑인) 2번째기사 도승지 이승손 등이 수라 들기를 청하니 허락하지 않다</p>	<p>도승지 이승손 등이 청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수라를 드시옵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좌찬성 하연·예조 판서 김 종서·우참찬 이숙치 등이 또한 복선(復膳)3838) 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 니하였다.</p>	<p>都承旨李承孫等請復常膳，不允。領 議政黃喜、右議政申概、左贊成河 演、禮曹判書金宗瑞、右參贊李叔時 等亦請復膳，不允。</p>
<p>4. 世宗 106卷, 26年 (1444 甲子 / 명 정통 (正統) 9年) 12月 10</p>	<p>영의정 황희 등이 육선(肉膳)의 진어(進御)를 청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내가 지금 아무런 병환이 없으니 따를 수 없다.” 하고, 우의정 신개가 아뢰기를,</p>	<p>乙卯/領議政黃喜等請進肉膳，上曰： “予時無疾恙，不可從也。”右議政申 概更啓：“殿下時雖無恙，病根或萌，</p>

<p>日(乙卯) 1번째기사 영의정 황희 등이 육 선의 진어를 청하니 허락하지 않다</p>	<p>“전하께서 지금은 병환이 없다 하시나, 병환의 뿌리가 혹 움트면 뒤에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태종 대왕의 유교(遺敎)가 있사오니 마땅히 육선을 드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경들은 반드시 나를 무례(無禮)하다고 할 것이나, 그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 하고, 황희 등이 또 굳이 청하되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p>	<p>後必有悔。 況有太宗遺敎， 宜進肉膳。” 上曰：“予不從卿言， 卿等必以我爲無禮， 然所言不可聽。” 喜等又固請， 終不允。</p>
<p>5. 세종 106권,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 (正統) 9년) 12월 11 일(병진) 2번째기사 의정부 육조 대사헌이 육선할 것과 왕비의 재최복을 제거하길 청 하다</p>	<p>의정부·육조·대사헌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몸이 평안하지 못하시니 오래 소찬(素饌)으로만 진어하셔서서는 안 되겠사온데, 지금 벌써 5, 6일이 넘었는데도 아직껏 평시의 수라[常膳]를 물리치시니, 신들은 실로 걱정하고 근심하옵니다. 청하옵건대, 신들의 소망을 좇으소서.” 하고, 영중추원사 최윤덕(崔閔德)과 관중추원사 조말생(趙末生)과 병조 판서 한확(韓確) 등이 또 아뢰기를, “태종께서 일찍이 이르시기를, ‘주상이 소선(素膳)만으로는 견디지 못할 터인데 어찌하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말씀이 분명하게 아직도 귀에 남아 있사온데, 아직도 상선(常膳)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이다지 하시니, 하늘에 계신 태종 대왕의 신령이 어찌 평안하시겠나이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만약 병이 있으면 어찌 경들의 청하기를 기다리겠는가. 지금 나는 평안하니 경들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황희 등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께서 나이 50이 가까우시고, 지금 또 강녕하지 못하신데, 애통하심이 지나치시고, 태종의 유교(遺敎)가 분명하시니, 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실 수 없나이다.”</p>	<p>議政府六曹大司憲等啓： “聖躬違和， 不宜久御素膳。 今已經五六日， 猶却常膳， 臣等實有憂慮， 請從臣等之望。” 領中樞院事崔閔德、判中樞院事趙末生、兵曹判書韓確等又啓： “太宗嘗曰：‘主上不能素膳， 奈何?’ 因泣下。 聖敎昭昭， 今猶在耳， 而乃不許常膳如此， 太宗在天之靈， 其肯安乎?” 上曰：“予若有疾， 何待卿等之請? 今予平安， 卿等勿言。” 喜等更啓： “上年垂五十， 今又違豫， 哀毀過禮。 太宗遺敎昭昭， 不可不從。” 上曰：“卿等反覆言之， 予終不許。” 喜等更啓： “素膳之制， 於禮無據。 且王妃服夫人喪， 已過十三日， 尚不免衰。 昔元敬王后之喪， 十三日免服。 今王妃之喪， 已經十三日， 反重王后之喪， 輕重無序。 王妃一身， 上配至尊， 不宜得伸</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아무리 되풀이하여 말할지라도 내 끝내 허락할 수 없노라.” 하였다. 황희 등이 다시 아뢰기를, “소선(素膳)하는 제도는 예법에도 근거가 없사옵고, 또 왕비께서는 대부인 복을 입으신 지가 이미 1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최복(齋衰服)을 벗지 아니하셨습니다. 옛날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친상에는 13일 만에 복을 벗었는데, 지금 왕비의 친상은 이미 13일이 지났는데도 도리어 원경 왕후의 친상보다 무거운 복을 입으셔서 경중(輕重)의 차서가 없게 되었으니, 왕비의 한 몸은 위로 지존(至尊)과 배필되셨으며 사친(私親)의 상례(喪禮)를 다할 수 없는 것이오니, 최복(衰服)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나는 편안하니 육선(肉膳)은 허락할 수 없고, 중궁의 탈복(脫服)은 예관(禮官)들과 논의하여 올리라.” 하였다.</p>	<p>私喪，請命除衰。” 上曰：“今予安寧，肉膳不可許也。 中宮免服，禮官其議以聞。”</p>
<p>6. 世宗 106卷, 26年 (1444 甲子 / 명 정통 (正統) 9年) 12月 28日(癸酉) 3번째기사 사직의 춘추 및 납향 등의 재계 기간과 재계 때의 금기사항을 예조에 전지하다</p>	<p>예조에 전지하기를, “이후로 사직(社稷)의 춘추(春秋) 및 납향(臘享)과 영녕전(永寧殿)의 춘추 대향(春秋大享)과 종묘(宗廟)·문소전(文昭殿)·건원릉(健元陵)·제릉(齊陵)·헌릉(獻陵)의 사시 대향(四時大享)과 납향에는 재계(齋戒)를 3일간으로 하고 문선왕(文宣王)의 춘추 석전(釋奠)과 풍운뢰우(風雲雷雨)·우사(雲祀)·선농(先農)·선잠(先蠶)에는 재계를 2일간으로 하고, 향축(香祝)은 모두 친히 전하며, 이상 각 처의 기도제(祈禱祭)와 선왕(先王)·선후(先后)의 기신제(忌晨祭)에는 재계를 1일간으로 할 것이며, 모든 재계하는 날에는 잔치·풍악·사냥·형벌(刑罰)·도살(屠殺)·거애(擧哀)·조상(弔喪)·문병(問病)·더러운 일[穢惡]·매운 음식[茹葷]·술마시기[飲酒] 등의 일은 일체 금단하며, 각 관아에서는 고신(拷訊)·사형[刑殺]·결벌(決罰) 등의 일은 행하지 못하게 하라.”</p>	<p>傳旨禮曹： 今後社稷春秋及臘享、永寧殿春秋大享、宗廟、文昭殿、健元陵、齊陵、獻陵四時大享臘享，齋戒三日。 文宣王春秋釋奠、風雲雷雨雩祀先農先蠶，齋戒二日，竝親傳香祝。 以上各處祈禱祭及先王先后(忌晨) [忌辰] 祭，齋戒一日。 凡齋戒日，宴樂田臘刑罰屠殺擧哀弔喪問疾穢惡茹葷飲酒等事，一皆禁斷；各司亦毋得行拷訊刑殺決罰等事。</p>

<p>7. 세종 107권, 27년 (1445 을축 / 명 정통 (正統) 10년) 1월 21일(을미) 1번째기사 도승지 이승손 등이 고기 반찬을 들 것을 아뢰니 허락하지 않다</p>	<p>하였다. 도승지 이승손(李承孫) 등이 아뢰기를, “근일에 고기 반찬을 드시지 않는다 하옵는데, 여러 예문(禮文)을 상고하여 보아도 그런 제도가 없사옵고, 또 일기가 한냉하온데 옥체에 기력이 손상될까 두렵사옵니다. 청하옵건대. 고기 반찬을 드시어 여러 사람의 소망을 위로하게 하여 주사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지금 아무 병이 없으며, 7일을 지내면 비록 청하지 않더라도 내 마땅히 먹을 것이니 대신들로 하여금 다시 와서 청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p>	<p>乙未/都承旨李承孫等啓: “近日輟肉膳, 稽諸禮文, 無其制。且天氣寒冷, 恐聖體違和, 請進肉膳, 以慰輿望。” 上曰: “予今無病, 過七日則雖不請, 予當食之, 勿令大臣復來請也。”</p>
<p>8. 世宗 107卷, 27年 (1445 乙丑 / 명 정통 (正統) 10年) 1月 22日(丙申) 1번째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고기 반찬을 들 것을 청하니 허락하지 않다</p>	<p>의정부와 육조에서 아뢰기를, “근일에 와서 소찬(素饌)을 하시는 것이 예문(禮文)에 제도가 없을 뿐 아니오라, 또 일기가 춥고 기후가 고르지 못하온데 더구나 옥체에 오랜 병환이 계시고 슬퍼하심이 과도하시온데, 오랫동안 고기 반찬을 꺾하시오니, 청하옵건대, 고기 반찬을 드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승정원에 전지하여 7일이 지나면 고기 반찬을 먹겠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오늘 아침은 이미 지났사오니, 낮 수라와 저녁 수라에는 고기 반찬을 들시어서 늙은 신하의 소망을 위로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또 말하기를, “하룻사이에 이와 같이 할 수는 없다. 또 이제 아무 탈이 없으니 만일 오늘만 지나면 비록 청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그대로 따를 것이니, 더 번거롭게 청하지 말라.” 하였다.</p>	<p>丙申/議政府六曹啓: “近日素膳, 於禮文無制。且天寒, 時候不調, 況聖體本有宿疾, 哀毀過禮, 久曠肉膳? 請進膳。” 上曰: “昨日傳旨承政院: ‘過七日則肉膳。’ 是予意也。” 更啓曰: “今朝則已過, 請晝膳及夕膳進肉, 以慰老臣之望。” 上曰: “一日之間, 不可如是也。且今無恙, 若過今日, 雖不請, 當從之, 勿更煩請。”</p>

<p>9. 세종 107권, 27년 (1445 을축 / 명 정통 (正統) 10년) 2월 1일 (을사) 1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p>	<p>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여러 해 연거푸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장래를 돌보지 않고 술과 반찬을 함부로 허비하니, 실로 부당한 일이옵니다. 대소 제향(大小祭享)과 각전(各殿)·각궁의 진상과 중국 사신이나 이웃나라 객인(客人)을 접대하는 이외에는 술을 쓰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이것을 어긴 자는 조관(朝官)이면 파직하고, 성중관이면 녹봉을 없애사이다.” 하니, 명령하기를, “파직이나 제록(除錄)은 하지 말고, 오는 3월 초1일부터 금주를 시작하되, 그 중에 마시더라도 취하지 않은 자와 약으로 쓰는 경우 같은 부득이한 일로 술을 쓰는 자는 술을 함부로 마시는 예로 논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 정상의 경중을 분별하여 태형(笞刑) 40대 이하로 등급을 매겨서 처벌하고, 정상이 가장 경한 자는 논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p>	<p>乙巳朔/司憲府啓: “連年失農, 民間饑饉, 無識之徒, 不顧將來, 糜費酒饌, 實爲未便。 大小祭(享) [享]、各殿各宮進上、朝廷使臣隣國客人支(對) [待] 外, 用酒一禁。 違者, 朝官則罷職; 成衆官, 除錄。” 命: “勿罷職除錄。 來三月初一日始禁酒, 其中飲不至醉者、如服藥等不得已用酒者, 以縱酒人例論, 未便。 分其情狀輕重, 以笞四十以下, 科等施行; 情狀最輕者, 勿論。”</p>
<p>10. 世宗 107卷, 27年 (1445 乙丑 / 명 정통 (正統) 10年) 2月 7日 (辛亥) 1번째기사 예조에 전지하여 재계 일에 술마시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뢰게 하다</p>	<p>예조에 전지하기를, “우리 나라 옛 제도에, 모든 제사의 재계 범절에 관한 문헌에, ‘단지 술을 마 음껏 마시지 않는다.[不縱酒]’고만 하였기 때문에, 헌관이나 여러 집사들이 재계할 때를 당하여도 술을 마시기를 평일과 다름이 없이 하여, 제사를 행할 때에 취해 가지고 예식에 실수하는 일이 흔히 있게 된다. 이제 들은즉, 중국 조정에서는 재계를 3일 동안 하는데, 다섯 가지 냄새나는 푸새와 술을 끊는 다 하였기에, 이미 예조에 내려서 법령으로 만들어 술을 쓰지 못하도록 하라 고 했더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무릇 재계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목욕을 하는데, 헌관은 대개 늙고 병든 대신이므로 만일 약을 먹지 않으면 바람에 병이 날까 염려되니, 마땅히 종전대로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도록만 하고, 만일 에 여럿이 모여서 술마시기를 힘쓰는 자는 단단히 징계하도록 하사이다.’ 하 였다. 곧 집현전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상고하여 보게 하였더니, 《논어(論</p>	<p>辛亥/傳旨禮曹: 本朝舊制, 凡祭致齋誓戒文, 只云: “不縱酒。” 故獻官諸執事, 雖當齋戒, 飲酒無異平日, 至行祭時, 因醉失儀者, 比比有之。 今聞中朝致齋三日, 斷五薰與酒, 已下禮曹著令, 使不得用酒。 承政院啓: “凡致齋者, 必先沐浴。 獻官, 例皆老病大臣, 若不服藥, 恐致傷風, 宜仍舊不縱酒。 如有群聚崇飲者, 痛懲。” 乃令集賢殿稽古制, 《論語》《鄉黨》: “齊必變食。” 注: “不飲酒, 茹葷。” 輯釋: “朱子曰: ‘今</p>

	<p>語》의 향당편(鄉黨篇)에, ‘재계에는 반드시 음식을 달리 하라.’고 하고, 주해에, ‘술을 마시거나 냄새나는 푸새를 먹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증석(輯釋)》에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요새 재계하는 데에 술이 있음은 잘못이라.’ 하고, 다만 예식 중에 ‘술을 마시되 취함에 이르지 아니한다.[飲不致醉]’라는 말이 있으며, 또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의 재계(齋戒)에 이르기를, ‘장자(莊子)의 말에,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냄새나는 푸새를 먹지 아니함이 제사의 재계이다.」 하였다.’ 하였고, 《통전재계의(通典齋戒儀)》에 이르기를, ‘모든 제관들에게 재계하는 날에 술과 먹을 것을 준다.’ 하였고, 《가례(家禮)》의 사시제(四時祭)에, ‘3일을 전기(前期)하여 재계한다.[前期三日齋戒]’고 하고, 그 주해에, ‘술을 마시되 문란함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혹은 술은 마시지 아니한다 하였고, 혹은 술과 먹을 것을 주다 했고, 혹은 술을 마시되 문란함에 이르지 말라 하여 옛 제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야 옳겠는가. 의의(擬議)하여 아뢰라.” 하였다.</p>	<p>致齋有酒，非也，但禮中有飲不至醉之說。” 且《儀禮經傳通解續》齋戒云：“《莊子》曰：‘不飲酒，不茹葷。’” 祭祀之齋，《通典》齋戒儀云：“諸祀官致齋之日，給酒食。” 《家禮》四時祭：“前期三日齋戒。” 註：“飲酒不得至亂。” 或云不飲酒，或云給酒食，或云飲酒不得至亂，古制不一，何如而可？擬議以聞。</p>
<p>11. 세종 108권, 27년 (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5월 7일 (경진) 4번째기사 문소전을 제외하고 여러 도에서 반찬 올리는 것을 우선 급하게 하다</p>	<p>예조에 진지하기를, “여러 도의 진선(進膳)3930) 을 문소전(文昭殿)을 제외하고는 우선 드리지 말게 하라.”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실농한 여러 도로 하여금 이미 진선을 없애게 하시고, 오직 경상·전라·함길도에만 토산물을 올리게 하였으며, 올리는 바는 포해(脯醢)3931) 뿐이 온데, 포해는 이미 일찍이 준비되어 있사옵거늘, 어찌 백성들에게 폐가 되오리까. 하물며, 근래에는 성상의 옥체가 편찮으시오니 면제함이 마땅하지 못하옵니다. 또 지난해 가뭄에는 6월말에 이르러서야 진선(進膳)을 없앴거늘, 이제 가뭄이 심하지 아니하온데 갑자기 정지하게 하시니, 청하건대, 이 명을 거두시와 신 등의 소망에 따르옵소서.”</p>	<p>傳旨禮曹： 諸道進膳，除文昭殿外，姑令勿獻。 政府六曹啓：“前此失農諸道，已除進膳，唯慶尙、全羅、咸吉道許進土產，所進不過脯醢而已，脯醢則已曾備辦，何弊於民？況近上體違和，不宜除之？且去年之旱，至六月之終，乃除進膳，今旱暵未甚而遽停之，請收是命，以副臣等之望。” 上曰：“今年之旱，甚於去歲，況當此時，農民之力，不可一日廢也。所進之物，皆出民力，轉輸之</p>

	<p>하때, 임금의 이르기, “금년의 가뭄은 작년보다 심하거늘, 하물며, 이 때를 당하여 농민의 힘을 하루라도 폐할 수 없는데, 올리는 물건이 모두 백성의 힘에서 나왔고, 운송하는 폐가 또한 농사일을 방해할 것이니, 나의 반찬을 어느 겨를에 헤아리리오. 다시 번거롭게 청하지 말라.” 하였다.</p>	<p>弊, 亦妨農功, 予之饌膳, 何暇計焉? 勿復煩請。”</p>
<p>12. 世宗 108卷, 27年 (1445 乙丑 / 명 정통 (正統) 10年) 5月 13日(丙戌) 2번째기사 승정원에서 임금이 술 드시기를 청했으나 윤택하지 않다</p>	<p>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근일에 가뭄을 근심하사 술을 진어하지 아니하시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옛 제도에 반찬을 감함은 있사오나 반찬을 철폐함은 없사오며, 또 복약하는 데에 술이 없을 수 없사오니 향온(香醞)3935) 을 진어하옵기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p>	<p>承政院啓: “近日憂旱不進酒, 臣等謂古制有減膳而無徹膳, 且服藥不可以無酒, 請進香醞。” 不允。</p>
<p>13. 세종 110권, 27년 (1445 을축 / 명 정통 (正統) 10년) 12월 10일(기유) 1번째기사 강원도 감사가 생어육을 천신할 때에 얼음을 쓰게 할 것을 아뢰니 의정부에서 논하게 하다</p>	<p>강원도 감사 이선제(李先齊)가 아뢰기를, “매달 월령(月令) 천신(薦新)과 삭망(朔望)에 진상(進上)하는 생어육(生魚肉)이 하월(夏月)의 여러 날 노정(路程)에 부패하기가 쉬우니 대단히 불가합니다. 청하옵건대, 영동(嶺東)의 강릉(江陵)·고성(高城)과 영서(嶺西)의 원주(原州)·춘천(春川) 등지에 얼음을 저장하여, 생어육을 천신(薦新)할 때에 얼음을 쓰게 하여 썩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하니, 예조(禮曹)에 내렸다. 예조에서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기를, “네 곳에 얼음을 저장하기는 어려우니 강릉(江陵)·춘천(春川) 두 곳에만 1년 쓸 것을 짐작하여 얼음을 저장하고, 함길도와 강원도(江原道) 흡곡(歙谷) 근처의 주현(州縣)의 천신(薦新)은 모두 김성(金城)으로 쫓아 서울에 이르니 아울러 얼음 저장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아뢰기를, “그 관(官)의 번(番)을 따르는 인리(人吏)로 하여금 매양 한 곳에 백 덩어리만</p>	<p>己酉/江原道監司李先齊啓: “每朔月令薦新及朔望進上生魚肉, 夏月累日之程, 易致朽爛, 甚爲不可。請於嶺東江陵·高城、嶺西原州·春川等處藏冰, 生魚肉薦新時, 使得用水, 不至壞爛。” 下禮曹。禮曹報議政府: “四處藏冰爲難, 江陵、春川兩處, 酌一年所用藏冰。咸吉道及江原道歙谷旁近州縣薦新, 皆從金城到京, 竝許藏冰。” 政府啓: “令其官隨番人吏, 每一處只藏百錠, 毋得轉輸, 以供使客。違者, 以教旨不從論罪。” 從之。</p>

	저장하게 하여, 다른 곳으로 수운(輸運)하여 사객(使客)을 접대하는 데에 쓰지 못하게 하고, 여기는 자는 교지(教旨)를 좇지 않는 것으로 논죄(論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4. 世宗 111卷, 28年 (1446 丙寅 / 명 정통 (正統) 11年) 2月 9日 (丁未) 1번째기사 예조에 전지하여 경기 외의 도에서 올리는 생육을 8월까지로 제한하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경기(京畿) 외의 여러 도(道)에서 매월마다 올리는 생육(生肉)을 8월까지 한 하여 올리지 말게 하라.” 하였다.	丁未/傳旨禮曹: 京畿外諸道每月所進生肉, 限八月勿進。
15. 세종 111권, 28년 (1446 병인 / 명 정통 (正統) 11년) 2월 27일(을축) 2번째기사 대마주 종정성이 쌀·약재를 청하니 내려 주다	대마주(對馬州) 종정성(宗貞盛)이 사람을 보내어 쌀·콩과 약재(藥材)를 청하니, 명하여 쌀·콩 각각 1백 석과 인삼(人蔘)·오미자(五味子)·대황(大黃)·황기(黃耆)·황금(黃芩)·행인(杏仁)·연자(蓮子)·천마(天麻) 등의 약재(藥材)를 내려주게 하였다.	對馬州宗貞盛遣人請米豆藥材, 命賜米豆各一百石、人蔘五味子大黃黃耆黃芩杏仁蓮子天麻等藥材。
16. 世宗 111卷, 28年 (1446 丙寅 / 명 정통 (正統) 11年) 3月 24日(辛卯) 6번째기사 조석 애전(朝夕哀奠)과 밥 먹을 때 상식(上食)의 의식	조석 애전(朝夕哀奠)과 밥 먹을 때 상식(上食)의 의식은, 조진(朝奠)에는 왕세자가 그 상복(喪服)을 입고 【성복 전에는 소복(素服)을 입는데, 대군(大君) 이하도 이와 같다.】 빈전(殯殿) 지게문 밖[尸外]의 동쪽에 나아가서 서향(西向)하여 앉아, 부복(俯伏)하고 곡(哭)하고,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들은 그 뒤에 겹줄로 하여 서향하되, 남쪽을 위[上]로 하여 부복하고 곡한다. 상침(尙寢)3992 은 관절(盥櫛)의 도구를 영상(靈牀) 옆에 설치하고, 상궁(尙宮)은 혼백함(魂魄函)을 받들고 나와서 영좌(靈座)에 나아가고, 상식(尙食)3993 은 전(奠)을 차리고, 상향(上香)하고 술을 따라 영좌 앞에 드린다. 왕세자와 대군	朝夕哀奠及食時上食儀: 朝奠, 王世子服其服, 【成服前素服, 大君以下同。】詣殯殿戶外之東西向坐, 俯伏哭, 大君諸君在其後, 重行西向北上俯伏哭。尙寢設盥櫛之具于靈牀側, 尙宮奉魂魄函, 出就靈座; 尙食設奠上香, 酌酒奠于靈座前。王世子及大君以下哭盡哀。【朝奠將至, 徹夕

	<p>이하가 곡(哭)하여 슬픔을 다한다. 【조전(朝奠)이 장차 이르게 되면, 석전(夕奠)을 걷어 치우고, 석전이 장차 이르면, 조전을 걷어 치웠다.】 밥 먹을 때의 상식(上食)은 평상시와 같이 하되 육선(肉膳)을 쓰지 않으며, 행례(行禮)는 조전의 의식과 같이 한다.</p>	<p>奠; 夕奠將至, 徹朝奠。】食時上食, 如平時, 不用肉膳, 行禮如朝奠儀。</p>
<p>17. 세종 111권, 28년 (1446 병인 / 명 정통 (正統) 11년) 3월 24 일(신묘) 9번째기사 왕세자·대군·여러 군에게 명하여 담죽·죽을 거쳐서 5일 만에야 밥을 먹게 하다</p>	<p>임금이 왕세자와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에게 명하여 첫날부터 2일까지는 담죽(淡粥)을 마시게 하고, 3일부터 4일까지는 죽(粥)을 먹게 하고, 5일만에야 비로소 밥을 먹게 하였다.</p>	<p>上命王世子及大君諸君, 自初日至二日飲淡粥, 自三日至四日食粥, 第五日始食飯。</p>
<p>18. 世宗 111卷, 28年 (1446 丙寅 / 명 정통 (正統) 11年) 3月 25日(壬辰) 1번째기사 소렴하다. 전을 차리다</p>	<p>소렴(小斂)하였다. 내시(內侍)가 소렴상(小斂牀)을 서계(西階)의 서쪽에 진설(陳設)하고, 지의(地衣)와 옥석(褥席)을 펴고 먼저 염매[絞]의 횡포(橫布) 세 개를 아래에 펴서 온 몸을 서로 잡아매는 데에 대비하고, 다음에 종포(縱布) 한 개를 그 위에 펴서 머리와 발을 가리는 데에 대비하며, 염매[絞]는 백세저포(白細苧布)를 사용하여 그 양쪽 끝을 쪼개고, 다음은 포금(布衾)인데, 금(衾)은 겹을 사용하고, 다음은 포의(布衣)인데, 혹은 뒤집어 놓기도 하고, 혹은 거꾸로 놓기도 하나, 다만 방정(方正)을 취(取)하고, 상의(上衣)만은 거꾸로 놓지 않는다. 함께 19칭(稱)이다. 이를 들고 서계로 올라가니, 나인이 전해 들어서[傳舉]서 시체의 남쪽에 둔다. 이에 석전(夕奠)을 옮기고, 나인(內人)이 손을 씻고 함께 시체를 들어 소렴상에 옮긴다. 먼저 베개[枕]를 버리고, 그 첩의(疊衣)를 펴서 그 머리를 깔게 하고는, 이내 양쪽 끝을 말아서 양쪽 어깨의 빈 곳에 채우고, 또 옷을 말아 양쪽 정강이에 끼워서 그 방정을 취(取)한 뒤에, 남은 옷으로 시체를 덮고, 오른쪽 옷설을 왼쪽 옷설의 위로 여미되, 옷고름을 매지는 않으</p>	<p>壬辰/小斂: 內侍陳小斂牀於西階之西, 施地衣褥席。先布絞之橫者三於下, 以備周身相結; 次布縮者一於其上, 以備掩首及足。絞用白細苧布, 析其兩端。次布衾, 衾用複。次布衣, 或顛或倒, 但取方正, 唯上衣不倒, 摠十九稱。舉之, 昇自西階, 內人傳舉, 置于尸南乃遷。夕奠, 內人盥手, 共舉尸遷于小斂牀, 先去枕而舒其疊衣, 以藉其首, 仍捲兩端, 以補兩肩空處。又捲衣挾其兩脛, 取其方正, 然後以餘衣掩尸, 左衽不紐, 裹之以衾而未結以絞, 未掩其面, 別覆以衾。王世子西向, 憑尸</p>

	<p>며, 금으로써 싸고 염매[絞]로 잡아매지 않으며, 그 얼굴을 가리지 않고 따로 금으로써 덮는다. 왕세자가 서향(西向)하여 시체에 기대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대군(大君) 이하는 왕세자의 뒤에서 서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공주(公主) 이하는 동향(東向)하여 또한 이와 같이 한다. 왕세자는 별실(別室)로 물러나와서 삼[麻]으로 머리[髮]을 묶고, 대군 이하도 또한 물러나와서 삼으로 머리를 묶으며, 공주 이하는 별실에서 북상투[鬢]를 쫓는다. 내시가 시상(尸牀)을 전중(殿中)으로 도로 옮기고, 빙반(氷盤)을 시상 밑에 놓고서야 진(奠)을 차린다. 【유사(攸司)가 찬(饌)을 올리매, 상식(尙食)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이를 전해 받들어 영좌(靈座) 앞에 드리고, 향로·향합과 초[燭]를 설치한다. 또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잔(盞) 세개를 준소(尊所)에 둔다. 왕세자가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부복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하고, 대군(大君)·제군(諸君)과 공주 이하가 모두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상식이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상향(上香)하고, 또 술 석 잔을 따라서 연달아 안(案) 위에 드린다.】</p>	<p>哭擗。大君以下在王世子之後，西向哭擗，公主以下東向，亦如之。王世子退于別室，以麻括髮，大君以下亦退括髮，公主以下鬢于別室。內侍還遷尸牀于殿中，設氷盤于牀下，乃設奠。</p> <p>【攸司進饌，尙食帥其屬，傳奉奠于靈座前，設香爐香合竝燭。又設尊於戶外之左，置盞三於尊所。王世子入就位，俯伏哭盡哀。大君諸君及公主以下俱入就位，哭盡哀。尙食詣香案前上香，又酌酒三盞，連奠于案。】</p>
<p>19. 세종 111권, 28년 (1446 병인 / 명 정통 (正統) 11년) 3월 27 일(갑오) 1번째기사 대렴하다. 전·빈소를 설치하고, 기일 전에 찬궁을 짓게 하다</p>	<p>대렴(大斂)하였다.</p> <p>내시가 대렴상을 서계의 서쪽에 두고, 지의(地衣)와 욱석(褥席)을 상위에 진열하고는, 먼저 염매의 횡포 다섯 개를 아래에 펴되, 백세저포 두폭을 찢어 여섯 개로 만들어 그 다섯 개만 쓰고, 다음은 염매의 종포(縱布) 세 개를 위에 펴되, 백세저포 한 폭을 찢어 세 개를 만들어 쓰고, 다음은 포금(布衾), 그 다음은 포의(布衣)인데, 혹은 뒤집어 놓기도 하고, 혹은 거꾸로 놓기도 하되, 다만 방정(方正)만을 취하고, 오직 명복(命服)만은 거꾸로 놓지 않으며, 합계 90 칭(稱)이다. 이를 들고 서계로 올라가매, 나인이 받아 들어 시체의 남쪽에 둔다. 이에 조석전(朝夕奠)을 옮기고, 나인이손을 씻고 함께 시체를 들어 대렴상으로 옮기고는 금(衾)을 거두어 먼저 발[足]을 가리우고, 다음은 머리를 가리우고, 다음은 왼쪽을 가리우고, 다음은 오른쪽을 가리우되, 그 방정함을 취</p>	<p>甲午/大斂:</p> <p>內侍置大斂床于西階之西，陳地衣褥席於床上，先布絞之橫者五於下，用白細紵布二幅，裂而爲六，用其五。次布縱者三於上，用白細紵布一幅，裂而爲三用之。次布衾，次布衣，或顛或倒，但取方正，唯命服不倒，摠九十稱。舉之，升自西階，內人傳舉，置于尸南乃遷。朝夕[奠]，內人盥手，共舉尸遷于大斂床收衾，先掩足，次掩首，次掩左，次掩右，取其方正結絞。先</p>

한다. 엄매를 잡아매되 먼저 끝[殺]으로써 발을 감추고 올라가며, 뒤에 덮개 [冒]로써 머리[首]를 감싸고 내려와서, 마침내 일곱개의 띠[帶]를 잡아맨다. 기일 전에 아주 부드러운 재를 관(棺) 안의 밑에 4촌 가량 펴고, 칠성판(七星板)을 그 위에 놓고, 두꺼운 종이로써 칠성판의 구멍을 발라서 막고, 옥석을 칠성판 위에 설치하고, 이에 관을 들고 들어와서 전중(殿中)의 조금 서쪽에 두고, 엄하고 남은 의상(衣裳)은 적당히 관의 밑바닥에 펴고, 나인이 함께 시체를 들어 관에 들여넣으며, 또 의상을 시체 위에 펴되, 편편하게 꼭 차게 하고, 생존할 때의 빠진 치아(齒牙)·모발(毛髮)과 깎은 손톱·발톱을 소대(小帛)에 담아서 재궁 안의 네 모퉁이에 채운다. 왕세자가 기대어 통곡하기를 슬피 하고, 대군 이하와 공주 이하가 통곡하기를 슬피 한다. 왕세자와 대군 이하가 자리[次]로 물러가고, 공주 이하도 모두 자리로 물러간다. 내시가 장인(匠人)을 불러 뚜껑을 덮고 옷칠을 하고서 나비은살대[衽] 세 개를 끼운다. 나비은살대는 나무로써 만들었는데, 그 모양은 양쪽 머리가 넓다. 먼저 관 가의 양쪽머리와 중앙의 합치는 곳[合處]을 뚫어서 움푹 패인 모양[坎刑]을 만들고는 나비는 살대로써 이를 연결시켜, 밑과 뚜껑이 서로 합친 곳을 튼튼하게 하고, 서로 합친 외면(外面)에 옷칠로써 이를 바르고, 또 흰 생초(生絹)로써 가로세로[縱橫] 이를 묶고는 관의(棺衣)로써 덮는다. 이에 전(奠)을 설치하고, 드디어 시어소(時御所)의 서청(西廳)에 빈소(殯所)를 설치한다. 기일 전에 찬궁(欝宮)을 정전(正殿)안에 지어, 북쪽에 의거하고 남쪽을 향하게 하는데, 【수양 대군(首陽大君) 집의 서청(西廳)인데, 청(廳)의 앞과 뒤로써 동서 남북으로 삼다.】 재궁 평상(梓宮平牀)의 길이와 넓이를 미리 헤아려 사면에 각각 1척(尺) 5촌(寸)을 더 넓도록 하고, 먼저 벽돌로써 땅에 펴고 석회(石灰)로써 그 틈을 발라서 찬궁의 기지(基址)를 만들고, 다음에 땅에 네모진 나무를 설치하고, 네 개의 기둥을 그 위에 세우고는, 들보를 걸치고 서까래를 걸어 벽을 만들어 집 모양과 같이 하되, 다만 그 동쪽 벽만을 비워서 대자리[竹簾]로써 그

以殺，韜足而上；後以冒，韜首而下，遂結七帶。前期，爛熟牀米灰鋪於棺內底四寸許，加七星板於其上，以厚(低)〔紙〕塗閉七星孔。設褥席于板上，乃舉棺入置殿中小西，以斂餘衣裳，量宜鋪于棺之底，內人共舉尸納于棺。又以衣裳鋪于尸上，務令平滿。將生時所落齒髮及所剪爪盛于小帛，實于梓宮內四隅。王世子憑哭盡哀，大君以下及公主以下哭盡哀。王世子及大君以下退，次公主以下皆退，次內侍召匠，加蓋漆而三衽。衽以木爲之，其形兩頭廣，中央小。先鑿棺邊兩頭及中合處作坎形，以衽連之，令固底蓋相合處，相合外面，以漆塗之。又以白絹束之，縱橫覆以棺衣。乃設奠，遂殯于時御所西廳。前期，作欝宮于正殿中，依北向南。【首陽大君第之西廳，以廳之向背爲東西南北也。】預量梓宮平牀長廣，四面各加闊一尺五寸，先以甄鋪地，石灰塗其隙，作欝宮基址。次設地方木，豎四柱於其上，架樑拘椽，作壁如屋之狀，唯虛其東壁，以竹簾貼其內。三面及上，用片竹縱橫挾之，以釘釘之，牢固爲度。又以

안의 삼면(三面)과 위에 붙이고, 편죽(片竹)을 사용하여 가로세로 못[釘]을 끼우되, 못의 튼튼한 것으로써 한도로 삼고, 또 두꺼운 종이로써 이를 바르되, 종이로써朱雀(朱雀)·현무(玄武)·청룡(靑龍)·백호(白虎)를 그려서 방위에 따라 이를 붙이고, 그 외의 삼면과 상면(上面)에는 먼저 진흙으로써 바르고, 다음은 정포(正布)를 바르고, 그 다음은 두꺼운 종이를 바르며, 유둔(油氈)과 지의를 안에 펴고 발 없는 평상[無足平牀]을 설치하고 대자리[竹簟]와 욱석을 그 위에 펴 놓는다. 시각이 되자, 내시(內侍)가 재궁(梓宮)을 받들어 평상위에 안치(安置)하되,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관의(棺衣)로써 덮은 뒤에 유둔(油氈)으로 거듭 싸고, 흰 정포를 사용하여 가로세로 이를 묶는다.【내시 1인은 향탁(香卓)을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고, 다음 2인은 혼백(魂帛)·유의함(遺衣函)과 교의(交椅)를 받들고, 다음 1인은 명정(銘旌)을 받들고, 다음 2인은 책보(冊寶)를 받들고, 내시가 함께 재궁을 들고 그제야 간다. 왕세자와 대군 이하가 이를 따라 빈전에 나아갔다가 왕세자와 대군 이하가 자리[次]로 물러나온다.】 미리 동벽기(東壁機)를 만들어 이를 막아 못을 치되, 튼튼하게 하고, 진흙으로 안팎을 바르고 도배(塗排)하기를 위와 같이 한다. 백초 만정(白綃滿頂)과 백초 장막[白綃帳]을 설치하고, 【그것을 깊숙이 하기 위한 때문이었다.】 다시 영상(靈牀)을 찬궁의 동남쪽에 남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만정(滿頂)을 설치하여 평상·욕석·병풍·베개·의복·이불의 등속을 그 안에 두되, 남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고, 조석(朝夕)으로 닦을 씻고 머리를 빗는 도구를 설치하되, 모두 평상시와 같게 한다.】 영좌(靈座)를 찬궁의 서남쪽에 남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평상·욕석과 병풍을 설치하고, 교의를 욱석 위에 두고, 혼백과 유의함을 교의위에 안치하였다.】 명정을 받들어 영좌의 오른쪽에 세우고, 책보안(冊寶案)을 영좌의 동남쪽에 두고, 덮개[蓋]와 문짝[扇] 각각 두 개를 영좌 앞 좌우에 설치하고, 【덮개와 문짝은 모두 백저포(白苧布)를 사용하고, 덮개의 제도는 한 처마[簷]이다.】 이에 전을 차려 놓는다. 【유사(攸司)가 찬(饌)

厚紙塗之，以紙畫朱雀玄武靑龍白虎，隨方貼之。其外三面與上面，先以泥塗之，次塗正布，次塗厚紙，鋪油氈地衣于內。設無足平牀，施竹簟及褥席于其上。時至，內侍奉梓宮安於牀上南首，覆以棺衣後，以油氈重裹用白正布縱橫束之。【內侍一人奉香卓前導，次二人奉魂帛遺衣函及交倚，次一人奉銘旌，次二人奉冊寶。內侍共舉梓宮乃行，王世子及大君以下隨之。就殯殿，王世子及大君以下退次。】預作東壁機，乃塞之加釘，務令牢固。泥塗之，內外塗排如上。設白綃滿頂及白綃帳於外，【欲具深邃也】復設靈牀於攢宮之東南，南向；【設滿頂置牀褥席屏抗衣被之屬於內，南首。朝夕設盥櫛之具，皆如平時。】設靈座於攢宮之西南南向，【設平牀褥席及屏，置交倚于褥席上，安魂帛遺衣函於交倚上。】奉銘旌立於靈座之右，置冊寶案于靈座東南，設蓋扇各二於靈座前左右，【蓋扇皆用白紵布，蓋制一簷。】乃設奠。【攸司具饌以進，尚食帥其屬，傳奉奠于靈座前，設香爐香合并燭，又設尊於戶外之左，置盞三於尊所。王世子入

	<p>을 갖추어 올리면, 상식(尙食)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이를 전해 받들어 영좌 앞에 드린다. 향로·향합과 초[燭]를 설치하고, 또 준(尊)을 지계문 밖[戶外]의 왼쪽에 설치하고, 술잔 3개를 준소(尊所)에 둔다. 왕세자가 들어와서 빈전(殯殿) 지계문 밖의 동쪽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통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대군 이하는 그 뒤에 겹줄로 하여 서쪽을 향하되, 남쪽을 위로 하여 부복하고, 공주 이하는 지계문 밖의 서쪽에 나아가서 겹줄로 하여 동쪽을 향하고 자리에 올라가서 모두 통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상식이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상향(上香)하고, 또 술 석 잔을 따라 연달아 안(案)에 드린다. 지계문 밖에는 상시 장막을 설치하여 꼬불꼬불하게 해서 서쪽과 동쪽을 가로 막았다.】나인(內人)이 빈소(殯所)를 모시기를 평상시의 예절과 같이 한다. 왕세자가 상차(喪次)로 돌아오고, 대군 이하와 공주 이하가 각기 상차로 돌아온다.</p>	<p>就殯殿戶外之東，西向哭盡哀。大君以下在其後，重行西向南上俯伏，公主以下就戶外之西，重行東向上坐，俱哭盡哀。尙食詣香案前上香，又酌酒三盞，連奠于案。戶外常設帷，曲折以隔西東。】內人侍殯平時禮。王世子還喪次，大君以下及公主以下，各歸喪次。</p>
<p>20. 세종 111권, 28년 (1446 병인 / 명 정통 (正統) 11년) 3월 27 일(갑오) 2번째기사 연로한 대신들에게 고기먹을 것을 권고하는 전지를 승정원에 내리다</p>	<p>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근일에 70세 이상 되는 늙은 대신이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내가 심히 이를 불쌍하게 여기니, 7일 이후에는 고기를 먹도록 권고하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주상(主上)께서 소찬(素饌)을 드시는 동안에는 대신에게 비록 고기 먹기를 권고하더라도 누가 감히 이를 먹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 많은 늙은 대신은 하루라도 고기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어찌 내가 상제(喪制)를 마치기를 기다리겠는가. 더구나, 나의 이 말은 또한 임금의 명령이니, 늙은 신하의 자손들로 하여금 알고서 이를 권고하게 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전일에 상제(喪制)를 의정(議定)할 적에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옛날에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처음으로 상기(喪期)를 단축하니, 역대(歷代)의 군주들이 모두 기년(期年)의 제도만 있었는데 무후(武后)에 이르러 3년의 상기(喪</p>	<p>傳旨承政院： 近日七十以上年老大臣，久未肉飧，予甚憐之。七日以後，其令勸肉。 承旨等啓曰：“主上服素之內，大臣雖勸肉，誰敢食之？”上曰：“年老大臣，一日不可無肉，何待予終制乎？且予之此言，亦君命也，其使老臣子孫知而勸之。”又曰：“前日議定喪制，予更思之，昔漢文始自短喪，歷代之君，皆有期年之制，逮至武后，行三年之喪。且孔、孟有曰：“三年之喪，自天子至於庶人一也。故今定爲母服三年之法，然孔、孟之訓，泛稱三年之喪，無父母之別。至于宋朝，程、朱大賢也，而</p>

	<p>期)를 행하였다. 또 공자·맹자께서 말씀하기를, ‘3년의 상기는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똑 같이 한다.’고 하였으므로, 지금 어머니를 위하여 3년을 입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자·맹자의 교훈은 3년의 상기(喪期)를 일반적으로 일컬은 것이고 부모의 구별은 없었는데, 송대(宋代)에 이르러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는 대현(大賢)이었는데도,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어머니가 별세하면,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期年)을 입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또 내가 지난 번에 모후(母后)의 상(喪)을 당하매, 태종(太宗)께서 옛날의 제도를 모방하여 기년상(期年喪)의 예(禮)를 마련하여 만세(萬世)에 전할 법으로 삼았으니, 지금 상제(喪制)를 고쳐 정하면서 다시 옛날의 예(禮)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위지(河緯地)로 하여금 다시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p> <p>하였다.</p>	<p>定爲父在母歿，則爲母服期之制。且予曩遭母后之喪，太宗倣古制立期喪之禮，以爲萬世法。今改定喪制，更變古禮何如？ 其使河緯地更考古制以啓。”</p>
<p>21. 世宗 111卷, 28年 (1446 丙寅 / 명 정통 (正統) 11年) 3月 29日(丙申) 1번째기사 예조에서 빈전에 향과 축문을 내릴 것을 아뢰었으나, 승정원의 의견을 따라 내리지 않는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청하옵건대,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상례(喪禮)에 의거하여 빈전(殯殿)의 삭망제(朔望祭)와 유명일제(有名日祭)에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모후(母后)가 빈소(殯所)에 있을 때에, 예관(禮官)이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나에게 술잔을 드리도록 하고, 조신(朝臣)이 축문(祝文)을 읽었는데, 그후에 허조(許稠)가 말하기를, ‘모후(母后)의 빈소(殯所)에 술잔을 드리고 축문을 읽는 예(禮)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므로, 나도 또한 옳게 여겼는데, 지금 왕비가 빈소에 있어 평상시의 궁금(宮禁)과 다름이 없으니, 외인(外人)으로 하여금 술잔을 드리고 축문을 읽게 할 수가 없으니 향과 축문을 내리지 말게 하라, 궁인(宮人)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가례(家禮)》 4007)에는 다만 졸곡(卒哭)과 우제(虞祭)의 축문만 있고, 빈</p>	<p>丙申/禮曹啓：“請依元敬王后喪禮，於殯殿朔望祭及有名日祭，降香祝。”上謂承政院曰：“母后在殯，禮官稽古制，俾予奠爵，朝臣讀祝。其後許稠言：‘母后之殯奠爵讀祝之禮，甚不可也。’予亦以爲然。今王妃在殯，與生平宮禁無異，不可使外人奠爵讀祝，其勿降香祝，令宮人行之何如？”承旨等啓曰：“《家禮》但有卒哭虞祭祝文，則其在殯之日無祝明矣。請勿降香祝。”從之。</p>

	<p>소에 있는 날에는 축문이 없음이 명백하오니, 청하옵건대 향과 축문을 내리지 마소서.”</p> <p>하매, 그대로 따랐다.</p>	
<p>22. 세종 112권, 28년 (1446 병인 / 명 정통 (正統) 11년) 4월 1일 (무술) 1번째기사 삭전을 빈전에 행하다</p>	<p>삭전(朔奠)을 빈전(殯殿)에 행하였다. 이때부터 산릉(山陵)에 나가기까지 삭망전(朔望奠)마다 백관(百官)이 곡림(哭臨)하였다.</p> <p>삭망(朔望) 및 속절(俗節)의 별전의(別奠儀)는 하루 전에 내시(內侍)가 왕세자(王世子)의 곡(哭)하는 자리를 빈전(殯殿) 지계문 밖[戶外]의 동쪽에 서향(西向)하여 설치하고, 대군(大君) 이하는 그 뒤에 있게 하되, 겹줄로 서향(西向)하게 한다. 전의(典儀)는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의 자리[位]를 외정(外庭)에 설치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그날 새벽[質明]에 유사(攸司)가 찬(饌)을 올리면, 상식(尙食)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傳)하여 받들어 영좌(靈座) 앞에 놓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축(燭)을 베풀어 놓고,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베풀고 잔(盞) 세 개를 준소(尊所)에 놓아둔다. 봉례랑(奉禮郎)은 종친과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왕세자가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부복(俯伏)하고, 대군 이하가 따라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부복한다. 상궁(尙宮)이 혼백함(魂帛函)을 받들고 나와 영좌(靈座)에 놓으면 왕세자가 곡하고 대군 이하가 곡한다. 전의(典儀)가,</p> <p>“재배(再拜)하고 곡(哭)하라.”</p> <p>하면, 통찬(通贊)이 창(唱)하기를,</p> <p>“국궁(鞠躬)하여 재배(再拜)하고 곡(哭)하라.”</p> <p>한다. 종친과 문무 백관이 몸을 굽혀 재배하고 곡한다. 왕세자가 곡을 그치면, 대군 이하가 곡을 그친다. 통찬이 창하기를,</p> <p>“곡을 그치고 꿇어앉으라.”</p> <p>하면, 종친과 문무 백관이 곡을 그치고 꿇어앉는다. 상식(尙食)이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세 번 상향(上香)하고, 또 술 석 잔을 따라 연(連)하여 안(案)</p>	<p>戊戌朔/行朔奠于殯殿。 自是至赴山陵每朔望奠，百官哭臨。 朔望及俗節別奠儀：</p> <p>前一日，內侍設王世子哭位於殯殿戶外之東西向，大君以下在後，重行西向。 典儀設宗親及文武百官位於外庭如常。 其日質明，攸司進饌，尙食率其屬傳奉奠于靈座前。 設香爐香合并燭，又設尊於戶外之左，置盞三於尊所。 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王世子入就位俯伏，大君以下從入就位俯伏。 尙宮奉魂帛函，出就靈座，王世子哭，大君以下哭。 典儀曰：“再拜哭。” 通贊唱鞠躬再拜哭，宗親及文武百官鞠躬再拜哭。 王世子哭止，大君以下哭止。 通贊唱哭止跪，宗親及文武百官哭止跪。 尙食詣香案前，三上香，又酌酒三盞，連奠于案。 通贊唱俯伏興平身，宗親及文武百官俯伏興平身。 王世子哭盡哀，大君以下哭盡哀。 通贊唱鞠躬再拜哭，宗親及文武百官再拜哭盡哀。 王世子哭止，大君以下哭</p>

	<p>에 놓는다. 통찬이 창하기를,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라.” 하면, 종친과 문무 백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왕세자가 슬피 하고, 대군 이하가 곡하여 슬피 한다. 통찬이 창하기를, “몸을 굽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종친과 문무 백관이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대군 이하가 곡을 그치면, 통찬이 창하기를, “곡을 그치라.” 한다. 종친과 백관이 곡을 그친다. 왕세자가 위차(位次)로 돌아가고, 대군 이하가 따라서 나가면, 봉례랑(奉禮郎)이 종친과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p>	<p>止。通贊唱哭止，宗親及百官哭止。 王世子還次，大君以下從出。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以次出。</p>
<p>23. 世宗 112卷, 28年 (1446 丙寅 / 명 정통 (正統) 11年) 4月 3日 (庚子) 2번째기사 졸곡 전후 왜인·야인의 접대에 대해 정하다</p>	<p>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졸곡(卒哭) 전에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을 사관에서 접대[館待]하는 것과 대궐에 나왔[詣闕]을 때에 먹이는 것을 모두 소찬(素饌)을 쓰고, 본조(本曹)에서 먹이는 것도 정지하고, 졸곡이 지난 뒤에 전례(前例)에 의하여 본조(本曹)에서 먹이되, 다만 악(樂)은 쓰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議政府據禮曹呈啓：“卒哭前，倭，野人館待及詣闕時饋餉，竝用素饌，停本曹饋餉。卒哭後，依前例饋于本曹，但不用樂。”從之。</p>
<p>24.세종 112권, 28년 (1446 병인 / 명 정통 (正統) 11년) 4월 24일(신유) 3번째기사 영릉의 형역을 열다</p>	<p>영릉(英陵)의 형역(塋域)을 열었다. 3일 전기(前期)하여, 마땅히 행사(行事)한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2일을 산재(散齋)하고 1일을 치재(致齋)한다. 제삿날 축시(丑時)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새로 얻은 땅에 조역(兆域)을 파는데, 네 모퉁이는 그 흙을 밖으로 내고, 가운데를 파는 데는 그 흙을 남쪽으로 내고 각각 한 표목(標木)을 세우고, 남문(南門)에 당하여서는 두 표목을 세운다. 집사자(執事者)가 후토씨(后土氏)의 신위(神位)를 가운데 표목[中標] 왼편에 베풀되, 남향(南向)하며 왕골자리[完席]로 깔고, 헌관(獻官)의 자리[位]를 신위(神位)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p>	<p>開英陵塋域： 前期三日，應行執事官，竝散齋二日，致齋一日。祭日丑時，書雲觀於所得地掘兆，四隅外其壤，掘中南其壤，各立一標，當南門立兩標。執事者設后土氏神位於中標之左南向，席以莞；設獻官位於神位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西向北上；謁者贊者位於獻官西</p>

고, 집사자의 자리를 그 뒤에 베풀되, 서향(西向)하여 북쪽을 위[上]로 하고, 알자(謁者)·찬자(贊者)의 자리를 헌관의 서남 쪽에 베풀되, 서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고, 축판(祝版)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놓으며,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축(燭)을 신위 앞에 베풀고, 제기(祭器)를 베풀고 찬구(饌具)를 채운다. 변(籩) 여덟 개는 왼편에 있어 세 줄이 되는데, 오른편을 위[上]로 하고, 【첫째 줄은 형해(刑醢)가 앞에 있고, 어해(魚醢)가 다음이며, 둘째 줄은 마른 대추(乾棗)가 앞에 있고, 누른 밤[黃栗]과 개암[榛子]이 다음이며, 셋째 줄은 능인(菱仁)이 앞에 있고, 감인(芡仁)과 녹포(鹿脯)가 다음이다. 】 두(豆) 여덟 개는 오른편에 있어 세 줄이 되는데, 왼편을 위로 한다. 【첫째 줄은 부추김치가 앞에 있고, 담해(醢醢)가 다음이며, 둘째 줄은 무우김치가 앞에 있고, 녹해(鹿醢)와 미나리김치가 다음이다. 세째 줄은 토해(兔醢)가 앞에 있고, 땃순김치[筍菹]와 어해(魚醢)가 다음이다. 】 보(簠)와 궤(簋)가 각각 둘인데, 변과 두 사이에 있으며, 보는 왼편에 있고, 궤는 오른편에 있다. 【보(簠)는 벼[稻]와 기장[粱]으로 채우는데, 기장이 벼 앞에 있고 궤(簋)는 서(黍)와 직(稷)으로 채우는데, 직이 서 앞에 있다. 】 작(爵)은 보와 궤 앞에 있다. 존소(尊所)를 신위(神位)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베풀고, 또 그 동남쪽에 관세(盥洗) 둘을 북향하여 베풀다. 【헌관(獻官)의 세(洗)는 동쪽에 있고, 집사(執事)의 세(洗)는 서쪽에 있다. 】 행사(行事)·집사관(執事官)이 각각 공복(公服)을 갖추고, 시각이 되면 알자(謁者)와 찬자(贊者)가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사배(四拜)하고 나서 제자리로 나아간다. 알자가 축(祝)과 집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찬자가 “사배(四拜)하라.”

고 하면 축 이하가 모두 사배하고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하였다.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면, 찬자가

南, 西向北上; 奠祝版於神位之右; 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 設祭器實饌具。 籩八在左, 爲三行右上; 【第一行, 形鹽在前, 魚次之。 第二行, 乾棗在前, 黃栗榛子次之。 第三行, 菱仁在前。 芡仁鹿脯次之(之)。】 豆八在右, 爲三行左上【第一行, 韭菹在前, 醢醢次之。 第二行, 菁菹在前, 鹿醢芹菹次之。 第三行, 兔醢在前, 筍菹魚醢次之。】 簠簋各二在籩豆間, 籩在左簋在右, 【簠實以稻粱, 粱在稻前。 簋實以黍稷, 稷在黍前。】 爵在籩簋前。 設尊所於神位東南, 北向, 又於其東南, 設盥洗二北向。 【獻官洗在東, 執事洗在西。】 行事執事官各具公服。 時至, 謁者贊者先就拜位, 北向四拜訖就位, 謁者引祝及執事者入就拜位北向。 立定, 贊者曰: “四拜。” 祝以下皆四拜, 詣盥洗位盥洗訖, 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位。 立定, 贊者曰: “四拜。” 獻官四拜, 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 贊搯笏盥手。 【盥手脫手不贊】 贊執笏,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 贊

	<p>“사배하라.”</p> <p>한다.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p> <p>“홀(笏)을 꽂으라.”</p> <p>고 찬(贊)하여, 손을 씻고 수건에 닦게 한다. 【손을 씻고 수건에 닦는 것은 찬(贊)하지 않는다. 】</p> <p>“홀을 잡으라.”</p> <p>고 찬(贊)하여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褙]를 들고 술을 따른다.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p> <p>“꿇어앉아 홀을 꽂으라.”</p> <p>찬(贊)한다. 그리고 나서</p> <p>“세 번 상향(上香)하라.”</p> <p>찬(贊)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p> <p>“홀을 잡고 면복(倮伏)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라.”</p> <p>찬(贊)한다. 축(祝)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p> <p>“면복(倮伏)하였다 일어나서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라.”</p> <p>찬(贊)한다. 찬자가</p> <p>“사배하라.”</p> <p>말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축 이하를 인도하여 배위에 나가 서면, 찬자가</p> <p>“사배하라.”</p> <p>말하여, 축 이하가 사배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찬자가 배위에 나</p>	<p>跪搢笏，贊三上香。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執笏俛伏與小退北向跪。祝就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與退復位。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出。謁者引祝以下就拜位。立定，贊者曰：“四拜。”祝以下四拜，謁者引出。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執事者徹饌〔撤饌〕。</p>
--	---	--

	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집사자가 찬(饌)을 거둔다.	
출처	내용	원문
<p>1. 世宗 113卷, 28年 (1446 丙寅 / 명 정통 (正統) 11年) 7月 19日 (乙酉) 3번째기사 사후토의</p>	<p>사후토의(謝后土儀)4068)</p> <p>“능(陵)에 흙 덮는 것이 끝나기를 기다려 집사자(執事者)가 현궁(玄宮)의 왼쪽에 땅을 소제하고 후토씨(后土氏)의 신위(神位)를 남향하여 설치하되, 돛자리는 왕골자리를 깐다. 헌관(獻官)의 자리를 신위(神位)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執事者)의 자리를 그 뒤에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상(上)으로 하고, 알자(謁者)와 찬자(贊者)의 자리를 헌관의 서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상(上)으로 하며, 축판(祝版)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놓고 향로와 향합과 초[燭]를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구(饌具)에 제수(祭需)를 담아 설치하고, 준소(尊所)를 신위(神位)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세(洗)는 그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여러 집사(執事)의 세(洗)는 또 그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p> <p>행사(行事)는 집사관(執事官)이 각기 공복(公服)을 갖추고, 시각이 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축(祝)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축(祝) 이하의 제관(祭官)이 네 번 절하고,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며, 헌관이 네 번 절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꽂고 손을 씻고 수건에 닦으라고 찬(贊)하며, 홀(笏)을 잡으라고 찬(贊)하고, 인도하여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사자가 보자기[幕]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서, 꿇어앉아 홀(笏)을 꽂고 세 번 상향(上香)하기를 찬(贊)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p>	<p>謝后土儀： 俟覆土既畢，執事者於玄宮之左除(他[地])，設后土氏神位南向，席以莞；設獻官位於神位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西向北上；謁者贊者位於獻官西南，西向北上；奠祝版於神位之右；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所於神位東南，北向；設洗於其東南，北向；諸執事洗，又於其東南北向。行事執事官，各具公服。時至，謁者贊者先就拜位北向四拜訖就位，謁者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北向。立定，贊者曰：“四拜。”祝以下四拜，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立定，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悅手，贊執笏，引詣尊所西向立，執事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三上香，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執笏俛伏興小退北向跪。祝就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復位。贊者曰：“四拜。”獻官</p>

	<p>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神位) 앞에 드린다.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게 한다. 축(祝)이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대축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가 제자리에 돌아가기를 찬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헌관이 네 번 절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축 이하의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축 이하의 제관이 네 번 절한다. 알자가 축을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와 찬자가 배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한다. 집사자가 제찬(祭饌)을 거두어 치우고, 축판(祝版)은 구덩이에 묻는다. 헌관【정3품.】, 축사(祝史) 1명, 알자 1명, 찬자 1명, 재랑(齋郎) 1명이다.【이상은 모두 참외관(參外官)이다.】.”</p> <p>하였다.</p>	<p>四拜，謁者引出。謁者引祝以下就拜位。立定，贊者曰：“四拜。”祝以下四拜，謁者引出。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執事者徹饌〔撤饌〕，祝版瘞於坎。獻官【正三品】祝史一、謁者一、贊者一、齋郎一。【已上竝參外】</p>
<p>2. 세종 113권, 28년 (1446 병인 / 명 정통 (正統) 11년) 7월 19 일(을유) 4번째기사 입주전의</p>	<p>입주전의(立主奠儀)4069</p> <p>“현궁(玄宮)을 닫는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전의(典儀)가 왕세자의 자리를 길유궁(吉帷宮) 유문(帷門) 안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대군과 여러 군의 자리를 그 뒤에 설치하며, 종친과 문무 관원의 자리를 유문(帷門) 밖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하며, 모두 관등(官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서로 마주 대하여 반수(班首)가 되게 한다.【종친은 매품(品)의 반두(班頭)마다 따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은 특별히 정1품의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전의(典儀)·통찬(通贊)·봉례랑(奉禮郎)의 자리를 문관 동북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탁자(卓子) 3개를 영좌(靈座)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붓[筆]·벼루[硯]·먹[墨]·관반(盥盤)·관이(盥匱)【향탕(香湯)을 갖춘다.】와 닦는 수건[拭巾]【백저포(白紵布)를 사용한다.】을 갖춘다.</p> <p>영의정과 여러 집사들이 관세(盥帨)하고, 이를 마치면 여러 집사들이 먼저 유</p>	<p>立主奠儀： 俟閉玄宮將畢，典儀設王世子位於吉帷宮帷門內之東，西向；大君諸君位於其後；設宗親文武官位於帷門外近南，文東武西，俱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宗親，每品班頭別設位；大君，特設位於正一品之前。】典儀通贊奉禮郎位於文官東北，西向。奉常寺官設卓三於靈座東南西向，具筆硯墨盥盤盥匱【具香湯】拭巾。【用白紵布】領議政及諸執事盥帨訖，諸執事先就帷門外以俟。【待領議政將入，先就位。】奉禮郎分引宗親文武官入就位，</p>

문(帷門) 밖에 나아가서 기다린다. 【영의정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먼저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부복하고, 대군과 여러 군이 따라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부복한다. 내시가 손을 씻고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가서 궤(匱)를 열고 상주(桑主)를 받들어 내어 탁자에 두고, 향탕(香湯)으로 신주를 씻고 수건으로 닦아서 탁자 위에 눕혀 둔다. 제주관(題主官)4070) 이 손을 씻고 올라가 탁자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서 전면(前面)에 쓰기를, ‘소헌 왕후(昭憲王后)’라 하고, 묵서(墨書)하기를 마치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간다. 내시가 우주(虞主)를 받들어 궤(匱) 속에 들여놓고 뚜껑을 덮어 영좌에 안치하고, 혼백함(魂帛函)은 그 뒤에 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와서 악차에 나아가고, 대군과 여러 군이 따라 나와서 막차에 나아간다. 유사(攸司)가 축판(祝版)을 영좌의 왼쪽에 놓고, 향로·향합과 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준(尊)을 유궁(帷宮)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며, 술잔 3개를 준소(尊所)에 두고, 제찬(祭饌)을 받들고 올라와서 영좌 앞에 드린다. 내시가 궤를 열고 우주(虞主)를 받들어 내어 좌석에 설치하고 청저건(靑紵巾)으로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도로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대군과 여러 군이 따라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서 부복한다. 봉례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봉례랑은 유문(帷門) 밖에서 멈춘다.】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세 번 상향(上香)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집사자가 술 석 잔을 따라서 술잔을 영의정에게 주면, 영의정이 술잔을 잡고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잡아 집사자에게 주어서 연달아 안(案)에 드린다. 영의정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꿇어앉고, 대축(大祝)이 영좌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영의정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유문(帷門) 밖에 나가면, 봉례랑이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왕세자가 곡하여

副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俯伏，大君諸君從入就位俯伏。內侍盥手，升詣靈座前，開匱捧出桑主，置於桌上，以香湯浴主，拭以巾，臥置桌上。題主官盥手，升詣卓前西向立，題前面云昭憲王后。墨書訖，俯伏興退。內侍捧虞主納于匱中加蓋，安于靈座，魂帛函置其後。副知通禮引王世子出就次，大君諸君從出就次，攸司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帷宮東南北向，置盞三於尊所，捧饌升奠于靈座前。內侍開匱，捧出虞主設於座，覆以靑紵巾，設几於後。副知通禮引王世子還入就位俯伏，大君諸君從入就位俯伏。奉禮郎引領議政【奉禮郎止於帷門外】詣靈座前北向跪，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酌酒三盞，以盞授領議政，領議政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連奠于案，領議政俯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領議政俯伏興平身，出帷門外，奉禮郎引還本位。王世子哭盡哀，大君諸君哭盡哀。通贊唱鞠躬再拜哭，宗親文武官鞠躬再拜哭盡哀。王世子哭止，大君諸君哭止。通贊唱

	<p>슬픔을 다하고, 대군과 여러 군이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통찬이 ‘국궁, 재배하고 곡하라.’ 창하면, 종친과 문무 관원이 몸을 굽혀 두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대군과 여러 군이 곡을 그친다. 통찬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평신하라.’ 창하면, 종친과 문무 관원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내시가 우주(虞主)를 받들어 궤(匱) 안에 들여놓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가서 악차에 나아가고, 대군과 여러 군이 따라 나가서 막차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유사(攸司)가 제찬(祭饌)을 거두어 치우고, 축판(祝版)은 구덩이에 묻는다. 제주관(題主官)【문관 3품.】, 대축(大祝)【문관 참외(文官參外).】, 집사(執事)【참외(參外).】 2명이다.” 하였다.</p>	<p>哭止興平身，宗親文武官哭止興平身，內侍捧虞主納于匱中。副知通禮引王世子出就次，大君諸君從出就次，奉禮郎分引宗親文武以次出。攸司徹饌，祝版瘞於坎。題主官【文官三品】大祝【文官參外】執事二。【參外】</p>
<p>3. 世宗 113卷, 28年 (1446 丙寅 / 명 정통 (正統) 11年) 7月 19日(乙酉) 6번째기사 안릉전의</p>	<p>안릉전의(安陵奠儀) “능(陵)에 흙 덮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봉례랑이 산릉사(山陵使)의 자리를 정자각(丁字閣)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執事)의 자리를 산릉사(山陵使)의 뒤에다가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알자(謁者)와 찬자(贊者)의 자리를 집사(執事) 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유사(攸司)가 축판(祝版)을 영좌(靈座)의 왼쪽에 놓고, 향로·향합과 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한다. 준(尊)을 지게문 밖의 뜰에 설치하고 술잔 3개를 준소(尊所)에 두며, 제찬(祭饌)을 받들고 올라와서 영좌 앞에 드린다. 산릉사와 여러 집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산릉사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찬자가 ‘국궁, 재배하고 곡하라.’ 창하면, 산릉사가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찬자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평신하라.’ 창하면, 산릉사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산릉사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세 번</p>	<p>安陵奠儀： 埃覆土既畢，奉禮郎設山陵使位於丁字閣東階東南，西向；設執事位於山陵使之後稍南，異位重行，俱西向北上；謁者贊者位於執事之南，西向。攸司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庭，置盞三於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山陵使及諸執事盥洗訖，謁者贊者及諸執事先入就位。謁者引山陵使入就位，贊者唱鞠躬再拜哭，山陵使鞠躬再拜哭盡哀。贊者唱哭止興平身，山陵使哭止興平身。謁者引山陵使，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贊跪三上香，山陵使跪三</p>

	<p>상향(上香)하기를 찬하면, 산릉사가 꿇어앉아 세 번 상향한다. 집사자가 향로를 안(案)에 드리고, 집사자가 술 석잔을 따라서 산릉사를 주면, 산릉사가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연달아 안(案)에 드린다. 알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앉기를 찬(贊)하고, 대축(大祝)이 영좌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전문(奠文)을 읽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국궁, 재배하고 곡하라.’ 창하면, 산릉사가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찬자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평신하라.’ 창하면, 산릉사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산릉사를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 이하의 제관(祭官)이 차례대로 나간다. 유사(攸司)가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축판(祝版)은 구덩이에 묻는다. 【묻는 구덩이를 북쪽 지방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정도로 판다.】.” 하였다.</p>	<p>上香，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酌酒三盞，以盞授山陵使，山陵使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連奠于案。謁者贊俯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奠文。訖，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贊者唱鞠躬再拜哭，山陵使鞠躬再拜哭盡哀。贊者唱哭止興平身，山陵使哭止興平身，謁者引出，謁者以下以次出。攸司徹禮饌，祝版瘞於坎。【開瘞坎於壬地，方深取足容物。】</p>
<p>4. 세종 113권, 28년 (1446 병인 / 명 정통 (正統) 11년) 7월 19 일(을유) 7번째기사 영릉의 조석 상식의</p>	<p>영릉(英陵)의 조석 상식의(朝夕上食儀) “매일 시각이 되면 능사(陵司)가 향로·향합과 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준(尊)을 지계문 밖에 동쪽 가까이 설치한다. 내시가 찬선(饌膳)이 고루 익었음을 알리면, 수릉관(守陵官)이 주방(廚房)에 나아가서 살펴보고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대군과 수릉관(守陵官)이 들어와 능실(陵室)의 동남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두 번 절한다. 내시는 지계문 안에 들어와서 서향하여 부복하고 꿇어앉고, 능사(陵司)는 지계문 밖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부복하고 꿇어앉는다. 내수(內豎)가 빈 안(案) 2개를 들고 섬돌 위에 나아가면, 능사(陵司)가 전해 받들고 지계문에 들어와서 내시에게 준다. 내시가 전해 받들어 영좌 앞에 둔다. 다음에 시저접(匙筋楪)을 받들고, 다음에는 반(槃)에 구접(九楪)을 담아 정안(正案)에 늘어놓고, 다음은 선(膳)을 올린다. 대군이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지계문을 들어가 동향하여 부복하고 일어나서,</p>	<p>英陵朝夕上食儀： 每日時至，陵司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近東。內侍告饌膳調熟，守陵官詣廚省視，實饌具畢。大君及守陵官入就陵室東南，西向再拜。內侍入戶內西向俯伏跪，陵司詣戶外西向俯伏跪，內豎舉空案二就階上，陵司傳捧入戶，以授內侍，內侍傳捧，置于靈座前，次捧匙筋楪，次以槃盛九楪，列置于正案，次進膳。大君升自東階入戶，東向俯伏(興) [興]，詣靈座前北向俯伏跪，陵司一人捧香合，一人捧</p>

	<p>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부복하고 꿇어앉는다. 능사(陵司) 1인은 향합을 받들고, 1인은 향로를 받들며, 대군이 세 번 상향(上香)하면, 능사(陵司)가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능사 1인은 술을 따르고, 1인은 술잔의 술을 대군에게 주어, 대군이 술잔을 받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내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대군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수릉관(守陵官)이 올라가서 영좌 앞에 나아가 술잔을 드리기를 초헌(初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수릉관이 또 올라가서 영좌 앞에 나아가 술잔을 드리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내시가 제찬(祭饌)을 거두어 치우고, 대군과 수릉관이 두 번 절하고 나온다. 능사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촛불을 끄고 지게문을 닫고서 내려온다.”</p> <p>하였다.</p>	<p>香爐，大君三上香，陵司奠爐于案。陵司一人酌酒，一人以盞酒授大君，大君受盞獻盞，以盞授內侍，奠于靈座前，大君俯伏興降復位。守陵官升詣靈座前獻盞如初獻儀，降復位。守陵官又升詣靈座前獻盞如亞獻儀，降復位。內侍徹饌，大君及守陵官再拜出。陵司帥其屬滅燭，闔戶以降。</p>
<p>5. 世宗 113卷, 28年 (1446 丙寅 / 명 정통 (正統) 11年) 7月 19日(乙酉) 8번째기사 주다의</p>	<p>주다의(晝茶儀)</p> <p>“오정(午正)에 시각이 되면, 능사(陵司)가 향로·향합과 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다병(茶瓶)과 잔[鍾]을 받들며 준소(尊所)의 지게문 밖에 두고 서향하여 부복하고 꿇어앉는다. 내시가 지게문 안에 들어가서 서향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세 번 상향(上香)하고 조금 뒤로 물러가서 꿇어앉는다. 내수(內豎)가 빈 안[空案] 1개를 들고 섬들 위에 나아가면, 능사가 전해 받들고 지게문에 들어와서 내시에게 준다. 내시가 전해 받들며 영좌 앞에 둔다. 내시가 반(槃)에 두 가지 색[兩色]의 떡과 각색(各色) 과일과 청밀(淸蜜)·한채(漢菜) 각기 한 그릇과 저접(筋楮)을 담아서 안(案)에 둔다. 능사(陵司)가 잔[鍾]에 차[茶]를 따라서 내시에게 주면, 내시가 전해 받들며 반(槃)에 두고, 모두 지게문 밖에 나와서 부복하기를 일식경(一食頃)과 같이 한다. 내시가 도로 들어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제찬(祭饌)을 거두어 치운다.”</p>	<p>晝茶儀： 午正時至，陵司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捧茶瓶及鍾，置于尊所，戶外西向俯伏跪。內侍入戶內西向俯伏興，詣靈座前俯伏跪三上香，小退跪。內豎舉空案一就階上，陵司傳捧入戶，以授內侍，內侍傳捧，置于靈座前。內侍以槃盛兩色餅各色實菓淸蜜漢菜各一器筋楮，置于案。陵司以鍾酌茶，以授內侍，內侍傳捧，置于槃，俱出戶外俯伏。如一食頃，內侍還入，俯伏跪徹饌。</p>

	<p>하였다.</p>	
<p>6. 세종 113권, 28년 (1446 병인 / 명 정통 (正統) 11년) 7월 19 일(을유) 9번째기사 휘덕전의 조석 상식의</p>	<p>휘덕전(輝德殿)의 조석 상식의(朝夕上食儀) “종친과 부마(駙馬)가 윤번(輪番)으로 직숙(直宿)하여 헌관(獻官)이 된다. 매일 시각이 되면 전사(殿司)가 향로·향합과 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준(尊)을 지계문 밖에 동쪽 가까이 설치한다. 장선 내시(掌膳內侍)가 찬선(饌膳)이 고루 익었음을 고(告)하면, 헌관(獻官)이 주방(廚房)에 나아가서 살펴보고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들어와서 전정(殿庭)의 동쪽 행랑(行廊)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두 번 절한다. 내시 1인이 지계문 밖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장(帳)을 걷고 우주궤(虞主匱)의 위에 덮힌 보(袱)를 걷어치우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꿇어앉는다. 전사(殿司)와 내직 다방 별감(內直茶房別監)이 지계문 밖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부복하여 꿇어앉고, 내수(內豎)가 빈 안(案) 2개를 들고 섬들 위에 나아가면, 전사 내직(殿司內直)이 전해 받들어 지계문에 들어와서 내시에게 준다. 내시가 전해 받들어 영좌 앞에 둔다. 다음에 시저접(匙筋楮)을 받들고, 다음에 반(槃)에 구접(九楮)을 담아 정안(正案)에 벌려 놓고 제찬(祭饌)을 올린다. 이를 마치면 헌관이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지계문에 들어와 서향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부복하고 꿇어앉는다. 내직(內直) 1인은 향합을 받들고, 전사(殿司) 1인은 향로를 받들어, 헌관이 세 번 상향(上香)하고, 전사(殿司)가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다방(茶房) 1인은 술을 따르고, 전사(殿司) 1인은 술잔에 술을 받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받아 술잔을 내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헌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헌(亞獻)과 종헌(終獻)도 같다. 내시가 제찬(祭饌)을 거두어 치우고는 곧 물러간다. 주다의(晝茶儀)는 영릉(英陵)의 주다의(晝茶儀)와 같다.”</p> <p>하였다.</p>	<p>輝德殿朝夕上食儀： 宗親駙馬輪番直宿爲獻官。每日時至，殿司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近東。掌膳內侍告饌膳調〔熟〕，獻官詣廚省視，實饌俱畢，入就殿庭東廊西向再拜。內侍一人詣戶外西向俯伏興，入詣靈座前北向俯伏興，捲帳徹虞主匱上蓋袱，俯伏興小退跪。殿司及內直茶房別監詣戶外西向俯伏跪，內豎舉空案二就階上，殿司內直傳捧入戶，以授內侍，內侍傳捧，置于靈座前，次捧匙筋楮，次以槃盛九楮，列置于正案。進饌訖，獻官升自東階入戶，西向俯伏興，詣靈座前北向俯伏跪，內直一人捧香合，殿司一人捧香爐，獻官三上香，殿司奠爐于案。茶房一人酌酒，殿司一人以盞受酒授獻官，獻官受盞，以盞授內侍，奠于靈座前，獻官俯伏興降復位。亞獻終獻同。內侍撤饌乃退。晝茶儀，與英陵晝茶儀同。</p>
<p>7. 世宗 113卷, 28年</p>	<p>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正文)에 의거하여 영릉(英陵)의 기년내 별제(基年內</p>	<p>丙戌/議政府據禮曹呈，啓英陵基年內</p>

(1446 丙寅 / 명 정통 (正統) 11年) 7月 20日(丙戌)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영릉의 기년내 별제에 왕세자가 행례한 의식을 아뢰다

別祭)에 왕세자가 행례(行禮)하는 의식(儀式)을 아뢰기를,
 “기일 전에 왕세자는 재계(齋戒)를 반드시 3일 동안 하고,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 및 시종관(侍從官)은 모두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유숙한다. 충호위(忠扈衛)에서 악차(輦次)를 능소(陵所) 가까운 땅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능사(陵司)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능실(陵室)을 소제한다. 그날에 찬자(贊者)가 왕세자의 자리를 능실(陵室)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의 자리를 왕세자의 자리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상(上)으로 하고, 감찰(監察)의 자리를 아헌관·종헌관의 자리 서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찬자(贊者)·알자(謁者)·찬인(贊引)의 자리를 집사의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행사(行事)하기 전에 능사(陵司)가 능실(陵室)을 소제하고 영좌(靈座)를 설치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사관(典祀官)과 능사(陵司)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영좌의 오른쪽에 놓고, 【점(坵)이 있다.】 향로·향합과 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하며, 다음에 제기(祭器)를 설치하고, 제찬(祭饌)을 찬구(饌具)에 담으며,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술잔 3개를 준소(尊所)에 설치한다. 그날 미명(未明) 1각(刻)에 왕세자가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화(白靴)를 갖추고 궁(宮)에서 나와 연(輦)을 타는데, 인도하고 시종(侍從)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왕세자가 능소(陵所)에 이르러 연(輦)에 내리면, 좌중호(左中護)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들어가는데, 시위(侍衛)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시각이 되면 아헌관 이하와 여러 집사들이 쇠복(衰服)을 갖추고 관세(盥洗)한다. 이를 마치면 찬자·알자·찬인이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해서 네 번 절하게 한다.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해서 서게 한다. 찬자

別祭王世子行禮儀：
 前期，王世子齋必三日，獻官諸執事及侍從官并淸齋一宿。 忠扈衛設次於陵所近地，西向。 陵司率其屬，掃除陵室。 其日，贊者設王世子位於陵室東南，西向；亞終獻官位於王世子位之後近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西向北上；監察位於亞終獻官西南，北向；贊者謁者贊引位於執事之南，俱西向北上。 未行事前，陵司掃除陵室，設靈座如常。 典祀官陵司各帥其屬入，奠祝板於靈座之右，【有坵】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置盞三於尊所。 其日未明一刻，王世子具白衣烏紗帽黑角帶白靴，出宮乘輦，導從如儀。 王世子至陵所降輦，左中護引王世子入次，侍衛如常。 時至，亞獻官以下及諸執事具衰服盥悅訖，贊者謁者贊引先就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 贊引引監察及諸執事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 立定，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監察及諸執事鞠躬四拜興平身。 贊引引監察以下各就位，謁者引亞終獻官入就位。 副知通禮詣王世子次前跪，贊請行禮，

가 ‘국궁, 사배하고 일어나서 평신하라.’ 창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각기 자리로 나아가고,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왕세자의 악차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찬청(贊請)하면, 왕세자가 쇠복(衰服)을 갖추고 관세(盥洗)한다. 이를 마치면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하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贊請)하여,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과 종헌관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준(尊)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고, 종관(從官)이 술잔으로써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청한다. 종관(終官) 1인은 향함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종관 1인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드린다. 부지통례가 세 번 상향(上香)하기를 찬청하고, 종관이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향을 올리는 것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향료를 드리는 것은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술잔을 올리고 술잔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종관이 술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부지통례가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기를 찬청하여, 술잔을 종관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찬청한다. 대축(大祝)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준(尊)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고,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贊)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王世子具衰服盥帨訖，副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西向立。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亞終獻官同。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從官以盞受酒。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靈座前北向立，贊請跪，從官一人捧香合跪進，從官一人捧香爐跪進，副知通禮贊請三上香，從官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進盞奠盞，準此。】從官捧盞跪進，副知通禮贊請執盞獻盞，以盞授從官，奠于靈座前，副知通禮贊請俯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引降復位。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興(事) [平] 身，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訖，引降復位。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亞終獻官同。副知通禮引王世子還次釋衰服，侍衛如

	<p>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贊)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하고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과 종헌관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와서 최복(衰服)을 벗는데, 시위(侍衛)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에 돌아온다.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자·알자·찬인이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典祀官)과 능사(陵司)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축판(祝版)을 구덩이에 묻는다. 왕세자가 연(輦)을 타고 환궁(還宮)하는데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였다.</p>	<p>常。謁者引亞終獻官出，贊引引監察及諸執事，俱復拜位。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監察及詣〔諸〕執事鞠躬四拜興平身，贊引引監察以下出。贊者謁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陵司各帥其屬徹禮饌，祝版瘞於坎。王世子乘輦還宮如來儀。</p>
<p>8. 세종 113권, 28년 (1446 병인 / 명 정통 (正統) 11년) 7월 24 일(경인) 1번째기사 졸곡이 지난 후에 대궐에서 고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지하였다</p>	<p>승정원에 전지(傳旨)하기를, “졸곡(卒哭)을 지난 후에 대궐 안에는 고기를 사용하니 백관(百官)들로 또한 마땅히 고기를 먹어야 할 것인데, 전지(傳旨)를 내려야 되겠는가. 예조로 하여금 이를 알리게 하겠는가.” 하니, 도승지 황수신(黃守身) 등이 아뢰기를, “대궐 안에서 고기를 사용한다면 서울과 지방에서는 자연히 이를 알게 될 것이오니, 전지하거나 알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p>	<p>庚寅/傳旨承政院： 卒哭後闕內用肉，百官亦當食肉，將降傳旨乎？令禮曹知會乎？ 都承旨黃守身等啓曰：“闕內用肉則京外自然知之矣，不必傳旨與知會。”</p>
<p>9. 世宗 113卷, 28年 (1446 丙寅 / 명 정통 (正統) 11年) 8月 3日</p>	<p>우제(虞祭)와 졸곡제(卒哭祭)의 의식 “기일 전에 집례(執禮)가 왕세자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의 자리를 왕세자의 자리 뒤에 남</p>	<p>虞卒哭祭儀： 前期，執禮設王世子位於東階東南，西向；亞終獻官位於王世子位之後近南，</p>

(戊戌) 3번째기사
우제와 졸곡제의 의식

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집사자(執事者)의 자리를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되, 자리를 다르게 하고 겹줄로 하며,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집례(執禮)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를 남쪽에 조금 뒤로 물려서 있게 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만약 내정(內庭)이 협착하면 찬자(贊者)의 자리는 외정(外庭) 동계(東階)의 서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한다.】 종친과 문무 백관(百官)의 자리는 외정(外庭)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한다.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고, 모두 관등(官等)마다 자리를 다르게 하고 겹줄로 하며, 북향하게 하고 서로 마주 대하여 반수(班首)가 되게 한다. 감찰의 자리 2개를 문·무반(文武班) 뒤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기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祝版)을 영좌(靈座)의 왼쪽에 드린다. 【점(坫)이 있다. 졸곡(卒哭)에는 오른쪽으로 한다.】 폐백 광주리[幣篚]를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를 설치하고 제찬(祭饌)을 찬구(饌具)에 담는다.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가이(罍彝) 1개, 【명수(明水)를 채운다.】 황이(黃彝) 1개, 【울창(鬱鬯)을 채운다.】 착준(著尊) 2개, 【한 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한 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 호준(壺尊) 2개로 【한 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한 개는 양제(盎齊)를 채운다.】 석 줄로 하고, 【첫째 줄은 가이(罍彝), 둘째 줄은 착준(著尊), 세째 줄은 호준(壺尊)이다.】 모두 구기[勺]와 보자기[罍]를 올려놓고 북향하게 하며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 【무릇 준(尊)에는 명수(明水)를 채워서 상(上)으로 하는데, 우제(虞祭)에는 명수(明水)가 없다.】 찬반(瓚盤) 1개를 준소(尊所)에 설치하고, 세(洗)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는데, 반이(盤匱)가 있다.】 뇌(鼎)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구기[勺]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세(洗)의 서남쪽

西向北上; 執事者位於其後稍南, 異位重行, 俱西向北上; 設執禮位於東階之西, 西向; 謁者贊者贊引在南差退, 俱西向北上; 【若內庭窄(狹) [狹], 則設贊者位於外庭東階之西西向。】設宗親及文武百官位於外庭, 文東武西, 俱每等異位, 重行北向相對爲首; 設監察位二於文武班後, 北向。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 奠祝版於靈座之左, 【有坫。卒哭則云右。】陳幣篚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次設祭器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罍彝一【實明水】黃彝一【實鬱鬯】著尊二【一實明水, 一實醴齊。】壺尊二【一實明水, 一實盎齊。】爲三行, 【第一行罍彝, 第二行著尊。第三行壺尊。】皆加勺罍, 北向西上; 【凡尊實明水爲上, 虞則無明水。】設瓚盤一於尊所; 設洗於東階東南, 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 有盤匱。】鼎在洗東加勺, 篚在洗西南肆, 實以巾; 【若爵洗之則又實以爵二】設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 北向。時至,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實饌具畢。諸享官及宗親百官, 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

에 있는데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광주리이면 또 작(爵) 2개를 담아 놓는다.】 집사(執事)의 관세(盥洗)를 아헌관·종헌관 세(洗)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祭饌)을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여러 향관(享官)과 종친·백관들이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가고, 집례(執禮)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곁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해서 네 번 절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궁위령(宮圍令)·축사(祝史)·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해서 서게 한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하면, 전사관 이하의 제관(祭官)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수건을 닦는다.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宮圍令)이 궤(匱)를 열고 우주(虞主)를 받들어 내어서 영좌에 설치하고 청저건(靑紵巾)으로 싸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찬(瓚)을 씻고 찬(瓚)을 수건에 닦으며, 작(爵)을 씻고 작(爵)을 수건에 닦아서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받들어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집(坫) 위에 둔다. 부지통례가 재실(齋室) 앞에 나아가서 제1우례(第一虞禮)를 행하기를 찬한다. 【제2우(第二虞)에는 제1우를 고쳐서 제2우라 한다. 제3우로부터 제7우까지는 이에 의방하고, 졸곡(卒哭)에는 다만 행례(行禮)라고만 한다.】 찬(贊)하기를 마치면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에서 나와 들어가 전정(殿庭)이 자리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종관(從官)과 익위(翊衛)가 따라 들어간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하고 곡하기를 찬청

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各就位。贊引引典祀官大祝宮闈令祝史齋郎，入就殿庭拜位，北向西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典祀官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悅訖，各就位。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宮闈令開匱，捧出虞主，設於座，覆以靑紵巾，設几於後。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筐，捧詣尊所，置於坫上。副知通禮進齋室前，贊請行第一虞禮。【第二虞則改第一虞爲第二。自第三虞第七虞倣此。卒哭則只云行禮。】贊訖，引王世子出齋室，入就殿庭位西向立，【從官翊衛從入】執禮曰：“四拜哭。”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哭，王世子鞠躬四拜哭盡哀。亞獻官終獻官及宗親百官同。【贊者亦唱，先拜者不拜。】副知通禮贊請哭止興平身，王世子哭止興平身。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贊者亦唱】副知通禮引王世子詣盥洗位北向立，翊衛一人跪取匱興沃水，翊衛一人跪取盤承水，王世子盥手。翊衛跪取

(贊請)하여,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아헌관·중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부지통례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贊請)하여,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중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익위(翊衛) 1인은 꿇어앉아 대야[匱]를 가지고 일어나 물을 붓고, 익위(翊衛) 1인은 꿇어앉아 반(盤)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왕세자가 손을 씻으면, 익위가 꿇어앉아 광주리에서 수건을 집어서 바친다. 왕세자가 손을 닦고 나면, 익위가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 놓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준(尊)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종관(從官)이 찬(瓚)으로써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청(贊請)한다. 종관(從官) 1인은 향(香)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종관 1인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드린다. 부지통례가 세 번 상향(上香)하기를 찬청하고, 종관이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종관이 찬(瓚)을 꿇어앉아 올리면, 부지통례가 찬(瓚)을 잡아 땅에 술을 적시기를 찬청한다. 이를 마치면, 찬(瓚)을 종관에게 주고, 종관이 받아서 대축(大祝)에게 준다. 종관 1인이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 올리고, 부지통례가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기를 찬청하여, 폐백을 종관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찬(瓚)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폐백을 올리는 일은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게 하고, 향로를 드리고 찬(瓚)을 받고 폐백을 드리는 일은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하게 한다. 작(爵)을 올리고 작(爵)을 드리는 일도 이에 준하게 한다.】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준소

巾於篚以進，王世子悅手訖，翊衛受巾奠於篚。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鬯酌鬱鬯，從官以瓚受酒。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靈座前北向立，贊請跪，從官一人捧香爐跪進，副知通禮贊請三上香，從官奠爐于案。從官以瓚跪進，副知通禮贊請執瓚灌地訖，以瓚授從官，從官受以授大祝，從官一人以幣篚跪進，副知通禮贊請執幣獻幣，以幣授從官，奠于靈座前。【凡進瓚進香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引降復位。少頃，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鬯酌醴齋，從官以酌受酒。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靈座前北向立，贊請跪，從官以爵跪進，副知通禮贊請執爵獻爵，以爵授從官，奠于靈座前，副知通禮贊請俯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卒哭則東向】跪[讀]祝文訖，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引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悅手訖，謁者引亞獻官

(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준(尊)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예제(醴齊)를 따르면, 종관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청하면, 종관이 술잔을 꿇어앉아서 올린다. 부지통례가 왕세자에게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기를 찬청하여, 술잔을 종관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찬청하고, 대축이 영좌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졸곡(卒哭)에는 동향한다.】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준(尊)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양제(盎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贊)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받아서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贊)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하고 곡하기를 찬청하여,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아헌관·종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통례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종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로 돌아가고,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

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盎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受，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禮曰：“四拜哭。”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哭，王世子鞠躬四拜哭盡哀。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副知通禮贊請哭止興平身，王世子哭止興平身。亞終獻官宗親百官同。副知通禮引王世子還齋室，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奉禮郎分引宗親及文武百官以次出。贊引引典祀官以下諸執事，俱復拜位，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典祀官以下諸執事鞠躬四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宮闈令納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宮闈令捧魂帛埋於屏處潔地，【藏於土藤箱，外裹以紅綃紵。】大祝捧祝幣瘞於坎。【開瘞坎於壬地，方深取足容物。】

	<p>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이 전사관 이하의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하면 전사관 이하의 여러 집사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궁위령(宮闈令)이 우주(虞主)를 들여넣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殿司)는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궁위령은 혼백(魂魄)을 받들어 구석진 곳[屏處]의 깨끗한 땅에 묻고, 【토등상(土藤箱)에 간수하여 홍초보(紅綃袱)로써 겹을 싼다. 제2우(第二虞) 이후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 대축은 축문과 폐백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묻는 구덩이를 북방의 땅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정도로 한다.】.”</p> <p>하였다.</p>	
<p>10. 세종 114권, 28년 (1446 병인 / 명 정통 (正統) 11년) 10월 1일(을미) 1번째기사 휘덕전의 기년내의 삭망제와 유명일의 별제에 왕세자가 행하는 의식. 대군과 여러 군의 행례하는 의식</p>	<p>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휘덕전(輝德殿)의 기년내(期年內)의 삭망제(朔望祭)와 유명일(有名日)의 별제(別祭)에 왕세자가 행례(行禮)하는 의식에 대하여 아뢰기를,</p> <p>“향례(享禮) 전 2일에 첨사원(詹事院)에서 1일간을 재계(齋戒)하기를 청하면,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 및 종관(從官) 중에서 마땅히 따라 오를 사람은 향소(享所)에서 1일간을 치재(致齋)하고, 종친(宗親)·문무 백관(文武百官)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자는 각기 청재(淸齋)하여 하룻밤을 유숙한다. 기일 전 1일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한다. 왕세자가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화(白靴)를 갖추고 궁(宮)에서 나와 연(輦)을 타는데, 인도하고 시종(侍從)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전문(殿門) 밖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리면, 좌중호(左中護)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임시로 재실(齋室)에 나아가는데, 시위(侍衛)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집례(執禮)가 왕세자의 자리를 동쪽 행랑(行</p>	<p>乙未朔/議政府據禮曹呈啓輝德殿期年內朔望祭及有名日別祭王世子行禮儀：前享二日，詹事院請齋戒一日，獻官諸執事及從官應從升者，致齋一日於享所，宗親文武百官及諸衛之屬守衛殿門者，各淸齋一宿。前一日，殿司率其屬，掃除殿之內外，王世子具白衣烏紗帽黑角帶白靴，出宮乘輦，導從如儀，至殿門外降輦。左中護引王世子，權就齋室，侍衛如常。執禮設王世子位於東廊，西向；設亞獻官終獻官位於王世子位之後近南，西向北上；設內大君諸君陪祭位於神門之東南廊，西上北</p>

廊)에 서향(西向)하여 설치하고,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의 자리를 왕세자의 자리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안에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의 배제(陪祭)하는 자리를 신문(神門)의 동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서쪽을 상(上)으로 하고 북향하게 한다. 집사자(執事者)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서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동쪽을 상(上)으로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한다. 【서리(書吏)는 뒤에서 모신다.】 집례(執禮)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종친과 문무 백관들의 자리를 외정(外庭)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며, 모두 매 품등(品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고 겹줄로 하여 북향하게 하고, 서로 마주 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종친은 매 품(品)마다 반열 머리[班頭]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大君)은 특별히 정1품의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감찰(監察)의 자리 둘을 문·무관의 반열 뒤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서리(書吏)가 각기 그 뒤에서 모신다.】

향례일(享禮日) 행사(行事)하기 전에 궁위령(宮闈令)이 영악(靈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놓고, 【점(點)이 있다.】 향로·향합·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제찬(祭饌)을 담은 찬구(饌具)를 설치하고,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술잔 3개를 준소(尊所)에 둔다. 향례일 축시(丑時) 전 5각(刻)에 【곧 3경(更) 3점(點)인데, 행사(行事)는 축시(丑時) 1각(刻)을 사용한다.】 궁위령이 영악(靈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祭饌)을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향사 전 2각(刻)에 종친과 백관이 최복(衰服)을 갖추고 모두 문밖의 자리[門外位]에 나아간다. 행사 전 1각(刻)에 아헌관·

向; 設執事者位於神門之西南廊, 北向東上; 監察位於其西; 【書吏陪後】設執禮位於東階之西, 西向; 謁者贊者贊引在南差退, 俱西向北上; 設宗親及文武百官位於外庭, 文東武西, 俱每等異位, 重行北向, 相對爲首; 【宗親, 每品班頭別設位; 大君, 特設位於正一品之前.】設監察位二於文武班後, 北向. 【書吏各陪其後】享日未行事前, 宮闈令整拂靈幄,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奠祝版於靈座之右, 【有玷】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次設祭器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 置盞三於尊所. 享日丑前五刻, 【卽三更三點, 行事用丑時一刻.】宮闈令整拂靈幄.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實饌具畢. 前二刻, 宗親及百官具衰服, 皆就門外位. 前一刻, 亞終獻官及諸執事具衰服盥悅, 皆就殿門外. 執禮帥謁者贊者贊引, 先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 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 立定, 執禮曰: “四拜.”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唱.】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 贊引引監察

종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최복을 갖추어 입고 관세(盥帨)하고 모두 전문(殿門) 밖으로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곁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상(上)으로 하여 사배(四拜)한다.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곁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하여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 창하면, 【무릇 집례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전창(傳唱)한다.】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의 제관을 인도하여 각기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郎)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이 궤(匱)를 열고 우주(虞主)를 만들어 내어서 영좌에 놓고, 청저건(靑苧巾)으로 이를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재실(齋室)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찬청(贊請)하면, 왕세자가 최복을 갖추고 관세(盥帨)한다. 이를 마치면,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종관(從官)과 익위(翊衛)가 따라 들어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찬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종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종관(從官)과 익위(翊衛)가 따라 오른다.】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한다. 준(尊)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면, 종관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청한다. 종관 1인은 향함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고, 종관 1인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부지통례가 <왕세자에게> 세 번 상향

以下各就位，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 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 宮闈令開匱，奉出虞主，設於座，覆以靑苧巾，設几於後。 副知通禮進齊室前跪，贊請行禮，王世子具衰服盥帨訖，副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西向立， 【從官翊衛從入】執禮曰：“四拜。” 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 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 【贊者亦唱，先拜者不拜】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從官翊衛從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從官以盞受酒。 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靈座前北向立，贊請跪，從官一人奉香合跪進，從官一人奉香爐跪進，副知通禮贊請三上香，從官奠爐于案。 【進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進盞奠盞，準此。】從官奉盞跪進，副知通禮贊請執盞獻盞，以盞授從官，奠于靈座前，副知通禮贊請俯伏興少退北向跪。 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引降復位。 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 謁者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

(上香)하기를 찬청하고, 종관이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향을 올리는 것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향로를 드리는 것은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술잔을 올리고 술잔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종관이 술잔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부지통례가 <왕세자에게>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기를 찬청하여, 술잔을 종관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찬청하고, 대축(大祝)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존(尊)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든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贊)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平身)하기를 찬(贊)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執禮)가 ‘사배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찬청(贊請)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종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한다.】 부지통례가 꿇어앉아 ‘예(禮)를 마쳤다.’고 아뢰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로 돌아와서 쇠복(衰服)을 벗게 하는데, 시위(侍衛)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執事者以盞授亞獻官， 亞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靈座前， 謁者贊俯伏興平身， 引降復位。 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訖， 引降復位。 執禮曰：“四拜。” 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 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 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 【贊者亦唱】 副知通禮跪白禮畢， 引王世子還齋室， 釋衰服， 侍衛如常。 謁者引亞終獻官出， 奉禮郎分引宗親及文武百官以次出。 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 俱復拜位， 執禮曰：“四拜。”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 贊引以次引出。 宮闈令納虞主如儀。 執禮帥謁者贊者贊引， 就拜位四拜而出。 典祀官殿司各率其屬， 徹禮饌， 大祝捧祝(飯) [版] 瘞於坎。 王世子乘輦還宮如來儀。 大君諸君行禮儀： 獻官諸執事致齋一日於享所， 宗親文武百官及守衛殿門者各清齋一宿。 前一日， 殿司率其屬， 掃除殿之內外。 執禮設初獻官亞終獻官位於東廊近南， 西向北上； 設內大君諸君陪祭位於神門之東南廊西上； 設執事者位於神門之西南

창하면, 감찰 이하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궁위령이 우주(虞主)를 들여넣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대축(大祝)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왕세자가 연(輦)을 타고 환궁(還宮)하는데,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고, 대군과 여러 군의 행례(行禮)하는 의식은,
“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향소(享所)에서 1일 동안 치재(致齋)하고, 종친·문무백관과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사람이 각기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유숙한다. 하루 전에 전사(殿司)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한다. 집례가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의 자리를 동쪽 행랑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안에 대군과 여러 군의 배제(陪祭)하는 자리를 신문(神門)의 동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서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동쪽을 상(上)으로 한다. 감찰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하고, 집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한다.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종친과 문무 백관들의 자리를 외정(外庭)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고,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며, 서로 마주 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문·무관의 반열 뒤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향례일(享禮日) 행사(行事)하기 전에 궁위령이 영악(靈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영좌의 오른쪽에 놓고, 향로·향합·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제찬(祭饌)을 담은 찬구(饌具)를 설치하고, 준(尊)을 지제문 밖의 왼쪽에 설치

廊, 北向東上; 監察位於其西; 設執禮位於東階之西, 西(句) [向]; 謁者贊者贊引在南差退, 俱西向北上; 設宗親及文武百官位於外庭, 文東武西, 俱每等異位, 重行北向, 相對爲首; 設監察位二於文武班後, 北向。 享日未行事前, 宮闈令整拂靈幄。 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 奠祝版於靈座之右,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次設祭器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 置盞三於尊所。 享日丑前五刻, 宮闈令整拂靈幄。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實饌具畢。 前二刻, 宗親及百官具衰服, 皆就門外位。 前一刻, 初獻官以下及諸執事具衰服盥洗, 皆就殿門外。 執禮帥謁者贊者贊引, 先就殿庭拜位, 北向西上四拜訖就位。 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 入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 立定, 執禮曰: “四拜。”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 贊引引監察以下各就位, 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 宮闈令開匱, 捧出虞主, 設於座, 覆以青苧巾, 設几於後。 謁者引初獻官亞獻官終獻官入就位, 執禮曰: “四拜。” 贊者唱鞠躬四拜興平

하고 술잔 3개를 존소(尊所)에 둔다. 향례일(享禮日) 축시(丑時) 전 5각(刻)에 궁위령이 영악(靈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祭饌)을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행사 전 2각(刻)에 종친과 백관들이 최복(衰服)을 갖추고 모두 문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행사 전 1각(刻)에 초헌관 이하의 제관(祭官)과 여러 집사가 최복을 갖추고 관세(盥洗)하고 모두 전문(殿門) 밖으로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인도하여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쪽을 상(上)으로 하여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시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하여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唱)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의 제관을 인도하여 각기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이 궤(匱)를 열고 우주(虞主)를 받들어 내어 영좌에 놓고 청저건(靑苧巾)으로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알자가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하면, 초헌관 이하의 제관과 종친·백관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존(尊)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贊)한다. 집사자 1인은 향합을, 집사자 1인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세 번 상향(上香)하기를 찬(贊)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집사자가 술잔을 초헌관에 주면, 초헌관이 술잔을 잡고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부복

身, 初獻官以下及宗親百官鞠躬四拜興平身。 謁者引初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以盞受酒。 謁者引初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 執事者二人捧香合, 執事者一人捧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執事者以盞授初獻官, 初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靈座前, 謁者贊俯伏興少退北向跪。 大祝進靈座之右, 東向跪讀祝文訖, 謁者贊俯伏興平身, 引降復位。 謁者引亞獻官, 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以盞受酒。 謁者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 執事者以盞授亞獻官, 亞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靈座前。 謁者贊俯伏興平身, 引降復位。 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訖, 引降復位。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初獻官以下及宗親百官鞠躬四拜興平身。 謁者引初獻官以下出, 奉禮郎分引宗親及文武百官以次出。 贊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 俱復拜位, 執禮曰: “四拜。”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 贊引以次引出。 宮闈令納虞主如儀。 執禮

	<p>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찬(贊)하고, 대축(大祝)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초헌관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존(尊)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하면, 초헌관 이하의 제관과 종친·백관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초헌관 이하의 제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궁위령이 우주(虞主)를 들여넣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대축(大祝)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大祝捧祝版瘞於坎。</p>
<p>11. 世宗 114卷, 28年 (1446 丙寅 / 명 정통</p>	<p>세자가 동절 향례(冬節享禮)를 휘덕전(輝德殿)에 지냈다. 휘덕전(輝德殿)의 기년내(期年內)의 사시 대향(四時大享)과 납향(臘享)에 왕세자가 행례(行禮)하는</p>	<p>丁酉/世子行冬享于輝德殿。輝德殿期年內四時大享及臘王世子行禮儀：</p>

(正統) 11年) 10月 3日(丁酉) 1번째기사 세자가 동절 향례를 휘덕전에서 지내다.

의식은,
 “향례(享禮) 전 4일에 첨사원(詹事院)에서 3일 동안 재계(齋戒)하기를 청하면, 헌관과 여러 집사들과 종관(從官) 중에서 마땅히 따라 행사할 사람은 모두 본사(本司)에서 2일 동안 치재(致齋)하고, 향소(享所)에서 1일 동안 치재(致齋)한다. 종친·문무 백관과 여러 위(衛) 소속의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사람은 각기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유숙한다. 행사 전 1일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한다. 왕세자가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화(白靴)를 갖추고 궁에서 나와 연(輦)을 타는데, 인도하고 시종(侍從)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전문(殿門) 밖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리면, 좌중호(左中護)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임시로 재실(齋室)에 나아가는데, 시위(侍衛)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집례가 왕세자의 자리를 동쪽 행랑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과 종헌관의 자리를 왕세자 자리의 뒤에다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안에 대군과 여러 군의 배제(陪祭)하는 자리를 신문(神門)의 동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서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동쪽을 상(上)으로 하며, 감찰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한다. 【서리(書吏)는 그 뒤에서 모신다.】 집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찬자·찬인은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러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종친과 문무 백관의 자리를 외정(外庭)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며,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고 겹줄로 북향하여 서로 마주 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문무 관원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향례일(享禮日) 행사하기 전에 궁위령이 영악(靈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영좌의 오른쪽에 놓고, 폐백 광주리[幣籠]를 준소(尊所)에 진설하며, 향합·향로·초[燭]를 영좌 앞

前享四日，詹事院請齋戒三日。獻官諸執事及從官應從升者，并致齋二日於本司，一日於享所；宗親文武百官及諸衛之屬守衛殿門者，各淸齋一宿。前一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王世子具白衣烏紗帽黑角帶白靴，出宮乘輦，導從如儀，至殿門外降輦。左中護引王世子，權就齋室，侍衛如常。執禮設王世子位於東廊，西向；設亞獻官終獻官位於王世子位之後近南，西向北上；設內大君諸君陪祭位於神門之東南廊，北向西上；設執事者位於神門之西南廊，北向東上；監察位於其西；【書吏陪其後】設執禮位於東階之西，西向；謁者贊者贊引在南差退，俱西向北上；設宗親及文武百官位於外庭，文東武西，俱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設監察位二於文武官後，北向。享日未行事前，宮闈令整拂靈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之右，陳幣籠於尊所，設香合香爐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春夏雞彝一、【實明水】鳥彝一、【實鬱鬯】犧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象尊二【一實明水，一實

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제찬(祭饌)을 담은 기구를 설치하고,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봄·여름에는 계이(雞彝) 1개, 【명수(明水)를 채운다.】 조이(鳥彝) 1개, 【울창(鬱鬯)을 채운다.】 희준(犧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 상준(象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양제(盎齊)를 채운다.】 로서 석 줄로 하고, 【첫째 줄에는 계이(雞彝)와 조이(鳥彝)이고, 둘째 줄에는 희준(犧尊)이고, 셋째 줄에는 상준(象尊)이다.】 가을·겨울과 납일(臘日)에는 가이(罍彝) 1개, 【명수(明水)를 채운다.】 황이(黃彝) 1개, 【울창(鬱鬯)을 채운다.】 착준(著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 호준(壺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양제(盎齊)를 채운다.】 로서 석 줄로 하되, 【첫째 줄은 가이(罍彝)·황이(黃彝)이고, 둘째 줄은 착준(著尊)이고, 셋째 줄은 호준(壺尊)이다.】 모두 구기[勺]의 보자기[罍]를 덮고,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 【무릇 준(尊)에는 명수(明水)를 채워서 상(上)으로 한다.】 찬반(瓚盤) 1개를 준소(尊所)에 설치하고, 세(洗)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는데, 반이(槃匱)가 있다.】 뇌(罍)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구기[勺]를 얹어 놓고, 광주리[筐]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게 하는데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광주리라면 또 찬(瓚) 1개와 작(爵) 1개를 담는다.】 아헌관·중헌관의 세(洗)는 또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뇌(罍)는 세(洗)의 동쪽에 있고, 광주리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게 하는데,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광주리라면 또 작(爵) 2개를 담는다.】 여러 집사들의 관세위를 아헌관·중헌관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향례일(享禮日) 축시(丑時) 전 5각(刻)에 궁위령이 영악(靈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祭饌)을

盎齊。】爲三行，【第一行雞彝鳥彝，第二行犧尊，第三行象尊。】秋冬及臘罍彝一、【實明水】黃彝一、【實鬱鬯】著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壺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爲三行，【第一行罍彝黃彝，第二行著尊，第三行壺尊。】皆加勺罍北向西上；【凡尊實明水爲上】設瓚盤一於尊所；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有槃匱。】罍在洗東加勺，筐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則又實以瓚一爵一。】亞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罍在洗東，筐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則又實以爵二。】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享日丑前五刻，宮闈令整拂靈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具饌畢。贊引引監察升自東階，點視陳設。前二刻，宗親及百官具衰服，皆就門外位。前一刻，亞終獻官及諸執事具衰服，皆就殿門外。執禮率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大祝宮闈令祝史齋郎，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

그릇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진설(陳設)한 것을 날날이 보살핀다. 행사 전 2각(刻)에 종친과 백관들이 최복(衰服)을 갖추고 모두 문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행사 전 1각(刻)에 아헌관·종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최복을 갖추고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하고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대축(大祝)·궁위령·축사(祝史)·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殿庭)의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상(上)으로 하여 서게 한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하게 한다.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들어간다. 궁위령이 궤(匱)를 열고 우주(虞主)를 받들어 내어 영좌에 놓고 청저건(靑苧巾)으로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찬(瓚)을 〈물에〉 씻고 수건에 닦으며, 작(爵)을 〈물에〉 씻고 수건에 닦아서 광주리에 두고, 이를 받들어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점(玷) 위에 둔다. 부지통례가 재실(齋室)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찬청(贊請)하면, 왕세자가 최복(衰服)을 갖추고 나간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찬(贊)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종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익위(翊衛) 1인은 꿇어앉아 대야

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宮闈令開匱，捧出虞主，設於座，覆以靑苧巾，設几於後。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篚，捧詣尊所，置於玷上。副知通禮進齋室前跪，贊請行禮。王世子具衰服出，副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西向立，執禮曰：“四拜。”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副知通禮引王世子詣盥洗位北向立，翊衛一人跪取匱，興沃水；翊衛一人跪取槃承水，王世子盥手。翊衛跪取巾於篚以進，王世子脫手訖，翊衛受巾奠於篚。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鬱鬯，從官以瓚受酒。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靈座前北向立贊請(詭)〔跪〕，從官一人捧香合跪進，從官一人捧香爐跪進，副知通禮贊請三上香，從官奠爐于案。從官以瓚跪進，副知通禮贊請執瓚灌地

[匱]를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익위(翼衛) 1인은 꿇어앉아 반(槃)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왕세자가 손을 씻으면, 익위가 꿇어앉아 광주리에서 수건을 가져다가 바친다. 왕세자가 손을 수건에 닦고, 이를 마치면 익위가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놓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존(尊)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종관(從官)이 찬(瓚)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청(贊請)한다. 종관 1인은 향함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고, 종관 1인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부지통례가 세 번 상향(上香)하기를 찬청하고, 종관이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종관이 찬(瓚)을 꿇어앉아서 올리면, 부지통례가 찬(瓚)을 잡아 땅에 술을 붓기를 찬청한다. 이를 마치면, 찬(瓚)을 종관에게 주고, 종관이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종관 1인이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서 올리면, 부지통례가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기를 찬청하고, 폐백을 종관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올리고 찬(瓚)을 올리고 폐백을 올리는 일은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향로를 드리고 찬(瓚)을 드리고 폐백을 드리는 일을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작(爵)을 올리고 작(爵)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청(贊請)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존(尊)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예제(醴齊)를 따르면, 종관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청(贊請)한다. 종관이 술잔을 꿇어앉아서 올리면, 부지통례가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기를 찬청하여, 술잔을 종관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

訖, 以瓚授從官, 從官受以授大祝。從官一人以幣篚跪進, 副知通禮贊請執幣獻幣, 以幣授從官, 奠于靈座前。

【凡進香進瓚進幣, 皆在東西向; 奠爐受瓚奠幣, 皆在西東向。進爵奠爵, 準此。】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 引降復位。少頃, 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醴齋, 從官以爵受酒。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靈座前, 北向立贊請跪, 從官以爵跪進, 副知通禮贊請執爵獻爵, 以爵授從官, 奠于靈座前, 副知通禮贊請俯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 東向跪讀祝文訖, 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 引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帨手訖, 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盥齋, 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 執事者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興平身, 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訖, 引降復位。執禮曰: “四拜。” 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 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亞終獻官及

어앉기를 찬청하고, 대축(大祝)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부지통례가 <왕세자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한다. 존(尊)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양제(盞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贊)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찬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종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통례가 꿇어앉아서 '예(禮)를 마쳤다.'고 사퇴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로 돌아와서 최복(衰服)을 벗게 하는데, 시위(侍衛)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창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궁위령이 우주(虞主)를 들여놓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찬자·알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

宗親百官同。副知通禮跪白禮畢，引王世子還齋室釋衰服，侍衛如常。謁者引亞終獻官出，奉禮郎分引宗親及文武百官以次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宮闈令納虞主如儀。執禮帥贊者謁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率其屬徹禮饌，大祝捧祝幣瘞於坎，王世子乘輦還宮如來儀。

大君諸君行禮儀：

獻官諸執事致齋二日於本司，一日於享所；宗親文武百官及守衛殿門者，各清齋一日。前一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執禮設初獻官亞獻官終獻官位於東廊近南，西向北上；設內大君諸君陪祭位於神門之東南廊，北向西上；設執事者位於神門之西南廊，北向東上；監察位於其西；設執禮位於東階之西，西向；謁者贊者贊引在南差退，俱西向北上；設宗親及文武百官位於外庭，文東武西，俱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設監察位二於文武班後，北向。享日未行事前，宮闈令整拂靈

고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대축(大祝)이 축문과 폐백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왕세자가 연(輦)을 타고 환궁하는데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고, 대군과 여러 군의 행례(行禮)하는 의식은,

“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본사(本司)에서 2일 동안 치재(致齋)하고, 향소(享所)에서 1일 동안 치재(致齋)한다. 종친·문무 백관들과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사람은 각기 1일 동안 청재(淸齋)한다. 행사 전 1일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집례가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의 자리를 동쪽 행랑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안에 대군과 여러 군의 배제(陪祭)하는 자리를 신문(神門)의 동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서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동쪽을 상(上)으로 하며, 감찰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한다. 집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는데,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여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종친과 문무 백관들의 자리를 외정(外庭)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는데,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겹줄로 하여 북향하게 하며, 서로 마주 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문·무관의 반열 뒤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향례일(享禮日) 행사하기 전에 궁위령이 영악(靈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영좌의 오른쪽에 놓고, 폐백 광주리를 준소(尊所)에 진설하며, 향로·향합·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제찬(祭饌) 담은 기구를 설치하고, 준(尊)을 지계문의 왼쪽에 설치한다. 봄·여름에는 계이(雞彝) 1개, 【명수(明水)를 채운다.】 조이(鳥彝) 1개, 【울창(鬱鬯)을 채운다.】 희준(犧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 상준(象尊) 2개 【1개는 명

幄。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奠祝板於靈座之右，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春夏雞彝一、【實明水】鳥彝一、【實鬱鬯】犧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象尊二【一實明水，一實盞齊。】爲三行，【第一行鷄彝鳥彝，第二行犧尊，第三行象尊。】秋冬及臘罍彝一、【實明水】黃彝一、【實鬱鬯】著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壺尊二【一實明水，一實盞齊。】爲三行，【第一行罍彝黃彝，第二行著尊，第三行壺尊。】皆加勺冪，北向西上。【凡尊，實明水爲上。】設瓚槃一於尊所；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盥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則又實以瓚一爵三。】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東南，北向。享日丑前五刻，宮闈令整拂靈幄。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實饌具畢，贊引引監察升自東階，點視陳設。前一刻，宗親及百官具衰服，皆就門外。前一刻，亞終獻官及諸執事具衰服，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

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양제(盎齊)를 채운다.】로서 석 줄로 하고, 【첫째 줄은 계이(雞彝)·조이(鳥彝)이고, 둘째 줄은 희준(犧尊)이고, 셋째 줄은 상준(象尊)이다.】 가을·겨울과 납일(臘日)에는 가이(鬯彝) 1개, 【명수(明水)를 채운다.】 황이(黃彝) 1개, 【울창(鬱鬯)을 채운다.】 착준(著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 호준(壺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양제(盎齊)를 채운다.】로서 석 줄로 하고, 【첫째 줄은 가이(鬯彝)·황이(黃彝)이고 둘째 줄은 착준(著尊)이고, 셋째 줄은 호준(壺尊)이다.】 모두 구기[勺]와 보자기[冪]을 덮고 북향하게 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 【무릇 준(尊)에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상(上)으로 한다.】찬반(瓚槃) 1개를 준소(尊所)에 설치하고, 세(洗)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뇌(罍)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구기[勺]를 얹어 놓고, 광주리[筐]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게 하되 수건을 담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광주리라면 찬(瓚) 1개와 작(爵) 3개를 담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를 헌관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향례일(享禮日) 축시(丑時) 전 5각(刻)에 궁위령이 영악(靈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祭饌)을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진설(陳設)한 것을 날낱이 보살핀다. 행사 전 2각(刻)에 종친과 백관들이 최복(衰服)을 갖추고 모두 문밖에 나아가고, 행사 전 1각(刻)에 아헌관·종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최복(衰服)을 갖추고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상으로 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殿庭)의 배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상으로 하여 서게 한다. 집례가

引, 先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 入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立定, 執禮曰: “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 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 各就位, 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宮闈令開匱, 捧出虞主, 設於座, 覆以青苧巾, 設几於後。執事者詣爵洗位, 洗瓚拭瓚, 洗爵拭爵, 置於筐, 捧詣尊所, 置於坫上。謁者引初獻官亞獻官終獻官入就位, 執禮曰: “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初獻官以下及宗親百官鞠躬四拜興平身。謁者進初獻官之左白: “有司謹具, 請行事。”退復位。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北向立, 盥手帨手訖, 引初獻官升自東(階) [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冪酌鬱鬯, 執事者以瓚受酒。謁者引初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 執事者一人捧香合, 執事者一人捧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以瓚授初獻官, 初獻官執瓚灌地訖, 以瓚授執事者。大祝以幣篚授初獻官, 初獻官執幣獻幣, 以幣授大祝,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贊引)이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여러 집사(執事)들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닦는다.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奉禮郎)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이 궤(匱)를 열고 우주(虞主)를 받들어 내어 영좌에 놓고 청저건(靑苧巾)으로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찬(瓚)을 씻고 수건에 닦으며, 작(爵)을 씻고 수건에 닦아서 광주리에 두고, 이를 받들어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점(坫) 위에 둔다. 알자가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하면, 초헌관 이하의 제관 및 종친과 백관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유사(有司)는 삼가 갖추어 행사(行事)하기를 정한다.’고 아뢰고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손을 씻고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한다. 준(尊)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집사자가 찬(瓚)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贊)한다. 집사자 1인은 향함을 받들고, 집사자 1인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세 번 상향(上香)하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집사자가 찬(瓚)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찬을 잡아 술을 땅에 붓는다. 이를 마치면 찬을 집사자에게 준다. 대축(大祝)이 폐백 광주리[幣篚]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폐백(幣帛)을 잡아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부복, 흥, 평신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

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小頃，謁者引初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體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初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興〕少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帨手訖，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盎齋，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訖，引降復位。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初獻官以下及宗親百官鞠躬四拜興平身，謁者引初獻官以下出，奉禮郎分引宗親及文武百官以次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宮闈令納虞主

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존(尊)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예제(體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찬하고, 대축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초헌관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손을 씻고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존(尊)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양제(盞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하면, 초헌관 이하의 제관 및 종친과 백관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초헌관 이하의 제관들을 인도하여 나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온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의

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大祝捧祝幣瘞於坎。

	<p>제관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궁위령이 우주(虞主)를 들여넣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대축이 축문과 폐백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12. 世宗 114卷, 28年 (1446 丙寅 / 명 정통 (正統) 11年) 10月 22日(丙辰) 2번째기사 왕세자가 기년내에 영릉에 배례하는 의식</p>	<p>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왕세자가 기년 내에 영릉(英陵)에 배례하는 의식을 계(啓)하기를, “출궁(出宮)하는 데의 인도하고 시종(侍從)하는 것은 별제(別祭)의 의식과 같이 한다. 헌릉(獻陵)의 남쪽 길에 북쪽 가까이 유사(攸司)가 욕석(褥席)을 북향하여 설치한다. 연(輦)이 능(陵) 입구의 골[洞]에 이르면, 좌중호(左中護)가 연(輦) 앞에 꿇어앉아서 연에서 내려 평교(平橋)를 오르기를 찬청(贊請)하고, 왕세자가 연에서 내려 평교에 오른다. 인도하여 욕위(褥位)에 이르면 서로 떨어지기가 백 보(步) 가량 되는데, 좌중호가 평교 앞에 꿇어앉아서 평교에서 내리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평교에서 내린다. 좌중호가 인도하여 욕위(褥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좌중호가 사배(四拜)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좌중호가 인도하여 재실(齋室)에 나아가서 백 보 가량 되는 곳에 이르러 평교에 오르기를 찬청하여, 왕세자가 평교에 올라 재실로 들어간다. 상식(上食)할 시각이 이르면 【정오(正午).】 왕세자가 최복(衰服)을 갖추고 손을 씻는다. 이를 마치면 좌중호가 평교에 오르기를 찬청하고, 정자각(丁字閣) 밖의 백 보 가량 되는 곳에 이르러서, 좌중호가 평교 앞에 꿇어앉아서 평교에서 내리기를 찬청한다. 좌중호가 인도하여 정자각 동남쪽에 북쪽 가까이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수릉관(守陵官)이 따라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간다. 【왕세자의 뒤에 남쪽 가까이 있되 서향한다.】 좌중</p>	<p>議政府據禮曹呈啓：“王世子期年內拜英陵儀，出宮導從如別祭儀。獻陵南路近北，攸司設褥席北向。輦至陵口洞，左中護跪輦前，贊請降輦升平橋，王世子降輦升平橋。引至褥位，相距百步許，左中護跪橋前，贊請降橋，王世子降橋。左中護引詣褥位北向立，左中護贊請四拜，王世子四拜訖，左中護引詣齋室，至百步許，贊請升平橋，王世子升橋入齋室。上食：時至，【午正】王世子具衰服盥手訖，左中護贊請升平橋。至丁字閣外百步許，左中護跪橋前，贊請降橋。左中護引詣丁字閣東南近北西向立，守陵官從入就位。【在王世子之後，近南西向。】左中護贊請四拜，王世子四拜。【守陵官亦四拜】進案進菓餅如常，次進湯訖，左中護贊請詣靈座前，左中護引詣止階下，</p>

호가 사배하라고 찬청하면, 왕세자가 네 번 절한다. 【수릉관(守陵官)도 또한 네 번 절한다.】 안(案)을 드리고 과일과 떡을 드리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다음에 탕(湯)을 드린다. 이를 마치면, 좌중호가 왕세자에게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기를 찬청하고, 좌중호가 인도하여 섬돌 밑에 멈추게 한다. 왕세자가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부복(俯伏)하고 꿇어앉는다. 종관(從官) 1인은 향합을 받들고, 1인은 향로를 받들며, 왕세자가 세 번 상향(上香)하면, 종관 1인이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종관 1인은 술을 따르고, 1인은 술잔으로써 술을 받아 꿇어앉아서 드리면, 왕세자가 술잔을 받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내시(內侍)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왕세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동계(東階)로 내려가면, 좌중호가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헌관과 종헌관이 【대군(大君)·여러 군(君)·수릉관(守陵官) 중에서 한다.】 행례(行禮)하는 절차도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협안(夾案)을 거두어 치운다. 좌중호가 사배(四拜)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네 번 절한다. 【수릉관도 또한 네 번 절한다.】 좌중호가 인도하여 재실의 백보(步) 밖에 돌아와서 평교에 오르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평교에 올라 재실에 들어가서 최복(衰服)을 벗고 상복(常服)을 도로 입는다. 좌중호가 평교에 오르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평교에 올라 헌릉(獻陵)의 남쪽 길의 당초에 평교에서 내렸던 곳에 이른다. 좌중호가 평교 앞에 꿇어앉아서 평교에서 내리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평교에서 내린다. 좌중호가 인도하여 헌릉의 남쪽 길의 당초에 평교에 오르던 곳에 이르러, 평교에 오르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평교에 오른다. 인도하여 동구(洞口)까지 이르러, 좌중호가 평교 앞에 꿇어앉아 평교에서 내려 연(輦)에 올라 환궁(還宮)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고 시종하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하였다.

王世子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俯伏跪，從官一人捧香合，一人捧香爐，王世子三上香，從官一人奠爐于案。從官一人酌酒，一人以盞受酒跪進，王世子受盞獻盞，授內侍奠于靈座前。王世子俯伏興，降自東階，左中護引還本位。亞終獻【大君諸君守陵官中】行禮節次如常儀訖，徹夾案。左中護贊請四拜，王世子四拜。【守陵官亦四拜】左中護引還齋室百步外，贊請升平輦，王世子升輦入齋室，釋衰服反常服。左中護贊請升平輦，王世子升輦，至獻陵南路當初降輦處，左中護跪輦前，贊請降輦，王世子降輦。左中護引至獻陵南路當初升輦處，贊請升輦，王世子升輦。引至洞口，左中護跪輦前，贊請降輦升輦，還宮導從如初。

13. 세종 114권, 28년
(1446 병인 / 명 정통
(正統) 11년) 12월 3
일(병신) 1번째기사
휘덕전의 연제의 의식,
영릉의 연제 의식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휘덕전(輝德殿)의 연제(練祭)의 의식을 아뢰기를,
“향례(享禮)가 있기 전 4일에 첨사원(詹事院)에서 3일 동안 재계(齋戒)하기를 청하면,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 및 종관(從官) 중에 마땅히 따라 오를 사람은 모두 본사(本司)에서 2일 동안 치재(致齋)하고, 1일 동안 향소(享所)에서 치재하며,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百官) 및 여러 위(衛)에 소속된 관원으로서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사람은 각기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유숙한다. 기일 전 1일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서계(西階) 위에 동향(東向)하여 설치하고, 상식(床席)과 욕위(褥位)를 악차(幄次) 안팎을 소제한다. 충호위(忠扈衛)에서 악차(幄次)를 전(殿)의 안에 설치한다. 봉상시(奉常寺)에서 먼저 밤나무 신주(神主)와 궤(匱)까지 만들어 【체제(體制)는 밤나무 신주와 같이 한다.】 상자에 담고 형깊으로써 덮어 요연(腰輦)에 안치(安置)하여 악차(幄次)에 나아가면, 궁위령(宮闈令)이 욕위(褥位)에 봉안(奉安)한다. 또 봉상시의 관원이 탁자(卓子) 3개를 영좌(靈座)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제주(題主)하는 탁자는 북쪽에 있고, 다음은 필연(筆硯)을 놓는 탁자이고, 다음은 관반(盥槃)의 탁자이다.】 붓·벼루·먹·광칠(光漆)·관반(盥槃)·관이(盥匱) 【향탕(香湯)을 갖춘다.】 닦는 수건을 【백세저포(白細苧布)를 사용한다.】 갖추어 놓는다. 집사자의 관세(盥洗)를 동계(東階)의 동쪽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왕세자가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화(白靴)를 갖추고 궁(宮)에서 나와 연(輦)을 타면, 인도하고 시종(侍從)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전문(殿門) 밖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리면, 좌중호(左中護)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에 나아가는데, 시위(侍衛)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상의원(尙衣院)에서 연복(練服)을 재실(齋室)에 진설한다. 【연포(練布)로써 관(冠)을 만들고, 수질(首經)·부관(負版)·벽령(辟領)·쇠복(袞服)을 벗는다.】 집례가 왕세자의 자리를 전(殿)의 동랑(東廊)에 서향하여 설

丙申/議政府據禮曹呈啓輝德殿練祭儀：前享四日，詹事院請齋戒三日。獻官諸執事及從官應從升者，並致齋二日於本司，一日於享所；宗親文武百官及諸衛之屬守衛殿門者，各淸齋一宿。前一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忠扈衛設幄次於殿西階上，東向設床席褥位於幄內。奉常寺先造栗木主并匱，【體制並如桑木主】盛以箱，覆以帕，安於腰輦，詣幄次，宮闈令奉安於褥位。又奉常寺官設卓三於靈座東南，西向；【題主卓在北，次筆硯卓，次盥槃卓。】具筆硯墨光漆，盥槃盥匱【具香湯】拭巾；【用白細苧布】設執事者盥洗於東階之東近南，北向。王世子具白衣烏紗帽黑角帶白靴，出宮升輦，導從如儀，至殿門外降輦，左中護引王子就齋室侍衛如常。尙衣院陳練服於齋室。【以練布爲冠，去首經負版辟領衰。】執禮設王世子位於殿東廊，西向；設內大君諸君位於神門之東南廊，北向西上；題主官宮闈令位於神門之西南廊，北向西上；執禮位於東階之西，西向；謁者贊者贊引，在南差退，俱西向北上；設宗親及文武百官位於外庭，

치하고, 전내(殿內)에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들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동남(東南) 행랑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 제주관(題主官)과 궁위령(宮闈令)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서남(西南) 행랑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서쪽을 상(上)으로 하고, 집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는데,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종친과 문무 백관들의 자리를 외정(外庭)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고,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고 겹줄로 북향하게 하며, 서로 마주 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 둘을 문관과 무관의 반열(班列) 뒤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향례일(享禮日) 행사(行事)하기 전에 종친과 백관들이 최복(衰服)을 갖추고 문밖에 나아간다. 궁위령이 영악(靈幄)을 깨끗이 털고, 집례(執禮)·제주관(題主官)·궁위령·알자·찬자·찬인이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하여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집례·알자·찬자·찬인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제주관과 궁위령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재실(齋室)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왕세자에게> 들어가서 곡(哭)하기를 찬청(贊請)하면, 왕세자가 최복(衰服)을 갖추고 나간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鞠躬四拜)하고 곡하기를 찬청(贊請)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통례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평신(平身)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탁자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한다.

文東武西，俱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設監察位二於文武班後，北向。享日未行事前，宗親及百官，具衰服就門外。宮闈令整拂靈幄。執禮題主官宮闈令謁者贊者贊引先就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執禮謁者贊者贊引就位。贊引引題主官宮闈令，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副知通禮進齋室前跪，贊請入哭，王世子具衰服出。副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執禮曰：“四拜哭。”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哭，王世子鞠躬四拜哭盡哀。宗親及百官同副知通禮贊請哭止興平身，王世子哭止興平身。宗親及百官同。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詣卓前北向立。宮闈令升自東階，詣幄次奉栗主匱，入置卓上，開匱奉出栗主，浴以香湯，拭以巾，臥置卓上。題主官升自東階，詣卓前西向立，題云：“昭憲王后。”

【墨書】訖，以光漆重模之，【待墨書乾，乃重模。】乃退。初，題主將畢，宮闈令設桑主座於靈座之後，奉桑主匱，移安於座，奉栗主納于匱，安於舊靈座。副知通禮引王世子權就齋室，

궁위령이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악차(幄次)에 나아가 밤나무 신주의 궤(匱)를 받들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고, 밤나무 신주를 받들어 내어서 향탕(香湯)에 목욕시키고 수건으로써 닦아 탁자 위에 눕혀 둔다. 제주관이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탁자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서 제주(題主)하기를 소헌 왕후(昭憲王后)라 한다. 【먹으로 쓴다.】 이를 마치면 광칠(光漆)로써 거듭 칠하고 【먹 글씨가 마르기를 기다려서 거듭 칠한다.】 물러간다.

처음에 제주(題主)하기를 마치려 하면 궁위령이 뽕나무 신주의 자리를 영좌의 뒤에 설치하고는 뽕나무 신주의 궤(匱)를 받들어 영좌에 옮겨 안치하고, 밤나무 신주를 받들어 궤에 넣어서 예전 영좌에 안치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임시로 재실(齋室)로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봉상시의 관원이 제주(題主)의 탁자와 관세(盥洗)의 탁자를 거두어 치우고, 부지통례가 재실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연복(練服)으로 바꾸어 입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연복을 바꾸어 입고,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연복으로 바꾸어 입는다. 【전내(殿內)의 대군과 여러 군은 연포(練布)로써 관(冠)을 만들고, 수질(首經)·부관(負版)·벽령(辟領)의 최복(衰服)을 벗고, 여러 종친과 문무 백관들은 연포(練布)로써 사모(紗帽)를 싸고 그대로 띠를 드리운다.】

집례가 아헌관과 종헌관의 자리를 왕세자 자리의 뒤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하며,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서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동쪽을 상(上)으로 하며, 감찰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영좌의 오른쪽에 놓고, 폐백 광주리를 준소(尊所)에 진설하며, 향로·향합·초[燭]을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제찬(祭饌)을 담은 기구를 설치하고,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며, 계이(鷄彝) 1개, 【명수(明水)를 채운다.】 조이(鳥彝) 1개, 【울창(鬱鬯)을 채운다.

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以次出，奉常寺官徹題主卓及盥洗卓。副知通禮進齋室前跪，贊請易服，王世子易服，宗親及百官俱易服。【內大君諸君練布爲冠，去首經負版辟領衰。諸宗親及文武百官以練布裹帽紗，仍垂帶。】執禮設亞終獻官位於王世子位之後近南，西向北上；執者事位於神門之西南廊，北向東上；監察位於其西。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之右，陳幣篚於尊所，設香爐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鷄彝一【實明水】鳥彝一【實鬱鬯】犧尊二【一實明水，一實禮齊。】象尊二【一實明水，一實盥齊。】爲三行，【第一行鷄彝鳥彝，第二行犧尊，第三行象尊。】皆加爵罍，北向西上；【凡尊實明水爲上】設瓚槃一於尊所，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則又實以瓚一爵一。】亞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在洗東加爵，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則又實以爵二】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享日丑前五刻，宮闈令整拂靈幄，典祀

】희준(犧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 상준(象尊) 2개로서 【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양제(盎齊)를 채운다.】 석 줄로 하되, 【첫째 줄은 게이(鷄彝)·조이(鳥彝)요, 둘째 줄은 희준(犧尊)이며, 세째 줄은 상준(象尊)이다.】 모두 술잔과 보자기를 엮어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상(上)으로 하며, 【무릇 준(尊)은 명수(明水)를 채운 것이 상(上)이 된다.】 찬반(瓚槃) 1개를 준소(尊所)의 설치하고, 세(洗)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며, 뇌(鬯)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구기[勺]를 엮어 놓고, 광주리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게 하는데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광주리라면 또 찬(瓚) 1개와 작(爵) 1개를 담는다.】 아헌관·중헌관의 세(洗)는 또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뇌(鬯)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작(爵)을 엮어 놓고, 광주리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게 하는데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광주리라면 또 작(爵) 2개를 담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는 아헌관·중헌관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향례일(享禮日) 축시(丑時) 전 5각(刻)에 궁위령이 영악(靈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祭饌)을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진설(陳設)한 것을 날날이 살핀다. 행사 전 2각(刻)에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문밖에 나아가고, 행사 전 1각(刻)에 아헌관 이하의 여러 집사들이 모두 문밖에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아헌관과 중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이 궤(匱)를 열고 밤나무 신주를 받들어 내어서 영좌에 설치하

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贊引引監察升自東階，點視陳設。前二刻，宗親及百官皆就門外；前一刻，亞獻官以下諸執事，皆就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入就位；贊引引監察典祀官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謁者引亞終獻官入就位。宮闈令開匱，捧出栗主，設於座，覆以青苧巾，設几於後。執事者詣盥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筐，捧詣尊所，置於坫上。副知通禮進齋室前跪，贊請行禮，王世子出，副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執禮曰：“跪。”副知通禮贊請跪，王世子跪。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贊者亦唱，在位者同。】執禮曰：“俯伏哭。”副知通禮贊請俯伏哭，王世子俯伏哭。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副知通禮贊請哭止興平身，王世子哭止興平身。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副知通禮引王世子詣盥洗位北向立，翊衛一人跪取匱與沃水，又一人跪取槃承水，王世子盥手。翊衛取巾於筐以進，王子悅手訖，翊衛受巾奠於筐。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

고 청저건(靑苧巾)으로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찬(瓚)을 씻고 찬을 수건에 닦으며, 작(爵)을 씻고 작을 수건에 닦아서 광주리에 두고, 이를 받들어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점(坫) 위에 둔다. 부지통례가 재실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찬청하고, 왕세자가 나가면,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가 ‘꿇어앉으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꿇어앉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꿇어앉는다. 아헌관·중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와 같이 한다.】 집례가 ‘부복하고 곡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부복하고 곡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부복하고 곡하고, 아헌관·중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통례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중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익위(翊衛) 1인은 꿇어앉아 대야[匱]를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또 1인은 꿇어앉아 반(槃)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왕세자가 손을 씻으면, 익위가 광주리에서 수건을 가져다 바친다. 왕세자가 손을 닦기를 마치면, 익위가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준(尊)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종관(從官)이 찬(瓚)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청하고, 종관 1인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고, 또 1인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부지통례가 세 번 상향(上香)하기를 찬청하고, 종관이 안(案)을 드린다. 종관이 찬(瓚)을 꿇어앉아서 올리고, 부지통례가 찬(瓚)을 잡아 땅에 술을 붓기를 찬청한다. 이를 마치면, 찬(瓚)을 종관에게 주고, 종관이 받아서 대축(大祝)에게 준다. 종관이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서 바치면, 부지통례가 폐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冪酌鬱鬯, 從官以瓚受酒。 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靈座前北向立, 贊請跪, 從官一人奉香合跪進, 又一人奉香爐跪進, 副知通禮贊請三上香, 從官奠于案。 從官以瓚跪進, 副知通禮贊請執瓚灌地訖, 以瓚授從官, 從官受以授大祝。 從官以幣篚跪進, 副知通禮贊請執幣獻幣, 以幣授從官, 奠于靈座前。 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 引降復位。 少頃, 副知通禮引王世子, 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冪酌醴齋, 從官以爵受酒。 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靈座前北向立, 贊請跪, 從官以爵跪進, 副知通禮贊請執爵獻爵, 以爵授從官, 奠于靈座前, 副知通禮贊請俯伏興少退北向跪。 大祝進靈座之右, 東向跪讀祝文訖, 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 引降復位。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 盥手帨手訖, 謁者引亞獻官, 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冪酌盎齋,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 執事者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靈座前。 謁者贊俯伏興平身,

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기를 찬청하고, 폐백을 종관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준(尊)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예제(醴齊)를 따르면, 종관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청하고, 종관이 술잔을 꿇어앉아서 올리면, 부지통례가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기를 찬청하고, 술잔을 종관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찬청하고, 대축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손을 씻고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준(尊)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양제(盎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부지통례가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하고 곡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 한다. 아헌관·종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통례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곡을

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訖，引降復位。執禮曰：“四拜哭。”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哭，王世子鞠躬四拜哭盡哀。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副知通禮贊請哭止興平身，王世子哭止興平身。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副知通禮引王世子還齋室，謁者引亞終獻官出，奉禮郎分引宗親及文武百官以次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宮闈令納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大祝捧幣壅於坎。本殿官以腰輿捧桑主匱詣宗廟，埋於廟殿北階間。【前期，於宗廟行先告事由祭。】王世子乘輦還宮如來儀。

英陵練祭儀：
享日未行事前，獻官以下諸執事及守陵官俱衰服就外位；謁者贊者先就拜位四拜訖，各就位；謁者引監察典祀官及諸執事入就拜位；謁者引獻官及守陵官入就拜位。立定，贊者曰：“四拜哭。”獻官以下鞠躬四拜哭，哭止興平身，謁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종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로 돌아가고, 알자가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창(唱)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궁위령이 신주(神主)를 들여놓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대축이 폐백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본전(本殿)의 관원이 요여(腰輿)로써 뽕나무 신주의 궤(匱)를 받들어 종묘에 나아가서 묘전(廟殿)의 북계(北階) 사이에 묻는다. 【기일 전에 종묘의 행사에 먼저 사유제(事由祭)를 고한다.】 왕세자가 연을 타고 환궁하기를 올 때의 의식처럼 한다.”

하였다. 영릉(英陵)의 연제(練祭) 의식은,
 “향일(享日) 행사(行事)하기 전에 헌관 이하의 여러 집사들과 수릉관(守陵官)이 모두 최복(衰服)을 입고 밖의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와 찬자는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위에 나아가고, 알자가 헌관과 수릉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위에 나아가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헌관 이하의 제관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곡하며, 곡을 그치면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 이하의 제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가 연복(練服)을 바꾸어 입기를 찬하면, 헌관 및 수릉관과 감찰 이하 여러 집사들이 모두 연복을 바꾸어 입고 【헌관·감찰 및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은 연포(練布)로서 사모(紗帽)를 쓰고 그대로 띠를 드리우며, 수릉관은 연포로써 관(冠)을 만들고 수질(首絰)·부판(負版)·벽령(辟領)의 최복(衰服)을 벗

者引獻官以下以次出。 謁者贊易服，獻官及守陵官監察以下諸執事，俱易服
 【獻官監察及典祀官諸執事，以練布裹紗帽仍垂帶。 守陵官以練布爲冠，去首絰負版領衰。】盥洗訖，就外位；贊者謁者及諸執事入就位；謁者引監察及典祀官入就位；謁者引獻官及守陵官入就位。 贊者曰：“跪俯伏哭。”獻官守陵官典祀官跪俯伏哭， 哭止興平身。謁者引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 謁者引獻官詣靈座前北向跪，三上香，獻爵奠爵，俯伏興少退跪，大祝讀祝訖，獻官俯伏興平身，引降復位。 少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酌酒，詣靈座前獻爵奠爵，俯伏興平身，謁者引降復位。 少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訖， 引降復位。 贊者曰：“四拜哭。”獻官及守陵官典祀官四拜哭，哭止興平身。 謁者引獻官出，守陵官典祀官亦以次出。 謁者引監察及諸執事俱復拜位， 贊者曰：“四拜。”監察以下四拜訖，謁者引監察以下以次出，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

	<p>는다. 〓 관세(盥洗)한다. 이를 마치면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찬자·알자와 여러 집사들이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감찰과 전사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과 수릉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자가 ‘끓어얹아 부복하고 곡하라.’ 말하면, 헌관·수릉관·전사관이 끓어얹아 부복하여 곡하고, 곡을 그치면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사자가 술을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끓어얹아 세 번 상향(上香)하고, 술잔을 올려 술잔을 드리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끓어얹는다. 대축이 축문을 읽고 나면, 헌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술을 따라 가지고, 영좌 앞에 나아가서 술잔을 올리어 술잔을 드리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헌관과 수릉관(守陵官)·전사관(典祀官)이 네 번 절하고 곡하며,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수릉관과 전사관도 또한 차례로 나간다. 알자(謁者)가 감찰(監察)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이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감찰 이하의 제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알자와 찬자가 배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하였다.</p>	
<p>14. 世宗 114卷, 28年 (1446 丙寅 / 명 정통 (正統) 11年) 12月 29</p>	<p>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휘덕전(輝德殿)의 상제(祥祭)의 의식을 아뢰기를, “향례(享禮) 전 4일에 첨사원(詹事院)에서 3일 동안 재계(齋戒)하기를 청하면,</p>	<p>壬戌/議政府據禮曹呈啓輝德殿祥祭儀: 前享四日, 詹事院請齋戒三日; 獻官諸執事及從官應從升者, 竝致齋二日於本</p>

日(壬戌) 1번째기사
 휘덕전의 상제의 의식,
 영릉의 상제의 의식

헌관과 여러 집사 및 종관(從官) 중에서 마땅히 따라 오를 사람은 모두 본사(本司)에서 2일 동안 재계하고, 향소(享所)에서 1일 동안 재계한다. 종친·문무백관들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사람은 각기 청재(淸齋)로써 하룻밤을 유숙한다. 행사(行事) 전 1일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한다. 왕세자가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화(白靴)를 갖추고 궁(宮)에서 나와 연(輦)을 타는데, 인도하고 시종(侍從)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전문(殿門) 밖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리면, 좌중호(左中護)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로 나아가는데, 시위(侍衛)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며, 상의원(尙衣院)에서 담복(禪服)을 재실(齋室)에 진설한다. 【질게 물들인 회색의(灰色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화(白靴)이다.】 집례(執禮)가 왕세자의 자리를 전(殿)의 동쪽 행랑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전내(殿內)에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동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 집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는데, 뒤로 조금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만약 내정(內庭)이 협착하면 찬자(贊者)의 자리는 외정(外庭) 동계(東階)의 서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종친과 문무백관들의 자리를 외정(外庭)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며, 모두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서로 마주 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종친은 매 품(每品)의 반두(班頭)에 따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은 특별히 정1품의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문·무반(文武班) 뒤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서리(書吏)는 각기 그 뒤에서 모신다.】

향일(享日) 행사(行事)하기 전에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연복(練服)을 입고 문 밖에 나아간다. 궁위령(宮闈令)이 영악(靈幄)을 깨끗이 털고, 집례가 알자·찬

司, 一日於享所; 宗親文武百官及諸衛之屬守衛殿門者, 各淸齋一宿。 前一日, 殿司帥其屬, 掃除殿之內外。 王世子具白衣烏紗帽黑角帶白靴, 出宮乘輦, 導從如儀, 至殿門外降輦。 左中護引王世子就齋室, 侍衛如常, 尙衣院陳禪服於齋室。 【深染灰色衣, 烏紗帽黑角帶白靴。】 執禮設王世子位於殿東廊, 西向; 設內大君諸君位於神門之東南廊, 北向西上; 執禮位於東階之西, 西向; 謁者贊者贊引在南差退, 俱西向北上; 【若內庭窄狹, 則設贊者位於外庭東階之西西向。】 設宗親及文武百官位於外庭, 文東武西, 俱每等異位, 重行北向, 相對爲首; 【宗親, 每品班頭別設位; 大君, 特設位於正一品之前。】 設監察位二於文武班後, 北向。 【書吏各陪其後】 享日未行事前, 宗親及百官, 俱練服就門外。 宮闈令整拂靈幄。 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拜位, 重行北向西上四拜訖, 就位; 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 副知通禮進齋室前跪, 贊請入哭, 王世子具練服出, 副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 【從官翊衛從入】 執禮曰: “四拜哭。” 副知通禮

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쪽을 상(上)으로 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가간다. 봉례랑(奉禮郎)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간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재실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들어와서 곡(哭)하기를 찬청(贊請)하면, 왕세자가 연복을 갖추고 나간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간다. 【종관(從官)과 익위(翊衛)가 따라 들어온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鞠躬)·사배(四拜)하고 곡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피 하고,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무릇 집례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전하여 창(唱)한다.】 부지통례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평신(平身)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임시로 재실로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부지통례가 재실 앞에서 꿇어앉아 담복(禫服)을 바꾸어 입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담복을 바꾸어 입고, 종친과 백관들도 모두 담복을 바꾸어 입는다. 【질게 물들인 회색의(灰色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화(白靴)이다.】 집례가 아헌관과 종헌관의 자리를 왕세자 자리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상(上)으로 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서남쪽 행랑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동쪽을 상(上)으로 하고, 감찰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한다. 【서리(書吏)는 그 뒤에서 모신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놓고, 【점(拮)이 있다.】 폐백 광주리를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향합·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제찬(祭饌)을 담은 기구를 설치하고,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계이(鷄彝) 1개, 【명수(明水)를 채운다.】 조이(鳥彝) 1개, 【울창(鬱鬯)을 채운다.】 희준(犧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채

贊請鞠躬四拜哭, 王世子鞠躬四拜哭盡哀。宗親及百官同。【凡執禮有辭, 贊者皆傳唱。】副知通禮贊請哭止與平身, 王世子哭止與平身。宗親及百官同。【贊者亦唱】副知通禮引王世子, 權就齋室。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以次出。副知通禮進齋室前跪, 贊請易服, 王世子易服, 宗親百官俱易服。【深染灰色衣, 烏紗帽黑角帶白靴。】執禮設亞獻官終獻官位於王世子位之後近南, 西向北上; 執事者位於神門之西南廊, 北向東上; 監察位於其西。【書吏陪其後】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奠祝版於靈座之右, 【有拮】陳幣籠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次設祭器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雞彝一【實明水】鳥彝一【實鬱鬯】犧尊二【一實明水, 一實醴齊。】象尊二【一實明水, 一實盎齊。】爲二行, 【第一行鷄彝鳥彝, 第二行犧尊, 第三行象尊。】皆加勺羈, 北向西上; 【凡尊實明水爲上】設瓚盤一於尊所; 設洗於東階東南, 北向, 【盥洗在東爵洗在西, 有盤匱。】壘在洗東加勺, 籠在洗西南肆, 實以巾;

우고, 1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 상준(象尊) 2개로써 【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양제(盎齊)를 채운다.】 석 줄로 하되, 【첫째 줄은 계이(鷄彝)·조이(鳥彝)요, 둘째 줄은 희준(犧尊)이요, 셋째 줄은 상준(象尊)이다.】 모두 구기[勺]와 보자기[罍]를 얹어 놓고 북향하게 하며,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 【무릇 준(尊)에는 명수(明水)를 채우되, 상(上)으로 한다.】 찬반(瓚盤) 1개를 준소(尊所)에 설치하고, 세(洗)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게 하는데 반이(盤匱)가 있다.】 뇌(罍)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구기[勺]를 얹어 놓고, 광주리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게 하는데 수건을 담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광주리라면 또 작(爵) 1개와 찬(瓚) 1개를 담는다.】 아헌관·종헌관의 세(洗)는 동남쪽에 북향하게 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게 한다.】 뇌(罍)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구기[勺]를 얹어 놓고, 광주리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게 하는데 수건을 담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광주리라면 또 작(爵) 2개를 담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를 아헌관·종헌관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향일(享日) 축시(丑時) 전 5각(刻)에 궁위령이 영악(靈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祭饌)을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와서 진설(陳設)된 것을 날낱이 살핀다. 행사(行事) 전 2각(刻)에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문밖에 나아간다. 행사(行事) 전 1각(刻)에 아헌관 이하의 여러 집사들이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아헌관과

【若爵洗之，則又實以爵一瓚一。】 亞終獻官洗，又於東南(圮) [北] 向，【盥洗在東，爵洗在西。】 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則又實以爵二。】 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 享日丑前五刻，宮闈令整拂靈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贊引引監察升自東階，點視陳設。 前二刻，宗親及百官皆就門外。 前一刻，亞獻官以下諸執事，皆就殿門外。 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入就位；贊引引監察典祀官入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 宮闈令開匱，捧出神主，設於座，覆以青苧巾，設几於後。 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篚，捧詣尊所，置於坵上。 副知通禮進齋室前跪，贊請行禮，王世子出，副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從官翊衛從入】 執禮曰：“跪。” 副知通禮贊請跪，王世子跪，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 【贊者亦唱】 執禮曰：“俯伏哭。” 副知通禮贊請俯伏哭，王世子俯伏哭。 亞終獻官

중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이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영좌에 설치하고 청저건(靑苧巾)으로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찬(瓚)을 씻고 수건에 닦으며, 작(爵)을 씻고 수건에 닦아서 광주리에 놓아 가지고 받들어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점(坫) 위에 놓는다. 부지통례가 재실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나온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종관(從官)과 익위(翊衛)가 따라 들어온다.】 집례가 ‘꿇어앉으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꿇어앉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꿇어앉는다. 아헌관·중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한다.】 집례가 ‘부복하고 곡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부복하고 곡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부복하고 곡하며, 아헌관·중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익위(翊衛) 1인이 꿇어앉아 대야[匱]를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또 1인은 꿇어앉아 반(槃)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왕세자가 손을 씻으면, 익위가 꿇어앉아 수건을 광주리에 가져다 바친다. 왕세자가 수건에 손을 닦고 나면, 익위가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 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종관과 익위가 따라 올라간다.】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사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종관이 찬(瓚)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청한다. 종관 1인은 향함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고, 또 1인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부지통례가 세 번 상향(上香)하기를 찬청하고, 종관이 향로를 안(案)에 놓는다. 종관이 찬(瓚)을 꿇어앉아서 올리고, 부지통례가 찬을 잡아 땅에 술을 적시기를 찬청한다. 이를 마치면 찬을 종관에게 주고, 종관이 받아서 대축(大祝)에게 준다. 종관이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서 올리고, 부지통례가 폐백을 잡아 폐

及宗親百官同。副知通禮贊請哭止興平身，王世子哭止興平身。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副知通禮引王世子詣盥洗位北向立，翊衛一人跪取匱興沃水，又一人跪取槃承水，王世子盥手。翊衛跪取巾於筐以進，王世子悅手訖，翊衛受巾奠於筐。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從官翊衛從升】詣尊所西向立，執事者舉罍酌鬱鬯，從官以瓚受酒。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靈座前北向立，贊請跪，從官一人捧香合跪進，又一人捧香爐跪進，副知通禮贊請三上香，從官奠爐于案。從官以瓚跪進，副知通禮贊請執瓚灌地訖，以瓚授從官，從官受以授大祝。從官以幣筐跪進，副知通禮贊請執幣獻幣，以幣授從官，奠于靈座前。【凡進香進饌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引降復位。小頃，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醴齊，從官以爵受酒。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靈座前北向立，贊請跪，從官以爵跪進，副知通禮贊請執爵獻爵，以爵授從官，奠于靈

백을 드리기를 찬청하면, 폐백을 종관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올리고 찬(饌)을 올리고 폐백을 올리는 것은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향로를 드리고 찬(瓚)을 받고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작(爵)을 올리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준(尊)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예제(醴齊)를 따르면, 종관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청하면, 종관이 술잔을 꿇어앉아서 올린다. 부지통례가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기를 찬청하여, 술잔을 종관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점(坫)이 있다.】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찬청하고, 대축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손을 씻고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준(尊)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양제(盎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점(坫)이 있다.】 알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

座前, 【有坫】副知通禮贊請俯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 東向跪讀祝文訖, 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 引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 盥手帨手訖, 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盎齊, 執事者以爵授酒。謁者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 執事者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靈座前。【有坫】謁者贊俯伏興平身, 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訖, 引降復位。執禮曰: “四拜哭。”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哭, 王世子鞠躬四拜哭盡哀。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贊者亦唱】副知通禮贊請哭止興平身, 王世子哭止興平身。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贊者亦唱】副知通禮引王世子還齋室, 謁者引亞終獻官出, 奉禮郎分引宗親及文武百官以次出。贊引引監察典祀官諸執事, 俱伏拜位, 執禮曰: “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 贊引以次引出。宮闈令納神主如儀, 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 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 大

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사배하고 곡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아헌관·중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한다.】 부지통례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며, 아헌·중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로 돌아가고, 알자가 아헌관과 중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앞드리게 한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이라 창(唱)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궁위령이 신주(神主)를 들여넣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대축이 축문과 폐백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왕세자가 연(輦)을 타고 환궁(還宮)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였다. 영릉(英陵)의 상제(祥祭) 의식은, “향일(享日) 행사(行事)하기 전에 헌관 이하의 여러 집사들과 수릉관(守陵官)의 연복(練服)을 갖추고 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와 찬자가 먼저 배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위에 나아가고, 알자가 헌관과 수릉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에 나아가서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헌관 이하의 제관(祭官)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곡하며,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 이하의 제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알자가 상복(詳服)을 바꾸어 입기를 찬청하면, 헌관과 수릉관과 감찰 이하의 여러 집사들이 모두 상복을 바꾸어 입고 【질게 물들인 회색의

祝捧祝幣瘞於坎，王世子乘輦還宮如來儀。

英陵祥祭儀：

享日未行事前，獻官以下諸執事及守陵官，俱練服就外位；謁者贊者先就拜位，四拜訖，各就位；謁者引監察典祀官及諸執事，入就拜位；謁者引獻官及守陵官，入就拜位。立定，贊者曰：“四拜哭。”獻官以下鞠躬四拜哭，哭止興平身，謁者引獻官以下以次出。謁者贊請易服，獻官及守陵官監察以下諸執事俱易服【深染灰色衣，烏紗帽黑角帶(自)〔白〕靴。】盥洗訖，就外位；謁者贊者及諸執事入就位；謁者引監察典祀官入就位，謁者引獻官及守陵官入就位。贊者曰：“跪俯伏哭。”獻官守陵官典祀官跪俯伏哭，哭止興平身。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謁者引獻官詣靈座前北向跪，三上香，獻爵奠爵，俯伏興少退跪。大祝讀祝訖，獻官俯伏興平身，引降復位。少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酌酒，詣靈座前獻爵奠酌，俯伏興平身，謁者引降復位。少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訖，引

	<p>(灰色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화(白靴)이다. 】 손을 씻고 나서 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찬자와 여러 집사들이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감찰과 전사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헌관과 수릉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자가 ‘끓어앉아 부복하고 곡하라.’ 하면, 헌관·수릉관·전사관이 끓어앉아 부복하고 곡하며,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사자가 술을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끓어앉게 하고, 세번 상향(上香)하고 술잔을 올려 술잔을 드리고 나서,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끓어앉게 한다. 대축이 축문을 읽고 나면, 헌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술을 따르고, 영좌 앞에 나아가서 술잔을 올려 술잔을 드리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하고, 알자가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현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헌관과 수릉관·전사관이 네 번 절하고 곡하며,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수릉관과 전사관도 또한 차례로 나간다.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의 여러 제관들이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감찰 이하의 여러 제관들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알자와 찬자가 배위에 나아가고 네 번 절하고 나간다.” 하였다.</p>	<p>降復位。贊者曰：“四拜哭。”獻官及守陵官典祀官四拜哭，哭止興平身，謁者引獻官出，守陵官典祀官亦以次出。謁者引監察及諸執事俱復拜位，贊者唱四拜，監察以下四拜訖，謁者引監察以下以次出，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p>
<p>15. 세종 115권, 29년 (1447 정묘 / 명 정통</p>	<p>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휘덕전(輝德殿) 담제의(禫祭儀)를 아뢰기를,</p>	<p>戊申/議政府據禮曹呈，啓輝德殿禫祭儀：“十五月而禫。前享四日，(簪)</p>

(正統) 12년) 2월 16
일(무신) 1번째기사
휘덕전의 담제의 의식,
영릉의 담제의 의식

“15개월 만에 담제(禫祭)를 지내는데 제사하기 4일 전에 첨사원(簪事院)에서 3일 동안을 재계하기를 청하면,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들과 종관(從官)으로써 마땅히 따라 오를 사람들은 모두 2일 동안을 본사(本司)에서 재계하고, 1일 동안을 향소(享所)에서 재계한다. 종친과 문무 백관들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사람들은 각기 깨끗이 재계하고 하룻밤을 유숙한다. 기일 전 1일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된 관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한다. 왕세자가 진하게 물들인 회색의(灰色衣)와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화(白靴)를 갖추고, 궁(宮)에서 나와 연(輦)을 타는데 인도하여 시종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전문(殿門) 밖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리면, 좌중호(左中護)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로 나아가는데, 시위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집례(執禮)가 왕세자의 자리를 전의 동쪽 행랑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과 종헌관의 자리를 왕세자의 자리 뒤에 남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내대군(內大君)과 여러 군(君)의 배제(陪祭)하는 자리를 신문(神門)의 동남쪽 행랑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집사자(執事者)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서남쪽 행랑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동쪽을 위로하고, 감찰(監察)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한다. 【서리(書吏)는 그 뒤에서 모신다.】 집례(執禮)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를 남쪽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설치하는데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만약 안뜰이 협착하면 찬자(贊者)의 자리는 바깥 뜰의 동계(東階)의 서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한다.】 종친과 문무 백관들의 자리를 외정(外庭)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서고 무관은 서쪽에 서게 하고, 모두 매 등급마다 자리는 다르게 하고 겹줄로 북향하여 서로 마주보고 머리로 하게 한다. 【종친은 매 품등(品等)마다 반열 머리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는데, 대군(大君)은 특별히 자리를 정1품의 앞에 설치한다.】 감찰자리 둘을 문무관의 반열 뒤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서리(書吏)는

〔詹〕事院請齋戒三日。獻官諸執事及從官應從升者，竝致齋二日於本司，一日於享所；宗親文武百官及諸衛之屬守衛殿門者，各清齋一宿。前一日，殿司帥其屬，〔揚〕〔掃〕除殿之內外。王世子具深染灰色衣、烏紗帽、黑角帶、白靴，出宮乘輦，導從如儀，至殿門外降輦。左中護引王世子就齋室，侍衛如常。執禮設王世子位於殿東廊，西向；設亞獻官終獻官位於王世子位之後近南，西向北上；設內大君諸君位陪祭位於神門之東南廊，北向西上；執事者位於神門之西南廊，北向東上；監察位於其西；【書吏陪其後。】執禮位於東階之西，西向；謁者贊者贊引在南差退，俱西向北上；【若內庭狹窄，則設贊者位於外庭東階之西西向。】設宗親文武百官位於外庭，文東武西，俱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宗親，每品班頭別設位；大君，特設位於正一品之前。】設監察位二於文武班後，北向。【書吏各陪其後。】享日未行事前，宮圍令整拂靈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右，【有玷。】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

각각 그 뒤에서 모신다.】 향례일(享禮日) 행사하기 전에 궁위령(宮闈令)이 영악(靈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드린다.【집(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를 준소(尊所)에 진설(陳設)하고 향로·향합과 축(燭)을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제찬(祭饌)을 담은 기구를 설치하고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되 계이(鷄彝) 1개,【명수(明水)를 채운다.】 조이(鳥彝) 1개,【울창(鬱鬯)을 채운다.】 희준(犧尊) 2개,【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 상준(象尊) 2개【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양제(盎齊)를 채운다.】 로서 석 줄로 하고,【첫 줄은 계이(鷄彝)와 조이(鳥彝)요, 둘째 줄은 희준(犧尊)이요, 셋째 줄은 상준(象尊)이다.】 모두 구기[勺]과 잔보[冪]를 얹어 두고 북쪽을 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무릇 준(尊)에 명수(明水)를 채운 것을 위로 한다.】 찬반(瓚盤) 1개를 준소(尊所)에 설치하고, 세(洗)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뇌(鼎)는 세(洗)의 동쪽에 있는데 구기[勺]를 얹어 두고, 광주리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는데 수건을 담아 둔다.【만약 술잔을 씻는 광주리라면 또 찬(瓚) 1개와 작(爵) 1개를 담아 둔다.】 아헌관과 종헌관의 세(洗)도 또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뇌(鼎)는 세(洗)의 동쪽에 있는데 작(爵)을 얹어 두고, 광주리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는데 수건을 담아둔다.【만약 작(爵)을 씻는 광주리라면 또 작(爵) 2개를 담아둔다.】 여러 집사들이 관세(盥洗)를 아헌관·종헌관의 세(洗)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향례일(享禮日) 축시(丑時) 전 5각(刻)에【3경(更) 3점(點)을 고쳐서, 행사(行事)할 적에는 축시(丑時) 1각(刻)을 사용한다.】 궁위령이 영악(靈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雞彝一【實明水。】、鳥彝一【實鬱鬯。】、犧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象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爲三行，【第一行鷄彝鳥彝，第二行犧尊，第三行象尊。】皆加勺冪，北向西上。【凡尊，實明水爲上。】設瓚盤一於尊所；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篚在洗東加勺，壘在洗西南肆，實以巾；【若洗爵則又實以瓚一爵一】亞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篚在洗東加爵，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洗爵之則又實以爵二。】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享日丑前五刻，【改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宮闈令整拂靈幄，典祀官殿司帥其屬入，實饌具畢，贊引引監察升自東階，點視陳設。前二刻，宗親及百官皆就門外；前一刻，亞獻官以下諸執事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四拜訖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執禮曰：“四拜。”

제찬(祭饌)을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찬인(贊引)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진설(陳設)한 것을 날날이 보살핀다. 행사 전 2각(刻)에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문밖으로 나아간다. 행사 전 1각(刻)에 아헌관 이하의 여러 집사(執事)들이 모두 전문(殿門) 밖으로 나아간다. 집례(執禮)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典祀官)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서게 한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唱)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를 하고, 이를 마치면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宮闈令)이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고 나와서 자리에 설치하고, 청저건(靑苧巾)으로써 이를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찬(瓚)을 씻고 찬을 수건에 닦으며 작(爵)을 씻고 작을 수건에 닦아서, 광주리에 두고 받들어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점(坫) 위에 둔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재실(齋室) 앞에 나아가서 끓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찬(贊)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나온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종관(從官)과 익위(翊衛)가 따라 들어온다.】 집례가 ‘사배, 곡(哭)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 곡(哭)하라.’고 찬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아헌관·종헌관과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하는데,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부지통례가 ‘곡지(哭止), 흥, 평신하라.’고 찬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謁者引亞終獻官入就位。宮闈令開匱，奉出神主，設於座，覆以靑苧巾，設几於後。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副知通禮進齋室前跪，贊請行禮，王世子出，副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從官、翊衛，從入。】執禮曰：“四拜哭。”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哭，王世子鞠躬四拜哭盡哀。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贊者亦唱，先拜者不拜。】副知通禮贊請哭止興平身，王世子哭止興平身。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贊者亦唱。】副知通禮引王世子詣盥洗位北向立，翊衛一人跪取匱興沃水，又一人跪取盤承水，王世子盥水，翊衛跪取巾於篚以進，王世子挽手訖，翊衛受巾奠於篚。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從官、翊衛，從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鬱鬯，從者以瓚受酒。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靈座前北向立，贊請跪，從官一人奉香合

한다. 아헌관·중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찬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익위(翊衛) 1인은 꿇어앉아 대야를 가져와서 일어나 물을 붓고, 또 1인은 꿇어앉아 반(盤)을 가져와서 물을 받는다. 왕세자가 물에 손을 씻으면 익위(翊衛)가 꿇어앉아 광주리에서 수건을 가져와서 드리고 왕세자가 수건으로 손을 닦는다. 이를 마치면 익위(翊衛)가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놓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종관(從官)과 익위(翊衛)가 따라 오른다.】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준(尊)을 잡은 사람이 보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종자(從者)가 찬(瓚)으로써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하여 청하면, 종관(從官) 1인을 향합을 받들고 꿇어앉아 드리고, 또 1인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드린다. 부지통례가 세 번 향불을 피우기를 찬하여 청하고 종관이 향로를 제상(祭床)에 드린다. 종관이 찬(瓚)을 꿇어앉아 드리고, 부지통례가 찬(瓚)을 잡아 땅에 술을 적시기를 찬하여 청한다. 이를 마치면 찬(瓚)을 종관에게 주고, 종관이 대축(大祝)에게 준다. 종관이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 드리면 부지통례가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기를 찬하여 청하고, 폐백을 종관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올리고 찬(瓚)을 올리고 폐백을 올릴 적에는 모두 동쪽에 있어 서향하게 하고, 향로를 드리고 찬(瓚)을 받고 폐백을 드릴 적에는 모두 서쪽에 있어 동향하게 한다. 작(爵)을 올리고 작(爵)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부지통례가 ‘부복, 흥, 평신하라.’고 찬하여 청하고, 인도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후에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준(尊)을 잡은 사람이 보를 들고 예제(醴齊)를 따르면 종관이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하

跪進，又一人奉香爐跪進，副知通禮贊請三上香，從官奠爐于案。從官以瓚跪進，副知通禮贊請執瓚灌地訖，以瓚授從官，從官以授大祝。從官以幣篚跪進，副知通禮贊請執幣獻幣，以幣授從官，奠于靈座前。【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引降復位。少頃，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鬯酌醴齊，從官以爵受酒。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靈座前北向立，贊請跪，從官以爵跪進，副知通禮贊請執爵獻爵，以爵授從官，奠于靈座前，【有坫。】副知通禮贊請俯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引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帨手訖，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鬯酌盞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有坫。】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謁者引終獻

여 청하고, 종관이 작(爵)을 꿰어앉아 올린다. 부지통례가 작을 잡아 작(爵)을 드리기를 찬하여 청하고, 작(爵)을 종관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점(站)이 있다.】 부지통례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가서 북향하여 꿰어앉기를 찬하여 청하고, 대축(大祝)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꿰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부지통례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여 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온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준(尊)을 잡은 사람이 보를 들고 양제(盥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꿰어앉기를 알리고, 집사자가 작(爵)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爵)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점(站)이 있다.】 알자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기를 알리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온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관이 행한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례가 ‘사배, 곡(哭)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 곡(哭)하라.’고 찬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아헌관·종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한다.】 부지통례가 ‘곡지, 흥, 평신하라.’고 찬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종헌관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로 돌아오고, 알자가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典祀官)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에 돌아온다. 집례가 ‘사배(四

官行禮如亞獻儀訖，引降復位。執禮曰：“四拜哭。”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哭，王世子鞠躬四拜哭盡哀。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贊者亦唱。】副知通禮贊請哭止興平身，王世子哭止興平身。亞終獻官及宗親百官同。【贊者亦唱。】副知通禮贊請哭止興平身，王世子哭止興平身。亞獻官及宗親百官同。【贊者〔亦唱。〕】副知通禮引王世子還齋室，謁者引亞終獻官出，奉禮郎分引宗親文武百官以次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宮闈令納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大祝奉祝幣(瘞)〔瘞〕於坎。攸司進無楊赤色黑衣，王世子改服，乘輦還宮如來儀。亞終獻官【內大君諸君。】執禮一【從三品。】、大祝一【文官四品。】、宮闈令一【內侍府六品。】、謁者一【奉禮郎。】、贊者二【通贊。】、贊引·祝史·齋郎各一【皆參外。】、執尊者二【六品

拜)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창(唱)하면, 감찰 이하 제관(祭官)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궁위령이 신주(神主)를 들여놓기를 의식대로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대축(大祝)이 축문과 폐백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유사(攸司)가 문채 없는 적색 흑의[無楊赤色黑衣]를 올리면, 왕세자가 옷을 바꾸어 입고 연(輦)을 타고 궁에 돌아오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아헌관·종헌관, 【내대군(內大君), 제군(諸君).】·집례(執禮) 1명, 【중3품.】 대축(大祝) 1명, 【문관(文官) 4품.】 궁위령(宮闈令) 1명, 【내시부(內侍府) 6품.】 알자(謁者) 1명, 【봉례랑(奉禮郎).】 찬자(贊者) 2명, 【통찬(通贊).】 찬인(贊引)·축사(祝史)·재랑(齋郎) 각 1명, 【모두 참외(參外).】 집준자(執尊者) 2명, 【6품 1명, 참외(參外) 1명.】 작세(爵洗)와 관세(盥洗)가 각 1명, 【모두 6품.】 아헌관·종헌관의 관세 1명, 【참외(參外).】 종관(從官) 4명, 【첨사(詹事)와 서연관(書筵官).】 익위(翊衛) 2명, 부지통례 1명, 감찰(監察) 1명이고, 제문(祭文)의 법식은 우제(虞祭)와 졸곡제(卒哭祭)와 같다.”

하였다. 영릉(英陵)의 담제의(禫祭儀)는,
“헌관(獻官)·수릉관(守陵官)과 여러 집사들이 각기 그 제복을 입고 모두 홍문(紅門) 밖에 나아간다. 시각이 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배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전사관(典祀官)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과 수릉관(守陵官)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자가 ‘사배, 곡(哭)하라.’ 말하면, 헌관과 수릉관·전사관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는데,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를 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

一、參外一。】、爵洗·盥洗各一【皆六品。】亞終獻官盥洗一【參外。】從官四【詹事及書筵官。】翊衛二、副知通禮一、監察一。祭文式、與虞卒哭祭同。”

英陵禫祭儀：“獻官、守陵官及諸執事各服其服，俱就紅門外。時至，謁者、贊者先就拜位四拜訖，各就位。謁者引監察、典祀官及諸執事入就位四拜訖，謁者引獻官及守陵官入就位。贊者曰：“四拜哭。”獻官及守陵官、典祀官鞠躬四拜哭盡哀。【先拜者不拜。】謁者引獻官詣盥洗位盥洗訖，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事者酌酒。謁者引獻官詣靈座前北向跪，三上香，獻爵奠爵，俯伏興小退跪。大祝讀祝訖，獻官俯伏興平身，引降復位。少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酌酒，詣靈座前獻爵奠爵，俯伏興平身，引降復位。少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訖，引降復位。贊者曰：“四拜哭。”獻官及守陵官、典祀官四拜哭盡哀，哭止興平身。謁者引獻官出，守陵官及典祀官亦以次出。謁者引監察及諸執事俱復拜位，

	<p>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사자가 술을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세 번 향불을 피우게 하고, 작(爵)을 올려 작을 드리게 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꿇어앉게 한다. 대축(大祝)이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헌관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는데,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술을 따루어 영좌 앞에 나아가서 작(爵)을 올려 작(爵)을 드리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하고는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관이 행한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사배, 곡(哭)하라.’ 말하면, 헌관과 수릉관·전사관이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곡을 그치고는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수릉관과 전사관도 또한 차례대로 나간다.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에 돌아와서 찬자가 ‘사배하라.’고 창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이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감찰 이하의 제관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알자와 찬자가 배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제문의 법식은 사시 대향(四時大享)과 같이 한다.”</p> <p>하였다.</p>	<p>贊者唱四拜，監察以下四拜訖，謁者引監察以下以次出，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 祭文式，與四時大享同。”</p>
<p>16. 世宗 115卷, 29年 (1447 丁卯 / 명 정통 (正統) 12年) 3月 16日(戊寅) 3번째기사 전 병조 좌랑 조휘를 대마도에 보내고, 예조</p>	<p>전 병조 좌랑 조휘(曹彙)를 대마도(對馬島)에 보냈다. 예조 참의 이선제(李先齊)가 종정성(宗貞盛)에게 서신을 보내기를, “족하(足下)가 능히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여 성심으로 귀순(歸順)하여 오래 되어도 게으르지 않으니, 우리 전하께서 매우 이를 가상하게 여겨 관원을 보내어 주찬(酒饌)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고, 또 족하가 재앙을 만났단 말을 들으시고는 특별히 미두(米豆)·포화(布貨) 등 물건을 내리니, 별폭(別幅)에</p>	<p>遣前兵曹佐郎曹彙于對馬島。 禮曹參議李先齊致書宗貞盛曰： 足下能繼父志， 誠心効順， 久而不懈， 我殿下深嘉之， 遣官齋酒饌勞慰。 且聞足下遇災， 特賜米豆布貨等物， 具在別幅。 燒酒三十瓶、清酒一百瓶、桂</p>

<p>참의 이선제가 종정성에게 서신을 보냈다.</p>	<p>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소주(燒酒) 30병, 청주 1백 병, 계다식(桂茶食)·소병(燒餅) 각 2각(角), 청밀(淸蜜) 5두(斗), 천아(天鵝) 5척(隻), 건대구어(乾大口魚) 2백 미(尾), 부어(鮒魚) 50미, 청어(靑魚) 20미, 송자(松子) 2석, 건시(乾柿) 50첩(貼), 백미(白米) 3석, 점백매(粘白米) 3석, 교맥미(蕎麥米) 각 2석, 소두(小豆) 1석, 맥말(麥末) 2석을 내리고, 특별히 백세면주(白細絺紬)·백세면포(白細絺布) 각 10필과 백세저포(白細苧布)·흑세마포(黑細麻布) 각 5필과 조미(糙米) 1백 석, 황두(黃豆) 50석을 내리노라.”</p> <p>하였는데, 지난해에 종정성(宗貞盛)의 집에서 불이 난 까닭으로 재앙을 만났다고 한 것이었다.</p>	<p>茶食。 燒餅各二角、淸蜜五斗、天鵝五隻、乾大口魚二百尾、鮒魚四百尾、鯉魚五十尾、靑魚二千尾、松子二石、乾柿五十貼、白米三石、粘白米。 蕎麥米各二石、小豆一石、麥末二石。</p> <p>特賜白細絺紬。 白細絺布各十匹、白細苧布。 黑細麻布各五匹、糙米一百石、黃豆五十石。 去年貞盛家火，故云遇災。</p>
<p>17. 세종 115권, 29년 (1447 정묘 / 명 정통(正統) 12년) 3월 22일(갑신) 2번째기사 휘덕전의 기년 후의 사시 대향과 납향, 삭망과 유명일의 별제에서의 왕세자의 행례 의식과 관원의 행례 의식</p>	<p>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p> <p>“소헌 왕후(昭憲王后)의 휘덕전(輝德殿) 담제(禫祭) 후의 사시 납향(四時臘享)과 속절 별제(俗節別祭)의 음악을 사용할 때 초헌(初獻)의 악장(樂章)은 덕행을 기록하여 찬술하고, 아헌악(亞獻樂)과 종헌악(終獻樂)은 문소전(文昭殿)의 태조실(太祖室)에 사용하되, 아헌에는 유험곡(維皇曲)을 아뢰고, 종헌에는 동방곡(東方曲)을 아뢰기를 청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초헌(初獻)의 악장(樂章)에는,</p> <p>“엄숙한 왕후는 땅과 같이 후한 덕을 가졌었다. 내정(內庭)의 가르침을 크게 밝혀서 덕화가 나라에 나타났었다. 자손들이 번성하매 장구히 그 상서를 나타내었다. 만년(萬年)이나 되도록 그 광채가 빛나지 않겠는가.”</p> <p>하였다. 또 휘덕전(輝德殿)의 기년(期年) 후의 사시 대향(四時大享)과 납향(臘享)에 왕세자가 행례(行禮)하는 의식을 아뢰기를,</p> <p>“향례(享禮) 전 3일에 첨사원(詹事院)에서 재계하기를 청하면, 왕세자가 별실(別室)에서 2일 동안을 산재(散齋)하고 재실(齋室)에서 1일 동안을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할 적엔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p>	<p>議政府據禮曹呈啓：“昭憲王后輝德殿禫後四時臘享俗節別祭用樂時，初獻樂章，記德撰述；亞終獻樂用文昭殿太祖室，亞獻《維皇曲》、終獻《靖東方曲》。”從之。其初獻樂章曰：“思齊王后，坤元厚德。丕闡內教，化形于國。螽斯麟趾，長發其祥。於萬斯年，丕顯其光!”又啓輝德殿期年後四時大享及臘享王世子行禮儀：</p> <p>前享三日，詹事院請齊戒，王世子散齊二日於別室，致齊一日於齋室。凡散齊，不弔喪問疾，不聽樂，有司不申刑殺文書；致齊，唯申享事。凡獻官諸執事及從官應從升者，竝散齊二日，致齊一日於享所。凡散齊，治事如故，</p>

지 아니하고 유사(有司)는 형살 문서를 품신(稟申)하지 아니하며 다만 향례(享禮)에 관한 일만 품신한다. 무릇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들과 종관(從官)으로 마땅히 따라서 행사할 사람은 모두 2일 동안을 산재하고, 1일 동안을 향소(享所)에서 치재한다. 무릇 산재할 적엔 일을 처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나, 다만 술을 마음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고,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에 판결 서명(署名)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치재할 적엔 다만 향례에 관한 일만 행할 뿐이다. 이미 재계했는데도 빠진 사람은 통섭(通攝)하여 행사(行事)한다. 여러 종관(從官)들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사람과 공인(工人)은 모두 청재(淸齋)로써 하룻밤을 유숙(留宿)한다. 【향관(享官) 이하의 무릇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향례(享禮)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담제(禫祭) 전에는 공인(工人)은 없다. 】

향례(享禮) 전 1일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왕세자가 궁(宮)에서 나와 연(輦)을 타면 인도 시종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전문(殿門) 밖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리면 좌중호(左中護)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에 나아가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악(典樂)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악부(樂部) 둘을 전계(殿階) 위와 뜰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담제(禫祭) 전에는 음악은 없다. 】 집례(執禮)가 왕세자의 자리를 동쪽 행랑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종헌관의 자리를 왕세자의 자리 뒤에 남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집사자(執事者)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서남쪽 행랑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동쪽을 위로 하고, 감찰(監察)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모신다. 】 집례(執禮)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그 남쪽에 조금 뒤로 물려서 설치하되 모두

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諸從官諸衛之屬守衛殿門者及工人，俱淸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前無工人。】前享一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王世子出宮乘輦，導從如儀，至殿門外降輦。左中護引王世子就齋室，侍衛如常。典樂帥其屬，設樂部二於殿階上及庭，俱北向。【前無樂。】執禮設王世子位於東廊，西向；設亞獻官、終獻官位於王世子位之後近南，西向北上；設執事者位於神門之西南廊，北向東上；監察位於其西；【書吏陪其後。】設執禮位於東階之西，西向；謁者、贊者、贊引在南差退，俱西向北上；設典樂位二於樂部之北，俱北向。【前無樂。】享日未行事前，宮闈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坩。】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春夏鷄彝一【實明水。】鳥彝一【實鬱鬯。】、犧尊二【一實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전악(典樂)의 자리 둘을 악부(樂部)의 북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담제(禫祭) 전에는 음악이 없다.】 향례일(享禮日) 행사하기 전에 궁위령(宮闈令)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을 신위의 오른쪽에 드리고, 【점(坫)이 있다.】 폐비(幣篚)를 준소(尊所)에 베풀고, 향로·향합과 초[燭]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제찬(祭饌)을 담은 기구를 설치하고, 준(尊)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되, 봄·여름에는 계이(鷄彝) 1개, 【명수(明水)로 채운다.】 조이(鳥彝) 1개, 【울창(鬱鬯)을 채운다.】 희준(犧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 상준(象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앙제(盎齊)를 채운다.】 산뢰(山罍) 2개로써 【1개는 청주(淸酒)를 채우고, 1개는 현주(玄酒)를 채운다.】 넉 줄로 하고, 【첫째 줄에는 계이(鷄彝)·조이(鳥彝)요, 둘째 줄에는 희준(犧尊)이요, 셋째 줄에는 상준(象尊)이요, 네째 줄에는 산뢰(山罍)이다.】 모두 작(勺)과 먹(鬯)을 얹어 두고 북향하게 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무릇 준(尊)에 명수(明水)를 채운 것이 위가 된다.】 찬반 1개를 준소에 설치하고 또 복주작(福酒爵)을 설치한다. 【점(坫)이 있다.】 세(洗)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는데, 반이(盤匱)가 있다.】 뇌(甃)는 세(洗)의 동쪽에 있는데 구기[勺]을 얹어 두고, 광주리[篚]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는데 수건을 담아 둔다. 【만약 작세(爵洗)의 광주리라면 또 찬(瓚) 1개와 작(爵) 1개를 담아 둔다.】 아헌관·중헌관의 세(洗)는 또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뇌(甃)는 세(洗)의 동쪽에 있는데 구기를 얹어 두고, 광주리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는데 수건을 담아 두고, 【만약 작세(爵洗)의 광주리라면 또 작(爵) 2개를 담아 둔다.】 여러 집사(執事)의 관세(盥洗)를 아헌관·중헌관의 세(洗)의 동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明水, 一實醴齊。】、象尊二【一實明水, 一實盎齊。】、山罍二【一實淸酒, 一實玄酒。】爲四行;【第一行鷄彝、鳥彝, 第二行犧尊, 第三行象尊, 第四行山。】 秋冬及臘, 罍彝一【實明水。】、黃彝一【實鬱鬯。】、著尊二【一實明水, 一實醴齊。】、壺尊二【一實明水, 一實盎齊。】、山罍二【一實玄酒, 一實淸酒。】爲四行, 【第一行罍彝, 第二行著尊, 第三行壺尊, 第四行山罍。】皆加勺鬯, 北向西上;【凡尊, 實明水爲上。】 設瓚槃一於尊所, 又設福酒爵;【有坫。】 設洗於東階東南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 有槃匱。】 篚在洗東加勺, 篚在洗西南肆, 實以巾;【若 爵洗之則又實以瓚一爵一】 亞終獻洗, 又於東南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 罍在洗東加勺, 篚在洗西南肆, 實以巾;【若爵洗之, 則又實以爵二。】 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 享日丑前五刻, 【丑前五刻, 卽三更三點, 行事用丑時一刻。】 宮闈令整拂神幄,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寶) [實] 饌具畢, 贊引引監察升自東階, 點視陳設。 前一

향례일(享禮日)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축시(丑時) 전 5각(刻)은 곧 3경 3점(三更三點)인데, 행사(行事)는 축시 1각(刻)을 사용한다.】 궁위령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祭饌)을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진설한 것을 날낱이 보살핀다. 향례(享禮) 전 1각(刻)에 아헌관·중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제복(祭服)을 갖추어 입고 모두 전문(殿門) 밖으로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되,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殿庭)의 배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선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唱)하면, 【무릇 집례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전하여 창(唱)한다.】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아헌관과 중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이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고 나와서 영좌(靈座)에 설치하고 청색 저건(苧巾)을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관세위에 나아가서 찬(瓚)을 씻고 찬을 수건에 닦으며, 작(爵)을 씻고 작을 수건에 닦아서 광주리에 담아, 받들어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점(坫) 위에 둔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재실(齋室)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행례하기를 찬(贊)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제복(祭服)을 갖추어 입고 나온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종관(從官)과 익위(翊衛)가 따라 들어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찬(贊)하여 청하면, 왕

刻, 亞終獻官及諸執事具服, 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 先就庭殿拜位, 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典樂帥工人入就位, 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 入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立定, 執禮曰: ‘四拜。’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唱。】 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 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 訖各就位, 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宮闈令開匱, 捧出神主, 設於座, 覆以青苧巾, 設几於後。執事者詣盥洗位, 洗瓚拭瓚, 洗爵拭爵, 置於筐, 捧詣尊所, 置於坫上。副知通禮進齋室前跪, 贊請行禮, 王世子具服以出, 副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 【從官、翊衛從入。】 執禮曰: ‘四拜。’ 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 王世子鞠躬【樂作殿庭樂。】 四拜興平身。【樂止。】 亞終獻官同。【贊者亦唱。先拜者不拜。】 執禮曰: ‘贊請行禮。’ 副知通禮白: ‘有司謹具請行事。’ 執禮曰: ‘行奠幣禮。’ 副知通禮引王世子詣盥洗位北向立, 翊衛一人跪取匱興沃水, 又一人跪取槃承水, 王

세자가 몸을 굽히는데, 음악이 시작된다. 【전정악(殿庭樂)이다.】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음악이 그친다. 아헌관과 종헌관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집례가 ‘행례(行禮)하기를 찬(贊)하여 청한다.’ 말하고, 부지통례가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어 행사하기를 청한다.’고 아뢴다. 집례가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라.’고 말하면,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익위(翊衛) 1인은 꿇어앉아 대야를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또 1인은 꿇어앉아 반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왕세자가 물에 손을 씻으면, 익위(翊衛)가 광주리에 수건을 가져다 바치고, 왕세자가 수건에 손을 닦는다. 이를 마치면, 익위가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 놓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종관(從官)과 익위(翊衛)가 따라 오른다.】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상악(殿上樂).】 준(尊)을 잡은 사람이 먹(罍)을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종관(從官)이 찬(瓚)으로써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贊)하여 청하면, 종관(從官) 1인은 향합을 받들고, 또 1인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바친다. 부지통례가 세 번 향불을 피우기를 찬(贊)하여 청하고, 종관이 찬(瓚)을 꿇어앉아 바치면, 부지통례가 찬을 잡아서 땅에 술을 적시기를 찬(贊)하여 청하고, 이를 마치면 찬(瓚)을 종관에게 주고, 종관이 받아서 대축(大祝)에게 준다. 종관이 폐비(幣篚)를 꿇어앉아 바치면, 부지통례가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기를 찬(贊)하여 청하고, 폐백을 종관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바치고 찬(瓚)을 바치고 폐백을 바칠 때에는 모두 동쪽에 있어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고 찬(瓚)을 받고 폐백을 드릴 때에는 모두 서쪽에 있어 동향하고, 작(爵)을 바치고 작(爵)을 드릴 적에도 이에 준한다.】 부지통례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贊)하여 청하고, 음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世子盥水，翊衛取巾於篚以進，王世子悅手訖，翊衛受巾，奠於匱。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從官，翊衛從升。】詣尊所西向立，【樂作殿上樂。】執尊者舉罍酌鬱鬯，從官以瓚受酒。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神位前北向立，贊請跪，從官一人捧香合，又一人捧香爐跪進，副知通禮贊請三上香，從官奠爐于案。從官以瓚跪進，副知通禮贊請執瓚灌地訖，以瓚授從官，從官受以授大祝。從官以幣篚跪進，副知通禮贊請執幣獻幣，以幣授從官，奠于神位前。【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樂止。】引降復位。小頃，執禮曰：‘行初獻禮。’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樂作【殿上樂。】執尊者舉罍酌醴齊，從官以爵受酒。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神位前北向立，贊請跪，從官以爵跪進，副知通禮贊請執爵獻爵，以爵授從官，奠于神位前，【有玷。】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

조금 후에 집례가 ‘초헌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상악(殿上樂).】 준(尊)을 잡은 사람이 떡(羶)을 들고 예제(醴齊)를 따르면, 종관이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贊)하여 청하면, 종관이 작(爵)을 꿇어앉아 바친다. 부지통례가 작을 잡아 작을 드리기를 찬(贊)하여 청하고, 작을 종관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점(坫)이 있다.】 부지통례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찬(贊)하여 청하면, 음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시작된다. 부지통례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贊)하여 청하면, 음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음악이 시작된다. 【전정악(殿庭樂).】 준(尊)을 잡은 사람이 떡(羶)을 들고 양제(盎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贊)하여 꿇어앉게 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爵)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점(坫)이 있다.】 알자가 찬(贊)하여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청하면, 음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중헌례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중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관이 행한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음복위(飲福位)를 앞 기둥 밖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대축(大祝)이 준소(尊

作, 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 樂止, 引降復位。 執禮曰: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 詣盥洗位北向立, 盥水洗手訖, 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樂作, 【殿庭樂。】 執尊者舉羶酌盎齊,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亞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 執事者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有坫。】 謁者贊俯伏興平身, 樂止, 引降復位。 執禮曰: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訖, 引降復位。 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 西向。 大祝詣尊所, 以爵酌豐福酒, 執禮曰: ‘副知通禮引王世子詣飲福位。’ 【禪前無飲福禮。】 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 詣飲福位西向立, 大祝以爵授從官, 從官捧爵北向跪進, 副知通禮贊請跪, 王世子跪, 副知通禮贊(謂) [請] 受爵, 王世子受爵飲卒爵, 從官受虛爵, 復於坫。 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 王世子俯伏興平身, 副知通禮引王世子降復位。 執禮曰: ‘四拜。’ 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 王世子鞠躬樂作, 【殿庭樂。】 四拜興平身。 樂止, 亞

所)에 나아가서 작(爵)으로써 뇌(鼎)의 복주(福酒)를 따른다. 집례가 말하기를,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음복위(飲福位)에 나아오라.'고 하면, 【담제(禫祭) 전에는 음복례(飲福禮)가 없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음복위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대축(大祝)이 작(爵)을 종관에게 주면, 종관이 작을 받들어 북향하여 꿇어앉아 바친다. 부지통례가 꿇어앉기를 찬(贊)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꿇어앉고, 부지통례가 작(爵)을 받기를 찬(贊)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작을 받아 마시고, 작을 비우면 종관이 빈 작(爵)을 받아 점(坫)에 도로 놓는다. 부지통례가 부복, 흥, 평신하기를 찬(贊)하여 청하면, 왕세자를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기를 찬(贊)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히고 음악이 시작된다. 【전악(殿庭樂).】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음악이 그친다. 아헌관·중헌관과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한다.】 부지통례가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로 돌아오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알자가 아헌관과 중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典祀官)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와서 서게 한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창(唱)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나가고, 궁위령이 신주(神主)를 들여놓기를 의식대로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대축이 축문과 폐백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왕세자가 연(輦)을 타고 궁에 돌아오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終獻官及在位者同。【贊者亦唱。】執禮曰：‘四拜。’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鞠躬樂作，【殿庭樂。】四拜興平身。樂止，亞終獻官同。【贊者亦唱。】副知通禮白禮畢，引王世子還齋室，侍衛如常。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典樂帥工人出，宮闈令納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撤禮饌，大祝捧祝幣瘞於坎。王世子乘輦還宮如來儀。亞獻官【從一品。】終獻官【正二品一。】執禮一【從三品。】大祝一【文官四品。】宮闈令一【內侍府六品。】謁者一【奉禮。】贊者一【通贊。】贊引一、祝史一、齋郎一【竝參外。】執尊者二【六品一、參外一。】爵洗一【六品。】盥洗一【六品。】亞終獻盥洗一【參外。】從官四【詹事院書筵官。】翊衛二、副知通禮一、監察一。

아헌관(亞獻官) 【종1품(從一品). 】·종헌관(終獻官) 【정2품(正二品). 】·집례(執禮) 1인, 【종3품. 】 대축(大祝) 1인, 【문관 4품. 】 궁위령(宮闈令) 【내시부(內侍府)의 6품. 】 1인, 알자(謁者) 【봉례(奉禮). 】 1인, 찬자(贊者) 【통찬(通贊). 】 찬인(贊引) 1인, 축사(祝史) 1인, 재랑(齋郎) 1인, 【모두 참외(參外). 】 집준자(執尊者) 2인, 【6품 1인, 참외(參外) 1인. 】 작세(爵洗) 【6품. 】 1인, 관세(盥洗) 【6품. 】 1인, 아헌관·종헌관의 관세(盥洗) 1인, 【참외(參外). 】 종관(從官) 4인, 【첨사 원(詹事院)·서연관(書筵官). 】 익위(翊衛) 2인, 부지통례 1인, 감찰 1인이다.”

하였고, 관원을 보내어 행례하는 의식[遣官行禮儀]은,

“향례(享禮) 전 3일에 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모두 2일 동안을 산재(散齋)하고, 1일 동안을 향소(享所)에서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할 때에는 일을 처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나, 다만 술을 마음대로 마시지 아니하고, 과·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고,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에 판결 서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치재할 때에는 다만 향례(享禮)에 관한 일을 행할 뿐이다. 이미 재계했는데도 빠진 사람은 통섭(通攝)하여 행사(行事)한다.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사람과 공인(工人)은 모두 청재(淸齋)하고 하루를 유숙한다. 【향관(享官) 이하의 제사에 참여할 사람은 모두 향례(享禮)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담제(禫祭) 전에는 음악이 없다. 】 향례(享禮)하기 전 1일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전악(典樂)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악부(樂部) 둘을 전개(殿階)위와 뜰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담제(禫祭) 전에는 음악이 없다. 】 집사가 헌관의 자리를 동쪽 행랑의 남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동남 행랑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감찰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遣官行禮儀:

前享三日，獻官諸執事竝散齋二日，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守衛殿門者及工人，俱淸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禫前無樂。】前享一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典樂帥其屬，設樂部二於殿階上及庭，俱北向。【禫前無樂。】執事設獻官位於東廊近南，西向北上；設執事者位於神門之東南廊，北向西上；監察位於其西；【書吏陪其後。】謁者、贊者、贊引位於東階之西，俱西向北上；設樂位二於樂部之北，俱北向。【禫前則不設樂。】享日未行事前，宮闈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玷。】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春夏鷄彝一【實明水。】鳥彝一【實鬱鬯。】犧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象尊二【一實明水，一實

모신다.】알자·찬자·찬인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하며, 악위(樂位) 둘을 악부(樂部)의 북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담제(禫祭) 전에는 음악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향례일(享禮日) 행사하기 전에 궁위령(宮闈令)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드리고【점(坫)이 있다.】폐비(幣篋)를 준소(尊所)에 진설하며, 향로·향합·초[燭]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제찬(祭饌) 담을 기구를 설치하며,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봄·여름에는 계이(鷄彝) 1개,【명수(明水)를 채운다.】조이(鳥彝) 1개,【울창(鬱鬯)을 채운다.】희준(犧尊) 2개,【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상준(象尊) 2개,【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양제(盎祭)를 채운다.】산뢰(山罍) 2개로써【1개는 현주(玄酒)를 채우고, 1개는 청주(淸酒)를 채운다.】넉 줄로 하고,【첫째 줄은 계이(鷄彝)·조이(鳥彝)요, 둘째 줄은 희준(犧尊)이요, 세째 줄은 상준(象尊)이요, 네째 줄은 산뢰(山罍)이다.】가을·겨울과 납일(臘日)에는 가이(鬯彝) 1개,【명수(明水)를 채운다.】황이(黃彝) 1개,【울창(鬱鬯)을 채운다.】작준(著尊) 2개,【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호준(壺尊) 2개,【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양제(盎祭)를 채운다.】산뢰(山罍) 2개로써【1개는 현주(玄酒)를 채우고, 1개는 청주(淸酒)를 채운다.】넉 줄로 하고,【첫째 줄은 가이(鬯彝)·황이(黃彝)요, 둘째 줄은 작준(著尊)이요, 세째 줄은 호준(壺尊)이요, 네째 줄은 산뢰(山罍)이다.】모두 구기와 잔보를 엮어 두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무릇 준(尊)에는 명수(明水)를 채우는 것이 위가 된다.】찬반(瓚槃)을 준소에 설치하고, 또 복주작(福酒爵)을 설치하고,【점(坫)이 있다.】세(洗)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뇌(罍)는 세(洗)의 동쪽에 있는데 구기를 없

盎齊。】山罍二【一實玄酒， 一實淸酒。】爲四行；【第一行鷄彝鳥彝， 第二行犧尊， 第三行象尊， 第四行山。】秋冬及臘， 鬯彝一【實明水。】黃彝一【實鬱鬯。】著尊二【一實明水， 一實醴齊。】壺尊二【一實明水， 一實盎齊。】山罍二【一實玄酒， 一實淸酒。】爲四行，【第一行鬯彝黃彝， 第二行著尊， 第三行壺尊， 第四行山罍。】皆加勺， 北向西上；【凡尊， 實明水爲上。】設瓚槃於尊所， 又設福酒爵；【有坫。】設洗於東階東南， 北向；【盥洗在東， 爵洗在西。】罍在洗東加勺， 篋在洗西南肆， 實以巾；【若爵洗之， 則又實以瓚一爵三。】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東南， 北向。 享日丑前五刻，【丑前五刻， 卽三更三點， 行事丑時一刻。】宮闈令整拂神幄，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實饌具畢， 贊引引監察升自東階， 點視陳設。 前一刻， 獻官及諸執事具祭服，【禫前著禫服。】皆就殿門外。 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 典樂帥工人入就位； 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

어 두고, 광주리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는데 수건을 담아 둔다. 【만약 작세(爵洗)의 광주리라면 또 찬(瓚) 1개, 작(爵) 3개를 담아 둔다.】 여러 집사들의 관세를 헌관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향례일(享禮日) 축시(丑時) 전 5각에 【축시(丑時) 전 5각(刻)은 곧 3경 3점인데, 행사는 축시 1각에 한다.】 궁위령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각각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祭饌)을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진설한 것을 날뉘이 보살핀다. 향례(享禮) 전 1각(刻)에 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제복(祭服)을 갖추어 입고 【담제(禫祭) 전에는 담제복(禫祭服)을 입는다.】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서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典祀官)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殿庭)의 배위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서게 한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창(唱)하면, 【무릇 집례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전하여 창(唱)한다.】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관세(盥洗)를 하고, 이를 마치면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이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고 나와서 영좌(靈座)에 설치하고 청색 저건(苧巾)으로써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작세위에 나아가서 찬(瓚)을 씻고 찬을 수건에 닦으며, 작(爵)을 씻고 작을 수건에 닦아서 광주리에 담아, 받들어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점(坫) 위에 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창(唱)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네

重行北向西上。 立定，執禮曰：“四拜。”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凡執禮有辭，贊者皆傳唱。】 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 宮闈令開匱，捧出神主，設於座，覆以青苧巾，設几於後。 執事者詣爵洗泣，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筐，捧詣尊所，置於坫上。 謁者引獻官入就位，執禮曰：“四拜。”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獻官鞠躬四拜興平身。 【先拜者不拜。】 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 退復位。 執禮曰：“行奠幣禮。” 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水悅手訖，贊執笏，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樂作，【殿上樂。】 執尊者舉罍酌鬱鬯，執事者以瓚受酒。 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一人捧香合，又一人捧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 執事者以瓚授獻官，獻官執瓚灌地訖，以瓚授執事者。 大祝以幣篚授獻官，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神位前。 【凡捧香授瓚授幣，皆在西東向。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유사(有司)는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行事)하기를 청합니다.’고 아뢰고, 물러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례가 ‘진폐례(奠幣禮)를 행하라.’고 말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제복(祭服)의 띠에 꽂기를 찬(贊)하고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홀을 잡기를 찬한다.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상악(殿上樂).】 준(尊)을 잡은 사람이 잔보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집사자가 찬(瓚)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하며, 홀을 제복(祭服)의 띠에 꽂게 한다. 집사자 1인은 향함을 받들고, 또 1인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인도하여 세 번 향불을 피우게 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제상(祭床)에 드린다. 집사자가 찬(瓚)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찬을 잡아 땅에 술을 적시고, 이를 마치면 찬(瓚)을 집사자에게 준다. 대축(大祝)이 폐비(幣篚)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받들고 찬(瓚)을 주고 폐백을 줄 때에는 모두 동쪽에 있어 서향하게 하고, 향로를 드리고 찬(瓚)을 받고 폐백을 드릴 때에는 모두 서쪽에 있어 동향하게 한다. 작(爵)을 주고 작(爵)을 드릴 때에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홀(笏)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贊)하고, 음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집례가 ‘초헌례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상악(殿上樂).】 준(尊)을 잡은 사람이 먹(鬯)을 들고 예제(醴齊)를 따르고, 집사자가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笏)을 제복(祭服)의 띠에 꽂게 한

授爵奠爵準此。】謁者贊執笏俯伏興平身，樂止，引降復位。少頃，執禮曰：“行初獻禮。”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樂作，【殿上樂。】執尊者舉鬯酌醴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有坫。】謁者贊執笏俯伏興小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俯伏興平身，樂止，引降復位。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樂作，【殿庭樂。】執尊者舉鬯酌盞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有坫。】謁者贊俯伏興平身，樂止，引降復位。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訖，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尊所，以爵酌鬯福酒，執禮曰：“謁者引獻官詣飲福位。”【禪前無飲福位。】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飲福位

다. 집사자가 작(爵)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爵)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점(坫)이 있다.】 알자가 찬(贊)하여 홀(笏)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면, 음악이 그친다. 대축(大祝)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시작된다. 알자가 찬(贊)하여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하면, 음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아헌례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는데, 음악이 시작된다.【전상악(殿上樂).】 준(尊)을 잡은 사람이 떡(饔)을 들고 양제(盎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찬(贊)하여 홀(笏)을 제복(祭服)의 띠에 꽂게 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헌관에게 주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爵)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점(坫)이 있다.】 알자가 찬(贊)하여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하고, 음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중헌례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관이 행한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음복위(飲福位)를 앞 기둥 밖의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대축이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작(爵)으로써 뇌(鬯)의 복주(福酒)를 따른다. 집례가 말하기를,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飲福位)에 나오라.’고 하면,【담제(禫祭) 전에는 음복위가 없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홀(笏)을 제복(祭服)의 띠에 꽂게 한다. 대축(大祝)이 북향하여 꿇어앉아 작(爵)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받아 술을 마셔 비우고, 대축이 빈 작(爵)을 받아서 점(坫)에 도로 놓는다. 알자가 인도하여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西向立, 贊跪搢笏, 大祝北向跪, 以爵授獻官, 獻官受爵飲卒爵, 大祝受虛爵, 復於坫。謁者贊執笏俯伏興平身, 引降復位。執禮曰: “四拜。”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獻官鞠躬四拜興平身。在位者同。【贊者亦唱。】 執禮曰: “四拜。”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獻官鞠躬四拜興平身, 謁者引獻官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 俱復拜位。立定, 執禮曰: “四拜。”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 贊引以次引出。典樂帥工人出, 宮闈令納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 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 大祝捧祝幣瘞於坎。獻官一【一二品。】執禮一【四品。】大祝一【文官參外。】宮闈令一【內侍府六品。】謁者一、贊者一、贊引一、祝史一、齊郎一、執尊者一、爵洗一、盥洗一【竝參外。】監察一、祝文。【與期年內王世子行四時大享祭文同。規式, 與期年享後朔望及有名日別祭遣官行禮儀同。】

輝德殿期年後朔望及有名日別祭王世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창(唱)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자리에 있던 사람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한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창(唱)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典祀官)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서 서게 한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창(唱)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나가고, 궁위령이 신주(神主)를 들여놓기를 의식대로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대축(大祝)이 축문과 폐백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헌관(獻官) 1명, 【1, 2품.】 집례(執禮) 1명, 【4품.】 대축(大祝) 1명, 【문관의 참외(參外).】 궁위령(宮闈令) 1명, 【내시부(內侍府)의 6품.】 알자(謁者) 1명, 찬자(贊者) 1명, 찬인(贊引) 1명, 축사(祝史) 1명, 재랑(齋郎) 1명, 집준자(執尊者) 1명, 작세(爵洗) 1명, 관세(盥洗) 1명 【모두 참외(參外).】, 감찰(監察) 1명이요, 축문(祝文)이 있다. 【기년(期年)안에 왕세자가 사시 대향(四時大享)에 행하는 제문(祭文)과 같다. 규식(規式)은 기년 향례(享禮) 후의 삭망(朔望)과 유명일(有名日)의 별제(別祭)에 관원을 보내어 행례(行禮)하는 의식과 같다.】.”

하였다.

휘덕전(輝德殿)의 기년 후에 삭망과 유명일의 별제(別祭)에 왕세자가 행례하는 의식은,

“향례(享禮) 전 3일에 첨사원(詹事院)에서 재계하기를 청하면, 왕세자는 2일 동안을 별실(別室)에서 산재(散齋)하고, 1일 동안을 재실에서 치재한다. 무릇

子行禮(議) [儀] :
 前享三日，詹事院請齋戒，王世子散齋二日於別室，致齋一日於齋室。凡散齋，不弔喪問疾，不聽樂，有司不申刑殺文書；致齋，惟申享事。凡獻官諸執事及從官應從升者，竝散齋二日，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韭，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惟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諸從官諸衛之屬守衛殿門者及工人，【禪祭前與朔望則無工人。】俱(請) [清] 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前享二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王世子出宮乘輦，導從如儀，至殿門外降輦。左中護引王世子就齋室，(待) [侍] 衛如常。典樂帥其屬，設樂部二於殿階上及庭，俱北向。【禪前與朔望則不設樂。】執禮設王世子位於東廊，西向；設亞獻終獻官位於王世子位之後，近南，西向北上；設執事者位於神門之西南廊，北向東上；監察位於其西；【書吏陪其後。】設執禮位於東階之西，西向；謁者、贊者、贊引

산재할 때에는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유사(有司)가 형살 문서를 품신(稟申)하지 아니하며, 치재할 때에는 다만 향례(享禮)에 관한 일만 품신한다. 무릇 헌관 여러 집사들과 종관(從官) 중에 마땅히 따라 행사할 사람은 모두 2일 동안을 산재(散齋)하고, 1일 동안을 향소(享所)에서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할 때에는 일을 처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나, 다만 술을 마음대로 마시지 아니하고, 과·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고,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에 판결 서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치재할 때에는 다만 향례(享禮)에 관한 일만 행할 뿐이다. 이미 재계했는데도 빠진 사람은 행사를 처음에서 끝까지 한다. 여러 종관(從官)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사람과 공인(工人)은 【담제(禫祭) 전과 삭망(朔望)에는 공인(工人)은 없다.】 모두 깨끗이 재계하고 하루를 유숙한다. 【향관(享官) 이하의 무릇 제사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향례(享禮)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향례 전 2일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한다. 왕세자가 궁에서 나와 연(輦)을 타면, 인도 시종(侍從)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전문 밖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리던 좌중호(左中護)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에 나아오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악(典樂)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악부(樂部) 둘을 전계(殿階) 위와 전정(殿庭)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담제(禫祭) 전과 삭망(朔望)에는 음악을 설치하지 않는다.】 집례가 왕세자의 자리를 동쪽 행랑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종헌관의 자리를 왕세자 자리의 동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서남쪽 행랑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동쪽을 위로 하고, 감찰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모신다.】 집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설치하고,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를 남쪽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모두 서향하게 하되

(仕) [位] 南差退, 俱西向北上; 設典樂位二於樂部之北, 俱北向。 享日未行事前, 宮闈令整拂神幄。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奠祝版於神位之右; 【有坩。】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 置盞三於尊所, 又置福酒盞。 享日丑前五刻【丑前五刻, 卽三更三點。 行事用丑時一刻。】 宮闈令整拂神幄, 典祀官, 殿司各帥其屬入, 實饌具畢, 贊引引監察升自東階, 點視陳設。 前一刻, 亞終獻官及諸執事具服盥悅訖, 皆就殿門外。 執禮帥謁者、贊者、贊引, 先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 典樂帥工人入就位; 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 立定, 執禮曰: “四拜。”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唱。】 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 贊引引監察以下各就位, 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 宮闈令開幄, 捧出神主, 設於座, 覆以青苧巾, 設几於後。 副知通禮進齋室前跪, 贊請行禮, 王世子具服盥悅以出。 副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 【從官翊衛從入。】

북쪽을 위로 하고, 전악(典樂) 자리 둘을 악부(樂部)의 북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향례일(享禮日) 행사하기 전에 궁위령(宮闈令)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드리고, 【점(玷)이 있다.】 향로·향합과 초[燭]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제찬(祭饌)을 담은 기구를 설치하고,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잔(盞) 3개를 존소(尊所)에 두고, 또 복주잔(福酒盞)을 둔다. 향례일(享禮日) 축시(丑時) 전 5각에 【축시(丑時) 전 5각은 곧 3경 3점인데, 행사(行事)는 축시 전 1각을 사용한다.】 궁위령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祭饌)을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진설한 것을 날날이 보살핀다. 향례(享禮) 전 1각에 아헌관·중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제복(祭服)을 갖추어 입고 관세(盥帨)를 하고, 이를 마치면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고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典祀官)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殿庭)의 배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되 서쪽을 위로 하여 서게 한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창(唱)하면, 【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하여 창(唱)한다.】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아헌관과 중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이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고 나와서 영좌(靈座)에 설치하고, 청색 저건(苧巾)으로써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부지통례가

執禮曰：“四拜。”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鞠躬，樂作，【殿庭樂。】四拜興平身。樂止，亞終獻官同。【贊者亦唱。先拜者不拜。】執禮曰：“行初獻禮。”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樂作，【殿上樂。】執尊者酌酒，從官以盞受酒。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神位前北向立，贊請跪，從官一人捧香合跪進，又一人捧香爐跪進，副知通禮贊請三上香，從官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進盞奠盞，準此。】從官捧盞跪進，副知通禮贊請執盞獻盞，以盞授從官，奠于神位前，副知通禮贊請俯伏興小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樂止，引降復位。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樂作，【殿庭樂。】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平身，樂止，引降復位。執禮曰：“行終

재실(齋室)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행례하기를 찬(贊)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제복(祭服)을 갖추어 입고 관세(盥帨)를 하고 나가는데,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종관(從官)과 익위(翊衛)가 따라 들어온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사배·홍·평신하기를 찬(贊)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히는데, 음악이 시작되고, 【전정악(殿庭樂).】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음악이 그친다. 아헌관과 종헌관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집례가 ‘초헌례를 행하라.’고 말하면,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는데, 음악이 시작된다. 【전상악(殿上樂).】 준(尊)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면 종관(從官) 1인은 향함을 받들어 꿇어앉아 바치고, 또 1인을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바친다. 부지통례가 인도하여 세 번 향불을 피우게 하고, 종관이 향로를 제상(祭床)에 드린다. 【향을 바칠 때에는 동쪽에 있어 서향하게 하고, 향로를 드릴 때에는 서쪽에 있어 동향하게 하고 잔(盞)을 바치고, 잔을 드릴 때에도 이에 준한다.】 종관이 잔(盞)을 받들어 꿇어앉아 바치고, 부지통례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기를 찬(贊)하여 청하면, 잔을 종관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부지통례가 인도하여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청하면 음악이 그친다. 대축(大祝)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시작되고, 부지통례가 인도하여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청하면 음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아헌례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는데, 음악이 시작된다. 【전정악(殿庭樂).】 준(尊)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잔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獻禮。” 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訖，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尊所，以盞酌福酒，執禮曰：“飲福。”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詣飲福位西向立，大祝以盞授終官，終官捧盞北向跪進，副知通禮贊請跪，王世子跪，副知通禮贊請受盞，王世子受盞飲訖，從官受虛盞，復於尊所。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王世子俯伏興平身，副知通禮引王世子降復位。執禮曰：“四拜。”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鞠躬樂作，【殿庭樂。】四拜興平身。樂止，亞終獻官及在位者同。【贊者亦唱。】執禮曰：“四拜。”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鞠躬樂作，【殿庭樂。】四拜興平身。樂止，亞終獻官同。【贊者亦唱。】副知通禮白禮畢，引王世子還齋室，侍衛如常。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典樂率工人出，宮闈令納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

하고, 인도하여 꿇어앉게 한다. 집사자가 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하면 음악이 그치는데,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례가 ‘중헌례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중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관이 행한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음복위(飲福位)를 앞 큰기둥 밖의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대축이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잔으로써 복주(福酒)를 따른다. 집례가 ‘음복하라.’고 말하면,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찬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음복위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대축이 잔을 종관(從官)에게 주면, 종관이 잔을 받들어 북향하여 꿇어앉아 바친다. 부지통례가 꿇어앉기를 찬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꿇어앉는다. 부지통례가 잔을 받기를 찬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잔을 받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종관이 빈 잔을 받아 준소에 도로 놓는다. 부지통례가 부복·홍·평신하기를 찬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사배·홍·평신하기를 찬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히면 음악이 시작되고, 【전정악(殿庭樂).】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음악이 그친다. 아헌관·중헌관과 자리에 있던 사람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한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부지통례가 국궁·사배·홍·평신하기를 찬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히면 음악이 시작되고, 【전정악(殿庭樂).】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음악이 그친다. 아헌관과 중헌관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唱)한다.】 부지통례가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로 돌아오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알자가 아헌관과 중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典祀官)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와

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大祝捧祝版瘞於坎，王世子乘輦還宮如來儀。亞獻官【從二品。】終獻官【正二品。】執禮一【從三品。】大祝一【文官四品。】宮闈令一【內侍府六品。】謁者一【通贊。】贊引一、祝史一、齋郎一【竝參外。】執尊者二【六品一、參外一。】從官四【詹事院書筵官。】衛翊二、副知通禮一、監察一。

遣官行禮儀：

前享三日，獻官諸執事竝散齋二日，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薤蒜韭，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齊而闕者，通攝行事。守衛殿門者及工人【禪前與朔望則無工人。】俱清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享前一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典樂率其屬，設樂部二於殿階上及庭，俱北向。謁者設獻官位於東廊近南，西向；設執事者位於神門之東南廊，北向西上；監察位於其西；【書吏陪其後】設謁者、贊

서 서게 한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찬자가 국궁·사배·홍·평신하기를 찬하여 청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나가고, 궁위령이 신주(神主)를 들여놓기를 의식대로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에 나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대축(大祝)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왕세자가 연(輦)을 타고 궁에 돌아오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아헌관【중2품.】, 종헌관(終獻官)【정3품.】, 집례(執禮) 1명【중3품.】, 대축(大祝) 1명【문관 4품.】, 궁위령(宮闈令) 1명【내시부(內侍府)의 6품.】, 알자(謁者) 1명【통찬(通贊).】, 찬인(贊引) 1명, 축사(祝史) 1명, 재랑(齋郎) 1명【모두 참외(參外).】, 집준자(執尊者) 2명【6품 1명, 참외(參外) 1명.】, 종관(從官) 4명【첨사원(詹事院) 서연관(書延官).】, 익위(翊衛) 2명, 부지통례(副知通禮) 1명, 감찰(監察) 1명이다.”

하였다. 관원을 보내어 행례하는 의식은,
“향례(享禮) 전 3일에 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모두 2일 동안을 산재(散齋)하고 1일 동안을 향소(享所)에서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할 때에는 일을 처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나, 다만 술을 마음대로 마시지 아니하고, 과·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에 판결 서명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치재할 때에는 다만 향례(享禮)에 관한 일만 행할 뿐이다. 이미 재계했는데도 빠진 사람은 통섭(通攝)하여 행사(行事)한다.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사람과 공인(工人)은,【담제(禫祭) 전과 삭망(朔望)에는 공인(工人)은 없다.】 모두 깨끗이 재계하여 하루를 유숙한다.【향관(享官) 이하의 무릇 제사에

者、贊引位於東階之西，俱西向北上；設典樂位二於樂部之北，俱北向。【禫前與朔望則不設樂】享日未行事前，宮闈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拈】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置盞三於尊所；又置福酒盞。享日丑前五刻，【丑前五刻，即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宮闈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贊引引監察升自東階，點視陳設。前一刻，獻官及諸執事俱祭服【禫前則着禫服。】盥洗訖，皆就殿門外。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典樂帥工人入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引監察以下各就位。宮闈令開匱，捧出神主，設於座，覆以青苧巾，設几於後。謁者引獻官入就位，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獻官鞠躬四拜興平身。【先拜者不拜。】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樂作，【殿階上樂。】執尊者酌酒，執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향례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향례(享禮) 전 1일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전악(典樂)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악부(樂部) 둘을 전계(殿階) 위와 전정(殿庭)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하고, 알자가 헌관의 자리를 동쪽 행랑의 남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동남쪽 행랑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감찰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모신다.】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전악(典樂)의 자리를 악부(樂府)의 북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담제(禫祭) 전과 삭망(朔望)에는 음악을 설치하지 않는다.】

향례일(享禮日) 행사하기 전에 궁위령(宮闈令)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드리고, 【점(坫)이 있다.】 향로·향합과 초[燭]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제찬(祭饌)을 담은 기구(器具)를 설치한다.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잔(盞) 3개를 준소(尊所)에 두고 또 복주잔(福酒盞)을 둔다. 향례일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축시(丑時) 전 5각은 곧 3경 3점인데, 행사(行事)는 축시(丑時) 전 1각을 사용한다.】 궁위령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祭饌)을 찬구(饌具)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진설한 것을 날낱이 보살핀다. 향례(享禮) 전 1각에 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제복(祭服)을 갖추어 입고, 【담제(禫祭) 전에는 담제복(禫祭服)을 입는다.】 관세(盥洗)를 하고, 이를 마치면 모두 전문(殿門) 밖으로 나아간다. 알자·찬자·찬인이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

事者以盞受酒。 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撝笏，執事者一人捧香合，一人捧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捧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 授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受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俯伏興小退北向跪。 樂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俯伏興平身，樂止，引降復位。 少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樂作，【殿庭樂。】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 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撝笏，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尊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平身，樂止，引降復位。 少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訖，引降復位。 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尊所，以盞酌福酒。 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飲福位西向立，贊跪撝笏。 大祝北向跪，以盞授獻官，獻官受盞飲訖，大祝受虛盞，復於尊所。 謁者贊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在位者同。 樂作，

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殿庭)의 배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서게 한다.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창(唱)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들을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이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고 나와서 영좌(靈座)에 설치하고 청색 저건(苧巾)으로써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창(唱)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아니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계상(殿階上)의 음악.】 준(尊)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잔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인도하여 홀을 제복(祭服)의 띠에 꽂게 한다. 집사자 1인은 향합을 받들고, 1인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인도하여 세 번 향불을 피우게 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제상(祭床)에 드린다. 【향을 받들 때에는 동쪽에 있어 서향하게 하고, 향로를 드릴 때에는 서쪽에 있어 동향하게 한다. 잔을 주고 잔을 드릴 때에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받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면 음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시작되고, 알자가 인도하여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하면 음악이 그치는데,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정악(殿庭樂).】 준(尊)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잔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殿庭樂。】贊者唱鞠躬四拜與平身，獻官鞠躬四拜與平身，樂止，謁者引獻官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贊者唱鞠躬四拜與平身，監察以下鞠躬四拜與平身，贊引以次引出。典樂帥工人出，宮闈令納神主如儀。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大祝捧祝版瘞於坎。獻官一【一二品。】大祝一【文官參外。】宮闈令一【內侍府六品。】贊者一、謁者一、贊引一、祝史一、執尊者一、齋郎一【竝參外。】監察一、祝文【與期年內王世子行朔望祭文同。】

서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인도하여 꿇어앉게 하고 홀(笏)을 제복(祭服)의 띠에 꽂게 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홀(笏)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하면 음악이 그치는데,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관이 행한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음복위(飲福位)를 앞 큰 기둥 밖의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대축(大祝)이 준소에 나아가서 잔으로 써 복주(福酒)를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음복위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인도하여 꿇어앉아서 홀을 제복(祭服)의 띠에 꽂게 한다. 대축이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받아서 마신다. 이를 마치면 대축이 빈 잔을 받아서 준소에 도로 놓는다. 알자가 인도하여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창(唱)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대로 하는데 음악이 시작되고, 【전정악(殿庭樂).】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창(唱)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는데, 음악이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典祀官)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와서,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고 창(唱)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나가고, 궁위령이 신주(神主)를 들여놓기를 의식대로 한다. 알자·찬자·찬인이 배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대축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헌관(獻官) 1명 【1, 2품.】, 대축(大祝) 1명 【문관 참외(參外).】, 궁위령(宮

	<p>關令) 1명 【내시부(內侍府)의 6품.】, 찬자 1명, 알자 1명, 찬인 1명, 축사(祝史) 1명, 집준자(執尊者) 1명, 재랑 1명 【모두 참외(參外).】, 감찰 1명, 축문(祝文) 【기년(期年) 안에 왕세자가 삭망제(朔望祭)에 행하는 축문과 같다.】 이 있다.” 하였다.</p>	
<p>18. 世宗 118卷, 29年 (1447 丁卯 / 명 정통 (正統) 12年) 11月 2日(辛卯) 1번째기사 여러 산릉과 진전의 제품의 위치를 정하다</p>	<p>慶基殿)·집경전(集慶殿)·영송전(永崇殿)의 여섯 별제에는 제탁에 화초가 있고, 첫째 줄에 중박계(中朴桂) 네 그릇, 둘째 줄에 붉고 흰 산자 다섯 그릇, 세째 줄에 다식(茶食) 다섯 그릇, 네째 줄에 실과 여섯 그릇, 면협탁에는 화초가 없고 첫째 줄에 떡 네 그릇, 둘째 줄에 면·잡탕 등 다섯 그릇, 세째 줄에 잔(盞) 셋이고, 선왕(先王)·선후(先后)·현덕빈(顯德嬪) 기신재제(忌晨齋祭) 제탁과 윗항의 진전(眞殿)의 선고사유이환안제(先告事由移還安祭) 제탁에는 화초가 없고, 첫째 줄에 소박계(小朴桂) 네 그릇, 둘째 줄에 붉고 흰 산자 다섯 그릇, 세째 줄에 다식(茶食) 다섯 그릇, 네째 줄에 실과 여섯 그릇, 면협탁에는 첫째 줄에 떡 네 그릇, 둘째 줄에 면·잡탕 다섯 그릇, 세째 줄에 잔(盞) 셋이고, 현덕빈(顯德嬪) 혼궁(魂宮)의 삭망제(朔望祭)와 선고사유이환안제 제탁에는 화초가 없고, 첫째 줄에 약과 네 그릇, 둘째 줄에 붉고 흰 산자 다섯 그릇, 세째 줄에 실과 다섯 그릇, 면협탁에는 첫째 줄에 떡 네 그릇, 둘째 줄에 면·잡탕 다섯 그릇, 세째 줄에 잔(盞) 셋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辛卯/議政府據禮曹呈啓: “諸山陵及眞殿大小祭品, 今改詳定。 健元陵以下諸山陵四時大享及正朝寒食端午秋夕冬至臘六別祭, 卓有花草。 第一行中朴桂四器, 第二行紅白散子五器, (節) [第] 三行茶食五器, 第四行實菓六器。 面俠卓無花草。 第一行各色餅六器, 第二行雜湯細羹等六器, 第三行爵三。</p> <p>健元陵以下諸山陵顯德嬪墓所朔望祭, 先告事由, 移還安祭及咸吉道諸山陵先告事由, 移還安祭, 卓無花草。 第一行藥菓四器, 第二行實果, 雜菜五器, 第三行餅羹五器, 第四行飯、匙楪、醬羹、灸六器, 第五行爵三。</p> <p>咸吉道諸山陵及厚陵六別祭, 卓無花草。 第一行小朴桂四器, 第二行紅白散子五器, 第三行實果五器, 第四行雜菜六器, 面俠卓第一行餅四器, 第二行羹、雜湯等五器, 第三行飯匙楪醬羹灸</p>

		<p>五器，第四行爵三。</p> <p>顯德嬪墓所六別祭，卓無花草。第一行小朴桂四器，第二行紅白散子五器，第三行藥果五器，第四行實果六器。面俠卓第一行餅四器，第二行羹雜湯等五器，第三行盞三。</p> <p>穆清殿、濬源殿、慶基殿、集慶殿、永崇殿六別祭，卓有花草。第一行中朴桂四器，第二行紅白散子五器，第三行茶食五器，第四行實果六器。面俠卓無花草。第一行餅四器，第二行羹、雜湯等五器，第三行盞三。</p> <p>先王、先后、顯德嬪(忌晨) [忌辰] 齋祭卓及上項眞殿先告事由，移還安祭，卓無花草。第一行小朴桂四器，第二行紅白散子五器，第三行茶食五器，第四行實果六器。面俠卓第一行餅四器，第二行羹雜湯五器，第三行盞三。</p> <p>顯德嬪魂宮朔望祭及先告事由，移還安祭，卓無花草。第一行藥果四器，第二行紅白散子五器，第三行實果五器。面俠卓第一行餅四器，第二行羹，湯五器，第三行盞三。”</p> <p>從之。</p>
19. 세종 119권, 30년	예조에서 휘덕전(輝德殿) 기신제의(忌辰祭儀)를 아뢰기를,	禮曹啓輝德殿(忌晨) [忌辰] 祭儀：前

(1448 무진 / 명 정통 (正統) 13년) 3월 18일(계묘) 2번째기사
 휘덕전 기신제의의 절차에 대한 예조의 보고

“제사지내기 3일 전에 첨사원(詹事院)에서 재계(齋戒)하기를 청하면, 왕세자(王世子)는 별실(別室)에서 2일 동안을 산재(散齋)하고, 재실(齋室)에서 1일 동안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풍악을 듣지 않으며, 유사(有司)가 형살 문서(刑殺文書)를 상신하지 아니하고, 치재(致齋)에는 다만 제향(祭享)의 일만 상신한다. 무릇 헌관(獻官)과 모든 집사(執事)와 종관(從官)으로 따라 올라갈 만한 자는, 모두 향소(享所)에서 2일 동안 산재(散齋)하고, 1일 동안 치재(致齋)하는데, 무릇 산재(散齋)에는 일 다스리는 것을 전과 같이 하나, 오직 술을 마시지 않으며,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않으며,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않으며, 풍악을 듣지 않으며,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며, 형살 문서에 판결을 서명하지 않으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치재에는 오직 제사의 일만 행한다. 이미 재계하고 궐석(闕席)한 자는 서로 행사를 대신하게 하고, 여러 종관(從官)과 제위(諸衛)의 소속으로서 전문(殿門)을 시위(侍衛)하는 자는 모두 청재하면서 1일을 유숙한다. 【향관(享官) 이하 무릇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제향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제향(祭享) 1일 전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한다. 왕세자(王世子)는 궁(宮)을 나와 연(輦)을 타고 오는데, 인도하여 호중하기를 의식대로 한다. 전문(殿門) 밖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리면, 좌중호(左中護)가 왕세자(王世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에 나아가고, 시위(侍衛)하기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執禮)가 왕세자의 자리를 동랑(東廊)에 서향하여 마련하고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의 자리를 왕세자의 뒤에 마련하되, 남쪽 가까이 서향하게 하며, 북쪽을 위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서·남랑(西南廊)에 북향하여 마련하되 동쪽을 위로 하고, 감찰(監察)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한다. 【서리(書吏)가 그 뒤에 모시게 한다.】 집례(執禮)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마련하되 서향하게 하고, 알자(謁者)·

享三日，詹事院請(齋) [齋] 戒，王世子散齋二日於別室，致齋一日於齋室。凡散齋，不弔喪問疾，不聽樂，有司不申刑殺文書；致齋，惟(申) [行] 享事。凡獻官諸執事及從官應從升者，竝散齋二日，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諸從官諸衛之屬侍衛殿門者，俱清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前享一日，殿司(帥) [帥] 其屬，掃除殿之內外。王世子出宮乘輦，導從如儀，至殿門外降輦。左中護引王世子就齋室，侍衛如常。執禮設王世子位於東廊，西向；設亞獻官、終獻官位於王世子之後近南，西 [向] 北上；設執事者位於神門之西南廊，北向東上；監察位於其西；【書吏陪其後。】設執禮位於東階之西，西向；謁者、贊者贊引在南差退，俱西向北上。享日未行事前，宮闈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玷。】設香爐香合

찬자(贊者)·찬인(贊引)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러나 모두 서향하게 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궁위령(宮闈令)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典祀官)·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드리고, 【점(坫)이 있다.】 향로·향합과 축(燭)을 신위(神位) 앞에 마련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饌需)를 담은 그릇을 마련하되 준(尊)을 문[戶] 밖의 왼쪽에 마련하고 잔(盞) 3개를 준소(尊所)에 둔다. 제삿날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축시 전 5각은 곧 3경(更) 3점(點)인데, 행사는 축시를 쓴다.】 궁위령(宮闈令)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殿司)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제찬(祭饌) 담기를 마치면, 2각(刻) 전에 아헌관·종헌관 이하 모두 소복(素服) 차림으로 전문(殿門) 밖에 나아가고, 찬인(贊引)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진설한 것을 점검한다. 1각(刻) 전에 아헌관·종헌관과 모든 집사(執事)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면, 집례(執禮)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하고 사배(四拜)하기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제집사(諸執事)를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殿庭)의 배위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서게 하면,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한다. 찬자(贊者)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이라 창(唱)하면, 【무릇 집례(執禮)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감찰 이하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위치에 나아간다.

알자(謁者)가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위치에 나아가면, 궁위령이 궤(櫃)를 열어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서 자리[座]에 봉안하고 청저건(靑紵巾)으로서 덮고, 궤(几)를 뒤에 마련한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재실(齋室)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예를 행하기를 청하면, 왕세자가 소복(素服) 차림으로 관

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置盞三於尊所。享日丑前五刻，【丑前五刻，即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宮闈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設饌具畢。前二刻，亞終獻官以下，皆素服就殿門外。贊引引監察升自東(階) [階]，點視陳設。前一刻，亞終獻官及諸執事盥洗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凡執禮有辭，贊者皆傳旨。】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引監察以下各就位。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宮闈令開櫃，奉出神主，設於座，覆以靑紵巾，設几於後。副知通禮進齋室前跪請行禮，王世子素服，盥洗以出，副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從官翊衛從入。】執禮曰：“四拜。”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亞終獻官同。【贊者亦唱，先拜者不拜。】執禮曰：“行初獻禮。”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

세(盥洗)하고서 나가고,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위차에 나아간다. 【종관(從官)과 익위(翊衛)도 따라 들어온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말하면,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 평신’ 하기를 청하는데, 왕세자(王世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아헌관과 종헌관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贊者)가 역시 따라 부르며,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하면,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고, 종관(從官)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한다. ‘꿨어앉으라.’ 찬하면, 종관(從官)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어 꿨어앉아 올리고, 또 한 사람은 향로를 꿨어앉아 올린다. 부지통례가 세 번 상향(上香)하기를 청하여, 종관(從官)이 향로를 안(案)에 올려놓는다. 【진향(進香)은 동쪽에 있어 서향하고, 진로(奠爐)는 서쪽에 있어 동향하게 한다. 진잔(進盞)과 진잔(奠盞)도 이에 준한다.】 종관(從官)이 잔(盞)을 받들어 꿨어앉아 올리면, 부지통례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기를 청하는데, 잔(盞)을 종관(從官)에게 주어 신위(神位) 앞에 올린다. 부지통례가 찬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꿨어앉기를 청하면, 대축(大祝)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고 꿨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에 돌아온다.

집례가 ‘아헌례를 행하라.’ 말하면, 알자(謁者)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와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가 잔(盞)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면, 찬하여 꿨어앉기를 청하고, 집사자가 잔(盞)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

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從官以盞受酒。副知通禮引王世子入詣神位前北向立，贊請跪，從官一人奉香合跪進，又一人捧香爐跪進，副知通禮贊請三上香，從官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進盞奠盞，準此。】從官捧盞跪進，副知通禮贊請執盞獻盞，以盞授從官，奠于神位前，副知通禮贊請俯伏興少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副知通禮贊請俯伏興平身，引降復位。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神位前北(司)〔向〕立贊跪，執事者以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授執事，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訖，引降復位。執禮曰：“四拜。”副知通禮贊請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亞終獻官同。【贊者亦唱。】副知通禮白禮畢，引王世子還齋室，侍衛如常。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

	<p>기를 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에 돌아온다.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말하면,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예(禮)를 행하기를 아헌관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에 돌아온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말하면, 부지통례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을 찬청하여,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과 종헌관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贊者)가 역시 따라 부른다.】 부지통례가 ‘예필(禮畢)이라.’ 아 되면,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에 돌아오되, 시위(侍衛)하기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알자(謁者)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典祀官)·제집사(諸執事)를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함께 돌아와 서기를 정한 다음,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면,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이라 따라 부른다. 감찰 이하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궁위령(宮闈令)이 신주를 들여넣기를 의식대로 하고,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拜位)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둔다. 대축(大祝)은 축판(祝版)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왕세자는 연(輦)을 타고 궁(宮)에 돌아가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였다.</p>	<p>俱復拜位。 立定，執禮曰：“四拜。”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 宮闈令納神主如儀，執禮率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 典祀官、殿司各帥其屬撤禮饌，大祝捧祝版瘞於坎，王世子乘輦還宮如來儀。</p>
<p>20. 世宗 119卷, 30年 (1448 戊辰 / 명 정통 (正統) 13年) 3月 18日(癸卯) 3번째기사 관원을 보내어 예를 행하는 의식 절차에 대한 예조의 보고</p>	<p>관원을 보내어 예를 행하는 의식[遣官行禮儀]은, “제사지내기 3일 전에 헌관(獻官)과 제집사(諸執事)가 모두 향소(享所)에서 2일 동안 산재(散齋)하고, 1일 동안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일다스리는 것은 전과 같이 하나, 오직 술을 마시지 않으며, 파·부추·마늘·염고를 먹지 않으며, 조상(弔喪)과 문명을 하지 않으며, 풍악을 듣지 않으며, 형벌을 행하지 않으며, 형살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치재에는 오직 제사의 일만 행한다. 이미 재계하고 궐석(闕席)한 자는 서로 행사를 대신하게 하고, 전문(殿門)에서 수위(守衛)하는 자도 청재</p>	<p>遣官行禮儀：前享三日，獻官諸執事，竝散齋二日，致齋一日於享所。 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暑) [署] 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二) [已] 齋而闕者，通攝行事。 守衛殿門者，清齋一宿。 【享官以下凡與祭，皆前享二日，沐浴</p>

(清齋)하면서 1일을 유숙한다. 【향관 이하 무릇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제향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제향(祭享) 1일 전에 전사(殿司)는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한다. 알자(謁者)는 헌관의 자리를 동랑(東廊)에 남쪽 가까이 서향하여 마련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神門)의 동·남랑(東南廊)에 북향하여 마련하되 서쪽을 위로 하며, 감찰의 자리를 그 서쪽에 마련한다. 【서리(書吏)가 그 뒤를 모시게 한다. 】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아래에 마련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궁위령(宮闈令)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드리고, 【점(玷)이 있다. 】 향로·향합과 축(燭)을 신위 앞에 마련한다. 제기(祭器)와 찬수(饌需)를 담은 그릇을 마련하되, 준(尊)을 문밖의 왼쪽에 마련하고 잔(盞) 3개를 준소(尊所)에 둔다. 제삿날 축시 전 5각(刻)에 【축시 전 5각은 곧 3경(更) 3점(點)인데, 행사는 축시 전 1각을 쓴다. 】 궁위령(宮闈令)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殿司)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제찬(祭饌) 담기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와서 진설한 것을 살펴본다. 1각(刻) 전에 헌관(獻官)과 제집사(諸執事)가 모두 소복(素服)을 입고 관세(盥洗)하기를 마치면,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간다. 알자·찬자·찬인이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하고 네 번 절하기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典祀官)·제집사(諸執事)를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殿庭)의 배위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서게 하면, 찬자(贊者)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이라 창(唱)하여, 감찰 이하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宮闈令)이 궤(櫃)를 열어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서 자리[座]를 봉안하고

更衣。】前享一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謁者設獻官位於東廊近南，西向；設執事者位於神門之東南廊，北向西上；監察位於其西；【書吏陪其後。】設謁者、贊者、贊引位於東階之下，俱西向北上。享日未行事前，宮闈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玷。】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置盞三於尊所。享日丑前五刻，【丑前五刻，即三更三點，行事用丑時。】宮闈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贊引引監察升自東階，點視陳設。前一刻，獻官及諸執事俱素服盥悅訖，皆就殿門外。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重行北上西上。立定，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引監察以下各就位。宮闈令開櫃，捧出神主，設於座，覆以青紵巾，設几於後。謁者引獻官入就位，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獻官以下鞠躬四拜興平身。【先拜者不拜。】

청저건(靑紵巾)으로 덮고, 켈(几)는 뒤에 마련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이라 창하면, 헌관 이하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와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준자(執尊者)는 술을 따르고, 집사자(執事者)는 잔(盞)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으라.’ 찬하면,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또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든다. 알자가 세 번 상향(上香)하기를 청하여, 집사자가 향로를 향안(香案)에 놓는다. 【봉향(捧香)은 동쪽에 있어 동향하고, 전로(奠爐)는 서쪽에 있어 동향하게 한다. 수잔(授盞)과 전잔(奠盞)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잔(盞)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盞)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끓어앉기를 청하면, 대축(大祝)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끓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에 돌아온다.

조금 뒤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와 존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가 잔(盞)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면, 찬하여 끓어앉기를 청하고, 집사자가 잔(盞)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에 돌아온다. 조금 뒤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禮)를 행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에 돌아온다.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을 창(唱)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一人捧香合，又一人捧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捧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授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少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少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少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訖，引降復位。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獻官鞠躬四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宮闈令納神主如儀。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撤禮饌，大祝捧祝版瘞於坎。

	<p>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典祀官)·제집사(諸執事)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에 돌아와 선다.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이라 창(唱)하면, 감찰 이하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인(贊引)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궁위령이 신주를 들여넣기를 의식대로 하고, 알자·찬자·찬인이 배위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둔다. 대축(大祝)은 축판(祝版)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21. 세종 120권, 30년 (1448 무진 / 명 정통 (正統) 13년) 6월 25 일(기묘) 1번째기사 일본 국왕 사신이 휘덕전에서 진향하는 의식을 계정하다</p>	<p>예조에서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어 휘덕전(輝德殿)에 진향(進香)하는 의식을 계정(啓定)하기를, “향사(享祀) 3일 전에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이 모두 산재(散齋) 2일, 치재(致齋) 1일 하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무릇 전문(殿門)을 수위하는 자와 공인(工人)은 모두 청재(淸齋)하고 하룻밤을 지낸다. 【무릇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2일을 전기하여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는다.】 제향 하루 전에 전사(殿司)가 전(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전악(殿樂)이 악부(樂部)를 전(殿)의 계상(階上)과 뜰[庭]에 베풀어 모두 북향하게 하고, 전사(殿司)가 사신의 자리를 외정(外庭)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한다. 【정사·부사가 한 줄이 되고, 시봉(侍奉)·압물(押物)·선주(船主)가 한 줄이 되고, 반종인(伴從人)이 한 줄이 되고, 매 줄을 통사(通事)가 영솔하여 들어간다.】 집사자(執事者)의 배위(拜位)를 신문(神門) 동쪽에 북향하여 마련하되 서쪽을 위로 하고, 찬자(贊者)와 찬인(贊引)의 자리를 동계(東階) 서쪽에 서향하여 마련하되, 전악(典樂)의 자리 둘을 악부의 북쪽에 마련하고, 모두 북향하게 한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내시(內侍)가 신악(神幄)을 정돈하여 놓고, 전사(殿司)가 들어가서 제문(祭文)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놓아 두고, 【점(坫)이 있다.】 향로(香爐)·향합(香盒)·축대(燭臺)를 신위 앞에 마련하고, 【사신이 내는 향축(香燭)을 쓴다.</p>	<p>己卯/禮曹啓定日本國王遣使進香輝德殿儀：前享三日，應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致齋一日如常儀。凡守衛殿門者及工人，俱淸齋一宿。【凡與祭者，前二日，沐浴更衣。】前享一日，殿司掃除殿之內外。典樂設樂部於殿階上及庭，俱北向。殿司設使臣位於外庭，異位重行；【使副爲一行，侍奉押物船主爲一行，伴從人爲一行，每行通事率入。】設執事者拜位於神門之東，北向西上；設贊者贊引位於東階之西，西向；設典樂位二於樂部之北，俱北向。享日未行事前，內侍整拂神幄，殿司入，奠祭文於神位之右；【有坫。】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用使臣所進香燭。】設祭器實饌具；設尊所竝如常儀。典祀官設案於前楹外，</p>

】 제기(祭器)를 마련하여 찬구(饌具)를 채우는데, 준소(尊所)를 베풀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典祀官)이 안(案)을 전영(前楹) 밖에 마련하고 사신이 드리는 찬물(饌物)을 그 위에 놓는다.

제삿날 축시(丑時) 전 5각(刻)에 【곧 삼경(三更) 삼점(三點)인데, 행사하는 것은 축시 1각을 쓴다.】 내시(內侍)가 신악(神幄)을 정돈하여 놓고,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들어가서 찬구(饌具)를 채우는데, 이를 마치면 1각 전에 찬인(贊引)이 사신을 인도하여 전문 밖에 나온다. 찬자·찬인이 전정(殿庭)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기를 끝마치고서 위차에 나간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 위차에 나간다. 찬인이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위에 들어가서 선다.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이라 찬하여, 전사관 이하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가면, 내시 한 사람이 신주(神主)를 받들고 나오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찬인이 사신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간다.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이라 찬하면, 사신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내시 한 사람이 준소(尊所)에 나가면 악(樂)이 시작된다. 【전상악(殿上樂).】 준(尊)을 잡은 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내시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찬자가 ‘꿇어앉으라.’고 찬하면, 사신이 모두 꿇어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내시가 세 번 향을 올리면, 집사자가 잔을 내시에게 준다. 내시가 잔을 잡아 대신 신위 앞에 드리고 물러난다. 악이 그친다. 대축(大祝)이 제문을 읽기를 의식과 같이 하여 끝나면, 악이 연주된다. 찬자가 ‘부복, 흥, 평신’ 이라 찬하면, 사신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악이 그친다. 조금 있다가 내시가 다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면, 악이 연주된다. 준(尊)을 잡은 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내시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찬자가 ‘꿇어앉으라.’ 찬

置使臣所進饌物於其上。 享日丑前五刻, 【即三更三點, 行事用丑時一刻.】 內侍整拂神幄。 典祀官、殿司入, 實饌具畢。 前一刻, 贊引引使臣就殿門外, 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四拜訖就位, 典樂帥工人入就位, 贊引引典祀官諸執事入就拜位。 立定, 贊者贊鞠躬四拜興平身, 典祀官以下鞠躬四拜興平身, 贊引引諸執事就位。 內侍一人捧出神主如常儀。 贊引引使臣入就位, 贊者贊鞠躬四拜興平身, 使臣鞠躬四拜興平身。 內侍一人詣尊所, 樂作。 【殿上樂.】 執尊者酌酒, 執事者以盞受酒, 內侍入詣神位前北向跪。 贊者贊跪, 使臣皆跪, 執事者一人捧香合, 一人捧香爐, 內侍三上香。 執事者以盞授內侍, 內侍執盞代奠于神位前乃退。 樂止, 大祝讀祭文如儀訖, 樂作, 贊者贊俯伏興平身, 使臣俯伏興平身。 樂止, 有頃, 內侍復詣尊所。 立定, 樂作。 【殿庭樂.】 執尊者酌酒, 執事者以盞受酒。 內侍入詣神位前北向跪, 贊者贊跪, 使臣皆跪, 執事者以盞授內侍, 內侍執盞代奠如上儀。 贊者贊俯伏興平身, 使臣皆俯伏興平身。

	<p>하여, 사신이 모두 꿇어앉는다. 집사자가 잔을 내시에게 주면, 내시가 잔을 잡아 대신 드리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찬자가 ‘부복, 흥, 평신’ 이라 찬하면, 사신이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음악이 그친다.</p> <p>종헌(終獻)은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한다.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이라 찬하면, 사신이 모두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사신을 인도하여 나간다. 전사관 이하가 모두 배위(拜位)에 돌아와서 선다.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이라 찬하면, 전사관 이하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인도하여 나간다. 전악이 공인을 거느리고 나간다. 내시가 신주를 들어 모시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찬자·찬인이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전사가 예찬(禮饌)을 걷는다. 대축(大祝)이 제문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p> <p>하였다.</p>	<p>樂止，終獻如亞獻儀，贊者贊鞠躬四拜興平身，使臣皆鞠躬四拜興平身，贊引使臣以出。典祀官以下俱復拜位。立定，贊者贊鞠躬四拜興平身，典祀官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引出。典樂率工人出，內侍納神主如儀，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撤禮饌，大祝捧祭文壘於坎。</p>
출처	내용	원문
<p>1. 世宗 121卷, 30年 (1448 戊辰 / 명 정통 (正統) 13年) 8月 23日(丙子) 2번째기사 예조에서 동궁의 양로 연의를 정하다</p>	<p>예조(禮曹)에서 동궁(東宮)의 양로연의(養老宴儀)를 정하기를, “그날에 유사(攸司)가 왕세자(王世子)의 자리[坐]를 계조당(繼照堂) 가운데서 서향하여 설치하고, 향로(香爐) 둘을 전영(前楹) 바깥 좌우에 베푼다. 충扈위(忠扈衛)가 여러 노인의 막차(幕次)를 궁문 밖에 베푼고, 전의(典儀)가 여러 노인으로 2품 이상의 자리[座]를 당내(堂內) 남쪽과 북쪽에 겹줄로 베푼되, 서로 향하여 동쪽이 상(上)이 되게 하는데, 4품 이상의 자리는 계상(階上)의 남쪽과 북쪽에, 5품 이하의 자리는 계하(階下)에, 서인(庶人)은 정중(庭中)에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상향(相向)하게 하고, 동쪽이 상(上)이 되게 한다. 부지통례(副知通禮)와 전의(典儀)의 자리[位]를 당정(堂庭)의 길 남쪽에 동편으로 가까이 베푼며, 통찬(通贊)과 봉례랑(奉禮郎)은 남쪽에서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고, 통찬과 봉례랑은 북쪽에 있어 남향한다. 또 여러 노인으로 1품 이하의 배위(拜位)를 당정(堂庭) 남쪽과 북쪽에 베푼되, 매 등급마다 위치(位次)를</p>	<p>禮曹定東宮養老宴儀：“其日，攸司設王世子座於繼照堂中，西向；設香爐二於前楹外左右。忠扈衛設群老次於宮門外；典儀設群老二品以上座於堂內南北，重行相向東上；四品以上座於階上南北，五品以下於階下，庶人於庭中，俱重行相向東上；設副知通禮及典儀位於堂庭道南近東；通贊、奉禮郎在南差退北向，通贊、奉禮郎在北南向。又設群老一品以下拜位於堂庭南北，每等異位，重行東向，相對爲首；庶人拜位差退。司樽【副提調以下，後倣</p>

달리 하여 곁줄로 동향하게 하고, 상대(相對)하여 머리가 되게 한다. 서인의 배위는 조금 물려서 한다. 사준(司樽)이 【부제조(副提調) 이하이다. 뒤에도 이와 같다.】 준(尊)을 당상(堂上)에 베풀되,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고, 점(玷)을 베풀어 작(爵)을 놓아둔다. 유사가 당에 오르는 자의 준(尊)을 계상(階上) 남북에 베풀되, 동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계상(階上)과 정중(庭中)의 주탁(酒卓)은 각각 매품(每品)의 앞에 베풀다. 병조(兵曹)에서 여러 위(衛)로 하여금 의장을 베풀고 문(門)에 둔치고 함문(閣門) 밖에 늘어서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여러 노인이 시복(時服)으로 【벼슬이 있는 자는 사모(紗帽)·품대(品帶)를 하고, 서인(庶人)은 통상복을 입는다.】 시각이 되면 모두 문밖의 막차에 나아간다. 부지통례가 중엄(中嚴)을 찬하여 청하면, 여러 시위관(侍衛官)이 각각 기복(器服)을 갖추고 함께 함문(閣門)에 나아가 왕세자를 봉영(奉迎)하여, 후당(後堂)으로 나아가 자리에 오르는데, 산선(緞扇)의 시위는 평상시와 같이 한다. 승지(承旨)·사관(史官) 및 궁관(宮官)·집사관(執事官)이 【궁관(宮官)은 서연(書筵)·침사 원(詹事院) 같은 것이고, 집사관(執事官)은 통례문(通禮門) 같은 유(類)이다.】 먼저 재배례(再拜禮)를 행하기를 평상과 같이 한다. 전의(典儀)가 통찬(通贊) 이하를 거느리고 들어와 위(位)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여러 노인으로 3품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혹은 지팡이를 짚고, 혹은 부축한다.】 들어와 배위(拜位)에 나아간다. 부지통례가 외판(外辦)을 아뢰면, 왕세자가 계조당에 나와 자리에 오른다. 향로에 연기가 오른다. 산선(緞扇)의 시위(侍衛)는 평상과 같이 한다. 승지(承旨)와 궁관(宮官)이 좌우로 나누어 부복하고, 사관(史官)은 그 뒤에 있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으로 2품 이상인 자를 나누어 인도하여 【혹은 지팡이를 짚고, 혹은 부축한다.】 들어와 배위(拜位)에 나아간다. 전의(典儀)가 ‘재배(再拜)’라고 말하면, 통찬(通贊)이 ‘국궁(鞠躬) 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여러 노인들이 지팡이를 놓고 국궁하여 절하고, 앉은 자리에서 두 번 구부리고

此。】設尊於堂上近西東向，設(玷)[玷]加爵。攸司設升堂者尊於階上南北近東，階上及庭中酒卓各於每品之前。兵曹勒諸衛列仗屯門及陳於閣外如常儀。群老以時服，【有官者紗帽品帶，庶人常服。】依時刻，皆就門外次。副知通禮贊請中嚴，諸侍衛之官，各具器服，俱詣閣奉迎王世子，出詣後堂陞座，陳緞扇侍衛如常。承旨、史官及宮官、執事官【宮官如書筵詹事院，執事官如通禮門之類。】先行再拜禮如常。典儀率通贊以下入就位，奉禮郎分引群老三品以下【或杖、或扶持。】入就拜位。副知通禮白外辦，王世子出繼照堂陞座，爐烟升，緞扇侍衛如常。承旨及宮官分左右俯伏，史官在其後。奉禮郎分引群老二品以上【或杖、或扶持。】入就拜位，典儀曰：“再拜。”通贊贊鞠躬再拜至興平身，群老去杖，鞠躬拜一座再至興平身。【若有旨除禮則承旨前承令，退臨階北向立，傳令曰：“除群老拜禮。”奉禮郎俯伏承令，分告群老。】奉禮郎分引群老應升堂者升，【仍杖扶持如初。】群老將升堂，副知通禮進當王世

일어나서 몸을 편다. 【만일 제례(除禮)하라는 분부가 있으면, 승지가 앞으로 나아가서 영을 받고 물러와서 계단에 임하여 북향하고 서서 전령(傳令)하기를, ‘군로(群老)의 배례를 제폐한다.’고 한다. 봉례랑이 부복하고 영을 받아 여러 노인에게 나누어 고한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 중에서 마땅히 당(堂)에 오를 자를 나누어 인도하여 오른다. 【지팡이를 짚고, 부축하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여러 노인이 장차 당에 오르면, 부지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왕세자의 자리 앞에 부복하고 꿇어앉아, 여러 노인을 위하여 일어나기를 청하면, 왕세자가 일어난다.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왕세자가 여러 노인이 자리에 나아갈 것을 명하면, 여러 노인이 꿇어앉아 부복한다. 왕세자가 앉으면, 여러 노인이 일어나서 자리로 나아간다. 【당에 오르지 않은 자도 또한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전악(典樂)이 노래하는 자와 금슬(琴瑟)을 인도하여 올라와 자리에 나아간다. 사옹(司饗)이 【부제조(副提調) 이하이다. 뒤에도 이와 같다.】 찬안(饌案)을 드리면, 풍악이 시작되고, 집사관(執事官)이 여러 노인의 찬탁(饌卓)을 베풀기를 끝내면, 풍악이 그친다. 근시가 【승지(承旨).】 꽃을 올리면, 풍악이 시작되고, 집사관이 여러 노인에게 꽃을 나누어 주기를 끝내면, 풍악이 그친다. 사옹(司饗)이 탕(湯)을 올리면, 풍악이 시작되고, 집사관이 여러 노인의 탕(湯)을 베풀어, 먹는 것을 끝내면, 풍악이 그친다. 【매양 사옹 부제조(司饗副提調)가 탕을 올리면, 집사관이 여러 노인에게 탕을 베준다.】 사준(司樽)이 【부제조 이하임.】 술 첫잔을 따르면, 풍악이 시작된다. 사준(司樽)이 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내시(內侍)가 전하여 받들어서 안(案) 위에 놓는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의 술을 돌리어, 들기를 끝내면, 사준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 술잔을 받아서 도로 점(坵)에 놓는다. 풍악이 그친다. 【매양 사준 부제조가 술잔을 올리면, 집사관이 먼저 여러 노인의 술을 돌린다.】 다음에 탕을 올리고 술잔을 올리는 것도 모두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술이 다섯 차례 행하면, 사옹이 대선(大膳)을

子座前，俯伏跪請爲群老興，王世子興，副知通禮俯伏興降復位。王世子命群老就座，群老跪俯伏。王世子坐，群老興就座。【不升堂者，亦引就座。】典樂引歌者及琴瑟陞就位。司饗【副提調以下，後倣此。】進饌案，樂作，執事官設群老饌卓訖，樂止。近侍【承旨。】進花，樂作，執事官散群老花訖，樂止。司饗進湯，樂作，執事官設群老湯。食畢，樂止。【每司饗副提調進湯，執事官設群老湯。】司樽【副提調以下。】酌酒第一爵，樂作，司樽奉爵跪進，內侍傳捧置于案。執事官行群老酒，舉訖，司樽進受虛爵，復於坵，樂止。【每司樽副提調進爵，執事官先行群老酒。】次進湯進爵，竝如前儀。酒行五遍，司饗進大膳，樂作，執事官設群老膳訖，樂止。司饗進撤案，執事官撤群老卓。【群老各以袱囊收裹饌餘而出。】典樂引歌者及琴瑟出，群老興。副知通禮進當座前俯伏跪，請爲群老興，王世子興，副知通禮俯伏興降復位。奉禮郎分引群老，俱復拜位，王世子坐。典儀曰：“再拜。”通贊贊鞠躬拜再至興

	<p>올린다. 풍악이 시작된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에게 선(膳)을 베풀기를 끝내면, 풍악이 그친다. 사옹이 앞으로 나아가서 안(案)을 거두면, 집사관이 여러 노인의 탁자(卓子)를 거둔다. 【여러 노인이 각각 보와 주머니로 남은 찬을 거두어 싸 가지고 나간다.】 전악(典樂)이 노래하는 자와 금슬(琴瑟)을 인도하여 나간다. 여러 노인이 일어나면, 부지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자리 앞에 부복하고 꿇어앉아서 여러 노인을 위하여 일어나기를 청한다. 왕세자가 일어나면, 부지통례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게 한다. 왕세자가 앉는다. 전의(典儀)가 ‘재배’라고 말하면, 통찬이 ‘국궁하여 절하고 두 번 구부리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여러 노인이 국궁하여 절하고, 앉은 자리에서 두 번 구부리고 일어나서 몸을 편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으로 2품 이상인 자를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면, 부지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자리 앞에 부복하고 꿇어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왕세자가 자리에서 내려와 대내로 돌아오는데, 산선(繖扇)의 시위는 올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으로 3품 이하인 자를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p> <p>하였다.</p>	<p>平身， 群老鞠躬拜一坐， 再至興平身， 奉禮郎分引群老二品以上出。 副知通禮進當座前俯伏跪白禮畢， 俯伏興復位。 王世子降座還內， 繖扇侍衛如來儀。 奉禮郎分引群老三品以下出。</p>
<p>2. 世宗 121卷, 30年 (1448 戊辰 / 명 정통 (正統) 13年) 8月 28日(辛巳) 1번째기사 예조에서 왕세손 입학 의를 정하다</p>	<p>예조(禮曹)에서 왕세손(王世孫) 입학의(入學儀)를 정하기를, “하루 전에 유사가 문묘(文廟)와 학당(學堂) 안팎을 청소하고, 충扈위(忠扈衛)가 왕세손(王世孫)의 편차(便次)를 묘(廟) 동쪽 문밖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유사가 왕세손(王世孫)의 판위(版位)를 문묘 동쪽 계단 동남쪽에 서향하여 베풀고, 집사자(執事者)의 위(位)를 왕세손의 판위 뒤에 조금 남쪽으로 닦아 서향하여 설치하되, 【집사는 모두 학생으로 채운다.】 매 등급마다 위(位)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 서향하고, 북을 상(上)으로 한다. 찬자(贊者) 2인의 자리는</p>	<p>辛巳/禮曹定王世孫入學儀: 前一日, 攸司灑掃文廟及學堂之內外。 忠扈衛設王世孫便次於廟東門外, 西向。 有司設王世孫位版於廟東階東南, 西向; 設執事者位於王世孫版位後, 稍南西向, 【執事皆以學生充之。】 每等異位, 俱重行西向北上; 設贊者二人位</p>

당하(堂下)에 베풀되, 모두 동쪽으로 닳아서 서향하여, 북을 상(上)으로 하고, 학생의 자리를 뜰 가운데 북향하여, 서(西)를 상으로 설치한다. 묘사(廟司)와 전사관(典祀官)이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기(祭器)를 대성 지성 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연국 복성공(兗國復聖公)·성국 종성공(郕國宗聖公)·기국 술성공(沂國述聖公)·추국 아성공(鄒國亞聖公)의 신위(神位) 앞에 베풀는데, 매위[各位]마다 각각 좌편에 변(籩) 하나, 【녹포(鹿脯)로 채운다.】 우편에 두(豆) 하나, 【녹혜(鹿醢)로 채운다.】 작(爵) 하나는 변과 두 앞에 있다.犧尊(犧尊) 하나를 베풀어 【청주(淸酒)로 채운다.】 작떡(勺鬯)을 가하여 전(殿) 위 동남 모퉁이에 둔다. 【배위(配位)의 주준(酒尊)은 정위(正位) 준소(尊所)의 동쪽에 있다.】 각각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축(燭)을 신위(神位) 앞에 베풀고, 또 전(殿) 안의 동서(東西) 종향(從享)과 양방(兩房)의 제기를 베풀되, 각각 좌편에 변(籩)하나, 【녹포로 채운다.】 우편에 두(豆) 하나, 【녹혜로 채운다.】 작(爵) 하나는 변과 두 앞에 있다. 상준(象尊)은 넷을 베풀되, 하나는 전상(殿上) 전영(前楹) 동쪽에 있고, 하나는 전영(前楹) 서쪽에 있으며, 둘은 양무(兩廡)로 나누어 함께 작떡(勺鬯)을 가한다. 세(洗)는 동계(東階) 동남에 북향하여 베풀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뇌(罍)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되 작(勺)을 올려놓고, 비(篚)는 세의 서남쪽에 있게 하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작세(爵洗)의 비(篚)는 또 작(爵)을 담아 놓는다. 접(坫)이 있다.】 집사자의 세를 또 동남에 북향하여 베풀고, 준(尊)·뇌(罍)·비(篚)의 떡(鬯)을 잡는 자의 자리를 준·뇌·비의 보자기의 뒤에 베풀다. 작헌(酌獻)을 행사하기 전에, 묘사(廟司)와 전사(典祀)가 각각 그 부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饌具)를 채우기를 끝낸다. 때가 이르면, 학생이 청금복(靑衿服)을 입고, 찬자(贊者) 두 사람이 먼저 뜰 사이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하여 사배하고 나서 위치(位次)로 나아가간다. 집사가 들어와 배위에 나아가, 줄을 겹으로 북향하고 서편쪽을 상(上)으로 하여 선다. 찬자

於堂下，俱近東，西向北上；設學生位於庭中，北向西上。廟司及典祀官各帥其屬入，設祭器於大成至聖文宣王、兗國復聖公、郕國宗聖公、沂國述聖公、鄒國亞聖公神位之前。每位各左一籩【實以鹿脯。】右一豆，【實以鹿醢。】爵一在籩豆前。設犧尊一，【實以淸酒。】加勺鬯，在殿上東南隅。【配位酒尊，即於正位尊所之東。】各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又設殿內東西從享及兩房祭器，各左一籩【實以鹿脯。】右一豆，【實以鹿醢。】爵一在籩豆前。設象尊四，一在殿上前楹東，一在前楹西。其二分兩廡，俱加勺鬯。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爵。有坫。】設執事者洗，又於東南北向；執尊篚鬯者位於篚尊罍鬯之後。酌獻：未行事前，廟司及典祀各帥其屬入，實饌俱畢。時至，學生服靑衿服。贊者二人先就階間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執事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唱四拜，執事

(贊者)가 ‘사배하라’ 창(唱)하면, 집사자가 사배하고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를 마치고, 각각 위치로 나아가며, 학생이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집사자가 작(爵)을 씻어 수건으로 닦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받들어 준소(尊所)로 나아가 점(坫) 위에 놓는다. 왕세손(王世孫)이 학생복(學生服)을 입고 위치(位次)에서 나오는데, 시위(侍衛)하기를 평상 의식과 같이 한다. 상자(相者)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와 【시위로서 들어오지 않을 사람은 문 밖에서 그치게 한다.】 배위(拜位)에 이르러 서향하여 선다. 【매양 입장(立定)하면 상자(相者)는 물러나서 좌편에 선다.】 상자(相者)가 앞으로 나아가 사배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손이 사배한다. 찬자(贊者)가 ‘사배하라’ 창하면, 위치에 있는 자가 모두 사배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상자(相者)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관세하기를 마치면, 상자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와서 【좌우 시위는 사람을 헤아려서 따라 오른다.】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준(尊)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상자(相者)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문선왕(文宣王)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꿇어앉기를 찬청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상자가 세 번 향을 올리기를 찬청하면,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놓고, 집사자가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상자가 작을 잡아 작을 드리기를 찬청하면,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놓게 한다. 상자가 면복(俛伏)하였다가 일어나기를 찬청하고, 상자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배위(配位)의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네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상자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복성공·중성공(宗聖公)·술성공(述聖公)·아성공(亞聖公)의 신위 앞에 나아가 행례하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배위(配位)의 작헌(酌獻)이 장차 끝날 때를 당하면, 집사자가 전내

者四拜，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學生入就位。執事者洗爵拭爵，置於籠，奉詣尊所，置於坫上。王世孫服學生服出次，侍衛如常儀。相者引王世孫入自東門，【侍衛不應入者，止於門外。】至拜位西向立，【每立定，相者退立於左。】相者前，贊請四拜，王世孫四拜。贊者唱四拜，在位者皆四拜。【先拜者不拜。】相者引王世孫詣盥洗位，北向立，盥洗訖，相者引王世孫升自東階，【左右侍衛量人從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相者引王世孫詣文宣王神位前北向立，贊請跪，執事者一人奉香合跪進，執事者一人奉香爐跪進，相者贊請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執事奉爵跪進，相者贊請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相者贊請俛伏興，相者引王世孫出戶，詣配位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四人以爵受酒。相者引王世孫詣復聖公、宗聖公、述聖公、亞聖公神位前行禮，竝如上儀。當配位酌獻將畢時，執事者詣殿內從享及兩廡諸神位前，助奠訖，【當配位酌獻時，殿內

(殿內)의 종향(從享)과 양무(兩廡)의 여러 신위 앞에 나아가 도와서 전(奠)드리기를 마친다. 【배위(配位)에 작헌할 때를 당하면 전내의 종향(從享)과 양무(兩廡)의 여러 집사는 각각 작으로 술을 따라, 작헌이 장차 끝날 때를 기다려서 여러 신위 앞에 도와서 전(奠) 드린다.】 상자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내려와서 배위(拜位)로 나아간다. 상자가 사배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손이 사배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창(唱)하면 위(位)에 있는 자가 모두 사배한다. 상자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문에 나와 편차(便次)로 돌아가는데, 시위하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위(位)에 있던 자가 차례로 나가고, 집사자가 모두 배위로 돌아온다. 찬자가 ‘사배하라.’ 창하면, 집사자는 사배를 끝내고 차례로 나가고, 찬자 두 사람은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하고, 속수의(束脩儀)는,
 “그날에 왕세손이 학생복을 입고 학당 문밖에 이른다. 속백(束帛) 【3필.】, 술 1병 【2되.】, 포[脩] 1안(案) 【5단[挺].】이다. 상자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문 동쪽에 위치하여 서향하고, 백비(帛篋)·수안(脩案)·주호(酒壺)를 왕세손 서남쪽에 진열하되, 문에 당하여 북향하여 겹줄로 하고, 서쪽을 상으로 한다. 박사(博士)가 공복(公服)을 갖추고, 집사자가 인도하여 학당 동쪽 계단 위에 서향하여 서게 한다. 장명자(將命者)가 나가서 문 동쪽에 북향하여 서서, ‘감히 일을 청합니다.’ 한다. 왕세손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아무가 바야흐로 선생께 업(業)을 받으려 하여, 감히 뵈기를 청합니다.’ 한다. 장명자(將命者)가 들어가 고하면,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가 부덕하오니, 청하건대, 왕세손께서 욕됨이 없게 하소서.’ 한다. 장명자가 나와서 고하면, 왕세손이 굳이 청한다.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가 부덕하오니, 왕세손이 자리에 나오면 아무가 감히 뵈겠습니까.’ 한다. 장명자가 나와서 고한다. 왕세손이 말하기를, ‘아무가 감히 빈객(賓客)으로 볼 수 없으니, 마침내 사견(賜見)하시기를 청합니다.’ 한다. 장명자가 들어가서 고한다.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가 사양하여도 명을 얻지 못

從享及兩廡諸執事, 各以爵酌酒, 以俟酌獻將畢時, 詣諸神位前助奠。】 相者引王世孫降自東階就拜位, 相者贊請四拜, 王世孫四拜。 贊者唱四拜, 在位者皆四拜。 相者引王世孫出門還便次, 侍衛如常儀。 在位者以次出。 執事者俱復拜位, 贊者唱四拜, 執事者四拜訖, 以次出。 贊者二人就拜位四拜而出。

束脩儀: 其日, 王世孫服學生服, 至學門外, 束帛、【三匹。】酒一壺、【二斗。】脩一案, 【五挺。】相者引王世孫, 位於門東西面, 陳帛篋、脩案、酒壺於王世孫西南當門, 北向重行西上。 博士具公服, 執事者引立於學堂東階上西面。 將命者出, 立門東北向曰: “敢請事。” 王世孫少進曰: “某方受業於先生, 敢請見。” 將命者入告, 博士曰: “某也不德, 請王世孫無辱。” 將命者出告, 王世孫固請, 博士曰: “某也不德, 請王世孫就位, 某敢見。” 將命者出告, 王世孫曰: “某不敢以視賓客, 請終賜見。” 將命者入告, 博士曰: “某也辭不得命, 敢不從!” 將命者出告。 執篋者以篋東面授王世孫, 王

	<p>하니,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한다. 장명자가 나와서 고한다. 광주리를 잡은 자가 광주리를 동향하여 왕세손에게 준다. 왕세손이 광주리를 잡는다. 박사가 내려와 동계 아래에서 서향하여 기다린다. 상자가 왕세손을 인도하고, 집사자는 주호(酒壺)와 수안(脩案)을 받들고 따른다. 왕세손이 문에 들어와 좌편으로 하여 서계(西階) 남쪽에 나아가 동향한다. 술과 포를 받든 자가 왕세손의 서남쪽에 서되 동향하여 북쪽을 상으로 한다. 왕세손이 꿇어앉아서 광주리를 놓고 재배하면, 박사가 답재배(答再拜)를 한다. 왕세손이 돌아서서 피하고, 드디어 나아가 꿇어앉아서 광주리를 취한다. 상자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박사 앞에 나아가서 동면(東面)하여 폐백을 준다. 술과 수안(脩案)을 받든 자가 따라서 박사 앞에 드린다. 박사가 폐백을 주면, 집사자가 술을 취(取)하고 폐백을 받아서 동편으로 간다. 상자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계단 사이에 서되, 남쪽으로 닦아 북면하고, 술과 포를 받든 자가 나온다. 왕세손이 재배하기를 마치면, 상자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막차(幕次)로 나가, 박사가 공복을 벗고 당(堂)에 올라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다린다. 【좌학당(左學堂) 동벽(東壁) 아래에 서향한다.】 상자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올라서 박사 앞에 나아가 경(經)을 강(講)하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하여 마치면, 상자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서계로 내려와 막차로 나간다.”</p> <p>하였다.</p>	<p>世孫執籩， 博士降伺于東階下西面。相者引王世孫， 執事者奉酒壺脩案以從。 王世孫入門而左， 詣西階南東向， 奉酒脩者立於王世孫西南東面北上， 王世孫跪奠籩再拜， 博士答再拜。 王世孫還避， 遂進跪取籩， 相者引王世孫進博士前， 東面授幣， 奉酒脩案者從奠於博士前， 博士(授) [受] 幣。 執事者取酒授幣以東。 相者引王世孫立於階間， 近南北面， 奉酒脩者出， 王世孫再拜訖， 相者引王世孫出就幕次， 以俟博士釋服， 升堂就坐， 【左學堂東壁下， 西向。】 相者引王世孫， 由西階升詣博士前講經， 如常儀畢， 相者引王世孫， 降自西階， 出就幕次。</p>
<p>3. 世宗 122卷, 30年 (1448 戊辰 / 명 정통 (正統) 13年) 12月 13日(乙丑) 1번째기사 세자의 문소전·휘덕전의 음복례에 대해 의논하다</p>	<p>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세자가 19일에 종묘(宗廟)에서 납향(臘享)을 지내고, 20일과 21일에는 문소전(文昭殿)과 휘덕전(輝德殿)에서 또 별제(別祭)를 행하니, 그렇다면 19일도 재계(齋戒)하는 날이니 동궁(東宮)이 음복례(飲福禮)를 행함은 불가함이 없을까. 우선 음복을 정지하고 별제를 마친 뒤 21일에 동궁을 궐내(闕內)에서 종친(宗親)을 거느리고 음복하고, 세 제향관(祭享官)은 의정부에서 행함이 어떨까.”</p>	<p>乙丑/傳旨議政府: “世子十九日臘享宗廟， 二十日二十一日， 又行別祭于文昭、輝德殿。 然則十九日， 亦齋戒也， 東宮行飲福， 無奈不可乎? 姑停飲福， 待別祭畢後二十一日， 東宮在闕內， 率宗親飲福三祭享官， 於政府行之， 何如?” 僉議啓: “文昭、輝德殿飲福， 固</p>

	<p>하니, 모두 의논해 아뢰기를, “문소전·휘덕전의 음복은 본래 전례(前例)가 없으니 아울러 행할 수 없으며, 또 예전에 ‘신의 은혜[神惠]4302) 를 머물러 두지 아니한다.’는 글이 있으니, 종묘 제사 뒤 3일에 음복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날 환궁(還宮)한 뒤에 아헌관(亞獻官) 이하가 종묘에 머물러 있으면서 잠깐 행함이 적당하옵니다.” 하였다.</p>	<p>無前例，不可竝行。 且古有不留神惠之文， 宗廟祭後三日飲福， 不可也。 其日還宮後， 亞獻官以下留在宗廟， 暫行爲便。”</p>
<p>4. 世宗 122卷, 30年 (1448 戊辰 / 명 정통 (正統) 13年) 12月 18日 (庚午) 1번째기사 예조에서 세자가 대행하는 제사의 음복 의식을 정하다</p>	<p>예조에서 세자가 대행하는 제사의 음복(飲福) 의식을 정하여 아뢰기를, “전기(前期)하여 충扈위(忠扈衛)에서 세자의 막차(幕次)를 재궁(齋宮)의 남쪽에 서향(西向)하여 마련한다. 【땅의 적당한 데에 따른다.】 유사(攸司)가 세자의 자리[座]를 막차 한가운데에 【교의(交倚).】 설치하고, 2품 이상의 헌관(獻官)의 자리는 막차 안에 서쪽으로 가까이 좌우(左右)로 나누어 【방석(方席).】 마련하며, 천조관(薦俎官) 이상의 자리는 남쪽 줄[南行]4304) 에 마련한다. 여러 집사(執事)의 자리는 뜰 가운데에 남북(南北)으로 서로 향하게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한다. 【단석(單席)으로 한다. 6품 이상이 한 줄이 되고, 7품 이하가 한 줄이 된다.】 또 부지통례(副知通禮)와 전의(典儀)의 자리를 뜰 가운데에 설치하되, 남쪽에서 북향(北向)하게 하고, 통찬(通贊)과 봉례랑(奉禮郎)은 약간 물려서 설치한다. 헌관과 여러 집사들의 배위(拜位)는 뜰 가운데에 동향(東向)하여 설치하되, 남쪽을 위[上]로 하며,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한다. 문외위(門外位)는 그 서쪽에 마련한다. 사준(司尊)이 준(尊)4305) 을 막차 안에다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東向)하여 설치한다. 때가 되면 군관(群官)들이 시복(時服)으로 모두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가고, 궁관(宮官) 및 시위(侍衛)하는 관원은 함께 재실(齋室)에 나아가서 받들어 맞이한다. 세자가 시복(時服)으로 막차의 자리에 나아가면, 산선(繖扇)과 시위(侍衛)를 의식과 같이 하고, 봉례랑이 군관들을 나누어 인도해 들어와서 배위(拜位)</p>	<p>庚午/禮曹啓定世子代行祭飲福儀：“前期，忠扈衛設世子幕次於齋宮之南，西向。【隨地之宜。】攸司設世子座於幕次，當中；【交倚。】設二品以上獻官座於幕次內近西，分左右；【方席。】薦俎官以上座於南行；【方席。】設諸執事座於庭中，南北相向，異位重行；【單席六品以上爲一行，七品以下爲一行。】又設副知通禮及典儀位於庭中在南，北向；通贊奉禮郎差退；獻官諸執事拜位於庭中，東向南上，每等異位重行；設門外位於其西。司尊設尊於次內近西，東向。時至，群官以時服，皆就門外位。宮官及侍衛之官，俱詣齋室奉迎。世子時服，詣幕次座，繖扇侍衛如儀。奉禮郎分引群官入就拜位，典儀曰：“再拜。”通贊唱鞠躬再拜興平身，群官鞠躬再拜</p>

	<p>에 나아가게 한다. 전의(典儀)가 ‘재배(再拜)하라.’ 하면, 통찬(通贊)이 ‘국궁(鞠躬), 재배(再拜), 흥(興), 평신(平身)’ 창(唱)하여, 군관들이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나서, 차례로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사옹(司饗)이 【부제조(副提調) 이하가 된다. 뒤에도 이와 같다.】 찬안(饌案)을 올리고, 집사가 군관들의 탁자를 베푼다. 사옹이 탕(湯)을 올리고, 집사가 군관에게 탕(湯)을 베푼다. 사준(司尊)이 【부제학 이하가 된다. 뒤에도 이와 같다.】 술을 따라서 술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집사가 군관에게 술을 베푼다. 【사준이 술잔을 올릴 때마다 집사가 군관에게 술을 먼저 돌린다.】 술을 들기를 마치면, 다음에 탕을 올리고 술잔을 올리는데,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술을 다섯 순배 돌리기를 마치면, 사옹이 앞으로 나아가 찬안(饌案)을 물리고, 집사가 군관들의 탁자를 물린다. 봉례랑이 군관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온다. 전의가 ‘재배하라.’ 하면, 통찬이 ‘국궁, 재배, 흥, 평신’ 창하여, 군관들이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부지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자리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禮)를 마쳤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봉례랑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고, 세자가 자리에서 내려와 재실로 돌아가는데, 산선과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다.” 하였다.</p>	<p>興平身，以次各就座。 司饗【副提調以下後倣此。】進饌案， 執事設群官卓， 司饗進湯， 執事設群官湯。 司尊【副提調以下後倣此。】酌酒， 捧盞跪進， 執事設群官酒。 【每司尊進盞， 執事先行群官酒。】舉訖， 次進湯進盞， 竝如上儀。 酒行五遍訖， 司饗進撤案， 執事撤群官卓。 奉禮郎引群官俱復拜位， 典儀曰：“再拜。” 通贊唱鞠躬再拜興平身， 群官鞠躬再拜興平身。 副知通禮進當座前， 俯伏跪白禮畢， 俯伏興還本位。 奉禮郎分引群官出， 世子降座還齋室， 繖扇侍衛如來儀。</p>
<p>5. 세종 124권, 31년 (1449 기사 / 명 정통 (正統) 14년) 5월 26 일(을사) 3번째기사 시제에 당상관 이상에게는 얼음을 줄 것을 의정부에서 청하다</p>	<p>의정부에서 상신하기를, “《대학(大學)》의 ‘벌빙지가(伐氷之家)’ 주(註)에 이르기를, ‘벌빙(伐氷)하는 집은 경대부(卿大夫) 이상의 상사나 제사에 얼음을 쓰는 자이라.’ 하였고, 《좌전(左傳)》에, ‘옛적에 해가 북륙(北陸)에 있으면 얼음을 저장하여 조정 녹위(祿位)의 접빈 식사[賓食]와 상사·제사에 쓴다.’ 하였는데, 지금 종친(宗親)과 대신의 상사에는 얼음 접시를 쓰는 것을 허락하고 오직 시제에는 얼음을 쓰지 못하는 것은 미편하오니, 당상관(堂上官) 이상은 중춘·중하·중추·중동</p>	<p>議政府申： “《大學》伐氷之家註云：‘伐氷之家， 卿大夫以上喪祭用氷者也。’ 《左傳》：‘古者日在北陸而藏氷。 朝之祿位賓食喪祭， 於是乎用之。’ 今宗親及大臣之喪， 許用氷槃， 獨於時祭， 不得用氷未便。 堂上官以上四仲朔時祭內， 五月八月熱時， 則賜</p>

	<p>의 초하루 시제(時祭) 중에 5월·8월의 더운 때에는 얼음 한 장씩 주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水一丁。” 從之。</p>
<p>6. 세종 126권, 31년 (1449 기사 / 명 정통(正統) 14년) 11월 18일(갑오) 2번째기사 이계전이 추은 고사를 상고하여 바치고, 가자 시행에 대한 절목을 올리다</p>	<p>이계전(李季甸)이 추은 고사(推恩故事)를 상고하여 바치고, 인하여 말하기를, “신이 삼가 역대의 서적을 고찰하오니, 대체로 기쁜 경사가 있을 때마다 거의 다 벼슬[爵]을 내리거나, 포(脯)4380) 를 내렸사옵고, 미납세를 면제하거나 전조(田租)를 감하여 은택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기쁜 경사가 있사오매, 중외(中外)의 관리에게 자급을 더해 주는 것은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이 합이 옳습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절목(節目)에 대하여 감히 좁은 소견을 조목별로 뒤에다 열거하겠습니다.</p> <p>1. 이 앞서 개월(箇月)이 이미 차서 예(例)로서 가자(加資)하였거나, 또는 특지(特旨)로서 자급을 더하여 준 자에게는, 한 자급을 뛰어 제수하든가 한 자급만을 더하여 주옵되, 이제 은혜를 내리는 날을 당하여 모두 개월을 계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p> <p>1. 예전은 백성에게도 벼슬을 내려 주었지만, 이제 백성에게 벼슬을 주되 두루 내려 주기에는 그 사세가 어려울 듯하오니, 대체로 구전(口傳)이나 성중(成衆) 등의 관리로 이름이 사관(仕版)에 있는 자는, 비록 전함(前銜)이라 하더라도 모두 산관(散官)으로 한 자급을 더하여 주소서.</p> <p>1. 노인의 벼슬은 이미 이루어진 격례(格例)에 의하여 시행하옵되, 나이 70이 차서 치사(致仕)한 사람으로 말하면, 늙도록 종사(從仕)하였으니, 어찌 작은 공로라도 없겠습니까. 하루 아침에 물러났으니 참으로 민망하옵니다. 무릇 여러 치사자(致仕者)에게는 모두 산관(散官)으로 한 자급을 더하여 주옵되, 직함을 쓸 때에는 앞서 이미 행하던 화함(華銜)에다 병용(并用)하게 하소서.</p> <p>1. 포육(脯肉)을 내리심은 참으로 시행하기 어렵겠사오니, 당상관(堂上官) 이상으로서 가자(加資)의 예(例)에 들지 않는 자에게만 정지(正至)의 예에 의하</p>	<p>李季甸稽推恩故事以進，因言曰：“臣謹考歷代之書，凡有喜慶，率皆賜爵、賜脯、免逋欠、減田租，以加恩澤。今有喜慶，加中外官資，固當如上敎，其餘節目，敢以褊見，條列于後。</p> <p>一，前此箇月已滿，例加資，而又特旨加資者，則或超一資，或只加一資。今當施恩之日，并計箇月施行。</p> <p>一，古者賜民爵，今汎賜民爵，其勢似難。凡口傳及成衆等官名載仕版者，雖前銜，皆加散官一資。</p> <p>一，老人爵，依已成格例施行。其年滿七十致仕之人，至老從仕，豈無微勞！一朝退歸，誠爲可憫。凡諸致(死) [仕] 者，皆加散官一資，書銜之時，并用前所已行華銜。</p> <p>一，賜脯，誠所難行。堂上以上，不在加資之例，依正至例賜宴。若老人，賜酒肉。</p> <p>一，免租，誠非易行，十年以上公私負逋蠲免何如？” 命吏兵曹，與季甸同議。</p>

	<p>여 잔치를 내려 주시고, 노인에게는 주육(酒肉)을 내려 주소서. 1. 조세의 면제는 참으로 행하기가 쉽지 않사오니, 10년 이상 된 공사(公私)의 미납세만을 면제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병조(吏兵曹)에 명하여 계전(季甸)으로 더불어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p>	
<p>7. 세종 127권, 32년 (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윤1월 2일(정미) 5번째기사 예조에서 정한 왕자가 조정 사신에게 연회를 대행하는 의식</p>	<p>예조(禮曹)에서 왕자(王子)가 조정(朝廷) 사신에게 연회를 대행하는 의식을 정하였다. 그 의식에 이르기를, “그날에 영접도감(迎接都監)이 정사(正使)의 자리를 태평관(太平館)의 정청(正廳) 북벽(北壁)에 남향(南向)하여 설치하고, 부사(副使)의 자리를 동벽(東壁)에 서향(西向)하여 설치하고, 왕자(王子)의 자리를 서벽(西壁)에 남쪽으로 가까이 동향(東向)하여 설치한다. 【모두 검은 칠[烏漆]한 교의(交倚)이다. 만일 정사와 부사가 모두 남향(南向)이면, 왕자의 자리는 동벽에 설치한다.】 사준원(司尊院)에서 주탁(酒卓)을 청내(廳內)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北向)하여 설치한다. 왕자가 태평관에 이르러 막차(幕次)로 들어간다. 【하루 전에 충호위(忠扈衛)에서 막차를 대문 밖에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나아가서 사자를 보는데, 나가서 정청(正廳)의 서계(西階) 아래에 이르면, 사자가 정청(正廳)에 나와서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선다. 왕자가 서문(西門)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아가 읍(揖)하면, 사자가 답례로 읍(揖)한다. 사자가 자리에 앉으면 왕자도 자리에 나앉는다. 사준 별감(司饗別監) 한 사람이 다구(茶甌)를 받들고 한 사람이 다종반(茶鍾盤)을 받들고 함께 들어가 주탁(酒卓)의 동쪽에 선다. 【다종(茶鍾)을 받든 자는 서쪽에 있되, 조금 뒤로 물러나 있다.】 사옹 별좌(司饗別座) 세 사람이 과반(果盤)을 받드는데, 한 사람은 정사(正使)의 오른쪽에 동향하여 서고, 한 사람은 부사(副使)의 왼쪽에 북향하여 서고, 한 사람은 왕자의 오른쪽에 북향하여 선다. 사옹 제거(司饗提舉)가 다종(茶鍾)으로 다(茶)를 받아 가지고 서서 왕자에게 드리면, 【다가 장차 이르게</p>	<p>禮曹定王子代行宴朝廷使儀： 其日，迎接都監設正使座於太平館正廳北壁，南向；副使座於東壁，西向；王子座於西壁近南，東向。【俱烏漆交倚。若正使副使俱南向，則設王子座於東壁。】司尊院設酒卓於廳內近南，北向。王子至館入次，【前一日，忠扈衛設次於大門外近南。】時至，就見使者，出至正廳西階下，使者出正廳，各就前立。王子由西門入就前揖，使者答揖。使者就座，王子就座。司尊別監一人捧茶甌，一人捧茶鍾盤俱入，立於酒卓東。【捧鍾者在西差退】司饗別座三人捧果盤，一人立於正使之右東向，一人立於副使之左北向，一人立於王子之右北向。司饗提舉以鍾受茶，立進于王子，【茶將至，王子起坐少前立，使者亦起坐。酒禮亦同。】王子執鍾就正使前進茶，正使受鍾，權受通事。提舉又以鍾受茶，立進于王子，</p>

되면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 서고, 사자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난다. 주례(酒禮)도 또한 이와 같다.】 왕자가 다종(茶鍾)을 잡고 정사(正使) 앞으로 나아가 다를 드리고, 정사는 다종을 받아서 우선 통사(通事)에게 준다. 제거(提擧)가 또 다종으로 다를 받아 가지고 서서 왕자에게 드리면, 왕자가 다종을 잡고 부사(副使) 앞으로 나아가서 다를 드리고, 부사는 다종을 받는다. 왕자가 조금 물리나면, 제거(提擧)가 또 다종으로 다를 받아 가지고 서서 정사에게 드린다. 정사가 다종을 잡고 왕자 앞으로 나아가 다를 드리면, 왕자가 다종을 잡고, 통사(通事)가 우선 다종을 받아 가지고 서서 정사에게 드리면, 정사가 다종을 잡는다. 사자(使者)가 자리에 나아가고, 왕자가 자리에 나아가서 마시고 나면, 제거(提擧)가 각기 사자와 왕자의 앞으로 나아가 서서 다종을 받아 모두 다반(茶盤)에 도로 놓아서 가지고 나온다. 처음에 다(茶)를 들기를 마치면, 사옹 별좌(司饗別座)가 각기 서서 과일을 올리고 함께 과반(果盤)을 가지고 나온다. 조금 있다가 사준 별감(司饗別監) 두 사람이 주탁(酒卓)의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서고, 또 별감(別監) 네 사람이 주탁(酒卓)뒤에 벌여선다. 악사(樂師)가 가자(歌者)와 금슬(琴瑟)을 거느리고 동계(東階)·서계(西階)로 나누어 올라가서 월대(月臺) 위에 앉는다. 사옹 별좌 세 사람이 각각 과반(果盤)을 받들고 나누어 매위(每位)에 나아가서 서기를 다례(茶禮)와 같이 한다. 장차 과반을 올리려 하면 음악을 시작한다. 사준 제거(司尊提擧)가 잔(盞)으로 술을 받아 【무릇 술을 따르는 것은 별감(別監)이 한다.】 가지고 서서 왕자에게 올리면, 왕자가 잔을 잡고 정사(正使) 앞에 나아가서 읊(揖)하고 첫째 잔의 술을 올린다. 정사가 읊(揖)하고 잔을 잡고서 부사(副使)에게 읊(揖)하면, 부사가 답읍(答揖)하고, 또 왕자(王子)에게 읊(揖)하면, 왕자도 답읍(答揖)하고 돌아와서 잔대(盞臺)를 잡는다. 【뒤에도 이와 같이 한다.】 정사(正使)가 마시기를 마치면, 제거(提擧)가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 잔을 받는다. 정사가 읊(揖)하고, 왕자가 답읍(答揖)한다. 사옹 별좌가 과반(果盤)을

王子執鍾，就副使前進茶，副使受鍾，王子少退。提擧又以鍾受茶，立進于正使，正使執鍾就王子前進茶，王子執鍾。通事以權受茶鍾，立進于正使，正使執鍾。使者就座，王子就座飲訖。提擧各進使者及王子前，立受鍾，俱復於茶盤以出。初擧茶訖，司饗別坐各立進果，俱以盤出。少頃，司尊別監二人分立于酒卓東西，又別監四人列立于酒卓後。樂師帥歌者及琴瑟，分東西階升，坐於月臺上。司饗別坐三人各捧果盤，分就每位立，如茶禮。將進果盤，樂作。司尊提擧以盞受酒，【凡酌酒者，別監爲之。】立進于王子，王子執盞，就正使前揖，進第一盞酒，正使揖執盞，與副使揖，副使答揖。又與王子揖，王子答揖，還執盞臺。【後倣此。】正使飲訖，提擧進，立受虛盞。正使揖，王子答揖。司饗別坐以果盤，立進于正使前，【每當飲訖，別坐進果。】司尊提擧又以盞受酒，立進于王子，王子執盞揖進酒，正使答揖，執盞飲訖，提擧進立，受虛盞。正使揖，王子答揖，少退立。司尊提擧以盞受酒，立進于正使，正使執

가지고 서서 정사 앞에 올리고, 【매양 술을 다 마시면 별좌가 과일을 올린다.】 사준 제거가 또 잔으로 술을 받아 서서 왕자에게 올리면, 왕자가 잔을 잡고 읊(揖)하며 술을 올린다. 정사가 답읍(答揖)하고 조금 뒤로 물러나 선다. 사준 제거가 잔으로 술을 받아 서서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잔을 잡고 읊(揖)하며 왕자에게 올린다. 왕자가 잔을 잡고 부사에게 읊(揖)하면, 부사가 답읍(答揖)하고, 또 정사에게 읊(揖)하면, 정사가 답읍(答揖)하고 돌아와서 잔을 잡는다. 【뒤에도 이와 같이 한다.】 왕자가 마시기를 마치면, 제거(提舉)가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 잔을 받는다. 왕자가 읊(揖)하고, 정사가 답읍(答揖)한다. 제거가 또 잔으로 술을 받아 서서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잔을 잡고 읊(揖)하며 술을 올린다. 왕자가 답읍(答揖)하고 잔을 잡아 마시기를 마치면, 제거가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 잔을 받는다. 왕자가 읊(揖)하면, 정사가 답읍(答揖)한다. 정사가 자리 앞에 나아가 서고, 왕자가 다음에 부사(副使)와 더불어 행주(行酒)하기를 정사(政使)와 행한 예(禮)같이 행한다. 이를 마치면, 제거가 잔으로 술을 받아 서서 왕자에게 올린다. 왕자가 잔을 잡고 읊(揖)하며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답읍(答揖)하고 잔을 잡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제거가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잔을 받는다. 제거가 잔으로 술을 받아서서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잔을 잡고 읊(揖)하며 왕자에게 올린다. 왕자가 답읍(答揖)하고 잔을 잡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제거가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 잔을 받는다. 왕자가 읊(揖)하면, 정사가 답읍(答揖)한다. 다음에 부사와 행례(行禮)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사자(使者)가 자리에 앉고, 왕자도 자리에 앉는다. 음악을 그친다. 사옹 제거 두 사람이 찬탁(饌卓)을 마주 들고 장차 올리려 하면, 음악을 시작한다. 왕자가 정사 앞으로 나아가 찬탁을 올리는데, 제거가 도와서 올린다. 정사가 읊(揖)하면, 왕자가 답읍(答揖)하고, 부사 앞에 나아가서 찬탁을 올리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사자(使者)와 왕자가 과탁(果卓)을 예빈시(禮賓寺)에서 먼저 자리 앞에 설치한다.】 왕자가 들

盞, 揖進于王子, 王子執盞, 與副使揖, 副使答揖, 又與正使揖, 正使答揖, 還執盞, 【後倣此】王子飲訖, 提舉進立, 受虛盞。王子揖, 正使答揖。提舉又以盞受酒, 立進于正使, 正使執盞揖進酒, 王子答揖, 執盞飲訖, 提舉進立受虛盞。王子揖, 正使答揖。正使就座前立, 王子次與副使行酒, 與正使禮訖, 提舉以盞受酒, 立進于王子, 王子執盞, 揖進于正使, 正使答揖, 執盞飲訖, 提舉進立受虛盞。提舉以盞受酒, 立進于正使, 正使執盞, 揖進于王子, 王子答揖, 執盞飲訖, 提舉進立, 受虛盞。王子揖, 正使答揖。次與副使行禮如上儀訖, 使者就座, 王子就座。樂止。司饗提舉二人對舉饌卓將進, 樂作。王子就正使前進卓, 提舉助進。正使揖, 王子答揖。就副使前進卓如上儀, 【使者及王子果卓, 禮賓寺先設於座前。】王子還就座前立。司饗提舉二人對舉饌卓以進, 正使就王子進卓, 【副使從之】提舉助進, 王子揖, 使者答揖。使者就座, 王子就座。樂止。內直別監三人, 各捧花盤, 就廳外立, 樂作。二人分就使者前, 通事

아와서 자리 앞에 나아가 서면, 사옹 제거 두 사람이 찬탁(饌卓)을 마주 들어 올린다. 정사가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찬탁을 올리는데, 【부사(副使)가 따른다.】 제거가 도와서 올린다. 왕자가 읍(揖)하면, 사자(使者)가 답읍(答揖)한다. 사자가 자리에 앉고, 왕자가 자리에 앉는다. 음악을 그친다. 내직 별감(內直別監) 세 사람이 각기 화반(花盤)을 받들고 청외(廳外)에 나아가 선다. 음악을 시작한다. 두 사람이 나누어 사자 앞으로 나아가면, 통사(通事)가 진화(進花)하고, 한 사람은 왕자 앞으로 나아가 진화(進花)한다. 【통사(通事)와 내직(內直)이 일시(一時)에 나아간다.】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행주(行酒)는 종친(宗親)이 주탁(酒卓)의 동쪽에 들어와 서면, 사준 제거(司尊提舉)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음악을 시작한다. 제거(提舉)가 잔을 종친(宗親)에게 주면, 종친이 잔을 잡고 정사(正使) 앞으로 나아가 【사자가 일어서고, 왕자도 일어서 선다.】 읍(揖)하고 서서 두 번째 잔의 술을 올린다. 정사(正使)가 답읍(答揖)하고 잔을 잡으면, 종친은 그대로 잔대(盞臺)를 잡고 있다. 【뒤에도 이와 같이 한다.】 종친이 빈잔을 받으면, 정사가 읍(揖)한다. 종친이 답읍(答揖)하고 잔을 제거(提舉)에게 준다. 제거가 또 잔으로 술을 받아 종친에게 주면, 종친이 잔을 잡고 정사 앞에 나아가 읍(揖)하고 술을 올린다. 정사가 답읍(答揖)하고 잔을 잡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종친이 빈잔을 받는다. 정사가 읍(揖)하면, 종친이 답읍(答揖)하고 잔을 제거에게 준다. 다음에 부사(副使)와 왕자(王子) 앞으로 나아가서 행례(行禮)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잔을 제거에게 주고 나간다. 사자(使者)가 자리에 앉고, 왕자가 자리에 앉는다. 음악을 그친다. 사옹 별좌(司饗別坐)가 빈 탁자[空卓]를 사자와 왕자의 찬탁(饌卓) 오른쪽에 설치하고, 사옹 제거(司饗提舉) 세 사람이 각기 소선(小膳)을 받들어 【사자는 매위(每位)마다 3반(盤)이고, 왕자의 자리에는 1반(盤)이다.】 장차 올리려 하면, 음악을 시작한다. 왕자가 정사(正使) 앞으로 나아가서 선(膳)을 올리는데, 제거(提舉)가 도와서 올린다. 정사가 읍(揖)하면,

進花，一人進王子前進花訖，【通事內直一時進。】樂止。行酒。宗親入立酒卓之東，司尊提舉以盞受酒，樂作。提舉以盞受宗親，宗親執盞就正使前【使者起立，王子起立。】揖，立進第二盞酒，正使答揖執盞，宗親仍執盞臺，【後倣此。】宗親受虛盞。正使揖，宗親答揖，以盞授提舉。提舉又以盞受酒，授宗親，宗親執盞，就正使前揖進酒，正使答揖，執盞飲訖，宗親受虛盞。正使揖，宗親答揖，以盞授提舉。次就副使及王子前行禮如上儀訖，以盞授提舉乃出。使者就座，王子就座，樂止。司饗別坐以空卓置於使者及王子饌卓之右。司饗提舉三人各捧小膳【使者每位三盤，王子位一盤。】將進，樂作。王子就正使前進膳，提舉助進。正使揖，王子答揖。就副使前進膳如上儀，王子還就座前立。提舉一人奉小膳以進，正使就王子前進膳，【副使從之。】提舉助進，王子揖，使者答揖就座。王子就座，司饗別座就前立，割肉舉箸訖，樂止。進三盞酒，如進第二盞酒儀。【宗親以次行酒】司饗別座奉湯將進，樂作。

왕자가 답읍(答揖)하고, 부사(副使) 앞에 나아가 선(膳)을 올리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왕자가 돌아와서 자리 앞에 나아가 서면, 제거 한 사람이 소선(小膳)을 받들어 올리고, 정사가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선(膳)을 올리는데, 【부사(副使)가 따른다.】 제거가 도와서 올린다. 왕자가 읊(揖)하면, 사자(使者)가 답읍(答揖)하고 자리에 앉고, 왕자도 자리에 앉는다. 사옹 별좌가 앞으로 나아가서 고기를 베어 저(箸)를 든다. 이를 마치면 음악을 그친다. 그리고 세째 잔의 술을 올리기를 두 번째의 잔의 술을 올리던 의식과 같이 한다. 【종친(宗親)이 차례로 행주(行酒)한다.】 사옹 별좌가 탕(湯)을 받들어 장차 올리려 하면, 음악을 시작한다. <사옹 별좌가> 나누어 매위(每位) 앞에 나아가 서서 올리면, 저(箸)를 든다. 이를 마치면 음악을 그친다. 【청내(廳內)의 두목(頭目)과 통사(通事)를 먹이고, 그 나머지 두목(頭目)은 별청(別廳)에서 먹인다. 네 번째 잔의 술을 올린 뒤에 가자(歌者)들을 먹인다.】 행주(行酒)하기를 여덟 순배 하는데, 【매행(每行) 뒤에 탕(湯)을 올린다.】 모두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대선(大膳)을 올리는 것은 소선(小膳)을 올리는 의식과 같다. 【오직 베지 아니한다.】 사옹 별좌 세 사람이 각기 과반(果般)을 받들고 매위(每位) 앞에 나아가서 장차 과반을 올리려 하면, 음악을 시작한다. 그리고 왕자가 행주(行酒)하기를 첫째 잔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오직 술[酒]을 청하지 않는다.】 행주(行酒)하기를 마치면 음악을 그친다. 왕자가 나간다.”

하고, 종친(宗親)이 조정(朝廷) 사신을 잔치하는 의식은, “그날에 영접도감(迎接都監)이 정사(正使)의 자리를 태평관(太平館)의 정청(正廳) 북벽(北壁)에 남향(南向)하여 설치하고, 부사(副使)의 자리를 동벽(東壁)에 서향(西向)하여 설치하고, 종친(宗親)의 자리를 서벽(西壁)에 동향(東向)하여 설치하며, 【모두 검을 칠[烏漆]한 교의(交倚)이다. 대군(大君)은 앞에 있고, 제군(諸君)은 조금 뒤에 있다. 만약 정사(正使)·부사(副使)가 모두 남향(南向)이면, 대군(大君)은 동벽(東壁), 제군(諸君)은 서벽(西壁)이다.】 주탁(酒卓)을

分就每位前，立進舉箸訖，樂止。【饋廳內頭目及通事，其餘頭目，饋于別廳，第四盞後饋歌者等。】酒行八遍，【每行後進湯。】竝如前儀。進大膳如進小膳儀。【唯不剖】司饗別坐三人，各捧果盤，就每位前，將進果盤，樂作。王子行酒如第一盞儀。【唯不請酒。】行酒畢，樂止，王子出。

宗親宴朝廷使儀：
其日，迎接都監設正使座於太平館正廳(此)〔北〕壁，南向；副使座於東壁，西向；宗親座於西壁，東向；【俱烏漆交倚。大君在前，諸君差後，若正副使俱南向，則大君東壁，諸君西壁。】設酒卓於廳內近南，北向；宗親至館入次。【前一日，忠扈衛設次於大門外近南。】時至，就見使者，出至正廳西階下，使者出正廳，各；前立。宗親由西門入就前揖，使者答揖。使者就座，宗親就座。司尊別監二人分立於酒卓東西，別監四人列立于酒卓後。典樂率歌者及琴瑟，分東西階，升於月臺上。司饗別坐及別侍衛各捧果盤，分就每位立。樂作，司尊別監以盞受酒，【凡酌酒，皆別監爲之。】立進于爲首

청내(廳內)에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北向)하여 설치한다. 종친(宗親)이 태평관에 이르러 막차(幕次)에 들어간다. 【하루 전에 충호위(忠扈衛)에서 대문 밖에 막차를 설치하는데,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나아가서 사자(使者)를 보는데, 막차에서 나와 정청(正廳)의 서계(西階) 아래에 이르면, 사자(使者)가 정청(正廳)에 나와 각기 자리 앞에 나아가서 선다. 종친(宗親)이 서문(西門)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아가 읍(揖)하면, 사자(使者)가 답읍(答揖)한다. 사자(使者)가 자리에 앉고, 종친(宗親)도 자리에 앉는다. 사준 별감(司尊別監) 두 사람이 주탁(酒卓)의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서고, 별감(別監) 네 사람이 주탁(酒卓) 뒤에 벌여선다. 전악(典樂)이 가자(歌者)와 금슬(琴瑟)을 거느리고 동계(東階)·서계(西階)로 나누어 월대(月臺) 위로 올라가고, 사옹 별좌(司饗別坐)와 별시위(別侍衛)가 각기 과반(果盤)을 받들고 나누어 매위(每位)에 나아가 선다. 음악을 시작한다. 사준 별감(司尊別監)이 잔으로 술을 받아 【무릇 술을 따르는 것은 별감(別監)이 한다.】 가지고 서서 우두머리 되는 종친(宗親)에게 올리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잔을 잡고 정사(正使) 앞에 나아가서 읍(揖)하고 첫째 잔의 술을 올리면, 정사가 답읍(答揖)하고 잔을 잡고 부사(副使)에게 읍(揖)한다. 부사가 답읍(答揖)하고 종친에게 읍(揖)하면, 모든 종친이 답읍(答揖)한다. 또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읍하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읍(答揖)한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잔대(盞臺)를 잡는다. 【뒤에도 이와 같이 한다.】 정사가 술을 다 마시고 나면, 사준 별감이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 잔을 받는다. 정사가 읍(揖)하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읍(答揖)한다. 사옹 별감이 과반(果盤)을 가지고 서서 정사 앞에 올리고, 【매양 사자(使者)가 술을 마시고 나면 별감(別監)이 앉아서 과일을 올린다.】 사준 별감이 또 잔으로 술을 받아 서서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올리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잔을 잡고 읍(揖)하며 술을 올린다. 정사(正使)가 답읍(答揖)하고 잔을 잡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사준 별감이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잔을 받는다. 정사

宗親，爲首宗親執盞就正使前，揖進第一盞酒，正使答揖執盞，與副使揖，副使答揖，與宗親揖，諸宗親答揖。又與爲首宗親揖，爲首宗親答揖，還執盞臺，【後倣此。】正使飲訖，司尊別監進立受虛盞，正使揖，爲首宗親答揖。司饗別監以果盤立進于正使前，【每當使者飲訖，別監坐進果。】司尊別監又以盞受酒，立進于爲首宗親，爲首宗親執盞揖進酒，正使答揖，執盞飲訖，司尊別監進立受虛盞。正使揖爲首宗親，爲首宗親答揖少退立。司尊別監以盞受酒，立進于正使，正使執盞，揖進于爲首宗親，爲首宗親答揖，執盞與副使揖，副使答揖，與諸宗親揖，諸宗親答揖，又與正使揖，正使答揖，還執盞臺。【後倣此】爲(宗)[首]宗親飲訖，司尊別監進立受虛盞。爲[首]宗親揖，正使答揖。別侍衛以果盤立進，【每當宗親飲訖，別侍衛進果。】司尊別監又以盞受酒，立進于正使，正使執盞揖進酒，爲首宗親答揖，執盞飲訖，司尊別監進立受虛盞。爲宗親首揖，正使答揖。正使就座前立，爲首宗親與副使行酒，如正使禮訖，副使就

가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읍(揖)하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읍(答揖)하고 나서 조금 물러나 선다. 사준 별감이 잔으로 술을 받아 가지고 서서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잔을 잡고 읍(揖)하며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올린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읍(答揖)하고 나서 잔을 잡고 부사(副使)에게 읍(揖)하면 부사(副使)가 답읍(答揖)하고, 여러 종친에게 읍(揖)하면, 모든 종친이 답읍(答揖)한다. 또 정사(正使)에게 읍(揖)하면, 정사가 답읍(答揖)한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 잔대(盞臺)를 잡는다. 【뒤에도 이와 같이 한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다 마시고 나면, 사준 별감이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 잔을 받는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읍(揖)하면 정사가 답읍(答揖)한다. 별시위(別侍衛)가 과반(果盤)을 가지고 서서 올리고, 【매양 종친이 술을 다 마시고 나면, 별시위(別侍衛)가 과일을 올린다.】 사준 별감이 또 잔으로 술을 받아 가지고 서서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잔을 잡고 읍(揖)하고 나서 술을 올린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읍(答揖)하고 잔을 잡아 술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사준 별감이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 잔을 받는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읍(揖)하면, 정사가 답읍(答揖)한다. 그리고 나서 정사가 자리 앞에 나아가 선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부사(副使)와 더불어 행주(行酒)하기를 정사에게 한 예(禮)와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부사(副使)가 자리 앞에 나아가 선다. 사준 별감이 잔으로 술을 받아 가지고 서서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올리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잔을 잡고 읍(揖)하며 종친에게 올린다. 종친으로서 술잔을 받은 자가 답읍(答揖)하고, 잔을 잡고 정사 앞에 나아가 읍(揖)한다. 정사가 답읍(答揖)하고 부사(副使)에게 읍(揖)하면, 부사가 답읍(答揖)한다. 또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읍(揖)하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읍(答揖)한다. 종친이 술을 마시고 나면, 사준 별감이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 잔을 받는다. 종친이 읍(揖)하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읍(答揖)한다. 사준 별감이 또 잔으로 술을 받아 가지고 서서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올리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잔을 잡

座前立。司尊別監以盞受酒，立進于爲首宗親，爲首宗親執盞揖，進酒于宗親，宗親當受爵者答揖，執盞就正使前揖，正使答揖，與副使揖，副使答揖，又與爲首宗親揖，爲首宗親答揖。宗親飲訖，司尊別監進立，受虛盞。宗親揖，爲首宗親答揖。司尊別監又以盞受酒，立進于爲首宗親，爲首宗親執盞揖進酒，宗親當受爵者答揖，執盞飲訖，司尊別監進立，受虛盞。宗親揖，爲首宗親答揖，次與諸宗親行酒竝如上儀訖。司尊別監以盞受酒，立進于爲首宗親，爲首宗親執盞揖，進于正使，正使答揖執盞飲訖，司尊別監進立，受虛盞。正使揖，爲首宗親答揖。司尊別監立進于正使，正使執盞揖，進于爲首宗親，爲首宗親答揖。司尊別監立進于正使，正使執盞揖，進于爲首宗親，爲首宗親答揖，執盞飲訖，司尊別監進立，受虛盞。爲首宗親揖，正使答揖。次與副使行禮，又如上儀訖，使者就座，宗親就座。樂止，司饗別坐二人對舉饌卓將進，樂作。爲首宗親就正使前進卓，【諸宗親從之。】司饗別坐助進，正使揖，宗親

고 읍(揖)하며 종친에게 술을 올린다. 술잔을 받은 자가 답읍(答揖)하고 잔을 잡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사준 별감이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 잔을 받는다. 종친이 읍(揖)하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읍(答揖)한다. 다음에 여러 종친들과 행주(行酒)하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사준 별감이 잔으로 술을 받아 가지고 서서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올린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잔을 잡고 읍(揖)하며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답읍(答揖)하고 잔을 잡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사준 별감이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 잔을 받는다. 정사가 읍(揖)하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읍(答揖)한다. 사준 별감이 서서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잔을 잡고 읍(揖)하며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올린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읍(答揖)하고 잔을 잡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사준 별감이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 잔을 받는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읍(揖)하면 정사가 답읍(答揖)한다. 다음에 부사와 행례(行禮)하고 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사자(使者)가 자리에 앉고, 종친도 자리에 앉는다. 음악을 그친다. 사옹 별좌(司饗別坐) 두 사람이 찬탁(饌卓)을 마주 들고 장차 올리려 하면, 음악을 시작한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정사 앞으로 나아가 찬탁을 올리는데, 【여러 종친이 따른다.】 사옹 별좌가 도와서 올린다. 정사가 읍(揖)하면 종친이 답읍(答揖)하고, 부사(副使) 앞에 나아가 찬탁을 올리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사자(使者)와 종친의 과탁(果卓)은 예빈시(禮賓寺)에서 먼저 자리앞에 설치하는데, 종친의 과탁은 찬탁(饌卓)에 겸한다.】 이를 마치면, 사자가 자리에 앉고, 종친도 자리에 앉는다. 음악을 그친다. 별시위(別侍衛)가 각기 화반(花盤)을 받들고 청외(廳外)에 나아가면, 음악을 시작한다. 나누어 사자와 종친 앞으로 나아가 꽃을 올린다. 【사자(使者)의 앞에서는 통사(通事)가 전(傳)하여 올린다.】 음악을 그친다. 다음에 종친이 두 번째 잔의 술을 올리는데, 【이후부터 종친이 차례로 행주(行酒)한다.】 첫째 잔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오직 술을 청하지 않으며, 술을 올릴 때마다 음악을 시작

答揖。就副使前進卓如上儀訖，【使者及宗親果卓，禮賓寺先設於座前。宗親果卓，兼設饌。】使者就座，宗親就座。樂止，別侍衛各捧花盤就廳外，樂作，分就使者及宗親前進花，【使者前，通事傳進。】樂止，次宗親。進第二盞酒，【自後，宗親以次行酒。】如第一盞儀。【唯不請酒。每進酒樂作，進訖樂止。】司饗別坐以空卓，各置於使者饌卓之右；別侍衛以空卓，各置於宗親卓右。司饗別坐二人各捧小膳，【每位二盤。】將進，樂作，爲首宗親就正使前進膳，【諸宗親從之。】別坐助進，正使揖，宗親答揖。就副使前進膳如上儀訖。宗親還就座前立，別侍衛各捧小膳以進，【每位一盤。】正使就宗親前進膳，【副使從之。】別侍衛助進，宗親揖，使者答揖。使者就座，宗親就座。司饗別坐分就使者前立割肉，別侍衛分就宗親前立割肉，舉箸訖，樂止。【饋廳內頭目及通事，其餘頭目，饋于別廳。第四盞後，饋歌者等。】酒行七遍，【每行酒後進湯】竝如前儀。進大饌，如進小膳儀。【唯不割。】司饗別坐及別侍衛

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음악을 그친다.】 사옹 별좌가 빈 탁자를 각각 사자(使者)의 찬탁(饌卓) 오른쪽에 놓고, 별시위(別侍衛)가 빈 탁자를 각각 종친의 탁자 오른쪽에 놓아둔다. 사옹 별좌 두 사람이 각각 소膳(小膳)을 받들어 【매위(每位)에 두 반(盤)씩이다.】 장차 올리려 하면, 음악을 시작한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정사(正使)앞으로 나아가서 선(膳)을 올리는데, 【여러 종친이 따른다.】 별좌(別坐)가 도와서 올린다. 정사가 읊(揖)하면, 종친이 답읍(答揖)한다. 그리고 부사(副使) 앞에 나아가서 선(膳)을 올리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종친이 돌아와서 자리 앞에 나아가 선다. 별시위가 각기 소膳(小膳)을 받들어 올리면, 【매위(每位)에 1반(盤)이다.】 정사가 종친 앞으로 나아가 선(膳)을 올리는데, 【부사(副使)가 따른다.】 별시위가 도와서 올린다. 종친이 읊(揖)하면, 사자(使者)가 답읍(答揖)한다. 사자가 자리에 앉고, 종친도 자리에 앉는다. 사옹 별좌가 나누어 사자 앞으로 나아가 서서 고기를 베고, 별시위가 나누어 종친 앞으로 나아가 서서 고기를 베어 저(箸)를 든다. 이를 마치면 음악을 그친다. 【청내(廳內)의 두목(頭目)과 통사(通事)를 먹이고, 그 나머지 두목은 별청(別廳)에서 먹인다. 네째 잔(盞) 뒤에 가자(歌者)들을 먹인다.】 행주(行酒)는 일곱 순배하는데, 【매양 행주(行酒)한 뒤에 탕(湯)을 올린다.】 모두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리고 나서 대선(大膳)을 올리기를 소膳(小膳)을 올리는 의식과 같이 한다. 【다만 고기를 베지 아니한다.】 사옹 별좌와 별시위가 각기 과반(果盤)을 받들고 나누어 매위(每位)에 나아가 서서, 장차 과반(果盤)을 올리려 하면, 음악을 시작한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행주(行酒)하기를 첫번 잔(盞)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오직 술을 청하지 아니한다.】 행주(行酒)가 끝나면 음악을 그친다. 종친이 나간다.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잔치하는 의식도 같은데, 오직 집사(執事)를 지인(知印)과 녹사(錄事)로써 시킨다.”

하였다.

各捧果盤，分就每位立，將進果盤，樂作，爲首宗親行酒如第一盞儀。【唯不請酒。】行酒畢，樂止，宗親出。議政府六曹宴儀同，唯執事，以知印錄事爲之。

8. 世宗 127卷, 32年
(1450 庚午 / 명 경태
(景泰) 1年) 閏1月 10
日(乙卯) 3번째기사
봉헌 대부 이완에게
명하여 황제 사물을
휘덕전에서 고제하게
하다

봉헌 대부(奉憲大夫) 이완(李完)에게 명하여, 황제 사물(皇帝賜物)을 휘덕전(輝德殿)에서 고제(告祭)하게 하였는데, <그 의식은>,
“3일 전에 헌관(獻官)과 제집사(諸執事)가 모두 2일 동안 산재(散齋)하고 1일 간 치재(致齋)한다. 1일 전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사물안(賜物案)을 지계문 밖 서쪽에 설치한다. 【내시가 사물(賜物)을 받들어 안(案)에 놓는다.】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의 자리를 동행랑[東廊] 남쪽 가까이 서향하여 마련하고, 감찰(監察)·전사관(典祀官)의 자리를 전문(殿門) 서쪽에 북향하여 마련하고, 【감찰은 서쪽에 있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모시게 한다.】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동계(東階) 서쪽에 서향하여 마련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고하는 날[告日] 행사(行事)하기 전에 궁위령(宮闈令)이 신악(神幄)을 정돈하여 털어내고,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축판(祝版)을 신위(神位) 오른쪽에 놓고, 【점(玷)이 있다.】 향로·향합과 축(燭)을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사물안(賜物案)을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를 설치하고 찬구(饌具)를 채운다. 준(尊)을 지계문 밖 왼쪽에 설치하되, 잔(盞) 3개를 준소(尊所)에 놓는다.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축시 전 5각은 곧 3점(點)이니, 행사는 축시 1각을 쓴다.】 궁위령이 신악(神幄)을 정돈하여 헐고,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찬구(饌具)를 채우기를 마친다. 찬인(贊引)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와서 진설(陳設)한 것을 보게 한다. 1각 전에 헌관과 여러 집사(執事)가 제복(祭服)을 갖추고,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간다. 알자·찬자·찬인이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서서 사배하기를 끝마치고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전사관(典祀官)·여러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殿庭)의 배위로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서면,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창하여, 감찰 이하가 몸을 굽혀 사배

命奉憲大夫李完, 以皇帝賜物告祭于輝德殿: “前三日, 獻官諸執事, 竝散齋二日。致齋一日。前一日, 殿司帥其屬, 掃除殿之內外, 設置賜物案於戶外之西。【內侍捧賜物, 置於案。】謁者設獻官位於東廊近南, 西向; 監察典祀官位於殿門之西, 北向; 【監察在西, 書吏陪其後。】謁者、贊者、贊引位於東階之西, 俱西向北上。告日未行事前, 宮闈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奠祝版於神位之右; 【有站。】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賜物案, 次設祭器, 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 置盞三於尊所。丑前五刻, 【卽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宮闈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實饌具畢, 贊引引監察升自東階, 點視陳設。前一刻, 獻官及諸執事具祭服盥洗訖, 皆就殿門外。謁者、贊者、贊引、先就拜位, 北向西上, 四拜訖就位。贊引引監察、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 重行西上。立定, 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 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 贊引引監察以下各就位。宮闈令開匱, 奉出神主, 設於

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贊引)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이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자리[座]에 모셔 놓고 청저포(靑苧布)를 덮고 궤(几)를 뒤에 놓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면,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창하여, 헌관이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대축(大祝)이 사물(賜物)을 받들고 들어와 안(案)에 올려 놓으면, 알자가 헌관은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와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執事者)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신주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아 홀(笏)을 쫓으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어 올린다. 알자가 ‘세 번 상향(上香)하라.’ 찬하여, 〈세 번 상향(上香)하면〉 집사자가 향로를 안(案) 위에 올려놓는다. 【봉향(奉香)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향로를 드리는 것은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잔을 올리고 잔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올리면 헌관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얹으라.’ 찬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고 끓어얹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라.’ 찬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아 홀을 쫓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올리면 헌관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坐，覆以靑苧布，設几於後。謁者引獻官入就位，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獻官鞠躬四拜興平身。【先拜者不拜。】大祝捧賜物入，置於案。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授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少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少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少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獻官鞠躬四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贊引引監察、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贊者唱鞠躬四

	<p>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례와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차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창(唱)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인이 감찰·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가 서게 한다.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감찰 이하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궁위령이 신주를 봉안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알자·찬자·찬인이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내시(內侍)는 사물(賜物)을 거두고 나가고, 대축은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전사관과 전사(典司)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지게문을 닫고 내려와서 물러간다.”</p> <p>고 하였다.</p>	<p>拜興平身， 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 贊引以次引出。 宮闈令納神主如儀。 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 內侍徹賜物出， 大祝捧祝板瘞於坎。 典祀官、殿司各率其屬， 徹禮饌， 闔戶以降乃退。”</p>
--	--	--